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Communal Folk Religion

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Communal Folk Religion

한국민속대백과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한국민속신앙사전 _ 마을신앙

발행일 2010년 11월 15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35(전화 02-3704-3230)

총괄 천진기(민속연구과장)
기획 · 진행 김창일(사전편찬팀장)
편수원 김혜경 백민영 이유나 조선영(민속연구과 연구원)

윤문 · 교열 · 교정 제1차 : 사전편찬팀
제2차 : 한국어문기자협회
제3차 : 황치영(교정전문가)
디자인 · 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056-10
ISBN 978-89-92128-96-4 94200
978-89-92128-58-2 94200(세트)

발간사

모든 마을신앙에서 바라는 것은 공동체에 해를 주는 액을 방지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것으로서 주민들이 수천 년의 세월동안 마을공동체를 지켜온 마을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전승되어오던 공동체신앙은 미신이나 구경거리 정도로 인식되고 있고,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속신앙편'에 이어 '마을신앙편'을 집대성한 전문백과사전을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우리 마을신앙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의 마을제당을 집대성한 〈한국의 마을제당〉시리즈와 각 지방의 장승과 솟대를 조사한 〈장승 · 솟대〉시리즈 그리고 정월대보름에 이뤄지는 전국의 마을제의 중 대표적인 제의를 선별해서 조사한 〈한국의 마을신앙 상 · 하〉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편' 1 · 2권을 발간함으로써 마을신앙 조사 · 연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을신앙 조사 ·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민속박물관은《한국민속대백과사전》편찬사업을 굳건히 하여 〈민속문학사전〉, 〈일생의례사전〉, 〈민속예술사전〉, 〈의식주생활사전〉, 〈생업기술사전〉, 〈민속사회사전〉을 순차적으로 발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환기와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을신앙편'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 자문위원, 감수위원, 윤문 · 교열 · 교정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을 비롯해서 도움을 준 우리 관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11월
국립민속박물관장 신 광 섭

발간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환기와 저변확대를 위하여《한국민속대백과사전》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제1주제인〈한국세시풍속사전〉5권이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되었고, 현재는 제2주제인〈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의 첫 번째 결실로 2009년에 '무속신앙편' 1 · 2권을 편찬하였고, 2010년 11월 마침내 '마을신앙편' 1 · 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마을신앙편'은 원고량 8,000여매, 사진 1,140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자료는 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사진자료에는 제목,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자를 기입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을신앙편'은 마을신앙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 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민속신앙을 전공한 108명의 집필진이 구성되어 원고를 작성하였다. 수합된 원고는 사전편찬팀과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어문기자협회, 원로 전문가에 의해 3차에 걸쳐 윤문 · 교열 · 교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필자의 검수를 받았다. 또한 마을신앙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지닌 5명의 학자로 구성된 감수위원에 의해 원고 감수가 이루어져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였다.

〈한국세시풍속사전〉의 경우 표제어 배열이 주제별+시기별+대 · 중 · 소항목을 조합한 방식이었다. 따라서 대 · 중 · 소항목별로 내용의 분량과 내용의 범위도 계층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은 세시풍속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표제어 원고 작성시 많은 제한이 따랐다.

따라서 민속신앙사전은 개별 표제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편찬방향을 잡았다. 이러한 방식은 표제어의 주제에 맞춰 기술하되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주변적인 사항도 함께 기술하여, 해당 표제어만으로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즉 내용의 분량과 범위를 계층화하지 않고 개별 표제어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마을신앙편 역시 무속신앙편과 마찬가지로 마을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제의, 제의장소, 신격, 신체, 제물, 제구, 자료, 용어로 나누어 455개의 표제어를 추출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 순으로 하였으며, 목차는 크게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를 병행하였다. 가나다 차례는 일반적인 사전 찾기 방식으로서 비교적 편리하게 표제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분야별 차례를 병행한 것은 '마을신앙편'의 특성을 살려 주제별 사전의 장점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분야별 차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마을신앙편'의 전체적인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독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가령 제물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분야별 차례를 통해 제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제어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백과사전의 특징인 참조와 학습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필자란에는 일반적으로 필자 성명과 소속만을 표기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필자가 작성한 표제어와 페이지를 기재하여 이를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마을신앙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상호참조(cross reference) 표시를 하여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강화했다. 상호연관성이 있는 정보의 연계는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민속신앙분야는 관련 항목의 중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관련표제어를 긴밀히 연관시키는 사전편집체계가 필요하다. 분야별 차례의 병기와 상호참조 표시의 강화는 '마을신앙편'에서 더 나아가〈한국민속신앙사전〉의 전문백과사전으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신앙사전은 무속신앙편, 마을신앙편, 가신 · 점복신앙편으로 구성된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라 함은『한국민속신앙사전』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2.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마을신앙과 관련된 모든 단어를 표제어의 범주에 포함시켜 표제어 추출 후 중요도, 조사 · 연구 성과물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3. 마을신앙은 지연(地緣)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풍요와 평안을 위해 행하는 신앙 행위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마을'이라 함은 소규모의 자연마을을 의미하지만, 이 사전에서는 군 · 현 단위의 고을까지 포함하였다. 또 '소도, 영고, 동맹, 무천'과 같이 마을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간으로서의 마을범주와 관련 없이 표제어에 포함시켰다. 단 마을신앙 중 무당이 주체가 되는 제의는 제외하였다(무속신앙편에 포함되었음).
4. 표제어는 제의, 제의장소, 신격, 신체, 제물, 제구, 자료, 용어의 8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1) 제　　의 : 마을공동체에 의한 제의 중 중요무형문화재,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표제어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의 마을제의나 지역사례의 마을제의는 특징, 규모, 전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2) 제의 장소 : 제의가 행해지는 공간 및 자연물 혹은 시설물로서 중요민속자료, 시 · 도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제의 장소는 표제어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사성과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의 장소는 표제어로 삼았다.
3) 신　　격 : 마을신앙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神) 중에서 선별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4) 신　　체 : 제의 혹은 제당에서 모셔지는 신격으로서 구체적인 형상물 중에서 선별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5) 제　　물 : 제의에서 제의 대상에게 바치는 것 중에서 선별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6) 제　　구 : 제의에 사용되는 도구 중에서 선별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7) 자　　료 : 마을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사적(史的),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헌, 문서, 현판, 화분 중에서 선별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8) 용　　어 :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마을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를 선별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표제어의 배열은 가나다 순으로 하였다.
2. 목차구성은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사전의 끝부분에는 집필별로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표제어 및 상호참조

1. 가표제어 :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어휘일 경우 대표형을 주표제어로 선정하고, 이외의 것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이런 경우 가표제어를 표제어와 같은 배열상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한 표제어로 이동을 유도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가표제어 표시 : (표제어) 원고가 있는 표제어로 페이지 이동
2. 상호참조 : 내용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 표제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참조 표시 : (상호참조) 관련성이 있는 표제어 간의 상호 참조

표기방법

1. 부호와 기호
   1) 맞춤법 및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국맞춤법통일안(1989년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1) 작은따옴표 ' ' :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하거나 유의어를 뜻풀이 할 때 표기하였다.
(2) 큰 따 옴 표 " " : 직접 인용의 내용에 표기하였다.
(3) 겹　낫　표 『 』 :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4) 낫　　표 「 」 : 작품이나 책의 하위장 제목 및 논문명, 현판 등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5) 대　괄　호〔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할 때 썼다.
(6) 소　괄　호(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표기하였다.
(7) 중　괄　호〈 〉: 민요, 무가, 설화 등을 지칭할 때 표기하였다.
(8) 줄 임 표 ……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9) 가 운 뎃 점 ·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할 때 표기하였다.
(10) 온　　점 .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표기하였다.
(11) 물　결　표 ~ : '내지'라는 뜻으로 나타낼 때와 생몰년 사이에 표기하였다.

   2) 한자와 한자어의 표기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쓰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 현실음에 따랐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할 수 있다.
   5) 도량형 · 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의한 부호를 단위 그대로 표기하였다.
2. 자료
   도표, 사진, 삽화, 지도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 등을 밝혔다.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필자가 어떤 표제어를 집필했는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 및 감수위원

1. 자문위원은 마을신앙의 특성상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강원도(장정룡), 서울 · 인천 · 경기(김지욱), 대전 · 충남(강성복), 충북(이창식), 부산 · 울산 · 경남(정상박), 대구 · 경북(이기태), 광주 · 전남(표인주), 전북(김월덕), 제주도(강정식), 국가고을단위(이욱)
2. 감수위원은 제의(김명자, 이기태), 제의장소 · 신격(나경수), 신체 · 자료(이필영), 제물 · 제구 · 용어(정상박)를 중심으로 원고 감수를 하였다.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가나다 차례

ㄱ

가야진용신제 22
강 25
강릉안인진해령사 25
강릉행깨마을고청제 28
강신 30
강진사문안석조상 32
강화교동도부군당제 34
강화교동도자신당 39
개 40
개양할미 41
거리제 43
거창거기리말무덤 45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 46
거창당동당산 47
거창대동마을액막이제 49
걸궁 51
걸립 51
걸립패 54
경산자인단오제 59
경순왕 64
계룡산산신제 64
고성석마리석마 69
고수레 70
고창사내리당산 70
고창오거리당산 71
고창오거리당산제 74
고창임리마을짐대당산제 77
고청제 81
곡성옥과성황당목조신상 82
골맥이 84
골맥이제 86
공민왕 88
공주고마나루웅진단 91
공주동해리산신제 92
공주동해리산향계문서 95
공주무성산산제당 97
공주부전대동계문서 99
공주상세동산신도 102
공주세동리산향계문서 104
공주탄천장승제 106
공하 110
광주엄미리장승제 111
광주칠석동당산제 112
괴산문당리성황단 114
구례구산리입석 115
국사당 116
국사당제 119
권전 122
그물코사 123
금기 123
금산농바우끄시기 125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130
금산천내리용호석 131
금산청징연기우제당 133
금줄 135
금토 137
기고사 137
기우제 138
기우제등록 143
길지 145
김부대왕 149
김제월촌입석 150

ㄴ

나주용진당제 156
남양주덕릉마을산신각 158
남양주팔현마을산신당 160
남원삼동굿 162
남원서천리당산 166
남해가천암수바위 167
남해물건리동제 168
노고할미 172
노신제 172
논공천왕당 172
논산반곡리산신제 173
논산부인당산제 178
논산양암동계문서 182
논산주곡리장승제 182
논산후동동계문서 185
농기 186
농포신 190
농포제 190

ㄷ

다자구할머니 194
단양두악산소금무지제 · 기우제 195
닭 200
당기 201
당산 203
당산나무 203
당산옷입히기 205
당산제 209
당신화 212
대덕법동리석장승 214
대동회 215
대전계족산기우제 217
대전무수동국사봉 219
대전무수동동계문서 220
대전무수동산신제 222
대전외삼동산신제 224
도가 226
도깨비제 227
도당신 229
돈지할망 232
돈짓당신 233
돌탑 233
돌하르방 236
동답 237
동맹 237
동사 238
동제계 239
동제홀기 240
동티 242
동해대진동도신제 · 재고사 242
동해동호동천제단 244
동해동호동천제단제 247
동해봉정마을고청제 250
동해신흥동도서낭제 252
동해어달동서낭제 · 해성제 255
동화대 257
돼지 259
둑제당 260
디딜방아 261
디딜방아뱅이 264
뒤주대왕 266
떡 266
띠배 269

ㅁ

마고할미 274
마당밟이 274
마련방 274
마을돌기 275
마제 276
마중시루 278
말축굿 279
망제 279
망지 281
매당왕신 282
메 284
메밀 285
모포줄 285
목제남근 288
목축신 289
무안발산마을미륵당산 289
무주고혼 291
무주내창마을산제 293
무천 296
무후제 296
문경성저리동제 296
문경소야리동제 299
미륵당 301

ㅂ

반기 306
밥무덤 308
백지 313
뱃기 313
뱅이 315
벅수 315
벅수제 315
벗가릿대 315
벗가리제 318
보령외연도당제 321
보령외연도전횡장군사당 324
보성당촌별신당 326
보성당촌별신당제 328
봉죽기 332
봉지밥 332
부군당 332
부군당제 336
부락제 340
부산강선대당산 342
부산당리동제석할매당 346
부산대리당산 348
부산두호마을당제 351
부산수내리고당할미당 353
부산수영할매당 354
부산신선동산제당 · 아씨당 357
부산청사포당산 360
부안돌모산당산제 363
부안동문안당산 366
부안서문안당산 369
부안죽림리석장승 372
부여괴목마을노신제 375
부여내지리단잡기 377
부여포사마을산신제 380
부정 383
부천깊은구지도당제 386
불막이제 388
불밝이쌀 390
불백기 393
비보 393
뼈매달기 395

ㅅ

사도세자 400
사천가산리석장승 401
산막 403
산신 403
산신당 405
산신제 408
삼국지위서동이전 410
삼성혈 411
삼성혈제 415
삼척신남마을해신제 420
삼척한두골용소 427
삼척호산리서낭제 429
상주천봉산성황제 433
샘제 435
생기복덕 438
생떡국 440
서낭당 440
서낭신 445
서낭제 446
서산옥녀제 451
서산차리산제 454
서산창리영신제 456
서울가양동성황제 459
서울당인동부군당제 461
서울도곡동도당제 463
서울동빙고동부군당제 464
서울부암동산신제 467
서울서빙고동부군당 469
서울서빙고동부군당제 470
서울신기리도당제 473
서울신수동복개당화분 474
서천마량리당제 478
석전 · 기우 · 안택 481
석척기우 484
선돌 485
선문대할망 486
설문대할망 486
성제묘 487
성제묘관우제사 489
성황제 491
소 493
소금단지 495
소도 497
소지 498
손돌제 501
솟대 505
솟대제 508
송징장군 511
송천달집태우기 513
쇠말 517
수구맥이 517
수원영동거북산당 520
순창산동리남근석 523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524
순창성황제 528
순창창덕리남근석 530
순천구산용수제 531
신대 532
신벌 537
신위 537
안동가송리동제 592
안동서지리성황당 596
안동하회동동제 597
안성아롱개마을미륵댕이 600
액 603
액매기 605
양양동해신묘지 608
양양임천리서낭제 610
양양죽정자리서낭제 611
여귀 615
여수영당지 616
여수화산마을당제 618
여제 621
여제등록 623
연기원수산산신제문서 624
연기학봉마을기고사 627
영고 629
영광도동리석장승 631
영광법성포단오제 632
영광안마도당제 635
영광우평마을당산제 638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642
영암남해당지 644
영암정동정호제 645
영월영모전 647
영주읍내리성황제 649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 656
영천자천리오리장림 660
영험담 661
예산대흥소도독사 663
예산운산2리산신제 665
예천작평마을서낭제 669
오방돌리기 670
오방제 671
오색천 673
오온신제 673
오쟁이 675
옥천청마리제신탑 676
완도어두마을갯제 677
완도예송리당산 680
완도장좌리당제 681
완주고당리고당 686
용기 688
용수동당산 688
용신제 689
용왕제 689
용인상하동할미지석제 691
우물제 693
우불산신사 693
우실 696
울릉해신제 697
울주방기리알바위 701
울진12령새재성황사 703
울진개바우마을동제문서 707
원귀 712
원주강원감영제 712
원주강원감영지 713
원주원성성남리성황림 715
월악산신제 716
위토 718
위패 718
유가돌기 718
유천동산신제 718

음복 722
음성마송리석장승 723
이사제 724
이천정개산산신제 724
인구전 727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727
일산동당제 729
임실구암리도깨비제 732
임실사곡리남근석 733
입석 734
입향시조 734

자

잡귀 738
장동산디마을탑제 740
장산마고당 · 천제당 743
장성생촌마을당산제 746
장성영천리방울샘 749
장승 750
장승제 756
장흥방촌리석장승 761
장흥호계리동계문서 764
장흥호계리별신제 767
전횡장군 770
정읍백암리남근석 772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773
정읍원정마을당산제 776
정화 778
제관 781
제수물목기 781
제웅 784
제주(祭主) 786
제주(祭酒) 786
제주골왓마을방사탑 788
제주납읍리마을제 790
제주납읍리포제단 792
제주몰래물마을방사탑 793
제주무릉2리평지동포제 794
제주무릉리방사탑 797
제주복신미륵 800
제주상귀리당제 801
제주성읍리포제 802
제주쇠당의례 804
제주신촌리포제 805
제주신흥리방사탑 808
제주신흥리포제 810
제주어음리비멘이당제 812
제주온평리포제 814
제주용수마을방사탑 816
제주인성리거욱대 817
제주제석제 820
제주제충제 821
제주최영장군사당 822
제주추자도천제 · 장군제 823
제주풍해방지의례 826
제주해신사 828
제주해신제 828
제주행원리포제 832
제주회천동석불제 834
제천면산산신제 835
제천오티별신제 839
제천입석리선돌 844
조라 845
주부 845
주저리 846
죽령산신 848
죽령산신당 848
죽령산신제 849
죽령산신제문서 851
증평남차리수살제 852
지리산남악사 855
지벌 856
지신밟기 859
진도수역마을충제 863
진도해창마을당제 865
진주명석자웅석 867
짐대 869
짐대제 869
짚말 869
짚장군 871

차

참신 876
창귀 876
창호지 877
천군 878
천상제 878
천왕메기 879
철마 881
청단일 882
청도비동당제 883
청양정산동화제 885
청양청소리산신제문서 891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 893
청주선도산장승제 895
축문 898
충제 899
충주목계별신제 901
치성비요 905
침호두 908

카

칼판고사 912
키 912

탑

탑제 916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문서 918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 921
태백산천제 925
태백산천제단 932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938
태백황연동유령제 941
터줏가리 943
테우리신 943
통북어 945
통영문화동벅수 945
통영삼덕리마을제당 946
통영최영장군사당 950
퇴송 950

파

편탕 954
포신 954
포제 954
포제단 957
포항북송리북천수 961
피막 961

하

하기 964
하로산또 964
한라산신 966
한라산신제 966
할배까꾸재 969
함평수문리불막이제 971
해남소죽마을중구제 974
해남평암마을도제 977
해동성적지 979
해막 980
해물리기 981
허수아비 983
헌관 983
헌식 984
헌작 987
헛배 989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 989
홍성백월산홍가신제 991
홍성성호리제각창건기 994
홍성성호신당상량문 · 중수기 996
홍성수룡동당제 998
홍성옹암리당산제 1006
홍성장촌마을산신제 1009
화룡제 1011
화재막이 1012
황토 1012
흑산도진리당 1013
희생제물 1016

색인 540/1022
필자 562/1044

분야별 차례

제의

가야진용신제 22
강릉행깨마을고청제 28
강화교동도부군당제 34
거리제 43
거창대동마을액막이제 49
경산자인단오제 59
계룡산산신제 64
고창오거리당산제 74
고창임리마을짐대당산제 77
고청제 81
골맥이제 86
공주동해리산신제 92
공주탄천장승제 106
광주엄미리장승제 111
광주칠석동당산제 112
국사당제 119
그물코사 123
금산농바우끄시기 125
기고사 137
기우제 138
나주용진당제 156
남원삼동굿 162
남해물건리동제 168
노신제 172
논산반곡리산신제 173
논산부인당산제 178
논산주곡리장승제 182
농포제 190
단양두악산소금무지제 · 기우제 195
당산제 209

대전계족산기우제 217
대전무수동산신제 222
대전외삼동산신제 224
도깨비제 227
동맹 237
동해대진동도신제 · 재고사 242
동해동호동천제단제 247
동해봉정마을고청제 250
동해신흥동도서낭제 252
동해어달동서낭제 · 해성제 255
디딜방아뱅이 264
마당밟이 274
마을돌기 275
마제 276
마중시루 278
말축굿 279
망제 279
무주내창마을산제 293
무천 296
무후제 296
문경성저리동제 296
문경소야리동제 299
벅수제 315
볏가리제 318
보령외연도당제 321
보성당촌별신당제 328
부군당제 336
부산두호마을당제 351
부안돌모산당산제 363
부여괴목마을노신제 375
부여내지리단잡기 377
부여포사마을산신제 380
부천깊은구지도당제 386
불막이제 388
산신제 408
삼성혈제 415
삼척신남마을해신제 420
삼척호산리서낭제 429
상주천봉산성황제 433
샘제 435
서낭제 446
서산옥녀제 451

서산차리산제 454
서산창리영신제 456
서울가양동성황제 459
서울당인동부군당제 461
서울도곡동도당제 463
서울동빙고동부군당제 464
서울부암동산신제 467
서울서빙고동부군당제 470
서울신기리도당제 473
서천마량리당제 478
석척기우 484
성제묘관우제사 489
성황제 491
손돌제 501
솟대제 508
송천달집태우기 513
순창성황제 528
순천구산용수제 531
안동가송리동제 592
안동하회동동제 597
양양임천리서낭제 610
양양죽정자리서낭제 611
여수화산마을당제 618
여제 621
연기학봉마을기고사 627
영고 629
영광법성포단오제 632
영광안마도당제 635
영광우평마을당산제 638
영암정동정호제 645
영주읍내리성황제 649
예산운산2리산신제 665
예천작평마을서낭제 669
오방돌리기 670
오방제 671
오온신제 673
완도어두마을갯제 677
완도장좌리당제 681
용신제 689
용왕제 689
용인상하동할미지석제 691
우물제 693
울릉해신제 697
원주강원감영제 712
월악산신제 716
유가돌기 718
유천동산신제 718
이사제 724
이천정개산산신제 724
일산동당제 729
임실구암리도깨비제 732
장동산디마을탑제 740
장성생촌마을당산제 746
장승제 756
장흥호계리별신제 767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773
정읍원정마을당산제 776
제주납읍리마을제 790
제주무릉2리평지동포제 794
제주상귀리당제 801
제주성읍리포제 802
제주쇠당의례 804
제주신촌리포제 805
제주신흥리포제 810
제주어음리비멘이당제 812
제주온평리포제 814
제주제석제 820
제주제충제 821
제주추자도천제 · 장군제 823
제주풍해방지의례 826
제주해신제 828
제주행원리포제 832
제주회천동석불제 834
제천면산산신제 835
제천오티별신제 839
죽령산신제 849
증평남차리수살제 852
지신밟기 859
진도수역마을충제 863
진도해창마을당제 865
짐대제 869
천상제 878
천왕메기 879
청도비동당제 883

청양정산동화제 885
청주선도산장승제 895
충제 899
충주목계별신제 901
침호두 908
칼판고사 912
탑제 916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 921
태백산천제 925
태백황연동유령제 941
포제 954
한라산신제 966
함평수문리불막이제 971
해남소죽마을중구제 974
해남평암마을도제 977
해물리기 981
홍성백월산홍가신제 991
홍성수룡동당제 998
홍성옹암리당산제 1006
홍성장촌마을산신제 1009
화룡제 1011
화재막이 1012

제의장소

강릉안인진해령사 25
강화교동도자신당 39
거창거기리말무덤 45
거창당동당산 47
공주고마나루웅진단 91
공주무성산산제당 97
괴산문당리성황단 114
국사당 116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130
금산청징연기우제당 133
남양주덕릉마을산신각 158
남양주팔현마을산신당 160
남원서천리당산 166
논공천왕당 172
대전무수동국사봉 219
동해동호동천제단 244
둑제당 260
미륵당 301
보령외연도전횡장군사당 324
보성당촌별신당 326
부군당 332
부산강선대당산 342
부산당리동제석할매당 346
부산대리당산 348
부산수내리고당할미당 353
부산수영할매당 354
부산신선동산제당 · 아씨당 357
부산청사포당산 360
산신당 405
삼성혈 411
삼척한두골용소 427
서낭당 440
서울서빙고동부군당 469
성제묘 487
소도 497
수원영동거북산당 520
안동서지리성황당 596
양양동해신묘지 608
여수영당지 616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642
영암남해당지 644
영월영모전 647
영천자천리오리장림 660
예산대흥소도독사 663
완도예송리당산 680
완주고당리고당 686
용수동당산 688
우불산신사 693
울진12령새재성황사 703
원주강원감영지 713
원주원성성남리성황림 715
장산마고당 · 천제당 743
장성영천리방울샘 749
제주납읍리포제단 792
제주최영장군사당 822
제주해신사 828
죽령산신당 848
지리산남악사 855

태백산천제단 932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938
통영삼덕리마을제당 946
통영최영장군사당 950
포제단 957
포항북송리북천수 961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 989
흑산도진리당 1013

신격

개양할미 41
경순왕 64
골맥이 84
공민왕 88
권전 122
김부대왕 149
노고할미 172
농포신 190
다자구할머니 194
도당신 229
돈지할망 232
돈짓당신 233
뒤주대왕 266
마고할미 274
매당왕신 282
목축신 289
무주고혼 291
사도세자 400
산신 403
서낭신 445
선문대할망 486
설문대할망 486
송징장군 511
수구맥이 517
여귀 615
원귀 712
입향시조 734
잡귀 738
전횡장군 770
죽령산신 848

창귀 876
테우리신 943
포신 954
하로산또 964
한라산신 966

신체

강진사문안석조상 32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 46
고성석마리석마 69
고창사내리당산 70
고창오거리당산 71
곡성옥과성황당목조신상 82
구례구산리입석 115
금산천내리용호석 131
김제월촌입석 150
남해가천암수바위 167
당산나무 203
대덕법동리석장승 214
돌탑 233
돌하르방 236
모포줄 285
무안발산마을미륵당산 289
벅수 315
부안동문안당산 366
부안서문안당산 369
부안죽림리석장승 372
사천가산리석장승 401
선돌 485
솟대 505
쇠말 517
순창산동리남근석 523
순창창덕리남근석 530
신위 537
안성아롱개마을미륵댕이 600
영광도동리석장승 631
옥천청마리제신탑 676
울주방기리알바위 701
위패 718
음성마송리석장승 723

임실사곡리남근석 733
입석 734
장승 750
장흥방촌리석장승 761
정읍백암리남근석 772
제주골왓마을방사탑 788
제주몰래물마을방사탑 793
제주무릉리방사탑 797
제주복신미륵 800
제주신흥리방사탑 808
제주용수마을방사탑 816
제주인성리거욱대 817
제천입석리선돌 844
진주명석자웅석 867
짐대 869
철마 881
통영문화동벅수 945
할배까꾸재 969

제물

개 40
닭 200
돼지 259
떡 266
메 284
메밀 285
목제남근 288
백지 313
봉지밥 332
불밝이쌀 390
불백기 393
뼈매달기 395
생떡국 440
소 493
오색천 673
제주 786
조라 845
창호지 877
통북어 945
편탕 954

제구

금줄 135
금토 137
길지 145
농기 186
당기 201
동제홀기 240
동화대 257
디딜방아 261
띠배 269
뱃기 313
볏가릿대 315
봉죽기 332
소금단지 495
신대 532
액매기 605
오쟁이 675
용기 688
제수물목기 781
제웅 784
주저리 846
짚말 869
짚장군 871
축문 898
키 912
터줏가리 943
허수아비 983
헛배 989
황토 1012

자료

공주동해리산향계문서 95
공주부전대동계문서 99
공주상세동산신도 102
공주세동리산향계문서 104
기우제등록 143
논산양암동계문서 182
논산후동동계문서 185
대전무수동동계문서 220

부락제 340
삼국지위서동이전 410
서울신수동복개당화분 474
석전 · 기우 · 안택 481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524
여제등록 623
연기원수산산신제문서 624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 656
울진개바우마을동제문서 707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727
장흥호계리동계문서 764
죽령산신제문서 851
청양청소리산신제문서 891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 893
치성비요 905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문서 918
해동성적지 979
홍성성호리제각창건기 994
홍성성호신당상량문 · 중수기 996

용어

강 25
강신 30
걸궁 51
걸립 51
걸립패 54
고수레 70
공하 110
금기 123
당산 203
당산옷입히기 205
당신화 212
대동회 215
도가 226
동답 237
동사 238
동제계 239
동티 242
마련방 274
망지 281

반기 306
밥무덤 308
뱅이 315
부정 383
비보 393
산막 403
생기복덕 438
소지 498
신벌 537
액 603
영험담 661
우실 696
위토 718
음복 722
인구전 727
정화 778
제관 781
제주 786
주부 845
지벌 856
참신 876
천군 878
청단일 882
퇴송 950
피막 961
하기 964
해막 980
헌관 983
헌식 984
헌작 987
희생제물 1016

색인 540/1022
필자 562/1044

제의

가야진용신제
강릉행깨마을고청제
강화교동도부군당제
거리제
거창대동마을액막이제
경산자인단오제
계룡산산신제
고창오거리당산제
고청제
골맥이제
공주동해리산신제
공주탄천장승제
광주엄미리장승제
광주칠석동당산제
국사당제
그물코사
금산농바우끄시기
기고사
기우제

제의장소

강릉안인진해령사
강화교동도자신당
거창거기리말무덤
거창당동당산
공주고마나루웅진단
공주무성산산제당
괴산문당리성황단
국사당
금산진악산물물붕기우제당
금산청징연기우제당

신격

개양할미
경순왕
골맥이
공민왕
권전
김부대왕

가야진용신제
강
강릉안인진해령사
강릉행깨마을고청제
강신
강진사문안석조상
강화교동도부군당제
강화교동도자신당
개
개양할미
거리제
거창거기리말무덤
거창농산리입석을각선인상
거창당동당산
거창대동마을액막이제
걸궁

ㄱ

걸립
걸립패
경산자인단오제
경순왕
계룡산산신제
고성석마리석마
고수레
고창사내리당산
고창오거리당산
고청오거리당산제
고창임리마을짐대당산제
고청제
곡성옥과성황당목조신상
골맥이
골맥이제
공민왕
공주고마나루웅진단
공주동해리산신제
공주동해리산항계문서
공주무성산산제당
공주부전대동계문서
공주상세동산신도
공주세동리산항계문서
공주탄천장승제
공하
광주엄미리장승제
광주칠석동당산제
괴산문당리성황단
구례구산리입석
국사당
그물코사
금기
금산농바우끄시기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금산천내리용호석
금산청징연기우제당
금줄
금토
기고사
기우제
기우제등록
길지
김부대왕
김제월촌입석

신체

강진사문안석조상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
고성석마리석마
고창사내리당산
고창오거리당산
곡성옥과성황당 목조신상
구례구산리입석
금산천내리용호석
김제월촌입석

제물

개

제구

금줄
금토
길지

자료

공주동해리산항계문서
공주부전대동계문서
공주상세동산신도
공주세동리산항계문서
기우제등록

용어

금기
공하
고수레
걸립
걸립패
걸궁
강신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에서 매년 음력 3월 초정일(初丁日)에 가야진(伽倻津)의 용신(龍神)에게 올리는 의례. 1997년 1월 30일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는 신라시대 초기부터 전해 오는 국가적 제사의식의 하나라고 한다. 신라의 종묘는 제2대 남해왕이 설립한 3월 봄에 시조대왕 혁거세의 묘당을 세워 친누이로 하여금 치제(致祭)케 한 것이 시초가 된다. 이는 대사·중사·소사로 나뉘었으며, 가야진용신제는 중사이다. 중사는 제후가 왕명을 받들어 명산대천에서 올리던 제사로, 오악(산신)·사해(해신)·사진(지신)·사독(천신)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가야진용신제는 사독에 해당된다. '사독'은 서라벌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위치한 토지하(흥해)·웅천하(공주)·황산하(양산)·한산하(서울)를 일컫는 것으로, 천신제와 풍년기원제를 담당하였으나 지금은 유일하게 가야진사만 남아 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가야진용신제는 일제강점기 때 큰 홍수로 인해 사당이 헐리고 일제에 의해 용신제를 금지당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하지만 이장백(1914~1998)을 위시한 용당리 당곡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 천태산 비석골에 사당을 모시고, 밤중에 지게를 지고 제수를 운반하여 제사를 모시며 명맥을 이었다.

광복 이후 현 위치로 다시 옮겨와 1983년 12월 20일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 대대적으로 복원정비 공사를 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사당 내부를 보면 북쪽을 향해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세 마리의 용 그림이 있다. 삼룡신을 모신다고 하여 세 마리의 용 그림이 있는 것이다. 용 그림의 역사에 대해서는 미처 조사를 하지 못했다. 제단 위에는 신위가 있고, 신위에는 '가야진지신위(伽倻津之神位)'라고 금색으로 쓰여 있다.

원래 사당이 있는 터는 옛날 신라가 가야를 정벌하기 위해 배를 대고 왕래하던 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일명 '옥지주(玉池洲)'라고도 불렸다. 복원 전의 사당은 1406년(태종 6)에 지었다고 전해진다.

'가야진용신제'는 1995년 제27회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1997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예능보유자이던 이장백이 1998년 작고하는 바람에 이후 후보자 한 명과 조교 세 명이 중심이 되어 매년 음력 삼월 초정일에 제를 올리며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 예능보유자 인정심사가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0년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이것을 양산문화원 주관으로 전환하고 보존회의 명칭도 무형과 유형을 포괄하여 '가야진 보존회'라 개칭하였다. 2004년 4월 28일 제8회 가야진용신제 심사 결과 보유자 한 명, 후보자 두 명, 조교 한 명이 각각 승격 인정되었다.

내용 가야진용신제의 제례 구성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순서를 보면 부정가시기-칙사영접-용신제-용소풀이-사신으로 행해진다.

부정가시기는 용신제가 있기 사흘 전부터 제관들이 목욕재계하고 제당 주변을 청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사 당일 오전에 풍물패가 사당 안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 자, 여러분, 오늘 가야진용신제를 지내려고 하니
> 먼저 도란개를 치고 부정을 가시도록 합시다.
>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득청량
> 삼세서방 구정토 사세북방 영안감
> 삼보천룡 강차지 아금지송 묘진언
> 원사자비 밀가호 아석소조 제악업
> 가유무시 참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 일체아금 개참회 등동산하야 마은혜하고
> 유일영호대 삼도구즉이면 조색세끼 모색팔백으로
> 유유미육하야 당하자는 사하고 사하자는 피하나니라
> 여기여기야 속히 친리하고
> 원거만리하야 오흠급겁 여율영사하바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비석골, 2005.4.12, 김석진

칙사 영접

사당에 도착한 칙사

용신제

가야진사 용신도와 제물진설

희생제물 낙동강으로 옮기기

희생제물 바치기

밖으로 나와서는 또 한 번 노래를 한다. 이때 가사는 다음과 같다.

신이시여 강림하소서
천상옥경 천조신양
천옥경 태월신양
임오명당 호초신양
오방신양님께서 강림하지
그저 따라들고 묻어든 잡귀잡신을
썩 물러 주옵소서 허세~ 허세~
영험하신 용신님께서는 잡귀잡신을
다 물리고 정성을 다하였으니
제당에 들어 자가자중 하옵소서

부정가시기가 끝나면 칙사를 영접한다. 풍물패는 칙사를 영접하기 위해 길을 닦는 시늉을 한다. 이때도 노래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용당마을 장정들아 가야진사 역사 가세
길을 닦자 길을 닦자 가야진사 길을 닦자
목괭이로 땅을 파고 나무가래 땅 고르고
망깨로서 다져보세 천년만년 다하도록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이 말라 내 죽겠네
잠시 목 좀 축이고 하세
자 잠시 쉬고 목을 축였으니 길닦기 마무리하도록 하세
금년같이 가뭄날에 칙사님을 모셔다가
용신제를 지내보세 영험하신 용왕님이
비를 내려 주실지는 어렵고도 힘들어도
칙사님이 오실 길을 정성 다해 길을 닦자
자 여러분 길닦기가 마무리되었으니
돌아가 칙사님을 모시러 가세

길닦기가 끝나면 칙사를 영접한다. 칙사는 양산시장으로 미리 사당 동쪽 50m 떨어진 곳에 설치한 텐트 안에 앉아 있다. 제사의 집례관 등과 풍물패가 가마에 태워 사당으로 모시고 온다.

사당 입구에서 가마에 내린 후 칙사는 동문을 통과하여 사당으로 들어온다. 칙사가 사당으로 들어가자 집례관이 칙사의 입실을 고한다. 이때 그동안 울리던 풍물 음악은 멈추고 스피커를 통해 유교식 음악이 나오기 시작한다. 칙사가 가야진사 내부로 들어가

가야진사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비석골
2005.4.12, 김석진

에를 표하고 곧바로 용신제가 시작된다. 사당 안에서 분향례 · 헌작례 · 음복례를 하고, 사당 밖에서 망료례(望燎禮)를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제물은 모두 익히지 않은 것으로 쓰는데, 가야진지신의 위패 앞 첫째 줄에는 왼쪽부터 기장 · 쌀 · 수수, 둘째 줄에는 조기 · 육회 · 돼지머리 · 고기포 · 육포, 셋째 줄에는 미나리 · 무 · 겉밤 · 대추를 각각 차린다. 넷째 줄에는 술잔 세 개를 얹어 놓는다. 술잔 세 개를 얹어 놓는 것은 세 용신을 봉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신제가 끝나면 제관들은 삶은 돼지를 들것에 싣고 낙동강으로 간다. 강변에 도착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송막(불집)' 앞에 모인다. 높이가 3m 정도인 이것은 소나무가지 등을 겹겹이 쌓아 만든다. 여기에 풍물패가 신고 온 짚신 등을 모아 불을 지른다. 이때 칙사와 대축, 집례, 사령과 함께 돼지를 배에 싣고선 강으로 나간다. 행사 진행자는 이것을 보고 "비 온다!"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한다.

강 건너 바위섬에 거의 다다르면 칙사는 강물에 헌작하고 두 번 절을 한 다음 "용신님, 이 희생을 바치오니 부디 흠향하소서"하며 "침하돈, 침하돈, 침하돈" 하고 외치고 나서 돼지를 강물에 던진다. 돼지가 잘 가라앉으라고 돼지에 벽돌을 줄로 매달아서 던진다. 강둑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이 순간 크게 풍물을 울리며 "비 온다"라고 소리친다.

돼지를 제물로 바치면 사람들은 다시 사당으로 춤을 추면서 돌아온다. 사당 주변에서 상을 깔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한바탕 가무를 즐기면 제사가 끝난다.

참고문헌 한국세시풍속사전–봄(국립민속박물관, 2005), 민속박물관 사람들의 세시풍속현장조사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8).

필자 이건욱(李健昱)

강(講)

정의 제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관들이 제의를 연습하는 것.

내용 제의를 앞두고 마을회의를 열어 제관과 집사를 선정한다. 제관과 집사는 당해 연도의 생기를 보아 선정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제관과 집사로 선정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은 제의를 처음 접함으로써 제의 진행 중에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연습을 하는 것을 강(講)이라고 한다. 제관과 집사의 역할을 분방해 놓은 것을 동해시 옛 북평읍 지역에서는 마련방(磨鍊榜, 磨練榜)이라고 한다. 제관 등은 마련방에 나와 있는 역할을 연습하며 이를 '마련방 강'이라고도 부른다. 시중의 동해시 관련 문헌을 보면, 이를 잘못 오해하여 '마름방 관'이라고 쓰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강은 강원도 동해시 옛 북평읍 일원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강을 제대로 하고 있는 마을은 실제로 많지 않다.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제관 숫자를 채우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을 하고 있는 동해시 송정동, 봉정동, 신흥동 등 지역은 주목할 만하다. 신흥동은 특히 강을 할 때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연습 도중에 실수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서낭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꺼이 벌금을 낸다. 사실 제관이 된 이들은 제관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실수를 하지 않아도 때로 벌금을 낸다. 이런 경우 벌금이라기보다 찬조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동해시 서낭제(이한길, 민속원, 2010).

필자 이한길(李漢吉)

강릉안인진해령사 (江陵安仁津海靈祠)

정의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安仁津) 포구마을에서 어민들이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당.

어원 해령사(海靈祠)는 '바다신령의 사당'이라는 뜻이며 여랑사(女娘祠), 해랑당(海娘堂), 액신사(厄神祠) 등으로도 불린다.

역사 해령사 제의는 1500~1600년부터 행해졌다고 전해진다. 동해안 어촌마을의 풍요기원과 재액방지의 여신제의로서 남근 봉헌과 함께 전승되었으나 현재는 주민들이 제사만 지낸다. 제의와 목조남근 봉헌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도 조사되었다. 이후 1944년 최상수, 1962년 최선만, 1970~1980년대 김선풍 · 임석재 · 김경남 · 장정룡 등의 조사에서도 이곳 제의가 확인되고 아울러 다양한 화소의 설화가 채록되었다. 1933년에 간행된 강릉향토지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를 보면 해상(海商) 중심으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이며 이곳에서 빌었다는 언급으로 보면 해로상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형태의 당제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의 안인진 현장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 어떤 미녀가 그네에서 실족하여 바다에 떨어져 숨졌다. 미녀의 영혼이 마을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소원하자 작은 사당을 짓고 나무로 남자의 성기를 만들어 걸어 놓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음사(陰祠)가 창건됨으로 이후에 재앙이 없어지고, 어획량이 크게 증대하여 지금까지 성기를 걸어 놓고 복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이후 1944년 현지조사 자료와 1960년대 자료가 있다. 또 1967년 9월 21일자 「중앙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곳에 파견된 군부대의 잦은 사고 원인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아'

안인진해령사 국립민속박물관

발생하였다는 주장과 '미신'이라는 지휘관들의 설전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마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현지주민 이태근(1940년생)에 따르면 해마다 정월대보름과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해랑사에서 나무로 신(腎)을 실물 크기로 깎아서 황토를 바른 다음 천장에 매달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장 김모의 부인이 실성이 되어 설악산 김대부신과 해랑이 결혼했다고 말하여 마을에서 김대부신과 해랑의 결혼식을 치렀더니 부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현재는 별도로 남근 봉헌을 하지 않고 향나무 남근만 해랑지신과 김대부지신의 화상 옆에 세워 놓았다. 안인진해령사 제의는 목각남근을 바치는 성징(性徵)봉헌형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전승집단의 의식과 설화를 담보하고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형태 1500년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해령봉(海靈峰)'이라고 기록된 이곳에는 '해랑사'와 봉수대가 있었다. 안인진 포구를 내려다보는 야트막한 봉우리 정상에 세워진 해령사는 사방 1m 안팎의 기와 한 칸 한옥으로, 주변은 낮게 돌담을 돌려 쌓았다. 1930년대 이곳 해랑신과 김대부신을 합배한 이후 '해랑지신위(海娘之神位)'와 '김대부지신위(金大夫之神位)'라고 쓴 위패를 세워 놓았다. 무속인 단체에서 머리를 땋고 녹의홍상을 한 해랑신과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김대부신의 모습을 그린 화상을 걸어 놓았으며, 남근 봉헌은 현재 행하지 않는다. 안인진 마을 제당은 봉화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두 칸의 성황당과 봉화산 정상에 대관령을 향해 있는 한 칸의 해령사 두 곳이다. 봉화산 중턱의 성황당은 토지신, 성황신, 여역신 등 세 신위를 모시고 정월대보름과 중양절에 제를 지내고 있다. 해령사는 음력 2월 초에 해랑신과 김대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해령사 제의는 음력 정월대보름과 중양절 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봄철에만 도가에서 택일하여 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오 때 이곳에서 굿을 하기도 하였다. 사방 1m 정도의 좁은 제당 내부 사정상 제단 위에 주과포, 메 등을 비교적 간단하게 차린다. 제사를 주관하는 어촌계장 및 이장 등 제관들은 철저히 금기를 지킨다. 이곳은 동해안의 군사보호 구역인 관계로 군부대의 허가를 얻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제의 진행은 먼저 제물을 정성껏 차린 다음 가지고 온 술을 올리고 두 번 절 한다. 제물은 그해 처음 잡은 어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잘 말렸다가 쪄서 사용하고 메와 떡, 탕과 나물을 놓는다. 제관이 과거에는 도포를 입었으나 지금은 일상복을 깨끗하게 입는다. 축문은 별도로 없으며, 입으로만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고 나서 각 가정의 대주 이름을 부르며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잘 타서 올라가면 풍어가 든다고 믿는다. 수십 년 전에는 이곳 해령사 제의가 유명하여 인근 정동, 강문, 사천, 연곡리 등 10개 지역 어민들도 참석하여 돼지머리를 놓고 풍어굿을 했다고 한다.

내용 강릉안인진해령사 제의에는 구술상관물이 전승된다. 강원도 동해안 여신의 성적 결합 동기에는 신혼형(神婚型)과 성징봉헌형(性徵奉獻型)이 있다. 제의 형태로는 여성황신 숭배, 남녀 성황신위 합배(合配), 목각남근 봉헌(奉獻), 수소 공희(供犧) 등이 있다. 해령사 제의는 이러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제의로 중요한 민간신앙 대상이다. 안인진의 남근 봉헌 설화는 해령사에서 행해진 제의와 연계된다. 해랑신이 풍어와 안녕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설정된 사실은 구전과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곳 해랑신으로 좌정하고 있는 기생 해랑 관련 설화는 왜구나 해적에 겁탈당한 사실을 용으로 미화해 구전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해랑신과 함께 봉안된 남자 신격인 김대부신을 조선시대 실존인물인 강릉 김씨 만호공(晩湖公) 김자락(金自洛)으로 상정하기도 한다.

해랑당 관련 설화가 전하는 곳은 정상의 해령사이다. 전승 설화의 중심적 화소는 첫 번째, 처녀(관기)가 미혼으로 죽자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제를 지냈다. 두 번째, 처녀가 현몽을 하거나 주민들이 풍어와 안녕을 위해 남근을 깎아 걸었다. 세 번째, 한 부인에게 신이 내려 김대부와 결혼시켜 달라 하여 두 신을 봉안하였다. 네 번째, 해랑신과 김대부신을 봉안한 이후로 남근 봉헌이 중지되어 행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이상의 중심 화소 가운데 치제(致祭)와 남근 봉헌의 경우 관장(官長)의 명에 의한 것과 현몽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전자는 강릉부사에 의해 제사가 시작된 경우로, 1600년쯤 강릉부사가 이곳에 관기와 함께 놀러 왔다가 그네를 뛰던 관기가 바다에 떨어져 죽자 부사가 주민들에게 명하여 봄과 가을로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기 사망-강릉부사 하명-마을 치제'의 방식으로 관에서 의뢰하여 제를 지낸 것이다. 구전에 따르면 "내가 데리구(관기를) 놀러 왔다가 죽으니 애석하니 돌무덤이라도 해놓고 춘추로 제사를 좀 지내 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릉부사는 이 모씨로도 나타나며, "어느 때 누구인지 자세치 않음"이라 하였다.

안인진해령사 내부
국립민속박물관

후자는 억울하게 죽은 여성이 현몽하여 주민들이 제사를 시작한 경우이다. 처녀(미녀)가 그네에서 실족하여 떨어져 죽었거나 사모하던 청년이 돌아오지 않자 병들어 죽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즉 '여성 사망-현몽-치제'의 경우로 전자와 달리 현몽이라는 신비한 과정을 거쳐서 여자의 영혼이 마을 사람 꿈에 나타나 소원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근 봉헌과 관련된 화소는 해랑이 현몽하여 남근을 바치라고 한 자료와 주민 스스로 남근을 바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주민들 스스로 남근 봉헌을 행한 자발형이 이 설화의 선행형으로 보인다.

강릉부사 이 모씨와 관기의 관련 설화는 후자에 발생한 것으로, 이른바 관장 명령의 민간 치제 형식을 갖추는 설화적 형상화로 파악된다. 이것은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의 경우와 유사한 바닷가 처녀 이야기나 우연히 해랑당에 소변을 보았는데 풍어가 되어 계속 남근을 깎아서 바쳤다는 유감주술형 자료에서도 유추된다. 신격 주인공인 해랑신은 미녀 또는 과년한 여성이고, 이후 전승되는 자료에서 강릉부 관기가 그네를 뛰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으므로 이를 불쌍히 여겨 석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것이 시초라 하였다. 그러다가 여신 혼자이므로 남근을 바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풍어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남근숭배(phallicism) 형태가 존속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릉안인진해령사에 봉안된 여신은 주민들에 의해 마을해신제의 대상이 되었다. 특이한 점은 1930년경 이장 부인이 김대부신과 혼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해랑과 김대부신의 신혼(神婚) 이후에 정신이 혼미하던 마을 여성이 제 정신으로 돌아오는 영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별도로 해랑신에게 남근을 바쳤다가 벌을 받아 죽었다는 신벌 화소가 첨가되면서 남녀 혼배 이후 남근 봉헌은 중지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는 억울하게 죽은 미혼 여성이 사후에 혼배를 통해 결혼하고 안인진해랑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혼배 과정도 동네의 한 부인에게 해랑신이 강림하여 "설악산 김대부신을 모셨으니 위패를 세우라"고 함으로써 영혼결혼식을 치르게 된 것이다. 결국 이곳의 해랑신은 생생력(生生力)을 통해 풍요를 가져오는 여신이자 주민들의 경건한 제례를 통해 신화적인 인물로 환치되었고, 상징적인 신격으로 마을 제당에 안치되었다.

이에 따라 안인진해령사의 여신 관련 설화는 원사(冤死), 현몽(現夢), 영험(靈驗), 혼배(魂配), 신벌(神罰) 등 다양한 행위소가 발견된다. 전승구전 자료에는 영험 화소가 가장 많다. 이 밖에 원사 화소, 혼배 화소, 신벌 화소, 현몽 화소가 들어 있다. 이 설화의 중요한 핵심은 억울한 죽음으로 원혼이 된 신격이 풍어를 가져다 주는 능력을 발휘하는 영험성을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 혼배를 통해 화해를 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원혼'이 '해원'되는 설화 원형이 안인진해령사 여신설화의 중핵 화소이며, 부수적으로 영험함과 신벌 화소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표피적 주제는 치제를 통한 풍어 추구이지만 이면적 주제는 재액 방지를 통한 마을의 안녕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특징 안인진해령사 전승설화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억울한 여성의 영혼을 풀어주어 안녕을 기구하는 해원형, 여성 신격을 향한 남근 봉헌으로 풍요관을 추구하는 봉헌형, 여성신과 남성신의 결합을 통해 화해를 초래하는 결합형, 신격의 신통력과 영험함에 따라 제의성을 유지하는 영험형, 여성신격의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형벌을 내리는 신벌형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해안 어촌 마을 제의 가운데 강릉시 안인진해령사와 해령산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되는 곳이다.

해령산은 '바다신령'이 깃든 산이라는 의미로 지금부터 1500년대 사료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여성신화가 전하고 있다. 해령산 아래 바닷가 암석에는 명선문(溟仙門)이라고 쓴 것이 있다. 이곳은 동해 바다 용궁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한다. 또한 인근 정동진도 용궁의 동쪽 입구라고 전해진다. 등명낙가사 구전설화에도 쌀을 뜬 물이 동해용궁으로 흘러가서 임금의 안질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폐찰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해령산에서 정동진 일대는 용궁설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강릉 김씨 파보에 기록된 김자락도 꿈에 동해용왕의 초청을 받고 이곳에서 강릉부사와 뱃놀이를 하다가 사라졌다고 하였다.

해령사의 남근 봉헌은 1930년대 기록에서 확인되며, 오래전부터 이곳 어부들이 뱃길을 떠날 때 정성껏 빌면 풍어와 안전을 보장받는 제장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신성제의로 파악된다. 안인진해령사 전승설화의 중심 화소는 '치제-남근 봉헌-남녀 신격 결혼-남근 봉헌 중지'로 나타나며, 치제와 남근 봉헌의 경우에 있어서 관장의 하명에 의한 것과 현몽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구전되는 안인진해령사 설화의 핵심은 미혼 여성이 억울하게 죽은 뒤에 제사를 지내다가 신격의 혼배를 통해 안인진 신격이 되고 풍어를 가져다주는 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혼배 과정도 동네의 한 부인에게 해랑신이 강림하여 설악산 김대부신과 영혼결혼식을 치러 주민주도형 마을 제의라는 구체적인 전승 실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혼배 이후 신벌 화소가 등장하면서 사실상의 남근 봉헌은 소멸되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와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의 해신당 전승설화에 나타난 '원사-해원' 등 단선적 구조에 따른 남근 치제와는 다른 복합적 형태로 전승된 사례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마을설화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남근 봉헌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해랑신은 혼배 이후에도 여전히 풍요와 안녕을 가져오는 바다신격으로 대접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제례의식을 통해 신화적인 인물로 좌정하고 있다. 해령사 제의는 동해안 어촌신앙의 여성신격 중심체로 전승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사례 동해안 어촌의 여성신격 제의와 남근 봉헌 복합형은 여러 곳에 남아 있다. 현재도 고성군 문암 백도마을과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에서는 어촌 제의로 행하고 있다. 남근 봉헌은 하지 않고 여신제만 지내는 지역은 고성에서부터 강릉, 삼척에 이르는 동해안 어촌 여러 곳으로, 풍어제와 함께 지내고 있다.

의의 강릉안인진해령사는 과거 바다 상인들이 뱃길로 장사를 떠날 때 풍어와 안전을 빌면 이것을 보장받는 효험을 지닌 제장이라 할 수 있다. 어민들도 매년 바닷일을 시작하거나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정성껏 제물을 차려 이곳에서 빌었다. 또한 처음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제물로 사용하고, 제관의 목욕재계와 금기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인진해령사 어촌신앙은 전승이 오래되었으며, 특히 여신에 제사지내는 해랑제와 목조남근 봉헌이 함께 이뤄진 형태라는 점에서 동해안 어촌 제의의 한 특징을 지닌다.

참고문헌 **강릉안인진의 해령사 제의와 남근 봉헌설화 고찰**(장정룡,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강릉의 서낭당**(김경남, 강릉문화원, 1999), **강릉의 설화**(장정룡 · 이한길, 동녘출판기획, 2003), **강릉의 역사변천과 문화**(최선만, 강릉관광협회, 1962), **강원도민속연구**(장정룡, 국학자료원, 2002), **강원도 서낭신앙의 유형적 연구**(장정룡, 한국민속학회, 1989), **동해안 성황설화와 부락제고**(김선풍, 관대논문집 6, 관동대학교, 1978), **동해안 어촌 당신화연구**(이승철,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생활상태조사-강릉군**(조선총독부, 민속원, 1931), **안인해랑사 설화연구**(김경남, 강원민속학 5~6, 강원도민속학회, 1988), **영동지방인물신화의 내용고찰**(장정룡, 중앙민속학 3,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1),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8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1977).

필자 장정룡(張正龍)

강릉행깨마을고청제

정의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1리 행깨마을의 제의. 원래는 하늘에 제향하는 제의였지만 전승 과정에서 변화하여 서낭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역사 1910년대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따르면, 오늘날의 향호리는 香湖里[행깨], 香洞[행골], 槐南洞[괴냄이], 古馬洞[괴밀]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후 1916년경 행정구역 통폐합을 거치면서 향호리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마을이 커지자 일제강점기 때 다시 향호리와 고마동은 향호1리로, 향동과 괴남동은 향호2리로 구분되었다. 향호1리의 마을 제의는 고청제라 한며, 향호2리의 마을 제의는 망월제라 한다.

행깨마을 서낭당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1리, 2008.7.10 이한길

향호1리는 2008년 현재 8개 반이 있다. 방가동(1반, 7반), 행깨(2반), 찬샘[寒泉洞](3반), 강정(江亭)(4반), 새잇말(5반), 웃말(6반), 군인아파트(8반) 등이다. 이 가운데 행깨마을과 찬샘마을에서 행하는 마을제의가 고청제이다. 행깨는 '향호 호숫가'라는 뜻으로, 이를 사투리로 발음한 것이며, 갯가, 호변동, 향호동으로도 부른다. 찬샘은 마을에 차고 맑은 우물이 있어서 명명된 것이다.

행깨마을은 향호 호숫가에 위치한다. 이 마을은 조선 숙종 때 인물인 이영부(李永敷)가 낙향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전의 이씨(全義 李氏) 집성촌이다. 이영부가 자리 잡은 집터는 오늘날 강릉의 8명당 중 하나로 이름나 있으며, 그는 향호 호숫가에 취적정(取適亭)이란 정자를 짓고 음풍농월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의 마을 제의는 이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짐작되며, 서낭당은 취적정 뒤쪽에 있다.

내용 행깨마을 제의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다. 이 마을 제의의 홀기에는 고청제(告淸祭)라 표기하였으나 문헌에는 '천제(天祭)'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성격은 천제인 것으로 짐작된다. 즉, 고청제는 고천제(告天祭)의 잘못된 표현인 것으로 여겨진다.

1. 제의 일시 행깨마을의 제의는 본래 자시(子時)에 행하던 것이었지만, 8~9년 전부터 정월 초정(初丁)에 해가 지면 곧바로 시작하게 되었다. 본래는 3반의 서낭이 할아버지이고 2반의 서낭이 할머니여서 3반의 제사가 끝날 때쯤 비로소 2반이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제의의 시간은 마을별로 제각기 독자적으로 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제당 행깨마을의 서낭당은 제단에 모셔진 돌로 만든 위패와 그것을 둘러싼 담장, 그 주위에 수령이 몇백 년 됨직한 여러 그루의 소나무로 구성되어있다. 이 담장은 낡아서 2007년 취적정을 복원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다. 수령 34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소나무는 현재 강릉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돌로 만든 위패는 인근 석산 회사에서 기증(1998년)하였다. 위패 뒷면에는 영해 이씨(寧海 李氏) 동명공파 종회, 주문진 규사광업소, 보고석산에서 협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위 행깨마을의 신위는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이다. 성황, 토지, 여역의 3위를 모실 때에는 본시 성황을 주신(主神)으로 여기므로 성황을 제단의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관례인데 행깨마을은 특이하게 토지지신을 중앙에 위치시켰다. 이에 관한 전승은 현재 중단되었기에 알 수 없다. 찬샘마을 서낭은 할아버지이고 행깨마을의 서낭은 할머니이며 두 서낭의 위치에서 3반의 서낭이 산 속에 있고, 2반의 서낭은 마을 어귀에 위치한다.

4. 축문과 홀기 행깨마을의 축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첩에 적힌 인물들이 만들었다는

행깨마을 홀기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1리, 2008.7.10. 이한길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193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늘날 전승되는 축문 이전에도 축문(고본)이 있었으나 축문 등 관련 자료들은 6 · 25 전쟁의 와중에 모두 소실되었다. 홀기의 뒤편에 축문이 적혀 있다.

5. 제관 본래 향호리 천제사의 제관으로는 남자만 참석하였으나,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주민이 참석한다. 제물 장만은 유사를 두 집 선정하여 담당토록 한다.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는 집은 정(正)유사가 되고, 할머니만 있는 집은 부(副)유사가 되어 함께 장만한다. 마을에 할머니만 있는 집이 유독 많기 때문이다. 유사는 마을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한다. 이처럼 돌아가며 맡는 것을 '차지'라고 한다. 제관은 마을 주민들이 몇 가구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관, 축관, 집사 등을 법식대로 모두 선정하여 제의를 봉행한다.

6. 제물 행깨마을의 제물 장만에 드는 비용은 약 30만 원이 매년 일정액을 주민들로부터 추렴하여 마을 제사용으로 적립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주요 희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생(生)쇠고기이다. 기타 제물로 북어포(신위당 세 마리), 백설기(신위당 한 시루), 메(신위당 한 그릇)를 각각 올린다. 이 밖에 탕, 나물, 과일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과일을 사용한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다. 제물 음식을 장만하는 과정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음식을 만질 수 있으나 메만은 반드시 남자가 짓는다. 제주는 약주를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종이라 알려져 있는 청주이다.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지만 제사 후 주민들이 먹으려고 도치를 사다가 탕을 만들어 놓는다. 이웃 마을인 3반 찬샘마을에서는 도치로 탕을 해 제상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로 보아 후대에 의미가 변해서 올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물은 인근 주문진 읍내에 나가 구입한다.

7. 제의 절차 제삿날이 다가오면 서낭당과 유사집에 금줄을 친다. 금줄은 물론 왼새끼를 꼬고 사이사이에 흰종이를 잘라 넣어 만든다. 그리고 황토를 구해와 유사집 문간 양쪽으로 벌려 놓아 잡인의 출입을 막는다. 서낭당에는 황토를 하지 않는다. 제삿날에는 제물을 장만하여 서낭당에서 홀기에 따라 제의를 진행한다. 예전에는 실과 종이를 서낭에 매달았지만 요즘은 하지 않는다.

8. 향호리 서낭당의 전설 고목이 마을 서낭이다. 이 나무에 딱따구리가 집을 지어놓았다. 권씨 형제가 딱따구리 알을 빼먹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자 화가 나 거기에 불을 붙였다. 그날 저녁 호랑이가 나타나 권씨 형제네 집에 모래를 끼얹었다. 그리고 고목에 불을 놓은 사람은 정신이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또 그들은 어업을 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모두 망했다.

9. 기타 제복은 평상복이고, 제관과 축관은 건을 쓴다. 제기는 오래전에 마을기금으로 장만하여 놓았다. 마을 어귀 취적정이 있는 곳에 비석 세 개가 서 있다. 각기 신종계(愼終契), 목임계(睦任契), 성균관유도회주문진유림기적비라 명명된 이들 비석은 향호가 문향(文香)의 고장임을 보여 주고 강릉지방에 특히 많은 계의 흔적을 보여 주고 있어 흥미롭다.

참고문헌 朝鮮地誌資料,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1리 향호동(2반)의 고청제(이한길, 제일강산, 강릉문화원, 2008), 강릉의 설화(장정룡 · 이한길, 동녘 출판기획, 2003), 새말의 향기(주문진읍, 2000).

필자 이한길(李漢吉)

강신(降神)

정의 마을신앙에서 신령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의식.

내용 음력 정월이나 시월에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을 불러들여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신령을 불러들이는 강신의례를 행한다. 강신(降神)이라는 용어 자체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신령이 이동하는 것이 전제된다. 하늘 또는 산의 정상으로부터 신령이 인간세계로 하강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이다. 하늘의 신령 또는 높은 곳에 있는 산신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가 있는 곳까지 연락을 취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분향(焚香)이다. 향을 사르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 연기의 냄새를 맡고 신령이 마을 제당으로 하강한다고 믿는다. 간혹 자기 마을의 신령을 구체적으로 소리 내어 부르기도 한다. 통돼지 또는 통소를 제물로 바칠 경우 돼지의 멱따는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하거나 제물 가운데 일부를 불에 구워 그 냄새가 하늘로 오르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신령은 정갈한 곳에 내려오기 때문에 제장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부정하면 강신 자체가 거부된다. 제물을 마련할 때 신령이 강신하기에 부적합한 것은 넣지 않는다. 제물에는 참깨나 참기름 정도를 제외하고 일절 쓰지 않는다. 특히 붉은색을 띠는 고춧가루는 절대 안 된다. 붉은색은 잡귀를 쫓는 데 쓰이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인 마을신의 강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령의 강신에 앞서 제장을 정화하기도 한다. 제물을 진설한 뒤 강신을 하기에 앞서 부정을 쳐낸다.

이처럼 신령을 인간세계로 초청하는 일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상황에서 베풀 수 있으며, 신령은 인간의 정성을 보고 강신 여부를 정한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했다면 강신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 제관 일행은 일주일 또는 사흘 전부터 부정을 피하기 위해 금기(禁忌)를 지키며 근신한다.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신령을 맞이하고자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이 계신 곳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역사례 민간신앙에서 신령을 제장으로 초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마을신앙에서는 흔히 강신이라 칭하지만 굿에서는 청배(請拜)라고 한다. 강신이든 청배이든 신령을 제장으로 불러 모시는 첫 절차이다. 신령과 인간이 대면하는 첫 과정은 신령 맞이이다. 신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령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제당 또는 굿청에서 신령을 모신다. 신령은 정갈한 사람이 깨끗한 공간에서 맞이해야 한다. 신의(神意)에 따라 정해진 제관이 일정 기간에 부정을 삼가고 근신함으로써 신령을 맞이할 채비를 한다. 제사에 앞서 제당 주변을 청소하고, 제당 공간을 정화하기 위해 부정풀이를 행한다.

부정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한 제관이 물바가지를 들고 서낭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천하의 흐린 부정, 지상의 흐린 부정 서낭님이 데려가 속거천리(速去千里)해 주십사"하고 빈다. 또한 진설이 끝나면 검정 숯을 냉수에 넣어서 흐린 부정을 정화하고, 정화수로는 맑은 부정을 정화한다.

마을 제사에 굿이 추가되는 당굿형 제사인 경우 무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강신의례에 앞선 부정풀이가 여러 번 거행된다. 산신령이 임재한 당산(堂山)에 오르기 전 부정풀이를 하고, 당집 안에 들어서면 먼저 부정풀이를 한다. 제물을 진설하고도 다시 한 번 부정풀이를 한다. 이때까지 제물을 덮은 종이나 뚜껑은 열지 않는다. 부정을 풀어내야만 신령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을 풀면 특별히 강신 절차를 하지 않아도 신령이 하강하기 때문에 미리 제물을 모두 열어 신령이 흠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깨끗한 제장이 마련되면 신령을 직접 불러 모신다. 촛불을 밝히고, 분향한다. 분향은 유교이든, 불교이든, 무속이든 여러 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강신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향을 사르면서 나는 냄새가 가장 멀리까지 전달되므로 신령께 인간의 뜻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긴다. 제물을 구워서 지내는 번제(燔祭) 역시 신령에게 인간의 뜻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소리를 질러 신령을 청하기도 한다. 전남 해남군 용암리에서는 제관이 소리를 내어 신령을 청배한다. "해동 조선국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대덕산 신령 청래(請來)요"하고 제관이 외친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방월리에서는 제관이 자문자답하며 마을신에게 예를 갖추어 모신다는 뜻을 전하기도 한다.

제물을 잡는 소리가 신령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에서는 산신께 통돼지를 올린다. 이때 돼지의 멱을 따는 소리가 신령에게 들리도록 한다. 제물의 일부를 미리 잘라다가 산신당 앞에서 태우기도 한다. 그 냄새를 맡고 하강하라는 조치이다.

간혹 신령을 불러들이기 위해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해안에 위치한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서는 당제를 지내기에 앞서 선창(船艙)에 나가 신령을 불러들이는 선창제를 지낸다. 바다와 육지를 잇는 선창은 인간의 세계와 바다 신령의 세계를 경계짓는 분기점이다. 선창제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진 시간에 지낸다. 이는 먼 바다에서 오시는 신령을 될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나가 공손히 마중하기 위함이다.

당굿을 하는 마을에서는 이곳저곳에 있는 신령을 굿당으로 불러 모시기 위해 '당맞이굿' 또는 '유가(遊

街)', '꽃받기' 등을 행한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2리 하동마을에서 도당굿을 할 때 첫날에 신령을 모셔오는 과정으로 당맞이굿을 행한다. 동민들이 풍물을 치면서 마을 주변을 대여섯 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을 불러 모아 마을로 들어온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의 별신당에서는 신령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꽃을 만들어 인근의 사찰이나 팔충사 등 유적지에 가져다 두고 그 꽃을 받아 온다. 꽃은 신령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꽃받기를 통해 신령을 마을로 모시는 것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문동의 남이장군당에서 동일한 차원에서 꽃받기를 행한다. 이웃마을에 부인이 있다고 여기고 그곳에 직접 가서 꽃을 받아 남이장군당으로 모신다. 이처럼 당굿을 추가할 경우 신령을 직접 불러들이는 의례가 나타난다. 전문 사제인 무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신령을 초치하는 강신의 절차도 실감나게 베푼다. 유가는 신령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절차이다. 유가를 도는 대상 마을이나 지역은 해당 신령의 관할 아래에 있음을 알린다. 신대나 꽃을 마을로 모시는 것 자체가 신령을 모시는 강신의 절차가 된다.

신대가 당집에 들어서려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령이라 하더라도 초청받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다. 강신은 초청한 신령을 맞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의 도당굿에서는 도당에서 본굿을 거행하기 전에 신대가 장문밟기를 하면서 천천히 도당으로 오른다. 도당 앞에 이르면 대를 세우고 굿을 하게 되는 내력과 참석한 신령이 누구인지를 당막 안에 있는 도가와 당막 밖의 제주가 번갈아 가며 고한다. 먼저 당막 안의 도가가 "경기 우도 양주군 구리면 갈매리 산은 주산이요 일국지명산이요 일국지명산은 나라에 원당이요 계불계적이요 삼한적 이래로 갈매동 만만이 삼년 세력을 받쳐서 극진치성을 잡수어 계신 터이신데 웬 행차가 요란히 들리시나요?"라고 외친다.

이에 당막 밖의 제주가 "다름이 아니오라 이 산 구능마나님 수이시나 새우개 소당마나님 수이시나 하위함 역하여 지나시는 터이신데 꽃이 피어 꽃맞이요 잎이 피어 잎맞이로 잠깐 놀고 가자는 행차라고 여쭈어라"라고 한다. 이같이 전갈을 주고받은 뒤에 당막 앞에 친 줄을 끊고 들어와 신령이 실린 대를 굿당에 안치하고 본격적인 굿을 시작한다. 신령이라 하더라도 남의 마을에 함부로 들어설 수는 없다. 초청 절차를 통해서만이 입장이 가능하다. 신령을 확인하고 알리는 것 자체가 신령을 모시는 의례가 된다.

이처럼 신령을 제장으로 초치하는 첫 의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베풀어진다. 초대받은 신령만이 제사에 참석할 수 있다. 마을에 잠시 들러 제사를 흠향하는 신령은 손님과 같은 존재로 정성을 다해 맞이해야 한다. 손님이 알아챌 수 있도록 소리나 냄새 등으로 정성을 표현한다. 강신은 정성을 다해야 행한다. 그래야 손님으로 마을에 온 신령은 첫 만남의 소중함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복을 내리고 화(禍)를 막는 종교적 울타리가 된다.

참고문헌 **갈매동 도당굿**(갈매동 도당굿 학술종합조사단, 1996),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방월리-마을조사사례**(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6), **산간신앙**(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필자 **김효경(金孝慶)**

강진사문안석조상

정의 강진사문안석조상(토동입석상)은 사찰의 경계표시 또는 수호신적 역할을 하는 석상이지만 마을신앙의 신체(神體)는 물론 도깨비신앙의 신체로 정착된 석상. 1992년 3월 9일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87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전남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토동마을은 면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4㎞ 지점의 언덕바지에 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양산 김씨(梁山 金氏)가 처음 입주하여 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앞삼봉의 중간 봉우리에서 흘러내린 작은 봉우리를 옥토끼가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는 옥토망월형국이다. 앞삼봉의 양쪽 봉우리가 토끼의 귀, 고랑에 있는 마을 앞의 논은 토끼의 입에 해당하는 이 같은 형국에 연유하여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 마을 사람들은 토동마을을 '사문(寺門)안골'이라고 부르기도한다. 마을 앞의 계곡이 월남사로 들어가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곧바로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이다.

토동입석상이라고도 하는 강진사문안석조상은 당산나무 바로 밑에 있다. 이 입석상은 광복되기 2~3년 전 현재 월남사지가 위치하는 월남리의 주민들이 옮겨갔다가 토동마을 주민들이 광복되기 바로 전에 현 위치로 옮겨온 것이라고 전한다. 월남사지와 토동마을의 지형적 관계를 고려하면 토동마을에 있는 입석상은 사찰 입구의 사천왕상처럼 월남사의 수호신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입석상을 '도깨비바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형태 입석상은 하단이 좁고 상단이 넓은 모습으로 높이 122㎝, 폭 55㎝, 두께 28㎝의 자연석 입석이다. 전면과 좌우면이 약간 다듬어졌을 뿐 후면은 요철이 심한 자연석 그대로이다. 또 입석의 기단부 역할을 하고 있는 대좌(臺座)는 직경 155㎝ 의 원형판석이다. 윗면에는 형식화된 연화문이 음각되었으며, 현재는 몇 조각으로 깨져 있다.

입석상은 전면과 좌우 3면에 모두 13개의 인물상이 음각되어 있다.

전면의 나상(裸像) 전면의 입상(立像)으로 상체가 나상이다. 두상은 확실치 않으나 눈 언저리와 코, 입 등이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은 올려 앞가슴에 대고 있으며, 왼손은 어색하게 내려 허리에 대고 있다. 하체는 스커트 형태의 바지를 걸쳤다. 허리에 바지 끈이 보이며, 다리에는 내의 같은 옷 주름이 사선을 그리며 좌우가 대칭되게 나타난다. 발목에는 대님으로 묶은 띠가 보이며, 장화 같은 버선형의 신을 신고 있다.(총고 68㎝, 두고 15㎝, 안폭 8.5㎝, 견폭 15㎝)

전면의 도깨비상 머리 위에 두 개의 뿔이 달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면 도깨비상이다. 앞이마와 양쪽 볼이 툭 튀어나오고, 눈은 사나우면서도 희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빨은 좌우에 날카로운 송곳니가 부각되었다. 상의는 입은 것 같지 않고, 앞가슴 뼈가 U 자형으로 불거져 나왔다. 오른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고, 왼손은 길게 내려 손바닥을 벌린 채 손가락이 4개인 점이 특이하다. 하체는 역시 바지를 걸친 모습이며, 발목에 대님이 보이지 않고 버선형의 신발이 연결된다. 이 상은 왼쪽다리를 구부리고 있으며 몸의 중심을 오른쪽 다리에 두고 있다.(총고 64㎝, 두고 14㎝, 안폭 10㎝, 견폭 13㎝)

전면의 상하 3구상 나상과 도깨비상의 왼쪽으로 상체만 보인 입상이 상하로 3구가 음각되었다. 2상은 상층, 1상은 좀 움푹 파인 안쪽에 각각 새겨져 있다. 상층상은 보면 얼굴 형태(두고 7㎝, 안폭 5㎝)만 보인다. 그 밑은 얼굴과 가슴 부분만 보이며, 앞가슴에서 옷 주름이 밀착되어 있다(총고17㎝, 두고 6.5㎝, 안폭 6㎝, 견폭 7㎝). 움푹 파인 안쪽에 새긴 상은 좌상(坐像)이다. 머리 형태만 갖추고 목이 없이 그냥 어깨로 연결된 상체가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다. 무릎은 가부좌를 틀었으며, 어깨에서 내려온 팔과 손은 옷주름 속에 가려진 듯,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다. 얼핏 보기엔 불상 같기도 하다.(총고 14㎝, 두고 4㎝, 안폭 3.5㎝, 견폭 6.5㎝, 무릎폭 11.5㎝, 무릎고 4.5㎝)

왼쪽의 면상(面像) 왼쪽의 면상은 입상 1구뿐이다. 머리 위로 더 연결된 부분이 있는 듯 깨져 있다. 이 왼쪽으로 또 하나의 입상이 있었는지 긴 다리만 보인 부분이 밑에까지 나타나고 있다. 후면은 상당 부분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얼굴은 머리 부분이 깨져 뿔의 여부를 알 수 없고, 양쪽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어깨로 내려오면 오른팔은 수직되게 반듯이 내려 뻗고 있으며, 왼팔은 머리 위로 올린 것 같으나 깨져 있어 확실치 않다. 하체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짧은 반바지를 입었으나 앞부분만 가리고 있다. 다리는 오른쪽은 반듯하게 뻗었고, 왼쪽은 다리를 구부려 오른다리에 붙였다.(총고 70㎝, 두고 13㎝, 안폭 11㎝, 어깨폭 18㎝)

오른쪽의 면상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모두 5상이며, 1구만 입상이고 나머지는 얼굴만 나타나고 있다. 입상은 얼굴 뒤로 관을 쓴 것 같으나 분명치 않고, 얼굴은 눈과 양볼이 유난히 튀어 나왔으며, 양팔은 앞가슴에 댄 것 같은데 옷자락에 가려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체로 내려온 다리는 오른발이 빈약하고 왼발이 튼튼하게 조각되었으며 발목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상은 전신에 옷을 걸친 상태로 V 자형의 모습이 보이며, 발에까지 옷 주름이 밀집되게 음각되었다(입상고 74㎝, 두고 12㎝, 안폭 9㎝, 어깨폭 19

㎝). 나머지 4상은 모두 얼굴만 보이고 있다. 4상 가운데 얼굴 형태가 가장 뚜렷한 상은 입상 왼쪽에 있다. 목 부분 밑으로 한 줄의 의문이 돌아가고 얼굴엔 눈과 코가 분명하다.

이상에서 13상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들 상 외에도 전면 상단에 새의 모습이 보이며, 그 오른쪽으로는 방형의 돌기된 띠가 있다. 그 가운데에는 알 수 없는 음각이 보이기도 한다. 이 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귀면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으며 다리의 모습이 정상인과는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이들은 도깨비상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깨비들의 신통력은 방망이로 대표되고 있으며, 허리 윗부분은 안 보이고 아랫부분만 보인다는 전래의 관념이 이를 더욱 뒷받침해 준다. 더욱이 이들 상 가운데 왼쪽 다리가 약하게 표현되고 이를 구부려 오른쪽 다리에 붙인 것은 도깨비가 왼쪽 다리가 약하다는 통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용 입석상 옆에 있는 당산나무에 지금도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날이면 당산제를 모시고 있다. 당산제를 지낼 때 "나무신이여 마을을 굽어살피어 주민이 평안하고 시절이 좋게 해 주십시오"라고 빈다. 제물을 준비할 사람과 제사를 지낼 제관은 매년 동계(洞契)일인 음력 동짓날 스무닷샛날에 선정되며, 이들은 소변을 보면 손발을 씻어야 하고 대변을 보면 반드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물론 제관들은 선정되는 날부터 제사를 지낼 때까지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을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깨끗한 몸으로 당산신을 받들어 모시기 위함이다.

제사의 비용은 마을의 동계 자금으로 충당하기도 하고, 지난해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당밟이를 하여 모아 둔 것을 보태기도 한다. 제사의 음식은 술, 대추, 밤, 곶감, 생선, 말린 고기 등이다.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복이라 하여 그 음식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이 당산제가 1950년에 중단되었다가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자 다시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예전에는 도깨비상이라 하여 입석상 앞에 촛불을 밝혀 놓고 술을 올려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고 나면 아랫샘과 윗샘에서 풍물을 치면서 제사를 마무리하였다.

정월대보름날에는 입석상과 당산나무 곁에서 남녀가 편을 나누어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를 하였다. 대보름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짚단을 들고 나와 당산나무 주변에 모여 줄을 만든다. 마을 사람들이 줄을 만들 때 풍물을 그 곁에서 흥겹게 친다. 줄이 완성되면 줄다리기를 한다. 이때 줄은 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팀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당산나무에 매어 부녀자들이 그네를 뛰기도 하였다.

의의 입석상이 놓인 과거의 위치와 석상의 형상을 볼 때 이 석상의 기능을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사문안(토동마을)' 구역의 경계표시 기능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석상에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경계표시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종교적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석상의 수많은 귀면은 액을 막아 주고 벽사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상들을 볼 때 귀면들이 지배적이다.

석상의 대좌에 8판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석상은 도깨비에 대한 민간신앙과 불교적 요소가 복합된 유형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석상은 단순히 거석문화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도깨비신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나아가 장승과 연계하여 한국의 석인상 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유형문화적 가치도 크다. 입석상의 앞면과 좌우면에 새겨져 있는 형상들은 민속신앙과 불교신앙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비교문화론적 의미도 크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진군의 문화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 1989), **강진군마을사 – 작천면**(강진군, 1993).

필자 표인주(表仁柱)

강화교동도부군당제

정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읍내리에서 음력 정초에 길일(吉日)을 택해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

역사 부군당제는 조선시대 각 관아(官衙)에서 신당(神堂)을 두고 아전(衙前)과 서리(胥吏) 등 하급 관리들이 지낸 제사이다. 부군당제는 현재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조선 후기 한강의 수운을 이용한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인구가 급증한 한강변에 이를 관리하는 여러 관청 및 기관이 집중되었다는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군당제의 목적이 해당 관서에서 맡은 업무와 관원들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기원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부군당제가 주재 집단의 변화에 의해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바뀌거나 무당 개인의 신당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교동도의 부군당은 인천 도서지역 가운데 유일하며, 여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현재 전승되고 있다.

부군당이 위치한 교동도 읍내리 교동읍성(둘레 약 430m, 높이 약 6m)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로 곳곳에 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마을 위쪽에는 읍성의 돌담이 남아 있고, 읍성 남문인 홍예(虹霓)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홍예 한쪽에는 '남문(南門)'이라는 글자도 적혀 있다. 교동읍성은 1629년(인조 7)에 축조된 것으로, 각 문에는 문루(門樓)가 세워져 있었다. 동문의 누는 통삼루(統三樓), 남문의 누는 유량루(分亮樓), 북문의 누는 공북루(拱北樓)라고 하였다. 동문과 북문은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남문은 1921년 폭풍우에 무너져 현재는 홍예만 남아 있다. 1890년(고종 27) 동문과 북문을 다시 세웠다는 것을 통해 그 이후에 유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예는 화강암으로 돌을 쌓아 만들었다. 두 홍예 골격 사이는 트여 있어 하늘이 보인다. 홍예 한쪽 벽면에는 민가 한 채가 놓여 있다.

읍내리 부군당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007.2.11
정연학

교동읍성의 교동부(喬桐府)는 1629년(인조 7) 남양 화량진에 있던 경기수영을 교동으로 옮긴 후 교동현이 교동도호부로 승격하면서 도호부가 세워졌다. 도호부 터에는 장대석으로 쌓은 계단이 남아 있어 3도(경기, 황해, 충청)의 수군을 관장하던 규모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읍성 남문의 누각 기둥으로 추정되는 장대석 2기가 남아 있다. 한편 연산군이 죽기 전에 머물렀다고 여기는 터를 가리키는 비문이 있으며, 그 터 아래에는 정자형 우물이 현재 남아 있다. 이 우물 안에는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다. 연산군의 격거지(擊居址)는 봉황산 자락, 화개산 북쪽 자락 등 여러 곳이 있다. 이 가운데 고읍이 있던 화개산 북쪽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은 읍내리가 도호부가 되기 전에 교동현이 있던 곳이다.

내용 **1. 부군당 명칭** 부군은 부군할아버지, 부군할머니, 부군마지로 불리는 신이다. 부군이라면 마을의 수호신으로, 도당보다는 범위가 큰 마을의 수호신이다. 서울 지역 무당들은 부군이 도당보다 상위 신격의 성격을 띠면서, 좀 더 넓은 지역을 관장하는 신격이라고 믿고 있다. 부군당의 한자어 명칭은 '府君堂'으로 표기한다.

한편 교동도 읍지의 경우 부군당을 '부근당(付芹堂)'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둘 사이에 한자 표기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付根堂'이라는 표기가 보이며, 이규보(李奎報)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각사(各司)에 신사가 있는데 부근당(付根堂)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와전되어 부군당(府君堂)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규보의 의견에 따르면 부군당(府君堂)의 본래 명칭은 부근당(付根堂)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군의 명칭은 위에서 언급한 한자 이외에도 부근(府根), 부근(附根), 부군(府群), 부강

(富降), 부군(符君) 등 다양한 한자로 쓰이고 있다.

付根, 府根, 附根이라는 명칭은 부군당에 남근목(男根木)을 바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동도부군당 내부에도 남근목이 걸려 있다. 여기서 당집에 남근목을 바치는 이유는 송씨 처녀를 위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와 부군당의 신격이 여성이라고 밝힌 경우가 있다. 송씨 처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흔히 원한을 품고 죽은 여성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부군당의 송씨 부인은 당의 주신(主神)이 아니고 남성신을 보필하는 존재로 보인다. 한편 송씨 부인의 경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화주당(化主堂) 전설에서는 남한산성의 축성과 관련해 억울하게 죽은 홍대감의 부인, 중구 방산동 성제묘(聖帝廟)에서는 팽씨로 구전되는 관우의 부인으로 성씨를 달리해 등장하는 등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나 광범위하게 모셔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근목을 바치는 행위는 강원도 해신당이나 일본의 마을 신당에도 보이며, 네팔에서는 정초 행사에 수많은 남근목을 집에 걸어 놓고 풍요를 기원하기도 한다. 이능화는 신당에 봉안된 남근목은 부군당에 모셔진 손각씨(孫閣氏)를 위한 일종의 제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한강변 부군당 가운데 남근목을 봉안하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 신길3동 방앗고지 부군당이다. 민간신앙에서 남근목을 봉안하는 것은 생식숭배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치 부군당은 교동읍성 북쪽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멀리 교동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읍내리 앞바다는 중국 어선들이 한양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고, 한강에서 출발한 어선들이 중국으로 향할 때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연산군이 폐위를 당하고 교동도에 올 때도 이곳 항로를 이용하였다. 현재 교동도의 포구는 남산포, 동진포, 월선포, 호두포 등이 있다.

부군당은 본래 옆자리에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허물어지자 지금의 자리에 초가에다 기와를 올려 새로 단장하였다. 부군당 옆에는 큰 오동나무가 있으며, 신목인 셈이다. 본래 부군당은 고읍에 있었으나 교동읍의 중심이 읍내리로 바뀌면서 부군당도 함께 옮긴 것이다. 부군당을 한자로 '府君堂'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 교동도의 부군당을 한자로 '부근당(扶芹堂)'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芹'은 '根'의 잘못 표기인 것으로 여겨진다. 부군당에 '미나리 근(芹)'을 쓰는 사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부군당 내부 구조 부군당에는 사모와 홍포를 입은 남자와 용잠을 하고 파랑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부인 신상(神像)이 그려져 있다. 또한 남자는 홀기를 들고 있으며, 부인 그림 밑에는 대신할머니가 붓을 들고 있다. 부군당에 제사를 잘 올리면 자손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여긴다. 신상 뒤쪽에는 모란이 그려진 병풍 그림과 산봉우리 등이 그려져 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신상이 왕 또는 고관임을 알 수 있다. 마을에서는 부군당이 연산군의 한을 풀기 위해 지어졌다고 여기고, 남자 신상을 연산군, 여인을 연산군의 부인 신씨로 일컫고 있다. 연산군이 홀기를 들고 있는 것은 고관의 신분임을 나타낸 것이다. 교동도에는 연산군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으며, 그가 머물렀다고 여겨지는 고적지도 세 곳이나 있다. 한편 현존하는 그림은 15년 전에 기존의 것을 보고 그린 것이다. 그림은 서울의 화공이 그렸다고 한다. 현재 그림 뒤에는 가계매매, 소원성취, 영업대박, 결혼 등 개인

부군당 신상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007.2.11 정연학

부군당 전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007.2.11 정연학

의 소망을 담은 5개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굿을 하면서 무당들이 붙여 놓은 것이다.

부군당에는 이들 신상 이외에도 노랑저고리에 붉은 치마, 여러 한지가 걸려 있으며 세 개의 남근목이 있다. 노랑저고리와 붉은 치마는 여신에게 바치는 옷이며, 한지는 신에게 굿을 할 때 올리는 폐백이고, 남근목은 기자와 풍어를 기원하는 상징물이다. 남근목은 조업 중에 죽은 선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걸거나 마을의 서낭이 여서낭인 경우에 건다고 한다. 이들 남근목은 민간이 아니라 무속인들이 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 남근목에 기도를 하면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강원도 강릉, 삼척에서처럼 남근목을 바치는 전설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군당의 규모에 대해 조선시대 박지원(朴趾源)은 사옥(祠屋)이 겨우 두 칸 뿐이며 묘당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정의 명을 받아 고을의 성황당(城隍堂)을 새로 신축할 때 남은 재목을 가지고 사옥을 보수하고, 옛 규모보다 조금 넓혀서 단청을 덧칠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부군당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옥이 아니며, 고을의 성황당보다 규모가 작았음을 알 수 있다.

한필교(韓弼教, 1807~1878)라는 인물이 그린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에 실린 그림을 통해 부군당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부군당은 주건물과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규모가 한 칸 정도이다. 실제로 교동도부군당의 경우도 두세 사람이 들어가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좁다. 또한 부군당의 지붕도 기와에서 초가로 바꾸었다는 현지 주민들의 고증을 통해 다른 유교적 전각보다 중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부군당 신격 교동도부군당에서 모시는 신은 연산군과 그의 부인이라고 현지 주민들은 말한다. 이는 교동도에 연산군이 유배되고 죽임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를 신격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부군당에서 모신 주신은 단군 · 왕건 · 공민왕 · 이성계 · 세조 등 임금과 최영 · 남이 · 김유신 · 임경업 등 장군, 어효첨(魚孝瞻) 등 문신은 물론 중국의 관우 · 제갈공명 등도 보인다. 이처럼 해당 지역에 전승되는 설화의 주인공이 부군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교동도부군당에서 연산군을 주신으로 모신 배경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부군신은 해당 인물이 그 마을과 관련이 있음을 애써 내세운다. 몇 편의 전설이 전승될 정도로 해당 인물에 대한 남다름을 과시한다. '부군'이라는 구체성이 약한 신격보다는 특정한 인물을 내세우는 과정 속에서 특정 인물이, 전설을 덧입고 해당지역에 수용된 것이다.

이능화에 따르면 부군당은 모시는 신이 각각 달랐다. 형조(刑曹)의 부군은 송씨 부인, 전옥(典獄)의 부군은 동명왕(東明王)이다. 기타 제갈무후(諸葛武候)나 문천상(文天祥) 등을 섬기는 곳도 있었다. 고려 공민왕을 부군신으로 신봉하는 자도 또한 많았다. 이는 고려 유민들이 각사의 이원(吏員)이 되어 항상 구국(舊國)의 왕을 기려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능화는 부군(夫君)이란 지명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각 군에 있는 부군당신은 대개 수령으로서 임소(任所)에서 죽은 이가 많으며, 이때 수령을 '부군'이라 불렀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부군은 한나라 태수(太守)를 칭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조흥윤과 유승훈은 부군이 중국 한대 태수의 칭호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마을신이 되었다며 '중국 유래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양종승은 '부군'이 빛을 뜻하는 '붉다'에서 왔으며, '붉음'은 곧 '밝음'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신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군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신앙물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부군당에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을 '화주'라고 부르는 것도 불의 신앙을 주재하는 화주(火主)이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무속을 연구한 일본인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부군에 대해 이것이 조상과 망부(亡夫)의 경칭(敬稱)이기도 하지만 관아의 신사(神祠)인 부군당의 주신이며, 그 부인은 여부군(女府君)과 함께 모셔 재복(財福)을 불러들이는 신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군은 부군당의 주신을 설명하는 것이고, 교동도처럼 처음에는 한 사람의 신을 받들었다가 무당들이 제(祭)를 주재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많은 무속신을 부군당에 함께 모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서울의 부군당에서 보이며, 이 때문에 부군당의 기능이 도당굿 등 다른 신앙물들의 기능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5. 부군당 모시기 부군당에서는 굿을 통해 신을 모신다. 굿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마을의 형편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한 번 지낸다. 최근의 굿은 2007년에 행해졌다. 굿을 주관하는 무당은 교동 본도의 무당 세 명이 하였으나 봉선리 큰무당이 죽고 무당들이 노령화되면서 부군당에서의 굿도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굿은 여자가 담당한다"라는 할아버지들의 말처럼 부군당에서의 굿은 할머니들이 주관하며, 유교적인 제의 행위는 볼 수 없다. 굿에 드는 경비는 집집마다 성의껏 낸 돈으로 치른다. 일반적으로는 3만~5만 원을 내고, 선주(船主)의 경우 10만 원 정도를 낸다. 읍내리에는 8명의 선주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새우를 잡는다. 포구 쪽에는 잡은 새우를 보관하는 움집도 있다.

굿은 섣달그믐에 날짜를 잡아 정월에 지낸다. 굿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제물 장만은 무당들이 한다. 제의를 정월에 하는 것은 새로운 한 해의 첫날이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관청의 한 해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로서 음력 정월 초하루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의 우리나라의 부군당제는 용산구 자치구 내 10곳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용산구청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아전(衙前)과 서리(胥吏) 등 관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굿 중심의 제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동도부군당의 경우도 무당들이 제의 주체자로서 행하고 있다. 남자 주민들은 부군당제를 "여자들이 행하는 것", "무당이 하는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부군당제가 유교적 의례 행위와 다름을 말하고 있으며, 부군당제가 주재 집단의 변화에 의해 마을공동체 신앙 또는 무당 중심의 개인 신당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군당제가 하급 관리들과 마을 주민, 무당의 세 계층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군당이 비록 관아의 부속건물 내에 위치하지만 관아의 안녕과 마을의 평안을 위해 모셔진 주민들의 당(堂)인 셈이다. 부군당은 조선시대에 흥행하다가 1519년(중종 14)에 억압을 받기 시작하여 헌부에 의해 부군당 내부의 지전(紙錢)을 태우고 신을 받드는 것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부군당제는 현재까지 존속하였다.

교동도부군당은 조선 중기 부군당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부군당이 읍성 안에 위치하며, 해당되는 신상을 벽에 붙이고 정기적으로 날을 잡아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부군당에 남근목을 바치는 행위나 지전을 거는 행위 등은 오늘날까지 전승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부군당제는 초기에는 유교적 절차에 의해 제를 지냈으나 나중에는 무당들이 제의의 주체가 되어 무속적 제의로 변하였다. 조선시대 부군당 관련 기록에서 남근목을 봉안하거나 지전을 태우고 춤을 추었다는 단편적인 내용들을 통해 무속적 의례의 양상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의에 참석하는 대상도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다. 교동도부군당제를 준비하는 주체가 남자가 아닌 여자인 것도 그러하다.

부군당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관청의 하급관리이지만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마을 주민들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 주도보다 민관이 공동으로 지낸 제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군당이 점차 사라지면서 서울 지역에서 부군당제는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용산과 마포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동도에서는 민간신앙으로 계속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군당의 신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그 지역과 관련된 인물이 주신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교동도의 경우도 읍성의 관리가 아닌 연산군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 밖에 연산군을 신으로 모신 지역은 발견할 수 없다.

참고문헌 **경강변 부군당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 양상**(유승훈, 서울학연구 20,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2003), **서울 이태원 부군당굿**(양종승, 민속원, 2007), **한강변 마을제사의 절차와 내용**(홍태한,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 한강변의 마을신앙, 서울역사박물관, 2006), **한강변 마을제사의 종류와 유래**(오문선,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 한강변의 마을신앙, 서울역사박물관, 2006).

필자 **정연학(鄭然鶴)**

강화교동도자신당

정의 중국 사신(使臣)의 무사 귀환과 풍어(豊漁)를 기원하는 제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에 위치하며, 사신당(使臣堂)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자신당은 교동면의 관문인 남산포를 내려다보는 언덕인 남산(南山) 위에 있다. 당의 이름인 '자신당'은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으로, 본래는 사신당을 의미한다. 6·25전쟁 때 소실된 당집을 1969년에 재건하였다.

강화도는 사신(使臣)과 관련이 깊다. 강화도 앞바다는 서울의 한강과 개성의 예성강, 임진강이 모이는 곳으로 예부터 경제적·군사적 요충지였다. 또 강화도에는 사신이 바람을 기다리며 머무른 사신관(使臣館), 몽고의 사신을 맞이하는 제포궁(梯浦宮), 사신의 숙소인 풍포관(楓浦館)이 있었을 정도로 중국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또 중국 사신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거나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강화교동도자신당
강화군 교동도
2009.4.11. 염원희

특히 강화도의 서쪽, 교동면의 입구가 되는 남산포는 고려시대부터 중국 사신들이 왕래하던 곳이다. 남산포에 있는 산은 읍내리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보이는 산이라 하여 남산이라 부르며, 높이가 해발 53m이다. 남산 기슭의 읍내리 571번지에는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선(使臣船)들이 배를 움직일 바람을 기다리는 동안 머물렀다는 사신관 터가 있다. 또 바닷가의 바위들을 정으로 쪼아서 만든 층층대가 있다. 이것은 고려 때 송나라 사신들이 사신관에 머물렀다가 떠날 때 배에 오르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사신등선로(使臣登船路)이다. 바로 이 근처에 있던 것이 자신당이다. 송나라 사신들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뱃길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자신당은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의 바닷길을 지켜 주는 바다의 수호신 역할을 하다가 고려가 망하면서 사신관이 그 기능을 잃게 되자 의미가 변화하였다. 마을의 안녕과 교동 주민들의 뱃길을 지켜주고 풍어를 기원하는 당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며, 다만 읍내리에 거주하는 개인이 고사를 지내고 있다. 이는 자신당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신앙이 마을신앙에서 개인신앙으로 격하(格下)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읍내리에 거주하는 김순자의 시어머니가 자신당을 관리하였고, 시어머니 사망 후 현재는 김순자가 물려받아 돌보고 있다. 김순자는 무속인이 아닌 평범한 마을 주민이다. 자신당에 행해지는 정기적 제의는 김순자가 2~3년에 한 번 정월에 무당을 불러 집안 고사를 지낼 때, 이에 앞서 자신당에 떡과 술 등 음식을 바치며 당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이 전부이다. 고사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가끔 찾아가 당에 술을 바치기도 한다. 자신당 문은 절대 함부로 열지 않으며, 문을 열어야 할 때에는 그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하여 몸을 정갈히 한다. 김순자 외에도 마을 사람이나 인근 지역의 무당들이 자신당에 들러 창문으로 돈을 밀어 넣고 가는 경우가 있다. 자신당 문이 항상 잠겨

있고 열쇠를 김순자만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당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당 내부에는 무신도 1점이 걸려 있다. 이를 '자신당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바닥에는 전에 당집을 관리하던 무당이 사용한 무구(巫具)와 사람들이 당 안으로 넣은 돈이 어지러이 널려 있다. 자신당 입구 오른쪽에는 남터주와 여터주 한 쌍이 있다. 자신당에 들르는 사람들이 당집 안에는 돈을 넣고 이들 터주에게는 음료나 사탕 등을 바친다.

이전에는 풍어를 비는 어부들이 자신당에 들러 돈이나 음식을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동면에서 어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풍어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꾸준히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당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신앙은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화의 가정신앙** 1(강화문화원 가정신앙 조사단, 민속원, 2010), **대동여지도로 사라진 옛 고을을 가다** 2(신정일, 황금나침반, 2006), **신편 강화사**(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03).

필자 **염원희(廉元姬)**

개

정의 마을신의 흠향을 위해, 혹은 특정 대상신에게 부정(不淨)행위를 하여 주재집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바치는 제물.

내용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1리 운계마을에서는 구천제사(狗天祭祀)를 지낸다. 덕촌리 동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이튿날에 장승거리에서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에게 제를 지낸다. 이 동제는 '길제사' 또는 개를 희생으로 바치는 제사라는 뜻으로 '구천제사'라고 부른다. 동제는 한때 중단되었다가 흉사로 인해 1995년경에 부활하였다. 동제에서 개를 올리는 이유는 호랑이가 장승거리에 자주 출몰하여 피해가 심했던 호환(虎患)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개는 잡털이 박히지 않은 수컷 백구를 사용한다. 요즘엔 백구를 구하기가 어려워 한 가지 색이면 제물로 가능하다 하여 황구를 사용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 개를 잡아서 끓는 물에 넣은 뒤 털을 뽑는다. 이를 '튀엔다(退한다)'고 한다. 지금은 튀에지 않고 불에 그슬려 털을 없앤다. 본래는 털만 뽑고 생으로 올렸지만 근래에는 제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음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삶아 내장만 빼고 통째로 올린다. 제사를 마친 개고기는 이튿날 아침에 주로 마을 어르신들을 대접한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거마동 장승제에서는 개 한 마리를 잡아 제상에 올린다. 이것은 옛날에 노고산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인명을 앗아가는 일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다. 호랑이는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통개를 희생으로 바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개를 구입할 때 암수를 가리지 않고 잘생긴 놈을 고르되 주인과 값을 흥정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지킨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백운산 지역에서는 산신을 호랑이로 상정하고 산제 때 개를 제물로 바쳤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에서는 음력 정월 초나흗날과 시월 초다섯날 자정에 성황당에서 토지신에게 성황제를 지낸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성황제 때 백호(白虎)서낭신이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여 개고기를 바쳤다. 현재는 우족 4개를 대신 바친다.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덕진마을에서는 시월 초에 택일하여 산제당에서 산제를 지내다가 1991년에 중단하였다. 산제 때에는 반드시 흑구를 제물로 쓰고, 음복할 때 개고기를 주민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마을 기우제에서 개 또는 개 피를 용소 또는 신성한 산 등 특정 장소에 던지거나 뿌리는 주술대항형 제의가 있다. 이를 개적심이라고도 한다. 지역에 따라 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4리 삼부연에서 개적심과 키질을 하면서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지금은 임하댐 건설로 사라진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에서는 개를 잡아 그 피를 바위에 바르고 개는 도연폭포에 던져 넣었다. 함경남도 고원, 문천, 북청 등지에서는 영산(靈山)의 정상에 가축의 생피를 뿌리고 용소에다 개의 시체를 던져 넣고서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참고문헌 **강원도 영동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삼척지방의 마을신앙**(삼척문화원, 1993), **원주지역의 동제와 성신앙**(이창식,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김의숙, 집문당, 1993), **한국의 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이창식(李昌植)**

개양할미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수성당에 좌정해 있는 칠산바다의 여신. 칠산바다의 주요 해신(海神)은 개양할미와 그가 낳은 여덟 딸들이라 할 수 있다. 개양할미는 칠산바다의 여신을 총 지휘하는 으뜸 신격에 해당되며 어부들의 뱃길 안전과 풍어를 돕는 기능을 한다.

내용 격포리의 적벽강 절벽에 있는 수성당은 개양할미와 그의 여덟 딸이 좌정해 있는 당집이다. 변산반도 일대에서는 개양할미에 관한 신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다. 이 신화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주 먼 옛날 개양할미는 수성당 옆의 여울굴에서 나와 딸 여덟 명을 낳은 뒤 일곱 딸은 각 도나 섬에 한 명씩 시집보내고, 자신은 막내딸과 함께 수성당에서 살았다. 수성당은 아홉 여신이 좌정해 있다 하여 구낭사라고 하였다. 그 후 구낭사는 어민들이 개양할미를 바다의 성인 같은 존재로 받들어 모셨다 하여 수성당(水聖堂)이라 하고 개양할미를 수성할미라 부르기도 하였다. 개양할미는 키가 어찌나 큰지 굽나막신을 신고 서해바다를 걸어다니면서 깊은 곳을 메우고 위험한 곳을 표시하여 어부들의 안전을 돌보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였다고 한다. 개양할미가 곰소 앞 바다의 '게란여'에 이르렀을 때 이곳이 어찌나 깊은지 개양할미의 치맛자락이 약간 물에 젖은 적이 있었다. 이에 화가 난 개양할미가 육지에서 흙과 돌을 치마에 담아 '게란여'를 메웠다고 한다. 이곳은 지금도 깊어서 이 지방의 속담에 깊은 곳을 비유하여 말할 때는 "곰소 둠벙 속같이 깊다"라고 한다.

이 신화에 따르면 개양할미는 선원들의 뱃길 안전과 고기잡이를 돕는 칠산바다의 해신임을 알 수 있다. 개양할미는 굽나막신을 신고 서해바다를 걸어 다니면서 위험한 곳을 표시하기도 하고, '게란여'와 같이 깊은 물을 흙과 돌로 메우면서 선원들의 안전을 보살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신화의 내용처럼 개양할미가 낳은 딸들이 전국 각도에 배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개양할미의 딸들이 칠산어장의 해안 · 도서 지역으로 시집보내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죽막동 마을을 비롯한 변산반도 주민들은 개양할미의 딸들이 위도의 당집, 모항(띠목) 당집, 곰소 당집, 고창군 동호리 영신당, 계화도 당집, 돈지 당집, 조포(새포) 당집에 좌정해 있다고 한다. 이들 여신은 칠산바다를 총괄하는 개양할미의 지시를 받는다고 한다.

지역사례 개양할미 신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죽막동 마을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수성당에서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개양할미와 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 오고 있다. 수성당은 건축면적 13㎡ 단칸 기와집으로 되어 있으며, 1974년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되었다. 이 당집은 1804년(순조 4)에 처음 건립되었다고 하지만 원형이 소실돼 정확한 건립 시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수성당 상량문에 "도광 삼십년 경술 사월이십팔일 오시 이차상량(道光 三拾年 庚戌 四月二十八日 午時 二次上樑)"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수성당은 1850년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건

수성당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006.1.21, 이영금

수성당 당화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006.1.21, 이영금

물은 1996년에 새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수성당 근처인 죽막동 제사 유적에서는 백제시대 이후부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해양제사 관련 유물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개양할미에 대한 제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승된 것으로 짐작된다.

1950년 전까지만 해도 수성당제는 많은 선주의 시주로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성대하게 모셔졌다. 수성당제는 1960년대 중반에 중단되었다가 2004년에 마을 주민들에 의해 복원되었다. 최근에 복원된 당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모셔지며, 제사는 유교식 방식과 무속식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 대표자로 선정된 제관들이 당집 안에서 축문과 함께 유교식으로 제사를 올리고 나면 외지에서 초빙된 강신무와 민속예술연구원 소속 예술단이 당집 바깥 공터에서 바다를 마주보며 용왕굿을 연행한다.

적벽강 절벽 위에 있는 수성당은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의 당젯봉 꼭대기에 있는 원당과 일직선으로 마주보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 지역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풍어와 안전을 비는 당제가 많은 선주의 참여 속에 단골의 주관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한다. 이처럼 당제가 활발하게 연행된 것은 위도와 변산반도 사이의 해역이 조기잡이 어업의 중심 해역이기 때문이었다. 부안군 줄포만 일대와 위도면은 일제강점기 때 조기 파시가 설 정도로 대단한 조기 산지(産地)였다. 특히 위도는 그물코마다 조기가 가득 잡힌다는 황금어장으로 유명하였다. 이런 까닭에 전국 각지의 어선들이 앞을 다투어 위도 지역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도와 격포항 사이에 있는 임수도는 조류가 심하고 물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여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 지역이었다. 격포항은 조선시대 때부터 격포와 위도 사이로 배가 항해하는 중요한 관문이었으며, 고기잡이 어선은 반드시 이 해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칠산어장 어민들은 수성당의 개양할미에게 절대적으로 의탁하여 풍어와 뱃길 안전을 기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업이 성한 당시에는 외지의 어선들조차도 격포 수성당에 이르면 선원들이 바닷물에 목욕을 하고 수성당을 향해 고사를 올렸다고 한다.

격포 수성당과 마주보고 있는 위도면 대리마을의 원당도 개양할미와 그녀의 딸이 좌정해 있는 당집으로 추정된다. 당집 내부 정면 벽에는 원당(元堂) 마누라, 본당(本堂) 마누라, 옥저부인, 애기씨 등의 당화가 걸려 있다, 이 가운데 원당 마누라는 개양할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당 마누라는 개양할미가 시집보낸 딸이고, 옥저부인과 애기씨는 개양할미 딸의 후손인 것으로 추정된다. 개양할미가 여덟 딸들과 함께 수성당에 좌정하였듯이 위도면 대리마을의 원당에서도 개양할미의 딸들이 다시 가족을 이루어 해신으로 좌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도면 대리는 정통 세습무의 주관으로 당제가 전승되고 있는 칠산어장의 유일한 마을에 해당된다. 당집은 마을 뒷산인 당젯봉에 위치하며, 대상 신격은 대부분 여신이다. 198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로 지정된 이 마을의 당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모셔진다. 당굿과 용왕굿은 이 마을 단골인 조금례가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신안군 비금도 단골인 유점자가 초빙되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기타 격포 수성당은 칠산어장에서 가장 많은 여신을 모신 당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성당 내부 벽면에는 용왕, 개양할미와 여덟 딸들, 산신, 여덟 아가씨들, 장군신 등 5점의 당화(堂畫)가 걸려 있다. 이러한 당화는 김동식에 의해 2004년에 복원된 것이라고 한다. 수성당이 구낭사(九娘祠)라 불린 점으로 보아 과거에는 개양할미와 여덟 딸만을 그린 당화가 전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많은 신격이 첨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개양할미와 딸들을 그린 당화는 개양할미가 막내딸을 안은 채 중앙에 앉아 있고, 그 앞과 양옆으로 일곱 딸들이 앉아 있는 형태이다. 마치 가족사진을 찍어 벽에 걸어 놓은 것처럼 개양할미와 여덟 딸들을 그린 당화가 수성당 내부 정면에 붙어 있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수성당(水聖堂)을 구낭사라 부르고 있고, 또 실제 당화에는 아홉 여신이 그려져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성당에 좌정해 있는 해신은 아홉 여신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화에는 개양할미와 막내딸의 모습이 유달리 도드라져 보인다. 덩치 큰 거구의 개양할미가 그림 중앙에 앉아 있고 그 품속에 막내딸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신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양할미와 막내딸이 수성당에 거주하는 주요 신격임을 시사한다.

수성당은 칠산어장의 당집에 좌정한 여신들의 본가(本家)이자 원당이라 할 수 있다. 수성당의 주요 신격이 개양할미와 막내딸임에도 불구하고, 수성당에 개양할미 가족을 모두 좌정시킨 것은 수성당이 시집간 딸들의 본가이자 원당임을 암시해 준다. 개양할미가 딸네 집을 왕래하고 딸들이 개양할미의 지시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개양할미는 시집간 딸들을 총 관리하는 으뜸 신격이고, 개양할미가 거주하는 수성당은 칠산어장 당집의 총 본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서해안조기잡이와 어업생산풍습**(주강현, 역사민속학 1, 역사민속학회, 1991), **서해안 해신 신앙 연구**(송화섭, 도서문화 2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4), **전라북도 전설지**(대광출판사, 1990).

필자 **이영금(李永金)**

거리제

정의 음력 정월 초순이나 보름 무렵에 마을 어귀나 큰 삼거리에서 올리는 마을 공동 제의.

내용 거리제는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특정일에 마을 어귀나 거리에서 올리는 제의에 국한한다. 이 거리제는 충청 · 전남 · 경남 지역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지역과 마을에 따라 제의 양상과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 · 충남에서는 하당(下堂)에 대한 의례를 '거리제' 또는 '노신제(路神祭)'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신앙 대상물이 장승인 경우에는 '장승제', 탑을 모시면 '탑제'라 칭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리제의 성격과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에서는 탑 · 장승 · 솟대 · 신목이 거리제의 구체적인 대상 신이고,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의 경우 장승 · 솟대 · 선돌이 복합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의 거리제는 탑과 그 위에 얹힌 오리 모양의 새를 신체로 모시고 있다. 이를 '거릿대'라고 부른다. 이들 하위 신은 단독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몇 개의 신체(神體)가 복합 양상을 이루면서 하나의 성역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전남에서는 이와 달리 구체적인 신체 없이 마을 어귀나 삼거리에서 일련의 제의를 행하고 있어 충청 지역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거리제는 정월 초에서 대보름 사이에 주로 거행되는 신년제 성격이 짙다. 산신제, 당제로 대표되는 상당의례가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거리제는 하당의례의 특성상 재액소멸, 역질퇴치, 우마창성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전염병과 괴질의 창궐로 인해 인명 손실이 컸던 지난날의 열악한 사정

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리제를 모시는 제장은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곳은 사람뿐만 아니라 객귀나 잡신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때문에 매년 특정한 날에 갖은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함으로써 마을에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전남 지방에서도 특히 도서해안 지역에서 거리제를 많이 모시고 있다. 진도의 경우 마을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거리제는 당제에 비하면 제의 양상이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형태이다. 제의 장소도 사람들 편의에 따라 쉽게 변한다. 근래에는 마을 삼거리에서 마을회관이나 모정으로 옮겨 모시는 마을이 많아졌다. 제를 모시는 동안에는 이러한 공간이 의례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 변환되어 인식된다.

지역사례 진도군 의신면 가단마을에서는 매년 '산신제'와 '거리제'를 모시며, 음력 정월 열나흗날 오전 10시쯤 시작하여 낮 12시쯤 모두 끝이 난다. 언제부터 모시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으나 지금에 이르도록 모시고 있으며, 한 해도 거른 적이 없다. 산신제를 모신 뒤에 바로 마을 어귀에 위치한 모정에서 거리제를 모신다. 거리제는 특별한 신체 없이 제상을 차리면서 '가리대신', '열성대신', '본향대신'이라는 지방을 써놓는다. 제 모시기 사흘 전에 마을에서는 제관을 선정한다. 그해 갑자을축을 따져 생기가 맞는 사람으로 두 명의 제관을 뽑게 된다. 그리고 두 명의 제관 가운데 한 제관의 부인이 제물을 장만한다. 예전에는 제물을 제관 부인 혼자서 장만하였으나 2005~2006년부터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장만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거들고 있다. 제비는 집집마다 조금씩 걷어 마련하였다가 근래에는 마을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제비는 40만~50여 만 원이 소요된다.

또한 진도군 진도읍 조금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내는 마을 제사를 '거리제' 또는 '거래제'라고 한다. 제사를 지내는 곳은 마을회관이며, 제사가 끝난 후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초를 넣은 오곡밥을 대문 앞에 놓아두는 것이 특징이다.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 주변을 떠도는 잡신을 위로하고 마을의 평안을 기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제

거리제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동마을, 1995.1.22
서해숙

모시기 일주일 전에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관과 제물 장만할 사람을 선정한다. 제관은 나이 많은 남자 어른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고, 제물 장만은 나이 많은 여자 어른들 중에서 유고(有故)가 없고 활동력이 있는 세 사람을 선정한다. 제비는 마을기금으로 사용한다. 동답 등 공동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마을총회 때 사람들이 내놓는 찬조금을 모아서 사용한다.

다른 마을들에서도 거리제 모시는 양상은 유사하다. 거리제는 특별한 신체 없이 마을 사람들 중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이나 객지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제를 모셔줄 임자가 없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제를 모신다. 이들에게 제를 지내는 이유는 이들이 마을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 마을에 큰 사고나 우환을 없애기 위함이다. 거리제를 모시는 대부분의 마을은 이러한 성격과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거리제의 신격은 객귀나 잡신을 일컫는다. 마을에 따라 '가리대신(街里大神)'이라고 높이 칭하기도 한다.

이렇듯 거리제는 마을에 떠도는 객귀를 달래기 위해 모시는 제의로, 여느 당제나 용왕제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용왕제를 거리제라 명명하기도 하는 것은 거리제의 일부 성격이 용왕제와 혼융된 결과로 풀이된다. 용왕제가 바닷가라 하더라도 마을 앞 사거리나 큰길 등 마을 가까운 곳에서 제를 모시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에 따라 거리제로 명명되고 있다. 이는 공간에 따른 분화가 구체적인 제의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농경위주의 생활공간일수록 거리제는 용왕제의 성격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도서해안 지역 마을신앙의 또 다른 특징으로 해석된다. 또한 도서 지역으로서의 생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마을만의 독자적인 문화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징 거리제는 마을에 따라 단독 또는 당제와 함께 모시고 있다. 특히 오늘날까지 거리제를 모시는 마을은 바닷가보다 내륙 지역, 농경생활을 위주로 하는 마을에서 많이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객귀를 달래기 위해 마을 앞이나 마을회관에서 모신다는 점에서 제의 성격도 분명하다. 또한 당제, 산신제가 제관인 남성 중심으로 엄중하게 모시는 반면에 거리제는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전통사회에서 마을 어귀는 안과 밖, 성(聖)과 속(俗)의 세계를 경계 짓는 공간이다. 또한 이곳은 재복이 들어오는 동시에 빠져나가는 통로이고, 나아가 온갖 재앙과 부정이 깃드는 길목으로 인식된다. 이곳을 출입하는 객귀에게 제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재액을 물리치는 소박한 종교적 심의가 거리제와 같은 마을공동 제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진도군 마을신앙 양상과 도서해양문화적 특징**(서해숙,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7).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서해숙(徐海淑)**

거창거기리말무덤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에 위치한 돌무지무덤 형태의 마을신앙 유적지. 1997년 12월 31일에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20호'로 지정되었다. 아기장수 설화와 관련하여 마을 뒤의 깃대봉에서 용마가 날아와 죽었고, 그 말의 무덤이 이 돌무지이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에 당산제를 지낸다.

내용 거기리는 옛날 마을 주변에 돌이 많아서 '돌밭'이라고 했고, 개울이 마을을 끼고 흐른다 하여 '걸터'라 하였다. '걸'은 도랑의 옛말이면서 이곳의 사투리이다. 1914년에 한자로 '도랑 터'라는 뜻의 '거기(渠基)'라고 표기하였다. 이 마을은 성주 여씨가 이룬 마을이라 하며, 마을 사람 대부분은 논농사와 사과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걸터의 마을신앙은 성주 여씨 집안의 아기장수 설화에 나오는 용마와 관련된다.

1500년쯤에 이 마을에서 사는 여씨 집에 비범한 아이가 태어났다. 당시에는 평범한 집안에 비범한 아이가 태어나면 역적이 된다고 하여 모두 죽였다. 이 아이의 부모도 역적이 될까 두려워서 아이를 죽였다. 그러자 마을 뒤 깃대봉에서 용마(龍馬)가 날아와 죽었다. 아이가 죽자 음골의 넓은 바위가 갈라지면서 용마가 나왔다. 이 용마는 그 바위에서 한 발자국 딛고 뛰더니, 마을 중간에서 두 번째 발을 내딛고, 세 번째는 지금의 말무덤이 있는 곳에 와서 죽었다. 천둥번개를 치면서 용마가 나온 곳은 음골의 넓은 바위이다. 두 개의 거대한 바위가 급경사지게 놓여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말바위', '말발굽 내리방석' 등으로 지칭한다.

이 큰 바위 아래에는 첫 번째 말 발자국 모양의 흔적이 있다. 물론 풍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첫 번째 말 발자국이라고 믿고 있다. 그 아래 계곡 양쪽에 작은 자연동굴 형태의 당산과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천지바위가 있다. 여기서 윗당제를 지낸다.

말이 두 번째 내디딘 자리라는 바위는 개인 소유의 농지 가운데 있었다가 농지 주인이 없애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장소에는 자갈돌을 쌓아 말무덤을 만들었다. 돌밭이어서 걸터라고 한 지명 유래처럼 냇가의 자갈돌이 많다. 말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조산걸', '조산달' 등으로 부르며 냇가의 자갈돌을 쌓아 올렸다. 말무덤은 높이 4.6m, 아래둘레 23.4m의 완만한 원추형이다. 그 정상에는 세로로 긴 돌 4개를 세워 놓았다. 주위에는 오래되고 큰 노송이 서 있다.

마을 당산제의 장소 세 곳은 모두 용마가 나타나고, 발자국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죽은 장소이다. 당산제는 용마가 나온 음골의 넓은 바위 밑 윗당산에서 시작하여 두 번째 디딘 바위에 술잔을 붓고, 세 번째 죽은 자리인 말무덤에서 마무리한다.

제관은 정월 초이렛날에 선정한다. 제관이 선정

경남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2010.6.25, 천진기

거창거기리말무덤

말발굽 내리방석

윗당산

되고 나면 당산과 제관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는다. 제물은 제관과 유사가 거창읍 시장에 가서 장만하며, 제기는 당산제 전용으로 준비된 것을 사용한다.

정월 열나흗날 초저녁에 풍물을 앞세워 지게에 제물인 돼지를 지고 음골 윗당산이 있는 곳을 거치면서 이때 돼지를 울린다. 다시 돼지를 지고 내려와서 잡는다. 앞다리와 위턱은 자연동굴 형태의 윗당산, 뒷다리는 당산 건너편의 천지 바위에 각각 올린다. 아래턱은 마을 앞의 말무덤에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돼지 아래턱은 말무덤에 마련된 돌구멍에 넣어 둔다. 두 번째 용마가 디딘 바위에는 별도의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잔만 올렸으나 바위가 없어지면서 이것마저도 올리지 않게 되었다.

마을에서 몇 해 동안 당산제를 지내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 마을의 소들이 계속 죽게 되자 다시 당산제를 올렸더니 재액이 사라졌다. 현재는 마을 이장, 구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일을 보는 사람들만 제의에 참여하여 정월 열나흗날 낮에 윗당산과 말무덤에서만 제사를 지낸다.

참고문헌 **거창군의 마을신앙**(거창문화원, 2003), **거창역사**(거창군, 1994), **거창의 전설**(박종섭, 학사원, 1989), **영남의 구전자료집 5**(조희웅 외, 도서출판 박이정, 2005),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말 민속론**(천진기,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2006).

필자 천진기(千鎭基)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입석마을 앞에 있는 좌불이 음각된 선인상. 1997년 1월 30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입석마을 앞에는 높이 226㎝, 너비 75㎝되는 자연석 화강암이 세워져 있다. 이를 선돌이라 한다. 마을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이 선돌 앞면에는 마모되어 희미해진 좌불이 음각되어 있다. 이를 선인상(仙人像)이라고 한다. 선인상은 두 손을 모으고 가부좌를 틀고 있으며, 왼쪽 무릎 가까이에 칠성(七星) 무늬의 알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선인상은 신라시대 말에 새겨진 것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연대를 고증할 수 없다.

선돌은 고대에 마을에 잡귀의 침범을 막거나 경계를 표시하기도 했으며, 풍요와 다산을 염원하는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알터 역시 고대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성 생식기의 상징물이었다. 선인상과 북두칠성을 그린 알터바위로 되어 있는 선돌은 결국 길흉화복을 관장하고,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등 순박한 민중의 가슴속에 살아 명맥을 이어온 민간신앙의 흔적이다.

필자 박종섭(朴鍾燮)

거창당동당산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당동마을에 위치한 신당.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당산제가 열린다. 1997년 12월 31일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이곳이 가야에 속해 있을 때 마을 서쪽 50m 지점에 솟대를 세워 신성한 곳으로 정하고 매년 음력 정월과 오월, 시월에 천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 솟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 1㎞ 이내는 모두 당산의 땅으로 신성시되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현재 신당의 주변이 모두 잔디로 입혀져 있었으나 현재는 약 1,650㎡를 제외한 나머지 땅이 모두 개인 소유의 논밭으로 되어 있다.

당집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당동마을
1995.2.9. 박종섭

삼국시대 때 이 소도지역에 당집을 흙과 돌로 짓고 대를 얹어 지붕을 하여 당신(堂神)을 해마다 모셨다고 한다. 1858년에 월포(月圃) 오조영(吳祖英)이 쓴 당집 안에 걸려 있는 중수기에 따르면 이 지방이 가소현으로 있을 때 당집은 국가에서 제를 주관하는 사직당(社稷堂)이었으며, 가소현이 혁폐된 뒤에는 후토사(后土社)로 정하여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매년 정월 초하룻날에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좋은 날을 택하여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중수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동쪽으로 삼십리쯤 당동의 서북에 탕산(湯山) 신묘가 있다. 대개 가소현 때에는 사직당이었다. 본현이 혁폐된 후 본동의 상하촌이 수호로써 인연하여 당으로 인하여 마을 이름이 되었고, 매년 정월 초하루에 좋은 날을 정하여 치성을 드렸다.
>
> 삼가 생각건대 천지 간에 사람이 가장 귀하고 신은 가장 신령스러워 신이 있고 천령이 있는데 사람이 어찌 정성을 다함이 없겠는가. 이미 향화(香火)를 받듦이 있었는데 어찌 묘당을 만들지 않겠는가. 혹 지금 개건(改建)하는 공이 있어서 돌로 기둥을 만들어 완성하니 진실로 무궁하다. 혹시 허물어지는 환난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기와로 풀을 대신하였으니 광채가 배로 증가되었다. 토목공사가 끝나고 새로 화편(華扁)을 걸어 해의 장려함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정밀하다. 곧 위로 장령(將嶺, 장군봉)의 방박(磅薄, 가득 차서 막힌 모양. 즉 뒤에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는 뜻)함이 있고, 아래로는 유산(儒山, 박유산)을 누르는 인순함이 있다. 서쪽으로 구잠(龜岑, 금귀봉)을 당기고 동으로는 문수에 임한다. 이에 신사를 맺어 후토라고 이름을 걸고, 가조 일백여 리를 눌러 돌아 당동 십실과 다른 마을을 옹호하여 비바람은 순조롭고 신은 영이 있어서 천백년에 불린다.(후략)"
>
> 함풍 8년(1858) 무오 2월 12일 월포 오조영 근헌

내용 당동마을은 마을 뒤편에 우뚝 솟아 있는 장군봉 아래에 있다. 이 마을은 원래 마을 서북쪽의 300m 되는 지점에 마을이 위치해 있었다. 그러다가 해마다 마을에 화마(火魔)가 들이닥쳐 현재 마을의 위치에서 동북쪽으로 200m 되는 여시운이라는 논들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장군이 나타나 마을 사

당집 내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당동마을, 1995.2.9, 박종섭

람들을 괴롭히고, 여우들이 마을에 해를 끼쳐 할 수 없이 현재 위치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이 당집에 모시는 신은 우두산 신령이다. 전설에 따르면 우두산 신령은 일본에 건너가 천황가를 열어 일본을 개국하고, 다시 이곳으로 나와 우두산에 좌정하였다고 한다.

원래 동서남북, 즉 장군봉 · 금귀봉 · 박유산 · 문수산 쪽의 신에게 간략한 제를 지낸 다음 중앙의 당집에서 크게 제를 올렸다고 한다. 제관은 마을에서 부정이 타지 않은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출입을 삼가고, 밤이 되면 조용한 계곡으로 올라가 찬물에 목욕을 하여 정성을 들였다고 한다. 원래 제관은 한 사람이었으나 현재는 제관을 보조하는 사람을 더 선정한다.

당산제를 지낼 날짜가 정해지면 마을 사람들도 정성을 들인다. 이들은 마을 어귀와 집 앞을 비롯해 마을의 위아래에 있는 공동우물에 금구줄(금줄)을 치고 황토를 좌우로 벌여 놓는다.

금구줄은 왼쪽으로 꼰 새끼 사이사이에 흰 한지나 천을 꽂아 놓는다. 이는 가장 신령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며, 공중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정되고 잡된 것의 범접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동우물 옆에는 수백 년 된 향나무가 있다. 이 향나무는 향이 잡귀를 쫓는다는 믿음으로 심은 것이라고 한다. 이와 아울러 향나무의 향이 물과 어우러져 물맛을 좋게 한다고 한다. 정월 열나흗날이 되면 샘물을 깨끗이 하고 아주까리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불을 붙여 샘 안을 밝힌다.

제관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임신한 여인과 상주 등을 보지 않아야 하며, 다투는 사람이나 부정한 동물도 보면 안 되고, 잡된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된다. 즉 일체의 부정한 사물이나 일은 봐서도 들어서도 안 된다.

제기는 원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새로 구입하여 사용했으며, 제물을 구입할 때에도 값을 흥정하지 않는다. 제물로는 메, 건어물, 돼지를 올린다. 옛날에는 당집에서 메를 지어 제에 올렸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쌀로 대치하고, 돼지도 머리만 사용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당동마을, 1995.2.9, 박종섭

당산제

당산제 제물

제를 지내기 전에 살아 있는 장닭의 목을 잘라 당집 둘레에 그 피를 뿌리고, 닭머리는 당집 앞에 묻는다. 닭은 잡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꺼리는 것이기 때문에 닭의 피로 당집 주위를 깨끗이 하기 위한 행위를 하며, 닭머리를 당집 앞에 묻음으로써 잡귀의 범접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제물로 쓸 닭은 일 년 전부터 마을에서 깨끗한 사람의 집에서 길러 이것을 제물로 썼다고 한다. 그런데 옛날에는 단출한 제물이 요즘은 딸기, 사과, 배 등과 같은 과일류가 더 첨가되어 제물상이 풍부하게 차려지고 있다.

음력 초아흐렛날 밤 11시쯤이 되면 제관은 제를 모시기 위해 당집으로 올라가 제물을 차려 놓고, 자정이 조금 지나면 제를 지낸다. 제관이 제를 지내는 동안 마을 사람들 역시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인다.

당제를 올릴 때 잔은 단잔이다. 첫잔에 술을 부어 잔을 씻고 이 빈 잔을 놓고 제관을 비롯해 모두 절을 한다. 그런 다음 제석자리를 펴고 주제주가 앉으면 한 사람은 주전자, 한 사람은 잔을 각각 들고 술을 따른 뒤 잔을 주제주에게 건넨다. 주제주는 받은 술잔을 신주 앞에 놓고 두 걸음 물러나서 절을 두 번 한다.

이때 축을 읽는다. 축을 읽은 축관은 제관의 왼쪽에 위치한다. 이어서 술잔을 들어 조금씩 세 번에 걸쳐 쏟아내고 다시 처음과 같이 잔을 놓고 일제히 절을 한다. 그런 다음 숟가락을 왼쪽으로 돌려 낙저(落箸)한 뒤 다시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리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날이 밝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복을 하고 지신밟기를 한다.

당집 안에는 신주가 놓여 있다. 신주에 쓰여 있는 글자는 150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지만 대체로 후토지신(后土之神) 또는 후토대왕(后土大王)이라는 글자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 당집 앞으로는 부정 탄 모든 것은 지나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상여는 물론 가마도 지나지 못하였다. 상여가 이곳에 근접하면 상토꾼들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전한다. 얼마 전 한 사람이 마을의 소를 도둑질하여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밤이 새도록 당집 주변을 맴돌다가 날이 밝자 소를 놓아 두고 다른 길로 도망갔다고 한다.

특징 당동마을의 당산제에서 특기할 것은 첫째 옛날 당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당집의 역사가 1500여 년이나 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마을 당산제의 역사 또한 아주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닭으로 희생의식을 치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거창군의 마을신앙**(박종섭, 거창문화원, 2003), **거창명승지의 역사와 전설**(박종섭, 대구 문창사, 1997).

필자 **박종섭(朴鍾燮)**

거창대동마을액막이제

정의 경상남도 거창 지역에서 전염병, 특히 천연두가 발병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한 의례.

유래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 마을의 한 집에서 전염병이 발병되면 온 마을로 확산돼 많은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죽었다. 이러한 전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액막이 풍습도 다양하게 생겨났다. 디딜방아 훔쳐오기는 전염병, 특히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액막이 방편으로 거창 지역에 두루 성행했다. 이것은 방아의 절구공이가 마마 자국을 낸다는 신앙에서 기인한 것으로, 방아 손님을 상여에 태워 보냄으로써 액막이가 된다고 믿었다.

내용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이웃 마을의 어느 집에 있는 디딜방아를 밤중에 가서 몰래 훔쳐온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디딜방아를 훔쳐 오기 위하여 사전에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워 연습을 한다. 지정된 날짜가 되면 방아를 훔칠 집으로 간다. 이때 방아를 무사히 훔쳐 나오면 다행이지만 주인에게 들키면 방아를 들고 나오지 못한다. 자기 집의 방아가 도둑맞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면 방아를 못 훔쳐 가게끔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한다. 그러면 훔치러 간 사람들은 그 집에서 물러 나와야 한다. 그런데 방아를 훔쳐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주인이 알았다 해도 방아를 돌려 달라고 하지 못한다. 집 밖으로 나간 디딜방아를 다시 집 안으로 들이면 오히려 주인집에 부정이 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디딜방아를 도둑맞은 것을 알게 된 주인은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며 디딜방아를 보낸다. 이것은 부정된 것을 집 밖으로 몰아낸다는 의식에서 기인한다.

일단 방아를 무사히 훔쳐 집 밖으로 나오면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상여 위에 방아를 얹어 둘러메고 〈디딜방아 상여소리〉를 부르면서 마을로 옮긴다. 이때 상여 뒤에는 가짜 상주가 따르면서 곡을 한다.

너너 너화넘차 너화넘차 방애여
너너 너화넘차 너화넘차 방애여
너너 호사로다 방애태운 호사로다
너너 호사로다 방애태운 호사로다
이방애가 누방앤고 마마님에 방애로세
너너 너화넘차 너화넘차 방애여
마마방애 난데본은 강남조선 국일로세
(뒷소리 생략)
아기자기 차려앱고 이마저마 둘러보고
경상도라 거창골에 좌중안처 좌정하니
모염모염 모여있는 가중마두 정중마두
인물적간 가구적간 고방적간 댕길적에
자식없는 가중에는 아들자식 마련하구
가세없는 가중에는 가세성복 일으키고
근원없는 가중에는 집안근원 마련하소
너너 너화넘차 너화넘차 방애여
너너 호사로다 방애태운 호사로다
영험하고 기염하신 사두별상 마마님네
강남조선 경상도땅 거창인명 수명을랑
남자수명 수천명에 여자수명 수천명에
어린아이 방손들도 받은수명 수천명인데
명복으로 수복으로 고루고루 갖고나와
마마손님 별상손님 범접하지 못하온데
떠나가소 떠나가소 거창땅을 떠나가소
가더래도 섭섭잖게 대접을랑 하오리다
진수성찬 마련하여 정성으로 대접하니
섭섭하다 마오시고 기분좋게 운감하고
금년한해 우리마을 이집저집 드신손님
만단진수 차린음식 기분좋게 드옵시고
앞물을랑 드지말고 뒷물을랑 깨끗하게
가세가세 어서가세 물좋고 정자좋은
동서남북 대명천지 왔던길로 돌아가세
날밝으면 못간단다 바삐바삐 길몰아라
너너 너화넘차 너화넘차 손님방에
너너 호사로다 방애태운 호사로다
마마방애 상여태워 낭구위에 앉혀놓니
이마저마 왔던손님 이집저집 있던손님
영험하고 기염하신 사두별당 마마님네
이곳저곳 다니면서 방아찧어 표적내던
마마방애 손님방애 큰손방애 작은손방애
모두모두 물러가니 기분좋게 물러가니
연지찍어 얼굴에다 분으로다 딱은마마
얼굴곰보 아니되고 곱게곱게 나는구나
너너 너화넘차 너화넘차 손님방애
너너 호사로다 방애태운 호사로세
날밝는다 날밝는다 바삐바삐 길몰아서
정성으로 보내오세 고이고이 보네오세
마마방애 손님방애 기분좋게 보네오세
너너 너화넘차 너화넘차 손님방애
너너 호사로세 방애태운 호사로세

–〈디딜방아 상여소리〉
앞소리 : 이수연 외 3명
뒷소리 : 배태학 외 64명

마을로 옮겨진 상여는 이튿날 아침 마을의 당산나무에 세워 놓는다. 이때 호박의 붉은 속을 상여에 바른 다음 문종이를 겹으로 접어 상여에 붙인 뒤 왼새끼로 묶어두고, 붉고 푸른 천을 엮어 당산나무 주위에 둘러친다. 이것은 잡귀를 물리치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방아는 머리 쪽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세워 거기에 여인의 고쟁이를 씌워 둔다(거창읍 가지리 개화, 가북면 우혜리). 또는 여인의 속바지나 삼베 수건, 속적삼을 씌워 걸어두기도 한다(마리면 대동리 시목). 방아는 반드시 동쪽을 향하게 세워 둔다.

제물은 백시루떡을 사용한다. 백시루떡을 찔 때는 가시가 있는 나무를 열십자로 하여 시루 위에 얹는다. 이것 역시 잡된 것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떡은 시루째 방아 앞에 놓고, 시루떡 한 가운데에다 칼을 꽂아 둔다.

마을 공동 재정이 넉넉한 곳에서는 무당을 청하여 마마 배송굿을 한다. 굿은 부정거리-청배-당산거리-홍수맥이-마마별상 배송거리-뒷전거리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홍수맥이(액막이) 타령〉이 불린다.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정월에드는 액방아는 대보름날에 막고
이월에드는 액방아는 이월한식에 다막아낸다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삼월에드는 액방아는 삼월삼짇날 막고
사월에드는 액방아는 연등불로 다막아낸다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오월에드는 액방아는 오월단오에 막고
유월에드는 액방아는 유월유둣날 다막아낸다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칠월에드는 액방아는 칠월칠석날 막고
팔월에드는 액방아는 한가윗날 다막아낸다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구월에드는 액방아는 구월구일날 막고
시월에드는 액방아는 암세고사로 다막아낸다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동짓달에 드는 액방아는 동지팥죽으로 막고
섣달에드는 액방아는 석찬가래로 다막아낸다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일년이라 열두달 삼재팔난 다막아내고
드는 액은 제쳐내고 많은액운 다쫓아내세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날삼재는 다막아내고 묵은삼재로 다막아다가
춘하추동 가더래도 안가태평 무병하게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점으로다 점지를하고 천만복줄 발원이요
명일랑은 동방석이 복을랑은 석순이복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무쇠주머니 돌돌말아 수명장수 발원하고
연연세세드는 삼재팔난 막어내는 액막이다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어차 액이로구나

–〈액막이타령〉, 이수연 외 69명

재정이 넉넉지 못한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여 제를 올리며, 제물을 차려 놓고 축관이 축을 읽고 나면 제관이 제를 올린다. 이때 축관은 "앞도 당산 뒤도 당산, 영명하신 당산님네, 우리가 이래 비는 것은 당산 손님으로만 이래 비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 해 날아들고 묻어들고 질금질금 따라든 잡귀잡신을 우리 마을에서 모두 실어 가지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제명에 간 귀신, 몽달귀신, 처녀귀신, 오다가다 죽은 귀신 모두 다 모아서 우리 마을에서 확 쓸어 가지고 가옵소서" 하면서 절을 한다. 축은 마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러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집안의 재액을 물리쳐 달라고 소원을 빈다. 제의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이때 떡을 떼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준다. 그리고 풍물을 울려 하루를 흥겹게 보낸다. 풍물을 치는 것도 신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이다.

특징 거창대동마을액막이제는 민속과 민요, 무속과 무가가 공존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디딜방아 상여소리〉와 〈액막이 타령〉 같은 무가가 굿판에서 무속인에 의해서만 불린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전승되어 왔다는 데 또 하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거창군의 마을신앙**(박종섭, 거창문화원, 2003), **거창명승지의 역사와 전설**(박종섭, 대구문창사, 1997).

필자 **박종섭(朴鍾燮)**

걸궁

표제어 걸립(51쪽)

걸립(乞粒)

상호참조 걸립패(54쪽), 지신밟기(859쪽)

정의 공공의 자금이 필요할 때 풍물패를 조직하여 굿을 해 주고 각 가정에서 돈과 곡식을 걷는 것.

내용 걸립은 본래 불교에서 불사를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걸립승(乞粒僧)이 민가를 돌면서 경문이나 염불을 외워 주고 곡식이나 돈을 기부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속을 민간에서 받아들여 필요한 공공적 자금이나 단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풍

걸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2002.2.20
이돈기

물패를 조직하게 되었다. 훗날 불교에서도 민간의 걸궁패와 같이 풍물패를 조직하여 각 마을을 돌면서 걸립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현재 전해지는 걸립은 주로 정초에 마을의 풍물패가 각 가정을 돌면서 마당밟이(지신밟기, 매구)를 해 주고 돈과 곡식을 걷는 형식이 많다. 때로는 다른 마을까지 돌면서 걸립하는 경우도 있다. 걸립은 마을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자금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정초에 액막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믿는 풍물굿을 해 주고 그 대가로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각 가정이 동일한 금액이나 곡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형편이나 정성에 따라 양이 다르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마을에 다리를 새로 놓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거나 새로 농악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면 마을회의를 거쳐 풍물패를 조직하여 걸립하게 된다. 걸립이라는 말은 결국 자금마련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주술·종교적 기능으로 보면 정초에 마당밟이를 하여 각 가정의 액을 막아 주는 기대에 부응한다. 지역에 따라 형태나 명칭이 다양하다.

마을에서 걸립패를 조직하여 각 가정을 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에서 모시는 신격을 위한 풍물부터 시작한다. 동제를 모시는 마을 같으면 동제에서 모시는 신격을 위해 먼저 굿을 치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가서 역시 샘굿을 친다. 그리고 각 가정을 돌면서 문굿, 마당굿, 장독굿, 조왕굿, 성주굿, 터주굿, 외양간굿 등을 친다. 이때 상쇠가 고사소리를 하여 집안의 무사태평을 빌기도 한다. 일단 걸립패가 집안에 들어오면 집에서는 마루에 상을 차리고 그 위에 쌀과 돈을 놓는다. 촛불을 밝히고 실타래를 걸치는 집도 있다. 또 마련한 음식이 있으면 내와서 굿을 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집 안에서 풍물굿이 모두 끝나면 인사굿을 하면서 나와 다른 집으로 향한다. 이렇게 각 가정을 돌면서 걸립이 모두 끝나면 걸립패를 해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예를 자랑하는 판굿을 치고 마무리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걸립이 며칠동안 계속될 때 매일 밤 걸립패가 모여서 판굿으로 기예를 자랑하기도 한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걸립패를 조직하여 다른 마을을 도는 경우도 있다. 다른 마을에 가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 의향을 묻는다. 와도 좋다는 전갈을 받으면 마을 어귀에서 문굿을 친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갈 때 들당산굿을 쳐 주고 샘굿도 친다. 이것이 끝나면 집돌이를 하면서 걸립굿을 치고, 모두 끝나면 마을을 떠나면서 날당산굿을 친다.

걸립의 한 특징으로는 각 가정의 액막이 역할도 하지만 마을 전체를 제액(除厄)하는 기능도 한다. 예를 들면 매년 걸군농악을 하는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에서는 집돌이가 끝나고 나면 마을 공터에서 판굿을 논다. 밤이 이슥해지면 판굿을 치던 사람들이 마을 어귀로 굿을 치면서 행렬을 지어 나아간다. 마을 어귀에는 짚불을 지펴놓는다. 걸군농악을 하던 사람들은 한 명씩 짚불을 뛰어넘으며 일단 짚불을 뛰어넘은 사람은 풍물소리를 내지 않는다. 짚불 넘기가 끝나면 일시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줄달음쳐 돌아온다. 이렇게 마을 어귀에서 짚불을 넘는 것을 소포마을에서는 '굿낸다'라고 한다. 굿은 고어로 귀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귀신을 마을 밖으로 내쳤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한국민속대사전**(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도서출판 창솔, 2004).

필자 **나경수(羅景洙)**

전남 구례군 잔수마을, 2010.2.16, 나경수

집에서 모시는 신격을 위해 풍물을 쳐주는 걸립패

걸립굿을 마치고 마당에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

걸립 황헌만

걸립패

상호참조 걸립(51쪽), 지신밟기(859쪽)

정의 집집을 돌아다니며 고사와 축원을 해 주고 전곡(錢穀)을 얻는 전문적인 풍물패. 어떤 집단이나 마을의 특별한 경비 마련을 위해 연행하기 때문에 유랑예인적 성격이 있으며 크게 절걸립패와 낭걸립패로 나뉜다.

어원 및 유래 '걸궁', '걸량'이라고도 하는 걸립(乞粒)은 집집을 돌아다니며 축원해 주고 돈과 곡식을 얻는 일을 걸량(乞糧)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용어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승려들의 걸량(乞糧)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 이제 중의 무리가 걸량(乞糧) 때문도 아니고 부모를 뵙는 일 때문도 아니면서 부역을 빙자하여 거리에서 천 명 또는 백 명으로 무리를 지어 어깨를 맞대고 소매를 붙잡고서 횡행할 뿐만 아니라 머물러 묵어도 한 사람이라도 금하고 죄를 주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今僧徒不因乞糧, 不因見父母, 憑藉赴役, 街巷之間, 千百爲群, 肩相磨而袂相連, 不徒橫行, 又止宿焉, 未聞禁一人, 而罪一人也) –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1484년(성종 15) 2월 26일 2번째 기사

절의 중수와 창건 등에 대한 일을 두고 성종과 신하들의 의견이 오가던 중에 나온 이 이야기를 통해 걸립과 같은 뜻인 걸량이 조선 초기에 승려들의 일반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걸량이 차츰 풍물패·연희패와 결합되면서 전문적인 걸립패를 구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걸립은 공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풍물패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풍물 실력과 고사축원의 기능을 제대로 갖춘 걸립패가 해야 전곡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나 마을에서 경비 마련이 목적이라면 마을풍물패가 아닌 전문 걸립패를 부르게 마련이다.

역사 걸립패의 활동은 조선시대 문인인 이옥(李鈺, 1760~1812)이 봉성(오늘날 경남 합천 근경)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봉성문여(鳳城文餘)』라는 문집에 남긴

걸립패의 마을 문 통과
전북 고창 '영무장 농악', 1996.3.1, 시지은

「걸공(乞供)」이라는 글을 통해 조선 후기의 걸립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이옥전집 3』에 실린 「걸공」에 대한 기록이다.

> 매구굿을 치면서 촌락을 돌아다니며 쌀과 돈을 걷는 것을 또한 걸공이라고 한다. 정월 12일에는 큰 뚝 아래에서 걸공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흑의에 전립을 쓰고 푸른 색 기를 들고 앞장섰으며, 한 사람은 종이 갓을 썼는데 갓에는 백로 깃털을 꽂았고 누런 웃옷에 부채를 들었다. 한 사람은 공작의 깃털을 꽂고 흰 웃옷을 입었다. 다섯 사람은 전립을 쓰고 검은 겹옷을

당산굿을 하는 걸립패
황헌만

> 입었으며 북을 들었다. 두 명의 아이는 붉은 깃털 꽂은 전립을 쓰고 검은 겹옷을 걸치고 춤을 추었으며, 두 아이는 전립을 쓰고 꽹과리를 들고, 세 아이는 전립을 쓰고 징을 들었다. 한 사람은 갓을 쓰고 흰옷을 입었는데 큰 죽통을 들었다. 한 사람은 개가죽 모자를 쓰고 짧은 옷에 조총을 들었다. 북·꽹과리·징 등을 든 사람은 모두 머리에 한 발가량 되는 흰 천을 달고 있는데 상양이 뛰듯이 걸으면서 징·꽹과리·북 등을 치면서 머리를 흔들면, 머리 위에는 수레바퀴와 같은 흰 무리가 생기는데 이를 그들 말로 '중피'라고 한다. 모두 마당을 돌며 뛰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데 징·꽹과리·북 등은 잠시라도 쉬지 않고 울린다. 얼마 있다가 백로 깃털의 갓을 쓴 자는 붉은 깃털 장식을 한 아이를 어깨 위에 얹고 달려가는데 이 아이는 어깨를 밟으면서 춤을 춘다. 이것을 '동래무'라고 한다.
>
> 며칠 뒤에 또다시 먼 데서 온 자가 있었는데 또한 그 무리가 매우 많았다. 마당에 들어오기 전에 세 차례에 신포가 울리고 쌍각 피리를 불며 두 개의 큰 깃발을 세우고 있었다. 징과 북이 땅을 울리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현감은 그 우두머리 세 사람에게 매를 때려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창과 나발을 몰수하여 병고에 넣어버렸다.
>
> (魅鬼戲之流行村落 求索米錢者 亦名曰 '乞供' 正月十二日 有乞供于大堤下者 一人黑衣氈笠 執大靑旗先 一人紙笠揷鷺羽紙花黃襖執扇 一人笠揷孔雀羽白襖 五人氈笠黑袂執鼓 二人童子氈笠垂紅毦黑袂而舞 二人童子氈笠執鑼 三人氈笠執鉦 一人笠而白襖 執大竹筒 一人狗皮帽短衣執鳥銃 執鼓執鑼執鉦 皆頭垂一丈白 行作商羊步 鼓且搖其頭 則頭上暈白如車輪 曰 '衆皮' 皆遶場而走 且歌且舞 鉦鼓鑼 不敢少間 須臾 冠鷺者 以肩承紅毦童子而走 童子踏肩而舞 名曰 '東萊舞' 其後數日 又有自遠來者 又甚衆 未入場 三響信砲 吹雙角 建大旗二 鉦鼓動地 邑人皆驚 太守笞其渠三人 使不得戲 沒入其鳥銃 喇叭於兵庫)

이옥이 이야기한 '걸공(乞供)'은 걸궁의 차음일 가능성이 크다. '매구굿을 치면서 촌락을 돌아다니며 쌀과 돈을 걷는 것'은 풍물을 치며 쌀과 돈을 걷는 걸립의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악기를 치는 치배와 잡색, 소고수와 무동들로 구성된 걸립패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걸립을 하는데 '마당을 돌며 뛰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일종의 판굿이 벌어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무동 태우기로 보이는 '동래무' 역시 이 걸립

걸립패
황헌만

패의 재주가 매우 다양함을 시사한다. '며칠 뒤에 또 다시 먼 데서 온 자가 있었는데 또한 그 무리가 매우 많았다'는 것으로 보아 정초에 여러 걸립패가 돌아가며 한 마을에 들어오기도 했으며, 마을에 들어오기 위해 '세 차례의 신포가 울리고 쌍각 피리를 부는' 등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옥의 글을 통해 당시 봉성 지역에는 정초에 여러 걸립패가 돌아가며 마을의 허락을 받아 들어왔으며, 마을에 들어와서는 넓은 마당에서 다양한 재주를 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집집을 돌아다니며 고사축원을 하고 돈과 쌀을 받는 걸립의 형태는 아니지만 걸립패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재주를 팔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걸립패의 활동은 당시 봉성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옥의 글은 조선 후기 걸립패의 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보인다.

생존하고 있는 여러 농악예인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고사를 맘대로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1945년에 광복이 되고 나서 걸립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절걸립 · 낭걸립 · 시장걸립, 심지어 소방서걸립 등 걸립패의 활동이 왕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걸립패의 활동은 거의 소멸되었다.

걸립패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2002.2.20
이돈기

형태 걸립패는 연행 목적에 따라 크게 절걸립패와 낭걸립패로 나눌 수 있다. 시주걸립이라고도 하는 절걸립은 절의 중수라든가 범종의 주조 등 절의 특별한 경비 마련을 위해 민가를 방문하여 축원과 염불을 해 주고 곡식 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절걸립패는 우두머리격인 화주(化主)를 중심으로 고사소리를 하는 비나리(축원의 소리를 하는 승려 또는 승려 출신), 화주나 비나리와 부부관계인 젊은 여성인 보살, 풍물잽이, 기예연희자인 산이, 마을이나 집에서 받은 곡식을 지고 다니는 탁발(托鉢) 등이 한 패를 이룬다. 절걸립패는 반드시 사찰에서 발행한 신표(信標, 일종의 신임장)를 지니고 다니며, 방문하는 마을이나 집의 허락을 얻는다.

낭걸립패는 깃발에 서낭을 모시고 다니는 특징이 있다. 우두머리인 모갑(某甲)을 중심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안고사를 해 주고 돈이나 곡식을 받는 전문패이다. 마을에 다리를 놓거나 둑을 쌓거나 나룻배를 만들거나 서당을 짓는 등 마을의 공사(公事)를 위한 공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걸립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마을의 공동기금 마련을 위해 마을풍물패가 소박하게 벌이는 다리걸립이나 나루걸립 등도 있지만 전문 걸립패가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낭걸립패는 여러 가지 기예를 인정받아야 마을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에 따라 절걸립패나 낭걸립패가 행하는 걸립은 절이나 마을의 사정에 따라 시기가 다양할 수 있다. 이는 지신밟기가 새해의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기 위해 주로 정초에 이루어지는 것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걸립패는 영기 · 서낭기를 든 기수, 태평소 · 나발 · 꽹과리 · 징 · 장구 · 북 등 악기를 치는 치배, 대포수 · 조리중 · 창부 · 양반 · 각시 · 무동 등 잡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기예를 보여 주고 허락을 받는 문굿, 마을에 들어가서 당산에 오르며 치는 들당산굿, 당산에 가서 치는 당산굿, 공동우물에서 치는 샘굿, 집집마다 쳐 주는 고사굿이 있다. 밤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걸립패의 다양한 재주를 보여 주는 판굿을 친다.

걸립패가 집집을 돌며 치는 고사굿은 지신밟기와 순서 및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문간에서 치는 문굿, 마당에서 여러 가지 기예를 벌이는 마당굿, 대청마루에서 치는 성주굿, 부엌에서 치는 조왕굿, 뒤꼍에서 치는 터주굿, 우물(샘)에서 치

는 우물굿(샘굿) 등의 순서로 친다. 지방에 따라서는 광이나 외양간 · 꿀통 등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고사굿을 치기도 한다. 고사굿이 끝나면 날당산굿을 치고 마을을 떠난다.

걸립패가 하는 고사굿은 마을 풍물패가 행하는 지신밟기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마을풍물패에 비해 풍물과 고사덕담의 기량이 다양하고 뛰어나다. 이 기량의 뛰어남으로 인해 집집에서 내놓는 전곡의 양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이 걸립패가 마을의 지신밟기를 진행하거나 공공기금 마련을 위해 초청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모인 전곡은 절과 걸립패 또는 마을과 걸립패가 일정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특징 절걸립패는 주로 절의 신임장인 신표를 보여 주고 집돌이 할 것을 허락받지만 낭걸립패가 마을에 들어올 때의 절차는 훨씬 까다로우며 다양한 형태의 문굿으로 존재한다. 마을 어귀에서 풍물 기량을 보여 준 다음 잡색인 대포수가 마을 대표와 걸립의 내용 및 형식을 협의해야 한다거나 걸립패의 재주를 보고 갈퀴를 내주면 입동(入洞)의 허락이요 빗자루를 내주면 입동 불가라든가, 마을 영기 두 개를 빗장처럼 가로질러 놓았다가 풀어 주면 입동 허락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걸립패가 나발을 각각 일초 · 이초 · 삼초 불면 마을에서도 나발로 응대해 주어야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기도 한다. 걸립패 앞에 여러 가지 수수께끼나 문제를 내놓고 풀어야 한다든지 어떤 문구나 글을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한두 가지 또는 서너 가지가 섞여 각 마을에 걸립패가 들어오는 절차인 문굿이 진행되기 때문에 입동의 절차인 문굿은 마을마다 특성이 있다.

마을에서 걸립을 하려는 목적이 있어 걸립패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걸립패의 입동은 허락된 것이지만 입동의 절차인 문굿을 이처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걸립패의 기량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타동(他洞)에 들어오는 걸립패에 마을의 신성하고 엄격한 기운을 과시하는 동시에 문굿에서 꽃피는 웃음과 박수로 걸립을 마을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전초전으로 삼기 위함이기도 하다.

걸립패가 한 마을에 들어와 집집을 돌아다니며 모은 곡식과 돈은 절이나 마을에 필요한 기금이 된다. 이 기금은 절과 걸립패 또는 마을과 걸립패가 일정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걸립패가 의례적 · 예능적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나 곡식은 걸립패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 될 뿐만 아니라 절에 시주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마을 공사(公事)에 기여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성원임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지역사례 걸립패가 어떤 마을을 방문하여 걸립으로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겠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연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나 충청도 지방의 걸립은 절걸립패, 전라도 지방의 경우 낭걸립패에 의해 각각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절걸립패와 낭걸립패가 각 집을 돌며 걸립굿을 하는 순서와 내용은 지신밟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굿을 치고 마당에 들어가 터주굿을 비롯하여 샘굿, 조왕굿, 성주굿 등을 하면서 고사소리인 비나리를 하고 상위에 놓인 곡식이나 돈을 받아 나온다.

의의 전문적인 걸립패는 아니지만 다른 집단의 다양한 걸립의 형태도 존재하였다. 세습무나 창우 집단이 벌인 신청(神廳)걸립, 무당이 신내림을 받고 집집을 돌아다니며 공수를 해 주고 전곡을 받는 걸립 등의 형태이다. 성격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지만 이들 집단은 전문적인 걸립패와 상호 기능적 · 신앙적 교류로 기예의 질을 높이고 신앙적 대상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고사소리와 풍물로 전곡을 비는 절걸립과 낭걸립은 초청한 집단이나 마을을 찾아다니는 유랑적 성격이 있다. 걸립패의 이러한 유랑적 성격은 기예를 전업으로 생활을 유지한 유랑예인집단인 사당패와 남사당패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농악**(정병호, 열화당, 1986), **우리나라 농악의 현주소와 과제**(김헌선, 평택농악발전연구회, 2005), **이옥전집 3**(이옥, 소명출판, 2001), **평택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동방미디어, 2002), **평택농악 예능보유자 김용래 면담**(2004년 12월 5일), **남사당놀이 전수교육자 지운하 면담**(2005년 9월 27일), **전 남사당패 농악예인 김용문 면담**(2005년 11월 11일), **국악예고 강사 임광식 면담**(2010년 5월 14일), **민속촌농악단 단장 정인삼 면담**(2010년 6월 26일).

필자 시지은(施知恩)

경산자인단오제(慶山慈仁端午祭)

정의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과 용성면 일대에서 왜구를 물리친 한장군과 그의 누이의 전승을 기념하고, 이들의 넋을 모시고 위로하기 위해 행하는 축제이자 마을 제사. 1971년 3월 16일에 '한장군놀이'라는 명칭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었고 2007년 3월 12일에 '경산자인단오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역사 경산자인단오제는 신라 제34대 경덕왕(재위 742~765) 때, 경산군(慶山郡)을 장산군(獐山郡)으로 개칭한 이후에 발생했을 것으로 상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경산군 건치연혁(慶山郡 建置沿革)」에 "이 지역이 원래 압량소국(押梁小國) 또는 압독국(押督國)이라 불리던 것을 지미왕(祇味王=祇摩王)이 신라에 예속시켜 군(郡)을 두었고, 그 뒤 신라 경덕왕 때 장산으로 개칭하였으며, 고려 초기에는 장산(章山)이라 하였다가 충선왕(忠宣王)때 경산(慶山)으로 개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한장군놀이의 가장행렬 때 앞서는 대표적인 '장산사명기(獐山司命旗)'는 적어도 신라 경덕왕 시대의 장산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장군(韓將軍)의 존재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실재 인물이면서 그들의 수호신으로 믿고 있다. 즉 한장군은 지역민 정체성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역민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한장군'은 신라 또는 고려시대 사람이라고만 전해 오지만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다. 그의 이름이 한종유(韓宗愈)라 전해지기도 하지만 고려 충렬왕 때 좌정승을 지낸 복재(復齋) 한종유는 아닌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전설이나 신화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실재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단종 대왕이나 최영 장군 · 김유신 장군 등과 같이 신화 전설의 의역사화(擬歷史化)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영남 지방에는 장군이나 장수에 관한 전설이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한장군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또 한장군은 '대장군→한(大)장군→한(韓)장군'으로의 변천과 결부해 신라시대 대장군인 김유신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는 어쨌든 전설이 아닌 실존인물로 믿어지는 이 고을의 수호신이다.

한장군묘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원, 2004.6.20
국립민속박물관

『자인현읍지(慈仁縣邑誌)』 여원무(女圓舞)조에 "자인현은 풍속이 질박(質朴)하고 신라시대의 유풍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여원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만력시(萬曆時, 편자가 만력시라 한 것은 심히 잘못 기록한 것이고, 신라와 고려 사이에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에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잃어 버렸거나 또는 한종유(韓宗愈)라고 한다"고 하였다. 즉 여원무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신라와 고려 사이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주인공도 정확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방의 도천산(到天山)에 왜구(倭寇)가 은거하고 있을 때 한장군이 여원무를 춤추었는데 색지를 오려서 꽃을 만들고 이것으로 두 개의 둥근 관(冠)을 꾸미고 오색지를 늘여 놓고 그의 누이와 함께 여자의 복장으로 각각 관을 쓰고 산 밑에 있는 '버들 못[柳堤]'에서 춤을 추었다. 한편 광대들이 잡희(雜戲)를 해서 왜구들이 산에서 내려와 구경하는 동안에 급습해서 많은 무리를 무찔렀다. 이 버들못의 제방에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는 칼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전하는 말에 참왜석(斬倭石)이라 하며, 매년 이날이 되면 못 물이 붉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그 충의를 흠모해서 신사(神祠)를 세우고 단오일이면 여원무를 실연하였는데 동남(童男) 두 사람이 여장(女裝)을 하고 먼저 춤추었고 또한 광대가 잡희를 하며 북을 치고 징(鉦)을 울렸다. 이 행사를 호장(戶長)이 주관하여 사모관대의 정장을 하고 해마다 제사 지내서 끊이지 않았으며, 만일 제사를 폐

지하면 이상한 재변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유속(遺俗)이 전해온다. 장산군사명(獐山郡司命)이라고 표시한 깃발을 높이 받들어 중시하고 있으며, 하동면(下洞面) 6개 동과 송림동(松林洞) 하북면(下北面) 마라동(麻羅洞)에서도 또한 사당을 짓고 제사지냈다"고 하였다.

즉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여러 곳에 한장군의 사당이 세워지고 도천산성(到天山城)과 유제(柳堤), 참왜석[또는 검흔석(劍痕石)]의 유적이 생겨났다. 또한 사당에 해마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한장군을 모시는 습속과 유풍이 일어났으며, 여원무가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이와 더불어 성대한 놀이와 토속적인 굿이 벌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장군이 죽은 후에 자인 주민들은 그의 충의를 추앙하여 여러 곳에 사당을 세우고, 고래의 명절인 수릿날, 즉 단오절에 추모제사를 모신 뒤 여원무와 광대잡희 · 무당굿 · 씨름 · 그네 등 다채로운 민속으로 사나흘을 즐겼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자인단오제의 시작이다. 지역민에게 한장군의 중요성은 해마다 단오일이면 한장군제를 전승 · 보존 ·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중기에 현감 송수현(宋秀賢)이 한장군의 일을 나라에 알려 벼슬을 추서받게 되었다. 현감은 새로 진충사(盡忠祠)를 지어 한장군을 모시게 되면서 한묘(韓廟)는 두 개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서부터 관 주도로 행해지면서 지역사회의 축제로 자리 잡은 한장군제는 그 사회 · 문화적 상징성으로 인해 일제강점기에는 탄압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한장군 신앙에 관한 일제의 탄압은 한장군에 대한 지역민의 심성 속에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는 저항의식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성원들의 저항의식은 임진왜란 당시 자인 지역의 대유학자이면서 의병장인 성재(省齋) 최문병(崔文炳, 1557~1599)이 1593년 단옷날 참왜석(斬倭石) 앞에서 제사를 올린 뒤에 읊었다는 시(詩) 〈제판서한공종유참왜처유감(祭判書韓公宗愈斬倭處有感)〉에서 살필 수 있다. "당년의 그 훌륭한 공이 사방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니, 빛나는 충성은 삭지를 않아 천년을 지나도 늠름하여라 …… 수릿날 여원무는 영원할지리니(功烈當動四方 精忠不泯凜千霜 至今不廢將軍事 …… 端午女圓永有光)"라는 대목은 지역민의 항왜의식(抗倭意識)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한장군에 대한 지역민의 폭넓은 심성은 한당(韓堂)이 자인면 · 용성면 · 진량면 등 일곱 곳에 이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항왜의식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르러 묘우(廟宇, 신위를 모신 집)가 강압적으로 훼철당하고, 제의가 중단되었으며, 놀이마저 중단되는 운명을 겪게 하였다.

한장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의 집단 무의식은 광복과 더불어 이 때 행사를 부활시켰다. 1950년대 중반 들어와 한장군놀이에 관심이 많으면서 지화(紙花)를 잘 만든 김용호와 후에 기능보유자가 된 고 김도근 외 한 명이 중심이 되어 자인단오제를 복원하여 한 차례 행한 적이 있지만, 재정의 취약성으로 중단되었다.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 연행되다가 1970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때 국무총리상을 받음으로써 그 형태가 다듬어졌다. 일제강점기 때 중단된 것을 1972년에 개장지 숲에 한장군묘를 설단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진충사를 새로 건립하고 단장하였다. 그 이후 '한장군무형문화재보존위원회'를 조직, 이 놀이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장군놀이'는 여원무 복장을 한 한장군과 누이동생을 꾸며 앞세워 그 뒤에 '사또' 행차를 따르게 한 가장행렬로 시작해, 말달리기와 씨름 같은 여흥을 즐겼고, 여자는 그네를 뛰었다. 이때 인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고, 가장행렬에 쓰는 화관이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 하여 다투어 얻어갔다.

여원무는 이러한 전설을 안고 수백 년 내려오는 무형문화재로서 그 춤의 차림이 특이하여 다른 곳에서는 이와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머리에 쓰는 꽃관의 높이가 3m(10자)이며, 온 몸을 오색치마로 가려서 사람은 안 보이고 거대한 꽃 귀신을 연상케 한다.

동제는 한장군 사당이나 '한당(韓堂)'이라고 부르는 마을제당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한다. 이러한 민속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한장군과 관련한 동제를 행하는 송림동과 대종동 등 마을에서는 오월 단오에 '자인단오굿'을 통하여 한장군의 넋을 기리면서 전승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 행사는 조선시대부터 행하던 것이 지금까지 전승되는 것이다. 이때 행하는 자인팔광대는 한묘 앞마당에서 행하던 가면무극이다. 이 동제는 역사적 사건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승축하행사로 각인되어 지역축제로 승화된 모습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위패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원, 2004.6.20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1. 송림동 동제** 본래 한장군의 사당은 바구나무숲에 있었다. 사당 앞에는 커다란 포구나무가 서 있었고, 금줄이 항상 쳐져 있었다. 사당은 왜경(倭警)들이 기독교도들을 시켜 훼철하여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아 있다. 단오굿은 5월 5일 미명에 행했으며, 3년마다 무당을 불러 성대하게 단오굿을 행하였다. 단오굿은 주민들이 한장군 오누이를 방문한 뒤에 행하였다. 먼저 주민들은 한장군의 누이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잡목이 우거진 숲 속에 있는 암석인 '장군덤'에 가서 인사드리면서 쇠를 친 다음, 바구나무숲에 있는 한장군 사당으로 가서 단오굿을 하였다. 이 단오굿은 50년 전에 사라졌으며, 지금은 정월대보름에 이곳에서 '동제'를 행하고 있다. 동제는 깨끗한 사람을 가려서 선정한 제관이 행하며, 비용은 동민이 분담한다.

2. 대종동과 진충묘의 동제 용성면 일대 대종동의 진충묘(盡忠廟)라는 현판을 붙여둔 '한당'은 대종동(大宗洞)에서 들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한장군이 한종유(韓宗愈)라고 알려져 있다. 이 인물은 고려

한장군놀이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대, 2004.6.20, 국립민속박물관

한장군제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원, 2004.6.20,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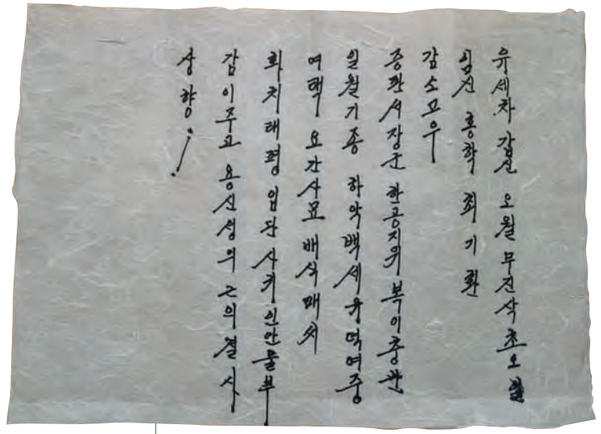
말 때 재상을 지낸 한종유와는 출생 연대와 출생지 등이 다른 동명이인(同名異人)이지만 이곳에서는 동일한 인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주민들은 한종유가 청도군 운문면 대천동 어설마을 출생이며, 자인에서 왜군을 물리칠 때는 17세였다고 한다. 또한 대천동에는 청주 한씨(淸州 韓氏)의 선영(先塋)이 있으나 그는 17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를 제향할 자손도 없고 무덤도 없다. 그 대신에 용성면의 6개동, 즉 대종동(대종마을과 괘일마을)·용천동·용전동·가척동에서 주민들이 집집마다 추렴해 제사를 행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기에 왜경의 압력으로 그 제사는 중단되었다. 당시 구장(區長)의 집안은 망하였다고 한다. 그 때 중단되기 전에 행해진 단오굿은 대단히 성대하여 주막이 서고 인근 지역에서 찾아온 구경꾼들이 운집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 1947년에 창녕 조씨(昌寧 曺氏)와 청주 한씨가 대부분인 대종동 주민들이 발의하여 6개 동이 함께 참여해 복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마을에서 협력하지 않아 대종동 주민들만 추렴하여 사당을 짓고 매년 단오일 자시(子時)에 제향하게 되었다. 이날은 모든 동민이 음복하면서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며 놀았다. 지금의 제사에서는 봉사(장님)가 대내림을 하여 대가 가는 집안의 주인이 제주(祭酒)가 되어 행하고 있다.

3. 한장군의 누이 제당 자인면 마라동[縣內]에서는 또 다른 전설이 전해져오고 있다. 즉 한장군은 오누이였으며, 한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의병으로 그의 누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다가 왜적을 만나 자인 고을을 구했다고 한다. 이것을 기리기 위해 이 지역에서는 한장군의 누이를 사당에 모시고 있다. 자인사당은 원래 계림(桂林)에 위치한 제1한묘(韓廟)와 면사무소 뒤편에 위치한 제2한묘가 있었다. 제2한묘는 한장군 누이동생의 사당이라고도 한다.

원당동의 '한당'에는 제향 때 술을 두 잔 올리며, 축문에 누이가 배향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원

한장군 누이 복장을 한 배우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원, 2004.6.20, 국립민속박물관



자인단오제 축문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원, 2004.6.20
국립민속박물관

래 이 당은 현재의 군내(舊九史縣)에 있었고, 다음에 원동으로 옮겼으며, 그다음에 지금의 자인면으로 옮겼다. 한묘의 제향에서는 영신사(迎神詞)를 부른다. 이것은 축문이 아니며, 음률도 축문과 달리 논매기 노래와 비슷하다. 영신사는 통인(通人)이 사흘 정도 연습해 창(唱)한다.

仁之山兮 古有廟 將軍 靈兮 永訣休
(과거에 불린 부분)
殲敵兵兮 護國兮 怨刀石兮 血痕留
(이하 1968년 여원무 복원 때 불린 부분)
鄕邦民兮 賴安兮 功不朽兮 澤尙流
年復年兮 民俗兮 女圓舞兮 續前遊
想英靈兮 不浪兮 庶陟降兮 感千秋

4. 유제(柳堤)와 참왜석 자인면 교촌(校村)의 향교 뒤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참왜석 근처는 정월대보름날 동제를 행할 때의 제장이다. 단오굿에서는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천막을 치고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제수를 늘어놓고 하루 종일 그대로 두며, 언덕 위에서 놀이하면서 음식을 먹는다. 전설에 얽힌 '버들못[柳堤]'은 바로 언덕 밑에 있으며 그 맞은편에 도천산이 지척에 보인다.

검흔석(참왜석)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원, 2004.6.20
국립민속박물관

5. 계림과 삼정지 개장지 숲은 일견 고대의 성림(聖林)을 연상시킬 정도로 고목이 우거져 있다. 그러나 이곳의 고목들은 일제가 군함의 갑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분 벌채하였다고 한다. 그 일대에는 속칭 '말무덤'이라고 부르는 고분들이 산재한다. 주민들이 한장군묘라고 믿는 고총(古塚)도 그 중 하나이다. 자인농업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정지작업을 할 때 한 개의 고분이 헐리면서 토기와 인골이 나왔다고 한다. 주민들은 그것이 한장군의 유골이라고 하여 1969년에 '개장지 숲' 진충묘 옆으로 이장하였다. 그 고총을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여 가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은제 장신구와 순금 귀고리 등을 출토하였다. 이 숲의 어귀에는 성황당이 있으며, 버들가지를 꽂은 금줄을 쳐 두었다. 개장지 숲이 끊어지는 곳에 새못(三政池)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한장군의 '말무덤'이라고 부르는 고분의 봉분이 위치한다.

6. 여원무 단오굿에서는 현사(縣司)가 있던 자리에서 집결하여 가장행렬로 진장(陳場)터까지 온다. 이곳은 한장군이 진을 친 곳이라 하여 향사 때는 여기에서 말달리기와 활쏘기, 씨름 등을 하였다. 여기에서 옛날에는 여원무를 연행하고, 한당으로 가서 제사를 올리고, 다시 돌아가서 고을원에게 여원무를 보이고 해산했다고 한다. 단오굿에는 고을원이 참여하지 않지만 모든 아전청(衙前廳)의 이속(吏屬)들이 통인 한 명만 남기고 모두 참여했다고 한다.

화랭이(巫夫)의 아들인 13~14세의 미소년 두 명이 여장(女裝)하여 여원무를 시작하기 전에 춤추면서 나아간다. 붉은 행전을 치고, 붉은 치마에 초록 저고리를 입고서 두 손에 한 자가량의 끈을 쥔 미소년들은 여원화의 옆에서 출발하여 중앙으로 진무(進舞)하여 중앙지점에서 돌아선다. 이때의 매구(꽹과리) 가락은 '질매구'(길굿)이다.

여장동남의 진무가 끝나면 먼저 높이 10척의 여원화를 쓰고 땅에 닿는 오색채의(五色彩衣)를 입은 두 명의 관무부(官巫夫)가 중앙으로 진무하여 '덧뵈기' 가락으로 춤을 춘다. 채의는 화관에 달렸으며,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화관이 거대하기 때문에 길고 느린 가락을 울린다. 여원화의 주위에

는 30~40명이 원진(圓陣)을 치고 덧뵈기 가락으로 춤을 춘다. 처음 주위의 원진에서 북과 나발로 구성된 군문 풍악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원진 밖에 따로 늘어선 무부들의 풍악에 맞추어 전체가 춤을 춘다. 1969년 단오에서부터 전설 속의 왜구 섬멸 장면을 끼워 넣어 극화하였다.

여원화에는 그 신성성 때문에 많은 금기가 따른다. 단오제를 행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꽃 근처에 접근할 수 없지만 단오굿이 끝나는 파장에 이르러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꽃송이를 가져가기에 혈안이 된다. 이 꽃송이를 몸에 품고 가서 집에 두면 풍년 · 제액(除厄) · 치병(治病) 등의 효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원화는 마지막에 도리깨로 타작하여 형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 행해지는 한장군놀이의 전승 · 보존 · 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1970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형태가 다듬어졌으며, 1971년 3월 16일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장군놀이는 내용이 많이 줄어들고 변용되었으며, 제의도 유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1974년에 개장지 숲에다 한장군 묘를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고, 진충사를 새로 건립하고 단장하였다. 그 이후에 고 이종대와 고 김도근이 중심이 되어 '한장군무형문화재보존위원회'를 조직하여 복원과 전승에 힘을 기울였다. 1985년 단오제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1986년부터는 권명화(대구 무형문화재 제9호)가 중심이 되어 무당의 큰 굿을 부활하였다. 또 1986년 11월에 안명욱이, 2007년 3월에 박인태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어서 이를 전승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장군놀이'는 2007년 3월 12일에 '경산자인단오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한장군놀이가 단오행사에 부속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경산자인단오제'는 본래 '단오굿'이라 불렸는데 중요무형문화재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단오굿'을 '단오제'로 변경한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유적분포지도-경산시**(경산시,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6), **자인단오**(경산문화원, 1998), **자인단오굿 '큰 굿' 복원에 관한 조사노트**(김택규 · 이기태, 향토사연구 13, 한국향토사전국협의회, 1998), **자인의 맥**(이종대, 우진기획, 1991), **자인의 여원무와 한장군놀이**(김택규, 경북예악지, 경상북도, 1989).

필자 이기태(李淇泰)

경순왕

표제어 김부대왕(149쪽)

계룡산산신제(鷄龍山山神祭)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의 산신(山神)에게 올리는 제사. 통일신라시대부터 국제(國祭)의 대상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국행제(國行祭) 중 소사(小祀)로 거행되었다. 지금은 매년 4월에 유교식, 불교식, 무속식이 혼합된 형태로 산신제를 올린다.

역사 계룡산은 호서(湖西)지방의 명산으로, 백제시대 때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명산으로 지목받았다. 이곳에서 산신제를 언제부터 지내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백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기에 연원은 오래되었다.

백제에서는 나라의 동쪽 경계를 수호하는 산으로서 계람산(鷄藍山)이라 불렀으며, 통일신라에는 전국토를 수호하는 명산대천의 제사 중 중사(中祀)인 오악(五嶽) 가운데 서쪽에 위치한다 하여 서악(西嶽)이라 불렀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중사로 치제되었으며, 명칭만 남악(南嶽)으로 바뀌었다. 조선에 이르러 오악이 삼산(三山)으로 축소되면서 묘향산 · 계룡산 · 지리산이 국토를 수호하는 산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계룡산은 일찍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명산으로 인식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었다. 이 산은 지역을 수호하는 명산이라기보다 국토를 수호하는 국행제의 성소(聖所)로 간주되었다.

계룡산산신제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는 조선시대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계룡산은 조선시대의 국가사전(祀典) 중 소사(小祀)의 대상이었다. 계룡산은 국가를 수호하는 삼악(三嶽)신앙 중 한 곳으로, 나라의 중앙을 지키는 곳이라 하여 이곳에 중악단(中嶽壇)을 건립했다. 현재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에 소재한다. 신원사(新元寺) 경내에 있는 중악단은 사찰 경내에 있지만 사찰과는 별도인 국행제의 처소이다.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관료가 향축(香祝)을 받들고 내려와 계룡산 산신에게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국가 사전이 폐지되면서 방치되었다가 1998년에 공주시가 복원하여 지금까지 해마다 4월에 '계룡산산신제'를 거행하고 있다. 현행 제사는 유교식, 불교식, 무속식이 혼합되어 있다

이 밖에 계룡산 주변 마을에서도 마을의 주신(主神)으로 계룡산 산신을 모신다. 계룡산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룡산은 명산으로서 자신의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내용 계룡산은 대전광역시와 충남의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에 걸쳐 있는 명산이다. 이에 대한 믿음은 국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분된다. 국가에서는 백제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대한 치제의 일환으로 산신제를 거행했다. 특히 조선의 국가 사전에서는 소사로 규정되어 국행 산신제를 베풀었다. 산신제는 계룡산의 서북쪽에 위치한 신원사의 경내에 남아 있는 중악단에서 치러졌다.

중악단은 신원사 대웅전의 동쪽 뒤편에 있는 구릉지에 위치한다. 대문간채 · 중문간채 · 중악단을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둘레에는 네모난 담장을 둘렀다. 중앙에 위치한 중악단은 현재 전면 세 칸과 측면 두 칸의 단칸으로 다포식 팔작지붕 건물이다. 현존하는 건물은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진 것이지만 왕실 주도로 건축되어 조선 후기의 궁전 건축 양식 및 수법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단묘 건축물로서의 격식을 갖추었으며, 소규모임에도 화려하고 위엄 있게 조성된 당시의 빼어난 건축물로 꼽힌다. 이것은 1999년 3월 2일 '보물 제1293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앙에는 단을 설치하여 감실을 두고 '계룡산산신(鷄龍山山神)'이라 쓴 위패와 산신도(山神圖)를 봉안했다.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내게 된 것은 1394년(태조 3)부터이다. 북쪽 묘향산의 상악, 남쪽 지리산의 하악과 함께 예부터 영산(靈山)으로 꼽히는 삼악(三嶽)의 하나인 계룡산의 신원사 경내에 계룡단(鷄龍壇)이라는 단을 모시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1651년(효종 2)에는 이 단이 폐지되었다가 1879년(고종 16) 명성황후의 명으로 재건하고 중악단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계룡산 인근 지역에서 전승되는 산신제에 대한 연원은 조선 태조와 관계가 깊다. 태조가 조선을 일으키기 전에 계룡산을 비롯한 전국의 오악을 돌면서 기도를 했으며, 나중에 계룡산의 도움을 받았다 하여 제사를 모시기 시작했다는 설화가 있다. 무학대사의 현몽으로 태조가 이곳에 단(壇)을 베풀고 산제를 모셨다는 설화도 전한다. 또 계룡산 사연봉(四連峰)에 살고 있는 신모(神母)가 해몽으로 태조의 건국을 예언했다 하여 신모를 위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또한 태조에게 계룡산은 정씨(鄭氏) 터이고 이씨(李氏) 터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홀연히 자취를 감춘 떡장수 할머니 이야기가 전해진다. 나중에 이 떡장

계룡산산신제 충남 공주시 계룡산, 2002.4.26, 국립민속박물관

중악단 내부

중악단 전경

계룡산산신제 충남 공주시 웅진동 고마나루, 2002.4.26, 국립민속박물관

제물 진설

헌관

제관

헌작

헌작

축문 낭독

수 할머니가 계룡산신임을 알고 계룡산신사를 짓고 그녀를 위해 제사를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계룡산산신제가 조선 건국 전후의 태조 이성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태조 2년 기록에는 계룡산을 호국백(護國伯)으로 봉(封)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계룡산과 태조를 강하게 결부시키는 설화의 관념에는 계룡산산신도 조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계룡산산신에 대한 믿음이 국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별개로 존재했기에 계룡산의 형상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중악단에 모셔진 계룡산산신은 호랑이를 옆에 끼고 앉은 할아버지 형상이다. 붉은색의 도포를 입고, 머리는 위로 틀어올린 형상의 그림이다. 조선의 국가 이념인 유교의 가부장(家父長)에 대한 관념이 강조되면서 산신을 남성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앞의 설화들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모나 할머니 형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계룡산 남쪽에 위치한 동학사의 산신각에 여산신령 조각이 봉안되어 있다. 이 산신각의 연원은 알 수 없으나 절이 724년에 창건된 사실에 미루어 산신에 대한 관심도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계룡산의 산신은 여성이라는 관념이 지역 사회에서는 지배적이다.

계룡산산신제는 1998년에 복원되면서 해마다 4월에 공주시와 신원사가 공동으로 주관해 거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행제는 봄과 가을에 거행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대에는 "매년 춘추로 향(香)과 축(祝)을 내려 제사를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사는 소재관이 담당하며, 향과 축은 중앙에서 내려보냈다. 간혹 중앙에서 내시(또는 내시별감), 정랑(육조의 정5품 관직) 등이 제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성종 대에는 제사에 사용하는 제수(祭需)를 귀후소(歸厚書, 관곽을 제조하고 장례를 담당했던 관청)에 넘겨 관곽(棺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목을 구입하도록 했다. 계룡산 제사에 들어간 제수의 규모도 컸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제사 내용은 조선 후기에 공주의 한 유학자가 쓴 『계룡당기(鷄龍堂記)』에서 약간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제사는 매년 춘(春) 2월과 추(秋) 8월에 택일하여 지냈고, 정초에는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 제사는 제관 두 명, 집사를 맡은 유생 여섯 명이 중심이 되어 행하였다. 제관은 경사(京師)에서 보냈다. 이 글에서는 '통훈대부 모(通訓大夫 某)'라고 되어 있다. '통훈대부'는 문관의 정3품 당하관이다. 유생은 읍내 향교에서 선임하였다. 계룡산 제사를 위하여 행정적으로는 경사의 예조, 공주감영, 공주목, 향교 등의 협조가 있었다.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제관과 유생은 먼저 신원사에 모였다. 이때 신원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유학자의 글에서 분명하지 않다. 폐백과 제물도 신원사에서 담당한 것 같지가 않다. 수승(首僧)을 비롯한 승려들은 제관을 모시고 제사 과정에서 연락 등 수발을 든 것으로 보인다. 폐백과 제물이 도착하면 제관과 집사들은 계룡당으로 장소를 옮겨 제사를 모셨다. 동민들도 신원사에 와서 횃불을 드는 등 제사를 주변에서 도왔다. 절에서 모시는 산신이므로 명태 같은 육식이나 술은 올리지 않는다.

역사 문헌에는 개인적인 치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밖에 개인적으로 영험한 명산인 계룡산에 제사를 올리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지만, 계룡산은 고대 사회 이래로 기도의 장(場)으로서 줄곧 활용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흉서(凶書) 죄인 곽처웅(郭處雄)이란 사람이 개인적으로 역모의 성공을 계룡산 산신에게 기도한 사건이 있다.

계룡산 인근 마을 중에는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와 하신리에 각기 산신당이 있다. 산신당에는 산신을 무신도 형태로 봉안해 두었다. 계룡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구룡사라는 사찰이 있던 상신리 마을 어귀에는 솟대가 세워져 있다. 이 솟대의 머리가 계룡산을 향하도록 한다. 명산인 계룡산을 바라봄으로써 그 정기(精氣)를 받아 마을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한다. 이처럼 계룡산과 계룡산 산신에 대한 믿음은 그 주변 마을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악단에서의 산신제는 조선의 멸망과 더불어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 공주시가 주도하여 산신제를 지방축제로 복원하였다. 해마다 4월 말일부터 5월 초 이틀에 걸쳐 축제를 연다. 이때 산신제는 유교식, 무속식, 불교식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이다. 여러 종교 단체의 산신제가 종합되면서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지방축제가 된 것이다.

제사는 먼저 공주향교에서 유가식(儒家式)으로 산천 제의를 올린 뒤 불가식(佛家式)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공주무속연합의 법사들이 산신제와는 별도로 굿마당을 펼친다. 이어서 외국 산악신앙의 기원제를 올리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의 지역 산신제를 진행한다. 부대 행사로 부적 그리기, 사주 보기, 타로점 등을 비롯하여 민화 · 무속화 전시, 풍장놀이, 기(氣) 수련, 전통무예 시범공연 등이 열린다.

계룡산산신제는 부대행사와 더불어 봄꽃놀이 관광객과 다양한 신앙인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참고문헌 계룡산의 신앙민속(충청남도, 계룡산지, 1994), 공주시지–신앙(이필영, 공주시, 2007), 공주지방의 민속신앙(공주문화원, 1995), 중악단(이필영, 계룡산산신제, 1993).

필자 김효경(金孝慶)

고성석마리석마

정의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석마(石馬) 한 쌍. 1974년 2월 16일에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위치 경남 고성군에서 창원시로 향하는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마암면(馬岩面)이라는 이정표와 함께 왼쪽으로 향하는 길이 나타난다. 이 길을 따라가다가 면사무소를 지나고 석마교를 건너면 석마리(石馬里)가 나온다. 석마는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옆에 있으며, 한 쌍의 두 마리 모두 마을 쪽을 향해 서 있다. '말바위'의 마암(馬岩), 즉 '돌 말'의 석마리 지명 유래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석마는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상당한 알려져 있다.

형태 석마는 화강암으로 깎아 만든 한 쌍의 말 조각상이다. 길이는 각각 150㎝와 210㎝이고, 높이는 45㎝와 50㎝이다. 오른쪽 석마는 목이 부러져 다른 석재를 덧대어 수리해서 왼쪽 석마보다 목이 더 길며, 뒷 엉덩이 일부가 결손되어 있다.

석마는 축대 위에 세워져 있고, 주위에 고풍스러운 팽나무 가지들이 드리워져 있다. 마을 사람들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축대를 쌓으면서 석마 밑부분을 팠을 때 자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제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처음부터 석마는 한 쌍이었다. 그 가운데 한 마리의 목이 부러져 축대 밑에 따로 두었고, 한 마리만 서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마리 석마가 외로워 보여 작은 석마를 새롭게 만들어 세웠다. 그 후 목이 부러진 석마를 수리하여 원위치에 다시 세우면서 한동안은 마을 어귀에 석마가 세 마리였다. 최근 새로 만든 작은 석마를 도난당해 현재는 원래의 석마 한 쌍이 있다.

이 석마들은 화강암을 거칠게 다듬어 만들었다. 머리부터 목, 잔등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몸체에 비해 다리는 짧은 편이며, 눈은 선각을 했다. 귀 · 코 · 입 · 꼬리 등은 단순하게 조각했다. 특히 코의 모양을 보아 분명히 말을 조각했음을 알 수 있는 토속적인 작품이다. 석마 자체 조각은 단순하고 투박하며 소박하다.

고성석마리석마
경남 고성 마암면 석마리, 2010.6.24 천진기

내용 돌로 만든 한 쌍의 석마리석마는 마을 어귀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이 석마들이 제작된 동기는 호환(虎患)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에 호랑이가 마을에 자주 나타나 피해가 극심하자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이 석마를 만들었다. 다른 지역의 마을신이 석마를 타고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구전 내용은 없다.

마을에서는 석마를 석신(石神) 또는 마장군(馬將軍)이라고 부르며,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정월 동제를 지냈다. 동제는 정월대보름날 새벽 1~2시에 지내며, 절차는 다른 지방의 마을 제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섣달그믐날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 사람으로 제관(祭官)과 집사를 선정한다. 선발된 제관은 당일부터 제사 후 사흘까지 근신하고 금기해야 한다. 제사가 가까워지면 석마 주위와 마을 주변에 황토를 뿌리고, 왼쪽으로 꼰 새끼의 금줄에 댓잎과 솔잎을 꽂는다. 제물로는 통닭 등을 사용한다. 이 제의에는 다른 마을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풍습이 있다. 섣달그믐날 밤 콩 한 말을 석마 앞에 공양하고 촛불을 밝혔다가 이튿날인 초하룻날에 걷어냈다고 한다.

> "…… 먼저 만물이 나고 천마(天馬)가 남래(南來)하여 풍월궁(風月窮, 산간벽지를 의미하는 듯)에서 우니, 산의 뿌리 굳고 방성(房星, 말의 수호신으로 상정되던 별)이 자리를 움직여 우리 골짜기를 수호할 새, 만물이 번성하고 도깨비들이 도망치고 호표(虎豹, 호랑이나 표범)가 숨도다. ……"

제의의 축문도 마단령축문(馬壇靈祝文)이라 하여 수호신으로서의 말의 영험을 기리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에서 공동 제의를 거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마암면 면민체육회 회장인 마암면장이 주관한다. 정월대보름날에 제물을 차리고 풍물을 친다. 그 후 마암면의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걸립을 한다. 마을 단위보다는 면 단위 행사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경남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고성군지**(고성군, 1980),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말민속론**(천진기,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6), **문화재청**(cha.go.kr).

필자 **천진기(千鎭基)**

고수레

표제어 한식(984쪽)

고창사내리당산

정의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사내리 마을 앞에 서 있는 4기의 입석 형태 당산. 1999년 7월 9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32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조선 성종(재위 1469~1494) 때 마을을 지나던 한 도승의 말에 따라 세웠다고 전해진다. 원래는 12당산이 있었으나 어느 날 마을 노인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4위만 모시라는 계시가 있은 뒤부터 지금까지 4기에만 정월대보름날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외부로 통하는 마을 어귀 길가에 시정이 있으며, 시정 옆에 당산석이 1기 있고, 북쪽으로 난 논둑길을 따라 각각 약 30~40m의 거리를 두고 3기의 당산석이 연이어 서 있다. 시정 옆에 있는 당산석은 할머니당산, 북쪽 논둑길에 처음에 있는 당산석은 할아버지당산, 그다음은 아들당산, 맨 뒤쪽은 며느리당산이다.

당산제는 할아버지당산-할머니당산-아들당산-며느리당산 순서로 제사를 지낸다. 당산제를 지내면서 왼새끼를 꼬아 두세 바퀴 당산석에 두르고 옷을 입힌다고 하여 당목천을 길게 오려 금줄 사이사이에 끼운다.

모든 당산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할아버지당산과 아들당산은 머리에 갓을 씌우듯 갓돌을 올렸다. 남자만 갓을 쓰기 때문에 갓돌도 남신인 할아버지당산과 아들당산에만 씌운 것이다.

당산 명칭	높이	너비	두께	갓지름
할머니당산	65㎝	45㎝	22㎝	–
할아버지당산	109㎝	37㎝	–	60㎝
아들당산	110㎝	40㎝	–	84㎝
며느리당산	50㎝	40㎝	14㎝	–

참고문헌 **고창군지**(고창군지편찬위원회, 2009).

필자 **나경수(羅景洙)**

고창사내리당산 전북 고창군 성송면 사내리, 2010.6.29, 나경수

고창오거리당산

상호참조 고창오거리당산제(74쪽)

정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입석 형태의 당산. 1969년 12월 6일에 '중요민속자료 제14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조선 후기인 정조 때 전라도 일대에 큰 홍수로 피해가 컸다. 홍수 후에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받았다. 이로 인해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환역(患疫)을 막을 방도를 찾으라는 어명이 내려졌다. 지역의 아전들은 스스로 화주(化主)를 자청하여 출연하였고, 민심 수습과 환란 극복을 위해 수구막이를 세울 계획을 세웠다. 고창읍의 중앙동, 중거리, 하거리 당산에 각각 석주를 세워 수구막이를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은 1803년에 완성되었다. 이처럼 인공으로 가공한 석주형 당산이 아니라 자연석이나 당산나무를 당산으로 삼은 것도 함께 있다.

현재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석주형 당산은 중앙당산, 중거리당산, 하거리당산의 세 곳에 있는 것으로, 이들 모두 인공적으로 다듬어 세웠다. 이 밖에도 자연석으로 된 입석이 더 있으며, 상거리당산과 교촌당산도 있다. 중앙당산을 중심으로 하여 고창읍의 동서남북에 배치된 당산들이다. 이들 다섯 곳의 당산에는 지금도 매년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이들 당산에서는 단독이 아니라 가족 형태의 신격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입석에는 매년 당산제를 지내면서 둘러놓은 금줄이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중거리 할아버지당산에는 줄다리기를 하고 나서 감아 놓은 줄이 걸려 있다.

1. 중앙당산 중앙동의 매일시장 안에 있으며,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어서 당숲거리로 불리기도 했다. 중앙당산은 할아버지당산이다. 할아버지당산은 사각기둥 형태로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위에는 원형의 벙거지형 덮개돌이 씌워져 있다. 미륵당산, 석주당산, 할아버지미륵불이라고도 불린다. 높이는 375㎝, 개석은 직경 65㎝, 두께는 7㎝이다. 전면에는 "시주 김양봉 이명득 차도욱 신광득 화주 김성택 차도평 노귀연위단경철 가경팔년계 해윤이월초십일(施主 金陽鳳 李明得 車道旭 申光得 化主 金聖澤 車道平 魯貴連韋

段慶哲 嘉慶八年癸亥閏二月初十日)"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여러 사람이 시주를 하고 만들 때 공을 드린 것과 특히 1803년 음력 이월 윤달 초열흘날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중거리당산과 하거리당산의 석주는 모두 같은 해 3월로 되어 있는데 비해 이곳은 2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에 먼저 석주를 세우고 남쪽과 서쪽의 석주를 한 달 뒤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당산은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웠다는 말도 전한다.

2. 중거리당산 중앙동의 안거리 입구 길가에 할아버지당산, 여기에서 50m쯤 떨어진 골목길에 할머니당산이 있다. 골목길 더 안쪽에 아들당산과 며느리당산이 수목 형태로 있었지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베어내고 지금은 없다.

사각기둥의 석간(石竿) 형태로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상층부에 탑의 옥개석(屋蓋石) 모양의 덮개돌을 씌우고 상륜부도 완연하다. 전체 높이는 328㎝, 상부 옥개석은 65×65㎝이다. 전면에 "千年頑骨 屹然鎭南 嘉慶八年癸亥 三月 日(천년세월 강한 몸체 우뚝 솟아 남쪽 진압 1803년 3월 일)"이라고 한문으로 명문(銘文)이 음각되어 있다. 정월대보름날에 마을에서 당산제를 지내며 마을민들이 줄다리기를 한 뒤 줄을 몸체에 감고 상륜부에 줄의 머리를 걸쳐 놓아 마치 용틀임의 모습을 보인다.

할머니당산은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세워 두었다. 골목길에 서 있는 할머니당산은 높이 160㎝, 두께 38㎝, 아래 폭 145㎝, 중간 폭 110㎝의 크기이다. 1950년대 말에 할머니당산이 있는 곳에 군청에 다니는 사람의 집이 있었다. 집 안을 조금 넓게 사용하기 위해 입석과 나란히 담을 내어 쌓았다고 한다. 그런 뒤로 집안에 우환이 많아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 가세가 기울자 내어 쌓은 담을 다시 뒤로 물려 새로 쌓았지만 가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살림을 정리하여 읍내에서 시골마을로 떠났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당산을 건드려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으며,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3. 하거리당산 삼흥동의 서부리 숲정이에 할아버지당산, 할머니당산, 아들당산이 있다. 본래는 숲이 우거져 있었지만 현재는 팽나무 한 그루만 남아 할머니당산으로 모셔지고 있다.

사각기둥의 석간 형태로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상층부에 탑의 옥개석 모양의 덮개돌을 씌우고 상륜부도 완연하다. 큰 돌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받침돌로 썼다. 하단부는 전체 높이가 645㎝에 달하며, 옥개석은 50×50㎝ 크기이다. 윗부분의 개석 때문에 갓당산, 삿갓비석, 또는 철륭으로도 불린다. 전면에 "진서화표 가경팔년계해 삼월 일(鎭西華表 嘉慶八年癸亥 三月 日)"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화표(華表)는 화표주(華表柱)의 준말로, 망주석(望柱石)과 같은 의미이다. 서쪽을 진압하는 표석으로서 1803년 3월에 세웠다는 뜻이다.

할아버지당산 옆에는 오래된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것이 할머니당산이다. 허리 높이로 금줄이 둘러쳐져있다. 전에는 근처에 숲이 크게 우거져 있었지만 당산목만 남고 모두 벌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은 숲정이로 불리고 있다. 숲정이는 전라도에서 우거진 마을 숲을 부르는 말로, 숲쟁이라고도 한다.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 사이에는 비석이 한 주 서있다. 이것이 아들당산이다. 전면에는 '고창읍내수구(高敞邑內水口)'라고 큰 글씨로 음각되어 있다. 고창읍의 수구막이로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단부가 부러져서 시멘트로 이어놓은 흔적이 완연하다.

4. 상거리당산 고창읍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동부리로도 불리는 지금의 천북동에 할아버지당산과 며느리당산, 모양동 큰길 가에 할머니당산이 각각 있다. 할아버지당산은 골목길에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으며, 약간의 손질을 한 흔적이 있는 화강암 직육면체 모양이다. 높이 180㎝, 너비 25㎝, 폭 75㎝이다.

며느리당산은 할아버지당산 바로 옆에 있는 개인집 마당에 서 있는 자연석이다. 며느리당산 옆에는 역시 개인집 앞마당에 오래된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예전에는 이런 나무가 숲을 이루었으나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훼손되었다고 한다.

할머니당산은 큰길 가에 있으며, 역시 예전에는 주변에 숲이 있었으나 지금은 집들이 들어서서 나무들이 모두 없어지고 자연석의 입석만 남았다. 높이 106㎝, 밑면 너비 140㎝, 두께 26㎝이다.

5. 교촌당산 군청에서 200여 m 되는 지점 길가에 할

고창오거리당산 전북 고창군 고창읍, 2010.6.23, 김월덕

상거리 할아버지당산

상거리 할머니 당산나무

중거리 할아버지당산

중앙 당산할아버지

하거리 할아버지당산

하거리 할아버지당산 수구맥이입석

아버지당산이 서 있다. 본래는 할아버지당산, 할머니당산, 아들당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할아버지당산만 남아 있다. 할아버지당산도 본래는 향교 옆에 있었지만 차량에 훼손된 뒤 현재 위치에 고창오거리당산보존회가 주관하여 1984년에 새로 세운 것이다. 정사면체에 머리 부분은 탑과 같은 옥개석으로 얹었다. 정면에 '진북화표(鎭北華表)'라고 한자로 음각되어 있고, 옆면에는 "일구팔사년시월 일 고창오거리당산보존위원회 입(一九八四年十月 日 高敞五距離堂山保存委員會 立)"이라고 역시 음각되어 있다. 전체 높이는 220㎝, 비신은 160㎝, 비신의 두께는 31㎝, 옥개석 너비는 66㎝이다.

참고문헌 고창군지(고창군지편찬위원회, 2009).

필자 나경수(羅景洙)

고창오거리당산제

상호참조 고창오거리당산(71쪽)

정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에서 정월대보름날에 행해지는 고을 당산제. 2007년 7월 27일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었다. 고창오거리당산은 행주형국(行舟形局)인 고창읍의 고을 풍수를 비보하기 위해 고을의 오방에 세운 화표(華表) 및 당산을 가리킨다. 고창읍의 다섯 당산 가운데 중거리당산 · 중앙동당산 · 하거리당산은 상부에 삿갓을 쓴 모양의 석간(石竿)으로, 1969년 12월 15일에 '중요민속자료 제14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및 역사 중거리당산, 중앙동당산, 하거리당산 석간에는 건립 연대와 시주자(施主者) 및 화주(化主) 명단이 새겨져 있다. 세 석간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이것들이 1803년(순조 3)에 건립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석간을 마을별 신체(神體)로 모시기 위해 고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건립에 참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창오거리당산은 풍수지리상 행주형국인 고창읍을 비보하기 위해 기존의 자연입석보다 더 높은 석간으로 돛대 역할을 하도록 세운 것이라고 전한다.

내용 및 특징 현재 고창오거리당산제는 1980년대에 고창문화원에서 재현한 이후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06년 전북 정읍시에서 개최된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당산제는 음력 정초에 마을별로 행한 후에 정월대보름날에 중거리당산 일대와 고창 문화의전당 광장에서 당산제, 연등놀이, 줄 놀이, 줄 예맞이, 줄 시위굿, 줄다리기, 당산 옷 입히기 등을 한다. 이 당산제는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지역전통문화축제로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줄다리기
전북 고창군 고창읍
2009.9.12. 김월덕

줄다리기 준비
전북 고창군 고창읍
1999.3.3. 김월덕

고창오거리당산은 고창읍의 오방에 위치한 다섯 마을, 즉 상거리 · 안거리 · 중거리 · 하거리 · 교촌리에 위치하고 있다. 각 마을의 당산은 자연입석과 인공석간, 당산나무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중앙동당산, 중거리당산, 하거리당산은 화강암 석간으로서 상부에 갓을 얹은 모양을 하고 있어 '갓당산'이라고도 한다. 이들 당산은 공통적으로 할아버지당산으로 인식된다. 이 당산들의 형태와 각 마을별 당산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의 동쪽에 있는 상거리당산은 고창읍 읍내리 천북동(또는 동산몰)에 있으며, 입석과 당산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안쪽의 할아버지당산은 입석과 나무가 결합된 형태이며, 할머니당산은 팽나무이다. 마을 바깥쪽 길가의 자연입석은 아들당산(또는 큰부인당산)이라고 한다. 상거리당산제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지낸다. 제주는 제관, 축관, 집사 등을 선정한다. 제물은 메, 편, 돼지머리, 나물, 채소, 삼실과 등이다. 제의 비용은 마을 소유의 전답에서 나오는 소출로 충당하며, 제수 장만은 노인당 산지기 집에서 담당한다. 정월 초하룻날 오전에 제사가 끝나면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노인당에 함께 모여 음복한다.

중앙동 시장 안에 있는 중앙당산은 높이 375㎝의 화강석 석간으로 되어 있다. 신격은 할아버지당산이다. 일제강점기 말까지 할머니당산 나무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석간만 남아 있다. 중앙당산은 석간에 '가경팔년 계해윤이월초십일(嘉慶八年 癸亥閏二月初十日)'이라는 문구와 시주 및 화주 명단이 새겨져 있어 건립 연대와 건립 참여자들을 알 수 있다. 중앙당산에서는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당산제를 지낸다. 이때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이월 초하룻날로 연기한다. 제관과 유사는 생기복덕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며, 제의 비용은 마을회의에서 결의하여 추렴한다. 제물로는 떡, 삼실과, 나물, 생선 등이다. 제의는 유교식 절차에 따라 간소하게 행하며 제의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복한다.

읍의 중앙에 위치한 중거리당산은 높이 382㎝의 화강석 석간 형태이다. 상부에 사각 모양의 갓을 씌운 모습이며, 이를 할아버지당산이라고 부른다. 이 석간에는 '천년완골흘연진남 계해삼월 일(千年頑骨屹然鎭南 癸亥三月 日)'이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어서 고창읍의 남쪽 방위를 비보하기 위해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의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자시에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6 · 25전쟁 전까지 지냈다고 한다. 고창오거리당산제 복원 이후 이 중거리당산제는 일종의 연합 제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고을 당산제로서 '오거리당산제'라고 할 때에는 정월대보름날에 행하는 중거리당산제를 지칭한다. 제관은 삼헌관, 축관, 집사로 이루어진다. 제의 비용은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에서 마련하고 있다.

현재 '고창오거리당산보존회'에서 주관하여 행하는 오거리당산제는 중거리당산과 고창 문화의전당 광장 등지에서 이루어진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굿판을 어우른 다음 진설-헌작-재배-독축-소지-음복 순으로 유교식 제의를 지낸다. 제의가 끝나면 남 · 여로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는 세 번을 하며,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 때문에 항상 여자가 두 번 이긴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중거리당산에 감아 둔다. 이를 '당산 옷 입히기'라고 한다. 감아둔 줄은 이듬해까지 그대로 둔다.

고창천 남쪽 골목 안에 있는 하거리당산은 높이 670㎝의 사각 석간 형태이다. 신격은 할아버지당산이다. 석간 측면에 '진서화표가경팔년 계해삼월 일(鎭西華表嘉慶八年 癸亥三月 日)'이라고 새겨져 있어 이 당산이 읍의 서쪽 방위를 비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표 옆에는 큰 느티나무와 고창읍 내 수구입석비(高敞邑內水口立石碑)가 있다. 느티나무는 할머니당산으로 여기며, 입석비 또한 당산으로 일컫기도 한다. 하거리에서는 수재(水災)를 비롯해 각종 재앙을

비방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에서 음력 정월 초하룻날 저녁에 제의를 행하였다. 제관과 유사는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선정하고 나서 떡, 돼지머리, 삼실과 등의 제물을 준비한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간단히 지낸다.

고창읍의 북쪽에 위치한 교촌당산은 입석 두 기와 당산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할아버지당산은 고창중학교 앞의 길가, 할머니당산은 고창중학교 안, 아들당산은 향교 서편에 각각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당산은 중거리당산과 같이 석간 형태였으나 중간에 훼손되어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에서 1984년에 다시 만들어 세우고 비문 앞면에 '진북화표(鎭北華表)'라는 명문을 새겨 넣었다. 할아버지당산을 다시 세우면서 아들당산과 함께 마을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와 현재는 할아버지당산과 아들당산이 나란히 놓여 있다. 교촌당산제는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지낸다. 제관과 유사는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 가운데 한 명씩 선정되며 제관은 몸을 깨끗이 하고 금기를 수행한다. 제물로는 삼실과 · 떡 · 나물 · 생선 등을 쓰고, 제사 비용은 걸립을 하여 충당한다. 제의 절차는 유교식으로 간단히 진행한다.

고창오거리당산제 전북 고창군 고창읍, 1994.1.15(음), 황헌만

고창오거리당산제 줄

줄다리기 준비

당산제 지내는 모습

당산옷입히기

당산옷입히기

의의 고창오거리당산제는 오방의 관념과 풍수의 비보관념이 반영된 고을 신앙의 한 사례이다. 고을의 허약한 지세를 비보하기 위해 고을의 오방에 인공적인 당산을 건립함으로써 고을의 재액방어를 적극 실현하고자 한 점에서 고을 신앙으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여러 마을이 연합하여 행하는 의례는 더욱 강한 제의적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고을민들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창오거리당산제와 바람직한 축제화 방안**(표인주, 남도민속연구 5, 남도민속학회, 1999), **고창읍 오거리당산**(이두현, 민속자료조사보고서 10, 문화재관리국, 1968), **전라북도 마을지킴이 · 정악**(전라북도, 2004), **전북지방 장승 · 솟대 신앙**(국립민속박물관 · 전라북도, 1994).

필자 김월덕(金月德)

고창임리마을짐대당산제

정의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임리마을에서 정월 열나흗날에 짐대를 세우고 지내는 당산제. 마을에서 서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산이 화산(火山)이어서 화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을 어귀에 짐대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내용 임리마을 당산은 짐대 · 입석 · 소나무 등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 데다 마을 어귀와 마을 안, 마을 뒤편에 흩어져 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입석은 할아버지당산이며, 입석 앞 제단에는 '임리당산(林里堂山)'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임리당산 바로 옆에는 매년 만들어서 세워 놓은 짐대들이 서 있다. 마을 안에 위치한 입석은 할머니당산이고, 마을 뒤편에는 수령 200년 정도의 소나무 다섯 그루로 이루어진 '천룡당산(天龍堂山)'이 있다.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1991.1.14(음), 황헌만

마을돌기

짐대당산

짐대 만들기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1991.1.14(음)
황헌만

당산제 준비는 정월 열흘날쯤부터 시작된다. 제관은 생기복덕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하고, 제물을 준비할 화주도 미리 정한다. 제관과 화주는 여러 가지 금기를 지키며, 집 앞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궂은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정월 열사흗날에 마을 사람들은 굿을 치면서 인근 산에 올라가 짐대를 만들 소나무를 베어 오고, 이튿날에 화주는 고창읍 장에 가서 제수를 구입해 온다. 제물 준비는 예전에 화주가 도맡아 했으나 근래에는 부녀회원들이 마을회관에서 함께 한다. 남자들은 마을 어귀의 임리당산 입석, 마을회관 앞 공동우물, 마을 안 할머니당산 입석, 마을 뒤편의 천룡당산 등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이 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하루 전날 산에서 베어 온 소나무로 짐대를 제작한다.

짐대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짐대 기둥을 마련한 다음 나뭇가지 가운데 Y 자로 벌어진 것을 골라 오리 몸통을 만들고, 기역(ㄱ) 자 모양의 가지로 머리를 만들어 몸통에 연결한다. 대나무는 약 2m 길이로 결을 따라 얇게 벗겨 6~8개 만들어 오리 몸체에 수평으로 얹는다. 그리고 오리를 짐대 꼭대기에 연결하고 짐대를 세워 밑 부분을 땅에 묻는다. 그런 후에 짐대 앞에서 간단히 제의를 지낸다. 짐대에 오리를 얹는 이유는 오리가 물새여서 화재에 취약한 마을을 불로부터 막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짐대는 해마다 한 기를 세우며, 그 전해에 세운 것은 그대로 둔다. 짐대는 '짐대할아버지'라고도 불리며, 할아버지당산(또는 임리당산)인 입석과 함께 마을 수호신으로 여겨진다.

천룡제는 날이 어두워진 후 남자들이 풍물패를 앞세우고 마을 뒤편 천룡당산으로 가서 행하는데, 예전에는 자정에 행하던 것이다. 천룡제는 제관과 화주가 떡, 메, 제주, 삼실과, 명태포, 쇠고기 등 제물을 진설하면 시작된다. 제관은 헌작-재배-독축-소지의 순서로 제의를 행한다. 천룡제가 끝나면 일행은 굿패를 앞세우고 마을 안 할머니당산과 마을 어귀의 할아버지당산으로 이동하여 제물을 다시 준비하고 천룡제와 같은 차례로 제를 지낸다. 열나흗날의 모든 제의 절차를 마치고 대보름날 새벽이 되면 제의 참가자들이 화주 집에서 파제를 겸하여 음복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제의가 끝난 후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1998.2.11, 서해숙

천룡제

할머니당산제

임리당산제

임리당산제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2007.3.3, 김월덕

소나무 다섯그루로 이루어진 천룡당산

천룡당산 – 소나무 다섯그루

소나무에 매어놓은 금줄과 한지

천룡당산

할머니당산

할머니당산

임리당산(할아버지당산)

풍물치기

짐대 세우기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2007.3.3
김월덕

당산제 이튿날인 정월대보름날, 마을 주민들은 비린 음식과 육식을 금하며 근신하고, 열엿샛날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볏짚을 거두어서 암줄과 수줄을 만든다. 암수 두 줄을 연결하여 줄당기기(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은 줄을 어깨에 메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오방돌기'를 한다. 그 후 주민들은 줄을 동네 한가운데 공터에 늘여 놓고 암줄과 수줄을 들어서 맞절을 시킨 다음 두 줄을 비녀장으로 연결하여 줄을 당긴다. 이 때 주민들은 마을을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고 동편은 수줄, 서편은 암줄을 당기는데,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 때문에 늘 암줄이 승리함으로써 풍년을 기원한다. 근래에는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인구도 감소하여 줄당기기가 매우 형식적이고 간략하게 이루어진다. 주민들은 줄당기기가 끝난 후 암줄과 수줄을 차례로 짐대에 감는다. 이것을 '당산에 옷 입힌다'고 한다. 짐대에 감은 줄은 이듬해 줄당기기를 할 때까지 그대로 둔다.

의의 당산제와 줄당기기가 결합된 임리마을 짐대당산제는 호남지역 마을공동체 신앙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여기에 비보(裨補)신앙이 반영되어 화재를 막기 위해 짐대를 세우고 이를 당산으로 삼아 제를 지냄으로써 마을의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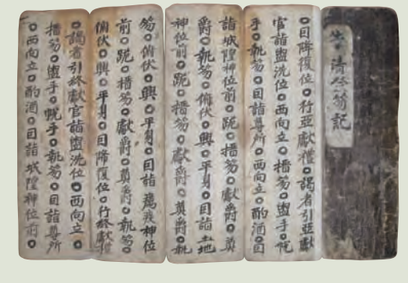
참고문헌 **전라북도 마을지킴이 · 정악**(전라북도, 2004), **전북지방 장승 · 솟대 신앙**(국립민속박물관 · 전라북도, 1994).

필자 **김월덕(金月德)**

고청제(告淸祭, 告請祭)

정의 하늘을 대상으로 하여 제향하는 마을 제의.

내용 고청제는 천제(天祭)로부터 발원하였다. 천제를 지칭하는 용어가 고천제(告天祭)였다. 하늘은 신성한 존재이므로 하늘을 직접 지칭하는 것을 꺼렸다. 따라서 하늘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그 대체하는 용어가 청(淸)이요, 청(請)이었다. 흔히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 인의예지(仁義禮智)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고청(告淸)이었다. 하늘을 상징할 수 있는 맑음[淸]으로써 하늘[天]을 대신한 것이다. 이로부터 고청제(告淸祭)란 제의 명칭이 만들어졌다. 고청(告請)이란 용어 역시 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역하면 하늘을 대상으로 하여 무엇인가 청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하늘이란 대상보다는 그 대상에게 인간의 소망을 강력하게 담아내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전승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고청제



동해시 봉정동 고청제 홀기
강원 동해시 봉정동, 2009.1.25, 이한길

강원 강릉시 왕산면 도마2리 탑동, 2004.12.15, 국립민속박물관

제당 내부

고청제

(告請祭)의 의미가 천제라는 사실을 잊고 일반적 의미의 서낭제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는 전승 과정에서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낭제에 동화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동해안 지역에서 고청제라 하면 동해시의 전천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과 북쪽의 용례가 다르다. 남쪽에서는 고청제(告淸祭)를 사용하는 반면에 북쪽에서는 고청제(告請祭)를 사용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전천 북쪽에 위치한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의 고청제는 남쪽처럼 고청제(告淸祭)를 사용한다.

동해시는 전천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이 옛 북평읍 지역이고, 북쪽이 옛 묵호읍 지역이다. 옛 북평읍 지역에서는 고청제(告淸祭)라고 할 때에는 제당이 없이 노천에서 제향할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마을 형편이 나아져서 제당을 건축하였다면 성황제란 명칭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 지역에서 고청제란 명칭은 제당의 유무와도 관련이 있다. 옛 북평읍 지역에서 고청제와 관련이 있는 마을은 송정동, 용정동, 봉정동 등이다. 이에 반해 옛 묵호읍 지역에서는 고청제(告請祭)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제당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 옛 묵호읍 지역에서 고청제와 관련이 있는 마을은 초구동, 망상동2통 본동마을, 망상동3통 심곡마을 등이다.

참고문헌 **동해시 서낭제**(이한길, 민속원, 2010).

필자 **이한길(李漢吉)**

곡성옥과성황당목조신상 (曲城玉果城隍堂木造神像)

정의 성황당 안에 모셔져 있는 남녀 한 쌍의 목상으로, 성황신의 신체(神體). 1976년 9월 30일에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남자상은 역사적인 인물인 조통(趙通)이다. 조통은 고려 신종 때의 경사백가에 통달한 특별한 문재이자 학자이다. 본은 한양이고 자는 역락, 옥과현 낙천 출신이다. 고려 19대왕 명종(재위 1170~1197) 때 학행으로 왕의 소명을 받았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그 후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을 출발로 1197년(신종 즉위)에는 고공원외랑으로 금나라를 다녀왔고, 태자문학을 거쳐 지서북면유수사가 되었다. 1199년(신종 2)에는 장작소감으로서 동경소무사를 지내고, 이듬해에는 소부소감으로 진주안무사가 되었으며, 좌간의대부 국자감대사 성한림학사에 이르러 치사했다. 당대 굴지의 문인이자 학자인 이인로 · 임춘 등과 함께 칠현으로 불렸다. 특히 이인로는 그를 산수우(山水友)로 삼아 친교를 맺었다고 한다. 조통이 죽자 옥과현민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옥과성황당 제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여자상은 장군의 처라는 설과 장군을 사모하다 한을 품고 죽은 공주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다만 옥과에 전승된 구술자료를 보면 젊은 시절에 조통과 이성관계에 있는 실존 인물이었고, 조통이 죽자 그의 혼령을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그녀가 죽은 뒤 무속인들이 그녀를 무조(巫祖)로 섬기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아왕공주와 조통의 전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아왕공주(我王公主)는 고려의 왕녀로, 본명을 공심(公心)이라 하였다. 공주는 당시 널리 이름을 떨치던 미장부(美丈夫) 조통을 연모했다. 공주는 조통에게 접근하여 사랑을 고백했고, 만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갔다. 공주는 마침내 결혼해 줄 것을 간청하기에 이르렀고, 부왕의 허락을 얻겠노라 했다. 처자가 있는 몸인 조통은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
> 공주의 의사를 돌이킬 수 없음을 안 조통은 공주가 있는 개경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때마침 고려의 북변(北邊)이 어지러웠다. 조통은 국왕에게 북변을 진압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자원한 것이 받아들여져 북변을 정벌하는 장군으로 떠났다. 공주의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으나 혹한 속에서 매일처럼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투로 인하여 극도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조통은 적군의 기습을 받아 많은 군사를 잃었고, 자신도 왼손이 잘리는 부상을 입었다. 조통은 군직을 사퇴한 뒤 불구의 몸을 이끌고 낙향하여 죄인을 자처하며 숨어 살다가 부상이 악화되어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
> 공주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 조통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행방마저도 알 길이 없게 되자 병석에 눕게 되었다. 공주의 병은 날로 깊어만 갔고 끝내 미치고 말았다. 부왕은 공주를 영험한 산신령이 있는 남산으로 보냈다. 공주는 남산에서 기도와 가무로 산신을 지성으로 섬겼으며, 그것이 효험이 있었는지 완쾌할 수 있었다. 공주는 이곳에서 득도한 무속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남산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공주는 부왕이 친필로 써 준 이 '道'를 받으라는 글을 말머리에 붙이고는 말이 가는 대로 맡기었다. 공주를 태운 말은 전주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옥과읍에 와서는 더 나아가지 않고 주저앉았다. 공주는 이곳에 정주하라는 신의 의사로 알고 옥과를 종신의 땅으로 삼았다고 한다. 명기 노주선의 집인 노주각에 살면서 남도 각지에 무속을 전하고 가르치던 공주는 이곳이 조통의 고향임을 비로소 알고 그를 찾았으나 조통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공주는 사랑했던 조통의 묘를 보살피면서 무(巫)의 전수에 힘쓰다가 옥과 땅에서 한 많은 일생을 마치었다.
>
> 공주의 죽음이 조정에 전해지자 국왕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두 사람을 사후결혼시켜 공주의 슬픈 넋을 위로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목상(木像)을 조각케 하여 옥과의 수호신으로 성황사에 모시게 했으며, 제사를 받들 제답(祭畓) 100여 두락을 내리었다.

형태 성황당에는 만취정(晩翠亭)이라는 노인정이 있고, 옥산사(玉山祠)의 왼쪽에 있다. 건축양식은 단칸 맞배지붕이며, 성황당의 전면에 현판이 있다.

이 성황당은 세 번의 이거 끝에 현 위치에 모셔졌다. 처음은 마을 동쪽의 '서낭당 모퉁이'로 불리는 곳에 있다가 퇴락하여 현재 옥과고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곳이 학교 부지로 들어가자 다시 마을 서쪽 끝인 율사리로 옮겼다가, 1976년에 현 옥과리 옥산사 옆에 성황당을 짓고 그 안에 2구의 본신상을 안치했다.

성황당 안에는 이 고장 출신으로 전하는 고려시대 조통 장군과 그를 사모했다는 공주의 목상이 단 위에 모셔져 있다. 이들은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 있는 모습의 남자상은 높이 80㎝, 두께 20㎝이다. 그리고 무당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발등까지 내려오는 사제복 형태의 옷을 입고 허리끈을 매었다. 허리끈은 끝이 길게 늘어져 발등까지 내려왔다. 둥근 얼굴에 크고 굵은 눈썹이 표현되어 있고, 눈이 돌출되어 장승 같은 느낌이다. 앉아 있는 모습의 여자상은 높이 70㎝, 두께 15㎝이다. 머리에 고깔을 썼으며, 손은 두 손을 모아 양 손가락 끝을 붙여 아래로 향하고 있어 무언가를 들고 기원하는 모습이다. 얼굴 표현은 남자상에 비해 정교하며, 자세도 다소곳하다. 남자상과 여자상의 밑에는 구멍이 있어 나무를 끼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내용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옥과에는 현의 동쪽에 성황단을 모셨다고 하고, 구전에 따르면 옥과성황제는 무당들이 제사를 주관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지방관이 제의를 주관하고 집전했으나 조선 후기부터는 그 고을 아전과 한량, 광대, 기생들로 구성된 삼색계원들이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매년 음력

곡성옥과 성황당목조신상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003.11.19
서해숙

삼짇날(3월 3일)에 모셨다. 제당 앞 광장에다 긴 서낭대를 세워 여덟 가닥의 왼새끼줄을 늘어놓았고, 이 줄에 오색 헝겊을 끼워 꾸몄다고 한다. 이때 남도 각지에서 모여든 광대, 기생, 무녀들이 연 사흘에 걸쳐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면서 농악으로 화려하고 성대한 제전을 펼쳤다고 한다. 그러나 제의 절차, 내용, 과정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옥과현이 1914년 곡성군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고을이 주체가 되어 국가 주도로 옥과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무당들이 제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것도 중단되면서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성황당을 현 위치로 옮긴 뒤 마을 노인회관에서 주관하여 매년 3월 15일에 제사를 모셨다. 제사는 가정에서 지내는 기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며, 2005~2006년부터는 이마저도 올리지 않는다. 제비를 염출하기 위해서는 걸립을 해야 하지만 협조가 잘 안 되고, 행정관청의 지원 또한 없어 노인회에서 제사를 모시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의의 곡성옥과성황당목조신상은 호남지방의 성황제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민속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1055년(고려 문종 9)에 성황신사를 설치하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보인다. 성황신은 본래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의 신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는 물론 고을마다 국가 주도의 제사로 성황단을 만들어 성황신을 모셨다. 그것은 성황신이 단순한 신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운명과 성쇠를 반영하는 상징물로까지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고려 중기 이래로 무당과 각 고을의 성황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당이 성황제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에는 각 도에 성황사가 건립되면서 지방에도 점차 성황사가 확산되었다. 그로 인해 각 도에 성황사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60개가 넘었으며, 전라도에는 58개의 성황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옥과성황당목조신상은 국가 주도에서 마을공동체 단위의 제사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속신앙적 의미가 크다. 특히 '아왕공주와 조통의 전설'은 옥과성황당 성황신의 유래를 설명하는 고을신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라도지방 무속신앙의 무조신(巫祖神)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속신화적 가치도 크다.

참고문헌 곡성군의 문화유적학술조사(전남대학교 박물관, 1996), 남도설화문학연구(표인주, 민속원, 2000), 마을유래지(곡성군, 1986), 무조아왕공주고(김정업, 한국민속학 7, 한국민속학회, 1974).

필자 표인주(表仁柱)

골맥이

상호참조 골맥이제(86쪽)

정의 마을에 최초로 들어와 개척한 자가 죽은 뒤 그 후손이나 지역민들에 의해 마을의 입향시조신, 수호신으로 신앙되는 인격신.

어원 골맥이는 '고을+막이'의 복합명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골맥이는 마을로 들어오려는 온갖 재앙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마을 및 구성원을 살펴서 보호해 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내용 골맥이의 신격에 대한 지칭은 골맥이할배, 골맥이할매, 전씨골매기할배, 골매기김씨할매, 골매기당산할배, 골매기강릉김씨할매, 골매기산신령, 골목할매, 골목님내, 박씨골목당할머니, 골막강씨할배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남신보다 여신이 더 많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지에서 나타난다.

골맥이는 마을 뒤의 산기슭이나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노거수(老巨樹), 돌무더기, 석인상, 마을 제당 등 마을에 따라 좌정한 곳이 다르지만 대체로 마을 어귀 노거수에 좌정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골맥이가 마을 어귀에 우람하게 서 있는 까닭에 주민들은 골맥이를 마을 수호신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마을 제당에 골맥이가 좌정한 경우 그 신체(神體)는 위패, 화분, 신석 또는 한지로 접은 폐백으로 표상된다.

골맥이를 모시는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할배나 할매 중 한 분만을 모시지만, 마을에 따라 부부골맥이를 모시거나 성씨가 다른 세 분 또는 네 분을 함께 좌정시키기도 한다. 심지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동암마을에서는 '기장읍시랑리동암각성씨별신위(機張邑侍郎里東岩各姓氏別神位)'라 하여 26성씨를 함께 모시기도 한다.

마을 제의가 대부분 유교식으로 진행되듯이 골맥이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제의 진행에 있어 골맥이제만 지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산신제를 먼저 지낸 뒤 골맥이제, 거릿대제, 용신제를 지내는 마을, 골맥이제를 먼저 지내고 산신제를 나중에 지내는 마을 등 순서와 규모는 마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사례 골맥이제를 지내는 마을에서는 대체로 처음 입촌한 인물에게 골맥이 신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에서는 마을에서 죽은 걸인을 골맥이로 모시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여러 마을에서는 골맥이를 모시고 있으며 특히 기장군이 활발하다. 기장군 일광면 학리에는 골맥이할배와 골맥이할매가 각자의 제당에 좌정하고 있다. 제의는 정월 열나흗날 자정에 치르며, 제관은 제의 일주일 전에 무당에 의해 대내림으로 선정된다. 부부가 제관이 되며 두 가구를 지정한다. 제의는 골맥이할매제당에서 치러진다. 이 마을에서는 골맥이할배를 비롯하여 마을의 각 곳에 있는 신들과 각 성씨의 시조신을 골맥이할매제당에 모셔와 골맥이할매와 함께 지낸다. 상을 차릴 때는 오른쪽에 성주신, 중앙에 골맥이할배 · 할매, 왼쪽에 이 마을 입향조인 황씨 · 류씨 · 구씨의 제사상을 각각 차린다. 할배제당의 신격은 골맥이황씨할배, 할매제당의 신격은 골맥이류씨할매라 한다. 두 제당에 위패는 없고, 할매제당에 성주 신체인 한지가 아래로 붙어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양암마을과 막곡마을에서는 마을 제의를 당사제라 한다. 양암마을은 신라 때 김동지가 씨족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마을을 이뤘으며, 막곡마을은 1800년대 후반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제의에 모시는 신은 소나무로 당산나무 또는 골매기할매라고도 부른다. 마을 제의는 정월대보름날 자시에 지낸다. 당목은 마을 중앙에 있으며, 그 옆에 제당이 있다. 당목은 1500년쯤에 지관 이수신이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두 그루였지만 할배신으로 모시던 나무가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갔다고 한다. 마을 제의는 제당에서 지낸다. 정월 열나흗날 오전에 장년층 남자들이 당목 주변의 밭을 태우고 제당 청소와 새끼 꼬기를 한다. 새끼를 꼰 뒤에는 액을 제거하기 위해 당사나무와 제당 주변에 황토를 뿌리고 당목과 제당에 대나무를 세워 새끼로 금줄을 친다. 그리고 당목과 주변에 막걸리를 뿌린다. 오후에는 제수를 조리하고 밤 11시가 넘으면 조리된 음식을 남자들이 당사로 운반하여 제단에 상을 차리고 위패를 모신다. 위패에는 '당사지신신위(堂祠之神神位)'라고 적혀 있다. 정월대보름날 자시가 되면 신위를 모시고 진설한 다음에 분향-강신-헌작-개반삽시(開飯揷匙)-독축-재배-소지-재배-철상(撤床)-음복 순으로 진행한다.

경북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의 직당마을과 원죽마을은 시냇물을 경계로 마을이 나뉜다. 직당(稷堂) 또는 골맥이할아버지라고 칭해지는 직당마을의 제당은 당목이나 당집이 없고 돌무지가 대신하고 있다. 원래 돌무지 자리에 당목이 있었으나 없어져서 돌을 쌓아 놓은 것이다. 골맥이할아버지 주변에는 나무들이 숲

을 이루고 있어 마을 어귀 지킴이 역할을 한다. 제의 때는 돌무지에 금줄을 친다. 원죽마을은 한동안 제의가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지내고 있다. 원죽마을에는 당목이 있으며, 이는 골맥이할머니에 해당한다. 제의는 두 마을 모두 정월대보름날 자시에 지낸다. 축문은 없으며 잔을 올리고 절을 한 뒤 소지만 올린다.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에서는 마을 제의를 '동신사님 모신다' 또는 '골맥이 모신다'고 한다. 마을 제당 안에는 미륵상 또는 조도래상이라고 하는 석인상(石人象)이 봉안되어 있다. 그리고 계곡에 있는 석상은 마을 어귀를 지킨다고 하여 골맥이님, 골맥이상 또는 여미륵상이라고 부른다. 제당의 석상은 총각, 제당 밖의 석상은 처녀라고 한다.

도중리에서는 미륵과 골맥이를 제의에 모시게 된 유래가 구전하고 있다. "조선 중엽에 젊은 남녀 거지가 마을에 왔다가 얼어 죽었는데, 이후 마을에 재앙이 연달아 일어났다. 어느 날 노승이 와서 죽은 이들을 위해 제당을 짓고 미륵상과 골맥이상을 세우라고 하였다. 이에 마을에서 노승의 말을 따르니 마을이 태평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아침 마을 청년들이 제당과 당목, 골맥이님 주변을 청소하고 제관이 금줄을 친다. 제의는 미륵상이 모셔진 제당에서 유교식으로 지낸다. 제사는 참신-초헌-독축-아헌-종헌-소지-음복 순으로 진행된다. 소지는 먼저 큰 온장의 소지종이로 동신사와 골맥이 소지를 올리고, 그 반 크기로 헌관 순으로 올린다. 이후 제관이 각 가정의 호주 이름을 호명하여 그 집안의 소망을 빌면서 소지를 올린다. 이후 음식을 간단히 준비하여 골맥이로 가서 축도 없고 소지도 올리지 않은 채 간단히 고하기만 한다.

참고문헌 **경북지역 골맥이 · 수구맥이 신앙의 민속학적 고찰**(이종철 · 천진기, 경북지방 장승 · 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0), **경상북도 ·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동제의 전승기반과 변화**(김재호, 영남학 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부산의 당제**(김승찬 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서낭당**(이종철 · 박호원, 대원사, 1994), **영동지역 주민들의 골맥이성황 신앙**(정승모, 강원지방 장승 · 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 **조선땅 마을지킴이**(주강현, 열화당, 1995), **한국 민간신앙의 조상숭배-유교 제례 이외의 전승 자료에 대하여**(장주근, 한국문화인류학 15, 한국문화인류학회,1983),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마을제당-경상남도 · 부산**(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마을제당-경상북도 상**(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마을제당-경상북도 하**(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86), **한국의 마을신앙 현장보고서 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세시풍속사전**(folkency.nfm.go.kr).

필자 **이영식(李英植)**

골맥이제

상호참조 골맥이(84쪽)

정의 '골맥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을수호신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제의. 골맥이는 '골'과 '맥이'의 합성명사로 보인다. 골맥이의 '골'은 장음(長音)으로 발음된다. 골맥이는 '고을 동(洞) · 고을 읍(邑) · 고을 군(郡)' 등의 고을, 즉 인간의 집단 거주처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리고 '맥이'는 고을을 수호하는 자, 즉 막아주는 존재이다. '막이'에 'ㅣ'모음 역행동화현상이 일어나 '맥이'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경상도지방에서는 마을 수호신을 '골맥이', '골매기', '골매기서낭'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골[谷, 곧 마을]'과 '액운을 막다, 부락을 수호하다'라는 뜻을 지닌 '막다'에서 전성된 명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내용 골맥이신은 주로 영남지방의 마을에서 흔히 골맥이서낭님, 골맥이할배, 골맥이할매 등으로 불린다. 이때 골맥이신은 마을에 처음 입주 · 정착한 마을의 조상신(祖上神)이자 마을의 창건신(創建神) · 수호신(守護神)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골맥이처녀'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토박이 노처녀를 비유해 골맥이신 개념을 희화(戱化)한 말이다. 골맥이는 수호신인 탓에 동해안별신굿이나 오구굿의 경우 언제나 동네 어른인 골매기서낭을 모신 뒤에야 굿을 시작한다. 골맥이는 바로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 온 살아 있는 역사신으로서 마을공동체 형성의 정확한 연원을 알려준다.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경상도지방 일대의 여러 별신굿에서는 골매기청좌굿 제차가 있어서 골매기신인 성황지신과 토지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굿거리를 자주 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살아 있는 역사로서 주목할 점으로 당의 형성이 곧바로 촌락의 형성사와 직결된 예를 보여 주는 영남 · 영동지방의 골맥이굿(골매기굿)을 들 수 있다. 골맥이신은 보통 마을을 최초로 개척한 시조신을 일컬으며, 이 신을 모시는 제차를 골맥이굿이라 한다. 골맥이신은 예컨대 고래로 박씨가 많이 살아온 마을에서는 '골맥이 박씨 할매', 김씨가 먼저 들어온 후 박씨가 들어온 마을에서는 '골맥이 김씨 할배 터전에 골맥이 박씨 할배'라고 각각 불리어 입향시조에 따라 마을의 창건 유래를 말해 준다. 하회마을의 예를 들면 '허씨 터전에 안씨 문전에 류씨 배판'이라 전해지고 있으며, 동해안 각 마을에서도 '김씨 터전에 박씨 골매기' 등으로 마을의 역사와 신격이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마을에 정착한 순서에 따라 신위가 결정되면서 수호신으로 추앙되는 것이다.

마을신들은 대개 남 · 여를 함께 모신다. 수탑과 암탑, 남근과 여근,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남서낭과 여서낭, 용왕과 용궁부인 식으로 남신과 여신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음양 조화는 인격신으로 발전하면서 할아버지신과 할머니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당산할머니와 당산할아버지, 골매기할머니와 골매기할아버지가 그것이다.

골맥이의 기록은 1938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석전 · 기우 · 안택(釋奠 · 祈雨 · 安宅)』의 경남 구포 별신굿에서 "앞당산 골무기, 뒷당산의 골무기"라는 무가 구절과 "골무기는 신목에 깃드는 신의 이름"이라는 간단한 설명이 보인다. 그리고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서는 경남 동래의 골맥이제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한 건 발견되었지만 정작 기록되어야 할 『부락제(部落祭)』에는 골맥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골맥이제가 체계적으로 조사 · 보고된 것은 1964년부터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에서는 3위의 골맥이 하 · 최 · 양씨 할배를 음력 시월에 택일해 제사를 지낸다. 제관은 많은 성씨 가운데 '골맥이집'이라고 불리는 하 · 최 · 양씨 후손에서 한 명을 선정한다. 하씨할배는 임진왜란 때(또는 세조 찬위 때) 피란 와서 낙향 1대조가 되었다고 하는 반면에 최씨 측에서는 최씨할배가 먼저 정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제주도에서의 고 · 양 · 부 3성씨 시조의 순위 다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경북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골맥이서낭님께 제관들이 제사 지내고 나서 동회, 줄다리기, 풍물놀이들이 성황을 이루었다. 이곳 골맥이는 이씨 여서낭님이라고 했다. 또한 1967년에 실시한 전국 마을제당 서면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골맥이라는 당 이름이나 제신 이름을 보인 것은 강원도 11건, 경북 398건, 경남 331건 등 모두 740건이었다.

이들 자료를 종합하여 골맥이신의 성격을 정리하면 우선 골맥이신의 분포는 경상도와 강원도 동남지역 일부를 포함한 한정된 지역성을 보이며, 이는 옛 신라 영역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두 번째, 여신이 남신의 2.4배로 아직도 지모신 신앙과 풍요기원의 고형(古型)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되었다. 세 번째로 특정 집단의 시조신 · 창건신 · 수호신적 성격을 여기에 아울러서 고려할 만하다.

한편 골맥이제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기록은 1930년대 기록이 가장 오랜 것이고, 그 이전의 역사적 기록은 없다. 다만 골맥이신이 지니는 이상의 세 가지 성격 규정에 힘입어 그 역사에 대한 소원적인 고찰을 시도한다면 유사한 현상을 같은 영남지방에서는 멀리 박혁거세 전승이나 김알지 전승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혁거세는 신라 초기 때 박씨 집단의 시조신, 집단의 창건신, 수호신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박씨 골맥이라는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신라 왕가의 시조신이라는 김알지신화는 계림의 나뭇가지에 걸린 황금궤에서 시조신으로 탄생함을 전하고 있다. 그것은 골맥이신이 깃든다는 골맥이신목과 아울러 이른바 민간의 조상단지신앙의 왕권신화로서의 승화(昇華)이자 미화라는 각도에서 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골고루 제공한다.

지역사례 동해안 지역의 별신굿에서는 골맥이굿(골매기서낭굿, 골매기청좌굿, 당골매기 서낭굿 등)이 연행된다. 골맥이신은 보통 마을을 최초로 개척한 시조신이라고 하며, 별신굿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신이다. 오구굿에서도 먼저 마을신인 골맥이를 모시고 굿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반드시 골맥이굿을 한다. 골맥이신은 대체로 부부를 모신다.

반주가 울리는 가운데 무녀가 굿당 밖으로 나가 4m 정도의 장죽간에 백지를 매단 골맥이서낭대를 들고 춤을 춘다. 제관의 모친이 자기 치마를 벗어서 서낭대에 매달고 제상에 절을 한다. 그리고 무녀는 골맥이를 모시고 천왕문을 열자는 내용의 무가를 구송한다. 서낭대에서 치마를 떼어 다시 할머니에게 돌려주고 서낭대를 쥐고 신을 내려 떨면서 굿당 안의 제단을

둘러본 다음 굿당 앞 천막에 기대어 세워 둔다. 이 서낭대는 골맥이신의 상징이며, 이것을 굿당에 세움으로써 굿당이 신성한 곳이라는 표시가 된다. 이 제차는 굿당에서 맨 처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중에게 굿의 인상을 심는 점에서 중요해 대체로 주무녀가 맡아 연행한다.

골맥이굿은 동해안 굿 전체에서 중요한 제차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망자를 천도하는 오구굿을 할 때에도 반드시 골맥이굿을 한다. 굿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네 어른인 골맥이서낭님을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대개 다도해 등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입도조(入島祖) 설화는 귀양을 왔다가 눌러앉은 경우, 먹고살기 위해 이사를 온 경우, 본격적으로 어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온 경우, 난리통(특히 임진·병자 양 난)에 난을 피해 들어온 경우, 역적으로 몰려 도망을 온 경우, 나라의 큰 변고를 피하여 숨어들어온 경우 등 다양한 입도 경로를 밝혀 준다. 후손들이 족보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입도 조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때에는 당의 분화를 잘 따져보고 인근 섬들이 개척된 역사를 알아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입도조의 당이 같은 섬 안에서도 여러 마을을 따라 산중, 산 앞, 동네, 동구, 들, 갯가 등지에 형성·분당(分堂)되어 변천해 왔음을 볼 수 있다. 또는 인근의 작은 섬을 따라가면서 할머니당, 할아버지당, 아들당, 며느리당 등의 순서로 분화되어 있는 경우에서 이들 신격이 마을형성사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시집갈 때 반드시 자기가 살던 마을 당의 돌을 가지고 가서 시집간 동네에 새로운 당을 퍼뜨리는 신당 가지치기가 살아 있다. 이는 바로 굿과 공동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의의 골맥이제는 여신 관념이 우위에 서는 지모신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신라 시조신화보다도 더 고형성을 보존하고 있는 유구한 농경민족의 촌락 집단들이 평화와 풍요를 기원해 온 민간신앙의 오랜 전통이다. 세시풍속 측면에서 한국의 마을제는 정월에 많고 그 가운데에서도 대보름에 집중되어 있는데 영남지방 마을제의 한 형태인 골맥이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참고문헌 部落祭(朝鮮總督府, 1945), 釋奠·祈雨·安宅(調査資料 第四十五輯, 朝鮮の鄕土神祀 2, 朝鮮總督府, 1938),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굿의 사회사(주강현, 웅진, 1992),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마을제당 전7권(국립민속박물관, 1995~2003).

필자 조정현(曺鼎鉉)

공민왕(恭愍王)

상호참조 안동가송리동제(592쪽)

정의 고려시대 개혁군주이면서도 불운한 개인사를 간직하고 있는 왕으로, 서울 종묘와 경상북도 안동시·봉화군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모셔지고 있는 인물신격.

역사 고려 31대 왕(재위, 1351~1374)으로 충숙왕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명덕태후(明德太后)이다. 왕비는 원나라 위왕의 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이다. 공민왕은 12세가 되던 1341년에 원나라에 들어가 1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1351년에 충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즉위한 해인 1351년 11월 이제현, 조일신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진 뒤 이듬해 1월에 몽골식의 변발(辮髮)과 호복(胡服)을 폐지하여 고려의 자주적 전통을 추구하려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였다. 공민왕과 신진사대부가 추진한 개혁정치는 권문세족을 정치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1371년(공민왕 20)에 신돈이 제거되자 신돈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개혁정치도 중단되었다. 이처럼 공민왕대 마지막 개혁 시도인 신돈의 개혁도 중도에서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신진사대부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민왕은 원명 교체라는 대륙 정세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고려의 중흥을 꾀하는 많은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365년에 왕비인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실의에 빠져 모든 국사를 신돈에게 맡기고 정사를 소홀히 하였다. 1371년에는 실정을 거듭하는 신돈마저 귀양 보내 사사(賜死)하였다. 공민왕은 1372년에 공신 및 고위 관직자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자제위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자제위 소속의 미소년 홍륜(洪倫)이 익비(益妃)와 통하여 익비가 임신하였다. 이를 환관 최만생이 공민왕에게 고하자 평소 후사가 없어서 고민하던 공민왕은 익비가 낳을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기 위해 홍륜 일파와 최만생을 모두 죽여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최만생이 먼저 홍륜, 권진, 홍관, 한안, 최선 등과 공모해 밤에 공민왕을 죽였다. 뒤에 이들은 이인임, 안사기, 경복흥 등에게 발각되어 효수(梟首)당하였다.

공민왕은 그림에 뛰어나 고려의 대표적 화가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 글씨에도 능한 공민왕은 특히 큰 글자에 뛰어났다. 작품으로는 「천산대렵도(千山大獵圖)」만이 전하고 있으며, 안동에 하사한 「안동웅부(安東雄府)」, 「영호루(映湖婁)」등 현판 글씨가 남아 있다. 능은 현릉(玄陵)이다.

내용 공민왕 또는 공민왕의 가족을 동신으로 모시는 마을은 현재 안동 지역에만 9개이며, 봉화 지역에도 8개에 이른다. 경북 안동시 용상동, 예안면 신남리 구티미마을·정자골, 도산면 가송리·단천리·원천리, 풍천면 하회리, 풍산읍 수리 등 전체 49개 제당에서 동제(洞祭)를 지낸다. 대체로 청량산과 왕모산성 주변에 위치하며, 왕모는 바로 공민왕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공민왕뿐만 아니라 부인과 딸,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섬겨지고 있다.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제의를 지낸다.

전통사회에서 특정한 역사적 인물을 공동체의 신으로 모신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안동 지역에서 전승되는 공민왕의 신격화 양상은 왕은 물론 왕의 어머니와 부인,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등 가족 구성원 대부분을 신앙화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공민왕은 안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신격으로 모셔지고 있다. 공민왕신(恭愍王神)은 무속에서 신앙되는 왕신(王神)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공민왕이 신령으로 된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원나라를 물리치고 국경 지역을 회복하려한 점과 왕으로서 신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실이 민중의 마음에 와 닿아 뒷날 신으로 모셔진 듯하다. 비슷한 예는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별상(別相)으로 받들어진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민왕은 특히 동제와 관련하여 숭배되었다. 서울 마포구 동막(東幕),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청량산 산성마을, 안동시 풍산읍 수동(水洞)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밖에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종묘 안에도 공민왕 신당이 있다. 이 신당은 1395년(태조 4)에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경복궁 및 종묘를 영건할 때 세워졌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종묘를 지을 때 북쪽으로부터 회오리바람이 불어오고, 그와 함께 어떤 물건이 묘정(廟庭)에 떨어져 그것을 주워 보니 공민왕의 영정이었다고 한다. 군신이 놀라 협의한 끝에 그 영정을 봉안하기 위하여 신당을 지었다는 것이다. 영정은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가 한자리에 있는 그림으로, 공민왕의 어필이라고 전해진다. 이밖에 준마도(駿馬圖)가 봉안되어 있다. 그 뒤 매년 봄과 가을에 종묘 직원이 비공식적으로 제례를 드렸고, 이어 인근 주민들이 치성을 올렸으나 현재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조선 초기에 왕실에서 공민왕을 인격신으로 모시는 전통이 민간에 전해져 마을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역사례 공민왕은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 비극적 죽임을 당한 인물로서 무속에서는 왕신으로 모셔지며,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신앙되고 있다. 특히 안동 지역에서는 왕의 몽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신격화되어 있어 당신화를 통해 실제 역사적 경험과 신화적 상상력이 어떻게 신앙화의 과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안동 지역에는 풍산읍 수동의 국신당, 하회의 국신당[국사당, 중당], 청량산 산성의 공민왕당, 용상동의 공민당 등 직접적으로 공민왕을 신으로 모시는 신당 이외에도 청량산 일대의 부인당·딸당·며느리당 등 공민왕 가계의 신격을 모시는 마을이 산재하고 있다. 산성마을 공민왕당을 중심으로 여러 곳의 마을이 공민왕가계신(恭愍王家系神)을 모시고 있어 이 일대는 공민왕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공민왕이 안동에 몽진을 와서 남긴 여러 흔적 가운데에는 안동웅부나 영호루의 현판과 같은 유형적인 부분이 상당수 전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 주민들의 역사적 기억 속에 새겨진 무형적인 의식에 대해서는 애써 조사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안동 지역에서 공민왕 관련 민속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공민왕 관련 민속은 현재까지도 제의적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량산 일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또 지금은 연행하지 않지만 공민왕과 관련된 제의적 · 놀이적 전통이 있던 풍산읍 수동, 풍천면 하회, 안동시 용상동 등과 놋다리밟기를 연행해 온 안동시 구 성안 · 성밖 일대, 임하면 금소동 등지에서도 전승되었다. 또한 공민왕 관련 문화유적이 남아 있는 용상동 성황당토성, 남선면 신석산성, 도산면 선성산성과 왕모산성 등 산성 지역이나 삼태사묘와 청량산 청량사 등 기타 유적지에서도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산 류씨와 공민왕의 관계가 사전(풍악서당의 토지 800 두락)을 하사할 정도로 밀접하였음과 공민왕의 몽진 경로를 이유로 들어 하회의 국신당도 원래는 공민왕을 모시는 당이었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점차 고려왕에 대한 추모의 정이 약해지면서 지금처럼 국신당의 이름만 남게 되었다.

안동 지역에서 공민왕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큰 손님의 위상에 있다. 공민왕의 안동 몽진은 안동 지역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는 동시에 가장 영예로웠던 고려시대 안동의 역사를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안동과 고려의 인연은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태조 왕건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견훤과 싸우는 와중에 안동의 삼태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왕건을 도와 싸워 고려 건국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안동과 고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그러한 징표로서 안동은 도호부로 승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동 출신 인물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게 되었다. 현재 안동에서 전승되고 있는 차전놀이 역시 이때 기원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삼태사를 시조로 하는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안동 장씨 등 3개 성씨는 여전히 이 지역의 주요 성씨로 자리 잡고 있다.

이후 안동은 고려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관계가 공민왕의 몽진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61년 12월 혹한의 강추위가 산하를 덮은 가운데 공민왕 일행은 안동으로 출발하였다. 공민왕이 개성에서 안동을 찾아 먼길을 떠나게 된 것은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하여 수도를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왕이 수도를 떠나는 일을 극히 드문 일이다. 수도라는 개념은 대체로 왕이 기거하는 곳이라는 통념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왕이 거처를 옮기는 곳이 임시수도로 결정되곤 하였다. 이처럼 왕이 수도를 떠나 타 지역으로 옮기는 예는 한국 역사에서 그리 많지 않다.

왕이 지역을 찾아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기에 특히 몇 달 정도를 머무르며 함께한 경험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던져줄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왕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문화적 충격을 던졌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국가적인 전란으로 인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왕이 몽진하였다는 사실은 커다란 자부심과 함께 설화적 상상력을 높여 주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공민왕 때는 원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던 시기였고 이에 따라 고려 역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공민왕은 원나라와 이에 결탁된 권문세족들의 부정적인 면을 개혁하고자 노력한 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진사대부, 뒷날 성리학적 지식인으로서 조선의 건국에 앞장선 인물들이 대체로 공민왕의 이러한 개혁적 성향 아래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의 이러한 개혁적 성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홍건적의 고려 침입이었다.

1차 홍건적의 난은 무사히 막아냈지만 홍건적은 다시 1361년 10월에 결빙된 압록강을 넘어 20만의 병력으로 2차 침입을 해 왔다. 1차 홍건적의 난에 공헌을 세운 이방실 등을 파견하여 홍건적에 대항하였으나 11월경에는 개경이 함락될 위기에 이른다.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 공민왕은 여러 신하와 몽진을 가기로 하고 그 목적지를 안동으로 잡는다. 한편 공민왕이 난을 피하려 할 때 여러 고장 중 왜 안동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태조 왕건의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삼태사를 비롯해 공민왕 때 진출한 신진사대부의 상당수가 안동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주로 말을 사용하여 전투에 임한 홍건적의 주력부대에 맞서 싸우기에는 산야가 많은 안동 지역의 지형이 유리했다는 점 역시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개경을 떠난 날짜는 1361년 음력 11월 병인일로 기록되어 있다. 병인일이면 음력으로 18일이 되므로, 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 계산하면 1361년 12월 15일이 된다. 즉 한참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개경을 출발한 것이다. 공민왕 일행과 함께한 사람은 왕비인 노국대장공주와 두 번째 비인 이씨(노국공주에게 자식이 없어 이제현의 딸을 비로 맞이함), 공민왕의 어머니인 명덕태후와 28명의 신하들이었다. 왕의 행렬치고는 초라한 피란길이었다.

공민왕이 안동에 도착한 것은 1361년 음력 12월 임진일이다. 겨울의 혹한 속에서 안동으로 발길을 옮긴 공민왕 일행에게 전해진 개경 함락 소식과 피란길에서 겪은 백성의 외면은 큰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도착한 공민왕 일행을 안동은 열렬한 환대로 맞이한다. 놋다리밟기 전설은 안동주민들의 공민왕에 대한 충정을 잘 말해 준다. 전설에 따르면 공민왕 일행이 안동에 도착하여 개울을 건너게 되었을 때 안동부민들이 나와 등을 맞대어 사람 다리를 만들고 왕을 그 위로 건너게 했다고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안동부민들이 얼마나 공민왕을 열렬하게 환대했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가사리 동제의 제물구성과 의미분석**(이숙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가송민속지**(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마실연구회, 1992), **공민왕**(종로문화원, 2000), **공민왕의 안동 몽진과 신격화 양상에 관한 연구**(권태훈,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部落祭**(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7), **안동의 동제**(안동민속박물관, 1994), **안동지역 공민왕 관련 민속의 전승양상과 주민들의 '문화 읽기와 쓰기'**(조정현,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오봉산성 산신제와 당고사**(이남식, 한국민속학 16, 한국민속학회, 1983), **청량산일대 공민왕신앙의 분포와 성격**(한양명,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 안동시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4).

필자 **조정현(曺鼎鉉)**

공주고마나루웅진단 [公州熊津熊津壇]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고마나루에서 백제시대 때부터 금강의 수신(水神)에게 제사를 올리던 제장(祭場).

고마나루지역 내 곰굴
충남 공주시 웅진동 곰나루국민관광단지, 2009.3.27, 이해준

형태 웅진단은 공주 고마나루[熊津] 기슭 솔밭에 있다. 현재 이곳에는 '웅진수신지처(熊津水神之處)'라고 새긴 표석과 함께 작은 단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1998년에 계룡산 산신제 복원과 함께 이곳의 수신제(水神祭)도 복원하면서 조성한 것이다. 원래 웅진사의 터는 명확하지 않고, 곰신상이 1970년대에 웅진동 곰내골에서 발견되어 웅진단을 새로 짓고 이곳에 고마나루 전설비와 곰상을 모시고 있다. 고마나루 일대는 2006년 12월 4일에 '명승 제21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고마나루는 금강의 옛 나루터로 '웅진', '곰나루'로 불리기도 한다. 고마나루에는 연미산(燕尾山)의 암곰이 공주의 나무꾼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나무꾼이 도망을 가자 새끼들을 차례로 물에 빠뜨려 죽이고 자신도 빠져 죽었다. 그 후 곰의 원혼이 금강에 풍랑을 일으켜 나룻배를 뒤집히게 하자 곰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곰 사당을 지어 매년 제사를 지내니 무사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고마나루의 수신제사 터는 '웅진단(熊津壇)', '웅진사(熊津祠)', '용당' 등으로 불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마나루 남쪽 언덕에 웅진사라는 사당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신라 때는 서독(西瀆), 조선 때는 남독(南瀆)으로 중사(中祀)에 포함되어 있어 봄과 가을에 향축을 내려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삼국사기』 제사조에는 웅천제(熊川祭)는 신라의 4독 가운데 서독으로서 중사에 편성되어 있었고,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웅진사는 중사 13곳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웅진단(사)에서의 제향은 한말 이후 폐지되었으

공주 고마나루 웅진단
충남 공주시 웅진동 곰나루국민관광단지
2009.3.27, 유병덕

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까지 정월대보름날에 민간에서 당굿 형태로 지속되었고, 광복 이후에도 기우제 등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98년에 계룡산산신제가 복원되면서 매년 음력 삼월 열엿샛날을 전후하여 계룡산산신제 행사의 일환으로 새로 조성한 웅진단에서 수신제를 지내고 있다.

내용 고마나루에는 오랜 전설이 전해지며, 고대사회에서부터 국가 제사로 이어오던 웅진단의 수신제는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국가의 수신 제사처로 기려졌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에 의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나와 있는 악(嶽)·해(海)·독(瀆) 제사법과 절차에 따라 유교식 제의[中祀]로 존속되다가 한말에 철폐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간에서 당굿이나 기우제 형태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변형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없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고마나루 설화가 갖는 민속학적 의미와 활용방안**(구중회, 충청학과 충청문화 6,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2007), **고마나루의 역사와 변천**(윤용혁, 충청학과 충청문화 6,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2007), **공주시지**(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공주지방의 민속신앙**(구중회, 공주문화원, 1995).

필자 이해준(李海濬)

공주동해리산신제(公州東海里山神祭)

상호참조 공주동해리산향계문서(95쪽)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에서 매년 음력 시월 초사흘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의례.

역사 동해리산신제의 역사는 분명치 않지만 조선 후기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제임이 분명하다. 구전에 따르면 이 마을은 옛날에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들이 극성을 부려 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다. 주민들은 함정을 파고 호표(虎豹)를 퇴치하려 하였으나 아무런 효험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호랑이가 산신령의 사자(使者)라고 여겨 제당을 마련하고 매년 산신제를 지내자 신기하게도 호표의 출몰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 뒤로 산신제에 더욱 치성을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동해리에서 산신제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19세기 후반에 중수되는 산향계(山饗稧) 자료이다. 동해리 산향계는 산신제를 주관하기 위하여 결성된 마을의 자치 조직으로, 1885년 3개 항의 범례를 정하고 상계원과 하계원의 좌목(座目) 명단을 재정비한 기록이 남아 있다. 여기에 적시된 범례는 '① 산제일에 상하계원은 마땅히 재계(齋戒)하고 모여서 치성을 드리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② 이 계의 규칙은 다른 계보다 더욱 소중함이 있으니 특별히 계에 힘씀이 마땅할 것 ③ 축문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축문을 사용하되 정성껏 읽을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동해리산신제는 늦어도 18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의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동해리를 비롯한 주변 마을의 보편적인 관행으로 보인다. 즉 태화산 기슭에 위치한 동해리는 첩첩산중의 두메로서 '하늘 아래 끝 동네'라고 해도 지나치치 않을 만큼 공주에서 가장 궁벽한 산간마을로 손꼽힌다. 일찍이 정감록에서는 '유마양수지간(維麻兩水之間) 가활만인지지(可活萬人之地)', 즉 유구와 마곡사 양수지간에 만인을 살릴 십승지(十勝地)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그 비결을 믿고 많은 사람이 병화(病禍)를 면할 수 있는 태화산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한말에 갑오농민혁명의 도화선을 제공한 고부군수 조병갑이 은신한 곳도 동해리 선학동이었다. 이렇듯 태화산 기슭에 터전을 마련한 주민들은 예부터 그 산신을 매우 영험하게 생각하여 해마다 호환(虎患)을 막고 역질(疫疾)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 왔다. 이러한 사실은 1930년에 새롭게 제정되는 산향계 규약에 "본계의 설립 목적은 동해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산신의 가호[神賴之澤]를 입을 목적으로 설립한다"라는 구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동해리 산제당
충남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2008.11.1
강성복

내용 동해리산제당은 본래 재궁동 7부 능선에 위치했다. 재궁동은 동해리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이며 산신제 역시 이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당은 본래 특별한 당집이나 신체(神體)를 봉안하지 않은 자연제당으로서, 단지 바위 앞에 평편하게 다져 놓은 제단이었다. 그러나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두 차례나 산제당을 옮기는 과정을 거친 끝에 마을 앞 도깨비바위 곁에 부지를 매입하여 1985년에 이건하였다. 산제당이 위치한 곳은 풍수설에서 '혈식천추(血食千秋)', 즉 피제사 천년을 받들 터전으로 구전되고 있으며, 매년 그 옆에서 희생으로 바칠 황소의 도살이 이루어진다.

1. 제일 택일 제일은 해마다 음력 시월 초에 길일로 택했다. 그러나 제를 앞두고 초상이나 출산이 발생하면 날짜를 연기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 심지어 개, 돼지, 소가 새끼를 낳아도 부정하다 하여 날짜를 연기했다. 그러다 보니 늦어져서 11월에 산신제를 지낸 해도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산향계의 결의를 거쳐 1954년부터 매년 시월 초삼일로 고정하게 되었다. 또한 제일을 고정한 이후에는 설령 부정한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산신제를 지낸다. 이 때문에 제를 앞두고 집안에 부정한 일이 생긴 사람은 함구하고 있다가 산신제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린다고 한다. 제의기간 사흘 동안에 초상이 나면 해당 마을에서만 산신제에 참석하지 못할 뿐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2. 공양주 · 제관 · 축관 제관은 부정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공양주(供養主), 제관, 축관을 선정한다. 제관은 시월 초하루부터 찬물로 목욕재계 하는 등 엄격하게 금기를 지켜야 한다. 특히 제물을 준비하는 공양주의 금기는 매우 까다롭다. 이 때문에 공양주는 대문 밖 출입을 일절 금한 채 사흘 동안 정성을 들여야 한다. 마을에서도 산신제가 임박

하면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 전체가 매사에 조심하고, 산신제를 마칠 때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3. 산향계 통문 산신제 사흘 전에 산향계에서는 통문(通文)을 발송하여 모든 계원이 성심재계(誠心齋戒)하고 상호간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한다. 통문에는 치성기간 및 금기사항, 공양주 · 제관 · 축관 명단, 산제당의 개초(蓋草, 이엉으로 지붕을 임) 당번 등이 기재된다. 특히 통문에는 통문을 보는 즉시 동물의 살상 도구를 봉인하고, 치성기간인 음력 시월 초하룻날부터 초사흗날까지는 험담과 싸움을 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산제당의 개초를 맡은 마을은 상주를 제외하고 짚단 한두 단씩을 가지고 나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부정을 엄격하게 가리는 산신제의 전통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리하여 추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임에도 산신제를 준비하는 사흘 동안에는 마을에서 기계소리를 내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겨 방아 찧는 일도 금기시한다.

4. 제물의 준비 동해리산신제는 산향계에서 주관한다. 산향계는 이장이 의무적으로 계장이 되고, 자연촌 단위의 반장이 간사가 된다. 계장은 매년 9월 상순에 간사들만 참여하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계원들이 납부할 헌성금(獻誠金) 액수를 결정한다. 아울러 각 마을의 간사가 집집마다 헌성금을 수합하면 계원 중에 적당한 사람으로 순색모우(純色牡牛)를 구입할 매우인(買牛人)과 이 소를 임시로 먹일 사육인(飼育人)을 선정한다. 여기에서 순색모우는 잡털이 박히지 않은 황소를 말한다. 단 뿔이나 꼬리가 빠진 소는 안 되고, 비육이 좋은 것으로 하되 값을 흥정하지 않아야 한다. 예전에는 공주장이나 인근의 5일장에서 주로 소를 구입했지만, 희생물로 사용할 소를 고르는 일이 쉽지 않은 까닭에 간혹 연기장까지 왕복 100리가 넘는 발품을 팔기도 했다.

산신제의 제물은 희생으로 바칠 황소를 비롯하여 삼색실과, 떡, 메, 술, 북어, 탕, 다시마, 메밀범벅 등이다. 모든 제물은 공양주가 손수 마련하지만 황소의 도살은 부정이 없는 사람 중에서 별도의 인원을 선정한다. 이때 도살된 희생물 가운데 땅에 닿은 절반 부분은 부정하다 하여 쓰지 않고 하늘로 향한 상향편을 열두 가지 부위로 해체하여 진설한다. 산신제에 올리는 부위는 쇠머리, 우족, 장골, 흉골, 갈비, 등심, 안심육, 외심육, 간, 지라, 심통 등이다.

5. 산신제 희생의 도살과 제수 준비가 다 되면 공양주, 제관, 축관은 두루마기로 갈아입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제당으로 향한다. 제장에 도착하면 공양주는 쌀을 씻어 화톳불에 메를 짓는다. 같은 시각 산제당 밑에 묻어 놓은 술독을 꺼내 용수로 제주를 걸러 동이에 담는다. 이윽고 산제당 곁에 있는 도깨비바위에 메밀범벅을 올려놓고 간단하게 고사를 지낸다. 이는 혹시 깃들었을지도 모를 잡귀와 도깨비를 위무하고 제어함으로써 제장을 정화하기 위한 일종의 부정풀이 의식이다. 산신제는 유교식 제차에 의거하여 분향-헌작-독축-아헌-종헌-사신-음복의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절차인 소지는 맨 먼저 동해동산신령(洞海洞山神靈)을 올린 다음 동해대동(洞海大洞), 사곡면장, 사곡면지서장, 이장, 공양주 · 제관 · 축관, 장로(長老), 계원일동, 입대자 등 순으로 불사른다. 이때 소지를 올리는 제관과 축관은 사전에 작성된 명단에 의거하여 한 사람씩 차례로 "이 소지는 ○○생 아무개 소지입니다"라고 아뢴 다음 당사자의 가내 평안을 고사덕담 형식으로 축원한다.

6. 희생의 분육 및 경매 산신제를 마치면 당일 저녁에 희생으로 올린 황소를 공양주의 집으로 옮겨 헌성금을 낸 계원들에게 두세 근씩 분육(分肉)한다. 이를 '주비끼'라고 한다. 주비끼는 다섯 가구를 1조로 하여 고기를 나누어 주면 다시 다섯 집이 고기를 나누어 갖는 독특한 분육 방식이다. 산향계원의 수가 150여 명이다 보니 대략 30주비끼 안팎의 분육조로 구성된다. 이때 산신제에 헌신한 공양주, 제관, 축관 및 도살에 참여한 사람들은 '분육예차(分肉例次)'에 따라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으로 고기를 조금 더 준다.

분육을 마치면 소의 뼈, 가죽, 장기 등은 즉석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 경매가 시작되면 어시장을 방불케 하는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마을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산신제에 올린 희생물은 재수가 좋다고 여겨 다투어 경매에 임한다. 판매되는 부위는 우두(牛頭), 장골(長骨), 소골(掃骨), 항골(項骨), 흉골(胸骨), 방골(肪骨), 두태(豆太), 간(肝), 처녑[千葉], 허파[肺], 심통(心痛), 우미(牛尾), 우각(牛脚), 우피(牛皮), 협(脇), 전족(前足), 후족(後足), 전경골(前脛骨), 후경골(後脛骨), 쓸개[胆], 지방(脂肪), 세목(細目), 대소장(大小腸), 지라[脾] 등이다. 희생의 매각 대금은 공동기금으로 예치하며, 매년 그 금액이 상당하여 산향계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 밤이 늦도록 경매가 끝나면 주민들은 함께 음복을 나누고, 이튿날 산향계 임원들만 다시 공양주의 집에서 모여 조촐하게 주연을 베풀며 비용을 결산한다.

의의 동해리산신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별도의 주관 조직으로 산향계가 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충청 내륙산간 지역에서 동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신제는 이제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단순한 제사의식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동해리에서는 지금도 황소를 희생으로 바치고, 공동체 금기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19세기 이래 완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이면에는 마을의 구성원과 객지로 떠난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산향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곧 산향계는 단지 비용을 부담하고 제를 주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매년 산신제를 매개로 마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실질적인 구심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산신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희생물의 분육 방식인 주비끼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즉석 경매는 그 정점에 있다.

참고문헌 공주 동해리 산향계의 성립과 산신제(강성복, 2010년 제28차 한국무속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속학회, 2010), **공주지방의 민속신앙**(공주문화원, 1995),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황소 경매
충남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2008.10.31
강성복

공주동해리산향계문서 (公州東海里山饗稧文書)

상호참조 공주동해리산신제(92쪽)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에서 19세기 산신제의 전승을 목적으로 산향계를 조직하고 그 운영내력을 기록한 문서.

내용 동해리는 태화산 기슭에 위치한 첩첩산중의 두메로서 공주지역 최고의 산간마을로 손꼽힌다. 동해리에서는 예부터 해마다 음력 시월 초에 산신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호환(虎患)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했다. 이를 위해 19세기 중엽 마을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산향계를 구성하였으며, 이 계는 오늘날까지 산신제를 주관하는 조직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동해리 산향계 문서는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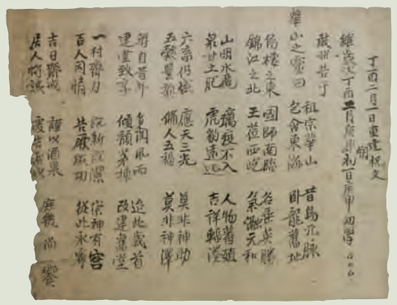
현재 동해리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는 『동해동산제계좌목(東海洞山祭稧座目)』·『산향계철(山享稧綴)』 등 27건이다. 이들 문서는 산향계 규약과 좌목을 비롯해 매년 산신제를 지내면서 지출한 제수비용, 희생물의 분급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자료는 1885년 기록한 『동해동산제계좌목』이다. 표제 바로 뒷장에 '을유 정월 중장(乙酉 正月 重粧)'이란 글씨로 미루어 이전부터 내려오는 산향계를 1885년 정월에 새롭게 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정유년(1897) 2월 1일에 작성된 산제당 중건 축문과 산제축문, 범례, 좌목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범례는 산신제의 의례에 대한 세 가지 조목을 규정한 것인데, '상하계원이 정성을 다해 산신제를 모실 것'과 '축문의 치성봉독(致誠封讀)을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좌목은 유학 송수경을 필두로 산향계에 가입한 주민들의 성명, 자, 생년, 관향 등을 연령순으로 기록한

공주동해리산향계문서 충남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2008.8, 강성복

동해동산제계좌목(1885)

산제계 범례와 좌목



산제당 중건축문(1897)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좌목 뒤에 '하계원(下稧員)'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로써 동해리 산향계는 상하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합계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계원 좌목에 등재돼 눈길을 끄는 인물은 고부민란의 도화선을 제공한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이다. '전(前) 김해부사(金海府使)'라는 직함과 함께 두 번째로 올라 있는 조병갑은 병신년(1896)에 입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고부에서 달아난 조병갑은 농민군의 눈을 피해 예산 대흥, 공주 등을 전전하다가 식솔들과 함께 시국이 잠잠해지는 몇 년 동안 동해리 선학동에 은거하던 중이었다. 바로 그 무렵 동해리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산향계에 가입한 것이다.

『산향계철』에는 산향계의 운영과 동해리산신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계사년(1953) 10월에 작성된 「예규(例規)」를 비롯해 을미년(1955) 10월의 「산향계규약」 및 「산향계통문」, 을미년(1955)·병신년(1956)·신축년(1961)·임인년(1962)·계묘년(1963) 「수계부」가 합철되어 있다. 「예규」에는 길일을 택해 산제를 지내오던 관행을 1954년부터 매년 음력 10월 초삼일로 완정하고, 제수를 담당하는 공양주(供養主)의 금기, 사고로 인해 공양주의 역할을 못할 경우 그 대리인의 선정, 생기복덕(生氣福德) 및 천의(天宜)에 의한 공양주·제관·축관의 선출, 제향물목 등이 적혀 있다.

또한 을미년(1955)에 작성된 「산향계규약」은 모두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19조가 누락돼 실제는 20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규약은 산신제를 영구히 지속할 수 있도록 계원들이 매년 4원씩 헌성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희생으로 바쳐질 소를 사육할 주민, 산제 후 쇠고기의 매각, 산제당의 이엉 얹기, 공양주의 금기 등 산신제의 준비과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규약으로 정해놓았다. 그런가 하면 "본리 주거민은 원호(元戶)·부호(附戶)는 물론이고 세대주는 필시 본리 계원으로 일제히 편입함"(제3조)이란 의무조항과 "본계 설립 후에 타구로부터 본구 내로 전입 주거할 시라도 본계에 가입하여 계원 책임을 부담함"(제4조)이란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날 동해리에서 산신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규약이다.

「수계부」는 매년 산신제를 지낼 때마다 작성된 자료인데, 「산향계통문」, 「소지일람표」, 「산향진설일람표」, 「산향제기목록」 및 산신제 수입지출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산향계통문은 매년 산신제를 3일 전에 제일, 치성기간, 금기사항, 산신제를 주관할 공양주·제관·축관의 명단, 산제당 개초당번 등을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안내문이다.

이밖에 동해리산향계문서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 작성된 산향제기목록, 소지일람표, 분육기(分肉記), 소비분(消費分), 수입지출결산서, 차용증서, 물건수입부, 시장물품내기, 산신제흘기, 축문 등이 있다.

의의 동해리산향계문서는 19세기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마을 단위에서 조직되는 이른바 '동제계(洞祭契)'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시기 충청 지역의 경우 존폐의 기로에 놓인 산신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산향계·산제계·산사계 등을 결성한 사례가 산견된다. 특히 동해리를 위시한 태화산 기슭의 산간마을에서는 산향계의 주도하에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여느 지역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마을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19세기에 출범한 동해리 산향계는 이후 마을에 구성된 모든 조직에 최우선하는 핵심조직으로 기능하여 왔다. 이는 산신제를 지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마을의 대사로 인식되었음을 말해 준다.

실제 동해리에서는 지금도 황소를 희생으로 바치고 주민들이 온갖 까다로운 금기를 준수하는 등 완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을의 구성원과 객지로 떠난 주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산향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즉 산향계는 단지 제를 주관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산신제를 매개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구심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동해리 산향계는 오늘날까지도 산신제의 전승에 중요한 토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와 관련된 문서는 19세기 이래 산신제의 지속과 변화상을 포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공주 동해리 산향계의 성립과 산신제**(강성복, 2010년 제28차 한국무속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공주지방의 민속신앙**(공주문화원, 1995),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공주무성산산제당 (公州武盛山山祭堂)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상연천마을 북쪽의 무성산 산중에 위치한 제당. 목조 기와집인 이 제당에서 부전동 열두 마을이 합심하여 산신제를 지낸다.

형태 무성산산제당은 무성산 상봉의 동남쪽에 위치한 상영천마을의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1984년 이전에는 초가 형태의 6.6㎡ 남짓한 건물이었다. 이러한 외형상의 초라함을 개선하기 위해 부전대동계 임원들이 꾸준히 공주시에 자금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1984년 산제당 중수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같은 해에 확보된 자금을 사용하여 6.6㎡ 남짓한 규모의 목조 건물을 지었다. 통나무로 기둥과 상량을 들이고 벽면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았다. 그리고 시멘트로 마감한 다음 페인트로 채색하였다. 지붕은 기와를 얹어 건물 전체가 전통적인 한옥 양식을 따르고 있다.

건물 내부 중앙에는 산신도를 걸어 놓았다. 산신도에는 좌정한 산신령과 호랑이를 나란히 배치하였고 산신령의 뒤편으로 선녀(仙人) 두 명을 그려 놓았다. 이 가운데 호랑이는 산신을 호위하는 영물로 볼 수 있고, 선녀는 산신령의 시중을 드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산신도는 또한 커다란 소나무와 계곡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산신령의 거처가 경관이 뛰어난 산중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밖에 산신도의 오른쪽에 '무성산 산신 신위(武盛山 山神 神位)'라고 종서(縱書)한 지방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산신도와 지방 아래에는 목재로 제단을 가설하여 놓았다. 이 제단은 산신제를 치를 때 제물을 차려 놓는 공간이다. 제단의 전면에는 상을 놓았고, 상 위에는 향로가 놓여 있다. 제당 내부의 바닥은 시멘트로 처리하였으며, 장판을 깔아 사용하고 있다.

제당 건물 전면 입구에 「산신각(山神閣)」이라 양각한 현판이 걸려 있다. 이 현판은 제당이 완공될 당시에는 볼 수 없었으며,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 1995년에 제작하여 걸어 놓은 것이다. 이는 현판의 한쪽에 적어 놓은 '을해 입춘절(乙亥 立春節)'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사 공주무성산산신제는 애초부터 부전대동계가 주체가 되어 시행해 왔다. 현재 발견된 부전대동계의 최초 문서는 『동계좌목(洞稧座目)』으로, 1663년에 작성되었다. 그런데 부전대동계의 문서에 무성산산신제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시점은 1839년에 작성된 『부전대동계 입의·일(浮田大洞稧 立議·一)』이다. 이 기록은 제관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으로 볼 때 정제된 유교식 제사의식으로 산신제가 시행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 제의가 건물 형태의 제당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제당이 어느 시기부터 존재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부전대동계 임원들의 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이미 산제당이 있었다고 한

다. 옛 산제당은 2010년 현재의 산제당 인근에 위치하였고, 흙벽돌을 쌓아 지었다고 한다. 초가 형태로 이루어져 매년 개초를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산제당의 지붕이 초가 형태를 이루었음은 부전대동계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부전대동계 계원명부병 수지부기장(浮田大洞稧 稧員名簿竝 收支簿記帳)』의 1950(庚寅)년 기록에는 산제 제수용 비용으로 쌀 아홉 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가운데 "산제당 개초용(山祭堂 蓋草用)으로 1,800원을 사용하였다"고 적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및 그 이후에 한천리 주민들이 이엉계를 조직하여 산제당의 지붕을 개초하였다고 한다. 부전동 열두 마을이 연합하여 지내는 산신제임에도 한천리 사람들이 개초를 도맡은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부전대동계는 부전동 열두 마을의 양반들이 중심이 된 동계였다. 이에 따라 한천리 사람은 당시만 하더라도 단 한 명도 계원에 들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천리 사람들의 이엉계를 통한 산제당 개초 이면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제당 수리와 관련된 기록이 1977(丁巳)년의 『부전대동계 수지부(浮田大洞稧 收支簿)』에 보인다. 이 문서에는 산제당수축비로 13만 1,240원(金 拾三萬仟貳百四拾원, 山祭堂修築費)을 사용하였다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산제당 대지 대금으로 2만 1,000원(金貳萬仟원, 山祭堂 垈地代)을 지출하였다고 기록해 놓았다. 비용 면으로 보았을 때 이 무렵 산제당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산제당 대지의 구입이 이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은 당시 이전만 하더라도 제당이 사유지에 위치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사유지에 산제당이 위치함으로써 산주가 산제당을 홀대하는 일도 발생하였다고 한다.

공주무성산산제당 충남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2008.1, 박종익

산제당 제물

독축

소지올리기

공주무성산산제당

> "본래 이 산은 박씨의 산이었다. 박씨는 벌목업자에게 산의 나무를 팔아넘겼다. 벌목꾼들은 이 산의 나무를 베면서 산제당 주변의 노거수만은 베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자 박씨가 찾아와서 '산제당 주변의 나무도 베어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판 것인데 왜 안 베어 가느냐?'고 재촉하였다. 벌목꾼들이 '이 나무들은 안 베겠다'고 하자 산주가 직접 톱을 들고 나서서 나무를 베었다. 나무를 벤 산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 이후는 그는 말도 못하고 누워서 지냈다. 마을 사람들이 문병을 가서 '산제당에 가서 빌어라.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라고 하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축을 받으며 산제당에 올라갔다. 그러고는 자신의 잘못을 빌었다. 그 이후 그는 일어나서 조금씩 걷게 되었다. 그리고 부전대동계 임원을 찾아와 산제당이 위치한 장소 주변을 대동계에 매매하였다."

이와 같이 산제당 주변을 훼손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 일대 주민들은 산신령의 신벌로 생각한다. 그리고 산주의 속죄를 신령이 받아들여 역시 병을 낫게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본래 산제당 주변의 터는 그동안 부전대동계에서 산주에게 여러 차례 매매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산주는 산제당 터만 떼어서 팔 경우 산의 모양이 좋지 않게 된다고 하여 팔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산제당 터를 대동계에 팔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산제당 터는 부전대동계의 자산이 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부전대동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무성산산신제는 본래 부전동 일대 열두 마을의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지내던 제의였다. 1839년에 작성된 부전동 마을문서 『부전대동계 입의 · 일』에는 당시 부전동산신제가 격식을 갖춘 유교제례 방식으로 시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문서에는 "실 제관 세 명과 예비 제관 세 명을 동계일에 선정한다"고 적고 있다. 예비 제관은 실 제관 가운데 부정한 일이나 유고가 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중심이 되어 초헌, 독축, 아헌, 종헌의 순으로 제의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과거 부전대동계가 주관한 무성산산신제는 상 · 하당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산신제의 제당인 무성산산제당이 상당이라고 한다면 내산리 입구의 천제(川祭) 제장이 하당이었다. 이 천제 제장은 내산리 입구의 약천내 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상 · 하당으로 이루어진 제당은 일제강점기 말부터 상당만이 운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약천내는 부전동 들을 적셔 주는 수원으로, 이 고장의 농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던 시내이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부전대동계에서는 물의 독점을 막는 조례를 두기도 하였다. 이처럼 부전동 열두 마을에 농수로서 영향을 미쳐 온 수원이기에 마을 사람들은 약천내 상류 지역에 제장을 두고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에 따라 하당에서는 주로 수원의 풍부함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말에 이르면서 하당 제의가 단절되었다. 상 · 하당의 기원 내용이 중첩되기도 하고 두 차례에 걸친 제의 수행이 부담되어 하당 제의를 폐지한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한천 저수지준공을 기념하여 한 차례 천제(川祭)를 지냈다.

참고문헌 洞稧座目(1663), 浮田大洞稧 立議(1972), 浮田大洞稧 立議 · 一(1983), 浮田大洞稧 重修案(1914), 浮田大洞稧 重修案(1924), 浮田大洞稧 稧員名簿竝 收支簿記帳(1941~1953), 浮田大洞稧 收支簿(1954~2001), **공주지리지 · 읍지**(공주문화원, 2001), **공주지방의 동계에 관한 연구**(윤여헌, 백제문화 18~1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1), **무성산 산신제의 형성과 변천–부전대동계문서를 중심으로**(박종익,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5), **조선후기 동계조직과 촌락사회의 변화–공주 부전대동계를 중심으로**(임선빈, 동방학지 8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1993).

필자 박종익(朴鍾翼)

공주부전대동계문서 (公州浮田大洞稧文書)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부전동에서 조선 후기 동계를 결성하고 그 운영내력을 기록한 문서. 부전대동계는 16세기 이래 부전동에 속한 12개 마을민들이 향촌자치와 무성산의 산신제를 주관해 온 조직이다.

역사 '공주부전대동계문서'는 부전동에 정착한 양반 사

동계좌목(洞稧座目)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2008.9.11, 유병덕

족들이 주도하여 창립 · 운영한 일종의 향약(鄕約), 동약(洞約) 자료이다. 부전동은 공주의 무성산 남쪽 자락에서 금강에 이르는 20여 리의 긴 골짜기에 터전을 마련한 12개 마을을 아우르던 명칭으로 '뜬밭'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행정구역상으로는 공주시 우성면의 한천리(韓川里) · 내산리(內山里) · 도천리(道川里) · 신웅리(新熊里) 등이 포함된다. 부전동은 조선 전기부터 양반사족들이 거주하던 마을로 조선 후기에는 300여 호에 이르는 큰 마을을 형성하였다.

부전동계가 조직된 정확한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16세기부터 동계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것은 현전하는 가장 오랜 자료인 1663년의 『동계좌목(洞稧座目)』 『동계중수서(洞稧重修序)』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동계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난을 거치면서 시행하 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에 부전동계를 창립한 주도 세력은 부전동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 예안 김씨(禮安 金氏)를 주축으로 이들과 혼인관계로 맺어진 전주 이씨(全州 李氏) · 강화 최씨(江華 崔氏) · 충주 지씨(忠州 池氏) 등이다. 이는 창설기 부전동계가 사족들의 향약계로 출발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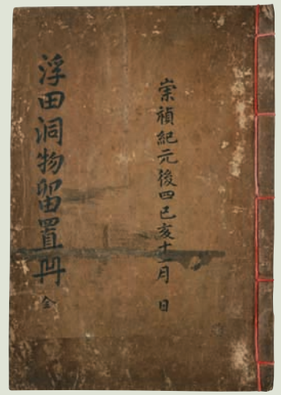
『동계좌목』을 보면, 당시 동계는 상층민과 하층민을 결합한 상하합계(上下合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임진왜란 이후 동계조직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피폐해진 향촌사회의 재건을 위해서 하민(下民)을 동계에 끌어들임으로써 하층민들의 일탈을 막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대로 올수록 점차 강화되어 18세기에 이르면 사족들은 자신의 권위만으로는 하층민을 통제하지 못하고 관(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에 처하게 되며, 19세기에는 사족들의 향촌 지배책이라는 동계 본연의 성격과 위상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약화되었다. 계원 구성원에 있어서도 18세기에 이르면 초창기에 동계를 주도했던 성씨들은 대부분 부전동을 떠나고 풍천 임씨(豊川 任氏) · 평산 신씨(平山 申氏) · 만경 노씨(萬頃 盧氏) 등이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부전동계는 계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나 무성산산신제를 지속하기 위한 전통보존회 차원의 계모임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현재 부전동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27일에 총회를 열어 산신제를 비롯해서 한 해의 대소사를 정리한다. 17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부전동계의 자료들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지난날 향촌사회에서 동계의 성격과 위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 '공주부전대동계문서'는 400년 넘게 이어온 동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부전동계의 문서로는 『동계좌목(洞稧座目)』, 『선안(仙案)』 등 동계좌목류 13권, 동계 소유의 동물(洞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전동물유치책(浮田洞物留置册)』 1권, 동계재산과 관련해서 송사(訟事)를 다룬 소지류 5점 등이다. 그 외 일제강점기

입약(立約)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2008.9.11
유병덕

공주부전대동계문서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2008.9.11, 유병덕



부전동물유치책(浮田洞物留置册)

부전대동계집물기(浮田大洞稧什物記)

부터 현재까지 매년 동계 수지부(收支簿) 6권, 1994년 산신제례회의 구성과 관련한 회의록 및 결의서, 산신제와 관련한 산제문(山祭文) · 천제문(川祭文), 동계 소유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된 서류 등 40여 건 등이다.

동계좌목류 문서 중 가장 이른 자료는 1663년(현종 4)의 『동계좌목』이다. 크기는 가로 25.5㎝×세로 40㎝로 수록내용은 「동계중수서(洞契重修序)」와 「좌목(座目)」 · 「입약(立約)」 · 「입의(立義)」이다. 「좌목」에는 모두 23인(추입 7인)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입약(立約)」은 모두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세칙으로 볼 수 있는 「입의(立義)」 27조가 첨부되어 있다. 부전동계는 1663년을 포함해서 조선 후기에 세 차례 중수(1663 · 1792 · 1839년)되었고, 일제강점기에 다시 두 차례 중수(1914 · 1924년)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는 1792년의 『대동계 입의(大同稧 立議)』, 1839년의 『부전대동계 입의(浮田大同稧 立議)』, 1914년과 1924년의 『부전대동계 중수안(浮田大洞稧重修案)』 등이 있다.

1792년 『대동계 입의』는 「동계중수서(洞稧重修序)」, 「입약(立約)」, 「벌목(罰目)」으로, 1839년 『부전대동계 입의』는 「우정부전대동계중수서(牛井浮田大洞稧重修序)」, 「입의(立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시기에도 동계는 상하합계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하민(下民)을 통제하기 위한 동계 보완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두 계첩 모두에는 이전과는 달리 관의 답인(踏印)이 찍혀 있다. 그리고 1839년의 『부전대동계 입의』에는 부전동계문서 중 처음으로 산신제 제관을 선정하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1914년의 『부전대동계 중수안』 「동계규칙 정정」에서는 "본계는 무성산 여제(厲祭)를 존숭(尊崇)하고 혼상제구(婚喪諸具)를 준비하여 일반계원이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여제로 표현되는 산신제 거행이 동계의 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어 1924년의 『부전대동계 중수안』 「규칙」에는 산신제의 거행을 위해 "상여고지기[大輿庫直]가 경작하는 사래답(私來畓) 3두락(斗落)을 산제답(山祭畓)으로 변경"하고, "산제답의 도조를 쌀 10두(斗)로 정해서 산제를 지낸다"는 등의 관련 조항을 두어 산신제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1839년에 작성된 『부전동물유치책(浮田洞物留置册)』은 가로 27.2㎝×세로 40㎝이다. 혼구(婚具)와 상구(喪具) 등 부전동계에서 소유한 동물(洞物)의 종류와 구입 연도, 동물별 세전(貰錢)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말미에는 '각처도지결총기(各處賭地結摠記)'라 해서 동답의 운영 및 도지(賭地) 수입에 관한 기록이 첨가되어 있다.

수지부(收支簿)는 매년 동계의 결산기록으로 1940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6권이다. 내용은 연도별로 서문, 계원명단, 수입기, 지출기, 분급기 등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지부에는 1940년 이래 '산(山) 제수용(祭需用)'이라 해서 산신제

지출과 관련된 비용을 매년 기록해 놓고 있어 산신제의 실제 운영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외 무성산 산신제와 관련해서는 1994년 특별히 산신제례회(山神祭禮會)를 결성하면서 작성한 「규약」과 계원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동계 부동산을 '부전대동계 산신제례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서」 등의 문건이 있다. 이상 부전대동계문서 일괄과 동계에서 소유하고 있던 동물(洞物) 일부는 2008년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보관 중에 있다.

의의 '공주부전대동계문서'는 충청 지역에서 확인된 동계자료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17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향촌사회의 운영과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사족들의 동계 조직이 상하합계를 거쳐 19세기 이후에는 산신제 조직으로 변화해 간 특별한 사례로도 주목된다.

참고문헌 **무성산 산신제의 형성과 변천-부전동 대동계문서를 중심으로**(박종익,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조선후기 동계조직과 촌락사회의 변화-공주 부전대동계(浮田大洞契)를 중심으로**(임선빈, 동방학지 8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1993).

필자 이해준(李海濬)

공주상세동산신도 (公州上細洞山神圖)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세동리 상세동마을 산제당에 봉안해 온 산신도. 2009년 1월 2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9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세동리(細洞里)는 마곡사(麻谷寺) 인근의 산골마을로, 구전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산신제를 지내 왔다고 한다. 19세기 후반까지는 현 산제당 부근의 바위 밑에서 제사를 지내 오다가 산제당을 짓고 산신도(山神圖)를 봉안한 것은 1896년(丙申)의 일이다. 당시 마을에서는 산신제와 산제당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별히 '산향계(山饗稧)'를 조직해서 운영해 왔는데, 관련 문서들이 비교적 잘 남아

상세동 산제당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세동리, 2008.10.31 유병덕

있어 산신제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산신도를 봉안하던 1896년 3월의 『산향계좌목(山饗稧座目)』(丙申三月)과 「축원문(祝願文)」(丙申三月)에는 계의 결성 목적과 운영 규정, 계원 명단, 이들의 기원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좌목의 계원 명단과 축원문의 축원자 명단에서 공히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신양선(申良善)으로, 그는 상세동산신도의 화기(畫記)에서도 화주(化主)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산제당 건립과 산신도의 제작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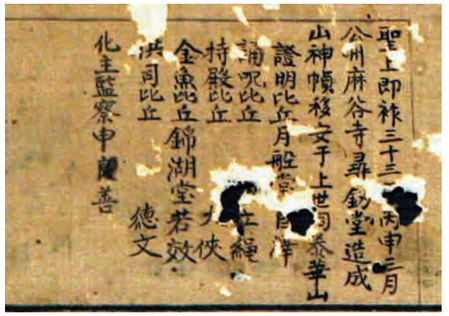
상세동에서는 봄·가을로 두 차례 산신제를 지내는데, 대개 음력으로 정월[春]과 시월[秋]의 초하루에서 초사흘 사이에 날을 받아서 지낸다. 현재까지 산신제의 명맥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2~3명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위축되어 있다. 산신제의 기반이 되었던 산향계도 1990년대 이후에는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내용 상세동산신도는 가로 98.5㎝×세로 94㎝ 크기의 견본채색화(絹本彩色畫)이다. 보존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화기가 있는 하단과 상단의 일부는 구멍이 나고 채색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

화면은 중앙에 호랑이를 거느린 산신을 위치시키고 주위에 남녀 두 동자와 배경으로 노송과 기암괴석, 폭포를 그려 넣은 19세기 후반 산신도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호랑이가 산신을 보좌하듯 나란히 밀착하여 앉아 있는 협시형(挾侍形)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산신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형이다. 색감은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으로, 황토색과 적색을 주색으로 하고 녹색·흰색이 보조색으로 사용되었다. 산신의 얼굴은 근엄하면서도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가슴께에 이르는 길고 검은 수염을 늘어트리고 있다. 머리에는 두건을 썼고, 금색의 둥근 문양이 찍힌 붉은색의 도포를 걸치고 있으며, 왼손에는 단선(團扇)을 들고 있다. 단선 아래에는 남녀 두 동자가 산신을 시위하고 있는데, 여아는 쟁반에 해태를 받쳐 들고 있고, 남아는 어깨 너머로 망태기를 들고 있다. 산신의 허리를 감싸듯 앉아 있는 호랑이는 민화풍의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뒤쪽으로는 선계를 상징하는 듯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와 기암절벽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구도가 잘 짜여 있으며, 산신의 수염과 두건, 호랑이와 해태의 세밀한 표현이 돋보인다.

상세동산신도는 뛰어난 작품성 외에도 조성 내력을 기록해 놓은 화기가 있어 제작 연도와 제작자, 봉안장소 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화기에 따르면 산신도는 성상(聖上) 즉위 33년 병신(丙申) 3월 마곡사 심검당(尋劍堂)에서 조성하여 태화산 상세동으로 이안(移安)한 것이다. 여기서 성상(聖上)은 고종황제를 일

공주상세동산신도
충남역사박물관
2009.2.17. 유병덕



聖上卽祚三十三丙申三月
公州麻谷寺尋劍堂造成
山神幀移安于細洞泰華山
證明比丘 月船堂 月澤
誦呪比丘 立繩
持殿比丘 大俠
金魚比丘 錦湖堂 若效
洪可比丘 德文
化主監察申良善

공주상세동산신도의 화기 부분
충남역사박물관, 2009.2.17. 유병덕

컫는 것으로, 제작 연도는 고종이 즉위한 지 33년이 되는 1896년이다. 1896년은 산제당을 건립하고 산향계를 결성한 해이기도 하다. 산신도 제작에는 마곡사에서 불화를 담당하던 화사집단이 참여하였다. 금어비구(金魚比丘)는 금호당(錦湖堂) 약효(若效)이고, 증명비구(證明比丘)는 월선당(月船堂) 월택(月澤), 송주비구(誦呪比丘)는 입승(立繩), 지전비구(持殿比丘)는 대협(大俠), 홍가비구(洪可比丘)는 덕문(德文)이다. 화주(化主)는 감찰(監察) 신양선(申良善)이다. 화기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畫記〉
聖上卽祚三十三年丙申三月
公州麻谷寺尋劍堂造成
山神幀移安于細洞泰華山
證明比丘 月船堂 月澤
誦呪比丘 立繩
持殿比丘 大俠
金魚比丘 錦湖堂 若效
洪可比丘 德文
化主 監察 申良善

금호당 약효는 마곡사에서 활동한 유명한 불모(佛母)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충청도 지역에서 다수의 불화와 산신도를 제작하였다. 그의 작품은 마곡사를 비롯해 갑사·동학사·신원사 등 마곡사의 본·말사에 30여 점이 남아 있다. 산신도로는 1909년 5월에 제작한 충북 보은 문수암 '복천산신도(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8호)'가 있다. 복천산신도

상세동산신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세동리, 2008.10.31, 유병덕

는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 산신의 모습 등에서 상세동 산신도와 유사하다.

상세동산신도는 2009년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9호로 지정된 이후에는 보존과 관리상의 문제로 산신도와 산향계 문서 일체를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으로 이전하여 보관하고 있다.

의의 상세동산신도는 19세기에 제작된 산신도 중에 화기가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작품으로, 작품성과 함께 시대적 특징도 잘 반영하고 있는 등 산신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아직까지 상세동에서는 산신제가 지속되고 있고, 산신도 제작 당시에 결성한 산향계 자료도 잘 남아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산신신앙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공주 상세동 산신도와 산향계 문서**(유병덕, 향토연구 33, 충남향토연구회, 2009), **공주의 전통마을 5**(공주문화원, 2006), **공주 태화산 산향계(山饗稧)의 성격과 산신제**(강성복 · 박종익, 민속학연구 51, 국립민속박물관, 2010).

필자 유병덕(柳炳德)

공주세동리산향계문서 (公州細洞里山享稧文書)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세동리에서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19세기 후반 산향계를 조직하고 운영해 온 문서.

역사 '공주세동리산향계문서'는 공주시 유구읍 세동리에서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19세기 후반부터 조직 · 운영해 온 산향계 자료이다. 산향계란 산신제의 비용을 충당하고, 산신도와 산제당 등을 유지 · 보수할 목적으로 조직된 동제계(洞祭契)의 일종이다.

세동리(細洞里)는 태화산(泰華山)을 중심으로 해발 400~600m의 높은 산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깊은 산골로 상세동(상동), 중세동(안말), 하세동(양지뜸)의 세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산향계는 세동리 중에서도 산제당이 위치한 상세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 전하는 산향계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병신년(1896) 3월의 『산향계좌목(山饗稧座目)』과 「축원문(祝願文)」이다. 이해는 '공주상세동산신도(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9호)'의 제작 연도, 산제당의 초창 연도와도 일치한다. 즉 산제당을 짓고 인근 마곡사(麻谷寺)의 화승(畫僧)으로부터 특별히 산신도를 제작해 모셨는가 하면,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 산향계를 조직하는 등 병신년은 세동리 산신제의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이다.

세동리 산향계는 1896년에 처음 조직된 이래 1930년에 한 차례 중수되었다. 산향계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산향계좌목』 「입의(立議)」편에 "산 아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봄 · 가을로 산신제를 지낸 뒤 계를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1896년 조직된 이래 35년을 이어오던 산향계는 1930년에 이르러 한 차례 중수가 이루어진다. 이때의 중수는 기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산향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30년의 준칙은 총 23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1896년의 「입의」를 보완하여 산향계의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세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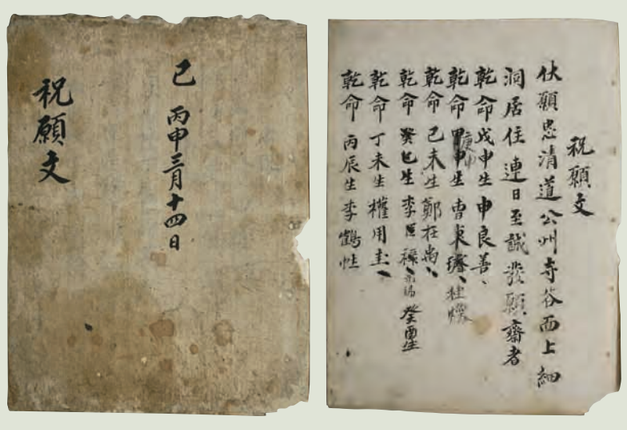
1930년에 중수한 이래 1980년대까지 세동리 산향계는 50년 이상 제 기능을 유지하며 존속해 왔다. 그러나 이농현상 등으로 계원 수가 줄고, 남아 있는 계원들도 고령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기능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1997년부터는 정기적인 계모임도 사실상 중단되었고, 봄 · 가을로 지내는 산신제만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공주상세동산신도'와 산향계문서 일체는 2009년에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보관 중이다.

내용 세동리산향계문서는 1896년 3월의 『산향계좌목(山饗稧座目)』과 『축원문(祝願文)』, 1930년 10월의 『산향계준칙부(山享稧準則簿)』, 『산향계축문급열명부(山享稧祝文及列名簿)』, 『산향계수입지출부(山享稧收入支出簿)』를 비롯해서 연도별 수입지출부와 축원명부,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40여 건이다.

산향계문서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문서는 1896년 3월 14일에 계를 창설하면서 작성한 『산향계좌목』으로 가로 18.5㎝×세로 19.5㎝ 크기의 성책 고문서이다. 「입의(立議)」, 「좌목(座目)」, 강신일의 「수계기(修契記)」 순으로 결책되어 있다. 「입의」에는 산향계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관한 12조목이 실려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리하여 이자로 산제비용으로 사용할 것, 강신(講信)은 9월 그믐날로 정할 것, 이자는 사분(四分)으로 정할 것, 이유 없이 불참하는 자는 상벌, 고집을 부려 의결사항을 따르지 않는 자는 중벌, 산제날 늦게 오거나 출타한 자는 하벌 등으로 하고 상벌 5전, 중벌 3전, 하벌 2전의 벌전을 거두는 내용이다. 「좌목」에는 산향계 결성을 주도한 신양선(申良善)을 필두로 계원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수계기」에는 정유년(1897)부터 계축년(1913)까지 춘추향사(春秋享祀) 비용을 포함한 경비내역과 수봉 · 분급 내역, 결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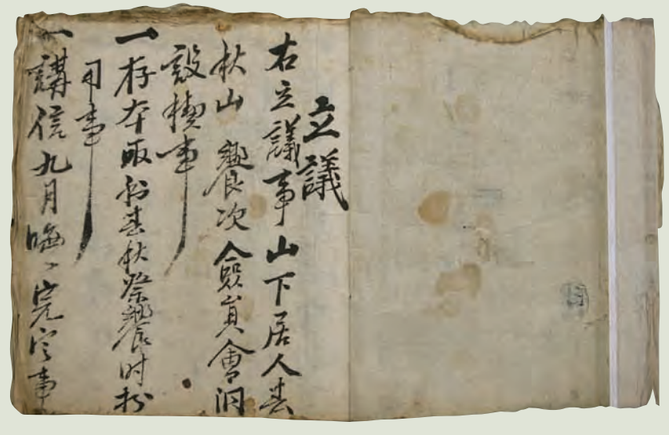
『축원문』은 황제폐하(고종황제)를 비롯한 대행황후폐하(명성황후), 태자, 태자비, 제궁종실, 문무백관, 도내방백, 성주[成造]의 복을 축원하는 상축에 이어 산향계에 가입한 각 세대 및 희사금을 납부한 타동(他洞) 거주민의 소지 명단으로 신양선을 시작으로 70여 명이 올라 있다. 1930년의 『산향계준칙부』는 계를 중

공주세동리산향계문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세동리, 2008.9.2, 유병덕



축원문(祝願文)

산향계좌목(山饗稧座目)



입의(立議)

수하면서 1896년의 「입의」를 보완한 것으로 총 23개조의 준칙을 국한문으로 적어 놓았다. 매년 가을에 지내던 산신제를 봄 · 가을로 두 번 시행하되 봄에는 정월 초삼일, 가을에는 시월 초삼일로 제의 일자를 완정(完定)하고 있으며, 제수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은 토지를 매수하여 여기에서 도지[賭租]를 받아 산제당의 유지 ·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케 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산향계수입지출부』는 1930년부터 1949년까지 산향계의 수입 · 지출과 관련된 각 연도별로 수봉금, 소모 내역, 분급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산향계축문급열명부』에는 「산향축문(山享祝文)」과 축원자 명단인 「열명부(列名簿)」, 「사망자 제명부(死亡者 除名簿)」 등이 수록되고, 『산향계토지대장및등기부』에는 토지대장(土地臺帳), 매도증서(賣渡證書), 관련 영수증(領收證), 특별녹고삼림양여원(特別綠故森林讓與願) 등이 결책되어 있다. 토지대장에는 산향계에서 소유한 4건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다.

의의 세동리산향계문서는 마을신앙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로서 19세기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산신제는 물론 사회 · 경제 등 마을신앙을 둘러싼 다방면의 현상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전통사회에서 민속관행의 본질과 변천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더구나 산신제와 마을 어귀의 수구(水口)막이 선돌에서 지내는 노신제가 전승되고 있어 연행 현장과 문서를 함께 조사하여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공주 상세동 산신도와 산향계 문서**(유병덕, 향토연구 33, 충남향토연구회, 2009), **공주의 전통마을 5**(공주문화원, 2006), **공주 태화산 산향계(山饗稧)의 성격과 산신제**(강성복 · 박종익, 한국민속학 51, 한국민속학회, 2010),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이해준(李海濬)**

공주탄천장승제(公州灘川長丞祭)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2구 소라실에서 정월대보름을 기해 올리는 장승제. 마을에서는 장승제를 흔히 '장승치기'라고 부른다. 1989년 12월 29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박영혁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마다 백제문화제 등에서 시연하고 있다. 또한 탄천중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승제를 전수하고 있다.

장승 만들기
황헌만

역사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2구 소라실 장승제의 연원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축문에 "환송곡이존거혜 공칠성이영창(環松谷而尊居兮 共七姓而永昌)"이란 구절에서 '송곡(松谷)'이란 지명과 '칠성(七姓)'을 통해 연원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송학(松鶴)'이란 행정명은 1914년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송곡'은 그 이전의 지명이다. 송곡이란 지명의 문헌상 기록은 『여지도서(輿地圖書)』(1759)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1776~1800), 『공산지(公山誌)』(1861)로 내려오면서 반탄면(半灘面)에 속한 지역으로 나온다. 그런데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는 동부면(東部面)에 포함된 지역으로 되어 있다.

칠성(七姓)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에 토성(土姓)으로 이(李), 정(鄭), 송(宋), 박(朴), 황(黃). 고(高), 임(任) 등이 있다고 전한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공산지』 등에서 칠성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기록을 종합하면 이들 송곡이란 지명과 칠성의 늦어도 조선시대 전기 세종 대 이후까지 소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2구 소라실 장승제는 조선 전기까지 소급해 볼 수도 있다.

내용 매봉산 기슭 송학리2구 소라실은 동편 마을에 사모를 쓴 '신랑장승'으로 동방천원축귀대장군(東方天元逐鬼大將軍)과 삼태봉 아래에 자리한 서편 마을에 비녀를 꽂은 '신부장승'인 서방지하축귀여장군(西方地下逐鬼女將軍)을 만들어 모시고 있다. 최근에는 삼태봉 아래 삼거리에 나무로 세 짝의 장승을 만들어 세우기도 하였다. 오른쪽 짝은 명문(明文)으로 "선조대대 물려받은 우리장승 전통장승 대대손손 수호지신 우리민족 빛난문화 갈고닦고 보존하여 후손만대 물려주자 민속문화 장승문화 세계만방 자랑하세"라고 쓴 재앙축귀대장군(災殃逐鬼大將軍)과 "동리입구 홀로서서 동네안녕 하게하며 오고가는 행인차량 무사하게 통행하고 삼재팔난 액운질병 속거철리 하게하며 국태민안 시화연풍 소원성취 만복일세"라고 쓴 질병축귀여장군(疾病逐鬼女將軍)이다. 가운데 짝은 동방천하축귀대장군(東方天下逐鬼大將軍)과 서방지하축귀여장군(西方地下逐鬼女將軍)이며, 왼쪽 짝은 천하축귀대장군(天下逐鬼大將軍)과 지하축귀여장군(地下逐鬼女將軍)이다.

마을 사람들은 장승제를 흔히 '장승치기'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이칭(異稱)을 통해 소라실 장승제가 마을공동체 의식이자 마을공동체 놀이로 인식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승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관 선출 음력 정월 초나흗날에, '책력 볼 줄 아는 사람'이 제관, 축관, 유사를 한 명씩 선출한다. 제관과 축관은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행동을 삼가야 하며, 혹시 상처가 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하는 등 지켜야 할 금기가 많다.

2. 걸립 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풍물패가 걸립을 한다. 이때 농기를 앞세운다. 농기에는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 적혀 있다. 각 가정에서는 마당에 상을 차리고, 쌀을 됫박에 담아 놓아 둔다. 풍물패는 상 앞에서 풍장을 울린 다음 샘(또는 마당의 수돗가), 부엌, 장독대 등 순으로 지신을 밟는다.

3. 제물구입 장승치기 전날에 마을 장정들이 제물을 장만한다. 삼색실과 · 포 · 소지종이 등은 장에서 구입하며, 떡과 메는 집에서 준비한다.

4. 샘[우물]굿 장승치기 전날 이른 아침에 유사는 장승과 샘 주변을 정비한다. 저녁 무렵에는 풍물패가 풍장을 치며 샘으로 나아가 우물굿을 한다. 풍물패는 먼저 바가지에 쌀을 넣고 그 위에 초를 꽂고 불을 붙여 우물에 띄운다. 상쇠는 그 앞에서 "뚫으쇼! 뚫으쇼! 물구녕만 뚫으쇼! 칠년대한(七年大旱) 가뭄에 물구녕만 뚫으쇼!"라고 축언한다. 이후 풍물패가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돌며 지신을 밟는다. 각 가정에서는 풍물

공주 소라실 목장승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2구 소라실, 2010.6.10, 배도식

패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5. 나무 베기 정월대보름날 오전에 풍물패는 유사집 앞에 세워둔 기를 앞세우고 산으로 오른다. 산에서 방향을 보아 길한 쪽의 나무를 고른다. 이때 가지와 옹이가 비교적 적고 반듯한 나무를 택해 벌목한다. 나무를 베기 전에 그 앞에서 간단하게 술과 북어를 제물삼아 제를 올린다. 제를 올린 뒤 톱과 낫으로 벤다.

6. 장승과 오릿대 깎기 베어 온 나무를 장승 크기로 자른 다음 껍질을 벗긴다. 겉껍질은 도끼로 벗기고, 속껍질은 낫으로 벗긴다. 껍질을 벗긴 나무에 톱으로 눈, 코, 입 등 얼굴의 윤곽을 그어 표시한다. 동편 마을의 장승에는 '동방천원축귀대장군', 서편 마을의 장승에는 '서방지하축귀대장군'을 각각 써 넣는다. 오릿대는 긴 장대에 오리 모양을 만들어 끼우고, 입에는 붕어 모양을 만들어 끼운다. 오릿대 만들 나무는 장승에 비해 가늘고 긴 것으로 선정한다.

7. 장승과 오릿대 세우기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장승을 세우기 위해 깃대가 앞장서고 그 뒤로 장승, 풍물패, 마을 사람들이 따라 간다. 풍장을 치면서 장승배기에 도착하면 붉은 흙을 장승 앞에 펴고 나서 장승과 오릿대를 세운다. 동편 마을 장승은 서편 마을 장승을 바라보도록 세우고, 서편 마을 장승은 동편 마을 장승을 바라보도록 세운다. 장승을 세울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묵은 장승을 뽑아 그 자리에 새 장승을 모신다. 뽑아낸 장승은 태운다.

8. 기합례(旗合禮) 장승을 세우면 곧이어 동·서편 깃대를 가져다가 동편 마을의 큰 마당에서 기합례를 행한다. 절차는 전통혼례식과 동일하다. 두 마을의 기가 혼례를 치르는 것이다. 동·서편 마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9. 장승치기 제관 일행이 제를 올린다. 예전에는 제만 올렸지만 요즘에는 '기합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승간에 혼례식을 치른다.

10. 홰싸움 장승치기를 마친 다음 추위를 달래기 위해 놓아 둔 화톳불을 횃불에 옮겨 붙인다. 가장 먼저 '장수홰'에 불을 댕기고, 작은 횃불에도 각기 불을 댕

기합례
황헌만

장승치기
황헌만

겨 마을로 향한다. 장수홰가 앞서고 뒤에 작은 홰들이 따른다. 불이 활활 오래 타야 마을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홰를 만들 때부터 신경을 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홰를 든다.

11. 합굿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각기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각 마을의 유사집에 모여 간단히 음복하고 휴식을 취한다. 얼마 후 서편 마을 사람들이 동편 마을로 가서 함께 풍장을 친다. 이를 '합굿'이라고 한다. 이후 각 마을에서 따로 잔치를 벌인다. 예전에는 구경꾼이 많아 방방마다 손님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어른들은 방에서 상을 받았고, 젊은 사람들은 마당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동·서편 사람들이 양편 마을을 오가며 음식과 술을 얻어먹으며 밤이 저물도록 논다.

12. 마을회의 이튿날 오전에 제사 경비를 결산한다. 전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점심시간즈음에나 마을회의를 한다. 동·서편 마을 사람들이 각기 한자리에 모여 결산을 본 다음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한다. 이후 음복하고 윷놀이 등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소라실 장승제는 독자적인 성향이 강하다. 각기 다른 마을로 여겨지던 동편과 서편 마을이 장승제를 통해 하나가 된다. 두 마을은 사실 경제적 차원에서나 종교적 차원에서 개별적인 마을로 기능하고 있다. 장승치기의 준비, 제반 절차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비의 마련과 집행이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은 이러한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두 마을은 장승제를 지내는 그 순간에 하나로 융합된다. 물론 장승제가 각기 진행된다는 점에서 두 마을은 여전히 별개 마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두 마을이 장승제와 관련된 일부 행사를 함께 행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장승제 안에 개별적인 두 개의 장승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마을이 어귀에 남녀 한 쌍의 내외신을 모시는 경우에 비하면, 소라실은 두 마을이 각기 남녀 장승을 따로 모시고, 이들을 하나의 내외신으로 관념하여 장승제를 치르는 것이다.

한편 소라실 장승제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이라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화재막이'라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의도도 전제되어 있다. 괘등혈(掛燈穴, 등잔대에 호롱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형상)인 마을 앞산의 화기(火氣)를 막는다는 구비전승과 함께 홰싸움 때 각 가정에서 지붕 처마 위로 물을 끼얹는 풍습은 장승제가 지닌 '화재막이'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역사례 이 밖에도 '탄천면 대학리 장승제', '탄천면 송학리 거리제', '반포면 공암리 할미탑제', '반포면 상신리·하신리 거리제' 등이 정월대보름을 기해 전승되고 있다. 이들 전승 양상을 살펴보면 충남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장승이 대부분 마을의 하당신(下堂神)으로 모셔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전통적인 신앙이 지속되는 마을에서는 상당제(上堂祭)로 산신제를 올린 뒤 장승제를 올리지만 산신제 없이 장승제만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나무장승이 돌장승으로 변모하거나 소멸되는 변화를 겪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 장승은 여전히 중요한 마을의 신앙 대상물로 기능하고 있다.

장승제는 산신제와 더불어 마을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하당제로 장승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수나무, 수구맥이(선돌), 탑(돌탑) 등도 하당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승은 대표적인 하당신으로 존재한다. 마을 어귀에 장승이 다른 신앙 대상물과 함께 있지 않고 홀로 모셔지기도 하지만 대개 그 옆에 짐대를 세워 놓는다. 일반적으로 '솟대'라고 불리는 짐대는 나무로 깎아 만든 오리를 장대에 앉혀서 역시 마을의 하당신으로 위하는 중요한 신앙 대상물이다. 그러나 공주시에서는 짐대가 지닌 독립적인 의미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지금은 장승에 비하여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신앙 대상물로 여겨지고 있다. 장승과 짐대가 함께 모셔지는 경우 장승은 짐대에 비하여 주신(主神)으로 관념되어 모셔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공주의 문화유적**(공주대학교박물관 · 충청남도, 1995), **공주지방의 민속신앙**(공주문화원, 1995), **소라실장승제**(공주문화원, 1998), **충남지방 장승 · 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1), **디지털공주문화대전**(gongju.grandculture.net).

필자 **안상경(安相敬)**

공하

정의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동제를 준비하고 제의를 행하는 제관에게 수고했다는 뜻으로 주민들이 곡식이나 돈 또는 기물(器物) 등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 말.

내용 제관은 주민을 대표해 금기와 재계를 행하면서 신성화 과정을 거치고, 마을수호신에게 제의를 행하면서 마을사회의 간절한 소망을 신과 소통하고 이를 전달한다. 또한 그 응답을 받아 와서 음복 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는 등 매우 상징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그래서 이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동제를 수행한 뒤에 마을에서 질병이나 사고, 죽음, 흉년 등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은 그 원인이 동제를 잘못 지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관은 그동안 근신하면서 정성을 들인 많은 노력과 고통이 무의미한 일로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행한 제관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함께 고마움의 표시로 일정한 물질적 보상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에서는 '공하'를 '工下' 또는 '工火'로 표기하였으나 그 정확한 표기와 의미는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제관에게 주어지는 물품이나 돈 등은 제관의 신성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에게 드리는 물건인 '공화(供華)'와의 상관성, 제관에게 바치고 인사한다는 의미의 '공하(貢賀)', 공손하게 위로한다는 '공하(恭賀)', 바치는 물건의 '공하(貢荷)' 등으로 짐작할 뿐이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부곡리(富谷里)의 동고사(洞告祀)에서 제관이 겪는 행위와 '공하'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마을에서 제관은 축관과 당주('주당'이라고도 함)와 집사를 일컫는 말로 초이튿날 생기(生氣)를 보고 선정한다. 특히 당주는 제수를 장만하고 동고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며, 선정 과정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생기복덕(生氣福德)까지도 맞아야 하며, 그 집안에서 상(喪)을 당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 때문에 당주를 노부부만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선정된 제관은 곧바로 금기를 행한다. 불결한 것을 보아서도 안 되며, 나들이도 삼간다. 특히 고사를 행하기 사흘 전인 열사흗날 아침 이른 시간에 제당과 자기 집에 금줄을 치고, 제수 장을 보고 나면 집 밖 발걸음을 삼가야 한다. 제수는 당주와 당주 부인이 준비한다. 당주는 마을 공동우물을 제수 준비용으로만 사용하며, 음식을 장만하고 제주(祭酒)를 담근다. 당주는 보름날 자정이 되면 제당으로 올라가서 상당과 하당의 당고사를 주관하며, 보름날 아침에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주민들에게 음복을 행한다. 제관들의 고생은 금기뿐만 아니라 제당에서 "쉬지도 못하고, 추워서 혼났다"는 말로 축약할 수 있다.

동고사를 마치고 나면 당주는 주민자치 조직인 합성계(合成契)로부터 수고했다는 뜻에서 '공하'로 쌀 닷 되를 받는다. 이전에는 쌀 두 되와 동고사에서 사용한 제기(祭器)를 모두 당주 집에 주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동제를 행할 때마다 떡시루와 밥그릇, 접시, 술잔 등을 매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1949년부터 기록한 합성계 계문서(『합성계(合成契)』, 『동대지물일기(洞垈地物日記)』, 『도신제향기(禱神祭饗記)』 등의 각 1권) 가운데 『동제사물목기(洞祭祀物目記)』에 따르면 1976년(丙辰年)까지 공하를 "공화백미 二升 860원"이라고 하였지만, 1977년(丁巳年)부터는 "공하一, 四○○"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으로 '공하'를 지불한 것은 이때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매년 제기를 장에서 사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978년에 제기 보관창고를 상당 옆에 만들게 되면서 그동안 지급되던 제기의 값을 포함하여 공하를 쌀 닷 되 값으로 올려서 주게 된 것이다.

제관에게 주는 수고비를 말하는 '공하'는 그 표현이 다르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제관의 수고에 대한 주민의 보상은 현금 또는 쌀, 제기(祭器), 희생물의 고기 등일 수도 있고, 또는 한 해 동안에 마을의 공동노동인 부역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즉 공하는 모든 주민이 참여해야 하는 동제에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수고해 준 제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공동체 신앙으로 바라본 지역문화사의 민속학적 인식**(이기태, 민속원, 2004),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필자 **이기태(李淇泰)**

광주엄미리장승제

정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에서 행해지는 장승제. 산신제와 함께 마을 제의의 한 과정으로 행해졌다. 지금은 산신제가 단절되고 장승제만 행해진다.

역사 예전에는 엄미1리에서 2리를 거쳐 남한산성 방면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고, 그 길가에 장승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현재 엄미2리에만 장승제가 전승된다. 엄미2리 장승은 미라울과 새말 두 마을에 위치해 있다. 새말을 거쳐 미라울의 좁은 길로 걸어가면 남한산성으로 연결된다. 지금은 인적이 드물지만 옛날에는 그 너머가 면 소재지여서 왕래가 잦은 길이었다. 장승은 이곳 교통상의 편리성 때문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새말 남장승에는 '서울 70리 수원 70리 이천 70리'라고 하단에 이정표가 묵서(墨書)되어 있다. 1988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옛 길이 끊기고, 서낭당과 장승이 있던 곳으로 도로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장승제와 산신제가 사라졌다. 현재는 고속도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엄미2리에만 장승제가 계승되고 있다.

내용 장승제는 2년에 한 번 음력 이월 초순에 날을 잡아 행한다. 이때 제의를 주관할 당주와 화주를 함께 정한다. 당주와 화주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남자 중에서 선정한다. 당주는 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 외인(外人)의 출입을 금하고, 자신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또한 언행을 삼가며 부부가 한 방에 들지 않는다. 화주도 동일한 금기를 지키지만 집 밖으로 다닐 수 있어 제수(祭需)는 화주가 장만한다. 제수 장만은 당주 집에서 한다. 당주가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산신제에 쓸 조라를 빚을 때이다. 당주는 제의 이틀 전에 대동샘의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고, 쌀 한 되로 작은 오지단지에 술을 빚어 산으로 올라가 산신제 제당 터를 파서 묻는다.

장승목을 선정하고 장승을 만드는 시기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정월에 미리 어른들이 살펴봐서 장승목으로 쓸 오리나무를 정해 두었다가 장승제 하루 전에 베어다가 미라울 마을에서 만든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장승제 당일에 장승목을 선정해 장승을 만든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장승제 당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나무 밑동이 20~30㎝의 오리나무로 장승목을 정한다. 나무가 정해지면 그 나무에 막걸리를 부어 놓는다. 나무를 베어 마을로 가져와 장승을 깎는다. 장승은 남장승 2기와 여장승 2기를 만들며, 솟대도 만든다. 장승의 머리는 나무의 밑부분으로 만든다. 여장승은 남장승을 만든 나무의 나머지 부분으로 만든다. 역시 나무의 아랫부분이 여장승의 머리가 된다. 장승을 만든 다음에는 안면 부분에 황토를 바른다. 그리고 남장승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여장승에 '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이라고 묵서한다. 장승을 만든 다음 남장승과 여장승이 길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게 세운다. 장승 한 쌍은 미라울 마을, 다른 한 쌍은 새말에

엄미리 목장승
경기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2010.6.11
배도식

각각 세운다. 솟대는 Y 자형 나무를 기러기 모양으로 깎아 긴 장대에 꽂아 세운다. 솟대는 서울 쪽(북쪽)을 향하도록 한다. 이 마을에서는 솟대를 '기러기대'라고 부른다.

장승을 세운 다음에 곧바로 장승제를 지낸다. 이전에는 밤에 산신제를 먼저 지내고 나서 장승제를 지냈으나 근래에는 장승을 깎아 세운 뒤 바로 장승제를 지낸다. 장승제에 쓸 제물은 화주가 준비한다. 제물은 경안과 신장의 장시를 번갈아 이용하였지만 현재는 슈퍼마켓도 이용한다. 제사 비용은 옛날에는 쌀을 걷고 술을 빚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대동 걸립(乞粒)으로 충당했다. 지금은 마을기금을 기본으로 하고 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물은 대체로 백설기, 밤, 대추, 곶감, 두부, 포(통북어) 정도이며, 과일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소쿠리에 담아 올린다. 제주(祭酒)로는 막걸리를 사용하며, 산신제에서는 당주가 담은 조라를 쓴다. 돼지머리나 쇠머리 같은 육류가 제물로 오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제물을 올린 다음 당주가 먼저 술을 따르고 재배한 다음 간단하게 준비된 축을 읽는다. 다시 술을 따르고 당주의 재배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이름과 생년을 밝히면서 가구별로 다 올려준다. 소지가 끝나면 통북어를 장승에 매달아 놓는 것으로 장승제를 마친다. 이전에는 장승제가 끝나면 당주와 화주는 저녁을 먹고 개울물로 몸을 씻고 밤 9~10시쯤에 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1910년 무렵에는 장승터에서 도당굿을 하였고, 난장도 들어섰다고 한다.

참고문헌 **광주시의 마을신앙과 제당**(김지욱,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장승제의 실상**(김태곤, 동방학지 3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3), **광주시사**(sisa.gjcity.go.kr).

필자 **이용범(李龍範)**

광주칠석동당산제

정의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에서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를 대상으로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마을신앙.

역사 칠석마을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속한 마을로, 남구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칠석마을은 상칠석과 하칠석으로 나누어진다. 자연적인 환경을 보면 마을 뒤쪽의 죽령산은 무등산에서 서남쪽으로 향한 장불재를 지나, 만연산과 수래바위산을 거쳐 철구재에서 분적산과 정광산으로 갈라져 이르고, 다시 남쪽으로 뻗어 지석강에 이른다. 이 죽령산 아래에 칠석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칠석마을은 동쪽에 죽령산이 있고, 죽령산에서 뻗어내린 산록에 마을이 위치한다. 서쪽에 대촌천이 있고, 마을 어귀에서 대촌천까지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삼한시대라고 전해지며, 성씨 미상의 유랑민 세 가구가 이곳에 들어와 터를 잡고 살게 되면서 촌락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칠석마을의 이름에 대한 유래는 마을 뒷산에 검은 돌이 많아 칠석(漆石, 옻돌)이라 했다고 전해져 온다. 옛날에는 이곳에 하천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마을 앞 저지대를 파면 배 조각과 갈대 뿌리가 나온다고 한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칠석마을은 와우상(臥牛相), 다시 말해 황소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은 터가 무척 거세다고 한다. 황소가 뛰어다니게 되면 전답의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게 황소의 입에 해당하는 곳에 소의 구유를 상징하는 연못을 파놓았다. 또 소의 고삐는 할머니 당산인 은행나무에 매어 놓았으며, 소의 꼬리에 해당되는 곳에는 일곱 개의 돌로 눌러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거센 터를 누르기 위해 고싸움놀이를 했다고 한다.

내용 **1. 제당의 구성** 제당은 상칠석에 위치한 윗당산과 하칠석에 위치한 아랫당산의 두 개 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윗당산에는 할아버지, 아랫당산에는 할머니가 좌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축문에 기재된 신격은 윗당산에는 천룡존신(天龍尊神), 아랫당산에는 당산지신(堂山地神)이다. 윗당산에는 소나무 네 그루가 있으며, 둘레에 반경 4~5m의 축대를 쌓았다. 원래 큰 소나무가 있었으나 고사(枯死)하자 새로 심은 것이 지금의 소나무이다. 소나무는 2m 간격으로 직방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 상석(床石)을 놓았다. 상석 동편 바로 밑에는 헌식(獻食) 터가 있다. 아랫당산에는 은행나무가 신체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나무는 조선시대 중기에 심어졌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령이 800여 년으로 추정되고 있어 서기 1200년대, 즉 13세기 고려시대 후기로 연대가 짐작된다.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는 옛날에 도사가 지나가면서 심었고, 지세가 청장년이 성하지 못하겠다는 예언과 함께 은행나무를 심어 터를 누르게 했으며, 현재 모시고 있는 당산할아버지가 바로 그 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은행나무 아래에 상석을 놓아 제당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당산제의 준비 정월 초열흘날 즈음에 마을회의를 열어 당산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상칠석은 윗당산, 하칠석은 아랫당산에 각각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마을별로 마을회의를 개최한다. 마을회의는 통장이 소집하여 개최된다. 회의 구성원은 각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家長) 한 명이 참여하여 이루어진다.

마을회의는 제사의 소요 경비를 결정하고, 제관인 화주와 정자를 선출한다. 화주는 제물을 장만하는 사람으로 한 명이 선정된다. 화주의 자격은 생기복덕이 잘 맞아야 하고 가내에 궂은일이 없는 사람, 즉 상을 당하거나 병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자는 화주를 도와 뒷일을 맡은 사람으로, 주로 심부름을 한다. 헌관과 축관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헌관과 축관은 상칠석과 하칠석을 통합한 성격의 사제자로서 윗당산과 아랫당산의 제사에 모두 참여한다. 물론 상칠석과 하칠석의 화주와 정자도 모두 윗당산과 아랫당산의 제사에 참여한다. 다만 윗당산의 제물은 상칠석의 화주와 정자, 아랫당산의 제물은 하칠석의 화주와 정자가 각각 따로 준비한다.

제관이 선정되면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호구전으로 쌀을 거둬 화주에게 전달한다. 화주는 이 쌀을 팔아 제물을 준비하고, 메를 짓거나 떡을 하기 위한 쌀은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관과 정자는 목욕재계하고, 당산제를 지내기 하루 이틀 전에 장을 보러 간다. 이들은 장을 보러 가면서 상을 당한 사람과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장에서 구입한 것은 삼색실과, 고기, 채소, 일체의 그릇 등이다. 그릇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화주가 갖는다.

화주나 정자는 장을 본 후에 마을 곳곳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 두는데, 마을 어귀에는 일곱 곳에 생대를 양쪽에 세워서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깐다. 이들은 화주와 정자의 집, 윗당산과 아랫당산에도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두며, 화주의 집에서 당산까지 연결된 도로 양쪽 곳곳에도 황토를 깔아둔다.

제물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는 물은 등룡산에 있는 샘의 물을 길어온 것이다. 깨끗한 사람이 당산제를 지내기 사흘 전에 깨끗이 청소해 둔 것이다. 제사 음식은 열나흗날 아침부터 화주 부부가 준비하며, 이때 두건을 쓰고 입을 가려 침이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음식에는 고춧가루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 제관들이 특별히 지켜야 할 금기 사항이 있다. 화주와 정자를 비롯한 모든 제관

은 당산제를 지내기 전에 개고기나 산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금기는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석 달 동안 지속하기도 한다. 특히 화주와 정자는 장에서 제물을 구입해 오면 그 순간부터 대변을 본 다음 반드시 찬물로 목욕해야 하고, 소변을 보면 손을 씻어야 하며, 부부간의 동침도 삼가야 하며, 한 방을 사용한다 해도 서로 거꾸로 잠을 자야 한다.

3. 당산제 진행 당산제에는 깨끗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동네에 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상주와 장례를 도운 사람은 당산제에 참여할 수 없다.

제사 음식이 마련되면 당산제를 모실 준비를 한다. 주민들은 초저녁에 고싸움전수관 앞마당에 모여서 장작불을 피워 놓고 농악을 치기 시작하면서 놀이판을 벌인다. 그리고 밤 10시 무렵에 고싸움전수관에 모인 아랫마을의 헌관, 축관, 화주, 정자가 윗마을 화주 집으로 가서 상견례를 하고 간단한 음식상을 마련하여 담소를 나눈다. 이것을 '사돈보기'라 하여 예를 깍듯이 갖춘다. 사돈보기에서 시가를 상징하는 쪽은 상칠석의 제관들이며, 하칠석의 제관들은 처가를 뜻한다고 한다. 때로는 시가와 처가 어른들이 모여 서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가 어른들은 앉아서 처가 어른들을 맞이하려고 하고, 처가 식구들은 시가 어른들이 모시러 와야 한다고 승강이를 벌이기도 한다. 또는 방안에서 아랫목을 서로 차지하려고 농담을 한다. 물론 손님이 아랫목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돈보기가 끝나면 밤 11시 무렵에 제관들은 음식을 상칠석의 화주 집에서 할아버지당산으로 운반하여 진설하고 제사를 모신다. 참여자는 상하칠석 화주와 정자를 중심으로 축관과 헌관, 깨끗한 마을 사람들이다. 제사의 절차는 유교식으로 진행되며, 제사가 끝나면 제상의 음식을 조금씩 모아 백지에 싸서 헌식 터에 묻는다. 할아버지당의 제물은 메, 물, 무나물, 찰밥(팥+찹쌀+밤+대추+수수+조), 호박나물, 두부탕 등을 들 수 있다. 2005년부터는 사과, 귤, 배 등 과일을 올린다고 한다. 비린 것이나 술은 올리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싫어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당산의 제사가 끝나면 축관이 나발을 불어 신호한다. 그때부터 각 가정에서는 차례상에 올릴 비린 것을 손댈 수 있다고 한다.

제관들이 할아버지당산에서 내려와 하칠석 화주 집에 모여 술상을 차려 술잔을 나누면서 잠시 한숨을 돌리고 다시 음식을 들고 할머니당산으로 이동한다. 할머니당산의 제사는 할아버지당산의 제사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할머니당산의 제상에는 고기와 술을 올린다는 것이 다르다. 당산제는 대략 새벽 1시 무렵에 끝난다. 이때부터 날이 샐 때까지 농악을 치면서 논다.

4. 고싸움놀이 당산제를 지내고 나면 그날 본격적으로 고싸움놀이를 시작한다. 고싸움은 동부팀과 서부팀으로 나누어 행한다. 동부팀은 상칠석마을, 서부팀은 하칠석마을이다. 두 팀이 대결해 승패가 나지 않으면 음력 이월 초하룻날까지 계속되고, 그래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고를 풀어서 줄다리기를 하여 승패를 가린다. 물론 고싸움은 일 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당산제의 뒤풀이로 행해진 셈이다.

의의 칠석동당산제는 전형적인 내륙지역 풍물굿형의 마을신앙으로서 민속신앙적인 의의가 크고,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는 광주칠석고싸움놀이와 연계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또한 광주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서 고싸움놀이의 전야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축제적 가치 또한 크다.

참고문헌 남도민속의 이해(표인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옻돌마을 사람들과 고싸움놀이(고싸움놀이보존회, 민속원, 2004).

필자 표인주(表仁柱)

괴산문당리성황단 (槐山文塘里城隍壇)

정의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에 있는 성황단. 2002년 7월 12일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3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문당리성황단은 오리목마을 어귀에 위치해 '오리목성황단'이라고도 한다. 제단부와 좌우 돌탑 등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성황단은 비교적 정연한 형태로 쌓은 제단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두 기의 원추형 돌단을 쌓아 남성 성기형(性器形)의 적석단을 이루고 있다. 산에서 사룡(蛇龍)이 마을을 향하여 긴 꼬리를 하고 내려오는 형상의 돌무지 성황단으로, 양쪽에 남성 성기 모양의 돌무지가 있다. 가운데에는 남근 형상의 적석단이 있다. 돌탑을 좌우에 두고 가운데에 폭 3m, 길이 5m 규모의 제사 공간과 90×90㎝ 크기의 제물대를 갖춘 제단을 쌓아 놓았다. 제단부에서 산 쪽으로 꼬리를 끌 듯 10여 m 돌무지를 늘여 쌓아 마을 주산으로 연결하고 있다.

괴산문당리성황단 충북 괴산군 문당리, 2010.8.24, 이창식

내용 괴산문당리성황단은 마을이 형성된 조선 중기 때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매년 정초에 색색의 헝겊을 끼운 금줄을 적석단 옆의 신목에 쳐 놓고 생기발복일(生氣發福日)을 골라 제사를 지내며 제일 사흘 전부터 금기를 준수하였다.

문당리에는 성황단과 함께 산제당이 있어왔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번갈아 가며 산신제와 성황제를 올리고 있다. 보통 짝수 해에 산신제, 홀수 해에 성황제를 각각 올린다. 제의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초이레 사이에 길한 날을 택하여 자시를 기해 행한다. 성황제를 올릴 때에는 제관과 축관을 각기 한 명씩 선출한다. 제관은 도가 역할을 겸한다. 산신제를 올릴 때에는 제관, 축관, 도가를 한 명씩 선출한다. 매년 대동계에서 한 해의 생기복덕 여부를 가려서 부정 없는 사람으로 결정한다. 산신제를 올릴 때에는 도가집에서 사흘, 성황제를 올릴 때에는 제관과 축관 두 명이 하루 동안 함께 기도를 하며 근신한다. 금주 · 금연 · 금색 등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은 육식과 생선 등 비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일 사흘 전부터 도가의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는다. 제일을 받아 놓고 마을에 초상이 나면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관례도 있다. 제물은 대추, 밤, 곶감, 배, 사과와 3되 3홉의 백설기 등을 준비한다. 산신제를 올릴 때에는 따로 쇠머리를 준비한다. 제의 절차는 유교식에 준한다. 한편 산제당은 오르매기마을 앞 승적골에 있다. 1970년대 철거되었다가 1974년에 다시 지었다. 주위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둘러서 있다.

참고문헌 괴산군 문화유적분포지도(괴산군, 2005), 괴산군지(괴산군, 1990), 민속지(충청북도, 1987).

필자 이창식(李昌植)

구례구산리입석(求禮九山里立石)

정의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있는 칠성신앙,

기자신앙, 성신앙 등 민속신앙의 신체. 1984년 2월 29일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15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구산리입석은 지리산에서 섬진강으로 흘러내린 평지성 구릉 위에 있다. 완만한 언덕 위에 있는 이 입석은 거대한 자연석을 세워 놓은 것으로, 섬진강을 내려다보며 서 있다. 이 입석 바로 옆에 지석묘 2기가 있다. 지석묘는 묘표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석은 거대한 판상석을 세워 놓은 것이며, 전체적으로 네모지고 두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측면은 잘 다듬어져 있지만 앞뒷면은 고르지 않다. 크기는 높이 240㎝, 너비 100~120㎝, 두께 25~33㎝이다.

내용 입석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소원을 빌고 액운 퇴치를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고 한다. 1916년 11월 11일 유형업의 일기에 따르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빌기 위해 가을걷이가 끝난 뒤 날을 받아 동제를 지냈다고 한다.

구산리는 개성 왕씨가 개척하였으며, 김해 김씨와 전주 이씨가 산세와 수세가 좋다 하여 입촌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을 앞에는 장수를 누린다는 덕은천이 흐르고, 경로당 부근에 입석과 고인돌이 있다. 입석은 선돌이라고도 하며, 고인돌과 함께 거석문화의 일종으로 태양숭배사상 등과 같은 원시신앙과 관련 있는 유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 주변에 세워져 묘역을 표시하는 구실을 한 것이다. 역사시대에 와서는 마을 어귀에 세워져 벽사나 경계 등 기능을 하거나 민속신앙과 결부되어 장수를 비는 칠성바위의 신앙이 되기도 하였다.

암석을 신앙의 신체(神體)로 하는 신앙이 암석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암석신앙은 바위 그 자체 또는 인공적으로 다듬은 바위를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신앙을 말한다. 암석 그 자체가 주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바위의 불변하는 영속성 때문에 인식되는 종교적 심성이 작용하여 신격화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신앙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암석신앙은 고인돌과 선돌을 축조한 고대의 천신숭배로부터 분화되어 전승된 것으로, 역사가 오래되었다.

암석이 천신의 정주처이기도 하고 강신수단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신성물로 인식됨으로써 암석을 신체로 한 다양한 신앙 형태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서 암석이 신앙적 대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암석을 성기석으로 인식하거나 생산의 상징으로 인식하여 행해지는 성신앙과 기자신앙, 암석을 수명장수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식하는 거북신앙과 칠성신앙, 암석을 공동체신앙의 신체로 활용하는 마을신앙 등이 그것이다.

구산리입석은 본래 지석묘와 함께 축조되면서 묘역의 경계표시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후대에 마을 사람들의 칠성신앙이나 기자신앙 등 다양한 신앙적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의 구산리입석은 본래 묘역의 경계 표시로 축조되었지만 후대에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입석이 마을신앙, 칠성신앙, 기자신앙 등의 대상이 되면서 입석의 중층적인 기능이 형성된 것이다. 입석이 민속신앙의 신체로 활용되면서 암석문화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민속문화적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구례군의 문화유적**(구례군, 1994), **마을유래지**(구례군, 1989), **섬진강유역사연구**(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필자 표인주(表仁柱)

국사당(國師堂)

상호참조 국사당제(119쪽)

정의 마을을 수호하는 동신(洞神)을 모시는 마을 제당. 대체로 마을의 뒤쪽 산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국사당은 국수당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제당이라는 점에서 마을신앙에 포함되는 반면 때로는 무당들의 기도처이기도 하여 무속신앙에 포함되기도 한다. 한 마을에 두 개 이상의 동제당이 있는 경우 국수당은 상당(上堂)에 해당된다.

어원 국사당은 한자로 '國師堂'이라고 쓴다. 국사(國師)는 국수당 · 국시당의 국수 · 국시가 한자로 취음표기(取音表記)된 문헌상의 기록일 뿐 이 용어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인왕산 소재 국사당은 「국사당(國師堂)」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사당이란 용어보다 국수당이란 용어를 익숙하게 사용한다. 중서부 해안 지역이나 경상도 등지에서도 국수당이나 국시당 또는 국수봉, 국시봉이라 하며 국사당이나 국사봉이라 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지 주민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불리는 이름은 국수당, 국시당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국수당이라 부르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국시당은 국수와 발음상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사당의 어원을 구수(龜首)에서 찾기도 한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에서는 국수당을 구수당, 이 마을 신당(神堂)이 있던 산봉우리를 구수봉 또는 당금 · 당그미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국수는 구수(龜首)에서 국수(국시), 이후 국사(國師)라는 한자로 차용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당금이나 당그미, 또는 구수의 어의(語義)는 신(神)을 뜻하는 말로, 구수는 신산(神山)마루의 뜻을 지닌 구지봉(龜旨峰)의 구지와 같은 명칭으로 보인다. 구지봉은 구지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구지는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에 기록되어 있는 구지와 연관시킬 수 있다. 여기서 구지는 산봉우리 이름으로, 수로왕이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신산마루를 뜻하는 구수의 어의는 신산이라는 뜻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수당이 통상 산정에 자리하고 있는 특징으로 보아 천제당이나 기우제장이 산정에 자리하는 예와 같은 이유로 천신의 하강처를 뜻하게 된다.

인왕산 국사당
국립민속박물관

역사 국사당을 천신의 하강처로 보면 이는 천신신앙과 관련이 된다. 즉 국사당 신앙은 천왕당 또는 천제당 신앙과 같은 형태로서 산신당 신앙의 전단계적 형태가 된다.

국사당의 연원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아 유래담은 전설로 전해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사당이라는 명칭으로 유명한 인왕산 국사당의 연원은 기록이 남아 있어 그 유래를 유추할 수 있다.

인왕산 국사당은 1973년 7월 16일에 '중요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되었다. 국사당 선바위는 1973년 1월 26일 서울시 '민속자료 제4호', 국사당 안에 있는 무신도 20여점은 '중요민속자료 제17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서울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 중턱에 있는 국사당은 원래 남산(원래 이름은 목멱산)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1925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남산에 조선신궁을 세우면서 현재 자리에 복원된 것이다. 현재 국사당은 개인의 기원장소, 무속인의 굿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남산이 사당으로 설정된 것은 조선 1395년(태조 4)이다. 그해 겨울 무오(29일)에 이조(吏曹)에 명하여 남산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하고 경대부(卿大夫) 및 선비와 서민들은 제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목멱신사는 목멱산 꼭대기에 있고, 해마다 봄과 가을에 초제(醮祭)를 행한다는 기록이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서울 잠두봉(蠶頭峰)의 국사당 음사(陰祀)는 다음과 같다. 목멱산신을 제사할 때 전사청(典祀廳)에서는 이를 국사당이라 사칭하고, 고려 공민왕, 본조(本朝)의 승려 무학, 고려 승려 나옹, 서역 승려 지공의 상(像) 및 기타의 여러 신상을 걸어 놓았다. 또 맹인의 상(像) 및 기타의 여러 신상을 걸어 놓았다. 여자아이의 상도 있다. 여자아이를 천연두의 신이라 하면서 신 앞에 화장품 종류를 놓아 두었고, 대단히 추악하였다. 그러나 기도가 자못 성행하여 나라에서도 금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애초 민속신앙의 제당에 승려의 상을 걸어 놓았다는 점에서 무불융합의 요소가 보이기도 한다.

형태 국사당은 우리나라 중서부 해안도서 지역을 비롯

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만 명칭이 국수당, 국시당 등으로 달리 나타난다. 이는 국사당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서부 해안 도서의 국사당은 마을 수호나 경계 기능상 외부로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산맥을 막고 마을의 뒤쪽 고봉에 위치하며, 산신당과 서낭당 등 신당보다 외부 원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상당과 하당이 마을 뒤쪽에 위치할 경우 상당은 국사당 또는 국시당이 되며, 하당은 산신당이나 서낭당 외의 기타 신당이 된다. 이에 따라 국사당은 하당칭(下堂稱)의 신당보다 상위의 고산정(高山頂)과 원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중서부 해안 지역의 특징이다.

국사당의 형태는 국사당신을 직접 신체(身體)로 봉안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서부 해안 지역에서 쇠말[鐵馬]을 신당에 봉안하거나 쇠말이 없는 신당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쇠말이 있었고 또 쇠말에 따르는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 국사당 신앙의 특수성으로 나타난다. 이 계통 신당의 위치가 통상 마을의 뒤쪽 높은 산꼭대기라는 점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시 안면도(현 태안군 안면읍) 우포(牛浦)에는 마을 뒤쪽의 낮은 당산에 산제당이 있고 이 당산 밖의 고봉(국수봉)에 국수당이 있다. 산제당은 하당, 국수당은 상당이라고 각각 부른다. 상당인 국수당은 음력 정월 초이튿날, 하당인 산제당은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각각 동제를 지낸다. 우포 국수당의 형태는 국수봉 꼭대기에 석반단(石盤壇)을 가운데 두고 5㎡ 가량의 면적에 높이 120㎝ 가량의 잡석을 쌓아 두른 돌담 안에 관목신수(灌木神樹)가 있다. 이 관목 신수 밑에 12㎝ 길이의 쇠말이 당신(堂神)으로 봉안되었다가 소실되고 그 전설만 남아 있다. 전설에 따르면 육지로부터 호랑이가 침입해 오는 것을 이곳 국수당 쇠말이 추격하다가 '관목개' 갯벌에 빠져 있으니 구원해 달라고 쇠말이 현몽하였다. 이 꿈을 꾼 마을의 한 노인이 가보니 과연 쇠말이 관목개 갯벌에 박혀 있으며, 뒷다리가 부러져 있어 다시 국수당으로 모셨다고 한다.

국사당의 위치는 한 마을에 다른 당과 국사당이 있는 경우 상위당으로 국사당, 중위당으로 산신당, 하위당으로 서낭당이 각각 있다. 그래서 국사당을 상당이라 하고 제의 역시 상당인 국사당에서 먼저 치른다. 간혹 고갯마루 길 옆에 서낭당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국사당의 위치처럼 산봉우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 국사당의 국사(國師)는 국수당 · 국시당의 국수와 국시가 한자로 취음 표기된 문헌상의 기록일 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인왕산 소재 국사당의 예를 보더라도 한자로 국사당(國師堂)이란 현판이 걸려 있어도 주민들과 외지 무당들은 반드시 국수당 또는 인왕산 선바위 국수당이라 부른다. 그래서 '구수(龜首)→국수(국시)→國師(한자 취음 표기)'의 과정을 거쳐 현지에서 전승되는 구수, 국시가 한자로 취음 표기되어 국사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 정죽리, 소원면 당산리의 경우 구수봉을 각각 '당금'과 '당그미'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神)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을 가리키는 용어와 상통되어 구수봉 · 국시봉은 신산(神山)마루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산마루인 구수봉, 국시봉은 단군신화에서 천상신이 하강한 신단수가 있는 태백산정, 가야국의 시조가 강림한 가락국기의 구지봉, 신라의 육촌장이 하강한 산정 등과 맥을 함께하는 천상신의 강림을 의미하는 산신마루라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지금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마니산 꼭대기에 있는 참성단에는 매년 음력 시월 초사흘 개천절(원래 개천절은 음력 시월 초사흘이었으나 나중에 양력 10월 3일로 바뀜)이 되면 주민과 무당들이 모여 단군이 천상에서 이곳 마니산정에 하강한 날임을 기념하는 제의를 올리는 대대적인 제천행사를 벌인다.

이에 따라 구수봉(이하 국수봉 포함)은 신앙 형태의 단계상으로 볼 때 천상신이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최초로 강림한 형태가 되고,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지상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마을의 높은 산꼭대기를 택해 하늘의 최고신과 교섭하는 제의 장소로 삼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전통마을, 특히 중부 지역에는 대체로 마을의 배후 산정에 국수당(또는 국수당, 국시당)이 있고 그 산 허리에 산신당이 있으며 마을 어귀에 서낭당과 함께 장승과 솟대가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 마을신앙의 형태이다. 근래에는 산신당과 서낭당만 남고 국사당과 장승, 솟대가 인멸되어 가는 추세이다. 다만 장승과 솟대는 인위적으로 복원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국사당의 경우 아직도 전승되는 마을이 있으나 제를 지내던 제단이나 제터 또는 국사봉, 국시봉 등 지명만 남아 있는 예가 많다.

지역사례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속칭 해변에는 마을의 왼쪽 낮은 당산에 영신당(靈神堂)이 있고, 마을 뒤쪽 좀 높은 산인 상산(上山)에 국수당이 있다. 외부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동구 노변에 서낭당과 그 곁에 장승이 있다. 이곳 역시 국수당을 상당, 영신당을 하당이라 한다. 국수당이 음력 정월 초이튿날, 영신당과 서낭당은 정월 초사흗날에 각각 제를 지낸다. 창리의 국수당 형태는 외부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뒤쪽 상산 꼭대기에 6.6㎡ 정도의 장방형으로 된 잡석을 쌓아 올린 돌탑이 있다. 그 한가운데에 무너진 채 흩어져 있는 누석단이 있고, 그 앞에 석반단이 있다. 석반단 위에 12㎝가량의 쇠말이 봉안되어 있고, 옥수(玉水)를 바치는 중발 3개가 항상 쇠말 앞에 놓여 있으며, 신수로 관목 숲이 있다. 외부로부터 침입해 오는 호랑이를 이 쇠말이 뒷다리로 차서 격퇴시키다가 쇠말의 뒷다리가 부러졌다는 전설이 있다.

서산시 근흥면(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에는 마을 오른쪽 당산에 산제당이 있다. 마을 뒤쪽 원거리 고봉에 국수당이 있었으나 폐당되고 지금은 동구 영현(嶺峴)에 서낭당으로 누석단과 신수가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는 마을 뒷산 기슭에 임장군당(林將軍堂)이 있으며, 외부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뒤쪽 높은 산인 국수산 꼭대기에 국수당이 있다. 이곳에서도 국수당을 상당, 임장군당을 하당이라 각각 부른다. 음력 정초에 날을 잡아서 제를 상당인 국수당에 먼저 지낸 다음 하당인 임장군당에 지내고, 마지막으로 마을 옆에 있는 도대감막(都大監幕)에 지낸다. 이곳 국수당의 형태는 잡석을 쌓아 올려 벽을 만들고 그 위에 짚으로 엮어 지붕을 덮은 정도의 집이다. 집 안 출입구 정면 벽 중앙에 당신(堂神)으로 서낭님의 그림과 오른쪽에 삼불제석, 왼쪽에 임장군부부의 그림이 봉안되어 있다. 또 잡석을 쌓아 올린 담장이 이 당집 주위를 둘러 18㎡ 정도의 대지를 차지하고, 관목 신수가 있다.

이상 서산의 국수당은 1964년, 강화는 1965년 김태곤에 의해 조사 · 발표된 내용이다.

특징 국사당은 동제당에 포함되지만 최고의 상위 신격을 봉안하는 마을 제당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마을제당은 중서부 해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영남지역에서도 가끔 그 자취가 산 이름에서 보인다. 호남지역에도 국사봉이라는 산 이름이 남아 있다. 관북과 관서 지역에는 잡석을 모아 쌓아 올린 돌무더기인 누석단 형태의 서낭당을 국수당 · 국시당이라 부른다. 이는 서낭당과 국사당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사당은 원래 전국적으로 신앙되었으며, 연원이 오랜 전통적인 마을에 산신당 · 서낭당과 함께 기본적으로 복합 신앙되던 것이 점차 인멸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사당은 마을공동체 신앙의 제당이면서 또한 예전에는 무속인이 섬기는 신당이었다. 마을공동체 신앙으로서 주민의 공통적인 신앙심을 공유하는 종교적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천신신앙과 만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마을신앙의 고형이라 할 수 있다. 구수봉으로도 칭해지는 국수당은 지상과 천상을 이어 천상의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지상의 인간이 천상의 신을 맞는 우주축으로서의 우주적 산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누석단(累石壇) · 신수(神樹) · 당집신앙연구**(조지훈, 문리논총 문학부편 7, 고려대학교, 1963), **동신당**(김태곤, 대원사, 1992), **조선무속고**(이능화, 서영대 역, 창비, 2008), **한국 민간신앙 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필자 **김명자(金明子)**

국사당제(國師堂祭)

상호참조 국사당(116쪽)

정의 국사당(國師堂)에서 행하는 마을이나 고을 단위의 공동체 제사를 일컬음. 여기에서 '국사'는 불교의 법호(法號)나 승직(僧職)이라기보다 어원 및 어의는 분명하지 않지만 산신을 뜻하는 한국어의 불교식 차자(借字)로 보인다. 산신은 물론 본질상 천신과 동일시되거나 마을이란 소우주(小宇宙)에 좌정한 천신으로 인식되며, 국사는 이러한 자연 촌락의 산신이나 천신보다 더욱 상위의 개념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국사당제의 본질은 산신제 또는 천신제이다.

고을 단위의 국사당제는 충청도 청안의 국사신제에서 전형을 볼 수 있다. 고을의 주신(主神)을 산에서

인간계로 모셔 와서 가무오신(歌舞娛神)으로 위무한 다음 다시 신역(神域)인 산으로 되돌려 드리는 무속식 이동형 제의이다. 마을 단위의 국사신제는 상당인 산신제에 앞서서 더 높은 신격으로 유교식 제의에 따라 모셔진다. 그리고 마을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산신당보다 더 높고 더 먼 거리에 국사당이 설정된다. 관서 및 관북 지방에서는 돌무더기 서낭당을 국사당으로 부르기도 한다.

내용 '국사'는 신라, 고려, 조선 초기에 왕이 학식과 덕행이 높은 고승(高僧)에게 주던 최고의 법호이다. 국통(國統)과 달리 정신적 지도자의 성격이 강했고, 왕사(王師) 위의 최고 승직이기에 큰 영예로 여겼다. 국사를 배출한 불교 사찰에서는 국사전(國師殿)이나 국사당을 짓는다. 고려시대에 16명이나 되는 국사를 배출한 순천 송광사(松廣寺)나 신라 말 도선국사(道詵國師)의 진영(眞影)을 모신 영암 도갑사(道岬寺)가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국사가 아니더라도 창건주나 고승을 기리기 위해 국사당을 건립하여 영정을 모시고 재(齋)를 올리기도 한다. 불교 사찰에 딸린 국사암(國師庵)도 이러한 목적을 지닌다.

국사당의 한자식 표기의 본래 뜻은 바로 이러한 불교의 국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민간신앙상의 국사당 또는 국사당제는 불교의 국사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불교의 국사와 민간신앙의 국사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유사하거나 관계가 있을 뿐 양자의 친연성은 매우 모호하다. 또한 그 양자가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통하여 관련을 맺었는지 자세히 알기 어렵다. 그것이 단순한 한자 표기의 차용(借用)에 불과한 것인지, 불교의 국사와 실제로 관계가 있어서인지, 민간신앙의 격조를 위하여 불교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

민간신앙상의 국사는 고을신앙이나 마을신앙 차원에서 모셔지는 국사당과 국사신,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산의 정상을 일컫는 국사봉(國師峰),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 지역의 돌무더기 서낭당인 국사당, 굿당인 국사당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사당(國師堂)은 국사당(國祠堂), 국사당(國祀堂), 국사당(國士堂), 국사단(局司壇)으로도 표기된다. 국사당(國師堂) 외의 다른 한자 표기는 사실상 구체적 의미는 없어 보인다. '나라 국(國)' 자가 들어가 있어서 국가를 위한 제당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도 않다. 다만 국사단의 '국사(局司)'는 불교에서 호법(護法) 역할을 하는 도량신(道場神)이다. 합천 해인사의 국사단이 이러한 사례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이 개념을 그들의 동제당에 적용하여 역시 「국사단」이라는 현판을 달았다. 특정한 산 아래의 형국을 수호한다는 뜻일 것이다.

인왕산 국사당도 애초에 국사당으로 명명된 것은 아닌 듯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국사당은 처음에는 한양의 목멱산 정상에 있었다. 이미 호국지신(護國之神)으로 봉해진 남산을 1395년(태조 4)에 다시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하고 경(卿), 대부(大夫), 사(士)와 백성들이 제 지내는 것을 금했다. 16세기 초엽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목멱신사(木覓神祠)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초제(醮祭)를 올렸다. 이 제사의 본질은 조선 왕조 차원의 목멱산산신제였다. 국사당이란 명칭은 역사문헌상 19세기 초반에나 확인된다. 그것도 정식 호칭은 아니며, 담당 관리들이 사적(私的)으로 국사당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그리고 당시에도 고려 공민왕, 조선 승려 무학(無學), 고려 승려 나옹(懶翁), 서역 승려 지공(指空)을 비롯하여 맹인(盲人), 어린 여자아이(마마호구신) 등 여러 신령의 상(像)이 모셔져 있었다. 이곳에서 온갖 기도가 이루어졌지만 당시에는 나라에서 금하지 않았다. 저간의 사정은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전한다.

'목멱신사'는 국가의 공식적인 명칭이고, '국사당'은 민간 차원에서 주로 부른 호칭일 가능성이 있다. 국사당이란 명칭이 무학 · 나옹 · 지공의 삼화상(三和尙)과 관계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민간신앙의 국사당 중에는 불교와의 관계성을 전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1세기 이전부터 있은 고려의 송악신사(松嶽神祠)는 송악의 정상에 있었으며, 모두 다섯 채의 건물로 구성되었다. 각기 성황(城隍), 대왕(大王), 국사(國師), 고녀(姑女), 부녀(府女)를 모셨다. 이 가운데 성황, 대왕, 국사는 조선 왕조에서 중사(中祀)로 치제(致祭)했다. 여기서 다른 네 분의 신위(神位)도 그러하지만 국사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만 민간에서 인식하는 일반적인 국사당의 본질은 불교의 국사 · 고승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이러한 의미도 별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고산(高山)의 산신당'이란 뜻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왜 국사당으로 불렸는지 연원과 과정을 밝히는 일은 아직까지 난감하다. '국사'가 지닌 불교적 의미가 산신당의 다른 한 갈래 호칭이자 관념인 '국사'와 착종되면서 국사당의 실체를 알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그 착종은 시대 · 지역 · 계층 차원에서도 무차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사당 이해에 큰 혼란을 야기 했다.

국사신과 그에 대한 제사 양상은 충청도 청안의 고을신앙에서 볼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삼월(三月) 월내(月內)」에 다음의 기록이 있다.

> "충청도 청안(淸安)에서는 음력 삼월 초순에 그 고을(縣) 수리(首吏)가 읍인(邑人)을 거느리고 동면(東面) 장압산(長鴨山)에 있는 큰 나무[大樹]에 가서 국사신(國師神) 부부를 맞이하여 읍으로 모셔온다. 이때에 무당을 불러 술과 음식을 갖추어 놓게 하고 북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현아(懸衙) 및 각 청(廳)에서 제사를 올린다. 20여 일이 지난 후에 국사신 내외를 다시 큰 나무로 모셔다 드린다. 이 제사는 이 년에 한 번 행한다."

이러한 청안의 국사신제사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지방 관행제(官行祭)의 한 사례이다. 영동(嶺東)의 태백산신제(太白山神祭), 명주(溟州)의 대령산신제(大嶺山神祭), 군위(軍威)의 단오제(端午祭), 웅천(熊川)의 웅산신당제(熊山神堂祭) 등이 모두 유사한 구조와 성격을 지녔다. 삼척(三陟)의 오금잠신제(烏金蠶神祭)는 제사의 주제(主題)가 성물(聖物)인 오금잠(烏金簪)일 뿐 역시 기본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지역 관행제의 치제 대상은 거의 대부분 산신이다. 이들 산신은 대체로 각기 거주하는 산 위에 신사(神祠)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인근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수시로 제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두 해에 한 번은 인간계에 내려와 위함을 받고 다시 산으로 돌아간 산신들이다.

이들 제사는 산신을 신역에서 인간계로 모셔서 제의를 행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신역으로 봉송(奉送)해 드리는 공통성을 보인다. 봉영(奉迎)-인간계 이주(移住)-오신(娛神)-봉송의 과정으로 구성된 제사이다.

지방관은 제관이 되어 제사 일부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거의 무당이 맡는다. 지방관은 유교식 제사, 무당은 가무오신의 무속적 절차와 방식으로 각각 굿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무당은 여러 굿과 놀이를 펼쳐서 산신을 비롯한 여러 신령을 즐겁게 놀리고 또한 고을의 소망을 신령에게 전하며 신령의 뜻을 공수를 통해 고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무당은 고을과 신령 사이에서 훌륭한 중개 역할을 한다.

청안의 국사신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졌다.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청안 국사신이 불교의 국사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관련 역사문헌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거나 다른 관행제의 사례와 비교하면 청안 국사신은 일반적 의미의 산신으로 파악된다. 국사가 사후에 산신으로 좌정할 수도 있지만 역시 이렇게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국사신이라고 명명될 경우 자연 촌락과 종교적으로 관련을 맺는 '근거리의 조그만 산'이 아니라 대개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큰 산'이라는 특징은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국사봉으로는 산이 선정되고, 국사신은 이러한 산에 좌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국사신이나 산신이나 본질적으로 모두 산신이며, 천신의 속성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국사신을 상정한 지역이나 마을에서는 국사신이 산신보다 더욱 우위의 신격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국사신에는 천신 성격이 더욱 농후하다. 산제를 모시는 마을에서 산신당 위에 다시 천제당을 마련하고 천제(天祭)를 별도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마을에서는 국사당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는 국사당이 천제당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의 산제에서 산신제에 앞서 국사제를 지내는 사례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런 측면에서 고 김태곤 교수가 「국사당신앙연구」에서 밝힌 견해는 매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사하는 바도 크다. 그는 한반도 중서부 해안 도서지역의 국사당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① 국사당은 마을 뒤쪽 고봉(高峯)에 위치하며, 일반적인 마을의 산신당이나 서낭당 등 신당보다 외부 원거리에 위치한다. 마을 뒤쪽에 상당과 하당이 있는 경

우 상당은 국사당이고, 하당은 산신당이나 서낭당 또는 다른 신당이 된다. 곧 국사당은 하당의 다른 신당들에 비하여 상위의 고산정(高山頂)과 원거리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② 국사당에는 주신(主神)은 아니지만 쇠말[철마(鐵馬)]을 봉안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쇠말 전설이 전승된다.

③ 국사당의 명칭과 관련하여 어느 지역이든 현지 주민들은 '국수당', '국시당', '국수봉', '국시봉'이라고 발음하지 '국사당', '국사봉'이라고 하는 경우가 없다. 또 충남 서산의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구수당', '구수봉'이라고 한다. '구수'-'국수'의 어원은 아마도 신산(神山) 마루이며, 이는 천신의 하강주처(下降住處)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국사당은 천왕당(天王堂) 또는 천제당이다.

④ 관북과 관서 지방에서는 누석단(累石壇) 형태의 서낭당을 '국수당', '국시당'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사당 신앙이 서낭당 신앙에 흡수되거나 혼효(混淆)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대관령 국사성황당(國師城隍堂)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충남 계룡산(鷄龍山)의 남사(南寺)인 신원사(新元寺)에 조선 말 명성황후(明成皇后)가 도국사당(都國師堂)을 모신 것도 국사당과 산신당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자료이다. 명성황후는 8도(道) 국사당의 총본산인 도국사당을 이곳 신원사에 두고 국태민안과 왕실의 안녕을 위하여 굿을 크게 열었다. 도국사당이 신원사 경내의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곳에 설치한 중악단(中嶽壇)이 도국사당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중악단은 계룡산 천왕봉을 향하여 건립되었다. 이는 원래 그 이전 시기의 계룡산신 제단에서 유래한다.

조선 말에 고종은 1897년 광무개혁(光武改革)과 함께 대한제국을 건립하면서 이곳의 계룡신사(鷄龍神祠)를 폐하는 한편 천자오악봉선(天子五嶽封禪)의 뜻으로 이를 중악단이라고 고치고, 제국(帝國)의 신기원(新紀元)을 연다는 의미로 신원사(新院寺)도 신원사(新元寺)로 개명하였다. 이때 묘향산에 상악단(上嶽壇), 지리산에 하악단(下嶽壇)을 각각 두었는데, 중악단의 계룡산과 더불어 이들을 삼악(三嶽)이라 불렀다. 평소에도 계룡산에서 기도한 명성황후는 이곳이 전통적인 산신신앙의 한 중심지이기 때문에 신원사에 도국사당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사당과 산신당은 역사적 ·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조선 후기에 치러진 관행제 차원의 국사신제는 전승되지 않는다. 청안 국사신제의 경우도 인근 마을의 산신제로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참고문헌 **계룡산 중악단의 역사**(이필영, 계룡산 산신제 복원 조사 보고서, 공주시 공주민속극박물관, 1997), **국사당 신앙 연구**(김태곤, 백산학보 8, 백산학회, 1970),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인왕산 국사당**(조흥윤,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1, 문화재청, 2005), **청안 국사제의 성격 고**(김영진, 두산김택규박사화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간행위원회, 1989),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 신당 연구**(김태곤, 국어국문학 29, 국어국문학회, 1965).

필자 **이필영(李弼泳)**

권전(權專)

정의 조선의 제6대 임금인 단종(端宗)의 외조부(外祖父)로 강원도 홍천군 지역에서 마을의 신령으로 모셔짐.

내용 본관은 안동이며, 한성부윤 백종(伯宗)의 아들이다. 경상도경력(慶尙道經歷), 지가산군사(知嘉山郡事) 등을 역임하였다. 1431년에 딸이 세자궁승휘(世子宮承徽)로 간택되면서 이듬해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에 제수되었다. 1441년에 사망한 후 원손(元孫, 단종)의 외조부라는 이유로 1445년 좌의정, 1454년에는 다시 영의정부사 화산부원군(領議政府事花山府院君)에 추증되었다. 그러나 1456년에 아들 자신(自愼)이 단종 복위사건에 연루되면서 관작을 추탈당하였다. 1699년에 가서야 관작이 복구 · 신원되었으며, 1718년 화산부원군에 추증되었다.

단종 폐위와 관련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던 권전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일대에서 마을의 신령으로 좌정하고 있다. '권전대감' 또는 '권대감'으로 불린다. 홍천군 내면은 영동과 영서를 잇는 가교(架橋) 역할을 하며, 그 앞으로 흐르는 홍천강은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수륙요충지이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모셔지는 존재는 단종의 외조부인 권전이라고도 하고, 그의 아들인 권자신이라고도 한다. 그저 '권대감'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단종의 유배와 관련한 인물임은 분명하다.

권전은 단종 폐위 이전인 1441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권전일 가능성은 없다. 권자신 역시 복위운동으로 주살되었기에 권자신 역시 은둔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단종이 있는 영월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홍천군에 계유정난 이후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권전 일가가 은거했을 가능성은 있다. 단종의 외숙인 권자신이 피신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한 권전의 아들인 권자신과 권전의 부인인 아지(阿只)가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가 주살당하였음을 상기할 때 권전 일가는 근거지인 안동을 떠나 이곳으로 피신했을 수도 있다. 권전이든 권자신이든 이곳에 직접 은거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를 추모하던 세력의 이거로 인해 숭배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권전의 신격화는 실제 정치적인 사건과는 다른 상황에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추모 이유는 그가 칡을 소멸시켰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수렵꾼이나 채약꾼들이 말무덤을 조성하고 신령으로 섬겼다는 것은 생업상의 필요성에 따라 권전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의 무덤을 찾으면 인삼, 즉 진귀한 보물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지역사회에서 그의 신성성이 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그의 묘소가 홍천군이 아니라 경북 안동시에 있고, 그가 칡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해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권전은 지역에 필요한 것을 전한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사례 권전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과 강릉시 연곡면에서 마을의 신령으로 숭배된다. 홍천군은 권전이 낙향하여 은둔한 곳, 연곡은 그가 태어난 곳이라 한다. 연곡에서 태어난 그가 홍천군 내면으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실제 홍천군으로 낙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와 관련되어 낙향한 문중 사람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 권대감비가 있고, 자운리 덕두원리에는 권대감이 탄 말을 묻었다는 말무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권대감을 이 지역에서 생활한 실존 인물로 인식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근 영월군 등지에서 이루어진 단종에 대한 애도와 관련하여 단종과 연계되어 관작이 추탈된 권전 대감에 대한 애도도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인물로, 최후를 맞이한 지역에서 그 죽음이 계기가 되어 신격화된 것이다. 원혼(冤魂)에 대한 애도와 그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탈출구로 지역사회에서 숭배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민속연구**(장정룡, 국학자료원, 2002), **강원도사**(강원도사편찬위원회, 1995), **단종설화의 전승양상연구**(최명환,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영동지방 인물신화의 내용적 고찰**(장정룡, 중앙민속학 3,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1), **한국 마을신앙의 인물신연구**(김효경,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국립민속박물관, 1997).

필자 **김효경(金孝慶)**

그물코사

표제어 제주해신제(828쪽)

금기(禁忌)

정의 종교적 기능과 정치적 효과를 함께 지닌 채 인간의 행동 일부를 지배하는 심리적 요소.

내용 금기의 종교적 기능은 민간신앙과 관련되고, 정치적 효과는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수단과 관련된다. 금기와 종속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동굴에서 100일 동안 나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제(禁制)를 정하고 이를 실천한 경우 꿈은 실현된다. 금기를 정하고 금기에 종속되면 복을 받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부자유에는 저항한다. 자유는 행복이며 부자유는 불행으로 인식하기 때문이

다. 그런데 종속은 자유롭지 못하며, 인간의 불행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종속은 꿈의 실현이라는 상황과 연결된다. 이는 단군신화의 곰에서 확인된다. 곰은 금기에 종속되었다. 그래서 꿈을 실현하였다. 이처럼 금기는 종속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면 복으로 보답한다. 이러한 금기는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인간은 스스로를 완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협력하는 것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이다. 종교는 체계, 경전, 교단을 갖춘 채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간의 목적과 관계를 맺는다. 금기는 이러한 종교의 하위개념으로 인간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목적과 관계를 맺는다. 금기에는 두려움을 치유하려는 인간의 경험이 반영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삶의 지혜, 과학적 고민, 인간의 상상력이 개입된다. 그럴듯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과학적인 듯하지만 과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 금기이다. 그래서 금기는 자기만족적 소극성과 목적성취적 적극성이 동시에 내재된다.

종교적 기능으로서의 금기는 신성한 것을 위하여 부정(不淨)한 것을 기휘(忌諱)하는 행동과 관련된다. 임신, 출산, 상례, 이사, 결혼, 해원, 기원 등 우리 삶의 전반에 장애 없이 순항하는 삶을 기원하는 행동들이 반영되어 금기를 형성하였다.

가려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 등이 금기적 행동들이다. 예를 들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에게는 지켜야 할 금기가 여럿이다. 대문에 금줄을 늘어뜨려 놓거나 붉은 흙을 대문 앞에 뿌린다. 대문 위에 가시나무(엄나무)를 달아 놓기도 한다. 아이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위해 아명을 지어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불행을 차단하려는 기휘적 행동으로 금기가 된다.

탈춤에서 말뚝이는 복숭아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무릎에 방울을 단다. 탈춤의 등장인물 생김새는 기괴하면서 요철형(凹凸形)이고, 탈의 색깔은 붉은색이다. 마을 제사나 마을굿을 지낼 때는 제관의 생기복덕을 따져 날을 받는다. 여자는 제관이 되지 않았으며 굿당 주변에 오지도 못하게 하였다. 제사나 굿을 할 때 사자(使者)밥을 밖에 내놓는다. 거리굿이나 시석굿에서는 굿당 안에 정좌하지 못한 잡귀들을 풀어먹인다. 작은 장애라도 예방하려는 벽사와 제액초복의 여러 행동이 금기를 형성한다.

이사할 땐 손없는 날을 택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도 신랑신부의 사주팔자를 고려한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가리는 일,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등이 구분된다. 상가에 출입하는 일은 가려서 하고, 상가에 다녀온 다음에는 소금을 뿌리는 등의 일을 해야 하고, 상중에는 사자(死者)의 소지품을 소각해야 한다.

'사(四)' 자가 '사(死)' 자와 발음이 같아 사(四)를 '죽음'과 연계지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 숙박업소, 선실, 빌딩 등에서는 '4'나 '四'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입학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시험 전에 엿을 먹는다. 최근에는 시험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답안을 잘 찍으라고 도끼를 선물하기도 한다. 유명대학인 S대학에 합격하고 싶은 바람으로 자동차에 붙어 있는 영문자 S자를 떼어내어 선물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일에는 '미역국 먹지 않기'가 있다. 미역의 특성이 시험에도 반영된다는 금기인 셈이다. 시험을 치르기 전이나 시합 전에 이발이나 목욕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금기는 존재한다. 덕수궁 돌담길을 연인과 함께 걸으면 이별한다. 손수건이나 신발을 선물하면 이별한다. 첫사랑은 헤어진다 등의 금기가 있다. 인간의 간절한 마음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금기라는 종교적 기능을 통해 구체화되고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정진결재(精進潔齋), 근신(勤愼), 목욕재계(沐浴齋戒)하는 마음이나 태도와 상통한다. 이런 행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 최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 · 최고의 모습이다. 최상 · 최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일 때 인간은 인내하고 노력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복과 풍요가 내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선적인 행동과 정성을 다한 행동이 넘쳐나도록 목적한다. 문란과 악의적 행동이 넘쳐나서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금기인 셈이다.

정치적 효과를 의도한 금기도 있다. 금기를 제시하고 이에 종속되면 복을 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인간에게는 종속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본능이 있다. 피학적(被虐的) 상황에 만족감을 느끼는 본능이 있는 것이다. 성적 행동과 관련되어 사디즘(Sadism)이 종속이나 고통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성적 이상 행동뿐만 아니라 제도나 문화, 일상생활에서 종속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본능이 있다. 종속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본능이 정치적 효과를 의도한 금기를 가능하게 한다.

정치적 효과를 의도한 금기는 법과 제도, 억압 등을 통해 나타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할 일 등이 법이나 제도를 통해 금기된다. 봉건제적 시대의 제도, 현대의 법률 등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인간 삶에 내재한 윤리 및 도덕의 가르침과 지배적 가치관이 그 예이다. 법과 제도의 억압은 인간의 행동을 종속하는 금기이다.

정치적 효과를 의도한 금기는 인간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근간이다.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는 중추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이다. 삶의 필수적 요소인 금기가 때론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기도 한다. 금기가 지배자의 권위를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억압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신앙적 금기에 익숙한 인간 삶, 종속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 정치적 장치가 금기인 것이다. 종교적 기능의 금기도 정치적 효과를 의도한 금기와 결합될 때 그 의미가 살아난다. 금기가 인간의 삶 전반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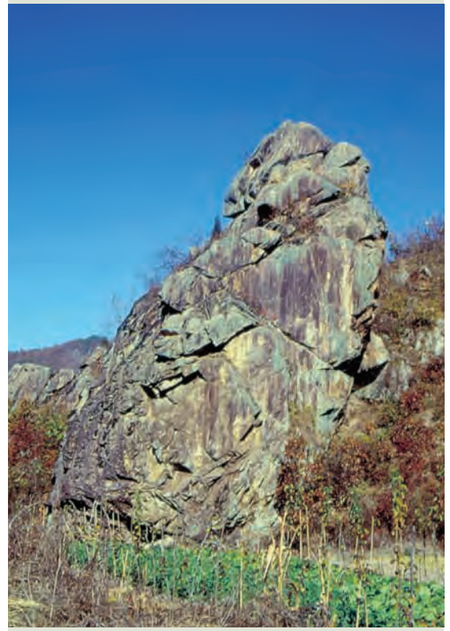
참고문헌 **무속신앙**(민속학회 편, 교문사, 1989), **민속놀이론**(임동권 · 정병호 · 김선풍 공저, 민속원, 1997),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 장주근 · 이광규 공저, 일조각, 1974), **한국민속학사**(인권환, 열화당, 1978), **한국전통연희론**(심상교, 집문당, 2007).

필자 **심상교(沈相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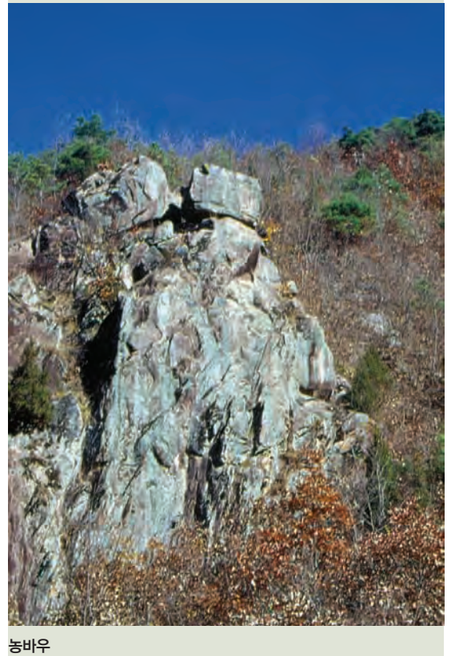
금산농바우끄시기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에 있는 농바우를 대상으로 비를 기원하는 여성 기우제의 하나. '끄시기'는 '끌다'의 금산 지역 사투리로, 농바우끄시기는 농처럼 생긴 바위에 동아줄을 걸고 끌어내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0년 9월 20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다.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1994.6, 강성복



갓바우



농바우

역사 및 유래 농바우끄시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역사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변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부터 날이 가물면 부녀자들이 농바우에 동아줄을 걸어 놓고 비를 기원했다고 한다. 농바우에는 장수 또는 임금님의 갑옷이 들어 있다고 전해지며, 이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날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전한다.

1. 옛날에 두 명의 부인을 거느린 장수가 살고 있었다. 장수의 부인들은 서로 먼저 장수를 차지하려고 늘 투기를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발발하여 장수는 부인들을 남겨 둔 채 싸움터로 나가 커다란 공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벗어 놓은 장수의 갑옷을 두고 또다시 두 부인이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른 장수는 갑옷을 빼앗아 바위로 된 단단한 농 안에 넣고 다시는 꺼내 볼 수 없도록 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때 장수의 갑옷이 보관된 농이 지금의 농바우라고 한다.

2. 옛날에 힘센 장수가 살고 있었다. 장수는 자기의 갑옷을 농바우에 넣어 두었다. 세상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갑옷을 구경하려고 자꾸만 농바우를 열어 보았다. 이에 화가 난 장수가 농바우를 뒤집어 놓고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3. 언제부터인가 농바우에는 임금의 갑옷이 들어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임금에게는 애첩이 한 명 있었다. 애첩은 갑옷이 몹시 보고 싶어 자꾸만 농바위를 열어 보려고 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임금은 장수를 거느리고 직접 이곳에 행차하여 갑옷을 꺼내 입고는 장수로 하여금 농바위를 뒤집어 놓도록 했다.

4. 옛날에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았다.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부부는 뒤늦게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나고 겨드랑이에 날개와 같은 비늘이 달려 있었다. 아이는 세 살이 되자 무거운 물건을 몰래 옮겨 놓고 병정놀이를 하는 등 신이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눈치 챈 노부부는 장차 집안에 화근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식을 질식시켜 죽였다. 그러자 멀쩡하던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치더니 백마 한 마리가 슬피 울면서 농바우 곁에 와서 따라죽었다. 백마는 아이가 장성해 군사를 지휘할 때 탈 말이었고, 농바우에는 장수가 되면 입을 갑옷이 들어 있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욕심 많은 석수장이의 귀에 흘러 들어갔다. 석수장이는 갑옷을 꺼내 입을 요량으로 농바우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혹독한 가뭄만 불러들였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길을 지나던 스님이 비책을 일러주었다. 그것은 여자들이 농바우를 흔들면 진노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것이었다. 스님의 말대로 부녀자들이 몰려가서 농바우를 끄시니 과연 응함이 있어 멍석날 같은 비가 쏟아졌다. 그 뒤부터 가뭄이 들면 농바우를 끌어내리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

이와 같이 농바우 설화는 장수와 갑옷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농바우에 대한 신비감을 더욱 증폭시켜 주면서 농바우끄시기가 널리 확산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무엇보다 산중턱에 걸려 있는 농바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날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속설은 농바우끄시기의 핵심 기재로 작용하였다. 이 때문에 부녀자들은 날이 가물면 농바우를 끌어내리는 시늉을 하는 것으로, 이를 보고 깜짝 놀란 하늘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 비를 내려준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즉 농바우가 산중턱에 남아 있는 한 천지개벽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셈이고, 이것은 가뭄을 해갈시켜 줄 운우(雲雨)의 상징인 동시에 민초들에게 마지막 남은 보루였던 것이다.

전승 현장에서 이루어지던 농바우끄시기는 사실상 1990년대 초에 중단되었다. 이제 더 이상 기우제를 지낼 필요가 없어진 까닭이다. 그러나 1993년에 보존회가 결성되어 금강민속축제, 금산인삼축제 등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전승 활동을 펼쳐 왔다. 이후 1999년 9월 17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0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충청남도 대표로 출연하여 부문별 최우수상인 장관상을 받았다.

내용 어재리 금강변에는 반닫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농바우가 벼랑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 한 발이 닥치면 인근의 여러 마을이 이 바위에 동아줄을 매고 농바우를 끌어당기는 시늉을 하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 농바우끄시기에는 어재리를 비롯한 부리면 일대의 수십 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인접한 제원면 용화리 · 가마골 · 금성리 · 저곡리 등에서도 동참했다. 가뭄이 극심한 해에는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금산읍 등 외부에서도 부녀자들이 찾아와 무제(기우제)를 지내며 농바우를 끄셨다고 한다.

그러나 가뭄의 징조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농바우끄시기가 모의되는 것은 아니다. 농바우끄시기는 인명이 달려 있는 극심한 한발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실행되지 않았다. 실제 촌로들에 따르면 일생 동안 농바우를 끄신 것은 고작 4~5회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었다. 천지개벽을 꾀해 비를 기원하는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농바우끄시기는 물병매기-용줄(동아줄)꼬기-용줄매기-무제-농바우끄시기-개막기-날궂이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농바우끄시기와 연계된 기우 행사로 '암장발굴(暗葬發掘)'과 '대늪치기'가 있다.

1. 물병매기 하지(夏至)가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례가 행해진다. 집집마다 대문 앞에 황토를 깔고, 빈병에 물을 가득 담아 주둥이에 솔가지를 꽂고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병에 들어 있는 물이 솔잎을 타고 흘러나와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똑똑 떨어진다. 비가 오는 장면을 가상으로 연출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도 운우를 기원하는 유감주술이다.

대문 앞에 매단 물병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1994.6, 강성복

2. 용줄꼬기 이렇게 정성을 다한 뒤에도 별다른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마을에서는 농바우를 끄셔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는다. 특히 부녀자들 사이에서 "저놈의 농바우를 깨부셔야지!", "농바우를 끄셔야 비가 내릴 몬양여!" 하고 이구동성으로 농바우를 끄셔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된다. 의견이 모아지면 이틀 사흘 뒤로 다급하게 날짜를 잡는다. 비가 예고 없이 내리는 것과 같이 택일을 느닷없이 결정해야 더욱 효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농바우를 끄실 날이 정해지면 집집마다 짚단을 걷어서 농바우에 걸 동아줄을 튼다. 이때 줄의 굵기는 20㎝ 안팎, 길이는 100발 이상이 되도록 길게 꼰다.

3. 용줄매기 당일 아침에 마을의 청장년들은 전날 밤늦도록 꼰 동아줄을 가지고 일찌감치 농바우가 있는 시루봉으로 가서 줄을 매어 둔다. 농바우에 줄을 매는 동안 부인네들은 목욕재계하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은 다음 제물, 음식, 술과 날궂이할 때 사용할 챙이 및 바가지를 가지고 농바우로 향한다. 이때 달거리를 하거나 집안에 부정이 있는 여인은 농바우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

4. 무제 농바우에 도착하면 그 아래에 제물을 차려 놓고 기우제를 지낸다. 마을에서는 이를 "무지(무제) 잡숫는다"고 한다. 제물은 백설기, 삼색실과, 포, 불백기 등이다. 마을 형편에 따라 돼지머리를 올려 놓기도 한다. 무제는 축문 없이 간단하게 잔만 올리고 참여자 모두 재배한다. 이어서 입심 좋은 할머니가 고사덕담으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하늘님네 오늘 그저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하늘님네 산신님네 이렇게 기도를 드리오니
오늘해전 많은 비를 맞고 가게 점지하옵소서
하늘님네 만인간이 모두 하늘님네한테 공을 드리오니
오늘해전 멍석날 같은 비가 쏟아지게 점지하옵소서

농바우끄시기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1994.6, 강성복

5. 농바우끄시기 무제를 마치면 "농바우끄시세"라는 신호와 함께 동아줄을 당긴다. 이때 신명이 좋은 아주머니(또는 남성 소리꾼)가 농바우 꼭대기에 올라앉아 온갖 재담을 섞어가며 구성지게 선소리를 매기면 아래에서 줄을 잡고 있던 부녀자들은 뒷소리를 받으며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흥겹게 농바우를 끄신다. 선소리꾼의 사설에는 농바우에 대한 신성 관념과 민간 사고, 농바우끄시기의 전개 과정이 함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여차 어구여차 우여차)
우리가 무지 지낼 때 비를 내리라고 무제 지내잉께
칠년대한 가물음에도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지지
(어구여차)
힘껏 댕겨서 질겁게 하고 힘껏 댕겨서 질겁게 놀고
기분 좋게 고사를 해야지 비를 하느님이 내레주지
이 바우는 특수한 바우요 하나님이 마련한 바우고
옛날옛적 장수바우니 갑오(옷)들은 가보니
이 바우를 건들기만 하면 비를 내리게 하는 바우니
동애줄을 묶어 가주구 시방 사람이 끌으면
뇌성겉은 우루루루 하늘에 울며불며
구름에 모여들며 소내기가 오면은
가뭄을 해소하는 옛날에 전설에
전통 있는 명문 옷 그런 갑옷 바우로다
(어구여차)
소내기 오게만 계속해서 끌어주소
(어구여차 우여차)
계속해서 끌어주소
(어구여차 우여차 에헤헤)
이 마당에 고사를 하고 징 장구를 울려가면
갱변이서 그 개[洑]를 막고 한 마대기 풍장치고
지깔지게 놀다가면 무지꾼이 소내기 맞고
출출하고 도망가데 어구여차 재미좋다
해소했네 가뭄을 해소했네 ….

6. 개막기 농바우끄시기를 마치면 마을에서 신기(神氣) 있는 할머니(또는 단골네)가 점을 쳐서 언제쯤 비가 내릴 것인지를 예언하기도 한다. 점을 치는 곳은 갓바위 밑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며, 한 사람을 선정해 신장대를 잡게 한 다음 무당이 공수를 내리듯이 비 올 시기와 강우량을 예언하는 것이다. 점괘가 잘 나오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시 점을 쳐서 언제 비가 내릴 것인지를 알아본다. 이때 할머니의 입에서 "날궂이를 하고 나면 비가 내릴 것이다"라든가 "집으로 돌아갈 때 비를 맞고 갈 것이다"라는 점괘가 나오면 아낙네들은 흡족히 여기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날궂이를 하러 개여울로 간다. 강변에 내려오면 돌을 날라다가 둑을 쌓고 여울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는다. 이것을 '개[洑] 막는다'고 한다. 곧 가뭄이 심해 강물조차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니 여울을 막아야만 물 속에서 날궂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날궂이 개를 막은 뒤에는 "우리 동네 큰애기들이

날궂이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1994.6, 강성복

키질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1994.6, 강성복

날이 가물어서 빨래를 못해 시집을 못 가니 오늘내로 비 좀 내려 주시오" 하고 간곡히 호소한다. 날궂이를 할 때는 모든 아낙네가 벌거벗거나 고쟁이만 걸치고 물 속에 들어가서 개여울이 떠나가도록 물장난을 치고 춤을 추며 논다. 또는 더러운 고쟁이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강물에 속옷을 빨면서 온갖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물 속에 오줌을 누기도 한다. 강물을 더럽혀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인들의 날궂이는 단순히 물장난을 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비를 염원하는 유감주술의 의미가 내재된 것이다. 아낙네들은 바가지를 가지고 서로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비 맞아라, 비요! 비요! 이 비 맞고 목깡이나 하거라"라고 실제 소낙비를 맞는 흉내를 낸다. 또한 챙이[키]에 물을 담아 마을을 향해 까부르며 비가 내리는 시늉을 한다. 이렇게 농바우를 끄시고 날궂이를 하면 신통하게도 비가 오는 일이 적지 않았다. 어느 해에는 농바우를 끄시는데 진악산 줄기에서 먹구름이 일더니 이내 소나기가 쏟아졌고, 날궂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와서 장대비를 맞고 간 일도 있다고 한다. 또한 농바우를 끄시다가 비가 내리면 갓바우 밑에서 종종 비를 피했다는 이야기도 구전된다.

한편 농바우가 있는 시루봉 정상에는 병풍처럼 생긴 바위가 우뚝 솟아 있다. 구전에 따르면 그 밑에는 천하의 명당자리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누군가 이곳에 묘를 쓰면 그 집안은 대대로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정작 어재리 주변 마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를 망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예전에 여자들이 농바우를 끄시고 날궂이를 하는 동안 남자들은 시루봉으로 올라가서 몰래 묘를 쓴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암장의 흔적이 있으면 여지없이 파헤쳤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농바우를 끄신 뒤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늪치기'를 했다. 대늪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앞을 흐르는 금강 상류의 깊은 웅덩이를 말한다. 이곳에 있는 용머리바위와 웅덩이에 돌을 던지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

의의 천지개벽을 도모함으로써 비를 기원하는 농바우끄시기는 금강 상류의 여러 마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진 여성기우제이다. 농바우를 매개로 성립된 독특한 형식의 이 기우제는 조선시대 후기 아기장수 전설과 같은 혁세사상과 결합되면서 금강변 최대의 기우제로 전승될 수 있었다. 농바우끄시기가 여성 중심의 기우제임에도 이처럼 광범위한 전승력을 지닌 것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우풍속 중에서도 분명 전례가 드문 희귀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농바우

에 깃든 유래전설의 상징성, 벌거벗은 아낙네들에 의한 날궂이 기우와 동아줄을 바위에 매고 끌어내리는 주술적 행위, 곧 천지개벽의 관념을 역이용하여 비를 기원하는 역동적인 놀이와 의식은 기존의 기우제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연행이다. 이에 따라 농바우끄시기에 내재된 주술적 의미와 민간사고는 우리나라의 기우풍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금산의 민간기우와 민중들의 사고**(김미순, 금산의 마을공동체신앙, 금산문화원, 1990), **농바우끄시기**(충청남도,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자료집, 1999), **천지개벽을 도모하는 파격의 여성기우 농바우끄시기**(강성복, 충청민속문화론, 민속원, 2005), **충청남도문화재대관 2**(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9), **한국민요대전-충남민요해설집**(문화방송, 1994).

필자 **강성복(姜成福)**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의 진악산 물굴봉에서 날이 가물 때 기우제(무제)를 지내던 제당.

형태 진악산 물굴봉기우제당은 금산읍 내에서 서쪽으로 3㎞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인삼의 발상지로 알려진 진악산은 해발 737m로 금산에서 최고봉을 이루며, 상봉이 속칭 물굴봉[水窟峰]이다. 제당 형태는 당집이나 신위를 모시지 않은 자연 제당으로, 이곳에는 커다란 바위굴[石穴] 속에 못이 있어 명주꾸리 한 타래가 다 들어갈 정도라고 구전된다. 물굴은 상탕과 하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탕은 기우제를 행하는 곳이고, 하탕은 제관들의 목욕 및 제수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또한 물굴 위에는 '호롱혈' 또는 '등잔혈'로 불리는 천하 명당이 있어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암장한 시신을 파내며 비를 기원하는 풍속이 전승되었다.

역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3 금산군 산천조에 "진악산 동쪽 봉우리에 석혈(石穴)이 있는데 너덧 걸음 들어가면 물소리가 요란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전하는 말로는 용이 사는 곳이라 한다. 하늘이 가물 때 호랑이 머리를 넣으면 응함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지명총람』(충남편)에는 물굴에 대하여 "진악산에 석굴이 있는데 10m 들어가면 넓게 파진 곳에 물이 괴어 있고, 그 밑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이곳이 영험하다 하여 한재(旱災)가 있으면 기우제를 지낸다. 굴 위의 지형이 호롱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시체는 용이 되어 승천하고 그 집안이 잘된다고 하여 가끔 몰래 묘를 쓰는 사람이 있다. 이곳에 묘를 쓰면 비가 오지 않는다 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때에는 이 부근의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모여 그 묘를 기어이 찾아서 파내고 만다"라고 소개되었다.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진악산 물굴봉은 이미 조선 전기 이래 500여 년의 역사를 계승한 기우 제당임을 알 수 있고, 이 기우제 전통은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물굴봉기우제에서 주목되는 점은 호랑이의 머리를 석굴 속으로 침수시키는 이른바 '침호두(沈虎頭)' 의례가 내려왔다는 점이다. 본래 침호두는 흠향을 위해 준비되는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용호상박의 긴박한 적대관계를 촉발시키기 위한 자극물이었다. 이러한 침호두 기우법은 조선시대 국행 기우제의 하나로 정착된 것이다. 1474년(성종 5) 6월 예조에서 기우제 방법에 대하여 아홉 개의 항목을 정하고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 셋째 항목에는 "한강의 양진에는 침호두를 행하고 또 도류(道流)로 하여금 용왕경을 읽게 하며, 박연(朴淵)에도 침호두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현의 『용재총화』에도 이와 동일한 기록이 보인다. 이와 비슷한 조선 전기에 침호두는 지방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며, 진악산물굴봉기우제가 바로 이러한 사례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우제에 쓸 호랑이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쓴 썩고 묵은 호두를 사용하다 비난을 받는 사례도 보인다. 또 1660년(현종 1)에는 제일이 임박했음에도 호랑이를 잡지 못하여 돼지머리를 대용하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호두를 구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20세기에 전승된 물굴봉기우제에는 줄곧 돼지머리를 넣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돼지머리로 바뀐 것은 호랑이의 머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아울러 호랑이 대신 돼지머리를 넣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도 애초와는 달리 물을 주관하는 용의 흠향(歆饗)을 위한 공양물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내용 물굴봉기우제는 조선시대 군·현 단위에서 수령이 주관한 읍치 기우제의 전통이 일제강점기 이후 민간 기우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극심한 한발이 지속되면 금산읍에 속한 대부분의 마을과 진악산을 끼고 있는 성곡리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대한 기우제를 지냈다. 그리하여 읍내에서 기우제를 지낸다는 소문이 돌면 마을마다 삽과 괭이를 들고 풍장을 울리면서 진악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를 위해 하루 전날 집집마다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병에 물을 가득 담아 청솔가지를 끼워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제관은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을 선정하였으며, 비용은 집집마다 쌀과 돈을 갹출하여 충당하였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 삼색실과, 술 등이다. 제단에 제물이 진설되면 크게 징을 쳐서 알린다. 이를 신호로 제관이 "진악산 산신령님 강림하소서" 하고 아뢰면 참제자 일동은 재배한다. 이어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술을 올리고 축문 낭독 및 소지를 올린다. 간단한 음복이 끝나면 제관은 희생으로 바친 돼지머리에 돌을 매달아 물굴 안으로 던진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돼지머리가 없어진다고 한다. 굴 안에 사는 용이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무제를 마치면 물굴 위에 있는 호롱혈을 파서 암장한 시신을 찾아낸다. 예부터 이곳에는 자손의 발복을 위해 몰래 묘를 쓰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누군가 호롱혈에 시신을 매장하면 그 집안은 번창하지만 인근 마을에는 극심한 한발이 닥친다는 속설이 전한다. 어느 해인가는 호롱혈을 파 보니 여러 개의 송장이 겹겹이 나왔다고 한다. 그것은 시신이 발각되지 않도록 평장(平葬)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속설을 믿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투장(偸葬)하려는 사람과 이를 파내는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 호롱혈 주변에는 풀이 잘 자라지 않고 흙도 붉다고 한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慵齋叢話**, **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최종성, 종교학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7), **성곡리**(안용산, 금산문화원, 1992), **장동이 민속지**(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충청민속문화론**(강성복, 민속원, 2005), **한국지명총람 4-충남**(한글학회, 1974).

필자 **이해준(李海濬)**

금산천내리용호석 (錦山川內里龍虎石)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에서 동제의 대상으로 치성을 받던 용석(龍石)과 호석(虎石). 1973년 12월 24일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천내리 서쪽으로 금강변 제원대교 인근에 고려시대 말기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호석이 있다. 용석은 제원대교 북쪽 50m 지점에 있고, 그곳에서 230m 떨어진 들판에 호석이 있다. 용석은 70×80㎝가량 되는 부정형의 대석 위에 조각되었다. 구름 문양이 소용돌이치는 돌기 사이에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었다.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으며, 사슴뿔 모양의 수염이 세밀하게 조각되었다. 호석은 110×80㎝의 네모난 받침돌 위에 앞발을 세우고 앉아서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두툼하게 융기된 곡선과 원형을 교대로 조각하여 털무늬를 표현하였다. 호랑이의 몸은 서쪽, 머리는 북쪽을 각각 향하고 있다. 왼쪽 발에 꼬리가 감긴 채 잔뜩 힘이 들어간 것은 수호신으로서 긴장을 늦추지 않은 모습이다. 천내리를 기준으로 마을 앞 왼쪽에 용석, 오른쪽에 호석이 위치하여 좌청룡·우백호의 좌향(坐向)을 따르고 있다. 크기는 용석이 높이 138㎝와 폭 81㎝이며 호석은 높이 140㎝이다.

역사 천내리용호석은 애당초 동제의 신앙 대상물이 아니라 공민왕의 능묘석으로 건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전에 따르면 고려 말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안동으로 피란온 공민왕이 지관에게 자신의 능묘를 정하도록 하였다. 지관이 금산 동쪽 20리 지점으로 태백산의 지맥이 떨어진 곳에 명당이 있다고 하자 공민왕은 필요한 석물을 갖추도록 했다. 그것이 지금의 용호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민왕이 개경으로 환도한 뒤 피살되면서 방치되었다고 한다.

역사에 전하는 공민왕은 원나라의 오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권 회복을 꾀한 군주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과 잇따른 내부 반란으로 개경이 함락되는 등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금산천내리용호석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2010.6.5, 강성복

용석 전경

여의주를 문 용석

용석 측면

호석 전경

포효하는 모습의 호석

다리에 꼬리를 휘감은 호석

된다. 이에 공민왕은 개경을 버리고 경기도 이천을 거쳐 충북 음성, 충주, 죽령을 넘어 복주(지금의 안동)로 떠났다. 이듬해 공민왕의 환도 행렬은 "상주를 떠나 보은 원암을 지나서 옥주[옥천]에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회인을 거쳐서 청주로 갔다"고 『고려사』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공민왕이 옥천에 이르렀을 때 머무른 장소는 영국사(寧國寺)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용호석이 공민왕의 지시로 만들어진 석물이 사실이라면 이 기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서기 668년에 창건된 영국사는 공민왕이 국태민안을 기원한 사찰이라 하여 그 이름을 개칭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사찰 주변에는 공민왕과 관련된 수많은 전설과 지명이 전해지고 있다. 공민왕이 개경을 바라보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망탑봉과 속칭 공민왕망탑이라 불리는 3층석탑(보물 제535호)이 예이다. 또한 옥새와 노국공주를 숨겼다는 옥새봉, 공민왕을 호종한 6조의 대신들이 몸을 숨긴 육조골, 노국공주와 공민왕이 가죽으로 다리를 놓아 밤마다 상봉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유다리 또는 누교리 등도 있다.

공민왕의 재위 기간은 대내외적인 시련기였다.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잦은 국난을 당하였고, 안으로는 누차에 걸친 반란과 역모 사건이 발생하여 왕실의 안위는 풍전등화 그 자체였다. 이로 인해 오랜 행궁생활을 감수해야 한 공민왕으로서는 목숨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공민왕이 금산 천내리에 능소를 정하고 장차 석물로 사용될 용호석을 제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용호석 제작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속에서 추진되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풍수지리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천내리는 강원도 태백산에서 뻗어내린 한 지맥이 멈춘 곳이다. 풍수설에서는 '선인부사도강형(仙人浮槎渡江形)', 즉 신선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형국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환도 후 공민왕이 그토록 총애한 왕비 노국공주가 1365년에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뜬다. 그 충격으로 실의에 잠긴 공민왕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 그러다가 1374년에 공민왕이 마침내 신하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비운을 맞이함으로써 천내리 능소는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방치된 용호석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좌정하여 천내리 주민들에게 동제로 치성을 받게 되었다.

내용 천내리에서는 매년 정월 초사흗날 자정에 산신제를 지낸 뒤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용호석제를 지냈으나 중단되었다. 엄격한 금기가 요구되는 산신제와 달리 용호석제는 단지 하루 전 또는 당일 아침에 용석과 호석에 흰새끼를 두르고 황토를 뿌렸을 뿐 마을에서 크게 꺼리는 일은 없었다. 제관은 마을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제를 앞두고 사흘 동안 정성을 들였다. 제물은 용석과 호석에 올릴 백설기, 돼지머리, 삼색실과, 포, 나물, 탕 등을 각각 준비하되 용왕신을 치제하는 용석제에는 미역을 따로 준비했다. 용호석제는 해질 무렵에 거행되었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제차는 용석에 먼저 헌작 재배하고 소지를 올린 뒤 호석 앞으로 가서 마을의 안녕과 가가호호의 무병제액을 축원했다. 용호석제를 마치면 더 두고 흠향하라는 뜻으로 떡과 제물을 조금씩 떼어 놓고 온다. 이때 아이들은 이 음식을 먼저 먹으면 그해에 재수가 좋다고 하여 용호석제가 끝나기 무섭게 앞을 다투었다.

용호석은 천내리에서 개별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하여 매년 정초나 칠월 칠석, 시월상달에는 제수를 갖추어서 집안이 무탈하기를 기원했다. 특히 후사를 두지 못했거나 우환이 있는 가정은 신심으로 용호석을 위했다. 마을에서는 그 영험으로 아들을 얻었다 하여 태어난 아이에게 호석이란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한편 천내리에서는 금강을 건너기 위해 예부터 전담 사공을 두고 나룻배를 운영했다. 이를 위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배걸립굿을 통해 배의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천내나루 배걸립굿이 대표적이다. 이 굿은 비단 금산 관내뿐만 아니라 충북 옥천·영동 및 무주 일원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걸립굿이었다. 상쇠·장구잽이 등은 걸출한 솜씨를 자랑하는 전문 풍물꾼을 초빙하여 걸립단을 구성했다. 걸립이 시작되는 날 총대를 멘 화주(化主)는 걸립단을 대동하고 용석과 호석에 간단하게 제를 지낸 뒤 가까운 마을부터 걸립에 들어갔다. 즉 마을의 수호신으로 치성을 받는 용석과 호석을 돌며 출정을 알리는 제향을 베풀고, 이로써 걸립단의 안전과 원만한 걸립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한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思, **공민왕과 금산 용호석의 비밀**(강성복, 국사편찬위원회 회보, 2002), **천내강 배걸립굿**(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충청남도 문화재대관 2**(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금산청징연기우제당 (錦山淸澄淵祈雨祭堂)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에 위치한 청징연에서 날이 가물 때 기우제(무제)를 지내던 제당.

형태 청징연은 속칭 '청등소' 또는 '청강수'라고 불리며, 앞마을을 청징이 또는 청등이라고 한다. 청징연은 진산면 삼가리에서 청징이 뒤편으로 300m쯤 떨어진 계곡에 자리한다. 이곳은 인대산에서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물이 암벽에 부딪쳐서 폭포수를 이루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그 밑에 커다란 못이 형성되었다. 못의 바닥에는 커다란 굴이 뚫려 있다. 이 굴은 이무기굴이라고 전한다. 청징연은 기암괴석과 계곡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주변 경관이 수려해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쉬어가는 명소이기도 하다.

역사 청징연은 조선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기우제가 거행된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33 진산군 산천조에 "청징연, 군의 남쪽 10리에 있다. 물의 깊이를 알 수 없고, 세상에 전하기를 용이 있다고 한다. 날이 가물어 비를 기원하면 즉시 응한다. 지금은 모래가 덮여 물 깊이는 불과 3자이다"라고 하여 조선 초기부터 기우제당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충남편)에는 "삼거리 남쪽에 소(沼)가 있다. 물이 맑고 깊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용이 살고 있다고 한다. 가뭄이 심할 때 무제(기우제)를 지내면 매우 영험하다고 한다. 현재는 메워져서 한 길밖에 깊지 않다"라고 하여 예부터 날이 가물 때 청징연에서 기우제를 지내 온 사실이 짧게 소개되었다.

내용 청징연 바닥에는 굴이 뚫려 있다. 이 굴은 명주꾸리 한 타래가 다 들어갈 만큼 깊으며 안에 용 또는 이무기가 산다 하여 이무기굴이라고 한다. 옛날에 호기심이 많은 어떤 사람이 굴 안을 들어갔다가 이무기가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되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또 10여 리 남짓 떨어진 진산면 오항리로 통하는 이무기굴은 물 위에 홍두깨를 띄워 놓으면 오항리에 있는 못으로 떠오른다고 한다. 그래서 청징연을 암소[沼], 오항리를 숫소라고도 한다.

예전에 날이 가물면 삼가리에 속한 청징이, 삼가동, 방각골이 회합을 갖고 기우제를 지낼 날짜를 잡았다. 택일이 되면 십시일반으로 보리쌀이나 돈을 갹출하여 제수를 마련했다. 제물은 돼지머리 · 떡 · 통북어 · 불백기 · 과자 · 술 등으로 세 마을이 각각 별도로 준비하였다. 기우제 하루 전에는 집집마다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편다. 또 병에 물을 가득 담아 솔가지로 주둥이를 막고 대문 앞에 걸어 두면 솔잎을 타고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 마치 비가 오는 듯한 장면이 연출된다. 당일 아침이 되면 세 마을의 남자들은 낫을 들고 청징연으로 가서 각자 풀과 나뭇가지를 한 짐씩 베어 못 안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큰 못이 꽉 찰 정도로 풀이 넘쳐나며, 하늘에서 이를 본 용이 속히 비를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 내린다고 한다. 이는 용소에 돼지피를 뿌리거나 오줌을 누어 비를 기원하는 것처럼 용의 거처인 청징연에 풀을 잔뜩 넣음으로써 운우(雲雨)를 기원하는 일종의 오염기우(汚染祈雨)인 셈이다.

금산청징연기우제당
2010.5.30, 강성복

기우제는 세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참석하였다. 제의 준비가 다 되면 여성들은 키를 뒤집어쓰거나 그릇을 들고 풍장을 울리며 청징연으로 모여 못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유교식 기우제를 지냈다. 이때 입담 좋은 아낙네가 비가 내리기를 간곡히 축원하는 소지를 올렸고, 기우제를 마치면 여자들은 키로 물을 까부르며 비 오는 시늉을 하였다. 또 그릇에 물을 떠서 허공에 뿌리거나 연못에 들어가서 서로 상대방에게 뿌리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였다.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효험이 있어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고 온 적도 있었다 한다.

청징연기우제는 못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혹독한 가뭄이 아니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평생을 마을에서 산 노인들이 기우제를 경험한 것은 몇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청징연을 매우 신성시하였다. 특히 유황(용왕)을 위하는 가정에는 해마다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이곳을 찾아와 무병제액을 축원하는 고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설화속의 금산(금산문화원, 1996), 한국지명총람 4-충남(한글학회, 1974).

필자 이해준(李海濬)

금줄

정의 부정(不淨)한 것을 금기(禁忌)한다는 뜻으로 대문 · 길 어귀 · 신목(神木) · 장독 등에 걸쳐놓은 주술적인 줄. 금줄은 검줄 · 검석 · 금색 · 금구줄 · 금계줄 · 금기줄 · 건구줄 · 금새기 · 동줄 · 송침 · 새내기 · 좌삭(座索) · 문삭(門索) 등 다양한 이칭이 있다.

형태 금줄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2㎝ 굵기의 왼새끼를 거친 모습으로 꼬아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물건을 꽂은 모습이다. 상징적인 물건들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 출산의 경우 아들을 낳았을 때는 생솔가지 · 숯 · 빨간 고추 등을, 딸을 낳았을 때는 생솔가지 · 숯 · 종이 등을 중간중간에 끼워 대문의 양 기둥 사이에 매단다. 이 금줄은 출산 후 삼칠일, 즉 21일간 매달아 두었다가 거두어 대문의 한 쪽 기둥 쪽에 감아 둔다. 동제를 지낼 때는 당집 · 당나무 등에는 물론 신역으로 인정되는 모든 공간과 제관의 집 대문에도 금줄을 친다. 이때의 금줄은 새끼줄에 한지 혹은 생솔가지를 매단다. 금줄과 함께 벽사(辟邪, 사악한 귀신을 물리침)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붉은 황토를 뿌리는 경우도 있다. 또 장을 담근 후 장독 안에다 숯덩이와 붉은 고추를 넣고 뚜껑을 덮은 후 뚜껑 주변에다가 금줄을 친다. 이때의 금줄은 고추 · 한지 · 숯 등을 끼운 형태이다. 때로는 한지를 오려서 버선본을 만들어 거꾸로 붙이기도 한다. 그 밖에도 술을 담근 후의 술독, 깨끗하게 청소한 뒤의 우물에도 금줄을 친다. 지방에 따라서는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외양간에다 금줄을 치기도 한다.

내용 금줄은 일반적으로 금승(禁繩)에서 나온 말 이라 한다. 그러나 원래 '금(禁)줄'이 아니라 '검줄'이며, '검'은 신(神)의 고어인 'ᄀᆞᆷ'에서 온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원래 '검질'로 단순히 금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공간임을 강조하는 줄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성(聖) · 속(俗)을 구분하는 경계 지점에 금줄을 친다는 것이다. 금줄은 신성 공간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는 주술적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신생아가 출생한 경우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다.

금줄로 사용하는 왼새끼는 비일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일상적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왼새끼를 쳐 두는 곳은 일상적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비일상적 · 비정상적인 공간인 신성 공간임을 상징한다. 이는 음계(陰界)의 속성을 지닌 잡귀가 왼쪽, 즉 양계(陽界)의 속성을 지닌 좌(左)를 두려워하여 이를 피하므로 금줄을 왼새끼로 만든다는 해석과 닿아 있다. 도깨비를 만났을 때 왼손이나 왼발로 넘어뜨려야 쫓을 수 있다든지, 뒷간에 들어갈 때 헛기침과 동시에 왼발부터 먼저 들여 넣어야 주당[뒷간에 있다는 신]을 피할 수 있다든지 하는 속신도 모두 이와 상통한다.

금줄로 사용하는 짚은 쌀을 열매 맺게 하는 줄기로 힘을 상징한다. 또 흰 종이는 화폐의 상징으로 재운(財運)을 기원하는 동시에 신에게 바치는 공물(供物)로서의 기능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흰색은 밤

에도 눈에 잘 띄는 색깔로 금역(禁域)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능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솔가지는 상록색으로 불변의 기운을 상징하고, 바늘 모양의 뾰족한 잎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는 주술력을 상징한다. 또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꽂는 붉은색의 고추는 남성을 상징하며, 붉은색은 이른바 양색(陽色)으로 악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색깔이다. 동짓날 집안의 구석진 곳에다 뿌리고 먹는 동지팥죽이나 금줄과 함께 뿌리는 황토도 악귀의 범접을 막는 구실을 한다. 숯은 음기(陰氣)의 상징인 검은색이며 땅 속에서도 썩지 않고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것이므로 사악한 기운을 미리 흡수하여 막아 달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숯은 붓의 상징으로 자녀들에게 학운(學運)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장독에다 금줄을 치는 것은 장독을 단순한 옹기로서가 아니라 장맛을 달게 해 주는 철륭신이 깃든 신전(神殿)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줄 자체를 신성시하다 보니 금줄에 대한 여러 가지 속신과 금기가 생겼다. 금줄을 친 당산나무를 범접하면 몸이 상하거나 죽는다는 속신이 있다. 함경도에서는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릴 경우 물건에 붙은 악귀를 떼어내기 위해 물건에다가 왼새끼를 매어서 던져 버리는 관습이 있었다. 금줄을 친 집을 출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정(不淨)에 노출된 경우에는 출입을 삼가야 한다. 부정에 노출된 경우란 상(喪)을 당한 사람을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 상여를 본 사람, 동물을 죽였거나 사체를 본 사람, 병자 · 거지 · 백정 등을 말한다. 만약 실수하여 출입하면 산신(産神)이 노하여 아이가 죽거나 중병에 걸리고 산모의 젖이 끊긴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일에 노출되면 최소한 일주일을 바깥에서 지내다 들어와야 나쁜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출산한 집의 금줄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손이 오그라든다고 하여 이를 절대 어기지 않는다. 서울 지방에서는 금줄을 치기 위해 문기둥에다 못을 박으면 갓난아기에게 눈병이 생긴다 하여 못을 함부로 박는 일을 매우 꺼린다.

한편 금줄의 신성력으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속신도 생겼다. 다산(多産)한 집의 금줄을 훔쳐 방안에 걸어 놓거나 금줄로 불을 지펴 밥을 해 먹으면 임신할 수 있다는 속신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 등지에서는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아들을 낳았을 경우 아예 금줄을 치지 않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다산한 집에서 다 사용한 금줄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에다 빌려 주어 안방에다 걸어 두도록 배려하는 아름다운 습속을 지키는 곳도 있다.

금줄을 매는 습속은 동아시아권 전체에 널리 전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베리아 · 몽골 · 중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유목을 생업 수단으로 해서 살아가는 시베리아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를 말총으로 만들고 오색천을 매달아 놓았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도작권(稻作圈)인 오키나와 같은 남방 지역에서는 우리와 같이 짚으로 만든 왼새끼 금줄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그 기능도 마을의 경계, 신역의 정화 등 우리와 같다.

금줄은 사회적 규약이며 약속이다. 사회 스스로가 창출해 낸 자율적 공공질서이다. 지켜야 할 것,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 스스로의 약속이므로 강제에 의한 법과 윤리 이데올로기에 앞선다. 그래서 전승의 힘이 더욱 강하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양양군 서면 서낭제 연구**(이한길, 시학과 언어학 11, 2006), **조선 땅의 마을 지킴이**(주강현 · 장정룡, 열화당, 1993), **한국의 민속**(김성배, 집문당, 1980).

필자 류종목(柳鍾穆)

금줄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봉명마을, 2006.2.11, 서해숙

금토

표제어 황토(1012쪽)

기고사(旗告祀)

정의 매년 일정한 시기에 마을의 상징인 농기(農旗)를 모시고 지내는 고사.

내용 지역에 따라 농기, 용당기, 용덕기, 덕석기, 용술기, 용기, 대기, 서낭기, 대장기, 농상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농기는 농신(農神) 또는 신농씨(神農氏)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마을의 상징이기도 한 깃발이다. 농기의 가장 대표적인 쓰임새는 두레농사에서 돋보인다.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를 지을 때 농기에 대한 고사(告祀)를 우선으로 하였다. 논에서 일을 할 때도 높은 논둑에 농기를 꽂아 두었으며, 일을 마친 후에도 농기를 선두로 하여 길군악을 연주하며 돌아오곤 하였다. 농기는 마을의 표징이자 중심이며 자긍심의 표식이었다.

농기는 주로 광목에 글자를 묵서(墨書)하거나 그림을 그려 채색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글자를 적은 농기의 경우 대표적으로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적은 것에서부터 신농유업(神農遺業), 신농사명(神農司命), 농위천하본(農爲天下本), 능사사명(能社司命)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림을 그려 만든 농기는 용의 모습을 담거나 용과 함께 여러 상서로운 동물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신농씨(神農氏)를 그린 경우도 있다. 또는 글과 그림이 없는 농기도 있다. 그림이나 글귀가 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농사의 중요성과 이념을 강조하거나 농신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기고사(旗告祀)를 통해 모셔지는 농기가 농신이라는 신격의 표상이자 공동체적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기고사는 보통 매년 정월대보름에 거행된다. 간혹 특별한 연원으로 인하여 연행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정월대보름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보름이 가까워 오면 마을에서는 동계(洞契)회의를 열어 기고사 연행 준비를 시작한다. 기고사를 연행할 고사 집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사 집의 경우 그 마을에서 비교적 부농(富農)에 속하는 집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너른 마당, 고사상에 올릴 제물과 모인 사람들을 위한 음식 장만이 가능한 큰 부엌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이어야 고사를 준비하고 연행하는 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고사에 들어가는 제물과 음복 음식을 마련하는 것도 동계의 자금과 마을 구성원의 추렴으로 해결하지만, 일정 부분은 기고사를 연행하게 된 집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동계 입장에서 이롭기도 할 뿐더러 부농 입장에서도 한 해 농사를 앞두고 품을 얻어야 할 이들을 거두어 먹이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고사 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선정된 고사 집 주인이 지켜야 할 금기 등은 일반적인 마을 제의 제관들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고사 집이 선정되면 미리 그 집 마당에 농기를 모시고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기고사의 고사상에 오르는 제물은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삼색실과, 삼색나물, 돼지머리, 떡(시루) 등이 쓰인다. 고사의 연행은 유식(儒式) 제의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미리 선정한 초헌관의 헌작(獻爵)이 있은 뒤 독축이 이어지고 아헌례와 종헌례, 소지(燒紙)와 음복 순으로 고사를 마친다. 경우에 따라 단작(單爵)과 삼작(三爵)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차가 단순화되어 독축 없이 헌작과 재배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다. 고사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이때 축문을 소지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소지종이를 준비하기도 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제물을 나누어 음복하고 준비된 음식을 즐기며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

마을에 따라 유교식 제사 방법을 따르지 않고 풍장굿 형태로 기고사를 연행하는 곳도 있다. 농기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올린 다음 풍장패의 한바탕 연주 뒤에 상쇠의 고사덕담이 이어진다. 덕담은 한 해 동안 마을의 무탈(無頉)과 생업의 번성을 비는 내용이다. 덕담이 이어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고사에 참여한다.

기고사가 끝나면 농기는 바로 내리지 않고 고사 집에 그대로 세워 둔다. 간혹 날씨가 궂어 기가 상할 우려가 있으면 곧바로 내려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월 초하루까지 고사를 지낸 집 마당에 세워 둔다.

참고문헌 **농민의 자부심, 농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2009),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두레**(국립민속박물관, 1994), **민속박물관 사람들의 세시풍속현장조사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8).

필자 **김창호(金昌鎬)**

기우제(祈雨祭)

정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비가 내리도록 비는 일체의 방식. 좁은 의미로는 제사 형식을 담고 있는 각종 기우 의례들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비가 내리기를 비는 일체의 주술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칭으로는 지역에 따라 '무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기우제 방식을 중심으로 보면 주술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 기우제를 주관하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보면 민간기우제와 국행기우제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또 지리적 차원의 기우권역 측면에서 보면 자연마을 단위의 마을기우제와 몇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광역기우제로 구분할 수 있다.

키로 물 까불기
국립민속박물관

역사 수리시설이 부족한 전통사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기우제를 통해 가뭄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비에 대한 관심은 〈단군신화〉에서 이미 확인된다. 환웅(桓雄)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인간세계에 하강했다는 것은 이런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뭄은 자연기후 현상임에도 치자(治者)의 부덕(不德)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고대 부족국가인 부여의 경우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는 풍속이 있었다. 마여(麻余)가 죽자 그의 아들인 여섯 살짜리 의려(依慮)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삼국지(三國志)』「위서 동이전」에 전한다. 이런 관념은 조선시대에까지 강하게 지속된다. 비록 왕을 죽이거나 바꾸는 등 극단적인 방법은 동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왕 스스로 부덕과 실정으로 인해 한발이 있는 것으로 여겨 다양한 속죄 의례를 통해 비를 기원하였다. 정전(正殿) 옮기기, 일산(日傘) 쓰지 않기, 감선(減膳)하기, 형옥(刑獄) 풀기 등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志) 제사조에는 4성문제(四城門祭), 4천상제(四川上祭), 일월제(日月祭), 오성제(五星祭), 4대도제(四大道祭), 압구제(壓丘祭), 벽기제(辟氣祭)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본기(本紀)」에서는 삼국에서 각각 시조묘(始祖廟)나 명산대천 등에 기우제를 올리는 것은 물론 백성들에게 다양한 선정(善政)베풀기를 한 사실이 두루 확인된다. 명산대천에 기우제를 올린 예는 조선시대와 비교할 때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또 선정 베풀기로는 백성들을 동원하는 역사(役事) 중지, 재조사를 통한 죄수 사면, 백성 구휼, 조세감면, 덕 있고 능력 있는 인재 등용 등 사례가 다양하다. 그리고 한발의 책임을 왕 자신의 부덕과 실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서 정전을 피해 앉으며, 음식을 평상시보다 줄이는 등 근신을 행한 사실도 확인된다. 용 그림을 그려 빌거나 시장을 옮긴 경우도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더욱 다양한 기우제의 양상이 드러난다. 『고려사』를 통해 볼 때 선정 베풀기, 근신, 조상신에 대한 제사, 궁전 및 내전에서 제사, 불교식 제사, 영성(靈星)에 대한 제사, 무속 제사, 명산대천을 비롯한 자연신에 대한 제사, 시장 옮기기, 토룡을 만들거나 용을 그려 놓고 빌기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기우제가 있었다. 왕의 근신도 삼국시대보다 더욱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엄격해졌다. 부체 사용 금지, 음악 금지, 삿갓 등 모자 착용 금지, 금주, 가축 도살 금지 등이 추가로 실시되었다.

고려시대의 특징으로는 국교가 불교인만큼 밀교(密敎) 성격이 강한 다양한 도량(道場)과 법회의 개설, 도교의 성격이 짙은 구요당(九曜堂) 제사나 태일(太一)에 대한 초제(醮祭), 무당을 모아서 비가 내리기를 빌게 하는 취무도우(聚巫禱雨) 등을 들 수 있다. 취무도우의 경우 많은 때에는 300명, 길게는 엿새 동안 무당들을 도성에 모은 사례들도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기우제 양식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크게는 폭로(暴露)의례, 기우제룡(祈雨祭龍), 유교식의 기고(祈告)의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폭로의례는 기후재변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나 무당 등을 뜨거운 햇볕에 폭로시켜 고통을 줌으로써 비가 내리기를 비는 방식이다. 기우제룡은 물의 신인 용에게 비가 내리기를 비는 방식이다. 이는 용의 모습을 본떠 형상화한 상룡(像龍), 용을 대신할 유사 동물을 이용하는 대룡(代龍),

용이 거처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에서 행하는 잠룡(潛龍)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교식의 기고의례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기우제 양식을 말한다. 그 제의 절차나 양식은 1704년(숙종 30)에 12제차로 정식화되었다. 당시의 『기우제등록(祈雨祭謄錄)』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삼각산 · 목멱산 · 한강, 2차: 용산강 · 저자도, 3차: 풍운뇌우산천 · 우사(雩祀), 4차: 북교 · 사직, 5차: 종묘, 6차: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의 침호두(沈虎頭), 7차: 용산강 · 저자도, 8차: 풍운뇌우산천 · 우사, 9차: 북교 · 모화관지변 · 석척동자기우, 10차: 사직 · 경회루지변 · 석척동자기우, 11차: 종묘 · 춘당대지변 · 석척동자기우 · 폐남문개북문 · 천시(遷市), 12차: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 등이다. 이러한 조선 후기 국행기우제는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승려나 무당 · 맹인이 배제되었으며, 오직 유자(儒者)로 제관이 일원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기술은 모두 국가가 주관한 국행기우제에 해당한다. 민간에서 행한 민간기우제는 문헌사료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역사적 변천 과정을 정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기우제 역시 국행기우제와 흡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제의 양상은 더욱 다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민간기우제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행하는 것으로, 그 절박함으로 인해 굳이 제사 형식을 띠지 않은 것도 많았다. 경남 합천 지역의 디딜방아기우제, 경북 남부지역과 경남지역의 광철이 쫓기, 충남 금산의 '농바우끄시기', 경북 고령의 미숭산 천제당 기우제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디딜방아 거꾸로 매기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기우제는 단순한 주술행위에서부터 복잡한 종교의례까지 동원되는 것으로 유형화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원리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것은 비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기우제에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우제는 사소한 유감주술 원리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전통적 종교 관념이나 사상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1회의 기우제에서 한 가지 유형의 기우제만 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우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 방법이 다발적으로 행해졌다. 국행기우제나 민간기우제로 구분하여 제의 내용과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행기우제의 경우 조선시대 숙종 때 정리된 12제차의 기우제 중 11차를 보면 종묘(宗廟), 춘당대지변(春塘臺池邊), 석척동자기우(蜥蜴童子祈雨), 폐남문개북문(閉南門開北門), 천시(遷市) 등이 제시되어 있다. '종묘' 제사는 조상신에 대한 유교식 제사 방식이고, '춘당대지변'에서 행하는 기우제는 명산대천 또는 용이 거처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유교식으로 비가 내리기를 비는 것이다. '석척동자기우'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도마뱀을 잡아다가 놀게 하는 것이다. 도마뱀은 비를 주관하는 용을 대신한 것으로, 이 방식에는 도마뱀을 잡아다가 작열하는 햇볕 아래서 작대기로 때리거나 괴롭히면 하늘의 용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주술적 관념이 담겨 있다. '폐남문개북문'은 도성의 남문은 닫고 북문은 열어 두는 방식이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행하던 '4성문제'와 맥락이 통하며, 음양오행의 원리에 기반한 기우 방식이다. '천시'는 소통의 상징성이 특별히 강한 곳으로 시장을 옮겨 여는 방식이다. 이는 가뭄의 원인이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시장을 강변이나 골목 안 등지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12제차의 국행기우제는 제사마다 정해진 품계의 제관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대체로 제차가 거듭될수록, 유교 제사 방식에 가까울수록 고위관리가 담당하였다.

민간기우제는 국행기우제보다 더 복잡다단하다. 시대 차이도 있지만 지역별 차이도 많다. 기우제 터만 보더라도 폭포가 있는 산간지역은 용소(龍沼)를 중심으로, 명산이 있는 곳은 산정(山頂)에서, 바위가 많은 곳은 바위 아래에서, 강이 있는 곳은 강변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곳은 샘가에서 각각 지내는 등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제의방식이 덧붙여지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용소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대개 수신인 용을 자극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술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국행기우제에서는 '침호두(沈虎頭)'라고 하여 호랑이 머리를 용소에 빠뜨려 물 속에 산다는 용을 자극함으로써 비가 올 수 있도록 하지만, 민간기우제에서는 개나 돼지 등 동물을 잡아 그 피를 주변에 뿌려 기우제 터를 부정하게 함으로써 용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곧 동일한 유형의 기우제 터라고 하더라도 기우제 방식은 천차만별로 다르며, 주술원리 또한 다를 수 있다. 유교식 기우제가 온갖 정성을 들이는 순응적 제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동물의 피를 용소에 바르는 것은 용을 자극하는 대항적 제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우제 방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한다. 그 방식은 대체로 지역의 문화 전통과 관련된다. 즉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가장 효험이 있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험적 지식에 기반하여 민간기우제가 설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기우제 역시 국행기우제와 흡사하게 여러 가지 기우주술을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연마을 단위별로 그 마을에서 가장 효험이 있으리라 기대되는 방식의 기우제가 설행됨과 동시에 몇 개의 자연마을이 합동으로 특정 지역에서 거듭 지내는 경우도 많다. 이때 동참하는 자연마을들은 같은 기우권역에 속하는 것이 되며, 이런 경우 해당 관청의 장이 제관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민간기우제의 양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기도 하다. 명산의 산정에서 지내는 경우 남성들이 암장한 묘를 파헤치고, 연기를 심하게 내면서 불을 피우고, 독축고사 형태의 제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여성들은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일제히 방뇨를 하며 준비해 간 물을 끼얹는 등의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이 주관하는 기우제에는 키로 물 까불기, 삿갓 쓰고 쟁기로 모의 마당 갈기, 디딜방아 거꾸로 매기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우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효험을 크게 한다는 관념이 있다.

지역사례 기우제의 지역사례 역시 매우 다양하며, 거의 동일한 것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에서 기우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지만 모든 기우제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행기우제는 문헌자료로 일정 부분 정리가 가능한 반면에 민간기우제는 일일이 현지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우제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금산군의 '농바우끄시기'이다. 이는 2000년 9월 20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된 기우제이며, '농바우끄시기'는 '농(籠)바위 끌기'라는 뜻이다. '농바위'는 시루봉 중턱에 있으며, 생긴 모습이 반닫이 농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날씨가 가물면 마을 여성들이 나서서 이 농바위를 끄는 시늉을 한다. 이에 앞서 집집마다 물병에 소나무 가지를 꽂아 거꾸로 매다는 물병매기, 추렴한 짚으로 동아줄을 꼬아 농바우에 거는 용줄매기, 마을 아낙들이 농바우에 도착하여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산제, 농바우 아래 계곡물에 아낙들이 옷을 벗고 떼지어 들어가 키로 물을 까부는 날궂이 등을 행한다. 그런 뒤 농바우를 끌면 농바우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전에 비가 내린다고 한다. 이는 결국 용을 자극하는 유형의 기우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시(徙市)기우제이다. '사시'는 달리 천시(遷市), 이시(移市)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주로 강변에 임시로 장을 서게 하는 것으로, '강변장 내보이기'라고 불린다. 경북 예천군의 경우 한발이 심할 경우 여러 조처를 취하다가 마지막으로 읍내 중앙을 흐르는 한천(漢川)의 모래밭에 시장을 내어다 보인 적이 꽤 많았다. 이런 예들은 면 단위에서도 있었으며, 정기시장이 서는 곳에서 가능했다. 이때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처마 끝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았다. 이와

는 달리 충남 서천에서는 강이 아닌 남산으로 시장을 옮겼다. 서천의 남산은 백제 멸망 이후 당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장소이며, 혼인한 부녀자들이 친정 식구나 친지 · 친구들을 만나는 반보기의 장소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혼인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만나 혼인의 기회를 얻는 장소로 활용된 곳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서천의 남산은 가뭄이 심할 때 임시 장을 열어 비가 내리기를 비는 사시기우제 터로 이용됐다.

셋째, 용소(龍沼)기우제이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에서는 백두대간에 속하는 대야산 아래에 있는 용초(龍湫)에서 무제를 지냈다. 예전에는 용초에 흘러드는 물을 막아 돌리고 무제를 지냈다. 최근에는 용초에 흘러드는 물을 막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모두 퍼낸다. 용초 안 바닥이 드러나면, 그곳에 젖은 나무나 마른 나무를 가리지 않고 잔뜩 채워서 불을 지른다. 그러면 연기와 불이 하늘로 치솟는데, 그때 사람들은 "용꼬리 탄다!"라고 외친다. 그런 뒤 산 돼지를 잡아 목을 따서 피를 사방에 뿌리고 제사를 지낸다. 2001년 음력 윤사월 열엿새에 지낸 기우제의 실황이 지역 유선방송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이와 흡사하게 안동시 임동면 지례동에서는 도연폭포와 영검산에서 동시에 기우제를 지낸 사례가 있다. 영검산에서는 불을 피우고 도연폭포에서는 개를 잡아 피를 용초 주변에 뿌렸다. 문경시의 사례가 용이 사는 곳의 물을 퍼내서 말리고, 용꼬리에 불을 지피며, 돼지 피를 용초 주변에 뿌려서 용을 자극한 것이라고 한다면, 안동시의 사례는 개의 피를 이용해 용을 자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명산(名山)기우제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일대의 미숭산(美崇山) 기우제이다. 미숭산은 고령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는 천제당(天祭堂)이 있다. 산의 이름은 고려 말의 충신인 이미숭(李美崇) 장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역성혁명을 일으킨 이성계(李成桂)에 항거하여 산성을 쌓고 결사항전을 벌인 곳으로 유명하다. 산 정상은 인근에서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곳에 묘를 쓰면 사방에 가뭄이 들고 인근지역 청장년들이 죽는 등 온갖 재앙이 발생한다는 속설이 있어 아무도 묘를 쓰지 않는다. 미숭산은 월막리 현풍 곽씨들의 소유이지만 문중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일전에 조상 묘를 이곳으로 이장한 적이 있으나 동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여 결국 묘를 정상이 아닌 아래쪽으로 옮겼다. 특히 미숭산 기우제의 영험은 주민들이 1988년에 직접 겪기도 하였다.

1988년의 가뭄은 수십 년 만의 가뭄으로, 주민들은 이야기로만 전해 내려오던 미숭산 천제당에 기우제를 지내기로 하고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몰래 묘를 쓴 흔적이 있었다. 암장의 흔적을 보고 주민들은 분노했고, 검은 연기를 산봉우리에서 피우면서 제를 지냈다. 제를 지낸 뒤 곡괭이로 묘를 파헤치기 시작할 무렵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소나기가 세차게 퍼부었으며, 농민들은 환희의 함성을 터트렸다. 암장한 묘를 파헤치기 전에 비가 내린 것이었다. 암장한 사람은 밀양 사람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즉시 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숭산 천제당 기우제에는 남성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동네 여성들은 동네 보(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천제당에서 내려오는 농악소리가 가까이 들리면 바가지로 봇물을 퍼 뿌리면서 "비가 온다! 비가 온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예천군 용문면과 유천면 일대 국사봉 기우제에서도 볼 수 있다. 예천군 국사봉 역시 명당으로 소문이 나 있으며, 묘로 쓴 경우 그 후손은 명당의 지기(地氣)를 받아 복록을 누리지만 인근에는 가뭄이 든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뭄이 심하면 국사봉 인근의 주민들은 마을마다 나름대로의 기우제를 지낸 다음 다시 합동하여 국사봉에 오른다. 산 정상에 암장한 묘를 찾아 파헤치고 연기를 크게 피운 뒤 제사를 지낸다. 이때에는 면장과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다섯째, 꽝철이 쫓기이다. 이 기우제는 경북 남부 지역이나 경남지방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형이다. 꽝철이는 용이 되지 못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상상의 동물이다. 꽝철이는 비를 매우 싫어해 꽝철이가 내려앉은 지역은 가뭄이 극심하다고 한다. 꽝철이는 주로 산 능선에 앉기 때문에 가뭄이 심하면 주민들은 산 능선을 다니면서 꽹과리나 징을 쳐서 꽝철이를 쫓았다. 꽝철이는 코에 물이 들어가면 사라진다고 하며, 날아갈 때는 불덩이가 보인다고 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祈雨祭謄錄, 三國遺事, 三國志, 三國史記, 금산의 민간 기우와 민중들의 사고(김미순, 금산의 마을공동체신앙,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0),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기우제와 지역사회(임장혁, 민속원, 1999), 기우제의 지역 간 비교와 기우문화의 지역성(김재호,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도연기우제의 민속지와 주술적 장치(임재해,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4), 사시기우제의 기우원리와 시장의 소통성(김재호, 한국민속학 50, 한국민속학회, 2009), 산골사람들의 물 이용과 민속적 분류체계(김재호,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서천 남산장의 공간적 기능 변화 고찰-집단 반보기, 사시(徙市) 공간의 의미를 중심으로(정형호, 민속학연구 3, 국립민속박물관, 1996), 중세사회의 기우의식에 대한 고찰(박계홍, 한국민속연구, 형설출판사, 1973), 합천기우지(박문목, 합천군, 1987).

필자 김재호(金在浩)

기우제등록(祈雨祭謄錄)

정의 1636년(인조 14)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수표,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 등과 관련된 논의와 보고를 담고 있는 6책 분량의 기록물.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기우제등록』은 흔히 6책의 기록물을 총칭하지만, 실제로 1책은 『기우제일(祈雨第一)』, 2책은 『기우등록(祈雨謄錄)』, 3책은 『기우제등록(祈雨祭謄錄)』, 4책은 『전향사기우록(典享司祈雨錄)』, 그리고 5책과 6책은 『기우기청등록(祈雨祈晴謄錄)』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기우제등록』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자료 이외에도 1743년(영조 19)부터 1832년(순조 32)까지의 기우제 및 기청제의 제문을 모아 놓은 장서각의 『기우제등록』도 전해지고 있으나 내용과 분량에 있어 규장각 자료가 기후의례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인 『기우제등록』은 인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 253년간의 논의와 실상을 일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날짜별로 기록된 항목은 총 1,811건에 달한다. 1책에는 인조(70건), 효종(75건), 현종(26건) 대의 171건이 실려 있다. 2책은 숙종 대의 236건을 담고 있으며, 3책은 숙종 대의 502건과 경종 대의 52건을 포함한 554건이 기록되어 있다. 4책은 영조(290건)와 정조(40건) 대의 330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5책은 정조(74건), 순조(133건), 헌종(40건) 등의 247건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6책은 헌종(7건), 철종(79건), 고종(187건) 대의 273건을 싣고 있다.

1,811건에 달하는 기록을 왕의 재임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2책 전부와 3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숙종이 738건으로 가장 많고 영조(290건), 고종(187건), 순조(133건), 정조(114건)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숙종 대의 기록이 압도적인 것은 숙종의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당시에 기후학적인 외적 변동이 잦았으며, 기후의례의 예제화에 대한 내부 논의가 활발했던 데에 기인한다.

『기우제등록』에는 기우제 관련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가 내릴 때까지 의례를 지속하는 기우제의 특성으로 인해 기우제에 관한 보고와 논의, 의례적인 조처와 절차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었다.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기우제의 유형은 대개 주술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의식들, 폭로의례(暴露儀禮)와 관련된 것들, 기우제에 용의 상징과 상상력을 가미한 기우제룡(祈雨祭龍)의 방식들, 그리고 유교의 기고의례(祈告儀禮)의 양식들로 유형화된다.

첫째 유형에는 피정전(避正殿), 감상선(減常膳), 철악(撤樂), 물격고(勿擊鼓), 금산선(禁繖扇), 금주(禁酒), 금연(禁煙), 천시(遷市), 심원옥(審寃獄), 방수도(放囚徒) 및 방경계(放輕繫), 양로(養老), 진환과고독(賑鰥寡孤獨), 휼궁궤(恤窮匱), 방역부(放役夫), 엄격매자(掩骼埋胔) 등의 다양한 기우 방식들이 속한다. 이러한 양식들은 고대의 주술적인 사고를 담고 있으면서도 한발이라는 자연질서의 일탈을 도덕적인 행동 양식으로 극복하려던 조선조 유교사회의 도덕주의적 사고를 표출하고 있다. 통치자의 실덕(失德)으로 인해 빚어진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양의례(祈禳儀禮)보다도 근신과 반성이 전제된 행동양식(피정전, 감상선, 철악, 물격고, 금산선, 금주, 금연, 천시)을 통해 일상의 편의, 향락, 사치 등을 유보하는 것이 강우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실현하지 못한 과오를 재조정하여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약화시키거나 해소하려는 양식들(심원옥, 방수도, 방경계, 양로, 진환과고독, 휼궁궤, 방역부)도 해갈을 위한 기본적인 조처로 전제되었다. 이러한 인정과 관용의 실현은 생자들뿐만 아니라 뼈와 살이 드러난 사체를 가려 주는 엄격

매자의 조처로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우 양식들은 고대적인 주술성의 전통에 유교의 도덕주의적인 전통이 교차되면서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기우조처로 활용되었다.

둘째 유형은 왕, 무당, 토룡 등에 폭로의례의 주술성을 극대화한 의례와 관련된다. 왕의 폭로의례는 왕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뙤약볕에 노출되는 의례적인 행위였다. 이른바 노좌(露坐) 혹은 노립(露立)은 왕의 희생과 근신을 보여 주는 행위이면서도 강우의 조건을 유도하는 분신의례(焚身儀禮)의 전형을 간직한 야외폭로였다. 무당 역시 폭로의례의 주요 대상이었다. 이른바 폭무(暴巫)는 무당에게 한발의 책임을 묻고 처벌함으로써 강우의 효과를 기대했던 강요의례(强要儀禮)였다. 강우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뉴월 뙤약볕에 노출되어 있는 무당의 고통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왕이나 무당뿐만 아니라 토룡(土龍)도 폭로의 대상이 되었다. 흙으로 용을 형상화한 토룡을 폭로시키는 의례는 수신(水神)인 용을 자극함으로써 승천과 강우를 압박하는 강요의례였다.

셋째 유형은 용의 상징과 상상력을 동원한 기우제룡(祈雨祭龍)과 관련된다.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기우제룡의 방식으로 대표적인 의례가 토룡제(土龍祭), 화룡제(畫龍祭), 침호두(沈虎頭), 석척기우(蜥蜴祈雨), 진암분시(辰巖焚柴) 등이다. 토룡제는 토룡을 제작하여 동(홍인문 밖), 서(양화도 부근), 남(한강 북쪽), 북(북교 여단 근처), 중앙(종각 옆)의 오방에서 거행하던 기우제로, 기우제차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의례였다. 화룡제는 용의 그림을 배치하고 기우제를 거행하는 의례로서, 주로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거행되었다. 의례를 마치면 화룡으로 제물을 싸서 침수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침호두는 한강에 호랑이 머리를 침수시킴으로써 부동의 용을 자극하는 기우의례였다. 이는 용호상박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용의 승천과 강우를 이끌어 내려는 주술적인 의례였다. 석척기우는 용의 형상을 닮은 생물체(도마뱀)를 독에 넣고 주문과 소음으로 용을 자극했던 주술적인 의례였다. 주로 경회루, 모화루, 춘당대 등의 연못가에 어린 동자(童子)들을 동원해 석척기우를 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암분시는 용의 거소로 인정되는 바위에 불을 피움으로써 용을 자극하는 의례였다. 대부분의 기우제룡은 용신을 위무하는 의례라기보다는 용신의 기능을 유도하고 자극하는 강요의례였다.

넷째 유형은 유교의 기고의례(祈告儀禮)의 양식들과 관련된다. 기고의례는 변고가 발생하였을 때 행해진 비정기적인 임시의례로서, 유교 『오례의』 중에서 길례(吉禮)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행해졌다. 기고의례는 정기적인 의례와 행례 절차가 유사하였지만, 초헌관이 복주를 마시는 음복(飮福)과 고기의 일부를 받는 수조(受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신과 인간의 공감을 확인하는 음복수조의 절차가 생략된 기고의례는 감사와 보은보다는 구복이 강조되는 기원의례의 성격을 갖는다. 기우제와 관련된 기고의례는 주로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단, 북교, 사직, 종묘 등에서 행해졌으며, 간혹 여기에 기우제룡의 양식이 곁들여지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기우제등록』에는 홍수의 상황에서 비를 멎게 하는 기청제와 관련된 191건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뭄과 달리 홍수는 일거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한 초기에 단일한 형태의 의례를 신속하게 거행하는 것이 기청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홍수의 상황에서 거행한 기청제는 중앙의 국문(國門)과 지방의 성문(城門)에서 해당 방위의 산천신에게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국문과 성문에서 거행한 기청제를 영제(禜祭)라고 하는데, 사문에서의 영제는 문루 위에 제물을 진설하되, 신위가 안쪽을 향하게 하고 헌관이 밖을 향하도록 하였다.

『기우제등록』에는 기설제와 관련된 26건의 기록도 들어 있다. 기설제는 겨울에 행해지는 기우제라고 할 정도로 기우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행되었다. 따라서 기설제가 거행되는 제장과 제차도 기우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기설제는 1차적으로 종묘, 사직, 북교 등에서 중신이 거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풍운뇌우산천, 우사(이상 중신), 삼각, 목멱, 한강(이상 근시관) 등에서 거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우제등록』에는 기후의례 이외에도 수표(水標)와 관련된 내용이 전체 기록 건수의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주로 강물의 증감을 수표직(水標直)이 보고하는 내용이 대다수이며, 이를 근거로 기후의례와 관련된 논의들이 뒤따르기도 한다.

『기우제등록』은 물의 과부족(過不足)으로 빚어진 자연재해 앞에서 해갈(解渴)과 지우(止雨)의 욕망을 문화적으로 표출하였던 각종 기후의례의 현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기후의례의 다양한 양식과 더불어 그것이 통일된 양식과 절차로 표준화되어 가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우제등록』은 조선 후기의 기후 실상은 물론 거기에 대응하였던 기후의례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읽게 해 주는 좋은 기록문화라 할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에 유교 국가가 표출하였던 자연을 향한 위기의식과 문화적으로 축적한 실천양식을 통찰할 수 있다.

참고문헌 **祈雨祭謄錄,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용부림과 용부림꾼—용과 기우제**(최종성, 민속학연구 6, 국립민속박물관, 1999), **유교 기양의례에 관한 연구**(이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한국 기청제 연구**(최종성,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한국의 기우풍속에 관한 연구**(강용권, 석당논총 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81).

필자 **최종성(崔鍾成)**

길지(吉紙)

정의 길(吉)한 운수를 지닌 종이. 마을 제의와 관련한 길지는 매우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내포하는 의미 또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길지는 한지를 두세 겹으로 접어 길게 늘어뜨리거나 시렁에 매기도 하고, 위패나 신체(神體)를 감싸기도 한다.

서낭당 내 폐백의 의미로 건 길지
경북 울진군 연지리 내봉동, 2004.7.18
김도현

서낭당 내 쇠마를 두른 길지
강원 삼척시 가곡면 대터마을, 2010.2.27, 김도현

일부 마을에서는 종이 고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형태를 띤 길지는 모시는 신령의 신체로서의 의미, 신령에게 드리는 폐백으로서의 의미, 헌공물로서의 의미, 부정 정화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이를 한지 또는 복지(福紙)라고도 한다.

형태 길지는 마을신앙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당이나 신성 공간을 설정할 때 치는 금줄에 끼운 길지가 있다. 금줄은 왼새끼로 만든 다음 길지를 끼워 완성한다. 이때 중간 중간에 짚의 대궁 쪽이 8~10㎝ 삐쳐 나오게 만든다. 이와 같이 만든 금줄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머리에 걸릴 정도의 높이에 건다. 그 이유는 어두운 밤에도 금줄을 인지하여 잡인들이 신성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금줄에 불(佛)이나 금(禁)이란 한자를 쓴 길지를 끼우는 예도 있다. 충남 청양군 상송마을에서는 금줄에 끼우는 백지에 각종 잡신을 막기 위한 14분의 신위(神位)를 묵서한다. 이와 같이 금줄에 끼운 길지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가늘고 길게 자른 종이를 끼운 형태로 홀수가 되도록 꽂는다. 이와 같이 금줄에 길지를 꽂은 경우 대부분 길지는 잡귀잡신을 막아 주는 신령의 신체로 볼 수 있다.

둘째, 길지를 나무로 만든 위패나 신수(神樹) · 돌탑 등 신체에 실 또는 금줄을 이용하여 걸거나, 종이 고깔 모양으로 씌우는 형태가 있다. 제당에 모신 위패 형태의 신체에 신령을 새긴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

성황부부(정면)와 수부신(좌측)의 신체로서의 길지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2 · 3반, 2010.2.27, 김도현

로 덮은 마을도 있고, 제단 내에 신체의 의미를 지닌 돌에 종이를 두르고 실로 묶은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기고사를 지낼 때 깃대에 매거나 서낭대 등에 걸었으며, 배고사 등을 지낼 때 주요 장비에 실과 함께 맨 예도 많다. 강원도 삼척시 월천마을의 봉수대는 봉화 기능을 폐한 뒤 마을신앙의 처소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천제당이라고 부른다. 매년 마을제사를 지낼 때 봉수대 앞에 있는 돌에 길지를 실로 묶어 마을에서 모시는 신령으로 여긴다. 이와 함께 신수를 마을의 신령으로 모시는 마을 대부분에서는 신수에 금줄을 두르고 길지를 제단 앞 부분을 향해 걸어 둔다. 이와 같은 형태로 길지를 두른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길지를 신령의 신체로 여기고 있다. 이와 함께 돌탑을 신앙 대상물로 하는 마을에서도 돌탑 중앙에 길지를 걸거나, 돌탑 머릿돌에 길지[한지]로 옷을 입힌 예가 매우 많다. 이 경우에도 길지를 신체로 여긴 마을도 있고, 신령을 위해 폐백을 드린다고 여기는 마을도 있다.

셋째, 마을 제당 내에 시렁이나 줄을 제당 정면이나 옆에 길게 가로질러 놓았을 때 길지를 시렁에 걸어 둔 유형이 있다. 제당 정면에 걸었을 경우 별도의 위패나 당신도가 없으면 이는 당연히 모시는 신령의 신체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있더라도 신체로서의 의미일 수도 있고, 신령에게 폐백을 드린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넷째, 길지를 제당 내의 정면 좌우측 모서리나 출입문 입구에 걸어 둔 마을이 있다. 이러한 마을에서는 대부분 한지를 여러 겹으로 접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걸어 둔 마을이 많다. 이와 같은 형태로 길지를 건 마을에서는 길지를 신령에게 폐백을 드린 의미로 볼 수 있다. 경북 울진군 봉평마을에는 마을 서낭당과 해신당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 가운데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짐에 따라 해신당을 폐하고 여기에서 모신 신령을 마을 제당으로 모셔와서 마을 제당 입구 출입문 옆에 길지를 걸어 해신당의 신체로 여기고 마을제사를 지낸 뒤 술을 한 잔 올려 준다.

다섯째, 좋은 한지를 생산하는 집이나 마을에서 품질 좋은 한지를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신령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소지를 올리는 사례도 있다.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에서는 예부터 품질 좋은 한지가 생산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마을굿을 할 때 한지를 가져와서 서낭님께 소지 형태로 헌공하는 사례가 있다.

여섯째, 마을 제사를 지내는 제당을 정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길지를 살라 제당과 제관들을 정화하는 사례도 있다.

내용 길지를 일부 마을에서 소지를 올린 뒤 천장에 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제물을 진설하기 전에 걸거나 신체를 덮는다. 길지는 제당 내에 거는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기능을 구분하면 네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신체의 의미를 지닌 사례를 들 수 있다.

폐백 의미를 지닌 길지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6반, 2006.8.8 김도현

길지와 실로 위패를 두른 모습
경북 봉화군 고직령 산령각 내, 2004.8.11 김도현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대부분 마을에서 제수를 진설하기 전에 한지를 시렁에 걸거나 정면 벽에 걸기도 하고, 나무로 만든 위패나 신체로 여기는 돌 등에 실로 매어 두기도 한다. 이를 '위목을 맨다'라고 한다. 즉 한지를 성황님의 신체로 여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목을 성황님의 신체로 여겨 걸거나 또 다른 의미로 성황님께 폐백을 드린다고 하여 봉헌물로서의 의미로 여기는 사례도 있다. 즉 제당 내에 위목만 거는 경우, 위패에 '위목'이라 칭하면서 거는 경우, 위패가 있어 서낭님께 폐백드린다고 여기며 거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서낭당이 당집 형태가 아닌 신목을 위하는 마을에서도 신목에 한지를 걸어 성황님의 신체로 여기는 마을이 많다.

서낭당 내에 위패나 당신도 등이 있으면서 한지를 매는 것은 서낭님께 폐백 드리는 의미에서 봉헌한다고 여기지만 이렇게 폐백 드린다는 것은 이전에 위패가 없을 때 한지를 신체로 여겨 걸었다. 그러나 위패나 당신도를 모시는 등 별도의 신체를 모신 경우에도 예전의 전통을 이어 계속 한지를 거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가곡면 탕곡리 6반(절골)의 경우 서낭당 내부의 중앙 제단 위에 '성황사신위(城隍祠神位)'라고 한지에 묵서하여 신체로 여기면서 서낭고사를 지낼 때마다 위목이라 하여 한지를 걸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마을에서도 발견된다.

충남 외연도에서는 당주가 만선(滿船)을 기원하는 길지를 선주들에게 하나씩 나눠 준다. 길지를 받은 선주들은 오색기가 내걸린 배로 달려가 기관실 안의 서낭을 모신 곳에 묶어 만선을 기원하면서 다시 용왕제를 진행한다. 이때 선주들이 기관실 안에 맨 길지 또한 신체로 볼 수 있다.

서낭당 내 길지(신체의 의미)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5반, 2006.8.8, 김도현

이와 함께 서낭당에 서낭신과 함께 수부신을 모시는 마을도 매우 많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에서 신령으로 '성황지신신위(城隍之神神位)'라고 제당 내에 써서 서낭신을 모시면서 함께 수부신을 모신다. 이는 서낭신을 생전에 위하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서낭신을 위한 수부신으로 좌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와 유사한 예로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큰서낭에서 천씨를 수부신으로 모시는 예, 근덕면 교곡리 양지마을에서 단오굿을 할 때 이장집에서 수부상을 차려오는 예,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현내에서의 가오상 할아버지, 임원 · 장호 · 초곡 등 기타 지역에서 수부를 당신도로 그려 모시고, 별도의 제물을 차려 위하는 마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부신을 위해 별도의 제수를 준비하거나 당신도를 그려 모시는 마을에서는 위목지를 걸 때 서낭과 함께 수부신을 위한 위목지도 함께 거는 마을이 많다. 그러나 마을서낭 고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수부신에 대한 의례가 매우 약하거나 객귀와 같은 존재로 여겨 간단히 위하는 마을에서는 수부신을 위해 특별히 위목지를 거는 곳이 많지 않다.

둘째, 모시는 신령에게 폐백을 드리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지동마을에서는 서

낭제를 지낼 때 제수를 진설하기 전에 제당 내에 있는 신이 내린 돌에 씌워 놓은 고깔을 벗기고 새 고깔로 접어 씌운다. 이는 단종신에게 새 옷을 입히는 의미로 보인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노고소마을 서낭제에서는 제당 정면 위패 위에 예단이라 불리는 한지와 실타래로 묶은 북어를 한 마리씩 걸어 두었다. 대전시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에서 탑제를 지낼 때 제를 지내기 전에 고양주는 탑 윗돌에 사고지를 입히고 새끼를 둘러 옷을 입힌다고 한다. 충남 금산군 부리면 아랫담 · 윗담마을 탑제에서는 탑의 머릿돌에 한지로 옷을 입힌다고 한다. 이들 마을에서 길지를 걸어 둔 것은 폐백을 드리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길지는 부정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다. 즉 마을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당 내외와 제관들의 부정을 벗겨내기 위한 행동으로 한지를 사르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돌탑 위의 꼭지돌에 한지로 옷 입힌 전경
충북 영동군, 2005.3.18, 김도현

폐백 의미를 지닌 길지
강원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2010.6.16
김도현

넷째, 길지는 신을 의미하거나 신의 손길이 닿은 것이기 때문에 영험함이 스며 있다. 많은 마을에서 길지에 한자를 쓰거나 공부할 때 연습장으로 이용하면 글씨를 잘 쓰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믿는다. 일부 마을에서는 제당 내에 있는 길지를 가져와서 연을 만들어 날렸다는 마을도 있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장재터 서낭제에서는 소지를 모두 올리고 나서 한지를 실과 함께 제당 내 천장에 매단다. 그리고 제당에 묶어 둔 한지를 일부 거둬 연을 만든다. 마을 어른과 아이들은 제당의 한지로 연을 만들어 높이 띄워 날리다가 놓아주면 이것을 묶은 액을 날려 보내며 마을에 축복을 내려 달라고 기원하는 행위로 보았다.

이와 같이 길지를 마을 제당 내부나 외부에 어떤 형태로 걸었느냐와 더불어 제당 내 위패, 당신도 등에 따라 길지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마을 단위로 마을 주민들이 길지를 어떤 성격으로 여겼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영동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이관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삼척 임원리 굿과 음식**(김도현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한국의 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김도현(金道賢)**

김부대왕

정의 신라 제56대 왕(재위, 927~935)으로서 성은 김(金), 이름은 부(傅)이며 후대에 마을공동체 신으로 추앙된 인물신격.

역사 김부대왕(경순왕)은 927년 후백제 견훤의 신라 침공으로 경애왕이 사망한 뒤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이미 후백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영토는 날로 줄어 왕경을 제외한 국토 대부분을 잃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국가재정을 지탱할 길이 막힌 데다 민심마저 떠난 최악의 상황이었다. 또한 935년에는 후백제의 왕인 견훤이 장남 신검(神劍)을 비롯한 형제들에 의해 유폐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금산(金山)의 불사(佛寺)에 유폐된 견훤은 3개월 뒤 탈출하여 고려로 망명한다. 이렇듯 신라를 둘러싼 정세가 더 이상 고려의 보호국 처지에서 나라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자 경순왕은 935년 고려에 귀부(歸附)한다. 고려 태조는 유화정책을 펴 경순왕에게 유화궁(柳花宮)과 경주를 식읍으로 하사하고 정승공(政丞公)에 봉하였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자 고려 초의 문신으로 살다가 978년에 일생을 마쳤다. 능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으며 1975년 6월 25일에 '사적 제244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역사적 인물이 신격화되는 중요한 동인(動因)은 뛰어난 재주가 있거나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라는 요건 등을 지녀야 한다.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비운의 왕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신격으로 추앙받게 하는 계기가 된다. 즉 비극적 삶에 대한 연민이 신격화에 크게 작용한 것이다.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하자 고려 태조는 경순왕을 우대한다. 장녀 낙랑공주를 경순왕의 아내로 삼게 하고, 경주를 식읍으로 하사하면서 정승공에 봉하여 위계(位階)를 태자 위에 놓이게 하는 등 대우를 해 준다.

개경에 도착한 경순왕은 고려 태조에게 칭신(稱臣)하겠다는 글을 보내게 되고, 태조가 일단 물리쳤으나, 고려의 신하들은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땅에 두 임금이 없다"고 하면서 경순왕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간청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고려 태조가 특별대우를 해 주긴 했지만 일국의 왕으로서 삶과 신하로서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급격한 신분 변동임이 틀림없다. 경순왕이 귀부하기 위해 개경으로 가는 광경을 『고려사(高麗史)』에서 묘사하고 있다.

> "신라왕이 백료(百僚)를 거느리고 왕도를 떠남에 사인(士人)과 서민(庶民)들이 다 뒤를 따르는지라. 향차(香車) 보마(寶馬)가 연달아 30리에 뻗치고, 길을 가득 메워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둘러친 것 같았다."

이러한 일은 일찍이 유래가 없던 사건으로 백성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은 민중에게 연민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로서 경순왕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다. 즉 나라를 양도한 무능력한 왕으로서의 면모는 숨어 들고 백성들을 위해 천년을 이어온 왕조를 포기한 면이 강조된 것이다. 이로써 경순왕은 민중의 영웅으로 부각되면서 차츰 영험함을 지닌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어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룡 또는 마을 수호신으로 부활한다. 민중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나 세세한 사적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적 시각을 투영시켜 새롭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김부대왕을 신격으로 모시는 제당으로는 시흥시 군자봉 성황당, 안산시 잿머리 성황당, 우음도 음섬 성황당, 수원시 평동 벌말 당집, 인제군 김부리(金富里) 대왕각(大王閣) 등이 있다. 현재 당집은 소실되었으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의 당제에서도 김부대왕을 신격으로 모시고 있다.

경기도 서부지역의 제당에서 김부대왕을 신격으로 많이 모시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시흥 군자봉 성황당과 안산 잿머리 성황당은 인접해 있으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시흥 군자봉 성황당에서의 김부대왕은 중심 신앙 대상이며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데 반해 인근의 안산 잿머리 성황당에서의 김부대왕은 홍씨부인을 못생겼다는 이유로 소박하여 부인과 함께 장모(안씨)까지 원혼이 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안산 잿머리 성황당에서는 원혼이 된 부인과 장모가 서희(徐熙)의 꿈에 나타나 송나라 사신행을 도왔다는 이야기로, 중심인물은 두 부인과 서희이며 김부대왕은 보조인물로서의 기능만 담당한다. 이것은 두 지역의 유가돌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시흥 군자봉 성황제에서는 김부대왕 서낭대 하나를 들고, 안산 잿머리 성황제에서는 안씨와 홍씨 두 개의 성황대를 들어 각각의 당에서 모시는 중심 신격이 누구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또한 시흥 군자봉 성황당에서는 부인이 안씨부인이고, 장모가 홍씨부인인데 반해 안산 잿머리 성황당에서는 홍씨가 부인이고 안씨가 장모로 뒤바뀌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인접한 두 제당에서 안씨 · 홍씨부인과 김부대왕을 신으로 모신다는 상호관련성 속에서 김부대왕이 중심 역할을 하느냐 두 여인이 중심역할을 하느냐, 안씨와 홍씨가 시흥 군자봉에서는 부인과 장모로 나타나고 안산 잿머리당에서는 장모와 부인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김부대왕에 관한 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크게 경주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호국룡형'과 경순왕의 유적지를 따라 전승되는 '신격형'이 있다. 이들 전설은 비록 현실에서는 왕으로서 무능력했을망정 죽어서는 백성들을 위하는 임금으로 묘사된다. 현실에서는 패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 경순왕의 양위가 오히려 백성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경순왕과 관련된 유적으로 경주 숭혜전(崇惠殿), 하동 경천묘(敬天廟), 보령 경모전(敬慕殿), 영주 숭은전(崇恩殿), 평창 숭인전(崇仁殿), 경주 대왕전(大王殿), 월악산 덕주사(德周寺)와 세계사(世界寺)가 있다. 또 원주 용화산 미륵상과 인제 갑둔리5층석탑에 얽힌 경순왕 전설 등이 있다.

백성들은 김부대왕을 동정하고 숭앙하면서 각지에 제당과 사당을 세웠다. 이렇듯 각지에 김부대왕을 모시는 당이 세워진 것은 민중의 신으로서 김부대왕이 그만큼 깊이 뿌리내렸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일대의 석탑**(신종원, 고문화 42 · 4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3), **경기도의 굿**(하주성, 경기문화재단, 1999), **경순왕 설화의 형성 배경과 의미 연구**(김용덕,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경순왕의 귀부와 고려초기 신라계 세력의 기반**(황선영, 한국중세사연구 14, 한국중세사학회, 2003), **구비담론으로 본 군자봉 성황제**(장장식,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보령의 동제**(대천문화원, 2001), **수원문화의 뿌리**(김용국 · 설성경, 수원문화원, 2000),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시흥 군자봉성황제**(황인완, 포 굿과 음식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시흥 군자봉 성황제의 절차와 성격**(이용범, 시흥군자봉 성황제, 시흥문화원, 2005), **시흥 · 안산의 성황신과 성황당 설화**(송화섭, 시흥군자봉 성황제, 시흥문화원, 2005), **안산 잿머리성황제**(김헌선, 포 굿과 음식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마을제당 3**(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의 성황신앙과 군자봉 성황사**(서영대, 시흥군자봉 성황제, 시흥문화원, 2005).

필자 김창일(金昌一)

김제월촌입석(金堤月村立石)

정의 전라북도 김제시 입석동 입석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신체(神體)인 당산할머니 입석(선돌). 1974년 9월 27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입석마을은 김제 시내에서 벽골제 가는 방향으로 약 1.5㎞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마을은 본래 김제군 월산 지역에 속하였으며, 마을 어귀에 큰 돌이 서 있어서 선돌 또는 입석이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남산리 · 동두리 · 제남리의 각 일부와 대촌면의 진가리 · 반월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입석리라 불렀다. 1990년에는 김제군이 김제시로 승격됨에 따라 입석동으로 구역 명칭이 바뀌었다. 입석마을은 현재 2010년 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논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다.

이 마을의 입석은 도로 맞은편 길가에 세워져 있다. 네모꼴 석주(石柱) 형태의 화강암으로 된 이 입석은 높이 210㎝, 둘레 62㎝이다. 세워진 연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만 벽골제를 쌓은 뒤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어떤 장수가 벽골제 돌을 옮겨 세운 장승이라는 설화가 전한다. 주민들은 이 입석을 당산신으로 모시면서 '할머니당산' 또는 '미륵님'이라고 부른다.

본래 선돌이 있는 위치가 길가에 접해 있다 보니 줄다리기를 할 경우 자동차의 잦은 왕래로 인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12월 김제시에서 이곳으로부터 200여 m 위쪽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현재의 입석과 쌍을 이루어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고 옛 민속을 오래도록 보존한다는 취지로 별도의 입석과 제단, 기념비문을 새긴 기념비, 팔각정자 등을 갖추었다. 이 공원에서 줄다리기 행사가 진행되며, 주민들은 이곳을 '행사장'이라고 부른다.

월촌입석
전북 김제시 입석동
2005.2.22. 김성식

고고학에서는 입석의 유래를 신석기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선돌(menhir), 즉 거석(巨石)문화에서 찾는다. 그러나 민속신앙적 측면에서의 입석은 형태와 기능이 훨씬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물로서 관련된 민속의례가 수반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입석은 대부분 자연석 돌기둥, 즉 석주 형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는 모습으로의 변형을 위해 인공적인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입석의 기능은 크게 비보 역할을 하는 풍수적 기능과 마을공동체 민속신앙의 대상이 되는 종교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입석의 풍수적 기능은 외부로부터 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여 마을을 안전하게 방어,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기능을 목적으로는 수구(水口)맥이, 수살(水殺)맥이, 화재맥이, 돛대바위, 성기(性器)바위 등이 있다.

또 입석은 종교적 기능을 지닌다. 종교적 기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 신격(神格), 의례(儀禮)가 필수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입석은 곧 신체가 된다. 신격은 '당산할아버지', '당산할머니', '미륵'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의례는 개인신앙 차원에서 행하는 의례와 주민 일체가 합심으로 행하는 공동체신앙의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마을공동체신앙은 당산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매년 마을별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제관 선정과 제비 마련에서부터 제물 구입 및 장만, 금기 엄수, 관련 의례 수행, 이튿날의 파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입석을 중심으로 종교적 엄숙함과 축제적 신명풀이를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김제 입석줄다리기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내용 입석 당산제는 줄다리기와 병행한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명칭도 당산제보다 줄다리기가 강조된 '입석줄다리기'라고 부른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줄다리기 주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석 묵은 줄 제거 정월대보름날 아침에는 입석에 감겨 있는 묵은 줄을 제거한다. 일 년 가운데 입석의 신체가 드러나는 시간은 이날 하루뿐이다. 제거한 줄은 태운다. 과거에는 이 묵은 줄이 피부병에 좋다고 하여 주민들이 다투어 가져갔다고 한다.

2. 줄 제작 정월대보름날 아침에는 볏짚으로 줄을 제작한다. 과거에는 정초부터 농악을 치면서 가가호호 지신밟기 및 건립을 하여 당산제 비용과 볏짚을 해결했지만 현재는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당산제 자금으로 구입한다. 줄은 마을 뒷산의 소나무 가지를 시렁 삼아 걸쳐 놓고 잡아당기면서 제작한다. 줄꼬기에는 일곱 명이 한 조가 된다. 세 명이 한 가닥씩 잡고 줄을 꼬면, 다른 세 명은 그 옆에서 볏짚을 한 주먹씩 추려 메긴다. 나머지 한 명은 소나무 가지에 걸쳐 놓은 줄을 끌어당기며 줄의 길이를 가늠하고 팽팽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방식으로 3조가 동시에 줄을 제작한다.

줄은 암수로 나뉘는 쌍줄이다. 먼저 세 갈래씩 꼬아 가닥줄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가닥이 여섯 개며,

전북 김제시 입석동, 2005.2.23, 김성식

암줄과 수줄의 고놀이

암줄과 수줄의 결합 장면

줄다리기

당산옷입히기

길이는 30m쯤 된다. 이어서 암줄과 수줄을 제작한다. 세 가닥을 다시 하나의 암줄과 수줄로 들이는 과정이다. 이때는 줄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힘을 합해 줄이 엉키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돌리면서 줄을 하나씩 완성한다. 줄을 디리는 마지막 과정은 암줄과 수줄을 상징하는 '고' 제작이다. 고는 줄 머리를 중심으로 5m 정도를 새끼줄로 촘촘히 감고, 이 부분을 둥그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제작한다. 수줄은 암줄에 비해 고의 형태를 상대적으로 길쭉하게 만들고, 암줄은 수줄에 비해 둥그렇고 크게 만든다. 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고의 크기를 두고 음담패설을 섞어가며 옥신각신한다. 암줄 고의 둘레가 "너무 작다", "고가 작으면 약 먹으면 된다", "거기에 참기름을 바르면 된다", "큰 거보다 작은 게 낫다"는 등이 그것이다. 고 만들기를 끝으로 줄 제작은 마무리 되며, 줄의 굵기는 50㎝ 정도이다.

3. 풍물패 판굿 현재 입석줄다리기는 주민들이 주도하지만 일부 공식행사는 김제시가 주관한다. 정월대보름날 오후에는 풍물패가 행사장에 도착하여 길놀이를 시작함으로써 당산제를 축제의 분위기로 몰아간다. 오후 5시쯤에 줄다리기할 줄을 암수 고가 마주보는 모양으로 광장에 늘어놓고, 풍물패는 줄을 앞뒤로 돌며 줄굿을 친다. 해질 무렵이 되면 풍물패의 판굿이 시작된다. 판굿 진행을 가락 명칭으로 개략하면 오채우질굿(늦은 질굿, 빠른 질굿), 빠른 좌질굿, 풍년굿, 양산도, 삼채, 매도지, 휘모리, 오방진(동살풀이, 자진오방진, 삼채, 휘모리), 호허굿, 다루치기, 흩삼채, 매도지, 삼채가락 순이다.

4. 고놀이와 줄다리기 보름달이 떠오르면 남자들이 수줄을 어깨에 메고, 여자들은 암줄을 멘다. 이 상태에서 고놀이는 시작된다. 다만 암줄 머리에 있는 10여 명은 고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지원한다. 고놀이는 암줄과 수줄이 줄혼례를 위해 결합을 시도하며 즐기는 과정을 말한다. 수차례 결합을 시도하지만 암줄 고가 받아주지 않아서 번번이 실패하는 놀이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육담과 음담패설이 난무한다. 이윽고 수줄 고가 암줄에 삽입되면 어른 키만한 말목이 비녀처럼 꽂히면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징소리를 신호로 곧바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줄다리기는 세 판을 겨루며, 여성들의 승리로 귀결된다. 원래의 장소에서 줄다리기를 할 때에는 그곳이 고갯길의 오르막이어서 암줄은 아래쪽, 수줄은 위쪽에 각각 자리함으로써 암줄이 유리하다고 한다. 게다가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들은 여자편이 되고, 줄다리기 과정에서 싸리나무 회초리를 든 할머니들이 남자들의 손등을 때리거나 수줄을 잡고 흔드는 등 암줄의 승리를 짐짓 유도하였다고 한다. 줄다리기 할 때에는 줄이 끊어져야 좋다는 속설도 전한다. 이 때문에 심지어 줄을 잡아당길 때 몰래 낫이나 칼로 줄을 끊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5. 당산 제사 줄다리기가 끝나면 수줄은 행사장 왼쪽에 새로 세운 입석으로 이동하여 줄감기를 하며, 동시에 암줄은 200여 m 떨어진 마을 어귀로 이동하여 주민 서너 명이 줄꼬리부터 입석에 줄을 감아올린다. 이를 '당산에 옷입힌다'고 한다. 줄감기 후에 제상이 차려지고, 당산 제사가 이어진다. 과거에는 깨끗하고 궂은 데 가지 않고 집안에 초상이나 임신부가 없는 사람 가운데에서 제관을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통장이 제주가 된다. 제사는 유식(儒式)으로 분향재배-강신재배-독축-계반삽시-철시복반-헌주-음복-철상 순으로 진행된다. 제사가 끝나면 부녀자들이 잔에 술을 부어 입석에 헌주하고 비손하는 의식을 행한다. 입석 당산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乙酉年甲子朔正月十五日戊寅村長(宋在九)敢昭告于
立石堂山 土地之神 伏以本洞一村
今年運數 家家泰平人人安康 五穀登豊 六畜繁殖
祈願于神 謹以淸酌 脯果祗薦 于神
尙饗

과거 어느 해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볏짚을 구할 수 없어서 줄다리기를 못했으며 그해에 괴질이 들어 젊은 사람 일고여덟명이 죽은 적이 있다. 그 뒤로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볏짚을 구해 줄을 당기고 입석에 옷을 입혔다고 한다. 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출장서장이 줄다리기를 못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정월대보름 직후에 출장서장이 주당을 맞아 갑자기 병을 얻었다. 게다가 출장서장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네 이놈! 네가 왜 내 옷을 못 입게 하느냐?' 고 호통을 치는 선몽을 했다. 그 꿈에 놀란 서장이 줄을 꼬게 허락해 그해 2월 볏짚을 구해 입석에 옷을 입혔다고 한다.

참고문헌 **경기지역 선돌유적과 그 성격**(하문식, 고문화 7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8), **전남의 입석과 조탑에 관한 고찰**(표인주, 비교민속학 12, 비교민속학회, 1995), **전라북도 마을지킴이 · 정악**(전라북도, 2004), **충북의 민속문화**(이창식, 푸른사상, 2003), **한국의 마을신앙 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김성식(金盛湜)**

제의
나주용진당제
남원삼동굿
남해물건리동제
노신제
논산반곡리산신제
논산부인당산제
논산주곡리장승제
농포제

제의장소
남양주덕릉마을산신각
남양주팔현마을산신당
남원서천리당산
논공천왕당

신격
노고할미
농포신

신체
남해가천암수바위

제구
농기

자료
논산양암동계문서
논산후동동계문서

나주용진당제
남양주덕릉마을산신각
남양주팔현마을산신당
남원삼동굿
남원서천리당산
남해가천암수바위
남해물건리동제
노고할미
노신제
논공천왕당
논산반곡리산신제
논산부인당산제
논산양암동계문서
논산주곡리장승제
논산후동동계문서
농기
농포신
농포제

나주용진당제

정의 전라남도 나주시 안창동 제창마을 당제. 마을의 액운 방지와 안녕, 풍수해 예방 등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신앙.

역사 제창마을은 영산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평산 신씨(平山 申氏), 전주 이씨(全州 李氏), 밀양 박씨(密陽 朴氏), 밀양 손씨(密陽 孫氏) 등이 살고 있다. 제창이라는 마을 이름은 1763년 흉년을 대비하여 삼남지방에 양곡을 저장할 창고 터를 정할 때 전라우창으로 제민창(濟民倉)이 설치되면서 붙여졌다고 한다. 이곳 제민창은 나주, 남평, 영암, 무안, 광주, 함평 등지의 빈민 구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세곡을 운반하고 물산을 운송할 수 있는 수운의 통로인 영산강이 흐르는 곳이다. 이 때문에 제창마을은 영산강의 수운을 활용해 교역이 활발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을 때는 700여 가구에 이르렀다. 그만큼 제창마을은 제창포라는 나루가 있어 고깃배와 소금배 등이 들어와 정박하곤 했고, 나루 주변에 상점들이 들어서고 외지에서 장사꾼이 많이 몰려와 번성하였다고 한다. 제창포가 쇠락하면서 마을은 점차 축소되어 지금은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은 영산강과 인접해 있어서 여름에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돼 매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특히 홍수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면 벼를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컸으며, 예전에는 2년에 한 번 이러한 피해를 보다가 영산강 하굿둑이 조성되면서 피해가 줄었다고 한다.

유래 이 마을 위쪽의 당을 지신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당집의 현판이 「용진당(龍津堂)」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지신당이 곧 용진당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나주 목사가 고려 때부터 제단을 설치하여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으며, 영산강을 따라 내려가 제주도 · 진도 · 흑산도로 건너가거나 멀리 중국 사행길을 떠나는 배들이 모두 해난사고가 없게 해 달라고 용왕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용진당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 가난한 집 총각이 부잣집 딸과 사랑을 나누었으나 부잣집에서 결혼을 반대해 그만 총각은 물에 빠져 죽어 구렁이가 되었다. 그러자 처녀는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었다. 부잣집에서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죽은 총각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바위 위에서 무당굿을 벌였다. 이때 구렁이가 나타나 바위 가에 앉아 있던 처녀의 몸을 휘감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 해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은 이 모두가 처녀와 총각이 품은 원한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용진당을 세웠다.

이처럼 처음에는 용진당에서 제사를 모시다가 후대에 지신당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지신당의 제당은 주위에 돌담이 있었고, 정면 한 칸과 측면 한 칸에 앞에는 퇴주(退柱)를 둔 맞배기와지붕 건물이다. 상량문에 1930년에 세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옛 건물이 이때 재건축된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대폭우로 당집이 붕괴된 뒤 그 안에서 1836년(헌종 2)이라고 기록된 당할아버지 영정과 제물을 운반할 때 쓰이는 각종 도구 및 제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1989년에 중수했다. 현판은 「산신당(山神堂)」이라 했고, 영정은 1981년에 도난당하여 당시 전라도 광주에 사는 화가가 다시 그린 것이라고 한다.

내용 **1. 제당의 구성** 당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열흘날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사이에 지낸다. 당제를 모시는 제당은 모두 다섯 곳이다. 당집은 마을 위쪽에 있고, 마을 주위 네 곳에 당산나무가 있다. 당집은 한 칸의 맞배기와지붕이며 주변에 돌담이 있다. 당할아버지 영정이 당집 안 전면에 모셔져 있고, 그 앞에 제상이 있으며, 왼쪽 벽에는 당제를 모실 때 사용하는 제기를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4당산은 나무의 이름을 붙여 부른다. 당집 앞에 있는 팽나무는 본당산, 마을회관 옆에 있는 느티나무(수령 350년, 수고 20m, 나무둘레 3.3m)는 정자나무당산, 마을 서쪽의 양묘장 건너편의 느티나무(수령 350년, 수고 20m, 나무둘레 3.2m)는 느티나무당산, 마을 동쪽에 있는 팽나무는 윗당산 또는 솔당산이라고 각각 부른다. 느티나무당산 아래에는 입석 1기가 있다. 여기서 정자나무당산이 남성의 휴게공간이라면 윗당산은 마을의 뒤에 위치한 관계로 여성들의 쉼터 역할을 한다.

2. 당제 준비 제관은 정월 초사흗날에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한다. 회의 참석자는 주로 각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들이며 이들이 제관 6명을 선정한다. 제관은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회의 참석자들은 제관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선정한다. 특히 초상난 집이거나 산모가 있으면 우선 제외하고, 심지어 젖먹이 아이가 있거나 처녀가 있는 집도 제외한다. 그러다 보니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 집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 제관은 도유사와 제관 4명으로 구성된다. 도유사는 당제와 관련된 일체의 일을 책임지며, 제물을 준비하거나 제사 비용을 거출하고 결산하는 일 등 제사의 모든 부분을 관장한다. 도유사는 매년 추석 전에 당집을 청소하고 주변의 풀을 베어 정리한다. 이것을 '벌초한다'라고 부른다. 제관 4명은 도유사와 함께 당집에서 제사를 마치고 나면 각자 제상을 4곳의 당산으로 옮겨 가서 각자가 각각의 당산나무에 가서 제사를 모시는 역할을 한다.

제비(祭費)는 당제와 관련된 마을기금을 사용한다. 예전에는 논 660여 ㎡와 약간의 밭이 있었지만 마을회의를 통해 이들 논과 밭을 처분하여 발생한 자금을 모아 마을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제사를 지낼 때 활용한다고 한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나 객지에 나간 사람들이 정성으로 돈을 내어 당제의 비용에 보태기도 한다.

도유사와 제관의 선정이 끝나면 정월 초닷새 즈음에 마을에서 깨끗한 집을 선정하여 제주(祭酒)를 담근다. 제주를 담그는 집은 주로 도유사나 제관의 집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주를 담글 때 제주가 완성되기까지 일정한 장소에 둔다. 그곳은 안방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안방을 드나들 수 없고 거주할 수도 없다. 제주를 앉히기에 앞서 초나흗날 저녁에 당샘을 청소한다. 청소가 끝난 뒤 금줄을 치면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주를 담글 물을 사용하고 나면 잠시 금줄을 거두어 두었다가 초아흐렛날에 다시 금줄을 친다. 제물을 준비할 때 필요한 물도 이 샘물을 길어다 사용한다.

제물이 준비되기 시작하면 제관은 당연히 소변을 본 뒤에 손을 씻고, 대변을 본 뒤에 목욕재계를 해야 한다. 또 제관은 초닷샛날부터 당제를 모실 때까지 상갓집에 가는 등 궂은일을 보거나 궂은 곳에 가서는 안 되며, 부부 동침도 안 된다. 제관들의 집 앞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당집 입구에는 농악의 영기를 양쪽에 세워 둔다. 당제를 모시기 전에 마을에 초상이 나면 초상집에 금줄을 치고 상주들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마을 사람 역시 상갓집에 가기를 꺼리며, 부득이 문상을 한 사람은 당제에 참여할 수 없다. 마을에서 출산이 있으면 마을 밖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며, 심지어 소나 돼지, 개 등 가축의 출산도 마을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물은 제주를 담근 집에서 준비한다. 제물은 당제를 모시는 당일에 준비하고, 장을 보는 것은 제사 직전에 영산포나 나주 장을 이용한다. 장보러 가는 것은 도유사와 제관들의 몫이며, 품목은 대추, 밤, 두부, 무, 미역, 김, 포, 미나리, 명태, 백지, 쇠고기 등이다. 장을 보면서는 물건 값을 깎지 않는다. 장을 다 보면 그것을 제물 준비하는 집으로 가져간다. 제물을 준비할 때에는 제관들만 참여한다. 이때 이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마개를 하고, 제물에는 양념은 물론 소금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물의 간을 봐서도 안 된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면서 돼지를 잡는다. 돼지는 깨끗한 집에서 고른 수컷이면서 검어야 한다. 돼지를 잡으면 당제 준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3. 당제 진행 당제를 지내는 날부터 풍물굿을 치기 시작한다. 당제의 시작은 오후 5~6시에 제물을 장만한 집에서 당집으로 제물을 옮기면서부터이다. 제물을 운반할 때에는 당집에 보관된 운반구를 이용하고, 풍물패와 더불어 제관 일행이 뒤따른다. 제물이 당집에 도착하면 제관들만 당집으로 들어가 제물을 진설한다. 당집에는 풍물패나 마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 풍물패는 당집 주변을 돌면서 굿을 치고, 마을 사람들은 밖에서 대기한다. 제상은 민가의 기제사상과 큰 차이가 없다. 음식으로는 삼색실과, 삼채, 탕, 포, 과자, 메, 팥 등이다. 제사는 진설-분향-초헌-아헌-종헌-독축-헌식-음복-소지-철상 순으로 이루어진다. 당집에서 마을 사람 모두를 위해 소지를 올리고, 제물과 제비를 희사한 사람들은 가족 수만큼 소지를 올려준다. 당집에서 제사가 끝나면 네 당산을 모시는 제관들

이 각자 준비된 제물을 들고 네 당산으로 향한다. 제관들은 제물을 당산나무 앞에 차리고 간단하게 술을 올린 다음 재배한다. 그런 뒤 제물을 백지에 싸서 그 옆에 묻고 본인과 가족의 소지를 올리면 끝난다. 당제 의식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복을 하면서 결산을 한다. 이때 마을에 기금을 낸 사람에 대해 공표하고 제사 일체를 정리한다. 예전에는 줄다리기를 했다고 한다.

의의 나주용진당제는 전형적인 강변지역 마을신앙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고을 단위 공동체신앙이 마을신앙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시적인 민속신앙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특히 마을신앙의 신체와 신격의 변화 양상은 마을신앙의 변동 양상을 연구하는 데 종교사적 가치가 있고, 제창마을의 생태적 조건의 변화와 역사적 환경의 영향으로 마을신앙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향토사 및 지역사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참고문헌 광주 · 전남의 당산제 연구(나경수, 남도민속연구 5, 남도민속학회, 1999), 나주목지(정윤국, 1989).

필자 표인주(表仁柱)

남양주덕릉마을산신각

정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163번지 덕릉마을에 위치한 산신각으로, 마을공동체 신앙을 위한 제의 장소. 1996년 12월 24일에 '경기도 민속자료 제9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덕릉마을산신각은 마을 어귀 오른쪽(동쪽)의 낮은 야산 위에 있으며, 서쪽을 정면으로 보고 자리 잡고 있다. 산신각이 지어진 산 위에서 보면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마을회관 뒤쪽에서 10m 정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덕릉마을은 조선시대 14대 왕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묘 덕릉 아래에 있는 마을이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신각은 약 972㎡의 대지에 한 칸 크기의 목조기와집으로 지었다. 가로 4m, 세로 6m의 낮은 시멘트

덕릉마을산신각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마을, 2010.6.2
김지욱

기단 위에 정면 350㎝, 측면 300㎝ 크기의 방을 뒤쪽으로 앉히고 정면 왼쪽과 오른쪽에 지름 90㎝의 기둥을 330㎝ 간격을 두고 세워 앞부분을 비운 전당후실(前堂後室)형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기와를 얹고 단청을 그려 큰 사찰의 산신각처럼 규모 있게 잘 지었다. 전당 전면에는 「산신각」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고, 맞은편에는 상량기를 적은 현판을 걸어 두었다. 후실의 전면은 여섯 쪽의 판벽과 판문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책거리, 꽃, 쌍화문 등으로 단청을 하였다. 뒷벽의 윗부분에는 단청색 바탕에 담뱃대를 입에 문 흰 호랑이와 마주보고 앉아 담뱃불을 붙여 주는 흰 토끼 그림을 그렸다. 산신각 주변에는 철 구조물로 울타리를 쳐 놓았으며, 울타리 밖에 산신각을 정면으로 두고 윗면이 너른 돌(가로 115㎝, 세로 93㎝, 두께 50㎝)을 두 개 겹쳐 제단을 마련해 놓았다.

산신각 내부에는 높이 90㎝, 폭 60㎝의 나무선반을 왼쪽 · 오른쪽 · 정면의 삼면으로 설치해 제단을 만들고 정면에 산신도를 모셨다. 소장된 제구(祭具)는 없으며, 신체(神體)로는 산신도를 모시고 있다. 산신도는 제당 정면에 가로 170㎝, 세로 120㎝의 액자에 걸어 두었다. 산신도의 중앙에 망건을 쓰고 흰 수염을 기른 산신이 부채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으며, 산신의 오른쪽 뒤로 선도낭자(仙桃娘子)와 두 명의 동자가 서있고 한 명의 다승(茶僧)이 앉아서 주전자에 물을

덕릉마을산신각
뒷벽 벽화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마을, 2010.6.2
김지욱

덕릉마을산신각 산신도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마을, 2010.6.2
김지욱

끓이고 있다. 산신의 왼쪽으로는 호랑이 한 마리가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다. 현재 산신도는 도난을 우려하여 마을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산신당에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어 두었다. 마을에서는 이 그림을 오래전 홍국사 주지인 범화 스님이 그렸다고 알고 있다. 홍국사에도 똑같은 산신도가 있었지만 예전에 도난을 당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도를 산신각 탱화라고 부른다.

역사 덕릉마을산신각 정면에 걸린 현판에는 1882년에 세워진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 이전에 있던 산신각은 불이 나서 소실되었다. 이 현판에는 대동질(大同秩), 당현(塘峴), 순화궁(順和宮)의 제목 아래 산신각을 새로 지을 당시 비용을 추렴한 사람들의 명단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마을의 산신각은 낡고 허물어져 1996년 경기도 민속자료로 지정되면서 완전 보수를 거쳐 지금의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다.

내용 덕릉마을 사람들은 수락산 산신을 산신각에 모시고 있다. 이곳에서 드리는 제의는 산제라고 한다. 제의는 매년 음력 정월과 시월에 지낸다. 정월 초하루와 시월 초하루에 날을 잡으며, 초사흘을 넘지 않기 위해 날을 잡는 당일이 제일(祭日)이 될 수도 있다. 날짜가 길어지면 부정을 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초사흗날 이내로 정하며, 부정이 있으면 그 달 제사는 거른다. 어떤 해에는 마을에 초상이 나서 제를 거르기도 하지만 마땅한 화주가 없어서 제를 거르기도 하였다.

제일이 정해지면 화주 한 명과 축관을 선정한다. 제관은 따로 선출하지 않고 산신제에 참여하는 동네 모든 사람이 제관이 된다. 몸이 깨끗한 사람을 화주로 선정한 뒤 그날 마을 방송으로 화주가 선정되었음을 알린다. 이 마을의 제사는 1980년대 말부터 많이 간소화되었다. 제사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낸다. 산신제에 참여하는 가구는 36가구이지만 이곳에서 살다가 나간 10가구 정도가 산신제 비용을 내고 있다. 예전에는 자루를 지고 다니면서 한 집에 한 되씩 쌀을 걷었다. 현재는 제비를 제사 전에 걷지 않고 화주로 선정된 사람이나 이장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제가 끝난 뒤 가구 수만큼 나누어서 받는다.

이 마을에서는 산신이 영험하여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조심하여야 한다는 금기가 전한다. 화주가 집에서 떡을 찌거나 메를 지을 때 나오는 쌀뜨물은 산제사가 끝날 때까지 소에게 먹일 수 없었다. 제사를 끝내기 전 먹이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았다고 하며, 떡방아도 깨끗한 여자들이 와서 쌀을 빻고 백설기를 쪄야 한다. 제물 종류에서도 금기가 있다. 이 마을에서는 산제 제물에 사과를 절대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과일은 사과를 제외한 대추, 밤, 곶감 등을 올린다. 산적, 북어포, 쇠머리, 삼색나물(미나리, 무, 숙주), 튀각, 후추, 탕, 새옹메 두 솥을 올린다. 술은 약주로 준비한다. 제물 준비는 과거 화주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은 뒤에 했지만 1996년부터 마을회관에서 한다. 마을회관 뒤에는 산신제 음식을 준비하던 마을 우물이 있다. 지금도 제일 전날 우물을 품고 우물에 금줄을 두른 다음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황토를 마을회관 문 앞에 뿌려 놓는다. 밤 10~11시 사이에 산신각으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올라간다. 제물 내용은 정월과 시월이 같다.

제의 절차는 유교식으로 이루어진다. 제물을 진설한 뒤 술을 한 잔 부어 놓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절을 한다. 이어서 축문을 읽고 잔을 올린 다음 절을 하고 물러난다. 소지는 가구당 집 소지를 올린다. 산신각 제사가 끝나면 새옹메와 삼색나물을 들고 나와서 산제당 울타리 밖에 있는 돌 제단에 올려놓은 뒤 삼배

를 올리고 제사를 끝낸다.

1996년 이전만 해도 축문 없이 제를 지냈다. 1996년에 산신각이 민속자료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전주 이씨 시제(時祭)를 담당하는 어른을 찾아가 축문의 기본 틀을 받아 왔다. 산제에 참여하는 인원은 정월과 시월에 차이가 있다. 정월 산제에는 명절을 맞아 고향에 온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시월에는 참석 인원이 많아야 열 명 남짓이다.

산제가 끝나면 밤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음복하고 아침에 산제에 올린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결산도 함께한다. 화주나 이장이 먼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떡을 나누어 주면서 돈을 받는다. 덕릉마을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을 '노나매기친다'라고 하고, '산신각 노나매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의 산제는 1980년대 말부터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단잔단배에 축문과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산신당에 본제를 올리고, 제당 밖에 있는 제단에도 간단하게 제물을 올리는 절차이다. 이러한 제의 내용은 전통적인 무속의 산신신앙과 불교, 유교 의례의 요소가 융화되어 조선시대에 형성된 전형적인 마을공동체 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재 이 마을의 안쪽 골짜기에는 599년에 지어진 수락산 흥국사가 있으며 1950년쯤에는 산신제와 도당굿을 함께 행하던 큰 마을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이 마을에는 약 2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김지욱,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1999), **남양주시지 3**(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현지조사**(2010년 6월 2일).

필자 **김지욱(金志昱)**

남양주팔현마을산신당

정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1리 원팔현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산신당으로, 마을 원주민들이 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신앙의 제의 장소.

형태 제당은 원팔현마을이라고 쓴 비석이 있는 마을 어귀를 지나 우측으로 난 길 오른쪽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제당을 지나 오른쪽 주택가로 올라가면 제당 뒤쪽으로 올라 갈 수 있다. 제당은 천마산 줄기의 한 자락인 원팔현마을이 시작되는 초입에 있다. 왼쪽으로 팔현교를 지나 바로 있는 마을회관에서 보면 개울을 건너 마주보고 있다. 제당은 벼랑 끝에 위치하며 나무가 없는 겨울에는 제당에서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제당을 '산신당'이라 부른다. 당에도 길이 60㎝, 폭 30㎝ 정도의 크기에 푸른 글씨로 「산신당(山神堂)」이라고 음각한 현판이 걸려 있다. 산신당은 낮은 시멘트 기단 위에 가로, 세로 4×4m 크기의 기와를 얹은 한 칸 맞배지붕집으로 지었다. 풍판(風板)을 달고 겹처마를 올렸으며, 전체적으로 단청을 하여 큰 사찰의 산신각보다 더 격이 높아 보인다. 본체의 1.5m 앞에 기와지붕을 얹은 작은 문을 만들고, 자연석으로 1.3m 높이의 둥근 담장도 쌓았다. 건물 전면은 두 짝 여닫이문을 만들고, 평상시에는 자물쇠를 채워 둔다. 전체적으로 매우 아담하고 균형 잡힌 당집으로, 마을 어귀에 위치하면서도 작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제의 공간으로서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당 내부에는 안쪽으로 폭 40㎝, 높이 1m 정도의 목제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그 위 정면 벽면에 여닫이문을 달고 그 안에 산신탱화를 모셨다. 탱화에는 산신할아버지와 동자, 따님, 호랑이가 함께 그려져 있다. 좌우 벽면에는 팔선녀 그림을 각각 액자에 넣어 걸었다. 이 그림은 1970년대 말쯤 탱화화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이전의 그림은 너무 퇴색되어 불에 태웠다. 당집 주변에 소를 잡던 우물과 제의 준비 장소는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제의에 쓰이는 쟁반 · 도마 · 채반 등 그릇들은 당 안에 보관하고 있다. 이 산신당은 멀리 천마산의 주봉이 보이고, 앞으로는 작지만 물이 흐르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내용 팔현1리는 오남읍에서 정서쪽으로 10㎞ 정도 떨어진 산촌마을이다. 왕숙천 원수원이 흐르고 있는 천마산의 높은 산자락과 계곡 사이에 산개한 가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지만 빼어난 경치 덕분에 요즈음은 음식가게와 민박집, 전원주택 등이 많이 늘어났다. 현재도 이곳저곳에 택지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팔현리에는 현재 35가구 정도 살고 있으나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사람이 정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산신당은 2008~2009년 2년 사이에 새롭게 단청을 입히고 수리를 하였으며, 담장과 문도 보수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산신당에서 지내는 제의를 '산신제', 당집이 있는 곳을 '산제당터'라고 한다. 제일은 매년 음력 팔월 초에서 시월 초 사이에 택일하며, 제의 일시 최종 확정은 가까운 절에 가서 스님에게 물어 본다. 가능하면 월 초로 날을 잡으며, 제사 당일 해질 무렵 산에 올라가 준비하고 밤 9시쯤에 제를 지낸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면 원팔현마을, 2010.6.2, 김지욱

팔현마을산신당 뒷면 전경

팔현마을산신당 현판

팔현리에는 당을 관리하는 당주가 별도로 있어서 당주가 제의 사흘 정도를 앞두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생기와 복덕을 가려 제관 한 명, 화주 한 명을 임의로 선출한다. 제관과 화주가 되면 그날부터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부부 동침도 삼간다. 예전에는 솔가지를 끼운 금줄을 대문에 걸어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고, 본인도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등 금기를 지켰다. 이 밖에도 당주와 제관은 당집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사에 쓰는 제물은 제관과 화주가 함께 장만한다. 중요한 제물인 쇠고기는 주로 장현에 있는 도살장에 미리 연락하여 좋은 물건을 확보한다. 예전에는 소 한마리를 통째 구입하여 산신당 옆에서 직접 잡아 제물로 올렸으나 요즘에는 쇠머리, 앞다리, 뒷다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선지도 한 말 구입하여 음복 때 안주로 한다. 이 밖의 제물과 제사에 필요한 물건은 예전에는 직접 장에 나가 구입했으나 요즈음에는 전화로 주문하여 배달시켜 받는다. 대추 · 밤 · 곶감을 삼색과일로 장만하고 소지용 종이와 초 · 향 등은 배달시킨다. 그러나 시루떡은 화주 집에서 직접 찐다. 이 마을의 경우 시루떡을 찔 때 절대 소금 간을 하지 않는다는 금기가 있다. 진메 역시 화주 집에서 장만한다. 그 전에는 제의 장소인 당집 옆에서 불을 지펴 밥을 직접 지었다. 이 마을의 경우 제주(祭酒) 대신 당집 옆 우물터에서 뜬 정화수를 올린다. 제의 준비가 모두 끝나면 당주, 제관, 화주는 의관을 정제하고 산신당으로 향한다. 이때가 저녁 8시쯤이 된다. 이 밖에 마을 사람들 중 심신이 깨끗한 사람들도 함께 산에 올라 당주와 제관이 제의를 행하는 동안 우물터에서 솥을 걸고 들고 온 선지와 각종 야채를 넣은 국을 끓이면서 제의가 끝날 때를 기다린다.

제물은 일반 그릇에 담아 진설한다. 원래 팔현리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유기제기와 목제기가 있었으나 몇 년 전에 모두 도난당하고 지금은 스테인리스 그릇을 제기로 사용하고 있다. 제물은 당 안에 붙박이로 설치된 제단 위에 차린다. 앞쪽으로 대추, 껍질 벗긴 밤, 곶감을 놓고 가운데에 정화수를 올린다. 맨 뒤쪽 가운데에다 채반에 담은 쇠머리를 올리고, 그 앞줄에 소 앞다리와 뒷다리를 진설한다. 팥시루떡은 제상 제일 오른쪽에 두고, 양쪽에 촛불을 밝힌다. 진설이 끝나면 당주가 강신 재배를 하고 이어 축을 읽는다. 축

문이 끝나면 제관과 이장이 재배하고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 가가호호의 소원을 말하면서 당주가 올린다. 소지 내용은 주로 '가내안녕과 무탈'에 대한 기원이며, 각기 개인의 소원을 비는 소지를 올리면 모든 제의가 끝난다. 철상 한 뒤에는 고기와 삼색실과 등을 조금 나누어 당집 담장 위에 올려둔다. 음복은 제의가 진행되는 동안 끓인 선짓국으로 한다. 제상에 올린 쇠머리와 쇠다리도 이때 선짓국 솥에 넣어 삶아 꼬치로 만들어 동네 어른들 댁에 일일이 돌린다. 늦은 시간까지 음복하며 덕담을 나눈다.

이 마을에는 '선후회'라는 친목계가 활성화되어 있어 동네의 대소사와 산신제까지 모두 주도적으로 맡아 하고 있다. 산신제 비용의 경우 선후회에서 집집마다 갹출하고, 각 단체나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후원금도 추렴하는 등 경비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김지욱,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남양주시지 3**(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필자 **김지욱(金志昱)**

남원삼동굿

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의 세 마을(양촌, 음촌, 개신)이 연합하여 매년 백중날이면 연행하는 마을굿. 풍수지리적으로 지네가 닭을 해치는 형국이라는 설화에 기원하여 매년 음력 칠월 보름 백중이면 세 마을의 세 동자를 앞세워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고 아이가 무병하게 성장하여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마을의 안녕, 주민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전승되는 민속이다.

유래 삼동굿이 언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계룡산이 세 곳 있다고 한다. 함경도 계룡산과 충청도 계룡산, 전라도 계룡산이 그것이다. 그중에 전라도 계룡산은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뒷산으로, 산봉우리가 수탉의 벼슬 모양으로 생겨서 계룡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양촌마을의 뒷산은 풍수지리적으로 닭에 해당한다고 한다. 해발 700여 m의 계룡산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동쪽으로 지네 모양의 약산(藥山)이 있다. 계룡산 아래에는 장태(닭장)봉이 있고, 그 아래 회산천(回山川)과 만나는 지점에 영계욕진(靈鷄浴塵)이라는 대명당이 있다. 이곳에 묘를 쓰면 삼정승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일설에 마을 앞에 있는 약산이 지네 형국이어서 이를 방비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고려시대 후기부터 지네를 밟아 주고 자손의 무병과 입신출세를 기원하는 삼동굿의 풍속이 생겼다고 전한다. 풍수지리적으로 지네가 닭을 해치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닭과 명당을 지키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삼성(三姓)의 동자(닭의 알)로 하여금 지네를 밟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삼동굿은 삼성(三姓)의 동자가 아닌 괴양리 양촌, 음촌, 개신 세 마을에서 선출된 동자가 백중날에 마을 사람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지네를 밟아 마을의 무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벽사진경의 공동체적 두레놀이로서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내용 백중날을 며칠 앞두고 각 마을의 어른들은 삼동굿에 참가할 건강하고 현명한 남아들을 선출한다. 또 영좌와 집사는 놀이의 준비와 시행방법 등을 상쇠와 의논하고 이것을 각 마을 농악단에게 알린다. 그리고 양촌, 음촌, 개신 세 마을에 한 명씩의 춤 잘 추는 어린이를 무동(舞童)으로 선발한다. 이 세 아이는 이 마을에서 장차 나오게 될 정승을 상징한다. 백중날 아침이 되면 세 마을의 농악단이 각기 자기 마을 앞 광장에 모여 판굿을 먼저 친다. 그러면 큰 마을 양촌에서 나발수가 나발을 불어 신호를 한다. 이 신호에 따라 양촌마을에서는 용기(龍旗)와 영기(令旗), 음촌과 개신마을에서는 농기(農旗)와 영기를 각각 앞세우고 길굿을 치면서 삼거리로 모인다. 세 마을의 농기는 마주보고 큰 농기에 두 개의 농기는 절을 하며 화합의 '합굿'을 하고 당산으로 향한다.

농악단과 마을 사람들은 양촌마을 당산에 모여 유교식 재차에 따라 당산제를 모신다. 이때 당산에는 미리 정결한 사람으로 선정된 유사에 의하여 마련된 제수가 차려진다. 농악단은 당산 주변을 돌다가 당산을 향해 서면 제주와 축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네 사람에 의해 제의를 행하게 된다. 제의가 끝나면 대포수가 고수레를 한 뒤에 농악단은 신나게 판굿을 치고 큰 기 앞에 술상을 차려 술을 대접하며 풍년을 기원한 다음 모두 음복한다.

이어서 세 마을 사람들은 양촌마을의 공동우물에 가서 '샘굿'을 한다. 이때 굿가락은 길굿을 치다가 굿거리 또는 자진소리로 바꾸어 치고 흥겹게 춤을 추게 된다. 샘굿을 끝마치면 농악단은 동·서 양편으로 갈라서서 풍류가락을 치며, 이때 한 마을에서 두 사람씩 선출된 노부(老夫)들이 상을 가지고 입장한다. 삼동굿판은 신대와 금줄로 신성하게 꾸며져 있다. 비손받이를 하는 노부들과 꽃받이(어린 동자를 받아 주는 중동과 산모, 닭 등의 배역)하는 남자들이 대면하여 '삼동굿'이 시작된다. 삼동은 문관, 무관, 선비로 각자 분장하여 삼시랑 상을 차려 놓고 숯과 고추를 끼운 금줄 밖에서 출산을 기원한다. 그리고 세 명의 중동받이와 산모, 동자 등은 다섯 명씩 세 개조로 짝을 이뤄 출산과정, 성장과정, 입신출세 등을 무언극으로 표현·연출한다. 출산과정은 먼저 비손들이 손을 비비고 절을 하면서 자기 마을 동자의 순산을 기원하는 축문을 읊는다. 이어서 남자 세 명이 어깨를 결으면 그 위로 산모역을 하는 남자가 올라가서 동자를 어깨에 올린다. 이렇게 다섯 사람이 삼층이 되어 한 조가 된다. 이러한 편성은 양촌, 음촌, 개신의 세 마을 사람들이 각각 조를 만들어 놀기 때문에 '삼동굿'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어서 진행되는 성장과정에서는 산모가 젖먹이는 시늉을 하고 고난 극복을 상징하는 놀이를 한다. 그리고 입신출세 과정에서는 액을 풀고 등과(登科)했음을 표현하는 놀이를 전개한다. 이 세 과정이 끝나면 무동은 춤받이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춤을 한참 추다가 머리에 쓴 수건을 벗고 입신양명을 자축하는 만세를 부른다. 이때 세 마을의 부인들은 길게 늘어서서 뒷사람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몸을 구부려 대열을 이루어 마치 지네가 꿈틀거리는 형상을 취하고 〈지네밟기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간다. 삼동들은 이러한 부녀자의 등 위로 올라가 밟아 줌으로써 명당을 침범한 지네를 마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동자들은 과거에 급제한 아이를 선두로 하여 문관, 무관 순으로 뒤편에 있는 부녀자의 등으로 차례차례 올라가 양쪽에서 보좌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부녀자들의 등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한편 양쪽에서 보좌해 주는 사람들은 머리에 닭 벼슬 모양으로 보이기 위해 빨간색 옷감을 머리에 쓴다. 이는 지네와는 상극인 닭을 상징한다.

이때 부르는 〈지네밟기노래〉는 다음과 같다.

삼괴정이 우리동민 지네밟기를 힘을 쓰세
얼럴럴 지네밟세 일심으로 지네밟세
삼강오륜 예의촌은 삼괴정이 이아닌가
얼럴럴 지네밟세 일심으로 지네밟세
삼태화백 계룡산에 영계옥진 대명당은
얼럴럴 지네밟세 일심으로 지네밟세
삼정승이 난다하고 자고지금 전해왔네
얼럴럴 지네밟세 일심으로 지네밟세
삼생굿을 저지네가 삼백육순 욕침하니
얼럴럴 지네밟세 일심으로 지네밟세
삼동굿을 마련하여 삼동으로 밟아내세
얼럴럴 지네밟세 일심으로 지네밟세
삼십삼천 도솔천명 저지네를 반복시켜
얼럴럴 지네밟세 일심으로 지네밟세
삼재팔난 물리치고 삼괴정이 부흥한다
얼럴럴 지네밟세 일심으로 지네밟세

〈지네밟기노래〉를 부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와 입신출세를 기원하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굿패와 구경꾼이 한데 어울려 한바탕 신명나는 합굿을 벌이는 것으로 모든 삼동굿이 끝난다.

이 삼동굿과 관련하여 전해 오는 전설이 있다. 염라대왕이 저승에 온 사람들에게 꼭 묻는 말이 "너는 이승에서 삼동굿 놀이를 보았느냐?"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네 보았습니다"하면, "몇 번이나 보았느냐?" 하고 다시 묻고는 세 번 이상 보았다고 하면 천당으로 보내고, 만약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면 "그 좋은 굿을 한 번도 못 보았다면 너는 필시 수전노나 노력하지 않은 게으름뱅이가 분명하니라"하면서 지옥으로 보낸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삼동굿을 하면 그해에 풍년이 들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굿을 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는 흉년이 든다고 한다.

삼동굿은 1982년 당시 전라도 광주에서 개최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를 기점으로 '삼동굿놀이보존위원회'가 결성되어 행사 진행 및 삼동굿의 제반 사항을 토의하고 준비하는 등 이 놀이의 전승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09년 백

남원삼동굿 전북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2005.8.18, 차정환

중날에 거행된 삼동굿은 지역민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오늘날 지역민속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삼동굿 외에 주민 단합 행사로 민속씨름대회, 고리던지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연행된다.

참고문헌 **남원삼동굿놀이**(정병호,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3), **남원삼동굿놀이 연구**(조여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삼동굿놀이의 본래 모습에 대한 추론**(김기형,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필자 서해숙(徐海淑)

남원서천리당산(南原西川里堂山)

정의 당산나무와 돌장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당.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348-1에 위치한다. 돌장승인 방어대장군과 진서대장군은 1970년 5월 20일에 각각 '중요민속자료 제20-1호', '중요민속자료 제20-2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서천리당산은 운봉초등학교 서쪽 500여 m 지점의 마을 어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산나무 · 돌장승 · 솟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솟대는 유실되고, 당산나무와 돌장승만 남아 있다. 당산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1977년에 심었다고 한다. 당산나무를 심기 이전에는 돌장승에서만 제를 올렸으나 당산나무를 심은 이후 정월대보름날에 지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 근처에 세워져 있는 돌장승을 벅수라고 부른다. 돌장승은 2기이며 각각 '방어대장군(防禦大將軍)'과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이라는 글이 음각되어 마주보고 서 있다. 높이 220㎝, 너비 50㎝인 방어대장군은 머리에 벙거지를 쓰고 있다. 귀는 없고, 눈은 툭 불거져 있다. 주먹코에 아래로 송곳니가 뻗어 있으며, 가슴에는 한 가닥의 수염을 늘어뜨린 모습이다. 진서대장군은 높이 195㎝, 너비 58㎝이다. 머리에는 방어대장군과 마찬가지로 벙거지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다. 둥그런 눈에 속눈썹이 깊게 새겨져 있어 얼굴 표정이 사실적이다.

남원방어대장군 남원진서대장군
전북 남원시 운봉면 서천리, 2010.6.5, 이옥희

역사 서천리당산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돌장승의 제작 연대는 조선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마을의 부족한 부분을 보호하고 센 부분은 누른다는 비보압승(裨補壓勝)의 풍수지리사상에 의거하여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음력 초하룻날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동제가 행해지고 있다.

내용 서천마을당산에는 당산나무와 돌로 만든 장승 2기가 있다. 지금도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 밤에 당산나무에 제사를 지낸 다음 석장승에도 간단히 제를 올린다. 석장승의 명칭은 방어대장군과 진서대장군이다. 서로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으며, 부부장승으로 보기도 한다. 방어대장군은 남장승, 진서대장군은 여장승으로 각각 보는 것이다. 여기서 두 장승 모두 대장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전남 장흥

남원서천리당산나무
전북 남원시 운봉면 서천리, 2010.6.5 이옥희

남원서천리당산
전북 남원시 운봉면 서천리, 2010.6.5 이옥희

군 방촌마을에서 진서대장군이 남장군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부장승설은 후대인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일 수도 있다. 마을에서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장승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진서대장군의 목이 부러져 마을 사람들이 붙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당산나무와 석장승에 제의를 행하고 있다. 즉 서천리당산에 대해 신성을 부여하고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도 남원의 얼-내 고장 전통 가꾸기**(남원군, 1982), **남원의 역사와 문화**(남원문화원, 1986), **천부지지-남원의 문화유산**(남원문화원, 2001).

필자 이옥희(李玉姬)

남해가천암수바위

정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에 있는 성숭배 신앙의 대상인 한 쌍의 암수바위. 1990년 1월 16일에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13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숫돌은 높이 450㎝, 둘레 250㎝ 크기로 발기한 남성 성기 형상으로 서 있고, 암돌은 높이 390㎝, 둘레 250㎝ 크기의 암돌은 가운데가 불룩하여 아이를 잉태한 모습이라고 하며 언덕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 화강암으로 자연석이지만 숫돌은 인공을 가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귀두와 힘줄이 사실적이다. 가천마을의 가장 아래 해안에서 100m 거리의 330㎡가량의 밭 가장자리에 5m 간격으로 암수바위가 있다.

내용 마을 사람들은 숫돌을 '숫미륵', 암돌을 '암미륵'이라 하면서 이 돌들을 '미륵'이라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1751년(영조 27)에 땅속에 있던 것을 파내어 숭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성신앙의 대상물로 숭배되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남해 현령 조광진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내가 가천마을에 묻혀 있는데 그 위로 우마의 통행이 잦아 일신이 불편하여 견디기 어려우니 파내어 세워 주면 필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현령이 가천마을에 가 보니 꿈에 본 지세와 같았다. 일꾼을 시켜 땅을 파게 하여 보니 암수바위가 나왔다. 이들 바위를 일으켜 세워 미륵불로 봉안하여 논 다섯 마지기를 헌납하고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이 돌을 파서 발견한 날이 음력 10월 23일이어서 이날을 기하여 지금까지 제의를 지내고 있다. 제의는 이 마을 사람들만 아니라 이 미륵불의 영험을 믿는 남해, 사천, 통영 등지의 사람들이 모여 미륵계(彌勒契)를 결성하여 지내 왔다. 근년에는 마을 사람들이 10월 보름날에 동제를 지내고 별도로 10월 23일 조금날에 이 미륵제를 지낸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생기복덕이 좋고 깨끗한 사람을 제주와 집사로 선정한다. 제주 부부와 집사는 깊은 산에 가서 목욕재계하고 조용한 자정에 암수 미륵 앞에 깐 자리 위에 밥, 나물, 과일 등을 큰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 차려서 제를 지낸다. 불교신인 미륵불을 위한 제의여서 육류, 생선, 술을 쓰지 않는 대신 제물을 푸짐하게 차려서 마을의 태평무사와 풍농을 빌고 절한다. 미륵계를 결성하여 제의를 행할 때 계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의 댁내무사와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제를 마치면 제물을 조금 사방에 흩뜨리고 땅에 파묻은 뒤 나머지는 가지고 와서 다음날 동민들과 음복을 한다.

암수바위를 손가락질하거나 욕심을 내어 이 바위 가까이에 작물을 심으면 화를 입고, 상여도 반드시 아

남해가천암수바위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 2010.5.17
정상박

래로 지나가지 않으면 변고가 생긴다고 한다. 심지어 새가 암수바위에 앉으면 죽을 정도로 영험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고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 잡은 고기를 이 바위에 걸어 둔다. 이 바위가 영험하다는 소문이 나자 타지 사람들도 찾아와 촛불을 밝히고 기자(祈子), 치병, 소원성취 등을 기원한다.

의의 이 암수바위는 옛날에는 풍요, 다산을 기원하던 성숭배의 대상물이었다. 종교적 기능이 바다와 마을의 수호신으로 확대되고 불교의 미륵불로 격상되면서 시대가 변하여도 신성성을 유지하며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존속되어 왔다. 남해 현령이 땅에서 파내어 미륵불로 봉안하였다는 전설을 통하여 관의 권위를 빌려 미륵불로서 품위를 부여하면서 성기 형상석이지만 계속 숭배되어 온 것이다. 이 바위 한 쌍의 신격이 성기숭배 대상물에서 미륵불로 변하였지만 불교신으로서의 변모가 아니라 본래 지닌 풍요 다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마을 수호, 기복, 치병, 소원성취, 태평무사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이 암수바위는 민간신앙과 불교의 습합 양상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남해의 얼(남해군, 1983), 성기암설화의 변이전승 고찰(정상박, 석당논총 1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1), 전설의 사회사(정상박, 민속원, 2000).

필자 정상박(鄭尙朴)

남해물건리동제

정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서 매년 음력 시월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마을제의.

내용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동제는 크게 당제형와 당굿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당제는 동제라 일컫기도 하며, 마을에서 동회를 열어 제관을 선출하고 제관들이 동신당에 제를 올리는 것이다. 당굿은 대대적인 동신제로, 무당을 불러다가 굿으로 동신에게 제의를 올리는 것이다. 물건리동제는 당제에 해당한다. 보통 당제는 삼헌(三獻)과 독축(讀祝)으로 이루어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 중 생기복덕이 맞고 정결한 이를 뽑는다. 보통 제주 한 명, 집사 한 명, 축관 한 명을 선출한다. 그러나 물건리동제는 메를 올리고 삼헌례를 하지만 독축을 하거나 소지는 올리지 않아 유교식 제의가 변형 · 축소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물건리동제는 매년 음력 시월 보름날에 지내는 정기 제의로 동제를 거른 해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1. 제관 선출 예전에는 동네 회의에서 깨끗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뽑았지만 요즘은 서로 제관에 뽑히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두 개 반을 한 조로 묶어 돌아가면서 제관을 뽑는다. 총 열두 개 반이어서 6년에 한 번 동제를 주관한다.

2. 금기 제관은 깨끗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예전에는 제관이 보름 정도 금기사항을 지켜야 했으나 요즘은 일주일 정도로 줄었다. 일주일가량 집 둘레에 금줄을 치고, 바깥 외출을 삼가며,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

3. 제일 음력 시월 보름날 오후 5시 윗당산(상당)에서부터 시작한다. 제의는 본래 밤 12시에 지냈으나 요즘은 편의상 초저녁 날이 어두워지면 시작한다.

4. 제의 장소 제당은 당집이나 서낭당이 없고 당나무만 있는 신수(神樹) 형태이다. 현재 윗당산나무(상당)와 아랫당산나무(하당)는 모두 썩어서 부러졌고, 그 밑동에서 다시 줄기가 핀 상태이다.

5. 제의 과정 제관들은 음력 시월 보름날 오후 5시에 윗당산에서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팥시루떡, 삼색나물, 탕, 조기 따위의 각종 생선구이와 생선전, 꼬치, 밤 · 대추 · 곶감(또는 감) · 사과 · 배 따위의 각종 과일 등을 진설한다. 진설 준비는 제관 부부와 이장, 마을 주민 5~6명이 함께한다. 요즘은 해가 지기 전에 동제를 지내기 때문에 진설이 끝나는 즉시 제의를 시작한다.

먼저 제관 부부는 서쪽 방향으로 절을 한다. 윗당산에서는 1시간 남짓 제의가 이루어진다. 상당제가 끝나면 한지에 메 세 묶음을 싸서 트럭에 싣고 아랫당산으로 향한다. 아랫당산에 도착하면 제관은 메와 술을 각각 올리고 재배한 뒤 넓적한 돌 아래에 땅을 파고 메를 묻은 다음, 술과 음식을 사방에 뿌린다. 땅을 판 곳을 밥구덕이라고 하며, 매년 행하는 위치는 동일하다. 다음으로 제관은 마을의 한쪽 동구 밖인 동천고개로 가서 메와 술을 올리고 재배한 다음 밥구덕에 메를 묻는다. 그리고 다른 쪽 동구 밖인 은점고개로 가서 동일한 순서로 제의를 행한 뒤 마을로 돌아온다.

윗당산과 아랫당산, 동천고개와 은점고개에 각각 제의를 지내고 메를 묻는 것에는 춘하추동, 동서남북 언제 어디서나 동민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잡귀와 액, 살, 재앙 따위를 막아 마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동구의 상당과 마을 안의 하당 외에 마을로 들어오는 양쪽 고갯마루 길 옆에서 제의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서 밖으로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와 액운 따위를 막아내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은 어촌이기 때문에 풍어의 기원과 해상사고 방지에의 기원도 담겨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의 과정이 끝나면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모여 음복하는 것으로 동제를 마무리한다.

의의 동제는 마을 대동을 위한 마을의 공적 성격을 띤 대동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물건리의 동제는 위상을 상실한 채 마을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외부인이 동제에 참석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어 외부인에 의해 부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동제는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현재 물건리에서는 종교적 · 사회적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동제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심리적 유대와 단합을 통한 공동운명체라는 자기 소속감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미해지고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제관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두 개 반이 한 조가 되어 순환하면서 동제 준비를 하는 실정이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동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예전부터 있어 왔기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이다. 이것은 현대화의 물결에 따

남해물건리동제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방조어부림), 2004.11.25, 최호식

상당-할배당산

하당-할매당산

제관집 금줄

진설장면

제관부부 배례

헌작

철상

제물 상차림

밥무덤

음복준비, 음복

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물건리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지인의 대거 유입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마을에서는 공동운명체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이 강하지만 물건리의 경우 멸치잡이 · 낚싯배 등 수입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수의 외지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그에 따라 예전과 같은 마을공동운명체로서의 유대감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둘째, 기성 종교의 확산을 들 수 있다. 현재 물건리에는 교회, 성당, 미륵을 모시는 사찰이 들어서 있다. 작은 마을에 교회, 성당, 사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제가 종교적 ·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물건리의 동제는 예전에 비해 계속 축소되었고 동민들의 무관심 속에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풍물을 울리고 각각의 가정에서 밥을 해 올리는 등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치러지던 과거의 물건리 동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동신당**(김태곤, 대원사, 1999), **동제의 상징과 의미전달 체계**(이기태, 민속원, 2004), **서낭당**(이종철 · 박호원, 대원사, 1999), **민속박물관 사람들의 세시풍속현장조사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8, 2004.11.25: 김창일 조사), **남해군청**(namhae.co.kr).

필자 **김창일(金昌一)**

노고할미

표제어 마고할미(274쪽)

노신제(路神祭)

표제어 거리제(43쪽)

논공천왕당(論工天王堂)

정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와 남리의 마을 주민들이 마을수호신을 모시고 동제를 지내는 제당. 2006년 4월 20일에 '대구광역시 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제당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인 소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앞쪽을 제외한 삼면은 자연석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건물 주위에는 노송이 둘러싸고 있다.

누(樓) 형식의 건물로 기둥은 누하주(樓下柱)와 누상주(樓上柱)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기둥만 사용되었다. 측면 칸을 두 공간으로 나누어 앞쪽으로는 개방된 마루를 깔고, 뒤쪽에는 신위(神位)를 모시는 방을 두었다. 방 앞에는 머름을 둔 쌍여닫이 세살문을 달았고, 나머지 삼면에는 판벽을 설치하였다. 누하부는 흙바닥이고, 누 상부는 목재 마루판으로 마감하였다.

평편한 지면 위에 기단 없이 자연석인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민흘림 원기둥을 세웠다. 기둥 위쪽에는 뺄목을 끼워 그 위에 장혀와 도리를 결구하였고, 창방 위에 소로를 얹어 장혀와 도리를 받게 하였다.

역사 논공천왕당은 남리와 북리 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세운 제당으로, 남리의 동쪽 산 정상 부근에 자리 잡고 있다.

상량문(上樑文)에 '함풍(咸豊) 3년 9월'이라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1853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 안에 있는 '산제당이건기(山祭堂移建記)'에는 천왕당이 원래 마을 어귀(남리 680-1번지 일원)에 건립되었는데 1924년에 남리 이장이던 백운기 등 여덟 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래 제당이 있던 위치의 뒷산에 일제강점기 때 군수를 지낸 사람이 조상 묘를 썼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제당이 있는 산에 개인의 묘를 쓴 것에 반발하여 산 아래 있던 천왕당을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2009년 3월에 일어난 산불로 천왕당의 지붕과 천왕당을 둘러싸고 있던 소나무가 불에 타서 2010년 6월에 기둥과 도리를 살려 보수하였다. 불이 난 뒤에도 천왕당에서 동제를 계속 지냈다.

내용 제당 안에는 당상천왕(堂上天王), 마상천왕(馬上天王), 보안천왕(保安天王) 신위(神位)라고 적힌 마을

보수 중인 논공천왕당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2010.6.7, 이균옥

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동제는 해마다 음력 정월대보름날과 칠월칠석날 첫 시에 행해진다. 과거에는 제관이 세 명이었으나 현재는 금기를 지키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남리와 북리의 이장이 제관을 맡고 있다. 제수(祭需)는 일반 가정집의 기제사(忌祭祀)와 유사하며, 과거에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아 사용했으나 현재는 돼지머리를 사용한다.

동제의 목적은 대개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비슬산 주위이기 때문에 산짐승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마을에 따라 추가되기도 한다.

지역사례 비슬산 지역 동제의 명칭으로는 동제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당산제 · 당제라고도 한다. 비슬산 지역에서는 동신(洞神)을 천왕 또는 천왕님으로 부르고 있으며, 천황 · 처낭 · 서낭이라고도 한다. 천왕은 중국의 '성황(城隍)'에서 유래하였다고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비슬산 지역의 당 형태는 나무가 압도적이다. 당집과 나무, 돌무더기와 나무가 결합된 형태도 있다. 나무가 신체(神體)인 경우 나무 종류는 느티나무, 소나무, 회나무, 푈구나무, 왕버들, 배나무, 은행나무 등이다. 이 가운데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소나무이다. 이 나무를 당산 · 당산목 · 당산나무 · 당나무 · 당목 · 천왕나무 등으로 부르고 있다.

당의 명칭은 당의 개수와 형태에 따라 웃당과 아랫당, 바깥당과 산지당, 당산 또는 처낭당 · 천왕당 등으로 부르고 있다.

참고문헌 **비슬산 속집**(대구광역시 ·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2000), **한국의 마을제당-경상북도**(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이균옥(李均玉)**

논산반곡리산신제 (論山般谷里山神祭)

정의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서림마을에서 해마다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싸리나무홰에 불을 놓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

역사 반곡리산신제의 유래는 분명치 않지만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전통으로 구전되고 있을 뿐이다. 산신제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마을에

서 보관 중인 축문이다. 축문에 '해동조선국(海東朝鮮國) 충청우도(忠淸右道) 연산현(連山縣) 모촌면(茅村面) 반곡리(盤谷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처음 축문이 작성된 시기는 조선시대이며, 이 내용을 매년 그대로 필사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곡리산신제는 늦어도 조선 후기의 전통을 계승해 온 동제로 추정된다.

반곡리에서 산신제를 주관하는 주체는 대동계이다.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는 모두 대동계에 가입되어 있으며, 분가한 자와 다른 동네에서 이사를 오는 사람은 기존의 신입례에 의거하여 대동계에 가입한다. 대동계에서는 산신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와 준비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전승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서는 이른바 「산신제 행사일람」이다. 이 문서에는 각 역원의 선정과 역할, 제물의 준비, 금기사항, 제의순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내용 산신제의 신격은 마을 뒤편에 있는 국사봉 산신이다. 반곡리의 주산(主山)이 되는 국사봉은 해발 338m에 불과하지만 주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예부터 영험한 산으로 치성을 받아 왔다. 산신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날 밤 11시에 거행된다. 이를 위해 정월 초이튿날 아침이 되면 대동계장과 총무가 만나 화주(化主), 축관, 공양주(供養主)를 비롯해 거정꾼과 급수꾼을 뽑는다.

1. 제관의 선정과 역할 화주는 산신제를 주관하는 제관으로서 역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마을에서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닿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상주(喪主)와 출산한 집, 부정한 여성이 있는 가정은 엄격히 가려서 화주를 선정한다. 화주의 임무는 산신제에 올릴 청수를 뜨고 소지를 잘 접어서 갈무리하는 일이다. 축문을 쓰고 독축을 담당하는 축관은 대동계원 가운데 학식이 있는 원로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통례이다. 공양주는 산신제의 음식을 준비하는 역원이다. 특히 메를 짓고 떡을 만드는 것이 주된 일이며, 과거에는 화주의 집에서 떡방아를 찧었다. 거정꾼은 '거정잽이'라고도 하는데 금줄치기, 황토펴기, 제단 만들기, 샘 청소하기 등 당일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온갖 심부름을 담당한다. 급수꾼은 제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과 기타 허드렛물을 전담하는 역원이다. 산신제 당일인 초사흗날 아침에 공동우물을 퍼내어서 깨끗이 한 뒤 그 물을 길어서 제기를 닦는다. 이 밖에 거정꾼과 함께 화주를 보좌하여 심부름을 담당하고, 산신제가 시작될 무렵에 싸리나무홰에 불을 댕긴다.

제관과 심부름꾼으로 선정되면 대문 앞에 왼새끼로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황토를 대문 앞에 한 줌씩 뿌려두는 것을 '황토를 편다'고 한다. 이때부터 각 역원의 집은 산제를 마칠 때까지 모든 주민의 출입이 금지된다. 화주를 비롯한 역원들은 외출을 삼간 채 찬물로 목욕재계하며, 부정한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한다. 마을에서도 주민들은 산신제를 앞두고 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신제 당일 저녁에는 전 주민이 목욕재계를 하는 등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성을 들인다. 심지어 황토를 펴기 이전에 외출한 사람은 제사가 끝난 뒤에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으며, 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산신제가 끝나야 동구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2. 싸리나무하기 산신제에 사용하는 홰는 싸리나무로 만든다. 잡목이나 삭정이를 섞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싸리나무가 귀했던 때에는 20~30리 길을 마다

싸리나무홰 매듭 묶기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2003.1.3(음)
강성복

하지 않고 화목 원정을 떠나기도 했고, 산림법이 매우 엄하던 일제강점기에는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몰래 싸리나무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손이 있는 집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싸리나무 한 다발을 가져오는 것이 불문율이다. 마을의 안녕과 각 가정의 액운을 소멸시키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는 만큼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화목을 준비한다. 마을에서는 싸리나무를 많이 해야 그해 가정이 무탈하고 길하다는 속설이 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근래에는 다소 시들해져서 원하는 가정에 한해 싸리나무를 수거하고 있으며, 서림마을에서만 30가구 안팎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정월 초이튿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싸리나무를 하러 간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화목 다발에는 대주의 이름을 쓰고 홰를 엮는 데 필요한 새끼줄 서너 발을 꼬아서 함께 제출한다. 이는 각 가정에서 가져온 싸리나무는 자신이 꼰 새끼로 묶는다는 의미이다.

3. 금줄치기와 샘품기 정월 초사흗날 아침이 되면 마을 어귀에 황토를 편다. 황토펴기는 대동계 총무가 제물을 구입해 오면 진행한다. 거정꾼이 깨끗한 황토를 준비하여 길 양쪽에 세 무더기씩 갖다 놓으면 그 뒤편에 금줄을 친다. 예전에는 논두렁길을 제외하고 사방으로 통하는 좁은 길에도 모두 왼새끼를 둘렀으나 요즘에는 일일이 다 따를 수가 없어 마을 앞 두 곳에만 친다. 이와 같이 동구 밖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드리우면 마을 주민들과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과거에는 장정들에게 파수를 맡겨 초사흗날 아침부터 산신제를 마칠 때까지 마을 어귀를 지키도록 했다. 거정꾼과 급수꾼은 공동우물을 말끔히 청소한 다음 샘물을 퍼낸다. 일단 청소를 마친 우물은 화주와 역원 외에는 접근을 금지한다. 이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필요한 식수는 하루 전에 미리 길어다 놓아야 한다. 우물에서 맑은 물이 고이면 가장 먼저 산신제에 올릴 청수를 뜬다. 화주는 청수동이에 물을 담아 제물이 보관된 방에 안치한다. 그런 다음 공양주는 샘물을 길어서 떡쌀과 두부콩을 씻고, 급수꾼은 제기를 닦는다.

4. 황토제단 만들기 반곡리산신제는 별도의 제당이나 신위가 없다. 또한 산신제의 대상 신이 국사봉 산신령임에도 제를 지내는 장소는 마을 앞 논배미이다. 이는 국사봉의 지맥이 반곡리를 휘돌아서 마을 어귀에까지

황토제단 만들기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2003.1.3(음)
강성복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2003.1.3(음), 강성복

싸리나무홰 세우기

싸리나무홰

싸리나무홰 점화

산신제를 지내는 모습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정월 초사흗날 정오를 전후하여 임시로 제단을 만들어 제당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깨끗한 황토가 사용된다. 황토제단은 가로 180㎝, 세로 110㎝, 높이 20㎝ 규모로 조성된다. 이때 제단의 방향은 반곡리 동남쪽에 위치한 왕대봉 중앙을 향하도록 한다. 이것은 산신령의 좌정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황토제단 옆에는 메와 떡시루를 올릴 아궁이 2개도 미리 파 놓는다.

5. 싸리나무홰 엮기 각 가정에서 준비한 싸리나무는 초이튿날 오후부터 초사흗날 오전 사이에 마을회관 마당에서 수거한다. 화목이 속속 도착하면 점심을 먹은 뒤에 싸리나무홰를 엮는 작업을 한다. 싸리나무홰는 2개를 엮는다. 예전에는 반곡리 아랫뜸과 윗뜸에서 하나씩 홰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두 마을 간에는 서로 홰를 크게 만들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것은 상대편보다 홰를 크게 만들어야 운수가 좋고 액운을 물리친다는 속설이 전하기 때문이다. 홰를 엮는 과정에는 몇 가지 불문율이 있다. 우선 새끼줄로 묶은 매듭이 반드시 일직선이 되도록 일치시켜야 한다. 홰를 묶는 매듭의 수는 딱히 홀수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싸리나무 다발(가구 수)과 동일한 수로 묶는 것이 관행이다. 이는 가정마다 정성을 기울여서 싸리나무홰를 준비한다는 의미이다. 싸리나무홰가 완성되면 어깨에 메고 제장까지 운반하여 황토제단 양옆에 세운다. 이때 반드시 나무를 묶은 매듭의 전면이 산신이 좌정한 왕대봉의 한복판을 향하도록 한다.

6. 제물의 준비 산신제의 비용은 50만 원가량이 소요되며, 이는 대동계의 자산에서 충당한다. 제물은 돼지머리(돈족 네 개 포함), 메, 팥고물떡, 통북어, 삼색실과, 삼탕, 청수 등이다. 대동계의 자산이 충만했을 때에는 통돼지를 잡기도 했으나 지금은 희생물로 돼지 한 마리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돼지머리 밑에 돈족(豚足) 네 개를 진설하여 바친다. 또한 통북어는 본래 30마리를 한꺼번에 올렸지만 역시 부족한 예산 탓에 10마리로 줄였다. 이처럼 다른 마을의 동제에 비해 유독 많은 통북어를 진설하는 까닭은 집집마다 한 마리를 바친다는 정성을 들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 밖에 탕은 육탕(肉湯)·소탕(素湯)·어탕(魚湯) 세 가지를 쓰고, 술 대신 청수를 올린다.

제물 구입은 섣달그믐쯤 면 소재지인 연산에 대목장이 다가오면 대동계 총무가 전년 산신제 때 작성한 물목기(物目記)를 참조하여 필요한 물품을 상인에게 미리 주문해 둔다. 그리고 정월 초사흗날 새벽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일찌감치 집을 나선다. 시장을 오갈 때에는 부정한 것을 목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물건 값을 흥정하지 말고 상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구입한 제물은 화주 집 방 하나를 비우고 정갈하게 보관한다. 제물이 있는 방에는 역원 외에 그 집의 안주인도 출입할 수 없다. 제기는 매년 새 것을 구입하는 것이 관례이며, 그해 사용한 그릇은 화주의 몫이 된다. 제물 준비는 공양주가 전담한다. 특히 떡가루는 화주 집에서 절구통으로 손수 방아를 찧고, 두부 역시 맷돌에 콩을 갈아서 만든다. 이때 공양주는 침이 튀지 않도록 흰 종이로 만든 입마개를 착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일이 금기를 다 지킬 수 없어 떡방아는 방앗간을 이용하고 두부는 시장에서 구입한다.

7. 산신제 초사흗날 저녁이 되면 마을회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역원들은 제물(청수 제외)을 들고 제장으로 향한다. 싸리나무홰를 세운 마을 앞에 도착하면 낮에 준비해 둔 화목으로 화톳불을 놓는다. 불길이 주변을 환히 비추는 가운데 공양주는 시루에 떡가루(한말)를 넣고 아궁이에 올린다. 땔감은 잡목이나 삭정이가 섞이지 않은 싸리나무이다. 시루가 안치되면 거정꾼은 징을 울린다. 집 안에서 징소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부녀자들은 초사흗날 고사에 올릴 '마짐시루(마중시루)'를 아궁이에 올리고, 떡시루에 희뿌연 김이 오르면 메를 짓기 시작한다. 떡이 다 익으면 시루를 떼면서 다시 징을 친다. 이 소리를 듣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화주는 비로소 청수동이를 들고 제장으로 향하고, 축관은 축문과 소지종이를 가지고 온다. 각 가정에서는 두 번째 징소리가 울리면 마짐시루를 장독으로 옮기고 고사 준비를 서두른다.

자시가 임박하여 화주와 축관이 제장으로 들어서면 거정꾼은 황토제단 위에 짚을 깐다. 이윽고 화주와 축관은 공양주가 준비한 제물을 하나하나 진설한다. 진설이 완료되면 화주와 축관은 제단 앞에 서 있고, 거정꾼과 급수꾼은 긴 장대에 불을 붙여 싸리나무홰 꼭대기에 불을 댕긴다. 잠시 뒤 징을 잡은 거정꾼은 세 번째로 징을 쳐서 산신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때부터 화주와 축관은 거정꾼과 공양주의 시중을 받아 산신제를 지낸다. 이와 동시에 각 가정에서도 마짐시루를 장독대에 진설하고 치성을 드린다.

반곡리산신제에는 술을 올리지 않는다. 제차는 분향-재배-독축-재배-소지의 순으로 진행하는데 고된 준비 과정에 비하면 매우 단순한 편이다. 소지는 모두 30장을 올리되 10장씩 나누어 모둠소지를 올린다. 산신제를 마치면 화주는 동구 밖으로 제물을 옮기고 혼자서 재배한다. 산신제가 진행되는 동안 싸리나무홰 불은 점점 거세게 타올라 온 마을을 삼킬 듯한 기세로 화기를 토해 낸다. 주민들은 홰불이 잘 타야 산신제의 효험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아래뜸과 위뜸 주민들은 서로 자신의 홰가 먼저 소각되어야 액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편과의 경쟁에서 이긴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산신제를 마치면 화주는 삼색실과와 떡을 조금씩 떼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세 번씩 던진다. 이것은 제장에 깃든 모든 잡귀를 풀어먹이는 일종의 '해물리기' 의식이다. 화주 일행은 즉석에서 음복을 나눈 뒤 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과 함께 조촐한 주연의 시간을 보낸다. 계원들은 매년 산신제를 마친 날인 정월 초사흗날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기금을 결산하고 마을일을 논의하고 주민들은 마을잔치를 베풀면서 화합을 다진다.

의의 반곡리산신제는 싸리나무홰가 등장하는 의례이다. 이는 온 마을 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횃불로 성대하게 산신을 맞이한다는 신호인 동시에 어둠을 밝혀주는 조명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싸리나무홰는 새해를 맞이하여 풍농을 예축(豫祝)하고 마을에 깃든 액운을 몰아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홰를 크게 만들어야 한 해 운수가 좋고 액운을 물리치는 데 효험이 있다는 속설에서 그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충청민속문화론(강성복, 민속원, 2005).

필자 강성복(姜成福)

논산부인당산제(論山夫人堂山祭)

정의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인2리에서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 자정에 부인당에 모신 당할머니에게 제사하는 의례.

역사 부인당산제는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에게 부인(夫人)의 칭호와 식읍(食邑)을 하사받은 무당을 당할머니로 모시는 의례이다. 그 역사는 분명치 않으나 부인당으로 인해 고려시대 부인처(夫人處)라는 지명이 유래되었고, 이것은 조선시대 연산현 부인처면으로 이어졌다. 또한 부인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왕건이 하사한 제전(祭田)이 자리한 까닭에 제전리 또는 지밭(제밭)이란 마을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아 부인당산제의 기원은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부인당 신모(神母)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연산현 고적조이다. 여기에는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 진을 치고 있다가 꿈을 꾼 뒤 인근에 용한 무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해몽을 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 있다. 이후에 편찬된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와 『호서읍지(湖西邑誌)』,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명승고적을 군 단위로 정리한 『전선명승고적(全鮮名勝古蹟)』 등에도 부인당 사적이 소개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언급된 왕건과 무녀에 얽힌 사연은 다음과 같다.

>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을 정벌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연산에 머물 때 홀연히 꿈을 꾸었다. 삼목(三木)을 등에 짊어지고 머리에는 큰 솥을 인 채 깊은 물에 빠지는 꿈이었다. 깨어나서 매우 나쁘다고 여겨 점을 잘 친다는 노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친히 가서 묻고자 하였다. 그런데 태조가 도착하기 전에 그 노파는 일이 있어 외출을 하면서 자신의 딸에게 "오늘 늦게 집으로 귀인이 올 것이니 너는 다만 그분을 머무르게 해서 기다리게 하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말을 많이 하지 말거라" 하고 당부하였다. 늦은 시간에 과연 태조가 와서 꿈에 대하여 물었다. 그 딸이 불길하다고 대답하니 태조가 좋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갔다. 잠시 뒤 노파가 돌아와서 자기 딸에게 묻자 딸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노파가 크게 놀라면서 "몇 리나 가셨겠느냐"고 묻자 딸이 "방금 갔으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딸로 하여금 급히 뒤쫓아가서 돌아오기를 청하고, 태조가 오자 다시 점괘를 풀어서 말했다. "크게 길할 조짐입니다. 무릇 삼목을 등에 진 것은 임금 왕(王) 자를 이룸이요, 큰 솥을 머리에 인 것은 면류관을 쓴 것이요, 깊은 물에 들어간 것은 용왕을 본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태조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말했다. "과연 그대 말과 같이 된다면 내가 그대의 공을 잊지 않을 것이오." 며칠 뒤에 과연 태조는 대승을 거두었다. 태조는 노파의 말을 생각하여 노파를 '부인'으로 봉하고, 그 거처하는 주변에 밭을 하사하여 식읍으로 삼게 했다. 노파가 죽자 동네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이로 인해 하사한 밭이 제전이 된 까닭에 그 면의 이름을 부인처라 하고 마을 이름을 제전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기록은 18세기 중엽 부인당 고사가 관찬지리지에 공개적으로 소개될 만큼 유력한 설화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부인당의 유래담은 2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부인리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당 할머니가 부인의 칭호와 제전을 하사받은 시기, 죽은 뒤에 제당을 지어주었다는 사실만 다를 뿐이다. 이로 미루어 『여지도서』의 기록은 당시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부인당 전설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시에 그것은 부인당 전설을 후세에 확산시키는 데 힘의 원천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당산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동일한 설화는 『여지도서』 이산현 고적조에 왕전(王田)의 유래담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인당 신모는 조선시대 중악단이 위치한 신원사와 계룡산신의 연기설화인 '연천봉 신모' 및 '팥거리 할머니'로 치환되어 구전되고 있다.

부인당산제는 지난날 인근의 다섯 마을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성대한 제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함께 참여하던 마을이 배제되면서 부인리 지밭마을의 동제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마을에서는 이미 고인이 된 서우석 · 이태복 · 이근서 등이 주축이 되어 제를 지내 왔다. 그러나 열성으로 산제를 모시던 마을 사람들이 타계한 뒤에는 서로 제관하기를 기피하여 한때는

부인당산제당
충남 논산시 부적면 부인2리 지밭마을
2004.2.4. 김병관

부녀자들이 산제를 모시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여의치 않게 되자 최근에는 유사와 제관을 뽑지 않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사실상 부인당산제의 명맥을 잇고 있다.

내용 속칭 산제당으로 불리는 부인당은 지밭마을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들판에 위치한다. 본래 이곳은 야트막한 구릉으로서 주위에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으나 몇 차례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논으로 개간되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당은 단칸 기와집으로 건축되었으며, 내부에는 부인당의 유래와 축문이 기록된 액자가 걸려 있다. 액자 밑에 설치된 제상 위에는 '부인영신(夫人靈神)'이라 쓴 신위가 놓여 있다. 일제강점기 말까지도 주벽에는 '조영부인영신(窕英夫人靈神)'이라 묵서한 편액이 걸려 있었다. 당할머니를 모신 부인당은 마을에서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신앙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평소에 그 주변을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부정한 사람이나 산모 등의 접근은 매우 금기시했다. 이런 연유로 80여 년을 살아온 노인들마저 지금까지 한 번도 부인당산제를 구경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1. 제관의 선정과 금기 부인당산제는 매년 정월 열나흗날 자정에 거행된다. 제관은 정월 초사흗날 무렵에 부정하지 않은 다복한 노인 중에서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닿는 주민들 가운데에서 뽑는다. 제관은 흔히 '산제 잡숫는 사람' 또는 '유사(有司)'라고 부르는데, 으레 부부를 함께 선정하여 제를 주관하도록 한다. 축관은 마을에서 한문에 능한 사람이 맡는다.

선출된 제관은 엄격한 금기를 수행한다. 제관은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왼새끼로 꼰 금줄을 치고, 황토를 펴서 마을 사람들의 방문을 일절 금한다. 부인당에도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편다. 이때 오물이 섞이지 않은 붉은 흙을 파다가 마을에서 부인당 입구까지 길게 황토를 한 줌씩 뿌린다. 일주일 전부터 제관은 부인당 뒤편에 있는 도랑으로 가 매일 밤 얼음을 깨고 찬물로 목욕재계를 한다. 제관은 술과 담배를 금해야 하며 비린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젓갈이 들어간 김치조차 먹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그 해 제관으로서 산제를 모신 사람은 1년 동안 부정한 장소에 가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자신은 물론 마을에

우환이 닥치는 까닭에 이웃에서 초상이 나도 문상을 가지 않았다. 실제 아내가 임신한 줄을 모르고 산제를 모셨다가 동티가 나서 제관을 지낸 본인과 아이가 죽었다든가, 산제를 잘못 모신 탓에 가족이 화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마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일화이다. 이렇듯 산제를 주관할 제관에게는 유난히 까다로운 금기가 적용되는 탓에 예전에는 1년 전에 미리 원로들이 상의하여 적임자를 선정하고 언행을 조심하도록 했다고 한다. 금기가 엄했던 당시에는 제관과 축관이 여자가 없는 가정을 택하여 그 집에서 일주일을 함께 숙식하며 정성을 들였고, 이 기간에는 누구도 제관이 머무는 곳에 침범할 수 없었다고 한다.

2. 공동체 금기 마을에서도 정월 초열흘날 이후에는 각별히 조심한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은 산제가 3~4일 앞으로 다가오면 고기는 물론 멸치나 새우젓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살생을 금기시하여 파리, 빈대, 이도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빨래도 꺼렸으며 집안에서 도마질을 하거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때에는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런가 하면 산제 당일에 마을로 들어온 사람은 제사가 끝난 뒤에야 동구 밖으로 내보냈을 정도로 부정을 가렸다. 한편 제관이 선출되면 마을 사람들은 풍장을 치고 가서 부인당 앞에 두레의 농기를 세워 놓는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묵서되어 있으며, 산제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그대로 세워 두었다가 2월 초하루가 되기 전에 내린다. 농기를 세우는 것에는 머지않아 산제를 지낸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당할머니가 제당에 깃들기를 염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 제전 및 비용 산제 비용은 40~50만 원이 소요되며, 예부터 제전(현재는 논)에서 나오는 쌀로 충당한다. 『여지도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당할머니의 제전은 고려 태조 왕건이 하사한 밭인데 무녀가 죽은 뒤에 동네 사람들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면서 제전이 된 것이다. 전하는 말로는 그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마을에서 보이는 곳은 모두 제전에 속했으며, 80여 년 전까지도 대부분 부인당의 제답(祭畓)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이 제전은 그해 제관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경작권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제관은 마을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되 가족이 단출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뽑았다. 제전을 농사짓는 사람은 도조(賭租)를 내는 대신 그 곡식으로 산제의 제수 비용을 부담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한편 산제에 올릴 메를 수확하게 될 논에는 네 귀퉁이에 대나무를 꽂고 왼새끼로 금줄을 쳤다고 한다. 이것은 들쥐나 조류, 기타 해충 따위가 감히 범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만큼 주민들은 산제를 신성시하여 제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부정함이 없도록 정성을 들였다.

제당내부와 제물진설
충남 논산시 부적면 부인2리 지밭마을
2004.2.4. 김병관

4. 제수 준비 제물은 시루떡, 메, 삼색실과, 전, 조기, 탕, 산적, 나물(고사리 · 도라지 · 콩나물) 등이다. 종류는 기제사(忌祭祀)와 대동소이하지만 과일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진설하고, 술 대신 식혜를 쓰며, 탕으로 소탕(素湯)만 쓰되 어류와 육류를 넣은 어탕(魚湯)이나 육탕(肉湯)은 올리지 않는다. 또한 이 제의는 흔히 산신제의 희생물로 바치는 돼지머리나 쇠머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닭도 쓰지 않는다. 이것은 부인당에 좌정한 당할머니의 신격이 실존한 무녀인 것과 관련이 깊다. 제물은 하루 전에 구입하며, 시장을 오가는 중에 부정한 것을 피하고 상인과 값을 흥정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유사의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에도 침이 튀지 않도록 입마개를 하고 도중에 말을 하지 않는 등의 금기가 수반된다. 제기는 자기로 된 주전자와 대접, 잔을 비롯하여 예부터 내려오는 해묵은 그릇이 있었으나 도둑을 맞아 소실되었다.

정월 열사흗날이 되면 동네 청년들은 화톳불로 사용할 땔감을 구하러 간다. 밤을 꼬박 지새우며 산제를 지내려면 나무가 여러 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들판에 자리한 지밭은 땔나무가 매우 귀해 20리 이상 화목(땔나무) 원정을 떠나기 일쑤였으며, 이로 인해 더러는 다른 마을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색한 산주인이라 하더라도 당할머니 제사에 필요한 나무라고 하면 묵인해 주었다고 한다.

5. 부인당산제 제물은 당일 오후에 유사의 집에서 준비한다. 이윽고 땅거미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유사는 지게에 제물을 지고 부인당으로 향한다. 이때 징잡이가 힘차게 징을 울리면서 함께 간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잠시 뒤에 산제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이다. 이 소리를 듣고 개별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집에서는 마짐시루(마중시루)를 안치한다. 부인당에 도착한 유사는 당내에 마련된 제상에 차례로 제물을 진설한다. 예전에는 부정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제물을 하나하나 백지로 싸서 가지고 갔다고 한다. 유사는 미리 준비해 둔 화목으로 불을 지펴 두었다가 밤 10시쯤이 되면 화톳불에 메를 올린다. 유사가 메를 지어서 제상에 올리면 징잡이는 다시 한 번 징을 울린다. 이는 각 가정에서도 마짐시루를 떼어서 장독대(당산이라고도 부름)나 마당으로 옮기고 치성을 드리라는 신호이다.

소지올림
충남 논산시 부적면 부인2리 지밭마을, 2004.2.4. 김병관

이것은 당할머니를 극진히 위하는 집에서 부인당의 산제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가정의 평안과 무병제액을 비는 당산고사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부인당산제는 기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차는 분향-강신-헌작-독축-헌작-첨작 순으로 진행한다. 헌작은 술 대신 식혜를 쓴다. 산제의 마지막 절차로 거행하는 소지는 대통령의 소지를 필두로 도지사, 논산시장, 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순으로 행한다. 이어서 제관은 각 가정의 대주소지와 이웃마을 이장, 지역 유지들의 소지를 고사덕담으로 축원해 준다. 다만 상중인 사람은 부정하다 하여 소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례이다. 예전에 다섯 마을이 합동으로 산제를 모실 때에는 해당 동리의 대주소지도 모두 올려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수백 장의 소지를 일일이 올려야 하는 까닭에 산제는 새벽녘이 되어야 마칠 수 있었다.

6. 대보름 걸립 소지를 끝으로 산제가 마무리되면 징잡이는 징을 쳐서 주민들에게 알린다. 유사와 축관은 즉석에서 간단하게 음복을 하고 제상에 올린 제물은 시냇물에 띄워 보낸다. 이것은 산제 지낸 음식을 먹

은 사람은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속설이 전하기 때문이다. 산제를 마치면 풍물패가 마중을 나와 길군악을 울리며 마을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튿날인 정월대보름날에는 오전부터 풍물패가 가가호호를 돌며 지신밟기로 축원해 준다. 이때 풍물패가 집 안으로 들어서면 뒤꼍 당산(장독대)으로 가서 당산굿을 친 다음 부엌(조왕굿), 마루(성주굿), 마당(마당굿)을 차례로 돌며 액운이 없기를 기원한다. 풍물패를 맞이한 집에서는 푸짐하게 주안상을 차려 이들을 대접하고, 온 마을 사람들은 진종일 풍물놀이를 벌이면서 흥겨운 대보름날을 보낸다.

참고문헌 輿地圖書, 全鮮名勝古蹟, 忠淸道邑誌, 湖西邑誌, 태조왕건 전설과 논산 부인당산제의 성격(강성복, 충청민속문화론, 민속원, 2005).

필자 강성복(姜成福)

논산양암동계문서 (論山陽岩洞稧文書)

정의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양암마을 동계문서. 해마다 산신제에 소요되는 제물의 종류와 비용, 제관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 양암동계문서는 산신제를 매개로 동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18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한 세기에 걸친 기록이 담겨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시월 초사흗날 자시(子時)에 산신제를 지내 왔다. 이를 위해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닿는 정결한 공물유사(供物有司)와 제관·축관을 선정하여 제를 지내 왔다. 산신제를 마친 이튿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공물유사의 집에 모여 주연을 베풀고 자금을 결산하는 동계의 대동회의가 개최되었다. 양암동계문서는 매년 그 내역을 기록한 장부책이다.

양암동계문서는 표제가 기록된 앞부분은 낙질되어 없어진 상태이고, 병신년(1896) 시월 초사흘부터 산신제에 지출된 비용과 수입지출 내역, 계 기금을 계원들에게 빌려 주고 이자를 증식한 분급기(分給記)가 자세하다. 이와 함께 산신제의 물목과 제물의 가격을 적은 제수기(祭需記), 축문, 차기 연도 동계유사 명단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제수기에 등장하는 물목을 살펴보면, 생우(牲牛) 혹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명태, 미역, 백지, 땔나무, 엿길금[麥芽], 양초 등으로 매우 간소한 편이다.

한편 동계에 새로 가입하는 추입자(追入者)는 신입례로 정해진 기금을 납부하면 구성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에 기록된 추입자의 신입례는 술 한 동이와 벼 한 말(租一斗)이었다.

의의 양암동계문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마을의 운영과 산신제의 실체적인 모습이 갈무리되어 있는 자료이다. 무엇보다 그 속에는 115년에 걸친 제물의 종류와 변화, 생활물가의 변동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을 단위에서 전승되어온 산신제의 지속과 변화양상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대전·충남 촌계류 문서의 수집사업 최종보고서(강성복·유병덕 외, 국사편찬위원회, 2008),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논산주곡리장승제

정의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에서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나라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지내는 마을 제사. 1992년 10월 28일에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주곡리는 조선시대 이래 청주 양씨(淸州 楊氏)를 중심으로 그 서족(壻族)인 함평 이씨(咸平 李氏), 전주 이씨(全州 李氏)가 세거해 온 곳이다. 청주 양씨의 입향조는 조선 연산군(燕山君) 때 신도안에서 이주한 양춘건(楊春健, 1448~1509)이다.

주곡리장승제의 유래는 청주 양씨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중 하나는 양춘건이 정착하여 마을 어귀에 장승을 만들어 세우고 해마다 마을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위하여 제사를 지낸 것이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진왜란 때 밤중에 마을을 침입하려던 왜군이 장승을 마을 사람으로 알고 총을 쏘며 지체하는 동안 주민들이 무사히 피란하였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장승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해서 장승제를 더욱 극진하게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주곡리 출신으로서 향선생(鄕先生)으로 존경을 받던 숙인재(熟仁齋) 양치호(楊致灝, 1871~1944)가 전염병이 창궐하자 장승을 만들고 축문을 지어 제를 지내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편 주곡리에는 장승의 기원과 관련해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장모(張某) 정승(政丞)과 관련한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장 정승의 악행이 알려지면서 조정에서는 그를 능지처참하고 본보기로 그의 형상을 나무로 깎아 거리에 세워 두었는데 이것이 변질되어 장승(將丞)이 되었다는 것이다.

천하대장군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2005.2.28
유병덕

구전과 달리 문헌상 기록으로는 1938년에 발간된 『석전·기우·안택(釋奠·祈雨·安宅)』(朝鮮の 鄕土神祀 第二部)의 「수호제(守護祭)」편에 주곡리장승제 축문이 충남 논산의 '장승제 축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이 축문에는 마을 이름은 나와 있지만 현재 주곡리에 전래되는 숙인재 선생이 지었다는 축문과 성씨별 순서·문구가 거의 동일하여 주곡리장승제의 축문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주곡리장승제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서 단정하기 힘들지만 정황상 조선시대 이래 전승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근현대 들어서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장승제가 중단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두 시기는 국가적으로 전통 신앙을 미신으로 간주하여 타파하려던 때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산림법을 빌미로 목장승을 만들어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등 억압이 있었고, 1970년대에는 도로 확장 등 새마을 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장승을 철거하자는 주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파로 한때 목장승은 철거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장방형의 돌, 1970년대에는 시멘트로 각각 장승을 만들어 장승제를 지속해 왔다. 시멘트장승은 몇 년 못 가서 다시 목장승으로 대체되었다. 당시 세운 석장승과 시멘트장승은 아직까지 목장승과 함께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지하대장군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2005.2.28, 유병덕

1990년대 들어서는 주곡리장승제가 논산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장승제에 대한 마을 안팎의 관심과 위상도 높아졌다. 1992년에 '주곡리 향토유적보존회'를 결성하고, 2003년에는 해체된 마을 동계를 재결성하여 장승제를 주관하는 등 마을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내용 주곡리장승제는 마을 어귀의 장승배기에서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지낸다.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으로 여겨지며, 장승제에서는 국태민안

(國泰民安)과 마을의 안과태평을 빈다.

주곡리장승은 장승배기로 부르는 마을 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남녀 장승이 마주보고 있는데, 마을 바깥에서 보았을 때 왼쪽이 남장승, 오른쪽이 여장승이다. 남장승에는 '천하대장군축귀신(天下大將軍逐鬼神)', 여장승에는 '지하대장군축귀신(地下大將軍逐鬼神)'이라 먹으로 명문을 써 놓았다. 장승 옆에는 솟대를 함께 세우는데, 여기서는 솟대를 '짐대' 또는 '오릿대'라 부른다. 주곡리에서는 장승과 솟대를 해마다 새로 깎아 묵은 것과 함께 세워두는 전통이 있어 10여 기의 장승과 솟대가 한 묶음으로 세워져 있다. 여장승 옆으로는 신목(神木)으로 여기는 참나무가 있고, 남장승 근처에는 장승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장승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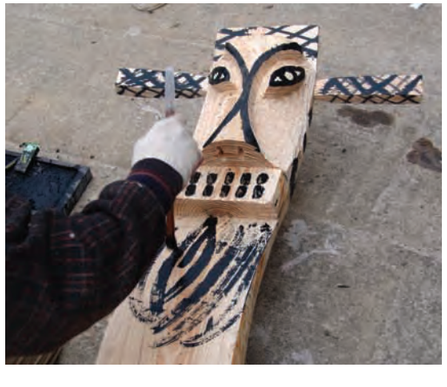
장승의 크기는 대개 2m 정도로, 남장승이 여장승에 비해 좀 더 체구가 크다. 남장승은 머리에 사모(紗帽)를 쓰고, 눈을 부라리고 있으며 턱에는 묵선(墨線)으로 긴 수염을 그려 놓았다. 여장승은 족두리를 쓰고, 역시 눈을 부라리고 있으나 남장승에 비해서는 덜 위압적인 모습이다. 장승의 코는 양쪽 뺨 부위를 깊게 파서 자연스럽게 도드라지게 만들었고, 이빨은 끌로 쪼아서 직사각형의 형태로 표현해 놓았다.

주곡리장승제는 정월 초삼일에 제비(祭費)마련을 위한 걸립과 제관선정으로부터 시작한다. 논산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되면서 논산시로부터 제비의 일부를 보조받고 있지만, 장승제의 제비는 전통적으로 농악패가 집집마다 돌며 걸립을 해서 마련한다. 제관으로는 제주 · 헌관 · 축관 및 제의를 보조하는 좌집사 · 우집사를 선정한다. 전에는 유사를 별도로 두어 제물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게 했으나 근래에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준비한다.

제의 당일 오전에는 주민들이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장승과 짐대를 만들 나무를 베고, 또 다른 패는 제장(祭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장승목으로는 조선송[紅松]만을 쓰며, 천하대장군(남장승)은 '우람하게 보이려고 배가 불룩 나온 놈'을 선호하고, 지하대장군(여장승)은 '배가 나오면 거만하고 드센 것처럼 보이니까 다소곳하게 배가 들어간 놈'을 선호한다. 짐대는 가늘며 길고 곧은 소나무를 장대로 하고, 오리머리를 만들 기역(ㄱ) 자 모양의 나뭇가지도 함께 준비한다. 제장을 청소할 때 장승샘도 함께 깨끗이 처내며, 청소가 끝나면 장승배기 일대 사방에 금줄을 둘러친다. 금줄 한 가운데에는 황사(黃砂)로 정방형의 제단을 만든다. 금줄 앞 · 뒤의 길 양편으로는 세 무더기씩, 총 열두 무더기의 황토를 펴 놓는다.

오후에는 장승과 짐대를 깎아 장승배기에 세운다. 장승은 먼저 낫으로 소나무의 흰 속살이 드러날 때까지 껍질을 말끔하게 벗겨낸 다음 붓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린 후에 톱과 도끼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형상을 조각한다. 머리와 얼굴 부위는 정과 끌, 망치 등을 이용해 보다 세밀하게 조각하며, 명문을 쓸 배 부위는 편편하게 깎는다. 조각이 끝나면 붓으로 눈과 귀, 이빨, 사모관대의 문양을 그려주고, 배 부위에 명문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짐대는 오리와 장대로 구성되는데, 장대는 가늘고 긴 나무의 껍질만 벗겨 그대로 사용한다. 오리머리는 기역(ㄱ) 자 모양의 소나무 가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껍질을 벗긴 후 한 쪽을 주둥이 형태로 납작하게 깎고 붓으로 눈과 깃털모양을 그려주면 완성된다. 오리의 몸통이 되는 네모난 널판 조각은 앞뒤로 구멍을 뚫어 앞에는 오리머리를, 뒤에는 장대를 꽂는 용도로 쓴다. 이 몸통에 오리머리와 장대를 연결하면 짐대는 완성되는데, 이를 두고 주민들은 "짐대 위에 오리를 올려 놓는다"고 말한다. 장승과 짐대를 깎는 내내 한쪽에서는 농악을 치며 장승깎기를 격려하고, 장승과 짐대가 완성되면 농악패를 앞세우고 장승을 세우러 간다. 이들이 장승배기에 도착하면 묵은 장승들보다 맨 앞자리에 새 장승을 세우고 다시 잘 동여매 놓는다.

장승제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 지낸다. 제물은 팥시루떡 · 돼지머리 · 삼색실과 · 포 · 탕 · 메 등을 쓰며, 길 한복판에 임시로 마련한 황토제단에 진



장승 깎기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2005.2.28 유병덕

장승 세우기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2005.2.20 유병덕

설한다. 장승제 절차는 유교식 제의를 따라 분향-강신-초헌-독축-아헌-종헌-소지올리기의 순으로 진행되며, 제관은 두루마기에 유건을 쓰고 제를 진행한다. 소지는 마을의 대동소지를 시작으로 각 집에서 소지를 올린다. 전에는 유사가 유사소지를 올린 후 마을 전체의 가가호호(家家戶戶) 소지를 올렸으나 요즘은 각반의 반장들이 해당 반원들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올리기가 끝나면 금줄을 풀어서 장승의 몸통에 감아둔다. 제관은 제물의 일부를 떼어서 한지에 싼 후 남녀 장승의 몸통에 매달아 두는데, 이를 '헌식(獻食) 드린다'고 한다. 장승샘에는 별도로 생미역을 준비했다가 바친다. 또 제관은 바가지에 장승샘의 물과 제물 일부를 섞어 마을 바깥을 향하여 "잡귀잡신은 물러가고 부귀영화만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며 뿌리는데, 이를 '해물리기'라 한다.

한편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은 장승이 많이 쌓이면 장승제를 지내고 난 후 썩고 문드러진 장승을 골라내어 소각을 하기도 한다. 모든 의례를 마치면 즉석에서 음복을 하고, 농악을 치며 한바탕 신명나게 노는 것으로 장승제는 마무리 된다.

참고문헌 **논산 주곡리장승제의 지속과 변화**(유병덕, 역사민속학 22, 역사민속학회, 2006), **충남지방 장승 · 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1), **한국의 마을신앙 상**(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마을제당 3**(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유병덕(柳炳德)**

논산후동동계문서 (論山後洞洞稧文書)

정의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후동에서 1859년 산신제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직한 산제계 및 동계 관련 문서.

내용 후동동계문서는 『후동산제절목(後洞山祭節目)』 · 『동계기(洞稧記)』 등 4건이다. 이중에서 주목되는 문서는 『후동산제절목』이다. 이는 기미년(1859) 10월 후동에서 해마다 음력 시월 초이튿날에 거행되는 산신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이 돈을 갹출하여 산제계를 조직하고 그 절목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 문서는 「설계좌목(設契座目)」, 「추입좌목(追入座目)」, 「하계좌목(下稧座目)」, 「제물건기(祭物件記)」, 「축문식(祝文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좌목」은 계의 결성을 주도한 인물로 추정되는 유학 오원규(吳元奎, 1794년생)을 필두로 32명의 성명, 생년, 자, 이주 여부 등이 기록되었다. 이후에 작성된 「추입좌목」은 1860년부터 1911년까지 52년 동안 약 110명이 새로 가입한 명단이고, 「하계좌목」은 1859년에 등재된 5인 외에 15명의 이름이 추가로 실려 있다. 이로 미루어 설립 초기 산제계는 신분의 고하를 구별하지 않고 마을의 전체 구성원을 포괄

하는 상하합계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산신제의 제수물목(祭需物目)인 「제물건기」와 「축문식」이 첨부되었다. 「제물건기」에는 산신제를 지낼 때 진설되는 쇠머리, 명태, 미역, 삼색실과(대추 · 밤 · 감), 백지, 반미(飯米) · 병미(餠米) · 객주미(客酒米) 등 제물의 종류가 기록되었고, 이와 함께 솥[土鼎], 시루, 병, 술항아리, 향로, 술잔, 작구점(酌具坫), 사발, 향, 송명(松明) 등 제기(祭器) 품목이 실려 있다. 「축문식」은 두 종류의 산신제 축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앞에 실린 축문은 '해동조선국(海東朝鮮國) 충청우도(忠淸右道) 노성(魯城) 상도면(上道面) 후동리(後洞里)'로 시작되는 구절로 보아 1859년 계를 조직할 때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에 있는 축문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작성된 것인데 한자로 된 원문의 중간에 한글 독음(讀音)을 달아 놓았다.

후동동계문서는 산제절목 외에 1860년부터 1952년까지 약 한 세기에 걸친 기록이 소실되었고, 이후 작성된 자료는 동계의 운영상황을 기록한 『동계기』이다. 여기에는 1953~1968년까지 마을의 세입세출 내역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특히 기해년(1959) 10월 초사흗날에 열린 동계에서는 중수에 가까운 7개항의 결의사항이 채택되었다.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첫째는 계의 기본금은 장리(長利)로 하고 명년도에 이월할 것, 둘째는 추입자의 추입조는 백미 3두로 정하되 동계 재산의 증감에 따라 총회결의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기거주인이라도 분가자는 그 반액으로 할 것, 셋째는 자금의 관리는 전유사(錢有司)가 주관할 것, 넷째는 계원이 상을 당할 시에는 각 가구에서 1인씩 필히 조력할 것, 다섯째는 동산에서 사사롭게 벌목을 하다가 송유사(松有司)에게 적발된 자는 한 짐의 송목대로 100원을 징수하고, 차후에는 벌송(伐松)을 엄단하기 위하여 한 짐에 300원을 부과할 것, 여섯째는 계원명부를 새롭게 작성할 것 등이다. 이에 의거하여 다시 작성된 좌목에 등재된 동계원은 모두 70명이다. 『동계기』에 나타난 후동동계는 4명의 역원을 두고 마을의 대소사 및 재산을 관리했다. 곧 재정을 담당하는 전유사를 비롯해, 동유림의 남벌을 감시하는 송유사, 혼구(婚具)의 출납을 맡은 혼구유사, 산신제의 제물을 담당하는 공물유사(供物有司)가 그것이다. 또한 동사(洞事)를 관장하는 각 유사에게는 동계에서 매년 수고비 명목으로 백미 1~2두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다.

의의 후동동계문서는 19세기 중엽 이래 자연마을 단위로 치제되었던 산신제와 동계의 운영 모습이 잘 갈무리된 자료이다. 무엇보다 이 문서는 19세기 산신제의 제물과 제기 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지난 시기 후동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마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기금의 식리(殖利), 마을 운영의 주체와 역원,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신입례,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는 일, 동답(洞畓)의 관리, 혼례에 필수적인 동물(洞物)의 구비와 운용, 동산의 관리, 두레의 비용 등 진솔한 생활문화상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대전 · 충남지역 촌계류문서수집사업 최종보고서(강성복 · 유병덕 외, 국사편찬위원회, 2008),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농기(農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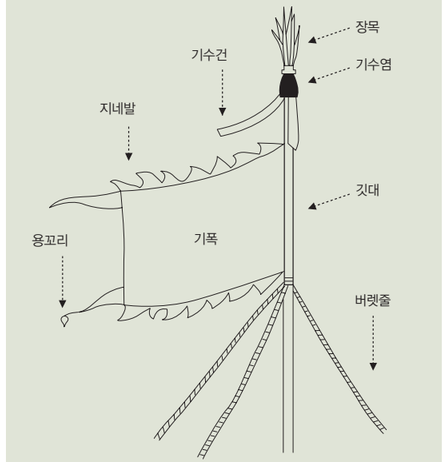
정의 농기는 마을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기. 지역에 따라 농상기 · 대기(大旗) · 덕석기 · 용(龍)당기 · 용기(龍旗) · 서낭기 등으로 불린다.

형태 농기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조선 후기의 농기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가능한 크게 만드는 경향이 강했다. 농기가 마을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기로서 각 마을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농기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즉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장방형 기폭에다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씨를 써 넣은 형태가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농기
전북 전주시 삼천동 비아마을 공터, 2006
김선태

농기는 깃대, 장목, 기수염, 기폭, 지네발, 용꼬리, 버렛줄 등으로 구성된다. 깃대는 주로 대나무로 만들지만 지역에 따라 소나무를 사용하기도 한다. 깃대의 끝에는 장목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여러 번 칼집을 내어 갈라 놓는다. 길이는 보통 5m가 넘으며 7~8m에 달하는 것도 있다.

깃대의 꼭대기에는 장목을 다는 경우가 많다. 장목은 꿩의 꽁지깃을 모아 묶어서 만든 것으로 꿩장목 또는 꿩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꿩의 꽁지 대신 싸리나무나 갈대로 대신하기도 한다.



농기의 구성요소

장목 바로 아래에는 농기를 위엄 있게 장식하기 위해 기수염을 달았다. 대개 총을치라 불리는 기수염을 사용했는데, 총을치는 칡을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긴 후 드러난 하얀 속살을 가늘게 찢어서 붉게 염색한 것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총을치를 대신해 흰수건이나 창호지를 가늘게 찢어서 매달기도 했다. 한편 깃대에는 농기를 세워 놓을 때 사용하는 세 가닥의 긴 줄이 달려 있는데, 이를 버렛줄(벌이줄)이라고 한다. 농기를 세울 장소가 정해지면 주변에 말뚝을 박아 놓고 이 말뚝에 버렛줄을 묶어서 농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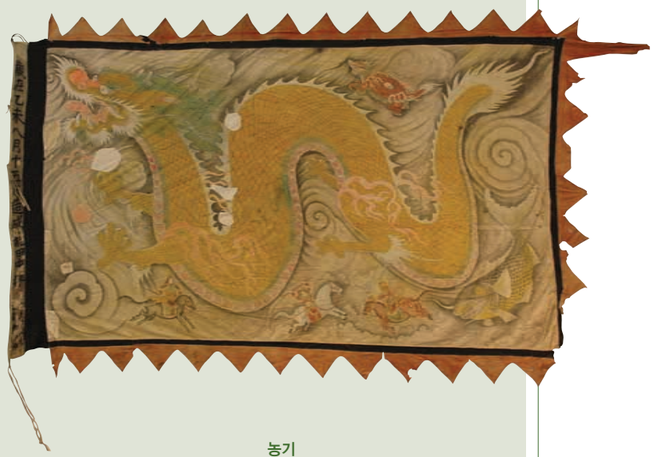
농기
전북 진안군 동향면 능길마을, 2010, 김선태

기폭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긴 형식이며 다른 하나는 좌에서 우로 긴 형식이다. 더러는 정사각형 형태도 있다. 기폭의 둘레에는 검은색과 파란색, 붉은색 등의 천을 잘라 붙여 너풀거리도록 장식하는데, 이를 지네발이라고 한다. 용꼬리는 기폭의 끝에 0.5~1m 정도 길이의 천을 길게 덧댄 것을 말한다.

기폭에는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나 '신농유업(神農遺業)'이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넣는다. 대개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과 구름을 그려 넣지만, 용과 함께 물고기, 자라, 기마상, 신선 등을 그리기도 한다. 마을에 따라 '태평성대(太平聖代)' 같은 글씨를 써넣기도 했다.

농기에는 마을명과 제작연도를 표시해 두는 경우가 많았다. 농기의 제작연도는 두레패의 서열을 가리는 데 근거가 되었다. 후대로 들어오면서 농기의 권위가 약화하고 약식의 농기가 등장하면서 마을명과 제

농기
전북 전주시 삼천동 하봉마을, 2007, 김선태



농기
전북 전주시 평화동 중평마을, 2007, 김선태

작연도가 생략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내용 농기는 일정하게 신이 깃든 대, 즉 신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산굿을 칠 때는 으레 농기가 신을 받았다. 전염병이 돌기라도 하면 마을 어귀에 농기를 세워 놓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농기의 영적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농기는 마을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풍물을 칠 때는 언제나 농기가 앞장섰다. 두레싸움이 벌어지면 마을 간에 농기를 뺏으려고 서로 격렬하게 부딪치기도 했다.

농기와 같이 나무 또는 나무로 만든 수직재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는 신단수 이래의 신목 · 솟대 · 서낭대 · 농기 등이 있다. 엘리아데(M. Eliade)가 지적한 대로 수목신앙의 원초적 형태는 살아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가지와 잎이 제거된 나무기둥이 신앙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나뭇잎의 변화성을 제거함으로써 불변성을 획득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솟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한 수직재이다. 솟대는 살아 있는 나무에서 잎과 가지를 제거한 나무, 즉 생명체로서는 수명을 다했지만 주술종교적으로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나무인 것이다. 서낭대 역시 살아 있는 자연의 나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주술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죽은 나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다만 서낭대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경북 영양군 주실마을의 서낭대가 솟대처럼 고정된 신간의 후신이다. 또 주실은 물론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낭대에 달린 당방울이 솟대에 달린 방울의 잔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정된 신간에서 이동형 신간으로의 변화가 이동걸립(移動乞粒)과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걸립패의 신기(神旗, 서낭대 포함)와 두레패의 농기 둘 다 장목과 방울, 그리고 천으로 된 장식이 나타나며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농기는 상대적으로 제의성이 약화된 것이다.

서낭대와 농기는 대체로 장목과 방울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천으로 된 장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경북 내륙의 서낭대는 안동의 하회나 가송리에서 볼 수 있듯이 옷가지나 천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주민들이 신에게 바친 공물이다. 경남 창녕군 일대의 서낭대는 이와 달리 대나무로 된 몸체에 광목을 둘렀으며, 지역민들이 바친 천을 상부에 주렁주렁 매단 뒤에 중단부에 여러 개의 헝겊을 연결한 깃발을 매달았으며, 깃발에는 특별한 그림이 없다. 전라도 지역 농기의 깃발은 깃대의 상단에 달려 있으며, 몸체를 광목으로 감거나 주민들이 바친 천이나 옷가지를 매달지는 않는다.

서낭대와 농기는 깃발이 없는 것이 가장 오래된 형태이고, 공물로 바친 천이 결합된 형태가 그다음의 것이며, 깃발만 있는 형태가 가장 나중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솟대와 문헌상의 소도에 천으로 된 장식물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점차 공물로 바쳐진 천을 장식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 두레노동이 활성화하고 풍물이 군사희적(軍事戱的) 성격을 수렴하면서 깃발만 있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깃발만 있는 쪽으로 갈수록 주술종교적 성격이 약화되고 유희성이 증가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오늘날 사용되는 농기는 살아 있는 나무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여 솟대와 소도 등의 신간으로 변화하고, 서낭대의 발전에 발맞추어 군사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서낭대와 농기를 이용한 대동놀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서낭대싸움이다. 이 서낭대싸움은 경북 청도군과 경남의 창녕군 지역에서 산견된다. 청도군 차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년 정초에 동제를 마친 각 마을의 풍물패들이 '처낭대(서낭대)'를 앞세우고 풍각면 소재지로 모여든다. 이때 마주치는 풍물패들은 상대편 마을에서 먼저 처낭대를 숙여 자기 마을의 처낭대에 인사하지 않으면 '처낭싸움'을 시작한다. 양편의 처낭대를 마주 건 뒤에 밀어붙여서 상대편의 처낭대가 부러지거나 먼저 땅에 닿으면 진다. 진 편의 처낭은 당연히 이긴 마을의 처낭에게 절을 해야 한다. 한편 창녕군 영산면의 경우 정월대보름에 동부와 서부로 편을 갈라서 줄당기기나 쇠머리대기를 하기 전에 서낭대싸움을 벌인다. 양편은 각 편에서 가장 강하다고 인정된 서낭대를 들고 나와서 싸움을 벌인다. 싸움의 방식은 청도군과 마찬가지이다. 이들 지역의 서낭대싸움은 서낭대끼리의 싸움과 약한 마을이 강한 마을에 굽혀 절하기라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기
전북 진안군 진안전통문화전수관
2008.9.16, 김선태

농기
전북 전주시 삼천동 농협농산물공판장 주차장, 2006, 김선태

농기를 이용한 대동놀이로서는 기세배 또는 기싸움이 있다. 이때 사용하는 농기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당 마을의 동신이 좌정한 것으로 인식된다. 기세배는 두레가 발달한 지역인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농기는 당산굿이나 장승제에서 서낭의 하강처와 상징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두레의 상징으로 더 빈번히 사용되었다. 두레를 결성한 마을에서 가장 먼저 화려하게 농기를 만들고, 농기를 중심으로 두레패가 모이고 이동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농기는 노동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부여군 저석리 산신제에서 사용하는 농기는 두레패의 농기뿐만 아니라 읍에서 주최하는 행사 때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기로도 쓰인다. 정월 초사흗날에 마을별로 농기싸움이 있을 때에는 이 농기로 기싸움을 하는데, 저석3리 두레패는 어느 마을에도 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 저석리로 기세배를 드리러 오곤 하였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의 기세배를 보면, 농기의 제작 연대와 풍물패의 창립 연대 등을 감안하여 맏형이

농기(꿩장목)
전북 전주시 삼천동 하봉마을, 2006, 김선태

되는 선상동(先上洞)과 둘째 형이 되는 부상동(副上洞), 막내인 막내동 등을 미리 정한다.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선상동에 모여 차례대로 '아우기'가 '형님기'에게 세배를 한다. 이때 세배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순위에 불만이 있으면 서로 기싸움을 벌인다. 익산 함열의 기싸움은 기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풍물패 간의 싸움으로 기는 탈취와 훼손의 대상일 따름이다. 우세한 편이 상대편의 농기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기를 찢어버림으로써 승부를 결정하고 형님기가 된다. 이러한 양상은 전북 완주군 봉동의 기세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세배는 앞에서 살펴본 서낭대싸움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둘 다 싸움과 절하기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 내용과 양식화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싸움의 방식을 살펴보면 서낭대싸움은 서낭대를 도구로 한 싸움인 데 반해 기세배 또는 기싸움은 농기를 도구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농기를 앞세운 풍물패 간의 싸움이다. 다음으로 양식화의 정도를 살펴보면 기세배의 세배가 정례적이고 약

식화한 데 비해서 서낭대싸움은 영산을 제외하고는 서낭대 간의 절이 임의적이고 덜 양식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농민의 자부심, 농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농협문화복지재단, 2009), **문경 모산굴 기세배**(문경새재박물관, 문경시, 1999), **부여 저석리 산신제**(임동권, 부여문화원, 2007), **한국 민간신앙의 실체와 전승**(김종대, 민속원, 1999), **한국민속대관–종교, 민간신앙**(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의 두레**(주강현, 집문당, 1997).

필자 **한양명(韓陽明)**

농포신

표제어 포신(954쪽)

농포제

표제어 포제(954쪽)

제의
단양두악산소금무지제 · 기우제
당산제
대전계족산기우제
대전무수동산신제
대전외삼동산신제
도깨비제
동맹
동해대진동도신제 · 재고사
동해동호동천제단제
동해봉정마을고청제
동해신흥동도서낭제
동해어달동서낭제 · 해성제
디딜방아뱅이

제의장소
대전무수동국사봉
동해동호동천제단
둑제당

신격
다자구할머니
도당신
돈지할망
돈짓당신
뒤주대왕

신체
당산나무
대덕법동리석장승
돌탑
돌하르방

제물
닭
돼지
떡

제구
당기
동제횰기
동화대
디딜방아
띠배

자료
대전무수동동계문서

용어
당산
당산옷입히기
당신화
대동회
도가
동답
동사
동제계
동티

다자구할머니
단양두악산소금무지제 · 기우제
닭
당기
당산
당산나무
당산옷입히기
당산제
당신화
대덕법동리석장승
대동회
대전계족산기우제
대전무수동국사봉
대전무수동동계문서
대전무수동산신제
대전외삼동산신제
도가
도깨비제
도당신
돈지할망
돈짓당신
돌탑
돌하르방
동답
동맹
동사
동제계
동제횰기
동티
동해대진동도신제 · 재고사
동해동호동천제단
동해동호동천제단제
동해봉정마을고청제
동해신흥동도서낭제
동해어달동서낭제 · 해성제
동화대
돼지
둑제당
디딜방아
디딜방아뱅이
뒤주대왕
떡
띠배

다자구할머니

상호참조 죽령산신당(848쪽), 죽령산신제(849쪽), 죽령산신제문서(851쪽)

정의 죽령 일대에서 산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여신. 지혜와 용기로 재물을 약탈하는 도둑떼를 물리치고 마을과 나라를 평안하게 해 준 공으로 신격화되었다.

내용 다자구할머니와 관련된 설화를 통해 다자구할머니 신격의 유래를 알 수 있다. 관련 설화는 다음과 같이 약술된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경상도 풍기군으로 넘어가는 죽령고개는 길이 길고도 험하였다. 주요 물자의 유통로인 이곳에는 도둑떼가 들끓어서 행인을 괴롭혔다. 관가에서 군사를 풀어 잡으려 했으나 산의 지리를 잘 아는 도둑들은 험한 산으로 달아나곤 하여 잡을 수가 없었다.

그 도둑들에게 가산을 모두 빼앗긴 할머니 한 분이 관가에 찾아와서 도둑을 잡겠다며 방법을 말한다. 산속에 깊숙이 군졸을 숨겨 놓고 할머니가 산속으로 들어가 아들을 찾으러 간 것처럼 하여 도둑들의 은신처를 알려 주면 와서 잡으라는 것이다. 그대로 하기로 하고 할머니는 산속으로 들어가 '다자구야 더자구야' 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닌다.

이를 본 도둑들이 할머니에게 묻자 아들의 호환으로 찾아다닌다고 하자, 올데갈데 없는 할머니에게 밥을 해 주며 함께 거주하자고 한다. 좋다고 하며 도둑들이 자지 않을 때는 할머니는 '다자구야 더자구야' 하면서 늘 노래처럼 불렀다.

어느 날 하루는 두목의 생일에 도둑들은 대낮부터 술을 실컷 마시며 놀았다. 한밤이 되자 모두 녹아떨어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할머니는 '다자구야 더자구야' 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를 들은 관군이 급히 달려와 도둑을 모두 잡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자구할머니라 부르고, 할머니가 죽어서 죽령산신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서사로 된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분포 양상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당신화 다자구 할머니(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다자구할머니 산신당(단양군 단양읍), 다자구 덜자구(경기도 양평군), 삼천병마골 피홀고개(경기도 시흥시), 부산성(경북 경주시), 조수만 장군과 다자구 덜자구 계략(대구 북구), 마고할매 전설(경북 영주시) 등이다.

이야기의 특징은 대체로 비슷하게 전승되고 있고, 지역적 ·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정도이다. 즉 도적떼 대신 왜적 · 역모군 · 백제군 등의 차이를 보이고 주인공도 할머니가 아닌 여인이나 마고할매 등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모든 이본들에서 일치하는 점은 주인공의 계략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다 잔다'는 의미의 이름 '다자구야'와 '다 깨어 있다'는 의미의 '덜자구야'는 아군으로부터의 공격을 의미하는 신호 계략으로 동일하다.

지역사례 다자구할머니 이야기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수집되는 지역은 죽령 일대이다.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있는 죽령산신제를 들 수 있다. 이 관련성은 용부원 3리의 주민이 세운 다음의 비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자구야! 들자구야! 도적떼 난립하니 소백산 인심 흉흉하고 사회질서 어지럽구나. 다자구할머니 소리쳐 노래부르니, 관가에서 도적떼 토벌하고 후박한 인심 속에 충 · 효 · 예 꽃 피우네. (중략). 우리 마을의 전통을 자자손손 자랑하고 보존하고자 주민의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운다."

죽령산신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관련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선시대부터 행해 오던 '죽령국행제'와의 상관성이 부각되면서 구체화되기도 한다.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산신당의 성립은 앞에서 약술한 다자구할머니의 산신 내력담에서 비롯된다. 산신당의 현판은 「죽령산신당(竹嶺山神堂)」이라 쓰여 있고, 당 안에는 '죽령산지신(竹嶺山之神)'이라 쓴 위패가 함 안에 보관되어 모셔져 있다.

죽령산신제 관련 기록은 『태종실록』에 보인다. 태종 14년에 악(嶽), 해(海), 독(瀆)을 중사(中祀)로 여러 산천을 소사(小祀)로 정해 국행의례를 소재 관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 충청지방의 소사는 계룡산(鷄龍山), 죽령산(竹嶺山), 양진명소(楊津溟所) 등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볼 때 죽령국행제는 죽령산신제와의 상관성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고, 그 전통은 그 이전의 고대로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죽령산 중수재건기에는 "죽령산신당은 사우(祠宇)가 쓰러질 지경에 이르러 이에 춘삼월에 중수재건한 것을 도감(都監)이 아룁니다. 단기 4228년 무자년 3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을 건국하고 국가의 유교적 이념에 따른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산신당이나 성황당을 사우로 바꾸어 지속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된 신화도 조사되고 있다. 즉 다자구할머니 산신당 기원신화가 되는 셈이다.

용부원3리에 거주하는 김성락(1918년생)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 다자구할머니가 도둑을 잡고 나자 나라에 세금이 막 올라간다. 그러니 도둑을 누가 잡았나 찾아 공을 세울라고 수소문하자 도무지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의 꿈에 다자구할머니가 현몽을 한다. '도둑을 잡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죽령산신인데 내가 잡았으니 나의 공을 알리려면 서울에서 연을 띄워 연 앉는 자리에다 내 사당을 지어 춘추로 제를 올리라' 이튿날 문무대신을 불러 연을 만들어 띄웠는데, 연이 앉은 자리에 사당을 만들어 제를 올리게 되었다. 그 자리가 지금 요 자리 큰 옻나무가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 이곳이 현재 죽령산신당이 서 있는 곳이다.

죽령산신당의 유래담은 다자구할머니 이야기의 신화적 특징에서도 사당기원신화와 서로 일치한다. 즉 죽어서 죽령 산신이 되었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이 지역 사람들은 산신으로 다자구할머니를 인정하고 있으며, 산신당의 영험함을 두루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격은 정기적인 제의를 치르면서 확인되고 신성성을 부여받는다. 죽령산신제는 조선의 국행의례적 절차를 거쳐 오늘까지 산신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산신제의 절차를 보면 국행의례의 전통을 전승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산신제는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미리 선출된 도가에서 제수를 준비하고 제의 당일 두 줄로 진설한다. 앞줄에 왼쪽부터 사과, 수박, 배, 시루, 떡, 참외, 감, 밤, 대추 등을 목기에 담아 진설한다. 뒷줄에는 돼지머리, 적, 메 등과 술잔을 진설하고 양쪽에 촛대를 놓는다.

의례가 시작되면 산신당 정면 아래 관복 차림의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흰색의 홀을 들고 선다. 그 뒤에는 남자 30여 명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제의 진행은 유교식으로 집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 산신제는 더 이상 관에서 주도하지 않지만 민간에서 다자구할머니의 영험함과 신성성이 하나의 종교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 자료가 입증하고 있다.

봄과 가을에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산신제는 주민들의 풍요와 평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다자구할머니 설화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4-1)에 실린 뒤에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더욱 그렇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부응하여 일각에서는 조선시대 국행의례의 전통을 살려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산신당의 위상을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고문헌 **다자구할머니 설화의 신화적 연구**(이창식 외, 동아시아고대학 7,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 **마고할미와 다자구할머니 설화의 전승양상**(김영선, 세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죽령국행제 조사연구**(이창식, 박이정, 2003), **죽령산신당 당신화 '다자구할머니'와 죽령산신제**(최운식,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필자 이정재(李丁宰)

단양두악산소금무지제 · 기우제

정의 충북 단양군 단성면 두악산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어 마을의 화재예방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제와 마당바위에서 지내는 기우제.

유래 기록상 단양의 소금무지제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지진과 폭우 피해에 대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소금무지제의 유래는 단양의 '단(丹, 뜨거울 단)'과 '양(陽, 볕 양)'에서 찾을 수 있다. 구전에 따르면 단양(현 단성면 소재지) 남쪽의 산이 두악산이며, 이를 '소금무지산' 또는 '남산'이라고 한다.

두악산소금무지제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일대, 2004.2.3, 김태호

소금 붓기

한강수 붓기

동전넣기

뚜껑 닫기

배례

헌작

현 단양중학교 자리는 주택가였다. 어느 날 이곳은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었다. 이런 연유로 이곳을 '잿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형 화재에 대하여 도술가는 단양이라는 글자가 모두 불[火]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재가 빈번하다. 읍내 중앙에 연못을 파고 두악산 정상에 소금을 넣은 항아리를 묻으면 화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마을 중앙에 연못을 파고 산 정상에 세 개의 소금단지를 묻으면서 가운데 항아리에는 소금, 좌우 항아리에는 한강물을 넣었더니 화재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곳에 소금과 한강물을 넣고 빌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여 매년 정월이면 기자치성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의 연못은 충주댐 건설로 수몰되고 소금무지제만 마을의 제사로 지속되고 있다.

한편 마당바위기우제 역시 유래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1760년 이후 단양에서 기우제가 세 차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특이한 것은 단양 지역에서는 폭우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구전에 따르면 단양천의 상류인 복도소(復道沼) 위쪽 선유동(仙遊洞)에는 넓은 바위가 있다. 이곳은 두악산의 약수가 흘러 놀이하기가 좋다고 한다. 그리고 가뭄 피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여기서 기우제를 지냈으며,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리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이는 두악산의 영험함과 마당바위가 있는 선유동의 좋은 뜻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다.

역사 두악산 소금무지제와 기우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1955년에 소금무지제에 대한 구전이 기록화되었고, 같은 해에 마당바위기우제에 대한 구전도 기록화되어 전하고 있다. 1970년대에 산 정상까지 가지 않고 중간 단에서 마을 제사처럼 제의를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황급히 마을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의는 1970년대까지 자연스럽게 전승되다가 어느 순간 단절되었다. 단성면의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단성향토문화연구회'를 결성해 단성면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던 중 구전으로 전해 오는 두악산소금무지제와 마당바위기우제를 다시 지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우제는 원래 부정기적으로 지내던 것이지만 편의상 전통으로 계승하기 위해 소금무지제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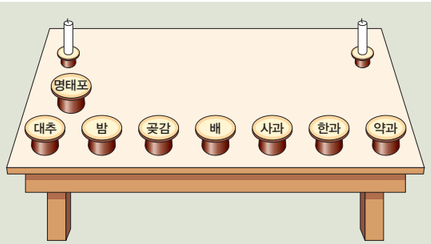
특징 소금무지제는 본래 화재를 막을 목적으로 형성된 예방 제의였다가 여기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마을 제의로 정착한 형태적 특징을 보인다. 제물을 차릴 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육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당바위기우제 역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었으나 마을 제의와 결합하여 마을 제의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명칭은 기우제이지만 농한기에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곡제(祈穀祭)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희생물은 돼지이다. 그리고 제사 때 헌관으로 단양군수와 부군수, 단성면장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보아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제의라기보다 고을을 범위로 하는 고을 제의 형태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금무지제의 제단은 두악산의 정상에 있으며, 주변을 낮은 담장으로 두르고 소금단지가 묻힌 곳에 잡석을 제단 형식으로 쌓은 형태이다. 기우제의 마당바위는 강 한가운데에 있는 평편한 넓은 바위를 말하며, 그 위에 제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다.

내용 두악산소금무지제를 지내는 시기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 아침이다. 산에 올라가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약간씩 시간을 달리한다. 2004년에는 오전 11시 20분에 제사를 거행하였다. 제삿날 아침 8시부터 단성향토문화연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한 제물과 소금, 한강수를 회원들이 나누어서 배낭에 넣어 메고 올라간다. 한강수는 병 전체를 한지로 밀봉하고, '성수(誠水)'라고 표기해서 신성시한다. 두악산은 해발 732m이기 때문에 정상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제사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30~40명이 참가한다.

정상에 도착하면 먼저 소금단지가 묻힌 주변에 금줄을 치고, 청소를 깨끗이 하여 제사 장소로서의 신성성을 확보한다. 제단은 소금단지가 묻힌 곳을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만들어 돌을 쌓아 구분하였다. 제물은 이 단 위에 한지를 깔고 차린다. 그 아래에는 제관들이 의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돗자리를 깐다. 제물을 차리는 동안 헌관들은 준비한 한복으로 갈아입고 갓을 쓴다. 헌관은 삼헌관이다. 초헌관은 단양군수 또는 단성면장, 아헌관은 단성향토문화연구회장, 종헌관은 단성의용소방대장 등이며, 그해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제물로는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과일과 포만 차린다. 그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 정상까지 운반하는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제기 역시 일회용을 사용하지만 향로와 일부 제기들은 제단에 설치된 소형 스테인리스 캐비닛에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제상 차림은 다음과 같다.



두악산소금무지제 상차림

준비가 되면 헌관들이 제단으로 올라가 가져온 소금을 세 개의 항아리에 모두 붓고 나머지는 주변에 뿌린다. 그리고 준비해 간 한강수를 좌우의 항아리에 가득 붓고, 중앙의 항아리에는 물은 붓지 않고 동전을 넣는다. 이때는 함께한 사람, 심지어는 등산객들까지도 동전을 넣는다. 동전 넣기를 마치면 항아리의 뚜껑을 닫고 제사를 진행한다.

초헌관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 강신(降神)을 한다. 강신은 분향을 하고 나서 잔을 올리는 것이다. 이어 제관과 참가자 모두 재배한다. 이를 참신(參神)이라고 한다. 참신을 하고 난 뒤 초헌관이 초헌(初獻)을 한다. 초헌관이 헌작을 하고 꿇어앉으면 축문을 읽는 것이다. 2004년에 행한 소금무지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甲申)正月(庚子)朔十四日(癸丑)
丹陽郡守 (李建杓)敢昭告于
歲序流易 若時昭事 斗岳鹽嶺山
神靈山王大神 伏惟尊靈
今此日吉辰 敬伸祈願 鹽是除火
國昌邑繁 丹陽郡民 安寧平和 無病長壽
時化年豊 除霖除旱之理 神其補祐
俾無後艱 受此檎望

내용은 화재를 막아 주고, 나라가 발전하고, 단양군민 모두가 평안하고 평화로우며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비는 내용이다. 축문에서 보듯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을 제의 범위로 볼 수 있다. 독축을 마치면 초헌관이 재배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헌을 마치면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행한다. 방법은 잔을 올리고 재배하는 형식이다. 이 절차가 초헌과 다른 점은 독축이 없다는 것이다. 종헌을 마치면 헌관과 참가자 모두 재배를 한다. 사신(辭神)이다. 사신을 마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의 대상은 단양군민 일동, 단양군수, 부군수, 경찰서장, 문화원장, 의회의원, 단성면장, 단성의용소방대장, 단성향토문화연구회 회원 일동을 비롯해 남한강석부작, 승일산업(주), 단성부역장, 영진세차장, 단양군청, 동아광고, 단양방앗간, 정도개발 등 중요한 기관과 산업체 등으로 마을 주민 개인보다 단양군민 전체의 소지라고 할 수 있다.

소지에 이어 참가자들이 잔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등산객이나 참가자들 중 잔을 올리기 원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잔을 올리고 소원을 빈다. 이 부분이 유교식 제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금무지제를 주관하는 단성향토사연구회에서는 원래 홀기를 만들어 정식으로 유교식 제사를 지내려고 했으나 유림들이 민간신앙적인 제사에 유교식 예법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여 홀기를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일반인들의 헌작을 마치면 음복하고, 제사를 모두 마치면 내려온다.

한편 마당바위기우제는 소금무지제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소 위쪽 선유동에 있는 마당바위로 가서 지낸다. 기우제는 부정기적 제사로,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시행했다. 국왕이 직접 지내거나 지방관, 민간의 백성들도 시행하였다. 『각사등록(各司謄錄)』에는 1760년 이후 단양에서 지방관이 주재한 기우제가 세 번 거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구체적인 장소 등은 나타나지 않으나 1760년 6월 5일에 사직단에서 올렸으며, 마당바위기우제는 기록이 없다. 1845년 6월 3일 기록에는 기우제를 지낸 뒤 곧바로 비가 많이 내려 흡족하다고 되어 있다. 현지 조사에서도 기우제를 지낸 해에 오히려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고 한다. 2004년의 경우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기우제를 지낼 때는 날씨가 매우 화창했으나 제사가 끝난 이후인 저녁부터 단양 지방에 눈이 내리기도 했다.

또한 『각사등록』에는 가뭄보다 수해 기사가 더 많다. 1738년 이후 수해 관련 기사는 총 22건이다. 그러나 중부지역의 평균 강우량은 1,100~1,400㎜(1971~2000년 조사 평균값)였으나 단양지역의 경우 1,106㎜(1995~2001년 조사 평균값)로 평균치에 밑도는 강수량이지만 수해 발생은 여름 집중 강우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마당바위는 강 한가운데에 있는, 10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평편한 바위이며, 기우제의 제장이다. 기우제 지낼 시간이 다가오면 마당바위 근처에서 단성농악대 회원들이 풍물을 친다. 참가자들은 먼저 금줄을 마당바위 주변에 설치한다. 그리고 헌관 이하 일동은 갓과 두루마기를 제복으로 갖추어 입는다. 이후 진설을 행한다. 진설도는 아래와 같다.

마당바위기우제 상차림

마당바위기우제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일대
2004.2.3. 김태효

제물은 소금무지제와 달리 포와 과일뿐만 아니라 희생으로 통돼지를 올리고, 팥시루떡과 백설기를 차린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소금무지제는 화재 예방의 의미가 강하고 산의 정상에서 지내기 때문에 제물이 간략한 것으로 보인다.

헌관은 역시 삼헌관으로 구성되고, 단양부군수·단양군의원 등이 맡는다. 이 역시 마을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초헌관이 헌작을 하면 다음과 같은 축문을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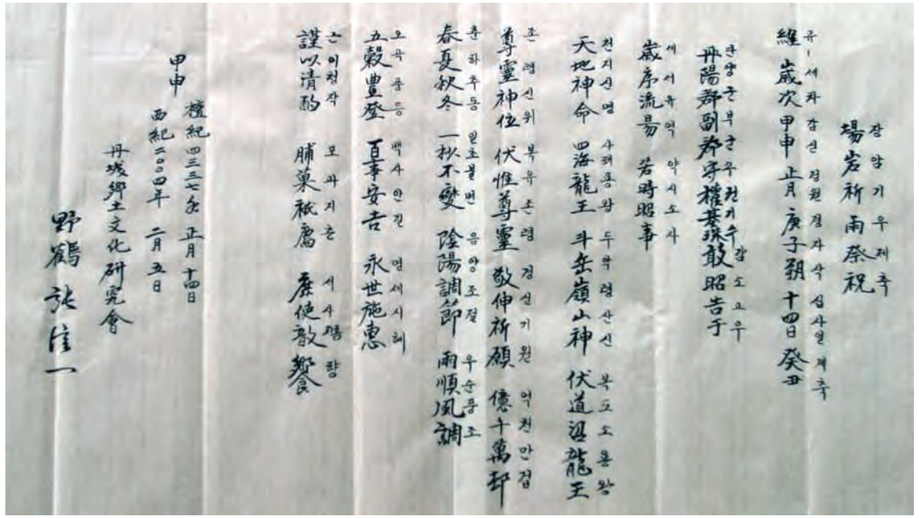
維歲次(甲申)正月(庚子)朔十四日(癸丑)
丹陽郡副郡守 (權基洙) 敢昭告于
歲序流易 若時昭事
天地神明 四海龍王 斗岳嶺山神 伏道昭龍王
尊靈神位 伏惟尊靈 敬伸祈願 億千萬劫
春夏秋冬 一初不變 陰陽調節 雨順風調
五穀豊登 百事安吉 永世施惠
謹以淸酌脯菓 祗春庶使 歆饗

내용은 용왕에게 춘하추동 음양이 조절되어 비가 오고 바람이 잘 조절되고, 오곡이 풍년이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독축을 마친 초헌관이 재배하고 물러나면 아헌과 종헌이 이어진다. 종헌을 마치면 참가자 일동이 사신재배를 하여 제사를 마친다. 이어 헌관들이 음복한 뒤에 농악대원들이 개인 축원으로 잔을 올리고 나서 농악을 한판 울린 다음 마친다. 이로써 소금무지제와 기우제는 끝난다. 소금무지제와는 달리 기우제에서는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이는 두 제사를 하나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참여자들은 면 소재지로 돌아와서 면 소재지 주민들을 위한 잔치를 벌인다. 제물로 올린 돼지고기를 굽고 윷판과 함께 한판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제사 전 과정을 모두 마친다.

제사와 관련한 금기, 또는 영험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제사가 거행되기 전날에는 부인과 합방을 금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않는 등 금기 사항을 지켜야 한다. 소금무지제를 지내고 내려올 때는 절대로 뒤를 보지 말고 내려와야 부정을 타지 않는다. 소금무지제를 잘못 지낸 경우에는 일명 "산이 운다"라고 하여 군수가 전보(轉補)되거나 유배되며,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가끔 항아리가 깨져 물이 없어지는 사례가 종종



장암기우제 축문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일대
2004.2.3. 김태효

있다고 한다. 이는 타종교인들의 종교적인 편견에서 나온 것으로 단성향토문화연구회 회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제단 가까운 곳에 예비 항아리를 묻어 놓았다고 한다.

지역사례 소금물과 강물이 화재를 예방하는 목적의 제의에 이용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견된다. 이와 함께 '소금무지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곳도 있지만 '간물단지' 등으로 이르는 곳도 있다. 전국적으로 치밀하게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합천 해인사 매화산의 간물단지, 청도군 운문사의 소금단지, 정선군 여량면 염장봉의 소금단지, 경북 문경시 가은읍 구왕산의 소금단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의 소금단지, 경북 영덕군의 간물단지,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의 간물단지 등이 있다. 또한 전남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공동제사인 용수제 역시 이와 동일한 것으로 '물보기굿', '물보기 용수제', '화신제(火神祭)'라고도 부른다. 마을의 화재를 막고 주민들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로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북 지역과 충남 예산군 지역의 소금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는 세시풍속 역시 소금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사례들이다.

의의 충주댐 건설로 신단양이 생기면서 원래 단양이지니고 있던 문화적 전통은 사라지고 단양이라는 지명마저 단성으로 바뀌게 된다. 옛 단양의 핵심인 단성면은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단양의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발굴하고 있다. 두악산소금무지제와 마당바위기우제 역시 1970년대 이후에 사라진 단양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였다. 성격이 다른 두 제사를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로 통합하여 행하는 것은 문화재생운동 또는 문화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용司謄錄**, **간물단지신앙의 용신신앙적 성격**(김명자, 월산임동권박사 송수기념논문집 민속학편, 집문당, 1986), **단양군지**(단양군, 1990), **단양팔경**(김상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면, 1956), **문화재도록-도지정문화재**(전라남도, 1998), **소금신앙**(최덕원, 월산임동권박사 송수기념논문집 민속학편, 집문당, 1986), **순천시의 문화유적 2**(순천대학교박물관 · 순천시, 2000),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조선시대 단양의 역사와 문화**(윤수경 편, 단양문화원, 1998), **조선시대 단양의 이모저모**(윤수경 편, 단양향토문화연구회, 1997),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민속박물관 사람들의 세시풍속현장조사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8).

필자 김시덕(金時德)

닭

정의 신령이나 조상 앞에 진설되는 제물 가운데 하나.

내용 닭은 십이지 가운데 열 번째 동물로 우리네 신앙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각양으로 응용되어 왔다. 닭과 관련된 고대 기록으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혁거세와 김알지 건국신화가 있다. 여기에서는 닭이 왕의 등극을 예견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묘사된다. 조선시대에는 닭이 궁중 의례에서 상징적으로 인용된다. 조선왕조 왕과 왕비 신주를 모시는 종묘제례에서 명수(明水)를 담는 놋 계이(鷄彝)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놋그릇에 새겨진 닭 문양은 영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영적 동물로 나타난다. 유교 문화에서도 닭은 다섯 가지 덕을 갖춘 동물로 여기고 많은 사람이 닭의 상징성을 되새겼다. 관을 쓴 머리를 상징하여 닭 벼슬은 문(文), 날카롭게 뻗친 발톱은 무(武), 적을 봐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성격은 용(勇),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행동은 인(仁), 때를 맞추는 습관은 신(信)이다. 조선시대 민화에는 오색 깃털을 한 닭을 그려 넣어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또는 귀(貴), 고종명(考終命) 또는 자손중다(子孫衆多)의 오복을 염원하였다. 이는 닭 신앙에 대한 또 다른 면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닭은 호랑이, 용과 함께 세화(歲畫)에 담기는 동물로 기록돼 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닭 그림을 대문에 붙여 재앙을 물리치려 했다. 닭이 호랑이나 용과 동등한 입장에서 세화에 등장하는 까닭은 울음소리 때문이다. 이는 어둠을 걷어내어 새롭고 밝은 날을 맞이하는 영적 소리로 믿었기 때문이다. 닭의 울음은 새벽 동이 트임을 대신한다. 이는 곧 밤이 끝나고 새날이 옴을 예고하는 것이다. 닭 울음소리는 광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밝은 기운으로 신성시되어 벽사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닭이 울면 새벽이 오고 동이 트면 잡귀가 달아나기 때문에 닭은 해로운 기운을 없애는 동물로 믿은 것이다. 『동국세시기』에는 대보름날 꼭두새벽에 첫 번째 우는 닭의 울음소리 횟수를 세어 점을 치는 계명점(鷄鳴占)이 소개되고 있다. 열 번 이상 닭 울음소리가 나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닭은 민간신앙에서 더욱 상징화되어 응용되었다.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은 닭이 되는 원리를 따져 닭은 재생적 동물로 신앙되었다. 지속적 반복 속에 끊임없이 새 생명이 탄생되는 닭은 영원한 생산성의 동물로 여기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닭에 대한 믿음은 불멸적인 영원한 삶을 바라는 인간의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닭의 피는 부적을 쓸 때도 긴요하게 쓰인다. 부적은 일반적으로 경면주사나 영사를 곱게 갈아 기름 또는 설탕물에 개어 괴황지(槐黃紙)에 쓰지만 경우에 따라 계혈이나 백마혈로 쓰기도 한다. 진붉은빛을 띠는 닭피는 정화력, 축귀력,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어 부적의 효험이 크다고 여겼다.

무속의례에서 닭은 신령이나 조상 앞에 진설되는 제물이다. 황해도 타살굿에서는 닭을 소, 돼지와 함께 삼 타살하여 주요한 제물로 삼는다.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의 곶창굿에서는 삶은 닭을 기다란 대나무에 꽂아 시루 목에 올려서 사슬을 세워 신령 의지를 알아보기도 한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군당굿에서도 삶은 닭을 제물로 바쳐 삼지창으로 사슬을 세워 신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무속신앙에서의 닭은 인간의 좋지 못한 운수 또는 운명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인간을 원상태로 복귀하게 하거나 회생케 한다. 닭이 무속 비방술인 대수대명(代數代命) 희생물로 쓰여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닭을 매개로 하는 대수대명 의례는 일방적으로 액운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물을 바쳐서 신을 달래는 일종의 타협적 의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좋지 못한 인간의 수(數)에 살아 있는 생명체인 닭(또는 달걀)이 죽음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의 명(命)을 연장케 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동물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양종승(梁鍾承)

당기(堂旗)

정의 각종의 동제(洞祭)에서 사용하는 기(旗). 당기는 '신대〔神대〕' 또는 '신기(神旗)'와 역사 및 종교상의 친연성을 지닌다. 당기에는 근원적으로 세계축(World Axis)과 마을기둥(Town-Pillar)이라는 원초적 뜻이 있다. 또한 당기는 그 자체가 신체(神體)가 되기도 한다. 당기는 동제의 모든 절차에 걸쳐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 동제의 시공간을 선포하고, 특히 당주변과 마을을 신역(神域)으로 확정지어서 모든 잡귀와 재액의 범접을 차단하며, 당에 오르는 등의 각종 종교 행렬을 선도하는 종교적 역할을 한다.

내용 당기도 다른 기와 마찬가지로 기와 깃대, 그리고 깃봉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가장 원초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깃대이다. 지금은 거의 은폐된 상징이지만, 깃대에는 본질상 세계축의 의미와 기능이 깃들어 있다.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기에 신령들이 인간계와 접촉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2월 초하루에 목간(木竿) 12개를 세워서 신령을 맞이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제주도 서귀포의 산왕제(山王祭) 때에 집의 사방 또는 팔방에 대나무 신간(神竿)을 세워서 여러 신령을 부르는 영기(靈旗)나 은산별신제 · 하회별신굿 · 강릉단오제 등을 비롯해서 각 동제에서 방울을 단 신간(神竿)도 모두 신령의 하강로(下降路)로 여겨지며, 때로는 그것 자체가 신체(神體)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낭대나 농기 또는 당기를 세우고 그 앞에서 헌작을 하고 재배하는 모습에서 그것이 곧 신체(神體)로서도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자체가 신성성(神聖性)을 띠기도 한다. 가령 동제 때에 부정한 사람이 참가하고 있으면 서낭대가 그 사람을 내리친다든가, 두레 싸움의 대부분이 농기에 대한 신성과 권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다른 마을을 방문했을 때 푸대접을 받은 경우 영기(令旗)로 땅을 긋고 나오면 그 마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등은 모두 그러한 민속적 관념의 표현이다. 동제로서 치러지는 기고사나 정초의 세시풍속인 기세배 등도 기(旗)가 마을의 신간(神竿)이며 표상(表象)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깃봉에 매다는 방울이나 장목도 깃대가 지닌 세계축의 기능을 보강하는 부속물들이다. 방울은 신령의 초빙을 의미하고 장목은 천상으로의 비상(飛翔)을 뜻한다.

기폭(旗幅)인 깃발은 천으로 만든다. 대개 직사각형으로 제작된다. 깃발의 가장자리에는 지네발로 장식하여 그 위엄을 갖춘다. 지네발은 너슬너슬하게 오려 붙인 지네 모양의 헝겊이다.

깃발에는 대개 묵서(墨書)를 하거나 헝겊을 오려서 덧대는 방식으로 글씨나 문양을 표현한다. 대규모의 종교행사인 별신제를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기(旗)들이 특별히 제작되지만, 자연촌락 단위의 동제(洞祭)에서는 대체로 평소에 쓰던 농기(農旗)가 사용된다. 어촌에서는 당기(堂旗) 외에 여러 기를 별도로 만들기도 한다. 용기(龍旗)는 용왕제의 신성과 위엄을 드러낸다. 서낭기도 동제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중요한 당기이다.

흔히 소규모의 자연촌락에서는 마을의 대표적 표상(表象)인 농기가 신기(神旗)로서 동제 기간 내내 모든 절차에 걸쳐 두루 사용된다. 이 기간에는 농기가 당기(堂旗)로 전환되어 더욱 강한 종교성을 띠게 된다.

먼저 제관이 선출되면 곧바로 그 집 앞에 금줄을 드리우고 황토를 펴며 당기를 높이 세운다. 먼 곳에서도 제관 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당기가 펄럭이면 마을은 본격적으로 당제의 금기기간으로 진입한다.

풍장패가 쇠가락을 울리며 당에 오를 때나, 마을을 순회하는 행렬을 지을 때나, 지신밟기를 하러 마당에 들어설 때나, 항상 당기는 항상 맨 앞에 선다. 당기는 동제의 종교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先導) 역할을 한다.

당에 올라서면 가장 먼저 당기를 제당(祭堂) 앞이나 그 부근에 우뚝 세운다. 당제를 마치고 하산할 때에도 당기가 앞장을 선다. 하산하면서 하당(下堂)에 내려올 때까지 중간에 여러 당에 제사를 올린다면 여기서도 역시 당기를 먼저 세워 놓고 진설을 시작한다. 마을 주변의 서낭에 두루 제를 올릴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어느 마을이고 우물고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당기를 우물 앞에 세워 놓는다. 어떤 마을에서는 새로 깨끗하게 품어 놓은 우물을 봉하고 그 앞에 당기를 세움으로써 동제 기간 내내 우물 사용을 금지하는 표식으로 삼는다.

충남 보령시 외연도의 경우를 보면 당제를 위하여 장배가 뜨면 곧 선실(船室) 앞에 당기를 꽂았다. 당기의 깃대로는 상단에 댓잎을 자르지 않은 대나무 장대를 쓴다. 깃발은 광목으로 가로 세로 다섯마 정도 되게 만든다. 한가운데에는 검은색 천으로 '상(上)'이란 글자를 오려 붙인다.

예전에는 당기에 부정한 사람이 접근하면 신벌(神罰)을 받는다고 하여 무척 조심하였다. 깨끗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당기 앞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상(上)'이란 글자를 넣은 이 당기는 해마다 당주네 집에서 직접 만든다. 지난 해에 만든 당기는 당산의 서쪽 오동나무 숲 밖에 꽂는다. 외연도의 서쪽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는 이 당기를 보고서 외연도가 당제 기간임을 알아차린다. 인근 섬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예전에는 당제가 끝나면 용기, 삼영기, 당기를 모두 당주네 집에서 간수하였다. 당주는 집에 시렁을 만들어 그 위에 기를 올려놓았다. 이렇게 당주네 집에 여러 신령스러운 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물론 일반 사람들도 함부로 당주네 집을 출입하는 것을 삼갔다. 또한 동네에 초상이나 출산과 같은 애경사가 있어도 당주네 식구들은 가기를 꺼렸다. 근래에는 불편하고 번거롭다 하여 당제가 끝나면 모든 기를 당집에 보관한다. 그래서 당주네의 부담을 덜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인 은산별신제에서는 화주집 대문 양옆에 영기(令旗)를 각각 하나씩 세우고, 대기(大旗)와 별신사명기(別神司命旗)를 높이 내건다. 많은 깃발이 휘날리기 때문에 누구도 한눈에 금세 화주 댁임을 알 수 있다. 영기는 군중(軍中)에서 군령(軍令)을 전할 때 내거는 깃발이다. 그리고 사명기는 원래 군영(軍營)의 대장(大將) · 유수(留守) · 순찰사(巡察使) · 통제사(統制使) 등이 휘하의 군대를 지휘하는 기이다. 따라서 '별신사명기'란 별신(別神)이 자신의 군대를 통솔한다는 깃발이다. 곧 영기와 별신사명기가 휘날리는 화주 댁은 별신이 좌정하고 그 명령이 발동되며 집행되는 공간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대기(大旗)는 은산리 전래의 농기(農旗)이다. 이는 아마도 별신제를 치르기 이전에 은산리의 산제 · 장승제에서 널리 쓰였던 마을신앙의 상징적 깃발이다. 곧 농기는 은산리의 전통적 산신제 · 장승제의 신기(神旗)이며, 영기와 별신사명기는 별신제의 신기이다. 따라서 별신제가 그 안에 산신제와 장승제를 담아서 유교식 제사와 무속의 굿으로 합사(合祀)하였듯이, 화주 댁 앞의 농기 및 영기 · 별신사명기는 시간에 앞서는 산신제와 그 후의 별신제가 융합하였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기**(이보형 · 이훈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서천의 당제–서면을 중심으로**(이필영, 서천문화원, 2004), **솟대**(이필영, 대원사, 1990), **신대와 농기**(이보형, 한국문화인류학 8, 한국문화인류학회, 1976), **장말 도당굿**(황루시, 한국인의 굿과 무당, 문음사, 1988), **충남 서해 도서지방의 당제 연구–외연도를 중심으로**(이필영, 국사관논총 82, 1998).

필자 **이필영(李弼泳)**

당산(堂山)

정의 마을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특정한 장소나 신령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

내용 당산은 마을신앙의 여러 용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지칭이다. 지역에 따라서 당산할아버지 · 당산할머니 등 신령을 지칭하기도 하고, 당산제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제의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당산에 올라간다고 하여 마을신앙의 특정 장소를 지칭하기도 한다. 마을굿에서는 대개 마을을 수호해 주는 모든 신령을 당산신령이라고 부르고 있어 당산의 용례가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는 당산동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500년이 넘은 부군당이 마을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 당산이 곧 부군당이 되기도 한다. 마을신앙을 조사할 때 당산이라는 명칭으로 마을신앙의 모든 사례가 포함될 수 있음에서 당산의 보편성이 확인된다.

필자 **홍태한(洪泰漢)**

당산나무

정의 마을 지킴이로서 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 모셔지는 신격화된 나무.

내용 당산(堂山)은 한 고을, 한 마을의 지킴이신을 모신 성역이다. 당산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신단(神壇) 또는 신당이 위치한 산, 강원도 화천군 강동면에서는 마을 수호신을 모신 곳을 '산제당'이라고 일컫는

다. 화천의 산제당은 다른 지역 같으면 당연히 당산 또는 서낭당, 도당이라고 불리는 마을의 성역이다. 당산은 어느 특정 지점이 아니다. 고을의 수호신인 고을 지킴이를 모신 단(檀)이나 작은 건조물을 가리킬 때는 서낭당, 산신당, 도당 등으로 바꾸어 지칭하기도 한다.

당산은 한 마을 안의 비교적 야트막한 언덕 또는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게 마련이다. 더러는 낮고 작은 봉우리에 위치하기도 한다. 당산은 숲 안에 있어서 우묵하고 안존하다. 다소곳한 성역이라는 느낌을 풍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신령이 깃든 곳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당산의 핵심이 바로 당산나무이다. 우거진 고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나무 둘레에 금색이 처져 있거나, 밑동에 왼새끼 또는 백지가 감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다른 나무들과 구별이 된다. 밑동에 바싹 붙어서 작은 당집이 있거나 신줏돌이 자리하고 있는 형태로 보기에는 흔한 편이다. 그러나 꼭 이처럼 당집이나 신줏돌, 곧 신으로 섬겨진 돌이나 바위와 짝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자적으로 나무만이 신목(神木)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

당산나무는 신격화된 나무이다. 신목이자 신주 나무이다. 고을지킴이 신이 깃들여 있는 것으로 모셔지기도 하지만 마을 또는 고을의 지킴이 그 자체로 승화되어 있기도 하다. 접신목(接神木)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 신주로 승격되어 있기도 한다. 나무가 곧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산나무는 성수(聖樹)가 된다.

당산나무 또는 서낭나무는 당산, 도당 또는 서낭당의 중핵이다. 당산의 당집 또는 서낭당의 당집과 어울려 있는가 하면 그 자체로 당산 또는 서낭당이 되기도 한다.

이들 나무에 당산신이나 서낭신이 직접 내리거나 거기 접신(接神)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신체(神體)로 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마을의 지킴이 신을 통틀어서 골매기, 곧 고을막이의 신으로 칠 때 당산나무나 서낭나무는 바로 골매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때 마을의 민속신앙으로는 나무고사가 베풀어진다. 즉 나무 자체가 따로 굿이나 고사를 받게 되는 것이 나무고사이다.

그러나 당산나무는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다. 당산의 중심이자 마을의 중심축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당산나무가 지니는 지역공동체와의 연관성을 찾게도 된다. 이런 경우 한 마을 또는 공동체의 정자나무가 되고 신목이 된다. 정자나무는 한 지역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다움을 향유하게 되는 구심체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당산나무의 성격은 당산 자체가 마을이며 이는 고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과 겹쳐지게 된다. 모든 사례에서 당산은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자리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해도 심리적으로는 마을의 중앙 또는 중심에 덩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산 자체는 세계의 중심된 또는 우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마을의 세계산 또는 우주산이라고 간주된다. 이것은 단군신화에서 태백산이나 가락국의 신화에서 구지봉(龜旨峰)이 지니게 되는 면모이며, 성격과 맞통하게 된다. 각 마을의 당산은 작은 태백산이고 작은 구지봉인 셈이다.

당산은 그 자체가 하늘세계와 지상세계를 잇는 매체가 되기도 한다. 하늘에서 오는 신의 내림을 직접 받아서 고사를 지내고 굿을 치는 제단이 되기도 한다. 이 점은 가락국의 김수로왕 신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군신화에서는 우주산에 또 당산나무가 솟아 있다. 신화에서는 직접적으로 신단수(『삼국유사』에서는 神壇樹,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 神檀樹)라고 일컫고 있다. 신내림의 박달나무로 간주될 수 있지만 신수(神樹)인 박달나무가 단국(檀國)이라는 나라 이름의 기틀이 되고 단군(檀君)이라는 군주 칭호의 기틀이 되어 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사이에서 신단(神壇)과 신단(神檀)으로 달리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어느 한 쪽이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을 모시는 단이 신목과 짝지어져 있는 후세의 마을신앙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목이 다름 아닌 박달나무[檀]라면 한 성역을 두고 신단(神壇) 또는 신단(神檀)으로 인식될 것이고 이에 따라 두 낱말이 병기(倂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단수는 한 나라 정치체제의 중추였고 종교이자 신앙의 중추였다. 속(俗)과 성(聖)의 양면에 걸쳐서 중심이었다. 고조선의 당산나무인 신단수의 비중은 정치에서나 신앙에서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산나무는 나라의 모든 것이었던 셈이다.

신단수라는 당산나무는 우주산의 소슬한 봉우리에 솟아 있는 세계의 축(軸)이자 기둥이다. 하늘을 떠받들고는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우주나무이자 세계나무이다. 그리하여 천신을 지상에서 맞아서 고사를 지내고 굿을 올리는 제단의 한가운데, 높다란 곳에 우람하게 솟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군의 부신(父神)인 환웅은 하늘에서 신단수 아래로 강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신단수를 타고 하늘에서 강림한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음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주나무 또는 우주축을 타고 하늘과 땅 사이를 내왕한 인물이 된다.

수직으로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이어 주는 축이나 기둥이 곧 당산나무이다. 수평으로는 전후와 좌우 네 방위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기둥이면서 축이 된다. 당산나무가 우주나무 또는 우주축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게 되며, 모든 당산나무는 이 신단수의 후손이 되는 셈이다. 신단수는 우주나무 또는 세계축으로서 당산나무의 원형이 된다. 마을의 당산나무는 곧 그 마을의 신단수가 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걸어서 귀신을 섬겼다'(『삼국지』 위지 동이전)고 전해지는 소도(蘇塗)의 나무 역시 당산나무의 또 다른 보기이다. 생나무나 나무기둥이나 우주축으로서는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산나무가 솟아 있고 우거져 있는 한 거기에는 고조선의 신단수의 잔영(殘影)이 스며져 있게 마련이다. 그 아래에서 도당굿, 당산굿, 서낭굿 등의 이름으로 마을굿 또는 골매기굿이 치러지고 베풀어질 때, 거기에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단군신화가 펼쳐지게 마련이다.

우주나무 또는 세계나무는 분포가 매우 넓다. 그 성스러운 나무는 지구 북반구의 동서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 서로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시작해 중부 시베리아를 거쳐서 동북아시아의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가히 범세계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우주나무 또는 세계나무가 분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북유럽 신화의 최고 신인 오딘(Odin)이 타고 하늘과 땅 사이를 내왕했다는 '이그드라실(Yggdrasil)'에서 시작해 시베리아 예벤키(Evenki)족의 '투루(Turu)', 동북아세아의 만주족의 '투룬-모(Turun-mo)', 일본의 '히모로기(Himorogi)'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북반구에서 범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세계나무 또는 우주나무와 더불어 우리의 신단수이자 당산나무는 우거져 있다.

세계의 중심에 솟은 중추까지 지상에서 하늘을 떠받드는 축,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이어 주는 기둥으로서 우리의 당산나무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거져 있다.

참고문헌 **수원의 마을 굿**(수원시, 수원문화원, 2006), **한국 신화와 무속연구**(김열규, 일조각, 1982), **화천민속지**(화천군, 2004).

필자 **김열규(金烈圭)**

당산옷입히기

정의 정월에 하는 세시놀이인 줄다리기를 한 뒤에 줄을 당산에 감는 것. 당산의 신체는 당신(堂神)의 형태

당산옷입히기
전북 부안군 부안읍, 1993.1.15(음), 황헌만

당산옷입히기
전남 영광군 염산면
축동리, 1995.1.15(음)
황헌만

에 따라서, 당산나무, 장승, 돌무더기 등이 있다. 당산은 마을을 수호하는 마을의 수호산에 해당하며, 마을 사람들은 매해 당산에 제의를 드린다. 이 과정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이 줄을 당산에 입힌다.

유래 당산옷입히기는 당산에 신옷을 바치는 의례로부터 기원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절차는 신목에 여러 가지 옷과 헝겊을 바치는 지역적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본향당에 신옷을 바치는 절차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의 역사적 기원으로 비단을 짜서 바치던 〈연오랑세오녀(延烏郎細烏女)〉의 전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을의 도당신을 당주가리로 삼고 이 당주가리에 새로이 옷을 해 입히는 절차와도 깊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게다가 고대의 국중대회에서 신목을 모시거나 장식하던 전통은 서로 일정한 관련이 있을 개연성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삼국지』「위서」동이전에 있는 기록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기록을 보면 "시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동맹이라 일컫는 나라 안의 큰 모임이 있다. 이러한 공적 모임에서는 모두 수를 놓은 비단 옷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자신을 장식한다. 대가와 주부는 머리에 두건을 쓰는데 두건은 자투리 없이 알맞게 이어져 있다. 소가는 고깔과 같이 생긴 절풍을 쓴다. 이 나라의 동쪽에는 수혈이라고 불리는 큰 동굴이 있다. 시월에 있는 나라 안의 큰 모임에서는 나무를 수혈로 여겨 신으로 좌정시켜서 수혈신으로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을 향해 허리 숙여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以十月祭天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於神坐)"고 한다. 문맥에 다소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신맞이와 놀이를 하는 대목은 오늘날의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목에 방울과 북을 다는 전통 역시 이와 연관된다. 예를 들어 "또 모든 나라에는 각각 소도라고 일컫는 별도의 고을을 두고서 큰 나무를 정하여 방울과 북을 걸어 놓고 귀신을 섬긴다(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각도에서 음미할 만하다.

나무로 만든 신체를 섬기던 단계에서 벗어나 농경재배가 일반화되고 여기에 북과 방울을 악기로 사용하면서 다시 신옷을 바치는 단계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당산옷을 입히는 것은 고대의 전례와 함께 후대적 변형을 일으킨 결과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당산목과 당산옷이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용 당산옷입히기는 달리 '당산입히기'라고도 한다. 당산에 옷을 입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줄여서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산옷입히기나 당산입히기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다. 당산에 줄로 옷을 입히는 데서 동일한 관념의 소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당산옷입히기의 분포는 엄격하게 조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를 행하는 대국면의 지역적 분포는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포의 윤곽을 제시할 수 있다.

줄다리기는 근본적으로 제의적 형태로 되어 있으며, 마을의 경기이자 놀이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제를 벌이는 것도 특정한 형식적 기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줄다리기는 단순하게 놀이로 진행되지 않고 마을의 농악대와 고사를 지내는 유가적 의례 집단과 결부되면서 신성한 의례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줄다리기는 농사의 흥풍을 점치는 의례인 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로서

당산옷입히기
전북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1995.1.15(음)
황헌만

당산옷입히기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월리, 1996.1.15(음)
황현만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줄다리기의 지역적 유형은 영남형과 호남형으로 갈라서 말할 수 있다. 영남형은 줄이 길고 여러 겹줄이 있으며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큰 줄이고, 남녀의 성적결합을 형상화하는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암줄과 수줄로 둘로 가르고 이들을 고에 비녀를 끼워 연결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점이 유사하지만 주술적인 성희(性戱)로 간주되는 것이 영남지방의 줄다리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형은 줄의 모양이 길지 않으며, 줄의 직경 역시 굵지 않다. 호남형의 줄다리기는 당산제의 일환으로 거행되고 남성들에 의해 거행되는 점에서 특별한 면모가 있다. 호남형의 줄다리기와 당산제가 결합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앞에서 말한 당산옷입히기가 산출되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다. 당산제의 일환으로 놀아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당산옷입히기가 산출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호남형의 당산제와 줄다리기가 결합하는 과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일련의 순차적 구성이 보인다. 당산제는 정월대보름날에 행한다. 이날에 행하는 순서는 줄 만들기, 오방돌리기, 줄다리기, 당산입히기, 당산굿 등 이다. 이 행사는 금기가 많고 엄숙하게 행하는 특징이 있어서 절차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후반부에 이를수록 마을의 축제를 겸하고 있음으로 하여 남녀 구분의 금기가 무너지고 대동놀이적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줄만들기는 줄에 쓰일 짚을 추렴하고, 이를 가지고 줄을 만드는 절차이다. 줄만들기에서 발생하는 금기는 여성이 배제되고, 만든 줄의 위를 함부로 넘나들지 않는 특징이 있다. 줄만들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암줄과 수줄을 구분하여 만드는 것이다. 암줄과 수줄을 구분하고, 이 구분에 의해 줄다리기의 승패와 농사의 흉풍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암줄이 이겨야 마을의 농사는 풍년이 기원된다.

오방돌리기는 만든 줄을 가지고 마을의 경계 면을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한다. 줄을 어깨에 메고 마을의 농악대와 더불어 마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줄의 위세를 과시한다. 이 행위는 마을의 집단적인 성격의 축제임을 명시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의 동참과 기원을 한데 담는 의례적 성격과 절차를 띠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오방돌리기 절차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목적을 현시한다.

줄다리기는 남녀가 편을 갈라 하게 된다.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여성 편이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 편이 이겨야 마을의 풍요가 도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 여성 쪽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라고 할 수 있다. 줄다리기에서 여성 쪽의 승리는 유감주술적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남녀간 줄다리기가 끝나면 당산에 옷을 입히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 절차를 마을 사람들은 의례의 중심에 있다고 관념한다. 줄다리기에 사용한 줄을 당산목에 가지고 가서 줄을 감는 의례를 거행하게 된다. 마을의 신목에 일종의 예단을 바치는 행위와 일치점을 보인다.

당산옷입히기가 마무리되게 되면 다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당산굿이다. 풍물패의 가락에 맞추어 당산굿의 관굿과 관굿에 의한 세속적 놀이를 곁들이는 것이 당산굿의 절차다. 당산굿 가락에 맞추어 흐벅진 놀이를 하고, 이 과정의 뒤를 이어 밤이 새도록 논다.

기타 연구사에서 당산옷입히기는 〈야래자설화(夜來者說話)〉와의 관련성을 지적한 바 있다. 지렁이 · 용 · 뱀 등의 상징은 일련의 성기 상징(phallic symbol)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남성의 성기와 관련된다고 관념한다. 여성 또는 여신으로 상징되는 존재인 신목에 남성의 성기를 감는 당산옷입히는 과정을 이러한 각도에서 해석하는 것은 일견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른바 신옷의 일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서 부유한 자산을 구축하고 아내를 얻는다고 하는 〈새끼서발〉 역시 접근 가능한 이야기로서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설화에서는 그 점이 다소 희박하지만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하는 와라시베초자(藁しべ長者)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이야기는 증여에 관한 기본적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의 변이 유형 가운데 당산에 있는 새끼를 감아서 쥐고 나서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이야기의 신화적 관련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끼 서발이 풍요와 생산의 상징인 점은 당산옷과 일련의 연결 가능성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의의 당산옷입히기는 세시절기의 의례로 진행되던 것이지만 호남지방에서는 당산제의 일환으로 긴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이 행사는 역사적 기원이 분명하고, 농경의 주술적 행위로 신에게 신성한 의례를 바치는 절차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동시에 신화적 기원을 지니고 있는 의례로서 후대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한국의 줄다리기**(Christian Deschamps, 재구한국학회 제6차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82),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필자 **김은희(金銀姬)**

당산제(堂山祭)

정의 호남 · 영남 지방에서 행해지는 마을제사로, 다양한 마을신을 모시면서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의례. 당제, 당산제, 당산굿, 당고사, 당산고제(古祭), 산제, 돌탑제, 당마제 등 지역마다 이름이나 제의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호남지방에서는 당제 또는 당산제라는 명칭이 일반적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권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서는 당산제, 해안도서 지역에서는 당제라 각각 불리는 것으로 조사 · 보고되고 있다.

내용 당산제를 지내는 시기는 음력 정월대보름날이나 정초가 가장 많으며, 시월 보름날에도 제의를 지낸다. 제의를 지내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정월대보름 자시(子時)를 전후하여 행한다. 달은 고대부터 물 · 여성과 연결되어 농경의 풍요와 생산력을 상징해 왔다. 또한 달은 차고 지는 주기가 규칙적이어서 시간의 질서와 시절의 운행, 자연의 섭리까지도 아울러 상징함으로써 생활력의 기준이 되어 농경과 어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새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상원(上元)은 주술력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며, 농사를 짓기 전에 맞이하는 첫 번째 만월(滿月)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당산제를 비롯한 동제가 이 시기에 집중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초사흗날을 전후하여 동제를 지내는 마을도 적지 않으며, 강원도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산맥이제는 3월과 5월 사이에 치제되고, 충청도지방에서는 추수감사제 성격이 짙은 시월상달의 산신제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화전을 일구며 살던 충주 · 제천 등 화전촌에서는 7월 산신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등 마을신앙의 시기는 자연과 사회 ·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당산제는 우리나라 동제의 일반적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자연적 · 지형적 문화 환경에 따라 변별성을 지니면서도 상호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당의 배치 · 구조 · 형태, 신격, 제의 형태와 거기에 따르는 놀이 등이 다르거나 복합된 면을 보이고 있다. 신당의 형태는 당

당산
전북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신평마을, 1993.1.15(음), 황헌만

집, 돌제단, 바위, 신목, 당+신목, 장승, 신목+바위, 신목+동제단+장승, 신목+돌무더기, 돌제단, 터, 돌무더기, 신목+돌제단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신목(神木)이 우세하다. 신당의 위치 또한 마을 뒷산의 정산이나 중턱, 마을 입구 등 다양하다. 신격 또한 상당할매 · 당산신 · 당산할매 · 당산신령 · 당산할멈 등으로 모셔지고 있으며, 산간 지역에 비해 특히 호남지방은 당산신과 토지신 계열의 신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의 장소가 여럿인 경우 당산신의 거처가 다중적으로 표현되고, 산신을 모시는 당산제의 경우 산신제라 일컫는 등 형태와 신격 · 명칭이 혼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인공물인 장승 · 입석 · 솟대 등을 함께 당산제에서 모시는 마을이 있다. 이처럼 당산제는 단독제당보다 복수제당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유교의례식으로 진행되는 제당제의를 제외하고는 풍물형이나 무속형이 서로 혼합되면서 문화복합적 성격을 띤다. 또한 당산제에 풍농을 기원하는 줄다리기가 수반되어 절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도서해안 지역은 만선(滿船)의 열망을 담은 어민들의 당제와 배고사가 풍성한 대보름날을 장식한다. 광주 · 전남지방의 당산제는 유교적 제차(祭次)에 의해 수행되는 형태, 풍물패 위주로 수행되는 형태, 무당의 주재 아래 수행되는 형태, 이들 세 유형 가운데 둘 또는 세 가지 특성이 혼합된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제의는 대부분 유교식 절차로 행해지며, 풍물을 울리는 매굿(메굿 또는 매구굿)과 병행하여 진행한다. 풍물패가 치는 매굿은 마을제사의 시작을 알리거나 신을 맞아들이는 의미로 치는 들당산굿이 있고, 잡귀잡신의 제당(祭堂) 침입을 막고 쫓는 의미의 매구(埋鬼)굿, 제의가 끝나고 신을 보내기 위한 날당산굿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무당이 주관하는 무속형의 경우에는 제관이 헌작, 재배, 축문, 소지 등 간단히 제의를 올린 다음 무녀(巫女)와 공인(貢人)이 열두거리굿으로 진행한다.

제일이 다가오면 마을의 수호신이 좌정한 당산과 동구 밖, 제관의 집, 동사(洞舍)에 금줄을 친다. 이로써 세속의 세계는 성(聖)의 세계로 전환한다. 이를 기점으로 공동체 차원의 엄격한 금기가 수반된다. 금기의 기간은 사흘에서 보름 사이에 행해지며, 짧아지고 완화되는 경향이 많다. 제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서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은 제관, 제주, 당산주, 화주, 유사 등으로 불린다. 제관이나 유사로 선정된 사람은 상가(喪家)나 산가(産家)의 출입과 외지출타 등을 금하는 등 부정한 곳을 피한다. 또한 이들은 개고기 등 궂은 음식을 피하고, 언행을 삼가며, 목욕재계를 하는 등 매사에 근신한다. 마을 사람들도 되도록 살생을 금하고, 비린 음식을 멀리하며, 심지어 젓갈이 들어간 음식과 김조차 입에 대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를 부정하게 여겨 부인의 달거리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임시 거처로 마을 밖에 마련된 피막(避幕)이나 임시 해산할 곳으로 마을 밖에 마련된 해막(解幕)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례도 더러 있다. 또한 마을에 상사(喪事)가 생기는 등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당산제를 미루어 지내기도 하며, 당산제를 지내고 나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라고 여겨 당산제를 전후하여 각별하게 금기를 지킨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당산제를 마친 뒤에도 6개월에서 일 년까지 궂은 곳에 출입하지 않거나 개고기를 먹지 않는 등 사회적 활동이나 개인행동을 조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금기로 인해 최근에는 제관이 되기를 꺼리는 마을도 많다는 보고가 있다.

제일이 다가오면 마을 주민들은 음력 섣달 중순이나 정월 초순 무렵에 마을회의를 통해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은 당산나무와 당산석 · 신당 등 제장(祭場) 주변을 청결히 한 뒤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몇 줌 놓아 부정을 막는다. 마을에 따라서는 제관 집에 금줄을 치지 않고 황토만 뿌리기도 한다. 정월 초사흗날 무렵에는 마을 공터에 농기를 걸고, 당산제가 끝나면 마을 공동시설인 우물 · 창고 · 정자 · 다리 등지를 돌면서 굿을 친다. 그런 다음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문굿 · 샘굿 · 조왕굿 · 마당굿 등 집 안 구석구석을 돌면서 굿을 치는데 이를 매굿 또는 마당밟이 · 지신밟기라고도 한다. 이러한 당산굿은 당산제를 전후하여 2, 3일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풍물패를 맞이한 집에서는 성의껏 돈과 곡식을 내주고 술상을 차려 대접하고, 상쇠는 갖은 고사덕담으로 재복과 무병제액을 빌어준다.

제의비용은 마을공동 제답(祭畓)의 수입에서 충당하거나 집집마다 추렴하여 사용한다. 제물은 제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열리는 5일장에서 제관이나 화주가 구입한다. 이때 제수의 값은 깎아서는 안 된다. 제수를 장만할 때에는 침이 튀지 않도록 입을 창호지로 막기도 한다. 제수를 장만하는 화주는 이날 소변을 보더라도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해야 한다.

당산제
전북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1995.1.15(음)
황헌만

당산제를 지낼 시간이 가까워 오면 제관들은 제물을 챙겨서 당산으로 이동한다. 당산에 도착하면 제물을 제단에 진설하고, 자정을 전후한 시간에 제의를 시작하여 새벽녘에 마친다. 유교식 제의의 경우 화주나 제관 집에서 준비한 메 · 주(酒) · 과(果) · 포(脯) · 편 · 채(菜) 등을 진설하여 신주헌작(神酒獻爵)-재배-독축(讀祝)-소지(燒紙)-퇴식-음복 등 순서로 제의를 지낸다. 소지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수대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제의를 마치면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던 풍물패는 풍물을 치면서 제관 일행을 맞이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마을신에 대한 제의와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들도 있다. 호남지방의 외줄다리기와 쌍줄다리기는 대개 제의에 앞서서 행해지거나 당산제를 끝낸 뒤 마을 사람들이 동 · 서 또는 남 · 여로 편을 갈라 행하여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이들 지역에서는 줄만들기, 줄굿, 마을돌기, 줄다리기, 제사, 뒤풀이 등이 하루 동안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과정은 매우 유기적이다. 줄다리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겨루기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모의 성행위의 주술성을 띠고 있다. 각 편의 암줄과 수줄의 생긴 모양이나 그 결합 과정과 줄을 당기는 과정이 남녀의 성적 결합을 상징하고 있어 풍요다산(豊饒多産)을 기원하는 모의적 유감주술(類感呪術)의 성행위에 입각한 놀이이다. 이기는 쪽이 풍년이 든다고 여기며, 특히 여자 쪽이 이겨야 그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줄다리기를 한 뒤 줄은 태워서 논밭에 거름이 되게 하거나 신체(神體)인 당산나무나 당산석[石竿] 등에 감아 두어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는데 이를 '당산옷입힌다'고 한다. 줄을 감을 때에는 부정을 가리며, 감아 놓은 줄에는 일 년 내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는 줄다리기 줄이 지니고 있는 제액(除厄) 내지는 액을 막기 위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당산제를 마치면 이튿날 제관과 일행이 모여 가결산을 하고, 이어서 제관들과 마을 주민이 모여 총회를 연다. 총회는 당산제에 사용했던 제수를 음복하고, 당산제의 예 · 결산과 품삯 등 한 해 동안의 마을 공동사를 논의하는 장이 된다. 회의가 끝난 뒤에 줄다리기를 행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다른 지역의 당제 또는 당고사라고 불리는 동제의 경우 충남지방에서는 장승제와 동화제가 있다. '동네불'이란 뜻의 동화제는 거대한 '홰'를 불태움으

부안동문안당산제
전북 부안군 부안읍, 1993.1.15(음), 황헌만

로써 마을의 모든 악귀와 잡신을 추방한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이와 동일한 성격을 띠는 동화제는 경기도 광주시 · 양평군의 산간마을에서도 '해동화(解洞火)'란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다. 전북 무주군 부남면 일대에서는 농기에 대한 오랜 신성관념을 엿볼 수 있는 기고사(旗告祀)가 내려온다. 이 밖에 무속 색채가 짙은 경기도의 도당굿, 장승 · 솟대 · 돌탑을 신앙 대상으로 하는 충북의 수살제와 동고사, 마을의 입향조(入鄕祖)를 신으로 모시는 영남의 골매기제, 강원도 산간지역의 서낭제(성황제) 등도 오랜 동제의 유형으로 전승되고 있다.

의의 당산제는 오랜 농경문화 속에서 배태된 산물이다. 6 · 25전쟁과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급속히 소멸 · 약화되고, 때로는 미신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기도 하였다. 정월대보름날을 전후하여 집중되어 있던 당산제는 새마을 사업을 전후로 단절된 곳이 많으며, 마을 사정에 따라 날짜를 변경하거나 여러 개의 제당에서 섬기던 것을 특정 신당에서만 지내게 된 사례도 많다. 또한 한 해에 여러 차례 지내던 것을 한 차례로 줄여 지내기도 한다.

당산제는 다른 동제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위한 제의인 한편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 성격도 지니고 있다. 신성 기간에 마을 사람들은 얽혀 있는 감정을 해소하는 화해의 장(場)을 마련하고, 마을 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일체감을 가짐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며, 노동으로 힘든 생활에 활력을 주는 청량제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공동체신앙과 당신화연구**(표인주, 집문당, 1996), **산간신앙 3–전북 · 전남 · 제주**(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한국민속대관 3–민간신앙 · 종교**(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4~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전남지방 장승 · 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6),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황경순(黃慶順)**

당신화(堂神話)

상호참조 영험담(661쪽)

정의 마을공동체 신앙에서 제의의 대상인 당신(堂神)이 제당(祭堂)에 좌정하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당신(마을신)과 관련된 이야기.

형태 당신화는 마을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좌정유래담과 마을신으로서 보이는 능력을 설명하는 영험담으로 이루어진다. 좌정유래담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이야기라면 영험담은 현재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영험담을 신화의 범주에 넣지 않았으나 이것 역시 제당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언술이고 현존하는 신격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이야기이므로 신화로 보아야 한다.

내용 당신화는 마을을 토대로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신성함이 인정되는 범위가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마을을 벗어나면 의미가 달라져 같은 이야기도 전설로 인식된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화를 달리 마을신화, 촌락신화, 동신(洞神)신화라고도 한다.

당신화는 제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신화는 당신과 마을공동체 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대화로, 제의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또 당신화에는 제의를 소홀히 하거나 잘 모셨을 때 나타나는 신벌(神罰) 또는 영험함 등이 언급되는데 이를 통해 제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신격의 신성함을 증명한다. 그럼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당신화와 제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사회 통합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당신화와 제의는 마을 사람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해 단결심과 협동심을 배양시킨다. 또 마을의 평안과 풍요라는 공통의 소망을 공유하게 해 연대감을 갖게 하고, 제의를 지내면서 마을 내의 질서를 확립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마을공동체에 정신적 구심이 된다.

마을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자연물 신격과 인물 신격으로 나눌 수 있다. 신격의 대상이 되는 자연물에는 산 · 나무 · 바위 · 불 등 자연무생물, 구렁이 · 호랑이 · 말 등 동물, 까치 · 까마귀 · 꿩 등 조류가 있다. 이러한 자연물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마을공동체를 보호해 주거나 마을공동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끼쳤을 경우에 신격화된다. 여기에는 자연에 대한 외경심(畏敬心)이 작용하는 것이다.

마을에서 모셔지는 신은 다양하지만 당신화에서의 신격은 주로 사람으로 드러난다. 인물 신격은 성격에 따라 조상신격(祖上神格), 원혼신격(冤魂神格), 신모신격(神母神格)으로 구분된다.

조상신격에는 마을의 입향조(入鄕祖)와 중시조(中始祖,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무주고혼(無主孤魂) 등이 있다. 입향조는 마을에 처음 들어와 개척한 시조들로 흔히 ○씨 할아버지, ○씨 할매, ○씨 등으로 표현된다. 이들을 마을신으로 모시는 것은 조상숭배와 관련이 깊다. 중시조를 모시는 것 역시 조상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같은 성(姓)을 중심으로 한 집성촌에서 자신의 가문을 널리 알린 역사적인 인물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무주고혼은 자손이나 모셔 줄 사람이 없어 죽어서 제삿밥을 얻어먹을 수 없는 이들을 말한다. 제사는 조상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의례인데 후손이 없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소속감을 잃는다는 뜻이다. 소속감을 상실한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불안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적인 후손, 즉 마을공동체가 제사를 지내 주는 것이다.

원혼신격은 제 명에 죽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의미한다.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는 물론 부모보다 일찍 죽은 경우나 집에서 임종하지 못하고 객사(客死)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은 경우, 타살을 당하거나 자살 하는 등의 경우에 원혼이 된다. 이들 원혼은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을에 해로움을 끼치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마을공동체는 원혼을 신으로 좌정시켜 한을 달래 주고 수호신으로 받든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임경업 장군(林慶業 將軍)이나 남이 장군(南怡 將軍) · 최영 장군(崔瑩 將軍) 등도 여기에 해당하고, 가정문제나 사회문제 등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여러 여인도 여기에 해당한다.

신모신격은 신령스러운 여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들은 나중에 산신이나 국조(國祖), 뛰어난 인물의 어머니가 된다. 생명 탄생의 상징성을 기저에 깔고 있는 원초적 여신으로 흔히 '할머니'로 일컬어진다. 마을신앙에서는 설문대할망이나 마고할미, 다자구할머니가 이 신모신격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 이들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재치를 발휘해 도적을 소탕하기도 한다.

이들 신격은 바다나 강을 통해 마을에 도래하거나, 유력자에게 현몽하거나, 신벌을 내리거나, 영험한 행위 등을 함으로써 마을공동체에 의해 수호신으로 추대된다. 건국신화나 일반신 신화[천지(天地) · 일월(日月) · 산해(山海) · 생사(生死) · 질병 · 농경 · 어로 · 수렵 · 빈부 등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을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반적인 신들의 내력담을 의미하는 말로, 지역적 범위를 넘어 전국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전승된다]에서 주인공이 비범함을 발휘해 스스로 신으로 좌정하는 것에 비해 당신화에서는 마을공동체에 의해 신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좌정한 신은 재액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 생산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화는 본래 내용의 변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보수적인 구술상관물이다. 그러나 당신화는 그렇지 않다. 특히 당신화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영험담은 제의의 구술상관물인 동시에 당신에 대한 초월적 경험을 전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당신의 신성함과 제의의 효험을 보증한다. 이런 점 때문에 영험

담을 당신화의 구성 요소로 보지 않고 신앙설화라 하여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험담은 마을공동체의 신에 대한 초월적 경험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과 제의가 마을공동체에 의미 있게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언술이다. 그러므로 영험담도 당신화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신화는 계속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신화는 완결된 구조가 아니라 열린 구조인 것이다.

의의 당신화는 역사적 맥락을 넘어선 곳에 존재하는 초역사적인 신화이다. 역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당신화가 어느 한 시기에 고정되어 믿어진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공동체신앙과 더불어 그 맥을 이어왔음을 뜻한다. 현재에도 마을공동체에서는 당신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성되어 전승되고 있으므로 당신화는 살아 있는 신화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공동체신앙과 당신화연구**(표인주, 집문당, 1996), **동해안 어촌 당신화연구**(이승철, 민속원, 2004), **무속신화와 문헌신화**(현용준, 집문당, 1992), **문경 화장마을의 당신화와 동제의 관계**(천혜숙, 한국민속학보 7, 한국민속학회, 1996), **화장마을 당신화의 요소 및 구조분석**(천혜숙, 민속연구 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6).

필자 조선영(曺善映)

대덕법동리석장승

정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소재한 남장승과 여장승 2기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석장승. 1989년 3월 18일에 '대전광역시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대덕법동리석장승은 남녀 한 쌍이 마주보고 서 있으며, 그 옆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선돌이 세워져 있다. 남자 장승의 키는 153㎝, 가운데 둘레는 184㎝이다. 얼굴 길이는 62㎝로 전체 모습에 비해 얼굴이 큰 편이다. 눈망울, 코, 입을 큼직하게 조각하였다. 특히 눈망울은 튀어나올 듯이 조각되었다. 남자 장승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이라고 새겨졌다. 남자 장승의 오른쪽에는 약 90㎝떨어져서 길쭉한 형태의 선돌이 서 있다. 선돌의 높이는 100㎝, 가운데 둘레는 62㎝이다.

법동 남장승

법동 여장승

여자 장승은 키가 126㎝, 둘레는 125㎝이다. 남자 장승에 비해 작게 만들어졌으며, 얼굴도 남자 장승에 비해 작고 둥근 턱선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인다. 귀 모양도 남자 장승보다 잘 남아 있다. 얼굴 길이는 46㎝이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자 장승에는 '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이라고 새겨져 있다. 여자 장승의 오른쪽 약 80㎝ 떨어진 곳에 선돌을 세워 놓았다. 키는 90㎝이고, 둘레는 113㎝이다.

본래 이 장승은 법동 법천골마을 한복판을 흐르는 냇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천하대장군, 왼쪽에 지하대장군으로 있었다. 이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현재는 법동 입구 도로 양쪽에 세워져 있다. 장승 옆에 있는 선돌은 각각 옆에 있는 장승을 보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각각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 선돌이라는 이야기가 전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또한 장승 내외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여 마을

법동 남장승
대전 대덕구 법동
2010.6.5, 임승범

법동 여장승
대전 대덕구 법동
2010.6.5, 임승범

사람들은 이를 아기장승이라고 부른다.

역사 대덕구 법동 범천골에서는 산제를 지낸 뒤 장승과 선돌 앞에서 거리제를 지내 왔다.

본래 남장승은 마을 어귀 북쪽에 검은색 선돌과 함께 서 있고, 그 앞을 가로지르는 도랑 옆에는 여장승이 역시 선돌과 함께 남장승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다. 구전에 따르면 수백년 전에 마을 어귀는 숲으로 뒤덮혀 있었고 이로 인해 질병과 재앙이 자주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장승을 세웠다고 전한다. 당시에는 나무 장승이었다가 1700년쯤에 이 마을의 갑부인 송민노라는 사람이 사재를 털어 석장승으로 교체하였다는 말이 전한다.

내용 석장승이 있는 대덕구 법동마을에서는 음력 시월에 산신제를 지냈으나 근래에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 자정쯤 산신당에 제사를 지내고 석장승으로 와서 거리제를 지낸다. 마을의 액운을 막고 동민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제관은 동네에서 나이가 많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과거에는 정월 초사흗날부터 풍물패가 마을을 돌며 걸립하고 장승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였다. 그리고 장승과 선돌에 금줄을 두르고 그 앞에 황토를 깔아 놓아 부정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제물로는 백설기, 과일, 북어, 청수 등을 장만한다. 제관이 절을 한 다음 마을소지와 가구별 소지를 올리면서 마을과 각 가정의 안녕을 기원한다. 제사가 끝나면 주민들이 풍물을 치며 놀면서 음복을 한다.

법동리장승은 법동 택지 조성 사업으로 이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대덕구청으로 옮겼다가 현재 법동 아파트단지 입구 도로 양쪽에 다시 모셔졌다. 도시개발로 인하여 아파트단지 앞에 조형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1990년까지는 한 마을의 어귀를 지키던 수호신으로서 제사를 받는 신앙 대상물이었다.

참고문헌 **민간신앙**(이필영, 대전민속지 상, 1998), 문화재청(cha.go.kr).

필자 임승범(林承範)

대동회

정의 동제를 전후하여 마을 대표들이 모여 동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회의, 또는 이러한 모임. 동제를 앞두고 1~2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대동회를 열어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제주(당주라고도 함), 축관, 유사(有司), 화주 등을 뽑는다. 그리고 동제를 지낸 뒤에는 제관이나 이장 집에 모여 동제에 쓰인 비용을 결산하고 앞으로 마을에서 한 해 동안 할 일을 의논한다. 이 밖에도 마을에서 각별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도 대동회(大同會)를 연다. 대동회를 동회, 대동계(大同契), 동계(同契), 이중계(里中契)라고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분야 마을 대표들이 동제와 같은 마을의 대사(大事)를 전후하여 하는 회의, 또는 모임이기에 동제 속에 포함되는 하나의 행사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제를 앞두고 모일 경우 제주 · 화주 · 유사 등을 선출하고 동제가 끝난 뒤에 동제의 비용 등을 결산하는 등 동제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대동회 자체가 동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이 기능 면에서 분화되어 직접적인 의례인 동제와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

어원 대동(大同)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속에서 말하는 대동은 큰 세력이 하나로 합친다든가 천하가

번영하여 화평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동회는 이러한 모임을 뜻하거나 또는 회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는 한자어 동회(洞會)나 대동회(大洞會)로 쓴 경우가 있다. 이는 옳은 표기가 아니다. 마을 단위의 모임 또는 마을회의라는 면에서 보면 옳지만 민속에서 사용하는 대동이나 대동회는 마을 사람들의 모임 또는 회의라 할 수 있어도 그야말로 마음을 합쳐 화평하게 하기 위한 모임, 또는 회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는 동회(洞會)와는 구별된다. 오늘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행하는 회의는 행정 단위의 규모를 줄여 반상회(班常會)라는 것을 한다. 동민들이 모여 회의를 할 경우 동회라 할 수 있다. 오늘날도 회의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를 동회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전통사회에서 대동회의 의미를 회의와 모임이라는 두 가지로 사용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역사 대동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동회가 동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동제와 대동회의 기원이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동제는 지역에 따라 시기에 차이가 있다. 영남과 호남지방에서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행한다.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는 음력 시월에 서해안은 정월 초에 각각 하는 등 시기가 다양하지만 대개 정월에 집중된다. 특히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동제를 많이 지낸다. 일 년에 두 번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 정월대보름과 단오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월 중에 동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동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대동회라는 점을 통해 대동회의 역사는 동제와 맥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 대동회를 동회, 대동계, 동계, 이중계라고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대동회는 동제를 앞두고 마을 대표들이 모여 하는 회의이면서 특히 정초의 첫 동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흔한 반면 이중계는 마을 성원들의 평상시의 모임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대동계와 동계는 마을생활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계의 일종이다. 그럼에도 혼동하여 사용하는 까닭은 대동회에 참석한 성원과 대동계의 성원이 동일하며, 또한 회합하는 것을 계(稧)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정약용(丁若鏞)의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계(禊)는 결제명(潔祭名, 사물이나 사건을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의례)이다. 요즘 세상에서는 돈을 모아 이자를 늘리는 것을 계(稧)라고 하나 원래 계(稧)라는 글자는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은 계(禊)가 계(稧)로 와전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모두 계(禊)라고 하여 여러 가지 계를 만들어 전하고 마을에서는 돈을 내어 이자를 늘리는 것도 계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마땅히 약속과 결합을 뜻하는 글자인 계(契)로 고쳐 써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결제명으로서의 계(禊)는 마을사회의 모든 성원이 참여하는 의례적인 회취(會聚)이고, 계(契)는 결사체적인 회합으로 보아야 한다. 어떻든 동회의 명칭이 계(稧)로 많이 표현되고, 이것이 공동체의 결제인 계(禊)에 근원을 둔다면 동회와 동고사는 원초적인 형태에서는 마을의 의례적 집단행위였던 것이 그 기능면에서 오늘날과 같이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제를 지내는 마을에서는 동제를 마치고 난 이튿날 아침 무렵에 대동회를 여는 것이 보편적이다. 대동회에서는 마을의 임원선출, 예산과 결산보고, 공유재산의 관리정책, 규칙제정, 임금결정, 공부(貢賦)의 대책, 임원의 보수결정, 수리시설과 농로 등 마을공동의 개발대책 등을 비롯한 마을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공동이익과 공동행위, 사회적 협동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토의하여 결정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대동회의 의사진행은 마을의 공식적인 지도자인 동장, 또는 이장이 주관하지만, 중요한 일은 마을 유지(有志)로 불리는 비공식적인 지도자들과 미리 상의

대동회
국립민속박물관

해서 대동회의 공론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 마을의 모든 가구에서 가구주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동회는 의제의 결정방식에서도 유지들의 의견을 중론으로 받아들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동회의 활동과 기능은 마을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비교적 역사가 오랜 동성마을은 대동회의 활동이 동성조직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각성마을은 마을성원의 지적수준과 경제력 등이 대동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대동회는 전통적인 마을에서 크고 힘 있는 조직이지만 행정조직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조직은 아니다. 곧 자연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직력이나 힘은 행정조직 이상을 발휘한다. 특히 전통적인 동성마을의 경우 그 영향력은 한층 크다. 전통사회에서 '관습법'이 중요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마을에서 대동회는 대단히 중요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지역사례 정감록의 십승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1리의 자연마을 가운데 하나인 임실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자시에 동제를 지낸다. 동제명은 동고사라고 하며 제신(祭神)은 남녀 신격이 없이 그저 동신(洞神)이라고 한다. 제장에는 당집은 없으며 당나무로 수령이 백년 넘은 느티나무가 서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다. 제단 위에 오래된 비석이 있으며 이는 동신을 상징한다.

이곳 마을의 동제에는 제관, 축관, 도가 그리고 동장과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부정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 참석한다. 제차(祭次)는 유교식 가례를 기준으로 한다. 동제를 마치고 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도가에서 먼저 음복을 하고 아침이 되면 동장 집으로 자리를 옮겨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동회를 연다. 이때 음식을 장만하고 이장 주관으로 지난 일 년간 마을 공동으로 했던 일을 결산하며 앞으로 일 년간 할 일을 의논한다. 또한 이 때 새로운 이장의 취임식도 한다. 이 날은 종일 먹고 노는데 주로 윷놀이를 즐긴다.

풍기읍 금계2리의 동제는 동성황제(洞城隍祭)라고 한다. 이곳 제장에는 당집이 있고 그 안에는 당신(堂神)을 상징하는 부처모양의 석상이 모셔져 있다. 특히 이 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미신타파정책'에 따라 동제가 단절되었다. 그 뒤 마을에 흉사가 자주 일어나 1980년대에 동제를 복원하였다. 예전에는 동성황신의 위패를 당에 모셨었으나 복원하면서 석상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동제는 정월대보름날 자시에 지내며 절차는 역시 유교식 가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마을 역시 동제를 마친 뒤 도가에 가서 음복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대동회를 연다. 1964년까지는 음복을 한 후 풍악을 울리며 마을 잔치를 벌였으나 요즘은 간단히 마을을 위한 회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동장 선출도 한다.

의의 마을사회에서 대동회는 마을의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관심사를 자치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귀속감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같은 마을공동체의 성원으로 상호부조정신을 강조하여 사회적 협동을 강화한다. 그리고 대동회를 통해 동제의 제관을 선정하는 등 종교적 의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대동회를 하는 날 풍악을 울리며 대동잔치를 벌인 경우도 있듯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대동놀이, 대동굿 등에서 '대동'이란 용어가 모두 대동회와 같은 맥락에서 붙여진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동회는 마을 사회의 자치적인 운영을 위한 집회조직으로서 마을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행정·사회적 단위로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대동회**(김택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풍기의 민속종교와 신앙생활**(김명자, 민속연구 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3),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필자 김명자(金明子)

대전계족산기우제 (大田鷄足山祈雨祭)

정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의 계족산 정상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의례.

역사 계족산은 조선시대 회덕현(懷德縣)의 진산(鎭山)이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세속에

이르기를 계족산이 울면 비가 온다"라고 기록된 내용으로 미루어 기우제의 역사는 고려시대 무렵으로 추정된다. 구술에 따르면 기우제를 지낸 곳은 계족산성(사적 제355호)이 위치한 인근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기우제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장동의 진골과 새뜸, 읍내동의 뒷골 등 여러 자연마을에서는 산신제와 탑제가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는데 비하여 계족산의 기우제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드물다.

'계족산'이라는 이름은 산의 형태가 닭의 발과 같이 등성이가 연이어져 있고 사이마다 골이 깊은 데에서 연유하였으며, '닭다리산'이라고도 일컫는다. 한편 가뭄이 심하게 들면 산이 울고, 산이 울면 비가 온다고 하여 계족산을 '비수리'라고도 한다. 계족산의 서남쪽에는 장동, 동남쪽에는 연축동, 동쪽에는 읍내동이 각각 펼쳐져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기우제'라는 용어보다 '우제(雨祭)'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회덕현의 중심 마을인 현재의 장동에서는 '우제'라는 용어가 우세하다.

계족산기우제단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백제산성인 계족산성을 통해 흔적을 유추할 수 있다. 계족산(둘레 약 1,200m, 높이 399m)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계족산성 성내에서는 백제시대는 물론 신라 · 고려 · 조선 시대의 토기와 자기 조각들이 출토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산성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은 조선 말기에 동학농민군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산성의 특정 부분에 '우술성(雨述城)'이라 불리는 유적이 있어 기우제와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내용 하지가 지나고 초복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은 날을 택일하여 계족산 날망(정상)에 올라가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냈다. 제물로는 돼지머리와 삼실과를 준비한다. 정상에 도착하면 간단히 유교식 제사를 올리고, 서너 개씩 준비해 간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불을 놓으며 기우제를 지냈는데, 흔히 군 단위로 주최하여 수십 개의 마을이 밤중에 불을 놓기 때문에 장관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양기(陽氣)인 불로 음기인 비구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다. 또 삿갓을 쓰고 짚으로 만든 도랭이(도롱이)를 입고 물병의 물을 뿌려서 삿갓과 도롱이를 적시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옷을 적시며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유사한 현상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는 유감주술에 따른 방법이다. 기우제 참여 인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성과 노인을 제외한 계족산 일대 마을 남자들이 주재하였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계족산의 기운이 영험하고 봉우리에 명당이 많아서 사람들이 몰래 평장(또는 암장, 봉분을 만들지 않고 시신을 안장하는 것)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때마다 어김없이 마을에 가뭄이 들어 이를 의심한 주민들은 무덤을 찾아내어 파내고 기우제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계족산기우제는 비가 내려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염원에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중단된 계족산기우제는 2007년 대덕문화원의 주관 아래 '계족산 무제'라는 이름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여 동상을 받은 이후로 매년 단옷날을 즈음하여 우제를 재현하고 있다.

지역사례 농민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농사이고, 농사를 좌우하는 것이 비였기 때문에 기우제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 왔다. 수리시설이 부족하던 시기에 기우제는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였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리의 수암산에서는 유교식 기우제를 지낸 다음 남쪽 잔디밭에 불을 질렀다. 이는 그곳이 용두(龍頭) 형상이어서 뜨거워지면 이를 식히려고 비를 내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와 신대리는 두 마을의 남쪽에 있는 야산에서 유교식 기우제를 지냈다. 제일(祭日) 저녁이면 마을 부인들은 머리를 감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서 물병을 들고 냇가로 가 물병에 정성껏 물을 담은 뒤 기우제장으로 향한다. 제의에 참례한 부인들은 의식이 끝나면 솔잎으로 물병을 막은 뒤 각자 집으로 가져가 사립문 기둥에 거꾸로 매단다. 그리고 제일을 정하고부터는 제장을 원래의 제장 터로부터 500여 m 떨어진 냇가로 옮겼다가 비가 오면 본래의 위치로 옮긴다. 지금은 임하댐 건설로 수몰된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례리에서는 도연폭포에서 개를 잡아 그 피를 바위에 바르고, 개는 폭포 속에 넣었다. 그리고 폭포 위에서는 물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소나무와 자갈로 보를 쌓아 물을 막았다. 이처럼 기우제는 신에게 호소하거나 화해하거나 대항하여 비를 얻기도 하고, 유사법칙과 음양오행을 통하여 비를 유도하는 등 방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우제가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상황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김의숙, 집문당, 1993).

필자 황경순(黃慶順)

대전무수동국사봉 (大田無愁洞國師峰)

정의 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 국사봉에 토제마(土製馬)를 봉안하던 제당. 조선시대 국사당(國師堂)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5년 5월 27일에 '국사봉 유적'이란 명칭으로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8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국사봉은 무수동 배나무골 뒤편에 위치한 해발 245m의 봉우리이다. 그 정상부에는 당집 형태의 국사당이 존재했으나 오래전에 소실되어 상세한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유적 주변에는 원형이 거의 붕괴된 석축 시설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석축은 국사당을 두른 돌담으로 추정되며, 국사봉 정상부에 둘레 20m, 높이 1m 안팎의 방형으로 쌓았다. 또한 무너진 돌 틈 사이에서 불에 검게 탄 와편이 수습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집은 와가(瓦家)였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 후기 어느 시점에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국사봉 유적은 삼국시대의 산성이나 보루로 추정되기도 했으나 부서진 토제마와 제기(祭器)로 사용된 자기편 등이 출토됨으로써 마을신앙과 관련된 국사당으로 드러나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국사봉은 옛날에 '국사(國師)'라는 도승이 이 봉우리에 올라가서 사방의 지세를 내려다보니 형국이 무척 좋아서 춤을 춘 자리라고 전한다. 이 때문에 봉우리의 이름도 국사봉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국사봉을 신성시하는 관념은 1950년대 전후까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혹독한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국사봉으로 올라가서 그 상봉에 땔나무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불을 지피며 비가 내리기를 청하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역사 무수동국사봉 유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이곳에서 출토된 토제마, 상평통보, 자기편 등이다. 특히 자기류는 시대를 달리하는 청자편, 분청사기편, 백자편이 두루 수습되었다. 이에 따라 국사봉 유적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줄곧 국사당으로 기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수동의 역사가 고려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을 더해 준다. 더욱이 국사제는 고려시대 산신신앙이 불교와 습합되면서 성립된 이래 민간에서 널리 성행한 의례였다. 그러나 불교적 색채가 짙은 국사제는 조선시대에 점차 산신제에 흡수되거나 제의 명칭이 산신제로 바뀌면서 20세기 이전에 대부분 소멸되었다. 18세기 초까지 명맥을 이어온 무수동 국사당은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제사 유적이다.

내용 국사봉에 안치된 토제마는 모두 다섯 마리로 추정되지만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다. 다섯 마리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제작된 토제마는 몸통의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 토제마는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길이는 6~7㎝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제작 당시의 크기는 15㎝ 안팎으로 추정된다. 등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안장을 올렸고, 입을 벌린 모습에서 질주하는 말의 형상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토제마 한 마리는 회갈색을 띠고 있으며, 길이는 6~7㎝이다. 네 다리, 꼬리, 주둥이가 파손된 것을 제외하면 말의 형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이 말 역시 안장을 지어 올린 흔적이 있으나 유실되어 원형을 알아보기 어렵다. 이 밖의 토제마는 부서진 말머리 세 개와 다리 네 개이다. 마두(馬頭)는 백색 또는 회색 점토로 빚었으며, 조잡한 형태로 이목구비를 표현하였다.

다섯 마리의 토제마는 철마, 옹기마, 자기마 등과 더불어 중부지방의 국사당이나 산제당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봉안물이다. 즉 국사봉 토제마는 국사신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신물(神物)로서 속칭 '국사신말', '산신령 말', '서낭님 말'과 동일한 성격으로 헌납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명 유래나 출토 유물로 미루어 볼 때 무수동국사봉은 애당초 국사당이 자리한 성소(聖所)임이 분명하고, 조선 후기에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 해마다 정기적인 국사제가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토제마와 함께 주목되는 유물은 상평통보이다. 조선시대 때 사용된 엽전이 출토된 것은 국사제를 지낼 때 토제마를 위해 폐백으로 바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대전 덕진동 적오산성의 말바위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에는 무쇠로 만든 말 다섯 필이 안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평소 말바위를 지나가려면 엽전이나 동전을 놓고 가는 풍습이 있었다. 엽전이 없으면 쇠붙이라도 던지고 가야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전한다. 그런가 하면 충남 금산군 군북면 자진뱅이 뒷산에는 호환을 물리칠 목적으로 바위 밑에 쇠말 네 마리를 봉안, 매년 산신제를 지낼 때마다 쇠말에 술을 올리고 동전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 이로 인해 지금도 쇠말 앞에는 동전이 수북이 쌓여 있다. 이와 같이 지난날 말이 모셔진 곳에는 엽전을 놓고 가거나 동제를 지내면서 쇠말에 엽전을 바친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이에 따라 국사봉에서 출토된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말에 대한 오랜 종교적 관념이 녹아 있는 유물의 흔적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대전광역시 문화유적분포지도**(대전광역시, 2004), **대전시사 4**(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2), **대전의 성곽**(대전직할시, 1993), **무수동 국사봉 출토 토제마의 성격과 산신제**(강성복, 향토연구 32, 충남향토연구회, 2008),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대전무수동동계문서 (大田無愁洞洞稧文書)

상호참조 대전무수동산신제(222쪽)

정의 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에서 19세기 중엽 산신제와 관련된 제반 의례절차를 기록해 놓은 문서.

내용 무수동은 조선 후기 남인계의 반촌으로서 대전 지역에 널리 알려진 안동 권씨 집성촌이다. 안동 권씨는 호조판서를 역임하는 권이진(權以鎭, 1668~1734)이 무수동으로 이거하면서 동족마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무수동계'는 19세기 중엽 안동 권씨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산신제의 복구를 명분으로 상하민을 아울러서 결성한 마을 조직이다.

문서의 표제는 '무수동계(無愁洞稧)'이다. 이 문서는 19세기 동계를 결성하게 된 배경과 산신제에 수반되는 제반 의례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문서의 구성은 머리말에 해당하는 「서동계첩수(書洞稧帖首)」를 시작으로, 「제일(祭日) 및 제관(祭官)의 선정기준」, 「제물진설도(祭物陳設圖)」, 「산신제 제차(祭次)」, 「축문(祝文)」, 「산신하강일(山神下降日)」과 「천구하강일(天狗下降日)」, 「동계좌목(洞稧座目)」, 경오년(1870)·을해년(1875)·무술년(1898) 「추입자 명단」, 「산제위답(山祭位畓)」, 「동임동답(洞任洞畓)」, 1851년부터 1926년까지의 「제관 명단」 등이다. 그리고 문서의 말미에는 「매년흥성기(每年興盛記)」라 하여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면서 새로 구입해야 될 제구(祭具) 물목이 첨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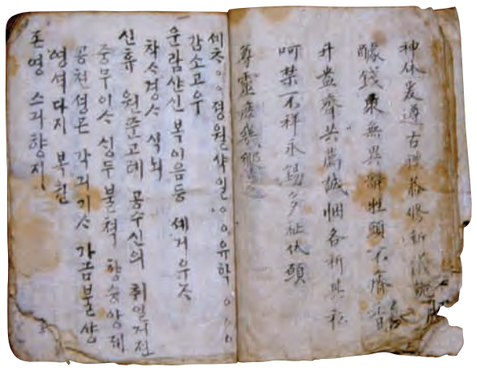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18세기부터 내려오는 산신제의 제일 및 제관 선정의 관행을 분명하게 적시한 점이다. 즉 "제일은 매년 정월 산신하강일을 취하여 선택한다. 제관은 본동의 주민 중에서 생년이 합하는 길인(吉人)을 선택하여 일주일 전부터 삼가 조심하고, 하루 전에 제수를 갖추어 명일 축시(丑時)에 제물을 진설하고 향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축문은 한문과 한글축이 함께 실려 있으며, 산신제의 제차는 강신(降神)-분향(焚香)-참신(參神)-헌주(獻酒)-독축(讀祝)-사신(辭神)-분축(焚祝)의 순이다.

서문은 1855년(철종 6) 상원(上元)에 동계의 결성을 주도한 권충전(1806~?)이 작성한 것인데, 19세기 중엽 피폐해진 마을의 사정과 이로 인해 중단 위기에 놓인 산신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무수동계첩
대전 중구 무수동
1991.2.23. 강성복

> 운람산 아래 마을이 있으니 무수동이라고 한다. 그 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 안동 권씨가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말한다면, 상서공(尙書公, 입향조 권이진)께서 선친의 산소와 재실을 가꾸어서 이제 5~6대가 된 지 오래이다. 일가친척이 시골에 모였고 뒷산 언덕의 나무도 다 아름드리가 되어 장씨(張氏)의 영벽(靈壁)이 옛 그대로 된 것을 보면 마을이 대개 옛날에도 번성하였다. 그러나 수십 년 내에 석벽이 점점 쇠모(衰耗)하여 터전의 반이나 떨어져나가 사람들이 생기에 힘입지 못하고 기상이 쓸쓸해지니, 이것은 진실로 운수의 오고 감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일찍이 옛 노인들이 전하는 바를 들어보면 마을의 민속이 돈후(敦厚)하여 예의를 서로 앞세우고, 단지 제사에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먼저 산신을 제사 지내는 일에 지극히 정성스럽고 공경하였다. 그리하여 좋은 날을 가려 제수를 갖추고 제관을 선택하였으며, 삼가 재계(齋戒)하고 기름진 희생(犧牲)과 향기로운 술을 담그는 그 의식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근자에 폐지되어 시행치 아니하거나 비록 혹 행한다 할지라도 거칠고 경솔하여 예절을 차리지 못하였다.

이 기록에서 잘 드러나듯이 무수동계가 결성되는 배경은 급속한 향촌사회의 변동이 전제된 것이었다. 즉 무수동은 유랑민의 급증으로 인구의 절반 정도가 떨어져나가고 민심의 동요가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매년 안동 권씨의 주도하에 경건하게 지내오던 산신제조차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을의 사정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따라서 안동 권씨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사족의 권위와 향촌지배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1844년(헌종 10)에 중단된 산신제를 복구하고자 마을에서 돈과 곡식을 갹출하여 비용을 마련하는 한편 예학에 밝은 문중의 원로 삼수부군(三守府君) 권구(權榘, 1769~1847)에게 알리어 축문을 지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겨우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산신제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1850년(철종 1)에 유명무실해진 산신제의 복구를 명분으로 내세워 의논을 정하고 재물을 모으게 된다. 이를 계기로 안동 권씨와 하층민이 함께하는 동계를 출범시킴으로써 흔들리는 민심을 안착시키고 마을의 구심점을 공고히 하게 된 것이다. 실제 동계좌목에 등재된 60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안동 권씨 23명을 비롯해 타성(他姓) 및 하민으로 보이는 37명이 적시되어 상하민이 함께 동계를 조직했음을 알 수 있다.



1844년 작성된 축문
대전 중구 무수동, 1991.2.23. 강성복

이와 함께 무수동계가 성립되는 이면에는 당시 마을 사람들의 산신제에 대한 인식도 한몫 거들었다. 특히 안동 권씨 집안에서는 '산속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산신을 제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무수동의 주산인 운람산은 인간에게 미치는 재복(災福)이 여느 산과는 사뭇 다른 신비스런 산으로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한 마을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제사로써 증명이 된다'는 논리로 산신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산신은 진실로 산의 주인이요, 우리 권씨 또한 마을의 주인이다"라고 그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세기 중엽 중단된 산신제를 복구하고 마을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무수동계는 1950년대에 파산되고 현재는 산신제만 전승되고 있다.

의의 무수동계문서는 19세기 반촌의 실상과 존폐의 기로에 봉착한 산신제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동계첩의 서문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반촌이었던 무수동은 가구의 절반이 유리될 만큼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이에 마을의 주인인 안동 권

씨 입장에서는 중단된 산신제의 복구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동계 결성을 주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문서의 사료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은 19세기 중엽 산신제와 관련된 제반 준비 절차와 의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당시 사족층의 산신제에 대한 인식과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대전 무수동 동계와 동제의 성격**(강성복, 충청민속문화론, 2005),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충남지방 장승 · 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1), **한국의 마을제당-충청도**(국립민속박물관, 2002).

필자 **강성복(姜成福)**

대전무수동산신제 (大田無愁洞山神祭)

상호참조 대전무수동동계문서(220쪽)

정의 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에서 해마다 음력 정초에 길일(吉日)을 택해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

역사 산신제의 역사는 300여 년 전 무수동에 정착한 안동 권씨(安東 權氏)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후 무수동은 안동 권씨 집성촌으로 크게 부각되는 마을이 되었다. 입향조는 조선시대 때 호조판서를 지낸 유회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이다. 그는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사위이자 자신의 부친인 권유(權惟)가 세상을 뜨자 무수동에 장례를 치르고, 1707년(숙종 33)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마을로 이거하였다. 당시 풍수지리에 밝은 권이진은 마을 뒷산에 손수 제당의 위치를 정하고 해마다 산신제를 지냈다고 구전된다. 이러한 사실은 1851년에 작성된 『무수동계첩』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조선 후기 이래 줄곧 향론을 주도한 안동 권씨가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무수동산신제는 19세기 중엽에 중단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른바 민중봉기 시대와 맞물려 인구의 과반수가 떨어져 나가고, 이에 따라 여러 대를 이어온 산신제는 폐지되거나 행하더라도 조악하여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했다. 자구책으로 1850년(철종 1)에 의논을 정하고 재물을 모아 산신제를 주관할 동계를 결성하였다. 이는 안동 권씨 집안에서 "산속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산신을 제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산신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까닭에 "한 마을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제사로 증명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산신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산신은 진실로 산의 주인이요, 우리 권씨 또한 동네의 주인이다"라는 논리로 동계 결성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더욱이 무수동의 주산(主山)인 운람산은 인간에게 미치는 재복(災福)이 여느 산과 사뭇 다른 신비스런 산으로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무수동산신제는 6 · 25전쟁 이후 동계의 파산 및 급속한 산업화의 여파로 몇 차례 중단과 복원이 거듭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근에는 인근의 사찰에 산신제를 위임하기도 했으나 2008년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을 계기로 무수동산신제보존회가 결성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내용 산제당은 마을 뒤편 운람산 중턱에 위치한다. 제당은 본래 단칸 기와집이었으며, 내부에는 산신도가 봉안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산제당을 돌보지 않아 허물어졌고, 지금은 단지 당집이 있던 자리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1. 택일 제일은 정초에 산신하강일(山神下降日)로 택일하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되어 있다. 동계첩에는 산신이 하강하는 날은 물론 산신제를 피해야 할 천구하강일(天狗下降日), 경오일(庚午日), 산명일(山鳴日)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동계첩에는 "본 동중에서 생년이 합일되는 길한 사람을 선정하여 일주일 전에 재계(齋戒)하고, 하루 전에 제수를 준비하여 이튿날 축시(丑時)에 제물을 차려놓고 행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산신제를 앞두고 초상이나 출산이 있으면 제의를 연기한다. 이때는 '생삼사칠(生三死七)'의 원칙에 따라 '산부정(출산)'은 사흘 이상, '죽은부정(초상)'은 이레 이상을 각각 연기했다가 다시 날짜를 잡는 것이 통례이다.

대전무수동산신제 대전 중구 무수동, 1991.12.30(음), 강성복

제물 진설

독축

2. 유사 선정 산신제는 동계의 대동회의로부터 준비가 시작된다. 주민들은 가을걷이가 갈무리되면 동계를 개최하여 산신제를 전담할 유사를 선출한다. 유사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결정한다. 일제강점기까지는 상유사(上有司), 하유사(下有司), 나무유사를 한 명씩 선출했다. 단 상유사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동 권씨 집안에서 맡는 것이 관례였고, 상유사를 보좌하는 하유사는 타성(他姓) 중에서 선정했다. 반면에 땔나무와 심부름을 해 주는 나무유사는 산지기나 머슴이 전담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근래에는 상 · 하 유사와 관계없이 제관, 축관, 음식유사를 선정한다. 제관이나 축관으로 지목된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매일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술 · 담배를 삼간 채 정성을 들인다. 특히 제관의 집에는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줄을 치고 황토를 편다. 마을에서도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무엇보다 살생을 피한다.

3. 산제답과 제물 산신제 비용은 산제답(山祭畓)에서 매년 도조를 받아 충당했다. 동계첩에는 무수동 이웃 마을에 세 마지기[三斗落]의 논이 산제답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두 섬을 도조로 받았으나 1950년대 동계가 파산하면서 산제답이 매각되었다. 이후 산신제는 집집마다 십시일반으로 갹출하거나 마을기금에서 일부를 떼어 제수를 준비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포, 3탕, 메밀묵, 떡, 메, 나물, 술, 식혜, 정화수, 불밝이쌀 등이다. 제수는 유사의 부인이 시장에서 구입하며, 이때 절대로 값을 깎거나 흥정을 벌이지 않는다. 또한 시장을 오가는 중에 초상집, 상여, 출산 등과 같은 부정한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한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미리 맛을 보거나 고춧가루, 마늘, 조미료 따위의 양념을 넣지 않는다. 조리에 사용할 물은 밤 12시가 지난 뒤 정갈하게 고인 정화수를 떠온다.

4. 산신제 당일 아침이 되면 제관은 산제당으로 올라가는 길을 뚫고 제당과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고 황토를 주변에 한 줌씩 뿌린 다음 산제샘을 깨끗이 퍼내고 청소한 뒤에 내려온다. 제관은 날이 저물면 떡과 제물을 준비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자정이 가까워지면 산제당으로 향한다. 산제당에 도착한 제관은 화톳불로 메[밥]를 지어 올리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차는 유교식으로 진설(陳設)-강신(降神)-분향(焚香)-참신재배(參神再拜)-헌작(獻酌)-독축(讀祝)-분축(焚祝)-사신재배(辭神再拜)-소지(燒紙) 순이다. 즉 제관과 축관은 산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무릎을 꿇고 향을 사른 다음 참신례(參神禮)를 행한다. 그리고 단작(單酌)으로 술을 올린 다음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산신제의 축문은 1844년 삼수부군(三守府君) 권구(權榘)가 지은 것으로 1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된다. 동계첩에는 한문으로 지은 축과 한글 축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독축을 마치면 제관과 축관은 사신례로 재배하고 산신제의 마지막 절

차인 소지를 올린다.

5. 소지 및 유황제 소지는 무수동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해 초상을 당한 집은 부정하다 하여 소지에서 제외된다. 순서는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는 대동소지에 이어 제관과 축관의 소지를 올린다. 대동소지는 연장자부터 가구별로 대주소지를 불사른다. 그리고 소, 돼지, 개, 닭 등 육축(六畜)의 번성을 기원하는 우마소지(牛馬燒紙)를 각각 올리는 것으로 제의는 끝난다. 예전에 가구 수가 번성할 때에는 이처럼 소지를 올리는 데에만 서너 시간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소지축원은 산신제의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소지를 끝으로 산신제가 마무리되면 일동 재배한다. 산신제가 끝나면 제관과 그의 부인은 약간의 제물을 떼어 산제샘 앞에 차려 놓고 유황제(용왕제)를 지낸 다음 하산한다. 본래 산신제를 지낸 제물은 산제당에 그대로 두고 돌아왔다가 날이 밝으면 가져가서 유사의 집에 모여 음복을 나누었다.

6. 정월대보름 거리제 산신제와는 별도로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동구 밖에 있는 장승·솟대 앞에서 올렸던 거리제는 일제강점기 말에 중단되었다. 거리제는 무수동의 상·천민들이 주관하는 의례로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한 해의 소망을 빌었다. 참여자들은 초저녁부터 풍장을 울리며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액운을 물리친 다음 장승·솟대가 있는 동구 밖으로 가서 거리제를 지냈다.

의의 무수동산신제는 조선 후기 '남인계' 반촌에서 전승되던 동제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무엇보다도 산신제와 거리제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사족인 안동 권씨와 그 예하에 속한 하민들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정초의 산신제가 안동 권씨가 주도하는 신년맞이 의례였다면 하층민들이 주관하는 거리제는 흥겨운 풍물굿이 수반되는 정월대보름 마을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신제와 거리제로 이루어진 무수동의 동제는 반촌이라는 신분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곧 안동 권씨가 공동체를 강화하고 상·천민들의 일탈을 통제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로 산신제를 활용했다면 타성으로 일컬어지는 마을의 구성원들은 역시 거리제를 통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유대를 강화하고 결속을 꾀한 것이다.

참고문헌 **무수동계첩, 조선후기 대전 무수동 동계와 동제의 성격**(강성복, 충청민속문화론, 민속원, 2005),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충남지방 장승·솟대 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1), **한국의 마을제당-충청도**(국립민속박물관, 2002).

필자 **강성복(姜成福)**

대전외삼동산신제 (大田外三洞山神祭)

정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에서 3년에 한 번 음력 시월 초순에 길일을 택해 마을 뒷산에서 지내는 산신제.

역사 대전 유성구 외삼동은 진주 강씨(晉州 姜氏), 경주 김씨(慶州 金氏), 은진 송씨(恩津 宋氏) 등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산막(山幕), 서당골[書堂洞], 안말[內村], 큰말[大村], 학교말[學校村]이 있다. 이 중 안말과 큰말, 서당골 일부가 옛날부터 공동으로 산제를 지내 왔다. 그러다가 1992년부터 안말이 산제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서 그 이후 큰말과 서당골 일부 주민들이 함께 제를 모시고 있다. 제를 지내는 곳은 마을 뒷산이다. 이 산은 밥봉(275m)의 개울 건너에 있는 옆산으로, 계룡산의 한 지맥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서는 특이하게도 상당제로서 칠성당과 산신제를 나누어 지낸다. 뒷산 꼭대기에는 '칠성당'이라는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제물을 차릴 수 있게 막돌로 단을 쌓아 놓았다. 칠성당 못 미쳐서 감나무가 한 그루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산지당'이라고 부른다. 산지당은 당집이 없는 자연제장(祭場)이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제를 먼저 지내고 나서 산제를 모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제를 치른다. 칠성제는 가장 큰 어른인 북두칠성, 산제는 산신령을 각각 위하는 제의이다. 산제의 대상은 호랑이이다.

내용 외삼동산신제는 마을 주민들의 평안을 위해 지내며, 매년 치르지 않고 3년에 한 번 지낸다. 제의를 지내는 해에는 음력 시월 초순에 좋은 날을 받는다. 책력을 보아 날을 정하는데 대개 초닷샛날로 제일(祭日)을 삼는다. 제일이 결정되면 제사 일주일 전에 생기복덕을 보아 운이 닿는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는데, 우선 칠성제를 지낼 사람으로 남녀 구분 없이 두 명을 선출한다. 그중 한 명이 제관이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축관이다. 간혹 자녀가 없는 부부가 칠성제를 자원하여 모시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부부도 있다는 말이 전한다.

한편 산제와 거리제를 지낼 사람으로 한 명을 선정한다. 이를 '축관'이라 부른다. 축관은 주로 큰말에서 뽑는 경우가 많다. 또 산제와 거리제 음식을 장만할 사람을 한 사람씩 따로 선출한다. 선출된 사람들은

대전외삼동산신제 대전 유성구 외삼동, 2003.11.13, 차정환

칠성제

산제

산제

거리제

거리제

제를 지내기까지 일주일가량 약수로 목욕재계를 하고, 비린 음식을 먹지 않으며, 부정을 가리기 위해 외출도 삼간다. 특히 축관 집 대문 앞에는 솔잎, 고추, 검정 숯을 꽂은 금줄을 치고 대문 양쪽에는 황토를 일곱 무더기 놓아서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이 기간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비린 음식을 가리는 등 마을에 부정이 드는 것을 각별히 조심한다.

제비(祭費)는 마을 공동기금과 추렴을 통해 마련한다. 집집마다 햅쌀 한 되나 두 되를 성의껏 낸다. 제일 낮이 되면 칠성제를 지낼 두 사람이 산지당 아래쪽에 있는 샘에서 물을 떠다가 칠성당으로 올라가 이 물로 쌀을 씻은 뒤에 절구통에 넣고 빻는다. 밤 10시쯤이 되면 칠성제를 지낼 두 사람이 칠성당으로 올라가서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메, 떡, 미역국 세 가지이다. 떡은 낮에 준비해 둔 한 되 세 홉의 쌀을 시루에 넣고 흰무리떡을 쪄서 준비한다. 이때 소금은 넣지 않는다. 메와 미역국도 칠성당 앞에서 직접 장만한다.

칠성당 앞에 제물을 진설하면 제관이 재배를 하고 대동소지를 올린다. 칠성제가 끝나면 제관이 마을을 향해 "마중시루를 떼라!"며 소리 지른다. 이 소리를 들은 각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찐 시루를 올린다.

칠성제가 끝나면 산지당을 맡은 축관이 산제를 지낸다. 산지당 제물은 가래떡, 삼색실과, 명태 두 마리이다. 통소나 통돼지, 수탉을 올리기도 한다. '통'은 한 마리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소를 잡아서 올렸으나 1995년부터는 돼지를 올린다. 제의는 칠성당과 마찬가지로 헌작, 재배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사례 외삼동산신제는 지금도 계속 전승되고 있다. 마을 주민의 수는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앙심과 제의는 별다른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외삼동산신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 마을신앙의 보편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산신을 중심으로 하는 상당신과 장승·탑 등 하당신의 신앙 및 의례는 마을 구성원의 사회적 유대와 공동생활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에게 정신적 일체감과 위안을 제공한다. 외삼동을 비롯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는 정월 또는 시월에 좋은 날을 택하여 제사를 지낸다. 인근 지역에서는 유성구 덕진동, 세동, 구룡동, 성북동, 자운동 등이 시월에 산신제를 지냈지만 대부분이 소멸됐다.

참고문헌 민간신앙(이필영, 대전민속지 상, 1998).

필자 임승범(林承範)

도가

정의 동제 때 사용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또는 제물을 장만하는 집.

내용 마을공동체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인 동제에서 제수(祭需)를 준비하고 제물을 장만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집을 아울러 뜻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 '시전(市廛)의 사무회의 및 공사 처리를 위한 사무소 또는 전계(廛契)의 공동창고'를 의미하던 '도가(都家)'에서 취한 말이다. 원래 물품과 관련된 장소이자 계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공적으로 관리되던 공간을 뜻하는 도가의 의미가 동계(洞契)와 동제를 위한 공동 공간의 의미로, 나아가서는 그 공간을 책임지는 사람의 의미로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물을 준비하고 장만하는 사람은 도가 외에도 화주, 당주, 공양주, 제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들 명칭이 지역이나 마을 유형에 따른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당주나 화주는 주로 충청 이북,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명칭이다. 동해안 쪽으로는 도가라 부르는 마을도 있고, 제주 또는 제관으로 통칭하는 곳도 많다. 제관, 축관, 도가로서 그 역할과 명칭을 엄정하게 나누는 마을도 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제관을 뽑아서 상(上)·하(下)나 원(元)·차(次) 등의 품등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하제관이나 차제관에게 도가의 역할을 맡기는 방식도 동해안 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경기도에서는 도가의 역할을 '선 화주'와 '앉은 화주' 또는 '상하주'와 '하주'로 세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도가는 정월대보름날 동제를 앞두고 제관과 동시에 선정된다.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과 도가로 선정된 사람은 입재일 며칠 전부터 매일 목욕재계를 하고, 궂은일을 보지 않기 위해 삼가고 조심한다. 또한 동네 우물을 치고, 신당 및 우물과 제관 및 도가의 집 주변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둔다. 그리고 첫새벽에 제수마련을 위해 장을 보러 간다.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가서 가장 깨끗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이다. 값은 흥정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준다. 돌아와서는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손수 음식을 장만한다. 제사에 쓸 벼를 미리 갈무리해 두었다가 방아를 찧어 두는 일, 제수용 콩나물을 키우고 제주(祭酒)를 담그는 일 등을 미리 해두는 것도 도가가 할 일이다.

근래에 와서는 동제 수행에서 요구되는 각종 금기가 주는 불편함 때문에 제관과 도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농어촌의 노령화로 인해 제관직을 맡을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젊은 세대는 동신에 대한 신앙심이 약해서 제관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동제사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이런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도가이다. 우선 제물을 장만하는 집이 마을회관으로 바뀐 경우가 많다. 또 제관과 도가를 따로 뽑지 않고 두 명 또는 한 명의 제관으로 하여금 도가 역할까지 겸하게 하는 마을이 많아졌다. 이 경우 결국 제물 장만의 소임은 제관 부인들의 몫이 된다. 제관에 대한 기피가 점점 강해져서 제관을 여러 명 뽑을 여력이 없는 마을이 많다. 그나마 한 명의 제관을 순번제로 돌려도 가능한 한 제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즈음 농어촌의 현실이 되었다.

참고문헌 동해안 마을의 신당과 제의(천혜숙, 민속원, 2007), 밤섬 부군당 도당굿(한국사머니즘학회, 문덕사, 1999), 한반도 중부지방의 민간신앙(김종대, 민속원, 2004).

필자 천혜숙(千惠淑)

도깨비제

정의 화재(火災)나 돌림병의 원인을 도깨비로 여기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지내는 동제. 어촌에서는 도깨비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는 풍어신적 존재로 인식되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제의 방식에 따라 도깨비굿 또는 도깨비고사라고도 일컫는다.

내용 마을신앙과 관련하여 도깨비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부정적 성격은 도깨비가 마을에 화재를 일으키는 주범이거나 돌림병을 퍼트리는 역신(疫神)이라고 인식되어 퇴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도깨비제의 목적은 도깨비의 해악을 방지하거나 물리침으로써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긍정적인 성격은 도깨비가 풍어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해안과 남해안 및 도서 지역의 어촌에서 행해지는 도깨비고사는 풍어를 기원하는 개인의례이지만 마을신앙인 당제나 배고사의 일부분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도깨비가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인식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을에 자주 일어나는 화재에 대한 제의적 대응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화재 방지를 위해 마을신앙으로 행해지는 도깨비제는 임실과 진안 등지의 전북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 지역의 도깨비제는 일반적인 당제와 마찬가지로 주로 정월에 마을 당산에서 행해졌다.

도깨비제는 특별한 신체(神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이한 형태의 신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궁촌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열엿샛날 화재 방지를 목적으로 '김첨지'라고 부르는 터줏가리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도깨비제를 지낸다고 한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에서는 마을에 자주 일어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장승을 세우고 도깨비제를 지냈다는 조사 보고가 있다.

도깨비를 역신으로 인식한 도깨비제는 전남 진도와 전북 순창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의 도깨비제는 굿 형식으로 행해져 대개 '도깨비굿'으로 불린다. 진도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 또는 대보름 전후에 도깨비굿을 정기적인 의례로 행하거나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 행하였다. 순창에서는 마을에 들어오는 병을 막아 마을이 일 년 내내 무사하기를 기원하기 위해 도깨비굿을 했다. 이러한 도깨비굿은 전승 주체가 주로 여성이며, 정형적인 절차나 의례 요소를 중시하기보다 비형식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내륙의 마을신앙에서 도깨비가 퇴치의 대상이라면 어촌에서는 풍어 기원의 대상이다. 도깨비를 고기를 몰아주는 신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도깨비고사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남 신안군까지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전승된다. 이는 도깨비불을 보고 그해의 흉·풍어를 점치는 어촌의 풍습과 상관이 있다.

지역사례 화재막이를 위한 마을신앙으로서의 도깨비제는 주로 전북 산간 지역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에서는 마을에 불이 자주 나자 도깨비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반송리 도깨비제는 '도깨비고사'라고도 하며, 부녀회에서 주도하여 정월 열엿샛날에 지낸다. 제관은 부녀회에서 순번제로 세 집을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맡는다. 세 집 가운데 제물을 장만하는 집을 '밑집'이라고 한다. 밑집에서는 돼지머리·쇠고기·삼실과·술 등을 장에서 구입하고, 메밀묵·팥시루떡·메·탕 등은 직접 준비한다. 제의 비용은 집집마다 걷은 전곡으로 충당한다. 저녁이 되면 마을 부녀자들이 제물을 들고 풍물을 치면서 마을 어귀에 있는 제당으로 간다. 제당에 도착하면 제물을 진설하고 모두 절을 올린 다음 각자 소지를 올린다.

전북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에서도 화재를 막기 위한 도깨비제가 전승되었다. 이를 이곳에서는 '김생완제'라고도 한다. 김생완(김생원)은 도깨비의 별칭이다. 부녀회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음력 정월 초아흐렛날에 제의를 지낸다. 7일과 8일에 여자들은 굿패를 조직하여 제물을 준비하는 밑집에 모여 굿을 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동서남북 사방에 절을 한다. 제의 당일에는 팥시루, 메, 탕, 메밀묵, 팥죽 등 제물을 준비하여 마을 근처 개울 옆 논으로 가서 제의를 지낸다. 제의는 화재 방지뿐만 아니라 마을과 각 가정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소지와 비손을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행해진다. 제를 마치면 밑집으로 돌아와 음복을 하고 헤어진다. 임실군 관촌면 구암리 도깨비제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당산에서 지낸다. 여성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풍물과 유교식이며, 남녀 모두 참여하여 일반적인 당제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진다. 다만 제의 일자가 음력 시월 그믐날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도깨비제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도깨비제 성격을 띤 사례도 있다. 전북 정읍시 북면 원오류마을에는 여성들이 주동이 되어 속곳을 뒤집어쓰고 춤을 추며 마을을 도는 특이한 형태의 당산제가 전승된다. 예전에는 한밤중에 쇳소리가 나는 물건들을 들고 나와서 두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원오

순창 탑리-철륭 상차림
1996.3.19. 김종대

류마을 당산제의 유래가 마을에 화재를 일으키는 도깨비 퇴치였다는 점을 보면 원오류마을 당산제가 도깨비제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도깨비제와 같은 계통의 제의임을 알 수 있다.

도깨비를 역신으로 여기고 이를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깨비제는 순창 탑리와 진도에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도깨비제는 병을 가져오는 도깨비를 잘 먹이고 달래 보냄으로써 그해 마을 사람들이 탈 없이 잘 보내고자 기원하는 것이다.

전북 순창군 인계면 탑리에서는 음력 정월에 그해 돌림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도깨비고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탑리 도깨비고사는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동서남북 어귀에서 그해 역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의를 지낸다. 일종의 거리제와 같은 성격을 보여 준다. 탑리에서는 남성들이 주도하는 대보름당산제를 지내고 나서 정월 열이렛날 밤에 부녀자들이 주도하여 도깨비고사를 지낸다. 탑리 도깨비고사는 단절되었다가 마을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2000년대 초반에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정초에 마을 부녀자들 가운데 가장 깨끗한 사람을 제주로 선정하고, 열엿샛날이 되면 흰 쌀밥과 메밀묵 등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여 마을의 동서남북 네 곳에 가서 차례대로 제물을 차려 놓고 제의를 지낸다. 마지막 장소까지 끝나면 제물을 사방으로 뿌리고 일행은 징과 꽹과리를 울리며 마을로 돌아와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제의를 마친다. 제의를 다 마친 마을 여자들은 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눈다.

전남 진도에서는 마을에 따라 도깨비굿을 매년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날 밤에 정기적으로 하는 곳도 있었지만 전염병이 돌 때 마을 밖으로 병귀를 몰아내고자 굿을 하는 곳도 있었다. 진도읍 성내리에서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도깨비굿을 정월대보름날 밤에 정기적으로 했다고 한다. 이 밖에 진도읍 서외리, 사정리, 월가리, 용장리 등에서도 이런 종류의 도깨비굿이 행해졌다고 한다. 의신면 금갑리, 군내면 덕병리, 고군면 원포리, 임회면 상만리 등에서는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부터 도깨비굿을 했다. 일부 마을에서는 인솔자가 여자의 피 묻은 속곳을 대에 걸고 다니면 뒤따르는 여자들이 꽹과리, 양철, 솥뚜껑 등 쇳소리가 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고 나와 요란하게 두드리면서 춤을 추고 마당밟이를 하는 것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처럼 도깨비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깨비굿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는 주로 여성들이 의례의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의례적 절차와 형식보다 주술적 요소를 강화한 자유분방한 축귀의례로 행한다는 점이다. 도깨비굿은 여성의 속곳이나 월경피, 금속성 도구의 쇳소리 등으로 액을 막아내려는 주술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의의 도깨비는 민속에서 친근하면서도 위협적인 이중적 존재이다. 마을신앙에서 도깨비는 대개 마을 사람들에게 질병과 화재를 가져와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믿어졌다. 도깨비의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도깨비제를 탄생시켰다. 도깨비제에는 강력한 주술적 요소들을 통해 마을의 평안을 지키고자 하는 기원이 담겨 있어서 도깨비제를 통해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마을신앙이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도깨비를 둘러싼 민간신앙과 설화**(김종대, 인디북, 2004), **도깨비신앙의 유형과 전승양상**(김종대, 민속학연구 4, 국립민속박물관, 1997),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용인시, 2003),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북전통민속 상**(전라북도, 1990), **진도군지**(진도군·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7), **진도 도깨비굿 고**(이현수, 월산임동권박사 송수기념논문집, 집문당, 1986), **한국 민간신앙의 실체와 전승**(김종대, 민속원, 199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문화재관리국, 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남도**(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마을제당 4-충청북도**(국립민속박물관, 2000), **디지털 진도문화대전**(jindo.grandculture.net).

필자 **김월덕(金月德)**

도당신(都堂神)

정의 마을 수호신의 하나로, 특히 중부지방에서 모시는 수호신. 각 도당신은 도당(都堂)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일정한 영역권을 별도로 형성하고 있다.

도당신은 서울 주변인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신앙 형태와 의례 형식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당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의례를 올리는 도당굿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다. 일 년에 봄과 가을로 두 번, 간혹 세 번씩 위하는 곳도 있다. 마을에서 특별히 정한 제일에 마을 단위의 굿을 하거나 이와 달리 굿이 아닌 유교식 제의를 지내기도 한다. 제일(祭日)의 시기로 볼 때 도당굿은 거의 마을의 생산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도당신은 이러한 의미에서 마을 지킴이인 동시에 풍농을 도모하는 신격임을 알 수 있다.

형태 도당신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며, 이는 대상에 따라 정리하고 분류할 수 있다. 나무·암석 등의 자연물 형태, 신의 형체를 인공적으로 만든 형태, 신의 신위를 모시는 형태, 신의 형상을 그림으로 모시는 형태, 인격신의 현현 등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나무·암석 등의 자연물 형태는 도당신의 형태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지만 도당신의 영험을 지닌 존재로서 자연물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이다. 도당신이 마을 주민에게 일정한 영험으로 현시하기 때

부천 장말 돌팡구지
경기 부천시 중동 장말, 2007.11.11, 김은희

문에 신성 현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물인 이를 섬기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가령 홍수가 나 마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구해 준 나무와 같은 대상이 당목으로 섬겨지면서 도당신이 되는 서울 영등포 〈당산동 부군당〉의 도당신과 마을에서 신성하게 섬기는 암석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자연물을 섬기는 원시신앙의 하나인 자연신앙 또는 애니미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신의 형체를 인공적으로 만든 형태는 인공적으로 신체(神體)를 조성하여 도당신으로 섬기는 경우이다. 업줏가리나 터줏가리가 더욱 확대된 당줏가리의 면모를 지니고 있거나 이를 토대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당가리 또는 당줏가리를 도당신으로 섬기는 사례를 말한다. 이러한 도당신의 형태는 비록 인공물이지만 저변에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전거들이 잔존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당줏가리나 터줏가리 · 업줏가리 등은 인간에게 복록과 재수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업과 같은 특별한 신앙적 세계관에 기초함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당가리의 이면에 업신앙 형태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신의 신위를 모시는 형태는 도당신을 신위나 신주로 섬기는 경우이다. 이것은 유교식의 신위나 신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과 형태가 유교적 영향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만신의 경우 처음 신이 내렸을 때에 말문이 트이고 나서 신명을 주워 섬긴 것을 종이에 받아 적은 뒤 천 조각에 신명을 기재하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은 도당신은 다소 신격의 추상화에 가까운 것이면서 언령신앙과 같은 형태라는 점에서 중요한 면모를 지닌다. 비록 도당신이 신체나 형태를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마을의 수호신으로 인격신화한 면모가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신앙 형태이다.

신의 형상을 그림으로 모시는 형태는 화분의 형태로 도당신을 모시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신위를 모신 것보다 더욱 발전된 형상화의 방식을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경기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도당신은 이러한 형태를 온전하게 갖추고 있으며, 형상의 구현은 도당굿의 발전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도당신은 여느 형태와 달리 남녀의 형상으로 된 인격신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특정한 내력을 지니고 있다. 도당신의 인격신화는 평가할 만한 것이지만 이러한 신의 형상화 방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 원시

평동 도당신 화분
경기 수원시 평동 벌말
2010.2.24. 김은희

고색동 도당신 화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009.11.1 김은희

신앙의 소박한 형태로 되어 있던 신앙과 일정한 차별성을 띠는 것은 불가피하다. 곧 다면과 입체적 신의 형상이 평면과 일면의 신의 형상을 구현하게 된 셈이다.

인격신의 현현은 마을의 독자적인 전통에 입각한 것이다. 도당할아버지의 인격신적 발현이 적절한 예증이 된다. 바로 장말도당굿에서 도당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이러한 사례이다. 이 존재는 옷과 신내림에 의해 도당할아버지로 섬겨지고, 특히 굿판에서 외다리춤을 추거나 꽃반세우기와 같은 특정한 굿거리를 집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도당신의 다섯 가지 형태가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 부분 서로 복합되어 있다. 이들은 단순하게 평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며, 이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병렬적으로 복합화해 구현하는 양상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신의 그림으로 된 것과 특정한 자연물이 함께 섬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가지를 모두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단편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다. 도당신의 관념과 형상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은 마을의 역사적인 국면과 전개 속에서 항상 가변성을 띠면서 형태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다.

내용 도당신은 항상 대우신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성과 여성의 신격이 배우자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신은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라는 존칭을 부여받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존칭으로 으뜸이고, 마을의 조종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러한 대우신의 형상은 예를 들어 무신도로 되어 있지 않아도 대체로 지켜지는 양상을 보인다. 당주가리라고 하더라도 도당신의 신체로서 두 개를 모시거나, 돌광구지를 할아버지로 부르고 당을 할머니로 부르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도당신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마을굿에 의해 서로 합쳐지는 면모를 보인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당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에 따른 화합굿을 도모한다. 남녀 대우신이 연극적으로 형상화된 사례로 〈봉산탈춤〉의 미얄 과장에서 "너는 저 웃묵에 서고 내가 아랫묵에 서면 이 동네에 잡귀가 범치 못하는 줄 모르더냐?"라는 영감 대본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는 남녀 대우신의 구실이 무엇인지를 참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남녀대우신의 기능과 작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도당신은 단순한 성격의 존재에서부터 특정한 역사적 사건 속에 실존한 인물들로 존재한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벌말도당굿〉에서 보이는 인물은 김부대왕과 연계되면서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신격임이 드러난다. 벌말도당에 모셔진 신격은 갓을 쓰고 남색 도포를 입은 남자와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나란히 서 있는 형상이다. 남자는 갈색 말, 여성은 흰색 말을 각각 타고 있다. 벌말도당굿의 참여 주민들은 당에 모셔진 내외분을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 '서낭님 내외분', '김부대왕 내외'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한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 속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이 신격으로 모셔진다. 더욱이 이 신격은 시흥시 군자봉의 성황제에서 섬기는 신격과 일정하게 관련된다. 시흥 군자봉의 성황제에서 섬기는 성황신은 김부대왕과 안씨부인이다. 이 김부대왕이 군자봉에서도 섬겨지고 동시에 벌말도당굿의 신격으로도 섬겨진다. 군자봉의 서낭신인 김부대왕을 큰서낭, 평동의 도당신인 김부대왕을 작은서낭이라고 하여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흥 군자봉의 구준물대왕 김부대왕, 잿머리성황의 금부대왕과 홍씨부인, 안씨부인, 그리고 우음도 도당굿의 금부대왕과 안씨부인, 홍씨부인 등이 서로 깊은 관련성을 띠고 다각도로 변형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경기도 남부 일대의 도당굿권과 성황제권이 서로 얽혀 있으며, 더욱이 서로 신격을 공유하고 있다. 부군

당굿권에서도 신격이 역사적 인물과 결탁되어 있다.

도당굿은 경기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다. 도당신의 성격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대체로 도당신은 남녀대우신이면서 지역에 따라 역사적 인물의 성격이 합쳐져 있다.

서해안에 인접한 곶창굿권의 마을굿에서 도당신의 신격은 대체로 도당할머니와 함께 득제장군, 장군마누라와 같은 존재이다. 이들은 역사적 자취를 간직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성격의 인물들을 두루 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당신의 역사적 존재의 환기를 통해 역사를 기리고 민중의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하는 독특한 마을의 신앙 관념을 다시 일깨울 수 있다. 다른 고장의 마을굿이나 고을굿에서도 역사적 존재를 형상화하는 전통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무속이나 신앙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면모가 된다.

참고문헌 **경기도 도당굿**(김헌선,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김헌선, 집문당, 1995),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2002),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1978).

필자 **김은희(金銀姬)**

돈지할망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녀들의 일터인 '바당밭[海田]'을 관장하는 여신. 바당밭은 물론 그 속에서 나는 어류와 종사하는 해녀들까지 관장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신하효동, 서귀동, 성산읍 신산리, 대정읍 가파리 상동과 하동, 남원읍 위미1리와 2리 · 하례리 등지에서 돈지할망이 모셔지고 있다.

내용 '돈지'는 물가의 언덕, 곧 둔치를 말한다. '할망'은 할머니를 의미하는 제주어로서, 남녀 구별을 위해 여성 신격에 흔히 붙여진다. 이에 따라 돈지할망은 해변에 좌정한 여신을 의미한다. 보통 제주도에 '돈짓당'이라 불리는 당에서 모셔진다. 돈짓당에 모셔지는 신격으로 '돈지하르방'이라 불리는 남신이 어부를 차지하는 데 비해 '돈지할망'은 잠녀(潛女)를 관장하며 '일만 잠수를 차지한 신'이라 믿어진다.

서귀포시 서귀동 돈짓당에는 "불리는 동이와당 광덕왕, 서이와당 광신요왕, 남이와당 광신용왕, 북이와당 광인요왕, 어기역 지기역 해독지신, ᄉᆞ만 ᄉᆞ천 사그레 대이왕, 일곱 칠용왕, 이목 삼선왕, 일만 곰수애기, 삼천 불래기 용신 ᄎᆞ지ᄒᆞ신 돈지할마님. 천ᄉᆞ망망ᄉᆞ망 일게 흡서. 부름에 죄껴 가지고 왼 ᄆᆞ실 가게 마라줍서. 본 ᄆᆞ을 본 지경데레 돌아오게 허여줍서. 괴기 하영 물게 허여줍서"라는 돈지할망 본풀이가 전한다. 이에 따르면 돈지할망의 근본이 사해바다 용왕과 관련이 있고, 여러 용왕신을 거느리고 바다 어류를 관장하고 있으며, 바닷가 사람들의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해신(海神)임이 드러난다.

지역사례 제주도에서 해신은 돈지할망 이외에도 개할망, 남당할망, 요왕또, 용녀부인 등으로 불린다. 이들이 좌정하고 있는 당 역시 돈짓당, 돈지할망당, 갯그리 할망당, 개맛 할망당, 개당, 남당, 영등당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또한 해녀 또는 잠녀(潛女)를 수호하는 당을 잠녀당, 어부를 차지한 당을 어부당으로 각각 부르기도 한다. 해신이 좌정하고 있는 해신당은 제주도 바닷가 마을 대부분에 분포되어 있다. 보통 포구에 돌을 쌓아 간단한 제단을 만들거나 울타리를 두른 정도의 비교적 작은 당에 해신이 모셔진다.

이러한 해신당 가운데 돈짓당이라 불리는 곳에서 보통 돈지할망이 모셔진다. 그런데 돈짓당이라 불린다고 해서 모셔지는 신격이 꼭 돈지할망은 아니다. 제주시 우도면의 경우 돈짓당이라 불리는 당이 많지만 거기서 모셔지는 신격의 명칭은 돈지할망이 아니다. 돈지할망이 신격으로 모셔지는 지역은 제주도 남쪽 서귀포시 일대이다. 서귀포시 보목동 돈짓당, 신하효동 돈짓당, 서귀동 돈짓당 등에서 돈지할망이 모셔진다. 이들 마을에서 돈지할망은 남편격인 돈지하르방과 함께 모셔지는데, 그 직능은 어선과 어부를 차지하는 돈지하르방과 해녀를 차지하는 돈지할망으로 분담한다. 이들 당에서 매달 3일과 7일이 들어간 3일, 7일, 13일, 17일, 23일, 27일에 당제를 지낸다.

제주도 동쪽 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돈짓당에서도 돈지할망이 돈지하르방, 개하르방, 개할망 등과 함께 모셔진다. 서귀포 일대의 양상과 동일하게 어선과 해녀 차지로 하르방신들과 직능을 나눠서 맡고 있다. 다만 제일이 서귀포 여타 일대와 달리 택일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상동 매부리당에도 돈지할망이 돈지하르방과 함께 좌정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월, 6월, 8월에 택일하여 당제를 지낸다. 몇 년에 한 번 잠수굿을 하기도 한다. 이를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에서는 '가지 갈라다 모신 당'이라고 한다. 대정읍 가파리 하동 뒷성 서낭당은 상동 매부리당에서 가지 갈라다 모신 당이다. 황개당이라고도 부르는 이 당에는 돈지할망이 돈지하르방과 함께 좌정한다. 제일은 정월, 6월, 8월에 택일하며, 몇 년에 한 번 영등굿을 하기도 한다. 상동 매부리당과 함께 어부와 해녀를 수호해 주는 당으로 인식된다.

돈지할망은 대체로 돈지하르방이라 불리는 남성신과 함께 좌정하며, 그 직능을 나누어 맡고 있다. 돈지하르방이 어부와 관련된 제반 일을 담당한다면 돈지할망은 해녀와 관련된 일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모셔지는 돈지할망의 경우 어부와 해녀 모두를 관장하는 해신으로 나타난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다박낭ᄆᆞ실 돈지할망당에는 돈지할망이 애기씨 선왕과 함께 좌정한다. 여기서 돈지할망은 위미1리 어부와 해녀를 수호하는 신격으로 인식된다. 제일은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이다. 어부들은 주로 초하룻날에 당에 다닌다. 남원읍 위미2리 동카름 돈지서낭당에서도 돈지할망이 좌정하고 있다. 위미2리 어부와 해녀를 수호한다고 인식된다. 제일은 위미1리 돈지할망당과 같다. 남원읍 하례1리 망장포 돈지할망당에도 돈지할망이 좌정하고 있다. 제일은 매달 초하룻날이다. 이 당 역시 돈지할망이 혼자 좌정하며, 망장포의 어부와 해녀를 보살피는 신격으로 인식된다.

참고문헌 **남제주군의 문화유적**(제주대학교박물관 남제주군, 1996), **무속신화와 문헌신화**(현용준, 집문당, 199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2**(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주도 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문무병, 민속원, 2008).

필자 **허용호(許龍鎬)**

돈짓당신

표제어 돈지할망(232쪽)

돌탑[石塔]

정의 마을 어귀에 잡석(雜石)을 올려 쌓아 만든 정교한 원뿔대형의 탑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액(厄)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고 여기는 마을의 신앙 대상물.

내용 돌탑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내륙의 산간지역에 주로 분포하지만 제주도에서도 발견된다.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 '1차 산맥'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산과 강의 흐름을 따라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특히 충청도의 금강 상류 지역인 금산 · 영동 · 옥천 · 보은 · 대전과 전북의 무주 · 진안 · 장수가 중심을 이룬다. 이밖에 남쪽으로는 남원 · 순창 · 임실 · 담양 · 곡성 · 순천 등지에 산견되며, 경상남도의 거창 · 고성 · 산청 · 의령 · 함양 등지에서도 산견된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횡성, 동해시에 나타나지만 그 수가 적다. 이처럼 돌탑이 산악이나 돌이 많은 특정한 지역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은 지리적인 이점이 신앙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흔히 탑 · 돌탑이라고 부르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서는 조산(造山), 조산탑 또는 조탑(造塔)이라고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방사용탑', '거욱', '가마귀동산'이라고 한다. 이밖에 충북에서는 '수살막이', 전북에서는 '도탐', 경상도에서는 '밥무덤'이라고 각각 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돌탑은 마을로 들어오는 액이나 질병, 살(煞), 호환(虎患), 화기(火氣) 등을 막기 위해 쌓은 신앙 대상물이다. 하지만 마을 앞의 허한 방위를 막기 위해서나 특정한 모양의 지형을 보완하기 위해 쌓은 단순 비보물(裨補物)이기도 하다. 다른 신앙 대상물에 비해 풍수적인 비보(裨補)신앙의 모습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고갯마루나 사찰 입구에 지나가는 길손이 마구잡이로 던져 놓은 잡석의 서낭당이나 개인이 신을 향한 구도의 마음으로 쌓은 돌탑과는 구별된다. 주민들의 소망과 정성이 모아진 비교적 정교한 마을 신앙 대상물이기 때문이다.

돌탑은 돌이 지닌 영구불변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종교 원리를 이용한 신앙 대상물이다. 돌이 지닌 주술성을 토대로 주민들이 하나씩 정성껏 쌓아 올린다.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주민공동체의 발원 속에서 만들어진 원초적 신앙의 산물이다. 돌탑은 원뿔형, 원추형, 원통형, 반원형 등으로 정성스레 쌓는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돌탑은 주민들의 정성으로 정교하게 탄생한다. 이 가운데 원뿔대형이 가장 많다.

돌탑은 기단부, 몸체, 머릿돌, 탑 안의 내장물의 네 개 구조로 되어 있다. 탑의 몸체에 감실을 만들기도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이는 탑이 불탑(佛塔)과 같다는 관념에서이다. 탑의 머릿돌로는 뾰족하거나 둥글게 생긴 돌을 각각 얹는다. 할아버지탑에는 뾰족한 남성형 돌, 할머니탑에는 둥근 여성형 돌을 얹는다. 탑을 의인화할 때 탑윗돌이 그 표식이 된다. 사람에게 머리가 있듯이 머릿돌은 마을의 수호신인 탑할머니, 탑할아버지의 머리가 된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 머릿돌에 흰종이나 고깔을 씌운다. 이를 '옷 입힌다'고 하며 탑을 의인화하는 작업이다. 탑윗돌은 액운의 증표가 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탑 위에 사람 형상의 돌이나 까마귀 또는 그저 '지키는 거'로 불리는 새를 얹는다. 이것은 사람이나 까마귀나 벽사(辟邪) 성격이 강해 '보초서는 것', '지키는 것'이고 불린다.

탑 안에는 주민의 소망에 따라 복을 끌어들이는 쇠스랑, 풍농을 기원하는 오곡(五穀), 액을 막는 부적, 수마(水魔)를 막는 숯이나 소금단지, 돼지 · 무쇠솥 · 볏 등 풍수상의 허점을 막기 위한 주구(呪具), 탑을 만든 날짜와 탑을 쌓은 사람의 명단 등이 들어간다.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주구들은 마을 사람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마을에 산제당이 별도로 있는 경우 돌탑은 하당신으로 마을 어귀에 모셔지지만 산제당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돌탑이 산제당이 되기도 한다. 마을 어귀에 있는 돌탑에 제사를 지낼 때 이를 흔히 '거리제' 또는 '탑제', '돌탑제', '조탑제'라고 일컫는다. 지역에 따라 음력 정월 초순이나 보름, 시월에 주민들이 합심하여 제사를 지낸다.

탑은 다른 신앙 대상물과 함께 모셔지기도 한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신목(神木)이나 마을숲이다. 그 이외에 장승이나 솟대, 선돌 등과 함께 모셔지기도 하지만 드문 일이다. 다른 신앙 대상물보다 특히 풍수(風水)와 관련하여 봉안되는 사례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돌탑은 보통 마을 어귀에 한 개나 두 개를 세운다. '할머니탑', '할아버지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러한 명칭은 탑이 지닌 성격을 잘 드러낸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든든한 울타리인 것처럼 마을 어귀의 탑할머니, 탑할아버지 내외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이 된다. 탑제를 지낼 때에는 탑에 금줄을 두르고 머릿돌에 종이를 씌우며 이를 통해 돌탑은 의인화(擬人化)된다. 이로써 곧 일 년 동안 마을을 보호할 할아버지신령, 할머니신령이 된다.

지역사례 돌탑은 마을 어귀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살(殺) 또는 액을 막기 위해 쌓은 신앙 대상물이다. 지역적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사례가 대동소이하다. 액은 불가시적(不可視的)인 것으로서 막연한 살(煞)이나 액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의 질병이나 화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의 탑에는 두꺼비 모양의 탑윗돌이 올려 있다. 이는 마을 앞으로 난 다리가 풍수상 '지네혈'이어서 마을로 뻗어오는 지네의 독(毒)을 막기 위해 그 천적인 두꺼비의 형상을 탑윗돌로 사용한 것이다. 마을로 들어오는 직접적인 액을 막는 증표인 셈이다.

남일면 황풍리 사미실과 추부면 용지리 장바위, 진산면 엄정리 하엄정의 탑은 화재를 막기 위해 쌓았다. 하엄정은 남쪽과 북쪽으로 길게 형성된 골짜기를 따라 시냇물 양쪽에 마을이 있다. 마을 북쪽에는 나무가 무성해 '숲거리'라고 부르는 허한 북쪽 방위를 막기 위해 조성된 비보숲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나무를 모두 베어간 뒤로 마을에 불이 자주 일어나고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북쪽에 위치한 매봉산이 풍수적으로 화산(火山)이어서 그 화기(火氣)가 마을에 미쳐 수시로 화마(火魔)가 마을을 덮쳤다. 이를 막기 위해 북쪽에 탑을 쌓고 탑제를 지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원범왕마을에서는 음력 삼월 삼짇날에 마을 앞산인 갈미봉에 소금단지를 묻고 조산을 보수한다. 어느 날 마을 뒤 칠불사로 오가던 노승이 마을 앞의 갈미봉이 '불 화(火)' 자의 형국이어서 마을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니 마을 앞에 조산을 쌓고 갈미봉에 소금단지를 묻으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비법을 일러 주었다. 노승의 말대로 조치한 뒤 화재가 예방되어 지금껏 행하고 있다고 한다.

탑은 여느 신앙 대상물과 달리 풍수상 허(虛)한 방위를 막거나 끊어진 산의 지맥을 연결하기 위해 쌓기도 한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 한뫼마을은 마을 앞이 훤하게 뚫렸다. 까닭없이 젊은이가 죽거나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다. 동네를 지나가던 지관이 "동구(洞口)가 허해서 그런 것이니 숲을 가꾸고 탑을 쌓으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촌로들이 탑을 쌓고 탑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경남 거창군 웅양면 동호마을 앞에는 조산 2기가 있다. 마을의 진산인 양각산의 정기가 마을로 이어지는 중간에 예전의 홍수로 계곡이 생겨남으로써 지맥이 끊겼다. 이 지맥을 연결시키기 위해 끊어진 산의 정기를 잇는 도구로 조산을 만들었다.

간혹 풍수적 특징과 관련하여 마을에 돌탑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돌탑은 무겁기 때문에 행주형(行舟形) 지세의 마을에서는 모시지 않는다. 돌이 무거워 배가 가라앉기 때문이다.

돌탑에 특별한 물건을 매장하는 것은 마을별로 다르다. 돌탑의 내장물은 돌탑의 신앙적 욕구를 더욱 증대시킨다.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정동이에서는 마을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臥牛形]이어서 소가 좋아하는 콩을 넣었다.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다복골에서는 재물을 많이 긁어 달라는 바람에서 쇠스랑을, 추부면 용지리에서는 화재를 막기 위해 숯을 각각 넣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에서는 액운을 삶아 없애라는 의미에서 무쇠솥을, 제주시 이호2동 골왓마을에서는 무엇이나 잘 먹어서 잡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 하여 돼지를 각각 넣었다. 청동쇠의 강한 기운으로 액기를 꺾는다는 의미로 우금(청동으로 만든 밥자)을 묻는 곳도 있다. 이처럼 탑의 내장물은 주민의 소망이 응축된 주물(呪物)이다.

이 밖에 돌탑에 음식을 넣기도 하고, 음식을 넣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기도 한다. 경남 거창군 내계마을에는 '작은 산제당'이라 불리는 할매조산과 할배조산이 있다.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산제당에서 제사를 마치면 작은 산제당인 조산의 탑윗돌을 열고 그 아래에 밥을 넣는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마을과 내산마을, 남해읍 동정마을 외금마을 등 바닷가 마을에서는 조산 옆에 산제나 조산제를 마친 뒤에 밥이나 고기를 넣는 밥무덤을 두기도 한다.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액과 잡병을 막고자 조산과 밥무덤을 함께 둔 것이다.

이처럼 어느 지역의 돌탑은 액막이 기능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이 가장 강한 곳은 제주도이다. 사방이 트인 바닷가 마을이나 중산간 마을에서 바다를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다. 방사용 탑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악한 것을 막는 대표적인 신앙 대상물이 탑이다. 제주도의 탑은 탑 위에 세운 새와 관련지어 '거욱[까마귀]', '가마귀동산', '소로기[매]', '소로깃동산'이라고 부른다. 또 탑 위의 석상과 관련하여서는 '영등하르방'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주민들은 종교적 기능이 액막이이기 때문에 흔히 '방사용(防邪用) 탑'이라고 부른다. 방사의 대상은 헛불, 날불, 사(邪), 살(煞), 광(光), 액(厄), 허(虛), 지형(地形), 모래(沙) 구릉의 피해, 바다로부터 떠밀려 온 시신 등으로 다양하다. 마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상들이다.

방사용 탑은 방사를 위한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우선 탑을 마을에서 가장 나쁘다거나 약한 곳에 세운다. 비보를 위함이다. 돌탑의 첫돌은 액운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놓도록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첫돌에 손을 함께 얹고 첫돌을 쌓는다. 액운을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이다. 탑 위에 세운 조형물인 사람이나 새도 액을 막는 도구로 인식한다. 사람이나 새의 머리 방향을 액이 들어온다는 바다나 들, 오름으로 향하도록 세운다. 오름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간혹 오름으로부터 날불(원인 모를 불)이나 헛불(들이나 산에서 생겨서 날아온 불)이 날아와 화재가 발생하고, 오름에서 사기(邪氣)가 비춰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와 달리 사면이 바다로 열려 있어 늘 그 위험을 막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 그 부담을 방사용 탑에 담았다. 탑에는 삶을 위협하는 바다를 향한 주민들의 저항이 응집되어 있다. 제주시 이호2동 골왓마을은 4 · 3사건으로 피해가 컸다. 이 사건이 종료된 뒤 마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탑을 보수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돌탑은 마을로 들어오는 온갖 액을 막아 마을을 화평한 세계로 이끌고, 마을의 지형지세의 부족한 부분까지 돌의 원초적이고 강한 힘으로 비보(裨

補)하는 수호신이다.

참고문헌 **강원도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경남의 막돌탑과 선돌**(김봉우, 집문당, 2000), **금산의 민속**(김효경, 충청학과 충청문화 3, 2001), **금산의 탑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1998), **마을신앙으로 본 우리문화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1994), **장수지역당산제의 특징–누석형조탑제를 중심으로**(김형주, 전라문화연구 3,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88), **진안의 마을신앙**(이상훈, 진안문화원, 1998), **충남 금산의 탑신앙 연구**(이필영, 백제연구 19,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88), **제주도의 방사용 탑**(강창언, 제주도사연구 4, 제주도사연구회, 1995).

필자 **김효경(金孝慶)**

돌하르방

정의 돌하르방은 조선시대 관청인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성문 밖에 세워두었던 석상. 1971년 8월 25일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돌하르방은 현재 제주시에 21기가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과 대정읍에 각 12기씩 24기가 있었다가 이 가운데 2기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 있으며, 1기는 소실됐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나뉘었다. 세 곳의 소재지에는 성(城)이 있었으며, 성문 밖에 돌하르방을 세워 놓았다. 돌하르방이 세워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탐라지』에 따르면 1754년(영조 30)에 제주목사 김영규가 만들어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돌하르방은 후대에 아이들이 석상의 형상을 보고 붙인 이름이다. 문헌에는 옹중석(翁仲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우석목이라 불렀다. 우석목은 '우석(偶石)+목(木)'의 합성어이며 석상의 형태를 칭하는 '偶石'과 기능을 뜻하는 '木'의 복합어이다. 여기서 '木'이란 단어는 제주도의 집 입구에 세워 두는 정주목의 '목'과 쓰임새가 같다. 정주목은 집 출입구에 대문 대신 세우는 좌우 구멍이 세 개 뚫린 기둥을 말한다. 기둥으로는 흔히 목재와 석재가 쓰인다. 여기에 정낭을 끼워 우마나 외인의 침입을 막았다. 원래 나무로 쉽게 세우다가 비가 많은 제주도 특성상 썩고 부러져 돌로 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칭은 재료와 관계없이 존속되었다.

제주 민간에서 집에 정주목을 세운 뒤 정낭을 끼워 외부로 부터의 침입을 막았듯이 성문 밖에 우석목을 세워 외부의 침입을 막았다. 실제적으로 마주 선 우석목의 기단부를 보면 홈이 파여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의 기단부를 보면 지상에서 무릎정도 높이에 한 쪽은 기역(ㄱ) 자로 파여 있고 한 쪽은 구멍이 나 있다. 이곳에는 정주목과 같이 나무를 꽂았을 것이다. 실제적인 외부 침입 방지보다는 통금을 상징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외부의 사악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돌하르방의 옛 명칭에 '목'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정주목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돌하르방은 성문 밖의 수호신 기능을 한다. 여기서 돌하르방을 세운 주체가 제주목사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지부의 장승과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경계수호신으로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장승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제작되어 마을 어귀에 세워지지만 돌하르방은 관청 소재지의 성문에 관 주도로 돌을 깎아 세웠다. 장승 세우기는 마을 주민이 주도하고 돌하르방은 관에서 주도한 것이다. 유교 이념을 국시로 삼은 조선의 지방관청이 없애야 할 대상인 무속 신앙물을 성문에다 세웠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삼성혈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삼성신화는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건국신화이다. 이 신화의 구조는 제주 무속에서 불리던 지상용출(地上湧出)신화와 같다. 당시 제주도 위정자들은 이런 무속신화를 왜 성역화 했는지 생각할 수 있다. 제주도는 조선의 가장 변방이자 가장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곳이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며 살고 있었고, 그 문화에는 무속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제주도민들은 교화의 대상이었다. 제주도에는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당 오백, 절 오백에 불을 질렀다"는 이형상 목사의 얘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민들을 중앙집권의 제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는 신앙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무속신화를 건국신화화하였으며, 삼성사를 만들어 무속의례를 유교의례화했다. 우석목 또한 문을 지키는 정주목신을 받아들여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만든 것이다. 우석목은 위정자들이 제주민의 무속신앙을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현용준, 집문당, 2002).

필자 **강권용(康權用)**

돌하르방
서울 종로구 삼청동길35
국립민속박물관, 강권용

동답(洞畓)

정의 마을 공동 소유의 농경지.

내용 전답, 위토, 도지, 산제답, 성황답 등 마을마다 모시는 당신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가 다르다. 동답은 산제, 고목제, 샘제, 유황제 등 마을공동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유하는 마을공동답이다. 많은 곳은 26,400㎡까지도 있다. 동답의 소출로 시루떡, 돼지머리, 김, 명태, 밤, 대추, 사과 등을 마련하는 데 드는 제비와 무당 축원비, 제관 수고비 등의 경비를 충당한다.

참고문헌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금산의 탑 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이인화, 민속원, 2006),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부여지역의 민속신앙**(이필영, 역사민속학 6, 역사민속학회, 1997), **정선지역 동제의 특징**(권혁준,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조선땅 마을지킴이**(주강현 · 장정룡, 열화당, 1993), **춘천의 동제연구**(김의숙,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1), **태백시의 동제와 성신앙**(김기설,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필자 **이인화(李仁和)**

동맹(東盟)

정의 고구려에서 매년 10월에 거행한 제천의례.

내용 동맹은 동명(東明)이라고도 한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따르면 동맹은 고구려의 지배층이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은으로 장식하여 모두 참가하는 국중대회(國中大會), 즉 국가 행사였다. 그러나 최대한 성장(盛裝)을 한다고 해도 관모 등에서 참가자의 신분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10월에는 수신제(隧神祭)도 함께 거행되었다. 수신제는 평소 국도의 동쪽 큰 동굴[國東大穴] 안에 모셔 둔 수신의 신체(神體)를 이때 압록강으로 모시고 나와 제사하는 행사이다.

동맹은 동방의 맹회(盟會), 즉 고구려를 구성하는 5부의 맹회라는 해석도 있지만 동명이라고도 하는 점으로 미루어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주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수신제의 수신은 동명왕의 어머니 유화로 추측된다. 수신을 동굴에서 밖으로 모시고 나오는 행위는 유화가 햇빛을 받아 주몽을 잉태하는 신화를 재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동명왕이 하늘의 자손임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맹은 하늘을 제사함과 동시에 시조 동명왕이 바로 하늘의 자손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전하는 고구려 사회는 부족적 질서를 극복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제가 성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의례가 고구려의 모든 지배층이 참가하는 국중대회로 치러졌다면 동맹은 동명왕에서 기원하는 고구려 왕권의 신성성을 건국신화의 재연을 통해 전 고구려 구성원에게 재확인시키고, 이를 통해 왕권을 정당화하는 의례였다고 할 수 있다.

동맹은 고구려가 국내성(國內城)에 도읍하고 있던 시기의 국가의례였다. 그래서 고구려의 국내성이었던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의 동쪽에 해당하는 태왕향(太王鄕) 상해방촌(上解放村) 홍동자구리(汞東子溝里) 산 속에는 국동대혈로 추정되는 유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고 난 이후에도 동맹이 계속 거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三國志, 고구려 동맹의 정치의례적 성격과 기능**(이정빈, 한국고대사연구 41, 서경문화사, 2006), **고구려의 국가제사**(서영대, 한국사연구 120, 한국사연구회, 2003), **朱蒙神話と高句麗王の祭政**(三品彰英,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1973).

필자 서영대(徐永大)

동사(洞舍)

정의 마을회의나 행사 · 휴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을 공동의 공간으로 동제를 앞둔 제관들이 근신을 위해 합숙 하거나 제의를 준비하기도 하는 장소.

내용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일은 주민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일이다. 공동 관심사는 마을을 위한 회의나 휴식, 공동체 제의의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이 동사(洞舍)이다. 즉 동사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현대적 의미로는 마을회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하회동의 동사는 192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별신굿과 관계가 있다. 별신굿을 하기 전 음력 섣달 보름날에 치성을 드릴 때 신의(神意)로 결정되는 동제의 주제자(主祭者)인 산주(山主, 堂山主를 말함)는 신의를 물어서 신탁(神託)에 의해 별신굿의 거행을 결정하고 이를 동네의 간부와 양반층에 통고하면, 그들의 양해 아래 섣달 말에 별신굿 준비를 시작한다. 산주는 부정이 없는 목수를 골라 인근 산에서 당대(서낭대)를 만들게 하고, 동민 전원에게 육식 등 부정식(不淨食)을 금하며, 새로 사 온 제기(祭器)로 일체의 제수를 마련한다. 이 사이에 산주와 산주에게 지명받은 광대(廣大, 지명 받으면 거절할 수 없음)들은 12월 그믐날부터 동사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고, 잡인 접근을 금한다. 그리고 동사에서 합숙하며, 근신재계 생활을 한다. 이들은 제일 당일인 정월대보름 파제일(罷祭日)까지 귀가하지 못한다.

정월 초이튿날 아침에 서낭당에서 당대와 '성줏대'를 앞세우고 산주와 가면을 쓴 15명의 광대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 당대의 당방울[神鈴]이 울리면서 강신(降神)하면 당대와 성줏대를 받든 일행이 상당과 하당을 거쳐 마을 중앙에 위치한 삼신당으로 내려온다. 삼신당에 참례를 올린 일행은 이전의 동사[舊洞舍, 고려시대 절터였다고 함] 앞 논바닥에서 별신놀이를 시작한다. 12과장의 별신놀이가 끝나면 당대와 성줏대를 앞세우고 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서낭신 방문 절차가 끝나면 다시 동사 앞 논터에서 별신놀이를 계속한다. 파제일인 정월대보름날에는 산주와 광대, 허드레꾼, 동내 유지들이 상당으로 가서 당제(堂祭)를 올린다. 당제를 마친 다음 당방울은 풀어서 가면과 함께 산주가 동사에 봉안하고, 신간(神竿)은 상당의 추녀 밑에 달아 둔다. 모든 사람이 동사에서 음복하면서 종일 취하여 놀았다. 이렇게 하회동의 동사는 제관의 합숙소이면서 가면과 당방울을 보관하는 신성의 보관소이고, 별신놀이의 중심 장소임을 알 수 있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1리의 동사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기에 만들진 마을회관이다. 즉 동사는 평소에 주민들의 휴식처이면서 회의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여름철 피서객들에게도 개방하여 동사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고사를 준비하고 행제하는 기간에는 입구에 금줄을 치고 제관과 존위집단의 성원만 출입할 수 있는 일종의 신성 공간이 된다.

이 마을에는 정월대보름날에 지내는 정월고사와 7월 백중일을 전후해 햅쌀이 생산될 때를 택일하여 행하는 신미고사, 중구일에 행하는 중구고사 등 세 종류의 당고사가 있다. 제당은 김씨골맥이당, 박씨골맥이당, 이씨골맥이당 세 곳이다. 이들 제의의 준비는 모두 동사에서 이루어진다. 제관은 마을 자치조직인 '노계(老契)'에서 선정한다. 존위(尊位), 동수(洞首), 유사(有司) 각 한 명이다. 이들은 동사에서 회의를 거쳐 선정된다. 제관들은 당고사 기간에 동사에서 합숙하면서 금기를 지켜야 한다. 세 차례의 제의에서 마지막 절차는 동사에서의 성주고사이다. 즉 세 성씨 골맥이당에서 각각 행하던 제의가 동사로 결집되어서 이들 제의가 사회통합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구암리의 동사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 제의적 중심 공간인 셈이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의 동사는 1980년대에 마을 공유재산이던 토지를 매각해 그 수입으로 지은 것이다. 서낭제를 행하는 기간에는 이 동사가 서낭제의 준비작업과 음복을 행하는 공간이며, 마친 뒤에는 서낭대를 보관하는 장소가 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주민의 회의장소, 공동행사,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마을 공간분담과 당고사**(이기태, 지역문화사의 민속학적 인식, 민속원, 2004), **산간신앙 2**(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씨족부락의 구조연구**(김택규, 일조각, 1979).

필자 이기태(李淇泰)

동제계(洞祭契)

정의 동제의 준비와 봉행, 동제를 위한 기금이나 전답의 관리 등 동제의 전승을 목적으로 조직된 계(契).

내용 계는 계원의 상호부조 · 친목 · 통합 · 공동이익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규약을 만들고, 이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다. 여기에는 목적과 형태,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동제계(洞祭契)는 좁은 의미에서 동제의 전승만을 위해 조직된 경우로 규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마을의 동계(洞契)나 송계(松契), 어촌계(漁村契) 등에서 동제계를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제계의 명칭은 사례에 따라 당산계(堂山契), 산사계(山祀契), 산제계(山祭契), 서낭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해당 전승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사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백운마을 당산제의 동계는 당산계로 불린다. 이 마을에서는 당산계를 통해 주민들이 한 해 동안 모은 경비를 동제의 봉행에 사용한다. 당산계의 결산은 당산제를 마친 날 아침에 소임을 맡은 사람의 집에서 간단히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이듬해 소임을 맡을 사람을 미리 선출하기도 한다.

동제계는 동제의 전승 상태에 따라 중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의 산사계는 산신제와 탑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옥화리의 산사계가 구성된 것은 1859년이며, 1882년 음력 11월 24일에 중수되었다. 산사계의 중수는 춘추로 제사를 받들고 그 뜻을 후대에 계승하는 것과 마을에서 가구당 약간의 돈을 갹출하여 산제답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족들의 향권(鄕權)이 약화되어 향권의 유지가 어려웠고, 수재로 인해 19세기 중엽 호서지방 일대가 피폐되는 등 19세기 사회 · 경제적 요인에 의해 매년 향사하던 산신제와 탑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송계나 어촌계가 동제계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남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에서도 해마다 정월에 치제되는 동제의 비용을 송계에서 지출하였다.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에서는 송계의 산림을 적극 활용하여 창출된 기금의 식리를 통해 음력 정월 열나흗날 동제를 송계에서 주관하며, 평소 산제당의 관리와 개 · 보수, 지붕의 개초(蓋草) 작업 또한 송계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상마을 동제는 어촌계가 동제계 역할을 한다. 주전동은 주전해변을 따라 형성된 일곱 개의 작은 마을들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300여 가구이다. 이 마을은 151명의 어촌계원이 마을공동 양식어장을 관리하면서 연간 25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어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내에

서 여론을 형성하는 대화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마을의 동제는 1989년부터 어촌계장이 제관이 되고 어촌계의 자금으로 동제 비용을 충당한다. 동제의 결산은 동제가 끝나는 날인 대보름날 마을회의를 열어 마친다. 이 사례는 지역의 생업과 관련된 주도적 세력이 동제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동제계는 운영 여건이 변하게 되면서 마을 내 다른 계와 통합되거나 분리됨으로써 동제계의 조직이 마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강송리 동제에서는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당주 한 명과 유사 두 명이 중심이 되어 서낭계를 운영하였다. 당시 유사는 가사리와 산두들에서 한 명씩 선출되었으며, 계의 문서를 관리하였다. 동회에서 계갈이를 하며, 이 자리에서 그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하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아 결산한다. 그리고 제당의 보수를 의논하고 새 유사를 선출한다. 현재는 유사 없이 당주가 서낭계의 재산과 문서를 관리하고 밭 100평을 경작한다.

이 마을의 계는 1985년에 재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낭계, 상여계, 배계를 통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985년 새 다리가 생기면서 배계는 사라지고, 1992년에 서낭계와 상여계가 분리되었다. 흉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깨끗한 서낭님을 모실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서낭계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서낭계와 상여계가 다시 통합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마을의 여건에 따라 동제계와 마을 내 다른 계의 운영이 서로 융통성을 보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시화나 문화 변동 등으로 동제계의 운영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사회조직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문중이나 경로당, 향우회, 부녀회, 지역문화원 등 다양한 조직과 기관 등이 동제계의 역할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18~19세기 서남해 다도해안지역 송계의 조직과 기능**(김경옥, 역사학연구 26, 호남사학회, 2006), **계룡산 국사봉 주변마을의 송계(松契)관행-19세기 후반~20세기 향한리 송계를 중심으로**(강성복, 민속학연구 24, 국립민속박물관), **박대천과 함께 한 400년 청원 계원마을**(청원향토문화연구회, 청원문화원, 2006), **청원 옥화리 산사계의 성격와 산신제 · 탑제**(강성복, 민속학연구 11,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한국의 마을신앙 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오문선**(吳文仙)

동제홀기(洞祭笏記)

정의 동제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방법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식순.

유래 홀기는 의례 진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집사자나 헌관 등 참례자의 행동과 행위를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식순의 하나이다. 홀기는 원래 신하가 임금에게 보고 · 건의할 사항이나 임금의 말씀을 홀(笏)의 뒤쪽에 간단히 적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홀이란 문관이 관복을 입을 때 손에 지니는 작은 관이었으나 후에는 의례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신분에 따라 규격과 재질이 정해져서 중국에서는 옥 · 상아 · 서각(犀角) 등으로 만들었다.

유교식 제사를 비롯한 의례를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 홀의 뒷면에 일목요연하게 절차를 적은 문서 형식으로 발달한 것이 요즘의 홀기이다. 홀기는 크게는 국가의 조참(朝參)과 상참에서부터 종묘 · 사직 · 배릉(拜陵) 등의 의례에 사용되었고, 작게는 시학(視學) · 입학(入學) · 석전(釋奠) · 전시(殿試) · 방방(放榜)과 양로연(養老宴) 등에 이용되었다. 민간에서는 서원의 유회, 향회(鄕會)를 비롯해 향음주례(鄕飮酒禮) · 강학례(講學禮) 등에도 사용되고, 혼례 · 관례 · 제례 등 유교식 의례에도 이용되었다. 홀기는 절차를 미리 의정해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절차의 오류를 막고 시비의 근원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고청제 홀기 강원 동해시 송정동, 2010.6.12, 이영식

역사 중국에서는 이미 주대(周代)부터 홀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도 홀이 오래전에 도입되었다. 조선이 창건되어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하면서 홀에 대한 제도도 확정되었다. 조선시대에 제정된 홀은 한 자 정도의 길이에 두 치 정도의 너비로 얇은 것이며, 1품에서 4품까지는 상아로 만들고 5품 이하는 나무로 만들어 쓰게 하였다. 그 홀 뒤에 왕의 교명이나 자신의 계사를 적은 것이 홀기이다. 이것이 어떻게 홀기로 발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지 유교식 의례가 정형화되고 의례 절차를 기록하면서 홀기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 홀기의 초기 형태는 특별한 형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홀의 뒤에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의례의 진행을 위해 만든 홀기는 두루마리 형태, 판 형태, 병풍 형태 등이 있다. 이는 들고 읽기 편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홀기는 문장형이 아니라 개조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붉은색 인주로 구결을 찍어 구분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병영에서 절차를 누락하지 않고 원활하게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훈련 현장에서 즉시 참조가 가능한 현장용 교범 요약집을 만들기도 하였다. 군대용 홀기 중에는 수군의 해상훈련 절차를 적은 수조홀기(水操笏記)가 있다. 이러한 홀기는 해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장 수조홀기를 비롯해 10여 종이 전한다. 이 수조홀기는 접으면 폭이 11.7㎝에 불과해 손바닥에 쥘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은 홀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내용 홀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식순이다. 주로 한문으로 기록되지만 요즘에는 이를 한글로 풀어 쓰는 경우도 많다. 전통적으로 홀기는 다양한 의례에서 사용되었다. 혼례(婚禮)홀기는 신랑신부의 등장과 절을 하는 방법, 술잔을 교환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례(祭禮)홀기 역시 상차림의 순서, 신주를 모시는 방법과 절차, 헌관이 헌작을 하고, 음복을 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한편 병영에서 사용된 훈련홀기는 훈련 절차를 설명한 군점홀기, 야간훈련 절차를 기록한 야조식, 야간에 주요 함정의 표시등을 다는 방식을 설명한 현등식, 주요 전투진형을 설명한 성진도식, 대장이 영(營)에 나가는 절차를 담은 상영일 절차 등이 있다.

이 외에 상량홀기, 입주홀기, 기원제홀기, 고유제홀기 등 의례의 성격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홀기는 의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쓰인다. 의례에서 홀기를 사용하는 경우 창홀(唱笏)이 홀기를 낭독하면 집사자와 헌관은 이에 따라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홀기가 절차를 조절하고 참례자의 행위를 선도한다. 따라서 홀기는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고 집사자와 헌관이 실수 없이 임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역사례 홀기를 사용하는 마을제의 사례는 주로 유교식으로 마을제를 지내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순천 구산의 용신제, 제주도의 포제, 경남 양산의 용신제, 강릉단오제의 제례, 경산자인단오제의 진충묘제사, 소금강 청학제의 동제 등에서는 반드시 홀기를 부르며 마을제를 올린다.

의의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마을제에 홀기가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을제사가 정형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을제를 습관에 따라 지내거나, 매년 조금씩 다른 절차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홀기에 따라 지낸다는 것은 마을제가 하나의 전통으로 정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홀기는 의례를 정형화 하고 전통성을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릉단오제**(장정룡, 집문당, 2003),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내고장 전통**(양산군, 1983), **동해시의 서낭제**(한길, 동해문화원, 2009), **문화재도록-도지정문화재**(전라남도, 1998), **순천시의 문화유적 2**(순천대학교박물관 · 순천시, 2000), **양산력사문화관광선집**(양산문화원, 2001), **양산시지 상**(양산시지편찬위원회, 2004),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제주도부락제당**(현용준, 부락제당, 문화재관리국, 1969),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의 유식부락제**(현용준, 석주선선생 회갑논총, 석주선선생 회갑논총간행위원회, 1971), **제주도 포제의 역사민속학적 고찰**(이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국**

의 마을신앙 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세시풍속 현장조사 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8).

필자 김시덕(金時德)

동티

표제어 지벌(856쪽)

동해대진동도신제 · 재고사

정의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에서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행하는 서낭제의 일종. 이 제의는 일반적으로 '서낭제'라고 부르지만 마을에서는 특별히 '도신'이라고도 이르며, 신에게 기도한다는 뜻이다. 도신은 오늘날에도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도신이 제의를 주관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역사 대진은 옛날부터 큰 나루가 있다고 하여 대진(大津)이라 했다. 1910년대 초반의 자료인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한글로 '한진'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한진(韓津, 寒津)이란 지명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성씨는 황씨 또는 김씨라고 하며, 황씨가 들어온 지는 적어도 350년이 된다고 한다. 굿을 할 때 황, 김, 채 3성씨를 초들어야 신대에 신이 내렸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이 3성씨가 마을과 관련이 있고, 서낭제 역시 이들이 마을에 들어온 시점부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1. 제의 일시** 연 1회 정월대보름 0시이다. 그리고 3월 초정에 재고사를 올린다.

2. 당집과 당목 제당으로는 서낭당과 해성당이 있다. 서낭당은 250여 년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와로 지붕을 했는데 나무가 썩으면서 자꾸 주저앉는 바람에 수리가 필요하였지만 서낭당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4년 당시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개축하였다. 당집의 크기는 가로 약 512㎝, 세로 약 335㎝, 높이 약 255㎝이다. 제당 근처에 있는 해송을 비롯한 여러 나무는 서낭나무라 하여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제당은 정월 12~13일에 깨끗한 사람들이 가서 청소를 한다.

해성당은 해성황당을 이 지역에서 일컫는 말이다. 해성당은 선창가 바위더미에 100여 년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당집은 없고, 원래 자연석을 이용하여 제단으로 삼고 블록으로 담만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또한 30여 년 전에 그 앞으로 도로가 나는 바람에 이곳이 제당인지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

3. 신위 제향하는 신격은 4위이다. 서낭당에는 성황지신 · 토지지신 · 거리지신 등 3위, 해성당에는 바다 용왕을 각각 제향한다.

4. 축문 축문은 있지만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한자의 음만 한글로 적어 놓아 무슨 뜻인지는 알기 어렵다. 한글로 옮겨 쓴 축문은 20여 년 전 마을 주민 홍진용이 필사했다. 이 축문은 서낭당 제사에 사용하고 해성당 제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제관 제관은 헌관 세 명, 축관과 도가 각 한 명이다. 도가는 음식을 장만하고 서낭제를 주관하는 사람이며, 부정이 없고 생기가 맞는 주민 가운데에서 선택된다. 문헌에 따르면 부모상 등 상주, 출산 및 임신, 질병 등에 관계되는 사람은 물론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부정한 것으로 하고 있다. 서낭제를 지내는 곳에는 여자들이 일절 올 수 없다. 서낭제를 준비할 때는 소를 잡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돕는다. 격년으로 행하는 굿을 할 때에도 일이 많기 때문에 제관을 다섯 명 선정한다.

6. 제물 제물은 서낭당에 3상, 해성당에 1상 등 4상을 차린다. 매년 치르는 희생물은 소다. 한동안 소를 잡지 않고 시장에서 쇠고기를 사다가 썼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바다에 나간 사람이 생명을 잃는 등 부정이 발생하여 다시 소를 잡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제사 지내기 대엿새 전에 인근 마을인 망상동으로 가서 희생물로 적당한 황소(수컷)를 결정해 놓고 돌아온다. 그러면 소 주인은 제삿날 오후 3~4시쯤에 맞추어 마을까지 실어다 준다. 2004~2005년까지는 마을에서 직접 소를 잡았지만 이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 사망한 뒤로는 도살장의 기술자를 초빙하여 처리하고 있다. 소를 잡기 전에 소를 몰고 와서 서낭당에 도가가 술 한 잔 놓고 "작포합니다" 하고 세 번 소리를 크게 지른다. 조상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소를 잡는다. 소를 죽여 껍질을 벗기고 먼저 각을 뜨기 시작한다. 피와 내장으로는 탕을 만들어 제당에 올리고, 갈비는 추려서 신위당 세 대를 올리고, 사족(四足)도 올린다. 등뼈는 격년으로 굿할 때에만 추려서 서낭당에 올린다. 탕을 제외하고는 모두 날것이다. 쇠머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어물은 대구, 가자미, 우럭 등을 주둥이와 꼬리와 비늘을 치고 통째로 살짝 구워서 올린다. 이렇게 장만한 어물은 한 개의 좌판에 층층이 올려놓고 그 위를 문어로 덮어두는데, 모두 네 개의 좌판을 만든다. 백설기는 시루당 석 되 서 홉으로 총 네 시루를 장만하고, 메도 역시 네 그릇을 준비한다. 서낭제에 사용하는 제물 중 백설기와 메는 도가의 부인이 돕고 그 외의 제물은 모두 도가가 직접 장만한다. 과일은 삼실과(곶감, 대추, 밤)만 사용하여 보기 좋게 접시에 담아두며, 모두 네 접시를 장만한다. 채소는 무채, 포는 대구포이며 역시 각각 네 개를 장만한다. 두부전이나 과자 등은 올리지 않는다. 술은 청주를 사용한다. 소를 제외한 다른 제물은 도가가 제관 한 명을 대동하여 시장을 보아 장만한 것이다.

7. 제의 절차 금줄은 제일 사흘 전에 친다. 금줄은 물에 적신 짚으로 왼새끼를 꼬고 사이사이에 한지를 잘라 넣어 만들며, 도가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짚만 제관에게 나누어 주어 직접 꼬라고 한 적도 있다. 서낭당과 해성당에 먼저 금줄을 치며 도가 · 제관들 집에도 친다. 이때 금줄과 함께 황토도 갈아둔다. 제물은 유사가 제사 전날 시장에 나가서 사 온다. 날이 어두워지면 양초를 밝힌다. 0시가 되면 서낭제의를 시작하며, 보통 40여 분 진행된다. 이후 해성당으로 옮겨 가서 제의를 행하는데, 모두 끝나면 새벽 1시가 넘는다.

제관들은 제당에 들어가기 전에 짚불로 부정을 친다. 이것은 제당 주위를 짚불로 밝혀 돌아다닌 다음 제관들이 짚불을 타 넘어 제당으로 들어가는 행위이다. 제당에 제물을 진설한 다음 도가가 헌작 후 삼배를 한다. 뒤를 이어 다른 제관들은 합동으로 삼배를 한다. 이후 축관이 고축하고 모든 제관이 합동으로 삼배를 한다. 이후 도가가 동네를 대표하여 조상소지, 서낭신소지, 거리신소지, 토지신소지 순으로 올린 다음 도가소지, 제관소지, 동네기관장소지(통장, 어촌계장)를 올린다. 이후 제관 세 명이 7개 반을 나누어 각기 마을 어른들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퇴잔

해성당
강원 동해시 대진동
2009.3.20. 이한길

한다. 퇴잔은 제사 후 제사상의 음식을 조금씩 뜯어내 손 없는 방향에 묻어 두는 것을 말하며, 잡귀들이 먹고 가라는 뜻이다. 이후에 음복을 하고는 도가와 제관 한 명이 곧장 해성당으로 이동하여 해성지신을 모신다. 이들이 올 동안 나머지 제관들은 서낭당을 지킨다. 해성당의 제물은 서낭제과 동일하게 별도로 장만하여 제의를 행한다. 해성당 제사는 고축 없이 진행된다. 도가가 삼배를 먼저 하고 도가와 제관이 함께 삼배한다. 이후 도가가 해성지신소지를 올리는데, 다른 소지는 없다. 이후 제상의 음식을 조금씩 덜어내어 땅에 묻는 퇴잔을 하고 마친다.

한편, 해성당 제의를 마친 도가와 제관이 서낭당으로 돌아오면 모든 제관들이 제물을 분배하고 마을로 돌아간다. 제사에 사용한 제물은 제관들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마을의 전통이다. 그러나 쇠고기는 반별로 분배한다.

이렇게 행하는 서낭제는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으나 해성제는 공개하고 있다.

8. 영험담 ① 서낭당은 명당이라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하나 둘 제당 주변에 묘를 썼다. 그런데 묘를 쓴 집안에서 우환이 생기기 시작했다. 묘를 잘못 썼다 하고 이장(移葬)을 하였다. ② 제당 주변에 향나무가 있으며, 50여 년 전에 이 향나무를 베어간 이가 탈이 나 죽을 뻔했다. ③ 25년 전에 김씨가 죽은 개를 보고는 마을제사에서 소 잡는 것을 도와 준 적이 있다. 그때 제사에 사용하기도 전에 쇠고기를 먹었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④ 20여 년 전에도 소를 잡을 때 돕고 나서 쇠고기를 몰래 가져와 먹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제관, 제집사를 제외한 이들의 출입을 엄금한다.

9. 기타 제사에 사용하는 비용은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동해시쓰레기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어촌계에서 공동어장이 있어 전복양식 등을 하여 마련했다. 바다가 황폐화될 무렵에 동해시쓰레기매립장이 대진동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매립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동해시 수입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는 것을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매년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의 10%를 보상금으로 받는데, 약 1억 원이다. 그런데 보상금은 5월에 집행되고 서낭제는 정월에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정월에 일부 집행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요청하여 가불을 받아 서낭제를 치른다. 비용은 보통 1,000만 원(굿을 안 할 경우)에서 3,000만 원(굿을 할 경우) 정도 소요된다. 이 밖에 도가와 제관에게 주는 수고비도 있다. 굿을 할 경우에는 도가 60만 원, 제관 10만 원을 받는다. 굿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가 30만 원, 제관 5만 원이다. 이런 비용들을 정리해 놓은 장부는 통장이 보관하고 있다. 보통 제사를 마치고 날이 밝으면 '하기를 닦는다'고 하여 마을 총회를 연다.

10. 재고사 대진동은 도신제(서낭제와 해성제)가 끝나면 삼월에 재고사를 지낸다. 재고사는 부정이 발생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지내며, 삼월 중의 한 날을 별도로 받아 지냈다. 장소는 서낭당과 해성당에서 도신제처럼 진행한다. 모시는 대상신은 도신제와 동일하게 성황지신, 토지지신, 거리지신, 해성지신 등 4위이다. 도가 및 제관은 정월에 행했던 제관들과 동일하다. 소를 잡는 대신 쇠고기를 100근 정도 구입하여 사용하지만 나머지 제물은 정월 제물과 동일하다. 제의의 절차는 도신제와 동일하다. 재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대보름 제사 후 아무 탈 없이 신들이 잘 돌봐 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돌봐 달라는 뜻에서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동해시 대진동 대진마을 도신제**(이승철, 한국의 마을신앙상, 국립민속박물관, 2007), **동해시서낭제**(이한길, 민속원, 2010), **동해시 역사와 문화유적**(관동대학교박물관, 1996), **동해시의 어로문화**(장정룡 · 양언석, 동해시, 2000), **동해안 어촌 당신화연구**(이승철, 민속원, 2004).

필자 **이한길(李漢吉)**

동해동호동천제단 (東海東湖洞天祭壇)

상호참조 동해동호동천제단제(247쪽)

정의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주민들이 매년 정월초하룻날에 동제(洞祭)를 올리는 제단. 동해시 발한동 513-12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동해동호동천제단 강원 동해시 동호동, 2010.4.22, 김태수

정비 전

정비 후

형태 우리나라의 천제단은 산정이나 산기슭에 위치하며, 별도의 건물을 만들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동호동의 천제단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천제단이 있는 곳은 '제궁등(제궁)'이라는 높지 않은 산등성이이다. 주민들은 '제궁등'이란 지명을 '제를 올리는 언덕'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천제단 주변에 큰 산이 없어서 사방이 탁 트여 아래에 있는 마을은 물론 멀리 바닷가 마을인 안묵호와 향로동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천제를 올린 다음 횃불로 알리는 신호를 보고 나서 안묵호의 제관들이 서낭고사를 올렸다고 한다.

대개의 천제단은 천신(天神) 한 분만 모시는데 동호동은 천지신(天地神)을 중심으로 좌우에 토지신(土地神)과 여역신(癘疫神)을 함께 모시고 있다. 이에 따라 제단도 세 개이다. 원래는 자연석 제단이었으나 2000년에 대리석으로 교체하였다. 제단의 크기는 가로 127㎝, 세로 84㎝, 높이 15㎝이다. 제단마다 앞쪽에 '천지지신(天地之神)', '토지지신(土地之神)', '여역지신(癘疫之神)'이란 신위명을 음각으로 새겨 두었다.

천제단 아래쪽에 작은 제단을 별도로 만들어 핏국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7년 11월 제단 주변 정화사업을 펼치면서 모두 없애고 핏국제사를 천제단에서 지낸다.

제단 뒤로 천제단의 신목인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동호동 주민들은 웅녀소나무라고 부르며, 2007년 6월 22일에 강원도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경내에는 신목 외에도 잘생긴 소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다.

역사 동호동 주민들이 천제단에서 제사를 올리게 된 것이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다. 마을을 개척한 엄씨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순조(재위, 1800~1834) 때 동호천 상류의 황이미(황지미)에 터를 잡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에 의해 마을행사로 맥을 이어 오던 천제단 제사가 외부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07년부터이다. 그해 4월 동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천제단 제사에 주목하고 민속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로 인해 천제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웅녀제놀이의 발굴과 민속예술화였다. 천제단과 연관되는 웅녀제놀이를 발굴하여 동해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고, 마침내 동해시의 대표 민속놀이로 선정되어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강원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결속력이 한층 강화되고, 동해시의 지원을 받아 천제단 주변 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 11월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진 정화사업으로 인해 기물고 · 도살처 · 제단의 위치가 변경되고, 대지의 경계 지점에 울타리가 설치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내용 천제단의 부지는 약 396.7㎡이다. 경내에는 신목(神木), 제단, 기물고, 도살처가 있다. 제단과 기물고 사이에는 2010년 10월 웅녀의 영정을 모시는 사당이 지어진다. 신목은 수령이 300~400년 된 소나무이다. 주민들은 웅녀소나무로 부르고 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서 사는 한 촌로의 꿈에 웅녀(단군의 어머니)가 나타나 "내가 소나무로 환생하여 마을의 뒷산에 있으니 동호마을로 옮겨와 모셔 달라"고 하였다.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뒷산의 그 소나무를 마을의 언덕 위로 옮겨 심고 정성껏 보살폈다. 그때부터 신목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가짐이 남달랐고, 매년 이 소나무에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고 한다. 태백산에서 왔고, 제물을 수놈으로 바치며, 제단 주위를 쑥으로 정화하던 전통에 미루어 동호동천제단에 모셔지는 신격이 여신(女神) 가운데에서도 단군의 어머니인 웅녀(熊女)라고 말하기도 한다.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웅녀제(熊女祭) 물지게싸움놀이'도 이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이 신목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오랫동안 이 마을의 노인회장을 지낸 고 심상백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대 어른의 꿈 속에 어디 소나무를 신목으로 하면 좋다고 하여 옮겨 심었는데 그 소나무가 있던 자리는 심동로의 묘소가 있는 산이었다"고 한다. 고려 말기의 큰 학자이자 정치가로 말년에 낙향하여 후진 양성하다 삶을 마친 심동로의 묘소가 바로 천제단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 큰 학자의 혼이 서린 소나무여서 주민들도 신령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신목이 얼마나 영험한지 정초가 되면 인근의 무당들이 자주 찾아와 빌고 간다. 이 신목은 2009년 고사(枯死) 위기에 처해 전문가의 처방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살리지 못하였다. 천제단 곁에서 신목답게 장엄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죽은 상태이다. 주민들은 이 신목을 그대로 둘 것인지 잘라서 제기(祭器)를 만들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제단은 2000년에 새로 마련한 대리석 제단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07년 11월 정화작업으로 위치와 방향이 바뀌었다. 원래의 위치보다 동쪽으로 10m 정도 옮겼고, 방향도 서남쪽에서 서북쪽으로 변경되었다. 서남쪽으로 삼척의 근산과 태백산이 위치하여 천제문화권의 제사 유형을 이어오다가 그쪽으로 연립주택이 들어서면서 앞이 막히자 방향을 바꾸었다.

과거 제단 옆에 위치한 콘크리트 슬래브건물이던 기물고는 현재 도로변에서 천제단 경내로 진입하는 출입문 옆쪽으로 옮겨 조립식 건물로 지어졌다. 기물고에는 돼지를 삶을 때 쓰는 가마솥을 비롯하여 제관 · 집사 · 축관의 의관(衣冠) 7벌, 사각상 6개, 소반 큰 것 3개와 작은 것 3개, 자리 3개, 등 3개, 위패 3개, 제기(새옹메 그릇 3개, 잔과 잔대 3개, 주전자 등), 칼, 도마 등이 보관되어 있다.

천제단에 모신 신위는 '천지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이다. 천제단 제사는 매년 정월 초하룻날 자정에 지내며, 제사 준비는 열흘 전부터 시작된다. 마을 대동회의에서 도가 한 명, 축관 한 명, 헌관 세 명, 집사 세 명을 선정한다. 제사 닷세 전 아침 일찍 제관과 집사 등은 천제단에 모여 제단 주변과 기물고를 청소하고, 부정을 막는 황토를 뿌리며, 금색(금줄)을 친 다음 제수 준비를 위한 장을 보러 간다. 제수의 대부분은 동네의 농산물시장에서 구입하지만 주된 제물인 돼지는 돼지 사육농가에 가서 고른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100kg 이하)의 수퇘지 가운데 건강한 놈으로 골라 표시해 두었다가 제사 당일 아침 천제단으로 끌고 와 현장에서 도살한다.

음력 섣달그믐날 새벽에 제관, 집사, 대동회 간부 등 관계자들은 목욕재계를 하고, 오전 9시쯤 천제단에 모인다. 이때 표시해 둔 수퇘지를 끌고 와 천제단 입구(기물고 앞쪽) 수도와 가마솥 등이 준비되어 있는 도살 터에서 집사들이 도살하고, 그 피를 삶아 핏국제사를 지낸다. 돼지핏국을 세 그릇에 나누어 담고, 초헌 · 아헌 · 종헌 등 세 명의 제관이 각각 담당한(천지신 · 토지신 · 여역신) 신위 앞 제단에 핏국을 올린 다음 삼배한다. 보통 오후 1~3시 사이에 행해지며, 이때 제관의 복장은 평상복이다. 제관과 참여자들이 음복하면 핏국제사가 끝난다. 점심식사 후 집사들은 제물로 사용할 꼬치를 만들고,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잘

강원 동해시 동호동, 2010.4.22, 김태수

천제단 기물고

기물고 내 보관물

라 갈고리에 걸어 기물고 처마 끝에 매달아 둔다. 그리고 준비해 둔 제물을 내어 제기에 담아둔 다음 제사 시간까지 기물고와 제단 앞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쉰다.

밤 11시 30분쯤 제물 준비를 모두 마치면 천제단의 세 개 제단에 촛불을 밝혀 둔다. 양초함은 유리상자처럼 만들어 바람이 불더라도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 기물고 지붕과 주변 나뭇가지에 큰 등을 몇 개 달아 천제단 주변을 환하게 비추도록 한다. 집사 세 명은 각각의 새우(세옹)에 쌀을 담고 씻은 다음 화덕처럼 만든 받침대 위에 올리고 가마솥을 데우는 불길 속에서 알불을 꺼내어 새우의 받침대 밑으로 모아 두고 새옹메를 짓는다. 행주를 가지고 뚜껑을 닦아 주는 동작을 계속한다. 행주가 더워지면 다시 찬물에 적셔 뚜껑을 닦아 낸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밥이 잘되고, 그래야 신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고 믿는다. 그 무렵 제관들은 기물고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도포에 갓을 쓰고, 집사들은 청포에 유건 차림이다. 축관도 집사와 같은 차림이다. 11시 45분이 되면 집사들이 준비한 제물을 제단에 진설하고, 정월 초하룻날 자정이 되면 제관과 집사가 제단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축관을 겸한 집례의 지시에 따라 홀기(笏記)대로 제의가 진행된다. 세 명의 헌관이 각각 '천지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의 제단 앞에 서서 촛불을 밝히고 향을 사르고 술잔을 올리면 축관은 축문을 읽는다. 그리고 메(밥)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고 헌관과 집사는 두 번 절 한 다음 부복한다. 집사가 다시 술을 올리면 헌관은 소지(燒紙)하면서 축원한다. 소지는 헌관 한 사람당 15장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동민들의 안녕과 대동회에 협찬금을 낸 사람들, 개인들의 소망을 차례로 기원한다. 이어 메 뚜껑을 닫고 숟가락을 내린 다음 헌관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 음복례(飮福禮)를 행한 뒤 축문을 불사르고 예를 마친다.

참고문헌 **국역 척주지**(배재홍, 삼척시립박물관, 2001), **동해시 동호마을의 역사와 문화**(동해시, 2007), **동해시사**(동해시, 2000), **동해시지명지**(박성종, 동해문화원, 2000), **동해안 어촌당신화연구**(이승철, 민속원, 2004), **동호동 천제단 제사의 전승실태와 민속적 의의**(김태수, 강원민속학 21, 강원도민속학회, 2007), **신기사람들의 삶과 문화**(김진순, 삼척문화원, 2002), **원덕사람들의 삶과 문화**(김진순, 삼척문화원, 1999),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김태수(金泰水)**

동해동호동천제단제 (東海東湖洞天祭壇祭)

상호참조 동해동호동천제단(244쪽)

정의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주민들이 매년 정월 초하루를 맞아 천제단에서 올리는 동제.

역사 동호동천제단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을을 개척한 엄씨 할아버지가 조선 순조(재위 1800~1834) 때 동호천 상류의 황이미(황지미)에 터를 잡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 후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아울러 "태백산이 원단(원래의 단)이고 거기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할 때 태백산 천제문화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삼척부사로 재직하면서 쓴 읍지인 『척주지(陟州誌)』에 따르면 조선 중기까지도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삼척 지역에는 천제의 유풍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볼 때 삼척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동호동 지역도 그러한 풍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

핏국제사 강원 동해시 동호동, 2007.2.17, 김태수

천제단제사
강원 동해시 동호동
2007.2.17. 김태수

호동천제단제는 마을이 형성된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동제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천제는 매년 정월에 제를 올리는 세시의례와 수년 주기 또는 특정한 시기에 날을 받아 제를 올리는 별제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동호동의 천제단제는 세시의례로서의 천제에 해당된다. 천제단에 모신 신위는 '천지지신(天地之神)', '토지지신(土地之神)', '여역지신(癘疫之神)'이다. 천제단제는 매년 정월 초하루 밤 0시(섣달그믐날 자정)에 지내며, 제사 준비는 열흘 전부터 시작된다. 마을 대동회의에서 도가 한 명, 축관 한 명, 헌관 세 명, 집사 세 명을 선정한다. 제사 닷새 전 아침이 되면 제관과 집사 등은 천제단에 모여 제단 주변과 기물고를 청소하고, 부정을 막는 황토를 뿌리며, 금줄을 친 뒤 제수 마련을 위해 장을 보러 간다. 제수의 대부분은 동네의 농산물시장에서 구입하지만 주된 제물인 돼지만은 돼지 사육 농가로 가서 고른다. 돼지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100 kg쯤 되는 중간 정도 크기의 수퇘지 가운데 건강한 놈을 골라 표시해 두었다가 제사 당일 아침 천제단으로 끌고 와 현장에서 도살한다. 주민들은 천지지신의 신격을 여성으로 인식하여 수퇘지를 쓴다고 한다. 예전에는 수소를 제물로 썼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돼지로 바꾸었다. 시루떡도 당일 천제단으로 가져오게 한다. 나머지 제수들은 모두 기물고에 보관한다.

음력 섣달그믐날 새벽에 제관과 집사, 대동회 간부 등 관계자들은 목욕재계를 하고, 아침 9시쯤 천제단에 모인다. 이때 표시해 둔 수퇘지를 기물고 앞 천제단 입구 한쪽에 마련된, 수도 시설과 가마솥 등이 있는 도살터로 끌고 온다. 그곳에서 돼지를 잡고 그 피를 삶아 핏국제사를 지낸다. 삶은 돼지핏국을 세 그릇으로 나누어 담은 뒤 초헌관은 천지신 제단, 아헌관은 토지신 제단, 종헌관은 여역신 제단에 각각 핏국을 올린 다음 세 번 절한다. 핏국제사는 보통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행해지며, 이때 제관은 평상복 차림이다. 제관들과 참여자들이 음복하면 제사가 끝난다. 점심식사 후 집사들은 제물로 사용할 꼬치를 만들고,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잘라 갈고리에 걸어 기물고 처마 끝에 매달아 둔다. 그리고 준비한 제물을 제기에 담아 둔 다음 제사 시간까지 기물고와 제단 앞마당에서 담소를 나누며 쉰다.

밤 11시 30분쯤 모든 제물이 준비되면 천제단의 세 개 제단 곁에 촛불을 밝힌다. 촛불은 유리로 만든 양초함에 넣는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 양초함은 신위별로 하나씩 모두 세 개이다. 기물고 지붕과 주변 나무에는 큰 등을 달아 천제단 주변을 환하게 비추도록 한다. 집사 세 명은 각각의 '새우(새옹)'에 쌀을 담고 씻은 다음 화덕처럼 만든 받침대 위에 올리고, 가마솥을 데우던 화덕에서 잉걸불을 꺼내 가져와 새옹메를 짓는다. 아무리 날씨가 춥고 궂어도 신께 올릴 메(밥)는 현장에서 지어 올린다. 집사는 메를 짓는 내내 행주로 계속 뚜껑을 닦는다. 행주가 더워지면 다시 찬물에 적셔 뚜껑을 닦는다. 이들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밥이 잘되고, 그래야 신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믿는다. 그 무렵 제관들은 기물고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제관들은 도포에 갓을 쓰고, 축관과 집사들은 청포에 유건 차림을 한다. 11시 45분이 되면 집사들은 제물을 제단에 진설한다. 제물구성과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천지지신
돼지앞다리 2,
돼지갈비 1,
돼지꼬치 3,
명태 3,
대구포 1,
곶감 · 밤 · 대추 1상,
시루떡

토지지신
돼지뒷다리 1,
돼지갈비 1/2,
돼지꼬치 3,
명태 3,
대구포 1,
곶감 · 밤 · 대추 1상,
시루떡

여역지신
돼지뒷다리 1,
돼지갈비 1/2,
돼지꼬치 3,
명태 3,
대구포 1,
곶감 · 밤 · 대추 1상,
시루떡

동호동동제의 명칭이 '천제단제'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천신이 으뜸 신이다. 그리하여 주요 제물인 돼지의 앞다리 두 짝과 갈비 한 짝이 천신의 몫이고, 이것의 절반인 뒷다리 하나와 갈비 반 짝은 토지신과 여역신의 것으로 서열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상을 차려 놓고 정월 초하룻날 0시(섣달그믐날 밤 12시)가 되면 홀기(笏記)대로 제의가 진행된다. 세 명의 헌관이 각각 '천지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의 제단 앞에 서서 촛불을 밝히고 향을 사르며 술잔을 올리면 축관은 축문을 읽는다. 이어 헌관과 집사는 메(밥)그릇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고 두 번 절한 다음 부복(俯伏, 잠시 엎드리는 행위)한다. 집사가 다시 술을 올리면 헌관은 소지(燒紙)하면서 축원한다. 소지는 헌관 한 명당 15장으로 나눈다. 이들은 먼저 동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대동회에 협찬금을 낸 사람들과 개개인의 소망을 기원한다. 소지를 올린 뒤 메 뚜껑을 닫고 숟가락을 내리면 헌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하고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그런 뒤 축문을 불사르고 예를 마친다. 0시 15분쯤 제사가 끝나면 참가자 모두 음복을 한 다음 제단에 차린 제물을 기물고로 옮긴다. 남은 제물은 노인회와 제관들이 나눠 갖는다. 노인회의 제물은 정월 초하루 오전 11시 골말경로당에서 열리는 마을 합동도배(合同都拜)식 때 먹을거리로 내놓는다.

특징 및 의의 천제단제의 목적은 일반적인 동제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화평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천신 한 분만 모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에서는 천신과 함께 지신과 여역신도 모신다는 점과 천제단의 신격을 여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보편화된 '서낭제와 유교의례의 습합'과 남근목봉헌해신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동해안 어촌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태백산 천제문화권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즉 천제를 올린 다음 서낭제를 지내고, 천제의 주요 제물인 소를 제단 곁의 도살터에서 잡아 핏국제사를 지내거나 고기를 부위별로 잘라 제단 주위에 걸어놓는 것, 제단의 위치를 따졌을 때 천제단제가 태백산을 향한 망제(望祭) 형식을 띠고 있는 점 등이 그렇다. 태백산 인근 지역에서는 천제를 지낼 때 태백산을 향한 망제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호동의 천제단제는 태백산 천제문화권의 '천제'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지역사례 동호동천제단제는 태백산 천제문화권에서 지내 오는 '천제'의 일종이다. 태백산 천제문화권이라 함은 태백산에 직접 올라가서 천제를 올리는 태백 · 봉화 · 삼척 등지와 태백산을 바라보며 망제를 지내는 정선 · 안동 · 영양 · 울진 지역까지 포함하는 문화권이다. 세시의례로서 천제를 지내는 곳은 전국적으로 몇 곳 되지 않는데 태백산 인근 지역 대부분의 마을에

서 천제를 세시의례화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세시의례로서의 '천제'라고 해도 전북 장수군 원촌리2구,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충남 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는 '천신'에만 제를 올린다. 이에 비해 태백산 천제문화권에서는 '천제를 지낸 다음 서낭제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척시의 사례를 보면 근덕면 선흥마을의 경우 매년 음력 정월에 택일하여 할아버지 서낭당 뒤에 있는 천제단에 먼저 제를 지낸 다음 성황제를 지낸다. 원덕읍 월천3리(하월천)와 노곡2리(작진)는 산의 한 곳에 천제당과 할아버지당, 할머니당이 있어 정월 보름이 되면 제관들이 먼저 천제당에서 제를 올린 다음 두 무리로 나누어 각각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또 신기면 대평리는 정월 초하루 설을 쇤 뒤 날을 받아 천제와 서낭당 제사를 지낸다. 이때 산 위의 천제단에서 나라와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다음 손전등으로 신호해 주면 그때서야 서낭당제사를 지낸다.

참고문헌 **국역 척주지**(배재홍, 삼척시립박물관, 2001), **동해시 동호마을의 역사와 문화**(동해시, 2007), **동해시사**(동해시, 2000), **동해시지명지**(박성종, 동해문화원, 2000), **동해안 어촌 당신화연구**(이승철, 민속원, 2004), **동호동 천제단 제사의 전승실태와 민속적 의의**(김태수, 강원민속학 21, 강원도민속학회, 2007), **신기사람들의 삶과 문화**(김진순, 삼척문화원, 2002), **원덕사람들의 삶과 문화**(김진순, 삼척문화원, 1999),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김태수(金泰水)

동해봉정마을고청제

정의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봉정마을의 제의. '고청제(告淸祭)'란 명칭을 사용한다.

역사 단봉동은 고려말 조선초에 형성된 유서 깊은 마을로 오늘날 봉정, 단실, 벽오 등 세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단실(丹室)과 봉정(鳳亭) 두 마을의 첫 글자를 따 '단봉동'이라 하였다. 이들 지역은 오늘날 행정동은 북평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단봉동에 속한다. 단봉동 세 마을은 각기 별도의 마을제의를 전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봉정마을의 제의를 고청제라 한다. 마을에 전하는 문헌에 따르면 봉정마을의 제의는 수백 년간 지속된 것이다.

내용 **1. 제의 일시** 고청제는 언젠가 마을에서 부정이 발생하여 한 해 제사를 건너뛴 적이 있었지만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 0시에 지낸다.

2. 당집과 당목 제당은 마을 건너편인 마을 앞산자락에 위치하며,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고, 더욱이 도랑을 건너 올라가야 한다. 제당 주위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여러 그루 둘러져 있고, 그 앞에 땅을 우묵하게 파놓아 제단을 만들고 돌로 담을 야트막하게 쳐 놓았다. 이와 같이 이곳의 제당은 당집이 아닌 자연 상태이지만 서낭당이라고 부른다. 고청제는 이곳에서 행하는 제의를 말하며 서낭제라고도 한다.

본래 서낭당이 있는 곳 토지는 마을 소유였지만 1945년 광복을 전후하여 토지정리를 할 때 개인 소유가 됐다. 1993년 마을회관을 신축한 다음 서낭제를 마을회관으로 옮겨와 지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제당으로 가는 길이 험하기도 하지만 겨울에 날씨가 매우 춥고 눈이라도 오면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제의 과정에 필요한 불을 놓기 위해서는 나무도 한 짐 필요하였다. 나무를 준비하는 일은 마을의 대소사에서 잔일을 담당하던 소사의 몫이었지만 소사가 없어진 뒤에는 제의를 주로 담당하는 노인들이 직접 장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힘겨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래의 제당은 그대로 둔 채 제의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그래서 고청제당 주위의 잡초를 베어내는 일은 지금도 추석 전에 매년 행하고 있다.

고청제 관련 문서
강원 동해시 단봉동 봉정마을, 2009.1.25 이한길

3. 신위 고청제단에다 중앙에 성황지신, 좌우로 토지지신과 여역지신의 지방을 종이에 써 붙이고 지낸다.

4. 축문과 홀기 마을에는 '숭정후삼신

고청제
강원 동해시 단봉동 봉정마을 마을회관 2009.1.26. 이한길

해사월하한(崇禎後三辛亥四月下澣)'(숭정은 중국 명나라에서 사용하던 연호로 1628~1644년에 사용되었다. 이로부터 세 번째 신해년이므로 1791년이 된다. 하한은 하순을 말하며 21~30일이다)이라는 축문이 전승되고 있다. 이 축문은 대구1리의 축문과 몇 글자만 다르고 거의 동일하다. 축문은 성황신축, 토지신축, 여역신축 등 3종류로 되어 있다.

5. 제관 제관 및 제집사의 선정은 섣달 보름쯤에 한다. 제관은 생기를 보아 선정하고, 생기만 좋다면 매년 선정될 수 있다. 제관 및 제집사를 선정할 때에는 고청제의 전통을 전승하고자 마을의 젊은이들도 참여하게 해 제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 제관을 선정하면 봉정마을 통장 이름으로 발부한 망지를 전달해 준다. 망지(望紙)는 누구를 무슨 제관(혹은 제집사)으로 임명하였음을 알린다는 내용을 적은 종이이다. 제물을 장만하는 집은 '제소(齊所)' 또는 '제소댁(齊所宅)'이라 한다. 제소댁은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목록에 따라서 제물을 장만한다. 본래 제소댁은 따로 선정하였지만 근래에는 통장이 제소댁을 맡도록 하였고, 제물을 사러 갈 때에는 두 명 이상의 주민이 함께 간다. 또한 야외 고청제당에서 제향할 때에는 제관 및 제집사들이 모두 참여해 함께 음식을 장만하였는데, 이 전통은 제의를 마을회관에서 행하게 된 다음에도 전승되고 있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근신하면서 문 밖 출입을 삼간다.

6. 제물 제물은 원래 떡과 메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것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메는 마을과 제당 사이의 논 가운데 위치한 샘으로 가서 그 물을 밤중에 떠와서 짓는데, 세 그릇을 준비한다. 메를 짓는 그릇은 새우(새옹)이지만 새우가 없을 때에는 냄비를 사용한다. 백설기는 분량을 시루당 쌀 한 되 정도로 해서 3시루를 준비한다. 제소댁은 백설기를 준비할 때 한지를 입에 물어서 입김이 입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만든다. 나물은 미나리와 무를 사용하는데, 생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나리도 다발째로 올리고, 무도 통째로 올린다. 과일은 삼실과(대추, 밤, 곶감)이고, 포는 대구포를 사용한다. 어물은 참가자미를 주둥이와 꼬리 부분을 손질하지 않고 비늘도 치지

않은 채로 신위당 세 마리씩 올린다. 쇠고기도 신위당 한 근 총 세 근을 날 것으로 사용한다. 제주(祭酒)는 10여 년 전에는 직접 제소 집에서 담근 청주를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청주를 구입해서 쓴다. 수탉은 세 마리를 구입하여 부정을 치고 난 뒤에 털을 뽑고 손질을 하여 제상에 올린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기와 제복은 2008년에 장만하였는데, 관모와 촛대 · 향로 · 술잔 · 제복 등을 전부 장만하였다.

〈진설도〉를 보면 신위를 기준으로 좌4변(籩) 우4두(豆)라 하여 발이 달리지 않은 그릇은 왼편으로 네 개 놓고, 발이 달린 그릇은 오른편으로 네 개 놓는다. 좌4변에는 어포/대조(魚脯/大棗), 건시(乾柹), 율황(栗黃), 청저(菁菹), 근저(芹菹), 구저(韭菹) 등 실제로는 네 그릇 이상을 놓는다. 우4두에는 녹염(鹿鹽), 어염(魚鹽), 생(牲), 형염(形鹽) 등을 놓는다. 녹염은 소금에 절인 사슴고기, 어염은 소금에 절인 물고기, 형염은 모양을 낸 소금이다. 중앙에 떡을 놓고, 그 다음에 폐백지를 담은 소쿠리를 놓고, 그 다음에 술 석 잔을 놓는다.

7. 제의절차 고청제는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 총회를 열어 주관한다. 제관은 제삿날이 다가오면 보름 전에 제당에 먼저 금줄을 치고 주위에 황토를 뿌린 다음 제관 및 제집사 집에도 모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둔다. 그러나 마을회관으로 장소를 옮긴 다음부터는 금줄을 하지 않는다. 금줄은 왼새끼를 꼬고, 그 사이에 솔가지와 한지를 끼워 넣어 만들었다. 황토를 뿌리는 것은 마당 주위에 몇 덩이를 놓아두는 정도이며, 이것은 금줄처럼 부정한 이의 접근을 막는다는 뜻이다. 주민들은 제삿날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장작을 준비해서 제당으로 날랐다. 이 장작은 제의를 준비하고 행할 때 제당에 불을 피워 놓고 제물을 장만했고, 추위도 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관과 집사들은 제의를 행하기 위해서 제당에 올라간 뒤 오후 4~5시쯤에 수탉 세 마리의 목을 베어서 제당(지금은 마을회관) 주위에 피를 뿌려 부정을 가신다. 이는 잡신의 접근을 막는다는 뜻이다.

마을회관으로 제의 장소를 옮긴 뒤에는 제의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 우선 세 개의 상을 마루에 놓은 다음 그 위에 축문이 쓰인 야트막한 병풍을 쳐놓고 상위에 제물을 진설한다. 이때 성황축이 쓰인 병풍을 정면에 모시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토지신 축문이 쓰인 병풍, 오른쪽에 여역신 축문이 쓰인 병풍을 놓는다. 제관이 모이고 밤이 어두워지면 제의를 시작하며, 절차는 홀기대로 진행한다. 제의가 끝나면 제관들이 일차적으로 마을회관에서 음복을 한다. 일부 음식은 촌수(촌장)에게 싸 보내고, 나머지 음식은 제관들이 나누어 갖고 간다.

8. 제의비용 마을에서는 마을 소유 땅이 있어 이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게 임차료를 받는다. 또 마을 소유의 산이 하나 있었으나 이것을 매각하여 마을기금으로 만들었다. 임차금과 기금의 이자로써 고청제를 지낸다.

이 마을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사람이 주민으로서 마을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하려면 입참금을 마을에 지불하여야 한다. 입참금은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막걸리 한 말과 쌀 한 말이었고, 1980년 4월 1일 동해시로 편입된 뒤부터는 입회비 20만 원을 내야 진정한 주민의 자격을 주고 있다.

9. 전설 봉정마을 제당이 있는 곳은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이란 말이 전해지며, 실제로 제당이 있는 산을 넘으면 호현리가 있다.

의의 이 마을의 제의는 '고 청제(告 淸祭)'였다. 고청제라고 붙여 쓰지 않고 띄어쓰기를 해 놓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고청제의 어원을 연구할 때 도움이 될 듯하다.

참고문헌 동해시서낭제(이한길, 민속원, 2010).

필자 이한길(李漢吉)

동해신흥동도서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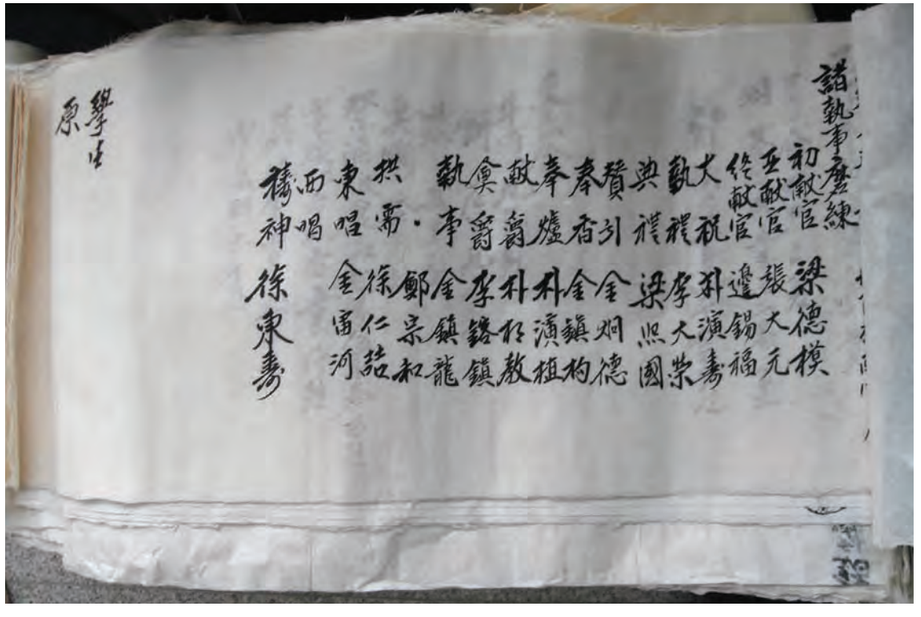
정의 강원도 동해시 신흥동의 여러 마을들이 함께 모여서 행하는 서낭제. 1980년 동해시가 탄생한 다음부터 신흥동내 골골마다 행하던 서낭제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지금은 신흥동 전체가 모여 지내는 서낭제, 즉 도(都)서낭제 하나만 남아 있다.

내용 신흥동에는 본래 복상골, 서학골, 용소골, 관말 등 여러 자연촌락들에서 행하던 서낭제가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관말의 서낭제로 흡수통합되어서 오늘날 신흥동의 서낭제가 되었다. 그래서 도서낭제라고 한다. 현재 이 마을의 제의는 '단오성황제'로 명명하고 있다.

1. 제의 일시 제의는 본래 정월에 날을 받아서 0시에 행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워낙 날씨가 춥고 마을의 어른들이 설을 쇠러 역귀성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마을에 제관을 할 주민들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2006년부터 서낭제의 날짜를 5월 5일로 정하고 오전 11시에 제의를 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단옷날이 성황님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2. 당집과 당목 당집은 처음에 서학골로 가는 다리 건너 오른편 둔덕의 무덤 부근에 위치하였다. 옛 서낭당은 빈지로 벽채를 친 목조건축물로, 지붕에는 청석을 올려놓아 나무지붕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당 내부에는 철마가 있었고, 위패 대신에 신위 세 분의 명칭을 한지에 써서 벽에 붙여 놓았다. 그러나 광복이 되기 직전 일본인들이 서낭당을 불태운 후에 이후 제의가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박형순, 박용순, 양경모 등의 주민이 이 주축이 되어 서낭당을 새로 건립하면서 초등학교(지금은 폐교) 앞으로 위치를 옮겨 목조로 집을 짓고 기와를 얹어서 제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당집은 달방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었다. 그때 고유제를 지내고 목조를 뜯어 불에 태우면서 술잔을 부어 놓고 "잠시 다른 데 가 계십시오"하고 절을 했다. 당시 제당 안에 있던 철마 한 쌍(암수)이 이 과정에 분실되었다. 주민들은 당집의 수몰 보상비를 받아서 지금의 자리에 당집을 벽돌로 새로 건축하였다. 그 후 2005년에 비가 새는 것을 막고, 지붕과 벽을 새로 칠하고, 당 내부의 장판을 교체하고, 문도 수리하고, 천장도 손질하고, 신을 모시는 주독도 세 개를 제작하여 놓는 등 다시 당집을 수리하였다. 현재의 당집 크기는 가로 약 518㎝, 세로 약 334㎝, 높이 약 253㎝이고, 벽돌담이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제단이 있다. 무속인들이 수시로 이곳을 드나들면서 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시로 당 청소를 하고 있다.

3. 신위 신위는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 등 3위이다. 서낭은 암서낭이라고 한다. 서낭의 성별은 서



마련방
강원 동해시 신흥동
2009.9.5. 이한길

낭당을 만든 다음 처음에 올리는 이의 성별을 따져 결정하는데, 이 마을의 서낭당을 중수할 때 여성이 먼저 찾아와 제향했기 때문에 암서낭이 된 것이다.

4. 축문과 홀기 축문과 홀기는 예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것이었는데, 동해시로 행정구역이 변경 되기 전에 마을 이장이었던 김해수라는 분이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본래 이곳의 주민이 아니었는데, 백복령 도로공사 관련자로 왔다가 이 마을 사람과 결혼하면서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축문과 축문에 붙어 있는 진설도가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의 구(舊)축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만든 축문은 창작한 것이 아니라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5. 제관 정월에 제향할 때에는 생기를 보아서 헌관 세 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단오날로 날짜를 변경한 후로는 생기를 보지 않고 초헌관은 무조건 통장이 하고, 아헌관은 노인회에서 결정하며, 종헌관은 마을회의 참석자 중에서 연장자로 선정한다. 이들은 보통 7~10일 전에 선정하며, 선정한 다음 제관들에게 망지를 주고 마련방에 올린다.

마련방에 오른 제관과 제집사는 초헌, 아헌, 종헌, 대축(大祝), 집례(執禮), 전례(典禮), 찬인(贊引), 봉향(奉香), 봉로(奉爐), 헌작(獻爵), 전작(奠爵), 집사(執事), 동창(東唱), 서창(西唱), 공수(供需), 도신(禱神) 등의 직책이 부여된다. 공수는 음식을 장만하는 집이며, 도신은 삼척 지역에서도 곧잘 발견되는 용어로서 복재(卜-) 같은 기능을 하며 제의를 주관하는 제관이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상갓집에 가서는 안 되는 등 가리는 것이 많다.

6. 제물 제물은 통장이 단오 전날에 묵호중앙시장으로 가서 구입한다. 제물은 제관의 부인들이 장만한다. 제상은 한 상을 차리지만 메는 세 그릇을 올리되, 백설기는 쌀 한 말로 준비한다. 희생은 쇠머리를 사용한다. 생선은 주둥이와 꼬리는 치지 않은 채 가자미 다섯 마리, 곤들매기 다섯 마리를 쪄서 사용하며, 문어는 한 마리를 올리고 포는 북어포이다. 과일은 삼실과(곶감, 밤, 대추), 사과, 배를 사용하며 과줄은 사용하지만 과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두부전도 올리며, 채소는 무채와 콩나물이다. 탕은 어물탕, 맹탕, 육탕 등 3탕을 올린다. 제주는 청주를 사용한다. 제주는 제일(祭日) 일주일 전에 성황당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누룩과 쌀 등을 넣은 술단지를 묻어서 만들었다. 그때 유사는 입에 한지를 물고 정성을 들여 술을 담는데 서너 말을 빚는다. 제주로 쓰고 남은 것은 제관들이 음복도 하고, 이튿날 무당을 불러와서 굿을 할 때 사용하였다. 지금은 무당을 부르지 않는다.

7. 제의 절차 금줄은 당집과 음식을 장만하는 회관에만 치고, 제관 집에는 치지 않는다. 당집은 일 년 내내 금줄을 쳐 놓은 상태지만 제의를 행하기 전에 금줄을 새것으로 바꾼다. 이 마을에서는 제의를 지내기에 앞서 연습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 '강(講)'이고 이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 과정이 없어졌다고 한다.

제의 전날 제관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출발한다. 이들이 제당에 도착하면 봉로가 붙여 놓은 짚불을 타넘고 제당으로 들어가서 양초를 켜고 진설한다. 제의는 마을에 전승되는 홀기가 있어 홀기에 준하여 진행한다. 제사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는데 도신이 우선 올린 후 반장들이 올린다. 이전에는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소지를 여러 장 올렸지만 지금은 반별로 모든 내용을 미리 한 장에 써서 올린다. 소지를 마치면 도신이 꽹과리를 치면서 마을의 평안을 빌고 명태를 제당에 걸어 놓고 신위 세 분을 위해 한지 석 장을 접어 역시 제당에 걸어 둔다. 끝으로 참제자들은 간단히 음복례를 행한 다음 회관으로 이동하여 주민들과 함께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8. 영험담 성황신은 영험하여서 제사 때 부정한 사람이 오면 짐승이 나타나 부정한 사람에게 모래를 퍼부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사람 집에도 나타나 해코지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서낭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부정한 사람이 제물을 사러 가면 짐승이 길가에 나타나 소란을 피운다고 한다. 그래서 제물 준비는 항상 깨끗한 사람이 준비했다.

9. 제비(祭費) 비용은 50~60만 원 정도 이다. 마을기금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지만 서낭제사에 성의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가구당 3,000원을 갹출한다. 그 밖에도 성금도 받으며, 출향인사 가운데 서낭제를 지낼 때 협찬을 하는 이들도 있다. 50여 년 전에 서낭답이 있었다고 하지만 전해지지는 않는다.

또 신흥동에서는 혹 비용이 모자랄 것 같으면 강(예행연습)을 할 때 헌관들에게 일종의 협찬금을 거두었다. 협찬금을 거둘 때 재미를 주기 위해 제의 연습 때 잘하면 잘했다고 헌금을 내라 하였고, 반대로 못하면 서투르다고 하여 벌금을 내라고 하였다. 결국 헌관을 하면 무조건 헌금을 내야 했다.

지역사례 동해시에는 여러 곳에서 도서낭제가 있었다. 지금은 군부대 용지개발로 인하여 사라진 용정동에도 도서낭제가 있었고, 예전의 달방동도 도서낭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낭제는 삼척시와 양양군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원덕읍 이천리 서낭제, 양양군 서면 서림리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양양군 서낭제 전승중단원인에 관한 고찰**(이한길, 민속학연구 21, 국립민속박물관, 2007), **동해시서낭제**(이한길, 민속원, 2010), **삼척군지**(삼척군, 1988), **삼척화력 1 · 2호기 건설사업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이한길, 관동대학교박물관, 2009).

필자 이한길(李漢吉)

동해어달동서낭제 · 해성제

정의 동해시 어촌인 어달동의 동제. 육지성황을 모시는 서낭제와 바다성황을 모시는 해성제가 있으며,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행해진다.

내용 **1. 제의 일시** 제의는 마을에서 주관하는 서낭제가 시월과 섣달그믐날에 행해지며, 어촌계에서 주관하는 해성제는 시월 열흘날 안쪽으로 날을 받아서 행해진다. 마을에서 주관하는 제의는 시간은 주로 밤 10시쯤에 행한다. 섣달에 행하는 서낭제는 흔히 섣달그믐 제사라고 하며, 해성제는 시월 서낭당 제사가 끝난 뒤 열흘 이내에 행한다.

2. 당집과 당목 서낭당은 오래전에 지어졌으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67년의(한국의 마을제당)에 따르면 마을에 처음 도착한 심씨가 건립하였다고 한다. 당집의 크기는 가로 약 650㎝, 세로 약 270㎝, 높이 약 180㎝이다. 방은 두 칸이며, 한 칸은 제당이고 다른 한 칸은 재실로 사용한다. 그러나 4~5년 전에 제당 바깥에 별도로 재실을 건축한 후로는 제당의 제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서낭당은 무당이 자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해성당은 선창가에 있으며, 추석 전에 풀을 벨 때와 제사를 지낼 때 청소하는 편이다.

3. 신위 서낭당의 신위는 토지지신, 성황지신, 여역지신, 해역지신 등 네 분이다. 해역지신은 해성당에 모셔져 있는 신위지만 서낭제를 올릴 때 함께 제향한다. 또한 해성당의 제의에서도 다른 세 분 신격과 함께 신위 네 분을 모두 제향한다. 서낭은 수서낭이며, 이곳 수서낭에서는 굿을 하지 않는다한다.

4. 제관 제관은 헌관 네 명, 집사 한 명 등 총 다섯 명을 선정한다. 집사가 대축을 겸한다. 제관은 부정 없고 깨끗한 이로 보통 한 달 전에 선정한다. 생기복덕은 보지 않지만 스스로 부정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다. 집안의 아내가 월경을 하거나 길에서 피를 보거나(차사고 혹은 개가 죽는 등) 하면 부정이 생겼다고 하여 참여할 수 없다. 제관은 금줄을 친 기간에는 문 밖 출입을 삼가며, 길흉사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는다. 음식 장만하는 이를 '도가'라 이른다. 도가는 보통 한 달 전에 선정하며, 주로 초헌관이 된다. 어달동은 행정조직이 두 개 통으로 되어 있어 부정만 없다면 두 명의 통장이 자연스레 헌관이 된다. 이 밖에 제의에서는 소를 잡는 등 할 일이 많기 때문에 2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다. 제관들은 제일(祭日) 아침에 목욕재계하며, 두루마기를 즐겨 입고 유건을 착용한다.

5. 제물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祭器)는 마을에서 장만한 것으로 재실에 보관하고 있다. 섣달그믐 제사에는 황소, 시월 제사에는 수탉을 각각 사용한다. 제관들은 제의 20여 일 전에 미리 매매 업자를 찾아가서 희생물인 소를 선정해둔다. 이때 제관들은 깨끗하고 잘생기고 거세하지 않은 황소를 선정한 후에 매매 업자에게 깨끗하게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요즘 거세하지 않은 황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제일이 다가오면 업자는 섣달그믐날 아침(8~9시)

에 제당까지 황소를 차에 싣고 운반해주며, 이때 소의 무게를 달아서 값을 계산한다. 도살은 오전 10시경에 시작하며, 소가 워낙 크다 보니 도살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 소를 잡을 때에는 먼저 술을 한 잔 부어 놓고 한다. 소를 잡으면 피를 제당 주위에 뿌린 다음 부위별로 각을 떠서 모든 부위를 4등분하며, 소의 앞발과 뒷발도 각각 4등분한다. 이렇게 준비한 희생물은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 해역지신 순으로 올리며 가장 먼저 올리는 것은 간이다.

닭의 경우 예전에는 수탉 한 마리의 머리를 잘라서 제당 근처에 피를 뿌리고 도가 집에서 그것을 삶아 4등분 했다고 한다. 지금은 네 마리를 구입하기 때문에 굳이 4등분할 필요가 없다. 섣달그믐 제의와 시월 제의의 나머지 제물은 동일하다. 어물은 방어, 대구, 열기, 문어, 명태 등을 쪄서 올린다. 주둥이와 꼬리와 비늘은 도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다. 어물 중 '-치'로 끝나는 물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어물은 접시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며, 맨 위는 문어로 덮어 마무리하며, 모두 네 접시를 준비한다. 백설기는 한 말 정도의 쌀로 네 판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도가에서 장만하였다가 지금은 떡집에서 주문해서 장만한다. 메는 네 그릇이다. 나물은 도라지 · 시금치 · 무채 등 세 가지를 즐겨 사용하고, 고사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탕은 무에 쇠고기를 넣어 만든다. 과일은 삼실과(곶감, 밤, 대추), 사과, 배, 귤 등이다. 과줄은 사용하지만 과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두부는 전으로 만들어 올린다. 술은 제당에 구덩이를 파고 직접 담갔지만 1990년대부터는 청주를 구입해 사용한다. 제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장만하고, 제물을 구입할 때 가격 흥정을 하지 않는다. 제의 비용은 가구당 2,000~5,000원을 갹출하다가 1990년대에 마을자산인 땅을 팔아서 기금을 만들고 이것으로 충당한다.

6. 제의 절차 금줄은 3~7일 전에 도가가 왼새끼를 꼬아서 그 사이에 소지종이를 끼워 넣어서 준비하여 제당에 먼저 친 다음 자기 집에도 친다. 이때 황토도 함께 뿌린다. 또 마을 사람들은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싸우지 않도록) 서로가 주의한다.

첫 술잔은 도가가 초헌관이 되어 성황지신에게 헌작한다. 그다음 술잔은 아헌관이 토지지신, 세 번째 헌관이 여역지신, 네 번째 헌관이 해역지신에게 동시에 헌작하고 배례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헌작을 다시 한 번 더 한 뒤 고축한다. 축문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후 이들은 제당에서 잠시 나와 있다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헌작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처음에 축관이 동네를 위해 대표로 한 장 올린 후, 헌관들이 각자가 여러 장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린 후 제사상의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떼어내 퇴주잔에 담은 다음 밖으로 나와 개울에 버린다. 여기에는 동네의 안녕을 비는 뜻이 담겨 있다. 이후 음복을 간단히 하고는 남은 음식을 모두 도가 집으로 가져가서 주민들이 음복한다. 이때 쇠고기는 반별로 무게를 달아서 분배하며, 쇠머리와 살코기 일부를 노인회에 기증한다. 쇠가죽은 원하는 이에게 주기도 하고 원하는 이가 없으면 제당 앞 땅을 파고 묻는다. 쇠가죽은 매매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서낭제가 끝나면 각자 설을 쇠고 난 다음 초이틀에 각 반 대표들이 도가 집에 모여 음복하고 총결산을 하였으나, 2002~2003년부터는 마을 결산을 연말에 행하고 있다.

서낭당
강원 동해시 어달동
2009.3.20. 이한길

7. 기타 동해시가 되기 전에는 이장, 동해시가 된 초창기에는 통장이 각각 마을의 기금을 관리하였으나 주민들은 2005년쯤 어달동 재정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켜 마을기금을 일체 관리하게 하였다. 제사 비용은 이 위원회에서 나온다. 어달동은 어촌계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사 주관은 반드시 마을이 주체가 되며, 어촌계는 서낭제에 찬조금을 내기도 한다.

다음은 해성제에 관한 자료이다.

1. 제의 일시 시월에 어촌계가 주관하는 제의로, 서낭당 제사가 끝난 뒤 열흘 이내에 날을 받아서 해성당에서 행한다.

2. 당집과 당목 해성당과 여기에 부속된 수부당이 있다. 해성당은 본래 도로가에 있었으나 도로가 확장하면서 지금의 위치인 산자락으로 옮겨졌다. 해성당은 지붕을 덮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지붕 없이 시멘트로 디귿(ㄷ) 자 형태로 지어 놓았다는 것이다. 수부당은 본래 해성당과 10m 정도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 입구에 기묘하게 생긴 자연석이었다. 그러나 땅주인과 문제가 생겨 이것을 해성당 내부 오른쪽으로 옮겼다. 이 무렵에 땅주인과 관련이 있는 잠수부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람들은 서낭이 탈이 났다고 말했다. 해성당의 제의에서는 본래 종이에 신위를 써 붙이고 지냈지만 최근의 언젠가부터 신위 없이 네 곳에 제물만 차려 놓고 지낸다.

3. 신위 해역지신이 있는 곳이 해신당이지만 제사를 지낼 때에는 토지지신, 성황지신, 여역지신을 모두 모셔와 네 분을 제향한다. 그리고 수부가 있다.

4. 제관 집사 한 명과 헌관 네 명으로 구성된다.

5. 제물 포는 대구포(명태가 많이 난 때에는 명태포도 사용했다), 과일, 탕, 메, 국 등 간단히 몇 가지 음식만 차린다.

6. 제의 절차 해성당 제의를 행하기 전에 수부당에 메와 국을 미리 갖다 놓는다. 해성당 제의를 마친 다음에는 해성당에 사용한 제물 일부를 덜어내어 수부당에 갖다 놓고, 제관 한 명이 대표로 술잔을 올리고 제관들이 함께 절하면 끝난다. 해성당의 제의의 헌관 네 명이 각기 1신위를 맡아 헌작하고 배례하는 것으로, 서낭제의 과정과 비슷하다. 다만 고축 과정만 생략된다.

7. 기타 배고사를 지내는 이들은 동네서낭당과 해신당을 동시에 들른다. 그러나 동네서낭은 생략하고 해성당만 들르는 이들도 있다. 배고사를 지내는 이들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배고사를 지내는 이들이 어달동에 꽤 있는 편이다.

참고문헌 동해시 서낭제(이한길, 민속원, 2010).

필자 이한길(李漢吉)

동화대

정의 '동화제'로 호명되는 마을 제사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달집'.

형태 동화대는 주로 충청도 지역에서 보고되는데 달집태우기의 형태와 유사하다. 동화제에 쓰이는 '동화대'에는 가시나무 100짐이 들어간다고 한다. 울력에 나선 주민들이 '동화대'라는 달집을 만든다. 동화대는 모아 놓은 나뭇단을 묶어서 세운 것이다. 대개 높이가 3m 가까이 되고 둘레도 15m를 넘는다. 송학리의 동화제에서 가장 볼 만한 거리로는 '동화대'를 세우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령화되어 굴착기나 트랙터를 동원하기도 한다.

내용 마을 제사가 대개 당산제, 당제, 골맥이제 등으로 불리는 것처럼 동화제 또한 이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일설에 의하면 동화제는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행하던 화전(火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칠갑산을 중심으로 정산면 일대에서 행하여졌으나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어 마을에서 제사만 지내오다가, 1987년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에서 발굴되어 민속놀이로 정착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정월대보름 행사인 까닭에 쥐불놀이나 보름밥 훔쳐먹기 등과 관련된다. 송학리 동화제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다. 현재는 민속예술의 하나로 청양읍 정좌2리, 정산면 송학리, 남천리, 남양면 온암2리 등에서 열리고 있다.

송학리의 예를 통해 동화대의 내용을 살펴본다. 송학리에는 웃솔티, 아랫솔티, 군장동, 비봉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여기서의 솔티는 고개 이름을 나타내지만 마을 이름이기도 하다. 솔티고개는 송학리에서 공주시 신풍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솔티

동화대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2005.2.21
국립민속박물관

고개 바로 윗쪽에 있는 마을을 윗솔티라고 한다. 윗솔티를 상송 혹은 상송티라 부르기도 하고, 아랫솔티는 하송 혹은 하송티라 부르기도 한다. 비봉골은 솔티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남천리 새울과 이웃하여 있다. 비봉포란형의 명당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네 개의 자연마을은 음력 정월 열나흗날이면 송학리 한가운데 있는 동화제 마당으로 모인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한 짐씩 베어 내려온다. 이때에는 물론 목욕재계를 하여 몸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베어온 나무는 동아줄로 묶어서 세우게 되는데, 이를 '동화대'라고 한다. 달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마을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국태민안과 세화풍년(歲和豐年)을 기원한다.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불에 태워 액운을 제거하고 평안을 비는 의례이다.

청양읍 좌동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열이튿날 운이 좋은 사람을 초헌관으로 삼아서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 제주로 정해진 사람은 새벽 시간에 대동샘에서 물을 길어 와 목욕재계를 한다. 마을 어귀부터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서 잡인들의 접근을 금한다. 사람들은 가시나무 등을 한 짐씩 갹출하여 '동화대'를 만든다. 달이 뜨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동화제를 시작한다. 뜨는 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망월이야!"라고 외친다. 이때 달빛을 배경으로 마을 제사가 진행된다. 헌관의 헌작, 축문 낭독, 소지 등의 순서로한다.

사람들은 타오르는 동화대를 바라보면서 한 해의 소원성취, 무병장수, 마을안녕 등을 기원한다. 마을 제사가 끝나면 주민들은 함께 어울려서 풍물가락에 맞춰 난장을 벌이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홍을 돋운 다음에는 쥐불싸움으로 대동단결을 도모하며 밤을 지샌다. 하송마을의 정월 열나흗날 저녁 달마중 불놀이 축제와 상송마을의 정월대보름 장승제는 매년 200여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다.

소원을 담은 나무타령, 지게춤 등의 놀이를 통해 마을의 강인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한다. 동아줄을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 축문을 읽을 때의 노래, 지게가 마타기와 휘장돌기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 등이 전한다. 발굴된 가사 중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산에 올라 산 나무 배에 올라 배나무
> 낮에 나도 밤나무 사시사철 사시나무
> 십리절 오리나무 열의갑절 스무나무
> 한치라도 백자나무 갈기갈기 가락나무
> 거짓없는 참나무 새로지는 옻나무
> 그렇다고 치자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전통민요의 발굴 및 보존의 맥락에서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88년), 충남시군농악경연대회(1989년), 백제문화제농악경연대회(1990년)에 출전해 수상하였다. 오영범이 1989년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표정수가 뒤를 잇고 있다. 동화대가 온전히 타는 데에는 약 한 시간이 걸린다. 마지막으로 지줏대로 세운 장간이 마을 바깥쪽으로 넘어지면 운수대통한다고 믿는다. 동화제가 끝나면 상송마을에서는 낮에 세워둔 장승과 솟대에 제사를 지낸다.

필자 이윤선(李允先)

돼지

정의 동제(洞祭)등 각종 제사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으로 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제사용 희생동물.

내용 일부 별신제나 어촌의 대규모 당제에서 소를 제외하면 돼지는 최고의 제수(祭需)이다. 고구려 유리왕대의 제천의식(祭天儀式)용 교시(郊豕)를 둘러싼 탁리(託利), 사비(斯卑), 국내위나암(國內尉那巖) 사건은 돼지의 종교적 위상과 의미를 잘 보여 준다. 동민(洞民)들은 돼지의 제사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온갖 금기와 원칙을 만들어 냈다. 그러한 절차와 방식을 겪은 돼지는 완벽한 제수가 된다. 마을 신령의 흠향은 마을의 제액초복(除厄招福)으로 보답된다. 한편 동신(洞神)에게 바쳐진 돼지는 동제를 최고의 음식잔치로도 만들었다.

제수로 쓸 돼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마을 신령의 심기를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하고 동민의 지극정성을 최대한 표시해서 동신(洞神)을 흡족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정 기준은 지역 또는 마을마다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온다. 그러나 시대 변화, 경제적 형편, 마을신앙에 대한 열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마을은 흰털이 박히지 않은 '꺼먹(검정) 수퇘지'를 고집한다. 흰털이 조금이라도 박히면 부정(不淨)하다고 여긴다. 원래 조선 돼지의 색깔은 검기도 하지만 일체의 잡색(雜色)을 거부한다는 원칙이 있다. 여기에는 종교적 의미가 숨어 있다. 전남 해남군의 한 마을은 꺼먹 돼지가 바다의 김을 검게 하는 데 매우 효험이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이유로 당제에는 반드시 꺼먹 돼지를 올려야 한다고 한다. 꺼먹 돼지라는 기준에 마을의 주요 생계 수단인 김 생산의 성공을 연계한 것이다.

특히 교미 경험이 없는 수퇘지를 써야만 한다. 암퇘지는 출산 경험이 있고 수태 중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절 쓰지 않는다.

돼지를 구매하거나 얻어 올 때에도 출생 및 성장 과정에서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사육한 집안도 평안했어야 마음에 거리낌 없이 제수로 선택한다. 전북 고군산열도의 말도에서는 일 년 전에 새끼 돼지를 미리 사와 '깨끗한 집'에서 키웠다. 그리고 돼지가 아니라 높여서 '거멩이'라고 불렀다. 거멩이 키우는 집에는 임신부나 상주조차 얼씬거리지 않았다. 부정 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멩이는 며칠씩 밥도 거른 채 누웠다고 한다.

제관이 어떤 돼지를 깨끗하다고 판단하여 제수로 쓰기로 결정하면 돼지 주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선히 내놓아야 한다. 돼지가 아까워서 내주기를 주저하거나 심지어 거부한다면 당신(堂神)의 노여움을 사 돼지가 급사(急死)하는 것은 물론 주인에게도 해(害)가 된다고 믿었다.

돼지는 소의 경우와 달리 도살(屠殺)하는 과정에서 비명이 클수록 산신이 흠향(歆饗)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돼지를 산에 끌고 올라가 산 채로 목을 따서 잡기도 한다. 산신당 옆에서 돼지 잡는 일이 불경(不敬)하다고 여긴다면 산신당 앞에서만 소리를 내게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칼로 목을 찔러 잡는다.

마을에 따라서는 도살하는 장소도 일정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돼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새울마을 동화제
2005.2.21, 국립민속박물관

다. 제당 주변에는 희생동물을 도살하는 종교적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바로 옆에는 샘이나 도랑이 있어 도살과 해체 과정에서 필요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곳에서 죽인 돼지는 신령에게 바치기에 더욱 깨끗하다고 여긴다. 제관에게 이끌려 온 돼지도 이곳에 도착하면 순순히 죽을 준비를 하며 도살할 장소에 우뚝 서 있는다고 한다.

도살 전에 제관들이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하는 것은 어느 마을에서나 보편적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도살을 맡은 제관을 따로 뽑는다. 도살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를 본 제관에게 다른 제수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돼지 도살에 관한 하나의 사례로 경북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 산제의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돼지 도살 방식은 다른 지역도 거의 유사하다.

"가마솥의 물이 끓기 시작하자 묶여 있는 돼지를 반석(盤石) 위에 올려놓고 잡을 준비를 한다. 먼저 손도끼로 머리를 몇 차례 두들기자 돼지는 아주 큰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목을 칼로 찔러서 세숫대야에 피를 받은 다음 옆에 둔다. 이 피는 제의에 사용하지 않고 상당, 중당, 하당의 제의를 마친 뒤 제관들이 음복할 때 먹는다. 돼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면 뜨거운 물을 돼지에 부으면서 하얀 살결이 드러나도록 깨끗이 털을 깎아낸다. 이것을 '퇴(退)한다'라고 한다. 퇴한 돼지의 배를 칼로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낸 뒤에 머리부터 칼과 도끼로 떼어낸다. 내장은 제의에 올리지 않고 제관들이 음복할 때 사용한다. 돼지를 열각으로 나눈 뒤에 고기의 등심 부분, 간, 허파, 염통, 콩팥, 지라를 각각 오등분하여 다섯 개의 그릇에 나누어 담아서 흰 종이로 덮어 둔다. 열각으로 떼어낸 고기는 반석 위에 둔 채 내장을 손질한다. 돼지고기의 모든 손질이 끝나면 물이 끓는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삶는다. 돼지를 장만하는 동안에는 필요한 말 외에는 일절 말하지 않는다."

어떤 마을은 피 묻은 돼지고기는 당에 올리지 않는다 하여 미지근한 물에 핏기를 가신 다음에 올리거나 또는 내장만 빼고 삶지 않은 통돼지를 올리기도 한다. 돼지머리만 제수로 쓸 때에는 식칼을 돼지의 이마 부위에 꽂아 놓기도 한다.

각종 동제에서 돼지는 마을 신령에게 바쳐지는 최고의 제물이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돼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돼지의 구매 및 확보, 도살 태도와 방식, 육고기의 해체 과정, 진설 절차 등에 수많은 원칙과 금기가 성립되고 인정된다. 평소 고기 맛에 굶주렸고 육류 섭취를 통한 단백질 공급이 어렵던 시기에는 제수로 올린 돼지가 동제를 최고의 음식잔치로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동제를 기다린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볏짚이나 종이에 싸서 노인들에게 보낸 봉송(封送)은 동제와 돼지의 상관성을 잘 나타내 준다.

참고문헌 **고군산열도의 굿**(서홍관, 님민, 전북종합문화지, 지양사, 1985), **마을공간부담과 당고사**(이기태, 비교민속학 3, 비교민속학회, 1988),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필자 **이필영(李弼泳)**

둑제당

정의 해안 및 큰 하천, 저수지 가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홍수 등으로 제방이 무너져 입는 수재를 막던 제당.

형태 수문지나 잘 터지는 제방에 임시 제당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신(水神)'이라 새긴 돌을 세워 놓기도 한다.

내용 둑제당은 하천 및 저수지, 해안 제방의 유실이 큰 곳에 위치한다. 해신(海神)·용왕신(龍王神)·하천신(河川神)·독신(瀆神, 나루터의 수신) 등으로도 불리는 수신(水神)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량(水量)에 대한 인간의 희구(希求)를 기원하며, 하천의 경우 격자상(擊刺象)·직각상(直角象) 제방에 많이 위치한다.

대개 하천의 상류 지역은 소규모로 개인 제의가 이루어지고, 중·하류 지역은 지역 주민공동체의 어려움이기에 지역공동제의가 이루어진다. 유수는 침식·운반·퇴적 작용을 수행하면서 지형의 변화를 가져와 인간생활에 많은 고통을 준다. 한편 하천은 직류하천, 곡류하천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자유곡류하천의 제방이 많이 터져 각종 수해를 일으켜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이런 곳에 둑제당이 위치하게 된다. 대개 원둑제당, 수신제당, 둑제당 등으로 불리는 둑제당에는 관개용수나 수난방지 신을 모신다. 사람들은 이 신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공물(供物)을 바쳐 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도 하였다. 하천의 상류 지역에서는 소규모 하천으로 공격 사면에 고질적인 피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손실은 소량이지만 연초 세시행사로 정월 열나흗날에 뱀과 같은 뾰족한 잡귀들이 둑을 터지게 하지 말라고 범벅이나 떡시루, 청수를 떠 놓고 개인적으로 제의가 이루어진다. 사행천인 중·하류 지역에서는 곡류 지점에서 마을공동제의로 나타난다. 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덕방죽 여수터나 보령시 대천동 새터마을에서는 원둑제, 제방제, 수신제 등 명칭으로 수리계 주관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공동 제의가 이루어졌다.

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덕방죽 둑제는 매년 음력 칠월 용날(진일)에 여섯 개 마을 합덕연제수리계 주관으로 방죽 제방 위에서 몽리 경작자 대표와 수리계장, 이사 등 주민 100여 명이 모여 돼지머리·삼색실과·술·포 등 제물을 차려 놓고 제방이 견고하기를 기원하였다. 삽교천변인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국사당 보제(洑祭)는 수리계에서 복감관, 복소임을 선출해 음력 이월에 국사당 보를 설치한 노씨할머니를 모시고 수신제를 지낸다.

충남 보령시 대천동 새터마을 수신제는 침수 고통을 방비하기 위해 대천천변 사이 아름드리 미루나무 네 그루 앞에서 '농자천하지대본'기를 임시천막 제당 앞에 꽂고 밤 12시 오방의 신과 하해산천 도로의 신령님께 축문을 읽으며 유교식 제의를 가졌다. 축문은 "오방지신과 도로지신에게 고하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오서산 기슭 서쪽 해변 대천 위 큰 도로가에 신평(新坪)이 있으니 마을거리에도 신이 있어 한 마을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가가호호마다 생장에 안호하고 남녀노소가 아버지는 사랑하고 아들은 효도함이 오직 신령님이 보호하심이요. 질병이 없고 화재가 없으며 농사 풍부히 생산하여 각각 그 힘으로 먹으며,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며, 남자는 밭을 가꾸고, 풍년 들어 오곡이 잘 여물며 풍액과 충재가 없고, 천택(川澤)에 관개가 잘 이루며, 수마의 재해가 없게 하고 마을에 모든 일이 순조로우며, 변사가 없으며, 관재를 소거(消去)하고 길신이 입문하며, 자녀의 길사가 많으며, 도깨비가 침범치 못하게 하며, 전염병이 들지 못하게 하며, 도적을 없애고 맹수를 멀리 쫓으며, 우마개견 육축을 번성케 하고 백사를 뜻과 같이하며, 가호에 인구를 더하고 일촌이 태평케 하며 세화하고 풍년함이 오직 신령님이 보우하사 축문과 같이 누리며, 제물은 박하고 성의는 천약(淺弱)하나 소망하는 것은 크니 신령이시어 묵묵히 도우시고 여러 가지를 흠향하시고 응감하소서" 하는 내용으로 수마, 풍해, 충해, 천택의 관개 등 수해를 막고 풍농을 기원하고 재액을 막는 제의였다.

또한 간척지에도 둑제당이 곳곳에 있었다.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 해안 간척지에서 1936년경에 둑을 막아 염전을 함에 있어 해일에 둑이 터지지 말라고 정월 대보름날 떡, 술, 포를 둑의 수문통에 놓고 매년 둑제를 지냈다.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송암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천수만 간척사업이 진행되었고, 간척지가 조성된 이후 제방 수문 앞에서 마을공동제의로 수신제가 1970년대 이후까지 이루어졌다. 수신제당은 수신(水神)이라 쓴 선돌 앞에서 수리계 주관으로 제의를 치렀다. 보령 지역은 간척지마다 농지계량조합에서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신제를 지내게 하였다. 이처럼 큰 하천을 끼고 있는 농경지 둑이나 방죽 둑과 간척사업, 염전 등 간척지 제방에서 제의가 있었다.

둑제당은 자유곡류하천에서 홍수 등으로 큰 피해를 보는 중·하류 지역 하천 제방에 분포하며, 간척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간척지 제방에서도 수리계 등을 중심으로 해일이 일어났을 때 둑이 터지지 말게 해 달라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당진의 민간신앙**(이인화, 당진문화원, 1996), **보령의 지명 상**(보령시, 1998), **자연지리조사법**(박희두, 교학연구사, 1998), **충남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이인화, 민속원, 2006), **흑산 사람들의 삶과 민간신앙–생계활동·당제·수산의례의 현 양상**(조경만, 도서문화 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8).

필자 **이인화(李仁和)**

디딜방아

정의 마을의 액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주술적 도구.

내용 디딜방아는 절구에서 나왔다. 흔히 절구는 손방아, 디딜방아는 발방아라고 일컫는다. 디딜방아는 벼농사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디딜방아는 중국 한나라 초기에 등장하여 우리나라는 4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디딜방아는 외다리방아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개량하여 두다리방아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민속이 만들어졌다. 디딜방아를 만들고 나서 흔히 몸체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 조작'이라고 쓰기도 한다. 액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또한 디딜방아는 민요의 주요 재료가 되었다.

디딜방아 민속신앙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조사 내용이 일부 차이를 보인다. 때로는 상충된 내용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상충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디딜방아는 주술적으로도 사용되는데 그중 하나가 액막이 의례이다. 천연두, 홍역 같은 돌림병이 돌면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그 대책 가운데 하나가 다른 마을의 디딜방아를 한밤중에 몰래 훔쳐 와서 제사를 올리는 일이다. 이 주술적 액막이 의례는 대개 195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행하여졌다. 오늘날 이 놀이는 전라도 일원에서 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충청도 지역에서도 전승되고 있다.

우선 부녀자들은 어느 마을에서 디딜방아를 훔쳐올 것인지를 논의한다. 어느 마을에 크고 좋은 디딜방아가 있는지, 또는 어느 마을의 것을 비교적 쉽게 훔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간혹 마을의 여러 일을 단골처럼 보아 주는 무당이 "언제 어느 방위의 마을에서 훔쳐 와야 효험이 있다"고 일러주기도 한다. 다음에는 누가 훔치러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대개는 기운이 센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20~30명으로 구성한다. 때로는 남자들이 일부 포함되기도 한다.

디딜방아를 훔치러 떠날 때 부녀자들은 하얀 소복을 갖추어 입고 상여를 준비하기도 하고, 솥뚜껑을 머리에 이고 숨을 죽이며 갔다. 반드시 소복을 입거나 상여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디딜방아는 한밤중에 몰래 훔쳐 오는데, 어떤 때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서 싸우거나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돌림병을 막기 위한 '뱅이(주술적인 방어의례)'에 쓴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순순히 내주는 경우도 많았다. 어쨌든 그 마을 어귀를 무사히 빠져 나오면 그곳 사람들도 더 이상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였다.

훔친 디딜방아는 상여 위에 놓고, 그 위에 흰 광목천을 덮어서 마치 죽은 시신을 모시듯 한다. 디딜방아를 훔치는 것은 다른 마을의 여자 시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자기 마을로 돌아올 때는 소복을 입은 여인네들이 상여소리와 함께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거나 또는 "어홍! 어홍!" 하고 호랑이 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돌림병의 종류에 따라서 "홍역 물리자! 홍역 물리자!" 하면서 돌아오기도 하였다. 전남에서는 축원가를 부르며 돌아오면서 마을의 남성들에게 자신들의 역량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훔쳐 온 디딜방아는 마을 어귀나 마을 앞의 삼거리에 거꾸로 세워 놓고 금줄을 두르고 제상을 차려 제사를 모신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며 한바탕 흥겹게 논다. 여기저기에서 아낙네들은 벗은 속곳이나 준비해 온 속곳을 디딜방아의 Y 자형으로 벌어진 곳에 감기도 하고, 금줄 사이사이에 끼우기도 한다.

디딜방아
강원 삼척시 이천리
2009.5.2, 이한길

특히 경도혈이 묻은 속곳을 걸어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더욱 정성이 지극한 아낙네들은 자신의 속곳을 가지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다른 집의 대문에서 나뭇조각을 조금씩 떼어내기도 하고, 다른 집 흙을 속곳에다 문질러서 디딜방아에 걸기도 한다. 이런 속곳은 매우 효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고는 팥죽을 쑤어서 속곳과 디딜방아에 뿌렸다. 이렇게 하면 돌림병이 마을로 들어오다가도 디딜방아에 걸린 경도혈 묻은 속곳을 보고, "이 마을은 더러워서 못 쓰겠다" 하고 도망간다는 것이다. 디딜방아가 더러우면 돌림병이 물러나고, 깨끗하면 더 덤빈다는 말도 전해 온다.

디딜방아 액막이놀이는 주로 호남의 동부 산간지대에서 행해졌는데, 정월대보름에 당산제가 끝나면 여성들이 인근 마을에 디딜방아를 훔치러 갔다가 성공하여 돌아온 후에는 신명나게 풍물놀이를 하였다.

훔쳐 온 디딜방아는 '뱅이'를 끝낸 후에 돌려주기도 하였다. 이때 방아를 잃어버렸던 마을에서는 금방 찾아오면 그 마을의 액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 하여 몇 달 후나 한 해를 지낸 다음에 찾아갔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로 되찾아간 마을도 있었다. 또한 훔쳐 온 디딜방아는 자칫 잘못하면 부정을 탄다 하여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워 둔 자리에서 썩어 없어지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의 주민들은 이웃 마을에 돌림병이 들어오면 물레방아의 공이만을 뽑아다가 붉은 흙칠을 한 다음 마을 어귀에 거꾸로 박아 두었다. 훔쳐 왔던 디딜방아는 정월이 지나면 돌려주지만,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에서는 개울에 다리를 놓는 데 사용했다.

이와 같은 액막이 의례는 학자에 따라 액막이놀이, 액막이굿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디딜방아로 액을 막는 민속은 2000년 민속예술로도 탈바꿈하여 운곡대보름액막이굿(전남)이 대통령상을, 부남방앗거리놀이(전북)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지역사례 디딜방아 액막이 의례와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순군의 양촌과 용호에서는 여자들이 훔친 디딜방아를 남자들이 메고 오기도 한다. 디딜방아가 무거워서 여자들이 운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강진군 덕동마을은 아예 남자들이 직접 디딜방아를 훔쳐 온다. 전승 주체가 여자에서 남자로 변경된 것이다. 디딜방아는 보통 이웃 마을에서 훔쳐 오는데, 거리가 멀수록 효력이 크다고 믿기도 한다. 화순군 용호마을은 담양군에서, 진안군 종평마을은 장수군에서 훔쳐 온다.

디딜방아를 세우는 위치는 마을 어귀인데, 이곳은 장승을 세워 악귀와 역병을 막는 곳으로서, 디딜방아에서 한시적으로 장승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 디딜방아를 하나같이 거꾸로 세우고 윗부분에 여자의 속곳을 거꾸로 씌우는데,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는 밀대모자까지 씌워서 의인화하기도 한다. 속곳은 월경이 묻은 것이 주력이 강하다고 한다. 월경이 묻은 속곳이 없으면 황토를 칠하거나 붉은 물감을 칠하기도 한다.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울 때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경북 상주시 은척면에서는 이웃 마을에 돌림병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면, 여럿이 다른 마을에 몰래 가서 방아를 훔쳐 가지고 "어이어이" 곡소리를 내며 돌아온다. 방아는 마을 어귀에 다리가 위로 향하도록 세우고, 장가를 세 번 간 사람의 아내 속곳을 걸어 둔다. 이렇게 하면 돌림병이 더럽게 여겨서 달아난다는 것이다. 충남 아산시 온양에서는 여자들이 나서서 훔쳐 온다. 방아 가랑이에 개의 피를 바르고 주위에 왼새끼를 두른 다음 전나무 가지를 꽂아 둔다. 또 아낙네 단속곳을 방아머리에 씌우면서 "네가 여기에 와 있었구나" 하고 읊조린다. 1940년쯤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에서도 열병이 돌자 여자들이 이웃 마을의 디딜방아를 뽑아다가 서낭당 옆에 세웠다. 여자들이 훔친 방아를 메고 돌 때 남자들은 절대로 내다보지 않는다.

여자로 꾸민 남자들이 방아를 훔쳐 오는 고장도 있다. 돌림병의 귀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가리기도 한다. 여성은 디딜방아에 잠방이를 씌워서 세우고, 남성은 여자를 상징하는 짚신이나 수박 또는 호박을 잘라 문전에 달아맨다.

디딜방아는 또 기우제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를 '디딜방아 매기'라고도 불렀다. 가뭄이 계속되면 마을 부녀자들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강 상류의 마을에서 방아를 메고 와서 이것을 거꾸로 세워 두고 '장례식'을 치른다. 우선 디딜방아를 훔칠 집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훔칠 집으로는 삼대가 함께 살고 있는 집, 삼대가 함께 살던 집,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아나 또는 개인 방아를 갖고 있는 집을 조건으로 결정하며, 도둑맞는 집은 대개 정해

져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부녀자들 중에서 남장을 한 상주와 선두에서 만가를 부를 사람을 정한다.

부인들은 장례식에서 하듯이 흰 옷에 흰 수건을 두르고 방아를 훔치러 간다. 도둑을 맞는 집 주인은 간섭할 수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또는 큰 재앙을 만나서 몰락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단 도둑을 맞는 집 주부가 방아 곁에서 장례식을 하듯이 곡을 하면 그 방아의 효험이 사라진다고 한다. 방아를 내오면 확(방아에서 움푹 파인 곳)에다 물을 가득 채워 둔다. 훔친 디딜방아를 운반하려면 방아머리 부분에 기름을 짠 천을 씌운 뒤 새끼줄로 디딜방아를 7곳으로 묶고, 그곳에 금줄처럼 한지를 끼운다. 그런 다음 창호지로 싸서 새끼줄로 디딜방아를 묶고 손잡이를 7개 만든다. 또 병에 물을 넣고 솔잎으로 입구를 막아 디딜방아에 매달아 두는데, 그렇게 하면 메고 올 때 물방울이 떨어진다. 운반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음과 같다.

오호 방아야 이 방아를 메고
오호 방아야 서둘러 떠나자꾸나
오호 방아야 이 방아를 멨더니
오호 방아야 모래가 떨어졌다네
오호 방아야 남편이 오면
오호 방아야 좋은 일이 있다네
오호 방아야 여자들이 많지만 진심을 담아서
오호 방아야 오도산에서 물을 얻어온다

그런 다음 운반해 온 방아를 세우는데, 세우는 장소는 항상 강 나루터로 정해져 있다. 세울 때는 구멍을 파서 방아의 머리 부분이 땅에 묻히도록 거꾸로 박는다. 그것이 끝나면 참가한 부인들 가운데 월경 중인 사람이 피가 묻은 속곳을 벗어서 디딜방아의 공이에 걸쳐 놓고 비가 오기를 기원한다. 3일 이내에 비가 와서 디딜방아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3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디딜방아와 속곳은 비에 떠내려갈 때까지 내버려 둔다.

경남 합천군과 산청군은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부녀자들이 이웃 마을의 디딜방아를 훔쳐다가 강이나 모래사장에 거꾸로 세운다. 이것을 방아매기(매기는 막이의 사투리)라 한다. 합천군 봉산면에서는 주인 몰래 옮겨온 방아를 앞산 높은 곳에 세우고 돼지를 잡아 고사를 지냈다. 또 방아가 마을 앞을 지날 때 사람들이 방아에 대고 "비가 내리게 해주소서"라고 축원하며 절을 하였다. 이 풍속은 가뭄을 돌림병과 한 가지로 보았다. 그리고 디딜방아의 가랑이를 여성의 음부로 여기는 생각과 관련이 있다.

디딜방아는 액막이와 기우제 외에도 사용되었다. 디딜방아로 병을 고치기도 하였다. 경북 상주에서는 귓병이 생겼을 때 귀지를 후벼서 쌀개에 넣고 찧는다. 쌀개에 낀 귀지가 가루가 되듯이 병도 그렇게 없어진다는 유감주술이다. 또 정월대보름 찰밥을 얻어다가 디딜방앗간에서 먹으면 버짐이 없어진다고 믿었다. 정월대보름 아침에 아이들이 조리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거둔 다음 디딜방앗간에서 먹었다. 이렇게 하면 일년 내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에서는 못 쓰게 된 방아일지라도 불에 태우거나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한다. 함부로 굴리면 방아귀신이 들러붙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딜방아와 관련한 민속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금산의 마을공동체 신앙**(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0), **기우제와 지역사회**(임장혁, 민속원, 1999), **남도민속의 이해**(표인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디딜방아액막이굿의 주술성과 오락화현상**(박진태, 비교민속학 31, 비교민속학회, 2006), **디딜방아연구**(김광언, 지식산업사, 2001),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김의숙, 집문당, 1993).

필자 **이한길(李漢吉)**

디딜방아뱅이

정의 마을의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고 일부 청년들이 합세하여 이웃 마을에서 훔쳐 온 디딜방아를 가지고 여러 목적의 뱅이를 하는 풍습. 디딜방아를 마을 어귀에 거꾸로 세워 놓고 여기에 월경혈이 묻은 여자 속곳을 걸어 놓고 팥죽도 뿌리고 풍장을 울리면서 부녀자들이 제사를 올린다. 돌림병을 막기 위한 뱅이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호남과 영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초의 마을 액막이나 하지가 지난 뒤 기우제 목적으로도 디딜방아뱅이를 했다.

내용 천연두나 홍역 같은 돌림병이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하여 마을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마을의 디딜방아를 한밤에 몰래 훔쳐 와서 뱅이를 하던 풍습이 있었다. 뱅이는 돌림병의 전염을 차단한다는 주술적 방법이다. 이 액막이 의례는 대개 195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우선 부녀자들은 어느 마을에서 디딜방아를 훔쳐 올 것인지 논의한다. 인근의 어느 마을에 크고 좋은 디딜방아가 있는지, 어느 마을의 것을 비교적 쉽게 훔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간혹 마을의 여러 일을 단골처럼 보아 주는 무당이 있으면 그에게 무꾸리를 한다. 무당은 언제 어느 방위의 마을에서 훔쳐 와야 효험이 있다고 충고하기도 한다. 다음에는 누가 훔치러 갈 것인지 결정한다. 대개는 기운이 센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남정네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디딜방아를 훔치러 떠날 때 부녀자들은 하얀 소복을 갖추어 입고, 상여를 준비한 뒤 솥뚜껑을 머리에 이고 숨을 죽이며 간다. 디딜방아는 한밤중에 몰래 훔쳐 오는데 어떤 때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서 싸우기도 하고,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돌림병을 막기 위한 뱅이에 쓴다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순순히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디딜방아를 훔쳐서 그 마을을 무사히 빠져나오면 그 마을 사람들도 반환을 요구하지 못했다. 훔친 디딜방아를 상여 위에 놓고, 그 위에 흰 광목천을 덮어서 마치 주검을 모시는 듯이 한다. 디딜방아를 훔치는 것은 다른 마을의 죽은 여자를 가지고 오는 것을 뜻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올 때에는 소복을 입은 여인네들이 상여 소리와 함께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흉내를 내며 가지고 오기도 하며, '어흥! 어흥!' 하며 호랑이 소리를 내며 오기도 했다. 그리고 돌림병의 종류에 따라 '홍역 물리자! 홍역 물리자!'라고 외치면서 돌아오기도 했다.

훔쳐 온 디딜방아는 마을 어귀나 마을 앞의 삼거리에 거꾸로 세워 놓은 다음 금줄을 두르고 제상을 차려 제사를 모신다. 이때 풍물을 치며 마을 사람들은 한바탕 논다. 여기저기서 아낙네들은 속곳을 벗거나 준비해 온 속곳을 디딜방아의 Y 자형으로 벌어진 곳에 걸기도 하고, 금줄 사이사이에 끼우기도 한다. 특히 월경혈이 묻은 속곳을 걸어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정성이 더욱 지극한 아낙네들은 자신의 속곳을 가지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다른 집 대문의 나무 조각을 조금씩 떼어내기도 하고, 다른 집의 흙을 속곳에다 문지르고 다니면서 그 속곳을 디딜방아에 건다. 이런 속곳은 매우 효험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팥죽 쑤어 속곳과 디딜방아에 뿌린다.

이렇게 하면 돌림병이 마을로 들어오다가도 디딜방아에 피 묻은 속곳을 보고 "이 마을은 더러워서 못 쓰겠다"하고 도망을 간다고 여긴다. 디딜방아가 더러우면 돌림병은 물러나고, 깨끗하면 더 덤빈다는 말도 전해진다.

훔쳐 온 디딜방아는 '뱅이'를 끝내고 나서 돌려주기도 했다. 금방 찾아가면 그 마을의 액을 함께 가져간다 하여 보통 도둑 당한 마을에서는 몇 달 뒤에나 한 해를 걸러서야 찾아가기도 했다. 또한 훔쳐 온 디딜방아는 자칫 잘못하면 부정을 탄다 하여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 그냥 세워 둔 자리에서 썩어 없어지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이처럼 외관상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들 의례에

디딜방아뱅이 국립민속박물관

디딜방아

디딜방아 훔쳐오기

디딜방아 거꾸로 세우기

속곳 걸기

는 나름대로의 민속적 논리가 있다. 먼저 자기 마을에도 디딜방아가 있음에도 다른 마을에서 훔쳐 온 디딜방아가 뱅이에 효험이 있다는 생각이 주목된다. 미꾸라지 뱅이를 할 때에도 다른 마을의 미꾸라지가 더욱 영험하다고 한다. 개구리 뱅이나 닭 뱅이 등도 마찬가지다. 자기 것이 아닌 다른 마을의 것에 한층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더욱이 훔쳐낸 것이기에 더욱 주술적 능력이 있다고도 여긴다. 대개의 경우 디딜방아 도난으로 인하여 두 마을 사이에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허락된 도둑질'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을의 것은 다른 마을의 돌림병 뱅이를 위하여 역시 '허락된 도둑질'로 제공된다.

훔쳐 온 디딜방아는 두 가지 상징성을 지닌다. 간혹 디딜방아를 가지러 가거나 훔쳐 올 때, 상복인 소복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소리를 낸다든지, 상여가 나가는 것처럼 디딜방아를 옮기는 모습은 디딜방아 자체를 마치 시신처럼 간주하는 행위로 보인다. 이는 누군가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더 이상의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심리일 수 있다. 디딜방아를 여성의 가랑이로 비유하는 듯한 의례 모습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디딜방아에서 발을 디디는 Y 자형 부분은 여성의 가랑이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러운 여자 속곳을 씌우고 더욱이 팥죽을 뿌리는 것은 디딜방아를 생리 중의 여성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생리 중의 여성은 민속상 부정한 것이며, 이러한 부정을 마을 어귀에 설치함으로써 다른 액이나 질병이 들어올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강한 부정으로서 다른 부정을 막아낸다는 발상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디딜방아액막이는 마을이 예기치 않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디딜방아를 훔쳐 오고, 그것을 마을 어귀에 거꾸로 세워 풍장을 치며 제사를 올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돌림병의 재난을 재인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 보려는 집단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며 과시해 보이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려 돌림병을 막기 위한 의례를 거행했기에 자신의 마을에는 돌림병이 침입하지 못할 것 같은 안도감도 갖게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예상되는 마을의 재난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난산으로 죽음의 위기에 선 임산부를 위하여, 우물의 돌멩이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집안의 모든 장롱 문을 열어 놓는다든지, 쥐구멍을 뚫어 놓는다든지 하는 법석을 떠는 심리 상태와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이처럼 비상시에 임시로 벌어지는 디딜방아뱅이는 마을 사람들의 위기감을 완화하고, 마을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난관을 헤쳐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곧 사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함께 걱정을 나누며,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지를 강하게 다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디딜방아뱅이는 돌림병 예방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음력 정초에 마을의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해서도 했다. 전남 순천 지역에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액막이 디딜방아를 이웃 마을로 훔치러 간다. 디딜방아를 훔쳐서 이미 어깨에 메면 상대방 마을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부녀자들은 사물을 치고 디딜방아 노래를 부르면서 마을로 돌아온다. 부녀자들은 한데 모여 각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도구방아를 찧으면서 한바탕 논다. 밤이 깊어가면 디딜방아를 거꾸로 하여 마을 어귀에 세워 놓는다. 여기서는 깨끗한 과부의 속곳을 걸어 놓는다. 부녀자들은 디딜방아 주변을 돌면서 강강술래를 하고 외줄을 메고 논다. 나중에 외줄은 디딜방아에 감아 놓는다. 이렇게 하면 마을의 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할 때 디딜방아 기우제를 지냈다. 경남 합천 지역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문헌 디딜방아액막이(최덕원, 남도민속고, 삼성출판사, 1990),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필자 이필영(李弼泳)

뒤주대왕

표제어 사도세자(400쪽)

떡

정의 곡식가루를 시루에 안쳐 쪄서 만든 증병(蒸餠), 시루에 찐 다음 안반에 놓고 쳐서 만든 도병(搗餠), 소댕에 지져서 만든 전병(煎餠), 가루를 반죽하여 빚어 모양을 만들어서 삶아 건져 고물을 묻힌 경단류 등의 총칭.

내용 함북 회령군 오동과 나진시 초도 패총 등지 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시루를 미루어 볼 때 초기의 시루떡은 시루에 곡물을 담아 찐 지에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의 시루는 다분히 예기(禮器)로서 매일매일 상용된 조리기구가 아니라 찜기이자 제기인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초기의 논벼 보급과 확산에 따라 쌀이 증산되고 시루 등 경질토기도 널리 보급되었다. 시루떡이 민중 속에 확산되어 보급된 것도 이때쯤이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시루는 지배계층의 전용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떡 형태인 지에밥에 이어 등장한 것이 시루에 쌀가루를 넣어 찐 백설기 형태인 것으로 추측된다. 팥의 전래에 따라 팥고물을 사용한 시루떡도 생겨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떡은 가장 귀한 제사 음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민중과 함께 살아온 역사적 산물이다. 떡과 관련된 다음의 전래 속담은 이를 반영한다.

> 귀신도 떡 하나로 쫓는다.
> 귀신 떡 먹듯 한다.
> 귀신에게 비는 데는 시루떡이 제일이다.
> 귀신은 떡으로 사귀고 사람은 정으로 사귄다.
> 떡 본 귀신이다.
>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 떡 없는 제사에 절만 한다.
> 떡이 있어야 굿도 한다.
> 떡이 있어야 제사도 지낸다.
> 제사 떡도 커야 귀신이 좋아한다.
> 서낭당 떡을 먹으면 재수가 있다.
> 떡시루번을 먹으면 허리가 아프질 않다.
> 떡시루 김이 오르기 전에 남이 들어서면 떡이 선다.
> 떡 찌다가 뒷간에 갔다 오면 부정탄다.

제사와 떡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귀신에게 공양하는 떡은 정(淨)하게 다루어야 복(福)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작은 사당이나 동신(洞神)나무 · 동신바위 같은 마을의 성스러운 장소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행하는 마을제는 동제(洞祭), 동신제(洞神祭), 산신제, 산천제, 당제(堂祭), 당산제, 서낭제[城隍祭], 거리제, 길신제, 장생제(長柱祭), 부군제(府君祭), 목신제(木神祭), 천제, 대동치성(大同致誠), 대동신사, 산제, 별신굿, 도당굿, 당굿 등으로 마을마다 다르게 부른다. 마을제의 명칭이 다른 것은 마을마다 각각 모시는 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격에 따른 제사 방법이나 제사 음식도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액막이, 살맥이, 수구맥이, 수살맥이라는 명칭이 마을제에서 등장하는 것은 살기(殺氣)나 흉재(凶災)의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마을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의 재액을 몰아내고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기도하는 데에 있다.

마을제는 대개 두 부류이다.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택된 남자 제관을 주재자(主祭者)로 하는 제례 형태와 마을에서 뽑힌 남자 제관이 주재자이면서도 직업 무당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대개 전자는 동제라 부르는 소제(小祭)이다. 후자는 당굿, 도당굿, 별신굿 등으로 불리는 대제(大祭)이다. 소제에서 주재자는 집안에 출산이나 사망 등 부정(不淨)이 없고 덕망이 있는 나이든 정인(淨人) 남자가 선택된다. 여자는 부정(不淨)하다고 여겨 참여하지 못한다. 남자에 의하여 주관되는 경우 대개는 유교 형식의 의례 절차를 행한다. 모시는 신도 산신, 용신 등 같은 상위의 신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대재인 때에는 사방천왕, 군웅, 별성, 장헌세자, 산신, 용신, 최영장군, 가망, 칠성신, 삼불제석, 서낭신, 서낭부인, 용왕, 용왕부인, 천연두귀신 등 다양한 복수의 신을 섬기게 된다. 신에 따라 올리는 제사 음식도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떡도 예외가 아니다.

붉은팥시루떡 충분히 물에 불려 가루로 빻아 고운 체에 내린 멥쌀가루에 붉은팥을 고물로 하여 켜켜로 안쳐서 찐, 잡귀에게 먹여 보내는 대표적인 떡이다. 잘 씻은 팥에 물을 넉넉히 붓고 속까지 무르게 익도록 삶아서 뜨거울 때 절구에 쏟아 대강 찧어 어레미에 내려 팥고물을 만든다. 시루밑을 깐 시루에 팥고물을 골고루 뿌리고 물 내린 떡가루를 4㎝ 정도의 두께로 안친 다음 위에 팥고물을 고루 얹는다. 이어서 떡가루 · 팥고물 순으로 반복하여 안치고 맨 위에 팥고물을 뿌려

서 베보자기로 덮은 다음 물이 끓는 솥에 시루를 얹어 30분 정도 쪄낸다.

중국 남조(南朝)인 양(梁, 502~557) 시기의 종름이 저술한 『형초세시기』는 초(楚, 기원전 704~202) 문화를 계승한 중국의 남방 풍속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붉은팥으로 역귀(疫鬼)를 쫓는 붉은팥 민속의례가 기록되어 있다. 이 붉은팥 의례는 소두(小豆, 팥)의 원산지인 조엽수림지대에 속하는 남중국 강남에서 토착신앙에 음양오행사상의 적(赤)에 대한 신앙이 결합하여 기원했다는 보고도 있다.

조엽수림지대에 속하는 중국의 강남에서 한반도로 팥이 전래될 때 붉은팥 의례도 함께 수용되고, 이 수용된 의례 위에 불교와 유교사상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이중 구조의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이 논리로 보면 붉은팥시루떡이 잡귀를 물리치는 떡으로 된 역사는 팥의 전래 시기인 청동기시대 정도가 될 것이다.

백설기떡 충분히 물에 불려서 가루로 빻아 고운 체에 내린 멥쌀가루를 켜가 없이 찐 떡이다. 백설기 또는 흰무리라고도 한다. 순백색이어서 상위의 신인 천신, 산신, 용신에게 올려지는 대표적인 떡이다.

시루밑을 깐 시루에 물 내린 떡가루를 고루 펴서 담고 위를 평평하게 하여 베보자기로 덮은 다음 물이 끓고 있는 솥에 시루를 얹어 30분 정도 쪄낸다.

도작(稻作)농업과 권력자가 연계된 이후 주곡식으로 된 벼는 처음에는 화전인 밭에서 생산되었다. 이때의 밭벼는 논벼보다 지극히 소량이었는 데다 맛이 탁월하여 아주 귀한 상등의 곡류로서 대접받았다. 화전인 밭에서 생산된 소량의 벼는 각지(各地) 수장(首長)이 권위 계승을 위해 하늘의 신[天神]에게 바치는 의례적 상징음식으로 만들어져 올렸다. 현재에도 그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고 있다고 보는 은산별신제에서 '녹음이시루'라고 하여 백설기를 산신에게 시루째 올리는 모습이 보인다. 산신과 용신에게 백설기가 바쳐지는 것은 이들 신이 천신에 버금가는 깨끗한 신이라는 민중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백설기는 제사 음식 가운데 최상위의 제물이다.

거피팥시루떡 맷돌을 이용해 절반으로 타갠 거피(去皮)팥을 충분히 물에 불려서 손으로 여러 번 문질러 껍질을 깨끗이 없앤 다음 찜통에 담아 무르도록 푹 쪄낸 뒤 체에 내려 거피팥고물을 만든다. 시루밑을 깐 시루에 거피팥고물을 뿌리고 물 내린 떡가루(찹쌀 또는 멥쌀가루)를 4㎝ 정도 두께로 안치고는 위에 거피팥고물을 고루 얹는다. 이어서 떡가루, 거피팥고물 순으로 반복하여 안치고 맨 위에 거피팥고물을 뿌려서 베보자기로 덮은 다음 물이 끓고 있는 솥에 시루를 얹어 30분 정도 쪄내는 떡이다.

시루떡
대전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 국립민속박물관

이 떡은 흰 거피팥을 사용해 백설기 같은 순백색은 아니지만 흰색에 가까운 시루떡이라는 것이 붉은팥시루떡과 다른 점이다. 이에 따라 조상신, 별성, 군웅, 장헌세자, 최영 장군 등과 같은 산신보다는 하위의 신에게 올려지는 공물이 된다.

백병 증편, 백편, 절편, 계면떡 등으로도 불리는 백병은 충분히 물에 불려 가루로 빻아 고운 체에 내린 멥쌀가루를 쪄서 안반에 담아 끈기가 나도록 친 다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든 떡이다.

시루밑을 깐 시루에 물 내린 떡가루를 담아 베보자기로 덮고 물이 끓고 있는 솥에 시루를 얹어 30분 정도 쪄 낸 것을 안반에서 차지게 될 때까지 친다. 안반에서 치는 이유는 '절구질로 친 흰떡은 제사에 안 쓴다'는 속설에 따름이다. 이 차진 떡을 큰 도마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밀어 원통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백병(白餠)을 만든다.

백병은 대개 인절미와 함께 삼불제석, 십대왕 등 불가(佛家)와 인연이 있는 신들에게 바쳐진다. 백병이 시루떡보다 한 단계 높은 조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은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각종 공양에 올려진 정병(淨餠)을 무가사회에서 받아들여 마을제 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걸립승(乞粒僧)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립무당이 집집에서 걸립(乞粒)하여 만든 절편류를 계면떡이라 하여 계면떡을 먹으면 수명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믿었다. 속담에도 '굿 구경을 하려면 계면떡이 나오도록 하랬다'라고 하였다. '먹을 복이 있으면 우물가에서 백설기를 얻어 먹는다'고 하였듯이 용신에게는 백설기이지만 때로는 풍어제 때 용의 모양이 되도록 백병을 서리어 담아 용왕님께 올리는 용떡이 되기도 한다.

시루떡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2002.8.15 황헌만

인절미 충분히 물에 불린 찹쌀을 시루밑을 깐 시루에 담아 베보자기로 덮고 1시간 정도 속까지 무르게 찌면서 도중에 물을 뿌려 위와 아래를 고르게 섞는다. 잘 쪄진 찹쌀밥을 안반에 쏟아서 떡메로 밥알이 없어질 때까지 친다. 썻어서 잘 볶은 대두를 맷돌에 반으로 타개서 껍질을 까불리고는 절구에 넣고 곱게 빻아 고운 체에 내린 것이 콩가루고물이다. 넓은 도마에 콩가루고물을 고루 뿌려 놓고 이에 앞서 친 떡을 얹어 길게 막대 모양으로 빚어 위에도 콩가루를 고루 뿌려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대개는 방형) 다시 콩가루고물을 덧묻힌다. 인절미 역시 불가와 인연이 있는 신들에게 바쳐지는 떡이다. 때로는 부산 기장의 별신굿에서도 보여 주듯이 용떡이 되기도 한다.

인절미는 '평생 소원이 콩고물인절미다', '아닌 밤중에 웬 찰시루떡이냐'와 같은 속담에도 보인다. 은산별신제에서도 불가와 관계 있는 토진대사신에게 올리는 제물에서 멥쌀로 만든 절편류를 백편, 찹쌀로 만든 인절미류를 진편이라고 한다. 이는 백편보다 인절미를 더 귀하게 여겼음을 뜻한다. 진편은 한자로 '진병(眞餠)'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금까지 열거한 떡들은 모두 도작지대에서 산출되는 멥쌀 또는 찹쌀을 주재료로 하는 공물이다. 비도작 지대인 강원도나 제주도 등지에서는 메밀가루나 좁쌀가루 등으로 떡을 만들어 대체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메밀가루 또는 좁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글납작하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건진 다음 참기름으로 발라 만든 돌래떡이나 차좁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글납작하게 빚은 다음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삶아 건진 뒤 팥고물이나 콩고물을 묻혀 만든 오메기떡을 제상에 올리기도 한다.

참고문헌 荊楚歲時記(宗懍),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秋葉隆, 朝鮮印刷株式會社, 1938), **기장두모포풍어제**(김상보, 무 · 굿과음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은산별신제**(김상보, 무 · 굿과음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음식속담사전**(송재선, 동문선, 1998),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김상보, 광문각, 1997), **한국의 음식용어**(윤서석, 민음사, 1991).

필자 김상보(金尙寶)

띠배

정의 액을 막거나 풍어를 기원하여 짚이나 띠로 만들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작은 배.

내용 띠배는 띠, 짚, 나무합판, 참나무, 싸리나무 등으로 만들지만 지역에 따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스티로폼을 사용하기도 한다. 배 모양을 띠풀이나 짚으로 엮기도 하지만 바닥을 합판이나 스티로폼으로 만들고, 그 위에 짚을 엮어 올리기도 한다. 배 안에는 성기를 부각시킨 허수아비(제웅), 오방기, 한지깃발 등을 세우고 용왕굿이 끝난 뒤 제물이나 노잣돈을 꽂아 띄운다.

띠배는 풍어를 기원하면서 액막이의 일종으로 마을의 나쁜 액을 실어 바다에 띄어 보내는 것이다. 위도의 띠배나 서해안의 배연신굿은 풍어 기원보다는 액운의 신을 멀리 보내는 의미가 강하다. 흑산도 수리에서 허수아비를 배에 태워 보내는 것이나 제주 우도의 운세가 안 좋으면 굿을 하고 짚으로 배를 만들어 재액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사례 등이 유사하다. 배에 태워 보내는 성기를 크게 부각시킨 허수아비(제웅)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위도 띠배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글을 써서 보내기도 한다. 띠배는 지역에 따라 혼배, 퇴송배, 짚배, 시숫배, 배방송 등으로 불린다.

헛배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밤에 불을 밝히는 배를 말한다. 밤에 고기잡이 배의 길을 방해하거나 어장 주변을 배회한다. 이를 도깨비불, 도채비불이라고 한다. 헛배가 보이면 비가 오거나 사고가 발생하고 불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선장들은 조심한다. 선장이 피곤해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 생각해 대리선장에게 키를 맡기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선미에 칼을 꽂아 막음을 하기도 한다. 섣달그믐날 높은 산 위에서 바다 가운데의 도깨비불을 찾기도 했다. 도깨비들이 헛배로 좋은 어장을 알려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외에 액막이 기능을 하는 배로는 용배, 매생이배, 헛배, 법선 등이 있다. 용배는 용왕선이나 용선으로 불리는 종이배이다. 배의 형태에 용의 머리와 꼬리를 달아 만든 것으로 진도씻김굿, 강릉단오제, 법성포단오제 등의 무속의례에 나타난다. 매생이배는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작은 고기잡이 배이다. 1~2척 길이의 배 안에 촛불, 횃불, 종지 참기름불 등을 켜서 바다에 띄운다. 배를 띄우며 "매생아 매생아 금년 내 액운 다 가져가고 명과 복을 갖다주라"고 외친다. 헛배는 어촌지역의 도깨비불을 말하며 보이지 않는 배라는 뜻이다. 법선은 불교 색채가 강한 배이다. 연등에 불을 붙여 강물에 띄우는 배로 색종이로 만든다. 이는 불법이 중생을 물에서 구제하는 것을 배로 비유한 것이다.

띠배
충남 원산도 저두 앞 바다. 2006.2.12. 김준

띠배
전북 위도 대리 앞 바다. 2010.2.16. 김준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응진출판사, 1994), **위도띠배굿에서 보이는 띠배의 의미 고찰**(서종원,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김준(金準)**

제의

마당밟이
마을돌기
마제
마중시루
말축굿
망제
무주내창마을산제
무천
무후제
문경성저리동제
문경소야리동제

제의장소

미륵당

신격

마고할미
매당왕신
목축신
무주고혼

신체

모포줄
무안발산마을미륵당산

제물

메
메밀
목제남근

용어

마련방
망지

마고할미
마당밟이
마련방
마을돌기
마제
마중시루
말축굿
망제
망지
매당왕신
메
메밀
모포줄
목제남근
목축신
무안발산마을미륵당산
무주고혼
무주내창마을산제
무천
무후제
문경성저리동제
문경소야리동제
미륵당

마고할미

정의 태초에 이 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대지모신(大地母神) 성격의 여성거인.

내용 비루한 행색을 하고 등장하지만 몸집이 아주 크고 힘이 세 흙이나 돌을 옮겨 산이나 강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 행위를 하며, 바다나 산과 같은 자연물에 빗대어 자신의 거대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쌓다가 만 성이나 마고할미가 사용하던 자연물을 증거물로 남기는 형태로 전설화된 경향도 뚜렷하다. 태초에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신적 존재임에도 후대에는 강원도 삼척시의 서구암 마고할미처럼 악신으로 형상화되기도 하며, 명칭상 혼착이 생기면서 마귀할멈으로 인식되어 나쁜 행적을 일삼다가 징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마고할미는 구비설화를 통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면서 전승되는 여성거인신이다. 대체로 마고할미라는 명칭을 지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문대할망, 서해안의 개양할미, 강원도 삼척의 서구할미, 경상도 동부 지역의 안가닥할미 등이 여성거인신적 존재로서 그 행위나 성격이 마고할미와 동일한 지역적 변이형으로 파악된다.

지역사례 마고할미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당이 따로 존재하는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마고할미의 지역적 변이형으로 파악되는 개양할미가 전북 부안군의 수성당에서 어민들의 수호신으로 여덟 딸과 함께 모셔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당개 포구의 해신당에서 당신으로 섬겨지고, 일부 〈산신굿〉의 무가에 설문대할망에 대한 사설을 담고 있어 지역 신앙민들에게 신앙시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강진옥,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마고할미-여성 거인의 서글픈 창조의 몸짓**(권태효,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2, 휴머니스트, 2008),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 고찰**(송화섭, 민속학연구 22, 국립민속박물관, 2008), **천지창조의 거인설화**(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한국의 거인설화**(권태효, 역락, 2002).

필자 권태효(權泰孝)

마당밟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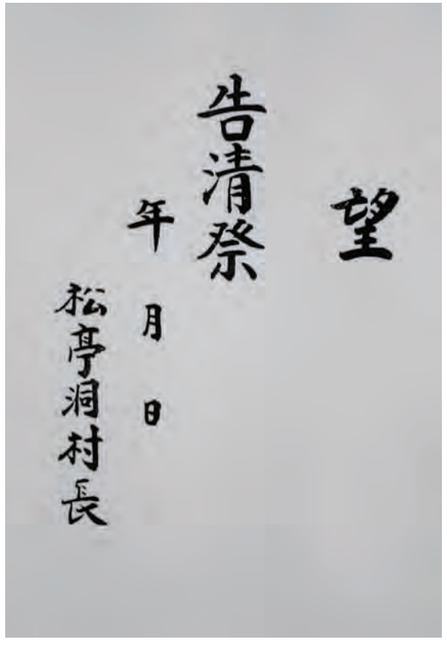
표제어 지신밟기(859쪽)

마련방(磨鍊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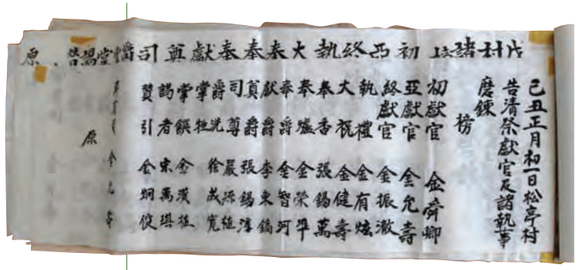
상호참조 망지(281쪽)

정의 제관 및 집사의 역할과 성명을 적어 놓은 종이.

내용 매년 마을 제의가 다가오면 마을에서는 회의를 열어 당해 연도 제관 및 집사들을 생기를 보아 선정한다. 제관 및 집사의 선정이 끝나면 해당자에게 이를 통보해 준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을 망(望)이라고 한다. 이때 망지(望紙)를 함께 보내 준다. 망지는 해당 마을의 촌수(村首, 또는 촌장)가 발령을 낸다. 망지는 강원도 동해안의 동해시 일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를 강릉시에서는 '망보지'라고 하기도



망지
강원 동해시 송정동
2009.4.6. 이한길



마련방
강원 동해시 송정동
2009.4.6. 이한길

한다.

망을 받은 이들을 한 장의 종이에 모아 놓은 것이 '마련방'이다. 이를 양양군에서는 '분방'이라고 부른다. 실제 제의가 진행되면 큰 마을에서는 마련방을 제당 근처에 걸어 놓기도 한다. 이를 간혹 생략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동해시 서낭제**(이한길, 민속원, 2010).

필자 이한길(李漢吉)

마을돌기

정의 동제 전후에 제관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앞세우고 마을을 한 바퀴 또는 수차례 순회함으로써 마을의 온갖 잡귀와 액을 몰아내는 의례. 이러한 종교 행렬은 동신(洞神)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제액(除厄)을 위한 '구제(驅除, expulsion) 행렬'의 뜻을 지닌다. 또한 마을돌기는 마을 어귀뿐만 아니라 마을의 외곽 둘레도 마을의 경계임을 상징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마을 안'을 '마을 밖'과 성속(聖俗)의 차원으로 대응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용 일부 지역과 마을에서는 동제를 전후하여 풍장패를 앞세우고 그 뒤를 제관들과 마을 사람들이 따라가며 마을의 외곽 둘레를 한 차례 또는 수차례 반복 순회하는 의례를 행한다. 때로는 마을 둘레뿐만 아니라 골목길을 두루 돌아다니기도 한다.

호남지방 당산제에서 '오방돌리기'라 하여 줄다리기를 행하기 전후에 동민들이 어깨에 줄을 메고 마을을 한 바퀴 돌거나 '마을돌기'라 하여 횃불을 들고 마을 주변을 도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북 부안의 위도 지역에서 행하는 '주산돌기'도 마찬가지 뜻을 지닌다. 여기서도 주산돌기의 일환으로 마을 사람들은 암수 줄을 어깨에 멘 채 마을을 오른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돈다.

전남 나주시 송월동에서는 당제 날 아침에 풍물패가 굿을 치면서 마을을 열두 바퀴나 돈다.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에서도 장승제를 지내기에 앞서 역시 풍장패가 한 시간 간격으로 마을을 다섯 바퀴 순회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풍장을 요란하게 울리고 골목길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잡귀와 액을 거두고 몰아 이것들을 마을 어귀에서 모두 내친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 자시에 산신제를 모신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새벽이 되면 장승제를 지낸다. 그런데 장승제에 앞서 풍장패, 제관, 마을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마을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한바탕 쇠가락을 울리며 행진한다. 이때 마을의 주요한 신앙 대상인 당(堂)마다 조촐한 제사도 올리고 골목마다 풍장을 울리며 다닌다. 이렇게 쇠가락으로 마을 곳곳에 숨어 있는 잡귀들을 몰고 내려온 제관은 먼동이 터오를 때가 되면 마을 어귀의 장승거리에서 장승제를 지낸다. 이때 마을에서 몰아 온 잡귀를 모두 내쫓는다.

충남 부여와 전북 정읍의 어떤 마을에서는 동제 때 각각 '장군'과 '등신 제웅'을 짚으로 만들어 마을의 복을 비는 동시에 잡귀와 액운을 쫓는다. 여기서도 마을의 풍장패를 앞세우고 그 뒤를 장군과 등신제웅, 제관과 동민들이 차례로 뒤따른다. 이들도 마을돌기를 한다.

'돌돌이'는 원래 풍장패가 쇠가락을 울리며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경기 도당굿에서 흔히 행하는 돌돌이는 무당과 마을 청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액을 모아 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의례이다. 이때 마을 사방에 하나씩 세워져 있는 장승에 가서 남자 무당인 화랭이가 간단히 빌고 재담을 펼친다. 화랭이와 잽이들이 돌돌이를 나서면 마을 청년과 아이들이 수수대로 만든 기(旗)를 들고 뒤따른다. 이 기는 오방신장기(五方神將旗)이지만 동시에 창(槍)으로 쓰이기도 한다. 화랭이는 장승을 향해 가다가 거의 부근에 이르면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아이들도 손에 든 깃발대를

갑자기 창으로 사용하여 화랭이를 찌르며 공격하는 시늉을 한다. 이들에게 쫓긴 화랭이는 장승을 세 번쯤 빙빙 돈 다음에 장승고사를 지낸다. 나머지 다른 장승에도 같은 절차로 돌돌이를 진행한다.

마을 어귀는 마을의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고 연결하는 대표적인 장소이지만 마을의 외곽 둘레도 경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물론 마을의 외곽 둘레가 울타리나 담으로 둘러쳐진 것은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상의 경계선을 상정하는 것이다.

요컨대 마을돌기는 줄다리기할 줄을 어깨에 메고 돌든, 횃불을 들고 돌든, 풍장을 울리며 돌든 여기에 덧붙여 골목길까지 돌든 간에 본질적으로 마을의 안과 밖을 상징적으로 확정해 마을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여 화평한 세계로 가꾸고 또한 마을 안의 모든 잡귀와 액을 바깥으로 구축하려는 동제의 한 절차이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장말 도당굿**(황루시, 한국인의 굿과 무당, 문음사, 1988).

필자 **이필영(李弼泳)**

마제(馬祭)

정의 말에 대한 숭배 관념에 의거해 말의 병을 막기 위한 의례. 산신이나 서낭신이 타는 신성물로 마을 제당에 봉안된 말과 관련된 의례와 제의이다.

내용 **1. 국가 단위의 마제** 상고시대 때 우리나라에 마제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사료나 고고유물을 볼 때 말을 위한 마제가 베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때 혜공왕(惠恭王)과 선덕왕(宣德王) 대에 중국식 명칭으로 바뀌면서 제사 역시 중국식 제사 방식을 따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태까지 있던 마제는 마조제[馬祖祭, 말의 수호신인 천마방성(天馬房星)에게 제사함] · 선목제(先牧祭,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방목함을 가르친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 · 마사제[馬社祭, 구중(廐中, 마구간)의 토신(土神)에게 지내는 제사] · 마보제(馬步祭, 말을 해치는 재앙이 되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 등에 흡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의 마제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 예지(禮志) 5 길사소사(吉事小祀)조에 있다. 마조(馬祖) · 선목(先牧) · 마사(馬社) · 마보(馬步)의 마제는 소사(小祀)로서 의종 대부터 상설단을 두고 중춘(仲春) · 중하(仲夏) · 중추(仲秋) · 중동(仲冬)의 길일을 택해 관리를 파견하여 제의를 베풀었다. 이때 소우지식(小宇之飾)으로 거행하였다. 물론 이들 마제는 유교식에 무속이 습합된 이중적 양식으로 거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의 국가적 마제의 모습은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 『태상지(太常志)』 등의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다. 태종 대 초기까지는 무격(巫覡)이 마신(馬神)을 행제(行祭)할 만큼 습합된 무속을 쉽게 분리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 중 · 후기에는 마제가 제대로 거행되지 못했고, 중엽 이후에는 마조 · 마목의 제사만이 마병(馬病)이나 오질(午疾, 말의 유행병)이 발생하여 폐사가 많은 때에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2. 마을 단위의 마제 오늘날까지 일부 지역의 마을제당에서는 마상(馬像)이나 마신도(馬神圖)가 마을을 수호하는 동신(洞神) 또는 동신이 타고 다니는 승용

말서낭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소장

서낭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길이 9.5㎝, 높이 8.5㎝
조선시대

동물로 모셔지고 있다. 동구 밖에 있는 서낭당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의 안전을 빌고 마을에 들어오는 잡귀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강원도에서는 꿈에 말을 보면 "서낭을 보았다"고 한다. 말은 귀한 사람이 탈 뿐만 아니라 귀한 사람이 일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낭신은 말과 함께 드러난다. 말 자체만을 그려 놓은 말서낭도 있지만 서낭신을 생략하고 빈 말과 고삐를 잡고 있는 수부신[使者]만을 그려 서낭신을 표현하는 그림도 있다. 이러한 전통은 이미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공동제의에서 말이 모셔지게 되는 경위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제당에 봉안된 말은 기본적으로 동제의 신격으로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신앙되고 있다.

첫째, 마상(馬像)이든 마도(馬圖)이든 간에 마을제당에 모신 말은 마신으로서 숭배의 직접적인 대상물이라기보다 마을의 수호신인 동신의 신격(성황신, 산신, 장군신)이 타고 다니는 승용 사역동물(使役動物)로서의 신성동물로 봉안된 경우이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둘째, 호환(虎患)을 퇴치하기 위해 마을제당에 말을 봉납하고 모시는 경우이다. 마을에 호환이 심한 때 말을 봉납하고 나서 호환이 없어졌다. 마을신이 말을 타고 호랑이를 퇴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리 하나를 잃었다. 호환 퇴치와 관련된 말은 보통 완형이 아니라 뒷다리나 몸의 일부가 부서진 불구 형태이다.

셋째, 마을 안에 솥공장(쇠물)이나 옹기공장이 있는 경우 대장장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철마(쇠말)를 제물로 제당에 바쳐서 봉안한다. 옹기와 기와를 굽는 가마일, 쇠를 다루는 주물일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운이 따라야 한다. 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자 쇠말을 만들어 제사 지내라는 현몽에 따라 봉납했다고 한다. 그 뒤로는 솥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설화가 있다.

넷째, 말에 대한 숭배관념 속에 말이 남성 원리적 생식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득남(得男)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경우와 마을 안에 있는 가축의 안강(安康)과 번창을 마당장군(馬堂將軍)에게 기원하는 사례도 있다.

마을신[洞神]으로 봉안된 말의 형태는 마상과 마신도 두 가지이다. 마상은 목마 · 석마 · 철마 · 자마(磁馬) 등이며, 마신도는 산신 · 성황신 · 장군신 등이 말을 타고 있거나 옆에 데리고 있는 모습이다. 제일(祭日)은 정월대보름, 이월 초, 삼월삼짇날, 칠월 백중, 구월 중구 등 다양하다.

3. 가정 · 개인 단위의 마제 세시풍속에서 정월 상오일(上午日)과 시월상달의 말날[午日]이 있다. 이날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간단히 치성을 드린다. 상오일에는 말에게 간단히 제사 지내고 찬을 주어 말을 숭상하기도 하였으며 이날 풍속으로 장을 많이 담근다. 말이 좋아하는 콩이 장의 원료이고, 우리말 '맛있다'의 '맛'과 '말'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감의 원리로 맛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말날에 장을 많이 담근다고 전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시월(十月) 오일(午日)조에 보면 "오일(午日)은 말날이라 부르는데, 이날 붉은 시루떡을 만들어 마구간에 차려 놓고 신에게 빌면서 말의 건강을 축원했다. 병오일에는 '병(丙)'과 '병(病)'의 음이 서로 같아서 말이 병드는 것을 꺼려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무오일을 귀하게 여겼다(午日稱馬日 作赤甑餠 說廐中 以禱神祝 其馬健 丙午日則不用丙與病音相似 忌馬病也 以戊午日爲貴)"라고 되어 있다. 즉 시월 말날에는 붉은 팥떡을 하여 마구간에 차려 놓고 말의 건강을 비는 고사를 지냈다. 이 기록은 18~19세기의 민속이지만 현재 일부 지방의 우마를 사육하는 가정에서 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무속에는 천연두를 앓은 뒤 열사흘 만에 두역신(痘疫神)을 전송할 때 베푸는 배송(拜送)굿에서 실마(實馬) 또는 추마(芻馬)를 등장시켜 마부(馬夫)로 하여금 두신(痘神)을 모시고 나가는 무속제의도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東國歲時記**, **時用鄕樂譜**, **太常志**,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말민속론**(천진기,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2006).

필자 **천진기(千鎭基)**

마중시루

정의 마을 전체의 안녕을 관장하는 산신을 가정에서 맞이하기 위하여 마련한 떡시루. 산신을 마중하는 시루란 뜻이다. '맞시루'라고도 한다. 음력 정초나 시월 등에 산신제를 지낼 때 제사를 거의 마치게 되면 제관은 산신제를 무사히 치렀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일정한 표지, 소리, 몸짓 등으로 일러준다. 이때 각 가정에서는 산신에게 마중시루를 올려서 집안으로 '산신'을 모시거나 또는 '산신의 가호(加護)'를 끌어들여 가내 평안을 보장받고자 한다. 마을공동의 산신제를 공식으로 끝낸 뒤에 올리는 각 가정의 산제라고도 할 수 있다.

내용 산신제는 대개 강신(降神)-참신(參神)-헌작(獻爵)-독축(讀祝)-소지(燒紙)-음복(飮福)의 순서로 진행된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다. 독축을 하고 소지올리기를 모두 마치게 되면 제관들은 마을에 산제를 무사히 끝냈음을 알린다. 이 신호의 방식은 마을에 따라 다양하다. 제관이 마을을 향하여 "마중시루를 올리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모닥불에 마른 나뭇가지 또는 낙엽 등을 많이 던져 놓으면서 불꽃을 크게 일으키거나, 장작불을 둥글게 휘두르거나, 징을 크게 쳐서 쩌렁쩌렁 소리를 울리거나 한다.

산제를 치르는 동안 각 가정은 모든 불을 끄거나 환히 밝혀서 산제가 아무 탈 없이 잘 마쳐지도록 마음을 모은다. 동네 개들조차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게 이날만큼은 잘 묶어 둔다.

각 가정에서는 이 신호를 조심스럽게 기다리다가 미리 마련해 둔 떡시루를 집 마당이나 부엌, 터주를 모신 장독대나 안방 또는 마루 등 한 곳에 시루째 차리고 조촐한 산제를 지낸다. 대개의 경우 떡시루는 흰무리떡으로 준비한다. 산제에는 팥시루보다 백설기가 원칙이고 아무런 간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마중시루에는 불밝이쌀과 함께 청수도 한 그릇 떠 놓는다.

마중시루는 산제 제관집에서 산신에게 올릴 떡을 먼저 쪄 낸 뒤에야 불에 앉힐 수 있다. 각 가정에서 제관 집의 산신 떡시루가 다 되었는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이다. 제관집의 산제 시루보다 먼저 마중시루를 준비하면 시루가 깨지든지 떡이 설고 갈라지든지 하는 변고가 생긴다. 그만큼 산제 시루는 마중시루보다 우선적으로 중요시된다.

마중시루
대전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 2005.2.21
최호식

마중시루는 대개 가정주부가 중심이 되어 올려진다. 방금 전에 제관이 마을 전체를 위하여 산제를 정성스럽게 모셨듯이 이제는 집집마다 집안의 행운을 산신에게 비는 것이다.

산제는 기본적으로 마을 전체의 안녕을 위한 것이어서 제사 절차에 개인의 소망을 삽입할 수 있는 여백이 별로 없다. 물론 개인이나 각 가정이 화평하지 않고서는 마을의 안녕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각 가정에는 역시 독자적인 운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 가정에서는 마을에서 공동의 산제를 모시는 기회에 자신의 가정에 산신의 가호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종교적 심성의 표현이 바로 마중시루인 셈이다.

우물고사에서도 마중시루와 유사한 풍습이 있다. 음력 정초나 칠월에 지내는 우물고사에서 마지막으로 용왕소지를 올려 제의가 거의 끝나면 가정주부들은 경쟁적으로 우물물을 떠서 집으로 가져간다. 이 우물물을 집안의 우물에 붓기도 하고, 장독대에 놓고 사해용왕(四海龍王)에게 간단히 비손을 하기도 한다. 우물고사를 마친 뒤의 우물물은 그 이전의 물과 전혀 다른 의미의 새로운 물이다. 이른바 용왕이 내려준 새롭게 성화(聖化)된 물이다. 이는 곧 마중시루와 '산신 또는 산신의 가호'가 지닌 관계와 마찬가지로 '용왕 또는 용왕의 가호'를 집안으로 모시는 풍습이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필자 이필영(李弼泳)

말축굿

표제어 제주제충제(821쪽)

망제(忘祭)

정의 후손이 없는 자를 위해 마을에서 지내는 제사 의식. 이러한 제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라지고 전라남도 진도와 전라북도 남원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용 망제는 지역에 따라 '거리제' 또는 '동네 제사'라고도 부른다. 망제는 후손이 없이 외롭게 떠도는 혼을 달래 마을의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을 제의이다. 제사를 모실 후손을 두지 못하면 큰 죄인으로 취급받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조상숭배 의식이 매우 강했다. 조상은 후손이 차려 주는 제삿밥에 의존해 살고, 후손은 조상이 주는 복에 의존해 사는 존재로 인식해 온 것이다. 그러나 후손을 두지 못한 경우에는 조상이 제삿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한스러운 존재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후손이 없는 노인은 자신이 살던 마을에 논, 밭, 산, 집 등 가산을 기증하고 자신과 자신의 조상을 위한 제사를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게 된다. 한이 많은 무주고혼(無主孤魂)은 마을에 재앙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망자(亡者)가 기증한 가산으로 비용을 마련해 매년 제사를 모시게 된다.

망제와 수륙재는 무주고혼을 위로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신격 대상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망제는 제사를 지내는 마을에 실제 거주한 신격만을 대상으로 삼지만 수륙재는 마을 주변에 떠도는 모든 무주고혼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망제는 마을에 실제 거주하면서 후손이 없는 사람의 부탁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지는 마을 제의라 할 수 있다. 후손이 없는 사람이 마을에 땅을 기증하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부탁하면 그 사람이 사망한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제의 형태로 망제를 모시게 된다. 망자가 기증한 땅은 마을 공동재산이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재산이 점점 불어나면 지속적으로 제사를 모시게 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망제가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기증한 땅이 최근까지 남아 있는 경우 다시 제사를 지내 주기도 한다. 망제는 후손이 없는 자의 부탁으로 비롯된 제사이지만 무주고혼을 달래 주면 마을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속신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제의를 지속적으로 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망제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망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대보름날에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정월 스무날, 삼월삼짇날에 지내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례 마을 제의 형태로 망제를 지내는 사례를 전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대표적인 지역은 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역리 신흥마을, 진도군 의신면 거룡리 거룡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가장마을,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덕산마을 등이다. 진도 지역에서는 후손이 없는 자의 제사를 '망제'라 부르고 있지만 남원 지역에서는 그냥 '동네 제사'라 부르고 있다.

진도읍 수역리 신흥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후손이 없는 진씨 할아버지를 위해 망제를 지내 오고 있다. 후손을 못 둔 진씨 할아버지가 마을에 밭 2,310㎡를 기증하면서 자신의 제사를 부탁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뜻을 기리기 위해 1939년에 불망비(不忘碑)를 세웠고, 매년 그 비석 앞에서 진씨 할아버지를 위한 당제를 지내 오고 있다. 진씨 할아버지 제사는 몇 년 동안 중단되었으나 1990년께 마을 사람들이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진씨 할아버지 제사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모셔진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지내며, 제의 절차는 매우 간소한 편이다. 제관에 대한 금기도 엄격하지가 않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오후 5시쯤에 신흥마을 앞 바위에서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그 다음 진씨 할아버지의 비석으로 이동하여 비석 앞에 제물을 진설한 뒤 진씨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다. 제물은 메 두 그릇, 국 두 그릇, 술 두 잔, 돼지머리, 시루떡, 사과, 귤, 배, 밤, 대추, 포 등이다. 제관이 유교식으로 제사를 끝내고 나면 주변에 음식을 뿌리는 헌식을 한다.

진도군 의신면 거룡리 거룡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입촌 성씨인 오씨 할머니 제사와 박씨 할머니 제사를 합동으로 모셔 오고 있다. 오씨 할머니는 마을을 떠나면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해마다 제사를 지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오씨 할머니가 남기고 간 땅과 집을 팔아서 그 비용으로 매년 오씨 할머니 제사를 지내 왔다. 이후에 딸만 둔 박씨 할머니도 산 10,000㎡를 마을에 기증하면서 자신의 제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거룡마을에서는 망제를 지낼 때 제관 세 명만 참여하여 유교식으로 진행한다. 제를 모시기 사흘 전에 덕망 있는 마을 어른이 생기복덕에 맞는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한다. 익힌 제물을 많이 장만해야 하는 과거에는 음식을 마련하는 '임사'를 따로 선정했지만 요즘은 날것으로 제물을 올리기 때문에 임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제관 세 명이 제물을 준비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개고기도 먹지 않고, 궂은 곳에도 가지 않으며, 부부간의 성생활도 금지한다. 제수용품을 구하러 장에 나갈 때에도 제관들은 목욕재계를 하고 가며, 물건 값은 절대 깎지 않는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과일, 북어나 오징어포, 밤, 대추, 곶감 등을 준비한다. 과거에는 제물을 제단에서 직접 만들었으나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준비하여 마을 뒷산에 있는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단에 제물을 차릴 때 돼지머리와 쌀은 날것으로 올리고 국은 올리지 않는다. 제관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축문을 읽으면서 마을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한다. 그런 다음 돼지머리에서 코와 귀를 잘라 제단 옆의 땅에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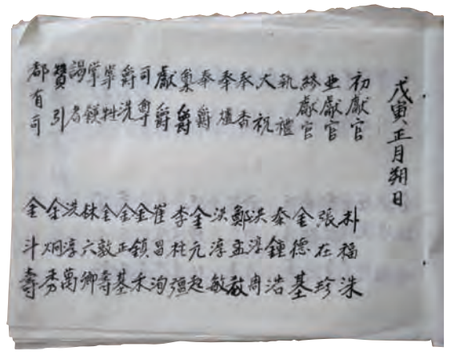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가장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안태록을 위한 동네 제사를 모셔 오고 있다. 후손이 없던 안태록은 마을에 논을 기증하면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안태록이 언제 사망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1960년대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가장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오전 10시쯤에 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제사를 지낸다. 제관은 따로 선정되지 않고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맡아서 진행한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안태록이 기증한 논을 경작하여 수확의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내놓는다. 제사 비용은 이 기금으로 처리된다. 이장과 부녀회장이 장에 가서 제수용품을 구입해 오면 부녀회원들이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장만한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진행되고, 이장이 축문을 읽으면서 마을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한다.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덕산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스무날에 마을회관에서 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모신다. 구체적인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오래 전에 아들이 없는 동네 할머니가 마을에 땅을 기증하면서 할머니 내외와 그의 시부모 제사를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의 기일이 돌아오면 할머니의 부탁대로 이들 네 명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네 명의 묘소를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 주었으나 이 마을회관이 생기면서부터 마을회관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 전날에 묘소에 가서 벌초를 해 준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 생기복덕에 맞는 세 명의 유사를 선정한다. 유사로 선정된 사람은 사흘 동안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궂은 곳에도 가지 않는다. 정월 스무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 제물을 준비한 뒤 오전 10시쯤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진행되며, 제주가 축문을 읽으면서 마을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한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어울려 논다.

참고문헌 **남원시 운봉읍의 마을신앙**(임세경, 남도민속연구 18, 남도민속학회, 2009), **진도마을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7).

필자 **이영금(李永金)**



임사록
강원 동해시 송정동, 2010.6.12, 이영식

망지(望紙)

상호참조 마련방(274쪽)

정의 마을 제의에 제관 및 집사로 선출되었음을 해당자에게 알리는 통지서.

내용 망지(望紙)는 망기(望記)라고도 한다. 마을 제의가 다가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제관 및 집사들을 선출한다. 이들의 선출 인원은 마을에 따라 다르다. 즉 마을 구성원 및 제의 규모에 따라 선출되는 인원에는 차이가 있다. 간단하게 제의를 치르는 마을에서는 몇 사람이 감당하지만 축문은 물론 홀기가 있는 마을에서는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집례(執禮), 대축(大祝), 봉향(奉香), 봉로(奉爐), 봉작(奉爵), 헌작(獻爵), 전작(奠爵), 사준(司罇), 작세(爵洗), 장생(掌牲), 장찬(掌饌), 알자(謁者), 찬인(贊引), 도유사(都有司)로 모두 17명이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렇듯 역할이 다양하게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각자가 맡은 책무를 올바로 알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지한다. 이 통지서가 망지이다. 망지는 직책과 이름을 적어서 각각의 개인에게 보내주는 일종의 마을 제의 임명장인 셈이다. 망지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 상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리고 무릎을 꿇어 정중히 받는다. 망지를 받은 이후에는 부부관계는 물론 대인관계 등에서도 철저한 금기생활을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각 개인이 맡은 역할과 이름을 모두 적어 놓은 마련방(磨鍊榜)을 마련하고, 각자 맡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강(講)을 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

마련방
강원 동해시 송정동
2010.6.12, 이영식

롯날 자정에 마을 제의인 고청제를 지낸다. 고청제에 필요한 제관 및 집사는 섣달 보름날에 선출한다. 제관 및 집사는 섣달 보름날에 마을 노인정에 모여 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게 된다. 이후 각자 맡은 임무가 정해지면 마련방에 각각의 직책 및 이름을 정리하여 벽에 붙여 놓는다. 그리고 마련방을 바탕으로 망지를 작성한 다음 송정촌장의 직인을 찍어 해당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전하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집으로 배송한다. 이후 제의가 끝나면 임사록(任司錄)을 작성한다. 이는 마을 제의인 고청제에 실제로 맡은 직책과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마련방에 정리된 직책과 이름은 임사록의 그것과 다를 수가 있다. 한편 향교에서도 석전제를 지낼 때 제관으로 선출된 자에게 망지를 보낸다.

참고문헌 동해시 서낭제(이한길, 동해문화원, 2009), 풍기의 민속종교와 신앙생활-동신신앙과 가신신앙을 중심으로(김명자, 민속학연구 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3).

필자 이영식(李英植)

매당왕신

정의 한강을 중요한 운송로로 이용하던 시절에 이 교통의 장애(암초와 여울 등)지역들에 세워진 화주당(化主堂)에서 모시는 주신. 매(鷹)+당(堂)+왕신(王神) 또는 매(鷹)+대왕신(大王神)의 합성어로 보인다.

내용 화주당은 화주와 당의 합성어로, 들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보인다. 이른바 선박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화주(化主)들이 정성을 들인 당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날 화주당이라고 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남아 있는 서울굿의 무가와 무속인들이 고유명사로 관념하는 이른바 '물건너 화주당'이다. 이 화주당의 주신격은 '매당왕신'이며, 이 신격의 좌정담이 전해지고 있다.

매당왕신을 주신으로 모신 화주당은 '뚝섬 화주당' 또는 '충렬(忠烈) 화주당'으로 불린다. 원래의 위치는 한강변 언덕이었으나 현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택가에 있다. 현재 이곳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아직도 굿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물건너 화주당 매당(매)왕신'이라는 관용어구는 서울굿의 무가 곳곳에서 등장한다. 한강 이남에 있었기에 '물 건너'가 되고, 이곳이 배를 이용한 운송업자인 화주(化主)들이 정성을 들인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당왕신', '매대왕신'이라는 고유한 신격을 모시고 있음을 이 관용어구에서 짐작할 수 있다.

'화주당 매당(대)왕신'의 좌정담은 1934년(단기 4267년) 최상수에 의해 채록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상수의 『한국민간전설집』의 문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지금으로부터 3백 수 십년 전, 이조(李朝) 인조왕(仁祖王) 때 경기도(京畿道) 광주(光州) 유수(留守) 이서(李曙)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축성(築城) 공사를 둘로 나누어, 남쪽은 부하의 이인고(李寅皐)에게, 북쪽은 중(僧) 벽암(碧岩)에게 각각 분담시키었다.
>
> 이인고는 그날부터 낮과 밤, 일심단성으로 오로지 축성에만 노력하여 돌 하나, 흙 한줌에도 정성을 들여 침식을 잊다 시피 몰두하였다. 그러는 중에 축성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마침내 자기의 사재(私財)까지 전부 던지었다. 그러하였지만 공사를 준공하기에는 아직도 자금은 부족하고 해서 공사는 하루 이틀 늦어만 가고 있었다. 그 반면 벽암의 공사는 착착 진행이 되어서 기일 안에 준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가(官家)에서 받은 공사비 중에서 남은 금액까지도 관가에 반납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정직한 이인고는 점점 의심을 받게 되어 "이인고는 사리사욕을 탐하고 주색(酒色)에 빠져서 공사를 게을리한다"는 벽암의 터무니없이 헐어 말함에 의하여 관가에서는 이것을 믿게 되어 불운하게도 그는 서장대(西將臺)에서 참수형(斬首刑)을 받게 되었다.
>
> 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는 조금도 슬픈 기색이 없이 "신이 죽기는 합니다마는 신이 죽은 뒤에는 그 진부를 알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윗자리에 앉은 이는 이것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곧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었다. 그러자 번쩍이는 칼날에 비참하게도 이인고의 목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피 흐르는 목에서 한 마리의 매가 날아 나와서 이인고의 시체를 돌고 장대 근처의 바위 위에 앉아 무서운 눈초리로 군중을 흘겨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것을 본 군중은 이상하여 그 매가 앉아 있던 바위로 쫓아가 보니 매는 없고 다만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이리하여 그 바위를 '매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 그러한 뒤에 관가에서는 꿈에서 깨어난 것같이 실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벽암이 쌓은 성은 한 곳도 정성들인 곳이 없이 허술하였으나 이인고가 분담하여 쌓은 성은 금성 철벽같이 견고하였다고 한다.
>
> 이것을 나중에야 안 관가에서는 많은 돈을 하사하여 서장대 근처에다 사당을 세워 '청량당(淸凉堂)'이라 하고 그의 영혼을 위로하였다.
>
> 그런데 이인고 부인 송씨(宋氏)도 역시 남편에 못지 않은 충렬한 부인이었다. 남편이 축성비 부족으로 낮과 밤으로 고심하는 것을 보고 하루는 그가 남편에게 "멀리 여러 고을을 돌아다녀서 기부금을 받아 그 축성비로 대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표연히 집을 나선 지 여러 달 만에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얻어서 이것을 배에 싣고 세밭나루[三田渡]에 다달았을 때, 뜻밖에도 남편이 죽었다는 슬픈 부고를 접하자 통분한 나머지 한강에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다.
>
> 관가에서는 그 부인의 충의를 또한 가상하게 여기고 그 강가 언덕 위에 사당을 세워 그 영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최상수의 채록 시기와 유사한 1938년 일본인 학자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도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매당왕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 옛날 남한산성을 축조할 때에 공사의 지휘감독을 맡았던 홍대감이, 평소 청렴결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을 횡령했다는 간인(奸人)의 중상모략으로 마침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목을 치는 사람이 그의 목을 자르자 갑자기 한 마리의 매가 날개가 묶인 채 그의 목에서 나와 서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홍대감의 욕심 없고 정직함을 증명하게 되었고, 그 매를 그의 영혼으로 믿고서 그를 매당왕신이라 칭하고 사당을 세워 이를 제사지냈다. 남한산 위의 화주당(化主堂)이 그것이며, 그의 처 산활부인(山活夫人)도 이 남편의 사형을 애통해하며 뚝섬 교외 한강변의 저자도(渚子島)에서 자살했으므로 그곳에도 충렬화주당(忠烈化主堂)이 세워져 있다. 현재 그것은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동시에 많은 귀신과 인간의 원한을 봉하고 금하는 하나의 무당(巫堂)으로 되어 있다.

이 두 문면을 비교하면 매당왕신은 실존 인물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지만 이인고와 홍대감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그가 죽은 자리, 이른바 매바위 근처에 지은 당의 이름이 청량당과 화주당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그 부인이 자결한 곳이 삼전도(三田渡, 지금의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던 나루), 저자도(渚子島, 지금의 서울 옥수동과 압구정동 사이에 있던 섬, 이 섬의 흙을 공사에 이용하게 되면서 현재는 수몰되어 있음)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것은 남한산성을 축조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장수와 관련되고, 그 장수가 매(鷹)로 변화여 신으로 좌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가 죽은 장소보다 그의 부인이 죽은 장소가 오늘날 말하는 '물건너 화주당'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현재 남한산성에 남아있는 청량당과 동일한 신화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화주당은 그 신의 유래담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주신격이 매당(대)왕신이기보다는 그의 부인으로 보이지만 배우자를 함께 모시는 관념에 의해 매당(대)왕신도 함께 주신으로 모셔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서울굿의 무가에 보면 매당왕신보다는 그 부인에게 더 강조점이 놓여져 있다. 이들 신격이 호명되는 것이 '호구', '말명', '가망'이기 때문이다. 서울굿에서 호구는 천연두 등에 죽은 영혼이거나 무속적 성지(聖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죽은 여성신이다. 무속적 성지라 함은 오늘날도 서울 무속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당들과 관련 있다. 금성당, 국사당, 관왕묘, 화주당, 수풀당 등이다. 이들 호구는 부정거리의 청배와 불사거리 등에 등장한다. 말명은 무당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업을 하다 죽은 무녀는 말명이 된다. 가망은 불명확한 신격, 조상과 관련된 신격으로 이해된다.

아카마쓰 지조와 아키바 다카시가 1930년대 서울 무녀 배경재(裵敬載)에게서 채록한 문서에 등장하는 매당왕신과 그 부인은 다음과 같다.

시위들하소사
설명도대신말명(서울明圖大神萬明),
사위삼당말명(四位三堂萬明)
국내(國內)로 뎨당말명(諸堂萬明),
그연에상산말명(上山萬明)
열네아기당자말명, 수영반장말명
육조삼말(六曹三府), 부군말명(府君萬明),
배용남산에 불사말명(佛事萬明)
물건너화주당(化主堂),
매당왕신(鷹堂王神)의 산활말명
왕십리수풀당(壽佛堂)에 열네애기자겨말명
동관암, 남관암, 정전(正殿)은 대전말명(大殿萬明)
[부정]

시위들하소사
만신의 설명도대신가망, 사위도삼당가망
궁외로제당가망, 금성의대신가망
그연상산(德物上山)가망, 안산(內山)은 대국(大國)이라
천자대국의사신가망
한우물섯우물에 물마누라룡궁가망
안말우리밧말우리선왕가망
수영반장가망
육조삼말(六曹三府)의 부군가망, 배용남산에 불사가망
물건너화주당에 매당왕신(鷹堂王神) 산활가망 [가망]
(전략)
육조삼말에 부군호구
안남산제절국수(國師)밧남산도리태자
국가원당호구
물건너화주당에 매당왕신 산활호구 [호구]

무가의 문면에 따라 부인이 두 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매당(대)왕신의 처와 첩으로 관념한다. 1987년 김태곤의 조사에 따르면 화주당에 모시고 있는 무신도에 매대왕신 외에 대신할머니, 대신할아버지, 임씨할머니, 삼불제석, 칠성, 큰마님, 작은마님, 용장군, 신장, 곽곽선생, 은씨사신할아버지, 사신할아버지, 엄씨대신할머니, 박씨대신할머니 등을 모시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즉 여기서 '큰마님', '작은마님'이 바로 처와 첩을 의미하게 된다.

참고문헌 **교통**(음성직, 한국대우신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동신신앙**(김태곤, 서울 육백년사-민속, 서울특별시, 1990), **서울시 동제당 조사**(장주근,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조선무속의 연구 하**(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84).

필자 **김형근**(金亨根)

메

정의 유교식 제사에서 신위(神位) 앞에 놓는 밥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 마을 제사나 굿 따위에서도 조상이나 망자를 위해 상에 놓는 밥을 메라고 부른다.

내용 1588년에 출간된 『소학언해(小學諺解)』에서는 밥[飯]을 '뫼'라고 적었다. 늦어도 16세기에 밥을 메라고 불렀고 그 이후 궁중에서 밥의 높임말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인은 조상이나 신령이 드시는 밥을 높여서 메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조상과 신령에게 바치는 밥을 메라고 지칭한다.

밥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주식이다. 밥을 중심으로 국과 반찬으로 이루어진 일상식단은 농경을 시작한 이래 지속되어 온 관습이다. 민간신앙의 제물 차림에서 메가 중심이 되는 경우는 유교식 제사가 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발에 담은 밥을 메라고 하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 메의 이름이 달라지기도 한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역의 마을 제사에서는 쇠로 만든 솥인 새옹에 밥을 담으면 새옹메라고 부른다. 놋쇠로 만든 작은 솥에 밥을 지어 산천의 신령에게 바치면 노구메라고 한다. 산천신은 엄밀하게 말하면 조상신령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제의 방식이 유교식 제사와 유사하여 제물 차림도 비슷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구메가 중심 제물로 산천신에게 바쳐진다.

메
전북 정읍시 원오룡마을 정수미

부정을 타지 않은 깨끗한 쌀로 지은 밥을 '진메'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 진메는 보통 제단 근처 맑은 샘물로 밥을 짓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지밥'을 신령에게 바치기도 한다. 보통 처음 사는 깨끗한 물건을 수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신령에게 바치기 위해 맨 먼저 푸는 밥도 수지 또는 수지밥이라 부른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에서는 산신제 제물로 '가루메'를 올린다. 가루메는 식기에다 씻은 쌀과 물을 담고 그것을 솥에다 넣어 수증기로 찐다. 쌀이 귀한 제주도에서는 좁쌀로 밥을 지어 제물로 올린다. 이것을 '산메'라고 부른다. 좁쌀로 밥을 지을 때에는 물을 많이 붓고 삶는다.

참고문헌 **경기 북부 마을제의의 구성과 절차**(이종태, 북악사론 7, 북악사학회, 2000),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밤섬 부군당 도당굿의 제물과 음식-신과 인간의 공식**(주영하, 마포부군당도당굿연구, 문덕사, 1999), **양구지역의 동제의 현황과 특징**(서종원,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양양군 서면 서낭제 연구**(이한길, 시학과언어학 11, 시학과 언어학회, 2006),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강정희, 역락, 2005), **제주의 민속 5-민간신앙 · 사회구조**(현용준 외, 제주도, 1998).

필자 **주영하(周永河)**

메밀

정의 도깨비가 메밀을 좋아한다는 사고방식이 반영된 마을신앙이나 개인고사 등에서 올리는 제물.

내용 메밀은 구황작물이어서 일반적인 제사와 관련한 의례에 사용되는 곡물로는 적당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도깨비와 관련한 마을신앙이나 개인고사 등에서는 메밀을 제물로 올리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도깨비가 메밀을 좋아한다는 민중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전라남도 신안군의 해안 지역에서는 도깨비가 메밀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물로 올린다고 한다.

메밀이 한반도에 전래된 때는 신라 말기로 추정한다. 메밀은 중국 한나라 때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메밀은 구황작물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즉 메밀은 가뭄에 강하고 재배기간도 짧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벼 등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때 대체작물로 경작한 것이다.

메밀은 특이하게도 무를 이용해 중화시켜야 할 정도의 독성이 있다. 메밀국수를 먹을 때 무채를 넣어서 함께 먹도록 하는 것이다. 메밀은 상류 계층보다 민중이 주로 먹던 음식이다. 이에 따라 민중은 자신의 현세적인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으로 여긴 도깨비에게 특별한 음식보다 자신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메밀로 만든 시루떡
전북 임실군 관촌면 구암리, 2003.10.24, 김종대

지역사례 메밀을 이용한 음식은 대개 메밀묵을 들 수 있다. 서해안 지역, 예컨대 충청남도나 전라도에서는 배고사 때에 메밀범벅을 제물로 많이 사용한다. 배고사가 끝나고 제물을 뿌리는 산물(散物) 과정에서 "물 위 참봉, 물 아래 참봉, 이것 드시고 고기 많이 잡게 해 줍사"라는 축원을 올린다. 이때의 제물이 도깨비를 위한 것임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참봉은 도깨비를 올려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전북 임실군 관촌면 구암리에서는 특이하게 메밀을 이용한 시루떡을 제물로 올리기도 한다.

필자 **김종대(金宗大)**

모포줄

정의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지역에서 줄다리기에 사용되면서 동신(洞神)의 신체(神體)로 신앙시되어 온 줄. 1984년 4월 17일에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87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모포줄은 암줄과 수줄 두 점이 있다. 현재 모포리에는 2004년에 보수한 줄이 전하고 있다. 이전의 모포줄은 질긴 칡덩굴과 굴피를 짚에다 섞어서 만든 것으로 암줄과 수줄의 길이가 각각 58m, 둘레가 1.5m나 되었다. 줄 위에 사람이 앉아도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한 줄을 장정 70여 명이 들어야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했다. 이 두 줄도 오래 전 원래 있던 줄 하나가 훼손되어서 남은 한 줄을 나누어 둘로 만든 것이라고 하니, 원형은 더 어마어마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모포줄은 가닥줄과 중줄을 합사한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짚에다 칡덩굴과 굴피나무 껍질을 섞어 가닥줄을 만들거나, 또는 칡덩굴과 굴피로만 가닥줄들을 만들어서 이들을 중줄로 엮고 그 중줄들을 다시 엮어서 큰 줄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주로 짚으로 만든 여느 지역의 줄과 달리 오래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줄을 보관해 온 당집 벽면에 점차 습기가 차서 부분적으로 줄이 상하게 되자, 마을에서는 2004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줄의 원형태를 유지하면서 보수작업을 했다. 이번 보수에는 마을 뒷산의 칡과 억새, 영덕의 굴피나무를 짚에다 섞어 가닥줄과 중줄을 만들고 이들을 다시 원래의 줄과 함께 엮었다. 이음새 부분들에는 로프를 이용하였다. 보수 후 줄 하나의 길이가 30m로 줄어들었다.

마을에서 암줄은 할매골매기신, 수줄은 할배골매기신의 신체로 여겨지며, 마을의 당집에 정중히 봉안된다. 두 신이 봉안된 형태는 암줄의 꼬리부터 똬리를 틀어올려 암줄의 머리가 위로 오게 한 다음 거기에 다 수줄의 머리를 맞대어 감아 올려 수줄의 꼬리가 맨 위로 올라온 모양을 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두 신이 성적 교합의 형태로 당집에 안치된 것으로 인식한다.

역사 모포줄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옛날 장기현감의 꿈에 뇌성산에서 용마를 탄 장군이 내려와 이 마을 장군정의 물을 마시면서 "이곳을 만인이 밟아 주면 마을이 태평하고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구전이 전할 뿐이다. 모포리에서는 이때부터 마을의 번성과 평안을 위해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줄다리기의 시원을 말해 주는 현몽담과 함께 모포줄이 마을의 동신으로 숭앙되는 것으로 미루어 모포줄 및 줄다리기는 마을의 동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있던 와가 골매기당의 대들보에 '건양'(建陽)이란 묵서가 있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아들인다면 모포줄과 줄다리기의 역사는 동제의 역사와 더불어 조선시대 말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모포리는 지금은 비록 한미한 해촌이지만 과거에는 군사요충지이자 화물 교역의 중심지였다. 모포리의 앞바다는 수심이 깊고 포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 이곳에 수군기지[水軍萬戶鎭基]가 있었으며, 1658년(효종 9)에 상주하던 병력이 동래로 기지를 옮겨간 뒤에도 해창(海倉)을 설치하여 화물 교역장으로 번창한 역사가 전하고 있다. 또한 이 마을은 해안 봉수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뇌성산(磊城山)의 봉수가 그것이다. 모포리 북쪽의 진산인 뇌성산을 현지에서는 내성산이라고 부르며, 이 산에는 지금도 봉수터가 남아 있다. 원래 모포줄다리기가 모포리를 중심으로 하여 장기면, 구룡포읍, 동해면 외에도 경주시 양북면과 양남면 주민들까지 참여한 초대형의 규모로 이루어진 것도 이 지역이 수군의 요충지이자 중요한 봉수가 운영되었던 배경과 관계가 깊다.

지금 남아 있는 모포줄은 장기현이 있을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늦어도 1600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1984년 문화재 지정 당시 78세이던 임선준 옹이 자신이 소년 때부터 썼으며 당시 어른들이 전대부터 내려온 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에 따르면 100년은 넘은 것임은 확실하다. 두 줄 가운데 하나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되어 남은 한 줄로 두 줄을 다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 줄이 당집 벽면의 습기로 인해 다시 상하게 되어 2004년 원형을 유지시키면서 대대적인 보수를 했다. 한편 1984년경 영일군에서 본줄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조줄을 제작했으며, 그 후 포항시 축제 등 시 단위 행사에서는 이 모조줄을 사용하고 있다.

내용 모포줄은 짚에다 칡덩굴, 굴피껍질, 억새풀을 섞어 만든 것이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라 영구보존용으로 만들었다. 현지에서는 이 줄을 관의 소유란 뜻의 '관줄'이라고 말한다. 함부로 버릴 수 없고, 나아가 동신의 신체로 모셔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줄다리기에서 한 번 사용하고는 일년 내내 당 안에 봉안되는 줄이고 골매기당신의 신체로도 인식되는 오래고 유일한 사례이다.

모포줄이 전하는 모포리는 원래 경북 영일군 지행면에 속했으나 1991년 장기면에 속한다. 1995년에 영일군이 포항시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포항시 장기면에 속하게 된 마을이다. 모포리는 1리와 2리로 나뉜다. 현재 모포줄과 줄다리기가 전승되는 마을은 2리이다. 모포2리는 뒤로는 내성산을 두고 앞으로는 동해를 마주하고 있다. 그 사이에 학계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내성산과 학계들 사이로 81번 국도가 지나간다. 원래는 100가구가 훌쩍 넘는 대촌이었으나 지금은 90가구 남짓한 규모이다. 앞바다의 수심이 깊은 탓에 어업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다. 농업도 밭농사를 많이 짓다가 새마을사업 이후 관개시설이 정비되면서 벼농사 위주로 바뀌었다. 현재 이 마을에서 전승되는 모포줄과 관련된 행사는 당제, 줄제, 줄다리기가 있다.

모포줄은 현재 모포2리 칠전마을 중앙에 위치한 골매기당에 봉안되어 있다. 위패도 신상도 없이 암줄과 수줄 두 줄이 골매기 부부신의 신체로 좌정하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 초이렛날이면 모포2리에서는 이 골매기당집에서 동제를 지낸다. 제관은 입재일[초엿샛날] 저녁에 당집 앞에 불을 밝혀 두고, 제물 준비가 완료되면 제물을 이곳으로 옮긴다. 마을의 다른 주민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관은 당 안의 줄 앞에다 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로는 당일 담근 술, 해물, 닭고기, 메, 채, 참기름, 삼색과[밤, 감, 대추]를 쓴다. 제사를 위해 촛불을 밝히고 향을 사른 뒤 술을 올린 다음 재배하고, 올린 술을 골매기 줄 위에 붓는다. 다시 잔을 올린 뒤 재배하고 올린 술을 골매기 줄 위에 붓기를 거듭한다. 헌작을 모두 마친 뒤에는 소지를 올렸으나 지금은 이 절차가 생략된다. 아침이 되면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하는 것으로 골매기줄을 대상으로 지내는 동제는 모두 끝난다.

과거에는 두 명의 제관과 두 명의 화주가 동제를 주재하였으나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이농(離農)으로 인해 제관을 맡을 사람이 줄고 금기 수행의 불편함 때문에 제관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 때문에 주재의 규모를 제관 한 명으로 줄이고 수고비를 지급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 명의 제관 선정도 어려워져서 2009년부터는 인근 사찰의 승려에게 동제의 주재를 의뢰하고 있다.

모포줄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마을 행사는 추석날 오전에 이루어지는 줄다리기이다. 마을에서는 1, 2반의 상동과 3, 4반의 하동으로 편을 나누어서 줄다리기를 하며, 이긴 쪽이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상동과 하동의 기준은 동네 가운데 있는 마을회관 앞 길이며 현재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줄다리기를 하는 추석날 아침이면 먼저 줄제를 지낸다. 이는 줄을 꺼내가니 놀라지 마시고 허락해 주십사라는 의미이다. 동제를 맡은 제관이 줄제를 주재한다. 줄제에서는 줄 앞에다 술, 포, 삼색과의 간략한 제물을 진설한 다음 헌작하고 재배한다. 올린 술을 골매기 줄 위에 뿌리는 것은 동제 때와 같다. 그러나 제관만 참여하는 동제와 달리 줄제에는 마을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줄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줄을 메고 풍물을 앞세워서 마을을 도는 것으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과거에는 각 편에서 암줄과 수줄을 메고 줄대장을 앞세운 뒤에 마을을 돌았지만 지금은 수줄만 들고 젊은 사람들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정도이다. 줄다리기 장소는 원래 뇌성산 아래의 밭이었지만 추석 때까지 가을걷이가 끝나지 않은 곳이 있어 바닷가 백사장으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다시 마을 한복판에 생긴 신작로로 옮겨졌다.

일단 줄다리기 장소로 줄을 운반한 뒤에는 두 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두 줄을 연결하려면 1m 정도 되는 통나무를 끼워야 한다. 이를 '갯목' 또는 '곤목'이라고 한다. 줄을 연결하는 일은 '갯목 건다', '곤목 건다', '비녀 꽂는다'라고 말한다. 이때 두 줄의 머리를 마주 대놓고 대치하면서 먼저 접근하려 들지 않고 서로 '이리 오라'고 권유하고 버틴다. 수줄의 머리가 암줄 안으로 들어가야 '갯목을 거는' 일이 가능하다. 이 장면이 마치 남녀의 교합을 연상시키기도 하여 부녀자들은 멀찌감치 물러나 있고, 남성들만의 작업이 되어 때로 음란한 대화가 섞이기도 한다. 이렇게 시간을 다투다가 암줄이 줄 머리를 세워 벌리고 수줄이 머리를 옆으로 세워 암줄의 고 안에 넣고 갯목을

끼우는 일로 줄의 연결이 마감된다.

오랜 승강이 끝에 줄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징소리를 신호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줄 머리 부분은 젊은 장정들 꼬리 부분은 나이든 이들, 종줄은 여성과 아이들이 각각 당긴다. 세 번 당겨서 두 번 이기는 쪽이 승자이다. 모포2리에서 행해지는 줄다리기에는 요즘도 200여 명이 참여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그날 바로 줄을 메고 운반해 다시 골매기 당집에 보관한다. 다른 지역에서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강물에 버리거나, 썰어서 논에 거름으로 쓰거나, 태우거나 하여 없애는 것과 달리 모포리에서는 신체로서 영구히 당집에 모셔 두고 제사까지 지내는 점에서 유일하고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매년 행해지던 줄다리기 행사는 일제강점기 이후 격년제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과거의 모포 줄다리기는 모포 1, 2리를 중심으로 장기면, 구룡포읍, 동해면 등 인근의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여 해촌과 육촌 간에 이루어진 지역형 줄다리기이던 것이 현재는 모포2리의 상·하동을 단위로 한 마을형 줄다리기로 축소된 점이다. 영일군 일월문화제의 군민대회가 포항시 축제의 행사로 편입되면서 모조줄을 이용하여 지역형 줄다리기의 면모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암줄과 수줄, 해촌과 육촌, 동부와 서부 간의 승패를 통해 풍어와 풍농을 점치는 신앙과 그 문화적 의미는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모포줄**(한양명,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05), **모포줄다리기**(임동권,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55, 문화재관리국, 1984).

필자 **천혜숙**(千惠淑)

목제남근(木製男根)

정의 소나무 등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모형 남근.

내용 남자의 바깥 생식기관을 '남근', '음경(陰莖)', '신경(腎莖)', '양경(陽莖)', '양물(陽物)' 등으로 부르는데 이 형태로 깎아 신에게 바치다. 생식 원리를 숭배하는 신앙의 한 형태로 신에게 바치는 봉헌체로 쓰인다.

1970년대 말 황룡사(553년 창건) 발굴 때 출토된 유물 가운데에는 남근 유물이 있다. 짙은 회색의 활석으로 만든 이 남근은 길이 8.7㎝, 귀두 최대 직경 5.3㎝로 음경 부분이 부러진 상태이지만 사실적으로 조각되었다. 함께 나온 유물이나 발굴 정황을 종합할 때 통일신라 초기(7세기 말~8세기 초)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라시대(통일신라 포함) 남근은 지금까지 대여섯 점이 출토되었으며, 백제나 고구려에서는 각각 한두 점이 나왔다. 이는 남근을 통해 풍요나 기자(祈子)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서울 지역 '부근당'의 목제남근 봉헌 기록에서는 성기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사직신(社稷神)을 위한 의례에서 목제남근을 깎아 붉은 칠을 하고 푸른 글씨를 써서 봉납했다는 기록들이 그것이다. 이처럼 관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조선시대 성기신앙의 특징이다.

불사의 종교적 관행인 속리산 법주사의 '송이놀이'에서도 목제남근을 봉헌하였다. 송이(松栮)는 곧 남근을 가리킨다. 섣달그믐이면 승려들이 큰 모임을 갖고 제사를 지내면서 많은 나무 방망이로 남자의 성기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붉은 칠을 하여 한바탕 놀이

해신당 목제남근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2010.6.24, 윤동환

해신당 목제남근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2010.6.24, 윤동환

를 벌이면서 신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동해안의 어촌 지역에서는 나무로 깎아 만든 남근을 여신에게 바치는 곳이 있다. 목제남근을 봉헌하는 곳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1리 망개마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 오는 곳은 고성군 망개마을과 삼척시 신남마을이다. 이들 마을의 공통점은 해안과 접해 있다는 것과 풍어와 무사안전을 목적으로 여신을 달래기 위해 모형 남근을 봉헌한다는 것이다.

목제남근을 봉헌체로 사용한 의례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유래 또한 매우 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혼인을 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 총각의 영혼결혼에서도 나타난다. 목제남근은 단순한 생식적 도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음양화합을 통해 풍어와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생생력의 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稗官雜記, 芝峯類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增補文獻備考, 新增東國輿地勝覽, 강원도 해안지방의 성기신앙의 형성과 전승적 특징**(김종대, 국제아세아민속학 2, 국제아세아민속학회, 1998), **민간신앙으로 본 성**(장장식, 한국의 민속과 성, 지식산업사, 1997), **성기신앙 연구**(김태곤, 한국종교 1,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1), **성기 신앙의 형태와 성격**(장장식, 한국민속학 27, 한국민속학회, 1995), **성기숭배 민속과 예술의 현장**(김태수, 민속원, 2005),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 19, 계명구락부, 1927), **한국 성신앙 연구**(이종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의 성신앙**(김종대, 인디북, 2004).

필자 **윤동환(尹東煥)**

목축신

표제어 테우리신(943쪽)

무안발산마을미륵당산

정의 전라남도 무안군 발산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의 신체. 1987년 6월 1일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8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충남 천안에서 살던 밀양 박씨가 잦은 흉년으로 살기 어려워지자 1680년쯤에 좋은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발산마을에 이르렀다. 마을 앞에는 바다가 인접해 있고 지세가 좋아 500년 이상을 안주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여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서당골', '비석거리'라고 불리다가 마을 앞 절의 스님이 들고 다니던 바라 모양으로 마을이 생겼다 하여 바리때 '발(鉢)' 자와 마을 뒤편 산의 '뫼 산(山)' 자를 따서 '발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마을 앞에 장승과 입석이 있다. 구전에 따르면 불교의 미륵보살과 석가가 도술시합을 하다가 미륵보살이 약해 힘을 비등하게 하기 위해 한쪽에는 청룡등을 세워 할머니당산이라 했고, 다른 한쪽은 백호등 고지등을 세워 할아버지당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형태 발산마을에는 장승인 할아버지(미륵)신이 거처하는 곳과 입석인 할머니(미륵)신이 거처하는 두 곳이 있다.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할아버지당산은 높이 187㎝, 둘레 110㎝이다. 마을 앞 고깃동 아래 산길리 신등마을로 가는 작은 길 옆에 세워져 있다. 할아버지당산은 입자가 매우 거칠고 표면에는 굵은 알갱이가

울퉁불퉁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풍화하는 과정에서 약한 부분이 부식되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네모난 돌기둥의 전면에는 어렴풋하지만 무덤 앞에 있는 석상처럼 의관을 갖추고 있고, 얼굴도 눈·코·입을 선각으로 나타내어 입체감은 없다. 머리에는 벙거지형 모자를 씌워 놓았으며, 몸체와는 별개의 돌을 조각하여 시멘트로 접합하였다. 그리고 턱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두툼한 수염이 보인다. 할머니당산은 할아버지당산에서 150m 거리에 있는 마을 앞 농로에 있다. 할머니당산은 조각 흔적이 전혀 없는 자연 입석으로 높이 160㎝, 두께 15㎝의 화강석이다.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은 경지정리 때 농로를 따라 자리를 약간 옮겼다고 한다.

내용 매년 정월대보름날 11시쯤에 마을의 평안을 위해 미륵당산을 주신으로 한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제를 지내는 목적은 농사풍년, 재액소멸, 마을단합 등이다. 제관은 헌관 세 명, 축관 한 명, 집사 두 명을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고 목욕재계를 하면서 근신케 한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조기, 나물, 술, 과일, 포 등을 장만한다. 제사는 설상-분향-재배-초헌-아헌-종헌-음복순으로 지낸다.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 제상의 차이는 없다. 제사가 있은 이튿날부터 2~3일간은 농악과 줄다리기를 하며 동민이 한데 어울려 즐긴다. 그러나 농악과 줄다리기는 오래전에 중단되었으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제사는 2000년 쯤부터 마을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다시 모시게 되었지만 농악과 줄다리기는 마을 주민이 줄고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중단되었다고 한다.

의의 발산마을의 미륵당산은 불교의 미륵신앙과 마을신앙의 습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신앙과 불교신앙 간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유형문화 자료이다. 특히 입석과 장승이 동시에 마을신앙의 신체가 되고 있어서 장승의 민속신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장승과 입석의 민속문화사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의의가 크다. 미륵당산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미륵과 석가의 경쟁담은 신화적 의미를 지니며, 할아버지당산이 벙거지형의 석장승이라는 사실은 호남 지방의 장승문화와 제주도지방의 돌하루방문화를 비교연구할 수 있는 비교민속학적 의의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무안발산마을미륵당산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발산마을, 1994,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마을유래지(무안군, 1987), 무안군의 문화유적(목포대박물관, 1986), 전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6).

필자 표인주(表仁柱)

무주고혼(無主孤魂)

상호참조 잡귀(738쪽)

정의 책임지는 자 없어 외로운 영혼. 사람이 죽으면 그를 위해 천도재(薦度齋)를 올리거나 제사를 올리거나, 이른바 망자(亡者)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저승에서도 잘 지낸다고 한다. 그런데 후손 등 의지할 곳이 없이 망자가 된 이들은 무주고혼이 되어 배고픈 존재로 관념한다. 때로는 잡귀잡신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면서 배불리 먹여 주지 않으면 해코지할 수 있는 존재로 관념되기도 한다. 한국의 마을 제의에서는 후사(後嗣)가 없이 돌아간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 준다. 이를 무후제(無後祭) 등으로 부르며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내용 무주고혼은 신앙 관념에서 정식으로 위함을 받는 신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민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祖上神)이 된다고 하지만 후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이 되지 못하고 떠도는 이른바 무주고혼이 된다고 관념한다. 이 때문에 무주고혼이라는 명칭은 잡귀잡신(雜鬼雜神)과도 연관되어 보통 혼용해 쓰게 된다. 이를 구분하면 다양한 유형의 신을 통틀어 정의하는 잡귀잡신에 무주고혼이 한 유형이 된다. 무주고혼은 불교 제의인 수륙재라든가, 무주고혼과 관련한 마을 제의로는 전국적으로 후사 없는 이들을 위한 유교식 공동 제사인 무후제가 있다.

무후제는 자손을 두지 못하고 죽은 분을 위해 동네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이다. 무연고제(無緣故祭), 무후사제(無後嗣祭), 후손 없는 조상제사, 무연고 노인제사, 동네할아버지제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무후제는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제의로, 시기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무후제를 지내 주는 경우는 작고한 사람이 생전에 마을에 기여했거나 작고하면서 자기 재산을 마을에 희사함으로써 마을 차원에서 예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무주고혼이 하나의 원귀(寃鬼)로 간주되고, 이 원귀의 해원을 해 주지 않으면 마을의 변고가 일어난다는 관념도 존재한다. 물론 이때 무주고혼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고혼을 포함한 잡귀잡신이 문제가 된다. 무주고혼을 포함하여 원귀를 달래 해악을 방지하려는 것은 전국의 마을 제의에서는 보편적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단위에서 여단(厲壇)을 두고 이들 원귀에 대한 제의를 시행하였다. 이것이 '여제(厲祭)'이다. 1929년에 간행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귀신(朝鮮の鬼神)』 가운데 여귀(厲鬼)에 대한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봉상시(奉常寺)에 신실을 만들어 놓고 제신을 봉안하는데 그중에는 무사의 귀신을 2좌 15위에 나누어 모시고 있다. 즉 다음과 같다.
>
> **동좌육위(東坐六位)**
>
> 조병인사자(遭兵刃死者), 우수화도적사자(遇水火盜賊死者), 피인취재물핍사자(被人取財物逼死者), 피인강탈처첩사자(被人强奪妻妾死者), 조병화부굴사자(遭兵禍負屈死者), 인천재질역사자(人天災疾疫死者)
>
> **서좌구위(西坐九位)**
>
> 위맹수독충소해사자(爲猛獸毒蟲所害死者), 전투사자(戰鬪死者), 피장옥압사자(被墻屋壓死者), 동뇌사자(凍餒死者), 인위급자액사자(因危急自縊死者), 산난사자(産難死者), 진사자(震死者), 몰이무후사자(歿而無後死者), 추사자(墜死者)
>
> 그리고 이 귀신을 제사 지내는 것은 청명(淸明)과 7월 15일, 10월 15일 세 차례 행하고, 그 제사는 북쪽에 있는 여단(厲壇)에 성황일위(城隍一位)와 무사귀신(無祀鬼神) 15위를 경성부윤이 주재자가 되고 예조(禮曹)에서 사관(祀官)을 보내어 거행하였다. 이렇게 정중하게 제사를 지낸 까닭은 사당이 없는 귀신, 즉 여귀는 분한(憤恨)의 기가 응집되어 질병이 생기게 하고,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며 변괴를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위하는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동쪽에 여섯, 서쪽에 아홉의 존재들을 봉안하고 제의를 지냈다. 무주고혼은 서쪽에 '몰이무후사자(歿而無後死者)'라 정의되고 있다. 무후사자 외에 서쪽에 있는 영혼들은 보통 불의의 사고로 인해 죽은 자들이다. 맹수와 독 있는 벌레에 죽은 자, 전투에서 죽은 자, 담장이나 집에 깔려 죽은 자, 얼거나 굶주려 죽은 자, 위기로 인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자, 애를 낳다가 죽은 자, 벼락 맞아 죽은 자, 추락해 죽은 자들이다.

무주고혼에 대한 배려는 불교 의례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마을굿에서도 나타난다. 전북의 무속식 마을굿이라 할 수 있는 수륙재는 불교제의의 무속적 변용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래는 없던 것이 불교제의를 변용하여 만들어졌다고 보기보다는 무속제의가 불교제의와 만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명칭이 수륙재이지 그 제의의 구성이나 연행 양상은 무속식 굿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餓鬼)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종교의식'으로 정의된다.

오늘날 불교의 제의 모범으로 삼는 『석문의범(釋門儀範)』에서는 이 제의의 취지를 모든 영혼을 평등하게 천도받게 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어떤 대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과 관계된 영역에서 떠돌며 허기진 영혼들을 '종교적 평등'관에 입각하여 천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영혼 가운데 무주고혼이 그 대상에 속하게 된다. 마을굿으로서의 전북 수륙재에도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마을 재수굿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신과 함께 무주고혼을 포함한 잡귀잡신에 대한 해원을 하는 것이다.

지역사례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배점마을에서는 이 마을의 실존 인물인 배순(裵純)을 마을의 주신으로 모시고 있다. 음력 정월에 배순정려비와 배순정려각에서 마을제인 '배충신제사'를 지낸다. 이 제사에 드는 비용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배순 명의의 땅에서 나온 돈이다. 본래의 배순 명의의 땅이 모두 매각된 뒤에는 후손 없이 작고한 단양할머니와 충주할머니가 마을에 기증한 땅의 소작료로 충당하고 있다. 단양할머니의 땅은 미미하지만 충주할머니 땅은 2,640㎡쯤 된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단양할머니의 경우 벌초를 해 주기는 하지만 제사는 드리지 않고 충주할머니의 경우 벌초를 해 주고 가을에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러나 점차 제의가 축약되면서 마을제에 붙여 도가집에서 상을 차려 충주할머니의 제사를 올린다.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당촌마을은 정월에 지내는 마을 제의 명칭을 '별신제'라 칭한다. 별신제는 공간적으로 세 곳에서 순차적으로 치러진다. 명칭은 각각 '당산제(堂山祭)', '별신제(別神祭)', '이사제(里社祭)'이다. 당산제는 마을 오른쪽 언덕에 있는 나무에서 지내며, 마을의 주신격인 '할아버지'를 모신다. 별신제는 마을 왼쪽 언덕인 '별신당'이라는 당집에서 모신다. 마을에서 20~30분 거리의 마을 뒷산에 위치한 것을 옮긴 것이다. 이사제는 마을 중앙의 논에서 모시며, 대나무를 얽어 제상을 임시로 만들어 떡시루를 얹는다. 이사제 이후에 '박첨지'라는 인물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이 '박첨지'가 바로 자식 없이 죽게 된 인물이었다. 작고 시에 논을 마을에 기증하고 정월대보름 마을 제사에 자신에게 거친 밥이라도 올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기에 그 희사한 논에서 얻은 비용으로 마을제를 치렀다.

전남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1구 중촌·서촌 당산제에서는 마을 제의 끝에 이 마을을 위해 궂은일을 하며 자식 없이 작고한 머슴 업단이에게 헌식하는 것으로 당산제를 마친다. 이때 "출산아, 업단아, 이 음식 잘 먹고 올해는 우리 마을에 좋은 일만 있게 도와 주라"라고 세 번 외친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 덕천리 노치마을 당산제는 음력 정월에 지내던 것을 백중으로 옮겨서 지내고 있다. 마을 뒤편 산 중턱에 소나무와 돌이 있어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를 주신으로 모신다. 이 당산제를 끝내면 자식 없이 자신의 전답을 마을에 헌납하고 죽은 이 두 노인의 합동 제사를 마을회관에서 드린다.

참고문헌 **강원도 무후제 조사 연구**(이학주,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7), **강원인의 일생의례**(김의숙 외, 민속원, 2005), **무자후제사**(이경엽, 한국세시풍속사전-봄, 국립민속박물관, 2005), **법성포 단오제의 수륙재 수용 가능성**(이영금, 한국무속학 17, 한국무속학회, 2008), **여제연구-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중심으로**(안병국, 우리문학연구 19, 우리문학회, 2006), **조선의 귀신**(村山智順, 김희경 역, 동문선, 1990), **진도의 여제고**(나경수,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마을신앙 상·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호남 무속의 존재양상**(이경엽, 한국무속학 15, 한국무속학회, 2007).

필자 김형근(金亨根)

무주내창마을산제

정의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내창마을에서 행해지는 마을 제의. 마을 당산에서 지내는 '산제'와 마을 어귀 정자나무에서 지내는 '길산제'를 통칭하는 명칭.

유래 및 역사 북창리 내창마을의 지명은 마을이 기대고 있는 적상산(赤裳山, 1034m)의 지형적, 역사적 특성에 기인한다. 적상산의 모습은 마치 종 모양과 같아 정상부에 닿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를 올라야 한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일찍부터 이곳에 산성을 쌓아 군사적 요새로 활용하였으며, 국가의 중요 사료를 보관하는 사고(史庫)를 두었다. 적상산 주변으로는 산성과 사고의 보급품 및 군량미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여러 곳 있었다. 그중 북쪽에 위치한 창고를 '북창'이라 부른 데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곧 '북창'의 설치와 정주민의 정착은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가져왔으며, 이와 더불어 마을 제의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내창마을산제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구전에 의해 마을 제의와 관련된 설화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내창마을산제는 마을 당산에 위치한 산제당과 마을 아래 정자나무 두 곳에서 제의가 이루어진다. 원래 산제당의 위치는 당산에 있지 않았다.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고을 원님이 말을 타고 안국사에 올라갈 때 '산드래'라는 곳에만 다다르면 말이 움직이지 않아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루는 산제당에 붙어 있는 종이를 떼어 날렸더니 지금의 산제당 자리에 와서 붙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산제당을 옮기고 나자 더 이상 말이 멈춰 서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무렵까지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과 시월 열나흗날에 정성들여 마련한 제물을 올려 산제(산신제)와 길산제(거리제)를 지냈다. 그러나 마을 인구가 줄고 산신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아 음력 시월의 산신제는 지내지 않게 되었다.

형태 및 특징 북창리 내창마을 어귀에는 비슷한 간격으로 서 있는 아름드리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다. 느티나무의 수령은 500년이 넘는다. 지금의 포장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 세 그루의 느티나무를 따라 마을과 안국사로 향하는 길이 있었다. 지금도 옛길을 짐작할 만한 작은 길이 있고, 가운데 느티나무의 길 양쪽으로는 돌탑이 있다.

느티나무가 있는 어귀는 마을 안골에서 내려오는 작은 개울과 적상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만나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구(水口)에 해당하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수구맥이'라고 하여 여기에 심은 느티나무가 수구를 막고 튼튼히 하여 마을의 좋은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며, 밖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이 세 그루의 느티나무를 '정기나무(정자나무)'라 부르고 있다. 그중 맨 아래에 있는 느티나무에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음력 정월 열나흗날 밤에 '산제(山祭, 산신제)'와 함께 '길산제(거리제)'를 지낸다.

마을 어귀에서 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유독 다른 곳보다 키가 크고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한 숲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산신제를 모시는 당산(堂山)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동산'이라 부른다. 이 동산 숲은 영험하고 신성하다고 여겨 아무도 함부로 해치거나

산제당
전북 무주군 북창리 내창마을, 2007.3.3, 최호식

나무를 베어내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은 '동산'과 '정기나무'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상이자 마을의 성쇠를 좌우하는 성스러운 공간(sacred place)으로 여기고 있다.

내창마을산제당은 1994년 무렵 블록을 세우고 벽체를 시멘트로 마감한 다음 슬레이트 지붕을 얹어 개축하였다. 흙집으로 지어진 산제당이 허물어지고 낡음으로써 군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그 자리에 지금의 산제당을 새로 지은 것이다. 산제당은 정방형의 평면이며, 내부에는 정면으로 산신도(마을 주민들은 '탱화'라고 부른다)와 함께 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무속인들 사이에 내창마을산제당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있어 외부인이 드나드는 것을 막고 산신도가 손상될 것을 방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출입문을 단단히 채우고 있다.

내용 내창마을산제는 제관 선정을 제외하면 제물 마련을 비롯한 제의 준비와 의례절차 등 모든 과정이 제일(祭日)인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모두 이루어진다. 제관 선정은 여느 마을과 같이 그해 신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복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젊은층이 마을을 떠나고 주민이 감소하면서 산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내창마을에서는 산제를 준비하는 제관 및 유사를 마을의 청장년층이 주축이 되는 개발위원회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발위원 중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여겨서 금기시하거나 꺼리는 일이 있는 사람은 산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산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공동 소유 농경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마련한다. 대체로 그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제관과 유사 역할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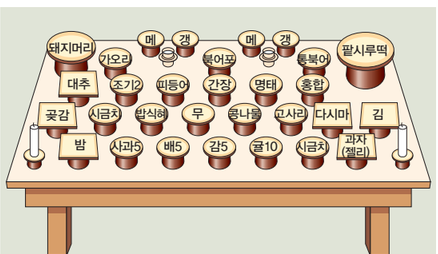
제일 아침이 되면 개발위원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제물 마련과 산제 준비를 위한 역할을 나눈다. 제물은 대체로 무주읍내 시장에서 구입하고, 제물 장만은 제관집에서 한다. 오후에는 산제당으로 올라가는 길과 산제당,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와 돌탑 주변을 정리한다. 산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늦은 밤이기 때문에 길게 뻗은 가지나 길 바닥의 엉킨 잡풀들을 제거하고, 제당과 제단을 깨끗이 정리한다.

저녁 무렵 산제를 지내기에 앞서 제관을 비롯한 개발위원들이 마을회관 앞에 모여 풍물을 친다. 마을

정자나무와 돌탑
전북 무주군 북창리 내창마을, 2007.3.3 최호식

사람들은 이를 '깽매기'라고 부른다. 산제와 길산제가 시작되기 전에 산제가 치러지는 산제당과 마을공동샘 등 마을의 주요 지점을 한바퀴 돌아오는 깽매기를 한다. 특히 마을공동샘은 마을 식수로 이용하던 곳으로, 이곳에 용왕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들러서 예를 표한다. '깽매기'는 산제를 지내기 전에 잡귀를 물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곧 산제가 시작됨을 알리는 의미이다.

내창마을산제는 밤 10시쯤에 시작된다. 제관과 개발위원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제물과 짐 꾸러미를 들고 산제당으로 향한다. 산제당에 도착한 제관과 개발위원들은 제물을 진설한다. 내창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제주(祭酒)를 청주나 막걸리가 아닌 식혜로 대신하고 있다.



제물 상차림

메, 갱, 제주는 둘씩 올린다. 산신도에 그려진 산신할아버지와 산신할머니를 모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의의 절차와 형식은 유교식으로 치러지며, 강신-참신-독축-소지-사신 순으로 진행된다. 2007년

축문은 다음과 같다.

동산제축문(洞山祭祝文)

維歲次 (丁亥)正月(壬寅) (癸未) 朔十五日(丁酉)
北倉里居民 選屬 紉學○○○ 敢昭告于
土地之神 伏惟尊神
代天宣化 鎭我一方 俾民有造 使安而樂
惟神之賜 使飽而暖 惟神之佑 導民至德
加民惠澤 顧雖甚迷 詎味
北倉里洞屬 思殫其躬 報祀及辰
惟月之正 牲酒雖簿 寔出微誠
惟神降格 庶鑑愚哀 望垂默佑 克有始終 尙饗

독축과 소지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축원한다. 사신 재배가 끝나면 제물로 올려진 음식을 조금씩 떼어 담아 제당 밖 한쪽에 갖다 비운다. 이러한 헌식과정을 마을 사람들은 '무샘물'이라고 한다. 산제의 모든 의례절차를 마치면 산제당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산을 내려온다.

산에서 내려온 뒤 제관 집에서 메와 갱만 바꾸고 다른 제물은 그대로 담아 길산제를 치르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로 향한다. 길산제를 지내는 제단으로 가기 전에 준비해 온 왼새끼 금줄을 마을 어귀 느티나무 양쪽에 있는 돌탑에 돌려서 감고 그 사이에 문종이를 끼운다. 이때 전 해에 감아둔 새끼줄과 종이는 제거한다. 그러나 돌탑에는 별다른 제의를 하지 않는다. 길산제는 산제에 비해 간략하고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다. 제의는 산제에서 치러진 순서와 같지만 독축과 소지의 과정이 없다. 산제와 길산제의 모든 제의는 대체로 밤 12시 무렵에 마무리된다.

산제와 길산제 후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복례를 행한다. 이것은 마을 동회를 겸하는 자리이다. 마을 사람들은 간밤의 산제 및 길산제에 올린 제물과 동회를 위해 마련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한다. 1970년대 전까지는 마을에서 돼지를 잡아 산제를 지냈기 때문에 정월대보름날 아침에는 돼지고기와 떡 등을 조금씩 담아 집집마다 나누어 주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산제 음식이 많이 간소화되고 돼지를 잡는 일이 없어지면서 그러한 풍속도 사라지게 되었다.

내창마을산제 전북 무주군 북창리 내창마을, 2007.3.3, 최호식

헌작

독축

돌탑에 종이와 왼새끼를 매는 모습

지역사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무주군은 전북 동부의 산간지대에 위치하여 평야지대에서 행해지는 마을제의와 구별되는 산신제의 사례가 많이 남아 있다. 무주군에서는 정월 초 무렵부터 대보름을 사이에 두고 무주읍을 비롯하여 설천면·적상면·안성면 등지에서 마을단위로 산신제·산제·당산제 등 의례가 전승되고 있다.

의의 내창마을산제는 산신제(산제)와 거리제(길산제)가 결합된 유형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산제와 길산제

길산제 제물진설
전북 무주군 북창리 내창마을, 2007.3.3, 최호식

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빌고 마을 주민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내창마을산제는 산간지역 마을신앙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잿들, 산 위에 들을 일구다(국립민속박물관, 2008), 전라북도 마을지킴이 · 정악(전라북도, 2004).

필자 이용석(李容碩)

무천(舞天)

정의 동예(東濊)에서 매년 10월 거행한 제천의례.

내용 동예는 3세기 무렵 강원도 지역에 분포한 부족집단의 총칭이다. 이들 집단이 매년 10월 하늘에 제사하는 의례가 무천이다. 이때는 밤낮없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무천이란 말은 '춤으로 하늘을 제사한다'는 뜻으로, 가무를 수반한 축제형 의례라 할 수 있다.

예맥계인 부여와 고구려에도 각각 영고(迎鼓)와 동맹(東盟)이란 제천의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무천 역시 예맥계 종족의 제천의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명칭이 달랐다는 것은 의례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음을 의미한다. 또 거행 시기가 부여의 영고는 12월인 데 비해 동맹과 무천은 10월이다. 의례의 거행 시기는 의례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맹과 무천은 영고와 목적 등이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영고와 동맹이 '나라 안의 큰 모임[國中大會]'이었는 데 비해 무천은 그렇지 않았다는 차이점도 있다. '나라 안의 큰 모임'이란 의례가 국가 차원에서 거행되었다는 의미이다. 부여와 고구려는 국가 단계로 진입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나라 안의 큰 모임'으로서 영고와 동맹은 국가 구성원의 통합과 왕권의 성장을 뒷받침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비해 동예는 폐쇄적인 부족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낙랑이나 고구려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무천은 '나라 안의 큰 모임'으로 거행될 수 없었고, 그 결과 사회적 기능 면에서 영고나 동맹과 달랐다. 다시 말해 삼한에서 10월에 수확제를 거행한 것처럼 무천은 동예의 수확제로서 부족집단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640년 무렵 중국에서 나온 『토원책부(兎園策府)』라는 문헌에서는 무천을 조선의 의례라고 했다. 여기서 언급된 조선을 고조선으로 본다면 무천은 고조선의 의례가 된다. 그러나 다른 문헌에는 이러한 사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조선은 동예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동이족 사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三國志, 한국 고대의 제천의례(서영대, 한국사시민강좌 45, 일조각, 2009).

필자 서영대(徐永大)

무후제

표제어 망제(279쪽)

문경성저리동제

정의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성저리 성밑마을 모산굴(茅山窟, 경상북도 기념물 제27호)에서 왜적에게 몰살당한 주민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행하는 동제.

역사 '모산굴'은 마을과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피신해 있다가 모두 질식사했다고 전하는 곳이다. 당시에 사람이 굴 밖에 빨래한 옷을 널어 둔 것을 발견한 왜놈들이 독 있는 나무에 불을 지펴 굴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마을에서 흉한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 굴의 뭇 귀신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무당의 점괘대로 하였더니 흉한 일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때부터 매년 '귀신 달군 날'에 위령제를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성밑마을의 위령제였지만 이 굴에서 제의를 잘 지내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풍물패와 함께 동제를 행한 이튿날인 정월 열엿샛날에 이 굴에 찾아와서 기세배를 올린다.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마을에 우환이 잦아서 1993년에 복원하여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 마을은 동제에서 행하는 대동놀이로 더 유명한 곳이다. '기세배', '성밑 굴 빌기', '귀신달구기', '기싸움', '모살굴별신놀이' 등의 이름으로 전승되어 온 대동놀이는 당시 이 일대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이 행사에는 가은읍내뿐만 아니라 도보로 20㎞ 이상 떨어진 상주 일대 마을까지 참여하였다.

내용 **1. 동고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성저리 동고사의 제당은 마을 어귀의 400년이 넘은 동신목(洞神木), 왕산 정상의 참나무인 산신당(山神堂), 이웃에 위치한 새터마을의 당목과 입석으로 구성된 동신당(洞神堂)이다. 마을 어귀의 동신목과 새터의 당(堂)은 부부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목은 불에 타서 흔적만 남아 있으며, 새터의 동신당은 돌무더기였으나 농경지를 정리할 때 당을 없애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현재는 당목과 입석이 있고 제물 진설을 위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제의는 '동고사'라고 하며, 제당은 수구맥이 · 산지당 · 새터당이라고 한다. 제관은 섣달그믐께 이장이 생기복덕에 따라 선정한 뒤에 동네회의에서 헌관과 축관을 선출한다. 경비는 동답 다섯 마지기의 소출로 충당한다. 세 곳의 제당에서 제의를 행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제의를 동신목에서만 행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가 마을에 나쁜 일이 자주 발생하여 본래대로 행하고 있다. 1940년대까지 별신굿이 5년마다 행해졌으나 지금은 중단되었다.

제물은 선출된 제관이 가은 장보다 비교적 거리가 멀어서 아는 사람이 적은 농암 장을 이용한다. 이것은 아는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게 될 부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금기는 보통 제당들과 제관 집에 금줄을 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금줄은 제일(祭日) 일주일 전에 제관과 축관이 꼰 것으로, 각 제당과 제관의 집 앞에 친다. 금줄을 친 뒤부터 제관들은 매일 냇가에 가서 목욕재계해야 한다.

정월 열나흗날 저녁부터 제관은 제물을 장만한다. 그러다가 밤 12시(정월대보름 0시)가 가까워지면 제관과 축관은 제물을 들고 먼저 동신목으로 향한다. 제당에 도착한 이들은 제물을 진설하고, 재배하고, 술잔을 올리고, 독축하고, 소지올리기를 행한다. 그리고 다시 재배하는 것으로 제의는 끝난다. 축문 내용은 이장과 모든 동민, 공직자 및 운전자, 객지의 자손들, 농사의 풍농과 특용작물의 풍농, 모든 일의 성취 등에 대한 사항들을 동신에게 기원하는 것이다. 즉 동신은 동민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한 해 동안 보호하고 있으며, 동민은 동신에게 그 성취를 기원하기 위해 동고사(수구맥이제)를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온 제관과 축관은 다시 제물을 들고 왕산의 정상에 위치한 산지당으로 향한다. 산지당의 제의 절차는 동고사와 동일하다. 이들은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새터당으로 가 제의를 행한다. 이튿날 새벽 2시쯤에 모든 제의가 끝난다. 제관과 축관은 제관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음복을 하고, 축관은 집으로 돌아간다.

정월대보름날 오전에 마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음복하면서 동네 회의와 경비 결산을 한 다음 풍물을 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회의 내용은 그해의 품삯 결정 등 공사(公事)와 마을재산의 문서닦기, 이튿날에 행하게 될 성밑 굴 빌기 및 기세배와 관련한 사항 등이다. 기세배와 관련한 주된 사항은 '다른 마을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어떻게 맞이하여 대접할 것인가'와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말릴 것인가'이다. 성밑마을에는 나락을 500~1,000석 가까이 수확하는 부잣집이 다섯 집 정도 있었는데 이들이 경비를 부담하였다. 보통 술을 장만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일이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여서 다툼과 시비가 빈번했다. 이 때문에 부잣집에서는 힘센 장정들을 고용하여 이날 행사에 동원하였다. 이들 장정에게는 일 년치 품삯을 더 쳐서 주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음복과 회의가 끝난 뒤 복색을 갖추고 풍물과 농기(農旗)를 꺼내들고서 이튿날 있을 행사를 위해 풍물연습을 한다. 해질녘이 되면 이튿날 행사를 다시 한 번 더 논의한 다음 집으로 돌아간다. 젊은이들은 남아서 모산굴을 밝힐 관솔을 준비한다. 또한 마을의 각 집안의 부녀자들은 행사에 오게 될 손님들 접대를 위한 준비로 바쁘게 움직인다. 기세배를 구경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하루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기도 한다.

성저리의 동제는 매년 행하는 것이지만 5년마다 별신굿도 행하였다. 별신굿은 수구맥이 동신목 앞에 굿당을 차려 놓고 인근의 무당 7~8명을 초빙하여 성대하게 행한다. 이 굿은 '귀신달군 날'(정월 열엿샛날) 하루 동안 진행된다.

1997년에 행한 동고사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丁丑) 正月(辛巳) 朔十五日(乙未)
幼學 (蔡仁植) 大祝 (南太熙)
감히 소소히 謹告하옵나이다.
一. 영명하신 동신(洞神)님 전(前)에 전 동민들이 정성을 모아 진상상(進床上)하오나 부족함을 용서하옵시고 소소히 기꺼이 많이 흠향하시옵소서.
一. 여쭐 말씀 무지 미련한 인생들은 오직 동신님의 보호해 주시는 덕분으로 무사히 생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천만 감사히 경송하고 있습니다.
一. 정축년 새해에도 전 동민을 대표하여 중요한 동사무(洞事務)를 담당한 이장의 계획설계하는 매사가 여의(如意) 잘 되도록 동신님 전께옵서 지혜를 깨우쳐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기원복망(祈願伏望)하옵나이다.
一. 다음은 성저 우리 마을 백 여호 집집마다 계획하고 소망하는 매사가 여의형통하옵고 다행이 충만하옵기를 영명하신 동신님께서 고루고루 보살펴 주심을 천만번 기원복망하나이다.
一. 다음은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동리의 남녀노소 모두 무사안일(無事安逸)하기를 기원복망하나이다.
一. 다음은 우리 마을 집집마다 자녀손들이 객리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하는 매사가 여의하옵기 가호하여 주심을 동신님의 은덕을 길이길이 기원복망하옵나이다.
一. 다음은 농촌생활은 농사가 제일 큰 직업이옵나이다. 집집마다 오곡잡곡이 풍성하고 모든 작업에 지혜를 깨우쳐 주심을 기원경망하옵나이다.
一. 다음은 우리 마을 특용작물로 큰 몫을 하는 연초경작 버섯재배 잠업축산 기외 전 동민의 대소사 간 계획지사가 모두 성취하도록 동신님 전간절히 기원복망하옵나이다.
一. 끝으로 우리 마을 동신님의 천추의 명복을 길이길이 경송앙축하옵나이다.
一. 재차 여쭐 말씀 정축년을 맞이하여 전동(全洞) 집집마다 무사태평(無事泰平)하고 항상 평화롭고만사여의형통하옵기를 동신님의 가호를 진심으로 축원하여 공손히 재배하옵니다.

2. 기세배 '귀신 달군 날'인 열엿샛날에는 동신목과 동사가 있는 마을 앞 광장에서 동네 어른들과 풍물패가 모여 한바탕 힘차게 풍물을 두드린 다음 아침 9시나 10시쯤에 농기를 앞세우고 모산굴로 향한다. 모산굴 앞에는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6,600㎡의 넓은 공터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굴등'이라고 불린다. '굴등'에 도착한 풍물패는 한바탕 풍물을 치면서 놀이를 한 다음 상쇠의 지휘에 따라 굴 앞에 모여서 고유제 준비를 한다.

고유제는 준비해 온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굴을 향해 절을 올리는 것이 전부이다. 제관과 농기가 앞줄에 서고 그 뒤로 풍물패가 무리를 지어 도열하여 절을 올린다. 모산굴에서의 고유제는 돼지고기와 삼실과, 술을 진설하고 술잔을 올리면서 고유(告由,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그 내용을 신에게 고함)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난다. 고유제의 축문에 따르면 위령제가 임진왜란 이후에 지속되다가 어느 해부터 중단되었고 1993년에 비로소 재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령제의 의미는 주민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집집마다 무사하고 평화롭고 다행스럽게 살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다. 또한 농사와 각종 특수작물과 가축업 · 상업 · 공업 · 광업 등 주민들의 성공적인 생활을 돌보아 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제사가 끝나면 제관과 축관, 주민들은 풍물을 울리면서 관솔불이 밝혀진 모산굴로 들어간다. 이들은 20~30분 동안 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나온 다음 굴 입구에 위치한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농기를 세워둔다. 다른 마을에서 온 농기들은 성저리의 농기에게 세배를 올린 뒤에 들어간다. 주변 마을은 성저리를 '형님마을', '어른마을' 등으로 부른다.

오후 1~2시가 되면 다른 마을 농기들이 모두 굴 앞에 모여 함께 세배를 올린다. 이것은 굴에서 희생당한 영혼을 달래 주는 의미라고 한다. 성저리의 농기를 필두로 참가한 마을 전체의 농기가 상쇠의 인사굿 가락을 신호로 굴을 향해 45도 각도로 깍듯이 절을 올린다. 그런 뒤 각 마을의 농기는 자기 마을의 풍물패 쪽으로 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성저리를 제외한 마을끼리는 농기들이 맞닥뜨릴 때마다 기(氣)싸움을 벌이면서 장정끼리 싸우기도 하고 기(旗)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승리한 편에서는 더욱 기세가 등등하지만 패한 마을에서는 풀이 죽어서 분함을 삭이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싸움이 너무 심하게 벌어진 때에는 주관 마을인 성저리 사람들이 중지하도록 말리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싸움을 계속하기도 했다고 한다.

기세배는 하루 만에 끝난다. 오후 5시쯤 해가 뉘엿뉘엿해 질 무렵에 모든 마을 참가자들은 농기와 풍물패를 앞세우고 자기 마을로 돌아간다. 이때 농기가 찢기거나 부러진 마을의 경우 "허리춤에 꽹매기만 달랑달랑 매고 간다"는 말과 같이 풍물을 제대로 울리지도 못하고 의기소침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돌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술에 취해 있기도 하며, 자기 마을로 돌아간 뒤에도 술을 마시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 성저리의 기세배는 1940년까지 행해지다가 중단되었다.

모산굴 고유제 축문(1993년)은 다음과 같다.

축 성저동굴 고유제

維歲次(癸酉)十月(乙亥)朔二十一日(乙未)
洞民代行 (李相大) 敢昭告于 祝官 (南太熙)
癸酉年十月二十一日 吉辰日에 감히 동굴영혼 전(前)에 엄숙히 고유제를 올립니다.
근 십여 년 전에는 동리 선인(先人)들께서 임진란시 동굴에 화를 당한 원혼신령님전에 위령제를 올리었으나 세상 변천으로 관의 중지를 당하고 이때까지 배알하지 못하여 심히 죄송하옵기로 동굴 주변을 단장하고 세세년년(歲歲年年) 정성으로 봉공하겠습니다.
자애하시고 현명하신 영혼신님께옵서 무지한 동민들을 관대히 용서하옵시고 오늘에 변변치 못한 한 시루 백편과 주과포로 제수를 하였사오니 이 정성을 쾌히 받아주시옵기를 경망하며 재배하옵니이다.
현명하신 영혼신님께서 미련한 인간들을 갈지 마시고 항상 이 못난 인생들을 고루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복망하옵나이다.
더하여 영혼신님께옵서 전 동민들에게 올바른 의사와 지혜를 깨우쳐 주셔서 가가호호마다 무사하고 평화롭고 다행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심을 간절히 빌고 비나이다.
또 동민들은 농사를 제일로 하온데 오곡잡곡이 풍성하고 각종 특수작물 가축산 상업 공업 광업 등등을 하는 동민들 중에서 각리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성공하도록 돌보아 주시고 내내 전 동민들이 상부상조하며 화목하고 인정 있고 다행다복하옵기를 진심으로 복망하나이다.
끝으로 오늘 정성을 모은 제수로 위령제를 쾌히 받아주시고 많이 헌향하옵시고 영혼신님의 천만년 명복을 경망하옵고 전 동민들을 대(代)하여 공손히 재배하나이다.

참고문헌 문경 모산굴 기세배 조사보고(안태현, 문경 모산굴 기세배, 문경세재박물관, 2000).

필자 이기태(李淇泰)

문경소야리동제

정의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에서 매년 정월 초닷새에서 대보름 사이에 산신(호랑이), 천신(天神), 성황신(최윤덕 장군)에게 마을 주민의 평안과 풍농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

역사 소야리동제의 역사는 분명치 않다. 다만 마을의 개촌 시기와 성황신을 모시게 된 당신화를 통해

200~300년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산신·천신·성황신의 삼당 체계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신(산신, 천신)과 동신(성황신)의 범주에서 분화 발전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을에서 나타나는 다당(多堂)의 동신체계와 같은 원리이다.

내용 소야리동제는 산신제, 천신제, 성황제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산신제를 모시는 산제당의 형태는 소나무 군락이며, 신격은 산신이다. 천신제를 모시는 천제당의 형태는 고목과 돌무더기를 쌓은 제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격은 천신이다. 성황제를 모시는 성황당은 당집 형태로 되어 있으며, 신체는 방울을 매단 성황대이고, 신격은 인물신인 '최윤덕 장군'이다. 이곳 성황당에는 쇠말 다섯 마리와 방울이 함께 모셔져 있다.

1. 준비 과정 소야리에서는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집집마다 조상제사를 모신 뒤 주민들이 성황당 앞으로 모인다. 주민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 해의 제일(祭日)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주민들이 모이면 지난해에 선정된 당주가 준비한 제물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신내림을 통해 제일을 결정한다. 제의 날짜는 대개 말[午]날이나 소[丑]날, 돼지[亥]날로 정한다. 동제가 끝나면 신이 이 동물들을 타고 다시 성황당으로 올라간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신내림의 과정은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동회(洞會)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사안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실어 주게 된다. 제일을 결정한 뒤 당주는 성황님을 모시고 마을로 내려와 자신의 집에 봉안한다. 당주는 마당에 자리를 깔고 병풍을 친 다음 상을 마련하여 신대를 기대어 놓고 동제일까지 성황님을 모신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성황님께 메와 탕을 올린다. 성황님을 봉안하는 기간은 짧게는 닷새에서 길게는 보름 정도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 대부분은 이 기간에 한두 번 성황님을 뵈러 온다. 마을 사람들이 성황님을 뵈러 오는 것을 이곳에서는 "세배하러 온다"고 한다. 성황님을 봉안하는 집은 당주의 집만이 아니라 제관 집, 축관 집에서 하루씩 모시기도 한다. 마을 주민 중에 자신의 집에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모셔오기도 한다.

한편 짚으로 말, 짚신, 방망이 등을 만들어 마을 어귀의 금줄에 끼워 단다. 각각의 제장(祭場)이 되는 산신당·천제당·성황당 주변에도 모두 금줄을 치고, 당주의 집에도 금줄을 쳐서 외부인들의 접근을 막는다. 이 금줄은 마을 어귀에는 정월 초하룻날 치지만 당주집이나 당에는 성황제를 지내기 하루 전날에 친다. 당주집에 금줄을 치기 전까지는 성황님에게 세배를 드리러 오는 주민들의 출입을 허용하지만 일단 금줄을 치고 나면 축관이나 제관만 출입이 허용될 뿐 그 외 사람들의 출입은 일체 금지된다. 동제가 끝나면 금줄은 당주집의 금줄만 걷고 당과 마을 어귀의 금줄은 저절로 떨어지거나 썩고 삭더라도 그대로 둔다.

2. 제의 과정 동제는 동제일 새벽(전날 밤)과 당일 아침에 모두 이루어진다. 동제일 새벽(전날 밤)에 산제당과 천제당에 제사를 지내고, 아침에 성황님 제사를 올린다. 여기 주민들은 성황님 제사를 '큰제사'라고 부른다.

밤 9시에서 10시쯤에 제관 한 명과 짐꾼 한 명이 산제당에 올라간다. 산신 제사에는 새옹(메)과 물만 진설하며, 반드시 솥째 올린다. 예전에는 산에서 직접 밥을 지었지만 최근에는 당주집에서 지은 밥을 가지고 가서 올린다.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관은 "송정산 신령님!"하고 세 번을 외치며, 이에 대해 자답 형식으로 "어흥(범 우는 소리)"하는 소리를 내어 신령님이 응답하였음을 알리고 제사를 올린다고 소리친다. 헌작과 재배를 한 다음 금줄 바깥으로 나와서 고축을 한다. 축관을 따로 두지 않고 제관이 고축까지 담당한다. 다시 금줄 안으로 들어가서 준비해 온 문종이로 소지를 올리면 산신제는 끝이 난다. 이 때 소지는 한 장만 올리고, 진설한 새옹메는 다시 마을로 가지고 내려온다. 산신제를 올리고 나면 시간은 밤 12시를 넘어선다.

천제의 경우 산제당의 제관과 짐꾼이 내려오기 전에 제관, 축관, 짐꾼은 천제당에 올라간다. 제관, 축관, 짐꾼은 천제당에 올라가서 산제당의 제사가 끝날 때까지 천제당 옆의 샘에서 목욕재계를 하고 새옹으로 밥을 짓는다. 천제당의 새옹도 산신제와 마찬가지로 당주 집에서 지어간다. 산제당의 제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과일, 포, 물명태, 전, 탕, 백편을 진설하고 제사를 시작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 해도 소나 짐승 등 희생물은 천제당에서 직접 처리해서 천제당과 성황당에 올릴 고기를 마련하였다. 소는 반을 갈라 천제당과 성황당에 쓸 것을 구분한다. 천제당에는 직접 잡은 생고기를 올리고, 성황당에는 삶아서 사용한다. 천제당의 제차(祭次)도 산신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산제당에서는 축관 없이 제관이 직접 고축하는 반면에 산제당에서는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관이 고축하면 제관은 축문을 태워 마을의 무사태평을 빌고 인재(人災)와 질병이 없도록 기원한다.

아침이 되면 당주 집에서는 간밤에 치른 산신제와 천신제에 대한 음복을 위해 제사에 쓰인 제물을 마을의 각 집에 돌린다. 오전 9시나 10시쯤이 되면 모든 마을 사람이 당주 집에 모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당주 집 마당에서 성황신 제사를 올린다. 이 때 성황신에게 산신제와 천신제를 잘 받았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본다. '잘 받았다'고 여기면 산신제의 제관과 천신제의 제관이 각각 절을 하고 물러난다. 그러나 '못 받았다'고 하면 '벌'이라 하여 여물처럼 짚을 썰어 물에 담근 것을 제관들이 마시기도 하고 새옹의 밥을 다시 지어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성황제에 쓰이는 제물은 천신제와 같다. 다만 천신제에는 생고기를 올리는 반면에 성황제에는 삶은 고기를 올린다. 유교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주가 아헌관이 된다. 축관이 축을 읽고 소지를 올리면 성황제는 끝난다.

3. 종결 과정 성황제가 끝나면 이어서 이듬해 당주를 선정하는 신내림을 행한다. 신내림을 할 때에는 지난해 당주를 한 사람이나 마을에서 깨끗한 사람이 주로 성황대를 잡는다. 성황대를 잡는 사람은 먼저 "지난해 당주를 재임하실랍니까?"하고 묻는다. 신대가 흔들려 응낙하면 더 이상 묻지 않고, 내림이 내리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옮겨 가실랍니까?"고 묻는다. 내림이 내리면 "○○○가 어떻습니까"하고 이름을 넣어 묻는다. 내림이 내리지 않으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한다. 묻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지난해 당주나 제관을 한 사람에 대해 먼저 묻는다. 이러한 신내림을 통해 제관 두 명(산제관, 천제관), 축관 두 명(천제 축관, 성황제 축관), 입당주 한 명, 조당주 한 명, 짐꾼 세 명으로 모두 아홉 명을 선정한다.

당주와 제관 등 임원을 선출하고 나면 이어서 나라의 평안, 마을의 대소사, 일년 농사에 대해 고문(告問)을 시작한다. 각각의 물음에 대해 신은 신대의 흔들림으로 응답한다. 신에게 고문하는 절차가 끝나면 새로 선정된 당주가 성황대를 들고 성황당에 올라간다. 당집에 도착하면 다시 간단한 제사를 올리고 성황대를 당집에 좌정시킨 뒤 제물을 거두어 마을로 내려온다. 성황제가 모두 끝나면 다시 음복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린다.

특징 및 의의 소야리에는 제의의 발생을 방증하는 당신(堂神)의 좌정경위담이나 당신의 영험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영험담류 등 마을신과 관련된 당신화군(堂神話群)이 풍부하게 전해진다.

이는 제의와 신화 중 어느 것이 선행되었는가 하는 문제 제기에 좋은 답을 제시한다. 이는 신화가 제의의 발생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의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신화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신화와 제의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마을신과 관련된 신화와 제의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신화는 제의가 시작된 연유를 설명하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영험담류나 역사화된 신화가 덧붙여져 제의를 더 강화하고 제의의 정당성을 거듭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소야리의 동제와 당신화에서는 이것을 포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동제의 전승양상과 전승의식**(류종목, 한국민속학 46, 한국민속학회, 2007), **동제 전승주체의 변화**(강정원,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마을신앙 연구의 검토와 지평 확대**(표인주, 마을민속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5), **마을신화 연구방법**(천혜숙, 마을민속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5).

필자 **박혜령(朴惠玲)**

미륵당

정의 도솔천에 살며 56억 7000만 년 뒤에 미륵불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는 장래의 미륵부처를 모시는

마을제당이나 석불입상.

형태 미륵당 · 미륵제당 · 미라당 등으로 불리는 석불입상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형태도 다양하다.

군위인각사미륵당석불좌상(軍威麟角寺彌勒堂石佛坐像,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26호)은 조선 중기 때 보호각을 세워 1959~1960년에 보수 · 증축한 뒤 이름을 법화당(法華堂)으로 바꾸었다. 맞배지붕으로 골기와를 얹은 사방 3.1m의 단칸 벽돌집안에 화강암으로 만든 석불입상이 마을의 평안을 빌기 위해 조성되었고, 예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어졌다고 한다.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의 길가에 있는 미륵당석조미륵입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32호)은 높이 220㎝, 어깨 폭 95㎝이다. 몸체 일부는 지하에 묻혀 있다. 높이는 2.49m, 가슴 폭은 1.07m, 얼굴 길이는 1.14m이다.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등산로 고속도로 굴다리 어귀에 위치한 15.2㎡ 미륵당에는 목탁과 제기가 갖추어져 있으며, 크기가 2m 정도 되는 백색 입상인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3호인 이 미륵불은 원터마을의 수호신으로 일 년에 한 번 주민들이 동제를 지내는 가운데 아주 신비한 영험이 있다고 알려져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마차를 동원하여 이 미륵불을 일본에 반출하려다 실패한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미륵불의 영험을 믿고 계속 몰려들자 일본인들은 미륵불의 배꼽을 쪼아 냈으며 그후부터 미륵불은 영험한 능력을 상실했다고 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275번지 동자복

미륵당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2006.3.26, 이인화

미륵당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2006.2.12
이인화

(제주도 민속자료 제1-1호)은 만수사 옛 터인 민가주택 안에 자리하고 있는 미륵으로, 옛날 제주성의 동쪽에서 성 안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한다. '자복신'(재물과 복의 신), '자복미륵', '미륵불', '큰 어른'으로도 불린다. 신장 286㎝, 얼굴 길이 161㎝, 아랫몸 둘레 662㎝의 크기로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으로 조각해 놓았다. 신장 273㎝, 얼굴길이 135㎝, 아랫몸 둘레 315㎝의 크기인 서자복(제주도 민속자료 제1-2호)은 높이 66㎝의 받침돌 위에 서 있다. 곁에는 높이 75㎝, 둘레 100㎝가 되는 남근을 상징하는 동자상이 서 있다. 이 동자상에 걸터앉아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고 있다. 매년 음력 이월 보름날과 동짓달 보름날이면 미륵을 위한 불공이 법당 안에서 행해진다. 개인 집 울타리에 있어 특별히 정해 놓은 제사일은 없지만 미륵에 치성을 드려 득남한 여인들은 조상처럼 극진히 모시고 있다.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역사 사찰 인근의 마을이나 미륵으로 섬기는 선돌이 있는 내륙 지역의 마을에서 전승이 활발한 편이다. 미륵신앙은 한국 초기불교 수용에서부터 전래되어 신라와 백제에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응용되어 6세

미륵당
충남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2006.2.11
이인화

미륵당
충남 홍성군 홍성읍 광경동, 2006.2.11
이인화

기 이후 널리 신앙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인들은 미륵하생신앙에 대한 믿음이 깊었다. 미륵하생신앙은 먼 장래에 미륵불이 출현할 것이며, 그때 이상세계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 백제의 무왕은 익산 미륵사(彌勒寺)의 창건으로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신라의 진흥왕은 왕자 이름을 사륜(舍輪, 金輪)으로 지어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이상적 치세를 흠모하는 정치를 펼쳤다. 후삼국시대 궁예는 자신을 미륵이라 지칭하여 대중의 일시적인 호응을 얻기도 하였고, 주술의존성이 강한 고려 불교의 미륵신앙은 미륵에 대한 믿음이 더욱 보편화되어 곳곳에 미륵불이 조성되는 등 미륵신앙의 민중화가 이루어졌다. 민간신앙으로서 득남 · 금기 · 기복 · 치병 · 수호 등 무속과의 습합현상을 보이며 발전하였고, 조선의 억불정책이 미륵신앙과 민중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불교의 민간화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미륵하생신앙이 말법사상과 결부되면서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 발전하였다.

지역사례 미륵당은 불교신앙과 연계되어 민간신앙으로서 불교 사찰과 함께 충남 서산 · 예산 · 홍성 · 경기도 안성 등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시도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다.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454-1번지 포초골 미륵좌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5호),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미륵석불(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호), 충북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미륵석불(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호),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석조미륵보살 입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8호), 제주도 민속자료 제1, 2호인 동자복 · 서자복 등 많은 수가 있다.

특히 충남 서산 해미면 해미읍성의 사방에 미륵을 세워 읍성의 허를 막고자 세워졌다는 미륵이 서문쪽에 반양리 미륵(할아버지미륵, 불상형), 동문쪽에 산수리 미륵(모자, 가슴에 ※자 표시), 북문쪽에 황락리 미륵골 미륵(문인석형), 남문쪽에 조산리 장승(할머니미륵, 고깔형 두식)이 있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성1리 바깥목시는 평야지로 보자암에 돌미륵이 보관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미륵제를 음력 정월에 택일하여 제를 지냈다. 1967년 조사 당시에는 제를 지냈으나 1970년 초에 제의가 없어졌다. 이 미륵제는 걸립으로 제비를 마련해 백무리, 포, 삼색실과, 술, 식혜를 놓고 유교식 제의로 치르는 마을 제의이다. 높이 2.5m, 둘레 3.8m로 입석 일자는 모르지만 2000여 년 전 입석문화시절에 입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웃 나라와 경계하면서 외세의 공격을 막는 방편으로 '우리는 이만큼 큰 돌을 운반할 수 있는 위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위세로서 지금의 예산군 신암면 용산에서 운반하여 현 위치에 세웠다는 전설이 있다. 그 이후 '미륵'이라 칭하여 동민들이 연 2회 제를 드리고 위해 오다가 1회로 줄여 지내고 있다. 동민들은 각자가 그곳에 정성을 들여 자기가 원하는 일이 성취된다고 믿고 더 소중히 모시고 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곳에 차려 놓은 제단의 '떡'을 개가 먹다가 즉사하였다.

참고문헌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금산의 탑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이인화, 민속원, 2006), **당진의 민간신앙**(이인화, 당진문화원, 1996), **대장군 신앙의 연구**(임동권, 민속원, 1998), **보령의 동제**(황의호, 보령문화원, 2001), **조선땅 마을지킴이**(주강현 · 장정룡, 열화당, 1993), **충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1), **한국의 마을제당-충청남도**(국립민속박물관, 1998), **홍성의 마을공동체신앙**(최운식 · 김정헌, 홍성문화원, 1999).

필자 **이인화(李仁和)**

제의
벅수제
볏가리제
보령외연도당제
보성당촌별신당제
부군당제
부산두호마을당제
부안돌모산당산제
부여괴목마을노신제
부여내지리단잡기
부여포사마을산신제
부천김은구지도당제
불막이제

제의장소
보령외연도진횡장군사당
보성당촌별신당
부군당
부산강선대당산
부산당리동제석할매당
부산대리당산
부산수내리고당할미당
부산수영할매당
부산신선동산제당·아씨당
부산청사포당산

신체
벅수
부안동문안당산
부안서문안당산
부안죽림리석장승

제물
백지
봉지밥
불밝이쌀
불백기
뼈매달기

제구
벳기
볏가릿대
봉죽기

자료
부락제

용어
반기
밥무덤
뱅이
부정
비보

반기
밥무덤
백지
뱃기
뱅이
벅수
벅수제
볏가릿대
볏가리제
보령외연도당제
보령외연도진횡장군사당
보성당촌별신당
보성당촌별신당제
봉죽기

ㅂ

봉지밥
부군당
부군당제
부락제
부산강선대당산
부산당리동제석할매당
부산대리당산
부산두호마을당제
부산수내리고당할미당
부산수영할매당
부산신선동산제당·아씨당
부산청사포당산
부안돌모산당산제
부안동문안당산
부안서문안당산
부안죽림리석장승
부여괴목마을노신제
부여내지리단잡기
부여포사마을산신제
부정
부천김은구지도당제
불막이제
불밝이쌀
불백기
비보
뼈매달기

반기(飯器)

정의 제사나 잔치를 마치고 나서 목판에 몫몫이 담아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나누어주는 음식. 동제를 마친 뒤에도 동제의 제물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거나 나누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내용 동제에서 볼 수 있는 반기에는 마을 사람이나 제사 비용을 낸 각 가정에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종교적 상징과 축제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제사를 마친 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제물에는 종교적 상징이 가미된다. 마을신이 흠향한 음식물로서 신성함이 깃들게 되고, 마을신의 행운이 담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물을 '재수 있는 음식', '복떡', '양떡' 등으로 부르며, 이것을 먹음으로써 마을신의 축복을 내재화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더불어 동제의 제물로 바치기 위한 제물인 희생(犧牲)을 장만해 제사를 지낸 뒤 반기를 통해 마을 사람끼리 나누어 먹거나 가정 단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함으로써 제수 마련, 축제적 성격, 육류 섭취의 기회를 갖는 측면도 담겨 있다.

반기에 담겨 있는 상징적 의미와 성격들은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 반기가 일어나는 모습은 각 마을이나 사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좁은 의미에서 반기는 제물로 올린 음식을 각 가정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국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의 현장이나 제사가 끝난 뒤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의 행위 속에도 반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기
서울 용산구 보광동, 2007, 오문선

반기
서울 용산구 용문동
2007, 오문선

지역사례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장골의 산제사에서는 제사가 끝난 뒤 당주집에서 음복을 하고, 시루떡을 잘라 지게에 지고 집집마다 돌린다. 한밤중이라도 문을 두드리며 고사떡 받으라고 소리치면 그릇을 들고 나와 받아간다. 이렇게 떡을 나누고 나면 새벽 3시쯤이 된다. 이는 각 가정의 제사나 잔치가 있는 경우 의례를 마친 직후 반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반기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기로 받은 제물을 이용해 가정 단위의 제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은실마을 당제에서는 당제가 끝나면 밤 한 개, 대추 한 개, 떡을 떼어 가지고 와서 가가호호 제를 올렸다. 즉 마을 당제를 지내고, 여기에 올린 제물로 각 가정에서도 별도의 제의를 지낸 것이다.

동제 비용의 추렴은 제사를 지내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제사를 마친 뒤 반기를 하며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마을의 경우 산신제가 끝난 뒤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을 하고 이날 아침에는 산제에 올린 음식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면서 제비를 받는다. 화주나 이장이 먼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떡을 나누어 주면서 제비를 거두는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노나매기친다', '산신각 노나매기'라고 부른다.

반기의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희생이다.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부군당제의 경우 제물로 소 한 마리를 준비한다. 소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의 가정 수대로 나누어 부담한다. 부군당제를 마친 뒤 제물로 올린 소는 소의 구입에 참가한 가정 수만큼 분배한다. 이처럼 제사 뒤에 이루어지는 반기는 개인적으로 쇠고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여 쇠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의 벌말산신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추수 후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면 추렴을 통해 제물에 사용할 소를 구입할 비용을 마련한다.

반기 경기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오방마을, 2002.12.12, 최호식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2리 산제사의 경우 산제사가 끝나면 제물로 올린 소를 70등분한다. 이는 각 가정에서 종교적 상징이 담겨서 복이 있는 제물인 희생을 이용해 쇠고깃국을 끓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골 골말서낭제의 사례에서는 당제를 마친 뒤 소를 나누어 집집마다 한 몫을 가져가게 한다. 소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는 마을회 기금으로 우선 해결하고, 집집마다 동일하게 거두었다. 예전에는 추수 후에 거두었으며, 지금은 제의를 지내고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거두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신현동 포동 새우개 당제의 경우 제사를 마치고 나서 미리 정해 둔 주비들을 불러 고기를 나누어 준다. 제상에 올린 익은 고기도 모두 반기의 대상이 된다. 주비들은 각각 10가구 몫의 고기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숙 받으시오" 하면서 나누어 준다. 반기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대부분 잠에 드는 때이지만 이 고기로 각 가정에서는 집고사를 지낸다.

희생동물의 장만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반기의 형식이 바뀌는 사례도 많다. 희생동물의 경우 장만하는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 부위만을 진설하는 것으로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증말 산신제는 옛날에 통소를 제물로 올린 때에는 통소를 똑같이 분배하여 가가호호 돌리는 것으로 모든 제의가 끝났으나 통소를 사용하지 않고부터는 다리와 머리를 마을회관에 두고 누구나 음복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동제의 사례 가운데에는 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당이 있는 곳에서 음복하는 것으로 제물의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도당제의 경우 제의가 끝나면 동네에 있는 큰 징을 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산치성터로 와서 음복에 참가한다. 이때 모든 제물은 절대 남겨서 집으로 들고 가지 않는다. 이 경우 제물의 재분배적 측면에서 반기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각 가정 단위로 제물이 재분배되는 반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제물을 마을로 들고 오면 그해에 쥐가 많아진다 하여 제당에서만 음복한다. 또한 제가

끝나면 온갖 귀신이 몰려든다 하여 음복하지 않고 제물을 산제당에 그대로 둔 채 쏜살같이 마을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현재 반기의 풍습은 상당히 약화되는 추세이다. 반기가 이루어지는 대신 동제에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음복하는 선에서 마치거나 음식이 흔해져서 반기로 보낸 음식을 반기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참고문헌 **갈매동 도당굿–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학술종합조사보고**(갈매동 도당굿 학술조사단 · 경기도 구리시, 1996),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김지욱 편저,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고을수령의 국가제사, 마을제사가 되다**(서울역사박물관, 비디오 녹화자료, 2008),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 1994), **서울 이태원 부군당굿**(양종승, 민속원, 2005), **한국의 마을신앙 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오문선(吳文仙)**

밥무덤

정의 경상남도 지역에서 동제를 지내고 나서 제사에 올린 밥(메)을 묻는 구덩이. 일부 지역에서는 당산제를 지내고 난 뒤 밥무덤에도 제사를 지낸다.

어원 '밥무덤'의 어원은 '밥'을 일정한 자리에 '묻었기'에 생긴 말로, '밥+무덤'에서 비롯된 합성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밥무덤의 다른 이름으로는 '밥구덩이', '밥구덕', '밥꾸디' '밥돌' 등이 있다. '밥구덩이'는 '밥+구덩이'의 형태로서 밥을 구덩이에 넣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밥구덕'은 '밥+구덕'의 형태로, '구덕'은 '구덩이'의 경상도 사투리다. 즉 '구덩이'를 줄여 '구덕'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밥꾸디'는 경상도 사투리에서 '구덩이'를 줄여서 '구디' 또는 '꾸디'라 발음하기도 한다. '밥돌'은 '밥+돌'의 형태로 앞의 형식과는 조금 다르게 생산된 말이다. 즉 밥을 집어넣고 덮개돌로 눌러 두기 때문에 밥과 돌을 따와서 '밥돌'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드물게 '흙무덤'(사천시 사남시화전리) 또는 '흙무더기'(창선면 오룡리)라고 하는 데도 있다. '흙무덤'은 흙을 묘처럼 봉분을 만들어 여기에 밥을 묻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흙무더기'는 일정한 공간에 흙을 모아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밥을 묻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밥무덤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2010.5.12, 배도식

밥무덤 경남 남해군 남면 가천리, 2010.5.7, 배도식

형태 밥무덤의 위치는 마을의 당산나무 아래나 마을에서 정갈한 곳이라 여겨지는 곳, 마을의 동서남북의 끝 등 적당한 자리에 있다. 옛날에는 밥을 땅에 바로 묻었으나 밥무덤을 신성시하여 밥을 묻을 수 있는 구조물을 제단처럼 만들어 거기다가 밥을 묻는 곳도 있다. 남해군 남면 가천마을의 밥무덤은 마을 중앙에 3층탑 모양의 밥무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동서쪽에 있는 돌담 벽에 감실을 만들어 밥무덤으로 쓰고 있다. 경남 남해군 상주 대량에는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의 원형으로 돌담을 쌓아 만든 구조물 안에 밥을 묻는다. 창선면의 오룡마을에서는 마을회관 마당에 시멘트로 상자형의 흙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밥을 묻는다.

밥무덤은 구덩이와 황토, 묻는 밥, 덮개돌로 구성된다. 밥을 묻기 위한 장치이므로 땅을 파야 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구덩이의 크기는 마을마다 일정하지 않지만 대개 직경 약 40~50㎝의 원형이며 깊이는 30㎝ 정도로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덩이를 팔 때에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지 않고 반드시 도끼를 이용한다. 이곳 사람들은 밥을 지고지순한 제물로 여기기 때문에 밭을 갈거나 거름을 퍼 나르는 농기구인 삽이나 괭이를 이용할 수 없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자리를 파는 데 깨끗하지 못한 도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해 나무를 쪼갤 때 쓰는 도끼는 깨끗하고, 날이 날카로워서 잡귀잡신이 미리 겁을 먹고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밥을 묻기 전에 미리 구덩이를 파 놓고 산에서 금방 채취한 붉은색깔의 신선한 황토를 깔고 밥을 넣은 다음 다시 황토를 덮는다. 그리고 그 위에 넓적한 덮개돌을 덮는다. 그 이후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내용 밥을 묻을 때에는 밥을 정갈한 한지에 서너 겹으로 싸서 정성껏 묻고, 흙으로 덮은 다음 그 위에 반반한 덮개돌을 덮어 둔다. 이는 제물로 넣은 밥을 쥐, 고양이, 개 등의 짐승이 해치면 불길한 일이 생기거나 신에게 바친 밥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논이 적어 벼농사가 어려운 남해 섬 지역에서는 쌀밥은 생명을 유지해 주는 귀한 주식이기 때문에 예부터 무척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에 따라 귀한 제물인 밥을 땅속에 넣는 것은 마을을 지켜 주는 모든 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풍요를 점지해 주는 땅의 신, 즉 지모신(地母神)에게 밥을 드림으로써 그 기운이 땅속에 스며들어 그 몇 십 배 또는 몇 백 배의 풍요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마을의 네 방위 끝에 밥을 묻어 방위신을 위로하고, 생명의 근원인 밥의 힘으로써 외부로부터 범접하는 악귀나 부정한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지역사례 밥무덤에 밥을 묻는 제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동제나 당산제를 지내고 나서 거기에 쓴 밥을 인근의 밥구덩이에 묻는 경우, 밥무덤에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한 밥을 묻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이다.

밥무덤
경남 남해군 창선면 오룡리, 2010.5.7
배도식

밥무덤
경남 남해군 상주면 대량마을, 2010.5.12
배도식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경남 남해군의 봉화, 내산, 숙호, 대지포, 선구와 창선면의 오룡 등지의 당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밥무덤에 밥을 묻는다. 이 가운데 오룡마을의 밥무덤은 다섯 곳이나 된다. 마을회관 마당의 밥무덤, 동쪽의 숲당산에 있는 돌탑 앞의 밥무덤, 서쪽 산자락의 돌탑 앞의 밥무덤, 마을 남쪽 끝과 북쪽 끝의 밥무덤이 그것이다. 오룡마을에서는 아직도 밥무덤 제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 일은 제관인 동수(洞首, 이장)가 맡아서 한다.

두 번째 사례는 남해군의 가천 · 대량 · 창선 · 오룡의 중앙 흙무더기, 사천시 화전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가천마을에서는 10월 보름날 저녁에 밥무덤 앞에서 동제를 지내고 거기에 쓴 밥을 바로 밥무덤에 묻는다. 밥무덤이 당산목 구실을 겸하고 있는 셈이다. 이 마을에는 밥무덤이 세 군데 있다. 마을 한가운데 네거리에 만들어 놓은 삼층탑 모양의 조형물 안에 밥무덤이 있다. 조형물의 크기는 밑변이 180㎝, 높이가 162㎝나 된다. 이 밖에 마을의 동쪽 언덕과 서쪽 언덕에 밥무덤이 있다. 동쪽과 서쪽의 것은 모두 돌을 쌓아 감실처럼 만든 것으로 그 안에 밥을 묻어 둔다. 밥무덤의 조형물을 만들기 전(1975년)까지는 마을회관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그 옆의 당산나무 아래에 밥을 묻었다고 한다.

밥무덤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2010.5.7, 배도식

이곳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앞서 밥무덤 양쪽에 볏짚 7~8개를 묶어 세워 놓는다. 제사 뒤에는 밥무덤 주위에 목화씨와 오곡을 뿌리며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목화씨를 구하기가 어렵고, 오곡을 구하기도 번거로워서 다섯 장의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동제를 지내기 전에 각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 함지에 메 · 국 · 떡 · 정화수 등 제물을 차려 밥무덤 앞에 갖다 놓고 개인제를 지낸다.

대량마을에서는 먼저 뒷산 중턱의 산신에게 가서 간단한 제사를 드리고 밥을 묻은 다음 마을로 내려와 돌을 쌓아 만든 밥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때에는 제수를 성대히 차린다. 독축하고 소지를 올리며, 밥무덤 둘레에 목화씨와 오곡을 흩어 뿌린다. 또

밥무덤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이동, 2010.5.7, 배도식

당산나무 가지에 마른 명태를 짚으로 싸서 매달아 둔다. 이는 두고두고 오랫동안 당산신이 흠향하기를 바라는 뜻이 있으며, 바닷고기의 풍요를 비는 의미도 있다. 이곳에서도 가천마을처럼 각 가정에서 제물을 차려와 개인제를 드리기도 한다. 밥무덤의 크기는 가로 147㎝, 세로 100㎝, 높이 100㎝ 정도나 된다.

창선면 오룡리에서는 마을회관 마당의 흙무더기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밥을 묻는다. 마을의 다섯 곳 밥무덤 가운데 이곳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제물을 많이 차린다고 한다.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마을에서는 봉분을 쌓은 밥무덤에 바로 제사를 지낸다. 마을 한가운데 도로가의 밭머리에 묘를 만들고 잔디를 입혔으며, 그 앞에는 상석도 놓았다. 상석의 전면에는 '화전천룡신제단(花田天龍神祭壇)'이라 각자되어 있다. 원래 마을 안쪽의 연못가에 할배 · 할매 당산목과 밥무덤이 있었지만 나무가 오래되어 고사하는 바람에 두 신위를 이곳으로 옮겨와 가상으로 두 신을 합묘하여 봉분을 만들었다. 다른 곳과는 드물게 무덤의 상봉에 밥무덤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이 봉분을 '흙무덤'이라 부르기도 한다. 상석의 오른쪽 측면에는 봉분이 만들어진 내력을 기록해 두었다.

세 번째 사례는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마을의 경우이다. 이곳에서는 가장 먼저 뒷산자락에 있는 당산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당산제는 오악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어서 밥 다섯 그릇, 국 다섯 그릇만 차린다고 한다. 당산 제사 뒤에 밥을 묻고 마을로 내려와 동네 들머리에 있는 밥무덤에 가서 다시 제사를 지내고 밥을 묻는다. 이곳에서는 제사의 절차를 중히 여겨 초헌 · 독축 · 아헌 · 종헌 하고 나서 다시 일동 사배하고 끝낸다. 이 마을에서는 제사를 관리하는 제관을 '관주'라고 하며 이 사람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

이곳의 밥무덤은 원래 마을 들머리의 풀밭에 있었다. 풀밭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야제(野祭)'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곳에 한 변이 2.5m 길이의 정삼각형 모양으로 높이 약 45㎝의 단을 만들어 그 가운데에 밥을 묻었다. 삼각형의 한 모서리를 개방하여 그곳을 출입구처럼 여겼다. 야제를 지내고 나서 목화씨와 오

밥무덤 배도식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010.5.7

경남 남해군 삼동면 대지포마을, 2010.5.12

경남 남해군 상주면 금포마을, 2010.5.12

곡의 씨를 밥무덤 주위에 뿌리고 소지를 올리며 풍농을 기원하였다. 이 제사에는 부정이 없는 사람이면 마을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야제를 지내던 옛날의 밥무덤은 몇 년 전의 구획 정리로 없어지고, 지금은 마을회관 앞마당에 높이 약 60㎝의 단을 쌓아 화단 모양의 새 밥무덤을 큼지막하게 만들어 두었다. 요새는 10월 보름에 마을회관에서 제사를 지내고 밥무덤에 밥만 묻는다고 한다. 남해군 서면 작장리 작장마을에서도 야제를 지낸다.

밥무덤에 밥을 묻을 때 밥만 단독으로 묻는 경우도 있고, 밥과 생선 · 과일 등 다른 제물도 조금씩 곁들여 함께 묻는 경우도 있다.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 노량리 · 문의리 · 문항리 · 비난리 · 진목리와 사천시 초양도가 그렇다. 이는 처음에는 밥만 묻던 것에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약간 변화되어 밥에다 다른 제물도 곁들인 경우이다.

다른 곳과 드물게 동제 하루 전날 미리 밥을 묻는 곳도 있다. 남해의 설천면 진목마을에서는 하루 전날 새벽에 밥을 묻는다. 설천면 문항리 문항마을, 비난리 정태마을 등도 그러하다. 정태마을에서는 밥과 제물을 묻고, 목화씨를 뿌리기도 했다고 한다.

남해군 삼동면 내산과 대지포, 상주면 금포, 남해읍 서변동에서는 당산제를 지내고 밥을 묻고 난 뒤 당산나무에 쳐진 금줄에 쇠뼈를 매단다. 쇠뼈를 매다는 것은 쇠뼈를 희생으로 바쳐서 오랫동안 신이 흠향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되지만, 쇠뼈로 악귀나 잡귀잡신을 위협하여 그들의 범접을 막으려는 의미도 있다.

요즘은 제사를 맡아 지낼 사람이 없어 주로 마을 이장이 주관하지만 옛날에는 생기복덕한 사람을 가려 뽑아 그로 하여금 목욕재계하고 숱한 금기를 지켜가면서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제의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예전에는 풍물도 치고 횃불놀이도 하였으나 요즘은 생략한다. 간혹 신이 나면 간단히 풍물을 치기도 한다.

우리나라 도처에 동제 또는 당산제를 지내는 곳은 많지만 밥무덤 제사를 지내거나 밥을 묻는 제의를 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예부터 이런 제의가 전승되고 있는 곳으로는 남해군 본섬과 창선도, 남해군과 사천시 사이 해협에 있는 섬인 신수도 · 초양도 · 마도 · 늑도와 사천시의 사남면 화전리 · 용현면 용치리 · 곤양면 환덕리 정도이다. 사천시의 경우 앞에 든 섬을 제외하고 현재 사남면 화전에서만 밥무덤제를 지내고 있다.

특징 남해안 지역에서 유독 밥무덤 제사를 지내 오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논이 없어 쌀이 귀한 지역이어서 쌀에 대한 애착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신앙으로 변모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밥을 정갈한 땅속에 묻었지만 가천 · 대량 · 오룡 등지에서는 이를 신성시하여 밥무덤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격상시켜 보이기 위해 구조물을 만드는 등 밥에 대한 신앙심이 지극함을 보여 주고 있다. 가천에서는 자연석을 쌓아 삼층탑 모양으로 만들었고, 대량에서는 돌을 쌓아 안락의자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무림에서는 단을 쌓아 화단처럼 만들었고, 화전에서는 봉분을 쌓아 묘처럼 만들었다.

무림에서는 당산과 밥무덤에 제를 지내기 전에 앞서 소금을 뿌려 잡귀를 몰아낸 다음 금줄을 친다. 밥무덤을 팔 때에는 삽이나 호미 · 괭이는 더럽다하여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도끼를 사용한다. 밥을 묻고 나서 가천, 소량, 대량, 무림, 정태 등지에서는 목화씨와 오곡을 뿌리고 풍농을 빌었다. 가천에서는 당산제를 지낼 때 밥무덤 옆에 볏짚 7~8개를 묶어서 양 옆에 세워 둔다. 이것도 벼농사의 풍농을 빌기 위한 모의행위이다. 그리고 소지를 올리면서 마을의 안과태평과 각 가정의 염원 달성을 빌었다. 가천과 대량에서는 당

밥무덤
경남 남해군 상주면 소량마을, 2010.5.12
배도식

밥무덤 경남 남해군 남면 선구리, 2010.5.12, 배도식

제를 지내기 전 밥무덤 앞에 개인적으로 제물을 차려 놓고 개인제를 지내기도 한다.

대량에서는 당산제를 지낸 뒤 당산목 가지에 마른 명태를 짚으로 싸서 매달아 두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사 후 쇠뼈를 금줄에 매달아 둔다. 소량의 당산이 있는 언덕에는 그 입구에 커다란 신대 두 개를 세우고 금줄을 쳐 두었다. 이곳이 신역이므로 평상시에도 잡인의 접근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당산목 아래에는 밥무덤이 있고, 산에서 채취해 온 붉은 황토 한 부대를 밥무덤 옆에 놓았다. 선구마을에서는 밥무덤에 작은 대나무 네 개를 세우고 왼새끼 금줄을 쳤는데, 붉은 고추를 매달아 놓았다. 고추의 붉은 색깔과 매운 독기로 잡귀잡신의 범접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참고문헌 **경남의 막돌탑과 선돌**(김봉우, 집문당, 2000),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남해군지**(남해군지편찬위원회, 1994), **남해안의 민속신앙**(하종갑, 우석, 1984), **남해의 얼**(남해군, 1985), **삼천포의 동제 연구**(정인진, 마루문학 3, 마루문학회, 1990), **이색마을 이색기행**(이용한, 실천문학사, 2002), **주강현의 우리문화 기행**(주강현, 해냄, 1997), **향토문화지**(경상남도, 1989), **향토의 민속문화**(강용권,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6).

필자 배도식(裵桃植)

백지

정의 산신제, 장승제, 유황제 등 모든 민속 제의에서 제신께 드리는 헌물. 제물을 싼다든가 진설할 때, 개인 및 대동소지를 올릴 때 사용한다.

내용 해안에 있는 제당에서는 서낭신에게 미역 · 길지, 오색옷감 등을 헌납하고 각종 제의에서 대동소지 및 개인소지를 올리는 데 사용된다. "소지가 호르르 호르르 잘 타올라야 좋다. 시커멓게 굴뚝처럼 타는 경우, 타다가 백지가 남는 경우는 일 년 신수가 좋지 않다"고 예견한다.

필자 이인화(李仁和)

뱃기

정의 뱃사람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배의 고물이나 이물에 다는 삼색 혹은 오색으로 만든 깃발.

뱃기 전북 위도 대리 앞 바다, 2010.2.16, 김준

뱃기
충남 대천항
2006.2.12. 김준

내용 뱃기는 일반적으로 삼색이나 오색의 천으로 만든다. 삼색은 청색 · 홍색 · 백색(홍색 · 황색 · 녹색), 오색은 청색 · 홍색 · 백색 · 황색 · 녹색으로 구성한다. 청색은 하늘, 홍색은 해, 황색은 중앙으로 공간, 초록은 풀, 백색은 땅을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우주 · 자연 · 만물 · 방위를 상징한다.

어업은 자본과 인간이 통제하기 어렵고 자연의존성이 강하다. 특히 뱃사람은 농사와 달리 이동성이 강한 고기를 좇아 오랫동안 고립된 바다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옛날에는 경험이 많은 선원의 직감과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존하였다. 어촌과 섬에 민간신앙이 발달한 이유다.

배의 민간신앙으로는 뱃기와 배서낭이 있다. 뱃기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인천에서는 상기와 호기, 군산과 장항에서는 대어기(大魚旗),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선주기(船主旗), 통영에서는 남서낭기라 부르기도 한다. 장식으로 뱃기를 달기도 하지만 신앙성을 띤 경우가 많다. 이를 일반적으로 '서낭기'라 한다. 인천지역의 고기잡이 배는 보통 상기와 호기라는 깃발을 거는데, 상기는 자신이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만들어 주기도 한다. 친구들이 해준 깃발은 '상(上)' 자의 점을 왼쪽으로 찍는다. 정월대보름날 당집에 올라가 가장 먼저 기를 내려 받아와 배에 꽂으면 일 년 내내 사고 없이 만선한다고 믿었다. 통영에서는 깃발에 물고기 그림이나 지역을 나타내는 글씨를 쓰기도 하였다. 이를 남서낭기라 하였다. 이는 삼색이나 오색의 서낭기를 여서낭기로 부르는 것과 대칭된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서낭기는 삼색기와 오색기가 대표적이다. 지역에 따라 고사기라고도 한다. 서낭은 성황(城隍)에서 비롯된 말로 풀이한다. 성황은 마을로 들고나는 고갯길에 위치해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 의례의 대상이었다. 배의 수호신으로 서낭과 깃발이 결합해 서낭기라 부른다. 고사기는 고사를 지낼 때 신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외에도 선왕(船王), 상왕(上王) 등 배 안의 으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한다. 서낭기의 제작은 선주가 하며 무당이나 정월대보름날 당할머니로부터 내려받는다. 무당에게 받을 때는 값을 치르며 깎거나 흥정을 하지 않는다.

서낭기는 신앙의 대상인 신체(神體), 당에서 신을 모셔오는 신간(神竿)의 역할을 한다. 뱃기는 당제나 고사를 지낼 때는 신체 상징물로 인식된다. 선주들은 첫 출어 시 배고사 전에 서낭기를 선주 집 대문에 세웠다가, 새벽에 당에 올라가 제를 지내고 농악과 함께 내려와 배에 서낭기를 꽂고 배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정월 당제를 지낼 때도 선주들은 뱃기를 가지고 마을 당에 올라가 제를 지내고 내려와 꽂고 갯제나 풍어제 혹은 띠배놀이를 하기도 한다. 조업 중에 고기가 잡히지 않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도 뱃기나 서낭에 부정을 씻는 고사를 지낸다. 만선을 했을 때는 뱃기를 내걸고 꽹과리나 북 등 풍장을 치며 돌아온다.

뱃기 외에 배에는 '배서낭'을 모신다. 가정에 성주신이 있듯이 배에서 모시는 신이다. 배서낭의 신체는 분 · 크림 · 색실 등 여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담은 그릇으로, '애기씨'라고 하며 선원들이 자는 방 '튀시칸'에 모셔 놓는다.

참고문헌 **김준의 갯벌이야기**(김준, 이후, 2009), **배고사와 서낭기에 대하여**(하효길, 한국민속학 12, 한국민속학회, 1980).

필자 김준(金準)

뱅이

정의 인간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불행한 사건을 자신의 뜻대로 환원시키거나 정상화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주술적 방법. 인간이 소망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성취하고자 할 경우에도 뱅이는 쓰인다. 음력 정초의 마을 액막이, 전염병 액막이, 기우제 등 마을공동체 단위의 뱅이와 도둑잡이 뱅이 등과 같은 개인 차원의 뱅이가 있다.

내용 뱅이는 인간을 항상 위협하는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재액(災厄)을 되도록이면 빨리 없애는 일종의 주술적 방법이다. 흔히 마을에 침입하는 돌림병을 막기 위하여 디딜방아를 마을 입구에 세워 놓고 베푸는 주술적 의례를 '디딜방아 뱅이'라 이르고 도깨비불에 시달리는 마을에 세우는 오리 짐대(솟대)를 '화재뱅이 짐대'라 부르는 것을 보면 '뱅이'는 분명히 '방지한다', '막는다' 등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곧 뱅이는 '예방하다', '없애다', '해결하다' 등의 뜻을 지닌다.

이 낱말은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불린다. 대개 서울을 비롯한 경기지방 일원에서는 '예방(豫防)' · '방예(防豫)', 충청과 전라 지방에서는 '뱅이'란 말과 함께 '방법' · '방사'라고 각각 부른다. 경남의 남부지역에서는 '이방[豫防]', 제주도에서는 '방쉬'라고 부른다.

이처럼 다양하게 부르는 말들의 어원(語源)은 한자어 방예(防豫) 또는 예방(豫防)과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일부의 민속어가 그렇지만 '뱅이'라 하는 민속현장에서 불려지는 낱말도 우리말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다. 한편 이를 '양밥'이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어의(語義)는 확실하지 않다. 양밥은 갑자기 발생한 잔병을 주술적으로 치유하는 '객귀물리기'나 '잔밥먹이기'와 동일한 뜻으로 흔히 쓰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앞서의 '뱅이'와 같은 뜻으로도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뱅이는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태를 지닌다. 이를테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심리적 치료에서부터 집 안에 부적을 붙이는 일, 도둑을 잡고 잃은 물건을 되찾으려고 할 때 치르는 주술을 포함하여 때로는 무당의 굿이나 마을공동체의 종교의례까지도 일컫는다. 그리고 남을 해칠 목적으로 하는 주술의례나 어떤 일이 잘되도록 하는 의례도 뱅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도둑잡이 뱅이**(이필영, 민속학연구 4, 국립민속박물관, 1997), **민속학에서 본 종교**(이필영, 종교문화비평,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2).

필자 이필영(李弼泳)

벅수

표제어 장승(750쪽)

벅수제

표제어 장승제(756쪽)

볏가릿대

상호참조 볏가리제(318쪽)

정의 농촌에서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월대보름날 짚이나 한지, 헝겊 등으로 쌀을 싸거나 혹은 쌀 · 보리 · 조 · 콩 · 팥 등 갖가지 곡식을 한데 싸서 장대에 매단 것.

형태 벗가릿대는 충청도 지역에서는 '벗가리대'나 '노적가리' 등으로 불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유지지', '농사장원기', '낟가릿대' 등으로 불린다. 벗가릿대의 형태와 재질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높이가 5~6m 되는 길고 튼실한 장대 형태이며, 재질은 생소나무 혹은 생대나무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묵은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장대를 세울 때에는 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동아줄 세 가닥을 매어서 땅에 고정하였다. 동아줄을 틀 때에는 이삭이 나는 쪽이 삐져나오도록 빼는데, 비교적 촘촘하게 빼어 놓는다. 이는 벼에 이삭이 달리는 것처럼 동아줄에 이삭을 달아 놓았으니 올해도 풍년이 들 것이라는 유감주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산 · 태안 · 예산 등 충남 내포 지역에서는 종이 혹은 헝겊에 쌀 혹은 오곡을 싸서 장대 맨 위에 매단다. 지역에 따라서 오곡을 한데 싸기도 하고, 종자마다 한지에 싸서 무명천으로 감싼 후에 걸어 놓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곡식이삭이나 목화송이를 매달기도 한다. 장대는 짚으로 주저리를 틀듯이 감싼다. 벗가릿대 위에는 장목을 달아 놓거나(충남 예산군 안호리) 농기를 꽂기도 하는데(예산군 고덕면 용리), 이 역시 농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전통사회에서는 연초에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고 기원하는 의례가 많이 행해졌다. 농사의 풍흉은 농민의 생존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벗가릿대 세우기는 정월대보름날 마을의 부잣집 마당에 세웠다가 2월 초하루에 쓰러뜨리는 농촌의 대표적인 풍농 기원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정월대보름날에서 2월 초하루까지는 한 해 농사가 시작되기 전이 준비 및 휴식 기간에 해당된다. 마을의 일꾼들은 이 기간에 부잣집들 앞마당 혹은 마을 공터에 벗가릿대를 세움으로써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일을 준비하게 된다.

벗가릿대를 쓰러뜨린 후 대는 마을에 따라서 곧바로 태워버리거나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듬해에 다시 사용한다. 짚은 그 자리에서 태우거나 그해 농사를 지을 때 거름으로 쓰기도 한다. 충남 내포 지역에서는 주로 그 마을에서 부유한 집에 벗가릿대를 세운다. 그래야 일꾼들에게 벗가릿대를 세우거나 내릴 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풍흉 및 마을에 따라 세 개 또는 다섯 개의 벗가릿대가 들어선다.

벗가릿대로 쓰이는 나무는 대나무와 소나무이다. 대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곧게 뻗어 올라가므로 마을의 운수가 대나무처럼 곧게 뻗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하고, 소나무는 솔잎처럼 푸름과 곧은 절개를 닮으라는 의미에서 벗가릿대의 재료로 쓰인다고 한다.

2월 초하루는 지역에 따라 머슴의 날, 영등날이라고 하는 등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지만, 이날은 일꾼들이 하루를 쉬며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날이다. 이날이 지나면 사실상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된다. 벗가릿대를 세운 마을에서는 이날 벗가릿대에 고사를 지내고 한바탕 크게 논다. 그리고 벗가릿대에 매달아 두었던 쌀 혹은 오곡 주머니를 열어서 그 안을 살펴본다. 보름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 오곡이 불은 정도를 보아서 그해 풍흉을 점친다. 만약 특정 곡식이 더 많이 불어 있다면 그해에는 그 곡식의 수확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곡식이 불은 정도를 보아 그해 내릴

벗가릿대
2006.2.18. 서해숙

운림산방에 세워진 벗가릿대
2005.2.26. 서해숙

강우량을 예측해 보기도 한다.

벗가릿대를 헐기에 앞서서 '섬'에 곡물을 넣는 시늉을 하며 큰 소리로 "벼가 몇만석이오", "조가 몇 천석이오"라고 외친다. 또 주머니 안에 있던 곡식을 찧어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참고문헌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이관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민속 · 지명 분야**(이필영 외, 아산~당진간 국도 3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벗가릿대 고**(이관호, 생활문물연구 4, 국립민속박물관, 2002), **천안역세권의 민속**(이필영, 고고와 민속 창간호,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임승범(林承範)**

벗가리제

상호참조 벗가릿대(315쪽)

정의 이월 초하룻날에 정월 열나흗날 세운 벗가릿대 앞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들의 진솔한 염원을 담아 제(祭)를 지내고 노는 풍농기원 세시의례.

역사 벗가리제는 정월대보름날 의례로, 정월대보름을 중요하게 인식한 고대부터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홍석모(洪錫謨)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 상원(上元) 화적(禾積) · 화간(禾竿)조에서 "시골 농가에서는 대보름 하루 전에 짚을 묶어 큰 깃대 형상[纛狀]으로 만들어 그 안에 禾[벼] · 黍[기장] · 稷[피] · 粟[조]의 이삭을 집어넣어 싸고 목화를 장대 꼭대기에 매단다. 이것을 집 곁에 세우고 새끼를 늘어뜨려 고정시키는데, 이를 화적(禾積, 노적가리)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해의 풍년을 비는 풍속이다. 산간지방에서는 대보름 하루 전날에 가지가 많은 나무를 골라서 외양간 뒤에 세우고 곡식의 이삭과 목화를 걸어 둔다. 동네 아이들이 보름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세워 둔 나무를 둘러싸고 서서 돌며 노래를 부르고 풍년을 기원하는데, 해가 뜨면 그만둔다. …… 민간에서 장대 끝에 벼이삭을 달아맨 화간(禾竿, 벗가릿대)을 세우는 일도 이것과 같다"고 하였고, 권용정(1801~?)은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부(附) 세시잡영(歲時雜詠) 〈도간(稻竿)〉이란 7언시에서 "10자의 긴 장대 사람처럼 서 있고/꼭대기에 묶인 풀 바람에 날리네/ 부잣집 사들인 땅 대부분 기름지니/해마다 곡식이 잘 익기를 기원하네/ 달구지에 실어 온 볏단 집안에 가득하여/닭이나 개조차 먹을 만큼 넉넉하네/ 가난한 집 송곳 꽂을 땅도 없으니/지붕 위에 어떻게 장대를 세우리오/ 부잣집 닭과 개에게도 미치지 못하니/종일토록 일을 해도 먹지를 못하네/ 눈 깜짝할 사이에 입장이 바뀐다네/ 지난해 동쪽 집에 세운 장대가/올해 다시 서쪽 집 지붕에 있네/ 해마다 장대는 세우고 내리지만/평생 바라는 일 뜻대로 되지 않네/ 어느 때에나 다시 균전법이 행해져/마을마다 집집마다 장대 높이 세울까" 하였다. 또 이익(李瀷)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우리나라 풍속이 귀신을 신봉하여 화간을 만들고 지전(紙錢)을 매달아……"라고 하여 화간, 화적, 도간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또 『동국세시기』에서 "정월대보름날에 세웠던 화간에서 벼를 내려 흰 떡을 만든다"라고 하였고, 유득공(柳得恭, 1749~?)이 편찬한 『경도잡지(京都雜志)』의 이월 초하룻날 조에 "정월보름날 세웠던 벗가릿대(화간)를 내려 솔잎을 겹겹으로 깔아 떡을 만들어 노비들을 먹인다"라는 기록이 있어 벗가리제가 이루어

벗가릿대 세우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관리1구, 2002.2.23
국립민속박물관

벗가리제
충남 서산시 온석동, 2002.3.14
국립민속박물관

지는 광경은 파악되지 않으나 이월 초하룻날이 시농일(始農日)에 일꾼들에게 떡을 해 먹고 놀도록 하면서 기원고사도 지낸 것으로 보인다.

송석하는 1934년에 발표한 「풍신고(風神考)-부(附) 화간고(禾竿考)」에서 벗가릿대는 현재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농경의례로, 한강이남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입간민속(立竿民俗)이라고 하였다. 송석하에 따르면 벗가릿대[禾竿]는 정월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기다란 장대 위에 짚꾸러미를 달고 여기에 통대를 가늘게 쪼갠 것을 축축 늘어뜨리고, 통대 조각에는 백지(白紙)를 길고 좁게 잘라 한쪽만 잔칼질하여 찬찬히 감아 둔다. 이 민속은 화상(禾狀)의 물태(物態)를 만들어 두고 이와 같이 풍년이 되어 달라는 것과 조해(鳥害)가 없도록, 즉 기조(忌鳥)하는 이중신앙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 조선시대 중기 문신이자 학자인 이자(李耔, 1480~1533)의 『음애일기(陰崖日記)』,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巨濟島の立竿民俗」등에서 벗가릿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처럼 벗가리제는 노비일(奴婢日)인 이월 초하룻날 벗가릿대에 의례를 행하는 유감주술적 풍농기원 의례로, 벼이삭을 내려 송편(松餠)을 빚어 종들에게 나누어 주며 놀던 풍속에서 유래한다. 큰 장대 위에 곡식을 매달거나 깃발을 매다는 것은 농작물이 그렇게 큰 키로 성장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갈망하는 것이다. 권용정의 『세시잡영』에는 화간을 부농가에서만 세운 것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화간은 부(富)의 상징이기도 했다.

내용 벗가릿대는 벼를 베어서 길게 세워 쌓거나 볏단을 차곡차곡 위로 쌓은 더미인 '벗가리(낟가리)'에서 나온 말이다. 벗가릿대는 긴 나뭇대(竿) 높이만큼 풍년이 들어 벗가리를 쌓게 해 달라는 기원의 의미에서 세운, 잘 자란 벼를 상징하는 풍년기원 우주목(宇宙木)이다. 이런 세시기원 의례이던 벗가리제는 풍년을 다지는 제의로 변화했다.

음력 정월대보름날 마을의 공동우물에 길이 10m 정도의 대나무 · 소나무 등에 끝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다듬어 우물에 세운 뒤 동아줄로 넘어지지 않게 세 갈래로 매어 놓고, 볏짚으로 오쟁이를 만들어 오곡(쌀, 보리, 콩, 조, 기장)을 각각 넣어 나무 위에 매달아 음력 이월 초하룻날 동네 주민들이 풍물을 치며 세워 놓은 벗가릿대 앞에서 벗가리제를 지낸다. 벗가리제는 마을의 고령자가 팥떡시루, 돼지고기, 삼색실과 등 제

벗가리제 충남 당진군 당진읍 구룡리, 2001.2.23, 이인화

씨오쟁이

벗가리제

벗가릿대 누이기

벗가릿대 세우기

물을 차려 놓고 술잔을 올리며 풍년을 기원하는 축문을 읽었다. 그런 다음 벗가릿대 누이기를 한다. 이때 농악을 한바탕 치고 난 뒤 꼭대기에 매달린 씨오쟁이에 넣은 벼·보리·콩·수수·조 등 오곡이 물에 불었으면 "쌀 텄다, 쌀 텄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풍년이 들 것을 점치고, 오곡 가운데에서도 잘 불은 곡물을 심어 풍년을 기약하였다. 그런 다음 동아 밧줄을 가마니에 담아 광에 들이면서 "천석이요, 만석이요"하며 풍년 들기를 기원하였다.

지역사례 조선시대 문헌과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여 발행한 도별 『세시풍속』에서 벗가릿대는 화간, 화적, 도간, 노적, 유짓대, 유지지, 벗가리, 유지방, 유지봉, 유조지, 오지봉, 유주지, 유주뱅이, 유두뱅이, 유구지, 햇대, 보름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한다. 벗가리제는 이름에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전승되었다. 특히 충남 당진군, 서산시, 태안군 지역에서는 현재도 많이 재현되며 경북지방에서는 이 풍속이 적게 파악된다.

송석하는 「풍신고」에서 벗가리제는 현재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농경의례로, 한강이남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충남 당진군 고대면 옥현리는 1995년까지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마을 대동샘에다 대나무 끝에 꿩의 꼬리털을 달고 짚을 뭉쳐 매단 벗가릿대를 농악대가 동반한 가운데 세우고 이월 초하룻날 고사를 지낸 다음 쓰러뜨렸다. 또한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 벗가릿대 세우기는 정월 열나흗날 큰 소를 먹이는 집에 가서 동아줄을 틀어 벗가릿대를 세우고 이월 초하룻날 벗가릿대를 쓰러뜨렸다. 이때 벗가릿대 세울 때 쓴 동아줄을 잘라 섬에 담아 부잣집 광에 넣어 주었으며, 동아줄 섬을 들이길 기다려 "벗섬 들어온다"라고 소리쳤다. 벗가릿대는 웬만한 집에서 다 세웠고, 이 동네에서도 10여 개를 세웠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술 조사 때문에 집집마다 세우다가 못 세우고 공동우물에만 세웠다.

현재 벗가릿대는 당진군 당진읍 구룡리,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화정, 당진군 송악읍 기지시리 줄다리기 행사장, 서산시 대산읍 환성리3구, 대산읍 운산리5구 횟개마을, 인지면 야당리 등의 마을 한복판에 을씨년스럽게 재현되고 있다. 벗가릿대는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가마다 세우고 이월 초하루 벗가릿대를 하는 날에 그 집에서 술과 떡, 과일 같은 것을 푸짐하게 내어 머슴이나 소작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한다.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5구 횟개 벗가릿대는 과거 세 마을에 세웠으나 1950년에 중단되어 1990년 마을회관 앞 논에서 대추, 밤, 곶감, 배, 사과, 시루떡, 술, 북어 등의 제물을 차려 놓고 재현되었다. 당진읍 구룡리는 1991년 당진군 농촌지도소에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마을 주민의 화합 도모 및 농촌의 고유 민속놀이를 되살리고자 백승환 등에게 자문해 재현하게 되었다. 서산시 음암면 도당6리 바위백이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아침 일찍 젊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나 대나무를 베어다 맨 꼭대기 가지만 남기고 잔가지를 쳐서 짚으로 옷을 입힌다. 그리고 쌀·수수·콩 등 곡식의 씨앗을 담은 주머니를 매달아 동아줄로 고정시킨다. 동아줄은 위에서부터 세 가닥으로 묶고 줄을 너덜너덜하게 늘어뜨려 땅에 고정시킨다. 벗가릿대를 세우고 나면 떡, 술, 삼색과일, 돼지머리, 나물 등을 장만해 벗가릿대 앞에 상을 차리고 농악패의 상쇠가 나와서 제사를 지낸다. 벗가릿대를 세우는 장소는 동네의 부잣집 근처이며, 벗가릿대를 세우는 날에는 부잣집에서 술과 떡 등 음식을 장만해 동네사람들을 대접한다. 정월대보름날 세워 둔 벗가릿대는 이월 초하룻날 쓰러트린다.

이처럼 당진·서산 지역 벗가릿대는 평야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월대보름날 농토가 많은 부농 등 개인 제의부터 대동샘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자연마을 단위로 전승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里) 단위로 마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東國輿地勝覽, 星湖僿說, 歲時雜詠, 巨濟島の立竿民俗**(秋葉隆, 조선민속 1, 조선민속학회, 1933), **궁중 내농작과 농가 내농작의 의미와 기능－궁중풍속과 민속의 관계를 생각하며**(배영동,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7), **당진의 민간신앙**(이인화, 당진문화원, 1996), **벗가릿대고[禾竿考]－내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이관호, 생활문물연구 4, 국립민속박물관, 2002), **조선대세시기 1**(국립민속박물관, 민속원, 2003), **청주지**(청주시지편찬위원회, 1961), **충남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이인화, 민속원, 2006),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신고**(송석하, 진단학보 1, 진단학회, 1934),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문화코드 열다섯 가지**(김열규, 도서출판 부키, 1997).

필자 **이인화(李仁和)**

보령외연도당제(保寧外烟島堂祭)

상호참조 보령외연도전횡장군사당(324쪽), 전횡장군(770쪽), 칼판고사(912쪽)

정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서 해마다 음력 2월 14~15일에 풍어와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례. 외연도당제는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무장 전횡(田橫) 장군을 풍어의 신으로 모시고 있다.

역사 외연도당제는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당제이다. 1598년(선조 31) 보령의 충청수영에 건립된 「유격장군청덕비(遊擊將軍淸德碑)」에 따르면 전횡은 이미 조선 전기에 풍어신으로 좌정하여 외연도당제의 주신격으로 치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외연도 당산에 최초로 모셔진 신은 산신이고 전횡은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신격화된 존재라는 점을 상기하면, 외연도당제는 늦어도 조선 초기 또는 그 이전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제나라의 무장으로서 재상의 지위에 오른 전횡은 유방과 같은 시대에 활약한 인물이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는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자 자신을 따르는 500명의 부하들과 바다로 들어가 섬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36년에 건립된 「전공사당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런데 당시 전횡이 피살될 것을 두려워하여 숨은 섬이 바로 외연도라고 구전되고 있다. 17세기 초에 편찬된 서산의 옛 읍지인 『호산록(湖山錄)』에 따르면 전횡의 외연도 피신설은 이미 고려 말기에 식자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는 속설이었다고 한다.

실제 전횡이 은거한 섬은 외연도가 아니라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톈헝섬[田橫島]이다. 그런데도 세간에 외연도로 알려진 것은 지리적인 입지상 제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전횡은 한 고조인 유방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스스로 칼로 목을 찔러 생을 마감한 비운의 장수이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모두 자결을 택하였다. 이러한 전횡과 그 부하들의 의로운 죽음은 연고지로 회자되는 외연도 주민들에게 해원(解寃)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고, 이것은 곧 당제의 주신으로 모셔지는 단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연도에서는 음력 4월과 11월에 당제를 올리고, 8월에는 간단하게 노구제를 지냈다. 1970년대에는 세 차례 거행하던 제의를 4월 한 번으로 축소하였고, 1987년에 한때 중단된 당제를 부활시키면서 음력 2월 14일로 날짜를 고정하였다.

내용 제장은 속칭 갈당으로 불리는 당산과 전횡장군사당, 음식을 준비하는 제당 세 곳으로 구성된다. 갈당에는 산제당, 전횡장군놀던바위, 김서방바위가 있다. 산 정상부에 위치한 산제당은 커다란 바위 동쪽에 세 개의 제단을 활모양[弧形]으로 배치하였다. 전횡장군사당에는 전횡장군신위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당산신위(堂山神位)와 도당신위(都堂神位)를 안치하였고, 오른쪽 선반에는 소저아지씨신위(小姐阿只氏神位)를 놓았다.

당제의 준비는 제일(祭日) 일주일 전에 당주(堂主)를 정하는 마을회의로부터 시작된다. 당주는 나이가 지긋하고 당제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으로 선출하되 집안에 부정이 없고 몸가짐이 정갈해야 한다. 당주가 정해지면 그 집 대문 앞에는 당기(堂旗)를 꽂고 황토 두 무더기를 놓아 외부인의 진입을 막는다. 이때부터 당주는 부정한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두문불출한 채 금기를 지킨다. 당주가 특히 가려야 할 것은 시신, 초상, 제사, 피 등으로 인한 부정이다. 당주와 더불어 당제의 희생과 제물을 담당할 화장(火匠)을 뽑는다. 화장은 안화장과 바깥화장으로 구분된다. 경험이 많은 안화장은 부당주(副堂主)라고도 한다. 안화장은 주로 지미, 떡, 노구메 등 제물 준비와 진설을 도맡는다. 반면에 바깥화장은 희생으로 바칠 '지태(소)'의 도살에 관여한다. 특히 당주와 안화장을 보좌하여 온갖 심부름을 비롯하여 지태를 끌어오는 일, 물을 받는 일, 지태를 잡는 일, 지태의 가죽을 그슬리고 닦는 일 등을 맡았다.

당제 비용은 걸립으로 충당했다. 이를 위해 해마다 당제를 앞두고 풍물패가 가가호호를 돌며 성의껏 돈과 곡식을 갹출했다. 마을에서는 "밥은 굶어도 당추렴은 내야 한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외연도에서 절대적인 불문율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섬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당제에 불참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걸립 대신 어촌계의 기금과 희사금, 보령시 보조금으로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충당한다.

제일이 다가오면 먼저 당샘을 품는다. 외연도 동남쪽에 있는 이 샘은 상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 유일한 식수원이었다. 당샘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뚜껑을 덮고 황토를 뿌리면 주민들은 일절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그 전에 미리 사용할 물을 길어다 놓아야 했다. 이즈음 당주와 화장은 광천 장이나 대천 장날에 맞추어 제수를 구입하러 장배를 타고 뭍으로 간다. 장배 역시 부정이 없어야 하고, 출항할 때 뱃머리에 '상(上)'이라고 쓴 흰색 당기를 부착한다. 예전에 장배가 떠나면 임산부는 외딴곳에 떨어진 해막(解幕)으로 몸을 피했다가 당제를 마친 뒤에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시장에서 제수를 구입할 때에도 부정을 엄하게 가린다. 값을 깎거나 흥정을 벌이지 않아야 함은 물론 일단 구입한 물건은 각별히 조심해서 다룬다. 또한 식사를 할 때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류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 희생으로 사용될 지태는 코가 뚫린 중소를 구입하되 잡털이 박히지 않은 수소여야 한다.

제일 아침이 되면 화장은 당제에 사용할 제물을 지게로 운반한다. 아울러 당샘에서 끌어올린 물로 당산 주변과 전횡장군사당을 말끔히 청소하고, 제물을 진설할 제단을 정비한다. 그리고 전횡장군사당, 당산, 전횡장군놀던바위에 각각 술 · 향 · 초 · 생미 등을 진설한다. 제물이 차려지면 당주는 전횡장군신위에 올릴 바지저고리, 당산신위 및 도당신위에 바칠 치마저고리를 감실(龕室, 신주를 모셔두는 장) 위에 놓고 절한다. 이어서 화장은 갈당의 산신제에 올릴 김, 더덕산적, 노구메, 고두메, 찰떡 등을 준비한다. 특히 노구메를 지을 쌀은 싸라기나 부러진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에다 놓고 일일이 고르는 작업을 거친다. 이때 행여 침이 튀지 않도록 입마개를 쓰고 작업한다. 제물 준비가 마무리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당제가 진행된다.

1. 산제(노구제 · 지미제) 당제는 산제당에 노구메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물 준비를 마친 당주와 화장은 노구메 지을 쌀과 제물을 들고 당산으로 올라간다. 산제당에 도착하면 화장은 화덕에 불을 지펴 노구메를 짓는다. 이때 당주는 김, 더덕산적, 수저 등을 세 개의 제단에 진설하고 제단마다 헌작 · 재배한다. 이윽고 노구메가 다 되면 남쪽에 있는 제상부터 차례로 진설한다. 당제는 솥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은 다음 젓가락을 산적 위에 올려놓고 재배하는 것으로 모두 끝난다.

당산을 내려온 화장은 당주 집에서 멥쌀가루를 떡시루에 안치고 불을 땐다. 지미는 일종의 절편을 일컫는다. 시루에서 김이 오르면 절구통에 쏟아 놓고 떡메로 쳐서 덩어리가 되게 한 다음 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지미를 만든다. 밤 12시가 가까워지면 당주와 화장은 다시 당산에 오른다. 당주는 남쪽 제단부터 지미, 고두메, 삼색실과를 각각 진설하고 헌작 · 재배한다. 이어서 당주는 산신께 마을의 평안을 축원하는 소지를 올리고 재배한다. 이와 동일한 절차로 당주는 중앙과 동쪽 제단에도 각각 제의를 향하며, 세 곳의 신위에 제의를 올릴 때마다 징을 울려 마을 사람들에게 제의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지미제를 마친 당주는 김서방바위에 술, 지미, 고두메, 삼색실과를 올린다. 이때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2. 전횡장군사당제 산제가 끝나면 당주와 화장은 전횡장군사당에 지미, 고두메, 삼색실과를 진설한다. 사당제는 당산에서의 지미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다만 사당 바닥에는 여섯 신위에 대한 제상을 별도로 준비한다.

3. 희생 밤 12시가 지나면 당주와 화장은 목욕한다. 이어서 찹쌀가루와 삶은 팥을 켜켜이 섞어 떡시루에 안치고 불을 지핀다. 이 무렵, 화장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다. 곧 희생으로 바칠 지태의 도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징소리를 신호로 지태의 정수리를 도끼로 힘껏 내리친다. 이때 나머지 사람들은 지태의 다리를 묶은 줄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떡메와 도끼로 엉덩이와 정수리를 몇 차례 더 가격한다. 아직 채 숨이 끊어지지 않은 지태의 목을 예리한 칼로 찔러 피를 빼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 부위를 해체한다. 가장 먼저 잘라내는 것은 성기, 불알, 꼬리이다. 해체된 각 부위는 가마솥에 넣어 익혀서 전횡장군사당에 올린다. 지태가 넘어질 때 땅에 닿은 부분은 부정하다 하여 희생으로 쓰지 않는다. 또한 다리, 간 · 콩팥 · 허파 · 지라 · 심장 · 처녑 등 내장, 머리, 뼈, 불알, 꼬리 등은 낱낱이 해체하여 전횡장군사당 · 전횡장군놀던바위 · 김서방바위 등에 올린다. 당산에는 희생의 어느 부위도 올리지 않는다. 이는 산신제가 육류를 사용하지 않는 소산제(素山祭)이기 때문이다. 새벽이 되어 각 부위의 진설을 모두 마치면 도마에 술을 한 잔 따르고 절을 한다. 이를 '칼판고사'라고 한다. 이후에는 화장도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된다.

4. 팥떡 올리기 2월 보름날 새벽 5시 무렵이 되면 당주와 화장은 팥떡을 지게에 지고 당산에 올라 세 곳의 제단에 각각 떡을 올린 다음 분향과 헌작을 하고 재배한다. 이어서 전횡장군놀던바위에도 떡을 올리고 동일한 예를 갖춘 뒤 김서방바위에 떡을 놓는다. 그런 다음 전횡장군사당의 모든 신위에 떡을 올리고 분향 · 헌작 · 재배한다.

5. 당 내리기 당 내리기는 당산에 하직인사를 드리고 제물을 수습하는 절차이다. 이와 아울러 하산길에 몇 곳의 제장에 들러 간단하게 고사를 지낸다. 제의행렬이 풍물패를 대동하고 전횡장군사당에 도착하면 당주가 먼저 사당의 삼면에 재배한다. 이때 행사에 참석한 내빈과 마을 사람들도 차례로 절을 한다. 당 내리기 행진을 할 때에는 맨 앞에 당기가 서서 길라잡이를 하고, 술병을 든 당주가 그 뒤를 따른다. 이어서 화장 두 명이 지태의 피와 간 · 허파를 썰어서 섞은 것을 들고 간다. 그 뒤로 제물을 지게에 진 짐꾼, 풍물패, 맨 뒤에 주민들이 장사진을 친다. 당 내리기 행렬은 당산으로 가서 산제당과 전횡장군놀던바위에 차례로 절을 하고 모든 제물을 뼈 묻는 바위 밑에 넣고 당산 동쪽으로 내려온다.

6. 팽나무제와 등장마당제 당 내리기 행렬이 초등학교 뒤쪽과 앞쪽의 팽나무에 이르면 각각 제물을 차리고 당주가 헌작 재배한다. 제물은 고두메, 지미, 떡, 삼색실과, 쇠고기 세 덩어리이다. 한편 바닷가에서 안당으로 통하는 길목에 등장마당으로 부르는 곳이 있다. 당주는 동일한 제물과 절차로 이곳에 제를 지낸다. 예전에 등장마당 두 곳에는 각각 돌탑 1기가 세워져 있었다.

7. 용왕제 및 띠배 퇴송 마을 앞 노인복지회관 앞에 14

위의 제물을 각각 진설한다. 이 제의는 쇠간, 처녑, 허파 등을 날것으로 썰어서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홍겨운 풍물이 울리는 가운데 당주는 14위에 술을 따르고 재배한다. 이어서 제물과 삶은 고기를 쇠피에 섞어 바다에 세 번 뿌리는 것으로 제의를 마친다. 이를 '희식'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용왕제를 지낸 뒤 당주가 선주들에게 길지(吉紙)를 나누어 주면 앞을 다투어 뛰어가서 이를 어선의 기관실에 매달아 놓고 풍어와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배고사를 지냈다. 배서낭을 새로 모시는 이 의식을 '당맞이'라 한다. 당맞이는 중선배를 부리던 시절에는 외연도를 비롯한 서해안 당제의 보편적인 의례였다. 그러나 지금은 무녀가 주관하는 몇몇 어촌에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용왕제를 마치면 당주와 화장은 임시로 제작한 띠배에 제물을 실은 다음 띠배를 이끌면서 바다로 나간다. 당주는 뱃머리에 간단하게 제물을 차리고 제를 지낸 뒤 띠배를 바다에 띄워 퇴송(退送)하는 것으로 한해의 모든 액운을 추방한다고 믿는다.

8. 당샘제와 안당제 띠배를 배송하고 돌아온 당주 일행은 당기를 앞세우고 풍물패와 함께 안당으로 가다가 당샘에 이르면 제물을 차리고 헌작 재배한다. 이어서 전횡장군사당 남쪽에 있는 팽나무 아래에서 북쪽과 동쪽을 향해 각각 제상을 차리고 안당제를 지낸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례절차를 마치면 회관에 모여 음복을 겸하여 주연을 베푼다.

의의 산신과 전횡 장군을 치제하는 외연도당제는 어로활동을 매개로 성립된 서해안 당제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의례이다. 무엇보다 전횡은 중국의 인물이면서도 서해안에 좌정한 다양한 인물신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풍어의 신으로 모셔진 존재이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의 임경업 장군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전횡과 같은 장군신이 서해안 당신앙(堂信仰)의 근간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외연도당제는 서해안 섬마을에서 전승되는 당신앙의 원형적인 모습과 문화상이 잘 녹아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史記**, **湖山錄**, **도서지**(충청남도 · 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 1997), **외연도 동제**(황의호, 보령문화 17, 보령문화연구회, 2008),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충남 서해도서의 민속연구**(박계홍, 백제연구 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3), **충청남도문화재대관 2**(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남**(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5), **한국의 마을제당-충청남도**(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강성복(姜成福)

보령외연도전횡장군사당 (保寧外烟島田橫將軍祠堂)

상호참조 보령외연도당제(321쪽), 전횡장군(770쪽)

정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서 중국 제나라 무장으로서 왕위에 오른 전횡 장군을 모신 사당. 매년 음력 2월 14일에 거행되는 외연도 당제에서 풍어의 신으로 제사하고 있음.

형태 전횡장군사당은 당산의 동백나무숲에 있다. 규모는 17㎡ 남짓한 아담한 크기의 목조건물로서 맞배지붕이다. 본래 7㎡ 남짓한 함석지붕이던 것을 최근 당집을 개축하여 기와를 얹었다. 예전의 건물에는 출입문 위에 「전공사당기(田公祠堂記)」가 걸려 있었다. 사당에서 서북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는 갈당으로 불리는 산제당이 있으며, 그 동쪽에는 '김서방바위', '뼈 묻는 바위', '전횡장군놀던바위'가 있다.

역사 전횡장군사당은 일제강점기 때 처음 건립되었다. 1936년에 사당을 창건하면서 기록한 「전공사당기」에는 전횡의 이력과 그를 신으로 모시게 된 사연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 "공의 성은 전씨요 휘는 횡이다. 옛 제나라의 공족(公族)이었다. 한나라가 흥하고 제나라가 망하자 의리로 절개를 굽히지 않고 오백여 명과 더불어 바다 건너 반양산(半洋山)에 들어와 살았다. 한나라가 그 후한을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 부르자, 공은 부득이 두 사람의 빈객을 데리고 함께 낙양에 이르렀으나 상화점(霜花店)이란 곳에서 스스로 목을 베었다. 오호라! 공이 부름에 응한 것은 실제 한나라의 위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섬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참화를 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함께 간 두 사람 역시 한나라의 벼슬을 받지 않고 슬퍼하다가 공의 무덤 곁에 구덩이를 파고 죽었다. 섬에 있던 오백여 명도 한날한시에 함께 죽으니 천만년 옛적부터 들을 수 없는 일이다. 공의 은의(恩義)가 어찌 이토록 지극하였는가. 비록 서산(西山)이나 동해로 가려 하였으나 또한 반양산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반양산은 지금의 외연도이다. 지금에 이르러 수천 년이 지났어도 오히려 사당을 세우지 못하고, 다만 석대(石臺)로 신을 제사하는 당(堂)을 삼았다. 섬사람들이 그 절의를 잊고 있다가 신명(神明)에 감동하여 나무를 베어 비로소 사당을 건립하고 희생을 진설하여 제를 지냈다. 공의 정령(精靈)이 완연히 위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풍성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공경하지 않으리오"

사당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횡은 외연도와의 연고성(지역성)과 죽음을 불사한 의로운 삶이 경외의 대상이 되어 외연도에서 풍어의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다. 1967년에 설문조사한 보고서의 '중국에서 역적으로 온 선언[전횡] 장군이 왔다간 것을 추모'하기 위해 당제를 지낸다는 짤막한 유래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전횡 장군의 신격화는 보령의 '유격장군청덕비'에서 나타나듯이 조선 초기의 오랜 관행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도의 사당이 없어 단지 제단을 당으로 삼아 제를 지내 오다가 1936년에 비로소 전횡장군사당을 짓고 신위를 모시게 된 것이다. 당시 사당 건립을 주도한 사람은 외연도에 거주하는 남궁운선(南宮云先) · 최문일(崔文日, 1866~1942) 등 10명이 기록되어 있다. 최문일은 1936년 당시 70세의 고령이었다. 또한 10명 가운데 8명은 주로 어업에 종사한 외연도 주민이고, 2명은 어업조합의 간부로 알려져 있다.

내용 전횡장군사당은 단칸으로 건립되었다. 내부 공간은 남쪽을 제외한 세 벽에 1m 높이로 폭 30㎝의 선반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북벽과 동벽의 선반에는 감실(龕室)에 위패 네 개가 놓여 있다. 주벽의 정면에는 전횡장군신위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당산신위(堂山神位)와 도당신위(禱堂神位)를 안치하였고, 오른쪽 선반에는 소저아지씨신위(小姐阿只氏神位)가 놓여있다. 당산신위와 도당신위에는 사당제를 지낼 때 치마저고리 한 벌씩을 그 위패가 있는 제단 위에 바친다. 이로써 두 신격은 여성신으로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에서는 전횡 장군의 부인과 딸로 추측하기도 한다. 오른쪽의 소저아지씨 역시 신명(神名)으로 볼 때 여성신이 분명하지만 치마저고리를 올리지는 않는다. 소저아지씨는 전횡의 딸로 불리기도 한다.

선반 위에 매어 놓은 줄에는 한지가 묶여져 있다. 이것을 '느림'이라고 하는데 산제당 신목에도 느림을 매단다. 공간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고, 서쪽 부분에 세 개의 항아리와 두 개의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다. 이 통은 과거 당제에 바친 옷을 넣어 두는 곳이다. 옷을 넣는 항아리는 사당의 동쪽 밖에 두 개가 더 있다.

외연도당제는 매년 음력 2월 14일 저녁에 시작되어 이튿날 정오 무렵에 막을 내린다. 제관은 당제를 주관하는 당주와 제물 준비 및 심부름을 도맡아하는 안화장, 바깥화장으로 구분된다. 당제는 산제당에 노구메와 절편의 일종인 지미를 올리는 산제를 먼저 지낸다. 이어서 전횡장군사당에 지미, 고두메, 삼색실과 등을 진설하고 산제와 동일한 절차로 사당제를 지낸다. 이와 함께 육류를 쓰지 않는 소산제(素山祭)인 산제와는 달리 사당제는 희생으로 지태(소)를 도살하여 부위별로 차례로 진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태의 해체 과정이 자못 성스럽고 엄숙할 뿐만 아니라 섬마을 특유의 원형적인 희생의례(犧牲儀禮)의 성격이 잘 남아 있다.

지역사례 전횡은 외연도열도를 이루는 녹도와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어청도에서도 당제의 주신으로 좌정하여 하나의 신앙권을 형성하여 왔다. 이들 섬은 외연도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녹도, 왼쪽에 어청도가 각각 자리하여 일찍부터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1970년대 서해안 일대를 조사한 보고서에는 "전횡은 외연도 이남에서, 임경업은 창리 이북에서 집단 신앙이 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줄 안다"라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어청도에서 전횡을 모신 사당의 이름은 치동묘(淄東廟)이다. 바닷가 근처 민가의 사이에 자리하는 치동묘에는 2m 높이의 돌담이 있고, 대문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다. 문 위에는 「치동묘」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목조 기와 건물인 치동묘는 현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내부에는 공주에 살던 스님이 이곳에 와서 꿈에 본 전횡 장

군을 그렸다는 초상화와 창을 든 무사 그림 두 점이 있었으나 도난을 당하였다. 또 주위에 군령기를 비롯한 무기가 놓여 있다. 통상 사흘 동안 진행되는 당제는 섣달그믐날 당산에서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제상이 차려지면 당주가 징이나 꽹과리를 울려서 마을에 신호를 보낸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을에서도 집집마다 제상을 마련하여 선영에 제사하며 한 해 동안의 무사를 빈다. 특히 조난사고나 실패가 없기를 비손한다. 정월 초하룻날에는 치동묘에서 제를 거행한다. 마을의 모든 남자는 목욕재계하고 한복으로 새옷을 갈아입고 갓을 쓰고 당산에 올라 제를 지낸다. 그리고 다시 황소를 잡아 희생으로 바치고 이틀 동안 제를 지낸다.

녹도에서 전횡을 모신 사당은 마을 뒤편 당산에 자리한다. 이곳은 수백 년 된 소나무 · 후박나무 · 동백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그 숲속에 당집을 지었다. 당에 모셔진 주신격은 '전웅대감(전횡대감)'이라고 한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벽에 전웅대감, 좌우에 제자(부장) 두 명의 그림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러나 화상은 40년 전에 분실되고 없다. 당에 모셔진 신은 '전웅대감(전횡대감)'이라고 한다. 전웅대감은 어청도에서 활동하였으며, 녹도에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당제는 매년 세 차례 지냈다고 한다. 이월에 모시는 당제, 팔월에 모시는 신곡차례, 동짓달에 모시는 동지제사가 그것이다. 특히 이월의 당제는 외연도와 마찬가지로 봉화산에서 산신제를 지낸 다음 희생으로 소를 잡고 무당을 불러 성대하게 치렀으나 1980년대에 중단되었다.

참고문헌 **군산 답사 · 여행의 길잡이**(김중규, 도서출판 나인, 2003), **도서지**(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7), **서해안 동제의 중국계 신격 전횡 연구**(이경엽, 도서문화 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0), **외연도 동제**(황의호, 보령문화 17, 보령문화연구회, 2008),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충남 서해도서의 민속연구**(박계홍, 백제연구 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청남도**(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5), **한국의 마을제당-충청남도**(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강성복(姜成福)**

보성당촌별신당(寶城堂村別神堂)

상호참조 보성당촌별신당제(328쪽)

정의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산 706번지에 위치하며 정월대보름날 자시에 별신제를 지내는 장소. 2000년 12월 29일에 '보성군 민속자료 제34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당촌별신당은 당촌(堂村)마을 왼쪽 언덕인 당뫼에 위치하고 있다. 와가(瓦家)의 당집은 전면 2.6m, 측면 2.4m의 맞배지붕으로 작지만 고건축물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당집 정면에는 「별신당(別神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정월에 별신제를 지내면서 걸어 놓은 금줄이 둘러쳐져 있다. 현판 아래에는 양쪽 여닫이 나무문이 있다. 빗장이 걸려 있지만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열어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다. 당집 안에는 나무 시렁이 하나 놓여 있고,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다. 나무 시렁 위에는 한지로 싸 놓은 다섯 개의 돌이 있고, 시렁 아래쪽에는 한지로 싸 놓은 두 개의 돌이 놓여 있다. 돌은 남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모두 한지로 싸고 왼새끼를 둘러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 일곱 개의 돌을 칠성님이라고 부르면서 기자치성을 드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한편 아래의 두 개만 원래의 돌이고 나머지는 새로 마련한 돌이라고 한다. 6 · 25전쟁을 전후하여 돌이 사라져서 마을 어른인 이용기가 강에서 새 돌을 가져다가 모셔 두었다고 한다.

역사 당촌마을은 1664년경에 문씨(文氏), 송씨(宋氏)가 이주해 정착하면서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그 뒤 광주 이씨(廣州 李氏) 이중원(李重遠)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그 자손이 집성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서도 마을 이름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유래가 오래된 마을이며, 예부터 보성군에서는 '제일당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언제부터 제를 모시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별신제를 모시는 당집의 상량문을 보면 "용 개국오백육년정유정월이십사일사시 입주동월이십육일미시 상량수겸유사김홍이 화주김달천 귀(龍 開國五百六年丁酉正月二十四日巳時 立柱同月二十六日未時 上梁手兼有司金弘伊 化主金達天 龜)"로 되어 있어 1897년에 당집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집의 위치는 현 위치가 아니었다고 전한다. 옛 어른들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옛날에는 당집이 마을에서 걸어 20~30분 걸리는 마을 뒷산에 있어 한밤중에 제사를 모시러 오르기가 힘들고, 정월이어서 날씨도 매우 추워 지금 위치로 옮겨졌다고 한다.

당집 주변에는 잘생긴 노송이 여러 그루 심겨 있고, 당집의 바로 오른쪽에는 천인정(千仞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마을 사람에 따르면 천인정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정자로, 지어진 동기가 특별하다. 일제강점기 때 당집 옆에 신사(神社)를 지으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고 마을의 유지들이 먼저 천인정을 지어 신사를 짓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내용 마을 제사인 별신제는 음력 정월대보름날 자시에 지낸다. 별신제를 모시는 곳은 모두 세 곳이며, 각각의 제명(祭名)은 당산제(堂山祭) · 별신제(別神祭) · 이사제(里社祭)이다. 제의는 당산제, 별신제, 이사제 순으로 지낸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분향강신, 독축, 초헌, 아헌, 종헌, 사신의 순서로 치러진다. 제의가 끝나면 헌식과 소지가 행해진다.

당산제는 귀목 앞에 마련된 제단에 제물을 진설하며, 이사제는 대나무로 얽어 만든 제단 앞에 자리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별신제는 당집 안의 시렁 위에 음식을 제물한다. 별신제를 모실 때에도 원칙은 바닥에 자리를 깔고 제물을 진설해야 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서 바닥에 음식을 진설할 경우 제관들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점과 들짐승의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시렁 위에다 제물을 차린다. 각각의 제사에 매번 새 음식을 사용한다. 당산제에서는 돼지머리를 통째로 올리고, 별신제와 이사제에는 그냥 돼지고기를 올린다. 당산제와 이사제를 모실 때에는 메와 국을 한 그릇씩 올리고 술도 한 잔씩 올리지만 별신제를 모실 때에는 밥과 국을 세 그릇씩 올리고 술도 세 잔씩 올리며 절도 각각의 신위에 드린다. 즉 별신당에서 모셔지는 별신제는 교목지신, 당산지신, 이사지신이 모두 제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 당촌마을 별신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촌 별신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험담이 전한다. 예전에 마을 뒷산에 당집이 있었을 때 그 아래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돌이 굴러 내려와 말을 상하게 했다고 한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2006.2.10, 최호식

보성당촌별신당

별신당 내부

시렁과 칠성님

다. 또한 당집 안에 있는 일곱 개의 돌에 기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보성군문화유적학술조사(전남대학교박물관, 1992),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마을신앙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이옥희(李玉姬)

보성당촌별신당제 (寶成堂村別神堂祭)

상호참조 보성당촌별신당(326쪽)

정의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당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동제. 2000년 12월 29일에 당집과 당제가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4호'로 지정되었다. 정월대보름날 0시부터 교목지신을 모시는 당산제, 별신당의 당제, 마을 노상에서 마을신에게 마을의 평안을 비는 마을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징 이 마을의 제의는 매년 정월대보름 자시(子時)에 마을 어귀에서 볼 때 왼쪽 둥구나무등이라고 부르는 언덕 위에 있는 귀목나무(느티나무)에서부터 시작된다. 원래 별신당집에서 모시는 당제를 먼저 지냈다고 하지만 궂은 날씨가 잦고 이동의 편의를 위해 교목지

교목(귀목나무)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2010.6.20, 이영배

보성당촌별신당 앞 측면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2010.6.20
이영배

신 제사부터 지낸다고 한다. 이를 '교목제', '당산제'라고도 한다. 교목제를 지내는 언덕에 매우 큰 수백 년 된 귀목나무가 있었으나 말라 죽었고, 지금은 새로 자란 나무를 당산목으로 삼고 있다.

별신당 제사는 '당뫼' 또는 '당묘'라고 불리는 마을 뒤쪽 언덕에 있는 별신당집에서 모신다. 그 언덕마루에 '천인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그 옆에 당집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 이 당집은 비봉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한밤중에 제사를 모시러 다니기가 어렵고, 정월이어서 궂은 날이 많아 제사를 모시러 오르기가 힘들어 현재의 장소로 옮겼다고 한다. 당집에는 상량문이 있으며, 상량문에 "용 개국오백육년정유정월이십사일사시 입주동월이십육일미시 상량수겸유사김홍이 화주김달천 귀(龍開國五百六年丁酉正月二十四日巳時 立柱同月二十六日未時 上樑手兼有司金弘伊 化主金達天 龜)"라는 글귀로 미루어 1897년에 당집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당집은 전면 260㎝, 측면 240㎝에 맞배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다. 당집의 안쪽에는 시렁이 있고, 시렁 위쪽에 다섯 개의 돌, 아래쪽에 두 개의 돌이 각각 놓여 있다. 돌은 모두 위쪽을 한지로 싸 왼새끼로 둘러놓았다. 이 돌을 '칠성석'이라고 하며 매년 정월대보름날이면 이 돌에 당제를 지낸다. 이들 돌에 대한 특별한 내력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예전에 길을 가던 행인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당집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 이 돌들이 굴러내려 말을 상하게 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말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사제(里社祭)는 마을 어귀 길가에서 지낸다. 이

곳에 본래 당산목이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이사제의 장소는 세 번 정도 바뀌었다고 하며, 마을 소유의 땅이 개인 소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사제는 마을신에게 드리는 제사로, 마을의 평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박첨지를 모시는 제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 제사는 '박첨제'라고 하기도 한다. 박첨제는 옛날에 박첨지라는 마을 사람이 자손이 없어 자기 소유의 논 닷 마지기, 즉 4,950㎡를 마을에 희사(喜捨)하고 죽은 뒤에 제사를 지내 달라며 부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내용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당촌마을은 1664년쯤에 문씨(文氏), 송씨(宋氏)가 이주해 정착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그 뒤 광주 이씨(廣州 李氏) 이중원(李重遠)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그 자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1789년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었다. 그러나 주암댐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농지가 수몰되었고, 그에 따라 마을 사람 대다수가 떠나면서 지금은 노인들만 남아 있다.

풍수지리상으로 이 마을은 봉황이 홰를 치면서 날아오르고, 봉황의 알이 놓여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 마을 밖 먼 곳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이러한 마을의 형상을 잘 볼 수 있다. 마을 이름은 예전에 복내면이 복성현(福城縣)인 때 사직신(社稷神)을 모시는 당이었다 하여 '당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마을 뒤 별신당집이 있는 곳을 마을 사람들은 '당뫼'라 부르기도 하고, 그 자리에 묘가 있었다고 해서 '당묘'라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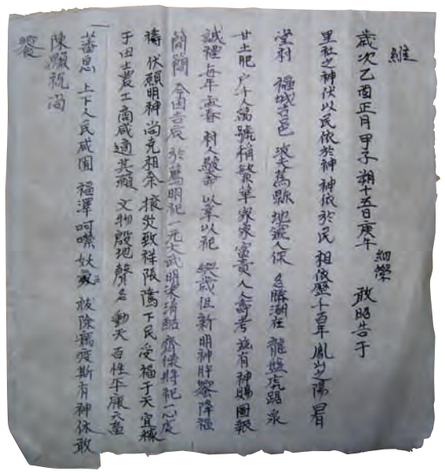
정초가 되면 이장을 중심으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반장들이 모여 그해 당산제를 위한 협의를 한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제비와 제관에 관한 것이다. 당산제에 필요한 제비는 마을에서 호구전으로 걷는다. 한 사람당 쌀 한 홉을 걷고, 이것이 부족하면 모자란 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개인당 얼마를 더 부과한다. 당산제를 모실 제관을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본인이나 집안에 유고(有故)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특히 화주의 경우 집안에 어린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여기서 '유고'에는 집안에 상(喪)을 당하거나 산고(産故)가 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집에 다녀온 사람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개고기를 먹은 사람도 제외된다. 개고기는 흔히 추육(醜肉)으로 인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2006.2.10, 주병수

당산제(교목제)

별신당제

이사제



별신당제 축문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당촌마을, 2005.2.22, 이옥희

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화주 한 명, 헌관 두 명, 축관 한 명과 준비에서부터 당산제를 모시기까지 뒷일을 맡아 볼 심부름꾼 두세 명을 뽑는다. 이때 화주가 초헌관이 된다. 화주는 당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뽑을 때부터 각별히 신경을 쓴다. 화주는 당산과 당샘 정리와 청소를 해야 하고, 이곳에 금줄을 치고 황토도 깔며, 당산제에 필요한 일체의 제물도 준비해야 한다.

화주로 뽑힌 사람은 제일(祭日) 4~5일 전에 뒷산 어귀에 있는 당샘에 올라가 깨끗이 청소한 다음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깐 뒤 맑은 물을 길어와 제주(祭酒)를 앉힌다. 당샘에 금줄이 쳐지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물을 길어 가면 안 된다. 일단 제주를 앉히면 화주는 그때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며, 궂은 곳에 가지 않고, 궂은 사람과 만나지도 않는다. 또 대문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화주 집에 드나들지 않는다. 이때부터 화주 부부는 매일 찬물로 목욕재계 하고, 동침해서도 안 된다.

제물은 이웃 문덕 장에서 산다. 제사를 모시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장을 보기 때문에 제삿날 하루나 이틀 전에 장에 가는 것이 통례이다. 화주와 이장이 함께 장에 가서 제물을 사며, 이때 물건값은 깎지 않는다. 전에는 시루와 돗자리, 그리고 일체의 제기(祭器)까지 매년 새로 구입하여 썼지만 지금은 화주가 된 사람 집의 물건을 이용한다. 장을 보아 오면 화주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제물을 만든다.

별신당제 헌작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당촌마을
2005.2.23, 이옥희

별신당제 제물진설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당촌마을
2005.2.23, 이옥희

이사제 소지올림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당촌마을
2005.2.23, 이옥희

정월 열나흗날 오전에 화주는 세 곳의 당산을 돌아다니면서 금줄을 걸고 황토를 깐다. 특히 당집에 가서는 안을 두루 청소하며, 당집 안에 있는 이른바 '말칼'로 불리는 돌들에 옷을 입힌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한지로 돌 위쪽을 감싸고 왼새끼로 두르는 것이다. 이는 한 해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이듬해 다시 옷을 해 입힌다. 또 이사제를 모실 곳에는 대나무를 베어 얽어 제상을 만들어 두고 제를 모실 때 거기에다 떡시루를 얹어 놓게 된다.

제물은 제사에 임박해서 주로 열나흗날부터 만들기 시작하며, 화주 부부만 만든다. 제물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당샘에서 물을 길어다 쓴다. 또 이때부터는 화장실을 다녀오면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이 일이 번거롭다 보니 화주 부부는 며칠간 거의 절식(節食)을 한다. 제물을 만들 때에는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몸가짐을 정결히 해야 한다. 음식물에 머리칼이 빠지지 않도록 머리에 수건을 쓰고, 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도 가린다. 간을 본다거나 맛을 보아서도 안 된다. 음식에 고춧가루는 쓰지 않는다. 제물을 만들면 셋으로 나누어 둔다.

지금은 마을에 농악을 칠 줄 아는 사람이 현격히 줄어서 굿을 치지 못하지만 전에는 초저녁부터 농악을 울려 정월 열나흗날 밤이 되면 온 마을이 흥겨운 잔치집처럼 술렁거렸다고 한다. 여기에 마을 사람들이 합세하여 놀고 달집태우기도 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 마을은 정월대보름날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고 마을 제사인 당산제만 지낸다.

자정(정월대보름 0시)이 가까워지면 화주 집에서 제물을 들고 먼저 교목제를 지내기 위해 산에 오른다. 여기에는 화주부부를 비롯하여 헌관과 축관,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함께 따른다. 제사의 순서는 유교식으로 한다. 제물 역시 집안 제사와 같다. 교목제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를 쓰며, 제사가 끝나면 그것을 땅에 묻었다고 한다. 분향-강신-독축-초헌-아헌-종헌-사신의 순서에 따라 제사한다. 그러고 난 뒤 참가한 사람들 모두 한두 장씩 소지를 올리며 복을 빈다. 교목제가 끝나면 화주 집으로 모두 돌아가서 다시 제물을 들고 나와 당집에 올라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한다. 또 이것이 끝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제물을 들고 마을 앞으로 나가서 이사제를 모신다.

이사제를 할 때 자손 없이 죽은 박첨지를 위한 제상을 따로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 준다. 박첨지 제사는 제상 없이 짚을 깔고 흰 종이 위에 밥을 두세 그릇 되는 분량으로 가능한 한 많이 차려서 바가지에 담아 놓고 간단하게 지낸다고 한다. 옛날에 마을 주민이 300가구가 넘던 시절에는 짚을 꼬아 줄을 크게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메고 소리를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불놀이(달집태우기)를 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당뫼에 있던 당산나무에 줄을 매어 놓고 그네를 뛰면서 놀기도 했다고 한다.

이사제까지 모두 끝나면 동이 튼다. 날이 밝으면 마을에서 공용으로 쓰는 서당으로 준비된 모든 음식을 화주 집에서 옮겨 온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면 음복을 하고 동회(洞會)를 연다. 여기에서

이사제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당촌마을, 2005.2.23, 이옥희

논의되는 것은 마을 일 전반이며, 특히 그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품삯 등을 정했다. 여기서 정해진 것은 누구도 어기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회의는 최근에 들어와 열리지 않는다.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모임에 참석해 떡 한쪽이라도 먹으려 했으나 지금은 먹을 것이 흔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더욱이 품삯의 경우도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사고 또 마을 사람들이 타처에 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 마을에서 품삯을 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마을회의가 끝나면 며칠 동안 계속해서 풍물을 쳤다고 하지만 근자에는 역시 굿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보성군 문화유적학술조사**(전남대학교 박물관 · 보성군, 1992), **보성군사**(보성군사편찬위원회, 전남실업출판국, 1995).

필자 **이영배(李永培)**

봉죽기

표제어 뱃기(313쪽)

봉지밥

정의 '거리메기기'의 제물로, 동제를 지낼 때 소지올리기를 마친 뒤 동제 제물을 조금씩 떼서 한지로 싼 것.

내용 봉지밥의 주재료는 동제 때 사용한 제물이다. 거리메기기가 동신의 하위신을 모시는 제의로서 동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따로 제물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동제 때 사용한 제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조금씩 떼어내 봉지밥의 재료로 사용한다.

경북 북부 지역의 해안마을에서는 용왕을 대접하는 의미로 거리메기기를 하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는 어업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왕을 대접하기 위해 봉지밥을 만들어 거리메기기를 한 경우이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오보리에서는 동제를 지낼 때 소지올리기를 마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한지로 싼 봉지밥 열두 개를 만든다. '거리를 메기기 위한 제물'이다. 동제가 끝난 뒤 봉지밥을 들고 바닷가로 가 북쪽으로 세 개를 먼저 던지면서 "북해바다 수신 잘되게 해 주소"라고 외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동쪽, 남쪽, 서쪽으로 세 개씩 던진다. 선주들이 제사를 지낼 때만 해도 돈을 주고 무당을 불러서 거리를 메기게 하였다. 무당은 봉지를 던지면서 "동네 이상 없이 해 주십사"라고 축원했다. 그 뒤로는 경비 문제 때문에 제관이 직접 거리를 메긴다.

참고문헌 **용과 여성, 달의 축제**(한양명, 민속원, 2006).

필자 **한양명(韓陽明)**

부군당(府君堂)

상호참조 부군당제(336쪽)

정의 조선시대 경아전이나 지방 관아 인근에 설치된 제당 또는 현재 서울 한강 유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마을 제당의 명칭.

어원 부군당은 붉은당, 부강전(富降殿), 부군묘(府君廟), 부근당(付根堂), 부군사(符君祠) 등으로도 쓰인다. 이 어원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최남선은 '붉은'설을 제기하였다. 그는 『불함문화론(不含文化論)』에서 "조선에서는 '붉(Pǎrk)'을 본원으로 하여 '붉은(Pǎrkǎn)'이라고도 하였고, 전하여 '부군(Pukun)' 또는 단순히 '불(Pur)'이라고도 칭하였다"라고 하여 '부군(府君)'이란 표기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붉은(Pǎrkǎn)'의 음차(音差)이며 부군당은 이러한 태양신을 숭배한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조

당산동 부군당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006.11.21. 김태우

지훈 역시 제당의 명칭을 분류하면서 '붉신(神)'계와 '붉은'계를 구분하고 '붉은'계에 부군당계를 포함하였다. 그는 "부근(付根) · 부군(府君 또는 富君)은 팔관(八關) · 불구내 · 붉은의 유속"으로 보았다. 김태곤은 그 원음을 '불근', 즉 생산을 상징하는 성(性)신앙의 '불(불 · 불두덩 · 부삿 · 부랄)'에서 온 말로 보고 '부근(付根)'이 마을 수호신의 뜻을 지닌 '부군(府君)'과 성신(性神)의 생산적 상징을 띠는 '부강(富降)'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면서 남근 봉안 풍속과 관련된 명칭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군(府君)'은 한대(漢代)에 태수(太守)를 칭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본 이능화의 견해가 있다. 그는 조선 각군(各郡)의 부군당에는 대개 임소에서 죽은 수재(守宰)가 모셔져 있으며, 부군당이란 명칭은 이처럼 고을 수령이나 관리를 신으로 모시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유래 부군당의 건립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부군당에 관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 『중종실록(中宗實錄)』 1511년(중종 6) 3월 29일 기묘(己卯)에 "양현고 안에 부근당(付根堂)이 있다. 부근(付根)은 관부에서 기축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나라의 풍속이다(養賢庫內有付根堂 付根者 官府設祠祈祝 國俗也)"라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군당 건립의 풍속이 그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군당 건립의 좀 더 구체적인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권 2 한성부(漢城府) 사묘(祠廟)에 "부군사(符君祠)는 각사(各司) 아전들의 청방 곁에 있으며, 해마다 시월 초하룻날에 제사를 지낸다. 세상에서 혹 말하기를 고려의 시중 최영(崔瑩, 1316~1388)이 관직에 있을 때 재물에 깨끗하고 징수를 하지 않고 이름을 떨쳤으므로 아전과 백성들이 사모하여 그 신을 모셔 존숭한다고 한다. 각 고을에도 모두 있다"라고 하여 부군당 건립이 최영 장군에 대한 신앙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천지편(天地篇) 천지잡류(天地雜類) 귀신설(鬼神說) 화동음사변증설(華東陰祀辨證說)에서 "부근은 송씨저(송각시)가 살려 있어 사방 벽에 목경물을 많이 만들어 달고 지나치게 음설하고 불경스럽다(付根 乃宋氏姐所接 四壁多作木莖物以掛之 甚淫褻不經)"라고 하여 부군당에 남근을 봉안하게 된 유래도 알 수 있다.

역사 부군당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로서 15세기 인물인 어효첨이 집의가 되었을 때 아랫사람이 고

연도	내용	출전	명칭
1449년	어효첨이 府君을 모두 불사르고 헐다.	연려실기술	府君
1511년	양현고 안 付根堂에 제사를 지낸다.	조선왕조실록	付根堂
1517년	헌부에서 각사에 명령하여 付根을 불사르고 제사를 금하다.	조선왕조실록	付根
16세기 말 ~ 17세기 초	지금 아문의 풍속에 禱祀하는 곳이 있는데 附君이라고 한다. 신임 관리는 반드시 제사를 지낸다.	지봉유설	附君
1667년	각사에 모두 府君堂이 있어 신을 모시고 있는데 상익이란 자는 禁府의 부군당에서 항시 춤추고 하였다고 하니 어찌 실성하지 않았겠는가?	승정원일기	府君堂
18세기 초	부군당은 두 칸이며 누각의 정북 쪽에 있다. 강희 정해년에 중건하여 예전에 비해 반 칸이 늘었다.	통문관지	附君堂
1738~1791년	서울에 있는 각 아문에는 모두 府君堂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전이나 노비들이 제사를 지낸다. 본 庫에는 송씨 처녀의 초상을 모신 부군당이 있으며, 성균관 노비들이 벽송정 동쪽 가장자리에 부군당을 설치하였는데 최영장군과 우왕의 왕비를 모셨다.	이재난고	府君堂
1793년	중앙의 모든 관청과 지방의 이청 옆에 府君堂을 두고 무당이 가무오락으로 귀신을 즐겁게 하다.	연암집	府君堂
1800년경	우리나라에 附根堂이 있다. 지금 京師 각사에 神祠가 있는데 이를 付根堂이라 하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府君堂이 되었다. 付根이란 宋氏姐가 접한 것으로, 네 벽에 목경물을 걸어 놓아 심히 음설하고 불경스럽다.	오주연문장전산고	附根堂 付根堂 府君堂
1850년대	예관 府君堂에 임장군의 화상를 그려 놓고 제사 지내다. 각사 아전의 청방 곁에 符君祠가 있어 해마다 10월 1일에 제사를 지낸다.	동국여지비고	府君堂 符君祠
1908년	都下 관부에 작은 사우를 두고 지전을 걸어 놓았는데 이를 府君堂이라 한다.	추재총화	府君堂

부군당 관련 문헌기사 목록(김태우, 2008)

사(古事)가 그러하다고(새로 부임한 관원은 필히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고하니 공이 "부군이란 어찌된 물건이냐"라고 하면서 지전을 거둬 불사르고 전후에 공이 역임한 관청에서는 부군을 모두 불사르고 헐었다고 한다("公爲執義下人告以古事公曰府君何物令取紙錢焚之 前後所歷官府其府君之祀率皆焚毁之", 『연려실기술』 제4권, 문종조고사본말, 문종조의 명신 어효첨).

여기서 신임 관원들이 부군당에 제사지내는 것을 '고사(古事)'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관행은 당시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16~17세기에는 양현고, 사역원, 사헌부, 의금부, 의영고 등 도성 내 각사에 부군당이 설립되었다. 그 당시 부군당은 각사의 부속 건물이었으며, 주로 아전들이 관리하였다. 18~19세기에는 한강 유역과 지방 관아에도 부군당이 설치되기에 이른다. 즉 한강 유역인 용산구 서빙고동의 부군당이 1875년에 중건되었고, 1872년 영암군과 원주목의 관아 인근에 부군당이 설치된 정황은 부군당의 지역적 범위가 대폭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서빙고동 부군당의 경우 1875년 중건 이후 1891년에는 서빙고 지역 '노인계', 1903년에는 '이중계원'들이 각각 주축이 되어 부군당을 중수한 것을 보면 이 당시 부군당에 대한 관리와 의례의 시행은 지역민들이 주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신사나 군대 건립을 위해 일부 부군당이 이전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광복과 6·25 전쟁을 거쳐 현재 남아 있는 부군당은 대부분 서울 한강 유역에 존재하며 이 밖에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등 다른 일부 지역에 존재한다.

읍내리 부군당에 봉안된 목조남근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002.1.20, 김태우

형태 조선시대 부군당의 형태를 보면 주로 맞배 또는 팔작지붕에 기와를 얹었으며, 기단을 갖추었다. 규모는 한 칸에서 두 칸 정도이다. 담장과 마당 등 독립적인 공간을 갖춘 경우도 있고, 관아의 마당 한 쪽이나 관아 근처 숲 또는 산기슭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특히 종친부와 선혜청의 부군당은 따로 담을 쌓아 독립된

읍내리 부군당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002.1.20
김태우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친부의 부군당은 단을 쌓은 다음 그 위에 부군당을 올려 위세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현재 남아 있는 한강 유역 부군당들도 이러한 조선시대 부군당들의 외형적인 형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부군당의 정문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다. 태극 문양은 쌍태극이 그려져 있는 경우와 삼태극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

당 내부에는 부군신의 화상이 모셔져 있다. 부군신은 단독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와 부부가 나란히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 부군신으로는 단군(檀君), 이성계(李成桂), 김유신(金分信), 남이(南怡) 장군, 최영(崔瑩) 장군, 임경업(林慶業) 장군, 송씨(宋氏)처녀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예관에서는 임경업 장군 화상을 봉안했고, 의영고에서는 송씨처녀 화상을 모셨으며, 성균관 하인들(下輩)이 세웠다는 벽송정 동쪽 골짜기의 부군당에서는 최영 장군과 우왕의 왕비를 모셨다는 것이 확인된다. 조선시대에 쓰인 『연암집(燕巖集)』의 안의현 현사에서 곽후를 제사한 기(記)를 보면 "주립(朱笠)에 구슬 갓끈을 달고 호수(虎鬚)를 꽂아 위엄과 사나움이 마치 장수와 같다"라고 하여 현재 한강 유역 부군당에 모셔진 화상들의 모습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일부 부군당에는 모형 남근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며, 현재 영등포구 신길2동이

부군당 설치 기관	소재지	부군당의 위치와 규모	기록 연도	출전
양현고	서울	미상	1511년	조선왕조실록
사역원	서울	누각의 정북쪽(두칸)	1700년대	통문관지
사헌부	서울	미상	1449년	연려실기술
예관	서울	위치 미상, 임경업 장군 화상 봉안	1850년대	동국여지비고
의금부	서울	미상	1667년	승정원일기
의영고	서울	창고 뒤에 독립된 공간, 송씨처녀 초상 봉안	1768년	이재난고
사복시	서울	서북쪽 담의 모퉁이(한 칸)	1840년경	숙천제아도
종친부	서울	동남쪽 모퉁이에 독립된 공간(두 칸, 단 쌓음)	1840년경	숙천제아도
공조	서울	서리청의 바로 오른쪽	1840년경	숙천제아도, 경조부지
제용감	서울	당상대청에서 동북쪽 숲 사이(두 칸)	1840년경	숙천제아도
선혜청	서울	私庫와 북벽 사이 독립된 공간(두 칸)	1840년경	숙천제아도
도총부	서울	서리청 북서쪽 담 아래(두 칸)	1840년경	숙천제아도
영유현 관아	평안도	동북쪽 담 모퉁이(서쪽 여단 · 사직과 대응)	1840년경	숙천제아도
서흥부	황해도	마을 동북쪽 산기슭(서쪽 여단 · 사직과 대응)	1840년경	숙천제아도
신천군 관아	황해도	관아 북쪽 담 아래 (성황당은 마을 북동쪽 산기슭에 별도 존재)	1840년경	숙천제아도
안의현 관아	경상도	위치 미상(여단 왼쪽에 마을 성황당은 별도 존재)	1793년	연암집
영암군	전라도	관아 남문 앞	1872년	1872년 지방도
원주목	강원도	마을 동북쪽 산기슭	1872년	1872년 지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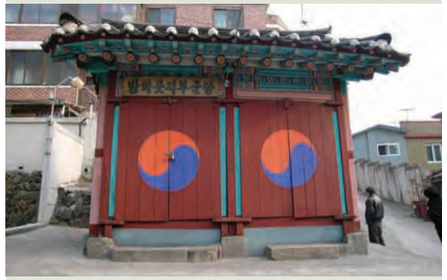
조선시대 부군당 설치 기관과 부군당 위치 및 규모

나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등의 부군당에 모형 남근이 봉안되어 있다.

내용 조선시대 부군당은 서울 도성 내 관청 가운데 의금부를 비롯하여 양현고, 사역원, 사헌부, 예관, 사복시, 종친부, 공조, 제용감, 선혜청, 도총부, 의영고 등에 설치되어 있었다. 지방에서는 평안도 영유현, 황해도 서흥부와 신천군, 경상도 안의현, 전라도 영암군, 강원도 원주목 등의 관아 안이나 인근에 부군당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방에 설치된 부군당의 특징으로 영유현, 서흥부, 안의현의 경우 동북쪽에 세워진 부군당과 대응하여 여단과 사직이 서쪽에 세워져 있다는 점과 1840년 이후 부군당이 관아 안이 아닌 밖에도 세워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1840년 이전에는 거의 모든 부군당이 관청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1840년경의 서흥부와 1872년경의 영암군 및 원주목에서는 관아 문 밖이나 마을 동북쪽 산기슭에 부군당이 건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부군당은 주로 서울 한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군당이라고 확실하게 명시된 경우와 부군당으로 추정되는 경우까지 합하면 2006년 서울 지역만 30여 곳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20여 곳의 부군당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부군당이라고 확실하게 명시된 경우는 편액, 현판, 축문, 기타 기록물, 주재 집단의 조직 명칭 등에 '府君堂'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성동구 금호동 · 응봉동 · 성수동 · 옥수동 · 동빙고동, 용산구 산천동 · 서빙고동 · 이태원동 · 한남동(큰한강) · 한남동(작은한강) · 청암동, 마포구 창전동 · 당인동 · 도화동, 영등포구 당산동 · 영등포동, 신길2동 지역 부군당들이다. 또한, 부군당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부군당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고귀한 신분의 인격신을 주신(主神)으로 모시고 있거나 지역민들에게 '부군당'으로 호칭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성동구 사근동 남이장군사당과 행당동 아기씨당, 용산구 보광동 명화전과 보광동 무후묘 및 용문동 남이장군사당, 마포구 창전동 공민왕사당, 동대문구 전농동 부강전 등이 있다. 또 지금은 소실되었으나 마포구 도화동 덕대우물성황당, 현석동 대동당, 대흥동 불당, 신정동 대동당, 신수동 복개당, 망원동 금성당, 종로구 명륜동 부군당 및 송파구 잠실동 부군당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방앗고지 부군당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2005.3.25, 김태우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2006.11.21, 김태우

기타 경기도 김포 · 연천 일대와 인천광역시 강화 및 임진강 유역에서도 부군당이 조사 되었다. 경기도 연천군의 장남면 고랑포리에도 부군당이라 불리던 제당이 있었으며,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부군당에는 모형남근이 봉안되어 있어 서울 지역의 신길2동과 함께 부군당 내 모형남근 봉안 풍속이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누석단 · 신수 · 당집 신앙연구-서낭고**(조지훈, 문리논집 7, 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1963), **서울 영상민속지-한강변의 마을신앙**(서울역사박물관, 2006), **서울 한강 유역 부군당 의례 연구**(김태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구락부, 1927), **하버드대학 옌칭 도서관의 한국 고서들**(허경진, 웅진북스, 2003),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필자 **김태우(金泰佑)**

부군당제(府君堂祭)

상호참조 부군당(332쪽)

정의 조선시대 경아전과 지방 관아 인근에 설치된 제당이나 현재 서울 한강 유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마을 제당, 즉 부군당에서 행해지는 제의.

역사 부군당에서 행해지는 제의는 부군당 건립과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다. 부군당은 15세기 이전부터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그 제의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5세기 인물인 어효첨(魚孝瞻)에 관한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서울 안에 있는 관청에는 으레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 두고 지전(紙錢)을 빽빽하게 걸어두어 부군(府君)이라 부르며, 서로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새로 임명된 관원은 반드시 더욱 정성을 기울여 제사를 올렸고, 법사(法司)라도 그와 같이 하였다. 공이 집의가 되었을 때 아랫사람이 고사(故事)가 그렇다고 고하였다(都下官府例置一小宇叢掛紙錢號曰府君相聚而瀆祀之 新除官必祭之惟謹雖法司亦如之 公爲執義下人告以古事,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4권 문종조고사본말 문종조의 명신 어효첨)"라고 하여 그 당시 부군당에서 행해진 제의가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부군당제는 이 기사에서처럼 관원이 새로 부임할 때 행해진 것과 별도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1511년(중종 6)에 양현고 안에서 행한 제사에 대해 음사(淫祀)라고 아뢰자 "대비전에 물으니 양현고 안에 부근당(付根堂)이 있어 전례에 반드시 제사를 지내므로 그렇게 한 것이라 한다(問于大妃殿 則養賢庫內有付根堂 [付根者 官府設祠祈祝 國俗也] 例必設祭 故然矣云, 『중종실록(中宗實錄)』 13책 중종 6년 3월 29일 기묘)"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과 함께 왕실에서도 부군당 제의를 묵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산동 부군당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008.10.29, 김태우

이러한 부군당 제의는 유교식 제례 형태뿐만 아니라 무속식 당굿 형태도 점차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667년에는 상익이란 자가 금부(禁府)의 부군당에서 항시 춤추고 하였다(臣聞商翼失性 各司皆有府君堂 乃事神之所 而商翼恒舞于禁府府君堂云 非失性而何,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05책, 현종 8년 1667년 11월 13일 계축)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는 당시 부군당 제의가 무속식 당굿 형태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1793년에 기록한 안의현(安義縣) 현사(縣司)에서 곽후(郭侯)를 제사한 기(記)에 보면 "아! 지금 중앙의 모든 관청과 지방의 주현(州縣)에는 이청(吏廳)의 옆에 귀신에게 푸닥거리하는 사당이 없는 곳이 없으니, 이를 모두 부군당(府君堂)이라 부른다. 매년 10월에 서리와 아전들이 재물을 거두어 사당 아래에서 취하고 배불리 먹으며, 무당들이 가무와 풍악으로 귀신을 즐겁게 한다(噫 今之百司 外而州縣 其吏廳之側 莫不有賽神之祠 皆號府君堂 每歲十月 府史胥徒醵財賄 醉飽祠下 巫祝歌舞鼓樂以娛神, 『연암집』)"라고 하여 당시에 무속식 당굿 형태가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19세기에는 한강 유역과 지방의 관아 또는 마을에 부군당이 설치되면서 제의의 주체들도 변하게 되었다. 즉 부군당제가 초기에는 경각사(京各司, 조선시대 서울에 있던 관청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각사'라고도 함)의 아전들에 의해 행해졌으나 이후에는 한강 유역 지역민이나 지방 향리들에 의해 행해지게 되었다. 서울 서빙고 지역 부군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1875년 중건 집단과 1891년 중수를 주도한 '노인계(老人契)'의 주요 인물들은 이 지역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국가로부터 관직과 품직을 제수 받고 세력을 형성한 토착 세력이었으며, 신분적으로 중인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903년에 있은 중수는 '이중계(里中契)'에 의해 행해진다. 이중계는 전대의 노인계와 달리 지역민 모두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동계(洞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의가 지역민 전체의 공동체 제의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부군당제는 주로 서울 한강 유역에 존재하는 부군당에서 행하는 제의이다. 한강 유역 부군당제는 대부분 무속식 당굿 형식이며, 유교식 제례가 일부 결합된 형태이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점차 유교식 제사 형태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내용 부군당제는 유교식 제례 형태와 무속식 당굿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승되고 있는 부군당제의 대부분은 무속식 당굿이 위주가 되고, 유교식 제례가 부분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조선시대 부군당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인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을 보면 "제사하는 날 저녁이 되자 호장(戶長)이 온 고을의 아전과 노복들을 거느리고 크고 작은 일들을 분주히 처리하기를 조심하고 엄숙하게 하였다. …… 그리고 횃불을 휘황하게 밝혀 놓고 절하고 무릎 꿇는 것이 예가 있어 헌작(獻爵)으로부터 철상(撤床)에 이르기까지 감히 시끄럽게 하거나 나태한 기색을 나타냄이 없었다. …… 매년 10월에 서리와 아전들이 재물을 거두어 사당 아래에서 취하고 배불리 먹으며, 무당들이 가무와 풍악으로 귀신

서울 한강 유역 부군당 무속식 당굿의 구조

을 즐겁게 한다(及祭之夕 戶長率一縣之吏隷僮奴小大奔趨 震慄嚴恭 …… 炬燎煌煌拜跪有數 自奠罍至撤豆毋敢譁譁惰容者 …… 每歲十月 府史胥徒釀財賄 醉飽祠下 巫祝歌舞鼓樂以娛神, 1793년 안의현 현사에서 곽후를 제사한 기)"라고 하여 엄숙한 유교식 제례 형태와 함께 무당들에 의한 무속식 당굿 형태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부군당굿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 개인굿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서울 지역

번호	지역	주무		악사
		성명	당주 계승 관계	
1	성동구 금호동	김유감	현재 중단	없음
2	성동구 응봉동	김옥렴	현재 중단. 현재 행당동 아기씨당 주무	없음
3	성동구 성수동	없음	현재 중단	없음
4	성동구 옥수동	홍막음	단독으로 인계	없음
5	용산구 동빙고동	남옥씨	현재 중단	(오자완)
6	용산구 산천동	정해옥	신어머니로부터 계승	미상
7	용산구 서빙고동	남옥씨	1994년 중단	(오자완)
8	용산구 이태원동	민명숙	오복동–박어진–민명숙, 2004년 중단	(허무길)
9	용산구 한남동 (큰한강)	김학순	원당집–친딸–김학순 (광나루 평양집)	이선호 외
10	용산구 한남동 (작은한강)	조정자	미상	박문수 외
11	용산구 청암동	윤지순	단독으로 인계	없음
12	마포구 창전동 밤섬	김춘강	딱부리(노량진만신), 개똥엄마(당인리)–김춘강	김찬섭 외
13	마포구 당인동	정복만	1987년 중단	없음
14	마포구 도화동	없음	현재 중단	없음
15	영등포구 당산동	서정자	손정희(당인리할머니)–서정자	최형근 외
16	영등포구 영등포동	조애자	깜둥이만신–조애자	없음
17	영등포구 신길2동	대나무집 할머니	검정치마만신–이북할머니–대나무집할머니 (영등포동 주무의 신어머니)	없음

한강 유역 부군당 당주 무당 및 악사 현황(2006년 기준)

당인동 부군당제
서울 마포구 당인동
2006.11.21. 김태우

마을굿이 지닌 특징적인 굿거리들, 즉 유가돌기 · 본향거리 · 군웅거리와 같은 절차로 인해 확장된 구조를 보인다. 여기에다 부군거리와 같은 부군당만의 특별한 절차가 첨가되어 부군당 무속 제의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무속식 당굿의 사례로 2007년 마포구 밤섬 부군당굿의 순서를 살펴보면 주당물림-유과 돌아옴(꽃반)-내빈소개-부정거리(상산노래가락)-부군님(신장대감창부)-말명조상-삼현육각(진지공양)-장군님 거성(별상신장대감텃대감)-불사님-군웅거리-창부거리-뒷전거리-소지 순이다. 유교식 제례 형태의 사례로 이태원동 부군당 제의 순서를 살펴보면 수화주 분향-강신-참신(화주 일동 삼배)-부군양위님 헌작-화주 일동 부복-독축-시주자 호명 축원-화주 일동 평신(平身, 엎드려 절한 뒤에 몸을 다시 폄)-사신(辭神, 화주 일동 삼배)-분축(焚祝, 축문과 소지 태우기)-철상-음복 순이다. 부군당제가 행해지는 시기는 정월, 4월, 7월, 10월 등으로 다양한 가운데 주로 10월과 정월 초하루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서울 한강 유역 부군당 제의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인적 측면에 있어서 주재 집단들이 '치성위원회'나 '보존위원회' 같은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토박이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소수 정예화되고 있다. 매년 당굿을 주도적으로 맡아 하는 무당을 '당주 무당'이라고 한다. 이들은 전대 당주 무당과 함께 조무(助巫)로 오래전부터 참여하다가 그가 사망하면 뒤를 이어 당주 무당의 지위를 계승하게 된다. 이처럼 한강 유역 부군당의 당주 무당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단골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당주 무당들은 부군당굿에 2~5명의 조무들을 초빙한다. 자신의 신딸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연고가 있는 무당들이 대상이다. 한강 유역 부군당의 당굿에 참여하는 무당들은 거의 강신무 계통이지만 당주 무당들은 사승관계(師承關係)가 확실하여 대부분 그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주 무당들은 대부분 전대 당주 무당으로부터 그 직을 물려받은 경우이다. 물적 측면에 있어서 과거에는 추렴과 반기라는 호혜 관계가 작동되었지만 현재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또 제의 현장에 각종 행사 도구가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을 통해 제의가 점차 공개화 · 행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유교식 제례 후에 무속식 당굿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무속식 당굿이 점차 중단되고 있다. 한편 부군당 제의에 대한 문화재 지정은 새로운 제도적 환경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례 서울 한강 유역 부군당에서 행하는 제의는 크게 유교식 제례 형태와 무속식 당굿 형태, 유교식과 무속식이 결합된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은 무속식 당굿 형태가 위주로 되고 있지만 제의의 처음이나 중간에 주민들이 선출한 제관들에 의해 행해지는 유교식 제례 형태가 일반적이다. 즉 성동구 금호동 · 응봉동 · 성수동 · 옥수동, 용산구 산천동 · 청암동, 마포구 창전동(밤섬) · 도화동, 영등포구 당산동 등의 부군당제가 이러한 사례가 된다. 무속식 당굿 형태는 유교식 제례가 생략되었거나 간략하게 행해지는

이태원동 부군당제 서낭당고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007.5.17. 김태우

번호	지역	전승 단체	제의 형태	문화재 지정 여부
1	성동구 금호동	무쇠막향우회 운영위원회	유교식+무속식	미지정
2	성동구 응봉동	없음	유교식+무속식	미지정
3	성동구 성수동	없음	유교식+무속식	미지정
4	성동구 옥수동	없음	유교식+무속식	미지정
5	용산구 동빙고동	부군당 치성위원회	유교식 (← 유교식 +무속식)	미지정
6	용산구 산천동	원효로 2동부군당 보존회	유교식+무속식	미지정
7	용산구 서빙고동	부군당 치성위원회	유교식 (← 유교식 +무속식)	지정 (민속자료)
8	용산구 이태원동	부군묘 관리위원회	유교식 (← 유교식 +무속식)	미지정
9	용산구 한남동 (큰한강)	큰한강 부군당위원회	무속식	미지정
10	용산구 한남동 (작은한강)	작은한강 부군당위원회	무속식	미지정
11	용산구 청암동	부군당 보존위원회	유교식+무속식	미지정
12	마포구 창전동	밤섬부군당 도당굿보존회	유교식+무속식	지정 (무형문화재)
13	마포구 당인동	부군당정화 관리위원회	치성식	미지정
14	마포구 도화동	없음	유교식+무속식	미지정
15	영등포구 당산동	임원 +운영위원회 +소임 집단	유교식+무속식	미지정
16	영등포구 영등포동	없음	무속식	미지정
17	영등포구 신길2동	임원+할머니 집단	무속식	미지정

한강 유역 부군당 제의 현황표(2006년 기준)

경우를 말한다. 용산구 한남동 큰한강과 작은한강, 영등포구 영등포동과 신길2동 등의 부군당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유교식 제례 형태는 대부분 과거에는 무속식 당굿과 결합되어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당굿이 중단된 것이다. 용산구 동빙고동 · 서빙고동 · 이태원동 등의 부군당제가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마포구 당인동의 경우 유교식이나 무속식 형태도 아닌 주민들 중에서 선출된 당주가 치성을 드리는 형태여서 특이한 사례이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와 군남면 선곡리에서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부군굿'을 행했다고 한다. 부군당과 같은 제당이 있은 것은 아니지만 공터나 신목(神木) 아래에서 음력 시월쯤에 부군굿을 하였다. 연천군의 장남면 고랑포리에도 제당이 있었다. 이를 부군당이라 불렀으며, 여기서 하던 굿을 '고창굿'이라고 하였다. 고창굿은 주로 배를 부리는 선주들이 중심이었으며, 10여 명의 무당에 의해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된 대규모 굿이었다고 한다. 광복 후에도 한두 번 굿을 했으나 6·25전쟁 이후 중단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서울 한강 유역 부군당 의례 연구**(김태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서울 서빙고 지역 부군당 의례 주도 집단 연구**(김태우, 서울학연구 38,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2010).

필자 김태우(金泰佑)

부락제(部落祭)

정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1936년 조선의 사상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각 지방에서 신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30곳을 조사하여 집필한 조사보고서로 조선총독부에서 1937년 『조선의 향토신사(朝鮮の鄕土神祀)』 중 제1부로 발간하였다.

내용 『부락제』의 저자인 무라야마 지준은 1919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와 인연을 맺은 이래 1941년 일본 국내의 조선장학회(朝鮮奬學會) 주사로 자리를 옮겨 삶의 방향을 바꾸기까지 조선에서 정열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조선을 떠난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보다 먼저 그가 조선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양부(養父) 무라야마 지젠(村山智全)의 사망으로 인한 사찰 주지의 계승이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라야마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그의 조사방법과 의의를 둘러싸고 손진태(孫晉泰)와 김효경(金孝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아마도 무라야마의 『부락제』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김효경일 것이다. 김효경은 1926년 3월 조선불교단(朝鮮佛教團)의 제2회 갑종(甲種)포교유학생에 선발되어 같은 해 4월 일본의 다이쇼대학(大正大學)에 입학하였다. 그는 1929년 다이쇼대학 전문부 불교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의 종교학과에 입학하여 1932년 3월 「巫堂(Mudang)考」라는 논문으로 졸업하였다. 그 후 1934년까지 종교학과 부수(副手, 아마도 조수에 해당)로 있다가 그다음 해부터는 같은 대학 종교학과 연구실 연구생으로 있었고 1942년까지 『다이쇼대학보』에 그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1942년까지는 다이쇼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45년 이후에는 『동국대학교 90년지』에 의하면 1946년 동국대학 전문부 제2부 문화과(文化科) 주임을 지냈다. 6·25전쟁 후 그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는 한국의 무속, 풍수, 불교, 성황신앙 등 한국의 신앙 및 종교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 외에 번역서와 일본어로 된 『지나(支那)정신과 그 국민성』이라는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

김효경은 무라야마의 『부락제』를 "조선의 사회형태에 있어서 부락공동생활에서 이루어진 부락제의 중대한 사명을 보여주는 긴요한 자료로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하고 "실로 조선의 민간신앙생활 총결산의 보고"라고 총평하면서 조사목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조선의 향토신사 제1부로서 서(序)에 서술되어 있듯이 민중의 심전개발, 특히 경신(敬神)관념을 함양하고 애향정신을 진작하는 데 참고자료로서 향토신사(鄕土神祀)는 오래된 몇 가지 전통 소산 가운데 가장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특히 정조에 의하여 지켜져 온 경신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향토에 있어서 경신사상을 그 실상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즉 『부락제』는 193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에 의한 심전개발(心田開發)정책과 관련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무라야마가 부락제를 조사한 목적에는 조선총독부의 심전개발정책이 크게 작용하였음은 분명하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세계경제공황과 함께 만주사변으로 인한 국제연맹으로부터의 탈퇴 등으로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처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을 중심으로 1934년 심전개발정책을 주창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조선의 무속 등을 조사한 무라야마 지준, 최남선, 이능화,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등을 중추원으로 불러 심전개발정책을 조선의 민간신앙에서 모색하려는 시도라든가 우가키 총독이 직접 기독교와 불교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무라야마 지준이 『부락제』의 서언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신문화의 싹을 심전이라고 보고 이 심전 위에 맺은 열매를 정신문화로 보았다. 이 정신문화 가운데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온존되어 왔다고 판단한 것이 '향토신사(鄕土神祀)'라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사회적이면서 공동적인 속성을 가진 향토신사 가운데 그의 표현대로 하면 '부락제'가 생활개선과 경제갱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라야마는 서언에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서구사상의 영향으로 미신으로서 등한시되어 온 풍토를 벗어나 부락제야말로 많은 아름다움을 가진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부락제를 진지하게 거행하고 있는 부락이 대체로 건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무라야마는 부락제를 조사한 이유에 대해 "농촌진흥을 목표로 하는 한, 심전개발에 필요한 심전의 인식은 사회공동성이 가장 농후한 향토신사인 부락제를 살핌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

무라야마 지준은 부락제를 조사하면서 부락을 행정상의 부락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를 이루는 최소단위로 보았다. 부락제에 대해서는 생활지역과 조건을 함께하는 부락 사람들이 그 생활을 위협하는 재해를 피하고 그 생활을 증진시키는 행복을 구하기 위하여 신명(神明)에게 기원함으로써 어떠한 불안도 없이 오히려 감사에 충만한 평안한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목적에서 각각 마음을 합쳐 연 1회 혹은 여러 차례 제사를 삼가 행하는 향토적 연중행사의 하나로 정의하였다. 무라야마는 부락제라는 용어와 같은 개념으로 동제(洞祭)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의 부락제를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7가지 점에 비추어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조선의 부락제와 일본의 부락제와 비교하여 양자의 공통점으로서 청정화와 신인합일(神人合一)에 주목하고 이 점을 크게 강조하였다. 둘째로 조선의 부락제가 역사적인 유구성뿐만 아니라 불변성에 주목하였다. 조선의 부락제는 제신이 자연신·다신교적이고 강신을 위한 나무를 세우고 참석자들이 춤을 추는 것 등이 통일신라 이전의 고대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조선 부락제의 보편성을 들었다. 무라야마는 조사의 불철저에서 온 결론으로 보면서도 지방적으로 특색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조선 부락제의 대동소이한 특성을 제시하였다. 넷째로 조선 부락제의 제신(祭神)이 자연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여 제신과 부락 사람들 간에 인격적인 관계가 적다는 점을 들었다. 무라야마는 제신의 대부분은 산신이라든가 성황신이라든가 모두 자연력을 신격화한 것으로 부락민과 혈연적 지연적 종족적 내지 일반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관계가 있는 역사상의 인물에 이르러서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특색으로 들었다. 부락민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그 영험력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영험력을 부락의 제재초복(除災招福)에만 희구한다고 하는 바를 조선부락제의 속성으로 보았다. 다섯째로 조선의 부락제는 신에 대한 경원한 태도와 함께 부락제를 통한 '심신(心身)의 신성화'야말로 민중의 심전개발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점이 무라야마 지준이 조선의 부락제를 조사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여섯째로 조선의 부락제가 가지는 사회성·공동성에 주목하고 조선의 부락제야말로 향토오락의 제일에 위치할 만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무라야마는 조선 부락제가 가지는 위생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이 부락제 기간을 전후하여 마을 전체를 크게 청소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의 부락제 조사를 통하여 심전개발정책을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목적이 심전개발정책의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데에 있었지만, 그만큼 현실의 긴박성에서 당시의 동제를 크게 반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는 근대 이전과 이후의 동제변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무라야마가 한국의 동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한말, 일제하 민속문헌 해제**(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일제가 실시한 조선민간신앙조사의 문제점**(김태곤, 석주선교수회갑기념 민속학논총, 1971),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최석영, 서경문화사, 1997),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최석영, 서경문화사, 1999), **제국일본이 그린 조선민속**(주영하·임경택·남근우 공저, 한국학중

앙연구원, 2006), **조선불교단연구**(김순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大正大學學報 제17호(1934), 民族學研究 제3권 제4호**(일본민족학회 편, 1937), **書評, 村山智順師の謎**(朝倉敏夫, 民博通信79호, 일본국립민족학박물관, 1997), **書評, 村山智順氏の民間信仰四部作を讀みて**(손진태, 民俗學, 1933), **宗教研究 新제9권**(종교연구편집부, 東京:宗教研究發行所, 1932).

필자 최석영(崔錫榮)

부산강선대당산(釜山降仙臺堂山)

정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산 579번지와 덕포동 712번지에 있는 상리·하리의 마을 제당. 상강선대(할배당산)와 하강선대(할매당산)의 명칭으로 불리며, 각각 독립된 제당을 유지하고 있다.

형태 상강선대 할배제당(본당)은 건축면적이 7.93㎡(앞면 2.98m, 옆면 2.66m)으로, 적갈색 벽돌로 벽을 쌓고 그 위에 기와팔작지붕을 올린 형태의 동남향이다. 하제를 지내는 곳은 할배제당 아래에 위치한다. 바위(가로 1.6m, 세로 1.8m)아래에 직사각형의 검은색 대리석으로 만든 제단(앞면 1.42m, 옆면 0.86m, 높이 0.19m) 형태이며, 좌대는 남향이다. 막제를 지내는 상강선대 출입문에는 「강선대(降仙臺)」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하강선대 할매제당은 대지 35.78㎡(앞면 5.59m, 옆면 6.4m)에 건축면적이 7.32㎡(앞면 302.5㎝, 옆면 242㎝)이며, 좌대는 북북동향이다. 기와지붕에 적갈색 벽돌로 된 구조물이며, 제당에는 「선령당(仙靈堂)」이라 쓴 나무 현판(가로 151.5㎝, 세로 37.7㎝, 두께 5.5㎝)이 걸려 있다. 그리고 할매제당에서 동북쪽으로 약 15m 아래에 산신제단이 있다. 이 제단은 바위(가로 4.28m, 세로 2.90m) 밑에 직사각형의 시멘트(앞면 2.78m, 옆면 0.78m, 높이 0.36m)로 되어 있고, 좌대는 북동향이다.

역사 상강선대는 1947년 11월에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다가 1980년대 덕포동 일대의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1991년 12월에 부산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강선대의 출입문을 이전하여 보관하다가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된 뒤 다시 원형대로 복구하였다. 하강선대는 1947년 11월에 신축하였고, 1991년(西紀壹九九壹年拾壹月拾四日午時改築上樑)에 개축하였다.

내용 **1. 내부 구조, 제구, 신체** 상강선대 할배제당의 제단은 직사각형의 시멘트 제단(앞면 260㎝, 옆면 93㎝, 높이 72㎝) 위에 검은색 대리석으로 마감한 상태이며 바닥 또한 옅은 회색의 대리석이 깔려 있다. 제당 안에는 특별한 신격의 형상이나 위패는 모시지 않으며 제수 준비에 사용되는 솥단지, 제주(祭酒)를 만드는 술항아리, 돗자리, 제물 받침대 등 제구가 보관되어 있다. 하강선대의 제단은 직사각형의 나무판자 형태의 제단(앞면 145㎝, 옆면 58㎝, 두께 5.5㎝)으로 높이 78㎝에 고정되어 있다. 제단 위에는 위패와 촛대 두 개가 얹혀져 있다. 제당 안에는 '선령위(仙靈位)'라 쓴 위패(가로 12㎝, 세로 33.5㎝, 두께 2㎝)가 있으며, 벽에는 바위에 깃을 벌리고 앉은 학의 그림(가로 130㎝, 세로 132㎝)이 붙어 있다.

2. 제의 날짜와 제의 횟수 상강선대의 제의 날짜는 음력 섣달 초하루 자정경이며, 일 년에 한 차례 치제한다. 하강선대도 상강선대와 동일하다.

3. 제관의 선정과 금기 본래 덕포동은 상리마을과 하리마을로 나뉘어 있었으며, 마을마다 진선회가 있었다. 진선회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 상강선대 진선회는 21명, 하강선대는 이보다 2~3명이 적다고 한다. 상리·하리 모두 제관을 제주라 칭하고, 제의 사흘 전에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 진선회원 가운데에서 제주를 선정한다. 한때 상강선대는 제의 올리기 한 달 전에 제주를 정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일단 제주로 선정되면 큰 탈이 없는 한 이 직위가 계속 유지된다. 현재의 상강선대 제관은 몇 년째 제주의 소임을 맡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1600년쯤부터 진선회원이 제관직을 맡았다고 한다.

과거 제주는 일 년 내내 금기를 지켰다. 하지만 현재 제주는 사흘, 그 외 제의에 참여하는 진선회원은 당일에만 금기를 지킨다. 제주는 제의 일주일 전부터 제당을 청소하고 강선대 출입문과 제당, 동네에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금줄을 친다.

4. 제물의 구입과 제수 준비 제물 준비는 각각의 제주가 준비한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사서 상강선대와 하강선대가 반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상강선대의 경우 나물 등 기본적인 제수는 제관의 부인이 집에서 준비하며, 밥은 본당 옆에서 제관이 직접 짓는다. 돼지고기를 삶는 일은 상강선대 안에 있는 진선회 사무실에서 한다. 또 하루 전에 누룩과 밥을 항아리에 담아 본당에 두고 이것을 제주로 사용한다. 이 술은 본당과 하제 때에만 사용하고 막제 때에 일반 막걸리를 쓴다.

부산강선대당산 부산 사상구 덕포동, 2010.6.11. 오세길

상강선대 입구

상강선대(본당)

산신제단(하당)

5. 제의 절차 상강선대의 제의는 본당(상제), 하제, 막제(걸판)의 순으로 진행한다. 하강선대는 산신제, 선령제(당산제)의 순서이다. 상강선대 진선회는 두 권의 제당 관련 기록물이 있다. 하나는 표지에 '제문 상리 진선회'라 쓰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달지 않고 내지 첫 장에 '기록철'이라 쓴 것이다.

전자의 것은 본당, 하제, 막제의 축문 내용과 각 제사 지내는 과정과 방법, 제물 차리는 법 등을 기록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의 제의 장면을 사진으로 출력해 모아 놓은 사진 자료집이다. 이 가운데 '제문 상리 진선회'에는 상단에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에 각 조항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를 토대로 제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당 축문(제문)

제당 신령님께 알리나이다.

- 이 소지는 제주 (　　)의 일 년 열두 달 아무 탈 없기를 소지합니다.
- 본동 진선계장 (　　)의 일 년 열두 달 아무 탈 없기를 소지합니다.
- 헌관께 올리는 소지올시다.
-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의 무사함을 비는 소지올시다.
- 본동 동민 일동의 무사함을 비는 소지올시다.
- 제주 (　　)의 3일이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루만 가립니다.

하제 축문(제문)

- 상세선망 조상후망 제주 (　　) 무사함을 축원합니다.
- 본동 진선계장 무사함을 축원합니다.
- 헌관 (　　) 일 년 열두 달 무사함을 축원합니다.
-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의 무사함을 축원합니다.
- 본동 동민 일동의 무사함을 축원합니다.

막제 축문(걸판)

- 아이노소 일 년 열두 달 무사함을 비는 소지올시다.
- 나무에 떨어져 죽은 목살귀신 물에 빠져 죽은 수살귀신 총각몽당귀신 이 음식 먹고 속거천리하소서.

본당 제상 차림

– 네 번 절하고 소지 올린다.
– 마치고 수저 꽂고 두 번 절한다.
– 다시 저분 원위치로 한다.
– 수반(물밥) 올리고 두 번 절한다.

하제 제상 차림

– 두 번 절하고 소지 올린다.
– 수반 올리고 잔 붓고 두 번 절한다.

막제(걸판) 제상 차림

– 한 번 절하고 잔 붓고 두 번 절한다.
– 고기에 수저 올려놓고 물밥 놓고 두 번 절한다.
– 축문 읽고 네 개 물밥 놓고 끝낸다.

자료를 바탕으로 상강선대 제의 절차를 살펴보면 상강선대의 본당에는 돼지 생고기를 제물로 올리며, 하제에는 삶은 돼지고기를 쓴다. 막제에서는 돼지고기를 올리지 않고 생선으로 대신한다. 모든 제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제물을 조금씩 들어내 짚으로 싸서 '물밥'이라 하여 상강선대 내의 4~5곳에 두고 잡귀잡신들을 먹인다.

본당 제의는 제주와 집사 한 명의 주도로 진행된다. 제의가 끝나면 진선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이때 얼마간의 찬조금을 제단에 올린다. 최근에는 진선회원이 아니더라도 근처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돈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제단에 올려진 돈을 모아 제의 경비로 충당한다.

7. 유래담과 영험담 강선대의 유래담은 안내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강선대의 안내문판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강선대의 안내문도 제당의 소재지와 명칭만 다를 뿐 다른 내용은 동일하다.

본 장소를 상강선대라 부르고 덕포1동 쪽에 있는 것을 하강선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름은 이곳이 경관이 빼어나 매년 음력 섣달 초하룻날이면 신선이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쉬어갔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강선대가 있는 이곳은 현 낙동강 제방을 쌓기 전까지는 배가 드나드는 포구였으며, 강선대 주변에는 촌락이 있었고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며, 마을 앞 강 이름은 흑룡강(黑龍江)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옛날부터 살아 온 주민들은 아직도 상강선대 쪽을 상리(上里), 하강선대 쪽을 하리(下里)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그러나 사상 지역의 주택 개발로 촌락의 형태는 찾을 수 없고,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이곳이 포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강선대 위에는 제당을 지어 놓았다. 상강선대에 있는 것을 할배제당, 하강선대 것을 할매제당이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진선회(津船會) 회원들이 매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

1993년 상강선대 할배제당에서 고문서 수십 장이 발견되었다. 상린리(현 상리) 절목책(節目冊) 3책(冊), 진선신조근조문(津船新造勸助文), 22편의 등장(等狀)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1888(戊子年)~1894(甲午年)년의 등장(等狀)에 따르면 강선대는 영기가 모인 곳으로, 연년이 섣달 초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부사로부터 제수용 송아지를 한 마리 받아 이곳에서 하늘에 복을 비는 제의를 베풀었다. 홍수나 가뭄으로 전염병 및 우역(牛疫)이 돌 때 이곳 강선대에서 치성을 드리면 즉시 영험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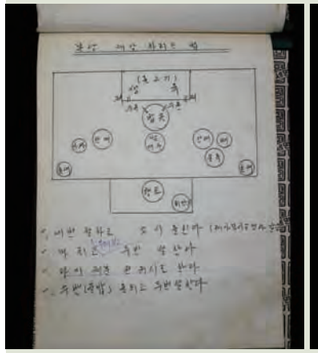
이러한 강선대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지되었으며 제의 후 마을에 흉사나 불의의 초상이 있으면 제를 잘못 지냈다 하여 다시 지내기도 하였다. 또 과거 강선대의 영험이 세다 하여 나무를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였다. 특히 1980년대 주변의 구획정리를 할 때 마을 사람 가운데 아무도 나무를 자르려 하지 않아 근처 교회의 집사에게 부탁하여 나무를 잘랐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신성성을 전제로 한 믿음은 거의 사라졌으며, 진선회원도 조경 등 목적으로 강선대 안의 나무를 임의대로 손질하고 있다.

하지만 진선회원들의 강선대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확고한 편이다. 강선대가 소재한 사상구에서는 강선대를 부산광역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일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진선회원들과 상의하였다. 그러나 진선회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 강선대의 관리권이 모두 부산광역시에 귀속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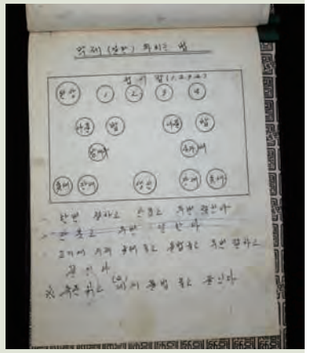
참고문헌 부산의 당제(김승찬 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5), 사상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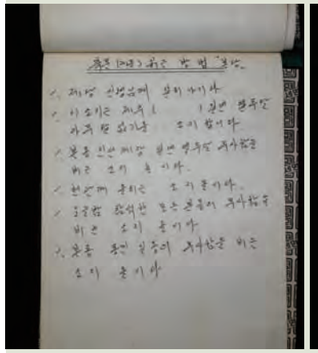
필자 오세길(吳世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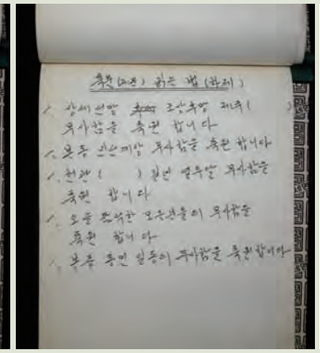
제문 상리 진선회 부산 사상구 덕포동, 2010.6.11, 오세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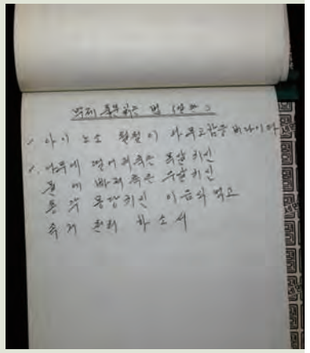

제문4쪽

제문5쪽


제문6쪽


제문7쪽


제문8쪽


제문9쪽

부산당리동제석할매당

정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승학산 남쪽 자락에 들어앉은 무학사(舞鶴寺)의 서북쪽 인근에 있는 마을 제당.

형태 무학사 앞길을 따라 북쪽으로 20m쯤 가다 보면 왼쪽으로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있고 계단이 이어진다. 이 계단을 따라 20m쯤 올라가면 당집이 있다. 제석할매당의 크기는 앞면이 363㎝, 옆면이 252㎝, 면적이 9.15㎡이다. 지붕은 팔작기와이고, 벽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았다. 문은 띠살 여닫이 두 짝이다. 한 짝의 크기는 가로 39㎝, 세로 172㎝이다. 전체 건물을 반으로 나누어 왼쪽은 제의방(祭儀房), 오른쪽은 제물준비방(祭物準備房)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당집의 뒤쪽은 바위로 된 절벽이며, 앞쪽은 급경사이다. 당집의 양쪽 옆에는 돌과 시멘트로 된 담장을 쳐 놓았다. 담장은 높이가 149㎝인데, 오른쪽 담장은 458㎝이고 왼쪽 담장은 666㎝이다. 당집의 주변은 울창한 잡목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당집의 북쪽 담장 안쪽에는 돔형으로 된 산신당이 있다. 산신당에는 가로 143㎝, 세로 45㎝, 높이 90㎝의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또 당집의 왼쪽 뒤편에 있는 바위굴에도 제단이 있다. 이 바위굴을 장군당이라고 한다. 제단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70㎝, 높이 84㎝이다. 당집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1.5㎞ 떨어진 곳(낙동초등학교 인근, 사하구 당리동 316-1번지)에는 돌을 종 모양으로 쌓고 돌틈을 시멘트로 메워 만든 돌탑이 있다. 탑은 밑면 지름이 360㎝이고, 높이는 290㎝로 규모가 제법 크다. 돌탑의 동북향 앞쪽에도 제단이 있다. 제단의 크기는 가로 92㎝, 세로 60㎝, 높이 50㎝이다. 돌탑의 왼쪽에는 높이 20m, 둘레 2.5m의 검팽나무가 있다. 부산광역시 보호수로 지정된 것으로, 수령은 약 200년 정도 되었다.

부산당리동 돌탑
부산 사하구 당리동 2010.6.7. 류종목

제석할매당의 제석할매 옷
부산 사하구 당리동
2010.6.7. 류종목

역사 당리동(堂里洞)의 뒷산은 승학산(乘鶴山)이며, 승학산 자락에 제석골이라 일컫는 골짜기가 있다. 이 계곡을 제석골이라 일컫는 것은 이곳에 제석단(帝釋壇)을 쌓고 기우제(祈雨祭)를 지냈기 때문이라는 설과 제석골에 사당(祠堂)을 짓고 여신(女神)을 모신 데서 기인한다는 설이 있다. 이곳에 기우소(祈雨所)가 있었다는 사실은 『동래부지(東萊府誌)』의 '승악산(勝岳山) 기우소'란 기록을 보아도 사실인 듯하다. 현재 당집의 왼쪽 방(제의방) 입구 위쪽에는 나무로 된 「제석곡신당(帝釋谷神堂)」이란 현판이 가로로 걸려 있다. 빛이 바랜 것으로 보아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요즘도 가뭄이 심할 때에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기도하는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그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제석은 불교 용어이며, 제석골이란 지명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대개 이런 곳에서는 기우제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1740년에 간행된 『동래부지』에는 당리란 지명이 보이지 않다가 1904년에 간행된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慶尙南道東萊郡家戶案)』에 비로소 사하면(沙下面) 관내에 당리란 동명이 보이고 김 · 이 · 최씨 등 모두 18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이 당집의 건립 연대도 이 무렵을 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 당집의 입구 바닥에는 비닐 장판을 깔아 놓았다. 당집의 왼쪽 칸(제의방) 입구 상단에 「제석곡신당(帝釋谷神堂)」이란 나무 현판이 걸려 있다. 내부는 동향으로 제단(祭壇)을 안치하였으며 시멘트로 슬래브를 쳐 만들었다. 제단은 두께 7㎝, 가로 160㎝, 세로 44㎝의 시멘트 슬래브를 높이 71㎝의 대로 세운 형식이다. 그러나 이 제단에 위패, 신체, 산신도 등 조형물은 없다. 서쪽 벽에는 붉은색 치마저고리 한 벌이 걸려 있다. 제석할매의 옷으로서 해마다 제의 때 갈아서 걸어 둔다고 한다. 당집의 오른쪽 칸(제물준비방) 입구의 왼쪽 바깥 벽에는 '제석곡신당중수방어록(帝釋谷新堂重修芳御錄)'이란 제목 아래 최칠관(崔七官) 외 136명의 기부자 명단과 기부금액을 쓴 나무판을 붙여 놓았다.

매년 음력 삼월삼짇날 새벽 1시쯤에 제의를 지낸다. 제의를 주재하는 자는 제관이라 하며 예전엔 음력 이월 말경에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갖춘 자를 지명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학사 스님에게 위탁하여 지낸다. 음력 이월 스무이렛날쯤에 제당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입구 바닥의 비닐 장판도 새것으로 바꾸어 깐다. 벽에 묻은 묵은 때도 씻고 페인트를 칠한다. 이튿날인 이월 스무여드렛날엔 왼새끼에 백지를 끼운 금줄을 당집 아래 다리 입구부터 당집에 이르기까지 쳐서 잡인의 접근을 막는다. 삼월 초하룻날쯤에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본다. 삼월 초이튿날 밤 10시쯤에 제관인 스님과 보살이 준비한 제물을 들고 당집으로 올라가 제물준비방에서 제물을 조리하고 밥도 여기서 짓는다. 제물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대동소이하나 반드시 돼지머리를 진설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튿날 새벽 1시쯤에 시작된 제의(여기서는 제만모신다고 한다)는 새벽 3시쯤에야 끝난다. 제의 절차는 산신제, 장군당제, 제석할매제, 탑제 순으로 지낸다. 원래는 제의가 끝난 뒤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음복 순서를 가졌으나 요즘은 생략되었다. 제관은 제의 후에도 약 3개월 동안 금기를 지켰으나 요즘은 스님이 지내기 때문에 이러한 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제일 전과 후 사흘 정도는 출입을 삼가는 편이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 2010.6.7, 류종목

제석할매당-제의방

산신당

장군당

참고문헌 **부산의 당제-부산 뿌리 찾기 4**(김승찬, 부산광역시, 2005), **부산지명총람**(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8).

필자 류종목(柳鍾穆)

부산대리당산

정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1206-23번지에 소재한 대리마을의 제당. 당산나무인 팽나무는 1982년 11월 4일에 '천연기념물 제309호 구포동 팽나무'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16일에 지정 범위를 대리당산 전체로 확대하여 '구포동 당숲'으로 지정되었다. 통칭 대리당산으로 불리지만 당산나무인 팽나무와 금정산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山神閣), 고당할매를 모시는 고당각(姑堂閣) 등으로 구분된다.

형태 '구포동 당숲'의 지정 면적은 1,286.4㎡이며, 정사각형 형태를 이룬다. 국가지정 문화재 대장의 규격(크기) 항목에 따르면 '구포 팽나무'는 수령 600년, 폭 30m로 기록되어 있다. 높이는 17m, 둘레가 5.5m, 가지퍼짐[樹冠幅]은 동서 21.3m와 남북 23.4m이다. 전체적으로는 우산을 펼친 모양이다.

산신각의 면적은 2.75㎡(가로 1.87m, 세로 1.47m, 높이 1.7m)으로, 돌로 벽을 쌓고 그 위에 맞배지붕을 올린 형태이다. 문은 여닫이 외짝 알루미늄 새시로 되어 있다. 고당각의 면적은 13.62㎡(가로 4.9m, 세로 2.78m, 높이 2.3m)이며 돌로 쌓은 벽에 기와팔작지붕을 올린 형태이다. 문의 형태는 산신각과 동일하다. 산신각과 고당각 모두 서북쪽을 향하고 있다.

역사 산신각과 고당각은 1949년 5월에 건립하여 1969년에 중수하였으며, 1987년 5월 26일에 개수하였다. 1987년 당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오지영(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거주)이 사재를 들여 자신의 주도 아래 현재 상태로 산신각과 고당각을 개축하였다.

내용 **1. 내부 구조, 제구(祭具), 신체** 산신각의 제단(앞면 103㎝, 옆면 34㎝, 높이 72㎝, 두께 10㎝) 위에는 '금정산제당영신지위(金井山祭堂靈神之位)'라고 쓴 나무 위패(가로 9㎝, 세로 27㎝, 두께 0.8㎝)가 놓여 있다. 위패 앞에는 촛대 · 향로 · 청수기 등이 놓여 있으며, 오른쪽에는 산신도(가로 41㎝, 세로 71㎝)가 있다.

고당각의 제단(앞면 411㎝, 옆면 52㎝, 높이 68㎝, 두께 7.5㎝) 위에는 '금정산고당영신지위(金井山姑堂靈神之位)'라고 쓴 나무 위패(가로 9㎝, 세로 27㎝, 두께 0.8㎝)가 놓여 있다. 위패의 좌우에는 청수기가 있고, 그 앞에는 향로가 있다. 위패 오른쪽에는 흰 고깔을 쓴 삼불제석도(가로 41㎝, 세로 71㎝)가 있으며 그 좌우로 촛대가 자리 잡고 있다. 삼불제석도 앞에도 향로가 놓여 있다. 이 고당각은 산신각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산제에 필요한 각종 제기와 제복 등은 모두 이곳에 보관하고 있다.

2. 제의 날짜와 제의 횟수 당산제의 제일은 정월 열나흗날 자정이며 매년 한 차례 제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다른 단체의 주도에 의해 한 차례가 더 치제되고 있다. 매년 10월 낙동문화원에서 '낙동민속예술제'를 개최한다. 행사일 오전 10시에 문화원장, 지역의 기관이나 민속예술 관련 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제의가 이루어진다. 또 고정적으로 낙동민속예술제 행사에 참여하는 무속인 이미자도 당일 오전 8시쯤 무속식으로 제의를 올리고 있다.

3. 제관의 선정과 금기 제관의 선정은 마을 풍물패가 앞세운 대잡이를 통해 이듬해의 제주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월 초이튿날이 되면 마을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된 풍물패가 당산에 모여 풍물을 울린다. 이때 한 사람이 천왕대라 불리는 큰 대를 앞세운다. 이들은 고당각 앞으로 가서 문을 열고 절을 하면서 "고당할매가 올해 편히 계실 곳을 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아뢴다. 그러면 고당할매신이 감응한 표시로 큰 대의 윗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한다. 대의 떨림이 차츰 아래로 내려오면 대잡이가 다시 "고당할매가 앞을 서셔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뒤 대잡이와 풍물패는 모두 마을로 향한다.

당산나무
부산 북구 구포동
2010.5.26, 오세길

천왕대가 이끄는 대로 대잡이는 이듬해 제관이 될 집으로 들어간다. 상 위에 촛불을 밝히고 정화수 세 그릇을 올려놓은 그 집에서는 이들을 맞이하며 천왕대를 향해 절을 한다. 그리고 "고당할매, 오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좌정하십시오"라고 하며 고당할매를 방으로 모신다.

'구포대리당숲보존회' 회장이자 10년 동안 제관을 지낸 김갑수(1947년생)에 따르면 이러한 천왕대잡이를 통한 제관의 선정 방식은 1998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관의 금기 기간이 1년이나 되고 이 금기의 엄격함 때문에 정상적인 개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마을에서는 아무도 제관직을 맡으려 하지 않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98년 대리당산 인근에 위치한 '낙동민속보존회'에 당산제 기금을 기탁하고 제의를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낙동민속보존회에서는 회원들 가운데 덕망 있는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2년 동안 대리당산제를 지내게 되었다.

대리당산제는 2001년 '구포대리애향회'와 '대리향우회'가 주축이 되어 다시 마을 주민들에 의해 거행되었다. 이때부터는 대잡이를 행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 제관이 정해졌다. 단 대리마을 출신자만 제관이 될 수 있다. 제관은 마을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 청빈하고 인품이 고매한 사람 가운데 선정되었다.

제관의 금기도 일 년에서 제일 전후 3개월씩 총 6개월로 단축되었다. 2004년부터 제관의 금기 기간은

부산 북구 구포동, 2010.5.26, 오세길

산신각

고당각

산신각 내부

고당각 내부

다시 3개월로 단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에 제관은 지인들의 경조사 등 부정한 소지가 있는 곳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제일 전후 15일 동안은 부부간의 합방도 금지된다. 또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냉수 목욕으로 몸을 정갈히 해야 한다.

4. 제물의 구입과 제수 준비 제물은 당산제 2~3일 전에 제관이 혼자 시장에 가서 구입한다. 구입하는 제물의 종류와 수량은 일반적인 가정 제사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 제관은 제물을 구입할 때 결코 값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 또 상품도 최상급의 것만 구입해야 하고, 지불하는 돈도 깨끗한 것만을 사용한다. 제관이 제물 구입을 마치면 제관의 아내 또는 어머니가 당산제 전날 제관의 집에서 제물을 조리한다.

5. 제의 절차 과거 당산제의 구체적인 제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증 없이 개략적인 내용만 전해진다. 현재의 방식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전체 제의 과정이 간소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산신제, 고당할매제, 시석제, 목신제의 순서로 제의 전 과정이 이루어졌다. 시석제는 고당각 앞에서 잡신을 대접하는 것이며, 목신제는 종이에 밥을 싸서 바치는 것이다. 현재에는 산신제, 고당할매제만 지내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다음으로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제관이 단독으로 유교적 절차에 따라 제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제관 외에도 두 명의 집사, 북구청장, 구포1동장, 구포 대리애향회 회원, 낙동문화원 회원 등이 제의에 참여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2005년 거행된 대리당산제의 제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당산제 당일 저녁 9시부터 제관의 어머니는 산신각과 고당각에 제물 차림을 마친 뒤, 11시부터 메와 탕을 준비하여 12시가 되기를 기다린다. 산신각의 경우 제상의 맨 아랫줄에는 왼쪽부터 곶감, 대추, 밤, 배, 사과, 귤을 놓는다. 중간 줄에는 돼지생고기, 두부전, 고구마튀김, 사탕, 과자, 홍합산적, 상어산적, 조기, 민어를 차린다. 위패와 가장 가까운 마지막 줄에는 떡, 나물(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메와 탕을 놓는다. 산신도 아래 오른쪽 끝에는 북어를 세워 놓는다. 고당각은 제상이 산신각에 비해 긴 편이다. 이에 따라 제물의 수도 한두 가지 많다. 위패를 중심으로 맨 앞줄 왼쪽부터 과자, 밤, 대추, 곶감, 홍합산적, 상어산적, 서대, 고구마튀김을 진설한다. 둘째 줄에는 떡, 두부전, 생선을 놓는다. 위패와 가장 가까운 줄에는 유과, 나물, 메, 탕을 두 그릇씩 놓고 그 옆에 북어를 세운다. 또 위패 오른쪽에 있는 삼불제석도 앞에도 삶은 돼지머리, 배, 사과, 참외, 수박, 바나나, 귤 등을 놓는다.

제물의 진설이 끝나고 자정이 되면 산신각에서 제관이 가운데 앉고, 양 옆으로 두 명의 집사가 선다. 제관은 오른쪽 집사의 지시에 따라 제의를 진행한다. 먼저 향을 사르고 술을 부어 향 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세 번 돌린 뒤 제단에 잔을 올린다. 집사가 술가락을 꽂고 제관은 축문을 읽는다. 이후 술 한 잔을 다시 올린 뒤 제관은 삼배(三拜)한다. 제관이 물러나고 북구청장, 구포1동장이 잔을 올리고 삼배한다. 고당각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의를 치른다. 제의가 끝나면 제관은 축문을 태우고 음복한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모두 거두어 경로당으로 가져가서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6. 유래담 세종대왕 시절 구포대리마을에 김초시의 딸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웃의 가난한 선비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부잣집에서 매파를 보내어 그녀에게 청혼하였으나 그녀는 거절한다. 그녀를 흠모하던 부잣집 도령은 무당을 찾아가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와 연분을 맺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무당은 돈에 눈이 멀어 갖은 사술을 부려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얼마 후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나는 선비에게 김초시의 딸은 자신의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정표로 준다. 선비는 팽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땅에 꽂고 지팡이가 자라나면 자신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기다려 달라고 한다. 하지만 선비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가다가 도령이 보낸 자객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낭자는 지팡이에 물을 주고 가꾸면서 수없이 기도와 절을 하면서 선비의 과거 급제와 금의환향을 기원한다. 지팡이에는 어느덧 새순이 돋고 잎이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년 뒤 구포 감동진 장터에 온 장사꾼으로부터 김낭자의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지닌 한 선비가 산길에서 피살되어 수년 전에 죽었다는 비보를 접한 낭자는 그 뒤 한 시도 팽나무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그 팽나무에 기댄 채 죽는다. 낭자는 죽어서 그 나무의 영신이 되었으며, 낭자가 기대어 죽은 자리에 또 하나의 팽나무가 붙어서 생겨나더니 마침내 한 그루로 된 쌍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그해부터 마을에는 3년을 계속해서 화재가 수없이 나고, 가뭄과 홍수와 병마가 온 동네를 휩쓰는 등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 살인을 사주한 이웃 도령도 미쳐서 앞 강물에 뛰어들어 죽게 된다. 재앙이 거듭되자 마을 원로들은 낭자의 노여움을 사서 고을에 재앙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길일을 받아 낭자와 선비의 영혼 혼례식을 성대하게 치러 주었다. 그리고 정월 열나흗날 자정에 당산제를 정성껏 지내어 영신을 위로해 주니 그 달부터는 마을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부산의 당제(김승찬 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5). 한국의 마을신앙 상(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오세길(못싸움)

부산두호마을당제

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의 공동체가 주관하여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

역사 1510년(중종 5)에 두모포영(豆毛浦營)이 죽성리에 설치되었다가 1592년(선조 25)에 부산 수정동 해안으로 옮겨졌으며, 17세기 중엽에 나씨(羅氏) 할매가 죽성리의 이곳에 들어와 두호(두모)마을을 일으켰다고 한다. 마을을 일으킨 나씨 할매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마을의 동북쪽 바닷가에 맞배기와지붕에 블록으로 벽을 쌓은 면적 3.3㎡ 정도의 할매당을 지어 받들어 모시게 된 데서 당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뒤 마을 뒤편 국수봉에 국태민안과 기우제를 올리기 위해 맞배기와지붕에 돌과 시멘트로 벽을 쌓은 면적 1.7㎡ 정도의 할배당을 지었다. 할배당은 '국수당' 또는 '국시당'이라고도 칭한다. 당집 뒤에는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0호'인 수령 230여 년으로 추정되는 해송 네 그루가 한 그루처럼 서 있다. 또 월전마을에서 두호마을로 들어오는 길 옆에는 역질과 잡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장승을 세웠다가 1933년에 장승 대신 면적 1.7㎡ 정도의 맞배기와지붕에 블록으로 벽을 쌓은 거릿대장군당을 지었다고 한다. 그 뒤 할매당·할배당·거릿대장군당이 낡아 기장군청의 지원을 받아 할매당은 2005년 2월, 할배당과 거릿대장군당은 2007년 7월에 각각 원형을 살려 새롭게 보수하였다. 본래 제단은 나무판이었으나 보수하면서 대리석판으로 바꾼 것만 다르다.

두호마을 나씨할매당
부산 기장읍 두호마을
2010.5.15, 김승찬

내용 당제를 지내는 날은 옛날에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 자정과 시월 열나흗날 자정으로 일 년에 두 차례 지냈으나 요사이에는 정월대보름날 낮 11시쯤 썰물 때에 한 차례만 지낸다. 제주(祭主)도 옛날에는 음력 정월 초사흗날쯤에 무당을 불러와 대잡이를 하여 선정했으나 요사이에는 음력 정월 닷샛날쯤에 이장, 어촌계장, 동부수협의 대의원 두 명, 동부산농협 대의원 한 명이 윤번제로 한 명씩 제주가 되어 제의를 주관한다. 제주가 되면 그날부터 음력 정월 말까지 금기생활을 해야 한다. 부부관계를 금해야 하며, 길흉사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 집안 사람이 상(喪)을 당하여도 문상을 가지 않으며, 동물의 주검 같은 것도 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다. 옛날에는 제의 사흘 전부터 변소를 갔다 와도 찬물에 목욕재계를 하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하지만 요사이에는 하지 않는다. 아흐렛날에는 고두밥에 누룩을 버무려 그 위에 물을 붓고 제의에 사용할 제주(祭酒)를 만들어 할매당에 갖다 둔다. 열하룻날에는 왼새끼로 만든 금줄에

길지(吉紙)를 20㎝ 간격으로 끼워 할매당 · 할배당 · 거릿대장군당 · 공동우물과 자기집 앞에 치고, 황토도각 제당과 자기집 출입구 양쪽에 한 줌씩 놓는다. 열사흗날에는 기장읍 장에 가서 제수를 사고, 가게 주인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고 와서 할매당에서 조리한다. 조리는 마을 부녀자들이 전담하되 부정을 탈까 봐 간도 보지 않고 조리한다. 제의의 차례는 할매당, 공동우물, 할배당, 가릿대장군당, 풍어제 터, 어사암 순서로 한다. 풍어제 터는 '두모포 풍어제'라는 깃발을 세우고 풍어제를 지내던 곳으로, 마을 앞 해변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폭 105㎝, 높이 170㎝의 바위에 '두모포 풍어제터'라 음각한 바위가 있고, 그 아래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어사암의 본래 이름은 매바위(鷹岩)였다. 『기장현읍지(機張縣邑誌)』형승(形勝)조에 따르면 1883년(고종 20)에 수의어사(繡衣御史)인 이도재(李道宰)가 관기 월매와 여기에서 놀았다 하여 매바위를 어사암으로 지칭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대보름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썰물 때여서 이때 마을에서 어사암까지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

제의 절차는 할매당의 경우 제단에 제수를 진설하러 들어갈 때 금줄을 걷어 치우고 간다. 할매당 안에 있는 하나의 제단에 세 제상을 진설한다. 중앙에 할매제상, 왼편에 시주(또는 세존)제상, 오른편에 성주제상을 진설하되 시주제상에는 비린내 나는 육고기와 어물고기는 진설하지 않는다. 신위 앞 첫 줄에는 돼지고기 · 수저 · 국 · 메 · 시루떡, 둘째 줄에는 술잔, 셋째 줄에는 생선 · 배추전 · 탕 · 미나리전 · 계란, 넷째 줄에는 시금치나물 · 무나물 · 고사리나물 · 도라지나물, 다섯째 줄에는 건어포 · 대추 · 밤 · 곶감 · 배 · 사과 · 귤 등을 차례로 진열한다. 먼저 세 신위 앞에 놓인 조화를 꽂은 오지그릇 밑에 1,000원짜리 새 지폐를 한 장씩 놓은 다음 '나씨할매신위'라 쓴 지방을 붙인다(시주제상과 성주제상 앞에는 지방을 붙이지 않음). 제단 양쪽 가에 촛불을 밝힌 뒤 제단 아래 향로에 향을 사르고 헌작한 다음 재배하고 나서 개반삽시(開飯揷匙, 메그릇 뚜껑을 열고 숟가락 바닥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꽂고 젓가락을 동쪽으로 향하게 올려놓음)하고, 잠시 있다가 다시 헌작하고 참석자 일동과 재배한 뒤에 철시부반(撤匙覆飯,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 뚜껑을 닫음)하고 철상한다. 축문은 없다. 제주가 할매제를 올릴 때 마을의 유지 한 사람은 제당 앞에 용왕제상, 또 한 사람은 제당 뒤의 돌 제단에 천왕제상을 각각 간단하게 차리고 술을 한 잔 올린 다음 재배한 뒤 철상한다. 할매당의 제의가 끝나면 지방을 태우고, 한지에 주먹밥을 여섯 개 싸서 마을 앞의 황학대 뒤쪽 포구를 향해 여섯 곳에 던진다. 그다음 할배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공동우물에 술을 한 잔 올리고 할배당으로 간다. 옛날에는 제수를 지게로 옮겼으나 요사이에는 차량을 이용한다.

두호마을 국수당(할배당)
부산 기장읍 두호마을
2010.5.4. 김승찬

할배당에 도착해서는 할매당에서 한 것처럼 제주가 금줄을 걷어 소나무에 매어 놓고, 신위 앞에 놓인 조화를 꽂은 오지그릇 밑에 1,000원짜리 새 지폐를 한 장 놓은 다음 '국수당할배신위'라는 지방을 붙이고 제의를 베푼다. 절차는 할매당과 같으나 한지에 주먹밥을 싸서 던지는 의례 행위는 하지 않는다. 거릿대장군당에서의 제의도 제주가 제당 앞에 친 금줄을 걷어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에 매어 놓은 뒤 신위 앞에 놓인 조화를 꽂은 오지그릇 밑에 1,000원짜리 새 지폐 한 장을 놓고 지방 없이 할미당의 제의 절차대로 행한다. 풍어제굿터는 2005년부터 제의를 베풀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가 어포와 과실을 제단에 놓고서 절은 하지 않고 술만 한 잔 올린다. 마지막으로 어사암에서는 주과포를 간단히 차려서 제주가 술을 한 잔 올리고 재배한 뒤 잡귀잡신을 떠나보내기 위해 작은 오쟁이에 제물로 쓴 메와 나물 등을 조금씩 담아 바다로 띄워 보내는 헌식 의례만 행한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할매당 앞에서 부정이 없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복을 하면서 그해에 집집마다 고기도 많이 잡고 미역 채취가 잘되기를 덕담으로 나눈다. 이는 새해인사인 동시에 지연적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행위이다. 뒷놀이는 하지 않는다. 제의 행사가 모두 끝나면 제주는 자기 집에 쳐 둔 금줄을 거두어 태워 없앤다. 2009년의 제수 구입비는 약 100만 원이 들었다. 이 경비는 마을개발위원회와 어촌계에서 반반씩 갹출하며, 결산은 음복할 때나 날을 받아 행한다. 두모마을에서는 5년에 한 번 축제적 성격을 띤 풍어제(별신굿)를 정월 초순에 행한다.

특징 부산 지방의 당제 가운데 두호마을의 당산할매제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산할매제에 성주제와 시주제를 함께 모신다. 일반 가정에서 차례를 지낼 때 차례에 앞서 차례상 옆에서 주부가 성주상을 차리고 비손하는 경우는 있지만 당산할매제 때 할매제와 더불어 성주제상과 시주(세존)제상을 진설하는 예는 없다. 그리고 조화를 꽂는 오지그릇 밑에 1,000원짜리 새 지폐를 놓고 지난해 놓은 것을 끄집어내는 행위와 소지를 올리지 않는 행위는 다른 지방의 당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할매제 때 할매당 앞뜰에 용왕제상을 차리고 할매당 뒤의 제단에 천왕제상을 차리고 술을 한 잔 올리는 의례도 독특한 예라 할 수 있다. 어사암에서 작은 오쟁이에 제물로 쓴 메와 나물 등을 조금씩 담아 바다로 띄워 보내는 의례행위는 재액을 일으키는 잡귀잡신을 멀리 떠나보내고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로 행하는 것이다. 이는 잡귀잡신에 대한 헌식 의례의 한 가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장현읍지**(경상남도지 편찬위원회, 경상남도여지집성, 1963), **동신당**(김태곤, 대원사, 1992),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부산의 당제**(김승찬 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필자 **김승찬(金承璨)**

부산수내리고당할미당

정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수내리마을의 수호신인 산신과 당산신을 모신 제당. 이 마을에서는 고당할미당을 '고당할미집'이라고 칭한다. 제당 안에는 산신과 당산신의 신체(身體)인 신석(神石) 두 위를 봉안하고 있다. 마을 어귀에는 잡귀잡신을 막아 주는 거리당산이 있다, 거리당산에는 돌탑과 나무 끝에 오리 형상을 붙인 거릿대를 모시고 있으며, 이 마을에서는 거리당산을 달리 '거리제당' 또는 '탑거리'라고 칭한다.

형태 수내리마을 산기슭에 위치한 고당할미당은 1980년대에 건립되었다. 제당의 규모는 앞면 242㎝, 옆면 183㎝, 높이 133㎝이다. 형태는 맞배기와지붕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며, 제당 문은 여닫이 두 짝의 함석문이다. 제당 주위에는 소나무 숲이 있으며, 제당 뒤로 큰 바위가 놓여 있을 뿐 담장은 따로 없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거리제당에는 자연석을 깔대기형으로 쌓아 올린 돌탑이 있다. 돌탑의 규모는 기저 직경이 90㎝, 높이 130㎝ 이다. 거리제당에는 이밖에 매해 당산제를 지낼 때 나무 끝에 오리 형상을 조각해 붙인 거릿대를 돌탑 옆에 세워 두기도 한다. 거리제당 주위에는 80여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세 그루가 있다.

역사 당산제를 지내게 된 연원과 제당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자료는 물론 구전자료도 전무한 실정이다. 고당할미당은 1980년대에 마을 주민들의 뜻을 모아 건립된 것으로 이후 시대적 추이에 따라 당산제를 거행하지 않게 되면서 제당이 방치되어 지금은 제당이 있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마을에서는 1984년부터 당산제를 모시지 않았다고 한다. 당산제를 모시지 않게 된 연유는 외지인의 이주가 많아

고당할미당
부산 금정구 두구동, 2010.6.1, 황경숙

지고 기독교 신자가 늘면서 마을 주민들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당할미당은 당산제를 모시지 않게 된 이후로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평소에도 주민이 자주 왕래하지 않은 탓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제당이 허물어져 지금은 제당에 모셔둔 신체 역시 건물 잔해에 묻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내용 과거 이 마을에 있던 고당할미당의 내부 모습과 당산제의 제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당할미당의 내부에는 중앙에 시멘트로 만든 제단(앞면 84㎝, 옆면 36㎝, 높이 33㎝)이 있다. 제단 위에는 산신할배의 신체인 자연석(높이 32㎝, 지름 7㎝)과 고당할매의 신체인 자연석(높이 31㎝, 지름 2㎝)이 나란히 놓여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매해 한 차례 음력 정월 열나흗날 자정에 당산제를 모셨다. 당산제를 모시는 제주를 헌관(獻官)이라 칭한다. 제주는 정월 초이렛날에 마을 노인들이 모여 마을 주민 가운데 생기복덕을 보아 부정이 없고 깨끗한 이를 가려 선정한다. 이때 제주를 도우는 집사를 함께 선정한다. 제주로 선정된 이는 선정된 날로부터 부정을 가리는 금기를 행한다. 금기는 제를 지낸 후 한 달 동안 지속한다. 당산제의 제의 절차는 산신제-당산제-거릿대제 순이다. 예전에는 산신제와 당산제를 모시는 제의 장소가 달랐으나 제당에 산신과 당산신을 함께 모신 뒤로는 제당에서 함께 제를 모신다. 제의에 진설하는 제물의 종류와 제의 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하다. 단 제의를 마친 뒤에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소원성취 및 풍농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정해진 형식이 달리 없어 제주에 따라 각성바지로 소지를 올리기도 하고 한 차례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당산제를 모신 뒤에는 거리제당으로 가 거릿대제를 지낸다. 거릿대제에는 술과 과일 등 제물을 간소하게 차린다. 거릿대제 제의 방식은 간소하여 제주가 단작 재배 후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잡신을 막아 주고 그 해 마을이 평안하고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이령수를 외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거릿대제에서는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제의가 끝나면 제물을 제주의 집으로 옮겨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음복한다. 이때 집안에 출산 또는 초상이 있거나 기타 부정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부산의 당제(김승찬 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필자 황경숙(黃京淑)

부산수영할매당

정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안에 있는 할매를 모신 신당. 민간신앙의 대상 신인 할머니의 신위를 모셨는데, 송씨할매당, 수영고당(姑堂), 산정머리할매당, 수영성내수호신당, 성주신당 등으로 불린다.

형태 수영동의 전통시장인 팔도시장에서 서쪽을 향하여 언덕으로 올라오면 수영성남문(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이 있는데, 하마비(下馬碑)를 지나 남문으로 들어가면 오른편 작은 언덕 위에 신당이 있다. 신당을 중심으로 양 옆과 뒤쪽으로 돌담이 가지런히 쳐져 있으며, 앞쪽은 철책으로 담을 대신한다. 평소에는 신당의 문이 잠겨 있다. 신당 앞에 작은 직사각형의 시멘트 제단이 만들어져 있어 여기에 술과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신당 앞에 오래된 곰솔나무가

수영할매당
부산 수영구 수영동
2008.6.8. 배도식

부산 수영구 수영동, 2008.6.8. 배도식

수영당집 독신묘 현판

수영당집 성주신당 현판

있어 신목으로 여겨 여기서도 간단한 제사를 올린다.

신당의 건물은 가로 3.6m, 세로 2.6m, 높이 3.0m의 크기로 팔작형 기와지붕이다. 벽체는 시멘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당집은 두 칸으로 구분되어 있다. 오른쪽은 수영성내수호신당(水營城內守護神堂), 왼쪽은 독신을 모신 독신당(纛神堂)이다. 오른쪽의 할매당 신당 안의 제단 위에는 '수영성내수호신지신위(水營城內守護神之神位)'라는 위패가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신당 앞의 처마 밑에 세로로 된 나무판에다 「성주신당(城主神堂)」이라는 현판을 붙여 놓았다. 제단은 신당 안의 북쪽에 마련되어 있다. 높이 84㎝, 가로 150㎝, 세로 50㎝의 시멘트 구조물이다. 왼쪽의 독신당에는 독신기를 모신 방으로 제단 위에 '독신지신위(纛神之神位)'라는 위패가 있다. 이 때문에 신당 앞의 처마 밑에 「독신묘(纛神廟)」라는 현판을 붙여 놓았다. 제단의 크기는 성주신당의 것과 같다. 왼쪽 바닥에는 독신기가 놓여 있다. 삼각형의 독신기의 크기는 밑변이 135㎝, 깃대 쪽이 86㎝, 사선이 153㎝이다. 바탕은 누른색이고, 가운데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문은 양편 모두 두 짝의 여닫이로 되어 있고, 파란 바탕에 가운데에는 태극이 그려져 있다.

역사 전해 오는 바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에 수영성 안 산정머리에는 할매신을 모신 신당과 독신기를 모신 독신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동래영지』 단묘조에 독당(纛堂)과 산정신사(山亭神祠)가 기록되어 있다. 현재 산신당에 성주신당과 독신묘가 함께 있음을 보아 원래 산정신사와 독신당이 따로 있던 것이 뒷날 합쳐져 산정신사에 함께 있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1969년 12월 문화재관리국에서 펴낸 『부락당제』에는 수영 산신당 안에 토신주위(土神主位)와 독신주위(纛神主位)의 위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1972년에 김승찬 교수가 이 당집을 조사했을 때 당사의 오른쪽 칸에는 제구(祭具)가 놓여 있었고, 왼쪽 칸에는 주신지위의 위패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상량문에는 1936년 음력 십일월 초사흗날에 중건했다는 기록(昭和十一年丙子陰十一月初三日壬申重建辰時立柱未時上樑)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지금의 당사는 1981년 5월 11일에 애향인 김기배(金己培)가 개축하여 왼쪽 칸에는 목판에다 「독신묘」라고 쓴 현판을 붙이고, 오른쪽 칸에는 「성주신당」이라는 현판을 붙였다. 이는 원래의 독신묘 자리와 성주신당의 자리가 서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승찬 교수의 『부산의 당제』를 통해 할매당 안의 위패에 기록된 신격의 변천을 볼 수 있다. 1969년에는 왼쪽 방에 '토신주위'라 쓴 위패가 있었고, 오른쪽 방에는 '독신주위'라 쓴 위패가 있었는데, 1972년도 조사 때에는 '독신주위'라 쓴 위패는 없어지고, '토신주위'라 쓴 위패만 남아 있었다. 이 위패도 '토신주위(土神主位)'가 '토신지위'로 바뀌어 있었다. 1981년에는 왼쪽 방인 성주신당에 독신기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의 독신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가 2004년 조사 때에는 왼쪽 방에 '독신지신위'란 위패가 놓여 있고, 오른쪽 방에는 '수영성내수호지신위'라는 위패가 놓여 있었다.

1981년에 제당을 중수하고 오석에 글자를 새겨 제당의 오른쪽에 석비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임진왜란 이전부터 신당이 있었으며, 마을의 수호신인 토지지신(土地之神)과 독신(纛神)을 함께 제사해 왔다. 건물이 오래되어 퇴락했으므로 1960년대와 1981년에 한 차례씩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마을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빌며 조상이 남기신 이 유산을 영원히 보존해 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이 글은 1981년 6월 25일 김병근(金丙根)이 짓고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신당 앞에는 또 하나의 안내판이 있다. 〈수영고당(水營姑堂)〉이라는 제목 아래 이 신당의 내력을 설명해 놓았다. 그 내용은 이 신당에서 조선시대 때 이곳 수영의 수사(水使)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해 독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수영성민과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토지지신에게도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신당에는 일제강점기 때 이 마을에 살면서 지조가 굳고 생활력이 강했던 송씨할매의 신위를 모시고 음력 정월대보름날 수영의 유지들이 제사를 지내 오고 있다. 이곳 산정머리 신당의 제사는 역사가 400여 년이 되었는데 건물이 낡아서 1936년에 중건했고, 지금의 건물은 1981년 중수하고, 2003년에 김기배의 아들 김종수(金鍾秀)가 개수하였다는 내용이다.

내용 할매당에서는 일 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낸다. 옛날에는 음력 섣달그믐날 자정에 모셨지만 근년에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모시다가 요새는 정월대보름날 밤 10시쯤에 모신다.

할매당에서 모시는 신위는 송씨할매신위이다. 송씨할매는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 살던 할머니로,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일본 군인들의 희롱에 분개하여 과감히 대응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무사히 나무를 해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 인근에서는 이 할머니를 강단 있는 사람으로 보고 돌아가신 후 그의 장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할매당에 송씨할매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모셔 오던 할머니 신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되어 이 신위의 정체가 유명무실해질 즈음,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아픔이 번지는 때에 일본 군인과 대처하여 이긴 마을의 용감한 할머니가 신격화되어 옛날 할매 신격과 접맥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하나는 조선시대 좌수영 수사가 있을 때부터 산신제를 지내 온 산신당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독신묘 제사는 독기(纛旗)에 바치는 제사이므로 신위는 독기이다. 독기는 군대의 군기를 말하며 이를 신격화하여 신성시한 것이다. 『동래영지(東萊營誌)』 제전(祭典)조의 기록에 따르면 수영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봄에는 경칩, 가을에는 상강에 독제(纛祭)를 지냈다. 이때 희생으로 쓰는 제물인 염소와 돼지를 각 읍에서 바친다고 하였다.

수영할매당 제물
부산 수영구 수영동
2008.6.8, 배도식

제를 지낼 때 준비하는 제수는 메 · 닭 · 생선 · 명태 · 나물(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떡 · 과일 · 과자류 · 술 등이다. 간단히 모실 때에는 명태 · 떡 · 사과 · 배 · 참외 · 술 한 잔 정도를 마련하기도 한다.

제사를 모시는 차례는 성주신당(할매신위), 독신묘(독신기) 순이다. 그다음 신당 옆에 서 있는 수령 400여 년이 된 곰솔나무(천연기념물 270호)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 나무는 이곳에 좌수영이 있던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이곳에 주둔한 수군이 신변의 안전을 주선해 주는 군신목(軍神木)으로 섬긴 나무라 하여 제사를 지내왔다고 전해진다. 높이 22m, 아랫부분 둘레 4.5m, 수관 폭 약 21m의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에서 가지가 뻗은 아주 큰 나무이다. 마을 사람 가운데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가족은 미리 군신목에 와서 아들의 무사안전을 빌기도 한다. 인근에 있는 푸조나무(천연기념물 311호)도 거대하여 지신목(地神木)으로 여긴다. 이 나무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져도 지신할미의 보살핌이 있어 다치지 않는다고 전한다.

제관을 뽑을 때에는 제사 한 달 전에 마을에서 원로들이 모여 부정이 없고 성실하며 생기복덕한 사람을 뽑아 제관을 맡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수영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희박하게 되면서 제관직을 맡아 제사를 주관할 사람을 고르기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한때 이곳의 토박이로 지신밟기와 수영야류의 회원으로 일해 온 태말준 부부가 제사를 담당하기도 하고, 수영야류 예능보유자인 태덕수가 오래도록 제관이 되어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지금은 수영향우회에서 주관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특징 수영할매당 제사는 이 제당에서 단독으로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을과 관련이 있는 제장이 두 곳이나 더 있기 때문이다. 수영성의 산정머리에서 할매당과 독신묘의 제사가 끝나면 동문 근처에 있는 최영장군신당인 무민사(武愍祠)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다음으로 수영성의 서북쪽에 있는 먼물샘[遠水井]으로 가서 우물제를 지낸다. 최영 장군의 신위도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먼물샘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 지역의 유일한 식수 공급처로, 우물신(용왕)이 관장한다고 여겨 해마다 받들어 수신을 모셔왔다. 이러한 제사는 마을의 안과태평과 풍요를 기원하는 뜻도 있지만 정초에 행하던 지신밟기와 정월대보름날에 놀던 수영야류를 무사히 치르기 위한 고사 성격도 띠고 있다.

참고문헌 **부산의 당제**(김승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부산지명총람**(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0),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회, 2005), **수영민속총집**(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회, 2009), **수영전통문화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회, 1997).

필자 **배도식(裵桃植)**

부산신선동산제당 · 아씨당

정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마을의 안과태평(安過太平)과 각 가정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제의가 이루어지는 장소.

역사 아씨당(阿氏堂)은 본래 하씨신당(河氏神堂)이었다. 하씨신당의 위치는 1908년에 설립된 사립 옥성학교(玉成學校) 옆의 수목 가운데에 있었으나 이 학교가 폐교되고 1941년에 영도공립보통학교(현재 영도초등학교)를 세우면서 학교 부지 확충을 위해 하씨신당을 헐게 됨으로써 신선동의 계곡인 현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

하씨신당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부산 서구의 「시약산산제당약사」에 따르면 최재우의 여동생이 동학란에 피신하여 시약산에서 당집을 지어 살았다. 최재우의 조카뻘 되는 최씨와 그 부인인 진양 하씨가 와서 최씨녀를 시봉하다가 하씨가 19세기 말엽에 영도 고

부산 영도구 신선동, 2010.5.1, 김승찬

하씨할매당의 삼신제왕할매

하씨할매당의 하씨할매

천왕장군신상
부산 영도구 신선동, 2010.5.1, 김승찬

갈산(枯渴山, 지금의 봉래산) 중턱으로 가서 당을 세우고 살다가 죽었다. 이에 주민들이 그 당을 하씨신당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하씨신당(할매당)을 현 위치로 옮긴 뒤 고씨신당(할배당)을 세우고, 고씨신당 뒤 바위 가운데에 천왕장군신상(산신상)을 세웠다고 한다.

형태 1942년에 세운 제당들이 낡아 1995년 음력 8월 19일에 개축 수리를 시작하여 12월 3일에 마쳤다. 고씨할배당은 건축면적이 15.51㎡로 기와 우진각지붕에 벽은 블록으로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였다. 문은 정면 오른쪽에 여닫이 외짝 나무문과 왼쪽에 태극도형이 그려진 여닫이 두 짝 나무문이 달려 있고, 앞 추녀 끝에 흰 플라스틱 차양대를 붙였다. 제단은 77㎝ 높이에 두께 2㎝의 화강암 대리석을 ㄱ형으로 놓았다. 제단 위에는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 산신도가 있고, 제단 아래에는 불전함이 있다.

하씨할매당은 고씨할배당의 서북쪽으로 15m 지점에 있다. 당의 건축면적은 15.18㎡이며 기와 우진각지붕을 비롯해 문과 제단은 고씨할배당과 같다. 제단 위에는 여신도가 두 개 걸려 있다. 오른쪽이 삼신제왕할매이고, 왼쪽이 하씨할매이다. 두 할매의 제단 아래에는 각각 불전함이 놓여 있다. 두 제당의 주위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 돌담을 직사각형으로 쌓아 놓았다. 고씨할배당 뒤 바위에 세운 천왕장군신상(산신상)은 키가 180㎝ 정도로 오른손에는 삼지창을 치켜들었고, 왼손에는 칼을 아래로 비껴들었다.

내용 제관은 옛날에는 신선동 마을회의에서 정월 초닷새쯤에 생기복덕하고 칼컨는(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면, 제관이 제의를 보좌할 유사 세 명을 선정하여 제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 상주하는 당주(현재 당주는 장운표, 1959년생)가 마을 사람 가운데 제당 일에 협력하며 부정이 없는 사람을 제관으로 두 명(아헌관 · 종헌관)과 축관으로 한 명 선정하여 제의를 행한다. 당주와 제관은 금기생활을 지켜야 한다. 금기생활은 당주의 경우 제의가 드는 정월 한 달과 구월 한 달이며, 제관은 제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제의가 끝나면 해제된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대보름날 자시와 구월 열나흗날 자정으로 일 년에 두 번 지낸다. 당주는 제의 열흘 전에 하씨할매당 아래쪽에 있는 요사채에서 제주(祭酒)를 담고, 제의 이틀 전 좋은 제수를 자갈치시장에 가서 사되 제수의 값은 깎지 않는다. 제수에는 닭고기와 쇠고기는 쓰지 않고 까만 수퇘지 한 마리를 구입한다. 수퇘지를 5각(앞다리 2, 뒷다리 2, 머리와 몸통)을 내어 제의 때 할배상과 할매당의 하씨할매상에 앞다리 각 1개, 삼신제왕상과 용왕상에 뒷다리 각 1개, 산신상에 머리와 몸통을 바친다. 이 밖의 고기로는 민어, 조기, 납새미, 붉돔, 옥돔, 건어포(명태포 · 문어포)가 있다. 또 시루떡 3종(백설기 · 찰떡 · 팥떡) 및 나물로는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무, 배추, 미나리 등이다. 과일로는 대추, 밤, 곶감, 배, 사과, 귤, 바나나가 있다. 그리고 강정을 올린다. 제수 장만은 제의 당일 산제당과 관계있는 보살들이 와서 한다. 제의 때가 되면 당주 · 제관 · 축관은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참례한다. 제물은 산신도 앞에 진설한다. 첫째 줄에는 나물탕 · 메 · 백짐시루떡, 둘째 줄에 돼지고기 · 탕 · 찹쌀시루떡, 셋째 줄에 민어 · 조기 · 납새미 · 옥돔 · 콩나물 · 도라지 · 고사리 · 무채 · 배추전 · 미나리전 · 팥시루떡, 넷째 줄에 건어포(명태포 · 문어포) · 대추 · 밤 · 곶감 · 배 · 술잔 · 사과 · 귤 · 바나나, 강정 순으로 올린다. 촛대는 첫째 줄 양쪽에 놓는다. 향로는 제단 아래 향로대가 있어 그곳에 둔다.

용왕제 지내는 샘
부산 영도구 신선동
2010.5.1, 김승찬

제의는 고씨할배제-하씨할매제-삼신제왕할매제-산신제-용왕제의 순서로 행한다. 각 제의의 절차는 유가식으로 촛불을 밝히고 제수를 진설한 뒤 당주가 초헌관이 되어 향을 사르고 술을 올린 뒤 일동이 재배한다. 일동의 재배가 끝나면 개반삽시(메 그릇 뚜껑을 열고 수저를 올려놓음)하고 축관이 독축한다. 할배당의 축문은 아래와 같이 한글로 되어 있다.

고씨제 축문

유세차 년 월 십오일
유학 인동장씨 장운표
감소고우
복유고씨귀신유신봉우
비무후간영도구구민제해
소멸수복강길영구불열
근구주찬용신보고 상향

독축을 하고 나면 아헌관과 종헌관이 차례로 헌작 재배한 뒤 잠시 기다렸다가 수저를 거두고 메뚜껑을 덮은 다음 일동이 재배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 먼저 할배소지를 한 장 올리고 그다음 당주소지를 올리고 뒤이어 마을 사람들이 써 준 소지들을 올리고 철상한다. 다음 할매제도 할배제와 같은 절차로 행한다. 할매제의 축문도 한글로 되어 있다.

하씨제 축문

유세차 년 월 십오일
유학 인동장씨 장운표
감소고우
복유하씨지신유신보우
비무휴판자도민여자
중확업자중부복리일증
제해소멸무궁발전근이
청작용신호고 상향

그다음 행해지는 삼신제왕할매제는 할배제에 쓴 제수를 그대로 옮겨와 쓰며, 메 · 나물탕 · 돼지고기만 바꾼다. 제의 절차는 할매제와 같되 축문과 소지는 하지 않는다. 그다음 천왕장군신상 앞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할배제와 같은 절차로 하되 제수는 돼지고기의 머리와 몸통을 올린다. 축문은 한글로 되어 있으며,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산신제 축문

유세차 년 월 십오일
유학 인동장씨 장운표
감소고우
복유산신진아도소제창복
수사치상구유폐세매인
사가제호주송야도기공
영궐덕시사보경멩백실
방연삼구신기강길인급
가족기궐육축성군천백상
원길일자천성형양양여재
기감향삼백육순서협앙망유
영시앙향감 상향

산신제가 끝나면 다시 고씨할배당 아래에 있는 샘에서 마지막으로 용왕제를 올린다. 할배제처럼 제수를 올리고 당주가 단작 재배하면 당주와 더불어 제관들도 함께 재배함으로써 제의를 끝낸다. 그리고 잡귀잡신을 위해 산제당 안의 요사채에 살고 있는 보살이 작은 상에 메, 나물, 고기를 약간 준비하여 '산제당'이라 쓰인 일주문 아래에 갖다 놓음으로써 모든 제의는 끝난다.

제의가 끝나면 당주를 비롯한 제관과 제수를 장만하는 데 도운 보살들이 요사채에 모여 함께 음복을 하고 따로 남긴 제물을 신선동 경로당과 복지회관에 보낸다. 제수 경비는 제당에 굿하러 오는 이들의 헌납금과 불전함에 넣은 시주금으로 충당하며 한 차례에 약 5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산제당이 거의 개인의 암자와 같아 결산보고는 없다.

특징 신선동의 산제당은 개인의 암자와 같이 변하고 있다. 여느 당산과는 달리 개인의 기도처가 되어 매일 보살(신도)들이 출입하고, 할배당과 할매당에는 불전함(佛前函)이 놓여 있다. 제의 절차도 일반적으로 산신제 · 당산제 · 거릿대(솟대)제, 또는 당집 안에 산신

위패와 당산위패가 있어 산신과 당산신을 합사하고 제의를 베풀고 나면 거릿대제를 지내는 순서인데, 이 산제당에서는 고씨할배제와 하씨할매제를 분리하여 제의만을 올리고 천왕장군신상제(산신제)가 뒤에 행해짐과 거릿대제가 없는 것이 부산 지역의 여느 동제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산제당 · 하씨당(아씨당이라 잘못 표기) 유래서의 내용도 영도가 옛 목장지라는 데에서 부회된 설화에 불과하다. 알루미늄 금속판에 다음과 같은 전설 내용이 적혀 있다.

> 고려 말부터 영도를 군마 양육 임시보관지로 정하여 수 백 년 동안 내려왔다. 본 군마 양육지는 제주지역을 정해 두고, 제주도에서 양육된 군마를 선박에 적재 운반하여 영도에 상륙시키는데, 그때 영도는 제주도에서 운반한 군마를 남문에서 들어오도록 하고, 나가는 군마는 서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다. 역대로 국가 유사시에 남문에서 들어오는 군마는 건전한데, 서문으로 나가는 군마는 거의가 병사하니 군마 책임자인 부산첨사는 역대로 말 못할 근심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역대 전설에 나오기를 '선녀가 노복 두 사람을 데리고 옛 절영도 현 영도로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은 있으나,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 한다.' 군마가 자고 나면 병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혹 그 선녀의 소행이 아닌가?'하며 각처에서 사발공론이 자자하였다고 한다. 그 후 수백년이 흘러온 뒤 정발 장군께서 부산첨사 재직 당시 어느 날 밤에 한 선녀가 현몽하기를 '이 몸은 칠원성군으로 옥황상제에 득죄되어 천상에 있지 못하고 축출당하여 탐라국 여왕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고려국 최영 장군이 탐라국을 자기 나라 군마 양육지를 정하기 위해 수백년 동안 여왕들이 탱자나무를 심어서 성을 만든 것을 함락이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성 주변에다 갈대나무를 몇 해 동안 재배해 그 갈대나무에 방화시켜서 백년대계의 완고한 성을 소멸한 후 성내에 침입하여 본인에 화친을 요구하였다. 본인은 역부족이라 어찌할 수 없어 화친에 응하는 동시에 그분의 연인이 되었다. 국가에 다망하신 그분은 이 몸의 일편단심을 몰라주었다. 이 몸은 세구년심, 독수공방 신세로 지내오다가 그분이 불행하게도 신돈의 음해로 좌천 유배되어 절영도에서 귀양살이한다는 풍문을 오문하고 천신만고 이 땅에 찾아오니 그분은 이 땅에 유배된 적이 없다 하니, 이 몸은 생명부지 사고무친 적막한 이곳에서 한 많은 젊은 청춘이 불쌍하게 고독의 영신이 되었다. 원컨대 나의 사당을 지어 나를 모시면 군마도 무병 충실할 것이며, 이 지대에 장차 주민이 살게 될 때 주민 중에 나를 모신 자는 소원 성취할 것이라'고 인홀불견하니, 그 몽사를 조정에 상소한 바 조정에서 즉시 동래부사 송충열공에 하명하여 차 산제당, 아씨당 제당을 건축하여 일년에 두 번씩 성도하고부터는 군마가 무병 충실하였다고 함.

참고문헌 增補東國輿地勝覽, **부산의 고적과 유물**(김의환, 아성출판사, 1969), **부산의 당제**(김승찬 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전국의 기도터와 굿당-경상 · 제주지역**(김덕묵, 한국민속기록보존소, 2004),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98).

필자 김승찬(金承璨)

부산청사포당산

정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 해안 마을에 바다를 향해 큰 노송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제당. 고기잡이 하러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낭군을 기다리다 죽은 할매의 신위를 모신 당이다.

형태 해운대에서 동쪽으로 와우산 달맞이고개를 넘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난 경사진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청사포마을이 나온다. 마을의 서쪽 언덕 아래 큰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 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의 당집이 있다. 맞배지붕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한 모양의 맞배지붕이 아니라 지붕 가운데에 용마름과 양쪽 장마루를 높이 쌓아 상당히 멋을 부렸다. 제당이 앉은 자리 둘레에 여유 땅이 있어서 약 230㎡의 넓이에 당집 · 산신당 · 창고가 있다. 그 둘레에는 노송 다섯 그루가 서 있다. 당집의 크기는 가로 약 3m, 세로 2.7m, 높이 2.7m에 넓이 약 8㎡이다. 출입문은 옛날에는 양쪽으로 여닫는 나무문이었으나, 근년에 새로 만들어 달면서 외짝의 나무문으로 바뀌었다.

청사포 할매당집
부산 해운대 청사포
2010.4.28. 배도식

제당 안의 장식을 보면 벽면은 하얗게 도색되어 있고, 장판은 노란색의 비닐을 깔았다. 제단은 바닥에서 약 80㎝ 쯤 높이에서 ㄱ모양으로 폭 약 40㎝의 나무 제단을 돌아가며 만들어 붙여 놓았다가 지금은 인조대리석으로 똑같이 새로 설치하였다. 제당 안은 세 부분의 제단으로 나뉘어 있다. 출입문에서 정면의 벽에 나무로 만든 위패함을 붙여 두었고, 위패함 1m 쯤 아래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영역이 골매기할매의 제단이다. 위패함에는 노란색의 니스가 칠해져 있으며 그 안에 '현동조비김해김씨신위(顯洞祖妣金海金氏神位)'라 써 놓았다. 위패의 크기는 가로 10㎝, 세로 24㎝, 두께 약 3㎝이다. 제당의 서편 제단은 성주를 모신 곳으로 벽 가운데에 한지를 접어서 신체(身體)를 만들어 붙여 두었다. 한지의 크기는 가로 12㎝, 세로 20㎝ 정도이다. 정면에서 오른쪽의 동편 제단은 세존제단이며 신체의 표시는 아무것도 없다.

할매당산 위패함
부산 해운대 청사포
2010.4.28. 배도식

산신당은 본 제당의 오른쪽 뒤편에 있다. 제당 뒤쪽의 언덕배기에 오래된 큰 둥치의 소나무 두 그루가 V 자형으로 벌여 서 있는 오른쪽으로 가로 약 90㎝, 세로 80㎝, 높이 90㎝의 블록 담으로 만들어진 산신당이 있다. 지붕은 위로 도톰하게 만들어져 있고, 앞문은 없다. 산신당 오른쪽에는 제기와 기물을 넣어 두는 창고가 있다.

거릿대 제당은 본 제당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바닷가여서 횟집이 밀집되어 있다. 제당이 동산횟집의 담장과 붙어 있는 공간으로 도로보다 약간 높은 둔덕에 있다. 제당은 가로 약 5.5m, 세로 약 7.8m의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둘레에는 약 1m 높이의 시멘트 블록으로 담장이 쳐져 있다. 그곳 안쪽에 가로 137㎝, 세로 67㎝, 높이 약 6㎝의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그 앞쪽으로는 가로 92㎝, 세로 75㎝, 높이 25㎝의 보조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제단의 위쪽에는 오석으로 된 비석이 서 있다. 비문은 '손공장군비(孫公將軍碑)'라 새겨져 있다. 본래의 비석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나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호의 급습으로 비석이 부러져서 새로 만들어 세운 것이 지금의 오석비석이다. 이전 비석도 없애지 않고 오른쪽에 기대어 놓았다. 신령으로 모신 비석이므로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54㎝, 폭 24㎝, 두께 약 10㎝이다. 이 비석의 왼편에 Y 자 모양의 나무를 세워 놓았다. 이것이 거릿대의 상징물이다. 이 상징물은 높이가 75㎝, 나무의 굵기는 밑 부분의 지름이 약 10㎝이다. 이 제단의 둘레에는 높이 약 1m 되는 ㄱ모양의 블록 담장이 쳐져 있다.

거릿대 장군당
부산 해운대 청사포 2010.4.28. 배도식

현재 당집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바위가 철거되면서 망부석과 제단은 사라지고 없다.

역사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이나 구전으로 보아 예부터 어떤 형태로든 제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그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제당 대들보의 기록을 보면 "단기병술년 시월이십삼일오시건주수리상량(檀紀庚戌年 拾月二拾參日午時堅柱修理上樑)"이라고 하며 1970년에 기둥을 새로 세우고 지붕을 수리하여 상량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있던 당집을 이때에 와서 수리하여 상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간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 대들보에 "임오년삼월초파일오시상량(壬午年參月初八日午時上樑)"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 2002년(임오년)에 다시 상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할매당 안의 제주단지
부산 해운대 청사포, 2010.4.28, 배도식

이 마을에서는 3년 또는 5년마다 풍어제를 지낸다. 풍어제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할매당과 거릿대 장군당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풍어제의 역사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당집을 받치고 있는 두 그루의 소나무 수령이 300년 이상 되었음을 보아 당집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해운대 청사포마을 당제는 오래전부터 유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래는 다음과 같다.

300여 년 전 이 마을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부터 처녀와 총각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들은 마침내 혼인하여 금실 좋은 부부로 살게 되었다. 남편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면 아내는 저녁때 바닷가 바위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 함께 집으로 가곤 하였다. 세월이 흘러 그렇게 정답게 살던 부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영감과 할머니가 되었다. 어느 날 영감이 고깃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되고 영감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래도 할머니는 남편이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지금의 당집 뒤에 있는 큰 소나무 위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미 죽어 바닷속 용궁에 들어가 있던 영감은 아내가 매일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애타게 자신을 기다리는 걸 보고 안타까워한 나머지 이 사정을 용왕에게 알렸다. 용왕도 이를 가상히 여겨 자기가 부리는 청사(靑蛇)를 보내 그의 부인을 용궁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오늘날 청사포란 지명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청사포(靑蛇浦)라 하다가 이곳 바닷가의 맑은 모래가 좋아 사람들은 모래 사(沙)자를 넣어 청사포(靑沙浦)로 바꾸어 불렀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지쳐 죽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 소나무를 망부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밖에 할머니가 기다리던 그 자리에 소나무가 돋아나서 오늘날의 망부송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할머니가 죽은 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남편을 기다리며 앉아 있던 바위를 망부석이라 불렀고, 할머니가 올라가서 기다리던 그 소나무를 망부송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애처로운 넋이 서려 있다 하여 그 아래에 당집을 지어 할머니를 제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거릿대장군에 대한 전설도 있다.

옛날 어느 때 마을 앞으로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다.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수장되었다. 며칠 뒤 그때 죽은 남자의 시신 하나가 파도에 밀려 지금 거릿대 자리에 당도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마을이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 시신을 후하게 장사 지내 주는 것이 마을을 위해 복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시신을 걸신이나 잡신의 우두머리로 칭하고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해 주는 신이 될 것을 염원한 나머지 후하게 장사 지낸 뒤 손장군(孫將軍)이라 호칭하였다. 그리고 처음 시신이 당도한 곳에 손장군의 제당을 마련하고 나무를 깎아 거릿대를 세웠으며, 손공장군 비석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당제의 차례를 살펴보면 먼저 할매 제당 뒤의 산신당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고, 당집으로 들어가서 당제를 지낸다. 그런 다음 거릿대가 있는 동쪽 마을 쪽으로 가서 거릿대제를 지낸 다음 다시 당집으로 와서 망부석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망부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망부석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제사는 음력 정월 초사흗날과 유월 초사흗날, 시월 초사흗날 세 차례 지낸다. 전에는 아침 일찍 지냈으나, 요즘에는 밤 10시 전후에 지낸다. 옛날에는 섣달그믐께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부정이 없는 근실한 사람을 제주로 뽑았지만 요즘은 제주 노릇 할 사람이 없어 송정에 있는 고려암 스님에게 제사를 맡겨 놓았다. 제물은 일반 가정의 제사처럼 주과포혜, 고기, 생선, 나물 등을 올린다. 제주(祭酒)는 하루 전에 담가 제당 구석에 두면 하루 만에 술이 익어 쓸 수 있었다 한다. 옛날에는 제당 앞 바위와 바위 사이의 오목한 곳에 술단지를 두어 그곳에서 제주를 익혔다고 한다. 제의를 마치면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하고 마을 일을 의논한다.

참고문헌 **부산을 배웁시다 3**(주경업, 부산민학회, 2010), **부산의 당제**(김승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부산의 지명총람**(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7), **부산이야기**(주경업, 부산민학회, 2008), **한국민속의 원형**(배도식, 집문당, 1995), **해운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주영택, 해운대지구향인회, 2010).

필자 **배도식**(裵桃植)

부안돌모산당산제

정의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에서 행해지는 마을 제의. 돌모산당산은 솟대형 석주신간(솟대당산)이며, '당산할머니' 또는 '당산 하나씨' 등으로 불린다. 마을 주민들은 이 신간이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이라 여기고 해마다 이곳에 제의를 올리고 있다. 돌모산당산은 1985년 8월 16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9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돌모산당산제의 신체인 당산은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다. 이 당산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할머니신으로 보고 있지만 할아버지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화강암으로 제작된 이 당산은 높이 250㎝, 둘레 80㎝이다. 당산 위에 올려진 오리의 석조 길이는 40㎝, 몸 둘레는 25㎝이며 부리는 서북쪽을 향하고 있다. 언제부터 이 당산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내용이 없다. 다만 1960년대 때 강한 태풍으로 인해 중간부가 파손되어 보수작업 이후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돌모산당산제의 시작 역시 연원을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에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산제의 신앙대상인 짐대할머니(솟대당산)가 마을에 세워지게 된 계기가 이곳의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마을의 형국이 행주형(行舟形)으로서 배가 가벼우면 쉽게 파선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오리를 올린 돌기둥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을의 지형이 행주형인 이유로 마을 주민들은 물이 부족하더라도 절대 우물을 파지 않는다. 마을에 우물을 파게 되면 배의 밑창을 뚫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물이 새어들어 배가 가라앉게 되고, 결국 마을이 망한다는 믿음에서이다. 실제로 마을 밖 서편에 큰 우물 하나를 파서 이용하고 있을 뿐 마을 안에 우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1940년대에 마을 안의 큰 부자가 이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집안에 우물을 팠다가 이후 집안은 망하고 마을에도 불행한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유래가 있는 당산제의 시작은 17세기 이후부터로 추정하고 있다. 향촌사회가 좀 더 조직화된 조선 후기 무렵에 이르러 돌모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마을제의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안 동·서문안 당산제가 이 무렵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돌모산당산제도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돌모산당산제는 근래까지도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내용 돌모산당산제가 행해지는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內寥里)에서 '내요'는 역구지[여뀌 또는 삼고지(蔘古地)], 즉 마을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돌모산은 내요, 즉 안역구지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돌모산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2010.1.3, 서종원

동아줄 꼬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2002.2.26, 서종원

서 전체 100여 가구 가운데 80가구가 영주 이씨(瀛州李氏) 석호공파(石湖公派)이다. 이들 영주 이씨의 입향조는 이승간(李承澗)이라는 인물이며, 마을에는 이승간과 그의 아들 광춘의 효자정문인 세효문(世孝門)이 있고 돌모산 새터에는 영주 이씨의 효열정문인 석정문(石旌門)이 있다.

돌모산은 석제 마을과 석하 마을로 나뉘는 곳이긴 하지만 본래는 돌모산이라는 하나의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부안읍에서 주산면 방면으로 5~6㎞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읍과 인접해 있다. 마을 뒤에는 야트막한 야산이 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넓은 평야가 자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평야가 있는 위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내요리 지역민들은 당산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강하여 제의를 열심히 모시면 그해 마을은 풍년을 맞고 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당산제를 안 모시거나 소홀히 행하면 그해 마을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여 더욱 열심히 모신다.

돌모산당산제는 정월대보름날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당산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에서 초상이 나거나 출산이 있으면 이월 초하룻날로 제일을 변경한다. 당산제는 동아줄 꼬기와 줄다리기, 주산(마을)돌기와 짐대할머니에 옷 입히기 순으로 진행된다. 제의 준비는 정월대보름 며칠 전부터 시작되어 정월 열나흗날 무렵이면 제물을 마련하고 줄다리기에 사용할 볏짚을 미리 걷어 준비를 마친다. 예전에는 제관 및 제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한 달 전에 선정하여 제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제관은 모두 8명이며 이들은 집사로 불린다. 초헌관, 종헌관, 집례, 축관, 봉향, 붕노 등 제관 명칭은 유교 제사의 예를 그대로 따라 붙였다. 제사 방식도 유교 제례식을 따르며, 제를 지낼 때에는 풍물 없이 조용하게 진행한다.

제물은 깨끗한 집에 맡겨 장만한다. 축문은 만들지만 소지하는 절차가 없다. 제비는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여 거둔 것으로 충당하며, 줄 제작에 필요한 짚은 농사 규모에 따라 갹출하여 걷는다.

제의는 당골이 주관하여 설차-분향-강신-제관 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1992.1.15(음), 황현만

마을돌기

돌모산당산제

배-음복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물로는 백설기, 떡, 삼색실과 등 일반 가제(家祭)의 음식차림과 거의 같다. 행사 당일인 정월대보름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당산제 준비를 위해 돌모산 경로당 앞에 모인다. 모인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며 당산제의 시작을 알린다. 남자들이 풍물을 치면 아녀자들은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리 걷어 놓은 볏짚으로 줄다리기에 쓸 줄을 꼬는 작업을 한다. 작업은 마을의 대로변에서 주로 남성들이 하며, 두 패로 나눠 길게 늘어서서 손으로 줄을 꼰다.

줄다리기에 쓰일 정도의 크기로 외줄 제작이 완성되면 잠시 휴식을 한 다음 여성들이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경로당 앞에 모인다. 모이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줄을 마을 대로에 길게 늘여 편다.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줄이 외줄이기 때문에 줄 가운데에 중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또 승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줄이 놓여 있는 중간 부분에 물로 선을 그려 표시를 해 놓는다.

그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남녀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다. 남자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 편으로 가서 줄을 당긴다. 총 세 번 중에

돌모산당산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2002.2.26
서종원

당산옷입히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2009.2.9, 김경성

서 두 번을 먼저 이기는 편이 승리한다. 여성 편이 이겨야만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하여 가능한 한 여성 편이 이길 수 있도록 한다. 여성이 이겨야 하기 때문에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남성 편에 가서 줄을 당기고 있는 남성들을 때린다. 심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심하게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깨에 메고 마을을 한 바퀴 돈다. 이때 영기를 든 사람과 풍물패가 앞장선다. 줄을 메고 마을을 도는 것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땅을 다지는 역할도 한다. 이는 마을을 돌면서 잡귀를 몰아내는 의식이다.

마을돌기가 끝나면 줄을 멘 채 당산이 놓여 있는 마을 어귀로 간다. 당산에 도착하면 먼저 풍물을 치고 당산에 입혀져 있는 예전의 헌 옷[줄]을 벗기고 새로 만든 줄을 입힌다. 새 옷을 입히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측면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기원을 담은 줄을 입힘으로써 한 해 동안 마을에 아무 탈 없이 풍년을 해 주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당산님께 새 옷 입히기가 끝나면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 제사를 마지막으로 정월대보름날 행한 돌모산당산제는 끝이 난다. 소지를 올리고 난 뒤에 따로 헌식은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제의가 밤 9시쯤에 끝났지만 지금은 오후 5시쯤에 끝난다. 제의가 끝나면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복을 한다. 예전에는 지난해에 입혀 둔 줄을 밭 등에 뿌리면 풍년이 든다고 하여 농사일을 하는 주민들이 줄을 집으로 가져갔다.

지역사례 전라도 여러 지역의 마을굿 중 하나인 당산제와 비교할 때 돌모산당산제 역시 이들 제의와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줄은 볏짚을 모아서 만들고, 그 줄로 줄다리기를 한 다음 당산에 옷을 입히는 과정은 돌모산 지역의 당산제 이외에도 전라도 여러 지역의 당산제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돌모산당산제와 유사한 형태의 당산제는 돌모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안우동리당산제, 고창오거리당산제, 부안동문안당산제 역시 전라도 당산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마을굿이다. 특히 돌모산당산제와 이들 당산제에서 행해지는 줄다리기는 농경문화적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당산제는 평야가 많은 전라도의 여러 지역에서 행해진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하면 반드시 여성 편이 이겨야 하고, 그 줄을 마을을 수호하고 있는 당산신께 입힘으로써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점이 바로 농경문화적 성격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부안읍성안 당산고**(김형주, 향토문화연구 1,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2001), **부안 지역 당산제의 현황과 제의놀이의 특성**(김형주, 전북의 민속, 전라북도, 2005), **전라북도의 민속예술**(전라북도, 1997), **전라북도 장승신앙의 전승과 그 배경**(박호원, 전북의 민속, 전라북도, 2005), **전통문화예술의 정리–전라북도 마을지킴이 · 정악**(전라북도, 2004).

필자 서종원(徐鍾源)

부안동문안당산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91번지에 위치한 마을의 수호신. 1970년 5월 20일에 '중요민속자료 제19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동문안당산은 솟대당산 1기와 한 쌍의 석장승을 합해 3기의 당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문안당산 3기의 신체(神體) 가운데 마을의 주신은 솟대당산이다. 솟대당산은 동문안 60m 지점의 길가, 구체적으로는 전주와 김제로 빠져 나가는 길목인 동문안 삼거리 주택가 앞에 세워져 있다. 이 솟대 당산은 높이 320㎝의 화강암 기둥 위에 한 마리의 오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며, 오리는 서북쪽을 향하고 있다. 동문안당산의 오리는 근래에 새로 만들어 올려놓은 것이다. 본래 있던 오리는 누군가가 떼어 가서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솟대당산의 기둥은 사각 형태로 매우 투박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특별한 명문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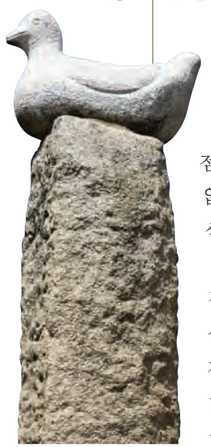
이 솟대당산에서 동쪽으로 약 50m 지점에 당산목이 있고, 그 사이에 길 양쪽으로 한 쌍의 석장승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이 석장승은 모두 화강석으로 투박하게 조성되었으며, 밑에는 모두 개대석이 깔려 있다. 남신인 당산할아버지장승은 여신인 당산할머니장승보다 50㎝ 정도 작은 180㎝이며, 몸 둘레는 얇은 편이다. 머리에는 벙거지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고, 양쪽 귀는 흔적만 보인다. 이마에는 백호가 있으며, 둥근 눈망울에 이를 드러내고 있으나 무서운 형상은 아니다. 수염은 가슴까지 드리워져 있다. 그 아래로는 희미하게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이라는 명문이 보이지만 마모가 심하여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당산할머니장승은 체구가 큰 편으로 223㎝ 높이에 밑 둘레가 85㎝이며, 이마가 헌칠하고 미간에 백호가 조성되어 있다. 눈망울은 이중으로 튀어나왔으며, 코는 큰 편이다. 긴 턱에 아랫니가 앙상하게 보여 다소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양쪽 귀는 도톰하게 남아 있다. 복부에는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라고 음각된 명문이 보인다. 이 역시 마모가 심하여 육안으로 판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역사 동문안당산의 신체인 솟대당산과 석장승의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부안읍성의 성문 안 3곳(동문안, 서문안, 남문안)에 조성된 당산들은 모두 기능, 형태, 조성기법 등이 유사해 같은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동문안당산이 17세기 말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연 신체에 해당하는 당산나무가 동문안당산 주위에 본래 존재했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돌로 만들어진 솟대당산이 과거 당산나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안 읍성을 중심으로 모두 세 곳에 동문안과 유사한 형태의 당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안 읍내에 있는 산의 명칭이 '성황산'이라는 점에서 이들 당산이 마을 당산으로서의 성격 이전에는 성안의 주민들이

동문안당산–솟대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010.5.7 서종원



동문안당산 솟대당산 오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010.5.7 서종원

함께 지내던 성황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동문안당산은 크게 앞당산과 뒷당산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앞당산은 동문안 솟대당산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금은 주택이 들어서 있어 아무런 신체물이 없다. 다만 주민들은 이곳을 과거 동문안 마을의 입구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뒷당산은 동문안당산이 있는 곳이며, 이곳에는 본래 오늘날 남아 있는 3기의 당산 이외에 한 기의 신체가 더 있었다. 주당산과 성문의 중간 지점에 있던 신목인 당산나무가 도로공사로 인해 없어지면서 동문안당산에서 볼 수 있는 3기의 당산만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1979년 도로가 확장되기 이전에는 동중리마을의 입구 도로변에 주염나무 신목 한 그루가 앞당산이라 하여 있었다. 당산제를 지낼 때에는 그곳으로 가서 한바탕의 풍물굿을 쳐 주고 솟대당산 할아버지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때 돌장승 하원당장군도 원위치에서 10m쯤 옮겼다가 2004년 10월에 다시 도로를 넓히면서 상원장군의 옆으로 나란히 옮겨 왔다. 2004년에 석장승을 오늘날의 자리로 옮겨온 이후 이듬해 1월에 부안문화원 주최로 합궁제 및 이전 준공제를 지냈다.

동문안에 솟대당산과 석장승이 세워진 연유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석장승은 문지기 장승으로서 동문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악한 것을 막아 주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솟대당산이 세워진 연유는 부안 읍내의 지형과 관련이 있다. 부안 읍내의 지형이 행주형국(行舟形局)이어서 배가 가벼우면 쉽게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리를 올려놓은 짐대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당산의 본래 기능은 성(城)의 동문 수호였으나 성의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수호신으로 섬겨진 것으로 보인다. 동문안당산이 서문안당산과 다른 점은 당제와 함께 줄다리를 하고 나서 당산에 '옷을 입힌다'고 동아줄을 감아 놓는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동아줄을 감을 때 신체의 밑에서부터 석조가 있는 곳까지 감아 주지 못하면 그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내용 동문안당산이 있는 동문은 성황산 아래 서림공원 입구의 관아로부터 동쪽으로 500m쯤 떨어진 동중리와 선은리 경계지점에 있었다. 문루의 이름은 '청원루(淸遠樓)'였다. 이 동문을 나서면 망기산 및 장승배리를 지나 고마제 옆 동진 장터로 하여 청운동의 동진원을 지나면 곧바로 동진나루터에 이른다. 동문은 김제 · 만경 · 전주 등지로 다니는 부안의 관문이며, 과거에는 벼슬아치 · 관원 · 양반은 물론 온갖 상고배들의 주요 통로여서 사실상 부안의 대문(大門)이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월대보름날 낮에 동문안당산에 당산제를 해마다 빠짐없이 지내다가 언제부터인가 격년제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의 당일 마을에 상이 나거나 출산이 있는 경우 음력 이월 초하룻날로 옮겨 행한다. 그렇게 해야만 마을의 신이 노하지 않아 마을의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동문안당산제의 제의 비용은 주민들이 모두 부담한다. 예전에는 제를 지내기 위해 정월 초사흗날 무렵부터 집집마다 굿물을 쳐 주어서 제사 비용과 줄다리기를 하고 감아 놓을 짚을 추렴하였다. 현재는 굿물

동문안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010.7.3, 서종원

을 치지 않고 이장이 가구마다 일정액을 걷으러 다닌다고 한다. 제의에 앞서 정월이 산달인 임신부는 미리 마을 밖의 다른 집으로 옮겨 간다. 제일이 다가오면 부정한 사람이나 여자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당산 주위와 마을 어귀에 인줄을 쳐 놓는다. 이때 인줄은 줄다리기를 할 때와 달리 왼새끼로 꼬아서 만든 것을 사용한다.

동문안당산제는 마을의 대표인 이장이 주관하며 이장과는 별도로 제의를 이끌어 갈 제관을 제의 당일 아침에 선출한다. 제관은 마을에서 가장 깨끗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선정한다. 주로 마을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이 제관에 선출된다.

제물 장만은 정월대보름 전날인 열나흗날에 한다. 홍어도 이때 준비한다. 장은 마을 책임자인 이장과 부락위원들이 봐 오며, 모두 남자이다. 장을 봐 오면 마을회관에서 부녀자들이 음식을 장만한다. 제물은 메, 주, 실과, 포, 채, 편(백설기 시루) 등이다. 집안 제사와 같이 장만하면서 이때 시루째 팥을 넣지 않은 흰시루떡을 나물 및 돼지머리와 함께 올린다. 제의가 모두 끝나면 백지로 실과를 조금씩 싸서 새끼줄로 묶은 다음 당산에 함께 묶어 놓는다.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아침부터 농악을 치며 집집마다 짚단을 걷어 직경 10㎝ 정도의 동아줄을 만든다. 동아줄 제작이 마무리되면 마을의 남녀가 두 편으로 나뉘어 그해의 풍년을 비는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이때 여자 편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여자가 이기면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자 편이 이기도록 미리 인원 등을 잘 조정해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줄다리기에 사용한 동아줄을 메고 당산으로 간다. 당산에 도착하면 풍물에 맞춰 간단한 제사를 지낸 다음 동아줄로 당산옷입히기를 한다. 지난해에 입힌 옷, 즉 묵은 동아줄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것이다.

옷입히기가 끝나면 당산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흙을 긁어모아 흙태우기를 한 다음 황토를 뿌려 정화하고 나서 상을 놓아 진설한다. 진설이 끝나면 무당의 축원굿이 행해진다. 축원굿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평안한 삶과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 무당의 굿이 끝나면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 절을 올린다. 과

동문안당산–석장승 한 쌍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010.7.3 서종원

거에는 석장승에 제를 지내지 않고 풍물만 쳐 주었다고 한다.

동문안당산은 먼저 줄다리기를 하고 난 뒤에 줄을 감고 나서 제를 지낸다. 다른 마을에서는 대개 왼새끼를 꼬아 만들지만 이 마을에서는 특이하게도 오른새끼를 꼬아서 줄을 만든다고 한다. 줄은 남녀로 편을 갈라 잡아당기고 나서 그 줄을 어깨에 메고 시내를 한 바퀴 돈 다음 당산에 옷을 입힌 뒤 제를 지내는 것이다. 줄다리기를 한 용줄로 당산옷입히기를 하는 것은 용신을 마을의 지킴이인 당산신께 바치는 일이며, 용신을 부리고 조정하여 올해에도 풍년이 들게 해 달라는 뜻이다. 농경문화권에서는 용을 농업의 신으로 인식하여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는 용신의 뜻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안 성안이라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동문안당산제와 서문안당산제는 많이 다르다. 동문안당산제의가 무격 형식을 띤 전래의 순수한 민간신앙 형식이라면 서문안당산제는 유교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문안당산제는 이농현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005년부터 단절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지내오던 마을 제의를 격년제로 지냈으나 제의 비용 마련의 어려움과 제의 지낼 인원 부족으로 단절된 것이다.

참고문헌 **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북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1), **부안읍 성안 당산고**(김형주, 향토문화연구 1,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2001), **부안 지역 당산제의 현황과 제의**(김형주, 전북학연구총서 2–전북의 민속, 전라북도, 2005), **전라북도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부안군**(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원광사, 1984), **전라북도의 민속예술**(전라북도, 1997), **전라북도 장승신앙의 전승과 그 배경**(박호원, 전북학연구총서 2–전북의 민속, 전라북도, 2005), **전통문화예술의 정리 전라북도 마을지킴이 · 정악**(전라북도, 2004),

필자 **서종원(徐鍾源)**

부안서문안당산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마을 수호신. 1970년 5월 20일에 '중요민속자료 제18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서문안당산은 모두 4기이며,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왼쪽부터 2기의 솟대와 석장승 한 쌍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솟대와 석장승은 각각 남녀(부부)로 구분된다. 이들 당산은 솟대와 석장승의 구분 없이 남녀에 따라 '당산할아버지(하나씨)' · '당산할머니'로 불린다.

서문안당산의 4기 신체(神體) 가운데 마을의 주신(主神)은 할아버지 솟대당산이다. 할아버지 솟대당산은 높이 378㎝, 둘레 65㎝ 정도 크기이다. 일명 '당산솟대(솟대)', '철륭'으로 불린다. 솟대당산의 상단에는 오리 한 마리가 올려 있으며, 중앙에는 세로로 '강희이십팔년 기사이월 ○○○ 화주 ○○○ 선대부인 건립 석수 김성년(康熙二十八年 己巳二月 ○○○ 化主 ○○○ 善大夫人 建立 石手 金成年)'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하부의 기대석에는 아홉 개의 '알받이 구멍'이 파여 있다.

할아버지 솟대당산(주당산) 옆에는 부인인 할머니 솟대당산(당산솟대 · 솟대)이 있다. 할머니 솟대당산은 할아버지 솟대당산과 마찬가지로 석간주 형태이지만 상부의 3분의 1쯤이 잘려 있다. 솟대당산의 잘

려 나간 바로 아래에는 머리를 하늘 쪽으로 향한 오리가 투박하게 음각되어 있다. 할머니 솟대당산은 높이 208㎝, 둘레 140㎝이다.

솟대당산 옆에 세워져 있는 한 쌍의 석장승은 서문안당산에서 하위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장승의 명칭은 솟대당산처럼 '당산할아버지(하나씨)', '당산할머니'로 부르기도 하지만 성별 구분 없이 '문지기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석장승은 솟대당산과 달리 한 쌍이 각각 당산과 당산부인으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 서문안당산의 하위신에 해당된다. 남성의 상징인 할아버지 장승은 벙거지를 쓴 모습에 소담한 수염이 턱 밑에까지 내려와 있으며, 둥근 눈망울은 이중으로 튀어나와 있다. 안면의 두 눈썹 사이에는 양각된 백호가 뚜렷하며, 양 볼에는 살이 넉넉하게 표현되어 인자하게 보인다. 귀는 보이지 않으며, 복부에는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이라고 음각된 명문이 있다. 여성의 상징인 할머니 장승은 푸짐하고 넓적한 얼굴에 이마가 약간 훼손된 상태이며, 미간에는 백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눈망울과 코는 거의 마모되고 양쪽의 귀는 없다. 복부에는 '하원주장군(下元周將軍)'이라고 음각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편평하게 보인다. 입과 턱 부분만은 뚜렷하며, 입은 '한 일(一)'자로 이가 약간 드러나 있다. 장승의 크기를 보면 할아버지 석장승은 높이 220㎝에 둘레 140㎝이며, 할머니 석장승은 높이 210㎝에 둘레 145㎝이다.

역사 서문안당산은 본래 6기의 당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늘날에 볼 수 있는 당산 이외에 별도로 2기의 신목(神木)이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진 것이다. 신목은서문에서 각각 서북쪽과 남쪽 150m 지점에 있었다. 남쪽의 신목은 고사되어 흔적을 알 수 없고, 서북쪽의 신목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4기의 당산이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은 1980년의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이 있다. 원래 서문으로 통하는 길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 · 할머니 솟대당산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고, 성문 입구에 있던 한 쌍의 석장승 역시 서로 마주보며 문지기장군으로 서 있다가 이 공사로 인해 현재 자리에 4기 모두를 나란히 옮겨 세우고 그 옆에 담장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보존하게 되었다.

서문안당산 전체모습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10.5.7
서종원

서문안당산
솟대당산 오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10.5.7
서종원

이들 당산이 세워진 시기와 연유, 그리고 모두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솟대당산에 새겨진 '강희이십팔년(康熙二十八年)'이라는 글자를 보면 할아버지 솟대당산은 1689년(숙종 15)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서문안당산은 동문안당산과 마찬가지로 성 안 마을의 안과태평을 기원하고 풍농과 번성을 빌기 위한 대상 신으로 받들어져 왔다. 또 다른 유래가 있다. 부안 읍성의 형세가 행주형이어서 허한 곳에 짐대를 세워야 배가 뒤집히지 않고 잘 운항되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무사하고 잘살게 된다고 믿는 풍수설과 관련이 있다. 옛날에 새가 부락을 지켜주기 위해 날아와 앉았다는 내용으로,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그 새를 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부안 읍성을 중심으로 모두 세 곳에 서문안당산과 유사한 형태의 당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안의 대표적인 산의 명칭이 '성황산'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들 당산은 마을의 당산으로서의 성격 이전에는 성 안의 주민들이 함께 지내던 성황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용 서문안당산은 부안군청에서 서쪽의 변산 방면으로 약 300m 떨어져 음식점인 당산쉼터 건너편 공터에 자리하고 있다. 서문의 옛 이름인 개풍루(凱風樓)를 나서면 향교가 있는 향교골이 나오고, 여기를 지나면 보안 · 줄포를 거쳐 홍덕 · 고창 방면으로 갈 수 있다. 또한 역리를 거쳐 하서 · 변산 · 격포진에 이르는 통로이자 서해의 해산물과 어염시초(魚鹽柴草)가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안 지역에서 서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반영하듯 부안 읍성의 세 성문 안 당산 가운데 서문안당산은 신체 수가 가장 많고 복잡한 편이다. 특히 부안 성내 모든 당산의 주신은 서문안당산신이었다. 예전에는 정월 초하룻날 밤에 풍물을 치면서 동문과 남문의 당산신을 맞아와 서문안당산에서 합동으로 당산제를 모시고 난 뒤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당산제를 지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성 안 마을이 행정적으로 세분화되고 마을에 구장과 이장이 별도로 생기면서 합동당산제가 없어졌다고 한다.

서문안당산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의 당산제는 오래전부터 행해졌으나 1978년에 중단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마을의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당산신에 대한 신앙심도 크게 쇠퇴하면서 서문안당산은 신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서문안당산제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근래에 오면서 부안읍 내의 중고생들이 합동으로 음력 정월 초하룻날 낮에 제물을 올리고 사흘 동안 제의를 지냈다고 한다.

서문안당산을 대상으로 하는 제의인 서문안당산제는 서외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음력 정월 초하룻날 밤에 지낸다. 서문안당산제와 유사한 형태인 동문안 · 남문안 당산제의 제일이 정월대보름이라는 점을 보면 서문안당산제가 가장 먼저 진행되는 셈이다. 다만 서문안당산제는 제의 당일 마을에 초상이나 출산하는 일이 발생하면 제일을 음력 이월로 연기한다. 이때 미리 준비한 제물은 이러한 일이 생긴 집으로 보내고, 음력 이월 제의 때 그 집에 새로 음식을 장만하게 한다.

마을 주민들은 섣달 초순에 마을회의를 통해 제의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의를 진행한다. 마을회의에서는 제의를 주관할 제관을 선출한 제관은 덕망이 있고 궂은일이 없는 원로자 가운데에서 한 명을 선정한다. 회의에서 선정된 제관은 제의가 끝날 때까지 부정한 곳에 가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을 삼간다. 특히 제관은 비린 것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며, 냉수로 목욕재계를 하여 부정을 가리기도 한다. 또한 제관은 설날에 세배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며, 부부간에 한 방에 들지도 않는다. 정결치 못하면 지골을 만든다고 생각해서이다. 제의 사흘 전에 제관 집의 문에 금줄을 걸고 황토를 펴서 잡인(雜人)들의 접근을 금한다. 당산제 제수로는 떡과 과일 등이 있다. 제수 비용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과거에는 특별히 시주한 쌀이나, 각 가정에서 조금씩 걷은 쌀로 제수를 마련하였다.

섣달그믐날 저녁이 되면 제관은 당산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황토를 펴고 주당산인 석간에 금줄을 쳐서 부정을 가린다. 이튿날인 정월 초하룻날 밤이 되면 풍물을 울리면서 제의가 진행된다. 풍물패는 마을에 있는 샘 주위를 밟아 가며 샘굿을 먼저 지낸다. 마을에 있는 모든 우물을 돌면서 굿을 하고, 이 굿이 끝나

서문안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10.5.7, 서종원

할아버지 솟대당산

할머니 솟대당산

할아버지 석장승

할머니 석장승

면 본격적으로 서문안당산제가 진행된다.

서문안당산제는 진설-분향-헌작-독축-소지 순으로 진행된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군수영감 소지요", "서장영감 소지요" 하면서 기관장 · 유지 · 주민들의 순으로 축원을 드린다. 마을의 공동 소망과 개개인의 집안 소망을 소지축원으로 올려 마을의 액운을 씻고 새해의 밝은 소망을 이루고자 축원하는 것이다. 축원 내용은 '올해에도 마을의 모든 일을 잘 보살펴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제의는 새벽 3시나 4시가 되면 끝난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면 당제에 올린 흰떡을 먹으면 신수에 좋고 무병하다 하여 동민들은 백설기 떡을 나누어 간다. 제상은 4상으로 차려 개별 신체에 하나씩 놓는다.

당산제가 끝나면 정월대보름날 당산솟대에 옷 입히기를 한다. 옷을 입힐 때 사용되는 동아줄은 마을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목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으로, 줄다리기가 끝나면 이 줄을 가져가 당산 신체에 옷을 입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줄다리기는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당산제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당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의가 끝나면 모두 모여 음복을 한다.

서문안당산제는 동문안당산제와 비슷한 시기(1990년대)까지 해마다 마을 주민 중심으로 제의를 지냈다. 하지만 이농현상으로 인해 이 이후부터 격년제로 지내오다 2000년대 초반에 전승이 단절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부안군의 지원을 받아 다시 제의를 지내게 되었다.

참고문헌 **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북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1), **부안읍 성안 당산고**(김형주, 향토문화연구 1,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2001), **새천년 노을이 엮어내는 땅**(김민성, 고글, 1999), **전라북도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부안군**(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원광사, 1984), **전라북도의 민속예술**(전라북도, 1997), **전라북도 장승신앙의 전승과 그 배경**(박호원, 전북학연구총서 2–전북의 민속, 전라북도, 2005), **전북의 역사문물전 3–부안**(국립전주박물관, 삼성인터컴, 2001), **전통문화예술의 정리 전라북도 마을지킴이 · 정악**(전라북도, 2004).

필자 **서종원(徐鍾源)**

부안죽림리석장승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공작마을 573번지의 한 쌍의 돌장승. 1979년 12월 27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6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한 쌍으로 구성된 죽림리석장승은 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며, 각각 남성과 여성을 상징한다. 이 두 석장승의 크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 남자를 상징하는 '상원금귀주장군(上元禁鬼周將軍)'은 높이 109㎝, 폭 42㎝, 두께 29㎝이다. 여자를 상징하는 '하원금귀당장군(下元禁鬼唐將軍)'은 높이 93㎝, 폭 46㎝, 두께 28㎝이다. 이 두 석장승은 모두 머리에 고깔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성을 상징하는 석장승은 남성을 상징하는 석장승보다 더 해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내용 죽림리석장승은 본래 다른 곳에 있었으나 현재는 두 개의 장승이 나란히 서 있다. 남성을 상징하는 장승인 '상원금귀주장군'은 마을의 비탈진 언덕에 거의 상반신까지 묻혀 있던 것을 1984년에 캐내어 현재 자리로 옮겨온 것이다. 과거 마을 주민들은 이 장승을 특별한 신앙 대상으로 여겼으나 당산제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이 장승에 소홀해졌다고 한다.

죽림리석장승이 언제 어떤 연유로 제작되어 이 지역에 세워졌는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공작마을의 지형이 역적이 될 인물이 나올 형국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 이 장승을 세웠다는 이야기만 전해진다. 이 마을의 지형이 건너편인 정읍시 영원면 주촌리의 거미를 먹고 사는 공작형(孔雀形)의 명당혈(明堂血)이어서 누구든지 이 명당혈에 묘를 쓰면 왕이 되고자 흑심을 품게 되어 나라에 역적이 된다. 이에 따라 명당혈의 기를 죽이고 그 터를 없애기 위해 공작새의 밥통에 해당하는 현재의 위치에 장승을 세웠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죽림리석장승의 조각 기법과 전체적인 조각 양식을 통해 제작시기를 17세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부안을 비롯해 전북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석장승이 17세기 말에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목장승이 많이 건립되었으나 이 시기에 돌로 만들어진 장승이 많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목장승은 쉽게 부식되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가 필요하지만 석장승은 한 번 세우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석장승은 목장승을 제작하여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 경제력을 축적하였기에 죽림리를 비롯한 전북지방의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에 석장승을 건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죽림리석장승이 전해 오는 백산면은 원래 고부군의 땅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1914년에 고부군을 폐군

죽림리석장승 한 쌍
전북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2009.9.12
김경성

죽림리석장승 전북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2009.9.12, 김경성

상원장군 하원장군

시키고 그곳의 백산(白山), 거마(巨麻), 덕림(德林) 세 개 면을 부안군에 편입시켜 백산면이라고 하였다. 백산이라는 이름은 용계리(龍溪里)의 서북쪽 뒤에 있는 해발 47m 높이의 '백산'에서 따온 것이다. 백산은 흰 화강석 바위가 많아서 산의 모습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부르게 된 명칭이다.

마을 주민들이 죽림리석장승을 장승, 장성이란 명칭 이외에 달리 부르는 것은 없다. 이런 점에서 죽림리석장승은 마을의 신앙 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죽림리석장승은 이 지역에 전해 오는 유래담과 장승의 본래 기능을 통해 볼 때 마을의 평안을 위해 세운 수호신격이 아니라 풍수지리설과 연관하여 나쁜 기운을 막아 내기 위해 건립된 장승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석장승의 몸에 새겨진 '금귀(禁鬼)'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마을로 귀신[鬼]이 들어오는 것을 막[禁]는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사례 죽림리석장승과 유사한 형태의 장승은 전라도를 비롯해 경상도 등지의 남부지방 집중 분포되어 있다. 전북지방에는 부안을 비롯해 고창, 남원, 익산 지역에 석장승이 남아 있다.

특히 죽림리와 인접해 있는 부안의 서문안당산, 동문안당산에서도 죽림리와 유사한 형태의 석장승 한 쌍이 마을의 당산 신체 일부로 전해 온다. 한편 죽림리 지역의 석장승에는 '상원금귀주장군(上元禁鬼周將軍)'·'하원금귀당장군(下元禁鬼唐將軍)', 동문안당산과 서문안당산에는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라는 명문이 각각 보인다. 죽림리석장승과 부안 읍내 동·서문안 당산의 신체인 석장승의 명문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죽림리석장승이 동·서문안석장승에 비해 기능과 역할이 좀 더 구체적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이라고 새겨진 장승과도 기능과 역할이 분명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죽림리와 부안 동·서문안당산에 보이는 이들 석장승이 '周(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마을의 사방을 지키는 개념의 신체인 반면에 '天下大將軍'·'地下大將軍'이라고 새겨진 장승은 마을의 이정표 내지 마을 어귀에 쌓여 있는 성황당 옆에 서서 마을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죽림리석장승은 마을의 사방을 지켜 주면서 특히 외부의 귀신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마을지킴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부안의 땅이름 연구**(김형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2001), **전라북도 장승신앙의 전승과 그 배경-전북학연구총서 2**(박호원, 전북의 민속, 전라북도, 2005), **한국민족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서종원(徐鍾源)**

부여괴목마을노신제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지티2리 주민들이 마을 앞 느티나무를 신체(神體)로 삼아 정월대보름날 모시는 동제. 창녕 조씨(昌寧 曺氏) 집성촌인 지티2리에서는 마을의례가 벌어지는 곳을 괴목정(槐木亭)이라 부르기 때문에 노신제를 '괴목정노신제'라고도 한다. 괴목마을노신제는 일반적인 '거리제' 또는 마을제에 해당한다.

유래 및 역사 괴목마을노신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고증할 수 없다. 괴목마을에는 일반적으로 전승되는 마을제 유래담이 없다 보니 대체적인 시기를 추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동네가 평안하고 돌림병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달라는 뜻으로 예부터 마을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괴목마을이 창녕 조씨 집성촌이며, 창녕 조씨의 입향조를 근거로 역산하면 노신제의 역사를 300~40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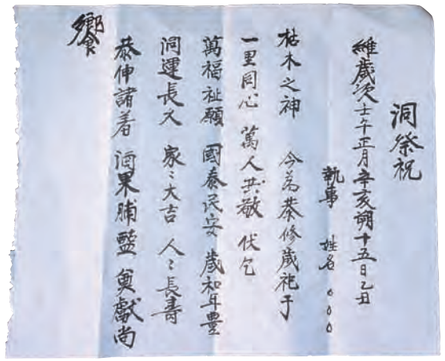
내용 괴목마을노신제는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저녁에 행한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제를 매우 중요한 의례로 여겨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대체적인 준비와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제관과 금기 음력 정월대보름이 되기 일주일 전에 책력을 볼 줄 아는 마을 사람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생기복덕이 맞고 부정이 없는 사람을 가려 제관으로 뽑는다. 제관으로는 제주, 헌관, 축관이 있다. 제주는 마을제에 쓰일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연주라고도 한다. 제주는 제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고, 부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의 생기복덕이 모두 맞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제주를 '생기 닿는 사람'이라고도 부른다. 축관은 마을 사람 중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하고, 헌관은 마을의 대표격인 이장이나 노인회장이 의무적으로 겸하는 것이 상례이다. 제관은 마을제를 지내기 전 사흘 동안 치성을 드려야 한다. 제주는 출입을 삼가며, 저녁마다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의복도 갈아입어야 한다. 술과 담배를 금하고, 비린 음식을 피하며, 부부간의 잠자리도 금한다.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대문에 왼새끼줄을 치고, 깨끗한 황토를 문 앞 좌우로 세 무더기씩 놓아야 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부터 마을 사람 모두가 언행에 조심하고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짚말 만들기 짚말은 짚으로 만든 말이다. 마을의 모든 재액을 마을 밖으로 실어가는 구실을 한다. 마을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짚말을 만든다. 짚말은 몸통을 기본으로 하여 머리, 다리, 꼬리, 귀 등의 부위를 갖춘 말이다. 새끼줄로 고삐를 달고 주둥이에 재갈을 물리며, 오쟁이 두 개를 몸통의 양쪽에 부착하여 완성한

짚말
충남 부여군 내산면 괴목마을, 2002.2.25, 국립민속박물관

대감고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괴목마을, 2002.2.25, 국립민속박물관



축문
충남 부여군 내산면 괴목마을, 2002.2.25 국립민속박물관

다. 오쟁이는 짚말을 마을 밖으로 내보낼 때 제물의 일부분을 떼어 담기 위해서이다.

3. 금줄치기 금줄은 서너 발 정도로 꼰 왼새끼줄을 마을 어귀 양쪽에 세운 대나무에 연결한다.

4. 대감고사 대감고사는 남성 위주의 노신제와 달리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의례이다. 노신제에 비해 제물도 간단하고 의례도 단순하다. 제의 장소는 마을회관 앞마당이다. 마당에 놓은 제상에 팥시루떡, 불백기, 삼색실과, 통북어, 메, 나물, 두부, 김 등 제물을 진설한 채로 한다. 마을 여성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술을 한 잔 올리면 세 명의 여성이 동시에 절을 올린다. 축문과 소지가 생략되는 간략한 형식으로 진행한다.

5. 진설 앞장선 풍물패의 길군악에 맞춰 짚말과 제관,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라 노신제가 행해지는 마을 어귀로 이동한다. 마을숲에 이르러 느티나무 앞 제단에 한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풍물패의 풍장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백설기, 생미, 청수, 팥시루떡을 앞줄에 놓는다. 가운뎃줄에는 통북어 · 김 · 술잔과 메 · 나물 · 미역국 · 두부전을 두 줄로 놓는다. 맨 뒷줄에는 조과, 귤, 삼색실과, 딸기, 과자류 등을 배설한다. 마을의 액운을 싣고 나갈 짚말은 잘 보이지 않게 느티나무 옆에 안치한다.

6. 제의 괴목마을노신제는 다른 마을처럼 남성 위주의 의례이다. 제관과 축관이 제상 앞에 도열하고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둘러선다. 제례는 촛불 밝히기-헌주-제관 재배-독축-소지-개별 헌작-짚말 보내기 순으로 진행한다. 노신제 축문은 온 동네가 한마음이 되어 만복을 빌면서 국태민안, 농사의 풍년, 마을의 운수를 바라며 집집마다 대길하고 사람마다 장수하기를 비는 내용이다.

維歲次 ○○年 正月 ○○朔 十五日 乙丑
執事 姓名○○○
古木之神 今爲恭修歲祀于
一里同心 萬人丑敬 伏乞
萬福祉願 國泰民安 歲和年豊
洞運長久 家家大吉 人人長壽
恭伸諸差 酒果脯醯 奠獻 尙饗

소지올리기
충남 부여군 내산면 괴목마을, 2002.2.25 국립민속박물관

소지는 마을 전체를 위한 만동소지를 올린다. 만

짚말
충남 부여군 내산면 괴목마을, 2002.2.25 국립민속박물관

동소지는 괴목소지라고도 한다. 소지를 올릴 때 고사덕담을 한다. 괴목신에게 동네를 살펴 만복을 내리고, 농시풍년과 재수대통 및 원하는 바를 들어 달라는 내용이다. 대동소지에 이어 집집마다 대주소지를 올리지만 요즘엔 생략되었다.

7. 짚말 보내기 괴목마을노신제에서 쓰는 짚말은 괴목마을의 한 특징이다. 노신제의 공식 의례가 끝나면 제사에 쓰인 통북어, 삼색실과, 과일을 덜어 내어 노잣돈과 함께 짚말의 오쟁이에 담는다. 이는 액운을 실어 내는 짚말에 대한 공헌물이다. 짚말은 뜀박질을 잘하는 아이 두세 명이 담당한다. "말을 들고 번개처럼 내빼야 한다"는 촌로의 말처럼 아이들은 짚말을 들고 마을 밖으로 멀리 뛰어나간다.

특징 및 의의 괴목마을노신제는 여타 마을에서 진행되는 당산제, 거리제와 형식상 유사하다.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 두 가지가 특징으로 주목된다.

첫째, 노신제는 대감고사와 독립되면서 전체로서의 하나 속에 통합하고 있다. 여성에 의해 치제(致祭)되는 대감고사는 독립제차이면서 여성만의 의례이다. 그러나 마을제라는 노신제의 전체 맥락에서 행해진다.

둘째, 노신제의 제차 중 짚말 보내기는 매우 특별한 사례이다. '마마배송굿'에서처럼 짚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마을제에서 짚말 사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참고문헌 괴목정노신제와 동화(강성복, 부여문화원, 2003), 동제당 철마 봉안 사례연구(김태우, 한국민속학 34, 한국민속학회, 2001), 전통연행예술 속의 인형오브제 연구(허용호,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동제관련 촌락 자료를 중심으로(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민속박물관 사람들의 세시풍속현장조사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8).

필자 장장식(張長植)

부여내지리단잡기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에서 전승되는 '단(丹)'이라는 병을 물리치기 위한 민속놀이. 2000년 1월 11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단(丹, 또는 丹毒 · 風丹)은 피부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지만 증상이 다양하고 환부의 모양도 일률적이지 않아 먼저 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단인지 아닌지의 판별은 미꾸라지로 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환부에 놓아 보아 미꾸라지가 미끄러져 떨어지면 예사 피부병이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단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진단 방법이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이것을 행하는 주민들은 단이 고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환부에 달라붙어 꼼짝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단 단으로 진단되면 단잡기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한다.

단잡기를 행하려면 당상관(堂上官)과 전령(傳令) 및 사령(使令) 한 명씩이 필요하다. 당상관이라는 명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권위 있는 관원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여겨지며, 전령과 사령은 당상관의 명령을 전하고 수행하는 직임을 뜻한다. 이들 역할은 모두 남성만이 하며, 전령이나 사령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당상관은 대개 마을에서 단잡기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맡는다. 또한 당상관은 무당처럼 전문적인 사제가 아니라 해도 예사 인물에 비하여 주술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따라 일시적인 사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단은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는 악질이기 때문에 당상관이 정해지면 그는 곧 단잡기 준비에 착수한다. 속전에 따르면 단잡기가 시작되기만 해도 환자의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기도 한다고 한다.

부여내지리단잡기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2006.10.2, 현진

이는 병귀(病鬼)가 겁을 먹고 위축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당상관이 서둘러 할 일은 ① 산에 가서 동도지(東桃枝) 세 줄기를 꺾어 오게 하며 ② 각성바지 다섯 집을 돌면서 오곡(五穀)을 걸립해다 밥을 짓게 하고 ③ 마을 사람들에게 단기(丹旗)를 만들게 하는 것 등이다. 오곡 걸립은 대개 환자의 가족 한 사람이 하게 되며, 바가지나 자루를 가지고 각성 다섯 집 이상을 방문하여 한 집에서 한 가지 곡식만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 걸립을 할 때에는 마을의 풍물패가 앞장서서 돕기도 한다. 이때 마을 주민들이 구경삼아 뒤따라 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농사일로 바쁘거나 하여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혼자서 다니기도 한다. 걸립한 오곡은 한 되 남짓으로 적은 편이며, 밥을 지으면 세 사발 정도가 된다. 단기는 먼저 시누대 열두 개를 베어다가 두 어 자 길이로 자른 뒤 한지를 오려 열두 종류의 단 이름을 주사(朱砂)글씨(먹글씨로 대신하기도 함)로 써서 대나무에 풀로 붙여 완성한다. 열두 개의 단기가 완성되면 이것을 환자의 집 굴뚝쪽에 일렬로 세워 둔다. 단기를 이곳에 세워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굴뚝 부근이 집안의 제액(除厄)을 위한 적합한 장소라는 의미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오곡밥이 지어지고 단기가 완성되면 당상관은 단귀신을 잡아 가둘 작은 항아리(한 번 쓰고 버려도 좋을 오줌동이로 대신하기도 함)를 부엌 바닥에 엎어 놓는다. 이때 전령과 사령은 부엌문 밖에서 당상관의 명령에 대기하고 있으며, 구경삼아 몰려온 주민들도 이를 지켜본다. 단잡기를 하기 위하여 당상관 · 전령 · 사령들이 환자의 집에 들어오면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일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며, 단잡기 주술에 동참하지도 않고 주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면 술시(戌時, 저녁 7~9시)쯤에 본격적으로 단잡기가 시작된다. 이는 귀신이 발호하기 시작하는 때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 하며, 실제로 단 환자는 이 무렵에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낀다고 한다. 당상관은 오곡밥을 지은 밥솥 뚜껑을 비스듬히 열어 젖혀 놓고 주걱을 밥 위에 꽂은 다음 부뚜막에 걸터앉는다. 그러고는 동도지 회초리로 솥뚜껑을 때리면서 "여봐라, 사령!"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사령이 "예, 이~" 하고 길게 대답하고, 이때 주위 사람들도 일제히 대답을 복창한다. 소리가 인근 세 곳 마을까지 들려야 좋다고 여겨 주위 사람들도 되도록 큰소리로 복창한다. 이어 당상관이 "풍단을 잡아들여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전령이 이 말을 다시 사령에게 복창한다. 그러면 사령과 주위 사람들이 다시 일제히 "예, 이~"를 복창하며, 풍물패의 호위 속에 사령은 굴뚝 옆으로 가서 풍단기를 가져와 당상관에게 바친다. 풍단기를 받은 당상관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대략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단귀에게 엄하게 명령을 한다.

> 너 이놈 풍단아! 듣거라. ○씨댁 건명대주(또는 곤명대주) ○○생에게 침범한 단은 이 오곡밥을 거룩하게 먹고, 네가 모조리 거두어 가지고 한시바삐 당나라로 속거천리(速去千里)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장도칼로 목을 베어 한강에 처넣으리라. 어명이다!

이 주문은 꼭 고정된 문구가 아니며, "너는 이 세상에 나와서 활인적덕(活人積德)은 못할망정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냐!"는 등으로 당상관직을 맡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어명이다"라는 말이 끝나면 주위 모든 사람이 다시 한 번 "어명이다"를 복창한다. 그런 뒤에 당상관은 오곡밥 한 덩이를 주먹밥으로 뭉쳐 단기 기폭에 싼 다음 엎어 놓은 항아리(또는 오줌단지) 밑에 넣고 항아리를 도로 엎어 놓는다. 이때 기(旗)는 곧 신체(神體, 鬼體)가 되는 셈이다. 두 번째로 청단(靑丹)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불러와서 위협하여 단지에 다 넣는다. 이어 황단(黃丹), 홍단(紅丹), 팥단, 태단(太丹), 띠단, 녹두단, 토단(土丹), 메밀단, 백단(白丹), 두목 광솔단(廣率丹)의 순서로 잡아다 매질하며 위협하고서 주먹밥을 먹여 항아리에 잡아넣는다. 광솔단은 단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상징적인 뜻을 지닌다. 광솔단을 잡아넣은 것은 단잡기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항아리에 열두 단을 다 잡아들였으면 재빨리 뚜껑을 닫고 미리 준비한 왼새끼로 항아리를 이리저리 꽁꽁 묶는다. 다 묶은 항아리를 사령들이 장대 중간에 다시 묶어 어깨에 메고서 마을 밖 손 없는 방향의 세 갈래 지점으로 가 흙을 파고 소금을 뿌리면서 땅에 묻는다. 소금을 뿌린 뒤에는 항아리 위에 나무를 쌓아 놓고서 불을 피운다. 소금을 뿌리고 불을 피우는 것은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고 퇴치하는 효과를 높이

기 위한 것으로 여긴다.

이로써 단잡기가 모두 끝나면 당상관 이하 주술에 동참한 사람들은 환자 집으로 모두 가서 비록 적은 양이지만 남은 오곡밥을 조금씩 나누어 먹은 뒤 마당에서 풍물을 치며 한바탕 논다. 당상관은 환자에게 "인심이 후덕하고 선대 은덕이 많아 병마를 무사히 물리치고 잘 완쾌되었구먼"하고 덕담을 해 주며 안심시킨다. 이로써 단잡기의 모든 절차가 끝난다.

병세가 심하지 않으면 한 번만으로도 나을 수 있지만 한두 번만으로 다 나았다고 여겼다가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단잡기를 대개 세 번 반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단은 거의 나을 수 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단잡기를 세 번 거듭할 경우 대개 오곡, 단기, 동도지 등 필요한 제구(祭具)를 세 벌씩 준비해 둔다. 이전에 항아리를 구하기가 어렵던 때에는 첫째와 둘째 날은 주먹밥[丹鬼]만을 항아리에서 쏟아 땅에 묻고, 마지막 날에만 항아리째 땅에 묻기도 했다. 또한 동도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음 쓴 것을 부엌 한 구석에 세워 두었다가 거듭 이용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부여내지리단잡기**(임동권, 부여문화원, 2008), **부여의 민간신앙**(부여문화원, 2001), **은산면 내지리 이규찬 면담**(2010년 6월 20일).

필자 **황인덕(黃仁德)**

은 고리짝[稿俚], 체[篩子], 시루[甑], 술동이[盆] 두 개, 탕관(湯灌), 사기(沙器) 두 개, 삼색실과, 명태 다섯 마리, 백미 두 말, 등유, 백염(白塩), 황육(黃肉), 누룩[曲子] 등으로 기록되었다. 아울러 분급질(分給秩)이라 하여 동계의 기금을 일곱 명에게 대여해주고 식리(殖利, 재물을 불리어 이익을 늘림)한 내역이 담겨 있다.

포사마을 동계장부는 1888년 이전부터 매년 작성된 것이지만 문서의 표제와 앞선 기록이 빠져 있어 정확한 연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문서로 미루어 볼 때 늦어도 포사마을산신제는 조선 후기 이래 면면이 이어져 온 동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마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양 전씨(南陽 田氏)의 산신제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봉정리는 500여 년 전에 남양 전씨가 세거한 이래 그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여 저명한 종족마을로 뿌리를 내렸고, 산신제는 줄곧 남양 전씨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제향이 이루어져 왔다.

포사마을산신제는 최근 들어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마을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 데다 기독교인의 증가로 인해 산신에 대한 신앙관념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산신제의 금기가 매우 엄격하여 서로 제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는 풍조도 은연중에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는 곤향산 산신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산제당을 건립하고, 제의 절차도 홀기에 의한 제향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제의 시간도 자시(子時)에서 오전으로 변경하여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산신제를 정월대보름 축제로 승화시켜 많은 주민의 동참과 단합을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의 산물이기도 하다.

산제당으로 향하는 제의행렬
충남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포사마을
2009.1.15(음), 강성복

부여포사마을산신제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포사마을에서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

역사 포사마을산신제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산신제를 마치고 열리는 대동회의 결산내역을 정리한 동계장부이다. 이 문서에는 매년 산신제를 지낸 유사의 명단, 제수품목, 지출비용, 돈을 대여해 준 분급기 등이 110여 년 동안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가장 이른 시기는 1888년 1월 15일에 작성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해 상유사(上有司) 전동석과 하유사(下有司) 백순기 · 이상손이 산신제를 지냈다. 또 제수기 물목

내용 포사마을산신제는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산신령의 가호로 재앙을 막고,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빌어 풍요롭게 잘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산신제를 지내는 뜻은 성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면서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며 좋은 일은 권장하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잘못한 일은 깨우쳐 주고, 어려운 일은 도우며,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을 이루고자 함이다.

산제당은 마을 뒤편 곤향산 아래에 위치한다. 본래 산제당에는 수백 년 된 참나무 한 그루가 신목으로 치성을 받았으나 1950~1960년에 고사되었다. 예전에는 그 나무 밑에 광목을 떠다가 임시로 포장을 치고 제를 지내다가 최근에 조립식으로 제당을 건립했다. 산신제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갹출한 돈으로 충당한다. 즉 그해 산신제의 유사로 지명된 사람이 정초에 가가호호를 방문하면 각자 성의껏 쌀이나 돈을 희사한다. 이러한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교회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믿는 가정은 산신제에 불참한다. 제관은 매년 음력 섣달 말쯤 산신제 운영위원회에서 주모(主母), 제관, 축관 각 한 명을 지명하되 부정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닿는가의 여부를 따져서 임명한다. 음식을 준비하는 주모는 산제 기간에 집안에 임산부가 있거나 상중(喪中)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한 폐경기를 지나 생식 능력이 없는 부지런하고 깔끔한 부인이나 과부여야 한다. 제관 역시 초상이나 임산부가 없는 가정에서 학덕이 높고 운이 좋은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하며, 축관은 동일한 조건을 갖추었으면서도 한학에 능한 사람으로 뽑는다. 이에 반해 유사는 일명 '굴뚝돌림'이라 하여 지난해 유사의 집 굴뚝과 가장 가깝게 보이는 사람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남자 두 명을 산신제를 마친 뒤 결산하는 자리에서 미리 정해 준다. 예전에는 산신제의 봉사자(奉祀者)로 한 번 지명을 당하면 산신의 벌이 무서워 아무도 거절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주무자로 지명된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부터 산신제가 끝나는 날까지 부정한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외출을 삼간다. 아울러 상가나 출산한 집은 절대로 가지 않으며, 길에서 상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고 말도 걸지 않아야 한다. 특히 주모와 제관은 더욱 엄격한 금기가 수반되어 비린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깨끗한 황토를 좌우로 세 무더기씩 놓아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제물을 구입하러 갈 때에도 궂은일을 피해 새벽 일찍 장으로 가서 물건을 사되 물건 값을 깎지 않고 달라는 대로 주고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온다. 제수를 준비할 우물은 따로 한 곳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하여 섣달그믐날 깨끗이 우물을 품고 주위에 금줄을 드리우면 주모 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주모의 집은 그 가족과 제관 외에는 방문이 금지된다. 마을 사람들도 산신제가 임박하면 살생을 하지 않으며, 특히 정월 열나흗날에는 모든 사람이 목욕재계하고 하루 동안 육식을 금한다. 심지어 새우젓이 들어간 김치도 먹지 않는다. 이 밖에 마을에서 정해 놓은 제관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모 정월 초하룻날부터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운다. 그 방은 식구도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주모만 사용한다. 남편이 있는 사람은 각방을 사용하고, 설날부터 산제가 끝날 때까지 매일 찬물로 목욕재계한다. 주모는 정월 초이렛날 제주를 담근 뒤 아침저녁으로 지정된 우물에서 정화수를 길어 제주단지 앞에 떠 놓고 하루 두 차례씩 사배(四拜)를 드린다. 정월 열나흗날 모든 제수품을 장만하여 산제당으로 보내면 주모의 임무가 끝난다.

2. 제관 외출을 삼가고 부인과 각방을 써야 한다. 산신제 일주일 전부터 매일 찬물로 목욕재계한다. 열나흗날 밤에는 의관을 정제하고 산신제의 헌관이 된다. 또한 각 세대주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올린다. 이때 해당자의 주소와 성명을 고한 다음 그 가정의 형편에 맞는 덕담으로 축원을 해 준다. 소지를 신청한 사람을 모두 올려야 한다.

산신제
충남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포사마을
2009.1.15(음), 강성복

3. 축관 · 유사 축관은 외출을 삼가고 정성껏 축을 닦는다. 열나흗날에는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산신제 당일 제관이 술을 올릴 때마다 축을 읽는다. 모두 세 번 읽고 또 산신제의 모든 의전을 담당한다. 유사는 산신제 기간에 외출을 삼가고, 정초에 집집마다 방문하여 산신제 경비를 추렴한다. 소지 올릴 대상자를 조사하는 한편 산신제에 필요한 모든 물품 구입과 잡일, 제당 청소 및 제단 준비 등을 맡는다. 산신제 때 제물을 진설하고, 소지가 잘못 올라간 사람은 기록하였다가 산신제가 끝난 다음날 개인에게 일러 주어 일 년 동안 몸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보름날 아침 음복을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 결산보고를 한다.

포사마을산신제는 정월대보름 오전 10시쯤에 거행된다. 본래는 정월 열나흗날 자정(정월대보름 자시)에 치제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으나 산신제를 주관하는 주민들이 연로한 데다 기왕이면 모든 주민이 함께하자는 여론에 따라 대보름 오전으로 날짜를 옮기게 되었다. 당일 아침이 되면 산신제 준비로 온 마을이 부산하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묵서한 농기를 선두로 홍겨운 길굿악을 울리며 산제당으로 향한다. 이때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교회에 다니는 주민들은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음복만 함께한다. 산신제는 전형적인 유교식 홀기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산신제를 정월대보름 마을축제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순서는 강신례(降神禮)-참신례(參神禮)-초헌례(初獻禮)-재헌례(再獻禮)-독축(讀祝)-삼헌례(三獻禮)-소지례(燒紙禮)-사신례(辭神禮)-음복례(飮福禮)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산신제를 마치면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하고 풍장을 치면서 하산한다. 마을회관에 집결한 주민들은 진종일 주연을 베풀고 윷놀이를 하는 등 하루를 즐긴다.

의의 포사마을산신제의 두드러진 특색은 여느 마을에서 볼 수 없는 '주모 제도'이다. 주모란 제관과는 별도로 제물을 전담하는 나이가 지긋한 여성을 지칭하는데, 산신제의 전승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이다. 주모를 뽑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산제기간 동안 출산 예정인 임신부와 초상 등을 당한 부정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가급적 폐경기를 지나 생식 능력이 없는 과부로 지명하되, 생기복덕이 닿는 길한 여성이라야 주모가 될 수 있다. 주모는 단지 제물의 준비뿐 아니라 제를 앞두고 공동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산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사제(司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왔다.

참고문헌 **곤향산산신제문서**(1888~2010), **곤향산 산신제 내력**(2007),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파진산의 옛문화-민속**(부여군,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부정(不淨)

정의 마을공동체의 신성한 의례를 거행하는 데 발생하는 일체의 신성성을 해치는 정갈하지 못한 세속적인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하며, 유형과 무형의 모든 부정 형태를 지칭. 마을 집단 전체의 안녕을 위해하는 요소이다.

내용 부정과 유사한 용어로 동티, 살(煞), 추악(醜惡) 등이 있다. 이 말들은 마을신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동티는 일련의 말이 변형된 것으로, 동토났다는 용례에서 나타난다. 땅을 다루거나 물리적인 무엇을 했을 때에 흔히 이 말이 사용된다. 살은 좋지 않은 기운으로, 살이 내렸다고 하는 용례에서 사용된다. 추악은 생명을 가진 것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경우로 이를 추학이라고도 한다.

부정은 부정을 탄다, 부정을 가리다, 부정을 물리다 등으로 구체적 문맥을 형성한다. 부정을 탄다고 하는 말은 좋지 않은 것들이 서로 작용을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부정을 막기 위해 일련의 행위를 금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부정과 금기는 서로 깊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부정 가리기는 마을 제의 날짜를 받아 놓고 미리 부정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택일을 하고, 택일에서부터 일정한 마을의 제의 기간에 부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행위를 모두 부정 가리기의 문맥에 넣을 수 있다.

부정이 생기는 요인은 탄생, 여성, 죽음, 외부와 연결된 시공간 등으로 볼 수 있다. 한 마을의 안녕을 위해하는 요소 가운데 일상적 시공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부정으로 작용되는 것들이다.

개인의 탄생은 해산부정으로 간주된다. 집단의 생산력에 일정하게 역기능을 하거나 해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피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해산부정은 백일까지 간다는 관념이 있다. 생명이 태어나서 온전한 성장을 하는 많은 관문이 있는데 그러한 관문이 바

당산나무의 금줄
경기 양평군 성덕리
2003.3.2, 최호식

서울굿의 부정에 쓰이는 재료(청수, 잿물, 고춧물 외)
서울 용산구 용문동 남이장군사당, 2005.11.2, 김헌선

로 해산부정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요건이다. 금줄을 치고 초칠일(7일)·이칠일(14일)·삼칠일(21일)·백일(100일)·돌(1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시간에 금기가 집중된 것은 부정의 요인으로 매우 강조된 면모이다.

여성은 부정한 요소에서 집중적으로 지목된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생산력의 주체가 마을신앙 의례 기간에는 금기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은 부정한 피를 지닌 존재로 여겨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생산력을 상실하여 온전한 생명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은 마을의 생산력을 해칠 수 있다고 관념한다.

죽음은 마을신앙에서 가장 적대시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마을신앙의 대상이 비록 죽어서 섬겨지는 것이기는 해도 이 존재를 위하는 데 죽음이 생기는 것은 마을신앙의 전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생명력을 지닌 존재의 사멸이 부정한 기운으로 작용해 마을의 생산력과 신성력을 해칠 수 있다고 관념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문살 등이 있다고 관념하는 것은 중요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신성한 의례 기간에 외부와 연결된 시공간 역시 부정한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한 마을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거나 신성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외부와 절연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정의 위해 요소를 가리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부정에 대처하는 관념과 방식은 부정 가리기와 부정 가시기라는 절차 속에서 구체화된다. 부정 가리기가 의례의 앞 단계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부정 가시기는 실제 의례 진행 동안에 이룩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둘은 서로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 속에서 상호작용 하게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부정을 가리기 위해 하는 적극적인 방식은 금줄의 설정이다. 신성한 경계를 한정하는 것이다. 금줄을 침으로써 다른 것과의 경계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금줄은 왼새끼를 꼬아서 신성한 공간, 청결한 공간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하게 된다.

이와 다른 방식으로 '황토물림'이 있다. 황토를 배설하고 부정한 기운이나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금줄을 치는 것과 황토물림은 동일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

황토물림을 할 때 경우에 따라 소금물, 청수, 고춧가루 물 등을 그 옆에 뿌리기도 한다. 이는 부정을 가리는 것인 동시에 부정을 가실 수 있는 것으로, 주로 무당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금줄을 친 곳에 백지와 청솔가지 등을 매다는 경우도 있어서 서로 관련이 있는 부정 방지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부정 요인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이 금줄 밖으로 나가면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된다. 해산달이 겹치는 존재, 생리를 하게 되는 여성, 타처 또는 외지 사람 등을 제어하게 된다. 이 가운데 죽음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喪)이 나면 마을의 중요한 의례를 행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부적 절차 속에서 발생하는 부정 요인에 대해

황토물림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리, 2002.2.16
국립민속박물관

부정 가리기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생촌마을, 2003.3.8, 국립민속박물관

우물 주변의 금줄

마을 어귀의 금줄

대처하는 방식은 다각도로 마련된다. 부정 가리기가 엄숙한 신성의례를 구현하는 요소이고, 이러한 방식에 의해 정갈함을 추구하는 절차를 일정하게 관념적으로 고착시켜 왔다.

마을 제의를 지낼 때 부정 가리기를 하는 절차를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다.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으로 선정된 인물의 부정을 우선시한다. 부정을 가리기 위해 몸가짐을 삼가는데 대체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을의 생산력을 개인이 그르칠 수 없다는 발상이 들어 있다. 그리고 초상이 난 집이나 궂은일을 당한 집에 가지 않는 것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생산력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부정 가리기의 요체이다.

부정 가리기와 부정을 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거의 의례 이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달리 부정을 가시는 행위는 정화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더럽혀질 공산이 큰 것을 대비해 부정을 타지 않고 부정을 가리는 것과 다르게 의례가 실제로 행해지는 기간에도 부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가시는 행위를 하게 된다.

부정 가시기는 특정한 의례의 절차 속에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마을굿에서 하는 거리부정과 부정의 행위는 이와 일련의 관련성을 맺고 있다. 거리부정은 마을굿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이 제전의 터에 들어올 때에 생기는 부정을 방지하는 행위이다. 동네에 추렴을 다녀온 패거리를 막는 행위 역시 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마을굿이 농악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일 경우에도 이러한 부정을 가시는 행위는 문굿과 같은 절차 속에 일정한 방지 장치가 있다. 외지에서 들어온 걸립패가 마을의 전통이 스며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을 가리고 들어가는 문굿은 유형적으로 가다듬어진 형태이다. 거리부정과 문굿 등은 서로 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 가시기의 의례적 형식이다.

부정은 더러움에 대한 관념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더러움의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문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마을의 특정한 신앙의례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관념일 수 있다. 출산, 죽음, 여성, 외지 등은 마을신앙에서

부정을 가리기 위해 제관 집에 금줄과 천막을 친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2002.2.20, 이돈기

가장 꺼리는 부정의 대상이 된다.

참고문헌 **남도민속학개설**(지춘상 외, 태학사, 1998), **동제의 상징과 의미전달 체계**(이기태, 민속원, 2004), **동해안 마을의 신당과 제의**(천혜숙, 민속원, 2007),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민간신앙에 있어서의 부정과 금기**(김열규, 중앙문화 14, 중앙대학교, 1979), **부정관념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최길성,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2), **서울 지역안 안팎굿 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6), **서천의 당제-서면을 중심으로**(이필영, 서천문화원 · 충청민속학연구소, 200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필자 **김헌선(金憲宣)**

부천깊은구지도당제

정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일명 '깊은구지'에서 서력 기원 기준으로 매 홀수 연도에 개최되는 동제. '깊은구지'는 지금의 심곡본1동 605번지(7통2반) 일대로, 예전에는 심곡9리에 해당하였다.

역사 '깊은구지[深谷]도당제'는 그 기원이 고려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해진다. 현재 행정구역 명칭상으로는 심곡(深谷)본1동에 해당된다. 이곳은 옛날 마니골(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로 넘어가는 길이었다. 이곳은 토양이 척박하고 토질이 나빠 조, 콩, 메밀 등을 주로 심었다고 한다. 이 길에 '할아버지 나무'와 '할머니 나무', '손자 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만 서 있다. 이 느티나무는 현재 도당굿을 지낼 때 대상이 되는 나무로, '손자 나무'에 해당한다. 이 지역 일대가 골이 깊고 나무가 울창하여 마을 이름이 '깊은구지'라고 붙여진 것으로,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심곡동은 부천군이 탄생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부평에 속해 발전해 왔다. 부평도호부, 이후 부평군 때에는 '석천면' 또는 '돌내면'이라고 하였다. 그 뜻은 '냇물 돌아드는 곳'을 이르는데 한자로 표기하면서 석천(石川)이 되었다. 원래는 회천(回川)으로 표기해야 맞다. 이 지역이 바로 심곡리 지역이었고,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소사역이 설치된 곳이다. 1914년에 부천군이 신설되어 계남면 심곡리가 되었다. 계남면이라는 명칭은 부평의 주산(主山)인 '계양산 남쪽에 있다'고 하여 일제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 계남면이 소사면, 소사읍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소속된 지역도 명칭이 바뀌었다. 1973년에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되자 시(市) 조례 제85호에 의하여 심곡2 · 4 · 5 · 8 · 9리 일원이 심곡1동, 심곡1 · 3 · 6 · 7리 일원이 심곡2동으로 각각 편제되었다.

1983년 9월 1일 시 조례 제546호에 의한 동 관할 구역 변경으로 심곡2동에서 17개 통이 심곡3동으로 분동되었다. 1991년에는 심곡1동에서 심곡본동이 분동되고, 심곡본동은 심곡본2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다시 심곡본동으로 불리고 있다. 심곡1동은 심곡본1동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6년 10월 말 현재 심곡본동에는 7,517가구에 2만 2,028명, 심곡본1동에는 7,430가구에 2만 1,910명이 각각 살고 있다. 소사구 심곡본동과 심곡본1동은 모두 합쳐 1.7㎢이다.

부천시 남단에 동서로 길게 뻗어 깊은 골짜기(깊은구지)와 높은 고개들을 형성하고 있는 부천의 주산을 '성주산(聖柱山)'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와우산' 또는 '댓골산'이라고 불렀다. 특히 '하우고개'가 있는 부분은 1911년에 발행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화오현산(華梧峴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성주산은 부천시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시흥시 대야동과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해발 200m이며 1917년에 측량한 지도에는 성주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성주산이라고 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때 소사도서관 심곡분관 자리에 1938년 일왕(日王)에게 참배를 강요하던 소사면 신사가 세워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인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짐작된다. 성주산은 일명 와우산(臥牛山)이라고 한다. 도시화가 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벌막 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소가 앉아 있는 형세를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서쪽으로 길게 뻗쳐 있는 능선 줄기가 소의 꼬리로 보아 소가 누워 있는 형태이다. 한편 '깊은구지' 쪽의 성주산은 '댓골산[大谷山]'으로 불렀다.

성주산 줄기를 따라 남녘으로 이어지는 고갯길이 세 군데가 있다. 이 고개들은 하나같이 부천에서 시흥시와 인천시를 잇는 구실을 하고 있다. 가장 동쪽에 있는 부천시 소사동에서 시흥시 대야동을 잇는 고개를 '여우고개'라 한다. 그다음 고개가 '하우고개', 인천과 접해 있는 고개를 '마니고개'라 한다. '마니'는 '머리'라는 뜻이므로 마니고개를 머리고개라고 할 수 있다.

여우고개는 한자로 여우(如牛)고개라 한 것으로 보아 산의 형세가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므로 소와 같다[如牛]하여 여우고개라 했다는 설과 '여우'는 '여위다'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아 여윈 고개, 즉 좁고 작은 고개라는 뜻이라는 설이 있다. 또 이 고개를 한자로 호현(狐峴)이라고 한다. 이는 이곳이 나무가 많고 후미진 곳이어서 여우가 많이 출현하였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하우고개라 부르게 된 데에는 산의 형태에서 유래된 것이란 설, 의성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산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의 세 가지 설이 있다. 처음의 경우 이 산이 와우산이기 때문에 이 산을 넘는 고개 이름도 와우고개라 하였다가, '와우→하우'로 변해 하우고개로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고개 마루에 올라서면 나오는 '하우하우'하는 거친 숨소리의 음을 따 하우고개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다. 이 고개에는 예부터 행인들을 강탈하는 도둑떼가 득실거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 아래에 모여 떼지어 고개를 넘었다. 언제 어디서 도둑떼의 기습이 있을지 몰라 가파른 길을 바쁘게 걷다 보니 모두가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찼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조선지지자료』에서 이 고개를 '화오고개'로 표기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산에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처럼 산과 고개가 높고 골이 깊은 지역이던 '깊은구지'마을에서는 추수가 끝나는 음력 시월 초순 무렵에 격년으로 당제를 지냈다. 이때에는 날고기[生肉]와 선지 일곱 그릇을 제물로 바쳤다. 제물로 날고기와 선지를 바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아무개 성을 가진 조상 중에 하나가 성주산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호랑이는 머리 유골만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 뒤로 호랑이에게 바치는 제물이란 의미로 생육과 선지를 당제의 제상에 올렸다고 한다.

내용 격년마다 서기로 홀수 해 음력 시월에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마을번영 도당제'를 지내고 있다. 이러한 축제는 마을의 안녕 · 번영 · 평안과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번창을 빌며, 주민의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한 마을 화합 잔치이다. 이러한 축제는 전통적 도당굿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의례절차는 '깊은구지도당제 추진위원회'가 맡아서 주관한다. 2003년부터 부천시에서 도당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공식적인 지역 축제로 거행되고 있다. 부천 주민의 무병장수 기원,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 정신적 결속과 지역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

축제의 명칭은 심곡동(深谷洞)의 옛 이름인 '깊은구지'에서 가져왔다.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신에게 올리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거행된다. 이어서 윗고목나무로 이동해 고목에 '목신제'를 올린다. 오전 11시부터 만장과 깃대를 들고 '시가행진'을 하며, 낮 12시부터는 아랫고목나무에 모여 '대동제'를 거행한다. 이후 음식을 함께 나누며 풍물을 놀면서 저녁 늦게까지 '동네잔치'가 계속된다. 제의에 참여하는 인원은 600명 정도이다.

원래 도당굿을 하던 당집은 현재 심곡본1동 626번지에 있었으나 1975년쯤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헐린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는 도당굿을 행하기 전에 까만 죽나무와 참나무로 장승을 만들어 동쪽과 남쪽에 세워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현재는 도당굿을 하기 전에 마을 어귀에 갓 벤 소나무로 깎은 장승을 세우고 깨끗한 황토 흙을 양쪽에 놓는다. 마을의 당산나무로는 원래 "할아버지 나무, 할머니 나무, 손자 나무"로 불리던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었으나 현재는 손자 나무만 남아 있다.

할아버지 나무는 심곡본1동 604번지 일대의 마을 어귀에 있었으나 화재와 벼락으로 인해 지금은 몰골만이 남아 있다. 이 할아버지 나무는 옛날에 소사 지역을 측량할 때 기준점이었으며,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이 나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져 온다. 김 아무개가 주택을 지으려고 어떤 청년을 시켜 땅 속으로 난 이 나무의 우람한 가지를 잘랐다고 한다. 그 뒤 가지를 자른 그 청년이 비명횡사했다고 한다. 할머니 나무는 현재 심곡본1동 623번지 일대 정명 고등학교 초입에 있었으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로를 내기 위하여 잘렸다.

"지킴이"라고도 불리는 '손자 나무'는 현재 심곡본1동 638-3번지 일대에 서 있다. 이 손자 나무는 '경기도 지정보호수 제180호'로 지정되어 심곡본1동 주민센터에서 철책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나무는 수령이 42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고(樹高) 25m에 둘레는 7.8m이다. 깊은구지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마을의 발전과 안녕을 담당해 온 수호목이다.

참고문헌 **朝鮮地誌資料**(조선총독부, 1911), **부천시사**(부천시사편찬위원회, 2002),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자료 담당자 임영미 면담**(2010년 5월 14일), **부천문화원 수석연구위원 한도훈 면담**(2010년 5월 20일), **부천시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사회진흥 · 문화시민 담당자 박정아 면담**(2010년 5월 25일), **깊은구지도당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영철 면담**(2010년 5월 29일), **디지털부천문화대전**(bucheon.grandculture.net),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주민센터**(bucheon.go.kr).

필자 박일영(朴日榮)

불막이제

정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행해지는 마을공동체 신앙 혹은 가정의 풍습. 봄 또는 가을에 행해진다. 지역에 따라 불제, 불막이굿, 불액막이제, 화재맥이라고도 부르며, 간물단지신앙과도 맥을 함께한다.

역사 불막이제의 의미를 지닌 다양한 형태의 신앙과 제의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불막이제에 대한 설화로는 크게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와 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에서 전해진다.

대전리의 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옛날 어느 노승이 절터를 찾다가 노승봉에서 내려와 수문리를 보았다. 수문리는 그 터가 명당이었으나 화기(火氣)가 있는 곳이었다. 노승이 내려오다가 마침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어 "이 마을은 계속 번창할 것이나 화재가 많이 날 것이고, 계곡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일러 주었다. 노인이 노승에게 화재를 막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자 마을 건너편을 가리키며 '수문(水門)' 위의 등허리에 항아리 셋을 묻되 그 항아리에 바닷물과 우물을 반반씩 넣어 가득 채우고 꼭 봉한 다음 흙을 덮어서 무덤처럼 해 두었다가 불이 나거든 열어 보라고 일러주었다. 이 말은 들은 노인은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물항아리를 사 오는 일은 윗마을, 뚜껑을 만드는 일은 아랫마을, 항아리를 묻는 일은 중간마을이 각각 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당제를 마치고 길일을 가려 항아리를 묻었다. 그 뒤로 중간 마을에 불이 나서 항아리를 살펴보니 가운데 항아리의 물이 줄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이후로 항아리의 물이 없어지면 해당 마을에 불이 난다고 믿게 되었다.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는 조선 철종 때 큰 화재로 마을이 전소(全燒)되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그 이후에도 잦은 화재에 시달리다가 유명한 지관이 나타나 원인과 대응책을 일러 주었다. 마을 앞산의 모양이 '화(火)' 자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 정상에 구덩이를 파고 간수를 묻으면 산으로부터 시작되는 화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간수를 붓고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내용 대전리에서는 이월 초하룻날 아침에 불막이제를 지낸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삼색실과, 백설기, 포, 채소, 청주 등을 장만한다. 제비는 당산에서 줄다리기를 할 때 추렴한 돈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세 개의 항아리가 묻혀 있는 진등으로 제관과 풍물패가 이동한다. 우선 윗마을에 해당하는 물항아리를 열어 보고 물이 줄어들었으면 바닷물과 우물물을 반반씩 섞어서 채우고 나서 돌로 된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덮는다. 항아리를 모두 묻으면 제관들이 제를 지낸다. 제는 진설-재배-독축 순으로 진행된다.

북송리에서는 정월대보름달이 뜨는 저녁에 시작된다. 제물로 마른 오징어, 삼색실과, 술 등을 올린다. 제는 마을 주민들이 풍물을 치면서 앞산에 있는 제장으로 가면서 시작된다. 제장에 도착하면 간수를 담은 항아리를 꺼내 곧은 나뭇가지를 넣어 젖어 있는 흔적을 보아 간수의 양을 확인하고, 물을 보충한 다음 항아리를 묻는다. 간수가 많이 줄었으면 앞으로 행동을 조심한다. 제사는 제물 진설-재배-축원 순으로 진행된다. 축원이 끝나면 이장이 마을을 향해 재배를 한다. 이때 풍물패도 함께 절을 한다.

두 지역 모두 마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

불막이제 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2002.2.24, 국립민속박물관

방함으로써 제액초복하려는 목적으로 불막이제를 지낸다.

지역사례 최근에 충북 단양군 단성면 두악산에서는 불막이제의 한 형태인 '소금무지제'를 복원하였다. 두악산은 1985년 단양군청이 신단양으로 이주하기까지 군청 소재지이던 옛 단양(현 단성면)의 진산(鎭山)으로서 남산, 두악산, 소금무지산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하지만 두악산이 불꽃 모양이어서 불이 자주 나서 도인의 충고에 따라 이 산 정상에 소금항아리와 단양천의 물을 담은 항아리를 각각 묻은 뒤부터 화기를 잡게 되었다. 이때 소금을 묻어서 산의 이름도 소금무지산으로 부르게 됐다. 소금무지제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수몰민들이 이주하고 군청이 신단양으로 옮겨오면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지역의 향토사학자와 주민들이 1994년부터 재현하여 매년 정월대보름 무렵에 날을 잡아서 지내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제의뿐만 아니라 사찰이나 민간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한 액막이가 있다. 경북 청도의 운문사에서는 음력 정월 스무날 무렵에 소금단지를 불당 뒤에 묻는다.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서도 절 경내 주위 여러 곳에 소금단지를 묻어 절 앞에 있는 화산(火山)의 화기(火氣)를 누른다.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에서는 한 해 동안 집안에 화재가 없길 바라며 정월대보름날 집안 굴뚝에 소금을 뿌린다. 또 과거에 짚으로 이엉을 만들어 지붕을 얹던 때에는 용날[辰日] 또는 뱀날[巳日]에 지붕을 올렸다. 반면에 돼지날[亥日]에 지붕을 얹으면 화재가 잦다고 하여 피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날 지붕을 얹게 되면 지붕을 얹는 도편수가 그 위에서 오줌을 눈다. 그러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방안이나 마루 등 집 안 기둥 또는 벽에 '물 수(水)' 자를 써서 붙여 두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도 전한다.

참고문헌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임승범(林承範)

불밝이쌀

정의 제장에 불을 밝힐 목적으로 안치하는 쌀 또는 신령의 흠향(歆饗)을 위해 공물(供物)로 바치는 생미(生米).

내용 불밝이쌀은 '불백기', '불백이쌀'이라고도 한다. 충청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례이다. 신령을 위하는 굿이나 동제, 집안의 고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물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지신밟기를 하면 풍물패는 마당과 조왕, 성주, 터주, 우물 등을 두루 치고 다닌다. 이때 안주인은 꽃반에 쌀을 수북이 담고 그 위에 한지로 만든 작은 '기름종지'를 놓아 불을 붙인다. 기름종지에는 들기름이나 아주까리기름, 관솔기름[松脂] 등이 사용된다. 근래에는 불밝이쌀에 기름종지 대신 초를 꽂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단지 쌀만 올리는 경우도 있다.

동제의 제장에 불밝이쌀을 안치할 경우 제상의 앞쪽에 놓거나 떡시루 안에 넣기도 한다. 이때 불밝이쌀 위에는 북어와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실타래, 돈을 올려놓기도 한다.

동제에 올리는 불밝이쌀은 집집마다 걸립을 돌아 마을 사람들이 성의껏 희사한 쌀을 사용한다. 각 가정에서 내는 쌀은 정성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성미(誠米), 헌성미(獻誠米), 공양미(供養米), 생미, 노기미, 시루미, 제수미(祭需米) 등으로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제의 명칭을 준용하여 '산제쌀', '당산미(堂山米)', '거리제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쌀은 불밝이쌀뿐만 아니라 메를 짓고 떡을 하는 데 함께 사용된다. 한 예로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에서는 매년 장승제의 비용은 쌀이나 돈을 걸립하여 충당한다. 이때 현물을 내는 가정에서는 쟁반에 쌀을 올려놓고 그 위에 촛불을 밝혀서 걸립패가 지나가면 초청하여 건네준다. 이를 '불백이쌀'이라고 칭한다. 장승제에 쓰일 떡은 반드시 이 쌀로 만드는 것이 관례이다.

20세기 초에 작성된 충남 청양군 청소리 산신제 문서에는 매년 제를 지낼 때 준비해야 할 제물의 목록이 기록돼 있다. 그 가운데에는 백미 석 되가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상산시루미 석되서홉(三升三合)을 비롯해 조라미, 노기미, 하산시루미, 하산노기미 등

불밝이쌀

선돌의 떡시루에 안치한 불밝이쌀
대전 동구 대성동, 1989.1.3, 강성복

장승제에 올린 시루와 불밝이쌀
대전 동구 용운동, 1992.1.14, 강성복

이다. 이는 상산제(上山祭)와 하산제(下山祭)에 올릴 떡, 메, 술의 제조 및 불밝이쌀에 사용되는 쌀을 의미한다. 또한 충북 음성군의 이진말 '입산행사순번록(入山行事順番錄)'에는 "제미(祭米)를 내놓으시고 절미(節米) 없이 골라내어 새옹메를 하시오"라는 구절이 있다. 곧 산신제에 필요한 경비는 가구당 갹출하는 헌성미로 충당하되 산신에게 올릴 메는 부러진 쌀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19세기 후반에 기록된 충남 부여의 포사마을 산신제 문서에는 백미 2두를 제수로 준비했는데, 그 사용처는 시루떡을 찧을 떡쌀[餠米], 메를 짓는 반미[飯米], 그리고 제장을 밝히는 불밝이쌀[高明]이다.

은산별신제에서 산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콩, 팥과 함께 쌀이 진설된다. 이와는 별도로 제상의 양쪽에 불백기 두 그릇을 놓고 촛불을 밝힌다. 또한 별신당에서 상당굿이 시작되면 무녀는 커다란 대쌀바지(대받이쌀)에 농기를 꽂고 신이 내리기를 청한다. 그런가 하면 하당굿에서는 별신제를 주관하는 대장 이하 승마 임원들이 꽃반에 쌀(불백기)을 받쳐 놓고 불을 밝히면 비로소 무녀는 그동안의 노고를 위무하고 별신이 내리기를 축원하는 굿을 시작한다.

경기도 김포시의 대명별신굿에서는 무당이 마을의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한 해 동안의 무고와 풍어를 빌어 주는 '세경돌기'를 한다. 이때 각 가정에서는 간단하게 제물을 차린다. 제물은 주로 고사반, 북어, 과일, 나무 돈(명전) 등이다. 고사반은 주발에 쌀을 수북이 담은 것을 말한다. 이 고사반의 양쪽에 북어 한 마리씩을 꽂고 실 한 타래를 놓아 둔다. 무녀는 세경 도는 집안에 덕담을 해 주고 제상에 차려진 쌀주발을 휘둘러 넘기는 '고사반 넘기기'를 한 다음 대주에게 쌀산을 준다. 별신굿이 시작됨을 고하는 당고사, 신령을 제장으로 모시는 당맞이, 풍어굿 등 각종 의례에는 공양미와 고사반이 빠짐없이 차려진다.

서해안 배연신굿의 상차림에서 가장 윗줄에 진설되는 음식은 떡과 쌀이다. 굿상의 한가운데는 제석신을 위한 공양미와 부채, 화경 등을 놓는다. 이들 제물은 대동굿에서 차리는 애기씨반과 유사하다. 여기에서 생쌀은 삼신과 소당제석을 위한 제물이다. 부산의

불밝이쌀

떡시루에 불밝이쌀을 안치는 모습
대전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 1996.11, 강성복

불밝이쌀로 소지를 올리는 모습
대전 동구 비룡동 줄골, 1998.1.14, 강성복

터주고사의 불밝이쌀
충남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2003.1.14, 강성복

동화제의 불밝이쌀
충남 정산면 남천리 새울마을, 2003.1.14, 강성복

제상 가운데 놓인 불밝이쌀
충남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2008.1.3, 강성복

마짐시루의 불밝이쌀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2003.11, 강성복

기장 두모포별신굿은 엿새 동안에 걸쳐 세존굿, 성주굿, 심청굿, 용왕굿, 장수굿이 진행된다. 이들 굿은 조리한 음식이나 과일 외에 예부터 한 말들이 말[斗]에 쌀을 각각 담아 별도로 올린다. 이들 쌀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세존 : 양식
성주 : 성주단지로 풍년과 집안의 평안
심청 : 각 가정에서 딸들에게 일러 줄 효성심
용왕 : 집안의 나쁜 액을 풀어서 용왕이 가져가라는 뜻
장수 : 장수는 욕심이 많으므로 쌀도 많이 올림

충북 보은군 회북면 쌍암리, 1997.4.9, 강성복

탑제에 안치한 불밝이쌀과 제물

당산고사에 올린 불밝이쌀

강원도 삼척시의 산메기에 올리는 제물 가운데 '생우메'가 있다. 이는 익힌 쌀을 메그릇에 담아 베 대신 제단의 맨 앞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생우메를 쓰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앙적 의미가 더 강할 뿐만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원초적인 공물 성격을 지닌다. 또한 산메기의 제차(祭次)에는 물을 관장하는 용왕을 모시는 용왕굿이 있다. 용왕당에 갈 때에는 떡, 술, 생쌀을 가져간다. 떡과 술은 용왕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생쌀은 용소(龍沼)에 뿌림으로써 헌식(獻食) 및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의의 쌀은 오곡 가운데에서도 으뜸이 되는 곡물이자 농사의 근원이 되는 식량자원이다. 이 때문에 도작문화권에서 쌀은 일찍이 곡령 숭배 신앙의 대상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다. 비슷한 예로 아이가 없는 여성은 쌀을 매개로 하여 삼신을 받는다. 삼신을 모신 단지나 항아리에는 쌀을 안치한다. 이를 '삼신쌀'이라고 한다. 쌀은 생명력의 원천으로 인식된 셈이다. 집안의 대주를 보살펴 주는 성주의 신체에도 쌀이 봉안된다. 또 집 안의 곳곳에 좌정하여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가신(家神)에게 올리는 공물도 쌀(또는 벼)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가을걷이를 마치면 터줏단지 · 제석단지 · 칠성단지 · 조상단지 등에 봉안할 쌀을 잘 갈무리해 두었다가 상달고사를 올리면서 다시 갈아준다. 이 밖에 정월대보름날 볏가릿대를 세울 때 깃봉에 넣는 쌀과 오곡, 굿이나 고사를 마친 후에 길흉을 점치는 쌀점, 잡귀와 뜬귀신을 쫓는 '객귀물림'이나 '잔밥먹이기'에 사용되는 쌀 등 사례는 다 말하기 어렵다.

불밝이쌀에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가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 동제의 제장에 안치되는 불밝이쌀은 신령 청배와 함께 흠향을 위한 성스러운 공물의 의미를 지닌다. 공물로서의 불밝이쌀은 쌀의 원초적인 성격을 띠며 제장을 밝힌다는 뜻의 '불밝이'는 후대에 의미가 부가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불밝이쌀은 신령이 머무는 공간을 환하게 밝혀 줌으로써 강림(降臨)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사를 드리는 신령에게 정성을 바친다는 상징성을 보인다. 그 심층에는 쌀이 지닌 주술력으로 제장에 깃든 부정을 제거함으로써 신령이 좌정할 공간을 정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두루 깔려 있다.

참고문헌 **무 · 굿과 음식**(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무 · 굿과 음식 3**(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쉰음산 산메기**(김도연, 박물관지 15, 강원대학교박물관, 2009), **장동이 민속지**(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69~1975), **한국문화상징사전 2**(두산동아, 1995), **한국의 마을신앙 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강성복(姜成福)

불백기

표제어 불밝이쌀(390쪽)

비보

정의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보완하여 실한 곳으로 바꾸려고 하는 방법. 대개 지기(地氣)가 허한 곳을 실하게 채우기 위하여 사용한다.

내용 비보는 그 범주가 대단히 넓고 풍수에서도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유형 또한 다양하다. 인간이 거주할 곳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양태에 맞추어 가다듬기 시작하면 비보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비보는 인간의 필요에 맞게 자연을 가다듬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을 가다듬을 때 부족한 곳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때 몇 가지 신앙물로 채우는 것을 신앙비보라 한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비보 양상 가운데 마을신앙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를 기술하기로 한다.

1. 장승비보 장승은 마을 어귀에 서 있으면서 마을을 수호해 준다. 그런데 마을의 일정한 곳이 허하다면 마을 어귀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장승을 세워 허한 기를 보하는데 이를 장승비보라 한다. 대개 동서남북 쪽의 허한 곳에 각각 동방청제장군, 서방백제장군, 남방적제장군, 북방흑제장군이라는 이름의 장승을 세운다. 이러한 장승비보의 대표적인 예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에서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남쪽과 동쪽에 각각 장승을 세워 지형상 마을의 허한 곳을 실하게 바꾸었다.

2. 솟대비보 물가에 기둥을 세우고 물새를 앉힌 솟대는 기풍의례와 관련이 있다. 몇몇 마을에서는 기풍의례와 상관없이 마을의 형국을 비보하기 위하여 세우기도 한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마을에는 마을 한가운데에 솟대가 서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마을의 형국이 행주형(行舟形)이어서 마을 안에 절대로 우물을 파지 않는다. 배가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돛대가 있어야 하듯이 때문에 돛대를 대신하여 행주형의 마을 한가운데에 솟대를 세운 것이다.

3. 돌탑비보 물길이 흘러나가는 곳으로 마을의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하여 돌탑을 세우는 비보가 널리 퍼져 있다. 수구맥이로 알려진 돌탑비보는 마을 전체의 기운이 물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운을 통제할 목적으로 돌탑을 세운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 성금리에는 서낭당 옆에 돌탑을 함께 세워 놓았다. 이는 바로 앞에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 마을의 기운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비보이다.

4. 당숲비보 마을의 정면이 외부에 열려 있는 지역에서는 별도로 당숲을 조성하기도 한다.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인공조림비보가 그 예이다. 경남 함양군 함양상림,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어부방조림 등이 대표적이다. 몇몇 자연마을에서는 외부로 열린 공간에 당숲을 조성하고, 그 한가운데에 서낭당을 배치하여 신성공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마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쪽이 넓게 열려 있어서 당숲을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마을신앙의 구심점이 있는 곳에는 대개 당목이 우거져 있다. 이 역시 넓은 의미의 당숲비보라 할 수 있다.

5. 성신앙비보 몇몇 마을에서는 마을의 형국이 남녀의 성기 모양이어서 음사(淫事)가 잦다고 하여 성기 모양의 바위를 마을에서 보이지 않게 숲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성기 모양의 바위를 특별히 숭배하여 인공적으로 음양을 조절하기도 한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 창도리 귀신사 마당에 서 있는 성기암은 이러한 비보의 대표적인 예이다.

6. 기타 마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따로 마을 한쪽에 언덕을 조성하거나 물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보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신앙의례와 결합하여 마을신앙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비보신앙이라고 내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용해된 곳이 많다.

의의 비보는 자연을 인간의 편리에 맞추어 개조한다는 인간 중심적 의미를 지니면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연의 흐름에 맞추려고 하는 자연 중심적 의미도 함께 지닌다. 그리고 자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편리를 도모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들어 있다. 비보는 마을신앙 차원에서 신성시함으로써 훼손되지 않고 계속 전승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필자 홍태한(洪泰漢)

뼈매달기

정의 악귀나 잡귀잡신의 범접을 막고 재액과 질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당산이나 집의 대문에 호랑이, 말, 소 등의 뼈를 걸어두는 일.

내용 벽사를 위해 당산나무나 집의 대문에다 새끼줄을 치고 뼈를 매달아 두기 때문에 '뼈'에다 '매달다'의 명사형인 '매달기'를 붙여 '뼈+매달기'라고 했고, 뼈를 걸어둔다고 해서 같은 원리로 '뼈+걸기'라고도 했다. 주로 신년 벽두나 동제를 지내고 나서 행한다. 대문에 '용(龍)'이나 '호(虎)' 글자를 붙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의 운조루(중요민속자료 제8호)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반 대갓집이다. 이 큰 집의 대문에다 짐승의 뼈를 매단 것은 행여 집안으로 침범할지도 모르는 잡귀잡신은 물론 재액, 병마, 도둑의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나쁜 것들은 독해서 잘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겁을 주기 위해 소의 코뚜레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이는 물러가지 않으면 소처럼 코뚜레를 꿰어 끌고 다니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의 경우 마을 어귀에서서 마을을 지키는 장승의 몸체에 소의 피를 뿌리고, 소의 튼튼한 이빨이 붙은 턱뼈를 장승의 목에 매달아 놓았다. 이것은 접근하는 나쁜 세력에게 위협을 주는 것임이 분명하다. 피를 보면 누구나 무섭고 불길하게 생각할 것이고, 소의 날카로운 이빨을 보고 물리면 큰 일 치를 것이라는 겁을 먹기에 충분하다. 또 너도 잘

운조루 대문 위의 뼈
전남 구례군 운조루
1990.8.11. 배도식

남해 금포 당산나무의 뼈
경남 남해군 금포마을, 2010.5.12. 배도식

못하여 잡히면 이처럼 피를 보게 되고 살을 발려 뼈다귀만 남아 길가에 서 있는 장승의 목에 매달리는 가련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니 다분히 위협적이고 겁을 줄 만한 것이다.

경남 사천시 화전의 경우 동제를 마치면 말의 머리를 당산에 묻는다. 이것은 말이 도깨비 같은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민간속신에서 도깨비나 잡귀잡신들이 특히 말의 피, 머리, 뼈 등을 무서워하여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데서 비롯된 처방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례 현재 뼈 매달기 민간신앙이 전래되고 있는 곳은 경남 남해 지역, 전남의 진도와 구례, 충청도의 일부 지역이다. 당산제를 지내고 쇠뼈를 당산나무에 매다는 곳은 남해 지역이 집중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논이 적어 쌀밥을 귀하게 여기는 이 지역에서 동제를 지내고 묻은 밥을 보호하려면 쇠뼈를 매달아 다른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전남 구례군 운조루의 경우 대문의 처마 아래 중간 도리에 짐승의 뼈를 매달았다. 뼈를 두 곳으로 나누어 왼쪽에 넓적뼈 1개, 오른쪽에 2개를 매달았다. 오른쪽에는 소의 코뚜레 1개를 먼저 걸고 그 아래에 다 끈으로 뼈를 묶어 매달아 놓았다. 이 집을 지은 선조 유이주(柳爾胄, 1726~1797)가 평북병마절도사로 부임할 때 만난 호랑이를 채찍으로 때려잡아 호피는 영조대왕에게 바치고 호랑이 뼈 몇 개를 대문에 매달았다는 전설도 있다.

자고로 민간에서는 호랑이 뼈는 만병통치약으로

운조루 대문 위의 뼈 전남 구례군 운조루, 2010.5.27, 배도식

쓰이기도 하고 대문에 걸면 잡귀의 범접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탐내는 사람이 많아 도둑을 맞기도 했다. 운조루도 대문에 호랑이의 뼈를 달았다가 잃었다. 그러다가 잡귀와 도깨비를 쫓는 데 주력을 지녔다는 말의 뼈를 구해 매달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여의치 않아 소의 뼈를 달아 놓았다.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마을에 2기의 돌장승이 마을 어귀에 서 있고 그 장승들의 목에 쇠뼈가 매달려 있다. 이것도 혹시나 닥칠지도 모르는 재액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진도의 서북쪽에 있는 덕병마을은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하여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고 바람이나 조수도 이쪽으로 치밀려오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마을 서북쪽 당막개 바닷가 쪽에 있는 '진살등(鎭殺嶝)'이란 야트막한 둔덕(지금은 정지작업으로 거의 평지가 되었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쌍의 돌장승을 세웠다고 한다. '진살등'은 범접한 나쁜 살기가 있으면 이곳 언덕에서 진압하여 박살낸다는 의미다. 남장승에는 대장군, 여장승에는 진살등이라 새겨 놓았다.

역사가 오래된 이 마을은 2010년 현재 100가구의 200명 남짓 되는 주민들이 농사와 어업을 생업으로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 오래전부터 마을의 안녕을 위해 진살등에 한 쌍의 돌장승을 세워 놓고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면 동제당에 제사를 지낸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때 장승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풍물에 취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예전에는 소를 잡아 동제와 장승제를 성대하게 지냈다. 요새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쇠머리는 올린다. 이곳에서 소를 잡아 장승제사를 지낼 때에는 소의 피를 장승의 몸에 뿌리고 소의 크고 우람한 아래턱뼈를 왼새끼줄로 묶어 장승의 목에 매달아 둔다. 소의 피를 뿌리는 것은 도깨비나 짐승의 접근을 막고자 하는 의도이고, 이빨이 달린 턱뼈를 매달아 두는 것은 잡귀잡신이나 나쁜 재액의 근접을 막으려는 의미에서이다. 장승제를 지내고 나서는 장승 앞에 짚불을 지펴서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이 불을 타넘는다. 이를 '불넘기'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한 해의 액운을 쫓게 된다고 한다.

이 마을의 돌장승은 역사가 오래되어 고색창연하고, 생김새가 좋아서 예술적으로 뛰어난 조각으로 여겼다. 1988년 남도문화제 최우수상 수상으로 마을과 함께 석장승도 유명해졌다가 1989년에 잃었다. 마을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게 밴 이 장승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지 못했다. 지금의 장승은 1993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진도 덕병마을의 바로 이웃마을인 세등리에도 쇠뼈를 매단 짐대가 있다. 이곳에는 장승은 없고 짐대만 서 있다. 매년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밤에 미륵바위를 모신 마을의 제당에 가서 일명 별신제라 부르는 동제를 지내고, 다음에 짐대제를 지낸다. 특이한 것은 미리 뽑힌 제관들은 금기를 지키기 위해 열사흗날에 집에서 나와 동제당 근방에 짚으로 가설한 '마람'이란 거처에 머물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제사 준비는 이장이 한다. 제물에는 주과포혜와 쇠머리를 반드시

진도 덕병 장승 목의 뼈
전남 진도군 덕병리
2010.6.3, 배도식

당산나무의 뼈
경남 남해군 대지포마을
20105.12, 배도식

준비한다. 이곳에서는 짐대제를 거리에서 지낸다고 하여 거리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짐대 앞에 제물을 진설하기에 앞서 짐대를 내려 짐대의 윗부분에 한지를 묶고, 그 아래에 소의 턱뼈를 매달며, 짐대의 아랫부분에도 한지를 묶어 둔다. 그리고 짐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서 있는 당산나무에 새끼줄로 고정시킨다. 그러고 나서 짐대에 제사를 지낸다. 이 마을에서는 과거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때의 3년 동안 말고는 제사가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제사를 지내지 않는 동안 11명이 죽음)를 없애고 풍년이 들어 잘살기를 바라는 뜻에서라고 한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대지포마을에서는 동제를 지내고 당산나무에 큼직한 소의 넓적다리뼈를 매단다. 대지포는 물건리에서 미조리로 가는 국도의 중간 지점의 바닷가에 30여 가구가 있는 포구 마을이다. 도로에서 해안가로 약 40m 거리에 마을이 있고, 그 중간에 당산이 있다. 수령 약 300년의 느티나무 당산목과 그 아래 큰 밥무덤이 만들어져 있다. 반원형을 이루는 당산은 크기가 직경이 약 12m이다. 비교적 넓은 편인 당산의 왼쪽 부분에 당산목이 서 있고, 둘레에는 야트막한 돌담이 있다. 음력 10월 15일에 제수를 많이 마련하여 당산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낸 뒤 밥무덤에 메를 묻고 나서 소의 넓적다리뼈 두 개를 당산나무에 매단다. 쇠뼈를 매다는 것은 잡귀잡신의 범접을 막고, 마을에 재난이 없고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뜻에서 행하는 주술적 행위이다.

경남 남해에서는 이와 같이 동제를 지내고 쇠뼈를 매다는 지역이 더러 있다.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내산, 상주면 금포, 상주, 남해읍 서변리 등지이다. 쇠뼈를 매다는 대신 동제를 지낸 뒤 제단 앞에서 쇠뼈를 불에 태우는 곳도 있다. 남해군 서면 노구리 노구마을이 그곳이다. 이는 뼈를 태우는 고약한 냄새를 맡고 악귀나 잡귀잡신이 멀리 달아나라는 이유에서이다. 쇠뼈는 아니지만 닭을 한 마리 잡아 털을 뽑아서 나무에다 매달아 두는 마을이 있다.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수곡마을이다. 동제를 지내고 나서 이렇게 하는 데에는 잡귀잡신이나 역신이 이 마을에 함부로 침입하면 이 닭처럼 털이 뽑혀 죽는다는 위협의 뜻이 숨어 있다. 요새는 닭 매달기를 하지 않는다.

대전시 중구 금동에도 거리제를 마치고 당산나무에 소의 턱뼈를 매달아 놓는다. 쇠머리의 절반은 산제당에 바치고, 나머지 반은 턱뼈를 발라 당산나무에 줄을 쳐서 매달아 둔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에서는 마을 어귀 양쪽에 목간을 세우고 그 사이를 금줄로 연결시켜 짐승의 뼈를 매단다. 이 뼈가 어떤 짐승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쇠뼈일 가능성이 높다.

짐승의 뼈를 매다는 대신 그 뼈를 땅에 묻는 곳이 있다.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화전마을에서는 마을의 액운을 없애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말의 머리를 당산 근방에 매장했다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말의 머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행위 자체가 끔찍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경남해안 및 도서지방의 민속문화 조사연구**(강용권, 동아대학교, 1972), **남해안의 민속신앙**(하종갑, 우석, 1984), **도깨비 날개를 달다**(김열규, 춘추사, 1991),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 1994), **벅수와 장승**(김두하, 집문당, 1990), **여보게 김서방**(최래옥, 미완, 1987), **전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6).

필자 **배도식(裵桃植)**

제의
산신제
삼성혈제
삼척신남마을해신제
삼척호산리서낭제
상주천봉산성황제
샘제
서낭제
서산옥녀제
서산차리산제
서산창리영신제
서울가양동성황제
서울당인동부군당제
서울도곡동도당제
서울동빙고동부군당제
서울부암동산신제
서울서빙고동부군당제
서울신기리도당제
서천마량리당제
석척기우
성제묘관우제사
성황제
손돌제
솟대제
송천달집태우기
순창성황제
순천구산용수제

제의장소
산신당
삼성혈
삼척한두골용소
서낭당
서울서빙고동부군당
성제묘
소도
수원영동거북산당

신격
사도세자
산신
서낭신
선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송징장군
수구맥이

신체
사천가산리석장승
선돌
솟대
쇠말
순창산동리남근석
순창창덕리남근석
신위

사도세자
사천가산리석장승
산막
산신
산신당
산신제
삼국지위서동이전
삼성혈
삼성혈제
삼척신남마을해신제
삼척한두골용소

삼척호산리서낭제
상주천봉산성황제
샘제
생기복덕
생떡국
서낭당
서낭신
서낭제
서산옥녀제
서산차리산제
서산창리영신제
서울가양동성황제
서울당인동부군당제
서울도곡동도당제
서울동빙고동부군당제
서울부암동산신제
서울서빙고동부군당
서울서빙고동부군당제
서울신기리도당제
서울신수동복개당화분
서천마량리당제
석전 · 기우 · 안택
석척기우
선돌
선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성제묘
성제묘관우제사
성황제
소

소금단지
소도
소지
손돌제
솟대
솟대제
송징장군
송천달집태우기
쇠말
수구맥이

수원영동거북산당
순창산동리남근석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순창성황제
순창창덕리남근석
순천구산용수제
신대
신벌
신위

제물
생떡국
소

제구
소금단지
신대

자료
삼국지위서동이전
서울신수동복개당화분
석전 · 기우 · 안택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용어
산막
생기복덕
소지
신벌

사도세자(思悼世子)

정의 영조의 둘째 아들로 뒤주 안에 갇혀 굶어 죽은 뒤에 영조에 의해 붙여진 이름. 사도세자는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인물로 그려져 민간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지고 있다.

내용 사도세자(1735~1762)는 이름은 선(愃), 자는 윤관, 호는 의재이다. 어머니는 영빈 이씨이며, 부인은 영의정 홍봉한의 딸 혜경궁 홍씨이다. 이복형인 효장세자[진종(眞宗)으로 추존됨]가 일찍 죽고 영조가 나이 40세가 넘어 선을 낳자 2세 때부터 세자로 책봉된다. 10세 때 혼인하여 별궁에 거처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문장과 글을 잘 읽고 지었다. 정치에도 일찍부터 안목이 있어 노론의 행적(신임사화)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15세 때부터는 부왕을 대신하여 서정(庶政)을 대리하게 되자 그를 싫어하던 노론과 이에 동조한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이 그를 무고하였다.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세자는 격간도동이라는 정신질환에 걸려 궁 내외에서 비행을 저지른다. 계비 김씨의 아비 김한구와 그의 노론계 일파의 사주를 받아 나경언이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하였다. 영조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 결국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한다. 자결을 명하였으나 듣지 않자 뒤주 안에 가두어 8일 만에 죽게 하였다. 사도세자는 18세 때 낳은 아들인 정조가 왕에 오른 뒤 장헌(莊獻)으로 추존되고, 1899년에 다시 장조(莊祖)로 추존되었다.

장조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749년(영조 25)에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남인, 소론, 소북 세력 등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자 이에 불안해진 노론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영조에게 온갖 모략을 고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었던 극한의 처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징 영웅의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은 대체로 민간에서 신격으로 전승되곤 한다. 오늘날 새남굿의 전통에서 사도세자를 신격으로 직접 모시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연로한 분들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즉 40~50년 전까지 사도세자를 모시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별상으로 거의 녹아 들어가 모셔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능이 모셔진 경기도 화성시나 행궁이 있는 수원시에서도 민간이나 무속에서 사도세자를 직접적인 신격으로 모시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무속에서는 희미해진 신격은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남아 전승된다. 이는 강원도 영월군과 태백산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종대왕신격의 경우와 대조적인 현상을 보인다.

최초로 사도세자를 모신 공간은 경모궁이다. 경모궁은 1973년에 '사적 제237호'로 지정된 함춘원지와 관계된다. 함춘원지는 현재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일대에 남아있는 함춘원의 옛 터이다. 경모궁은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아버지 장헌세자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사당이다. 경모궁의 사도세자 제사는 조선 말까지 이어지다가 1899년(광무 3) 11월 사도세자를 장조로 높이고 신주를 종묘로 모셨다. 1924년 5월 일제는 이 자리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세움으로써 경모궁 건물을 없어지고 이곳으로 드나들던 함춘문과 기단석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지역사례 현재 사도세자가 신격으로 모셔진 곳은 종묘 외에 용주사라는 절이 더 있다.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자 아버지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능을 옮기고 원찰을 지어 제향을 지내게 하였다. 정조가 죽자 나란히 묘를 써 각각 융릉(장조의 능)과 건릉(정조의 능)이라 하여 그 넋을 위해 정기적인 제향을 올린다. 융릉과 건릉으로부터 1.7㎞ 정도 떨어져 있는 용주사는 도로변에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절이다. 이곳에는 원래 854년(신라 문성왕 16)에 염거화상이 세운 갈양사(葛陽寺)가 있었으나 병자호란 때 소실된 뒤 폐사되었다고 한다. 그 뒤 정조가 부친인 장헌세자의 능을 이곳 화산으로 옮겨와 현륭원(顯隆園, 뒤에 융릉으로 승격됨)을 조성하면서 1790년(정조 14) 부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갈양사 자리에 능사(陵寺)로서 용주사를 조성하였다. 용주사란 절 이름의 내력이 있다. 즉 용주사 낙성식 하루 전날 밤에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어 용주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사찰인 용주사에서는 일제에 의해 조선의 정통성과 역사가 단절되기 전까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대왕과 효의왕후 김씨의 위패를 모시고 일 년에

호성전 내 위패
경기 화성시 용주사
호성전, 2010.6.19
이정재

열두 차례 제향을 봉행해 왔다.

1907년까지 제향을 했으나 일제강점기에 중단된 의식은 100년 만에 다시 재현되었다. 홍살문을 다시 세우고 호성전(護聖殿) 현판식과 함께 왕실의 의식과 불교의식으로 장엄한 제향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중단돼 사도세자 제향의식은 2009년에 사도세자 융릉과 정조대왕 건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이 계기가 되었다. 2007년에 이루어진 용주사의 제향의식은 사후 극락왕생을 위해 생전에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사도세자 제향,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하는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靈山齋),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에게 공양을 드리는 수륙재(水陸齋)로 이어졌다. 사도세자 제향의식은 정호 스님의 봉행사, 사도세자 행장 낭독, 제향, 추모사, 이철수 시인의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융릉과 건릉은 사도세자에 대한 애도를 다시 상기시켰고, 이는 민간에 여러 형태로 전승이 재현되고 있다. 특히 수원행궁을 중심으로 한 축제와 행사는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조의 효심을 함께 기리는 행사를 두루 묶어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수원 행궁터에서 열린 사도세자 진혼제를 들 수 있다.

사도세자를 둘러싼 처가와 외척들은 거의 전부가 정치적으로 그의 적이었다.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한을 비롯하여 영조의 장인 김한구,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 총애하던 후궁 숙의 문씨, 화순옹주의 시아버지 김흥경, 화협옹주의 시아버지 신만, 화평옹주의 시아버지 박사정 등이 모두 노론이었다. 화완옹주를 비롯하여 화령옹주, 화길옹주도 모두 노론 집안으로 시집갔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죽음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을까. 사도세자가 당쟁 때문에 뒤주에서 희생된 지 245년 만인 2007년 7월에 사도세자의 넋을 달래는 진혼굿이 수원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있었다. 무당 김금화는 사도세자의 혼을 불러 그 억울함을 모두 듣고 저승으로 편안히 안내하는 진혼굿을 행하였다. 김금화 만신은 245년 전 그날의 사도세자령이 씌인 듯 뒤주 안에서의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을 달래는 굿으로 한스러운 이생을 떠나 극락왕생하기를 빌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필자 이정재(李丁宰)

사천가산리석장승

정의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의 여러 곳에 세워진 돌장승. 1974년 12월 24일에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사천가산리석장승은 총 8기이며 마을 사람들은 '석장승' 또는 '수호장승'이라고 부른다. 마을 어귀에 남장승 2기와 여장승 2기가 있으며, 마을 중앙의 당산나무 아래에도 남장승 2기와 여장승 2기가 있다. 이 가운데 마을 어귀의 여장승 2기는 도난당하여 1980년 마을 주민이 복원한 것으로, 민속자료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석장승의 크기는 높이 82~119㎝, 폭 19~35㎝까지로 다양하다.

마을 어귀의 남장승 2기는 묘 앞의 문인석과 비슷

사천가산리석장승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마을, 2010.6.12, 유승훈

마을 중앙의 석장승 4기

마을 중앙의 여장승 2기

마을 중앙의 남장승 2기

마을 어귀의 남장승 2기

마을 어귀의 여장승 2기

한 형상으로 관모를 쓰고 조복(朝服)을 입었다. 양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서 홀을 쥐고 있다. 뒷면까지 상세히 조각한 환조(丸彫) 형태로서 옷 주름까지 사실적으로 조각하였다. 눈과 귀가 크며, 입은 다물고 있고, 어깨는 약간 올라가 있다. 오른쪽 장승의 키가 더 크며, 왼쪽 장승의 턱에는 굵은 수염이 나 있다. 오랜 세월로 인하여 마멸된 흔적들이 있고, 몸 전체에 돌이끼가 끼어 있다.

마을 중앙의 남녀 석장승은 산비탈의 계단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여장승 2기는 느티나무 아래에 동자상 형태로 서 있다. 여장승 역시 조복을 입고 손에 홀을 들었다. 특이하게도 머리에 뿔과 같은 돌출부가 2개 솟아나 있다. 왼쪽 여장승의 오른쪽 뿔은 잘려나간 흔적이 있다. 눈썹이 짙고, 큰 귀를 하고 있으며, 눈과 귀에 비하여 입은 작다. 마을 중앙의 남장승 2기는 산비탈 위에 세워져 있다. 남장승이 서 있는 아래쪽에는 벽감(壁龕)을 만들어 두었다. 이 남장승은 전반적으로 마을 어귀의 남장승과 비슷한 형태이다. 왼쪽 남장승은 수염이 없지만 오른쪽 남장승은 굵은 수염이 세 줄기로 나 있다.

역사 가산리는 가화강과 사천만이 만나는 곳으로 '가산창(駕山倉)'이라는 조창(漕倉)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 때문에 가산리에서 전승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인 가산오광대를 '조창오광대'라고도 한다. 이곳에서는 인근 지역 7개 군현의 공물을 조창에 모은 뒤 여수를 거쳐 한양으로 운반하였다. 이때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장승 앞에서도 제물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장승의 제작 연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이 장승은 조창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해운의 무사를 기원하는 대상물이던 것으로 보인다. 조창이 폐지된 이후에는 역병을 퇴치하고 마을을 지키는 민간의 장승으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내용 가산리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마을의 당산과 석장승에서 동제를 지냈다. 이 제사를 '당산제' 또는 '동제 모신다'라고 하였다. 동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음력 정월 초닷새쯤에 생기복덕을 따져 제관, 축관, 유사를 뽑았다. 제장 주변에는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았다. 제관은 매일같이 목욕재계를 하는 등 근신에 들어가야 하며, 제의 비용은 걸립을 통해 마련한다. 제물은 유사가 준비하는데 문어, 명태, 과일, 나물 등 40여 가지가 넘었다고 한다. 특히 살아 있는 수퇘지를 당산 아래에서 도살시켜서 바쳤다.

제사 당일 아침에는 마을 주민들이 풍물을 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돈다. 10시쯤이 되면 제관 일행이 먼저 당산으로 제물을 들고 가서 제를 올린다. 제차는 강신과 헌작, 독축, 소지의 순으로 진행된다. 당산제가 끝나면 다시 석장승에 제사를 지내고 '신장축(神將祝)'을 독축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장승제까지 모두 끝내야 음복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제관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오광대 탈놀이를 하면서 크게 놀았다.

마을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장승에 비손을 하거나 간단히 치성을 드렸다. 주로 농사가 잘되거나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당산과 장승의 영험함을 믿었다. 일제강점기 때 징병에 끌려가거나 6·25전쟁 시기 군에 가서도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며, 이는 당산과 장승이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참고문헌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문화재관리국, 1972), **향토문화지**(경상남도, 1989).

필자 **유승훈(柳承勳)**

산막

표제어 해막(980쪽)

산신(山神)

상호참조 산신당(405쪽), 산신제(408쪽)

정의 산을 지키며 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장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신.

역사 한국은 산이 많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일찍부터 산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 산악숭배 신앙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곧 산이다. 그래서 환웅은 이 세상의 중심인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해석된다.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아사달 산신으로 좌정했다는 점은 이미 고조선시대에 산신신앙이 널리 유행했음을 말해 준다. 『후한서』「동이전」에 "그 풍속은 산천을 존중하고 호랑이에게 제사 드리며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단군, 주몽, 박혁거세, 견훤, 왕건, 이성계 등의 건국신화와 산신신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악숭배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토착신앙 가운데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산신신앙은 특히 신라에서 성행하였다. 신라에서는 산신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인식하고 대부분의 국가 제의를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산악에 국가 제의

를 정기적으로 지내게 된다. 고려 왕조는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마다 오악명산에 제사를 지냈다. 특히 고려 후기에는 봄과 가을이면 경도의 송악산, 적성의 감악산, 진천의 태령산, 남원의 지리산, 광주의 무등산, 정주의 비백산 등지에서 산천제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산신신앙의 형태가 다양화된다. 국가적인 공동체 신앙 중심에서 개인신앙 또는 마을신앙 단위로 확산되었다.

특히 조선 중기에 이르면 명산은 물론 주, 군, 현 단위로 산악제를 주관하게 된다. 고대의 산악숭배 신앙은 집단, 즉 국가 · 부족 · 마을 단위 형태의 신앙이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는 개인과 마을 단위의 신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마을마다 산신당, 산왕당, 서낭당, 성황당 등을 만들어 산신을 숭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의 정상 또는 중턱에 위치하던 제당도 마을과 가까운 산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산악의 신이 농경신적 성격을 더하는 현상으로서 마을의 풍농과 개인의 기복 · 기자 · 치병 등을 비는 개인신앙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김태곤은 호남지방에서는 신수인 당나무 밑에 제단을 차려 놓고 당산이라 부르거나 입석을 당산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동신제를 지내는 것은 산에 산신을 모신 당산의 관념이 산이 없는 호남지방의 일부 평야지대에까지 연장된 산신신앙의 후기적 형태로 보았다.

내용 산신의 신체(神體)는 주로 호랑이 또는 신선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최남선은 중국의 용, 인도의 코끼리, 이집트의 사자, 로마의 이리처럼 조선에서 신성한 동물의 으뜸은 호랑이라고 하였다. 그는 "호랑이는 조선 최대의 동물이며 조선인의 생활에 끼친 영향이 크니 그중 신화, 전설, 동화를 통하여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들은 설화세계 최고이며 호랑이 및 호랑이 설화에 대한 민족적 숭앙 또는 기호는 어느새인지 다른 모든 이야기를 밀어내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을 호담국(虎談國)이라 할 만큼 범 이야기와 특수한 인연을 가진 곳이 되었고 이 때문에 세계로 향하여 설화의 조선색을 강렬히 나타내 보인 것이 다행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민족의 시조 이야기인 〈단군신화〉의 주인공은 곰이었다. 그러나 단군신화 이후로 곰에 대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추다시피 되지만 호랑이는 한반도 산악

산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의 생태적 혹은 상징적 동물로서 한 민족의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동물이 되었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예조에서는 "항상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에서 도당제를 올렸다"고 한다. 오늘날의 산신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호랑이를 산신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를 지칭하는 명칭도 산신(山神), 산령(山靈), 산군(山君), 산신할매, 산중호걸 등 산과 관련시켜 부르고 있어 산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랑이의 영험성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산악지대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호랑이라면 능히 벽사를 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이 때문에 시집갈 때 신부의 가마 위에 호피를 씌워 재액을 방지했고, 신랑은 호랑이 발톱을 허리에 찼다. 호랑이의 위력이 잡귀나 액을 물리쳐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호피를 가지고 있으면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벼슬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벽사의 염원은 호랑이 삼재부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호랑이가 삼재부에 나타나는 것은 맹수로서의 용맹성이 부적 속에 들어가서 삼재를 막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반영이다. 즉 한반도 산악을 지배하는 호랑이의 위력으로 재액을 족히 물리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과 그 강력한 힘에 대한 외경심은 호랑이를 마침내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산악 지대에서는 산신 또는 산신을 보좌하는 영물로 인식되어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호랑이 14마리가 그려져 있는 울산 대곡리 바위그림은 고대부터 한반도 전역에 호랑이의 개체 수가 많았음을 말해준다. 『증헌문헌비고』, 『오주연문장전산고』,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호환(虎患)이나 호랑이 사냥 등의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범에게 물려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굿이나 호탈굿을 하였다. 이는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아직도 산악을 숭배하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

산신의 성별에 관한 문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손진태 등은 한반도의 북부지역은 남신이, 남쪽지역은 여신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일군의 학자들은 지역보다는 시대에 따라 산신의 성(性)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산신으로 좌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초의 산신은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신라시대에 들어와서는 선도산의 산신, 영취산의 산신, 김유신을 보호했다는 신라 3산의 산신 등 여성 산신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다시 남성형 산신이 우월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후로는 줄곧 남성 산신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신이라 하면 흰 수염을 길게 휘날리는 할아버지 형상을 떠올리듯 남성형 산신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산신마누라, 산신아기씨, 부군아기씨, 산신할머니로 여성 산신을 모시는 곳이 있는 등 그 잔영은 남아 있다.

산신의 형상을 그린 산신도를 살펴봐도 대부분 남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근엄한 관관의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호랑이를 탄 신선 또는 소나무 밑에서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책을 든 학자의 풍모를 보이고 있는 산신도 있다.

이렇듯 산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령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기복을 책임지며, 사찰의 산신각 또는 무신도 등에서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요즘은 도심 속에서도 산신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주민들의 욕구를 제의가 적극 수용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사업의 번창,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자녀의 학업성취 및 출세 등 공동체의 소망을 제의에 담아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동신당**(김태곤, 대원사, 1999), **산신**(서영대,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산신도**(윤열수, 대원사, 2000), **산신신앙연구**(손정희, 한국민족문화연구 1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서낭당**(이종철 · 박호원, 대원사, 1999), **한국무신도**(김태곤, 열화당, 1993), **한국의 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의 무신**(강릉시오죽헌 · 시립박물관, 2004), **한민족의 마음展**(목아박물관, 2008).

필자 **김창일(金昌一)**

산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산신당(山神堂)

상호참조 산신(403쪽), 산신제(408쪽)

정의 마을의 뒤쪽 산중턱이나 산기슭에 당을 마련하여 산신을 모셔 놓은 마을 제당. 대체로 산 전체를 신성하게 여기면서 산신이라는 신격이 형성되어 산신당을 모시게 된다. 반드시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을의 평지라 하더라도 산신을 신격으로 한 제당을 상정(想定)하기도 한다. 산신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섬

기는 제당이라는 점에서 마을신앙에 포함되는 반면에 때로는 무당들의 기도처이기도 하여 무속신앙에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가정 단위로 산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 가정신앙에 포함될 수도 있다.

어원 산신당은 산신을 모신 마을 제당을 일컫는다. 산제당, 산신각, 산령각 등으로 불린다. 산제당은 산신당에서 제를 지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산령각은 산신을 산신령으로도 부르며, 그 신령을 모신 제당이 누각처럼 산 위쪽에 지은 당집이어서 붙여졌다. 산신각 역시 제당 형태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유래와 역사 산신에 대한 기록은 일찍이 『삼국유사』 단군신화에 등장한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하여, 1500년 동안 다스리고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 천신의 아들인 환웅이 신단수 아래로 강림하고, 그 후예인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산신신앙의 전범이 된다. 명산대천의 산신이나 지신, 용신신앙 등이 모두 근원적으로는 천신이며, 나중에 인간과 가까운 신으로 변용된다. 산신은 천신의 1차적인 변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천신의 성격을 지니면서 실질적인 최고신이 되고 천신이 관장하는 대우주를 산신이 담당하는 소우주인 마을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신이 나중에 산신으로 변이되는 과정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지만 기록으로 전하는 산신 출현의 시원(始源)이 된다. 이에 따라 산신은 천상으로부터 맥이 이어지고, 『삼국유사』「가락국기」에서 부족들이 구지봉(龜旨峰)에 모여 제의를 통해 건국 시조를 하늘로부터 맞는 것도 하늘과 산이 연계되는 단군신화와 맥락을 함께한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등에는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많이 보인다. 조선 태조 2년 정월에 지리산 · 무등산 · 금성산 · 계룡산 · 감악산 · 삼각산 · 백악산과 진주의 성황을 나라를 지켜 주는 신으로 위했고, 태조 4년 12월에는 남산을 목멱대왕으로 봉하여 일반의 잡사(雜祀)를 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후대로 내려오면서 산을 위하는 신앙이 성행하였다.

형태 우리의 전통적인 마을은 산을 등지고 남향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 뒷산 턱에 산신을 모신 산신당이 있고,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길 옆에 서낭신을 모신 서낭당이 있으며, 그 옆에 장승이나 솟대가 있는 것이 마을신앙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한 마을에 산신당과 장승 · 솟대라는 두 신격이 존재하는 경우 산신은 상당이 되고 장승과 솟대는 하당이 된다. 반면에 국수당까지 삼당 체제인 경우 국수당이 상당이 되고, 산신당은 중당이 된다. 산신당 자체가 윗당과 아랫당으로 분화된 경우도 있다.

산신은 애초 천신을 원류로 하지만 대체로 단순한 자연신이나 마을에 처음 들어온 조상신 또는 역사와 관련된 인물신 등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만큼 산신의 변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산신은 대체로 주산(主山) 또는 진산(鎭山)에 모시지만 주산을 상정하기 어려운 평야지대나 바닷가의 마을, 진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은 산신을 모실 적당한 산이 없기 때문에 산신당이 아예 마을 어귀나 한복판에 나와 있기도 한다. 아니면 마을 어귀를 포함하여 마을 둘레에 적당한 노거수(老巨樹)를 여러 그루 심거나 선택하여 이를 당산으로 모신다. 마을 앞뒤에 산이 있다면 앞당산과 뒷당산이라 하여 두 분의 산신을 모시기도 한다.

산신당은 자연 제당과 당집 제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래의 모습은 자연 제당이었으나 점차 형태가 다양해진 것이다.

마을신으로 신앙되는 산신신앙은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골매기신앙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영남 동해안 지역과 당산 신앙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호남지방에도 서낭당과 산신당이 간간이 나타난다.

산신당의 위치는 설령 마을 어귀에 있다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곧 산신당에서는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지만 이와 달리 평지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산신당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자리 잡은 경우도 있다. 산신은 마을을 보되 마을은 산신을 볼 수 없게 배려된 것이다.

내용 산신신앙의 주 대상이 산신의 성체(聖體) 상징인 산신을 신앙하는 것이지만 그 산이 성체로 상징되기까지는 하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산신신앙이 천신신앙의 1차적 변용이라 했듯이 산신신앙의 밑바탕에는 하늘 숭배의 잔영이 간간이 이어져 온다. 높은 산에 천왕봉 · 천마산 등 하늘 천(天) 자를 붙여 명산으로 위하고, 기우제를 지내면서 하늘과 연계되는 성산(聖山)으로 위하는 것 등에서 산신과 천신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산신은 호랑이로 상징되기도 하여 산신신앙이 호랑이 숭배로 나타나는 예도 있다. 민간에서는 호랑이를 신성시하여 산왕(山王), 산군(山君), 산령(山靈), 산까시, 산지킴, 산주인, 산영감 등으로 부르면서 "호랑이"나 "범"이라고 직접 동물 이름 부르기를 꺼린다. 이것은 호랑이가 산신의 화신(化身)이어서 "호랑이"라고 부르면 산신이 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산신당 국립민속박물관

오산리 산신당

사문리 대사마을 산신당

대야마을 산신당

산신이 호랑이로 상징되는 것은 호랑이가 한국의 산짐승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고 크고 무서운 동물로 깊은 산중에 살기 때문에 산신의 사자(使者) 또는 화신으로 여긴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산신을 신앙하는 신앙 구성 내용에는 산의 성체 상징인 산신이 주 대상이면서 그 밑에는 하늘을 숭배하는 천신신앙의 잔영이 남아 있고, 여기에 산과 연계된 후기적인 호랑이 숭배 요소도 복합된 것으로 보인다.

산신은 산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 마을공동체의 모든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마을 공동체를 지켜 주는 신이다. 따라서 산신숭배가 마을신앙의 중심을 이룬다.

산신은 남신인 경우도 있고 여신인 경우도 있으며, 남녀신을 함께 모시기도 한다. 당 안에는 산신의 위패를 모시거나 때로 산신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산신도를 걸기도 한다. 산신이 실제 존재한 역사적 인물인 때에는 나무나 흙으로 신상(神像)을 만들어 모시기도 하고, 옆에 토제나 목제의 말이 보조신으로 안치되기도 한다.

산신 위패에는 '○○산신지위(山神之位)' 또는 '○○산령지위(山靈之位)' 등으로 묵서하여 산신이 의지할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산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 산신이 특정 고을이나 마을과 관련된 지역신적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위패와 함께 산신을 구체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산신도(山神圖)이다. 산신도에서 산신은 백발이 성성하고 흰 수염이 길게 난 노인 또는 신선(神仙)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 옆에는 호랑이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

산신제를 정성껏 모시지 않으면 호환(虎患)이 있다든지 산제당에서 호랑이가 눈을 번득이며 돌이나 흙을 뿌린다든지 하는 설화를 흔히 듣는다. 호랑이는 산신을 수호하는 역할도 하며, 때로는 산신을 등에 태우고 먼 거리까지 빠르게 모셔다 드리기도 한다. 산신의 명령을 대행하는 일도 물론 호랑이 차지이다.

호랑이는 대단한 힘과 용맹을 지닌 동물로 상정되어 호환에 의한 피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실로 여겨졌다. 이런 생각들은 호랑

이를 두려움과 존경의 양가적 대상으로 만들고, 마침내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산신당에 쇠말[鐵馬]을 안치한 마을도 있다. 쇠말은 산신당 부근의 바위그늘이나 산신당 안에 모신다. 쇠말대신 흙으로 빚은 토마(土馬)도 있다. 한 마리에서 서너 마리까지 안치하기도 한다.

산신은 마을신앙뿐만 아니라 무속신앙, 가정신앙과도 연관되어 있다. 무속에서는 무신, 가정신앙에서는 가신, 불교에서는 신중(神衆)으로 각각 자리 잡고 있다. 산신각에서 무속의례를 행하고, 특히 불교에서는 산신각이 별도로 있거나 삼성각에서 산신·칠성·독성과 함께 모셔지기도 한다.

사찰의 중심인 대웅전 뒤쪽에 있는 삼성각에는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점잖은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옆에 두고 앉아 있는 산신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불공을 드릴 때 도량(道場)을 지키는 신중(神衆)을 맞아들이는 신중작법(神衆作法)에서 산신을 신중의 한 신으로 맞아들여 제의를 받게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에서 대부분 산신당을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산신이 한국의 보편적인 마을신으로 신앙되기 때문에 산신 기반이 무속과 불교로 확산되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례 마을 제당의 명칭은 모시는 신의 성격에 따라 붙여진다. 산신당은 산신을 모시는 마을 제당이다. 그러나 산신당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제의를 산고사, 산제사 등 다양하게 부른다. 산신당은 대체로 마을의 뒷산이나 그 부근의 산에 위치하지만 마을의 입지 조건이나 문화전통에 따라 마을의 복판이나 입구 근처에 자리 잡기도 한다.

경북 예천군 하리면 은산리의 산신당은 마을 어귀에 자리하고 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는 마을이 넓은 평지에 자리하여 부근에 산신을 모실만한 적당한 산이 없어서 마을 복판의 소나무 숲을 당산으로 삼기도 한다.

충남 계룡시 두마면 향안리는 계룡산 남쪽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 달집 형태의 산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윗말 향적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산제당은 2000년대 들어 신축하여 붉은 벽돌을 쌓고 기와를 얹었으며, 알루미늄 문틀로 출입문을 만들었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오티마을의 마을 제당 구성은 독특하다. 이 마을에는 산신당과 상당, 하당, 본당(本堂)이 있다. 산신당은 마을의 주산으로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뒷산에 있으며, 상당은 다섯 고개의 최고봉인 봉화재에 위치한다. 상당 아래에는 네 개의 하당과 모든 신당을 통합하는 본당이 있다. 본당은 모든 신당의 중앙에 해당되는 장소에 위치하며, 마을회관 앞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이다.

장승마을로 알려진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에서는 음력 이월 초에 장승제와 산제를 지낸다. 산제당은 마을 뒤 당산 능선에 자리하고 있지만 당집은 없고 큰 소나무와 평평한 공지(空地)가 있을 따름이다. 이 공지와 소나무를 산제당이라고 한다. 이 마을은 산간이어서 산신을 각별히 중시한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에 있는 산신당은 당집 형태이다. 여기에는 재실과 부엌이 함께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동신당**(김태곤, 대원사, 1992),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한국 민간신앙 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민속학개론**(김명자 외, 민속원, 1998), **한국의 마을신앙 상**(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김명자(金明子)

산신제(山神祭)

상호참조 산신(403쪽), 산신당(405쪽)

정의 산신에게 올리는 제의. 고대사회의 제천의례에 뿌리를 두고 이어져 온 것으로, 오늘날 지역민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는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내용 우리나라 국토 70%가 산이다. 최고봉인 백두산(2,744m)을 위시하여 수없이 많은 산이 국토를 빽빽하게 메우고 있다. 이러한 산악 지형적 여건과 환경은 한국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로 인해 한국 역사와 문화는 자연스럽게 산으로부터 시작된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로부터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하강한 곳이 산(태백산)이요, 나라를 세워 백성을 다스린 단군왕검이 산신이 되었다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이 이를 역사적 사실로 뒷받침하고 있다.

집에 집 지킴이가 있듯이 산에도 주인이 있다. 그가 바로 산신령(山神靈)이다. 산신령은 초능력적 영험력을 발휘하여 인간세상을 지배하여 왔다. 이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산을 숭배하여 온 것이다.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에 헌강왕이 오악신(五嶽神)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사실은 한민족이 오래전부터 산을 숭배한 풍습을 잘 알려 주고 있는 좋은 대목이다. 신라 때에는 삼신산(三神山)으로 여긴 금강산·지리산·한라산을 숭배하였고, 오악산으로 불린 토함산·계룡산·태백산·부악·지리산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고려 때에도 지리산, 삼각산, 송악산, 비백산의 사악신(四嶽神)에게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도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지리산, 삼각산을 오악산으로 숭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500여 고을에서도 주산(主山)이나 진산(鎭山)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산신제를 봉행하여 산악신앙의 맥을 이었다.

산악신앙의 맥은 오늘날 산신제라고 하는 민간제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산신제는 지역민의 평화와 안녕을 도모하고 국가의 시화연풍(時華年豊)을 염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산신제를 통해 인간 세상의 일들을 하늘세계에 알리면서 신과 소통하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함이다. 즉 인간들이 산을 매개체로 하여 하늘과 연결 통로를 만들어 신과 교감대를 형성하면서 기원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러한 산신제는 고대사회에서부터 있어 온 대규모적 제천의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신인합일사상(神人合一思想)에 근거하고 있다. 산신제의 전통이 오늘날에 와 지역 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행사로 축소되면서 본래 의미보다는 지역민 보호와 안녕 추구로 목적이 바뀌게 된 것이다.

산신제의 전통을 잇게 하는 산의 주인인 산신령은 산신, 산신할아버지, 산할아버지, 할아버지, 산신령님, 신령님, 산왕, 산왕산신, 산군, 산령, 산귀신 등으로 불린다. 또한 산명을 붙여 태백산 산신령, 지리산 산신령 등으로 부른다. 이러한 산신들은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가 사후에 산의 주인으로 신격화된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넓게는 국가, 좁게는 부락을 수호하는 신으로 추대된다.

한편 산신령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산신도이다. 그림에 보면 호랑이의 변화신인 신선이 호랑이 등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선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서 근엄하게 백발노인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간혹 선녀나 동자를 데리고 다닌다. 산 중의 왕으로 불리는 호랑이는 영험력을 소유한 신격이나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서 변화성, 개혁성, 기술성, 생산성 등을 상징한다. 산신령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는 음양오행의 목성(木性)에 해당된다. 이는 곧 아침 해가 뜨는 동방(東方)을 상징하면서 시작과 솟음을 뜻한다. 서낭당에 소나무가 신목(神木)으로 모셔지고, 신 내림굿의 일월(日月)대를 동쪽으로 뻗어 자란 소나무 가지로 삼는 데서도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나무는 음(陰)의 나무로서 맑고 깨끗한 깊은 산중에서 사시사철 푸른 색채를 지니며 자란다. 여기서의 푸른색

원수산산신제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2003.11.26, 최호식

은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다. 산신령 두상 후광의 빛은 곧 산신령이 늘 신비스러움과 영험스러움을 나타내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산신령이 들고 다니는 죽순은 남성 성기를 상징한다. 이는 자손 점지를 암시하는 동시에 권력을 뜻한다. 산신령은 영초(靈草)인 산삼과 조롱박 안의 불사약(不死藥)인 영약(靈藥)을 소지함으로써 죽음에 다다른 사람도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묘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신령 옆에 있는 동자의 오른손과 왼손에도 산삼과 영지가 들려 있기도 한다. 애기씨(선녀) 오른손에는 사후세계를 상징하는 영적인 꽃이 들려 있다. 또한 왼손에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볼 때 사용되거나 바람을 일으켜 인간 사회를 오갈 수 있도록 돕는 부채가 들려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산신령 그림에 나타나는 영지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곧 아기를 생산함을 상징한다.

지역사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3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매년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내는데 이를 '산 치성' 또는 '산제'라고 한다. 제의 비용은 마을 공동 소유의 논에서 나온 수익과 마을 주민들이 추렴한 금액으로 충당한다. 산신당에는 산신할아버지와 호랑이가 그려진 가로 143㎝, 세로 99㎝ 크기의 산신도와 함께 '산신지위(山神之位)'라고 쓰인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제의는 음력 정월대보름날 0시에 시작하여 새벽 3~4시까지 진행된다. 제일(祭日)을 정월대보름날로 정한 이유는 이 때가 만물이 가득 차는 시기로 풍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또 이 때 산신제를 지내면 한 해의 농사가 풍족하게 된다고 믿는다.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제관을 선출한다. 마을 회의를 통해 부정 없는 가정을 선택하여 당주를 정하고 화주와 풍물패 등을 선정한다. 그리고 마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서 부정한 사람이나 짐승의 접근을 막는다. 산신당을 청결하게 하고 당주가 머무르는 공간에 농기(農旗)를 세운다. 제물준비를 위해 먼저 조라술을 담근다. 그리고 배, 사과, 밤, 대추, 명태, 산자, 약과, 곶감, 줄미역, 산적, 조기, 명태어탕, 쇠고기육탕, 두부탕, 돼지고기, 소주 등을 마련한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지낸다. 제관들이 '강신제-참신제-독축-분향-초헌례-분향-아헌례-분향-종헌례' 순으로 진행한다. 산신당 안에서 산신제를 지낸 뒤 밖으로 나와 산신할아버지와 산신할머니가 데려온 하인들을 위한 허공산신제를 지낸다. 순서는 산신당 안에서 지낸 것과 비슷하다. 허공산신제가 끝나면 음복하고 소지를 올린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서는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먼저 제물을 준비할 도가를 뽑는다. 도가로 뽑힌 사람은 사흘 전부터 목욕재계하는 등 몸을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산신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금줄을 친다. 제물은 돼지머리, 고기산적, 떡, 부침개, 삼색실과, 메, 술 등을 준비한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지내는데, 초헌관이 분향재배하고 술잔을 올리고 나면 축관이 제문을 읽는다. 그런 뒤 아헌관과 종헌관이 술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초헌관이 소지를 올리는데 이때 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산신이 흠향한 것으로 본다. 제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음복하면 산신제가 마무리된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정성껏 모시면 마을이 편하고 풍년이 들것이라고 믿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용부원리의 산신제는 마을 사람들의 지연적 유대를 강화하고 자부심과 긍지 및 향토애를 갖게 하는 기능이 있다.

참고문헌 **부여저석리 산신제**(부여문화원, 2007), **산과 산신령**(양종승, 민속소식 85, 국립민속박물관 2002), **죽령산신당 당신화 다자구할머니와 죽령산신제**(최운식,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필자 양종승(梁鍾承)

삼국지위서동이전 (三國志魏書東夷傳)

정의 위(魏)·촉(蜀)·오(吳) 세 나라가 정립한 중국 삼국시대(220~280)에 관한 역사서 『삼국지(三國志)』 중 동이에 관한 열전.

내용 『삼국지』는 서진(西晉) 사람인 진수(陳壽, 233~297)가 280~289년 사이에 편찬한 중국 삼국시대에 관한 정사(正史)이다. 이 책은 위서(魏書) 30권, 촉서(蜀書) 15권, 오서(吳書) 20권이며, 각각은 본기(本紀)와 열전(列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위서」의 제30권이 '오환선비동이열전(烏丸鮮卑東夷列傳)'이므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이란 『삼국지』 권30 가운데 동이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삼국지』 「위서」 동이전을 줄여 '위지(魏志) 동이전'이라고도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구성은 먼저 서문이 있고, 다음으로 부여(夫餘)·고구려(高句麗)·동옥저(東沃沮)·읍루(挹婁)·예(濊)·한(韓)·왜인(倭人)의 열전이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오래된 자료라는 점이다. 사료는 오래된 것일수록 그 가치가 높다. 그런데 중국의 『삼국지』가 3세기경에 편찬된 반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료인 『삼국사기(三國史記)』는 12세기에 편찬되었다. 따라서 『삼국지』는 『삼국사기』보다 900년 이상 앞선 사료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둘째, 동시대 사료라는 점이다. 동시대 사료란 사실이 있었던 시기와 그 사실을 기록한 시기가 비슷한 사료를 말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중국의 역대 정사는 단대사(斷代史)로서, 해당 시기의 역사를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삼국지』도 예외가 아니다. 즉 3세기 당시 동이 사회의 상황을 3세기에 기술했다는 점에서 동시대 사료라는 것이다.

셋째, 동이 사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중국 역대정사의 외국열전에서 한반도를 언급한 것은 『삼국지』 이전에도 있었다. 『사기』나 『한서』 「조선전」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조선과 중국 간의 교섭 기록이 전부이다. 이에 비해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교섭 기사뿐만 아니라, 동이족 사회의 다양한 사실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위치와 강역·인구·정치체제·사회조직·의식주와 풍속·신앙 등이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여의 영고(迎鼓)를 비롯한 제천의례,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과 호랑이신 숭배, 삼한의 천군(天君)·소도(蘇塗)와 농경의례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한국 고대의 민속종교나 마을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다.

물론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도 한계는 있다. 중국인의 선입견이나 피상적 관찰로 말미암은 오류도 있고, 3세기 이전의 상황을 무비판적으로 수록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도 있다. 예컨대 백제와 신라가 『삼국지』 「위서」 동이전 당시까지 삼한 소국의 하나에 머물렀다는 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사료 비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참고문헌 **동이전의 문헌적 연구**(전해종, 일조각, 1980), **중국정사의 외국열전**(고병익,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중국정사조선전 역주 1**(서영수 외, 국사편찬위원회, 1987), **한국종교사 자료로서의 삼국지 동이전**(서영대, 한국학연구 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필자 서영대(徐永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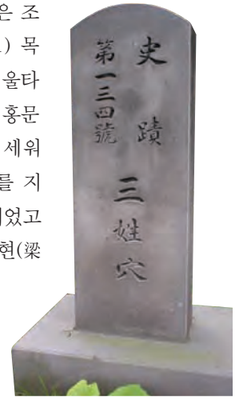
삼성혈(三姓穴)

상호참조 삼성혈제(415쪽)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 외 7필지에 있는 사적지로, 탐라국 시조에 대한 제의가 이루어지는 장소. 1964년 6월 2일에 '사적 제134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처음 조성될 당시만 해도 개소리,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가(人家)와 멀리 떨어진 신성한 곳으로서 탐라국 시조를 모셔 제사를 지내기에 적소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변에 광양성당, 광양초등학교, 보성시장과 주택가가 자리하는 곳으로 변하였다.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3만 3,833㎡에 이르며 돌담이 둘러쳐진 가운데 전체적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다.

원형의 돌담은 각석을 겹담으로 쌓아 둘렀다. 삼성혈은 조선시대 1526년(중종 21) 목사 이수동(李壽童)이 돌 울타리를 쌓고 혈(穴) 북쪽에 홍문(紅門)과 혈비(穴碑)를 세워 후손들에게 혈제(穴祭)를 지내게 함으로써 성역화되었고 1772년(영조 48)에 양세현(梁



사적지 표지
제주 제주시 이도1동
2010.5.8. 김동섭

삼성혈 제주 제주시 이도1동, 2010.5.28, 김동섭

전사청

숭보당

수직사

제기고

종무청

삼성혈

삼성전

전시관

삼성문

世絢) 목사가 바깥 담장을 쌓아 소나무를 심게 하고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향청(鄕廳)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삼성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구, 제의 준비처, 제의처, 전시관 등으로 4개 지역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입구에는 홍살문(높이 300㎝, 기둥 직경 30㎝)이 세워져 있고, 돌하르방(높이 220㎝)이 함께 놓여 있다. 그 옆에 '탐라국발상지'라고 새겨진 자연석과 사적지 표지(길이 77㎝, 폭 28㎝, 두께 13㎝)가 세워져 있어 도심의 다른 지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자란 수목들이 수림을 이루고 있다. 이 홍살문은 조선 중종 21년 목사 이수동에 의한 것으로, 당시 중종이 홍문과 표단을 내렸다는 기록이 전한다. 사적지임을 알리는 한글과 영문 표기의 안내문을 지나면 출입구인 건시문을 만난다. 삼성혈로 들어오는 첫 대문인 건시문은 삼문 형태로 기와를 얹었다. 양쪽 앞에는 돌하르방이 놓여 있다. 혈 안에는 울창한 수림과 몇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관람로가 갖추어져 있다. 관람로는 현무암을 판석(板石)으로 다듬어 깔아 비가 내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제의 준비처에는 많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건시문을 지나 왼쪽에 붉은 흙인 송이를 바닥에 깔고 자리하고 있는 숭보당을 중심으로 동남쪽에 전사청, 숭보당과 전사청 뒷부분에 수직사, 수직사 뒤쪽에 종무청, 전사청 뒤쪽에 제기고가 각각 자리를 잡고 있다.

전사청(奠祀廳)은 제향(祭享)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집으로서 1827년(순조 27)에 세워진 뒤 몇 차례 이건(移建) 중수(重修)하였으며, 2000년 9월에 중건(重建)하였다. 숭보당(崇報堂)은 1849년(헌종 15)에 뛰어난 선비를 두어 면학하던 재사(齋舍)로서 몇 차례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재생들이 학업을 연마하던 숭보당은 1974년 12월에 현 위치로 옮겼다. 건물은 전면 7칸과 측면 4칸인 5량집으로 앞너비 15.95m, 옆너비 6.62m이다. 지붕은 팔작형이다. 높이 0.82m의 부초석 위에 높이 0.75m, 지름 0.28m의 원형기둥을 세웠다. 또 주두(柱頭) 위에 창방과 도리를 사래 맞춤하였으며, 끝막새에는 연화문을 새겼다. 수직사(守直舍)는 삼성혈을 지키는 사람이 사는 집이었으며, 종무청은 삼성혈의 제반 업무를 맡아 보는 재단사무실로 이용되는 곳이다. 제기고는 제의에 사용

되는 제기와 용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제의처에는 입구에 삼성문이 세워져 있고 안쪽에 삼성전이 있다. 후면 북동쪽에 북문, 남쪽에 전향문이 있다. 전향문 서쪽에 혈단문이 있고, 그 안쪽에 삼성혈, 혈단, 혈비가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은 삼성사(三姓祠)를 참배하는 사람들이 분향(焚香)하는 곳이다. 삼성전의 입구인 삼성문에는 향로와 향이 준비되어 있다. 그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이다. 지금부터 약 4,300여 년 전 탐라(耽羅)를 창시한 삼을나(三乙那)의 위패가 봉안된 묘사(廟祠)이다. 신라에 입조(入朝)한 성주(星主), 왕자(王子), 도내(徒內) 삼고씨(三高氏)가 오늘쪽에 배향되고 있다. 1698년(숙종 24)에 유한명(柳漢明) 목사가 혈(穴)의 동쪽에 삼을나묘(三乙那廟, 지금의 三姓殿)를 건립하였다고 하며, 그 후 1703년(숙종 29)에 이형상 목사가 가락천 동쪽으로 삼성전을 옮겼다. 1785년에는 정조가 「삼성사(三姓祠)」라는 편액을 친히 하사하여 왕(王)에 대한 예우로서 국제(國祭)로 봉향하도록 하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종 8년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사우(祠宇)가 한때 헐렸다가 고종 27년에 다시 세웠고, 1910년에 중건하였다.

지금의 건물은 1971년에 낡은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웅건한 모습으로 또다시 중건한 것이다. 건물은 전면 6칸, 측면 4칸의 7량 집이다. 면적은 앞 너비 12.05m, 옆 너비 5.5m이고 지붕은 팔작형이다. 또 높이 0.15m인 원형 주춧돌 위에 높이 1.55m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창방을 사래 맞춤하였다. 양식은 주심포이며, 막새에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수차례 중수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서원(書院)인 삼성사는 1740년(영조 16)에 안경운(安慶運)목사가 재생(齋生)을 두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사액(賜額)이 내려진 것은 1785년(정조 9) 이월이었다. 제주 유학(幼學) 양경천(梁擎天)의 상언(上言)에 따라 예관(禮官) 고택겸(高宅謙)이 와서 '삼성사'란 왕의 어필 액자와 절목을 내렸다. 삼성사에는 장의(掌議) 한 명과 유사(有司) 두 명, 정원 내의 30명, 정원 외 70명의 학생을 두었다.

전시관은 2001년 12월에 개관하였다. 전시실과 영상실을 두고 있는 한식 기와집이다. 전시실에서는 삼성혈과 관련된 현판, 고문헌, 제기 등 실증적인 자료들을 전시함으로써 고대탐라(제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영상실에서는 삼성혈의 신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상영하는 등 신비스러운 제주(탐라)의 역사와 이 고장 선조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탐라 개국신화를 영상화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탐라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는 곳이다.

이밖에도 오랜 유적지가 지니는 오래된 다양한 수목과 고풍스런 정자 및 돌담길 · 유적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의 공로비 등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오고가는 철새의 도심 속 정류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 세 개의 지혈은 주위가 수백 년 된 고목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모든 나뭇가지가 혈을 향하여 경배하듯이 신비한 자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내려도 일년 내내 고이거나 쌓이는 일이 없으며, 주위의 나무들이 혈을 중심으로 모두 수그러져 있어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내용 삼성혈에 얽혀 전해 내려오는 삼성신화는 다음과 같다.

탐라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 옛 기록(동문선, 고려사, 영주지)에 이르기를 기이하게 빼어난 산이 있는데 한라산이라 한다. 구름과 바다가 아득한 위에 완연히 있는데 그 주산(主山)인 한라산이 그의 신령한 화기를 내리어 북쪽 기슭에 있는 '모흥(毛興)'이라는 곳에 삼신인(三神人)을 동시에 탄강시켰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4300여 년 전의 일이다. 삼신인(三神人)이 용출(湧出)하였다 하여 이곳을 삼성혈(三姓穴)이라 하며, 3개의 지혈(地穴)이 있다. 이 신인(神人)들을 이름하여 을나(乙那)라 하며 세 성씨의 시조이며 탐라국을 개국하였다.

그들의 모양은 매우 크고 도량이 넓어서 인간사회에는 없는 신선의 모습이었다. 이 삼신인은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는 원시의 수렵생활을 하며 사이좋게 살았다.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가 멀리 동쪽 바다를 보니 자주색 흙으로 봉한 목함(木函)이 파도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 목함을 따라 지금의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에 이르러 목함을 열어 보았다. 그 안에 알 모양으로 된 둥근 옥함(玉函)이 있었으며, 자줏빛 옷에 관대를 한 사자(使者)가 있었다. 사자가 옥함을 연즉 청의(靑衣)를 입고 자색(姿色)이 출중하고 품질(稟質, 품성)이 단아(端雅)한 공주(公主) 세 사람이 좌석을 정제(整齊, 정돈하여 가지런함)하여 함께 앉았고, 또 우마와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와서 연혼포의 해안 언덕에 내어 놓으니 삼신인이 자축하여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다"하여 기뻐하였다.

사자가 두 번 절하고 엎드려 말하기를 "나는 동해 벽량국(碧浪國, 동해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나라)의 사자올시다. 우리 임금님이 세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성숙함에도 배필을 정하지 못하여 한탄하던 차에 하루는 자소각(紫宵閣, 하늘에 있다고 하는 자줏빛 누각)에 올라 서쪽 바다를 바라보니 자줏빛 기운이 하늘에 이어지고 상서로운 빛이 영롱한 가운데 명산이 있는데 그 명산에 삼신인(三神人)이 강림하여 장차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므로 이에 신(臣)에게 명하여 세 분 공주를 모시고 오게 하였으니 항려(伉儷, 짝, 남편과 아내)의 예식을 갖추어 큰 국업(國業, 나라를 일으킴)을 성취 하시옵소서"하고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동쪽 하늘로 사라졌다. 이에 삼신인은 제물(祭物)을 정결하게 갖추고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고하고 각기 세 공주와 혼인하여 연못 옆 동굴에서 신방을 차리고 생활하니 인간으로의 생활이 시작이며 이로써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정주의 기초가 됐다 하였다.

그래서 자줏빛 함이 올라온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를 연혼포(延婚浦)라 하며, 지금도 세 공주가 도착할 때 함께 온 말의 발자국들이 해안가에 남아 있다. 또한 삼신인이 목욕한 연못을 혼인지(婚姻池)라 부르며, 신방을 꾸몄던 굴을 신방굴(神房窟)이라 하고 그 안에 각기 세 개의 굴이 있어 현재까지 그 자취가 보존되고 있다.

삼신인은 각기 정주할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읍을 정하기로 하고 한라산 중턱에 올라가서 거주지를 선택하는 활을 쏘아 제주를 삼분하여 제1도와 제2도와 제3도로 정하니 이로부터 비로소 산업을 이룩하여 오곡을 심고 우마를 길러 촌락이 이루어졌으며, 자손이 번성하여 탐라국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그 활 쏜 지역을 사시장올악(射矢長兀岳)이라 하며, 활이 명중한 돌을 한데 모아 보존하니 제주시 화북경의 삼사석(三射石)이라 한다.

그 후 역사시대에 이르러서는 탐라국 왕손들이 신라에 입조하여 작호(爵號)를 받았다. 또 신라, 백제, 고구려뿐만 아니라 중국 · 일본 · 유구왕국과도 독립국가로서 교류하며 해상교역 활동도 하면서 수천 년간 탐라국으로의 왕국을 유지하다가 고려시대에 합병됐다고 한다.

삼성혈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으로는 매년 4월 10일에 춘기대제를, 10월 10일에는 추기대제를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각각 봉향하고 있다. 12월 10일에는 건시대제라 하여 혈단에서 제를 지내고 이다. 모든 제관은 왕에 대한 예우로 금관제복을 착용하여 사흘 전에 입재하여 목욕재계하고 제향에 임한다. 지금은 조선시대 때 국제로 모신 것과 달리 제주도민제로 봉행되고 있다. 초헌관은 제주도지사, 아헌관과 종헌관은 덕망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각각 맡아 하고 있다.

참고문헌 **건시대제**(양명일, 고량부삼성사재단, 2009), **국역 태학지상**(김경수, 성균관, 1994), **석전대제**(예능민속연구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김동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박물관 운영부, 2010).

필자 **김동섭(金東燮)**

삼성혈제(三姓穴祭)

상호참조 삼성혈(411쪽)

정의 고량부삼성사재단의 주관 아래 제주특별자치도제 형식으로 삼성혈(三姓穴)에서 이루어지는 탐라국 시조에 대한 제의. 지금은 '건시대제'라 고쳐 부르고 있다. 건시대제는 양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1973년부터 매년 12월 10일을 제일(祭日)로 정해 제의를 봉행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동짓달 상정일(上丁日)이 제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또 삼성혈 혈단에서는 아니지만 경내에 있는 삼성전에서도 후손들을 제관으로 정하여 봄과 가을에 대제를 지내기도 한다.

내용 **1. 제주(祭酒)** 제일(祭日) 100일 전에 제주를 준비한다. 사전에 숙성시켜야 할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담고 준비하는 것이다. 좁쌀 한 섬으로 청주를 담는다. 재단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인건비를 주고 제주를 담았으나 전사청에 술항아리가 두 개 있다. 각각 일곱 말과 여덟 말이다. 누룩은 250개에서 300개 정

삼성혈제 제주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2009.12.10, 김동섭

축함 이동

제물 봉하기

제물 진설 모습

삼상향

전사관복

전폐례

초헌례

독축

음복수조

망료

참배례

음복

도 사용한다. 꽃이 잘 핀 참누룩을 이용한다.

제주는 세 차례 나누어 담는다. 우선 1차에 밑술을 담는다. 이때 전체의 반이 되도록 한다. 우선 차좁쌀을 큰 그릇에 담아 여덟 시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불린다. 그런 다음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에 미지근한 물을 넣어 떡을 만들 수 있도록 익반죽한다. 그런 뒤 주먹만큼씩 떼어내 둥글게 만들어서 속을 비워 문고리처럼 생긴 떡을 만든다. 이를 제주에서는 '오메기'라고 한다. 떡의 크기는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골고루 삶아질 수 있도록 빚으면 된다. 그래야 발효가 잘되어 술 찌꺼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어느 정도 굳어 삶을 때 모양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솥에 넣어 푹 삶는다. 떡을 삶는 동안 솥바닥에 눌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댓잎을 깔아 놓기도 하며, 구멍 난 국자인 '곰박'으로 저어 주기도 한다.

삶아 낸 오메기떡을 장태같이 큰 그릇에 담아 식히면서 방망이(덩드렁마께)와 손으로 떡의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충분히 다진다. 충분히 식는 동안 둥근 형태의 누룩을 꺼내어 가루가 되도록 잘게 부순다. 이 누룩가루를 장태에 넣고 잘 섞이도록 버무린다.

전사청에 마련된 술독에 담가 놓은 다음 물 10되쯤 붓고 나서 뚜껑을 꼭 덮는다. 20일쯤 놓아 두면 거의 발효된다. 20일 정도 지난 뒤 2차로 술밑을 만들어서 넣고 물을 더한 다음 밑술과 혼합되도록 잘 젓는다. 그러면 술맛의 은근함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보름 정도 지난 뒤 마지막으로 술밑을 만들어서 넣고 물을 더해 이전의 밑술과 잘 혼합되도록 젓는다. 그러면 신맛이 덜해지고 단맛이 오래간다.

농익은 술독에서 맨 위에 맑은 웃물을 내면 이것이 바로 청주(淸酒)이다. 이를 혈제에 제주로 사용한다. 사가(私家)에서는 순 곡주(穀酒)여서 안주 없이 마시기도 하며 정초에 세주나 사돈 등 귀한 손님 접대용으로 쓰는 술이었다.

봄과 가을에 빚기가 좋으며 여름은 피하는 게 좋다. 이처럼 청주를 내리는 데 55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다. 숙성이 잘되어야 술이 좋은데 보통 한 섬을 담으면 5, 6말 정도 청주를 얻게 된다.

준비하는 제물 가운데 제주가 정성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어떤 때, 특히 추제(秋祭) 때에는 여름철이 들어 있어서 제주 준비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제기의 세척 및 준비는 일주일 전, 제복의 세탁 준비는 사흘 전에 행함으로써 제의 봉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제관(祭官) 1개월 전인 11월 10일날 정한다. 재단의 이사와 제족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것이 제관추대회의가 된다. 이 자리에서 헌관 및 집사들을 선정한다. 삼헌관, 전사관, 집례, 대축, 알자, 찬자, 봉로, 봉향, 봉작, 전작, 사준, 도예차로 열네 명을 선발한다. 헌관 및 집사자는 복(服)을 입은 상주(喪主)이거나 상처(喪妻)한 홀아비인 경우는 추천하거나 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관으로 입재하면 전사청 내에 헌관실과 집사방이 별도로 나뉘어 있다. 헌관과 집사들의 명단을 해당 방 앞에 붙인다.

3. 입재(入齋) 사흘 전에 본격적으로 제의 준비를 한다. 제관은 한복을 착용하고 전사청에서 지낸다. 시각은 보통 오후 6시쯤이 된다. 이때 도지사도 입재한다. 상견례를 하고 나면 집행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밤 10시 정도에 취침한다. 이때 대축은 축을 작성한다. 원래는 제물을 봉할 때 헌관들 앞에서 작성해야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대축이 미리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작성한 축은 헌관들의 검토 아래 완성된다. 완성된 축문은 홍세미녕(홍세함에 넣는 무명)으로 싼 축함(가로 23㎝, 세로 32㎝, 높이 10㎝ 크기의 나무 함)에 담아 혈단으로 옮기게 된다. 이때 헌관을 모시는 대축이 축함을 들고 선두에 서서 우선 옮긴다.

〈祝文〉

西紀二千九年 ○○十二月○○十日○○
初獻官 濟州特別自治道知事 金泰煥 敢昭告于
耽羅始祖 三乙那伏以 天啓三聖 宣朗人文
猗歟那歟 厥初生民 節屈一陽 追遠之辰
謹以 牲幣醴齊 柴盛庶品 式陣明薦 尙饗

다음 날에는 오전 6시쯤에 기상한다. 집사들이 중심이 되어 혈단 청소를 우선한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제물 봉하는 의식'을 숭보당에서 치른다. 이때 책임관이자 헌관인 도지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물 봉하는 의식'은 준비한 제물들을 헌관들 앞에서 한 품목씩 보이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사관이 주관한다. 헌관들과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사관이 소리내어 "희생 삼두 봉하오"라고 하면 집사들이 그 제물을 들고 헌관들 앞으로 나아가 향로 앞에서 내보이면서 점검을 받는다. 이때 별탈이 없으면 "봉했오"라고 답하면서 다음 차례로 넘어간다. 전사관이 헌관에게 제물을 봉하는 순서와 물목은 '건시대제 물종기(乾始大祭物種記)'로 전해져 온다. 이 책자는 가로 11.5㎝, 세로 16㎝ 크기다.

오후에는 혈단에서 예행연습을 하며 마치 실전과 같이 행한다. 오후 2시에 시작하면 5시쯤 마친다. 그러고 나서 전사청으로 돌아와 강평을 한다. 이때 주무국장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며, 부족하고 서투른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한다.

4. 제복(祭服)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관들은 우선 목욕재계부터 한다. 목욕을 마친 제관들은 향나무를 달인 물로 재계한다.

그러고 나면 헌관들은 관리들의 금관조복(金冠朝服)으로 제복을 차려입고 가죽으로 된 이(履)를 신는다. 초헌관은 7량의 금관, 아헌관은 6량의 금관, 종헌관은 5량의 금관을 착용하는 것이 다르다. 물론 손에는 홀을 든다. 예전부터 참나무로 만든 홀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전사관은 사모에 관복을 착용한다. 흉배(胸背)에는 이수의 학이 수놓아져 있다. 집사들은 유생들의 청의(靑衣)를 차려입고 관대를 두르며, 흰고무신을 신는다.

5. 제비(祭費) 혈제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든다. 국제(國制)의 전통을 이으면서 지금도 제주도제 형식을 취함으로써 도에서 일부 경비를 보조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비는 재단 자체에서 조달하여 운영하는 편이다. 제비로는 제물구입비, 급양비(헌관 및 제관 종사자들의 합숙 때 필요한 식사비용 및 의복비용), 잡비(제관들 거마비)에 충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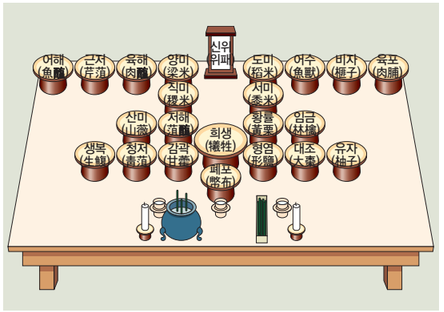
재단에서는 서귀포 강정 하원에 농사가 잘되었다는 논이 제전으로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잘 알지 못하고, 밭 1,320~1,650㎡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재배한 쌀로 제를 모셨다고 한다. 조선시대 제주목사로부터 위토(位土, 소출을 제향비용으로 쓰기 위해 설정한 논밭)로 내린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6. 제기(祭器) 및 용품 제의 봉행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기와 용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제기고를 마련하여 보관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한 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변(籩) : 신위 왼편에 진설하는 제기로, 대나무로 만들어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는다.
- ·두(豆) : 신위 오른편에 진설하는 제기로, 나무로 만들어 젖은 음식이나 젓 등을 담는다.
- ·보(簠) : 신위 앞에 진설하는 제기로, 구리로 네모지게 만들어 도미와 양미를 담는다.
- ·궤(簋) : 신위 앞에 진설하는 제기로, 구리로 둥글게 만들어 서미와 직미를 담는다.
- ·조(俎) : 제단 중앙에 진설하는 제기로, 나무로 만들어 갑(匣)에 담긴 희생을 올리는 데 쓴다.
- ·비(篚) : 제단 중앙에 진설하는 제기로, 대나무로 만들어 폐백(幣帛)을 담아 올린다.
- ·산뢰(山罍) : 준소(樽所)에서 사용하는 술단지로, 구리로 만들고 산과 구름을 새겼다.
- ·용작(龍勺) : 제의 때 사용하는 국자로, 구리로 만들고 헌작(獻爵) 때 쓴다.
- ·작(爵) : 제의에 사용하는 술잔으로, 잔받침은 구리로 네모지게 만든 점(坫)을 쓴다.

이 밖에도 도민과 참배객들을 위한 음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2개, 제의 봉행을 위해 혈단에 설치하는 6개 등 18개의 천막은 별도로 대여하여 설치 · 운영하고 있다.

7. 제물 진설(陳設) 1신위, 2신위, 3신위를 위한 별도의 제단을 준비하여 진설하고 제의 봉행을 운영하고 있다. 제단은 가로 140㎝, 세로 104㎝, 높이 26㎝ 크기의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고, 앞에는 향로석(가로 69㎝, 세로 45㎝, 높이 20㎝)이 놓여 있다. 제단 중앙 뒤편에는 혈비(귀부농대 높이 50㎝, 비신 102㎝, 폭 48㎝, 두께 88㎝, 가첨석 높이 30㎝)가 세워져 있고, 이것이 신위(神位)를 대신한다. 각 신위의 진설 내용을 진설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전 10시에 혈단으로 옮겨온 제수는 전사관의 책임 아래 집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설이 이루어진다. 혈비를 중심으로 세 개의 표단이 준비되어 있다. 신위별로 각각의 제단에는 5열로 제물을 진설한다. 1열에는 어해, 근저, 육해, 양미, 도미, 어수, 비자, 육포가 놓인다. 2열에는 직미와 서미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한다. 3열에는 산미, 저해, 희생, 황률, 임금을 왼쪽부터 진설한다. 4열에는 생복, 청저, 감곽, 폐포, 형염, 대조, 유자를 놓는다. 5열에는 술잔이 놓인다.

8. 제차(祭次)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혈제는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의는 크게 준비례-전폐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수조-철변두-망료-참배례-마침례의 순으로 진행된다.

9. 음복(飮福) 전사청에 제복을 벗어 놓는다. 제관과 집사들은 전사청 내에서 음복을 하지만 참례자들은 바깥에 준비된 천막을 이용한다. 1,000명의 참례자를 위한 음식을 전부 준비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요즘은 도시락을 이용하여 음복에 충당하고, 여기에 더하여 돼지 세 마리를 준비한다. 머리는 단에 올리고, 고기는 삶아서 음복에 충당한다.

10. 뒤풀이 건시대제의 모든 행사는 오후 2시쯤에 끝이 난다. 도민과 참배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면 서로의 수고로움을 격려한 뒤 제관으로 참가한 사람들에게 거마비로 10만 원 정도를 주어 교통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을 위해 미비한 점과 추가해야 할 점 등을 기록한다. 이처럼 도민의 안녕을 위한 제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건시대제**(양명일, 고량부삼성사재단, 2009), **국역 태학지상**(김경수, 성균관, 1994), **석전대제**(예능민속연구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제주도 마을제 종합보고서-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2010).

필자 김동섭(金東燮)

삼척신남마을해신제

정의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에서 정월대보름과 시월 첫 오일(午日)에 지내는 서낭제 중 일부. 이 해신제는 향나무로 깎은 남근목을 봉헌하는 유교식 동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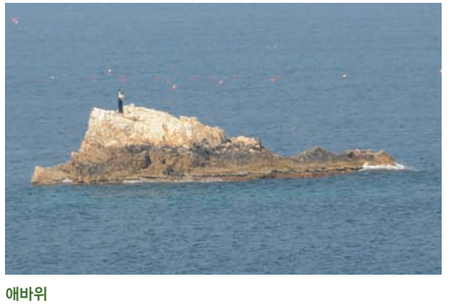
역사 및 유래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원덕읍의 신남마을은 원덕읍의 북쪽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갈남2리에 속한다. 속지명은 '섭너미'인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신남(薪南)'이라 불리게 되었다. 신남마을의 성황당에는 본당(本堂)과 해신당(海神堂)이 있다. 본당은 '큰당', '할아버지당', '큰서낭당'이라고 부르는데 숫서낭 또는 남서낭으로 여긴다. 할아버지당은 1600년 즈음에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엄씨 할아버지'를 성황신으로 모시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성황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엄숙하고 두려워하는 신이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려 하지도 않는다. 2000년 즈음만 하더라도 성황당 근처에는 어린애들을 못 가게 하였고, 여자들도 부정을 탄다고 절대 가지 못했다. 주민들은 예부터 성황님의 영험이 대단하다고만 알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한 특별한 영험담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1986년 새로 지은 해신당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2010.6.24. 윤동환

바닷가에 위치한 '해신당'은 '해랑당', '여신당'이라고 부른다. 물에 빠져죽은 처녀신을 모시는 여서낭당이다. 해신당은 어업에 종사하는 동해안 마을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당이다. 신남마을 해신당에 처녀신을 모시고 남근목을 봉헌하게 된 사유를 알려 주는 전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변형되고 있다. 기존에 밝혀진 삼척의 설화 관련 자료를 보면 애바위 전설과 남근목 봉헌은 전혀 별개인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부터인지 자연스럽게 이 두 이야기가 합쳐져서 해신당에 남근목을 봉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마을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로 인정받고 해신당 입구에 비석으로 남겨진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옛날 이 마을에는 장래를 약속한 처녀 애랑이와 총각 덕배가 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애랑이가 마을에서 떨어진 바위섬으로 미역을 따러 간다 하기에 덕배가 떼배로 애랑이를 바위섬에 데려다 주고 덕배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 해변으로 나와 보니 이미 배를 띄울 수가 없을 만큼 강한 바람과 함께 집채 같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애랑은 살려 달라고 덕배를 부르며 애원하다가 안타깝게도 파도에 쓸려 죽고 말았다.
>
> 그 후부터 이 바다에서는 고기가 전혀 잡히질 않았으며,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재앙 모두가 바위를 붙잡고 애쓰다 죽은 애랑이의 원혼이 한 짓이라 생각하고 뜻을 모아 애랑이가 죽은 동쪽 바위섬을 향해 정성스레 음식을 장만하여 고사를 지냈다. 그러나 고기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마을과 어부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져 가기만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 어부가 술에 취해 고기가 잡히지 않은 데 대한 화풀이로 바다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면서 소변을 보았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다른 배들은 여전히 빈 배인데 그 어부만 만선으로 돌아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주민들은 그 어부에게 까닭을 물었고, 어부가 지난 저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바다를 향해 오줌을 누고 조업을 나갔고, 기대한 대로 모두들 만선으로 돌아왔다.
>
> 그 후 이 마을에서는 그동안의 재앙이 처녀 애랑이의 원한 때문이라 확실히 믿고 애바위가 보이는 산 끝자락에 애랑신을 모시고 남근을 깎아 제물과 함께 바쳐서 혼인을 못한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

해신당은 신남마을의 가장 안쪽 바닷가 언덕에 한 서낭산(해산)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몇 년 전부터 대형 남근 조각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국내외 언론에 소개됨으로써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산의 생김새는 마치 바다를 향해 불끈 일어난 남근과 같이 생겼다. 그 귀두부분에 향나무 신수(神樹)와 그 앞에 당집이 서 있다. 돌출한 낮은 구릉의 끝부분을 '서낭댕이'라 하며, 그 아래에 돌 제단을 야트막하게 만들어 제를 지냈다. 30여 년 되었다는 '해신당'이라고 음각한 현판이 향나무 중간에 걸려 있으며 나뭇가지에는 무당들이 개인적으로 복을 빌면서 걸어 둔 복주머니와 삼색천이 있었다. 1986년에 삼척군은 도비(道費)를 지원받아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13㎡ 정도의 기와를 얹은 팔작지붕 형태의 당을 해신당의 신수 앞에 지었다. 당집 안에는 용모가 단정한 분홍치마, 노랑저고리 차림의 여신이 화상으로 모셔져 있다. 왼쪽 벽 모서리에는 제물로 바친 남근목 다섯 개를 한 줄로 엮어서 걸어 두었으며, 오른쪽 벽 모서리에는 향나무로 잘 깎은 남근목 다섯 개를 액자에 넣어 보여 주고 있다. 제단에는 향로와 촛대, 과일 · 과자 등 제물이 놓여 있다. 최근에 불전함이 제단 왼쪽 구석에 놓였다. 전국에서 많은



애바위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2010.6.24. 윤동환

무속인이 이곳을 찾아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내용 현재 신남마을에서의 동제는 정월대보름날과 시월에 지낸다. 시월의 경우에는 첫 오일, 즉 첫 번째 말띠 날에 지낸다. 죽은 처녀의 기가 세다고 하여 기가 가장 센 말의 날로 잡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12지신 중에서 말의 성기가 가장 큰 이유도 있다.

본당은 7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마을 어귀의 오른편 언덕에 있다. 2000년 4월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불에 타서 새로 지은 것이다. 당시에 산불이 크게 났지만 당 주변의 나무들은 타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서낭님의 영험함 덕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본당은 원래 마을의 가운데에 있었으나, 1900년 무렵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당이 떠내려가서 현재의 위치로 모셨다고 한다. 성황당 건물 오른쪽 뒤에는 '서낭 솔'이라 부르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 예전에는 이 신성한 소나무 앞에 제단을 설치하여 제를 올렸으나 나중에 제단을 헐고 그 자리에 당집 형태의 건물을 지었다. 마을 어른들에 따르면 어릴 때 성황당이 건물 형태로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집 형태의 성황당에서 동제를 지낸 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부터 이곳의 나무들은 함부로 벨 수가 없고, 단지 마을에 초상이 났을 때 마을 공용의 상여틀을 만들 때에만 몇 그루 벨 수 있었다.

본당은 전체가 13㎡ 남짓 되는 장방형 구조의 기와지붕을 한 시멘트 건물이다. 처마를 각목 받침의 겹처마 형태로 구성한 것이 특이하다. 당 주변의 양 옆과 뒤쪽으로 돌담을 쌓고, 당집은 양 옆으로 창문을 냈다.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새시(sash)로 만들었다. 당의 내부는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고 신위를 써 놓았으며, 한지가 걸려 있다. 당의 외부에는 「성황당」이라는 편액을 내걸었고, 내부 정면에는 나무로 만든 문갑 형태의 제실을 만들고 '성황지신위(城隍之神位)'라고 쓴 위패를 모셨다.

제관은 당주 한 명과 제관 다섯 명으로 구성된다. 마을 주민이 많은 때에는 정확하게 여섯 명을 뽑았으나 주민 감소로 제관과 당주를 겸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다섯 명의 제관 가운데 당주를 포함한 세 명은 본당으로 가고 두 명은 해신당으로 간다. 제관은 제일(祭日) 열흘 정도 앞두고 정한다. 제관을 선정할 때 주관은 이장이 하지만 보통 한문을 잘 알고 책

해신당 안의 처녀화상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2004.5.12, 윤동환

력 등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선정한다. 미리 생기복덕을 살펴서 괜찮은 주민을 몇 명 선정해 두면, 이장은 그 사람들에게 "금년에 제관으로 나간다"고 암시해 준다. 과거에는 제관으로 지목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제관의 소임을 다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생업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제관을 선정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미리 제외시키지만 마을에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최우선자가 제관을 맡을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부탁한다. 젊은 사람이나 집안의 여성이 월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관이나 당수가 될 수 없다. 미혼자와 독신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관 후보에서 배제한다. 금기가 심한 때에는 가족 중에 월경 있는 자를 성황제 기간에 친척 집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과거에 비해 매우 약해진 상태이다.

제관이 선정된 이후부터 제관과 당주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고 꼭 해야 할 일만 한다. 금줄은 본당과 해신당, 당주 집에 치는데, 통상 5~10일 전에 치며 더 일찍 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본당 옆에서 가져온 붉은 황토를 함께 뿌린다. 그러나 2006년에 제물 준비를 마을회관에서 하면서부터 본당과 해신당, 마을회관에 금줄을 치고 있다. 금줄은 제관과 당주가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왼새끼에 한지를 끼워서 만든다. 제관은 금줄을 치기 전에 본당과 해신당을 깨끗이 대청소한다.

제관과 당주는 제사가 끝날 때까지 까다로운 금기를 지켜야 한다. 즉, 집 밖 외출을 금하고, 부정한 것들을 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고, 마을에 초상이 나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은 마을 주민들도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여자들은 정초부터 제사가 끝나는 날까지 나들이를 삼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런 금기가 완화되었다.

당주 집에서 하던 제물 마련은 2006년 무렵 마을회관으로 옮겼다. 제물 장보기는 주로 삼척중앙시장이나 북평 장을 이용한다. 과거에는 제사 5~6일 전에 장을 보지만 요즘에는 개인적인 생업 문제로 전날에 간다. 금기가 많이 약해졌지만 최대한 부정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일찍 출발한다. 이때 제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하며,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부르는 대로 지불하며, 젊은 상인은 부인에게 몸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파는 집을 피한다. 상인들 역시 제물을 장만하러 장에 왔음을 알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지 않고 좋은 물건을 준다고 한다.

제물은 어물(대구 · 명태 · 문어 · 열기 · 가자미 등)과 과일(대추 · 밤 · 곶감 · 사과 · 배 등), 탕에 쓰이는 콩나물 · 무, 명태나 대구포, 김이다. 나물로 쓸 고사리, 도라지 등은 따로 산다. 또한 제사에 필요한 초, 향, 창호지 다섯 장 불천지(소지종이)를 충분히 산다. 제주(祭酒)는 고사 이틀 전에 임원 버스정류장 앞의 임원양조장에 특별주문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장보는 날에 막걸리를 넉넉히 사서 준비해 둔다. 요즘에는 소지 · 양초 등 제사용품은 불교사, 과일은 농협마트, 쇠고기는 단골처를 정하지 않고 그날 장보러 간 제관들이 끌리는 집으로 가서 각각 사온다. 과거에는 소를 잡아서 제수로 사용했지만 그것은 1960년쯤의 일이다.

장을 봐 온 제물은 당주 집에서 준비할 때에는 당주 집에 보관했지만 부인회로 이전되고부터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요즘에는 음식을 만들 때 머리에 수건을 써서 위생에 최선을 기하지만 과거에는 동백기름을 발라서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간은 대충 싱겁게 맞추는데 절대 맛보지 않고, 간장과 소금만 쓴다.

국은 콩나물을 넣어 끓이고 편은 백설기이다. 탕은 삼탕으로 어탕, 육탕, 소탕을 준비하면, 어탕에는 어물에서 나오는 몸통과 명태를 쓰고, 육탕은 쇠고기와 무, 소탕은 무만을 각각 넣어 끓인다. 어물은 한 접시에 쌓아 담아서 올리며, 문어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따로 접시에 담는다. 나물은 고사리, 콩나물, 도라지, 미나리 등을 한 접시에 동그랗게 모아서 담는다. 쇠고기산적과 두부, 유과 등도 올린다. 과거에 비해 제물 수가 많이 늘어난 편이다. 제기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목기가 있다. 마을회관에서는 당주댁 혼자서 제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작해도 손이 바쁘다. 저녁식사 후 제관들은 준비된 제물을 정리하고, 밤 11시가 되면 새옹메 두 그릇을 짓기 시작한다.

제물에서는 향나무로 만든 남근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관들은 제사 전날 오후 마을회관에 모여 대략 3단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남근목을 만든다. 남근목 만들기는 원목의 모서리 다듬기-큰 윤곽 손질-음경 부분 조각-귀두 가공-몸통 가공-마무리의 순으로 한다. 남근은 길이 22~23㎝, 굵기는 3.5~4㎝, 귀두 길이는 4.5~5.5㎝ 크기로 2005년 정월 제사 때 다섯 개를 제작하였다. 나무에 따라 길이나 굵기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금은 고사한 해신당 주변에 있던 향나무를 길이 20㎝정도로 잘라둔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매년 비슷한 크기로 제작한다. 완성한 남근목은 귀두 부분을 보통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새끼줄에 끼

해신당 좌측에 걸려있는 목제남근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2010.6.24, 윤동환

워서 벽에 걸어 둔다.

제비는 마을공동기금과 개인적인 기부금, 해신당 안에 만들어 놓은 부조금으로 충당한다. 제비는 주로 제수 및 용품 구입, 목욕비 및 제관 활동비, 당주댁 수고비 등으로 지출된다. 제관과 당주에게 주는 수고비는 과거에는 없었다가 최근에 제관은 5만 원, 당주댁은 6~7만 원 정도 준다. 제비의 지출 내용과 비용은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의는 본당부터 행한다. 본래 제관들은 본당에서 제를 지낸 뒤 해신당에 가서 제사를 올렸지만, 지금은 제관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은 본당, 두 명은 해신당으로 나누어서 제의를 진행한다.

마을회관에 모여 있는 제관들은 밤 12시가 되면 제물을 준비하여 본당과 해신당으로 출발한다. 이때 각 당으로 가는 제관 가운데 가장 젊은 제관이 지게에 제물을 지고 당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제관을 선정할 때 제물을 지고 갈 두 명은 젊은 사람으로 선출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노령화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동제를 지낼 때에는 외부인의 참가를 엄격히 통제하며 분위기는 엄숙한 편이다. 몇 년 전까지는 제사 때마다 언론사의 취재진과 학자들이 모여들어 분위기가 산만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동네 어른들은 이를 부정을 탄다고 우려하여 그 후로는 이들의 참가를 막고 예전처럼 제관들만 제사를 올린다. 우선 본당의 제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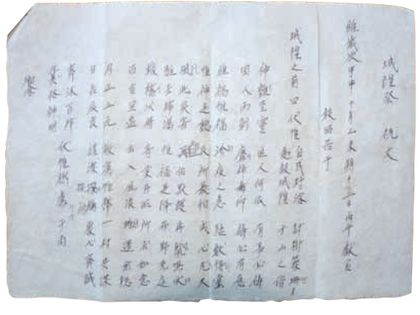
본당에 도착하면 제관들은 부정을 치기 위해 짚불을 타넘고 들어간 다음 제단에 한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한지를 펴기 전에 한지와 실을 정면 벽에 걸어두며, 이 한지는 '복지'라고 한다. 이후 신위가 모셔진 작은 벽장문을 열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을 진설하는 방법은 기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당 제상〉

본당의 성황신위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2010.6.24. 윤동환

제물을 진설하면 초헌관은 촛불을 밝힌 다음 일배하고 잔을 한 잔 받아서 모사에 붓는다. 다시 잔을 받아서 헌작하고 젓가락을 세 번 가볍게 단에다 두드리고 나서 제단에 올려놓고 합동 재배한다. 이후 제관들은 무릎을 꿇고, 축관은 축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합동 재배한다. 이어서 아헌관은 헌작하고 메그릇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가볍게 세 번 두드려 정렬한 후 재배한다. 이후 종헌관이 헌작하고 재배한다. 다음으로 초헌관이 메그릇 뚜껑에 술을 부어 세 번 정도로 나누어 제단 위에 있는 잔에 첨작한 다음 혼자 재배한다. 재배가 끝나면 서낭이 흠향할 시간적인 여유를 두기 위해 잠시 동안 제관 모두가 바닥에 꿇어 조용히 있다가 제관 전체가 반배한다. 이후 메그릇 뚜껑을 완전히 덮고 수저 등을 새롭게 정렬하고 나서 제관 전체가 재배한다.

재배 후 메를 한지 세 조각에 한 술씩 담아서 본당의 입구 왼쪽 아래 바닥에 가지런하게 두고, 잔을 한 잔 올린 다음 아헌관이 재배한다. 이것은 서낭을 각별히 모시는 수부신을 위한 것이다. 다음에 고수레용 음식 일부를 떼어내 그릇에 담아 본당 외부로 나와서 잡귀들에게 헌식한다. 헌식 후 일단 제물을 철상하고 나서 성황소지를 먼저 올린다. 이후 마을 사람들에 대한 소지를 제관들이 나누어서 축원을 하면서 소지를 올리고 나서 마을회관으로 돌아온다.


본당 축문
(2004년 음10월)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2010.6.24. 윤동환

해신당도 본당 제관들이 출발할 때 함께 나간다. 해신당 입구 금줄을 친 아래에 짚을 태우고 제관들이 그 위를 지나가면서 부정을 없앤다. 해신당에 들어서면 한지를 펴기 전에 준비한 남근목을 제당 왼쪽 벽에 걸어 둔다. 제단 위에는 촛불과 향을 피우고 잔을 올린다. 이후에는 해신당 바닥에 자리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해신당 제상〉

해신당은 제관 두 명이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초헌과 종헌을 겸해야 한다. 먼저 잔에 술을 조금 따르고, 이것을 향로에 다시 부은 다음 제관이 다시 잔을 채워 제단 위에 헌작한다. 그 후 메에 숟가락을 꽂고 초헌이 재배하면 뒤를 이어 다른 제관이 헌작하고 재배한다. 채국을 물리고 메그릇 뚜껑을 덮고 나서 다시 반배하면, 이어서 제관이 함께 재배한다. 그러고 나서 첨잔하고 다시 재배한다. 해신당에서는 축문을 읽지 않는다.

잡귀에게 먹이기 위한 고수레로 음식을 조금씩 떼어 그릇에 담는다. 해신당 앞 왼쪽 바닷가에서 "잡귀야 잘 받아먹어라"고 하면서 헌식한 뒤 잔에 담긴 술을 세 번 나누어 헌신(獻神)한다. 촛대 두 대를 내려놓으면 제관 두 명이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을 절반으로 나누어 소지를 올린다. 이는 본당에서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한 소지를 올리기 때문에 해신당에서는 어업과 관련된 주민만 소지를 올리기 위함이다. 개별 소지가 끝난 뒤 제물을 정리한다. 이후 용왕에게 해상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헌식한다. 해신당에서 제의 소요시간은 약 20분 걸리고, 마치면 제물을 담아 마을회관으로 돌아온다. 이튿날 새벽 2시 정도가 되면 제관들은 모두 마을회관에 모여서 음복을 하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3시쯤에 귀가한다. 본래 마을의 남자 주민 대부분이 음복에 참여해야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관들만 음복한다.

주민들은 오전 11시쯤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음복을 행하고 결산회의를 한다. 정월 제사 때 올린 것에

해신당 주변의 금줄과 황토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2003.11.5. 윤동환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2003.10.16, 이용석

해신당 내부

해신당 외관

해신당 앞 향나무

해신당의 신수(神樹)

대한 경과보고와 결산,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마을의 제반 문제 등에 대하여도 의견도 나눈다. 그러나 이 모임이 마을총회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마을 전체의 결산이나 현안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날을 택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마을잔치라 할 만큼 모든 주민이 참여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역사례 나무로 깎아 만든 모형 남근을 신에게 바치는 사례는 동해안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망개마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2리 등에서 남근목을 봉헌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는 곳은 고성군 망개마을과 삼척시 신남마을뿐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해안지방의 성기신앙의 형성과 전승적 특징**(김종대, 국제아세아민속학 2, 국제아세아민속학회, 1998), **민간신앙으로 본 성**(장장식, 한국의 민속과 성, 지식산업사, 1997), **삼척지역의 마을 공동체신앙과 성**(김도현,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성기숭배 민속과 예술의 현장**(김태수, 민속원, 2005), **성기신앙 연구**(김태곤, 한국종교 1,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1), **성기신앙의 형태와 성격**(장장식, 한국민속학 27, 한국민속학회, 1995), **한국 성신앙 연구**(이종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의 성신앙**(김종대, 인디북, 2004), **현지조사**(2003년 11월 5일, 2005년 2월 3일, 2008년 7월 6일, 2010년 6월 24일).

필자 **윤동환(尹東煥)**

삼척한두골용소

정의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의 해갈(解渴)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던 장소.

형태 삼척시 노곡면 상반천리의 한두골에는 예전에 15가구 남짓이 살았으나 화전민 이주 정책으로 전부 퇴거하여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한두골로 오르다가 작은 골짜기를 따라 7~8부 능선까지 오르면 용소가 있다. 용소는 깎아지른 절벽에 동굴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아래로부터 약 7m 위에 있다. 즉 용소는 절벽에 가로 약 3m, 세로 약 1.5m의 둥근 타원형 입구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너비 약 3m, 수심 약 1m, 직선 길이 10m의 물이 고여 있다. 이 물이 용소 왼쪽 절벽을 타고 흘러 작은 이끼폭포를 만들었다. 용소 안쪽으로 10m 정도 들어가면 그 아래로 동굴이 계속 이어진다. 직접 탐사를 한 이들에 따르면 300m 정도 물을 따라 들어가면 3단 폭포가 있고,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동굴은 삼척 지역에 많은 석회동굴이다.

예전에는 이 동굴에 오르기 위해 나무로 사다리를 제작하여 용소 아래 절벽에 거치하였지만 지금은 밧줄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용소 아래에 삼월삼짇날 놀러 가거나 용소 주위에서 산메기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용소가 있는 바로 아래에는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산을 메기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역사 삼척 지역의 기우제에 대한 기록은 각종 관찬지리지(官撰地理誌)와 함께 사찬지리지(私撰地理誌)인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1662),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誌)』(1848년 이후) 등에 실려 있다. 기우제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영역 안에 있는 두타산사(頭陀山祠)에서 "고을 사람이 봄가을에 제사하며 날씨가 가물면 비를 빈다"라고 하였으며, 황지(黃池)에는 "관(官)에서 제전(祭田)을 두어서 날씨가 가물면 비를 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허목의 『척주지』에 따르면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인 우사단(雩祀壇)을 두었다고 하였으며, 토지신과 오곡신을 제사 지낸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또한 이(里) 단위에서 기우제를 지낸 장소가 있었다. 덕번상(德蕃上)의 소한연(蘇瀚淵)과 회선대(會仙臺), 장생리(長生里)의 대전(大田) 용추(龍湫), 견박곡(見朴谷)의 능파대(凌波臺)에서 가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특히 장생리의 대전 용추는 냇물이 바위의 깊은 구멍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날씨가 가물면 여기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외형이 한두골 용소와 같은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에서 기우제를 지낸 장소는 매우 많으며, 형태 또한 다양하다. 이와 같은 전통은 최근까지 전승되어 조선시대에 기우제를 지낸 장소에서 1980년대까지 기우제를 지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삼척 지역에서 비정기적으로 천제(天祭)

를 지낸 마을은 도계읍 황조리, 도계읍 신리, 도계읍 늑구리, 가곡면 동활리, 가곡면 풍곡리, 원덕읍 기곡리 선의곡, 원덕읍 옥원리, 원덕읍 이천1리 등이다. 이들 마을에서 천신을 모시고 천제를 지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우를 위함이라는 것은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천제를 지내는 장소는 예부터 매우 많다.

노곡면 상반천리의 한두골 용소에서 기우제를 지낸 전통은 위에서 소개한 삼척 지역의 기우제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반천리 주민들에 따르면 기우제를 마지막까지 주재한 사람은 김용동(辛未生)이며, 매우 오래전에 시작된 기우제를 1960년대까지 지냈다고 한다. 기우제는 가뭄이 들면 주로 음력 5~6월쯤에 지냈다고 한다.

내용 한두골 용소 기우제는 현재 행해지고 있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기억을 더듬어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을 주민인 김규혁은 한두골 용소 기우제를 서너 차례 보았다고 한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기우제를 지냈지만 6·25전쟁 이후로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노곡면 내에 '용소'라고 불리는 지명은 여럿 있지만 한두골 용소에서만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지면 주로 음력 5~6월에 좋은 날을 받아서 낮에 기우제를 지냈다. 재정 지원은 노곡면에서 하였으며, 제수 준비는 상반천리 주민들이 주도하였다. 제관은 노곡면장을 비롯하여 지역 어른들이 임명되었다. 기우제에는 제관과 함께 마을 사람 20~30명이 함께 갔다고 한다. 이때 여자들은 참가하지 못하였다.

기우제 과정을 살펴보면, 한두골에서 제수로 올릴 개를 잡아서 개의 머리와 제수를 들고 용소 아래로 가서 제물을 진설한다. 용소 아래에 있는 절벽 아래에서 기우제를 지낸 다음 한두 명이 제수로 바칠 개의 머리를 들고 용소가 있는 절벽 위로 나무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용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서 개 머리를 멀리 던진다. 멀리 던지기 위해 3m 정도 되는 막대기 끝에 개 머리를 달아 용소 안으로 던지기도 하였다. 멀리 던져야 비가 조금이라도 이르고 많이 온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기우제를 마치면 한두골과 용소가 갈라지는 곳에 음식 준비를 위한 솥을 걸어놓고 개 머리를 제외한 부분과 제수 등을 펼쳐 놓은 다음 모여서 음복을 하였다고 한다.

기우제를 지낼 때 제수는 개 한 마리, 메, 나물, 술(막걸리) 등을 간단하게 준비하였다고 한다. 이때 준비한 개는 헌식의 의미가 아니라 신(神)을 화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개 머리를 던지면 나쁜 피가 용소를 더럽히기에 이를 씻어내기 위해 용왕이 비를 내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기우제를 지내면 소나기가 올 때도 있었다고 한다.

삼척한두골용소
강원 삼척시 노곡면 상반천리 한두골용소
2010.6.2, 김도현

천제당 제사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해망산 2009.9.26, 김도현

기우제의 목적은 비를 기원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 시도한 방법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를 잡아 개의 피를 뿌리거나, 여자들로 하여금 오줌을 누게 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나쁜 것을 씻어내기 위해 비를 내린다고 믿는 유형이 있다. 또 성스러운 길지를 오염시킨 시체가 한발(旱魃)의 원인이라고 여겨 파묘(破墓)하여 시체를 방기하는 유형, 사직단 등에서 농사 관련 신령을 위하면 비를 내려 줄 것이라고 믿는 유형이 있다. 이 밖에 소를 잡아서 천제를 지내 비를 기원하는 유형도 있다. 즉, 비가 내리지 않아 농촌에서 한발(旱魃)의 피해가 극심해지면 삼척 지역에서는 기우제를 천제단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우제 유형 가운데 한두골 용소 기우제는 나쁜 것을 씻어내기 위해 비를 내린다고 믿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우제 제물로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삼척시 가곡면 용소, 원덕읍 임원리 용굴 등 삼척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살아 있는 개를 그대로 바친다. 이에 비해 한두골 용소 기우제에서는 개의 머리만을 바치므로 다른 지역 사례와 구별된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陟州誌, 강원도 영동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삼척 노곡면 상반천리 주민 김진우·김규혁·김영옥 면담(2010년 6월).

필자 김도현(金道賢)

삼척호산리서낭제

정의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4리 해망산에 위치한 천제당과 성황당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지내는 서낭제.

역사 호산리서낭제는 언제부터 지냈는지 알 수 없지만 심의승이 1916년에 발간한 『삼척군지(三陟郡誌)』에 따르면 해망산(海望山) 위에 성황당이 있어 어부들이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원은 매우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서낭제와 관련한 자료는 1981년에 작성하였다. 『해망산성황제참제록(海望山城隍祭參祭錄)』으로, 이 문서에는 호산 해망산 성황당 연혁, 성황제 축문, 성황당을 위하는 유래와 목적, 준수사항, 제수물목, 벌칙, 참제관 및 헌성자 명단과 함께 부록으로 제수성금헌납기를 기록하여 남기고 있다.

해망산성황당은 해망산 8부 능선에 건물 형태로 있다. 「해망산성황당사건립 상량문」과 「해망당수서」에 따르면 해망산성황당은 무자년(戊子年, 1948)에 중수되었다. 이로 보아 1948년 이전에 이미 제당 형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4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해 소실되어 그해 10월에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삼척시 원덕읍 이천과 옥원을 지나 호산리를 거쳐 바다에 이르는 마천(麻川)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해망산에 호산리 주민들이 위하는 제당이 있다. 제당은 천제당·할아버지당·할머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에서는 천제당을 상당으로 여기며, 할아버지당에 모신 성황신을 위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 등을 기원한다. 이곳에 있는 제당은 호산1~4리 전체를 관장한다. 제비는 전체 마을주민 성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호산4리에서 제수를 준비하여 서낭제를 지낸다.

해망산 정상에 있는 천제당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

해망산 성황당(할아버지당)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해망산, 2009.9.26, 김도현

로 향해 있으며, 디귿(ㄷ) 자형 자연석으로 둘러진 곳에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었다. 할아버지당은 천제당 아래인 해망산 8부 능선쯤에 있으며, 남쪽을 향해 지어져 있다. 지붕은 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제당이다. 건물의 벽은 소나무 판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만들었으며, 정면에는 좌우 여닫이문을 달았다. 제당 정면 입구에는 '해망산성황당(海望山城隍堂)'이라 쓴 편액이 걸려 있다. 성황당 내부에는 2000년에 상량하였다는 상량문이 있으며, 제당 내부 정면에 제단을 일(一) 자 형태로 만들어 설치하고, 제단 위에 '성황당신위(城隍堂神位)'라고 새긴 나무 위패를 모셨다. 제당 정면에는 반야심경과 함께 산신·독성·성황신을 그린 당신도(堂神圖)를 걸어 놓았다. 이 당신도는 마을에서 모신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무업(巫業)에 종사하는 이가 개인적으로 걸었다고 한다. 할머니당은 할아버지당으로 오르는 입구의 오른쪽에서 올라가 호산 해수욕장 방향으로 해망산 중턱에 있다. 향나무가 제당 옆에 있으며, 디귿(ㄷ) 자형 시멘트 블록 담장으로 둘러진 곳에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었다.

제일(祭日)은 매년 정월대보름날 자시(子時)에 지내며, 순서는 천제당에 가서 서낭제 지냄을 먼저 고하고, 할아버지당으로 내려와 제수를 진설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할머니당에는 할아버지당에 올린 제수 일부를 가져가서 진설하여 제를 지낸다. 만 3년에 한 번씩 마을굿을 한다.

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은 천제당에서는 천신, 할아버지당에서는 제당 명칭이 성황당이고 제당 내부에 '성황당신위'라고 새긴 위패를 모신 것으로 보아 성황신임을 알 수 있다. 할머니당에서는 할머니서낭을 모신다고 하였으나 할머니서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신령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인근에 있는 고포, 월천, 작진 등 해안 마을에도 할머니당이 있다. 이들 마을에서는 바다일[海事]을 관장하는 신령을 할머니당에 모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마을처럼 바다일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볼 수도 있다. 이들 신령 가운데 천제당에 모신 천신은 상당의 신령으로, 서낭제를 지내거나 굿을 할 때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신령이다. 그러나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마을 내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령은 할아버지당에 모신 성황신이다. 이에 따라 여느 제당과는 달리 제수 준비를 가장 풍성하게 하며, 절차 또한 격을 갖추어 지내고, 마을제사의 명칭 또한 서낭제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마을 내에서의 위상을 잘 알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지를 올리는 곳 또한 할아버지당이다.

매년 정월 열하룻날에 마을 지도자들이 모여 생기를 맞추어 제관(헌관과 축관)을 선정하며, 이때 제관으로 선정된 집에서 제수를 준비한다. 그리고 정월 열사흗날부터 성황제단, 제수봉공가(祭需奉供家), 제관집에 금줄을 걸어 외부인의 접근을 금한다.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엄숙한 마음으로 목욕재계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외출을 금한다. 마을에서 서낭제와 관련하여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1981년부터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관을 임명하였으나 1990년부터 기존에 임명한 제관과 함께 천제당 헌관 한 명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할아버지 성황당 제물진설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해망산
2009.9.26, 김도현

호산리서낭제 준비를 위한 제수 비용은 매년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헌성금(치성비)을 수금하고, 찬조금을 받아 충당한다. 1990년부터 호산리 내 각 마을 단위로 성의껏 내어 제수를 준비하였다. 이때부터 어촌계, 양조장, 원덕읍사무소, 농협 등에서 성금을 낸 사실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호산 1~4리가 공동으로 지내기에 이(里)별로 10만 원을 내고, 부족한 부분은 해수욕장 운영 경비 등으로 충당하였다. 주관을 호산4리에서 하기 때문에 서낭제를 지낸 뒤 호산 1~3리에 술과 제물을 조금씩 가져다 주었다.

서낭제를 지내기 위해 준비한 제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제당에 진설한 제수는 포, 술, 과일(사과, 참외, 감), 삼실과(대추, 밤, 곶감)이다. 성황당에 진설하는 제수는 메, 술, 떡, 돼지머리, 삶은 돼지고기 덩이살, 전복, 두부전, 문어, 임연수어, 명태, 열기(곤들매기), 가자미, 삶은 달걀, 쇠고기 산적, 육탕, 나물(미역, 시금치, 콩나물, 무, 고사리), 과일(배, 사과 등), 삼실과(대추, 밤, 곶감) 등이다. 할머니당에는 할아버지당에 올린 제물 일부를 내려서 진설한다. 보통 메, 포, 술, 나물, 탕을 한 개씩 올린다.

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관 한 명과 축관이 천제당에 가서 제수를 진설한 뒤 초헌관이 술을 올리고 재배하면 축관이 천제당축을 읽는다. 이후 제관과 축관이 재배하고 음복을 하는 것으로 천제당에서의 제의를 마친다. 할아버지당(성황당)으로 와서는 제수를 진설하여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순으로 각각 술을 올리고 재배하고 성황당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린다. 이들은 마을[里]별로 미리 받은 소지 명단에 따라 가구별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제관과 축관은 제수 일부를 떼어내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고수레를 하고 음복한다. 음복이 끝나면 이들은 제수를 철상하면서 할머니당에 진설할 제수를 별도로 준비한다. 할머니당에서는 초헌관이 술을 올리고 제관들이 합동 재배한다. 이어서 메에 수저를 꽂고 다시 합동 재배하고 나서 제수 일부와 술을 잡귀잡신에게 풀어먹이는 고수레를 행하면 모두 마친다. 참가자들은 음복을 한 뒤 남은 제수를 갖고 내려온다. 이와 같이 서낭제를 지낼 때 여성은 음식 준비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서낭제에는 참여할 수 없다. 서낭제를 마친 제관과 축관은 도가 집에 모여 제수를 나누어 먹는다.

할머니당과 향나무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해망산
2009.9.26, 김도현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두 모여서 음복을 한 후에 윷놀이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서낭제 예산결산을 비롯하여 마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나눈 다음 음복을 간단하게 마친다. 호산4리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달이 뜨기 전에 선주(船主) 집에서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용왕제를 지내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영등날에 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용왕제는 일종의 배고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천제당과 성황당에서 제의를 진행하면서 읽는 축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天祭堂 祝文〉

維歲次 ○○正月○○朔十五日 ○○
幼學 三獻官 ○○○
齊沐百拜于 天祭堂下曰
伏以
大哉乾元 德合萬物 開子覆燾 生寅寧謐
惟玆祭壇 受禧之址 有洞以來 明禋於是
滄海靈區 太岳遺脈 肹響之靈 造化之跡
歲序新元 日吉辰良 肅敬精白 祀事是將
我肴旣馨 我酒旦潔 洗心齊沐 莫之有缺
祝願伊何 敢冀宜鷺 百魔消滅 一洞安吉
謹將蠲饎 用伸虔祝 頫此徵誠 降福歆格
尙饗

〈城隍堂 祝文〉

維歲次 ○○正月○○朔十五日 ○○
幼學 三獻官 ○○○
齊沐百拜于 城隍堂下曰
伏以
有洞肆祠 每歲將事 受釐之所 感應之址
偉哉海望 爲民家宅 富湖東區 泰山西脈
明禋之誠 無敢或怠 慈涓穀朝 靈神所在
齊明一洞 肅敬祀斯 心香一炷 神之假思
萬事亨通 白魔遁藏 伏惟尊靈 降福洋洋
尙饗

지역사례 삼척 지역에는 천제당이 있는 마을이 많다. 천제당의 마을 내 위치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태백산 천제단의 영향으로 태백산 줄기가 끝나는 능선의 아래쪽에 위치한 것, 하천 옆이나 하천 중간에 형성된 섬 내부에 위치한 것, 산 중턱쯤에 계곡물이 Y 자로 만나는 곳 내부에 위치한 것, 산 중턱에 위치하여 마을을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한 것, 산 정상부나 그 아래에 위치한 것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호산리 천제당은 산 정상부에 위치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천제당이 천제봉이라 불리는 산 정상이나 그 아래에 있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도계읍 한내리, 산기리 샛골, 황조리, 늑구리, 원덕읍 기곡리 선의곡, 호산 해망산, 옥원리, 이천1리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대부터 최고 신령으로 여겨진 천신은 마을신앙의 대상신으로 자연마을의 제당에서 모시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사례가 전국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지만 영동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천제는 기능을 비롯해 마을 내 다른 신령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으로서의 사례, 천신을 다른 신령들과 함께 모시면서 마을신앙의 처소로 기능하는 사례, 산신령과 함께 모신 사례, 비일상적으로 기우를 위해 천제를 지내는 사례,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아 천제단을 마을 안에 만들어 망제 형태의 천제를 지내는 사례, 거리고사에서 상당신으로 모셔진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신을 모신 마을에서는 제의 과정에서 서낭신보다 위에 있는 신령으로 인식하고 모신다.

마을 안에서 상당으로 기능하는 사례는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원덕읍 월천3리, 원덕읍 호산리, 근덕면 초곡리, 근덕면 궁촌2리, 근덕면 교가2리 제동마을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상당의 기능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신앙 구조는 호산리와 비슷하다.

삼척시 원덕읍 월천3리 가곡산 천제당에 대하여 1916년에 편찬된 심의승의 『삼척군지』에 "…… 갈령(葛嶺)은 안일왕산(安逸王山)이라 칭하며, 그 동쪽에 봉수산(烽燧山)의 연대구지(烟臺舊址)에 지금은 성황사를 설(設)하였으며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1910년대에 봉수대 옛터가 마을신앙의 대상물로 치제(致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는 '성황사'였으며, 당시 모신 신령이 천신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마을에서 '천제당'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신기면 대평리에서는 '천제당-서낭당', 근덕면 교가2리 제동마을에서는 '천제-용왕제'의 순으로 각각 제사를 지내면서 천제당을 상당으로 여겨 가장 큰 정성을 들인다. 이에 비해 인근의 원덕읍 호산리 해망산 천제당에서는 '천제당-할아버지당-할머니당'의 순으로 제사를 지낸다. 여기에서는 할아버지당에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인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도계읍 무건리의 '천제-성황제', 근덕면 초곡리의 '천제-성황제사-수부신 위함'과 궁촌2리에서의 '천제-윗서낭제-아랫서낭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마을에서도 천제당을 상당으로는 여기고 있지만 실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하여 성황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즉 호산리서낭제는 인근에 있는 원덕읍 월천3리와 근덕면 초곡리에 있는 마을 제당과 비교해 보면 '천제당-할아버지당-할머니당'으로 이어지는 마을신앙 구조와 유사하지만 제당 각각의 기능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김도현,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 · 태백시, 2009), **삼척군지**(심의승, 1916),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국립민속박물관, 1997), **함백산 절골 천제당 운영 양상과 그 성격**(김도현, 강원문화연구 30,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9), **삼척 호산리주민 심재숙**(이장) · **육철룡**(어촌계장, 도가댁) · **최용길** · **최운학** · **김명수**(이장) · **김상교 면담**(2005년 6월, 2009년 5월, 2010년 2월).

필자 김도현(金道賢)

상주천봉산성황제 (尙州天鳳山城隍祭)

정의 경상북도 상주시 서북부에 위치한 천봉산(해발 435.8m) 산록 '성황사'에서 치제(致祭)해 온 조선시대의 읍치(邑治) 제의.

역사 천봉산은 상주시에서 1.5㎞ 떨어진 북쪽 만산2리(안너추리마을)의 뒷산으로, 상주의 삼악(三嶽) 가운데 하나이자 진산(鎭山)이다. 성황사가 위치하고 있는 만산2리는 성황사 외에도 미륵당, 골맥이, 산신당 등 마을신앙이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1788년 성황사 중수기에 따르면 성황사가 원래 천봉산 꼭대기에 있었으며, 1714년(숙종 40)에 중수를 하였으나 20년 후에 건물이 오래되고 퇴폐하여 산 아래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천봉산 성황사는 사전에 등재된 기록이 없어 언제부터 관(官)에서 치제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만산2리 마을 뒷산(천봉산)에 성황사가 위치한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1928년에 7권 3책으로 전질이 완성된 『상산지(商山誌)』 증보판과 1617년(광해군 9)에 편찬된 『상산지』 질사조(秩祀條)에 처음 실린 내용으로 역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성황사는 사당(祠堂)인 현재의 형태와 달리 단(壇) 형태였으며, 큰 바위 위의 단에 성황을 모셨다는 기록으로 보아 국가에서 치제하기 이전에 서낭당으로서 지역민이 섬겼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상주의 사직단을 비롯한 사우(祠宇)를 정비하면서 성황사의 사우를 상주 북쪽에 위치한 신계리(현재 계산리)에 세웠으며, 얼마 후 천봉산 동쪽 기슭으로 옮겨서 중수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상주천봉산 성황사의 역사는 4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성황사는 현재 일(一) 자형 평면에 정면 세 칸(6.60m), 측면 두 칸(4.25m)으로 구성된 서향의 팔작기와집이다. 바깥에서 보기에 양 툇간은 온돌방이고, 중앙칸은 마루방 형태인 듯하다. 그러나 세 칸이 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건물 전체 모습이 사당의 구조 형식을 따르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옮겨와 지은 집이어서 서로 다른 목재를 사용하였다. 건물 전면의 작은 편액에는 「성황사 무신년 정월(城隍祠 戊申年 正月)」(1908)이라 적혀 있어 성황사를 이건한 연도로 보인다. 국가에서 천봉산 성황제를 치제하기 전에 성황사는 서낭당으로서 민속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성황사 안에는 남매신상 외에 '말'을 함께 모셨다고 한다. 말을 봉안하고 있는 서낭당은 대체로 민간에서 서낭제를 행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천봉산 성황사에서 모셔져 있던 말은 읍치성황제 이전에 민속신앙에서 신앙한 신목과 돌무더기 서낭당으로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산동에서 이안면으로 넘어가는 옛 고갯길의 이름인 '서낭대이'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성황사 이건 이전에 이미 돌무더기 형태의 서낭당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성황사 안에 모셔진 성황의 신체(神體)는 부부신상으로, 나무로 된 신체를 오색 헝겊과 흰색 광목으로 감싸고 머리에는 흰색 고깔을 씌웠다. 그 위에 다시 여서낭은 붉은색 옷감, 남서낭은 파란색 옷감으로 각각 감아 놓았다. 여서낭은 머리를 얹었고, 남서낭은 사모를 쓰고 나란히 정면을 향하고 있다. 부부서낭이 입고 있는 옷은 성황사에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무속인들이 매년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 「성황사중수상량문」에는 성황으로 모셔진 부부신상이 송나라의 부부신상을 모방한 것이고 성황제사의 형태는 송나라 때부터 있어 온 것을 모방하였다는 간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마을에서 구전되는 성황의 신격은 남매로 전해지고 있다. 「중수기문」을 통해 성황의 신격을 살펴보면 1714년(숙종 40)에 중수한 이래 52년 동안 성황사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호장(戶長)에게 내린 현몽을 계기로 중수를 하였고, 중수 후 신상(神像)을 다시 받들어 모셨다고 하고 있어 기존에 모시던 성황이 곧 중수기문에 등장하는 현몽한 신령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향리들이 성황사를 수축(修築)할 계획을 세우게 되며, 이는 곧 성황제가 향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지역민이

해석하는 성황의 좌정 경위는 이와 다르다. 현재 만산 2리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보편적인 성황 좌정유래담은 최근 각색된 부분이 많으나 마을에 살고 있던 남매가 죽고 나서 모셔졌다는 이야기로, 신격이 실존 인물로 구체화되어 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민에게 국가가 정한 성황의 신격은 다르게 해석된다. 지역을 수호하고 지역의 신을 대표하는 성황이라기보다 지역민이 인식하는 성황신으로서 소박하며 현실적이다.

천봉산성황제는 호장을 중심으로 향리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세 차례에 걸친 중수기문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1855년의 성황사 중수 상량문에는 성황사와 무당들이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현재에도 천봉산 성황사에는 각처의 무속인들이 모여 큰 굿판을 벌이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 치성을 드린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지방 수령이 읍치성황사나 성황제에 관여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나고, 조선 후기에는 지방관이나 향리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학에 밝은 유지들이 읍치의 성황제를 주도했다는 기록도 상당수 있다. 1516년(중종 11)에 진강(盡講)에서 경연관들이 성황제를 음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 해 조강(朝講)에서도 성황제를 일체 금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앙에서는 성황제의 비유교적 요소를 척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상주의 경우 1788년(정조 12)에 성황사를 중건하면서 이전에 방치한 신상을 새로 봉안하여 이후로 계속 모셨다. 성황신앙은 점차 제도권 신앙 내지 관방신앙으로서의 위치가 약화되고 민속신앙으로 자리하게 된다. 더구나 국가제사로서의 명맥도 1908년 이후로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서 이 시기에 전남 나주와 경북 영주시 순흥면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행하던 관(官) 주도의 성황제는 단절되거나 민(民) 주도의 제의로 변화하게 된다. 상주천봉산성황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천봉산성황제는 매년 음력 사월초파일에 유교식 제의로 치제한다. 준비 과정과 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일(祭日) 이틀 전에 안너추리마을 노인회장은 회원들을 회관에 소집하여 제의 준비에 대한 간단한 회의를 연다. 제물 마련을 위한 장보기는 하루 전인 사월 초이렛날 아침 9시쯤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된 마을 사람 두 명이 행한다. 성황제의 제물 비용은 12~20만 원 정도이다.

한편 상산 박씨(常山 朴氏)는 매년 양력 4월 20일 양로당에 모여 대종회를 연다. 양로당은 조선시대 향리출신 가문의 후손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면서, 이들이 모이는 건물의 명칭이기도하다. 상산 박씨는 230여 년에 걸쳐 호장을 세습해 왔고, 읍치성황제로 제의가 이루어졌을 때 거의 주도적으로 치제하는 문중이다. 이날 성황제 준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성황제에 참석하는 상산 박씨는 약 7명이며, 이들은 양로당에서 오전 9시쯤 마을로 출발하여 회관에서 머물다가 천봉산으로 제를 지내러 올라간다.

제일 당일 아침 여성노인회원이 성황당으로 올라가 청소한 후 마을회관에 모여서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 준비는 오로지 여자 노인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제물 진설도 여성 회원들이 한다. 먼저 제관 한 명과 집사 한 명이 성황사 앞에 있는 산신당에서 통명태, 삼실과, 전을 차려 놓고 강신과 초헌으로 산신제를 올린 뒤 성황제를 올린다. 제의 절차는 강신-초헌-독축-아헌-종헌-철상-음복으로 이루어진다. 초헌관은 매년 상주문화원장 역임자 등이 맡고, 아헌관은 안너추리마을 노인회장이, 종헌관은 상산 박씨 문중에서 번갈아가며 맡는다. 성황제를 마치면 음복을 한다. 성황제 이후에는 성황사 아래에 위치한 미륵당인 '영암각'에 제물을 올리고 나서 축문을 태우는 것으로 영암각의 제의는 끝난다.

특징 상주 지역에서 읍치를 중심으로 장기간 세거해 온 향리 가문은 상산 박씨와 상주 김씨(尙州 金氏) 두 문중이다. 상산 박씨는 호장, 상주 김씨는 이방을 각각 세습해 오면서 향촌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상주의 읍치성황제는 상산 박씨 문중에서 주도적으로 치제해 온 향리 주도의 성황제였다. 이는 1788년에서 1935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성황사 중수기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900년(광무 4) 5월에 기록한 중수기문에는 성황신당을 중수하고 남은 돈으로 향리들을 중심으로 '등촉계'를 조직하고, 이때부터 매년 음력 사월초파일을 '등촉'하는 날로 정하여 제사를 지냈다.

이후 상주목이 폐지되고 1935년 중수에는 '양로당'의 협조로 성황사를 중심으로 한 인근 논과 밭을 양로당에 위촉하여 상산 박씨 문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또한 천봉산성황제의 제사권은 1936년에 상산 박씨 문중으로 이양된다. 양로당에서 성황제를 이양받은 초기에 성황제 준비를 위한 유사를 두어 성황사 관리와 성황제 준비를 맡도록 하였다. 유사는 성황사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문중의 위토를 경작하는 조건으로 다시 안너추리마을 사람 개인에게 성황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후로 성황제는 지속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6·25전쟁 이후 양로당의 유사가 성황제를 준비하되 성황사 관리는 안너추리마을 사람에게 담당하게 된다. 1960년대에는 다른 마을에서 안너추리마을로 이주해 온 무속인 부부에게 성황사 관리를 맡기는 등 무속인에 의해 관리와 제물 준비가 이루어지다가 1991년부터 다시 성황사 제물 준비와 관리를 안너추리마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의 1992년에 안너추리마을에서는 성황사보존회를 발족시켜 천봉산성황제의 준비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행하고 있는 성황제는 향리들의 후손인 양로당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지니지만 의식적인 측면과 천봉산성황제의 기능적인 부분은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 주재 집단은 지속되었으나 성황사 관리 집단이 변화됨으로써 성황제 또한 다른 지역과 특이한 면모를 보이며 지속되고 있다. 상산 박씨를 중심으로 한 양로당 사람들은 선대에서 현재까지 성황제를 치제해 온 역사성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안너추리마을 사람들이 성황사 관리권을 이양받은 뒤 성황제는 노인회 조직의 지연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례로 기능하고 있다. 성황제에 대한 두 집단의 서로 다른 입장은 성황제 지속의 기반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상주 천봉산성황제 주재집단의 지속과 변화(황경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상주 천봉산의 성황사 고찰-성황사 중수 상량문을 중심하여(김기탁, 상주문화 2, 상주문화원, 1991).

필자 황경순(黃慶順)

샘제

정의 특별한 자연샘이나 마을공동우물 또는 각 집안의 우물을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 물 속에 깃든 신에게 올리는 제의.

내용 물과 관련한 신앙 중에는 건강과 관련된 약수신앙, 물의 주술성과 관련되어 재생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의 생명수신앙이 있다. 이들 신앙은 물의 신성성, 청결성, 정화성 등을 배경으로 발생하거나 기원한다. 그런데 특별한 자연샘이나 마을공동우물 또는 각 집안의 우물을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 물 속에 깃든 신을 대상으로 제의를 올리는 것을 샘제, 샘굿, 정제(井祭), 우물굿, 용왕굿이라 한다.

샘이나 우물은 제단 역할을 함과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샘(또는 우물)굿은 우물이나 샘의 수신(水神), 또는 이들에 깃든 신(용신)과 마을 주민이 만나면서 소통하는 행위를 통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계절 제의이다. 개인의 건강과 제액 초복을 기원하는 샘제의 핵심은 '신성한 물'이고 샘굿의 핵심적 기능은 액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것이다. 물의 정화력을 빌려 굿을 하는 형태는 불의 정화력을 빌려 굿을 하는 형태와 맥을 함께 한다. 충남 부여군 외산면 문신리 구신마을의 경우 샘제를 유황제, 용왕제라 하고 동제를 동화제(洞火祭)라 한다. 유황이 샘을 지켜 주기 때문인데, 이 마을의 경우 원래 샘제만 있었지만 후대에 동화제가 추가된 것이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만 민속에서는 부정을 씻는 정화(淨化)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대 축으로 기능한다.

샘을 매개로 굿이 이루어지는 신앙적 배경에는 샘물의 신성성과 하늘로 통하는 우물물의 이미지와 관련 있다.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를 보면 우물을 팔 자리에 물동이를 놓고 물을 길어다 부은 다음 밤중에 우물을 들여다보고 맑은 하늘에 수많은 별이 물동이 안에 가득한 중에 빛나는 큰 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는 차고 단 물이 나올 것이라 점쳤다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물의 근원이 하늘에 있음을 뜻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하수 신앙, 칠성 신앙, 물·생명·풍요 기원·정화(淨化) 사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형태 샘(우물)굿은 단독 굿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마을굿의 일부분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샘굿 단독으로

백중우물제
전남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부치마을
2003.8.10. 이돈기

진행되는 경우 마을 샘(우물)굿의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경우 대동우물굿, 큰샘굿, 동네샘굿이라 불려진다. 마을에서는 매년 정초 때 우물가에 제물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낸 다음 한 해 동안 나쁜 병이 들지 않고, 물이 마르지 않으며, 물맛이 변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이러한 굿은 백중 풋굿 과정에서도 행해진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마을 사람들이 우물의 밑바닥이 보이도록 물을 퍼내고, 오물을 치우고, 우물가에 금줄을 두른 다음 뚜껑을 덮어둔다. 그리고 곁에 농기를 꽂아 외부의 세계와 일정 기간 차단시킨다.

정월에 행해지는 샘제는 물이 마르지 않거나 변하지 말기를 기원하는 성격이 강하고, 장마철 이후의 샘제는 우물물이 깨끗하기를 기원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는 목적을 띤다. 현재는 이 둘의 성격이 혼합된 경우가 많다.

동제의 형태가 크게 이 두 가지 이상으로 치러지는 경우에도 샘제가 중요한 굿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의 '거북바위고사와 우물고사'의 경우 거북바위고사를 드릴 때도 "뚫어라, 뚫어라, 샘구멍을 뚫어라. 물주소, 물주소, 소해양 물주소"라고 부른다. 거북이 물에 사는 동물이기에 사실상 거북바위고사보다는 우물고사가 더 중요한 경우이다.

샘굿을 간단하게 치르는 곳도 많다. 이런 경우는 대개 음력 정월 열나흗날부터 보름날 아침까지 집안의 우물가에 촛불을 밝혀 둔다. 경상도 지방의 경우 백중 무렵 풋굿(호미씻이)을 할 때 우물 청소를 한다. 이때 동네 주민들이 모여 길 청소를 하고 풀을 벤 뒤 마을공동우물이나 각 집의 샘(우물)을 친다.

마을굿의 일부로 샘제가 치러지는 경우 동제, 도당굿, 풍물굿, 별신굿, 풋굿의 일부 과정으로서의 샘굿이 이루어진다. 마을굿의 한 부분으로 치러지는 경우는 샘굿 단독으로서의 대동우물굿에 비하면 소박하게 치러지는 편이다. 풍물패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풍물패가 사라지면 샘제도 자연히 사라지게 마련이다.

지역사례 전북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 당산제는 달집만들기-샘굿-당산제 순으로 진행된다. 샘굿은 가로, 세로 약 40㎝인 정방형의 우물에서 치러진다. 우물 뒤편에는 쌀을 담은 바가지에 초를 꽂아 두고, 상쇠가 풍물을 치면서 사방으로 절을 하며 사해용왕을 부르고 '물 좋다'고 한 다음 아들 · 딸 낳고 미역국에 밥 말아먹자는 사설로 덕담을 한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창리의 경우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정제를 시작으로 산신제-당제-붉은당제 순으로 제를 지낸다. 샘제는 우선 당우물을 깨끗이 청소한

백중우물제
전남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부치마을
2003.8.10. 이돈기

다음 길게 자른 창호지 앞뒷면에 오방신(東方靑帝之神 · 西方白帝之神 · 南方赤帝之神 · 北方黑帝之神 · 中央黃帝之神)과 오방장군(中央黃帝將軍 · 北黑帝將軍 · 西白帝將軍 · 南赤帝將軍 · 東靑帝將軍)의 글씨를 써서 수수깡에 매단 깃발을 샘 안으로 늘어뜨린다. 또 동일한 글귀를 가로로 써서 우물에 붙여 놓는다. 이는 오방신과 오방장군이 부정과 잡귀를 막아 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한두골에서는 음력 유월 말에 대동회의를 개최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음력 칠월 초에 우물굿(고사)을 지낸다. 이 시기는 세벌김매기가 파한 이후로, 이 우물고사는 두레농사꾼들이 두레놀이를 겸하여 행하는 유서 깊은 고사다. 제관 두 사람을 선출하고 희생물인 소를 잡아 웃우물(어른우물) 및 다른 다섯 우물에 각각 순서대로 고사를 올리는데 우물마다 쇠고기를 제물로 바친다. 고사가 끝나면 주민들은 정자나무 밑에 솥을 걸어 탕을 끓이고 풍물을 치면서 크게 논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용산마을 장승제는 용왕제-산신제-장승제 순으로 진행된다. 용왕제는 우물에서 지낸다. 정월 열나흗날 이전에 우물물을 퍼내고 청소를 한다. 예전의 용왕제는 밥과 미역국을 놓고 물바가지에 초를 띄워서 아침 7시에 지냈지만 현재는 당일 오전에 청소를 하고 장승제 지내기 이전에 풍물을 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전남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중촌 당산제의 경우, 공동샘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샘제는 유지되고 있다. 제관은 우물 앞에 정화수와 돈을 꽂은 쌀대접을 진설한다. 부정을 막고 복을 바라는 소박한 염원이 소박한 제의로 치러지는 것이다.

샘굿(우물굿)을 하는 동안 풍물패의 상쇠가 주로 하는 고사덕담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덕담 사설은 제의의 독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물이 마르지 않고 잘 나오기를 바라는 덕담 풍풍 풍 잘 나옵소사 깨끗한 물 잘 나옵소사(안양시 관양동)

2. 용왕님께 기원하는 유형 동방청제 용왕님, 남방적제 용왕님, 서방백제 용왕님, 북방흑제 용왕님, 중앙황제 용왕님(이천 대월 농악)

3. 물맛이 불변하고 맛 좋기를 기원하는 유형 아따 그 물 맛있다 꿀떡 꿀떡 마시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 먹자(남원, 임실, 광양, 이리 농악)

4. 지신밟기 유형 눌러라 눌러라 우물지신을 누릴제 일년하고도 열두달 삼백에 육십일을 정홍수 맑은 물이 이 우물에 솟아라 일년대한 가물에 우물이 마르잖게

물 내리는 병
전남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부치마을, 2003.8.10, 이돈기

공사에 실수할까 우물이 축이 날까 조왕님께 기도하여 우물에 가신 분은 일년하고도 열두달 무병하게 지내주고 잡구잡신은 물알로 정화수 맑은 물은 이 우물에 퐁퐁 잡구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 우물로(의성의 민요)

5. 복합 유형 물 줍시오 물 줍시오 사해용왕 물 줍시오 뚫으시오 뚫으시오 옥수물만 뚫으시오. 동해물도 땅기고 서해물도 땅기고 맑은 물만 출렁 출렁 넨겨주시오.(평택농악)

용왕 용왕 용왕 용왕 물줍쇼 용왕 용왕 사해 용왕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대전 민요집)

이들 사설의 분포를 보면 전라도 지방에는 3의 유형이 특히 많고, 경상도 지방에는 4의 유형이 많다.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다'는 사설은 용왕이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믿으면서 제물에 이것이 진설되기 때문이다. 경상도의 경우 이러한 사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신밟기 과정으로 샘굿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마을샘이나 가정 우물을 지키기 위해 행해진 샘제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해진 이후 그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였다. 그나마 샘굿은 사라졌지만 제의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기능만 남아 있거나 아예 우물을 덮어 둔 마을이 많다.

샘굿이나 우물굿은 신선한 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한 마을 주민들의 소박하면서도 절실한 기원이 깃든 신앙에서 발원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생수나 농수, 산업용수로서의 물이 더 귀해지고 자연수가 더욱 오염되어 가는 것과 비례하여 물을 숭배하는 마을신앙으로서의 샘제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참고문헌 **굿의 사회사**(주강현, 웅진출판, 1992), **남원 독우물굿 연구**(강희수,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농악대 고사소리의 지역별 특성과 변천양상**(최자운,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 1994), **우물의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구미래, 비교민속학 23, 비교민속학회, 2002), **한국의 마을신앙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권오경(權五慶)**

생기복덕(生氣福德)

정의 그날의 운수를 알아 보는 방법 중 하나. 일진(日辰)과 나이를 팔괘(八卦)에 배정하여 상 · 중 · 하 세 효(爻)의 변화로써 운수를 본다. 이것은 제관 선정의 기준이 된다.

내용 제관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생기복덕을 가린다. 생기복덕을 가리는 일은 마을 주민 가운데 학문이 높은 사람이 담당하기도 하고 마을에 거주하는 점쟁이나 무당 등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마을 내에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가서 의뢰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을에 따라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不淨)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례 경북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에서는 마을에서 학덕인 높은 사람이 생기복덕을 보는 일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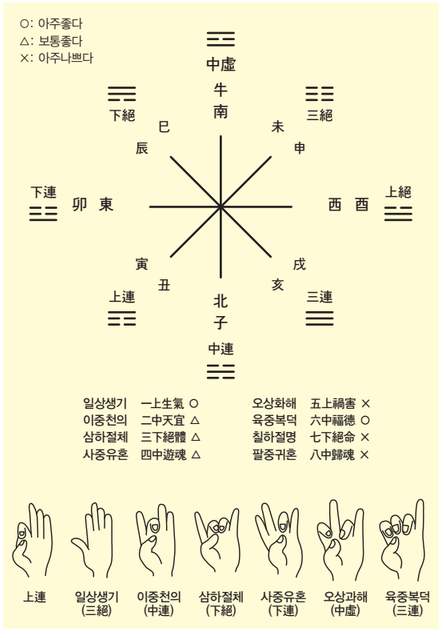
정월 초사흗날 주민들은 동회를 열어 전 주민의 생기(生氣)를 맞추어보고 생기에 맞는 사람에 한해 우환이 없고 임신부가 없고 정(淨)한 집의 30세 이상 남자를 선정한다. 생기에 맞더라도 그 집에 우환이 있거나 임산부가 있거나 부인에게 월경이 있는 경우 제관이 될 수도 없지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피한다. 주민 가운데 생기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경우 마을 사람 가운데 가장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한다. 동제의 수행에서 사회 성원과 대상 신의 관계는 선출된 제관과 동신간의 대표적인 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차선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인 제한이 없는 풍속은 주민들에게 봉사 정신을 기르게 하고, 마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병인년(1986)에는 공양주 한 명과 상당제관 한 명, 하당제관 두 명을 선정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생기 뽑기를 도맡아 하는 사람이 매년 정월 초이튿날에 제관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생기를 뽑아 이장에게 건넨다. 이장은 이것을 받아서 주민명부를 보고 해당자를 선정하고, 초이튿날 저녁이나 초사흗날 아침에 방송을 통해 해당자에게 동답(洞畓)을 농사짓는 사람의 집에 모이게 한다. 이곳에서 동회(洞會)를 개최하여 제관의 선정을 알리고 제의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병인년 정월 보름날(戊戌)의 생기는 다음과 같다. "생기(生氣) 해당자-58세(戊辰生), 50세(丁丑生), 42세(乙酉生), 34세(壬辰生). 복덕(福德) 해당자-61세(丙寅生), 53세(甲戌生), 45세(壬午生), 37세(庚寅生), 29세(戊戌生). 천의(天宜) 해당자-62세(乙丑生), 54세(癸酉生), 46세(辛巳生), 38세(己丑生), 30세(丁酉生). 절체(絶體) 해당자-65세(壬戌生), 57세(庚午生), 49세(戊寅生), 41세(丙戌生), 33세(申午生). 유혼(遊魂) 해당자-60세(丁卯生), 52세(乙亥生), 44세(癸未生), 36세(辛卯生), 28세(己亥生)."

이 가운데 생기와 복덕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해당자가 없으면 천의, 절체, 유혼 순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한다. 그러나 과해(過害), 절명(絶命), 귀혼(歸魂)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양주 등 제관이 될 수 없다. 생기를 뽑는다는 것은 천지조화의 기운과 가장 적합하게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명과도 잘 교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생기에 적합한 사람은 제관으로서 적임자임을 말한다. 생기에 맞는 사람은 곧 주민들을 대표해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제관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들도 제의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재계와 금기를 통한 신성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제의 주관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이 기준에 적합한 주민은 생기 네 명, 복덕 세 명, 천의 두 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여섯 명이 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불참 이유는 '산제 직전에 이사를 간다', '교회에 다닌다', '아들 결혼준비로 출타가 잦다', '상주이다', '나이가 많다', '술을 자주 먹고, 출타가 잦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비록 생기에 맞더라도 제관 자격으로는 부적절한 개인 사정들로 인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본인 스스로 동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반드시 신벌(神罰)을 받지만 부정한 사람이 제관이 된 때에는 본인은 물론 마을 전체에 신벌이 내린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상당제관 · 공양주 · 하당제관 한 명은 생기복덕에 맞는 사람으로 결정하고, 하당제관 한 명은 생기복덕에는 맞지 않았지만 집안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다.



그림은 생기복덕을 보는 방법이다. 위의 그림은 일진(日辰)과 나이를 팔괘(八卦)에 배정하여 상 ·

중 · 하 세 효(爻)의 변화로 운수를 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아래 그림은 팔괘와 세 효를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만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파악하는 모습이다. 이 그림은 해당자가 소[丑]띠인 경우이다. 소띠는 상연(上連)으로 손가락 모양을 하여 병인의 정월대보름날 간지가 무술(戊戌)이면 술(戌), 즉 삼연(三連)이 나올 때까지 일상생기(一上生氣), 이중천의(二中天宜)를 헤아리면서 손가락을 옮기는 모습이다.

참고문헌 **동제의 상징과 의미전달 체계**(이기태, 민속원, 2004).

필자 **이기태(李淇泰)**

생떡국

정의 익반죽한 쌀가루를 가래떡 모양으로 빚어서 동그랗게 썰어 장국에 끓인 떡국.

내용 떡국은 보통 맑은 장국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끓인 국을 말한다. 떡국의 재료인 가래떡은 방앗간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 물에 불린 멥쌀에 소금을 넣고 절구에 곱게 빻아서 고운 체에 친 다음 익반죽하여 시루에 안쳐 찐다. 이것을 떡메로 여러 번 친 다음 손으로 길게 모양을 내 만든다. 설날을 앞두고 많은 양의 가래떡을 만들었다.

이에 비해 적은 양의 떡국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생떡국을 만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생떡국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멥쌀을 곱게 가루내어 끓는 물을 부으면서 익반죽을 하여 손으로 가래떡 모양을 만든다. 쇠고기 · 간장 · 소금으로 국을 끓여서 여기에 칼로 얇게 썬 생떡을 넣고 더 끓인다. 가래떡은 쫄깃쫄깃하게 씹히지만 생떡국은 마치 경단처럼 입 안에서 녹는다.

생떡국은 설날 명절 음식으로 먹기도 하지만 음력 초순에 당제를 지낼 때 제물로 올리기도 한다.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골매기 당제에서는 쌀가루를 반죽해 홍두깨로 민 다음 수제비 뜨듯이 떠서 장국에 넣고 끓인 생떡국을 제물로 올린다. 충남 서천군 서면의 설날 당제에서도 생떡국을 제물로 바친다. 이 떡국을 한자어로 편탕(片湯)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은 한자어가 높임말이라고 생각하여 신령에게 올리는 제물로 부를 때는 생떡국보다 편탕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경북 예천군의 통명마을에서 음력 7월의 백중 때 행해지는 풋굿을 보면 "오호라 봉헤야 생떡국 한 그릇 먹고 하세"라는 타작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쌀을 타작하면서 쌀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생떡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농요의 길을 따라**(이소라, 밀알, 2001), **동해안 마을의 신당과 제의**(천혜숙, 민속원, 2007), **서천의 당제-서면을 중심으로**(이필영, 서천문화원, 2004), **음식전쟁 문화전쟁**(주영하, 사계절, 2000).

필자 **주영하(周永河)**

서낭당

상호참조 서낭신(445쪽), 서낭제(446쪽)

정의 마을 어귀나 고갯말, 산허리 등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돌무더기. 돌무더기는 종종 수목과 함께 서낭당의 한 형태를 이루지만 이러한 서낭당 형태는 점차 사라져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보다는 오래된 나무에 당집이 결부되어 있거나 당집 단독으로 서낭당을 삼아 이것을 마을공동체 신앙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사례가 흔하다.

그런데 돌무더기로서의 서낭당과 마을 제당으로서의 서낭당을 신앙양상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전자는 서낭당이 주로 개인적인 기원(祈願)과 관련된 신앙이라면 후자인 당집 형태의 서낭당은 마을공동체 신앙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서낭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는 마을 제당이라는 점에서 마을신앙에 포함되는 반면에 때로는 무당이나 주부들의 기도처이기도 하여 무속신앙과 가정신앙에 포함될 수도 있다.

어원 서낭당의 명칭은 지방에 따라 일정치 않다. 중부지방에서는 서낭당 · 선왕당 · 경북 영천 등지에서는 천왕당이라고 부른다. 또 영덕 · 포항 등지에서는 골매기당을 '골매기서황' 또는 '서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석단(돌무더기)과 당나무 형태의 서낭당을 평안도 지방에서는 국수당, 함경도 지방에서는 국시당이라고 각각 부른다.

서낭의 어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원을 산왕(山王), 천왕(天王), 상왕(上王) 등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산왕설(山王說)은 서낭이 산신인 산왕에서 유래한다는 설이다. 곧 산왕에서 음운변화 현상에 의해 점차 서낭이 되었다는 것이다. 상왕 역시 이와 맥락을 함께한다. 이 설은 서낭의 어원을 밝히면서 서낭신앙이 산신신앙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서낭당을 천왕당이라고 하는데 산신신앙이 천신신앙에서 연유한 관계로 산신신앙과 계통이 같은 서낭당을 천왕당이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 밖에 중국의 성황신앙과 한국의 서낭신앙은 다르지만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식자층에서 서낭을 한자어인 성황(城隍), 민간에서 서낭으로 쓰게 되고 오늘날 이들 신앙이 혼재하여 서낭신앙과 성황신앙의 의미가 같게 되었다고 한다. 성황 문제는 서낭을 한자로 표기할 때 중국의 성황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 성황은 식자층에 의한 한자 표기에 더 큰 비중이 있고, 재래의 서낭신앙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각 고을에서 관 주도로 이루어진 성황신앙에는 중국의 성황 요소가 가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유래 서낭당의 외형적 특색이기도 한 돌무더기는 그 형태로 인해 돌무덤이라고도 한다. 이 때문에 서낭당의 발생에 관한 전설은 대체로 돌무덤과 연관되어 있다. 한 예로 서낭당이 중국 주(周)나라 강태공(姜太公)의 부인 마씨(馬氏)가 숨진 뒤 만들어진 무덤이라는 유래담이 있다.

주나라 태공이 불우할 때 가출한 그의 처 마씨가 태공이 입신하자 다시 재연(再緣)을 청하였다. 그러나 태공은 마씨에게 물을 가져오라 하여 엎지르고 나서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창피를 주며 거절하였다. 이에 수치감과 애절한 마음을 참지 못한 마씨는 죽어서 서낭당이 되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태공과 마씨가 재회한 곳은 공통적으로 영토(領土)이다. 특히 엎지른 물을 담지 못하고 숨졌기 때문에 기갈(飢渴)을 풀어 주기 위해 침을 뱉는다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강태공계 전설 유래담은 서낭당의 누석단 형태나 신앙 의식에 대한 후대인의 부회(附會)에 지나지 않는다. 마씨부인과 관련된 전설이어서 서낭당을 마씨사당이라고도 한다.

석전전설(石戰傳說)은 조선 명종 초에 국가 외란의 우국(憂國)으로 신앙성을 부수시켜 영토에 돌을 모아 누석단을 쌓게 하여 전시(戰時)에 석전용으로 하려는 데에서 서낭당을 만든 것이 시초라는 이야기이다.

석장(石葬)전설은 미혼의 처녀가 숨지면 길가에 석총(石塚)을 쌓아서 묻고 그곳을 통과하는 많은 남성에게 접촉케 함으로써 원한을 풀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옛 사람의 무덤인데 해골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위에 돌을 던져 석분(石墳)을 만든 것이라고도 한다.

무가(巫歌)를 바탕으로 한 소진량 전설도 있다. 이는 〈성조 본가(성주 본가)〉에 나오는 내용으로, 황우량이 천상의 공사차 출타한 사이에 간악한 소진량이 황우량의 처를 범하려다 실패하자 감금시켜 처는 갖은 고초를 겪는다. 이때 황우량이 공사를 끝내고 돌아와 소진량을 벌하고 그의 처를 되찾는다. 그리고 소진량은 길가의 서낭신이 되어 오가는 행인의 더러운 침을 받게 하였고, 황우량 부부는 성주신이 되었다. 이때부터 서낭당이 생겼다고 한다.

등금장수전설도 있다. 옛날에 소금, 멸치 등을 팔아 쌀보리와 맞바꾸어 겨우 생활을 해 나가던 등금 장수가 딸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전전하다가 고단하고 짐은 무겁고 하여 앉아 쉬다가 쓰러져 숨진 장소가 서낭당이다. 이때 돈 있는 사람은 가족의 평화, 행복, 장수 등을 위하여 대나무에 백지 · 비단 등을 걸어 등금 장수 딸을 위로하고 양밥해 준다 하여 돌을 얹어 주고 귀신이 붙지 못하도록 침을 세 번 뱉었다는 것이다.

서낭당의 발생에 대한 마씨 무덤 이야기와 아울러 서낭당에 침을 뱉게 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전해지는 점으로 미루어 민간에서 유래된 전설은 이미 서낭당이 형성된 뒤 그에 수반되는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 부회적인 설명이라 해야 할 것이다.

역사 서낭신앙의 기원에 대해서는 특히 외형적 특색을 보이는 돌무더기 형태와 명칭에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되어 왔다. 곧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자생설과 몽골이나 중국에서 전파되어 온 것으로 보

서낭당
국립민속박물관

는 전래설이다.

서낭신앙 자생설은 서낭신앙이 우리 고유의 민속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돌무더기 서낭이 우리나라 고대인들의 원시적 경계 표지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또 이 경계표 돌무더기에서 차츰 경계신(境界神)의 처소, 제단 개념이 형성되어 경계신의 신체(神體)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서낭의 본질이 우리나라 고유의 산신신앙과 그에 선행한 천신신앙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마찬가지로 고유 민속에서 서낭신앙의 기원을 찾고 있다. 아울러 서낭당이 석전(石戰)에 대비하여 고갯마루 등에 돌을 쌓아 놓은 것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자생설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생설에 반해 서낭당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보는 전래설은 크게 몽골의 '오보 전래설'과 중국의 '성황 영향설'로 나뉜다. 오보는 흙이나 돌을 원뿔형으로 쌓아 올리고 그 상부에 버드나무가지 한 묶음을 꽂아 두거나 목간을 세워 놓은 것을 말한다. 오보를 통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마(下馬)하여 이에 배례(拜禮)하고 지나가며 이때 오보의 나뭇가지에 공물로 예백(禮帛)을 걸어 놓거나 돌을 던져 기원하기도 한다.

오보는 몽골뿐 아니라 시베리아를 비롯하여 중국의 동북부와 서북부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널리 분포한다. 여행의 안전을 빌기 위해 돌을 던진다거나 오보의 나뭇가지에 포백편(布帛片)이나 오색천 등을 거는 현납속(縣納俗), 돌무더기를 신의 거소로 인식하여 이를 신성시하고 매년 정기적인 제의를 하는 것 등은 서낭과 오보 신앙에서 양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보는 한자로 악박(鄂博)이라 쓰며 몽골식 발음이 오워이다.

우리의 신앙은 원천적으로 천신을 모태로 하여 점차 분화한 것으로 본다면 서낭신앙은 몽골의 오보신앙이 전래되면서 수수관계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전래 시기는 우리나라와 몽골이 문화적 · 정치적으로 관계가 깊던 고려 후기인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중반쯤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성황의 전래에서 서낭의 기원을 찾는 주장은 비교적 일찍부터 제시되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 그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통해 "우리나라 도처의 고갯마루에는 선왕당(先王堂)이 있는데 이것은 성황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서낭을 성황이 잘못 발음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형태와 내용 서낭당에서는 개인적인 기원을 하거나 마을 공동의 제의를 지내기도 한다.

김태곤은 서낭당의 형태를 신목에 잡석(雜石)을 쌓은 누석단이 복합되고 이 신목가지에 백지나 오색의 견포편(絹布片, 비단조각)이 걸려 있는 형태, 잡석만 쌓여 있는 누석단 형태, 신목에 백지나 오색 견포편이 걸려 있는 형태, 신목과 당집이 복합된 형태, 입석 형태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서낭당의 독특한 형태적 특징으로 잡석을 쌓은 누석단과 신목에 백지나 오색 견포편이 걸리는 현납속의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그런데 돌무더기에 돌을 던지거나 나뭇가지에 천이나 비단조각 등을 걸어 놓는 현납속은 개인적인 기원을 할 때 나타난다. 돌이나 천, 비단조각 등은 본래 신에게 바치는 공헌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서낭당에 대한 현납속은 마을공동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서낭당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납속은 개인제와 연관된 것임을 나타낸다.

한편 공동제의 대상으로서 서낭당의 형태는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형은 다시 돌무더기형, 수목형, 당집형으로 나뉜다. 복합형은 돌무더기와 수목, 당집과 수목, 당집과 솟대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돌무더기는 서낭당의 고유한 형태라 할 수 있지만 잔존하는 예가 매우 드물다. 수목을 서낭당으로 보는 경우도 드문 편이지만 이는 결코 서낭당만의 고유 형태는 아니다. 지역에 따라 산신이나 기타 마을신으로 신앙하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목 밑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형태는 서낭당 이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돌무더기와 수목이 복합된 경우는 서낭당의 고유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이 원천적으로 천신을 모태로 점차 분화된 것으로 본다면 서낭 역시 천신신앙,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산신신앙과 맥을 함께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산신이 그렇듯이 서낭신 역시 단순한 자연신이나 마을에 처음 들어온 조상신, 역사와 관련된 인

서낭당 국립민속박물관

성금리 서낭당

문이골 서낭당

종곡리 서낭당

물신 등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만큼 산신의 변용은 다양하다.

지역사례 서낭당의 고유한 형태는 돌무더기와 수목이 복합된 것이다. 이는 서낭당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낭당은 대체로 당집 형태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가정2리 가정자마을의 서낭당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돌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다.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정2리의 마을 주민들은 주위의 산들을 마을 기준으로 뒷동산과 앞산이라고 부른다. 서낭당은 앞산 골짜기 길목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곳은 채골(가정자 북동쪽의 골짜기)로 넘어가는 산 중턱에 자리한 언덕배기이다. 마을에서 약 1㎞ 떨어져 있는 이 곳에는 참나무, 엄나무, 도토리나무 같은 여러 수종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제당도 없고 특별한 당나무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다. 서낭신을 모신 이 장소의 여러 나무들을 모두 당나무로 모시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고 썩더라도 치우는 일이 없다. 그리고 아기 머리 크기의 돌무더기가 땅에 박혀 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돌무더기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제단이나 돌탑이 있던 적은 없었다고 한다. 제상(祭床)은 당나무를 사이에 두고 마을 쪽으로 차리며 오른쪽 나무 곁가지에는 제일(祭日) 일주일 전부터 금줄을 걸어 놓는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1리 도화동에서는 정월 열나흗날과 음력 동짓달 초사흗날에 서낭제를 지낸다. 마을에는 서낭당과 산신으로 여기는 신목인 노송(老松)이 있다. 서낭당은 시멘트 벽에 기와를 얹었으며, 문은 함석으로 만들었다. 내부에는 제단이 있고, 제단 중앙에 신위가 모셔져 있다. 신위는 높이 45㎝ 정도의 판자에 '성황지신위(城隍之神位)'를 붓으로 쓴 형태이다. 원래 서낭당은 나무판자로 얽은 벽에 기와를 얹은 건물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을 겪으면서 불에 타 없어져서 원래의 자리에 다시 지었다.

의의 서낭당과 같은 마을 제당은 주민들의 종교심성을 공유할 수 있는 신성한 영역이다. 마을의 수호신을 섬김으로써 역사의식과 심적(心的)유대,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특히 서낭당은 다른 동제당에 비해 민중이 가깝게 여기는 마을 제당이자 때로는 개인제당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누석단(累石壇)·신수(神樹)·당집신앙연구**(조지훈, 문리논총 문학부편 7, 고려대학교, 1963), **서낭당**(이종철·박호원, 대원사, 1994), **장생고**(손진태, 한국민족문화의 연구, 손진태선생전집, 태학사, 1981),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의 마을신앙 상**(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김명자(金明子)**

서낭신

(상호참조) 서낭당(440쪽), 서낭제(446쪽)

정의 민속종교에서 토지와 마을을 수호하는 신. 지역에 따라서는 경계신의 기능을 한다. 신체(神體)로는 신수에 잡석을 쌓은 돌무더기를 서낭으로 모신다. 집을 지을 때에는 신수와 함께 당 안에 신위나 화분(그림)을 모셔 신체로 삼고 지역수호신으로 믿는다. 서낭을 모신 장소는 서낭당이라고 부른다. 서낭당은 대부분 고갯마루나 한길 옆, 마을 어귀 등지에 위치하고 있다. 서낭의 어원은 뚜렷이 밝혀진 것이 없다. 학자에 따라 산신인 산왕(山王)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중국에서 들어온 성황(城隍)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다.

내용 서낭신은 개인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마을수호신으로 믿기도 한다. 돌무더기와 나무로 구성된 서낭당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의례가 전승되고 있다. 사람들이 서낭당 앞을 지날 때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으면 재수가 좋다는 속신이 있다. 정월에는 횡수막이로 동정을 뜯은 가족의 옷과 제물을 차려 놓고 신목 밑에서 정성을 들이기도 한다.

서낭신이 마을수호신으로 공동체 의례의 대상이 될 때는 지역에 따라 전승 양상이 다르다. 강원도와 경상도의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마을수호신으로 모시며, 흔히 골매기 서낭이라고 부른다. 정기적으로 지내는 동제를 모실 때에는 서낭신의 신위나 화분 앞에 제물을 진설한다. 분향과 절, 독축으로 제사를 모신 뒤에 서낭소지를 올려 신이 제사를 잘 받으셨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제관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지를 올려 그해의 신수를 알아본다. 무당을 불러 서낭굿이나 별신굿을 할 때에는 서낭대로 신을 내려 마을의 풍흉과 미래를 알아본다.

서낭신에 대한 관념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골매기 서낭은 남녀 신으로 나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서낭굿에 이어 하후굿(화해굿)을 하여 두 신을 결합시키면서 풍요를 기원한다. 처음 마을에 들어와 개척한 입향시조를 골매기 서낭으로 모시기도 한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서낭신도 있다. 강릉시 강문과 심곡의 여서낭은 모두 바다에서 들어온 신이라고 한다. 이 밖에 삼척시 갈남서낭은 백호라고 믿고 있다.

평안도 지방에서도 서낭은 지역수호신으로 신앙한다. 특히 평안도 서낭굿에서는 서낭신이 나라에 해를 주는 자리곰방을 치죄하고 나라 밖으로 쫓아내는 내용이 연극적으로 연출되고 있어 더욱 광범위한 지역수호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황해도 지방의 서낭은 지역수호신이 아니라 모든 일의 문과 길을 열어 나쁜 액을 막아 주는 신이다. "고루고루서낭 마루마루서낭 산을 타던 서낭 골을 타던 서낭 동남서북서낭 길 위에 서낭 길 아래 서낭 수살서낭 남경서낭 북경서낭 사신서낭 행차서낭 남서낭 여서낭 수풀서낭 덤불덤불서낭 너울너울 서낭 받아날제 감기고뿔서낭 몸살서낭 걸립서낭 열기행차 서낭님들 서낭에 길을 열어 상산부군 안암 받아 우 높은 서낭 좌 높은 서낭 산에 가면 산신덕 입고 동서사방 길 재수주고 물에 가면 용궁 소망주어 어마대길 길진 잡아 만리용마 낚아타고 뜬 귀는 소렴하소사"라는 무가는 서낭이 인간이 왕래하는 모든 길을 열어 주는 신인 동시에 마을수호신인 부군이나 산신의 하위신적 성격을 보여 준다.

서낭과 성황(城隍)은 발음과 기능의 유사성 때문에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이능화는 『조선무속고』에서 서낭은 중국의 성황이 이입된 신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손진태, 조지훈, 김태곤은 서낭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신앙이며 후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성황과 복합되었다고 본다. 이 경우 서낭신앙은 신목과 돌의 결합으로 성역과 성소를 나타내고 있는 몽골의 오보(oboo)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에서 성황은 성읍을 수호하기 위해 둘레에 파놓은 못의 신, 즉 성지신이 성읍의 수호신으로 신앙하게 된 것이다. 성황이 보편화된 시기는 송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성황이 들어온 것은 고려 문종 때 신성진(新城鎭)에 성황사를 둔 것이 처음이다. 고려시대에는 주·부·현마다 성황을 두고 극진히 위하였다.

조선시대의 성황은 국행성황과 읍치성황으로 나뉜다. 태조와 태종은 산천과 주요 고을에 성황을 두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백악성황, 송악성황, 해주·괴산·현풍·양산·신성·밀양·전주·고성의

성황을 크게 모셨다. 또 정기적인 제사뿐만 아니라 국난이나 가뭄이 있을 때도 제사를 지내 국태민안을 기하였다.

읍치성황은 읍성이 있는 고을에서 모시는 성황을 말한다. 관인성황이라고도 하는 읍치성황은 관에서 주재하였다. 1530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전국 328개 군 · 현에 325개 성황사가 있었다. 여기에 나타난 성황신의 성격은 인격신, 산신, 동물신, 주물(呪物), 모자신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라에서는 유교 전통을 따른 형식적 의례를 권장하였으나 실제 읍치성황제는 호장이 중심이 되어 제사와 무당굿이 이루어지며 축제의 내용을 보이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이러한 읍치성황제의 내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전승하고 있는 축제이다.

서낭과 성황은 민간에서 명칭이 혼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들어온 성황은 관인성황의 성격을 유지하였고, 민간에서는 명칭만 혼용했을 뿐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민속원,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인의 굿과 무당**(황루시, 문음사, 1988).

필자 **황루시(黃縷詩)**

서낭제

상호참조 서낭당(440쪽), 서낭신(445쪽)

정의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서낭신에게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농어업의 풍요 및 제액초복을 기원하는 동제.

유래 우리 서낭신앙의 유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중국의 성황신앙에서 우리 서낭신앙이 발생하였다는 설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고대로부터 천신숭배신앙 · 산악숭배신앙 · 수목숭배신앙 · 암석숭배신앙 등이 어우러져 조성된 고유의 토속적 민족신앙으로서의 서낭신앙이 있었으며, 중국의 성황신앙이 고려 초에 전래되자 서낭신앙의 '서낭'을 '성황'이라 표기하였을 뿐 중국의 성황신앙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설이다.

서낭의 한자 표기는 축문이나 위패 등에 따르면 성황(城隍), 성황(城皇), 성황(聖皇), 선왕(仙王), 선앙(仙央), 선낭(仙娘), 선왕(先王), 성황(誠隍), 선황(仙皇) 등으로 되어 있다. 또 항해의 안전과 풍어를 좌우하는 선신(船神)을 강원도 해안지역에서는 배성조(成造) · 배성주라 하지만 그 외 해안지역에서는 배서낭(船王)이라 하고, 또 배에는 이물서낭 · 고물서낭 · 기계서낭 등이 있어 서낭을 산왕(山王)의 음운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서낭제는 주로 강원도 지방과 강원도에 연접한 경북 · 충북의 산간지역에서 거행되는 동제를 일컫는 말이다. 동제의 명칭은 마을에 따라 서낭제, 산신제, 산천제, 산제, 당산제, 당제, 동신제, 도신제, 도당제, 천제, 이사제(里社祭), 골맥이제 등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성황당이란 명칭은 『고려사(高麗史)』에서 처음 나타난다.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조에 안종 욱(郁)이 사수현으로 귀양을 갔다가 996년(성종 15)에 죽을 때 아들에게 "이 고을 성황당 남쪽 귀룡동에 매장하되 반드시 엎어서 묻게 하라"라는 유언에서 '성황당'이란 명칭이 등장하는 것과 『고려사』 권63 지17 예5 잡사조에 1055년(문종 9) 3월 임신일에 선덕진(宣德鎭) 신성(新城)에 성황신사를 두고 숭위(崇威)라는 칭호를 내리고 춘추(春秋)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나말여초에 중국의 성황신앙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6년 4월에 태조가 내린 훈요10 가운데 6조에 "짐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연등과 팔관에 있노라.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천령 및 오악 명산대천과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간신이 가감을 건의하는 자가 있거든 꼭 그것을 금지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성종이 화풍(華風)을 즐겨 모방하려 하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조에 전민관어사 이지백이 성종에게 "선왕으로부터 전하여 오던 연등 · 팔관 · 선랑(仙郎) 등 행사를 다시금 거행하고 타국의 이법(異法)을 본받지 말며 그리하여 국가를 보전하고 태평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하였다. 이 건의에 언급되는 '선랑'이 어떤 신앙적 행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토속신앙 행사인 것만은 틀림없다. 곧 '선랑'이 '서낭'으로 음운변천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서낭제
국립민속박물관

한다. 그래서 오늘날 토속신앙인 서낭신앙의 성역을 서낭당이라 한 것과 고려 중기 이후 군과 현에 설치하고 치제케 한 성황사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종실록(中宗實錄)』 권25 중종 11년 6월 계축조에 김안로가 왕에게 아뢴 "소위 음사라는 것은 외방성황당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한 외방성황당이 토속적 서낭당이고, 고려 중기 이후 일부 군과 현에 설치한 성황사(城隍祠)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주 · 부 · 군 · 현마다 성황사를 두어 관제로 봄과 가을에 치사하게 한 성황사신은 중국 명나라 태조 때에 들어온 『홍무예제(洪武禮制)』에 따른 외래 신앙인 성황신앙이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권1 길례 단묘도설 풍운뇌우산천성황단조에 놓여 있는 위패를 보면 풍운뇌우신(천신)은 가운데, 산천신은 오른쪽, 성황신은 왼쪽에 각각 위치한다. 우리의 토속신앙인 서낭당의 위패 위치를 보면 강릉시 난곡동 · 죽헌동 · 강동면 안인진리 · 왕산면 탑동 ·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 하맹방리 등의 경우 중앙에 성황지신위, 오른쪽에 토지지신위, 왼쪽에 여역지신위가 각각 놓여 있다. 또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둔말의 경우 중앙에 성황대신신위, 오른쪽에 단군대왕신위, 왼쪽에 토지지신신위가 각각 놓여 있다. 이처럼 『국조오례의서례』의 풍운뇌우산천성황단조와 토속신앙인 서낭당의 위패 위치에 큰 차이가 있음으로써 서낭신앙이 중국의 성황신앙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 송대의 성황신앙이 수용되자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지방 호족을 대표하는 인물이 성황신으로 일부 좌정하게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336개의 성황사 가운데 밀양도호부에 손긍훈, 양산군에 김인훈, 의성현에 김홍술, 곡성현에 신숭겸, 순천도호부에 김총, 대흥군에 소정방 등이 성황사의 사신으로 각각 좌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풍물패가 등장하거나 무당이 개입되는 등 이른바 음사로 지칭되는 외방 서낭당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토속신앙으로서 마을마다 세워져 마을의 수호와 안녕 및 풍농 · 풍어를 기원하는 세시적 제의의 신성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내용 및 지역사례 서낭당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돌무더기, 돌무더기와 수목, 돌무더기와 장승과 솟대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 형태는 주로 마을 어귀나 고갯길에 있어 개개인의 안전한 여행을 바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날 때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다. 이러한 신앙행위의 대상물이 바로 서낭당이다. 또 하나는 세시적으로 마을의 안녕, 풍농 · 풍어, 제액초복을 기원하는 대상 신격이 머물고 있는 신성공간으로서의 서낭당이다. 서낭제는 후자의 서낭당과 짐대(진또배기)에서 베푸는 동제를 말한다.

제의는 마을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또는 세 번을 치른다. 제의 날짜는 일 년에 한 번이면 정월대보름이나 정월 초순에 많이 거행하며, 두 번이면 3월 3일과 9월 9일, 정월대보름과 단오 또는 정월대보름과 10월 15일에 많이 치른다. 세 번이면 정월대보름, 단오, 9월 9일에 주로 한다. 정월에 행하는 서낭제는 신년에축의례, 삼월삼짇날과 단오의 서낭제는 파종과 성장의례, 중구일이나 시월 보름에 거행하는 서낭제는 천신(薦新)과 수확 의례라 할 수 있다.

도가나 제주의 선정은 제의 전 7일이나 5일쯤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에서 선정하거나 대를 잡아 선정하는 마을도 있다. 도가나 제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나이가 많으며, 그해에 생기복덕이 있고, 부부가 화목하게 공존하며, 부정이 없는 집안의 사람을 고른다. 부정은 일 년 이내에 가족 가운데 임신이나 출산자 또는 병자(病者)나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람의 시신을 보거나 만진 적이 있는 경우, 가축 또는 짐승을 죽이거나 그 사체를 본 경우, 재난을 당한 경우 등을 말한다. 도가(당주)와 제주 및 제관의 수는 대여섯 명이다. 도가나 제주가 되면 엄격하게 금기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가나 제주 되기를 꺼린다. 금기생활은 도가나 제주로 선정되면 부정한 곳(출산 · 혼사 · 초상)에 가지 않으며, 부부간의 잠자리도 피하고, 근신하며, 개고기를 먹지 않는 등 몸을 정결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도가나 제주가 제수(祭需)를 구입하러 갈 때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든 인사하지 않으며, 제수 구입 때 상인과의 대화를 꺼려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부르는 대로 값을 지불하며, 장에서 돌아올 때 도중에 쉬지 않고 바로 도가(제주) 집으로 와야 한다. 제의 3~5일 전에 제주(祭酒)를 담근다. 제주를 담글 때 고두밥과 누룩을 버무려 물을 부어 단지에 넣고 단지 뚜껑의 둘레에 금줄을 친 다음 도가(제주) 집이나 서낭당 옆에 땅을 파고 묻어 두었다가 제의 때 꺼내어 쓴다. 그리고 도가나 제주는 자신의 집과 서낭당 및 제수를 조리할 샘을 깨끗이 청소하고, 길지를 드문드문 끼워 넣은 왼새끼(금줄)를 치고, 황토를 서너 군데 놓아 부정을 막는다. 특히 샘물은 금줄을 치면 제의가 끝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긷지 못한다. 도가(제주) 집에서 제수를 조리할 때에는 고춧가루와 마늘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깨소금을 사용하되 간도 보지 못한다. 제의날 밤 도가 또는 제주와 제관들은 목욕재계하고 정갈한 옷을 갈아입은 뒤 제수를 지게에 지고 서낭당에 간다. 서낭당에 도착하면 먼저 금줄을 걷고 들어가 제수를 진설하고 주로 유교식으로 제의를 올린다. 여자는 일절 참여할 수 없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펴낸 『한국의 마을신앙』에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광나루마을 서낭제의 현장 보고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동네 무녀가 참여한다. 서낭제를 지내기 전에 무녀가 모래밭에서 부정치기를 한다. 이때 제관 두 명이 간단한 제물을 들고 수서낭(남쪽 동산 중턱에 있는 신목인 참나무)에 가서 제물을 차리고 재배한 뒤 수서낭을 모시고 바닷가에 위치한 암서낭당에 가서 합배한다. 그러면 도가가 제수를 진설하고 강신을 위해 분향한 뒤 헌작 재배하고 이어 초헌관 헌작 재배, 아헌관 헌작 재배, 종헌관 헌작 재배를 한다. 이어서 무녀가 부정굿과 서낭굿을 하고 소지(도가소지, 마을 주민들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수배신을 위해 바가지에 제수를 한 가지씩 담아 놓고, 다시 무녀와 제관들이 별도로 장만한

서낭당 금줄
국립민속박물관

포 · 삼실과 · 술을 바닷가 모래밭에 진설하고 촛대 두 개에 불을 밝히고 향을 사른 뒤 용왕굿을 하고 나서 잡귀잡신을 위해 제수를 일부 떼어내 바다에 던진다. 이윽고 암서낭당으로 돌아와 수배신을 위한 굿을 간단히 하고 나면 제의에 참여한 자들이 음복을 한다. 남은 음식은 도가로 옮겨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결산보고를 한다. 남은 금액은 어촌계에 반환한다.

제의 뒤에 금줄은 걷지만 도가나 제주는 부정한 곳의 금지 등 금기생활을 보름 또는 반년 동안 지킨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대부분의 마을이 이와 같은 금기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도가나 제주도 제의 뒤 사흘 동안 부정을 피하고 몸가짐을 조심한다.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도가나 제주가 되는 것을 꺼려 어떤 마을에서는 노인회 회장이 제주가 되고, 제수 구입은 유사가 하며, 제수 장만은 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며, 어촌계장 · 이장 · 반장이 제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어업을 주로 하고 가구 수가 많은 마을에서는 신위 앞에 메, 채국, 백설기, 열기(또는 돼지머리), 술(막걸리), 삼색과실, 문어, 포(대구포, 북어포), 삼색나물, 어물, 달걀, 채소전, 탕(하나 또는 셋), 과줄(한과) 등을 제수로 진설한다. 그리고 신위가 두 분이면 두 신위 앞에 제수를 각각 진설하거나 진설된 제수에다 신위 앞에 메, 갱, 술잔만 따로 놓는다. 신위가 세 분이면 제상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수를 진설하고 각 신위 앞에 메, 갱, 술잔만 각각 놓는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3리(미날)의 서낭제에는 성황지신과 산천지신을 한 상에 모시고 각 신위 앞에 메와 청수, 가운데에 돼지머리만 놓고 제의를 행한다. 일부 어촌에서는 해신(여서낭)을 위해 남근목이나 우신낭(牛腎囊)을 바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과 고성군 죽왕면 문안리 망개마을의 해신당에는 해신제 때 목각 남근을 바치고 있으며, 과거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2리의 해랑당에도 봄 제의 때 목각 남근을 바쳤으나 지금은 여서낭을 남서낭과 결혼시킴으로써 바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강릉시 강문동 여성황당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제수를 진설할 때 생선 위에 문어를 뒤집어씌우고 그 위에 우신낭을 올린다. 산촌의 경우 제수는 간단하다. 신 위패 앞에 메 또는 쌀 한 그릇, 백설기, 북어포, 대추, 밤, 배, 곶감, 사과, 술 또는 감주 정도이다. 서낭제는 마을의 지리적 · 인문적 환경에 따라 제수가 다르다.

제비는 어촌의 경우 어촌계의 기금과 마을공동기금으로 주로 하고, 산촌의 경우 제답(祭畓, 수확물을 조상의 제사에 쓰려고 마련한 논)의 경작으로 나오는 쌀이나 가구마다 일정 곡물이나 금전을 갹출하여 제수비로 쓴다. 마을에 두레패(걸립패)가 있을 때는 집집이 방문하여 성주풀이 등을 해 주고 전곡을 모아 서낭제의 제비를 마련하고, 남는 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비축하여 마을에 긴요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풍물을 칠 20~30대가 도시로 많이 진출하여 두레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의를 마친 뒤 고작 윷놀이 정도의 뒤풀이 놀이가 있을 뿐이다.

제의 과정을 보면 부산 지역의 경우 산신제(할배)-당산제(할매)-거릿대제(짐대제) 순서로 진행되는 가운데 거릿대제는 요즘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강서구 명지동 할매제당과 진동 할배제당에는 거릿대를 제당 안에 세워 두고 당제를 올리되, 동제의 주 신격은 각각 당산 할매와 할배이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펴낸 『한국의 마을신앙』에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1리 달효마을 서낭제에 관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서낭당(골맥이 할배당) · 산신당(참나무) · 수구당(팽나무를 할매당이라 칭함)이 있으며, 제의를 산신당 · 할배당(성황대주신) · 할매당(동구지신)의 차례로 지내니 할배당이 서낭제의 중심 신격이며 할매당은 부산 지역의 거릿대 신격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강릉시 강문동에는 남성황당, 여성황당, 짐대성황(진또배기골맥이성황)이 있다. 이곳에서는 정월대보름날의 새해 예축제와 추석의 추수제 때 여성황당과 짐대성황에 동시에 제의를 지내지만 여성황당에 여서낭도(圖)가 있음에도 성황지신 · 토지지신 · 여역지신에게 새옹메 세 그릇을 놓고 제의를 치른 뒤 수부장군신에게 제의를 행하며, 5년에 한 번 풍어굿을 할 때에만 남성황당에 제의를 올리고 있어 여서낭과 짐대서낭이 중심 신격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펴낸 『산간신앙』에 따르면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연어골에는 상당(성황당=신위: 토지지신도 · 성황지신도 · 여역지신도), 중당(골맥이당=천제당), 하당(진대)이 있다. 이곳에서는 정월대보름제에 상 · 중 · 하당에 치제하고, 단오제에 상 · 하당에 치제하고, 12월 15일 제의에 상당에만 간단히 치제하고 있어 서낭당

서낭제
국립민속박물관

제가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마을마다 서낭제의 제의 과정이 다르지만 당집이 없는 마을에서는 신목인 노거수 밑에 제단을 만들어 서낭제를 지냄으로써 강원도에서 해신을 섬기는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수목숭배신앙이 서낭제에 깊이 스며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의 서낭신앙이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형성된 토속신앙이라고 할 때 신목(神木)은 주로 마을 뒤 산록이나 뒤편에 자리 잡은 키 큰 노거수이다. 이는 수목이 지니는 생생력과 재생력을 신봉하는 것에서 연유된 것이라 할 수도 있고, 수목이 천신의 하강과 회귀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환웅이 천상에서 하강할 때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를 매개로 하여 내려온 것도 토속신앙면에서 보면 서낭목을 타고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돌무더기 서낭당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제의를 베푸는 서낭목이나 서낭목 옆에 세워진 당집 형태의 서낭당이 신체나 서낭신이 머무는 신성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신성목인 서낭목과 서낭신이 머무는 신성 공간에서 매년 정월 초순이나 대보름 하루 이틀 전에 금줄을 치거나 마을 앞에 금줄을 침으로써 성·속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제의 기간에는 성·속이 통합되며 제의가 끝난 뒤 금줄을 걷어냄으로써 성·속은 일상생활 속으로 용해된다.

서낭제는 성화된 시간과 공간에서 서낭신에게 한 해 동안 마을의 수호와 풍농·풍어 및 각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이기 때문에 부정이 없는 남성 위주로 비의적(祕儀的)이면서도 반(半)유가적으로 제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 제의의 마지막에 올리는 소지는 신의 흠향 여부와 아울러 그해의 마을공동체 운수나 각 가정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행위이다. 제의 후 서낭신이 흠향한 제수를 마을 사람들이 음복하는 것은 성성(聖性)의 공유라고 할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제비를 갹출하고 제의 뒤에 함께 뒷놀이를 하는 것은 지연적 유대감과 단합심을 돈독히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國朝五禮儀序例,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五洲衍文長箋散稿, 中宗實錄, **강원도 서낭신앙의 유형적 연구**(장정룡, 한국민속학 22, 한국민속학회, 1989), **누석단·신수·당집 신앙연구**(조지훈전집 7, 일지사, 1973), **마을지킴이의 유형과 실제**(장정룡, 조선땅 마을지킴이, 열화당, 1993), **部落祭**(村山智順, 조선총독부, 1937), **부락제당**(이두현 외, 문화재관리국, 1969), **산간신앙-강원·경기·충북·충남편**(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서낭당**(이종철 외, 대원사, 1994), **순창과 강릉 성황제의 비교 고찰**(장정룡, 성황당과 성황제, 한국종교사연구회편, 민속원, 1998),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 19, 계명구락부, 1927), **중국 성황의 사적 전개와 신앙성격**(박호원, 민속학연구 3, 국립민속박물관, 1996), **한국의 산간신앙-강원·경기**(김종대 외, 민속원, 1996), **한국의 마을신앙 상·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중국의 성황신앙사와 순창의 성황대신사적**(서영대, 성황당과 성황제, 한국종교사연구회편, 민속원, 1998).

필자 김승찬(金承璨)

서산옥녀제(瑞山玉女祭)

정의 충남 서산시 부춘산(富春山) 최고봉인 옥녀봉에 얽힌 지역 수호신 옥녀로 인해 계승되는 산신제.

유래 및 역사 부춘산의 최고봉인 옥녀봉은 산세가 마치 왕(聖旺山)을 모시고 있는 시녀(옥녀봉)와 그 앞에 장군(장군봉)이 시립하고 있는 모습으로, 풍수지리설에서는 옥녀가 거문고를 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를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라고 부른다. 『서산군지(瑞山郡誌)』「산악(山岳)」에서 "부춘산은 산맥이 성왕산에서 나와 서북쪽으로 뻗어 본 면 온석리(溫石里)를 경유하여 동문리(東門里)에 이르러 부흥산(富興山)이 된다. 산 아래에는 공자묘가 있고 여기서 세 지맥으로 나뉜다. 한 지맥은 서남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뻗어나가 동문리 읍내리(邑內里)에서 솟아 오른 부춘산[北圭山] 옥녀봉이 서산군 치소의 뒷산이다 …… (중략) …… 이 산은 백사와 청송 사이에 기암절벽이 들쭉날쭉 솟아 천연의 공원을 형성하였고, 조망이 툭 트였다. 옛날에 풍수가가 이르기를 '이 산은 장지(葬地)로 괜찮은 곳이 있으니 옥녀탄금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또한 많이 이 산에 올랐다"고 하고 있다.

「고적(古蹟)」 일화(逸話)조에서는 "현 군청 뒷산을 부춘산 북주산이라 하고 그 최고봉을 옥녀봉이라고 한다. 옥녀봉 아래에 음택 길지가 있는데 군 뒷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장지를 꾸미지 못한다. 미신을 좋아하는 자들이 혹 밤에 와서 몰래 매장하면 읍에 반드시 전염병이 돈다고 하는데, 이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다. 1925년 봄에 읍인들이 많이 장질부사(腸窒扶斯, 장티푸스)에 감염되자 서로 도모하기를 '필시 북주산에 누군가 몰래 매장을 한 것이다' 하고 가서 수색해 파내 버렸다"라고 나온다. 비록 매우 이치 없는 일이라고 부언했지만 이장(移葬)을 하자 비로소 괴질이 사라졌다. 이후 20개 읍·면에서 각기 옥녀의 목상을 만들어 당에 모셨다. 고물(古物)조에는 "불당과 목상은 군청 뒤 옥녀봉 위에 있다. 기와 수십 조각으로 작은 집을 만들고, 집안에 수십 개의 목상을 안치했다. 동문리와 읍내리 사람들이 매년 음력 정월 14일마다 제사를 베풀고 복을 빈다. 예전에 일본인 고고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박사가 참고하기 위한 물품으로 그중 한 개를 가지고 가서 도쿄 이과대학에 두었다. 불당 아래 여단(厲壇)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옥녀제는 국태민안, 시화연풍, 안과태평, 소원성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신제이다. 옥녀는 선녀를 일컫는 말이며, 선녀는 인간 속세를 떠나 하늘에 산다. 옛날부터 옥녀 전설이 심어 주는 충효정신은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았고, 주민들은 옥녀봉을 신성시하며 옥녀제를 계승해 왔다. 일제는 옥녀제를 항일의 산실로 보고 산신당을 부수는 등 혹독한 탄압을 가하였으며, 도리이 류조가 옥녀제에 쓰이는 목각을 일본으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일제의 감시 속에서 주민들은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옥녀제를 몰래 지내면서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광복 후 당을 다시 짓고 제를 올려왔으나 갑작스러운 외래문화의 유입과 새마을운동 등으로 미신 타파라 하여 이 제의는 송두리째 사라졌다.

그러다가 1987년에 이르러 제1회 서산문화제 전야제 때(10월 길일) 처음으로 옥녀제를 지냈다. 그러나 이것도 곧 궐사(闕祀, 제사를 지내지 않음)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서산 지역 관가에 불상사(불명예 퇴직, 횡사 등)가 잦아지자 1989년에 당시 윤영복 부춘동 동장과 김현구 서산문화원 원장이 주도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옥녀제를 재현하였다. 1990년 2월 서산 지역의 유림 계통 인사들이 모여 모경회(慕敬會)를 조직하여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 옥녀봉 산정 국기게양대 밑에 제단을 설치하고 40여 명의 회원이 유가식으로 제향하게 되었다. 2000년 서산문화제가 없어지고 대신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가 개최되었지만 2004년부터 축제의 전야제 행사에서 제외되기 시작한다. 현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모경회 주관으로 제의를 지낸다.

내용 및 특징 서산시 소재지의 북쪽에 위치한 뒷산 부춘산은 부춘동에 속한다. 1989년 1월 1일 서산군이 서산시로 승격되면서 읍내동과 갈산동을 관할하는 행정동명은 부춘동이 되었다. 산 이름은 주산(主山), 북산, 주산, 북주산, 부춘산으로 변천되어 왔다. 가장 높은 곳이 해발 187m이고, 중심 봉우리가 있는 곳은 해발 142m이다. 서산시는 배산임수(背山臨水)로 배치되었고, 동쪽에 해발 668m의 가야산맥이 서북쪽으로 길게 휘돌아 가다가 뭉쳐져 남향한 부춘산이 있는 곳에 서산 시가지가 자리 잡는다. 부춘산은 풍부한 유적과 다양한 체육기구를 갖춘 이 지역의 명소로서 면적은 약 32㏊이고, 1991년 3월 26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옥녀봉은 전국 각지 여러 곳에 있다. 서산과 태안 지역만 하여도 무려 10여 개나 된다. 그러나 부춘산 옥녀봉 전설은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는 애틋한 이야기로 전해진다. 현재 모경회 회원 30여 명이 주축이 되어 매년 정월 열나흗날 오후 2시 30분쯤 옥녀제를 지낸다. 옥녀제 사흘 전에 제단 앞에 황토를 3~6무더기 놓아 부정한 자가 지나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제관은 다섯 명으로 생기복덕을 가리지 않고 선정하고, 선정한 이후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원래 전통적인 마을에서는 생기복덕을 따져 제관을 1~3명 선정하고, 이들은 금기를 따른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관련된 시 · 읍 · 면 단위 동신제는 직책으로 제관이 결정되며, 금기도 임의적인 성격을 띤다. 제복으로는 유건을 쓰고 하늘색 도포를 입지만 일상적인 복장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매년 제향을 통해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서산 옥녀신 제단
충남 서산시 읍내동 부춘산, 2010.6.3, 상기숙

옥녀제
충남 서산시 읍내동
부춘산, 2010.1.14(음)
상기숙

옥녀전설비
충남 서산시 읍내동
부춘산, 2010.6.3
상기숙

시 중심 제의로 초헌관에 시장, 아헌관에 시의회 의장, 종헌관에 모경회 회장, 축관에 모경회 회원 등이 선정된다. 이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 성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제수는 팥시루떡, 돼지머리, 과일, 곶감, 밤, 대추, 북어포, 술, 향, 촛불 등이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제차는 강신-초헌-독축-아헌-종헌-소지 순으로 진행된다. 제비는 서산시 지원금 200만 원 외에 모경회에서 분기별로 1만 원을 내는 회비에서 30만 원을 보탠다. 제사 뒤에는 음복만 할 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행사를 치르지 않는다. 동신제는 마을 사람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최근 참가 인원이 행정 단위 대표들만 모이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시 행정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단위별 동신제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나 반면 지역주민의 주도와 참여는 희박하다. 더욱이 모경회를 비롯하여 동신제 주관자가 거의 60대 이상 노인이다 보니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젊은이들의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다.

옥녀는 나라를 지켜 주는 충(忠)의 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孝)의 신, 주민의 소망과 안녕을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서 서산 지역 주민들의 민간신앙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다. 옥녀봉 전설은 대략 세 가지로 집약된다.

1. 눈 속에서 고사리를 꺾는 소녀 옛날 옥녀봉 밑에 젊은 부부가 단란하게 살았다.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내려와 영롱한 구슬 한 개를 이들 부부에게 주었다. 그 뒤 태어난 옥녀는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병들어 부녀의 정성에도 효험 없이 죽고 말았다. 옥녀의 슬픔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몇 년 뒤 새어머니를 맞았다. 새어머니는 데려온 딸만 사랑하고 옥녀에게는 온갖 궂은일을 시키며 구박만 하였다. 어느 해 겨울 새어머니는 옥녀에게 고사리가 먹고 싶다며 당장 뜯어오라고 시켰다. 옥녀가 눈 덮인 부춘산에 올라 고사리를 찾아 헤매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산골짜기에서 향기가 났다. 그곳에는 선녀들이 온갖 나비와 함께 춤추고 있으며, 갖가지 꽃이 피어 있고,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그리고 고사리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고사리를 정신없이 꺾고 있는 옥녀에게 한 선녀가 다가와 한 줌의 고사리를 바구니에 넣어 주자 바구니가 가득 찼다. 옥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새어머니는 딸과 함께 부춘산으로 올라가 욕심이 생겨 과일을 따려고 손을 뻗쳤다. 그때 뇌성과 함께 눈보라를 동반한 회오리바람이 모녀를 둘둘 휘감아 산 아래쪽으로 내동댕이쳐서 죽게 했다. 옥녀는 선녀를 따라 천상으로 인도되었다가 옥황상제로부터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부춘산에 내려와 주민의 재앙을 막아 주고 소원을 들어 주는 산신령이 되었다.

2. 광산에 흐른 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으로 백성들이 왜병들에게 재물을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시기였다. 옥녀봉에 노다지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자 어느 일본 사람이 땅속 깊이 파 들어갔으나 노다지는커녕 석탄 부스러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때 다시 예쁜 처녀를 생매장하면 금맥을 찾을 수 있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이 일본 사람은 가난한 집의 딸을 돈 몇 푼 주고는 강제로 옥녀봉으로 끌고 올라갔다. 처녀를 묻으려고 일꾼들이 괭이로 땅을 파자 피가 나왔다. 모두들 산신령인 옥녀의 몸을 건드린 탓이라 여기고 넋을 잃었다.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더니 뇌성이 울리며 산봉우리에서 준엄한 음성이 들려왔다. 부춘산의 신령인 옥녀는 일본 사람에게 일본의 조선 침략, 조선 광산 약탈,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생매장 등을 호되게 질책하였다. 산봉우리에 옥녀를 호위하던 한 천사가 칼로 일본 사람의 목을 쳐 죽였다. 이후 사람들은 옥녀봉을 신성시하고, 옥녀가 지역 주민들에게 안녕과 평안을 가져오고 재난을 막아 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게 되었다.

3. 당을 지으시오 서산지역은 해마다 풍년이 들고 평화로웠다. 그런데 어느 해 가뭄과 전염병이 만연하여 모든 사람의 생기를 빼앗아 갔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기진맥진해졌다. 이 즈음 옥녀봉 아래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노인의 꿈에 옥녀가 나타나 "옥녀봉에 당을 지으시오. 그럼 흉년도 질병도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계시했다. 이튿날 노인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당을 짓기로 하였다. 주민들은 당을 지어 제를 지내고 날을 잡아 큰 굿을 행하자 가뭄과 질병이 사라지고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옥녀봉의 당제는 해마다 이어져 갔다. 어느 해 다시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이 죽어 갔다. 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긴 철장을 만들어 옥녀봉 아래에서부터 정상까지 땅을 찔러 암장한 묘를 찾아 파내니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다. 이후 20개 읍 · 면에서 각기 옥녀의 목각을 만들어 당에 모시고 제를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이곳(특히 옥녀봉)에 묘를 쓰면 묘 임자는 부귀영화를 누려도 주민들에게는 재난과 질병이 온다고 구전된다.

참고문헌 **부춘산과 옥녀봉**(이은우, 서산의 문화 14, 서산향토연구

회, 2002), **서산군지 상 · 하**(1926년 서산군지 번역판)(이매창, 서정석 역, 서산문화원, 2005), **서산의 민속문화**(서산시지 편찬위원회, 서산시, 1988), **서산의 부춘산 옥녀봉 문화사산책**(이영하, 서산의 문화 17, 서산향토연구회, 2005), **서산의 전설**(최주연, 서산문화원, 1995), **서산의 지명사**(이은우, 서산시, 2005),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관장 김현구 면담**(2010년 6월 3일), **모경회회장 노용호 면담**(2010년 6월 3일),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면담**(2010년 6월 3일).

필자 상기숙(尙基淑)

서산차리산제(瑞山車里山祭)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1구 마을 뒷산인 장군산 3부 능선에 있는 '뒷골'과 '산신각'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사흘 동안 지내는 산신제.

유래 '산제'라고 불리는 마을제는 언제부터 지내기 시작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 되었다고 한다. 산제를 지내는 곳인 산신각은 오래전부터 당집건물이었으며, 원래 이 당집을 '산제당'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새로 산제당을 지으면서 '산신각' 현판을 달았다. 옛날 산제당은 흙벽에 초가집이었으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지붕을 함석집으로 개량하였다고 한다. 이후 1997년 예전 당집을 헐고 벽돌과 슬레이트를 사용하여 현재의 당집을 새로 지었다.

내용 차리1구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초사흗날까지 사흘 동안 마을 뒷산인 장군산(해발 300m, 정상에 장군바위가 있음)의 '뒷골'과 '산신각'에서 '산제'를 지낸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제당인 '장군암'이 자리하고 있다. 산신각은 마을로부터 약 1㎞ 떨어져 있으며, 산신각 주변에는 큰 바위 세 개가 북 · 서 · 동쪽에 병풍처럼 삼각형으로 위치해 있다. 산신각은 정남향을 하고 있으며, 마을을 아래로 굽어보고 있다. 산신각은 부엌 한 칸, 제당 한 칸, 방(제관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 한 칸 등 모두 세 칸 집으로 되어 있다.

제의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부터 초사흗날까지 사흘 동안 계속 진행된다. 즉 초하룻날 아침 9시 30분쯤에 당집으로 올라가 제를 지낸 뒤 초사흗날 새벽 4시쯤에 산신각에서 하산한다. 일단 제를 지내기 위해 산신각에 올라간 제관들은 제가 끝날 때까지 산에서 내려올 수 없다. 산신각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땔나무와 제 지낼 준비를 한다.

한편 '산신'을 위하는 차리1구의 산제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해마다 행해진다. 이 덕에 6 · 25전쟁 때도 마을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한때 산제를 지내지 않았다가 마을에 불이 나고 돼지나 소 등 가축들을 맹수들이 잡아가는 피해가 있어 다시 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산신당 안에는 '산신도'가 모셔져 있다. 현재의 산신도는 1970년대에 고 한임균이 모본을 필사하여 새로 제작한 것으로, 예전 산신도와 비슷하게 그렸으나 예전 것보다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현재의 산신각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산제당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주민들이 인지면사무소에 정식으로 신고하여(일련번호 13-1호) 지붕개량 및 재건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다.

산제는 마을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선출된 제주(祭主)가 담당한다. 이 마을에서는 제관을 모두 제주라고 부른다. 제주는 음력 섣달 스무날쯤에 모두 세 명을 선출하는데, 제주의 선출은 산제당 아래에 있는 장군암에서 담당한다. 제주를 선출하면 생기복덕을 봐주었던 장군암의 사람이 제주에 선출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산에 올라가서 수고 좀 하자"고 한다. 제주에 선출되면 제일 당일인 정월 초하루 새벽 5시 무렵에 제주 집 대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금줄은 왼새끼에 한지를 길게 잘라 일곱 장을 사이사이에 꽂는다. 황토는 세 무더기를 일렬로 대문 앞에 놓는다. 이러한 금줄은 산신각에도 친다. 산신각에는 황토를 뿌리지 않는다. 제주 집과 산신각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산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기와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근신해야 하며, 선출된 이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새로 선출한다. 특히 제주 집에서 닭을 잡거나 피를 보게 되면 섣달그믐날 이전에 산신이 손을 다치게 하든지 해를 준다. 제주 이외의 마을사람들은 이러한 금기 사항을 엄격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마을에 초상이 나더라도 제주들만 초상집에 가지 않으면 상관없다.

한편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 구입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각 반장이 경비는 가구당 2,000원을 걸립해서 충당하지만, 기독교인의 경우 내지 않는다. 예전에는 형편에 따라 돈 대신 쌀 한두 되를 자기 치성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냈다고 한다. 제주는 돈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산제사를 지낼 때 소지를 모두 올려주며 군대에 간 사람은 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지를 올려준다.

제사 비용이 마련되면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크게 산제사와 유황제에 쓸 제물을 따로 장만한다. 산제사에는 호두, 밤, 은행, 돼지머리, 북어 두 마리(새벽에 산제당 근처에서 지내는 유황제와 산제사에 사용), 노구메 한 그릇, 팥시루떡, 청수, 초 두 개, 향 등을 올린다. 이 마을에서는 돼지머리를 '제수'라고 부른다. 팥시루떡은 지금도 산에서 쌀가루를 내어 만든다. 떡은 99%는 잘 익지만 익지 않을 때는 부정이 타서 그렇다고 여긴다. 한편 유황제에는 이보다 제물이 간단하다. 마을회관 앞에서 지내는 유황제에는 북어 한 마리와 돼지머리, 쌀가루로 만든 팥범벅만을 올린다.

〈차리 산제 제물 진설〉

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일인 정월 초하룻날 아침 8시에 제주들은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신각으로 올라가 산신각의 샘에서 유황제를 지낸다. 유황제에는 북어 한 마리와 청수 한 그릇만을 올린다. 진설이 끝나면 세 명의 제주가 동시에 재배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용왕님께 소지를 올린다. 용왕 소지는 한 장만 올리고 세 명의 제주 소지를 차례로 올리면 유황제는 끝난다. 유황제가 끝나면 2홉 정도의 쌀로 노구메를 짓는다. 밥이 다 익으면 북어 한 마리와 청수 한 그릇을 산신도 아래에 진설해 놓고 제를 지낸다. 제주 세 사람이 동시에 재배를 한다. 재배가 끝나면 "장군산 산왕대신 전에 소지 한 장 축원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소지를 올린다. 산신 소지가 끝나면 역시 이곳에서도 제주 세 명의 소지를 차례로 올린다. 그런 다음 산신에 올린 노구메로 술을 담근다. 이 술을 '곡자' 또는 '조라'라고 부른다. 이어 30~40분 간격으로 산신을 모신 제당에 '청수'를 갈아 놓는다.

산제는 초이튿날 밤 12시(초사흗날 0시)에 지낸다.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관 일동이 재배를 한다. 이어 독축하고 장군산 산왕 소지, 제주 세 명의 소지, 개인 소지를 차례로 올린다. 개인 소지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나서 하산한다.

하산 뒤에는 마을회관의 샘(지금은 없음)에서 유

산제당 내부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리1구, 2002.2
국립민속박물관

차리 산제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리1구, 2002.2
국립민속박물관

황제를 지낸다. 우선 돼지머리를 회관에서 삶고, 팥범벅을 만든 다음 청수를 떠 놓고 유황제를 지낸다. 유황제는 재배-용왕소지-제주 세 명의 소지 순으로 진행된다. 소지를 올리고 나면 모든 제의는 끝난다.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쉬었다가 아침에 회관에 모여 결산을 하면서 음복을 한다.

한편 축문은 한글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維歲次 (壬午)一月(辛亥)朔 初三日(癸丑)
> 一陣으로 장군산 산왕대신전에
> 일년삼백육십오일 내내
> 산신도인의 각 가정마다 무해하고
>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길 축원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유황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마을회관 앞 공동우물에 제물을 진설하며 '열 십(十)' 자 로 짚을 편 다음 그 위에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놓는다. 진설은 왼쪽부터 팥범벅(7개), 돼지머리, 북어의 순이다. 다음 재배를 하고 이어 축원을 하면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돼지머리를 조금 떼어내 먼저 고수레를 한 다음 팥범벅으로 고수레를 한다.

여기서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놓는 것은 우물에서 일 년 내내 풍부하게 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한다. 그리고 제물 가운데 돼지머리의 정수리에는 식칼을 꽂아 놓는다.

참고문헌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이관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이관호(李官浩)

서산창리영신제(瑞山倉里靈神祭)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서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지내는 당굿형 동제.

내용 창리는 부석면 최남단에 위치해 간척사업 후에도 유일하게 바다에 연해 있다.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지역이지만 중요한 수입원은 어업이다. 조기잡이용 안강망 중선배가 정박한 포구이기도 하다. 바다의 이점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간소하게 치르던 마을 제사가 지금과 같이 무당이 참여하는 당굿형 제사로 활성화되었다. 1983년에 간척지 사업이 완공되면서 어업이 쇠퇴하여 어업과 연계된 당굿형 영신제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바다와 접해 있어서 영신제의 명맥이 미미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다.

창리는 조운(漕運)이 성하던 시절에 국가의 조창(漕倉)이 있던 곳으로, 교통의 요지이다. 마을 앞쪽의 천수만 일대는 일찍부터 어살[漁箭]이 발달했으며, 마을 뒤편에는 염전이 있어 소금도 생산했다. 어업용 중선이 보급되면서는 중선을 인근에서 가장 많이 부리기도 했다. 1983년에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뒤 농경지는 확대되었지만 어업은 줄어들었다. 어업과 연계되어 있던 영신제는 자연스레 축소되었고, 산신당은 도로 건설로 인해 사라졌으며, 장승제도 중단되었다. 어업이 번성할 때 선주와 주민들이 합심해 지내던 마을 제사가 어업의 쇠퇴로 인해 소멸되고 축소된 것이다. 이곳의 당제는 무당을 불러 당굿을 추

창리영신제
국립민속박물관

당신도-임경업 장군과 그의 부인
국립민속박물관

가한 '당굿형 당제'로, 내륙과 달리 해안은 어업이라는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면서 마을 제사가 당굿형으로 확대되었다. 지금은 영신제만이 남아 있지만 상당제로 산신제, 하당제로 장승제와 샘제 등이 있었다.

마을의 서북쪽에 상당이라 불리는 산신당이 있었다. 마을 초입을 에워싸고 있는 작은 동산으로, 외부로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온갖 잡된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산의 중앙에는 약 6.6㎡의 장방형 누석단(累石壇)이 있었다. 그 중앙에는 자그맣게 돌을 쌓고 쇠말[鐵馬]을 봉안해 두었다. 쇠말은 발이 한 개 부러진 형태였다. 호환(虎患)이 심하던 해에 말이 밀려오는 호랑이를 발로 걷어차며 막아내다가 발 한 개가 부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서해안의 마을들은 일찍부터 왜구의 침입과 잦은 전염병, 해일 등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을 어귀에 쇠말을 봉안한 제당을 건립한 것이다. 쇠말이 사라진 뒤에는 사기로 말의 형상을 구워다가 놓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간척사업을 위해 도로건설을 하면서 이마저도 남아 있지 않다. 제사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

하당은 영신당으로, 마을 동북편 해변에 위치한 당산에 있다. 중앙에는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의 기와집이 있다. 그 주변에는 담이 둘러져 있고, 정면에 문을 달아 두었다. 당집 앞에는 70~80명이 서 있을 정도의 공터가 있으며, 뒤편으로는 해송(海松)이 빼곡하게 심겨져 있다. 당산의 나무를 베면 벌을 받는다는 금기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어 해송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이전의 당집은 1911년에 중건되었다. 이 당집은 선주들이 주동이 되어 만든 목조와가(木造瓦家)였다. 현재의 당집은 1999년에 서산시가 지원해 시멘트 콘크리트로 벽채를 만들고 기와를 얹은 형태이다. 영신당은 창리의 제당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당이다.

당집 내부에는 정면에 임경업 장군과 그의 부인을 그린 무신도를 걸고, 그 아래에 장군신위(將軍神位)·부인신위(婦人神位)라고 묵서된 위패를 봉안했다. 그 왼쪽에는 지토당과 슈당, 오른쪽에는 손님신위와 수배당이 역시 묵서된 위패로 각각 봉안되어 있다. 슈당은 바다의 신으로 용왕이라 하며, 지토당은 지신(地神)이라 한다. 손님은 호구별상을 말하며, 수배는 잡귀신이다. 임경업 장군은 서해안에서 조기의 신 또는 어업의 신으로 모셔진다. 천수만에서 조기잡이가 성할 때는 당제는 물론 각 어선에서도 모셨다. 그 전통이 이어져 당집에 봉안한 것이다. 무신도는 본래 없었으나 1970년대에 그려 모셨다. 그러나 무신도를 잃어버린 후 장군과 부인을 그린 새로운 그림을 봉안했다. 오래되어 퇴락하여 2000년대 중반에 다시 임경업 장군만을 그려 봉안했다. 이 그림은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에 위치한 임경업 장군의 사우(祠宇)에 모셔 둔 표준영정을 모사했다. 무신도라기보다는 유교 사우에 모신 영정이기에 그 모습이 사뭇 이질적이다. 천수만에 조기가 가득했을 때에는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나 조기잡이가 시들해지면서 그 의미도 줄었다. 장승은 서산에서 창리로 들어오는 길목에 2기가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서 노제(路祭)를 지냈으나 제사가 축소되면서 소멸되었다.

제사는 마을에서 선출된 당주가 주관하며, 산신제와 영신제 당주를 각기 선출했다. 생기복덕을 보아 운이 닿는 사람으로 영신당 당주 한 명, 산신당 당주 세 명을 각각 뽑았다. 이 가운데 영신당 당주에게만 제사를 마친 뒤 수고했다고 쌀 한 가마니를 주었다.

당굿은 무당이 주관한다. 예전에는 마을에 단골이 있어 그가 굿을 주관했지만 단골이 사라진 뒤로는 형편에 따라 적당한 사람을 불러 굿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앉은굿을 하는 큰무당을 부른다. 중선을 부리던 시절에는 큰 무당패를 불러 삼현육각을 잡히고 성대하게 굿을 했다. 어업의 쇠퇴로 과거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여전히 무당이 굿을 주재하면서

당굿형 당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굿의 전통은 과거와 단절되어 새롭게 만들어졌다.

제사 비용은 동네 추렴을 원칙으로 하지만 선주(船主)가 많았기에 그들이 조금 더 부담하고, 주민들은 조금씩 성의껏 낸다. 소 한 마리를 제물로 썼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지금은 마을공동양식장의 수익을 축적해 만든 어촌계 공동금액으로 충당한다.

제물은 당주가 직접 서산 장에 나가 구입해 온다. 산신제는 소찬(素饌)만을 올리므로 노구솥에 메를 지어 올린다. 상당 앞의 넓은 바위에서 직접 노구메를 지어 솥째 놓았다. 영신제에는 소를 잡아 산적으로 올리고, 술 · 가래떡 · 삼색실과 · 메 등을 올린다. 술은 대동샘물을 길어다가 영신당에서 제사 지내기 하루 전날에 직접 빚어 두었다가 사용한다. 한동안 소를 잡을 수 없어 돼지로 대체하다가 지금은 산적감만 쇠고기를 구입해 사용한다. 소를 잡을 때에는 제의가 파한 뒤에 당주가 가구수대로 동일하게 고기를 분배한다.

산신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밤 10시쯤에 당주만이 참석하여 거행한다. 상당 앞에서 직접 노구메를 지어 솥째 올리고, 공동샘에 길은 정화수 세 잔을 올린다. 당주가 재배한 뒤 대동소지 한 장과 가구당 한 장씩 개별적으로 소지를 올려준다. 제사를 마치면 노구에 담긴 메를 설었거나 질었거나 개의치 않고 군말 없이 먹고는 자정을 전후해 하산한다. 추운 겨울철에 바람막이조차 없는 산에서 지내는 제사였기에 고생이 여간 아니었다고 한다.

정월 초사흗날 아침에는 당주 집에서 당주고사를 지낸다. 이때는 각 배의 깃대를 당주 집 앞에 가져다 세운다. 당주고사를 마친 뒤에는 술과 고기로 음복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당제를 지내러 영신당으로 향한다.

당주는 먼저 영신당에 올라 제사 모실 준비를 한다. 풍물패는 뱃기를 앞세우고 해변을 따라 영신당으로 향한다. 당산에 도착하면 그 입구에 주과포만을 올린 제상을 놓고 무당이 부정풀이를 한다. 부정풀이가 끝나야 주민들은 비로소 당집에 오를 수 있다. 뱃기는 당집 앞에 바다를 바라보도록 세운다. 뱃기가 많은 때는 100개가 넘었다고 하니 어업의 성황을 짐작할 수 있다. 당집 앞에 자리를 깔고 굿청을 마련한다. 바람을 막기 위해 당집 앞에는 포장을 쳐 둔다. 먼저 당주가 제물을 올리고 헌작 후 재배한다. 간소하게 당제가 끝나면 당굿을 시작한다. 밤이 새도록 굿과 배치기를 번갈아 가며 행한다. 굿은 1980년대 중반에 단골이 주관할 때에는 지토굿-공석굿-손님굿-수비굿-오방굿-군웅굿-허식굿 순서로 놀았다. 앉은굿이 거행되는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지금은 서낭굿과 장군굿만으로 간소하게 행한다. 서낭굿을 할 때에는 당집에 보관된 노란쾌자를 무당이 걸쳐 입는다. 노란색은 서낭신을 상징하는 것이라 한다. 당굿이라 하여 무당의 굿이나 법사의 독경이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시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배치기와 무당에게 공수를 받는 것이다. 굿 한 거리나 경 한 석이 끝나면 배치기가 이어진다. 조용하게 관람하던 주민들도 굿이나 경이 끝나면 일어서서 배치기를 하며 흥을 돋운다. 무당이 오방기를 들고 기 뽑기를 하면 한 쪽에 물러서 있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 공수를 듣는다. 배치기는 노래꾼들이 둘 또는 셋씩 마주보고 배를 내놓고 추는 춤으로, 모의생산적(模擬生産的) 놀이이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람객이던 주민들이 배치기와 더불어 신명나는 놀이판의 주인이 된다. 밤새도록 반복되는 굿거리에 배치기와 공수는 주민들이 영신제를 이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다.

간혹 흰 광목으로 띠를 만들어 그물을 상징화하여 당기면서 배치기를 부르기도 한다. 힘에 겨우면 마련된 술과 떡을 먹으며 밤이 깊도록 놀았다. 새벽녘이 되어 막바지에 이르면 소지를 올린다. 산신제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한 해의 안녕과 풍어를 보장하는 소지는 무엇보다 중시되었다. 무당이 직접 마을 소지를 올리고 나서 가구별로 소지를 올려준다. 이때 참석자는 별비(別費)를 내고 공수를 받는다. 소지 후 허식굿을 하면 모든 굿이 끝난다. 당 앞에 꽂아 둔 뱃기를 빼어 들고 자신의 배로 돌아가 꽂는다. 배별로 당맞이 배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뱃기만을 꽂기도 한다. 과거에는 당산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까이에 배를 대 놓고 서둘러 뱃기를 꽂았다. 먼저 뱃기를 꽂으면 풍어를 할 수 있다는 속신 때문에 경쟁적으로 싸움을 벌이곤 했다.

영신당 전경
국립민속박물관

당제를 마친 뒤에는 대동우물에 나가 샘굿을 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지신을 밟아 주었다. 장승제는 1950년대까지 윤년에 지냈다. 윤달이 드는 해에 초사흗날에 소나무를 베어다가 장승을 깎아 세웠다. 윤달이 드는 해에는 유독 질병이 돌고 온갖 재앙이 닥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영신제가 비록 축소되었지만 그것은 마을의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굿과 놀이가 어우러진 신명나는 당굿형 당제는 창리 주민들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축제이다. 지금은 지역의 축제로 활성화되어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서해안 풍어제와 임경업 전설**(홍태한,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어촌의 변화에 따른 마을신앙의 변모**(홍태한, 도서문화 3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8), **천수만 창리 마을굿**(주강현, 충남의 장승 · 솟대 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1).

필자 **김효경(金孝慶)**

서울가양동성황제

상호참조 치성비요(905쪽)

정의 서울 강서구 가양1동 읍내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동제.

역사 가양동성황제의 제사 공간인 성황당이 있는 강서구 가양1동은 조선시대 양천현아(陽川縣衙)가 있던 곳이었다. 가양동성황제가 민간 차원에서 시작되었는지 국가 차원의 제사로 출발하였는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황사재성남산(城隍祠在城南山)"이라는 기록과 대부분의 읍치성황사(邑治城隍祠)가 읍성 내부에 위치하는 특성에 비추어 가양동성황제가 조선시대 때 일정기간 국행제의 대상으로 존재하다가 민간화 과정을 밟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황제가 전승되는 강서구 가양동에는 가마동, 고양리(괭이말), 향교동(읍내리), 하마피(하마비), 성줏물(성재정), 탑산(공암리), 후포리(뒷개), 마곡리(원마곡, 마개)라는 여덟 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이 가운데 향교동(읍내리)에는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양천현아가 있었다. 또 일제강점기에는 김포군 양동면사무소, 양천향교, 향천초등학교, 우체국, 금융조합 등 기관이 있었다. 고양리, 성줏물, 하마피, 후포리, 탑산, 향교동, 마곡리 등 자연마을은 도시화되면서 마을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가양동과 마곡동이란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다.

강서구 가양동 읍내마을의 성황제는 제의 명칭이 성황제로 표현되고 있으나 당에 모셔진 신격(神格)은 도당할머니로 표현되는 여성신령이다. 이 신격은 이웃 마곡동 후포마을 도당제의 제사 대상인 도당할아버지와 부부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 두 마을 제사는 제의 실행에서 일종의 위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위계는 강서구 가양동의 성황제를 지낸 뒤에야 마곡동 후포마을의 도당제를 지내는 것으로 표출된다. 마곡동 후포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탑산마을의 동제도 가양동 읍내마을의 성황제가 끝나야만 지낼 수 있었다. 이는 읍치성황제인 가양동 읍내마을 성황제가 다른 마을들의 제사에 비해 종교적 우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내용 가양동성황당은 강서구 가양1동 궁산체육공원 정상 부근에 자리한다. 이곳에는 양천고성(陽川古城)으로 알려진 성의 유구(遺構)가 남아 있으며, 궁산의 바로 아래쪽은 읍내마을로 불렸으며, 조선시대 양천현(陽川縣)의 중심지인 양천현의 현아가 있던 곳이다. 성황당이 자리한 이 일대는 조선시대에 서울의 외사산(外四山)인 덕양산과 더불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일본군과 미국군이 주둔하기도 한 곳으로, 강서구 일대를 조망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기도 하였다.

현재 성황당은 1990년쯤에 개축된 것을 2005년에 다시 개축한 것이다. 2005년의 개축은 가양동의 양천

가양동성황당

2005년 이전의 성황당
서울 강서구 가양1동, 2004.6.17, 오문선

개축 이후 성황당
서울 강서구 가양1동, 2005.11.3, 오문선

역사보존회와 가양동 노인정 등을 중심으로 읍치성황제인 과거의 지위에 걸맞은 제당을 마련하고자 마을 기금으로 성황당의 벽체와 지붕 등을 상당 부분 보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의 내부에는 약 1m 높이의 단이 설치되어 있고, '성황지신위(城隍之神位)'라고 쓰인 위패가 모셔져 있다. 또한 성황신의 제물로 올린 치마저고리 1벌이 봉안되어 있다.

2005년에 개축되기 이전의 성황당은 1990년쯤에 마련된 것이다. 한 칸 규모이며, 벽돌과 기와로 건축된 제당이다. 그 이전의 성황당 모습은 1968년 문화공보부에서 실시한 설문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 칸 규모의 기와 형식이었다.

한편 '우듬물', '우두물', '우둔물' 등으로 불리는 가양동성황제의 당우물은 가양동 향교 옆 주택의 뒤쪽으로 약 10m 지점에 자리한다. 시멘트로 물이 고이는 시설을 만들어 한동안 주민들의 약수터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수질이 떨어져 지금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물도 노인정에 딸린 주방에서 마련하기 때문에 당우물로서의 역할은 완전히 사라졌다.

강서구 가양동성황제의 의례는 가양동성황제 의례의 유래와 절차, 내용 등을 기술한 필사본인 『치성비요(致誠備要)』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치성비요』에 따르면 이것이 기술될 당시의 제의 방식인 유교식 제의 이전에 "무녀를 써서 빌었다"고 한 내용을 보아 성황제가 무당에 의한 마을굿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례 형식의 변화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마을굿이 유교식 제사 형태로 바뀌어 지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한편 현재 유교식으로 지내고 있는 성황제는 제비의 추렴 등 제사 여건이 달라지면 비정기적으로 마을굿 형식을 갖출 가능성도 있다. 이미 1997년의 경우에도 마을굿 형식으로 제사를 지낸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의 풍물패를 동원하여 가양동 일대를 돌며 성황제를 알리는 길놀이를 하거나 성황당 아래 소악루 근처에서 길놀이를 여는 등 새로운 볼거리를 가미하기도 했다. 현재 가양동성황제의 제관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양천역사보존회와 노인정의 회원, 가양1동의 동장, 지역유지 등이 맡는다.

가양동의 성황제는 산신제와 성황제가 차례로 이어지는 이중적 의례 구조를 하고 있다. 본래 산신제는

성황당 내부
서울 강서구 가양동
2005.11.2, 오문선

산신제
서울 강서구 가양1동
2005.11.3, 오문선

성황제를 지내기 하루 전날의 자시에 미리 지내고, 그 이튿날인 음력 시월 초하룻날 자시에 성황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6·25전쟁이 끝난 뒤부터 산신제와 성황제를 모두 낮에 지내고 있다.

가양동성황제의 절차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 뒤 성황제가 이어진다. 산신제는 성황당의 오른쪽에 별도의 제상을 차려 먼저 지내며, 성황제는 성황당 안에서 행한다.

제물은 성황제와 산신제 모두 동일하다. 제사의 순서도 참신(參神)-분향(焚香)-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소지(焟紙)-음복(飮福) 순으로 동일하게 진행된다. 한편 소지를 올리기 전에 희망자에 한해 헌작(獻爵)을 할 수 있게 한다. 소지를 올린 뒤 제사가 끝나면 당 안에 제물로 올린 치마저고리와 남은 제물을 태워 묻는다. 당에 가져온 제물은 마을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다.

가양동의 성황제가 끝난 뒤에는 마곡동 후포마을에 제사가 끝났음을 알린다. 성황당의 도당할머니와 내외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마곡동 후포마을의 신격에게 도당제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마곡동 후포마을도당제 또한 마을굿 형식을 띤 마을제사였지만 유교식 제사 형식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강서구 가양동성황제 관련자료 『치성비요』**(오문선, 도시역사문화 3, 서울역사박물관, 2005), **고을수령의 국가제사, 마을제사가 되다**(서울역사박물관, 2005, 기록영화), **성황사의 민간화와 향촌사회의 변동**(정승모, 태동고전연구 7, 태동고전연구소, 1991), **한국공동체신앙의 역사적 연구-동제의 형성 및 전승과 관련하여**(박호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한국의 마을제당-서울·경기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필자 오문선(吳文仙)

서울당인동부군당제

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부군당에서 지내는 제의. 과거에는 당주무당을 불러 굿을 했으나 최근에는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간단한 유교식 제사를 지낸다.

형태 당인동부군당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15-3번지에 있는 마을당이다. 100여 ㎡의 국유지에 두 칸으로 된 목조기와집으로, 서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면적 14㎡로 된 가로 4m, 세로 5m 규모의 당집이다. 두 짝으로 된 부군당 문에는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다. 당이 들어앉은 자리는 예전에는 165㎡ 정도였으나 좁아진 것이다.

당 내부 천장 대들보에 "단기사이팔칠년갑오 구월 이십구일미시 상량(檀紀四二八七年甲午 九月二十九日未時 上樑)"이라고 기록된 상량문을 보아 1954년에 당을 새롭게 손질하면서 현재의 규모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곳 부군당은 원래 현재의 위치보다 높은 산 쪽에 위치했다고 한다. 부군당이 있던 땅이 이참판댁 소유였는데 그곳에 묘를 쓴다고 하여 당을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당을 옮기고 나서 그 동네 처녀총각들이 놀아나고 또한 당인리발전소가 들어서게 되자 1954년에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당인동부군당은 세 번의 이동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1982년에는 단청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그러나 당 내부에 모셔진 신령 그림들은 1912년 무렵에 백년사에서 조성해 온 것으로, 당을 옮길 때 새로 제작한 것이다. 오른쪽 벽면 우측에 좌제장군(左諸將軍), 좌측에 용궁부인, 중앙 맨 오른쪽부터 삼불제석·산

서울당인동부군당제 서울 마포구 당인동, 2009.11.17, 김용

부군신 내외

부군당제 제물진설

신 · 부군 · 부군부인, 왼쪽 벽면 우측에 대장군, 좌측에 우제장군(右諸將軍)으로 총 여덟 분이 모셔져 있다. 그런데 이 신령 그림들은 촛불과 향불에 그슬리어 형체가 변화되자 1970년대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림의 선명도를 높이려고 은빛 색을 덧칠하였다가 손상되어 원래 모습도 잃고 말았다.

과거에는 부군당과 관련된 터줏가리(터주신의 형체, 높이 1m정도)가 절두산 근처에 모셔져 있었고, 커다란 느티나무가 강변도로에 서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길이 나면서 공사로 인해 나무도 죽고 말았다. 그렇지만 부군당 제의를 지내게 되면 느티나무 시루를 쪄서 당 내부에 바쳐 목신을 위한다.

부군당이 들어서 있는 당인동은 한강 인근이다. 그리고 당인동은 원래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당인리였다. 과거 당인리에는 배 부리는 사람, 뱃일 하는 사람, 창고업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등이 많이 살았다. 특히 배를 부리거나 뱃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고기잡이배는 강화 앞바다와 연평 칠산리 근처까지 가서 조기잡이를 하곤 하였다. 이에 따라 이곳 사람들은 물길에 대한 불안과 함께 그에 대한 신앙심이 누구보다도 컸었다. 부군당을 모시게 된 까닭도 그러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뱃일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물에서 변을 당하지 않기를 늘 부군당에서 빌었던 것이다. 또한 동네가 부군님을 모시고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자 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마을에 부군당을 모시고 있는 까닭으로 6 · 25전쟁터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왔다고 믿었다.

내용 서울당인동부군당제는 음력 시월 초하룻날에 지낸다. 제의에 드는 비용은 동네 사람들의 추렴으로 마련하였지만 현재는 일절 돈을 걷지 않는다. 관할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 빠듯한 구 보조금에 보태어 쓴다. 과거에는 제비를 반장들이 걷었으며, 동네에 오래 거주해 온 50여 명이 5,000원 정도씩 냈었다. 현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굿을 안 한 지 오래되었지만 과거에는 굿을 하게 되면 무당에게 10만 원을 주는데 무당 세 명과 악사 두 명이 왔었다.

제물은 음력 구월 그믐날부터 준비하게 된다. 팥시루는 열두 시루를 찌며, 흰 종이에 신령의 이름을 써서 시루에 붙인다. 이를테면 부군 시루, 산신 시루 등이다. 삼불제석 몫으로는 백설기를 쪄서 올린다. 인절미는 비교적 크게 썰어 신령님 전에 올린다. 과거에는 제의 하루 전날 밤에 떡을 직접 장만하였지만 근래에는 제의 당일 오전에 떡방앗간에서 주문한다. 당인동부군당제의에서는 검정 수돼지를 쓰며, 이를 당주집에서 잡는다. 굿을 하는 경우 통돼지를 쓰고, 굿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두 각을 떠서 사용한다. 준비되는 제물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팥시루, 인절미, 흰절편, 송편, 백설기, 찹쌀전병, 돼지고기(돼지머리 포함), 명태, 북어, 시금치, 숙주, 메, 탕, 두부, 꼬치구이, 산자, 약과, 튀각, 부침개, 녹두빈대떡, 사과, 배, 감, 밤, 대추, 곶감, 술 등이다.

과거 이곳 부군당에서는 매년 큰 굿을 하였다. 그러다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3년마다 굿을 하기도 하고 굿을 못하는 해도 있었다. 지금은 매년 음력 시월 초하룻날 치성의례만 간단하게 올린다. 제를 지내기 3~4일 전에 당으로 가는 길목에 금줄을 친다. 과거에는 제의를 지내기 위해 화주를 선정하였고, 제의 날이 결정되면 동네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자의 접근을 막았다. 집에 초상난 사람은 동네에 들어올 수 없었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또 산달이 다 된 여자가 있으면 다른 동네로 가서 아이를 낳아야 했다. 특히 제주는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되었다.

당인동부군당제 제주는 이곳에 4대째 살고 있는 김윤식이 맡고 있다. 김씨는 제의와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고 제주를 맡는다. 제관은 당일 제의 참여자들 가운데 집안에 부정을 탈 만한 일이 없는 사람 4~5명이 맡는다. 제의에 참여하는 동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목욕재계하여 몸을 깨끗하게 한다. 당제를 무녀가 주관하는 굿으로 거행하던 과거에는 제의를 오전에 시작하여 오후까지 하였지만, 마을 주민들이 간단한 유교식 제의로 행하는 현재에는 오전 10시쯤부터 시작하여 11시쯤에 마친다. 요즈음 들어서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아 오후 느지막하게 시작하여 간단하게 지내고 끝낸다. 한편 제의를 행할 때 여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부정(월경)을 보지 않을 나이가 된 60대 이상의 할머니는 당 출입을 할 수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의에 100여 명의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먼 곳으로 이사 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의 때는 참여하는 사람이 꽤 되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참석자가 점점 줄어서 30여 명 정도가 모인다. 마포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구의원, 서울화력발전소장 등도 동참한다.

과거 무녀가 주관할 때에는 당주로 활약하던 정복만 무녀가 주축이 되어 당인동부군당제를 행하였다. 그러나 유교식 제의를 행하는 현재는 당인동정화관리위원회와 당인동선후회(先後會) 소속의 남자 회원들이 주관하여 지낸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성주모시기 당제에서 각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줏대이다. 성줏대는 이른 아침 인근 와우산에 올라가 길이 1m가량의 참나무를 꺾어와 사용하였다. 성주쌀을 담아둔 성주받이에 성줏대를 꽂아서 제물상 앞에 세워 두었다. 성주쌀은 애초부터 몫을 정해 한 말로 준비하였다. 대잡이가 오른손으로 성줏대를 잡으면 주위 사람들이 옆에 서서 손을 비비며 성주신 내리기를 축원하였다. 한참 후 성주신이 내리면 대잡이 손이 떨렸다. 대잡이는 성주신이 하자는 대로 행동을 하고 가자는 대로 따라다녔다. 대잡이가 성줏대를 흔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곳에 당도하여 성주신이 좌정할 곳이 정해지면 그곳에 성줏대를 붙였다. 그리고 이곳에 떡과 술이 차려진 성줏상을 놓고 제를 지냈다. 이렇게 성주신을 모신 뒤 다시 당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근래에는 성주모시기를 하지 않는다.

2. 당제 당 내부 신령님 전에 제물을 차려 놓고 제주, 제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축문낭독은 없다.

3. 소지올리기 굿을 하게 되면 당주무녀가 소지를 올린다. 그러나 굿을 하지 않는 때에는 마을 주민들이 각자 올린다.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하는 내용은 "김씨 가중에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고 태평성대하고 만수무강하게 해 주십시오"이다.

4. 반기돌리기 의례가 끝나면 간단한 떡과 과일을 집집에 돌린다. 이를 '반기돌린다'고 한다. 과거에는 추렴에 참여한 집에만 반기를 돌렸다. 그러나 지금은 추렴을 하지 않아도 마을 토박이일 경우 반기를 돌리는데 그 대상은 60여 집 정도가 된다.

참고문헌 당인동부군당(마포-어제와 오늘 · 내일, 마포구청, 1992), 서울의 마을굿(박흥주, 서문당, 2001).

필자 양종승(梁鍾承)

서울도곡동도당제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역말의 군웅나무 앞에서 매년 양력 9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역말 토박이들

이 거행하는 제의.

유래와 역사 강남구 도곡동 역말은 1963년 서울에 편입된 곳이다. 과거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말이었다. 오래전부터 역말에서는 도당굿이 거행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무당굿을 하지 못하게 막아 도당제로 축소되었다. 광복 이후 다시 도당굿을 거행하였지만 사회 변화 속에 다시 도당제로 쇠퇴되어 현재까지 전승된다. 김의신이라 불리는 화랭이가 도당굿을 맡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김의신 효행비가 지금도 남아 있어 마을의 고로(古老)들이 과거 무당굿에 대해 증언할 때 대표적인 화랭이로 거론된다. 1945년에 결성된 역말한국청년회의 후신인 역말향우회가 도당제를 맡아 거행하고 있다. 원래의 제의 날짜인 음력 10월 초하루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양력 9월 마지막주 일요일로 옮겼다.

내용 도곡동도당제는 먼저 향우회 운영회의로부터 시작된다.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 음식 준비 등 세부적인 일을 논의한다. 과거에는 제비를 추렴했지만 지금은 마을의 공동경비를 사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준비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제의를 거행하기 이틀 전 시장에 나가 제물을 구입한다. 과거에는 물목이 따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장이 바뀌면서 물목을 분실하는 바람에 지금은 일반적인 고사 형태에 필요한 만큼의 제물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 재료를 준비한다. 준비한 재료는 경로당에서 제의 전날 노인회원들이 주도하여 조리한다. 보통 고사상에 올라갈 정도의 제물이어서 음식 조리가 까다롭지는 않다.

제의가 거행되는 날이 되면 향우회원들이 준비한 음식을 군웅나무라 불리는 느티나무 앞으로 모두 옮긴다. 제물을 진설하기 전에 향우회장이 막걸리 한 잔과 북어 하나를 올린 간단한 상을 차려 놓고 군웅나무 터주신에게 배례하며 제의를 거행함을 알린다. 고사상이 모두 차려지면 식전행사를 거행한다. 참석한 유지들을 소개하고 향우회장의 인사말, 참석 인사들의 축사 등이 진행된다. 이는 새롭게 추가된 의례라고 볼 수 있다.

제의는 일반적인 유교식 제의와 동일하다. 역말노인회장의 초헌, 역말향우회장의 아헌, 강남구의원의 종헌으로 진행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나와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매봉산 아래 있는 옛 도당터를 향해 옛도당 제사를 올린다. 이는 과거의 도당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들을 보살펴 주는 도당신에게 다시 한 해 동안의 태평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의례로, 도시화에 따라 변모된 모습이다. 모든 행사가 끝나면 참여한 이들이 자유롭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의의 도곡동도당제는 과거의 전통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마을에서 과거의 도당제를 현대식으로 변모시켜 전승하고 있으며, 전승 주체가 마을 주민들이 아닌 역말향우회라는 점에서 과거의 마을 문화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시화라는 물결 속에서도 과거 도당제가 역말이라는 자연마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어 전통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참고문헌 **강남도곡동도당제**(서울영상민속지-서울의 동제 DVD, 서울역사박물관, 2006).

필자 **홍태한(洪泰漢)**

서울동빙고동부군당제

정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의 부군당에서 행해지는 전형적인 서울식의 마을굿. 동빙고동의 부군당은 내력이 있으며, 서울지역 부군당의 전통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이 부군당제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당제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 동빙고동부군당은 옛날 한강 나루터 근처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62번지에 있다. 부군당은 100여 ㎡의 대지에 지어진 네 칸 정도의 맞배지붕 당집이다. 근처 200m쯤 거리에 신목(神木)인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부군당은 대략 400년 되었다고 한다. 달리 전하는 전설에는 구한말 시절에 애국지사가 호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단군신을 모시는 신당을 세워 당시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켰다고도 한다. 예부터 오랜 내력을 지닌 부군당과 구한말 역사적 의식을 반영한 부군당이 서로 착종되어 부군당의 내력을 다양하게 한다. 하지만 역대의 문헌을 통해보면 이는 오랜 부군당의 전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풍속에 각사 안에 다들 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것이 있는데 부근이라 한다. 행해온 지 이미 오래되어 능히 혁파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헌부가 먼저 지전을 불사르고 각사에 관문을 보내어 다 불사르게 하여 그 제사를 금하니 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國俗 各司內 皆設神以祀 名曰付根. 行之旣久 莫有能革者. 至是 憲府先焚紙錢 傳關各司皆焚之 禁其祀 人多稱快)"라는 부군당의 내력에 대한 기록이 『중종실록(中宗實錄)』 1517년(중종 12) 8월 13일(丙辰)에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가운데 '중국과 조선의 음사를 변증하는 이야기(華東淫祀辨證說)'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음사 가운데 지금 서울에는 각사에 신사가 있으니 이름하여 부근당이라고 하고, 이것이 와음이 되어 부군당이라고 부른다. 한 번 지내는 제사 비용이 심지어 수백 금이나 된다. 혹자가 말하기를 부근은 송씨 처녀가 교접한 바라고 한다. 네 벽에 남자의 성기처럼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많이 매달아 놓았는데 심히 음란하고 외설스러우며 불경스럽기까지 하다. [혹은 누가 말하기를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의 뿌리가 되는 것이며, 남자의 성기처럼 생긴 나무 막대기를 매다는 것은 사람의 뿌리가 음경인 것에 우의하여 음경의 막대기를 지어서 상징한다고 하였다] 지방의 고을에서도 역시 제사를 지냈다. 중종 기묘년에 각사의 부근신사를 혁파하였다.(淫祠中 今京師各司有神祠 名曰付根堂 訛呼府君堂. 一祀所費 至於累百金 或曰 付根乃宋氏姐所接 四壁多作木莖物以掛之 甚淫褻不經 [或曰 付根者 旣爲官司之根 而其懸木莖者 以寓人之根爲腎莖 故作莖物以象之] 外邑亦祀之 中宗己卯 罷各司付根神祠)"

두 가지 기록을 통해 본다면 이 전통은 일거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빙고동부군당제는 역사적 변천 속에서 시대적 현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빙고동부군당에 모셔진 신상 또는 신의 형상을 그린 그림인 화분을 보면 이 부군당의 성격을 일부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각사의 중심지에서 일어난 혁파와 서울 변두리 지역의 부군당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헌 기록에서 지목하고 있는 곳은 한양의 중심지 관청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곳의 부군당까지 동시에 혁파의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 부군당에 성기를 봉납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예외적인 반증이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방앗고지부군당〉과 강화도 교동의 〈부군당〉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각사의 혁파와 상관없이 이 전통은 계속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으며, 문헌에 기록된 사실과 이러한 대목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당은 1945년에 중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신의 초상화를 다시 제작하였다고 전해진다. 초상화에는 이 부군당의 신상을 그리던 화승의 붓이 화폭에서 움직이지 않아 목욕재계하고 기도를 한 뒤에야 붓이 움직여서 현재의 신상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하는 영험담이 전하고 있다.

현재 동빙고동부군당은 윗말 부군당과 아랫말 부군당이 함께 있다. 윗말 부군당은 동빙고동의 변전소 근처에 있었으나 마을 개발로 당이 철거되었다. 현재 윗말 부군당은 아랫말 부군당의 한쪽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본당 내에 있는 현판의 기록에 따르면 부군당에서 섬기는 신은 1391년쯤부터 있은 수호신이자 한강 연안의 방어신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수호하고 이에 기원하는 부군당임을 명시하였다. 이 마을 17번지와 현 장소인 62번지에 건립하고 시조왕 등의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정월 초하룻날에 만신을 불러 부군당굿을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제단의 왼쪽부터 별상, 삼불제석, 단군왕검, 구능, 마부, 산신앙, 이초관으로 아랫말의 무신도가 일곱 장 모셔져 있다. 한편 윗말 부군당에는 삼신제석, 단군왕비, 단군왕검 등 네 장의 무신도가 걸려 있다. 당의 건물 전면 벽 위쪽에는 「府君堂修理及增築費寄附芳名

記」와 「府君堂肖像替成 및 修理費收捻方名記」라는 현판이 한 개씩 걸려 있다.

단군왕검과 단군왕비를 봉안한 이유가 독특해 보이지만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전개 양상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부군당신의 역사적 인물 형상화나 부군당신의 전환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신격의 출현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단군숭배의 신앙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당내력(巫黨來歷)』과 같은 문헌의 서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문에 "요임금 시대 상원 상갑자 시월 삼일에 신인이 태백산(백두산 또는 묘향산이라고 한다) 박달나무 아래에 강림하니 이가 단군이다. 이에 신교를 배설하여 장자 부루(扶婁)에게 가르쳤다. 부루는 어질고 복이 많았다. 인민이 그를 존경하고 신임하여 후일 터를 골라 단을 쌓고 토기에 벼 곡식을 담아 풀을 엮어 가려 놓았다. 이를 가리켜 '부루단지' 또는 '업줏가리'라고 하였다. 매년 시월에 새 곡식으로 시루떡, 술, 과실을 올려 치성으로 기도하였다(上元甲子 (唐堯時) 十月三日 神人降于太白山(白頭山 或云妙香山) 檀木下 是爲檀君 乃設神教而教之 長子扶婁賢而多福故 人民尊信 後日擇地等壇 土器盛禾穀 編草掩之 稱曰 扶婁壇地 業主嘉利 每歲十月 新穀旣登以甁餠酒果致誠祈禱)"고 한 점이 단군왕검 봉안의 이해에 준거를 제공한다. 윗말과 아랫말에서 부군당신으로 단군왕검과 왕비를 동시에 섬기는 것은 일정한 준거가 있으며 생산력의 주체를 단군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의는 본래 음력 정월 초하룻날부터 사흘 동안 부군당굿을 하고, 음력 삼월 보름날에 간단하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만신의 부군당굿과 제관의 유교식 제례가 합쳐진 점에서 전형적인 서울의 마을굿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음력 삼월 보름날에만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부군당제를 대신한다.

부군당굿의 일반적인 전개 양상은 대동 마을의 추렴굿인 유가돌기를 하고, 이어서 부군당굿 · 군웅굿 · 성주굿을 성대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부군당신과 마을의 화주들, 말명 등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놀이와 노래가 행해지는 특징이 있다. 부군당굿의 핵심적인 면모는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노는 대감놀이에서 찾을 수 있다.

동빙고동 경로당의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은 제를 올리기 약 사흘 전부터 제물을 장만한다. 제일 당일 아침 일찍 부군당을 열고 당에 올라가 세배를 한 다음 화주가 무당을 이끌고 유가를 돈다. 이때 은행나무에 가서 치성을 드리며 돈을 찬조받기도 한다.

부군당굿이 오후 4~5시쯤 끝나면 저녁 제사를 올렸다. 제사는 먼저 윗말 부군당에서 분향-헌작-독축-재배-첨작-재배 순으로 지낸 뒤 아랫말 부군당으로 옮겨 분향-헌작-재배-첨작-재배 순으로 진행하였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의 소지를 올려 주고, 제관들과 부군당을 찾은 사람들 위주로 음복을 하였다. 그리고 제물을 봉송 또는 반기하였다.

유가식 제례는 일반적인 제사의 전개 과정과 대체로 유사하다. 예전에는 부군당굿과 유가식 제사를 모두 지냈으나 오늘날에는 유가식 제사만 지낸다. 예전에 활발하게 진행된 두 가지 복합 형태의 의례가 소멸하고 유가식 제례만 이어지는 것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무당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갈등이 개입하고, 서로 경제적인 이익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서게 되고, 굿과 제사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 점에서 시속의 변화를 절감하게 되고 장차 이러한 분리 현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많은 의문이 들게 된다.

의의 동빙고동부군당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동빙고동부군당제의 면모가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마을굿의 일반적인 의미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마을굿은 대체로 기본적인 유형들과 이 유형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유형이 구현되는 특성을 보인다. 유교식 제사, 농악대굿, 무당식 굿이 기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형은 이 기본 유형들이 뒤섞여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동빙고동부군당제는 이 가운데 무당식의 부군당굿과 제관들의 제례가 합쳐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본적인 복합을 통해 우리나라 마을굿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다. 부군당굿을 먼저 하고 제관들의 제사를 나중에 하는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는 점도 이 부군당제의 의의에 해당한다.

둘째는 동빙고동부군당제의 부군당제로서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 동빙고동부군당제는 부군당의 일반적인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인 조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성격의 인물과 함께 만신이 섬기는 인물의 성격이 결합된 점은 가장 특별하다. 단군왕검과 왕비, 일반적인 마을신이 아닌 무속에서 섬기는 신이 서로 병렬되어 있다. 이러한 부군당제의 일반적인 신격 구성과 특성을 공유하는 점에서 동빙고동부군당제는 일반적인 면모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부군당제의 일반적 성격을 공유함으로써 동빙고동부군당제가 특징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다.

셋째는 동빙고동부군당제만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한 특징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부군당이 윗말과 아랫말로 구분되고, 윗말과 아랫말이 서로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단군왕검이 부인과 함께 위와 아래의 당에 모두 모셔져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 동빙고동부군당제에서 무당이 먼저 굿을 하고, 저녁 무렵에 제관이 제례를 지낸다고 하는 점은 이 부군당제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면모이다.

참고문헌 서울영상민속지-한강변의 마을신앙(서울역사박물관, 2008, 기록영화), 조선무속고(이능화 저, 서영대 역, 창작과비평사, 2009),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98).

필자 김헌선(金憲宣)

서울부암동산신제

정의 서울 자하문 밖 종로구 부암동에서 전승되는 마을 제사. 인왕산 산신을 제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역사 1980년에 작성된 필사본 『산제참고서(山祭參考書)』에 따르면 부암동의 산제당이 건립된 것은 1670년쯤이다. 『산제참고서』는 부암동 마을 제사의 유래, 제비(祭費), 축문, 제관, 제사절차, 제물진설, 제당의 보수와 마을 사람들의 참여 등을 기록한 11쪽짜리 필사본으로, 부암동산신제의 연혁과 제사절차 및 제당 등에 대해 전하고 있다. 1977년에 내린 큰 비로 인해

개축 이전의 부암동 산제당
서울 종로구 부암동. 오문선

산제당의 오래된 제기보관소 건물이 붕괴되었으며, 1978년에 마을 주민들이 추렴하여 이를 다시 세웠다. 현재 산제당은 부암동 동장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내용 개발되기 이전 부암동(付岩洞)은 무계동(武溪洞), 백석동(白石洞), 부암동(付岩洞), 삼계동(三溪洞)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일대는 능금 외에도 앵두, 살구, 자두, 복숭아가 많이 났다. 부암(付岩)이란 이름은 붙임바위가 있던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부암동은 붙임바위골이라 불리기도 했다.

부암동의 마을 제사는 천신제(天神祭)와 산신제(山神祭)로 구성되어 이중적인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천신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편이며, 제의명칭을 산신제로만 부르고 있다.

부암동산제당은 부암동 353번지에 있으며 인왕산에 속해 있다. 부암동 주민센터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 현진건 집터와 윤웅렬 집터를 지나 150m 정도 거리에 자리한다. 산제당은 대지 200㎡에 제단과 제기보관소 및 향나무로 된 신목(神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제당 입구 왼쪽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네모난 큰 돌을 축대식으로 쌓고 그 위에 시멘트로 발라 조성한 제단이 있다. 상단이 천제단(天祭壇), 하단이 산제단(山祭壇)이다. 상단인 천제단의 높이가 더 낮다.

제단 아래쪽의 제기보관소 안에는 산신제를 지내기 위한 제기와 산제당의 유래를 적은 현판이 보관되어 있다. 제기보관소 뒤에 굴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안에서 조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기보

부암동산신제 제당 전경
서울 종로구 부암동. 2005.9.4. 오문선

를 위한 화덕을 만들었다. 2005년에는 종로구의 예산으로 산제당을 보수하였다. 벽체와 지붕 등 노후한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였다.

부암동산신제의 제일은 음력 팔월 초하룻날이다. 서울지역은 음력 팔월 초하룻날을 제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부암동산신제를 비롯해 인근 지역의 홍지동 산신제, 백사실 산신제, 삼지동 산신제 등은 제일을 음력 팔월 초하룻날로 삼고 있다. 제일을 음력 팔월 초하룻날로 삼는 것은 부암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신제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제참고서』에 따르면 부암동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주(祭主)를 비롯하여 소임(所任), 영위(領位) 등 준비위원인 임원을 선정한다. 제주는 여러 임원 또는 임원 외의 고령자 가운데 다섯 명을 제관으로 뽑아 제의를 주관하고 소지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 10명 이내로 뽑힌 소임들은 제사를 계획하고 제비를 추렴하여 제물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영위는 소임 가운데에서 선정되며, 임원을 대표한다. 현재는 마을 토박이 가운데 5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 2003년까지 마을의 토박이 가운데 70대 이상의 남자들이 주관해 왔으나 2004년부터는 50대의 토박이들로 세대교체가 되었다.

『산제참고서』에는 제비의 추렴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 이 내용에 따르면 논밭 매매나 가축의 매매 시에도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였다가 제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비를 동네의 유지 및 일반 주민들이 얼마씩 내어 충당하고 있다.

『산제참고서』에 소개된 부암동산신제의 절차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제사의 절차와 조금 차이가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천제단에 불을 밝힌 뒤 동서남북과 중앙 순으로 오방신장기를 가지고 오방의 장군을 초청한 다음 제주 올리기, 축문 읽기, 유식(侑食) 세 번, 절 네 번, 술 세 번씩 올리기, 숭늉 올리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산제단에 지내는 제사도 오방기를 이용해 오방의 장군을 초청하는 절차를 제외하고 천제단의 제사 절차와 동일하다. 이와 관련된 부분의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천신제를 먼저 지내되 제단 좌우에 촛불을 밝히고 동서남북중앙의 순으로 기(旗) 하나씩 그 방향으로 두르며 장군을 초청함(예동편으로 청색기를 흔들면서 청제장군 세 번씩 초청함). 다음에 제주를 부어 놓고 제축문을 읽음. 다음에 수저를 세 번씩 구르며 적당히 제물에 옮기어 놓고 사배(四拜)를 하면서 삼배주(三拜酒)를 올림. 숭늉을 올리는 것은 일반과 같음.
— 산신제를 지낼 때 다른 것은 삼배하는 것뿐이다.

천제단과 산제단 제사가 끝나면 제관들이 집안의

부암동산신제 상단제사
서울 종로구 부암동
2005.9.4. 오문선

재수를 빌면서 소지를 올렸다. 이후 물 섞인 그릇에 모든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넣고 고수레를 하면서 축원하는 것으로 모든 제사를 마쳤다.

현재 부암동의 마을제사는 강신(降神)-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의 순으로 진행되는 천신제를 먼저 지내고, 동일한 절차로 산신제를 지낸다. 196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절차의 일부분에 변화가 있다. 오방기로 오방신을 강림시키는 절차가 사라진 것이다.

『산제참고서』의 진설도(陳設圖)에 따르면 천제단의 제물은 백설기, 대구, 새웅메, 전병, 쇠머리, 사족(四足), 식혜, 포, 소적, 육탕, 채소, 튀각, 빈사과, 산자, 대추, 밤, 배 등이다. 산제단의 제물은 천제단과 같으나 쇠머리 대신 돼지머리와 양지머리를 올리고, 육탕 대신에 소탕·두부 등을 올렸다.

그러나 현재 산신제의 제물 차림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부암동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외지인이 늘어나자 멀리 동대문 밖이나 경기도 의정부, 고양의 우시장에까지 가서 소를 정성스럽게 골라 제물로 올리기가 버거워졌다. 해마다 제물로 마련한 소 한 마리와 돼지 두 마리는 머리와 다리를 올리는 것으로 간소화되었고, 제물을 집집마다 골고루 나눠 주는 풍습도 지금은 끊겼다.

한편 부암동산신제에 여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은 부암동이 자리한 인왕산이 남신(男神)이기 때문에 여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부암동산신제에는 제주, 소임,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동 주민센터 관계자 등도 참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인왕산 산신에게 지내는 부암동 마을제사(서울역사박물관, 2005, 기록영화).

필자 오문선(吳文仙)

서울서빙고동부군당

상호참조 서울서빙고동부군당제(470쪽)

정의 한강변에 있는 부군당의 정형성을 보여 주는 당.

역사적인 인물인 조선 태조 이성계와 그의 부인 강비를 모시고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00-2번지에 있으며, 1973년 1월 26일에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부군당의 형태는 270여 ㎡의 대지 위에 10㎡ 안팎의 맞배지붕으로 된 한옥이다. 제당 왼쪽에는 화주청이라고 부르는 약 50㎡의 제물청과 부엌, 마루, 온돌방, 창고 등이 있다. 당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쳐져 있고 대문은 기와를 얹은 솟을대문 형태이며 대문의 가운데에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다.

부군당의 내부에는 신상(神像) 세 점이 있다. 신상은 당의 주신인 태조 이성계와 강비가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봉안되어 있으며, 왼쪽 벽에는 삼불제석이 모셔져 있다. 이 신상은 청색·적색·황색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

내용 서빙고동부군당의 내력을 말해 주는 것은 제당내의 현판에 전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거한다. 현판에는 중건기가 있으며, 중건기에 "숭정기원상지십삼년을해사월십팔일중건(崇禎紀元上之十三年乙亥四月十八日重建)"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1635년(인조13)에 중건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화주청 마루에는 「부군당중수기(府君堂重修記)」라는 현판이 있다. 정묘년(丁卯, 1927) 오월에 만든 현판으로, 모두 부군당의 역사를 추정함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게다가 이를 중건한 여러 주체가 있다. "노인계좌목병서(老人稧座目幷序)"와 함께 "신묘오월(辛卯五月)", "이중계원좌목(里中稧員座目)"과 함께 "광무칠년계묘오월(光武七年癸卯五月)"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중건 이래로 마을의 여러 주체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서빙고동의 부군당에 관여하면서 함께 전승과 보존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부군당의 전형적인 구조는 부군당의 주신에 해당하는 신격의 신상을 모시고, 다음에 무속에서 주로 섬기는 핵심적인 신격 신상이 함께 배열된다. 부군당의 주신은 본래 생산력을 고취하고 마을의 안녕을 도모하던 신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역사적 인물로 바꾼 것은 특별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부군당의 신을 보면 부군할아버지와 부군할머니 내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들 내외가 마을의 수호신 구실을 해야 한다는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사적인 인물인 이성계와 강씨로 설정한 것이 특별하다. 부군당신의 역사적 성격을 시현하는 점에서 서울지역의 부군당신이 지니는 특징이 있다.

부군당신은 생산력을 증대하고 이에 근거한 신사를 기본으로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누가 말하기를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의 뿌리가 되는 것이며, 남자의 성기처럼 생긴 나무 막대기를 매다는 것은 사람의 뿌리가 음경(陰莖)임을 우의하기 때문에 음경(陰莖)의 막대기를 만들어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或曰 付根者 旣爲官司之根 而其懸木莖者 以寓人之根爲腎莖 故作莖物以象之)"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부군당신 이해의 핵심적 증거이다. 인간의 생식력이 곧 각 관사의 생식적 주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증식하기 위해 여성신격에게 나무로 만든 음경을 바쳤다고 하는 데에서 유래한 중요한 전거이다.

생산력이 있는 존재가 신으로 봉안되다가 음사로 지목되어 혁파되자 이를 중건하는 사건을 계기로 음경의 생산력 대신 역사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특정 인물을 봉안하면서 부군당신의 일대 전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빙고부군당신의 면모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신격이다.

이와 아울러 이곳에 봉안된 삼불제석의 신상 역시 생산력과 관련된 중요한 신격으로 이 신격만이 부군당에 모셔진 점은 다른 각도에서 많은 것을 환기하게 하는 요소이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일련의 무속 그림에서 부루신앙이나 단군신앙, 제석신앙이 돌출되던 현상과 일정한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당내력(巫黨來歷)』의 〈제석거리(帝釋巨里)〉 설명을 보면 제석신앙과 연관성을 볼 수 있다. 〈제석거리〉 해설에 "제석은 곧 단군 성조이다. 지칭하기를 삼신 제석이라고 한다. 열 살 이내의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에 있으면 삼신이 반드시 보호한다고 말한다. 옛날 고구려 산상왕은 아들이 없어 삼신에게 빌자 삼신이 꿈에 나타나고 귀자를 낳았다. 이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들 낳기를 발원하는 습속이 되었다(帝釋卽檀君聖祖 稱曰三神帝釋 小兒十歲之內 或有危險之地 三神必保護云 故高句麗山上王無子 禱于三神 見夢而生貴子 後生子發願因爲成俗)"라고 한 사실은 이 삼불제석의 봉안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된다.

서울서빙고동부군당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007.2.10. 김태우

참고문헌 巫黨來歷(서울대학교 도서관소장본), **제석본풀이-서사구조의 역사성과 문학성**(신연우,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조선무속고**(이능화 저, 서영대 역, 창작과비평사, 2009),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98).

필자 김헌선(金憲宣)

서울서빙고동부군당제

상호참조 서울서빙고동부군당(469쪽)

정의 서울 한강변의 서빙고동에 전승되는 마을당제. 서빙고동부군당은 용산구 서빙고동 195-3에 위치하며, 1973년 1월 26일에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조선 중종 대 무렵은 왕도정치를 내세운 사림파의 혁파가 돋보이던 시기이다. 조광조가 내세운 소격서와 음사에 대한 혁파는 유가적 이념의 본격적인 공격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역사의 이면을 통해 부군당이 마을굿의 신앙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군당의 수난은 마을신앙의 수난사였다.

『중종실록(中宗實錄)』 1517년(중종 12) 8월 13일(丙辰)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풍속에 각사 안에 다들 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것이 있는데 부근이라 한다. 행해온 지 이미 오래되어 능히 혁파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헌부가 먼저 지전을 불사르고 각사에 관문을 보내어 다 불사르게 하여 그 제사를 금하니 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國俗 各司內 皆設神以祀 名曰付根. 行之旣久 莫有能革者. 至是 憲府先焚紙錢 傳關各司 皆焚之 禁其祀 人多稱快)"라는 부군당의 내력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각사에서 부군을 내세운 것은 생산력에 근거하여 관청의 신명과 생산력을 고취하려던 전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빈약하였고, 오히려 이를 혁신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믿었다. 오로지 "공자께서 괴(怪)·력(力)·난(亂)·신(神)을 말하지 않았다(仲尼不語怪力亂神)"라는 교조적 이념을 적용하면서 이는 당연하게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했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가운데 〈중국과 조선의 음사를 변증하는 이야기(華東淫祀辨證說)〉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음사 가운데 지금 서울에는 각사에 신사가 있으니 이름하여 부근당이라고 하고, 이것이 와음이 되어 부군당이라고 부른다. 한 번 지내는 제사 비용이 심지어 수백 금이나 된다. 혹자가 말하기를 부근은 송씨 처녀가 교접한 바라고 한다. 네 벽에 남자의 성기처럼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많이 매달아 놓았는데 심히 음란하고 외설스러우며 불경스럽기까지 하다. [혹은 누가 말하기를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의 뿌리가 되는 것이며, 남자의 성기처럼 생긴 나무 막대기를 매다는 것은 사람의 뿌리가 음경인 것에 우의하여 그래서 음경의 막대기를 지어서 상징한다고 하였다.] 지방의 고을에서도 역시 제사를 지냈다. 중종 기묘년에 각사의 부근신사를 혁파하였다.(淫祠中 今京師各司有神祠 名曰付根堂 訛呼府君堂. 一祀所費 至於累百金 或曰 付根 乃宋氏姐所接 四壁多作木莖物以掛之 甚淫褻不經 [或曰 付根者 旣爲官司之根 而其懸木莖者 以寓人之根爲腎莖 故作莖物以象之] 外邑亦祀之 中宗己卯罷各司付根神祠)"

이 기록은 배척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각사에서 내세우는 원리가 두 가지였음을 알려준다. 하나는 일반적인 관변 위주의 통치원리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적 생생력을 내세우는 주술적인 원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기록을 통해 보면 이 전통은 일거에 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군당이 내세운 것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신앙화 또는 부군당제의 전통을 부활시키고 서울의 마을굿 신앙을 복원하고자 하는 내력이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 서빙고동의 부군당은 265㎡의 대지 위에 면적 10㎡ 안팎의 맞배지붕으로 된 한옥 건물이다. 부군당의 왼쪽에는 화주청이라고 부르는 약 50㎡ 정도의 제물청이 있다. 화주청의 내부에는 부엌, 마루, 온돌방, 창고 등이 있다. 부군당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다. 부군당의 정면 대문은 기와를 얹은 솟을대문 형태로 문 가운데에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다.

서빙고동부군당은 현재 미8군 사령부 앞 둔지산이 원래의 자리였다고 전한다. 1920년대 초기에 일본인이 훈련장을 만들기 위해 서빙고 경로당 뒤 옛날 보안사 서빙고분실 자리로 옮겼다가 서빙고 분실이 들어오면서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일련의 이동과 전환에도 역사적인 현상이 반영되는 수난이 거듭 확인되는 대목이다.

부군당 내부에는 세 점의 무신도가 봉안되어 있다. 정면에는 당의 주신인 조선 태조 이성계와 부인 강씨의 무신도가 배향되어 있으며, 왼쪽 벽에는 삼불제석이 자리한다. 부군당의 제당 내에는 세 개의 편액 현판이 있다. 이 가운데 당내 서까래에 걸려 있는 현판에는 「숭정기원상지십삼년을해사월십팔일중건(崇禎紀

과거 서빙고동부군당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서빙고동부군당 내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007.2.18. 김태우

元上之十三年乙亥四月十八日重建)」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1635년(인조 13)에 중건했다는 내용으로, 이 현판으로 말미암아 당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다.

서빙고동부군당제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 10시쯤에 유교식으로 먼저 지낸다. 유교식의 제사가 끝나면 굿을 하였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부군당굿을 한 여러 만신에 따르면 이곳의 굿은 전통적이었다고 증언한다. 제의는 오늘날 '서빙고동 노인정'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들도 주관자임을 과시하고 있다. 부군당제의 제관은 노인회 회원 가운데 여섯 명을 선정한다. 제물은 떡(흰떡), 돼지머리(3), 북어, 과일(대추 · 밤 · 곶감 · 사과 · 배), 나물(고사리 · 콩나물 · 시금치), 탕, 술이다.

서빙고동부군당제의 역사는 마을신앙의 뿌리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적절한 예증이 된다. 나라의 시조인 이성계와 강비를 모심으로써 이 부군당제는 절대 훼손될 수 없는 온전한 것이 되었다.

의의 동빙고동부군당제의 의의와 함께 동빙고동과 서빙고동의 비교론을 전개하면 아주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빙고동부군당제의 의의는 세 가지 각도에서 규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을굿은 대체로 기본적인 유형과 기본적인 유형들이 뒤섞인 복합유형이 구현되는 특성을 보인다. 유교식 제사, 농악대굿, 무당식굿이 기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형은 이 기본 유형들이 뒤섞여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유교식 제사와 농악대굿, 무당식 굿과 농악대 굿, 유교식 제사와 무당굿, 유교식 제사+농악대굿+무당굿이 복합 가능한 유형이다.

서빙고동부군당제는 이 가운데 무당식의 부군당굿과 제관들의 제례가 합쳐진 복합형임을 알 수가 있다. 이 기본적인 복합을 통해 우리나라 마을굿의 전형을 서빙고동부군당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빙고동부군당굿은 유교식 제례를 먼저 하고, 무속식으로 부군당굿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서빙고동부군당제의 부군당제로서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 서빙고동부군당제는 부군당의 일반적인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인 조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성격의 인물과 함께 만신이 섬기는 인물의 성격이 결합된 점은 가장 특별하다. 여기에서는 이성계와 강비를 함께 모시고 있는 점이 각별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인물이 결합하는 부군당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용문동부군당의 남이 장군, 동빙고동부군당의 단군 · 단군 왕비, 한남동부군당의 김유신 등 역사적인 인물을 섬기면서 배향하는 것은 부군당의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신앙의 이견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서빙고동부군당제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부군당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지속적인 의의를 주장하는 면모이다. 서빙고동의 역사적 변천 속에서도 그 정신을 잃지 않고 태조 이성계를 모시고 있는 점에서 국사당에 맞먹는 비중을 자랑한다. 단순하게 마을신앙 형태로 서빙고동부군당제가 존재하였다고 하기보다는 마을신앙을 국조신앙과 연결하면서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면모가 이 굿에 존재한다. 서울의 마을굿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다지고 이를 이어가면서 생존하고자 했던 끈질긴 투쟁의 역사를 이 당제에서 확인하게 된다.

무당과 마을 사람이 서로 융합하고 서로 섞이면서 마을의 전통을 지켜 내고 이를 역사적으로 승화하려고 했던 방식은 다른 지역의 마을굿에서 거의 찾을 수 없는 각별한 면모이다.

참고문헌 **서울영상민속지–한강변의 마을신앙**(서울역사박물관, 2008, 기록영화), **조선무속고**(이능화 저, 서영대 역, 창작과비평사, 2009),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98).

필자 김헌선(金憲宣)

서울신기리도당제

정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에 전승되고 있는 마을 제의.

유래와 역사 과거의 행정구역명은 경기도 시흥군 하북면 신길리였다. 이것이 변화하여 신기리라 불리면서 신기리도당제라고 부른다. 신기리도당제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다. 고구려 장수왕 때 큰 폭동이 발생하여 나라가 뒤숭숭해지자 어선의 무사 운항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포구 언덕 위의 소나무에 당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서울 지역의 각 마을 도당에 전해지는 유래담의 하나로 보인다. 도당을 지어 산신을 모신 것이 400여 년 전이라는 말도 있어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신기리도당의 상량문에는 단기 4279년(서기 1946)이라 적혀 있지만 도당은 6 · 25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54년에 중건되었다. 도로 확장공사로 도당의 터가 반으로 줄었지만 현재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형태 골목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태극무늬가 있는 솟을대문이 있고 그 안에 6.6㎡ 정도의 한 칸 한옥으로 된 신기리도당이 있다. 도당 안에는 정면에 도당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린 무신도가 봉안되어 있다. 그 앞에는 제물을 진설할 수 있는 단이 꾸며져 있다. 무신도는 도난당한 것을 다시 그려 봉안한 것이며, 왼쪽에 도당할아버지, 오른쪽에 도당할머니가 한 폭의 그림으로 함께 있다. 이 무신도의 형상은 이태원부군당의 무신도와 형태가 닮아 동일 시기에 동일 화상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하지 않다.

내용 신기리도당제는 매년 음력 시월 초사흗날에 유교식으로 거행된다. 과거에는 정월 초사흗날과 칠월칠석날에 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연 1회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 전까지는 무당이 굿을 주재하였다고 하지만 6 · 25전쟁 이후 유교식 제의만 거행한다. 모든 치성을 주관하는 이는 당주로, 생기복덕을 가려 선출하였다. 그러나 토착민들이 이주해 나가면서 당주를 할 사람이 없게 되자 신기향우회에서 1980년대부터 당주를 선출하여 소임을 맡고 있다.

제의는 당주 집에서 시작된다. 제물을 도당으로 옮기기 전에 간단히 당주 집에서 정성을 들인다. 삼색실과와 떡으로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하는 정도이다. 도당으로 모든 제물을 옮기고 역시 신기향우회에서 선출한 집사의 도움을 받아 제의를 거행한다. 제물은 돼지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 가정에서 거행하는 제사의 상차림과 동일하다. 제의 방식도 일반적인 제

사 격식을 따른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당 밖에 나와 축문을 사르고 음복을 한다.

신기리도당제는 마을공동제의이지만 현재는 신기향우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한다. 신기향우회는 신기리 출신의 40대 이상 남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달 10일 정기모임을 갖고 도당제를 주관한다. 마을 주민들의 참여는 거의 없이 오로지 향우회원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 지역의 전통마을이 붕괴되면서 전통 공동제의가 변모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향우회, 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공동제의를 전승하는 모습이 신기리도당제에 그대로 보인다.

의의 신기리도당제는 도시 지역의 변모된 공동제의의 모습을 보여 준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든 타지로 이주했든 같은 마을을 성장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공동제의를 주관하고 있다. 일종의 친목회 유지에 도당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서울의 마을굿(박흥주, 서문당, 2001).

필자 홍태한(洪泰漢)

서울신수동복개당화분

정의 서울 마포구 신수동 복개당(福介堂)에 모셔졌던 화분. 복개당은 철거되었으며 복개당 화분은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역사 및 유래 서울 마포의 복개당은 1977년부터 1978년 사이 도시화 물결 속에서 사라진 지역의 마을당이다. 당 옆으로 찻길이 뚫리게 되어 주변 건축물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복개당은 허물어졌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개당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국가 정책도 전통문화 전승이나 문화재 보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국토 개발과 산업화에 치중하였다. 미신에 대한 사회적 적대와 문화재 보호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복개당은 허물어지고 만 것이다.

복개당은 전형적인 신당 건물이었다. 목조기와로 된 일자형 신당이었는데 중앙과 좌우를 구분 짓는 기둥 4개가 신당 안쪽 중앙에 앞뒤좌우로 대들보를 받치고 세워져 있었다. 신당에는 현판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던 중수기가 걸려 있었다. 해체된 건물 자재들은 하나하나 일련번호를 적어 묶음으로 정돈된 후 에밀레박물관 건립자 및 관장이었던 고 조자용에 의해 화곡동의 에밀레박물관으로 옮겨졌다. 1983년 에밀레박물관이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입구로 옮겨가게 되자 자재들도 함께 그곳으로 옮겨졌다. 조자용은 허물어져 가는 옛 건축물들을 해체하여 옮겨와 다시 조립하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복개당 대들보 중앙 부분에 구멍을 파고 넣어 두었던 은 조각품 부적이 발견되었다. 육각형 여섯 귀퉁이에 '수(水)' 자 여섯 개를 둘러 새겨서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육각형 조각품 다섯 개가 동, 서, 남, 북, 중앙을 뜻하는 다섯 방향으로 서로 뭉쳐 있었다. 이것은 화재를 막는 부적으로서 많은 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묘(淼)부적으로 주로 궁궐이나 지위가 높은 건축물에서 쓰인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 가치를 제대로 규명할 겨를도 없이 건물 자재들은 이리 저리 흩어져 조립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현재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복개당의 존재 및 역사적 유래에 대한 자료는 무라야마 지준이 1937년에서 보고한 『부락제(部落祭)』가 전부일 정도이다. 이 자료에 보면, 당시로부터 약 150년 전에 손복개(孫福介)라고 하는 마을민이 선몽으로 세조대왕을 마을의 주신으로 모시면서 당을 짓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무라야마 지준이 밝힌 조사내용은 19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복개당은 1770년쯤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 복개당에 대한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자료는 1639년(인조 17)에 기록된 것인데 그 내용은, "……복개당(福介堂) 무녀(巫女)의 어미인 무인(戊寅)을 먼저 수금(囚禁)하겠다"는 의금부(義禁府)의 계 등이다. 『조선왕조실록』 중 「인조실록」에서도 복개당에 관한 기록이 보여 흥미롭다. 의금부가 무녀들이 행한 저주에 대한 것을 심문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복개당(福介堂) 무녀(巫女)운……"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두 기록에 보이는 복개당은 동일한 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 발생연도도 동일하다. 복개당이 마포 신수동에 있었다는 것은 본 사건 기록에서 '무녀 천금(賤今)이 공덕리(孔德里) 조춘금(趙春金)의 집에 숨어 있는 것을 도사(都事)가 붙잡으러 가자, 춘금의 아내가 용산(龍山)에 가 있다고 속였는데…… 운운' 등의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에 보이는 공덕리와 용산은 모두 마포 일대의 지역으로서 신수동복개당과 인접하고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두 자료의 기록으로 보아서 분명 복개당은 1639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복개당의 주신으로 모셔진 세조대왕(世祖大王)은 1417년에 태어나서 1468년에 사망한 조선 제7대 왕이다. 무속신앙에서 역사적 인물이 신으로 등극되는 것은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세조대왕이 무속신앙의 신격으로 봉신되기 위해서는 1468년 이후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복개당은 빠르게는 1468년에 지어진 것이고 늦게는 1639년에 건립되어졌을 것이라는 답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무라야마 지준이 밝힌 것 보다는 131년에서 302년이나 앞서는 것이다.

복개당 현판에서 '복개(福介)'라는 명칭이 마을 사람 손복개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무라야마 지준의 자료는 일찍이 수긍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개당에 관한 여타의 서술들은 모두 무라야마 지준이 밝힌 마을민 손복개 이름과 연관지어 설명되어 왔다. 이를 테면 "마을민 손복개가 어느 날 꿈에서 노인을 만났는데, 마을 인근 괴목 위에 걸린 세조대왕 영정을 찾아다 마을에 당을 지어 봉안하고 매년 봄, 여름, 가을 세 차례 제를 지내게 되면 자신의 집은 물론 마을 모두가 태평하게 될 것이라 하였고, 그 후 사람들은 마을에 당을 짓고 그 명칭을 꿈에 계시 받은 손복개 이름을 따서 복개당라고 불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과오는 그동안 무라야마 지준 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마을당과 관련된 어원 탐구는 일찍이 조지훈의 '累石壇, 神樹, 堂집 신앙 연구'에서 행해졌다. 조지훈은 고대 민간신앙의 뿌리는 오늘날까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돌무더기[石壇], 신목[神樹], 당집(堂집) 형태로 된 신앙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석단과 신목 형태는 혼합되어 전승된 애초 형태의 신앙처지만 당집은 후기에 발달한 것이라고 하였다. 신앙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천신, 산신, 부락신의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동등한 지위에서 삼위일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한민족 신앙의 원형적 모태가 되는 〈단군신화〉의 환인, 환웅, 단군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시공 변화에 따라 오늘날 수많은 형태와 갈래를 보이고 있는 마을신앙은 천신계, 산신계, 붉신계, 성황계, 붉은계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울 마포의 복개당은 붉神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천신신앙인 '붉신'이 전화(轉化)되어 부락신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통용되는 '밝다'의 '밝'은 원래 '붉'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은 '신(神)', '하늘[天]', '해[日]'이다. 조지훈은 '붉'은 곧 '백(白), 광명(光明), 태양(太陽)'을 위하는 이른바 하늘숭배에서 온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불[火]', '들[野]', '국토(國土)'의 뜻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원형어 '붉'에서 전해진 붉神에서의 "붉"은 옛 지명의 '伐', '弗', '發', '火', '原', '坪', '平', '林', '沙', '國' 등으로 기사(記寫)되었는데 이를 한편으로는 '白', '朴', '碧', 'ㅏ', '伏', '福'으로도 표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전개에 따라 복개당은 결국 '붉'의 ㄱ받침계의 신명(神名)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복개당 현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가로 56.5㎝, 세로 26㎝
1829년

내용 복개당이 헐린 지 20여 년이 지난 1998년, 복개당 자료 14건이 유물 공개구매에 의해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동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구입한 14건의 유물 가운데, 무신(巫神) 그림은 세조대왕, 삼불제석, 부처, 칠성, 관우, 장비로 총 6점이다. 복개당이 헐리는 과정에서 무신도 이외의 여타 물건들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행방이 묘연하다. 무신도를 포함한 일부가

세조존영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가로 56㎝, 세로 116㎝, 19세기 후반

동대문에 있는 관성제군묘(동묘)로 옮겨 갔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무신도 6점만이 복개당 무신도의 전부인지는 알 수 없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복개당 무신도로 분류된 6점 가운데, 정확하게 복개당 것으로 확인된 것은 세조대왕, 삼불제석, 부처, 칠성으로 4점뿐이다. 이 그림들은 불화를 전문으로 그렸던 월파(月波), 삼여(三如), 행활(幸活) 등의 화승(畫僧)들이 1868년 복개당 중수를 전후한 시기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화승이 그렸다는 것은 중수기를 통해 알 수 있고, 시기 역시 중수기와 국립민속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 그림에 사용된 안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나머지 두 점의 무신도는 관우와 장비를 그린 것인데 이미 밝혀진 4점(세조대왕, 삼불제석, 부처, 칠성)과는 또다른 사람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누가 언제 그렸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림 재료로 사용된 면은 종이에 배접되었는데 거친 삼실로 짜서 만든 일본제 마대(麻袋)를 재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그림은 도안으로 보아 대략 일제강점기 때쯤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4점의 무신도처럼 작자가 밝혀진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 일반적으로 무신도는 작자미상이다. 따라서 관우와 장비 그림을 누가 그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점의 그림이 세조대왕, 삼불제석, 부처, 칠성과 함께 마포 복개당에 모셔졌었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그림들이 세조대왕을 주신으로 모시는 마을당에 모셔졌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사적 인물인 관우와 장비가 조선시대 군왕을 주신으로 모시는 마을당에 모셔지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연유가 뒤따라 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에서는 그러한 것을 전혀 살필 수가 없다. 복개당 유물 수습에 참여한 윤열수(가회민화박물관 관장)도 당시 복개당에서 이 그림들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하며, 1998년 국립민속박물관에 복개당 유물을 납품한 고미술업자도 고령인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1996년 이 그림들을 조자용으로부터 단순히 구입한 것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아무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복개당 유물로 분류되고 있는 관우와 장비 그림은 주인공들이 장군복을 입고 언월도, 삼지창, 무차,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서 봉신되었던 것인지는 조사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1. 세조대왕 일월오봉도를 배경으로 당 내부의 가운데에 봉안되었던 세조대왕(世祖大王, 1417~1468)은 복개당에서 주신으로 모셔졌었다. 세조대왕은 1455년부터 1468년까지 14년간 조선 제7대 왕으로 재위하였는데, 아버지 세종대왕과 어머니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 沈氏)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진양대군에 봉해졌다가 1445년(세종 27)에 수양대군으로 개봉되었다. 대군 시절 세종대왕 명에 따라 궁정 내에 불당을 조성하였고 불서 번역을 관장했으며, 향악 악보 정리에도 힘을 쏟았다. 단종이 12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지만, 1453년 10월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1455년 윤6월 단종을 강압하여 왕위를 찬탈하였다. 세조대왕의 왕비 정희왕후 윤씨(貞熹王后 尹氏, 1418~1483)는 파평부원군 윤번의 딸로 1428년 당시 진양대군이었던 세조와 혼인하였다. 세조가 즉위하면서 왕비로 책봉되었고 덕종(의경세자)과 예종의 모후가 되었다. 그녀는 조선시대 최초 대왕대비로 봉해졌다. 한편 그녀는 1455년 계유정난이 일어날 때, 남편인 진양대군이 정난에 나가는 것을 부추겼다고 한다. 또한 단종을 상왕으로 올리는 것, 유배를 보내는 것, 사약을 내리는 것 등에도 관여하였다고 전한다. 이와 같이 세조대왕의 비 정희왕후는 정치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여장부 기질을 가진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한 뒤 왕대비가 되었고, 예종이 즉위 1년 만에 갑작스레 병으로 승하하자 당일 바로 한명회와 결탁하여 둘째 손자 자을산군을 왕위에 올린 뒤 자신은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로서 조선 최초의 수렴첨정을 하기도 하였다.

복개당에 봉안된 군왕이 세조대왕이라는 것은 1937년 무라야마 지준의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무라야마 지준의 자료에 복개당 내부 정면에 세조존영(世祖尊影)이 봉안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1966년 한글학회에서 펴낸 『한국 지명총람(1)－서울』에는 복개당이 세종대왕을 모신 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표기된 듯하다. 무라야마 지준 책 뒷부분의 부록 편에 실린 사진 자료에서도 복개당 제신이 세조대왕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라야마 지준은 그의 책을 통해 복개당에 세조대왕이 어떻게 봉안되게 되었는가도 함께 밝히고 있다.

2. 삼불제석 복개당의 삼불제석(三佛帝釋)은 한지를 비단에 배접하여 조성하였다. 무라야마 지준이 보고한 자료에서 삼불제석은 세조존영 그 양옆에 각각 삼불(三佛) 한 장씩이 걸려있다고 하였는데 그 두 그림 중 하나이다. 삼불이라고 말한 두 개 그림(삼불제석과 아미타여래삼존불)의 좌우 배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삼불이라고 칭하는 무신도가 세조존영 양옆으로 각각 모셔져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복개당 삼불제석은 불화의 제석천 그림 형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그림이 19세기 중후반에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무속화가 불화 기법의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그려진 무속화는 불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므로 그 형식이 불화와 흡사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복개당의 삼불제석은 화승이 그렸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복개당의 또 다른 불교식 그림인 아미타여래삼존불을 보면 불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마타여래삼존불도 무속신앙의 부처신으로 봉안되기 위해 그려진 것이지만 불화의 형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복개당 삼불제석 그림이 불화의 제석천 그림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상적 측면에서 고려 불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제석도가 현재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쇼타쿠원(聖澤院)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형식을 보면, 보관을 쓴 제석천이 봉황 장식으로 된 옥좌에 앉아 오른손으로 천선(天扇, 제석천의 부채)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이를 받치고 있다. 그리고 제석천 아래 좌우 두 사람이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 자비로운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 그림은 대표적 고려 불화로서 복개당 삼불제석 그림과 매우 흡사하다. 그림에 나타난 세 사람 모두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머리 뒷부분에 광배를 두르고 있는 것도 복개당 그림과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복개당의 삼불제석(제석천) 그림에 표현된 복식 형태나 자태 등을 보면 고려시대의 불화인 일본 쇼타쿠원 소장의 제석도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불화와 복개당 삼불제석의 연관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또 다른 자료로는 일본 후쿠이현(福井縣) 에이헤이사(永平寺)에 소장되어 있는 1483년에 그려진 조선시대 삼제석천도를 비롯하여, 1741년에 조성된 여수 흥국사 대법당 제석천도, 1753년에 조성된 선암사 제석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그림들을 보아 복개당 삼불제석 그림이 불화 제석천 그림을 이어받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이번에는 무라야마 지준이 복개당에 봉안되었던 제석천을 삼불(三佛)이라고 명기한 문제이다. 이 그림이 국립민속박물관 목록에는 '탱화'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박물관이 소장하면서 붙인 것이지 본래 명

칭은 아니다. 논한 바와 같이 복개당 삼불제석 그림은 고려불화 제석천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 마을신앙에서는 이것을 '삼불'이라고 불렀기 때문이고, 무라야마 지준은 현장조사에서 지역민들과 복개당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불교의 제석천이 무속신앙에서 삼불제석으로 모셔진 지는 오래되었다. 이 신격은 무속신앙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봉신되고 있으며 또한 불교로부터 무속으로 넘어온 대표적인 불교적 무신이다. 무신으로서의 삼불제석은 그림 중앙과 좌우에 배치된 세 명의 승려가 흰 장삼에 고깔을 쓰고 합장을 하고서 연꽃으로 장식된 좌대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리고 삼불제석 주위에는 천상세계를 상징하는 뭉게구름이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제석님이 오른손 엄지와 중지를 모아 내영인상(來迎印相)을 하고서 양손으로 단주를 늘어뜨려 잡고 있기도 하다. 삼불제석은 무속 신앙에서 자손점지, 수명장수 등을 관장한다.

3. 부처 복개당 부처 그림은 무라야마 지준이 보고한 자료에서 당 내부 중앙에 모셔진 세조존영 좌우 중 하나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무라야마 지준은 이 그림도 삼불제석과 함께 삼불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러한 것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세 명의 인물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그림이 불교에서는 아미타삼존불로 통하지만 무속세계에서는 부처로 봉신된다. 무신으로서의 부처는 광배를 배경으로 수인을 하고서 연화대에 앉아 있다. 가로 55㎝, 세로 115㎝의 규격으로 한지에 비단을 배접하여 조성한 것이다. 무속 세계에서의 부처는 중생을 구원하는 신으로 모셔진다. 이러한 것은 구원불로서 중생을 위해 존재하는 불교의 기능과 같다. 그러면서 부처는 다른 신격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길흉화복을 담당한다.

4. 칠성 복개당 칠성(七星) 그림도 세조대왕, 삼불제석, 부처 등과 함께 같은 시기에 동일 화승에 의해 조성되었다. 가로 55.3㎝, 세로 115㎝의 규격으로 한지에 비단을 배접하여 조성하였는데 도안이 상당히 이색적이다. 일월과 칠성이 혼합된 형태인데다 그림이 상하 두 단계로 겹쳐 그려졌기 때문이다. 위쪽 상단 부분에서는 푸르른 하늘 사이로 떠 있는 구름을 배경으로 해와 달, 그 밑으로 둥그런 일곱 개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일월칠성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아래쪽 부분에는 일월칠성을 사람으로 형상화하였다. 광배를 배경으로 한 일월 상징의 두 사람과 칠성 상징의 일곱 사람이 윗줄 세 명 아랫줄 네 명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들이 뭉게구름 속에서 소매가 넓은 포를 입고 공수한 자세로 서 있다. 무속신앙에서의 칠성은 인간의 명과 복을 관장한다. 칠성은 하늘의 천수를 뿌려 인간이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소원성취, 자손점지도 도와준다. 무속의례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칠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상탕에 머리 감고 중탕에 몸 씻고 하탕에 수족 씻은 후, 백모래로 이 닦고 옥경수에 입 씻고서 몸단장을 깨끗하게 한다.

참고문헌 **무당 귀물연구**(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무신도에 나타난 무신의 상징성**(양종승, 박물관지 2, 인하대학교박물관, 1997), **복개당의 내력과 서울무속**(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6, 국립민속박물관, 2010), **불교회화**(유마리 · 김승희, 솔출판사, 2004),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김정희, 돌베개, 2009), **서울 이태원 부군당굿**(양종승, 민속원, 2007), **서일본지역 한국의 불상과 불화**(박은경 · 정은우, 도서출판 민족문화, 2008), **朝鮮の鄕土神祀−部落祭**(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7),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양종승(梁鍾承)

서천마량리당제

정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위해 지내는 당굿형 마을제사.

특징 마량리는 조선시대 때 충청수영(忠淸水營)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관할하는 마량진(馬梁鎭)이 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이곳에 당제를 모시게 된 것은 수군절제사와 관련이 깊다. 수군절제사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바다 위에 떠 있는 꽃을 가져다가 이곳 언덕에 심고 제단을 마련하여 제사를 올리면 뱃길이 무사하고 마을이 평온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절제사는 이 말을 좇아 동백정에 동백나무를 심고

서천마량리제당 내부
국립민속박물관

제당을 만들었다. 이처럼 마량리의 유구한 역사와 대규모의 당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낸 주민들의 삶의 결정체이다.

당집 안에는 해신(海神)인 서낭신을 비롯해 스님으로 지칭되는 산신(山神)이 봉안되어 있다. 다섯 분의 신령 가운데 스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비린 음식을 올리지 않고 다른 신령에 비해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해신과 구분되는 산신(山神)이라 할 수 있다. 어업이 중시되면서 해신인 서낭신 내외가 중요하게 부각되었지만 여전히 산신이 중심이다. 신령은 나무를 깎아 만든 목상(木像)이다. 예전의 것이 소실되어 한동안 무신도 형태로 모시다가 2001년에 새롭게 목상으로 모셔 오늘에 이른다.

당제는 열흘 동안 거행되는 대규모의 당굿형 당제이다. 당굿형 당제는 마을의 주민이 거행하는 당제와 무당이나 법사가 거행하는 당굿이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당제는 섣달그믐날 선창제(船艙祭)를 시작으로 정월 초사흗날에 본제(本祭)에 해당되는 당제를 거행한다. 이것은 편탕제-당굿-마당제-대내림-용왕제-샘제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선주들은 '당맞이고사'라 하여 자신의 배에 당신(堂神)을 초청하는 제사를 지낸다. 초여드렛날과 초아흐렛날 가운데 길한 날을 택해 마지막으로 장승을 깎아 세우고 거리제를 지낸다. 사방이 열려 있는 바닷가 마을인 마량리에서는 마을로 들어오는 언덕 위에 장승 내외를 세워 온갖 액을 막고, 바다와 직접 이어지는 동백정 언덕 위에 당집을 지어 당신을 모셔 두고 주민들의 안녕과 마을의 평안 · 풍어 및 뱃길의 안정 등을 기원했다.

내용 서천군 서면의 바닷가 마을은 인근에서 중선을 이용한 어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마량리를 비롯하여 도둔리 남촌, 홍원리, 월하리 등지에서 지금도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를 올린다. 이 가운데 마량리와 도둔리 남촌은 마을제사인 당제와 더불어 전문 사제인 무당이나 법사가 진행하는 당굿이 추가된 형태로 거행된다. 충청도 지방에서 당굿형 당제는 일반적으로 읍치(邑治)나 시장, 포구(浦口) 등 거점 지역에서만 거행된다. 서천군 지역은 어업의 전진기지로 파시(波市)가 열리는 포구가 아니지만 어선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당집은 마을 뒤편에 위치한 동백정의 중앙에 있다. 2001년에 서천군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새로 건립했다.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목조기와집이다. 「풍어제사당(豊漁祭祠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당집 안에는 각시 서낭님 내외와 며느리와 아들이 중앙 선반 위에 모셔져 있다. 그 왼쪽 선반에는 스님 목상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서낭님이 타는 어마(御馬)와 마부가 목판에 돋을새김으로 조각되어 있다.

마량리당제는 열흘에 걸쳐 치러지는 대규모 제의이다. 음력 섣달그믐날의 선창제를 시작으로 정월 초사흗날의 본제(편탕제-당굿-마당제-대내림-용왕제-샘제-당맞이고사 순), 초여드렛날이나 초아흐렛날에 마을돌기와 거리제(장승에 치제하는 장승제이기도 함)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본제를 '당제' 또는 '윗당제'라 부른다.

제사는 화주와 화장을 한 명씩 선출해 주관하도록 한다. 생기복덕을 가려 운이 닿는 사람을 화주로 정한다. 화주는 모든 제사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깨끗한 사람으로 가린다. 화장은 신령에게 올릴 제물을 장만한다. 예전에는 부정을 피하기 위해 당제를 지내기 사흘 전에 당집으로 올라가 생활했다.

당굿은 잿늠단골이 맡았다. 인근 지역의 굿을 도맡아 하고 가을걷이 후에 한 번씩 각 마을을 돌며 곡식을 거두는 단골이었다. 청색 쾌자를 입고 징을 치며 굿을 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로는 단골을 볼 수 없게 되어 인근의 무당이나 법사를 청한다. 무당이나 법사에 대한 신임은 대내림을 통해 가린다. 연임(連任) 여부도 대내림을 통해 서낭의 신의(神意)에 따른다.

제사 비용은 주민들이 추렴하여 마련하고 선주가

조금 더 부담한다. 제물은 가장 좋은 물건이 거래되는 군산 장에 가서 구입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서천 장(2·7일)을 선호한다. 서낭님의 옷은 부정 없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지어서 서낭님께 설빔으로 갈아입힌다.

제물은 선창제, 당굿, 용왕제, 거리제 몫을 각기 마련한다. 선창제에는 돼지의 목살인 '항정군웅'만을 쓴다. 당집 안에 있는 다섯 분의 신령 앞에는 각기 두 몫을 올려 겹당으로 차린다. 한 몫의 제물은 편탕 한 그릇, 명태 두 마리, 삼색실과 한 접시, 백설기 한 설기이다.

선창제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 나간 여섯 매(사리) 때 지낸다. 선창은 마을과 바다를 이어주면서도 차단시키는 경계선이다. 경계선은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공간이기에 제사의 장소가 된다. 선창제는 바다의 신령, 곧 서낭신이 오시는 길을 맑고 밝게 하는 제사이다. 제사를 마친 뒤에는 제물을 백지에 싸서 바다에 던진다. 용왕님이 마음껏 잡수시라는 의미이다.

정월 초하룻날 차례를 모시고 나서 화주 집 앞에 당기(堂旗)를 내건다. 당기는 세로 3m, 가로 40㎝의 장방형 흰 천에 '동백정성황당'이라 묵서(墨書)해 만든다. 과거에는 당기를 앞세우고 당집으로 올랐기 때문에 '당대올리기'라 했다. 지금은 당일에 정성을 드리고 있어 당기를 화주집 앞에 세워둔다.

당집에 오르면 먼저 부정풀이를 한다. 고추, 숯, 팥, 콩 등을 넣은 물바가지를 올리고 법사가 부정경을 한 석 읽다. 그런 다음 편탕제를 지낸다. 편탕제에는 화주와 화장만이 참여한다. 편탕은 쌀로 만든 떡국으로, 비린 것을 넣지 않고 끓인다. 이때 헌작과 재배는 스님, 각시 서낭님 내외, 서낭님 아들 내외의 순서로 한다. 편탕제는 떡국으로 차례를 지내듯이 신령께 마을 사람들이 세배를 올리는 것이다. 편탕제가 끝나면 선주들이 뱃기를 들고 당에 오른다. 다른 선주보다 먼저 편탕을 먹으면 운이 따르고 돈벌이가 좋다고 믿는다. 화주는 선주에게 길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당의 신령들이 선주들에게 내리는 축복의 상징으로서 상서로운 종이이다. '더북'이라 하며, 만선(滿船)하면 뱃기에 매달고 돌아온다.

당굿은 해마다 다르게 진행된다. 법사가 주관할 때에는 태을보신경, 명당경, 음부경, 천수경, 항마진언 등을 외고 축언을 곁들인다. 무당이 할 경우에는 비손형으로 진행된다. 당굿을 마치면 스님 앞에 밝혀 둔 촛불을 이용해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리고 난 뒤 동백정 앞의 넓은 마당에서 마당제를 지낸다. 조촐하게 제상을 차리고 법사가 바다를 향해 앉아 축언한다. 곧 대내림을 행한다. 대내림은 당제의 절정이다. 대내림에서는 마을의 길흉(吉凶)을 점치기도 하고, 신령들이 제사를 잘 받았는지를 가린다. 그해에 풍어가 될 어종을 묻기도 하고, 각 배의 풍어 여부를 묻기도 한다. 또 마을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나 거리제 날짜를 묻는다. 대잡이가 세수를 하고 대를 잡고 서면 법사가 고장(鼓杖)을 치며 경문을 왼다. 대내림을 통해 신의를 알아본 뒤에는 당기를 앞세우고 용왕제를 지내러 간다.

용왕제는 동백정 옆의 '큰안이'라 불리는 바닷가에서 지낸다.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용왕제를 거행한다. 헌작-재배-법사의 축언-소지올리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소지는 동서남북의 용왕에게 한 장씩 올린다. 소지에 이어 용왕밥을 바다에 던진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까지 직접 나가서 용왕밥을 던지며, 용왕제에 올린 제물은 먹지 않고 모두 바다에 넣는다. 용왕제가 끝나면 마을의 공동샘으로 가서 샘제를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샘을 사용하지 않아 샘제는 생략한다.

샘제를 건너뛰고 곧장 선주들은 뱃기를 앞세우고 '당맞이 배고사'를 지낸다. "배고사 지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줄달음친다. 먼저 지내면 배벌이가 좋다고 하여 서두른다. 집에서 만든, 불을 붙인 부정풀이용 도구인 '시메'를 앞세우고 간다. 배에 오르기 전에 시메를 들고 배 주변을 빙 돌아 부정을 몰아낸다. 갑판, 이물과 고물, 기관실에 각기 제물을 올린다. 고사는 갑판에서 행한다. 갑판은 거두어들인 고기가 모이는 곳이므로 갑판고사를 특히 중시한다.

서천마량리당제
국립민속박물관

여드렛날이나 아흐렛날에 거리제를 지낸다. 해마다 마을 어귀에 남녀 장승 한 쌍을 만들어 세우고 지낸다. 과거에는 돌무더기 서낭이 있었지만 지금은 장승만 서 있다. 소나무나 참나무를 베어다가 직접 장승을 깎는다. 남장승은 사모를 쓰고 '천상축귀대장군(天上逐鬼大將軍)'이란 명문을 묵서하고, 여장승은 족두리 차림에 '지하축귀대장군(地下逐鬼大將軍)'이라 묵서한다. 장승이 완성되면 장승을 모시고 마을 한 바퀴를 도는 '마을돌기'를 한다. 저녁이 되면 마을의 액운을 몰아내는 장승제를 지낸다. 마지막에 된장국에 제물을 쏟아 넣어 마을 바깥을 향해 뿌린다. 해를 물려 부정을 몰아내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이 있기를 바라며 행하는 것이다.

마량리당제는 어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주민들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풍어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지낸다.

참고문헌 **서천의 당제**(이필영 외, 서천문화원, 2004), **충남 서천의 마량리당제**(김효경, 고고와 민속 8,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02).

필자 **김효경(金孝慶)**

석전 · 기우 · 안택 (釋奠 · 祈雨 · 安宅)

정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1891~1968)이 193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정책 중 하나로서 심전개발(心田開發)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선인들의 심리 저변에 있는 신앙적 태도를 조사한 성과물의 하나로 1938년에 발간된 조사보고서.

내용 무라야마 지준은 1916년부터 1919년 7월까지 도쿄제국대학 문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졸업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촉탁이 되었다. 1941년 일본 국내의 조선장학회(朝鮮奬學會) 주사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조선에서 정열적인 조사활동을 하였다.

그는 조선인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선의 민간신앙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민간신앙 4부작을 남겼는데 1929년에 『조선의 귀신(朝鮮の鬼神)』을 시작으로 1931년 『조선의 풍수(朝鮮の風水)』, 1932년 『조선의 무격(朝鮮の巫覡)』, 1933년에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ト と豫言)』을 펴냈다. 당대 일본에서 비교종교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하던 김효경(金孝敬)은 무라야마에 대한 서평에서 『조선의 귀신(朝鮮の鬼神)』이 조선의 민간신앙의 '서론'(저류로서 토대)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조선의 무격(朝鮮の巫覡)』과 『조선의 풍수(朝鮮の風水)』는 그 '본론'(2대 조류)에 해당하고,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ト と豫言)』은 그 '결론'(2대 나무 위에 핀 總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무라야마의 『석전 · 기우 · 안택』에 대한 본격적인 해제는 그동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발표된 주영하 교수의 해제인 「조선의 제사와 사회교화론-무라야마 지준의 『석전 · 기우 · 안택』 연구」가 처음이 아닐까 한다. 이는 무라야마의 다른 조사보고서에 대한 해제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을 말해준다. 주영하 교수는 『석전 · 기우 · 안택』의 집필 의도가 궁극적으로 생활개선운동의 전개를 위해 석전 · 기우 · 안택의 사회교화적 기능을 강화할 목적에 있었다고 보았다. 즉 "석전을 통해서 양반의 사상을 살피고, 기우제를 통해서 농사에 대한 관민의 공통된 의식을 파악하고, 안택을 통해서 가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살핀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석전 · 기우 · 안택』의 집필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지방의 생활개선과 '내선일체화의 촉진'이다. 이는 이 보고서가 발간된 시점이 일본이 처한 국내외 위기 극복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그 보고서의 집필 방향과 목적을 결정한 정치적 배경이었다.

무라야마는 향토제사 중 가장 완비된 석전과 풍흉의 키가 되어 조선에서 관민 모두의 중대관심사였던 기우제, 가족중심주의와 가정중심주의의 생활을 지지해 왔던 안택 각각을 조선향토제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 권의 보고서로 묶었다. 따라서 『조선의 향토신사』의 제1부로서 『부락제』, 제2부로서 『석전 · 기우 · 안택』을 발간한 것이다.

『석전 · 기우 · 안택』은 2편으로 공동제와 개인제로 구성되었다. 제1편은 공동제(共同祭)를 문묘제, 사원제(祠院祭), 기우제, 수호제(守護祭), 방역제(防疫祭), 시장제(市場祭)로 나누고 그 가운데 수호제는 장군제, 수구신제(水口神祭), 탑신제(塔神祭), 정주제(井主祭), 수신제(水神祭), 성황제, 부군제, 불신제로 분류하였다. 제2편은 개인제(個人祭)로 가신제와 함께 안택과 고사 외에 용왕제, 풍신제, 산신제, 성황제, 국사제(國師祭), 제액제(除厄祭), 향산제(香山祭), 성공제(誠貢祭), 칠성제(七星祭)를 다루었다. 마지막에 문헌편을 붙여 향토신사 관련 문헌을 시대에 따라 상대, 고려, 이조(조선)로 정리하고 지리지에 나오는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문묘제례는 1937년 2월 그 제일(祭日)을 양력으로 고쳐 봄에는 4월 15일, 가을에는 10월 15일로 정하고, 지방문묘에서는 만약 그날이 그 지방 신사(神社)의 제전일(祭典日)과 겹치는 경우에는 적당하게 그 이전 혹은 이후로 해도 좋다고 정했다. 봄 석전제일을 4월 15일로 정한 배경에는 각 학교의 신입생들을 그 제사에 참석시켜 성인의 덕화(德化)를 받도록 하자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종래에는 석전제일 행사 시간이 그 전날 밤부터 그날 아침까지였으나 1910년부터 그것을 낮에 거행하는 쪽으로 변경하였다.

1938년 1월 말 현재 지방문묘와 폐지문묘 일람표를 제시하면서 그 연혁(예를 들면 창립, 폐지 혹은 복설)을 병기하고 있어 당시 지방문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문묘 중 전남 광주문묘, 평남중화문묘, 전남순창문묘의 제의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전국의 사우와 서원을 합친 사원(祠院)에 대해서는 그 유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현황과 지방 중 대표적으로 전남 광주서원제, 황해 황주서원제, 전북 완주 영당제(靈堂祭), 경남 동래서원제를 소개하고 있다.

기우제에 대해서는 충남 은산, 경남 창원, 경북 경산, 경북 선산, 경북 영덕, 경북 영일, 경남 울산, 경남 의령, 강원도, 황해도 신천에서 이루어지는 기우제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와 함께 각 도 지방별로 간략하게 기우제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제의와 행사로서 분화(焚火), 현병(懸甁), 급수(汲水), 이시(移市), 조룡(造龍), 줄다리기, 부정화(不淨化), 암장 아바키를 제시하였다. 부정화는 기우제가 이루어지는 제장 또는 용신이 산다고 믿는 청정한 장소에 가장 불결한 짐승이라는 돼지와 개 등을 도살하여 그 생피를 뿌리고 신성한 곳을 더럽히는 것에 의하여 강우를 요구하는 것이다. 암장 아바키란 암장한 묘를 파헤쳐 그 시체를 노출시켜 정화를 위한 부정화를 감행하여 부정한 시체를 흘러가게 하여 산신 또는 천신에게 강우를 비는 부정화행사의 일종이라고 한다.

수호제 가운데 장군신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하고 있는 장군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지방과 함께 그 특색을 소개하고 있다. 지방 가운데에서도 경북 경산 자인의 단오제, 충남 부여군 은산의 별신제, 전북 군산 장군제, 전남 해남의 수호간(竿), 전북 고부의 오간(烏竿), 경남 군북의 시장간(市場竿)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산간마을의 입구는 계곡물을 끼고 있는 지형에 있는데 이곳을 수구라고 하며, 마을 방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이 되는 수구신(水口神)에 대한 제사를 충북 청주지방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마을 어귀의 빈 공간에 살기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고탑 또는 석퇴(石堆)의 탑을 설치하는데 이 역시 마을 수호신으로 보고 제사를 지내는 마을로서 충북 옥천, 전남 함평, 전북 부안을 사례로 들고 있다. 그리고 우물제사, 수신제, 성황제, 부군제 외에 경남 동래군 구포(龜浦)에서 행해지는 불신제를 소개하고 있다.

무라야마는 조선에서는 이전부터 중농억상(重農抑商)정책으로 인하여 상업의 발달이 늦어져 마을 근처에 물물교환 시장이 형성되어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시장제인데, 남쪽 지방에서는 별신제라고 하고 서쪽 지방에서는 단굿이라고 불렀다. 충주, 경주, 경북 김천 남면 및 개령(開寧)의 별신제와 함께 마산의 성신제(星神祭)를 소개하고 있다.

무라야마는 부록으로서 전국의 공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기우제, 수호신, 전염병제, 문묘서원제, 기타로 나누어 정리한 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2편 개인제(個人祭)에서 무라야마는 1936년에 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그 범주를 정하였다. 즉 조상제례 이외에 가신(家神)을 대상으로 하는 고사, 안택 등 가신제 20종, 용왕제, 풍신제, 농신제 등과 같이 각지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통제 7종, 그 외 개인이 생각에 따라 제사를 지내며 비교적 그 분포가 넓지 않은 개인제 13종으로 총 40종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전국에 걸친 조사대상 중 191개 지방에서 나타난 513개 제사에 대해서 통계 처리한 것이다.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가신제 고사, 안택제, 지신제, 토사(土祀), 조왕제(竈王祭), 성조제, 대감제, 제석제, 세존제, 지운제(地運祭), 토주제(土主祭), 삼신제, 성주제, 당상제, 산양제(産養祭), 복락제(福樂祭), 도신(禱神), 천신제(薦新祭)

2. 공통제 용왕제, 풍신제, 농신제, 산신제, 성황제, 국사제(國師祭), 제액제(除厄祭)

3. 기타 개인제 향산제(香山祭, 단군제), 성공제(誠貢祭), 노신제(路神祭), 칠성제, 영산제, 백일제(百日祭), 목신제(木神祭), 석신제, 마을제(馬乙祭), 미륵제, 일제(日祭), 군웅제, 독치성(獨致誠)

위에서 분류한 제사 가운데 가신제가 가장 많이 나타난 지방은 경상남도이며 그다음은 평안북도였다. 공통제의 경우는 경상남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타 개인제는 평안북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총계적으로 보아도 경상남도가 위에서 분류 · 제시된 제사를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가신제, 공통제, 기타 개인제 가운데에서도 가신제가 전체 513종 가운데 301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무라야마는 조선에서의 개인제가 가지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 번째 특징은 개인제가 개인 각자의 목적 달성에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기원하는 바가 순수하게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가족의 이익이며 가족의 안전과 융성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앞의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사와 안택제가 가신제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서 조선의 가신제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무라야마는 가신제를 비롯한 개인제들은 궁극적으로 개인보다는 사회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두 번째 특징을 개인제의 제신 간에는 상하 혹은 주종관계가 있다는 점으로 보았고, 세 번째는 개인제를 주관하는 제주(祭主)는 전국적으로 보아 주부 또는 노모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무녀가 많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았다.

네 번째는 개인제이기 때문에 옛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른 시기 일본, 조선, 만주 및 시베리아 일대를 '샤먼권(圈)'이라고 명명하고 이 문화권에서는 같은 신사(神事)를 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보았다. 일본에서는 외래 종교의 영향으로 그와 같은 흔적을 찾기 힘들게 되었지만, 같은 외래 종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선의 민간신앙은 질적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즉 사적인 무가 아니라 공적인 무의 활동이 활발한 결과라고 보았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만주 등에서 문화적으로 공통적인 측면에 착목하였다. 가신제의 대상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신은 하위의 가신들을 총괄하는 성주(城主)신, 이를 성조대감 또는 상량신이라고도 한다. 제석신은 집안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세존이라고도 한다. 십이신장 등과 같은 방위신인 신장(神將), 지방관 또는 사절 및 무장의 신령인 군웅, 관서장의 영인 부군이 있다.

무라야마는 안택고사에 대해서는 천안과 함경도 지방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삼신제에 대해서는 경북 경주와 김천, 경남 마산, 충남 천안, 강원 울진을 사례로 제시하고 용신제에 대해서는 전북 무주, 경남 합천, 풍신제에 대해서는 경남 마산, 경북 경산과 경주, 제주도, 농신제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 평남 덕천, 평북, 산신제에 대해서는 평북, 성황제에 대해서는 강원 철원, 강릉, 국사제에 대해서는 경기 양주, 평북, 제액제에 대해서는 경남 하동, 전남 삼음을 각각 사례로서 제시하고 있다.

향산제 등 기타 개인제에 관해서는 성공제는 평안남북도만 있는 기자제(祈子祭)를 예로 들고 있으며 칠성제에 대해서는 전북, 충북, 전남, 함북의 예를 들고 있다. 그리고 1936년 5월 현재 전국의 개인제 개황을 제명(祭名), 제신(祭神), 제주(祭主), 제물(祭物), 제장(祭場), 제사방식, 목적, 시기로 나누어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참고문헌 **구한말 · 일제강점기 민속문헌 해제**(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조선총독부중추원, 1936), **제국일본이 그린 조선민속**(주영하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필자 **최석영(崔錫榮)**

석척기우(蜥蜴祈雨)

정의 용의 형상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도마뱀[蜥蜴]을 이용한 기우의례.

내용 석척기우는 용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지 않고 용을 대신하는 생물체(도마뱀, 도롱뇽)를 주술적으로 이용한 대룡기우(代龍祈雨)의 한 방식이다. 석척기우는 주로 연못가에 동자들을 모아 놓고 도마뱀이 들어 있는 독을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게 하는 기우의식이었다. 이것은 유사룡(類似龍)에게 소음과 주문을 반복적으로 가함으로써 연못에 거하는 부동의 잠룡을 일깨우기 위한 강요의례였다.

석척기우는 이미 중국 당대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는 도롱뇽을 독에 넣고 밀봉한 다음, 10살 미만의 아동 10여 명에게 청죽(青竹)으로 독을 주야로 치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송대에는 청의(青衣)를 입은 28명의 동자들에게 도마뱀이 들어 있는 독에 주문을 가하게 하는 석척기우법을 공식적으로 반포하였다. 조선 태종 7년 6월에 광연루에서 석척기우를 시행하였다. 이때 석척기우는 푸른 옷을 입은 20명의 동자들이 버드나무 가지로 도마뱀이 든 두 개의 독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우는 방식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이미 국가의례뿐만 아니라 지방의 기우제에서도 석척기우가 행해졌다. 조선 숙종 대에는 경회루(慶會樓), 모화루(慕華樓), 춘당대(春塘臺)의 연못가에 수십 명의 청의동자를 동원해 설행하는 석척기우를 국행기우제의 공식적인 절차로 정례화하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모화루의 석척기우만이 국가의례에 남고 나머지는 폐지되기에 이른다.

석척기우의 주술적인 의도는 동자들이 외우는 주문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송사(宋史)』 권102 「예지」 55 예5에 실려 있는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해내라 비를 홍건히 내리게 하면 너를 돌려보내리라(蜥蜴蜥蜴 興雲吐霧 雨令滂沱 令汝歸去)"라는 주문은 석척기우문의 전형을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은 용을 부리고 자극하는 의도를 숨김없이 보여 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석척기우의 주문도 중국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태종실록』에 보이는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해내라 비를 홍건히 내리게 하면 너를 돌아가게 놓아주리라(蜥蜴蜥蜴 興雲吐霧 俾雨滂沱 放汝歸去)"라는 석척기우문은 송대의 주문과 약간의 자구가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주술의 문장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석척기우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즉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강요의례적 주문 내용이 비속하고 비윤리적이라고 비판되기에 이른 것이다. 영조 대에 이르러 석척기우문은 "도마뱀아 도마뱀아 안개를 토해내고 구름을 일으키라 비를 내려 홍건히 적시어 속타는 이 마음을 씻어 주어라(蜥蜴蜥蜴 吐霧興雲 降雨滂沱 滌此悗焚)"로 바뀐다. 이것은 영조가 숙종의 시문집에서 발굴한 석척기우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대룡(代龍)을 압박하기보다 대룡에게 기원하고 호소하는 분위기를 중시하는 의례경건주의적 맥락에서 주목받았다고 할 수 있다. 『기우제등록』 5책 뒷표지 속면에 수록되어 있는 별도의 석척기우문도 내용상 영조대의 것과 일치한다.

석척기우는 기우제룡(祈雨祭龍)의 한 유형으로서 입체적인 구조물이나 회화를 통해 용의 모습을 표현하기보다 용을 대신하는 동물을 직접 이용해 용을 현존시키고 여기에 반복되는 소음과 주문을 가함으로써 강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대룡기우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찍이 중국 당·송대에 보편화된 석척기우는 조선 초기에 시행된 이래 국가 및 지방의 기우의례로 확대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국행기우제의 12제차에 경회루, 모화루, 춘당대의 석척기우가 공식화되었다. 모화루의 석척기우는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석척기우에 사용된 주문은 용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언어로 용을 압박하고 재촉하는 의례적인 수단이었다. 강요의례적 성격을 지니는 석척기우문은 가뭄에 처한 인간의 절박한 심정과 용신에 대한 호소를 담은 기원의례의 내용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祈雨祭謄錄,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석전·기우·안택(조선총독부, 1938), 용부림과 용부림꾼-용과 기우제(최종성, 민속학연구 6, 국립민속박물관, 1999), 中國シャマニズムの研究(中村治兵衛, 刀水書房, 1992).

필자 최종성(崔鍾成)

선돌

정의 가공하지 않은 길고 큰 돌을 수직으로 세워 놓은 거석기념물(巨石記念物) 또는 신앙대상물.

내용 선돌은 입석(立石, menhir), 돌꼬지, 도두, 석주(石柱) 등의 명칭이 있다. 돌을 세웠거나 서 있다는 뜻에서 선돌 이외에 삿갓바위[笠巖], 선바위[立巖]라고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구지바위, 할머니탑, 할아버지탑, 돌장승, 수구막이, 수살장군 등 으로도 부른다.

선돌의 크기는 높이 1~2m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남 서산시 온석동의 선돌처럼 6m나 되는 큰 것도 드물게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선돌은 대부분 자연석을 그대로 이거나 일부분만 치석(治石)하여 세웠다. 선돌의 형태는 둥근뿔, 둥근기둥, 모난뿔, 모난기둥 등 다양하다.

선돌은 대체로 마을로 들어가는 어귀나 평지에 위치한다. 논밭 가운데나 고인돌 옆에 있는 경우도 있다. 고인돌의 옆에 있는 경우로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와 영암군 입석리의 선돌, 광주 북구 충효동의 선돌 등이 있다.

선돌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암석·칠성·성기 숭배에서 나타나듯이 다산, 생생력, 장수를 바라는 풍요의 기능이다. 둘째 벽사(辟邪)·수구막이 역할 등 수호 기능이다. 셋째 죽은 사람을 상징하거나 무덤을 표시하는 무덤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선돌에 얽힌 전설이나 관련된 신앙의 대상물로 본질을 이루고 있다. 선돌의 외형적 특질에서 사람들에게 외경심이 들게 하거나 마치 그 모습이 남성의 생식기와 비슷하여 성기숭배사상 같은 원시신앙과 결부시키기 때문이다.

선돌이 세워진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석기~청동기시대에 이루어진 유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사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산 1의 4번지 인왕산 중턱 국사당 건너편에 선바위가 있다. 여기에 기자와 육아를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신앙이 선바위신앙이다. 제사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내기도 하지만 대개 정월 초하루, 4월 8일, 7월 15일, 10월 1일 등 날을 잡아 정기적으로 지내기도 한다. 제를 지낼 때는 사흘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제사 당일이 되면 선바위 제단에 촛불을 양쪽에 밝히고 향을 사르며 상을 차린 뒤에 소원을 기원하면서 절을 한다.

전북 김제시 입석동 입석줄다리기는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7호'로 선돌신앙의 또 다른 형태이다. 입석(선돌)줄다리기는 벽골제를 시축하고 이 고장에 해마다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김제 동헌과 벽골제 사이에 월촌면의 당재와 토끼재를 연결하는 능선이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어 터 기운이 세다고 하여 이 기운을 누르기 위해 석주(石柱)가 세워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입석의 상단은 심하게 마멸되어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사람 얼굴 또는 사자 얼굴 같은 것이 음각되어 있다.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성 대결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으며, 줄다리기가 끝나면 석주[선돌]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그 줄을 석주에다 감아 놓는다. 석주에 감아 놓은 줄에 손을 대면 동토가 나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며 지금까지 보전되었다. 이 석주로 인하여 마을 이름도 선돌마을이고, 한자로 표기해 입석(立石)으로 지명이 되었다고 한다.

매년 정월대보름달이 떠오르면 입석줄다리기는 시작된다. 마을 주민들이 사나흘 전부터 볏단을 모아 동아줄을 틀어 수십 개를 만들어 하나로 꼬아서 지름 2척 정도, 길이는 50~60척의 대형 원줄을 만든다. 그리고 원줄에다 다시 손잡이 곁줄(접줄)을 많이 만들어 잡아당기기 좋도록 해 놓는다. 남성 줄은 앞에 올가미를 작게 만들어 통나무가 들어갈 정도이고, 여성 줄은 남성 올가미의 머리를 꿸 수 있도록 크게 만든다.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동쪽에서 신랑을 태운 남성들이 줄 양편에 늘어서서 작은 통나무를 줄 아래로 가로질러 어깨에 줄을 메고 나온다. 서쪽에서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이 신부를 태우고 농악을 치고 줄을 메고 나와 중앙의 지점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거기서 줄말기 등 한바탕 놀이를 즐기고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 결과는 여성들이 이겨야 그해 풍년이 든다고 전해 오고 있어서 지금도 해마다 여성들의 승리로 끝이다. 이렇게 줄다리기가 끝나면 여성 줄을 석주에 감고 무당의 집례로 엄숙한 당산제를 행한다.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입석제는 마을 어귀에 있는

선돌
강원 동해시 동호동 승지골, 2010.6.10
김경남

입석에 제를 지낸다. 이 입석제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1850년 무렵 동네 한 노인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동네에서 멀지 않은 소류지에 가라앉아 나오지 못하고 고초를 겪으니 그대가 나를 동구 밖에 세워 주면 복록을 점지하리라"고 하였다. 그는 꿈을 깨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그 소류지에 가 보니 물만 가득하였다. 사람을 동원하여 물을 퍼내 보니 커다란 자연암석 하나가 드러났다. 그는 이 자연석을 등에 져다가 동구 밖에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동네에서 자연석을 놓고 제사하는 관습이 생긴 시초이다. 지금도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아낙네들이 떡시루를 이고 가서 소원을 빈다. 또한 천안시 부평동과 청수동 입구에 있는 입석에 제사를 지내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승지마을에 있는 선돌은 입석 또는 돌꼬지라 한다. 이는 승지골 입구에 있는 저수지와 승지교를 지나 산모퉁이에 돌이 서 있는 곳을 가리키며 돌이 꽂혀 있는 곳이란 뜻이다. 자연석의 지주(支柱)로서 폭 50㎝, 높이 2m 가량의 돌들이 조금 떨어져 두 개가 서 있는 이 선돌은 신라의 실직과 고구려의 하슬라(명주의 옛 지명)의 경계를 표시한 지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이 선돌을 마을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입동(立冬)을 전후하여 짚으로 옷을 해 입히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강원의 전통민속예술**(강원도, 1994), **김제의 전통**(김제군, 1982), **내고장 전통가꾸기**(천안시, 1982), **동해시 지명지**(동해문화원, 2000), **한국민속대사전**(민중서관,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축제**(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필자 김경남(金京南)

선문대할망

표제어 설문대할망(486쪽)

설문대할망

정의 태초에 제주섬 곳곳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제주도의 여성 거인신.

내용 설문대할망이 가장 일반적으로 불리는 명칭이지만 선문대할망·설만두할망·설명지할망·세명뒤할망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마고할망이란 명칭으로 설화가 채록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특수한 예일 뿐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특별자치도 곳곳의 오름과 섬 등의 지형을 형성시키고 제주도민들을 위해 육지로 다리를 놓던 흔적을 보이는 등 지형창조신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채록자료 가운데 "천지개벽 시에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있었는데 설문대할망이 천지를 분리시켜 하늘을 위로 가도록 하고 땅은 아래로 가도록 한 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물속에서 흙을 파 올려 제주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여 창조신적 면모를 두드러지게 보여 주기도 한다. 설문대할망은 이런 창조신적 행위 외에 설문대하르방과 짝을 이루며 등장해 사냥을 하기도 하고, 족두리나 공깃돌 등 할망이 지니고 있던 것을 증거물로 남기는 전설이 또한 도내 곳곳에 전승되기도 한다.

한편 배설물로 지형을 만들거나 성기로 사냥을 하는 등의 형태로 희화화되거나 죽을 끓이다가 빠져 죽는 비극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는 등 거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양상이 후대에 반영된 모습도 찾을 수 있다.

제주도에서 설문대할망에 대한 신앙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어민이나 제주 사람들을 지켜 주는 신격으로 믿어진 사례는 찾을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설문대할망 기록인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漂海錄)』에는 표류하던 뱃사람들이 한라산이 눈에 들어오자 백록선자(白鹿仙子)와 선마고(詵麻姑)에게 살려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대목이 있어 제주의 뱃사람들에게 설문대할망이 그들을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 믿어졌음을 보여 준다. 이와 더불어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표선리 당개 포구의 해신당에서는 설문대할망이 해녀들을 보호해 주고 부(富)를 가져다주는 당신으로 나타나며, 고봉선(高奉仙) 심방 구송의 〈산신굿〉 무가에도 설문대할망을 섬기는 사설이 포함되어 있어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설문대할망설화연구**(이성준, 국문학보 10,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1989), **제주도여신고**(장주근, 제주문화 창간호, 문총제주지부, 1957), **제주도전설**(현용준, 서문당, 1976), **천지창조의 거신설화**(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표선리향토지**(표선리 원로회, 1996), **표해록**(장한철 저, 김지홍 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한국의 거인설화**(권태효, 역락, 2002).

필자 권태효(權泰孝)

성제묘(聖帝廟)

상호참조 성제묘관우제사(489쪽)

정의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4가 96번지 방산시장 내에 위치한 관우(關羽)를 주신으로 모시는 묘당. 관우를 모신 전각은 현성전이라고 한다.

역사 방산동의 성제묘가 언제 건립되고 언제부터 제사가 시작되었는지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성제묘 안내문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민간에 의해 세워졌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막연한 표현이다. 그런데 성제묘에 대한 기록은 고종 때 간행된 『관성제군성적도지(關聖帝君聖蹟圖誌)』나 『명성경(明聖經)』 등에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성제묘 역시 관우신앙이 성행하던 조선 고종 때 건립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와는 달리 염초청에서 관성제군을 부군으로 모시며 지내던 제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관제가 염초청의 부군으로 모셔진 흔적은 현재 성제묘 제사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찾아볼 수 있다. 현 성제묘 제사의 대상인 관우부부는 '현한수정후관우부군(顯漢壽亭侯關羽府君)'과 '현혜숙인송씨(顯惠淑人宋氏)'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성제묘의 제사가 조선시대 부군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방산동 성제묘의 관우제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민간에 의해 세워졌다기보다 방산동 일대에 있던 군 관련 기관과 거기에 소속된 군인과 관리들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제묘의 안내판에는 방산동의 성제묘를 남묘나 동묘와 달리 임진왜란 이후 민간인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현 방산동 성제묘와 조선시대 염초청 부군당의 성제청 간의 관련성은 좀 더 탐구해야 한다.

내용 성제묘는 문과 담장, 현성전(顯聖殿)으로 구성되

어 있다. 원래는 구내가 넓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매각해 지금처럼 좁아졌다고 한다. 또 오른쪽 협문 안에 건물이 있었고 한 부부가 성제묘를 관리하면서 살았으나, 약 15년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문은 북향이며, 정문과 양쪽의 협문으로 이루어진 삼문 형식이다. 지붕 위에는 기와를 올렸다. 삼문을 들어서면 신당인 현성전까지 연결되는 신도(神道)가 있으며, 현재는 보도블록을 깔았다. 신도의 양쪽에는 2개씩의 돌로 된 동자상이 있다. 이 가운데 왼쪽 뒤의 것은 상반신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이들 동자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현성전 건물의 왼쪽 바깥에는 파손된 삼층석탑이 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중심 건물인 현성전 역시 북향으로 석단(石壇) 위에 세워져 있다. 석단의 중앙에 있는 3단의 계단을 통해 석단에 오를 수 있다. 현성전은 정면 세 칸(3.14m), 측면 두 칸(3.35m)으로 이루어진 맞배지붕의 단층 목조건물이다. 그리고 앞에는 네 쪽의 분합문을 달았다. 삼문과 현성전에 대해서는 1974년 10월에 서울시가 부분적으로 수리했다고 한다.

현성전의 정면에는 보개(寶蓋)를 얹은 닫집이 있고, 닫집 안에는 일월오악도를 배경으로 관우 부부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다.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관우는 익선관(翼蟬冠)을 쓰고 붉은 곤룡포를 입고 있다. 손의 한쪽은 수염을 쓰다듬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무릎 위에 올린 자세이다. 얼굴은 검은데 관우의 얼굴이 대추 빛깔이라는 전승에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의 부인은 가채를 올리고 연녹색 당의(唐衣)에 붉은색 치마를 입고 있으며, 손은 공수(拱手)를 하고 있다.

현성전의 왼쪽 벽에 4점, 오른쪽 벽에 3점의 화본들이 걸려 있다. 왼쪽 벽의 안쪽으로부터 첫 번째는 고깔에 장삼을 입고 부채를 들고 있는 승려의 좌상이다. 관우가 처음으로 현성(顯聖)했다는 옥천대사(玉泉大師)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무관 복장을 한 두 사람이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창을 들고 있다. 이 두 사람은 관우를 협시(脇侍)하고 있는 관평(關平)과 주창(周倉)이다. 세 번째는 익선관을 쓰고 구름무늬가 있는 황금색 옷을 입고 의자에 앉은 상이다. 한 손으로는 수염을 쓰다듬고 있으며 다른 한 손은 책을 들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가 세워져 있다. 『삼국지』의 배송지(裴松之) 주에 인용된 「강표전(江表傳)」에 따르면 관우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좋아했다고 하며, 『삼국지연의』에서 관우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청룡언월도이다. 네 번째는 창을 들고 서 있는 무인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오른쪽 벽의 맨 안쪽 그림은 퇴색이 심하여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민속대관』에서는 활을 든 승려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말, 말을 끄는 마부 두 명, 깃발을 든 장수 한 명이 그려져 있다. 그 옆으로 또 말과 마부 한 명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그림의 순서 가운데 특히 왼쪽 벽의 순서는 『서울민속대관』과 다르다. 즉 『서울민속대관』에서는 관우상과 두 명의 무인상이 바뀌었다. 그것은 이들 그림이 탈부착이 쉬운 액자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성전에는 이 밖에도 두 점의 화본이 있었다. 이것은 현성전 내에 걸려 있지는 않았지만 관리인 최석순에 따르면 최근에 어떤 미술학도가 연습 삼아 그려서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한 점은 관우부부상, 다른 한 점은 관우가 관평과 주창을 거느린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현성전 내부에는 보관하는 서적들이 있는데 그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관성제군성적도지(關聖帝君聖蹟圖誌)』 5권 완질
- 『관성제군성적도지(關聖帝君聖蹟圖誌)』 4권
- 『관성제군훈상주(關聖帝君訓像註)』 2권
- 『영첨(靈籤)』 3권
- 『명성경(明聖經)』 2종 3책
- 『부우제군약언보전(孚佑帝君藥言寶典)』 제3권
- 『삼성보전(三聖寶典)』 1책
- 『시경독본』 1책
- 『시경독본(始經讀本)』 1책
- 『옥력지보초(玉曆至寶鈔)』 1책
- 『홀기(笏記)』 1책
- 『금강반야바라밀경정해(金剛般若婆羅密經正解)』 1책

이것을 『서울민속대관』의 해당 내용과 비교하면 그간 일부 서적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이들 서적의 보관 상태는 극히 허술하다. 대책이 없는 한 서적의 분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장하고 있는 무구로는 창 두 점, 삼지창 두 점(길이 94㎝), 용머리 장식 한 점, 일산 두 점, 총채 같은 것 한 점이 있다.

성제묘의 보존 상태는 극히 열악한 편이다. 현성전 실내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으며, 전적이나 무구(巫具)들은 거의 방치된 상태이다. 건물과 전적 등의 보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성제묘에 보관된 옛 흘기와 현행의 흘기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관왕묘 제례악 연구(송지원, 소암권오성박사화갑기념 음악학논총, 논문집간행위원회, 2000), 서울민속대관 1-민간신앙(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990),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장장식,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조선후기 무묘(武廟)의 창건과 향사(享祀)의 정치적 의미-관왕묘를 중심으로(심승구,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군인들의 신에서 상인들의 신으로-중구 방산동 성제묘의 관우제사 DVD(서울역사박물관, 2006), 민속박물관 사람들의 세시풍속 현장조사 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장장식(張長植)

성제묘관우제사(聖帝廟關羽祭祀)

상호참조 성제묘(487쪽)

정의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4가 96번지 방산시장 내에 위치한 성제묘에서 관우(關羽)를 주신으로 모시는 상인들의 제의. 1972년 5월 25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우리나라의 관우신앙은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참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디 명군과 왜군이라는 외세의 충돌 상황에서 명군에 의해 숭신(崇神)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명군의 강요로 수용되었다. 이를테면 '외세에 의한 수동적 수용'이다.

방산동 성제묘의 원래 명칭은 '방산정'이었으나, 현재는 성제묘라고 한다. 방산동의 성제묘가 언제 건립되고 관우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관련 자료 부족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 성제묘 안내문에는 임진왜란 이후 민간에 의해 세워졌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막연한 표현이다. 성제묘에는 고종 때 간행된 『관성제군성적도지(關聖帝君聖蹟圖誌)』나 『명성경(明聖經)』 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성제묘 역시 관우신앙이 성행하던 고종 때 건립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는 달리 염초청에서 관성제군을 부군으로 모시며 지내던 제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관제가 염초청의 부군으로 모셔진 흔적은 현재 성제묘 제사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찾아볼 수 있다. 현 성제묘 제사의 대상인 관우 부부는 '현한수정후관우부군(顯漢壽亭候關羽府君)'과 '현혜숙인송씨(顯惠淑人宋氏)'로 각각 표현된다. 성제묘의 제사가 조선시대 부군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방산동 성제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민간에 의해 세워졌다기보다 방산동 일대에 있던 군 관련 기관과 거기에 소속된 군인 및 관리들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제묘의 안내판에는 방산동의 성제묘를 남묘나 동묘와 달리 임진왜란 이후 민간인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현 방산동 성제묘와 조선시대 염초청 부군당 성제청과의 관련성은 좀 더 탐구해야 한다.

내용 예전에는 매년 관우의 생일과 사망일 두 차례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사망일인 음력 시월 열아흐렛날에만 치제한다. 의례시간은 오후 3시이다.

성제묘관우제사는 방산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중구 방산상조회'가 주관한다. 방산상조회 회원은 75명 내외이며, 회장 · 부회장 · 총무 등의 임원이 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막고, 나아가 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또 참가자들은 이 제향에 참여하면 장사도 잘되고 부도도 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를 통해 관우가 상업신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번 제사 지내는 데 제비(祭費)는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경비는 방산상조회의 기금과 유지의 협찬을 얻어 마련한다. 방산상조회에 속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상인까지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경비를 보조한다고 한다. 경비 가운데 50만 원은 제수비로 사용

되고 나머지는 청소비 · 잡비로 사용된다.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제물을 준비하거나 통 · 반장 집에서 준비했지만 지금은 식당에 맡긴다. 제사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 도착하여 바로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 상자를 개봉하여 현성전 안으로 들이면 부회장과 자문위원장이 진설을 맡는다.

제물은 정면의 관우 부부 앞과 좌우 화본 앞에 한 상씩 진설한다. 정면의 상에는 맨 안쪽에 지방(紙榜)을 배치했는데, 왼쪽에 '현호국장군관운장신위(顯護國將軍冠雲長神位)', 오른쪽에 '현비유인숙부인진천송씨신위(顯批孺人淑夫人鎭川宋氏神位)'라고 썼다. 여기에서 '관운장(冠雲長)'은 '관운장(關雲長)'의, '현비유인(顯批孺人)'은 '현비유인(顯妣孺人)'의 오자이다. 여기서 관우의 부인을 모신다는 것도 주목되지만 부인이 진천 송씨라고 한 점이 흥미롭다.

지방 앞에는 초 두 자루를 밝혔다. 초 앞줄에 메 두 그릇을 놓고 그 다음 줄 양 끝에는 떡을 한 접시씩 놓았다. 다음 줄에는 포(脯) · 조기 · 적 · 닭고기 · 생선 · 두부를 진설했고, 다음으로 숙주나물 · 고사리 · 고구마전을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대추 · 밤 · 배 · 감 · 과자 · 유과 · 사과를 진설했다. 진설 때에는 호박전도 있었으나 제사에는 호박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뺐다. 상 앞에는 향로를 두어 향을 피웠다. 향 왼쪽 상에는 벽쪽에 초 한 자루를 켜고, 그 앞에 메, 전, 나물, 바나나, 은행을 진설했다. 향 오른쪽 상에는 역시 벽쪽에 초 한 자루를 켜고, 그 앞에 메, 수박, 나물 2종, 건어를 진설했다.

제관들은 유건(儒巾)을 착용하고 현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성전 밖에 줄지어 섰다. 제사는 홀기(笏記)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홀기는 미리 흰 종이에 제향 순서를 횡서(橫書)한 것이다. 첫 행은 '제례순서(祭禮順序)'라 되어 있다. 이하에는 행을 바꿔 가며 제례명, 주제자(主祭者), 배례의 횟수를 기록해 두었다. 마지막에는 '예필(禮畢)'이라 적혀 있다. 홀기는 방산상조회 총무가 읽었다. 제향의 절차는 분향례-강신례-참신례-초헌례-독축례-아헌례-종헌례-사신례-음복례-분축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분향례(焚香禮)는 향을 피우는 절차로, 상조회장이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린 다음 재배했다. 강신례(降神禮)는 신을 내리게 하는 절차로, 상조회장이 재배한다. 이때 술은 따르지 않는다. 참신례(參神禮)는 제사를 받기 위해 오신 신에게 인사하는 절차로, 제관들이 다함께 재배했다. 이때 현성전 밖에 있는 참가자들은 묵념을 한다. 초헌례(初獻禮)는 상조회장이 헌주(獻酒)하고 재배했다. 독축례(讀祝禮)는 총무가 축문을 읽는 절차이다. 이때 현성전 내 제관들은 모두 엎드리고, 밖의 참관자는 꿇어앉는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癸未十月辛未朔十九日己丑
大韓民國 서울市 中區 舫山洞相助會
代表 李廷鎬 敢昭告于
顯大將軍 關雲長府君 劉備 張飛 顯淑夫人 宋氏
桃園結義 愛國憂之 東奔 西走 一伐亂賊
萬民平安 誠好聖帝 歲薦一祭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饗

축문 제작자는 이번 제향의 축문에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축문의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헌례(亞獻禮)는 을지로2가 동장이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동장의 불참으로 대리 참석한 동사무소 직원 두 명이 함께 재배했다. 종헌례(終獻禮)는 방산시장 번영회장과 경로회에서 참석한 두 사람이 첨잔을 한 다음 재배하고 이어서 전임 상조회 회장들이 재배를 했다. 홀기에는 종헌례 다음이 분축례(焚祝禮)로 되어 있으나, 제관들 사이에 갑론을박 끝에 신에게 감사하는 사신례(謝神禮)를 했다. 사신례에서는 물을 올리고 나서 메를 물에 만 다음 제관 일동이 다함께 절을 했다. 밖에서는 묵념을 했다. 음복례(飮福禮)는 상조회장이 재배 후 음복을 하는 절차이다. 분축례(焚祝禮)는 지방과 축문을 태우는 절차이다. 이로써 제사는 끝난다. 배례 틈틈이 젓가락으로 상을 세 번 톡톡 두드리며 젓가락을 제물의 이곳저곳으로 옮겨 놓는다. 이것은 신에게 여러 음식을 맛보시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의례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참가자들은 남은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방산동성제묘제사는 유교식 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관왕묘 제례악 연구(송지원, 소암권오성박사화갑기념 음악학논총, 논문집간행위원회, 2000), 서울민속대관 1-민간신앙(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990), 서울 영상민속지-서울의 동제(서울역사박물관, 2006),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장장식,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조선후기 무묘(武廟)의 창건과 향사(享祀)의 정치적 의미-관왕묘를 중심으로(심승구,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군인들의 신에서, 상인들의 신으로-중구 방산동 성제묘의 관우제사 DVD(서울역사박물관, 2006), 민속박물관 사람들의 세시풍속 현장조사 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장장식(張長植)

성황제(城隍祭)

정의 읍치(邑治) 또는 지역, 마을 공동체 단위로 성황신에게 행하는 제의.

유래 성황제는 서낭제라고도 불리면서 그 유래에 대한 주장도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전래했다고 여기는 성황신앙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6세기경 위진남북조시대에 양쯔강 유역의 지방 세력들이 성황신앙을 발달시켰으며, 당 · 송대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중국 송대 초기의 성황신앙이 지역수호신에 제사하는 신앙 형태로 고려에 전해졌으며, 996년(성종 15)에 성황당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역사 통일신라시대 지방호족의 성장은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갖춘 지방 토호 세력을 출현시켰다. 신라 말 고려 초에는 이 지방 토호세력들이 전국을 군웅할거하고 있었다. 성주(城主), 장군(將軍)으로 불리는 지방 권력집단은 나라를 세워 후삼국시대를 열기도 하였다. 고려 건국 후에도 지방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중앙에서 지방 토호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고려 전기 사회는 지방분권적이고 지방자치적 성향이 강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지방 세력으로 성장한 토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호해 줄 종교적 제도로서 성황신앙을 선호하면서 받아들였다. 지방 토호세력들은 성황제의 주제권(主祭權)을 장악하여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성황제를 활용하였다.

고려시대 지방 호족들은 정례적으로 성황제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가문과 문벌지족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또한 무격집단을 끌어들여 기풍제, 기우제 성격의 성황제를 개최하여 이를 지역 주민을 결속시키고 은택을 베푸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고려시대 성황사는 처음에 진(津), 성(城)의 군사적 요새에 세워지는 방식이었으나, 12세기 중반 이후 주, 군, 현의 행정치소에 성황사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군현(郡縣) 단위의 성황제는 지방관리들이 주도하였다.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전주성황제신문(全州城隍祭神文)」에서 지방관리가 자신의 공봉(公俸) 일부를 떼어 성황제의 주찬(酒饌)을 갖춰 성황에게 제사지내는 게 관례였다고 기술해놓았다.

고려시대 성황제는 지역수호신을 향사하는 방식으로 향읍(鄕邑)의 진산(鎭山)에 세워진 성황사에서 읍치제의(邑治祭儀)를 거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읍치제의로서 성황제는 지방 관리들이 주도하고 무격(巫覡)들을 동원해 기풍제, 기우제 형식을 빌려 단오절 성황제로 발전시켜 갔다. 순창과 강릉 단오제가 대표적인 단오절 성황제이다. 단오절(음력 5월1일~5월5일)은 향촌 사회에서 모내기를 마친 직후의 농한기여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았고, 절기상 기우제 및 성황제를 지내기 좋은 시점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성황제는 풍농기원의 성격이 강한 읍치제의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지방향리들은 성황제를 통하여 재지(在地) 기반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지방 세력의 정치적 역량이 곧 성황신의 위상과 비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3세기에 고려왕실이 수시로 성황신의 영험과 음조에 따라 지방의 성황신에게 존호(尊號)와 작위(爵位)를 수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건국 직후 1393년(태조 2)에 전국의 주요 성황신에게 차등을 두어 봉작함으로써 고려시대 성황제와 성황신앙은 민간신앙의 대상을 넘어 지방 권력의 권세를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했다. 고려 말에 국내 성황과 명산대천을 국가 사전(祀典)에 포함시키고 성황제를 국행제의로 개최하여 지방 토호세력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억제하지 못하고 사전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조선 건국 후에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성리학의 지배이념에 따라 유교제례가 도입되면서 성황제도 유교예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태조 원년의 사전 개편안에는 "여러 주(州) · 군(郡)의 성황으로서 국

제(國祭)로 청허(請許)된 것에는 모주(某州)·모군(某郡)의 성황지신(城隍之神)이라고 칭하고 위판(位版)을 설치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봄·가을마다 제사를 지내되 제물(祭物)·제기(祭器)·작헌례(爵獻禮)는 한결같이 조정(朝廷)의 예제(禮制)에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明)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맞춰 국가제사를 재정비하라는 왕명에 따라, 고려 말에 전국 주요 성황신에게 주어진 봉작이 유명무실해지고, 위판 외에 신상도 철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성황제는 봄과 가을에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왕명을 받은 지방수령이 성황제를 주도하여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선 초기 신흥사대부들은 사전을 정비하고 사전에 들지 않는 제사는 음사(陰祀)로 규정하고 금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조선 초에 시행한 국가 사전의 정비는 왕조 교체에 따라 지방 통치제도를 재정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태종 대에 의례상정소가 설치되고 사전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때 성황은 종묘, 사직에 이어 중사(中祀)로 편제시켜 왕권의 위계질서에 따르게 하였다. 태종 11년에는 『홍무예제』에 따라 성황신을 풍운뇌우신(風雲雷雨神) 및 산천신(山川神)과 함께 치제하도록 하였고, 세종 대의 『오례의(五禮儀)』와 성종 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제정하면서 예제의 전거를 마련하였다. 『세종실록』 권128 「오례」 길례조에는 서례(序禮)와 의식(儀式)으로 구분하여 모든 제사는 등차(等次)에 따라 제사 일시, 제단 규모, 신위, 축판, 제물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다. 또 의식은 제의 진행에 따른 절차와 제기, 제물의 진설, 행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행례 절차에 따르면 성황제는 풍운뇌우 및 산천 제사와 합제하는 방식으로 거행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조선 중기 이후 삼단일묘제(三壇一廟制)의 시행에 따라 성황제는 여제(厲祭), 사직제(社稷祭)와 함께 지방관리들이 치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성황제는 국가제사로서 관리들이 지내는 국행성황제(國行城隍祭)와 향리·무당·지역주민 주도의 민간성황제(民間城隍祭)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행성황제는 지방 수령이 유교제례로 거행하는 것일 뿐 민간에 수용되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관사(國祭官祀)는 국가 사전에 편재된 제사를 지방관리들이 춘추제(春秋祭)로 거행하는 방식이었으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지방향리, 무당,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성황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중앙정부의 음사 규제가 느슨해지는 기회를 틈타 무속식 성황제가 다시 흥성하는 것을 보면, 유교예제에 따른 국행성황제가 지방에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향리들의 역할로 유교제례가 민간성황제의 영향을 미치고 읍치성황제가 촌락성황제로 정착하면서 성황제의 민속화 과정은 널리 확산되어 갔다. 자연마을에 성황사를 짓고 성황신의 화상(畫像)을 봉안하는 풍속은 민간에 널리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무당들이 주관하는 단오절 별신굿도 마을신앙으로 정착하게 된다. 정부에서도 민간성황제가 기풍제, 기우제 등 마을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인 만큼 성황제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웠다. 순창 성황제의 경우, 향리들은 성황제를 주도하고 무당들은 성황사를 관리하면서 성황제를 주재하는 관행이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경북 영주시 순흥면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전승되던 읍치성황제도 조선왕조의 종식과 함께 그 주도권이 관(官)에서 민(民)으로 이관되어 민간주도의 성황제가 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내용 성황신에 대한 제사가 중국에서 전래되었지만, 송대의 성황신앙은 전국적인 제사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군·현의 행정치소에 성황신을 모시는 사묘를 두고 지방의 향리들이 성황제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제사 체계를 갖추었다. 고려시대 성황제는 지방세력의 정치적 권세를 표방하는 수단이었으나 조선시대 성황제는 국가 사전에 편재시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위계질서에 따르도록 격하시켰다. 조선시대에 국가가 성황제의 주제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민간성황제가 성행하고 있었다. 이는 뿌리 깊은 지방세력과 문벌지족이 성황제를 재지(在地)기반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황제의 경우 국행성황제와 민간성황제는 조선 후기까지 동시에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김갑동, 한국사연구 74, 한국사연구회, 1991),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민속원, 1998), **읍치성황제 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이기태, 민속원, 1997), **전주 성황신앙과 견훤정권**(송화섭, 후백제의 견훤정권과 전주, 사단법인 전북전통문화연구소, 2003), **한국공동체신앙의 역사적 연구**(박호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한국과 중국의 성황신앙 비교**(서영대, 중국사연구 12, 중국사학회, 2001).

필자 송화섭(宋華燮)

소

정의 마을신들에게 바쳐지는 통소는 모든 제수(祭需) 가운데 으뜸이다. 대개 도서(島嶼) 지방이나 내륙의 대규모 당제 및 성황제에 통소를 제상에 올린다. 이러한 동제(洞祭)의 절차는 상당 부분이 소에게 집중되어 있고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동제를 구성하는 문화복합(culture complex) 중심에 소가 자리하는 것이다.

내용 한자(漢字)의 '고할 고(告)'자는 '소 우(牛)'에 '입 구(口)'를 더한 것으로, 신령에게 소를 바쳐 소원을 빈다는 뜻이다. 만주 송화강 유역의 연맹왕국 부여는 매년 은정월(殷正月)에 영고(迎鼓)라는 제천의식을 행했다. 전쟁이 있게 되면 비정기적으로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때 희생으로 소를 바치고, 그 발굽이 갈라져 있으면 불길(不吉)하고 합쳐 있으면 길(吉)한 것으로 여겼다. 이처럼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낸 역사는 매우 오래됐다.

마을신에게 바치는 최대 제물은 통소이다. 풍족한 마을의 경제 형편과 마을신에 대한 깊은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통소를 올릴 수 있다. 소는 다른 제물에 비하여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제비(祭費)를 걷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종교적 단결이 필요하다.

통소를 잡는 마을의 산신제는 의례 과정의 상당 부분이 소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특히 소의 도살(屠殺), 해체 및 분육, 부위별 제상 차림, 회식의 과정은 마을신앙 의례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제수용(祭需用) 소의 종류, 색깔, 체격, 외형상의 특징 등에도 일정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구입한 소에 대한 예우 방식, 존칭어 사용, 도살 및 해체 방식에도 마을마다의 규칙이 있다.

대변풍어제 제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07.2.22
김헌선

암소는 수태나 출산의 부정(不淨) 때문에 가능한 한 회피한다. 당연히 황소를 선호한다. 그것도 골격이 장대하고 단색이어야 한다. 적당한 소를 찾으면 값을 절대로 깎지 않고 매입한다. 또 제관이 선택한 소는 소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선히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신이 소 주인이나 선정한 소를 죽게 한다고 믿는다. 이런 속신은 마을신이 제관을 매개로 하여 자신에게 바쳐질 소를 직접 선택했음을 일러 주며, 소 주인이 아끼던 소를 쉽게 내놓게 하는 관념적 장치가 된다.

당산에 올릴 소는 수시로 당샘 물로 목욕을 시키며, 도살할 때까지 뜨물은 먹이지 않고 청수(淸水)만을 먹인다. 제수용 소는 당산에 스스로 올라가서 죽을 자리에 우뚝 선다는 전설도 흔하다. 그만큼 당산신의 영험은 놀라우며, 미물인 소 역시 당산신을 위해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희생 소를 가엾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을 받고 죽는 소여서 팔자 좋은 편이라는 생각도 한다. 소를 잡는 제관을 별도로 구성하는 마을도 있다. 그리고 도살하기 전에 제관들이 목욕재계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에서는 소를 구입하면 그 순간부터 소를 양반이라 부른다. 소에게 금성대군(錦城大君)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백지에 붓글씨로 근봉(謹封)이라 써서 소 등에 붙인다. 이는 동제를 위해 특별히 봉해졌다는 뜻이다.

제관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짚신을 신고 의관을 갖춘 다음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그러고 나서 양반인 소에게 정중하게 절을 두 번 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양반을 이끌고 도가(都家)로 돌아간다. 고삐를 이끌고 가는 도중에 방향이 어긋나면 "양반,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하며 공대말로 모시고, 양반이 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쉬었다가 간다. 양반을 맞은 집에서는 이때부터 '쇠죽을 준다' 대신 '식사 하신다'는 말을 사용한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목욕재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양반이 도착하면 제관들과 함께 전체가 모여 정중하게 재배한다. 제사 날까지 아침 저녁으로 목욕재계하고 양반에게 인사를 드린다. 양반은 도가에서 보통 일주일 동안 머문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의 성황제에서는 풍어를 위해 젖 뗀 수송아지를 올린다. 황소를 잡으면 부위별로 나눈다. 이때 오른쪽 부위와 왼쪽 부위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성황당 안에는 중앙에 남성황신, 그 좌우에 작은 마누라와 큰 마누라가 각각 모셔져 있다. 남성황신에게는 황소의 오른쪽 앞다리와 간 · 처녑 · 콩팥 등을 생것으로 올리고, 소의 생골도 나무판에 짚을 깔아서 그 위에 놓는다. 나머지 부위는 구워서 산적으로 만들어 조금씩 놓는다. 양쪽 여신에게는 모두 산적으로만 올린다. 이때 큰 마누라에게는 오른쪽 부위, 작은 마누라에게는 왼쪽 부위를 각각 올린다.

충남 보령시 외연도의 당제에서는 소를 존칭하여 '지태'라고 부른다. 지태가 쓰러지면서 땅에 닿은 쪽의 부위는 당제에 쓰지 않고, 당제를 치르고 하산한 뒤에 지내는 제사와 마을잔치에서만 쓴다. 땅에 닿지 않은 부위만 당산에서 치르는 제사에 쓴다. 쇠꼬리, 쇠불알, 신(腎)의 세 부위는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가 되게 조심스럽게 절단해 낸다. 이는 전횡(田橫) 장군 제상에만 올린다.

쇠머리는 도끼와 칼을 써서 사각(四角)을 친다. 네 등분 된 쇠머리 가운데 쇠뿔이 있는 부위는 세 분의 산신을 모신 갈당의 '뼈 묻는 바위'에 올리고, 혓바닥이 붙어있는 아래턱뼈는 장군사당에 바친다. 그리고 쇠뿔이 있는 또 하나의 쇠머리는 당제 마지막 절차인 안땅고사를 치를 때 당산쪽을 향해 차린 제상에 올리고, 아래턱뼈 하나는 장배를 내준 선주네 집에 주어서 성의에 보답한다. 그러면 선주는 이를 받아 배고사를 지낸다. 내장 가운데 지라와 허파는 구워서 제상에 올리고, 간과 처녑은 날것으로 그냥 바친다. 지태는 해체되고 분육(分肉)되는 순서대로 이를 계속 솥에서 삶아 건져낸다. 이렇게 익힌 쇠고기와 쇠뼈는 산제당과 전횡장군사당 등에 진설한다.

마을 신령들에게 바쳐진 소는 제사가 끝난 뒤에 온 동민의 음복(飮福)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된다. 각종 부위의 쇠고기는 물론 쇠가죽까지 인기가 높다. 쇠가죽은 주로 노인네들의 안주감으로 쓰인다. 각종 내장도 부위 별로 굽거나 삶아서 또는 날것으로 먹는다. 각종 부위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전통적 조리법이다. 밤새 곤 쇠고깃국에 말아먹는 밥맛은 누구도 잊지 못한다. 어떤 마을은 아예 산에 올라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제관 집, 장자 집, 등장마당, 마을회관 등에 모여 오랜만에 고기 맛을 보기도 한다.

동제의 제수용 소는 마을신들이 흠향하고 나서 동민들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동제라는 종교적 축제의 정점에 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지방 장승 · 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88), 경북 예악지(경상북도 · 영남대, 1989),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충남 서해 도서지방의 당제 연구-외연도를 중심으로(이필영, 국사관논총 82, 국사편찬위원회, 1998).

필자 이필영(李弼泳)

소금단지

정의 소금단지는 마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를 막기 위한 풍수상의 조치로 마을의 산에 묻는 일종의 제구(祭具)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神體)가 되기도 한다.

역사 소금단지와 간물단지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헌자료는 없다. 다만 마을에서 구전되어 오는 유래담이 있다.

유래담 가운데에는 그 연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시기는 사실상 신빙성이 없다. 소금단지와 같은 맥락의 간물단지를 묻었던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에서는 유래의 배경이 고려 중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방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소금무지산으로 유명한 충북 단양 두악산의 소금단지는 산의 명칭과 관련해 보면 오랜 역사성을 지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두악산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알려진 명산이었다. 단양은 1319년(고려 충숙왕 6)부터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지금의 단양 군청소재지가 이전되기까지 667년간 두악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다. 공민왕 때에는 '합단의 난'을 물리친 공로로 단산부가 되고 두악산은 단양의 진산으로 품위를 다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두악산으로 산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소금무지산이라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소금무지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내용 소금단지와 간물단지는 화기(火氣)를 제압하는 풍수의 조치이다. 즉 마을에 자주 일어나는 화재는 풍수의 관점에서 마을 앞산이나 그 부근의 산에서 내뿜는 화기에 의한 것이라 여긴다. 그러한 화산(火山)을 제어하는 주술적 수단으로 화산이 비치는 맞은편 산에 소금단지나 간물단지를 묻는다.

동제 때에 물과 관련하여 술, 곧 조라를 올리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소금과 간물을 제구로 사용하는 것은 독특하다. 마을의 풍수지형에 따라서 적극적인 재액 제거와 풍수상의 엽승을 하는 경우는 종종 나타난다. 마을이 뱀 형국인 경우 뱀이 마을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바깥 동쪽에 있는 한 바위를 두꺼비라고 여기고 이 바위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소금단지나 간물단지 이외에 화재뱅이 솟대를 세우기도 한다. 솟대 위에는 흔히 물새의 대표격인 오리를 앉히는데, 이 오리가 있는 마을은 호수나 강가 또는 바다로 여겨지기 때문에 화신(火神)이 오다가 멈춘다는 것이다. 소금단지나 간물단지 묻기는 모두 마을이 화기와 관련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기에 여느 마을의 동제와는 달리 마을 형국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지역사례 소금단지 신앙과 관련된 지역으로는 단양의 두악산, 경북 영덕의 남정마을, 전북 무주의 대차리 서면마을을 들 수 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에서는 요즘도 음력 정월대보름과 5월 초닷새 단옷날에 동제를 지낸다. 그런데 남정마을에서는 예부터 원인 모를 큰 불이 나서 피해가 심했다. 게다가 가뭄마저 자주 들어 농사는 늘 흉작이었다. 하루는 용한 지관이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화재와 가뭄을 막을 방법을 일러주었다. 마을 앞에 화산(火山)이 비치는데, 화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화산이 비치는 앞산에 간물단지를 묻고 항시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관이 정해준 대로, 화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100m 간격으로 간물단지를 묻었다. 이를 일화(一火), 이화(二火), 삼화(三火)라 한다. 동제의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음력 정월 열사흗날 세 단지에 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깨진 단지가 있으면 새 것으로 바꾸고 정월 열나흗날 마을과 인접한 남호(南湖)바다의 간물을 채운다. 혹 물이 줄어 있거나 말라 있으면 남호 바닷물

을 보충해 준다. 간물은 바로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을 뜻한다. 평소 간물단지가 묻힌 곳에는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정월대보름날 동제 후에 풍물패가 간물단지에 지신(地神)을 밟을 때만 허용된다.

충북 단양군 단성면 두악산(斗岳山, 732m)은 일명 소금무지산으로 알려져 있다. 두악산은 영동고속도로 단양휴게소에서 죽령터널을 가기 전에 남한강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위치한 동산 같은 산이다. 이 산은 단양의 진산(鎭山)으로 화재를 막기 위해 소금을 묻고 물을 뿌렸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지금도 산 정상에는 소금이 가득 담겨 있는 항아리가 네 개 묻혀 있다. 단성향토문화연구회에서 해마다 지역의 발전과 안녕, 풍년을 기원하는 소금무지제를 지낸다. 또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소금무지에서 기도하면 아기를 낳는다는 속설이 옛날부터 전해진다.

오래전부터 단양은 화재가 빈번한 고을로 유명하였다. 언젠가는 한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단양의 진산인 두악산이 화산(火山)이기에 고을이 번창하지 못할 정도로 화재가 빈번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던 어느날, 한 도인(道人)이 고을 한복판에 연못을 파고 두악산 꼭대기에 소금과 물을 담은 항아리 세 개를 묻어 놓으라고 방책을 일러주었다.

사연인즉 단양 고을의 지명은 모두 양(陽)으로 화기(火氣)이고 진산인 두악산이 불꽃 모양이라, 강바람이 몰아쳐 단(丹)의 붉은 기운을 몰아세우고 양(陽)의 뜨거운 빛을 밀어서 두악산으로 밀어내 굴뚝 형상을 만드니 불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을 중앙에 가구당 한 명씩 들어갈 만한 크기의 연못을 파고 식구 수대로 물을 부어 놓으면 화기가 진정될 것이며, 불꽃 형상인 두악산에 두 항아리를 묻고 하나는 소금을, 다른 하나는 고을 북쪽을 흐르는 한강물을 담아서 항상 소금과 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 화재 방비가 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곧바로 도인이 시킨 대로 행하니 거짓말처럼 불이 나지 않았다. 이후로 두악산을 소금무지산이라 불렀다. 이 소금과 물은 불을 막을 뿐만 아니라 홍수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두악산에는 맷돌을 굴려 혼인을 하게 된 젊은 남녀가 단양 장씨(丹陽 張氏)의 선조가 되었다는 전설도 있어서 기자(祈子) 치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단양천이나 한강물에 목욕재계한 뒤 한강물과 소금을 지고 산에 올라 물단지와 소금단지에 부으면 아들을 얻는다는 것이다. 특히 음력 정월대보름과 팔월 한가위에는 아들을 얻으려는 아낙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소금무지산이란 명칭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불려왔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국토지리설을 만들며 두악산이라 개명하여 그대로 부르다가 1994년부터 단성향토문화연구회에서 우리 역사 바로알기 운동으로 소금무지산이라 병행하여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 소금과 한강수를 붓고 소금무지제를 지내고 있다.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은 200가구가 넘는 큰 마을인데, 초가집이 많던 시절에는 화재가 빈번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뒷산에 화산의 기운을 막을 수 있는 소금단지를 묻었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이면 해마다 산제를 지내는데, 그날 저녁 산제 지내기 전에 마을의 유사(有司)가 소금을 담은 조그만 항아리를 손으로 받쳐 들고 혼자 뒷산에 올라가 묻고 왔다. 이 일은 해마다 반복되므로 뒷산에는 소금 담은 항아리가 매우 많이 묻혀 있다고 한다.

근래에는 도깨비집 축제를 벌이는데 마을 뒷산에 도깨비집, 산신당, 당산나무가 있어서 도깨비집부터 차례로 제를 지낸다. 마을 밖에 화산이 있어서 화재를 막는다고 그 산에 화재막이 소금을 묻는 행사를 한다.

의의 영덕 남정마을의 간물은 평범한 바닷물이 아니라 용(龍)의 신비스러운 생명력을 간직한 신격화된 물이다. 이것은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이기도 한 용알뜨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해의 용을 뜨는 것이다. 따라서 간물은 살아 있는 용으로서 비를 내려 마을의 풍요를 이루어 주고 화재의 재난도 막는 역할을 한다.

소금단지에 담는 소금은 실생활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음식의 간을 맞추는 기본 재료일 뿐만 아니라 세척이나 소독 등에도 사용하고 절이는 데에도 쓰인다. 이렇게 세척이나 소독, 절임 등의 기능이 민속신앙에서는 상징적인 기능으로 나타난다. 민속신앙에서 소금은 부정을 가리거나 액을 쫓는 기능을 한다. 굿을 할 때 처음 부정거리에서 무당은 주변에 물과 소금을 뿌려 굿터를 정화한다. 소금의 절이는 기능은 소멸과도 관련되어 액을 소멸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설화에도 소금 이야기는 종종 등장하는데, 특히 천지개벽과 관련된 설화에서도 소금은 중요한 소재가 된다. 천지개벽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등장함을 뜻한다. 이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세상으로, 소금으로 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고난의 해결은 대체로 지나가던 도인이나 지관 등이 해 주는데,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별난 사람,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아닌, 영적(靈的)인 힘을 가진 사람이 항시 존재한다는 종교심성이 보편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간물단지신앙의 용신신앙적 성격**(김명자, 월산 임동권 박사 송수기념논문집-민속학편, 집문당, 1986),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네이버 백과사전**(100.naver.com), **무주군청 문화관광과**(tour.muju.org).

필자 **김명자(金明子)**

소도(蘇塗)

상호참조 천군(878쪽)

정의 삼한시대에 마한의 신성지역.

내용 소도의 존재를 전하는 기본 사료는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이다. 이에 따르면 삼한의 소국에는 소도라는 별읍(別邑)이 있어 북과 방울을 매단 장대를 세워 놓고 귀신에게 제사했다. 또 도망자가 피신해 오면 잡아내지 못하여 도적질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소도를 설립한 뜻은 불교와 같지만 선악의 판별 기준은 불교와 달랐다고 한다. 여기서 삼한의 소국이란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성장한 군소 정치집단을 말한다. 각각의 소국은 국읍(國邑)을 중심으로 다수의 읍락(邑落)으로 구성되었고, 읍락과는 다른 별읍(別邑)도 있었다. 즉 소도는 방울과 북을 매단 장대를 세워 놓고 귀신을 제사하는 신성지역인 것이다. 이때 삼한에서 오월의 파종의례와 시월의 수확의례를 귀신에게 제사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귀신은 농경신으로 여겨진다. 또 장대는 어딘가에 계시던 농경신이 제사의 장소로 내려오는 하강 통로이며, 방울과 북은 농경신에게 의례의 장소를 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소도는 세속적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신성지역, 즉 아실럼(asylum)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 이는 삼한사회 정치권력의 미성숙과 이로 말미암은 사회 통제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소도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다. 우선 소도가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부터가 논란거리이다. 즉 소도를 한자어로 보아 그 말뜻을 '소생부활의 길'(범죄자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는 곳)로 보는 설과 우리말로 보아 '높이 솟은 곳' 또는 '솟대'로 풀이하는 설이 있다. 현재 마을신앙에서 볼 수 있는 솟대와의 관련성 여부도 논란거리이다. 소도에서 솟대가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소도와 솟대는 별개라는 주장도 있다. 대전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농경문 청동기의 갈라진 나뭇가지들에 새가 한 마리씩 올라가 있는 그림을 소도로 해석하는 것도 소도를 솟대와 관련해 본 결과이다. 그리고 삼한 소국에는 천군(天君)이란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천군과 소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즉 천군이 소도를 관할했다는 입장에 따르면 소도의 귀신은 천신을 뜻하는 것이 된다. 이에 비해 천군은 하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고 소도는 귀신을 제사하는 곳이므로 별개라는 입장이 있다.

한편 소도는 자료와 여러 연구를 살펴볼 때 삼한시대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존속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은 「봉암사지증대사탑비(鳳巖寺智證大師塔碑)」에서 백제에 소도의례가 있다고 했고, 소도와 같은 신성지역이 불교 수용 이후 사찰로 변했다는 연구도 있다. 나아가 소도 유적을 찾는 노력이 있으며, 심지어 일본 쓰시마의 신역(神域)인 솟도(卒土)의 기원을 삼한의 소도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소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志, 갈반지 소고**(서영대, 종교학연구 2, 한국종교학연구회, 1979),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소도와 부도**(송화섭, 한국문화와 역사민속, 신아출판사, 2003), **소도고**(손진태,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필자 **서영대(徐永大)**

소지(燒紙)

정의 한지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이를 불로 살라 세속적 장소를 신성한 장소로 정화하거나 기원자의 소원을 비는 종교적 행위를 지칭. 마을신앙 형태로 소지가 행해지는 것과 개인적 소원을 구현하는 것 둘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마을에서 일일이 개별적인 마을 구성원에 대한 이름을 열거하면서 하늘에 소지를 올리는 동소지(洞燒紙) 또는 열명지(列名紙)라는 형태가 있으며, 가족 단위의 기원을 목적으로 올리는 소지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장소를 신성한 장소로 정화하는 소지도 있다. 기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지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소지는 기원을 목적으로 하든 정화를 목적으로 하든 종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문서로 무엇을 계약하고 이를 통해 정화하거나 신과의 기원을 하는 전통이 이러한 소지의 내력을 형성했을 개연성이 있다.

형태 소지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동민소지, 대동소지, 우마소지, 각성바지소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민소지는 마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대동소지 역시 같은 의미이지만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우마소지는 특별한 형태이다. 각성바지소지는 성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마소지는 소나 돼지로 대표되는 가축의 번식을 위하여 올리는 소지이다. 우마소지는 농경문화권에서 가장 중시하여 온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농사일에서 없어선 안될 동물인 소가 병에 걸리거나 죽을 경우 농사는 그만큼 크나큰 손실과 타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소 등 가축을 위해 소지를 올려주는 것은 마을 제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래 소지의 기원은 종이를 살라서 정화하고 기원하는 전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종이를 살라 정화하는 전통은 종이가 일반화되면서 발생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향이나 향목을 살라 정화하던 전통이 일반화한 방식일 수 있다. 이와 달리 기원을 비는 형태는 대상과 인간간의 계약이나 진정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관에 진정서로 제안하던 문서 소지에 의해 이를 볼 수 있다. 동학교도가 〈궁을가(弓乙歌)〉 종이를 살라서 먹던 주술적 기원 역시 이러한 각도에서 의의를 지닌다.

개인의 사문서 가운데 소지원정(所志願情) 또는 소지(所志)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관에다 진정서나 청원을 올리던 것이 소지의 전통이다. 신과의 관계는 적은 종이를 통해 무엇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속에서 동소지를 올리는 전통이 마련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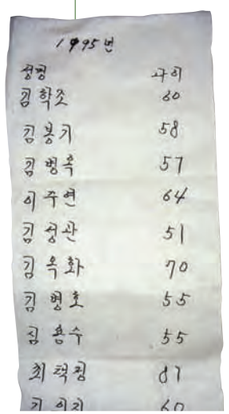
소지를 올릴 때의 마음을 담은 여창가곡 한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소지의 일반적인 관념을 엿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北斗七星 ᄒᆞ나 둘 셋 넷 다ᄉᆞᆺ 여ᄉᆞᆺ 일곱분게
민망ᄒᆞ은 白活所志 ᄒᆞᆫ 丈 알외ᄂᆞ이다
그리던 님을 맛나 情에 말 ᄎᆡ 못ᄒᆞ여
날 쉬시니 글노 민망
밤즁만 三台星 차사 노하 ᄉᆡᆺ별 업게 하소셔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분께
민망한 발괄소지 한 장 아뢰나이다
그리던 님을 만나 정에 말 채 못하고
날이 쉬 새니 그것으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를 놓아 샛별 없게 하소서

이것은 북두칠성에게 소지를 올려서 자신의 소원을 기원하는 내용인데 발괄소지와 소지의 분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괄소지라고 했으므로 북두칠성에게 진정하는 형식이지만 이러한 진정을 하고 나서 그 뜻을 전달하려면 종이를 살라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발괄소지와 소지가 분간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사연을 적고 이를 살라 기원하는 소지는 분명한 내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지를 올리는 것과 소지를 작성해 기원하는 것은 교묘한 동음이의어 형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문서에 희망을 담아서 태우는 형식은 역사적인 유래로 존재했을 개연성이 있지만 소지를 통해 기원하는 것은 대상이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로 존재해 왔을 개연성이 있다. 제의에서 소지를 올린


1995년
성명 나이
김학조 60
김봉기 58
김병욱 57
이주현 64
김정관 51
김옥화 70
김병초 55
김용수 55
최석칠 61
김의칠 60

소지명단
국립민속박물관

소지

강원 양양군 현남면 죽정자리, 2003.11.8, 최호식

충북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 2002.8.15, 황헌만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2003.11.24, 최호식

2003.2.12, 차정환

충북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2002.8.15, 황헌만

다고 하는 문맥 역시 이러한 각도에서 음미할 만한 면모이다.

내용 마을 제의에서 소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교식 제의에서 소지는 축문이나 제문을 읽고 이를 사르는 사례가 있다.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이고, 적힌 종이를 살라서 신에게 진정하는 형식이다. 신주를 태우는 것과 같은 형태 역시 이러한 면모로 이해할 수 있다.

농악대인 풍물패가 하는 소지 역시 대체로 유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축문을 읽고 이를 사르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당들이 하는 것이 합쳐지는 경우에는 소지의 양상이 달라지고 동소지 형식을 통해 이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마을신앙의 주체 복합에 따른 형태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소지의 풍부한 사례는 무당식으로 하는 마을굿에서 발견된다. 소지는 일정한 굿거리에서 모두 사용되며, 특히 마을굿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마을굿에 참여한 대동의 모든 인물을 위해 대동소지를 올리는 형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찰을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빈 소지를 불로 사르고 이를 높이 올리는 것이 최상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관념한다. 소지의 끝을 부채나 다른 소지로 괴고 끝까지 살라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완전하게 연소되는 것을 대동소지의 중요한 결과로 삼는다.

마을굿이나 집굿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지를 올리는 형태가 있다. 이때 올리는 기원의 말은 무병과 안녕이 대부분이다. 개인적인 기원이나 마을의 기원에 대한 말을 무당이 소지를 사르면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신과 인간이 종이 한 장을 사르면서 연결되는 면모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무당굿에서는 소지가 정화의 의미를 지니는 것도 있다. 부정굿과 같은 거리에서는 부정을 가시는 방식으로 정화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소지를 한다. 무당이 콩, 잿물, 고춧가루 물, 맑은 물 등을 준비하였다가 소지를 하고 굿판을 정화한다.

종이가 신성성을 지니는 것은 마을굿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무당이 산지, 가망지, 물고지 등을 들고서 신을 청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거리에서 사용되는 종이 역시 신성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지는 산신이 오도록 청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종이이다. 가망지는 가망청배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종이이며, 물고지는 상산마누라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물고를 받아온 종이를 말한다. 이 세 가지 종이는 서울 지역의 마을굿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종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신이 그 종이를 보고 안내장 삼아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고 관념하는 것을 보면 종이의 신성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종이 역시 모두 불로 살라 신이 오도록 안내한 것을 없애는 과정에서 소지를 한다. 종이를 통해 여러 가지 소원을 비는 형태는 의례와 결합하면서 신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단순한 종이가 종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과 인간의 가교 구실을 한다.

소지는 정화와 기원의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정화는 종이를 사름으로써 세속적인 시공간을 신성한 시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달리 기원은 신과의 의사소통을 돕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소지는 불을 이용해 정화 하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불은 악귀나 악령을 쫓는 일정한 심판 기능도 하는 점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악귀가 들어서 정신을 잃었다고 가정하는 무속의 굿에서 화전 치는 행위는 불이 본디 사악한 것을 불태워서 없앤다고 하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화전을 치는 과정에서 소지를 하면서 이를 머리에다 휘둘러 악귀를 쫓는 일을 하곤 한다.

소지는 본래의 정화를 하던 전통에서 전환하여 문서로 계약하던 전통과 합쳐지면서 신에게 기원하는 세계관이 여기에 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신에게 기원하는 비나리와 같은 말의 전통을 종이를 사르는 행위와 결합하면서 상당한 변환이 있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남도민속학개설**(지춘상 외, 태학사, 1998), **동신당**(김태곤, 대원사, 1999), **양양군 서면 서낭제 연구**(이한길, 시학과언어학 11, 시학과언어학회, 2006), **춘천의 동제 연구**(김의숙,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한국 민간신앙의 실체와 전승**(김종대, 민속원,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한국의 마을제당-경상북도 상**(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김헌선(金憲宣)**

손돌제(孫乭祭)

정의 경기도 김포시에서 음력 시월 스무날에 억울하게 죽은 뱃사공 손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주사(舟師) 손돌공(孫乭公) 진혼제(鎭魂祭)'라고도 한다.

역사 고려 고종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로 파천(播遷)할 때 비롯되었다는 손돌의 죽음과 관련시켜 손돌이 원사(寃死)한 음력 시월 스무날을 주기(週忌)로 삼아 김포시의 문화 관계자와 지역 유지들이 매년 의례를 거행한다. 손돌의 묘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 103-1번지에 있고, 주위는 사적으로 지정된 덕포진이다.

지역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손돌공진혼제는 조선 말엽에 중단된 손돌제사를 복원·계승한 것이다. 1970년 1월 21일 신안2리 마을총회에서 묘소 복원을 결의하고, 그해 4월 연인원 120명을 동원하여 나흘 동안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전 김포문화원장 김기송이 주축이 되어 김포의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 및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의례를 봉행하였다.

1975년에 진혼제 행사 주권을 김포문화재보호노인회로 이관하고, 1977년에는 군비 70여 만 원을 지원받아 비석과 상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손돌공의 전설을 새겼다. 1984년 김포의 3대 '얼'로 손돌공의 충성심을 선정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88년부터 매년 음력 시월 스무날에 손돌공진혼제를 김포문화원이 주관하여 봉행한다. 전 김포문화원장 김기송에 따르면 손돌제사는 조선 말엽까지 지속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없어졌으며, 손돌묘 앞에 사당으로 추정되는 두 채의 건물이 있었다.

유래 손돌제의 유래는 구전(口傳)하는 손돌전설에 근거를 둔다. 비록 손돌공 의례의 주도층이 주요 근거로 내세운 유래담이긴 하지만 손돌을 둘러싼 전승집단의 의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제770주기 주사 손돌공진혼제' 안내 팸플릿이다. 이 내용을 전재(全載)하면 손돌전설은 다음과 같다.

> 몽골의 침입으로 무신정권의 강요에 의해 고종은 1232년(고종 19)에 강화로 파천하게 되었다. 이때 고종은 신하들과 함께 개경을 떠나 예성강 벽란도를 거쳐 강화도로 입도할 때 손돌의 배를 타고 임진강과 한강 하류를 거쳐 강화도로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 지금의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와 강화도 광성진 사이의 해협이 협소하고 급류가 흐르는 목에 닿게 되었다.
>
> 이곳은 앞이 막힌 듯이 보이는 지형으로, 처음 가는 사람은 뱃길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곳이다. 파천하는 고종은 심기가 어지럽고 마음이 초조한 나머지 뱃길도 없는 곳을 향하여 배를 젓는 손돌이를 의심하여 수차에 걸쳐 뱃길을 바로잡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그때마다 손돌은 아뢰기를 "보기에는 앞이 막힌 듯하오나 좀 더 나아가면 길이 트이오니 폐하께서는 유념하여 주옵소서"라고 진언했다. 고종은 마음이 초조하여 이것은 자신을 해하려는 손돌의 흉계라고 의심하여 신하들에게 손돌을 참수하라고 명하기에 이르렀다. 손돌은 죽음에 직면하고도 임금의 안전항해를 바라는 충성에서 바가지를 물에 띄우고 바가지를 따라가면 뱃길이 트일 것을 아뢰고 참수되고 말았다.
>
> 이후 왕의 일행은 험한 뱃길을 무사히 빠져나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다. 왕은 늦게야 그의 충의를 깨달아 손돌을 잘 장사 지내고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당까지 세워 주었다는 유래가 전한다.
>
> 그리고 이 뱃길목은 지금도 손돌의 목을 베었다 하여 '손돌목'이라 하고, 매년 음력 시월 20일쯤이면 손돌의 원혼이 바람을 일으킨다 하여 이때의 거센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하며, 또 이날의 추위를 '손돌추위'라고 하여 전해온다.

이 전설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내용으로 김포문화원이 간행한 『김포의 설화』에 16편이 실려 있다. 책에 수록된 전설의 제목으로 '손돌추위'를 앞세운 것이 8편이다. 이는 이야기 전승집단의 관심이 손돌의 죽음에 따라 발생한 '손돌추위'라는 자연현상에 있다는 뜻이 된다.

각편(各篇)마다 내용의 편차를 보이는데 대체적인 주지(主旨)는 "몽진(蒙塵)을 하던 왕이 뱃사공의 행동을 의심하여 죽이고 나중에 후회하여 무덤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주었으며, 이 사건 이후 손돌의 원혼 때문에 이날이 몹시 추워졌다"는 내용이다. '손돌목'이라는 지명 유래담과 '손돌추위'라는 기후 유래담을

담고 있다.

손돌제사와 관련된 손돌추위 전설은 두 개의 의미 단락을 갖는다. 하나는 왕이 피란 갈 때 억울하게 죽었다는 손돌전설의 정형성을 보이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시월 스무날이 되어도 날씨가 춥지 않은 것을 손돌의 혼이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특히 두 번째 내용은 이야기를 전승하는 화자(話者)의 개인적 설명으로 돌릴 수 없다. 각편 「선돌목과 추위」에서는 '손돌의 혼이 뱀으로 변하여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갔다'는 언급과 함께 '그 후부터 손돌목의 울림현상도 없어졌고 추위도 없어졌다'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이는 물론 손돌전설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부언이지만 손돌전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각편 16편의 편차는 '① 시기 ② 등장인물과 배경 ③ 권력자의 이동 이유'에서 주로 나타난다.

첫째, 사건의 시기를 '고려'로 설정한 설화보다 막연한 시기를 뜻하는 '옛날'로 나타나는 설화가 반이나 되고, 임진왜란을 포함한 조선시대로 설정한 설화가 네 편이다. 반면에 고려시대로 설정한 설화는 두 편뿐이다. 이 점은 '고려 고종 대를 반영하고 있는 손돌고사'가 이야기 구조상 불안하다는 뜻이다. 설화의 형성과 배경 사이에 어긋남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고려 고종은 개경을 떠나 손돌목을 통과하지 않았다.

둘째, 등장인물은 사건의 시기만큼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건의 시기와 맞물려 일정한 관련을 맺는다. 가해자가 모티브의 속성상 '임금'인 것은 크게 어긋나지 않고, 피해자인 손돌이 '손돌' 또는 '선돌'로 나타나는 것 역시 발음상 문제이다. 이렇게 보면 등장인물의 편차는 크지 않다. 하지만 뱃사공의 이름이 '손돌'이고 '선돌'이 틀리다는 단정은 어렵다.

이야기의 배경지인 손돌목은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와 강화도 광성진 사이인 염하(鹽河)에 있다. 염하는 바다라기보다 강이라고 할 정도로 좁으며, 물길이 험하여 지방의 세곡을 실어 나르던 세곡선이 가장 힘든 뱃길로 여기던 곳이다. 손돌목은 바로 이 염하의 한가운데에 있는 곳으로, 곳곳에 암초와 돌섬이 있어 물이 굽이쳐 흐르는 수로이다. 이런 지리적 여건에서 '선돌이 있는 목'이라는 뜻의 '선돌목'이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뱃사람'이라는 뜻으로 '선돌(船乭)'이라는 이름이 부회되었고, 마침내 '손돌'로 굳어졌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돌(乭)'은 '돌쇠'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흔히 다른 말 뒤에 붙이는 사내아이의 비칭(卑稱)이며, '손돌'은 '성(손)+명(돌)'으로 분석되어 '돌'이라는 흩이름으로 쓰인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뱃사공 이름이 '손돌'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손돌전설을 향유하고 있는 현지인의 발음에 등장하는 '선돌'이라는 것 사이의 편차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름 측면에서도 손돌전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임금의 몽진 경로도 여러 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손돌전설에 나타나는 고려 고종은 개경에서 강화로 몽진한다. 그러나 각편에 따라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마포나루를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강화도에서 나와 인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또 전설에 따라 애초의 목적지는 강화도가 아니라 강화도의 서편에 있는 석모도라고도 한다. 이것은 본디 '강화'가 지닌 이야기의 결함을 해결하려는 뜻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건으로 보면 몽진 행렬이 손돌목을 통과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럴 겨를도 없다. 그런데도 강화도의 손돌목을 지나고 있고, 이때 손돌이 죽음을 맞는다.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각편의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손돌전설의 내용으로 볼 때 손돌전설을 준거로 한 손돌제는 전설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김포지역민이 손돌을 실재 인물로 믿고 손돌전설을 실재 사건으로 믿는 한편 이를 기리기 위해 손돌제를 의욕적으로 거행한다. 손돌을 실제화하고 역사적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다. 실제로 김포지역민들은 손돌의 의행(義行)을 드높이고 기리는 손돌제를 매년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있다.

손돌공 묘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003.11.12 최호식

주사 손돌공 진혼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003.11.12 최호식

내용 주사 손돌공을 진혼하는 손돌제는 유교식 제차에 의해 진행되는 「손돌공진혼제」와 진혼무(鎭魂舞) 바라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차와 분정 손돌공진혼제는 일반적인 제차인 참신례(參神禮)-분향례(焚香禮)-강신례(降神禮)-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유식례(侑食禮)-진다례(進茶禮)-사신례(辭神禮)-음복례(飮福禮)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기제(忌祭)라는 측면에서 구성된 순서로 보인다.

손돌제의 의례는 지역의 정치와 유교적 관계망에서 분정(分定)되어 진행된다. 의례를 집행하기에 앞서 제관을 미리 분정하여 소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쓴 분정관을 걸었는데 여기에 적힌 인사들의 직책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삼헌관은 지역사회의 관리이다. 초헌관은 김포시장, 아헌관은 시의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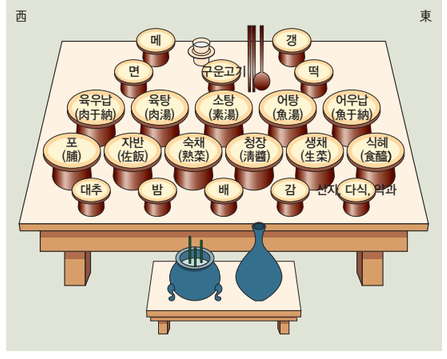
종헌관은 김포경찰서장이 각각 맡는다. 이는 손돌제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의 핵심이 포진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해 손돌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례(執禮)는 통진향교 유도회장, 알자(謁者)는 김포문화원장, 대축(大祝)은 대포서원 원장이 각각 분담하여 진행한다. 이것은 손돌제가 유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전승되는 의례임을 보여준다.

의례를 위한 상차림은 손돌제를 치제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묘제진설도(墓祭陳設圖)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물은 손돌묘의 앞에 있는 상석 위에 진설한다. 집사자(執事者) 위주로 본 진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때의 동(東)은 집사자의 오른쪽, 서(西)는 집사자의 왼쪽을 각각 가리킨다.

- 생동숙서(生東熟西) : 날것은 동쪽, 익힌 것은 서쪽에 각각 진설한다.
- 서두동미(西頭東尾) : 물고기의 경우 머리는 서쪽, 꼬리는 동쪽을 각각 향하게 한다.
- 육서어동(肉西魚東) : 고기는 서쪽, 물고기는 동쪽에 각각 진설한다.
- 좌포우혜(左脯右醯) : 육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에 각각 진설한다.
- 홍동백서(紅東白西) : 과일의 경우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에 각각 진설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다음의 진설도처럼 진설했으나 이 가운데 메(飯), 갱(羹), 면(麵)은 생략했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十月 朔 二十日
金浦市長 金東植 敢昭告于
舟師 孫乭公之墓
氣序流易 時維孟冬 諱辰復臨
仰慕忠節 禮不敢忘 百世推仰
敢以淸酌庶羞 祗薦歲事 尙饗

2. 진혼무 바라춤 손돌제의 유교식 의례를 마치면 손돌을 진혼하는 바라춤을 춘다. 바라춤은 대곶중학교 남녀 학생 40여 명이 참가하여 바라를 들고 손돌공의 묘 앞에서 추는 춤이다. 이 바라춤으로 1983년 제2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받고, 1984년 제25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연하였다.

의의 손돌제는 손돌전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손돌추위라는 기후 유래담이 결부되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고, 손돌묘라는 증거물이 엄연하게 있으며, 손돌을 역사인물로 간주하고 그의 충절을 기리려는 집단의식이 분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돌제가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의례인지 아닌지는 이미 큰 논란거리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손돌제가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큰 구실을 하고 있고, 지역축제의 하나로 공인되어 재전통화(Retraditionalization)되고 민속화(Folklorization)되었다. 이는 손돌제가 축적한 민속적 의의이자 현대적 전승 근거가 된다.

진혼무 바라춤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003.11.12
최호식

기타 손돌의 무덤 서쪽에 손돌의 충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이 서 있다. 이 비석은 손돌 사후 제740주기를 맞아 묘를 중수하던 1977년 11월 30일에 문화재보호협회 김포군지부장 박일양(朴一陽)의 협찬을 받아 김포군수 신영춘(辛榮春)이 건립하였다. 충절 비석의 앞면에는 〈舟師 孫乭公之墓〉라는 비명, 뒷면에는 '손돌고사'를 각각 새겼다. 손돌의 충절을 기려 비석에 담은 손돌고사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전승집단의 인식이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잡혔는지를 알 수 있다.

> 주사 손돌공은 고려조 23대 고종이 1232년 북방 몽골병의 침공을 받고 난을 피해 송경(松京)에서 강화도로 몽진할 때 배를 몰아온 뱃사람으로서 이곳 해상을 지날 무렵 험한 산이 가로막고 급류는 암초에 부닥쳐 전로(前路)가 심히 위태로우매 동란을 당하여 초조한 심정으로 피란길에 오른 왕은 뱃사람이 필연지사 흉계를 품은 것이라 착각하고 시신(侍臣)에게 즉각 참수할 것을 명하니 공(公)은 원래 이곳의 지형이 험한 뱃길임을 상주(上奏)하고 무사항행(無事航行)을 다짐했으나 왕의 번의(翻意)를 얻지 못하고 처형을 받게 되자 마지막으로 뱃머리에 바가지를 띄워 항로의 지침을 삼게 하고 형을 받으니 왕의 일행은 이 바가지를 따라 이곳 험로를 무사통과하고 난을 피할 수 있었으되 공은 이미 참형을 당한 후인지라. 왕은 자기의 경거(輕擧)를 크게 뉘우치고 비명에 간 공의 슬픈 넋을 위로하여 후일 이곳에 묘를 설(設)하고 사당을 건립한 후 기일인 음력 시월 20일에 제사를 지내 주었다 하는바 이날은 매년 예외 없이 열풍(烈風)과 혹한이 내습하므로 이는 필시 원통히 죽음당한 손돌 원혼의 작희(作戱)라 하여 후인들이 손돌추위라 하였고, 이곳 험한 물길을 가리켜 손돌목(項)이라 이름지었다.

참고문헌 김포의 설화(김포문화원, 1999), 손돌목에 대하여(박광성, 기전문화연구 9,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1978), 손돌목 전설에 나타난 역사성과 민중성(이영수,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손돌목 전설의 현장분석(이영수,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손돌전설의 변이유형 연구(설성경, 설화, 민속학회편, 1989), 인천의 지명유래(인천광역시, 1998),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국립민속박물관, 2006).

필자 장장식(張長植)

솟대

상호참조 솟대제(508쪽)

정의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앉혀 마을 수호신으로 믿는 상징물.

형태 솟대는 삼한시대의 소도(蘇塗) 유풍으로서 '솟아 있는 대'로 인식하기도 한다. 세우는 목적에 따라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마을의 액막이와 풍농·풍어 등을 기원하여 세우는 일반적인 솟대, 두 번째 풍수지리상으로 행주형(行舟形)인 마을에 비보(裨補)로서 세운 솟대, 세 번째 급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솟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마을신앙과 긴밀하다.

솟대는 대체로 마을 어귀에 세워진다. 홀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장승과 함께 세워지거나 장승과 탑이 있는 곳에 함께 세워지기도 한다. 솟대의 새 모양은 Y자형 나뭇가지로 만들거나, 기역(ㄱ) 자형 나뭇가지를 머리와 목으로 여겨서 Y 자형 나뭇가지나 넓적한 나무판에 연결하여 만든다. 새 모양을 사실적으로 깎아서 만들기도 한다. 재료로는 보통 나무이지만 쇠나 돌로 만들기도 한다. 솟대에 올려 있는 새의 숫자는 1~3마리이다.

솟대의 높이는 마을에 따라 다른데, 부산지역 일부 마을의 거릿대는 1~2m인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3m 이상이다. 장승과 함께 세워지는 경우는 장승보다 더 높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솟대의 기둥 굵기는 일정치 않다. 재질은 곧게 뻗은 소나무를 다듬어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을에 따라 돌기둥, 쇠파이프, 콘크리트 전주(電柱)로 하는 곳도 있다. 새는 오리라고 호칭하는 마을이 대부분이지만 지역에 따라 기러기, 갈매기, 따오기, 왜가리, 까치, 까마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새의 크기는 마을마다 다르며, 동일 마을이라도 제작할 때마다 크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솟대의 제작 시기도 마을마다 다르다. 해마다 마을 제의에 즈음하여 제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솟대가 부러져야 다시 만들거나 윤년이 들 때마다 새로 세우는 곳이 있다. 기둥이 콘크리트인 까닭에 새만 4~5년마다 교체하는 곳도 있다. 조간(鳥竿)이나 새가 모두 쇠로 되어 있어 오랫동안 솟대 제작을 잊고 사는 마을도 있고, 반영구적인 돌로 만든 마을도 있다. 솟대를 나무로 새롭게 만드는 마을에서는 제일(祭日)

오전에 준비해 오후에 제작을 마치는 것이 보통이다. 솟대를 새로 제작할 때 나무껍질만 벗겨서 조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어떤 마을에서는 숯가루와 황토를 이용하여 기둥에 나선형으로 문양을 넣어 마치 황룡과 흑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

내용 솟대는 원래 긴 장대 끝에 오리 모양을 깎아 올려놓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간 역할을 하여 화재, 가뭄, 질병 등 재앙을 막아 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다. 그러던 것이 풍수지리사상과 과거 급제에 의한 입신양명의 풍조가 널리 확산됨에 행주행 지세에 돛대로서 세우는 짐대와 급제를 기념하기 위한 화주대로 분화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리하여 오리는 물새가 갖는 다양한 종교적 상징성으로 인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가져와 주고, 화마로부터 지켜주며, 홍수를 막아주는 등 마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마을지킴이로 존재한다.

솟대의 새는 한 기둥에 세 마리를 얹은 경우, 새의 머리 방향이 세 마리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는가 하면 각기 동쪽, 남쪽, 북쪽을 향하기도 한다. 새가 두 마리인 경우 서로 마주보고 있는가 하면 같은 곳을 응시하기도 한다. 또 한 마리씩 여러 개의 솟대가 있는 경우 같은 곳을 보고 있는가 하면 한 마리는 마을 안, 다른 한 마리는 마을 밖을 각각 향하고 있기도 한다. 이렇듯 새의 모양이나 머리 방향, 마리 수에 따라서도 다양한 의미가 부연된다.

솟대를 가리키는 호칭은 솔대, 소주, 소줏대, 화주, 표줏대, 수살대, 수살이, 짐대, 진대, 오릿대, 당산, 철융, 거오기, 별신대, 진또백이, 화재뱅이, 용대, 대장군영감님, 거릿대, 골맥이성황, 파촉대, 성주기둥, 설대, 추악대, 화줏대 등 다양하다.

마을 제의가 대부분 유교식으로 진행되듯이 솟대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솟대제만 지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국사성황제→솟대제(골맥이제) 순서로 제의를 진행하거나 산신제를 지낸 뒤 당산나무제 · 탑석제(조탑제) · 짐대제(솟대제)를 함께 진행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산신제→고사당제(골맥이할배 · 할매제)→거릿대장군제(솟대제)→장승제→용왕제(우물제) 또는 골맥이할배 · 할매제→용왕제→거릿대장군제(솟대제) 순서로 제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북쪽골맥이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2010.6.12
이영식

지역사례 마을 제의를 지내는 곳이라 하더라도 솟대를 신체로 삼는 마을은 흔치 않다. 솟대를 제의 때마다 장승과 함께 새로 만들어 세우더라도 장승의 부속물로 인식하여 솟대를 신체로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아치노리에서는 마을 제의를 수살대고사 또는 '수살대감님 모신다'라고 하면서 솟대를 신체로 모시고 있다. 수살대고사는 매년 정월 열나흗날 치른다. 15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의 수살대고사는 가뭄이나 화재 같은 재앙을 막고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지낸다고 한다.

솟대는 원래 나무로 만들었으나 쉽게 썩어 몇 년에 한 번씩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1997년 무렵에 체신용 전신주를 이용하여 솟대를 설치했다. 전주에 나무와 비슷한 색으로 칠을 하고 꼭대기에 다 나무로 만든 새를 올렸다. 새는 밤나무로 만든 기역(ㄱ) 자 모양으로 머리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Y 자 모양의 몸통에 꽂아 전주에 볼트로 연결하였다. 보통 4~5년마다 교체되는 이 새는 기러기로 상징되며, 동쪽을 바라보게 세워진다. 새의 몸통에서 양옆으로 뻗은 가지 끝에 약 2m 길이의 왼새끼를 매달아 놓는다.

남쪽골맥이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2010.6.12
이영식

이는 기러기의 발을 의미한다.

제의는 기러기 발을 교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청년들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난해에 매달아 놓은 줄과 교체하고 새로 교체한 왼새끼 끝에 화선지를 묶어 둔다. 상차림은 시루떡 위에 통북어 두 마리를 나란히 얹어 놓고 막걸리를 따라 놓는 것이 전부이다. 축문은 따로 없으며, 화주가 고축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소지는 화주가 참여한 각 가구의 소원을 축원하며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상 위에 놓인 북어 두 마리의 머리를 잘라 입에 떡을 물려 입이 하늘로 향하도록 솟대에 묶는다. 묶을 때에는 화선지로 꼬아 만든 줄을 이용하여 짐승들이 건들지 못하게 높이 단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서는 국사성황제와 골맥이성황제를 지낸다. 국사성황제는 마을 뒤 굴로봉에 있는 성황당에서 지낸다. 이 제의는 성황당에 있는 기록물들을 종합할 때 1635년경에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진리의 골맥이성황은 솟대를 신체로 한다. 이 솟대를 마을에서는 흔히 골맥이라고 부른다. 마을 어귀에 해당하는 남쪽과 북쪽 두 곳에 있다. 금진초등학교 정문 옆에 있는 남쪽의 솟대는 3m 높이의 쇠파이프로 되어 있으며, Y 자형의 쇠파이프에 쇠로 만들어진 세 마리가 동쪽 · 서쪽 · 북쪽을 각각 향한 채 앉아 있다. 북쪽의 솟대는 3m 높이의 나무로 되어 있으며, Y 자형의 나무에 나무로 만들어진 새 세 마리가 동쪽, 서쪽, 북쪽을 각각 향해 앉아 있다. 금진리는 서쪽의 굴로봉이 마을을 감싸고 동쪽으로 동해가 펼쳐져 있다. 솟대가 위치하고 있는 두 곳은 남쪽과 북쪽의 마을 입구이다. 마을 사람들은 솟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를 막아 주는 액막이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제의는 정월대보름날과 오월단옷날에 행한다. 시간은 자정을 기해 국사성황제를 지낸 다음 솟대가 있는 두 곳에서 동시에 골맥이성황제를 지낸다. 즉 국사성황제를 지내는 제관과 골맥이성황제를 지내는 제관을 각각 선발하여 국사성황제를 지낼 때 두 곳의 골맥이성황 제관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국사성황제가 끝났으리라 추측되는 시간(보통 0시 10분쯤)에 동시에 제의를 지낸다. 골맥이성황제를 마치면 솟대 주위에 친 금줄을 솟대기둥에 감아 놓는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마티마을에서는 탑신제를 정월대보름날에 지내는데, 조산탑, 솟대, 장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는 솟대를 짐대라고 부르며 장승과 함께 윤년이 드는 해 정월대보름 전날에 만들어 세운다. 솟대의 높이는 5m 정도이며 오리를 올릴 때는 머리가 남쪽을 향하게 한다. 장대에 황색과 흑색이 용틀임의 단청을 하는데 황색은 황룡을 흑색은 흑룡을 상징한다. 황색은 황토로 흑색은 진흙에 숯가루를 반죽하여 칠한다.

마을에서는 매년 정초에 날을 잡아 산신제와 탑신제 제주를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데, 선출자 중 나이가 위인 사람이 산신제를 지내고 아래 사람은 탑신제를 주관한다. 산신제는 탑신제에 앞서 산신제 제주로 선정된 부부만 지내고 온다. 원래 탑신제는 정월대보름날 해가 뜨기 전에 징을 세 번 울려 첫소리로 잡귀잡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탑, 솟대, 장승, 샘굿 순서로 이어졌다. 그러나 청마리제신탑이 1976년 12월 21일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면서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요즘은 오전 9~10시에 제를 올린다.

탑신제는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제주가 탑 꼭대기

진또배기
강원 강릉시 강문, 2010.6.12, 이영식

와 솟대에 소지를 묶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의는 탑 앞에서 먼저 진행되는데, 제주는 집사가 따라준 잔을 제상에 놓고 절을 하고 나서 제상 앞에 앉는다. 집사는 술을 탑에 세 번 나누어 뿌린다. 제주는 다시 잔을 들고 술을 가득 받아 제상에 올려놓고 모두 함께 재배한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소지를 올린다. 이후 제주만 음복하고 제상을 든 집사들을 따라 솟대로 이동한다. 제상을 솟대 앞으로 옮기고 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제를 지낸다. 이때 술만 새 것으로 갈고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장승 앞에서 지내는데, 제상을 옮겨 솟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지낸다. 마을에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이 있지만 제는 천하대장군에만 지낸다. 제가 끝나면 제주가 음복한 후 주민들도 함께 음복한다. 이때 집사들은 미투리를 만들어 탑과 솟대에 갖다 놓는다. 마티마을에서는 소지만 올릴 뿐 축문은 따로 없다.

참고문헌 경북지역 골맥이 · 수구맥이 신앙의 민속학적 고찰(이종철 · 천진기, 경북지방 장승 · 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0),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 1994), **마을지킴이의 유형과 실제**(장정룡, 조선땅 마을지킴이, 열화당, 1993), **부산의 당제**(김승찬 · 황경숙, 부산광역시, 2005), **삼척지방의 마을신앙**(장정룡, 삼척문화원, 1993), **솟대**(이필영 · 송봉화, 대원사, 1990), **영서지방의 장승 · 솟대신앙**(박호원, 강원지방 장승 · 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 **한국의 마을신앙 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이영식(李英植)

솟대제

상호참조 솟대(505쪽)

정의 솟대를 마을 수호신으로 여겨 마을 주민들이 지내는 공동제의. 솟대는 한국인이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세운 긴 장대[長竿]을 말한다. 솟대는 솔대, 홋대, 소줏대, 표줏대, 수살대, 수구막잇대, 거릿대, 서낭대, 별신대, 짐대, 짐대백이 등으로도 불린다.

역사 원래 삼한(三韓)시대 때부터 솟대를 세웠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이는 『삼국지(三國志)』「마한전(馬韓傳)」에 나타난다. "무릇 50여 나라가 각기 '소도(蘇塗)'라고 부르는 별읍(別邑)을 두고 있다. 또 나무를 세워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겼다. 도망 온 자가 그곳에 오게 되면 잡아가지 못했다. 소도는 절에 세워 놓은 부도(浮屠), 곧 찰주(刹柱, 사찰에 세운 기둥)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또 이보다 100여 년 뒤에 편찬된 『후한서(後漢書)』「마한전」에는 간략하게 소도를 세웠는데 나무로 만들었으며, 방울과 북을 매달았고, 그곳에서 귀신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을 통하여 소도는 '장간(長竿)'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別邑]'의 개념으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민속학자 손진태(孫晉泰)는 마한의 별읍 '소도'가 고대 그리스 사회의 '아실럼(asylum)'과 같은 성질의 성역(聖域)이었다고 보고, 이러한 사례는 고대 중세를 통하여 여러 민족에서 누누이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삼국지』의 기사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대목(大木)을 세우고 원시 읍락(邑落)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맹자(孟子)』나 『사기(史記)』 권1 오제본기조(五帝本紀條)의 기록에 "어느 것이나 상당히 사람이 모인 곳을 읍이라"고 하였고,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서도 "소부락(小部落)이라 하더라도 읍이라 하였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삼국지』의 견해가 오히려 옳다. 특히 주목할 문헌은 『진서(晉書)』이다. 이 책 「마한전」에 "우치별읍(又置別邑) 명왈소도(名曰蘇塗) 입목간(立木竿)"이란 말이 나온다. 이 부분은 『삼국지』의 문장을 고친 것으로, 소도를 '별읍(別邑)'의 이름으로 보고 이것을 대목(大木)과 명백히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 『진서』의 내용을 간추리면 소도라는 특별한 신이 계신 읍락(邑落)에 신목(神樹)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 된다. 최남선 역시 "고산(高山) 결정(潔淨)의 지(地)에 신읍(神邑)을 두고, 그 안에 신단(神壇)을 베풀고, 준발(峻拔)한 석봉(石峰)이나 직립(直立)한 암석을 신체(神體)로 하여 경사(敬事)의 도를 펴니 이것을 신시(神市)라 하고, 이 자리를 소도라 하였다. 소도는 고축(高築)을 의미하여 역(譯)하면 신단(神壇)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참조가 된다.

신단 주변에서의 제천의례가 당대의 농경의례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농경의례라는 차원을 넘어 홍익인간적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예(禮)와 악(樂)을 융화시켜 펼쳐 나가는 정치, 곧 예악형정(禮樂刑政)의 치도(治道)도 소도천신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소도의 신명축제는 신성한 종교제의의 장(場)이자 교육의 장이었다. 『태백일사(太白逸史)』에 보면 "소도가 선 곳에는 충효신용인(忠孝信勇仁)의 오상(五常)의 도가 있었다" 하고 "소도의 옆에는 반드시 경당(扃堂)을 세워 미혼자제(未婚子弟)에게 사물을 강습하였다. 대개 독서(讀書), 습사(習射), 치마(馳馬), 예절, 가악(歌樂), 권박(拳搏) 겸 검술(劍術) 등의 육례(六禮)였다"고 하였다. 신채호 역시 소도의 경기 내용으로 한맹(寒盟), 수박(手搏), 검술(劍術), 궁시(弓矢), 격구(擊球), 금환(金丸), 주마(走馬), 회렵(會獵)을 들고 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삶 공간은 들(野)이 아닌 산(山)이었다.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所道洞)에 있는 태백산 정상을 살펴보면 태백산에는 소도당골이 있고 솟대(짐대)까지 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대형 운동장만한 공간을 만나게 된다. 그 정도 공간이라면 별읍을 건설할 만하다. 또 성역(堂)이 사방 주위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성역(神域)'이라 부를 만하다.

솟대제작
전남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금상마을
2004.2.20, 차정환

내용 솟대를 분류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기도할 때 세우는 경우이다. 볏가리, 화적(禾積), 풍간(豊竿)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 마을에서 세우는 목조(木鳥)솟대이다. 지역에 따라 솔대, 짐대, 소줏대, 표줏대, 갯대, 수살이, 수살잇대, 액맥잇대라고도 한다. 셋째, 개인이 세우는 용두솟대(龍頭蘇塗)라고 하는 것이 있다.

화적 · 풍간은 풍농의 의식을 점치는 솟대로 볼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신간(神竿)을 세운다는 점이 특징이다. 용두솟대라는 것은 화주(華柱) 또는 화표주(華表柱)라고 하는 것으로, 과거에 붙었거나 영화(榮華)스러운 경우에 만드는 표주(表柱)라는 뜻이다. 뭐니 뭐니 해도 한국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솟대는 목조솟대다. 솟대는 '액맥잇대'라고 한 점으로 보아 재액 소멸의 기능, 수살대라 한 점으로 보아 마을의 살기(殺氣)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음을 각각 알 수 있

다. 목조솟대는 조간(鳥竿)이라고도 불리며, 마을 수호신이나 성역 또는 경계나 이정표 구실도 해 왔다.

목조솟대를 보면 그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다. 흔히 바닷가 어부들은 이 새를 물오리가 아니면 갈매기라고도 하고 봉(鳳)이라고도 하지만 신의 사자(使者)로 보아 까마귀로 보는 학설도 있다. 여기서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江門洞)에 있는 짐대를 살펴보기로 하자.

현지에서는 이것을 '진또배기서낭' 또는 '진떼배기서낭'이라고 하며, 소나무로 만든 장대를 신체(神體)로 삼고 있다. '진또배기'는 '짐대박이'의 방언이다. 신간인 솟대를 지칭하는 '짐대'에 무엇이 박혀 있는 뜻을 일컫는 접미어 '박이'가 첨가되고, 이것이 'ㅣ'모음역행동화를 일으켜 '짐대백이'가 된 것이다. 짐대의 높이는 약 5m이다. 맨 꼭대기에는 세 가닥으로 갈래진 나뭇가지를 가로로 얹고, 갈래마다 정교하게 만든 나무오리를 올려놓았다. 이 짐대의 유래는 어느 날 대관령(일설에는 함경도 해안)에서 떠내려온 짐대가 강문에 닿자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건져 세우고 제사를 올렸더니 동네가 번성하여 계속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강문 근처의 안목(安木)에도 이와 같은 진또배기가 있다. 오리의 앉아 있는 방향은 두 마을 똑같이 서북쪽 대관령(또는 서울)을 향하고 있다. 이 짐대는 마을의 삼재(三災), 곧 수재 · 풍재 · 화재를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 이것을 잘 모시지 않으면 벼농사가 안 된다고 하여 신성시 한다.

솟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푯대 구실을 해 왔다. 곧 한국인은 정서적인 솟대를 저마다 지니고 산다. 고려속요 〈청산별곡(靑山別曲)〉 가사에 다음과 같은 난해한 구절이 나온다. "사ᄉᆞ미 짒대에 올아서 해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가 그것이다. "사슴이 꼿꼿한 장대에 올라가서 깽깽이라고 하는 악기를 켜는 것을 들었노라"라는 말이다. 흔히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또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재래 극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솟대쟁이패'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다. 장대(짐대 · 솟대) 위에 올라가서 온갖 재주를 피우는 재인을 솟대쟁이라고 부른다. 일본 아이누족의 악기에도 해금이 있다. 그런데 해금이 사슴의 뿔과 대가리에 연결된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필시 청산별곡의 짐대와 해금은 사슴뿔 해금을 장대 위에서 켜는 솟대쟁이의 모습을 비유하지 않았는지 짐작된다. 아무튼 솟대는 하늘로 치솟고자 하는 한국인의 천신사상의 표징물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한국인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 한 삶의 이상이었고 정신적 푯대, 곧 영표(靈標)였던 것이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와 본궁리에서는

솟대
전남 화순군 동복면 가수리, 2002.3.14
이돈기

솟대와 장승을 신봉(信奉)하는 거리제를 지내고 있다. 전치곡리에서는 매년 3월 중삼일(重三日, 3월 3일) 또는 9월 중구일(重九日, 9월 9일)을 택하여 장승을 세우는 제의(祭儀)를 지낸다. 이를 거리제라 칭한다. 전치곡리에서는 1975년 삼짇날에도 장승을 세우고 거리제를 지냈다. 본궁리에서는 1968년까지 마을이 끝나는 곳과 마을 어귀에 각각 한 쌍의 장승을 세우고 거리제를 지내다가 중지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전치곡리와 달리 장승을 세울 때 솟대를 함께 세우고 솟대 끝에 새 모양의 나무를 깎아 얹었다. 마을 사람들은 솟대를 '왜가리'라고 부른다.

제의는 다음과 같이 치러진다. 마을의 제를 도맡는 도가(都家)가 되려면 생산(生産)이나 상(喪)을 입은 일이 없어야 한다. 도가가 된 집은 삼짇날을 이틀 앞둔 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안 보는 때 골짜기의 깨끗한 샘물에 정한 쌀을 씻어 조례(조라술)를 잡히는데 성황당 부근 흙을 파고 술을 빚는다. 전치곡리의 경우는 마을 어귀에 있는 당목(堂木) 밑에서 술을 빚는다. 조례를 잡히면 그날 마을에서는 몸이 정(淨)하고 솜씨가 있는 장정(壯丁) 두세 명이 산 깊이 들어가 사람 손길이 안 간 소나무를 베어다 다듬어 장승을 만든다. 나무를 베거나 다듬을 때에는 톱을 쓰지 않고 도끼와 자귀만을 쓴다.

마을 사람들은 도가가 결정된 제삿날 2주 전부터 부정한 일을 피하기 위해 닭도 잡지 않는다.

감주(甘酒)가 익은 삼짇날에 입심 좋은 노인이 제관이 되어 성황당에서 먼저 마을의 무고(無故)를 비는 제사를 지내면 이어 장승과 솟대를 세운 거리에서 제사를 지낸다. 장승은 삼짇 하루 전에 정성들여 세우고 금줄을 두르고 머리에다 한지를 쌓아 둔다. 제물로는 주(酒), 과(果), 포(脯)를 진설한다. 제의에는 축(祝)이 없지만 제관은 축원을 한다. 축원은 마을에 악귀나 악질이 들지 않고, 집집마다 평안하고 우마(牛馬)도 탈이 없고, 농사일이 제대로 되게 해 달라는 것이 주가 된다.

제관은 축원이 끝나면 집집마다의 소지를 올려 식재(息災), 초복(招福)을 빌어 준다. 이때 제관은 농가에 있는 우마의 소지도 전부 올린다.

본궁리에서는 제사가 끝나면 그 이튿날 모여서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은 다음 장승을 세운 마을의 길을 함께 닦고 제당(祭堂)의 지붕을 고쳐 놓는 등 마을의 공동작업을 한다.

강원도에는 돌탑신앙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선돌'을 '탑', '탑'을 '탑장승'이라고도 부른다. 탑제(塔祭)의 대상 신은 다른 신앙물과 서로 혼효되어 나타나며, 탑 · 장승, 탑 · 선돌, 탑 · 솟대, 탑 · 장승 · 솟대 등이 서로 혼재되어 성역을 조성하고 있다.

천지창조 때부터 돌과 나무는 원시종교나 민속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성적(二聖的)' 존재였다. 이들 가운데 탑이나 선돌은 돌이 신성화된 신체, 장승과 솟대는 나무가 신성화된 신체였다. 이에 따라 솟대제는 석탑과 솟대가 서 있는 신성공간에서 지내는 제의였음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史記, 三國志, 晉書, **강원도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민간신앙**(김선풍 · 이기원,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솟대**(김선풍, 비전 21, 만도기계, 1996),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안창범, 국학자료원, 1997), **육당최남선전집 2**(최남선, 현암사, 1973), **태백산천제**(김선풍 외, 태백시, 2009), **한국민속과 문학연구**(김열규, 일조각, 1971), **한국민속문예론**(김택규, 일조각, 1980).

필자 김선풍(金善豊)

송징장군(宋徵將軍)

상호참조 완도장좌리당제(681쪽)

정의 전라남도 완도군의 몇몇 마을 동제에서 모셔지는 전설적인 인물.

역사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강진현(康津縣) 사묘조(祠廟條)와 고적조(古蹟條)에는 송징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사묘조에 "호국신사는 현의 남쪽 칠장리에 있는데 세간에 전하는 말로는 신사에서 모시는 신은 송징이라 한다(護國神祠 在縣南七長里 世稱祠神卽宋徵)"라는 기록과 고적조에 "사현은 완도에 있는데 세간에 전하는 말로는 옛날 섬사람 중에 송징이라는 사람이 있어 무용이 뛰어나고, 활을 잘 쏘아 육십리 밖에까지 날렸는데, 활줄이 끊어지자 줄에서 피가 흘렀더라 한다. 지금 반석 위에는 화살자국이 남아 있는데 그로 인하여 그곳 이름을 사현이라 한다(射峴在莞島 諺稱昔島人名宋徵者 武勇絶人 射及六十里之

外 弓弦絶則血出 至今盤石有矢痕 名其地曰射峴)"라는 기록이 있다. 이후 편찬된 많은 관찬 및 사찬 지지류에도 송징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지만 거의 모두 이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다른 종류의 자료로는 임억령(1496~1568)의 문집인 『석천집(石川集)』에 실려 있는 송징에 대한 두 편의 시가 있다. 그 가운데 한 편은 송징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웅서사시로서 매우 높은 시격을 보이고 있다.

내용 완도에서 송징을 동제의 주신으로 모시던 마을은 완도읍을 비롯해 여러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완도읍 장좌리의 동제에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이 역시 활발하게 모셔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좌리의 당집이 있는 장도는 본래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하고 현재(2010년)는 복원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지역이다. 장도의 정상에 숲으로 싸인 당집이 있으며, 매년 정월 초열흘날 쯤에 날을 가려 당제를 모셔 오고 있다. 본래 당집에서 모시던 신은 송징 장군, 정년 장군, 혜일 대사였다. 그러나 연고로 따지고 보면 송징은 전설적 인물에 불과하지만 장보고는 역사적 인물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에 의해 송징보다 장보고를 주신(主神)으로 모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여겨졌음인지 현재는 주벽에 장보고의 영정을 걸고 장보고를 주신으로 하여 동제를 지내고 있다. 특히 1982년에 장좌리 동제가 남도문화제에 경연작품으로 출연하면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 지역의 인물인 장보고를 주신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 추배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그 후 논란이 있어 오다가 현재는 장보고 장군을 주신으로 하고, 전부터 모셔 온 3위의 신격을 부신으로 격하시키는 변화를 겪었다.

본래 송징이 이 지역에서 동제의 신격으로 모셔지게 된 배경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있다. 임억령의 〈송대장군가〉라는 시에서는 송징을 미적추(米敵酋)라고 불린다고 하고 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지도 모르고 과중한 세곡을 걷어 가는 중앙정부의 처사에 분개하여 송징 장군은 세곡선을 습격하여 곡식을 빼앗아 백성에게 나눠 준 사람이다.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나라의 일이지만 나라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징 장군이 대신하여 굶주린 지역 주민을 위해 쌀을 훔쳐 나누어 준 것이었다.

한편 지역에 전해 오는 전설에 따르면 송징 장군은 장보고 장군과 상통하는 면도 지니고 있다. 즉 활을 잘 쏘았다고 하는 것은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해 수많은 지지류에 실려 있는 송징에 대한 전설 정보이다. 한편 장보고의 어릴 때 이름이 궁복(弓福) 또는 궁파(弓巴)이다. 지금 말로 하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활보'이며, 활을 잘 쏜다는 데서 얻어진 이름이다. 임억령의 〈송대장군가〉에서는 심지어 활시위를 끊자 송징이 죽었다고 하여 송징과 활을 동일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또 지역에 전해 오는 전설에 따르면 송징과 엄장군이라는 사람이 세력다툼을 하다가 엄장군의 속임수에 의해 송징이 죽는다. 여기서 엄장군은 염장군, 즉 장보고를 살해한 염장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전라도 방언에서 염장군이 엄장군으로 발음되는 현상, 즉 단모음화 현상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완도읍 장좌리 장도에서 매년 모시는 동제에 송징 장군이 주신으로 모셔지다가 오늘날에 와서 장보고 장군으로 교체되는 현상도 어떻게 보면 두 인물 사이에 공유되는 이야기를 통해 동일인으로 생각하는 집단의 무의식적 전승이 작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전설적 인물이 역사적 인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둘 사이를 동일인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허용의 기제가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징과 달리 장보고는 훗날 추배되면서도 주신격에 해당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남 해남 출신 임억령이 당집에서 송징 장군을 모시는 제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송대장군가〉라는 시의 일부에서 읊고 있다.

장골이야 비록 초목과 함께 썩었으나
의연한 혼백은 풍뢰를 머금어 사납구나
귀신이 되어서도 웅걸하여 이 땅에서 제사하려
장대에 꿩깃 꽂고 나무 새겨 신상을 지었더니
저 어인 사람들인고 괴이하다 비웃고
허물어 마침내 물가에 버렸다네
백년 세월에 당집 한 칸 쓸쓸할 뿐
때를 맞춰 복날과 섣달에 마을에 북소리 울리고
뉘엿뉘엿 지는 해에 들가운데 무당의 굿소리
우수수 하늬바람에 갈까마귀 춤을 춘다
신령이 내리는지 하늘에선 빗방울 날리고
제상에 올려진 건 고작 막걸리 한 사발
오호라 이 어찌 음사류겠는가
심하도다 유생들의 고루함이여
종이 잘라 혼 부름은 예부터 있어온 일
때때로 수풀 속에 신이 내린다

壯骨雖與草木腐
毅魂尙含風雷怒
爲鬼雄兮食此土
插雉羽兮木爲塑
彼何人兮怪而笑
毁而斥之江之滸
百年蕭條一間廟
歲時伏獵鳴村鼓
翩翩落日野巫禱
颯颯西風寒鴉舞
靈之來兮飄天雨
神之床兮瀝白酒
嗟乎此豈淫祠類
甚矣諸生識之陋
剪紙招魂着自古
往往下降叢林藪

이미 오백여 년 전에도 송징 장군은 지역의 지식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나무로 송징의 신상(神像)을 새겨 매년 제사를 모셔 오고 있었는데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는 공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신상이 버려진 것이다. 신앙보다는 사상을 중시하던 유학으로 무장한 당시 사람들의 소행이다. 지역의 유학자들이 음사(陰祀)로 간주한 정황이 분명하다. 임억령이 본 송징의 제사는 무당이 주재를 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신상까지 갖춘 나름대로 격식이 뚜렷한 제사에서 송징은 주신으로 모셔지고 있었다. 또 장대에 꿩깃을 꽂고 제사를 모시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농악에서 볼 수 있는 영기의 모습이다. 즉 송징의 제사에는 풍물패가 함께 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도 역시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서 모시고 있는 동제를 보면 여전히 풍물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풍물패는 단지 당굿을 담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송징을 따른 군사의 역할을 제사 과정에서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송징은 또 한 번의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신상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송징 자체를 장보고와 교체한 것이다. 설화보다는 역사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송징 장군을 마을의 신격으로 모셔 오던 당집이 위치한 장소의 성격에 기인한 확대해석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즉 장도가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던 곳으로 알려지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굴까지 하게 되면서 기존에 모셔져 온 전설적 인물인 송징보다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장보고 장군을 주신으로 모심으로써 지역의 역사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康津郡誌(1923), 康津縣輿地勝覽(1895), 康津縣營邑鎭誌(1871), 金陵邑誌, 東寰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全羅南道誌(1924), 朝鮮湖南誌(1935), 朝鮮寰輿勝覽(1929), 津郡邑誌(1899), 전남의 민속연구(나경수, 민속원, 1994).

필자 나경수(羅景洙)

송천달집태우기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송천리 송산마을에서 정월대보름날 달이 떠오를 때 달집에 불을 지르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노는 세시풍속. 1994년 1월 31일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다.

달집 엮기
전남 순천시 승주군 월등면 송천리, 2001.2.5, 국립민속박물관

전남 순천시 승주군 월등면 송천리, 2001.2.5, 국립민속박물관

달집 만들기

달집 제작

달집

달집 주변돌기

역사 달집태우기는 액막이 풍습이자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의 일종으로, 대보름의 기풍(祈豊)·점풍(占豊)·방액(防厄)적 성격을 지닌다. 이 놀이는 주로 남부지방의 산악지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송천달집태우기는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송천리 송산마을에 전승되고 있으며, 여러모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1. 놀이 준비 정월대보름날 오후 2~3시쯤 농악소리가 울려 퍼지면 달집태우기를 총지휘하는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지게를 지고 대나무와 솔가지를 베러간다. 이때 장정 7~8명은 이웃 갈전리와 유평리 마을 앞에 세워 놓은 달집을 부수고 대나무를 빼앗아 오기도 한다. 돌아올 때는 여러 가지 민요가 구연

전남 순천시 승주군 월등면 송천리, 2001.2.5, 국립민속박물관

제의

독축

줄다리기

된다.

2. 달집 제작 달집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꽤 넓은 광장인 '궁둥바우'에서 제작한다. 재료인 대나무는 대밭에서 베어오기고 하고 빼앗아 오기도 한 것들이다. 먼저 잎이 달린 통대나무를 원추형으로 세우고 그 둘레에 사람 키만큼 이엉을 휘감는다. 문은 동쪽으로 낸다. 달집 안에는 각 집에서 거두어 온 짚 다발을 쌓고, 그 위에 솔가지를 올려놓은 뒤 기도한다. 또 정초부터 띄운 액막이 연(鳶)에 방액(防厄), 점풍(占豊), 태평세월(太平歲月)이란 글을 써 달집에 달아 놓는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주변을 돌면서 농악을 친다.

3. 달집 불지르기 달뜰 무렵이 되면 촌로(村老)들이 "달맞이 하러 간다"고 외치면 '덕석굴 몰뫼등'으로 올라간다. 달이 산 위에 올라오면 "달 떠 온다"라고 외친

다. 이 외침을 들은 마을대표는 달집 안과 둘레에 불을 지른다. 곧 이어 "달떴네! 불 질러라!"라는 함성과 함께 농악 소리, 대 매듭 터지는 소리, 솔가지 타는 소리가 울리며 천지를 진동시킨다. 달집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달 그슬린다"라고 한다. 이 불길이 이웃 마을보다 높이 올라가야 풍년이 든다는 믿음 때문에 서로 높이 세우기를 다툰다. 대 매듭 터지는 소리는 마을의 액을 쫓아낸다고 하여 큰 통대를 많이 넣어 태운다. 또 달집이 다 탄 뒤 쓰러지는 방향을 보고 점풍(占豊)을 한다. 위쪽으로 넘어져야 송천리가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달집태우기는 새벽 1시쯤에 끝난다.

송천달집태우기놀이는 1987년 제16회 남도문화제 종합최고상과 1988년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종합우수상을 받았다. 이때 재구성된 민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달집을 둘러싸고〉

어얼싸 덜이덜동	얼싸덜이덜롱
하늘에는 별도 총총	얼싸덜이덜롱
대발에는 댓잎도 총총	얼싸덜이덜롱
냇물에는 자갈도 총총	얼싸덜이덜롱
집시락에 초롱도 총총	얼싸덜이덜롱
녹두장군 눈도 총총	얼싸덜이덜롱

〈달집에 불을 지르면서〉

어얼싸 덜이덜롱	얼싸덜이덜롱
물떠묵고 나오너라	얼싸덜이덜롱
달아 달아 붉은달아	얼싸덜이덜롱
장구치고 나오너라	얼싸덜이덜롱
춤을 추고 나오너라	얼싸덜이덜롱
얼싸 덜이덜롱 얼싸	얼싸덜이덜롱
얼싸 덜이덜롱	얼싸덜이덜롱
풍년이온다 풍년이온다	얼싸덜이덜롱
금수강산에 풍년이온다	얼싸덜이덜롱
지화자좋다 얼씨구좋다	얼싸덜이덜롱
금년삼월에 꽃놀이가자	얼싸덜이덜롱
금년유월에 물놀이가자	얼싸덜이덜롱
어얼싸 덜이덜롱	얼싸덜이덜롱
풍년이온다 풍년이온다	얼싸덜이덜롱
금수강산에 풍년이온다	얼싸덜이덜롱
지화자좋다 얼씨구좋다	얼싸덜이덜롱
금년구월에 산놀이가자	얼싸덜이덜롱
금년섣달에 눈놀이가자	얼싸덜이덜롱

의의 보름달은 풍요의 상징이고, 불은 모든 부정과 사악을 살라 없애는 정화의 상징이다. 이에 따라 달이 떠오를 때 달집을 태우는 것은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모든 사악을 정화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달이 떠오르면서 불길이 솟구치면 마을 사람들은 달집 주위를 돌면서 신명나게 풍물을 친다. 대나무가 불에 탈 때 나는 폭죽 터지는 듯한 소리에 잡귀가 마을 밖으로 도망가고, 불길이 이웃마을보다 높이 올라가면 풍년이 든다고 하여 경쟁적으로 큰 통대의 대나무를 모아 불을 지핀다. 그리고 다 타서 넘어지는 달집의 방향을 보고 그해의 농사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달집을 짓는 것은 달님[月神]을 집 안에 모시기 위한 행위이다. 이는 마을신앙에서 당집을 짓고 그 안에 신격(神格)을 모시는 행위와 같다. 달님을 모신 달집에 불을 지르는 것은 음(陰)인 달[月]과 양(陽)인 불[火]의 결합을 통해 우주만물의 생생력을 극대화하기

달집 태우기
전남 순천시 승주군
월등면 송천리, 2001.2.5
국립민속박물관

달 그슬리기
전남 순천시 승주군
월등면 송천리, 2001.2.5
국립민속박물관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생생력이 극대화된 달집을 향해 마을 사람들이 소망을 기원하면 되돌아오는 것 또한 극대화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 구례 지역에서는 달집신이라 하여 달집 앞에 제상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처럼 달집태우기는 '놀이+달맞이+농악+잰부닥불(모닥불넘기)+농사점+부스럼예방하기'가 결합된 정월대보름의 종합민속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 유사한 놀이가 중국에서는 사오쑹펀(燒松盆)·판차이(焚柴), 일본에서는 사기초(左義長)·돈도야키 등으로 전승되고 있어서 비교민속학적 측면에서도 학술적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남도민속의 이해(표인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필자 표인주(表仁柱)

쇠말

표제어 철마(881쪽)

수구맥이

정의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마을 어귀에서 수구를 막는 특정한 신격을 지칭. 특히 경상도지방에서 전하는 마을 어귀의 거리신을 일컫는다. 수구(水口)를 막고 허(虛)한 방위를 보안하는 신으로 널리 인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기록을 찾아서 보면 수구맥이는 일반적인 용례로 쓰이고 있으며, 널리 거명되고 있는 신격 가운데 하나이다.

이칭 수구맥이는 수구멕이, 수구매기, 수구메기, 수구신, 수살맞이, 좌우수살멕이 등으로 달리 지칭하기도 한다.

농악패가 하는 고사반에서도 수구막이라고 하는 특정한 의례 절차를 구현하기도 한다. 무당들이 하는 마을굿과 농악대가 하는 마을굿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 또한 수구맥이라고 할 수 있다.

수구막이와 수살막이는 전혀 다른 뜻 같지만 거의 동일한 발상으로 행해지고 있어 서로 견줄 필요가 있으며, 함께 비교할 가치가 있다.

수구와 수살은 명칭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물이 있는 곳에서 이 물의 기운이 강한 것을 막고, 또한 물이 마을의 허한 기운을 보완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구와 수살은 거의 같은 의미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막이와 맞이가 병존하며 용어의 불일치를 보인다. 막이는 방액의 뜻이며, 맞이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를 따져서 논한다면 막이와 맞이가 서로 상이한 뜻이 아니라 이것이 변형되어 이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살막이와 수살맞이는 거의 동일한 뜻으로 이해된다. 또 수살맞이, 수살맥이, 수구맥이 등이 서로 병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내용 수구맥이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을 이루고 있다. 가장 소박한 형태는 농악대가 하는 굿이다. 이는 고사반의 일환으로 고사소리를 하면서 등장한다. 고사소리 가운데 선소리에서 이러한 용례가 나온다. 고사반의 앞소리는 여러 가지 천지조판내력과 액막이, 살풀이, 삼재풀이 등이 엮음소리로 이어지게 된다. 이 소리를 통해 자연적인 재해를 막는 과정에서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소리를 구연하게 된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사반 내용이다.

고설 고설 고사로다 천개 우주 하늘이여 지개조축 땅
생길제 국태민안 법륜자 시화연풍 돌아들고 이씨한양

등극시에 삼각산 기봉하고 봉학이 주춤 생겼구나 봉학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오영문 하각산을 각도 각읍을 마련할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가 백호로다 종남산 안산 되고 과천 관악산 화산이 비춰 동작강 수구 막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 무궁이라 원아는 금여차 차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은 대한민국 경기는 경성내 삼십칠관 마련하고 경상도 접어들어서 칠십이관을 마련하고 전라도 접어들어 오십육관 마련하고 충청도 접어들어 사십삼관을 마련하고 강원도로 접어들어 이십칠관 마련하니 이대군례 대군례 이대면례 대면례 이대동중 대동중 건구건명 이댁가족 부모님 거나리고 슬하자손 거나리시고 태평성대로 잘 사실제 몸주대살 없을소냐

고사반의 서두에 천지조판의 내력이 서술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수구막이의 근거가 예시된다.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의 화살이 세기 때문에 이를 막는 구실로 동작강으로 수구를 막았다고 되어 있다. 불 기운을 물 기운으로 막은 데서 수구막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내용임을 인식하게 한다. 다양한 문면에서 이러한 수구막이가 여러 고사반에 등장한다. 이 역시 풍수지리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수구맥이의 두 번째 유형은 마을 어귀에서 수구를 막고 허한 기운을 보하는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유형은 흔히 비보장승을 비롯한 마을의 비보풍수와 같은 것과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마을의 수구막이가 비보풍수의 하나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도참사상과 풍수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무관하지 않다.

비보풍수설에 입각해 자연적인 기운을 일정하게 방비하고, 서로 융합하고 조화하도록 하는 것이 수구맥이의 기본적인 양상이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장승, 벅수, 사찰, 탑, 절, 연못 등으로 다양하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호남지방의 사례로 널리 알려진 비보장승의 사례는 주목을 요구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사례로 추정되는 전남 장흥군 가지산 보림사(寶林寺) 장생탑비, 전북 익산시 동고

수구맥이
인천 강화군 외포리
2010.3.28. 김헌선

도리(東古都里)의 수구막이, 전남 영암군 월출산 기슭의 국장생과 황장생, 전북 남원시 만복사지의 석장승 등은 비보풍수의 산물이다.

조선시대의 사례로 남원시 실상사(實相寺)의 돌벅수, 나주시 운흥사(雲興寺)와 불회사(佛會寺)의 돌벅수, 무안군 법천사(法泉寺)의 돌벅수, 해남군 대흥사(大興寺), 순천시 선암사(仙巖寺)의 목제 호법신장(護法神將)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무속과 불교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진 특징을 보여 준다. 마을신앙에서 이를 중시하고 수구맥이를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각도에서 의의가 있다.

수구맥이의 세 번째 유형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강화도에 전승되는 '수살맞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사례가 있다. '수살맞이'는 곶창굿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첫 번째 제차이다. 이 수살맞이의 실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의 동쪽 어귀에 해당하는 동남쪽의 수살목과 마을의 서쪽 어귀에 해당하는 서남쪽의 수살목에서 진행된다. 수살목은 솟대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살굿은 마을 전체의 수살을 막아내고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며 복을 달라고 축원하는 굿으로 용왕을 모시는 제차라고 관념한다.

곶창굿은 동남쪽 수살굿으로 시작한다. 수살목이 세워지는 장소는 외포리의 옛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곶(井串)의 '곶(串)'에 해당한다. 옛날부터 정포보(井浦堡)의 제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새롭게 제방을 쌓았다. 수살맞이는 마을굿에서 매우 긴요한 제차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실제로 연행하는 지역은 서울굿이나 인근의 마을굿에서 유사한 사례로 발견된다.

나무로 만든 오리 다섯 마리가 올려진 수살목이 뿌리째 세워진다. 이 제차는 전통적으로 당주만신이 맡아서 진행하며 무복으로 청치마에 홍철릭을 입고 꽃갓을 썼다. 굿의 거리마다 무복을 입은 만신들이 함께 참여한다.

수살굿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해의 일진에 맞추어 보통 7시에서 9시 사이에 굿을 하며, 굿 하루 전날 중소임들에 의해 수살목이 세워진다. 그리고 굿을 할 때마다 수살목이 세워지는 위치와 그 위에 놓인 오리의 방향이 다르다. 이것 또한 전통적인 방식이다.

동남쪽 수살굿을 마친 일행들은 해안가 도로를 따라 서남쪽 수살목으로 이동한다. 하소임들이 먼저 상차림을 위해 이동을 한다. 그 뒤를 대동기와 당주만신 정정애가 차례로 서고, 만신이 장고를 치며 뒤따른다. 악기를 치는 만신, 무구를 든 만신 등 나머지 만신들이 뒤따르고 이어 농악대가 뒤를 잇는다.

나무로 만든 오리 다섯 마리가 오방위를 상징한다고 간주한다. 당주만신이 축원을 하며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바다로 던지면서 시식을 한다. 오리가 놓여진 나뭇가지마다 소지종이를 맨 다음 가운데 가지에 북어를 얹고 시루떡 한 조각과 과일 하나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마을 유지들에게 공수를 주고 축원과 덕담을 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수살맞이는 바다에 인접하고 있는 굿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거리이다. 굿을 하는 이유는 안과태평과 제액초복이다. 마을의 주된 신격을 모셔서 명복을 기원하는 의례는 기본적인 의의가 있는 굿거리이다. 바다에서 오는 처음의 신격을 위해 축원과 덕담을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수구맥이의 네 번째 유형은 이른바 답십리 도당굿에서 행하는 좌우수살막이이다. 답십리와 진펴리(현재의 행당동) 살군당이 있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일대에는 예부터 물이 많이 들어와서 수재를 많이 당한 고장이다. 마을굿에서 좌우수살맥이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닭을 대수대명으로 바치면서 닭의 머리가 나간 방향이 수살맥이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의례를 행한다. 수살맥이는 답십리도당굿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굿거리임을 알 수 있다.

의의 마을의 안녕을 해치는 요소 가운데 물은 위협의 요소였다. 수재를 당하는 쪽에서 이를 막고 자연재해를 일정한 풍수원리에 입각해 마을 어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수구맥이의 요체이다. 이것에 입각해 마을의 농악대나 마을굿의 무당은 일정한 굿거리를 마련하여 이를 막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구맥이이고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발전하였다. 수구막이와 수살맞이는 이러한 양대 유형으로 중요한 전통이 된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이러한 전통적 사유를 낳았으며, 신앙적으로 승화하였다.

참고문헌 **강화도 외포리 곶창굿**(김헌선, 2010년 간행 예정), **강화도 외포리 곶창굿의 현지연구**(김용국,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소박한 토박이들의 잔치**(황루시, 서울당굿, 열화당, 1989), **장승**(이종철, 열화당, 1988), **한국의 마을제당-경상북도 상**(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김헌선(金憲宣)**

수원영동거북산당

정의 경기도 수원시 영동시장 상인들의 공동체 신앙처로 거북산신 또는 거북도당신을 모신 당. 거북도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 43-2번지에 위치하며, 1986년 4월 8일에 '수원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당 건물의 규모는 정면 4.9m, 측면 2.5m 정도이다.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 크기의 맞배지붕에 골기와를 얹은 동북향의 집이다. 전통적 사우(祠宇)와 마찬가지로 단청을 입혔다. 1986년 수원시의 지원으로 당을 수리할 때 측면 도로에 접한 경계에 '만(卍)' 자 형의 울타리로 된 담장을 설치하고 그 앞에 안내 입간판도 세워 두었다. 수원천이 복개되던 1994년 당 수리 공사 때 건물 앞마당과 맞닿은 인근 건물이 잠식해 들어왔고, 건물 뒷면과 왼쪽 면으로도 높은 건물이 바싹 붙어 건립되면서 당집 마당은 더욱 협소해지고 위축된 모양새를 지니게 되었다.

역사 거북산당의 역사는 크게 두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당집과 관련해서는 시대에 따라 형태 변화를 보인다. 당이 위치한 곳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약간의 오르막 정도로 여겨지는 도로가 생겼지만, 원래 거북산이라 불리는 동산이었다. 화성이 축조되던 당시부터 거북처럼 생겨 신성하게 여기던 '거북바위[구암(龜巖)]'라는 큰 바위가 있었고, 그 곁에 제법 큰 연못이 있었다. 당집에 비견될 만한 것이 마을 형성 초창기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1920년대에는 이미 인공물로서 신당(神堂)이 거북바위 옆에 세워졌다. 우묵하게 파인 땅에 짚으로 터줏가리 형태의 움집이 있었다. 그 안에는 도당할아버지를 상징하는 흰색 기(旗)를 넣어 두었다. 움집 바깥쪽 중간 부분을 줄로 둘러매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온 소지 종이들을 끼워 두었다. 제물로 가져 온 시루떡을 조금 떼어 움집 안에 넣어 두고 그 앞에서 제의를 행하였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당집이 세워진 것은 1964년이다. 골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의 전통 건축물로 당집을 세운 것은 경기도도당굿 무녀인 백윤남 만신이다. 당집 내부 벽에 걸려 있는 건립 기념 액자에는 건립 유공자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녀 외에도 남편인 이성덕과 나머지 기부자 여섯 명의 이름 및 기부금 액수가 나와 있다. 1986년에 거북산당이 '수원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면서 단청을 새로 칠하고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둘렀다. 수원천이 복개되던 1994년에 수원시의 지원으로 다시 한 번 당을 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못이 메워지고 그 자리에 시멘트를 둥글게 쌓아 올린 우물을 만들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거북바위는 당주 임복례(1922년생)가 공사 기간에 한동안 당을 비운 사이 누군가 가져감으로써 없어졌다.

다음으로 공동체 신앙처로서 거북산당의 역사에 관해서는 장터 마을이던 당시 구천동의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영동이라는 지명은 1931년 일본식 정(町)과 정목(丁目)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구천동에 속하였다. 화성(華城) 축조로 확대 정착된 구천동 부근 지역은 당시부터 이미 성 밖 시장으로서 장터 마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00년대 전반기만 해도 매년 정초에는 성안시장 주민들과 편을 나눠 줄다리기가 성행할 정도로 구천동은 장터 마을로서의 지연적(地緣的)인 생활공동체였다. 다시 말해 이 시기까지는 구천동의 주민 다수가 시장의 상가 주인이거나 시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관련 제의로 당고사는 물론 도당굿 경비도 이들을 중심으로 갹출되었고, 축원 내용도 자연스레 시장의 번영에 맞춰졌다.

광복 이후 도시의 팽창과 인구 집중 및 이동에 따라 장터 마을로서의 지연성은 서서히 해체된 반면에 1972년 시장 설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영동시장은 영동시장주식회사라는 법인체가 되었다. 이와 함께 시장상가 업주들로 구성된 시장번영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해체된 마을을 대신해 시장번영회가 거북산당 제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내용 정면 세 칸의 당집 내부는 전면 벽 중앙에 두 개의 탱화가 걸려 있다. 왼쪽이 대왕님, 오른쪽이 거북도당할아버지·할머니 내외를 그린 것이다. 그리고 전면과 오른쪽 면에 1m 높이의 제단이 빙 둘러 놓여 있다. 제단 그 위에는 향합과 공양물, 여러 신의 위패들이 놓여 있다. 대왕님 신은 '대왕님'이라고 탱화 하단 왼쪽에 가로로 써 있으며 그 왼쪽 옆에 세로로 '염라' 두 글자가 덧붙여져 있다. 제단에 놓여 있는 옛 당주였던 백씨 만신의 사진(1970년대 초반으로 추정됨) 속 탱화에는 이 '염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는 그 이후 누군가에 의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1986년에 세워진 안내판에도 이를 바탕으로 한 염라대왕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다. 탱화가 끝난 오른쪽 한 칸에는 동자신(童子神)을 모시는 단이 있다. 이 단에는 특별한 위패 없이 과자봉지가 쌓여 있고, 그 오른쪽으로 정화수와 쌀을 담은 주발을 얹은 상이 놓여 있다. 탱화의 왼쪽으로는 당 건립 기념 액자가 벽에 걸려 있고, 그 가장자리엔 작은 종을 매단 종 틀이 서 있다.

거북산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
2000.7.23, 안혜경

거북산당 내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
2000.7.23, 안혜경

당의 오른쪽 측면에는 왼쪽부터 사해용왕님전, 옥황상제님전, 북두칠성님전, 삼불제석님전, 열두대신할머니전, 산신대감님전, 일곱칠성님전이라 쓰인 모두 7위의 무속신을 모신 위패용 액자 세 개가 있다. 이들 액자 오른쪽에 태극기 액자가 세워져 있고, 이전 당주였던 백씨 만신의 사진과 함께 염주가 둘러진 한 지고깔이 놓여 있다. 당의 왼쪽 측면에는 종 쪽으로 군웅단지라 하여 쌀을 담던 큰 독이 있다. 현재는 돈이 들어 있다. 그리고 당집 문 바로 맞은편으로 이웃 건물 벽에 붙여서 15㎝ 높이로 쌓아 올린 장방형 시멘트 단이 있다. 수원의 진산인 팔달산신을 모신 것이다. 단 한가운데에 정수를 담은 그릇이 놓여 있다. 옛 연못 자리에는 시멘트로 높게 쌓아 올린 우물이 있고, 그 바로 옆 북쪽으로 중간 크기의 은행나무 아래 서낭을 모신 단이 만들어져 있다. 단은 벽돌을 몇 개 괸 양쪽 받침 위에 화강암 판석이 여러 개 겹쳐져 있고, 그 위에 작은 동자승 인형과 1990년대 중반에 당주가 직접 깎은 용 모양(실제로는 뱀처럼 보임)의 머리를 한 소나무 막대기 한 개가 세워져 있다. 단 주위에는 여러 크기의 작은 바위 돌이 몇 개 흩어져 있다.

현재 당의 제단 구성은 일반적 무속 신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 마을 제당과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은 최초 당집 건립의 주체인 백윤남 만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백윤남의 입무(入巫) 내력을 보면, 갑자기 신이 내려 화성 팔달문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불렀다. 거북산신이 내렸다고 하면서 그 길로 거북산당에 가 치성을 드린 뒤 이 당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그래서인지 옛 당집 사진을 보면 제상(祭床) 양쪽에 태극기가 꽂혀 있다. 지금도 당집 안 벽에는 태극기를 넣은 액자가 걸려 있다. 그녀가 당집을 지으면서 비로소 도당할아버지·할머니와 대왕님의 탱화가 걸리게 되었고, 다양한 무속신이 함께 모셔지게 되었다. 신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 새롭게 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패가 놓인 위치나 모셔진 신의 종류는 항상 달라질 수 있다.

거북산당 관련 제의에는 크게 당고사 또는 당굿과 도당굿이 있다. 대개는 당고사로 불리는 소규모 제의가 치러지고, 제비가 넉넉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도당굿을 거행하였다. 당고사는 음력 시월 초이렛날에 치러지며, 도당할머니로 불리는 당주 임복례가 시장번영회의 도움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추렴을 통해 고사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인근에서 참여하는 만신들이 핵심 제물인 쇠머리를 준비해 오는 경우가 많다. 먼저 당고사나 도당굿을 거행하기 하루 전날 밤에 당주굿이라 하여 당주 또는 주무의 집에서 떡시루를 쪄서 자신이 위하고 있는 신들에게 미리 올린다. 당일 고사상에 쇠머리나 돼지머리, 떡시루, 과일 등 제물을 차려 놓고 아침부터 굿을 한다. 당굿은 만신의 청신과 치성 후 시장 상인들의 개별 치성으로 이어진다. 치성할 손님이 오는 대로 제를 올려 축원해 주기 때문에 굿이 끝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치성을 올리는 과정은 당고사 때나 보통 때의 개별 치성이 모두 같지만 당굿을 하는 만신이 있을 때에는 공수도 내려준다. 치성을 올리는 사람이 오면 먼저 도당할머니[당주]가 당의 왼쪽에 마주 놓여 있는 북과 종을 친다. 다음으로 신단에 치성자가 가져온 초를 놓고 불을 밝힌 다음 향을 사른다. 치성자의 제물은 원래 떡시루를 해 가져오지만 근래에 와서는 지폐를 제단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차(祭次)는 대왕님을 모신 다음 도당할아버지·할머니, 오른쪽의 칠성신을 비롯한 무속신을 모신 뒤 군웅에 상을 놓는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 팔달산과 광교산신을 청하여 마당에 있는 단에 상을 차려 놓고, 마지막으로 서낭에 손을 비비며 기원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편, 당주는 당고사 외에도 반드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제를 올린다. 특히 초하룻날에는 반드시 제를 올려야 한다. 이밖에 가끔 당에 공을 드리는 만신들이 찾아와 기원을 하기도 한다.

거북산당은 수원에서 큰 당에 속했으며, 제의 역시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도 무속 의례의 전형인 도당굿을 거행하였다. 경기도도당굿 굿판은 세습무인 화랭이[남무(男巫)]와 미지[여무(女巫)]가 이끌어 왔다. 거북산당 도당굿의 주무는 오랫동안 경기도 오산 출신의 화랭이 이용우 집안과 단골관계에 있었다. 이용우 사후인 1990년에 경기도도당굿이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될 때 그의 제자인 오수복이 기능보유자가 되었고, 오수복에 의해 매년 한 차례 날을 잡아 굿이 행해지고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시장 상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도당굿은 공동체신앙 의례로서보다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연례적 의무로 연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북산당의 영험은 "도당굿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 불이 잘 난다"고 하는 말로 대표된다. 도당굿을 중단한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시장 사람들이 한 해에 서너 명이나 죽어 나간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세상없어도 제를 올려야 한다고 당주나 당을 믿는 사람들은 말한다. 실제 자금이 없어 큰 굿을 못한 몇 년 동안 시장에 불이 나고 사람이 죽는 등 문제가 생기자 1994년부터 시장번영회 쪽에서 제수를 차려 와서 치성을 드려 액을 막은 적도 있다. 이런 일화는 거북산당이 도당신과 산신으로서의 일반적인 마을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예부터 거북, 연못, 하천 등 물과의 친연성으로 인한 수신적(水神的) 속성 또는 풍수적 신앙의 전통과도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신앙 현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도 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경기도의 굿**(하주성, 경기문화재단, 1999),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김지욱,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국역 화성성역의궤**(수원시, 1977), **수원시사**(수원시, 1997), **수원 영동 거북산당 신앙의 변화**(안혜경, 실천민속학연구 3, 실천민속학회, 2001).

필자 **안혜경(安惠敬)**

순창산동리남근석

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에 있는 남근석.

1979년 12월 27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4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인류의 생산 능력을 표상하는 원초적인 상징물로서 다산과 풍요를 비는 민간신앙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제작 연대를 15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 산동리 남근석은 석조각 1기로 되어 있다.

팔덕면 소재지 남쪽의 '팔왕터'라는 마을 앞에 남근석이 세워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미륵'이라고도 한다. 제작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크기는 높이 200㎝, 지름 150㎝이다. 화강암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이 남근석은 남성의 성기가 충분히 발기되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아랫부분에 연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에 이곳에서 아들을 원하는 부녀자들이 주변에 움막을 치고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음력 정월대보름날 밤에 음식을 장만하여 그 앞에 차려 놓고 아들 낳기를 빌었다고 한다. 아들을 두지 못한 사람은 이 마을에 이사하여 사는 것만으로도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1500년대에 한 청상과부가 두 미륵(남근석)을 치마폭에 싸 가지고 오다가 하도 무거워서 하나는 '미륵쟁이(창덕리)' 남근석이 있는 곳에 내려놓고 하나만 이곳 팔왕터로 가지고 왔다고 한다.

팔왕(八旺)마을은 풍수학으로 볼 때 여자가 누워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마을의 공동우물인 인정샘(人

순창산동리남근석
전북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 2010.6.20
이영배

情井)은 여체의 여근 부근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마을에 음기가 강하여 여아 출생률이 높아 후대가 끊기는 집이 많았으나 마을 앞에 남근석을 세워 양기를 북돋우자 사내아이 출생률이 높아져 후대가 끊긴 집이 없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타 마을 사람들이 '좆바위동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고 보기에도 흉하다고 하여 남근석을 넘어뜨렸다가 우물물이 황토색으로 변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남근석은 자손이 귀하거나 불임증이 있는 여자들이 옥동자 낳기를 기도하는 제를 지내면 사내아이를 보게 된다는 속설을 믿고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남성의 커다란 성기 모양의 남근석은 여성으로 생각되는 땅과의 상징적 '교합'을 이룸으로써 풍작을 비는 민간신앙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 식물을 자라게 하는 토지와 태양의 힘, 동물을 번식케 하는 힘, 나아가 인간 집단의 지속을 보장하는 인간 번식의 힘을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은 성에너지로 쉽게 인식됨으로써 매우 자연스럽게 남근석, 즉 성기 숭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산동리남근석의 경우 화강암으로 정교하게 조각되고 하단부에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점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현재는 이 남근석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세워 보호하고 있다.

참고문헌 **순창문화유산탐구** 2(전북전통문화연구소, 순창문화원, 2000), **아름다운 순창의 문화재**(순창문화원, 2005).

필자 이영배(李永培)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淳昌城隍大神事跡懸板)

상호참조 순창성황제(528쪽)

정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황신을 섬기던 기록을 적은 현판. 성황신앙의 변천과 이를 둘러싼 순창 지역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1992년 전북 순창에서 발견되었으며 2000년 1월 13일에 '중요민속자료 제238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이 현판은 순창의 옥천향토문화연구소(玉川鄕土文化硏究所) 고문이었던 조규동(曺圭東)에 의하여 순창 설씨 제각(祭閣)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순창읍 순화리 옥천동에 순창의 성황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헐리면서 설씨의 제각에 보관된 것 같다. 이 현판은 소나무로 된 송판 2장을 이어붙인 것으로 총 크기는 가로 180㎝, 세로 54㎝이다. 이 현판에는 총 73행 1,600여 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현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황대신사적(城隍大神事跡)

고려 설공검은 추밀원부사 신의 아들이다. 신의 어머니 조씨는 네 번 출산하여 여덟 아들을 낳았다. 세 아들이 과거에 올라 국대부인에 봉해졌는데 신이 그중의 하나이다. 공검은 고종 때 과거에 올라 관직이 참리(參理)에 이르렀을 때 나이가 많아 물러가기를 비니 중찬(中贊)을 가직하여 치사(致仕)케 하였다. 그가 죽자 문량의 시호를 내리고 충렬왕의 묘정(廟庭)에 배향하였다.

공검은 청렴하고 삼가며 정직하여 사물을 대할 적에 공손하였으며 검소함으로써 몸가짐을 삼았다. 조정의 6품 이상 관원이 친상(親喪)을 당하면 평소에 서로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반드시 소복을 입고 가서 조문하였다. 자기를 만나러 오는 자가 있으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신을 거꾸로 신고 급히 나가 맞이하였다. 일찍이 병이 들어 누워 있을 때 채홍철이 가서 진찰을 하였다. (공검이) 베 이불을 덮고 왕골 자리에 거처하여 쓸쓸하기가 중이 사는 것과 같았다. 채홍철이 나와서 탄식하기를 "우리 무리와 공을 보면 이른바 땅벌레가 황학에 비교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사적이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1214년(고종 원년)으로부터 가정(嘉靖) 42년(1563) 계해에 이르기까지는 350년이다.

사당의 책임자에게 첩문을 보낸다. 전해온 왕지(王旨)에 준한 것임.

순창의 성황대왕

위의 첩문을 만들어 올리는 일은 지원(至元) 18년(1281) 정월 초 9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인 염승익(廉承益)이 왕지(王旨)를 입으로 전달받아 송악을 수위(首位)로 삼아 국내 명산대천의 봉작을 더하여야 한다는 교지에 의거하여 '金紫光祿大夫 三韓功臣 門下侍…將軍 無量眷屬'으로 결정하여 첩문을 보낸다. 첩이 이르거든 준행하라.

지원 18년 9월 일에 총랑 조산대부 조○○ (서명)

지원 신사년(1281)으로부터 가정 계해년(1563)에 이르기까지는 282년이다.

순창(淳昌) 성황대부(城隍大夫)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위의 첩문을 만들어 올리는 일은 원정(元貞) 2년(1296)에 왕지가 있었고 이를 다시 보고하여 대덕(大德) 원년(1297) 11월 초 9일…… 명산대천 신지들의 존호를 더 높게 하라는 교지가 있다는 전리총랑(典理摠郎) 임중원(林仲沅)의 보장(報狀)에 근거하여……

대덕 원년 정유년(1297)으로부터 가정 계해년에 이르기까지는 267년이다.

이제 위대하도다. 우리 성황은 본군(本郡) 설씨 가문의 어른으로 높고 높은 문벌의 씨족이다. 성품과 행동이 맑고 수려하여 일찍이 과거에 합격하였다. 청렴하고 정직하며 덕이 두루 미치고 인(仁)에 화협(和協)하여 관위가 1품에 이르러 삼한공신이 되었다. 성황신에 의탁하니 영험이 많아 국제(國祭)에까지 이르렀고 여러 번 봉작을 더하여 어인(御印)을 찍은 첩문을 받은 것이 많이 있다. 세월이 아주 오래되어 국제는 혁파되었으나 이후 온 경내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받들어 삼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스스로 이어져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았고 길에 이어짐이 끝이 없다.

매년 5월 1일에서 5일까지 향리 5명을 번갈아 정하여 각자 그의 집에 당을 설치하여 대왕이 부인을 거느리게 하고 큰 깃발을 세워 표시하였다. 무격(巫覡)의 무리들이 어지럽게 무리지어 모이고 나열하여 재주를 부리며 순행하여 제사를 받드니 역시 지금껏 폐지되지 않은 것은 영신(靈神)의 덕이 사람들의 눈마다 엄숙하였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의 큰 은인(恩人)이신 능성 양씨(綾城 梁氏)는 본래 문벌 좋은 씨족으로 일찍이 생원시에 장원을 하였고 다음에 과거에 올랐다. 또 금시(金試)에 장원으로 올라 문명(文名)이 자자하였고 성품과 행동이 뛰어나고 우아한 한림학사이다. 올해 중춘(仲春)에 군수가 되어 대신(大神)을 모시는 실상을 살펴보니 무격의 무리들이 어지럽고 혼잡스러우며 마을에 횡행하기에까지 이르러 그 폐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진실로 가히 부당하였다. 음사(淫祀)를 물리침과 더불어 어긋난 도(道)의 어지러움을 바르게 한 뒤에 다만 초하루와 보름에만 제사를 거행하되 제물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안전(眼前)에서 부리는 믿을 만한 아전을 보내어 제사 지내는 전일에 재계(齋戒)를 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행하게 하였다. 5월 초하룻날 또 이방 옹세언, 의생 오인호와 축문을 맡은 공생 임대춘을 보내어 역시 의식대로 재계를 하고 지성으로 제사를 행하게 하였다. 이방 옹세언이 전에 직첩(職牒)이 사우(祠宇)에 있다는 말을 듣고 꺼내오게 하여 열어 보니 과연 많았다. 그러나 좀이 먹어 파손되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많아 단지 몇 장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현판에 기록하여 새기어 후세에 보여주는 것이니 무릇 대소 인원들은 공경하고 공경할지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산성(山城)의 대모(大母)가 원초(元初)에 그의 아홉 아들을 거느리고 성터를 굳게 쌓아 군의 웅거(雄居)를 만들고 곡물을 많이 쌓아 두었다. 이어 관가에 귀속시켜서 나라의 곡식이 되게 하였다"하니 그 공이 막대(莫大)하다. 이에 영신(靈神)을 얻어 태수가 친히 나가 전을 드리니 그 세월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인하여 폐지하고 대신 안전(眼前)의 통인(通引)을 보내어 매년 4월 그믐날 관대를 단정히 하고 말을 타고 가니 앞뒤에는 걸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사람들이 벌려 서서 재주를 부리기도 하였으니 지금까지 그대로 이를 지켜 행한다. 가물으면 비를 빌었으니 그 영신의 은덕이 또한 온 경내의 백성들에게 미쳤다. 아! 지극하도다. 이 역시 끝에 붙여 새긴다.

이 첩문은 가정 계해년(1563) 여름에 호장 조인형, 이방 옹세언 등이 기록하고 임백이 쓴 것이다. 현판이 먼지에 파묻혀 새긴 글자가 희미해졌다. 호장 임명룡, 이방 최원립, 유사 임경복이 힘써 다시 새겨 그 전하여짐이 영원하게 하였다. 숭정(崇禎) 6년(1633) 계유 9월 하간(下澣, 下旬)에 옹효증이 쓰다.

공경히 생각건대 높으신 신명은 살았을 적에는 진신(縉紳)이었고 죽어서는 영령(英靈)이 되었다. 고려조(高麗朝) 이후로 책봉한 예가 높고 지극하였고 나라와 지방관아에서 제사를 지내었으니 다 기술할 수가 없다. 위에서 서술한 여러 가지를 상고해 보면 남긴 자취가 밝게 드러나 높고 높은 성덕을 다 기록할 겨를이 없다. 중고(中古)로 내려오면서부터 의식이 중간에 방치되었으므로 바꾸어 전을 드리는 일을 처음으로 거행하게 되었다. 세월이 여러 해 흐르고 사우(祠宇)가 수차

례 변고를 만나 고민하던 차에 경신년(1740)에 전 호장 임계욱이 개연히 새롭게 하고자 하여 무격의 무리들로 하여금 재물을 모아 감독하여 수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당의 모양, 방향 및 배치가 잘못되었으며 또한 자못 좁아서 신을 공경하고 길이 모실 곳이 못 되었다. 2년이 지나 계해년 여름에 전 천총 임대영 · 전 호장 최덕겸 · 박영석 등이 옛 사당을 철거하고 바꾸어 이를 새롭게 하였는데 옛 규모를 크게 늘리고 이어서 색깔을 칠하니 당우(堂宇)의 화려함은 모름지기 도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건곤(乾坤)의 신상을 공경히 고쳐 아름답게 하니 그 분칠한 얼굴과 위엄 있는 모습이 살아 있는 것과 흡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씻고 보게 하였다. 일이 열흘을 넘자마자 완성하였음을 고하니 강개한 마음으로 일을 능란하게 잘 처리하고 정성으로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그렇게 되었겠는가. 대체로 우리 아전이 일을 맡은 이래로 향리들이 여기에 부지런히 한 것은 전후에 한결같았다.

이제 이 임대영은 곧 위에 말한 임명룡의 손자이고 최덕겸은 곧 최신의 형 최인의 5대손이고 임계욱은 곧 임백의 5대손이다. 이들이 선대의 업적을 이어 아름다운 일을 실천한 것은 가히 가상하다 하겠다. 옛 일을 더듬고 지금의 일에 감상하는 탄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하고 간절하게 하니 이 또한 우리 고을이 이 신당에 정성을 두었다는 것을 알겠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니 어찌 밝게 응험하여 영원히 이어줄 도가 없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한갓 헛되이 남의 공덕을 부러워하여 어리석고 졸렬한 혐의를 까맣게 잊고 감히 거친 말로 남 대신 이 글을 지어 그 아름다운 일을 드러낼 뿐이니 인하여 뒤에 뜻있는 자가 있어 뒤를 이어 보수하기를 기다린다.

건륭 8년 계해년(1743) 단양절(端陽節)에 창령 조정옥은 참람히 짓고 호장 초계 최대겸은 삼가 쓰다.

가정 계해년(1563)으로부터 지금 계해년(1743)까지는 모두 181년이고 숭정 계유년(1633)으로부터 지금 계해년(1743)까지는 111년이다.

화사 임대영 최덕겸 임계욱 박영석
별좌 백광채
시임
호장 최대겸　이방 조하욱　부호장 최득배
부이방 임계욱　호방 이중배　예방 설창연
병방 조정옥　형방 주성록 조후영
공방 이중무　승발 김만제　도서원 이중성
미대동색 임계욱　목대동색 박영석
본창색 이계흥　영창색 박영석　포보색 최준겸
산성색 최득배　사창색 이중채　관청색 최중석
금승색 박성번　어영색 이중엽
통인 임세우 임계엽　목수 이계학 김영
공향 승 심열　각수 승 만기　당한 김

계해년(1743)에 중수한 지가 지금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터가 꺼져 홀연히 신당이 무너졌다. 관가에 고하고 읍민에게 선포하여 힘을 합쳐 고쳐 세웠다.

건륭 19년 갑술년(1754) 10월 15일
호장 임계진　이방 최대겸　성조색 성득후

건륭 19년 갑술년 10월 일에 중건한 지 70년에 이르러 또 무너졌다. 각 관청이 서로 의논하여 재물을 내어 옛 재목을 철거하고 규모를 크게 늘리어 새로 지었는데 향중에서 각 면의 향청에도 힘을 돕도록 하여 고쳐 지었다.

도광(道光) 3년 계미년(1823) 5월 일
시임 호장 임준효
이방 조익환
감관 설경지
색리 최석후 신성욱

이 「성황대신사적」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고려시대에 존재했다고 하는 지원(至元) 18년(1281)의 공문과 대덕(大德) 원년의 기록에 이두(吏讀) 문자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에는 각종 공문이나 금석문에 가끔씩 이두가 쓰인 예가 있다. 따라서 「성황대신사적」의 고려시대 공문에 이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지원 18년의 공문은 『고려사』 충렬왕세가의 '중외의 성황과 명산대천으로 사전(祀典)에 올라 있는 것은 다 덕호(德號)를 가하였다'라는 기록을 반영하고 있어 자료의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두 번째는 이 기록이 순천의 성황신앙에 대한 각기 다른 시기의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만 설공검에 대한 기록은 맨 앞에 배치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조선 후기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순창 성황신의 주신(主神)이 설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순창장류박물관, 2009.10.18, 강신영

성황대신사적현판(좌측)

성황대신사적현판(우측)

공검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의 것을 참조하지 않고 조선시대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전재(轉載)하여 놓은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조선 후기 순창 지역 향리의 입장에서는 『고려사』를 구해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서두의 설공검 기사 뒤로는 모두 시대 순으로 정리함으로써 순창의 성황신앙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천사를 살펴보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성황신으로 남신과 여신 한 쌍의 신이 모셔졌다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남신인 대왕이 여신인 부인을 거느렸으며 건곤(乾坤)의 신상(神像)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신의 형태도 그림이 아닌 실제 모습과 같은 상(像)을 깎아 모셨다는 점도 특이하다. 기록에는 '건곤의 신상을 공경히 아름답게 하였는데 그 분칠한 얼굴과 모양이 살아 있는 모습과 흡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씻고 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왜 이러한 두 신이 모셔지게 되었는지는 학자들이 규명할 일이다.

네 번째 특징은 성황신으로 무신이 아닌 문신이 모셔졌다는 점이다. 성황신의 본래 기능은 수호신이다. 따라서 기록을 보면 무신이나 장군들이 모셔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최영 장군이라든가 당나라의 장군이었던 소정방, 고려 태조의 휘하 장군이었던 신숭겸 · 김홍술 등이 성황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그러나 순창의 성황신은 과거에도 합격하여 재상의 자리에 오른 문신 설공검이 모셔진 것이 독특하다.

다섯 번째 특징은 성황신을 언급하면서 대모산성(大母山城)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대모를 여신으로 모신 데서 연유한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성황신앙의 본래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조선 후기나 현재의 시각으로 성황신 또는 서낭신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으나 성황신의 본래 성격을 알면 납득이 가는 문제다. 본래의 성황신은 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황신앙의 변천과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여섯 번째는 순창 성황사의 중수와 변천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향리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향리들이 지방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성황신에의 제사에는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조선시대 지방 세력의 구조가 어떠했으며 시대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고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자가 틀린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제법 발견된다는 점이다. 글자가 파손되어 알 수 없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보이는 곳에도 틀린 부분이 많다. 특히 시대가 앞서는 기록에 많이 있다. 예컨대 3행의 마지막 부분에 '충렬왕묘정(忠烈王廟庭)'을 '충렬왕조정(忠烈王朝廷)'이라 한 것을 비롯하여 '왕지(王旨)'를 '왕지(王至)', '삼한공신(三韓功臣)'을 '삼한공신(三韓公身)', '전리총랑(典理摠郎)'을 '경리총랑(京里摠郎)'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틀린 부분이 있는 이유는 세월이 오래되어 좀먹고 파손된 부분을 수정하는 사람이 추측하여 보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처음 현판이

오래되어 다시 제작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글자를 보충해 넣을 때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대의 시대상황을 고찰하여 바로잡으면 될 부분이다.

참고문헌 **고려시대 순창의 지방세력과 성황신앙**(김갑동, 한국사연구 97, 한국사연구회, 1997),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순창성황당 현판에 대하여**(남풍현, 고문서연구 7, 한국고문서학회, 1995), **순창성황당 현판의 판독과 해석**(남풍현,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순창성황대신사적 현판의 발견과 그 고찰**(양만정, 옥천문화 1, 옥천문화원, 1993), **순창 성황제의 변천과 주도세력**(이해준, 역사민속학 7, 역사민속학회, 1998), **순창의 성황신과 성곽설화**(송화섭, 역사민속학 7, 역사민속학회, 1998), **조선 시대의 성황제**(김철웅, 사학지 35, 단국사학회, 2002), **조선중기 전라도 순창군 성황제의의 성격**(정승모, 역사민속학 7, 역사민속학회, 1998).

필자 **김갑동(金甲童)**

순창성황제(淳昌城隍祭)

상호참조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524쪽)

정의 1214년부터 1823년까지 600여 년 동안 전라도 순창에서 거행된 지역수호신에 대한 제사의식.

유래 및 역사 「성황대신사적(城隍大神事跡)」을 바탕으로 1214년부터 시작되어 1823년까지 600여 년 동안 지속된 성황제의 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순창성황제의 대상이 된 성황신은 남신인 설공검(薛公儉)과 여신으로 이루어진 부부신이었다. 순창의 성황신으로 모셔진 설공검은 1224년(고려 고종 11) 설신(薛愼)과 그 부인 밀양 박씨(密陽 朴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강화도의 교동감무(喬同監務)를 시작으로 관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를 지낸 뒤 고종 말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예부낭중(禮部郎中)이 되었다. 그가 관직에 취임한 이후 과거에 등제한 것을 보면 초직(初職)은 아버지 설신의 음덕, 즉 음서(蔭敍)로 관직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부(父)나 조(祖)가 5품 이상이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설공검이 과거 등제 이전에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설신이 정3품인 추밀원 부사와 형부상서, 정2품인 상서좌복야를 지냈기 때문이다.

그 후 1271년(원종 12)에는 군기감(軍器監)으로서 세자 심(諶, 후의 충렬왕)을 모시고 원나라에 가게 되었다. 이때는 고려가 강화도에 들어가 몽골에 항거하다 개경으로 환도한 이듬해로 세자와 더불어 상서우승(尙書右丞) 송분(宋玢), 호부낭중(戶部郎中) 김서(金惰), 군기감 설공검 등 의관 자제 20여 명, 유관 관청 직원 100여 명이 인질로 원(元)에 가게 된 것이다. 이때 세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후일 충렬왕조에 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이 틀림없다. 이 공으로 우부승선(右副承宣)이 되고 1278년(충렬왕 4)에 좌승선이 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아들인 설지충(薛之冲)을 독로화(禿魯花, 인질을 의미)로 몽골에 들여보냈다. 그해에는 또 밀직부사로 승진하여 '필사적(必闍赤, 재상급)'이 되었다. 이때 필사적으로는 설공검과 더불어 김주정, 박항, 이존비, 염승익, 조인규, 이지저, 인공수 등이 임명되었다. 곧이어 감찰대부(監察大夫)·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를 거쳐 첨의참리(僉議參理)로 승진하였으며, 찬성사(贊成事)를 거쳐 첨의중찬(僉議中贊)으로 치사하였다. 첨의중찬은 고려 전기의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 만든 첨의부의 최고관직으로서 종1품에 해당하는 관직이었으니 그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설공검은 충렬왕의 묘정(廟庭)에 배향되는 영광을 누렸다.

『고려사(高麗史)』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따르면 설공검은 성격이 청렴하고 정직하였으며, 남을 대할 때는 공손하고 검소하게 지냈다. 그는 조정의 관리로서 6품 이상 되는 자가 친상(親喪)을 당하면 반드시 소복을 입고 가서 조문하였고, 자신을 찾는 사람이 집에 오면 관품에 관계없이 신을 거꾸로 신을 정도로 급히 나가 맞이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그가 병이 들어 누워 있을 때 채홍철(蔡洪哲)이 진찰을 하러 가 보니 그는 베 이불을 덮고 왕골자리를 깔고 있는 등 거처하는 모습이 중과 같았다고 한다. 채홍철은 감탄하여 말하기를 "우리와 설공(薛公)을 비교한다면 이른바 벌레와 황학(黃鶴)의 차이와 같다"라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는 「성황대신사적」의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한편 설공검 옆에 모셔진 여신은 원래 조씨(趙氏)였다. 즉 설공검의 선조인 설자승(薛子升)이 1126년(인종 4)에 이자겸의 난을 피하여 순창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처가 바로 순창 조씨 조영숙(趙永淑)의 딸이었다. 이들이 여기에 세거하면서 고려 후기 설공검과 순창 조씨 가문의 부인이 부부신으로 모셔졌다. 물론 제사도 이들 가문이 주관하였다. 그러다가 고려 말엽에 순창 조씨의 세거지가 분산되면서 그 공백을 옥천 조씨(玉川 趙氏)가 메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신인 순창 조씨가 옥천 조씨로 바뀌었다. 그러나 둘 다 조씨였기 때문에 여신은 조씨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들 성씨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순창의 토착 세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순창성황제는 폐지되지 않고 존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교의 확대와 더불어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제일을 삭망일(朔望日)로 바꾸는 한편 난잡한 무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전들을 파견하여 독축(讀祝)을 하게 되었다. 한편 1379년(우왕 5)부터 순창에서 내려와 살게 된 남원 양씨(南原 楊氏)가 과거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면서 순창의 성황신 가운데 여신이 남원 양씨로 바뀌었다.

순창 설씨나 옥천 조씨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과거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향리에서의 위세도 약해져 갔다. 이러한 토착 성씨들의 퇴조 현상과 함께 이후 새롭게 이거하여 정착한 성씨들이 순창성황제를 주도하게 되었다. 임씨(林氏)·옹씨(邕氏)·최씨(崔氏) 등이 그들이다. 그리하여 순창성황제의 조선 후기 주도층은 향리성(鄕吏姓)으로 고착된 일부의 순창 설씨와 조씨,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임·옹·최씨들로 교대되었다. 한편 순창 설씨와 조씨들 가운데 조선 전기에 사족화한 세력들은 1785년(정조 9)에 자신들의 선조인 고려시기 인물 설공검(薛公儉)·설인검(薛仁儉)·조원길(趙元吉)을 주자(朱子)와 함께 무이서원(武夷書院)에 제향함으로써 별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처럼 순창의 성황제는 지방 세력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시대에 따라 주관의 주체가 조금씩 달랐다. 고려시대의 성황제는 지방의 향리 집단과 무격 집단이 주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후 성리학적 지배 질서 확립 차원에서 성황제를 지방관이 주재하고, 제사 물품도 관아에서 조달하였다. 이것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속현이 없어지고 거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어 중앙집권력이 강화되는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향리의 주도권이 약화되어 갔지만 향리 세력들은 지방에서의 성황제를 비롯한 제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겉으로는 지방관이 지방의 제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향리를 비롯한 지방 세력이 여전히 성황제를 주관하였다. 이에 따라 유교로 무장한 지방관과 전통 신앙을 지키려는 향리 세력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즉 국가에서는 유교적 관점에서 성황제를 음사(淫祀)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 내지 통제하려 하였으나 향리 세력과 무격(巫覡) 집단은 이를 유지, 보존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계속적인 통제로 순창의 성황제도 변화되어 갔다. 정부의 음사 규제로 1563년쯤 순창의 성황제는 무격 중심에서 유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위상도 격하되었다. 이전까지 지방관이 직접 통제하고 주관하던 것이 아전이나 이방, 의생, 공생 등 하급 관속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변화됐다. 지방관이 주관하는 성황제와는 달리 향리들이 읍의 통치를 위해 주도하는 성황제가 따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성황대신사적」에도 1563년 현판 제작과 1740년 성황사 보수에 앞장선 세력들의 명단에 호장(戶長)과 이방(吏房)들이 기록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실제 제의를 주관하는 집단은 여전히 무격이었음도 알 수 있다.

순창성황제는 매년 음력 5월 1일부터 5월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인 5월 5일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하는 단오절(端午節) 또는 단양절(端陽節)이다. 단오절인 5월 5일은 파종을 끝낸 뒤 약간의 휴식이 가능한 날이어서 이 때 성황제를 지냈다. 이로써 성황제는 지역민들의 축제가 되고 단합도 도모할 수 있었다. 즉 순창성황제는 단오절에 거행되는 지역 수호신에 대한 제사 의식이다.

순창성황제의 대상인 성황신들에게는 작호가 있다. 남성황신의 작호는 '금자광록대부 삼한공신 문하시○ ○○장군(金紫光祿大夫 三韓功臣 門下侍○ ○○將軍)'이고, 여성황신의 작호는 '성황대부 삼한국대부인(城隍大夫 三韓國大夫人)'이다. 이는 모두 국가에서 내린 작호이다.

내용 「성황대신사적」의 기록을 근거로 제의 절차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황제를 지내기 전인 사월

그믐날에 이 지역의 대모산성에 올라가 성황기(城隍旗)를 들고 성황신의 혼을 불러온다. 여성황신의 혼백은 상자에 받고 대기(大旗)에도 받는다. 그리고 본당인 성황당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강신의례(降神儀禮)이다. 그날 파견된 지방관속은 사모관대를 단정히 하여 말을 타고 간다. 그 앞뒤에는 걸어서 따르는 무리가 있고, 사람들이 벌려 서서 재주를 부리기도 한다. 이때 마을에서는 성황당 주변과 당산 나무에 금줄을 치고 부정을 타지 않게 한다. 제사를 주관할 사람은 목욕재계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금한다. 대모산성에서 내려온 성황대기와 혼백상자는 성황사에 봉안한다.

오월 초하룻날이 되면 설공검을 모신 성황사에서 본격적으로 제의가 시작된다. 지방관이나 아전은 성황대왕과 성황대부인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혼백상자를 열어 성황신 부부의 합위의식(合位儀式)을 거행한다. 그 후 무당들은 굿을 하여 성황대기에 두 신위의 혼백을 받는다.

이러한 의식이 끝난 뒤에는 향리와 무당들이 주관하는 공동 제의가 거행되면서 지역 축제가 시작된다. 향리 가운데 세력이 있는 다섯 명의 집에 가설 성황당이 설치되고 닷새 동안 번갈아 가면서 제의가 행해진다. 가설 성황당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설씨대왕(薛氏大王)과 양씨대부인(楊氏大夫人)의 혼백을 담은 대기를 앞세우고 무당들이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린다. 성황신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다. 이를 오신의례(娛神儀禮)라고 한다.

가설 성황당에서의 제의가 끝나면 성황사 앞 큰 마당에 와 축원 의례와 함께 단오절 행사가 거행된다. 윷놀이, 줄타기, 꼭두각시놀음 등이 행해진다. 한바탕 즐겁게 논 다음 성황신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송신의례(送神儀禮)이다.

의의 순창의 성황제는 지방관과 향리, 무격,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한마당의 축제로 거행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의식을 공유한 동일집단이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시대 순창의 지방세력과 성황신앙**(김갑동, 한국사연구 97, 한국사연구회, 1997),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순창성황당 현판에 대하여**(남풍현, 고문서연구 7, 한국고문서학회, 1995), **순창성황당 현판의 판독과 해석**(남풍현,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순창성황대신사적 현판의 발견과 그 고찰**(양만정, 옥천문화 1, 옥천문화원, 1993), **순창성황제의 변천과 주도세력**(이해준, 역사민속학 7, 역사민속학회, 1998), **순창의 성황신과 성곽설화**(송화섭, 역사민속학 7, 역사민속학회, 1998), **조선시대의 성황제**(김철웅, 사학지 35, 단국사학회, 2002), **조선중기 전라도 순창군 성황제의 성격**(정승모, 역사민속학 7, 역사민속학회, 1998).

필자 김갑동(金甲童)

순창창덕리남근석

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창덕리에 소재하는 남근석. 1979년 12월 27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5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창덕리남근석은 석조각 1기로 되어 있다.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이 남근석은 높이 165㎝, 둘레가 145㎝이다. 산동리남근석과 마찬가지로 150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동리남근석이 있는 '팔왕터' 마을에서 남쪽으로 1.5㎞쯤 가면 태촌마을이 나온다. 태촌마을 건너편 앞산 아래에 창덕리남근석이 있다. 산동리남근석과 마찬가지로 이곳 남근석도 제작 연대와 제작자는 알 수 없다. 모양은 산동리남근석과 비슷하며, 화강암에 연화 무늬를 조각하였다. 조각은 정교하고 대담하며, 연꽃을 새겨 넣은 점이 독특하다. 높이 165㎝, 둘레 145㎝로 산동리남근석보다 작다.

순창창덕리남근석
전북 순창군 팔덕면 창덕리, 2010.6.20 이영배

순창창덕리남근석
전북 순창군 팔덕면 창덕리, 2010.6.20 이영배

전설에 따르면 1500년대에 한 걸인이 태촌마을에 살면서 결혼하지 못함을 비관하여 남근석을 조각하여 세웠다고도 하고, 청상과부로 지내던 한 여인이 세웠다고도 한다.

원래 남근석은 자손이 귀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제를 지내면 어린아이를 볼 수 있다는 속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창덕리남근석 역시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이곳에 와서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부녀자가 음식을 장만하여 공을 드린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남근석을 '미륵'이라고도 부른다.

예전에는 짚으로 이엉을 엮어 남근석을 덮어 두기도 했으며 현재는 이곳 남근석도 산동리남근석과 같이 주변에 철책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참고문헌 **순창문화유산탐구** 2(전북전통문화연구소, 순창문화원, 2000), **아름다운 순창의 문화재**(순창문화원, 2005).

필자 이영배(李永培)

순천구산용수제(順天九山龍水祭)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에서 마을의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내는 마을 제사. '화신제(火神祭)' 또는 '물보기제'라고도 한다. 순천구산용수제는 1997년 5월 15일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용수제가 전승되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는 본디 그 형국이 거북을 닮아 구산(龜山, 거그뫼)이라 했으나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때 구산(九山)으로 표기해 본 뜻이 바뀌었다. 이 마을은 순천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옥천 조씨(玉川 趙氏)의 본터로, 1400년대 중반에 정읍현감을 지낸 조지곤(趙智崑)이 입향했다고 전한다. 용수제의 기원은 이곳에 처음 터를 잡은 조씨 성과 연관이 있다. 이 동네에서 동남쪽을 바라보면 오성산(五聖山, 606.2m)이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고 있다. 이는 화방 또는 화국(火局)이라 하여 목성(木性)인 조씨 터로는 목생화(木生火)로서 상생(相生)의 명당이다. 그러나 이곳이 화(火)가 직충(直衝)함인지 화재가 자주 일어났고, 이를 보고 사람들은 조씨가 많은 구산마을이 불티나무를 자주 보고 있어 화재가 잦다고 판단하였다. 곧 마을에서는 화기(火氣)를 진압하고자 정월대보름날 해질녘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용수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순천구산용수제는 1994년 제22회 남도문화제 최우수상, 1995년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민속놀이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내용 화신제는 처음에는 화재를 막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마을 어귀에 짐대를 세우고 그 끝에 오리 형상을 만들어 달아 "여기에는 오리가 사는

물이 있으니 화마는 접근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정월대보름날 화신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1. 짐대 세우기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동네 앞에 모여 인근 산의 솔밭에 가서 가장 크고 긴 짐대를 메고 온다. 짐대를 내릴 때는 끌어당길 수 있도록 새끼로 앞목을 묶고, 옆받침 기둥을 넣어서 어깨에 메며, 뒤편에서는 옆 기둥을 아래로 낮추어 손으로 잡고 내린다. 이때 굿(사물)을 치고 거의 외설에 가까운 선소리와 함께 흥겹게 짐대를 내린다. 짐대를 내릴 때 소리는 일정하지 않고 〈어얼사 더리덜렁〉, 〈얼널러 상사디야〉 등을 불렀다.

앵무새 같은 시누 물에나 풍덩 빠져 죽지
얼널러 상사디야
낙자장사가 나를 홀려 낸다.
얼널러 상사디야
밤일 하는 데는 붕알이 날개다
얼널러 상사디야
구정물통에 호박씨 떴다.
얼널러 상사디야
과부 요강에는 똥이 동동 떴다.
얼널러 상사디야

이런 소리와 더불어 굿을 치고 내려와서는 짐대를 메고 마을을 돌아다닌 뒤 불의 방향인 동쪽의 불기운을 막기 위해 6m 정도의 장대 위에 오리를 앉혀 동쪽을 향해 세워 놓고, 짐대와 제사터 주변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쳐서 깨끗하게 한다. 짐대를 세울 때(3년 주기)는 〈다구질 소리〉 등의 짐대놀이가 연희(演戲)되기도 한다.

2. 화신제 준비 용수제의 주관은 동네 이장(지금은 보존회장)이 맡는다. 제의 준비는 짐대와 제터 주변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쳐서 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제물은 돼지머리, 다섯 가지 과일, 포, 쌀 등을 장에서 구입하여 미리 정한 제관 집(지금은 보존회 총무 집)에서 조리를 한다. 비용은 지난해 용수제의 뒤풀이로 희망하는 집을 돌면서 마당밟이를 해 모은 돈으로 충당한다.

3. 화신제 절차 제사는 정월대보름날 오후 5시 석양무렵 제사터에 제물을 차려 놓은 뒤 홀기에 따라 유교식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은 전남지방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동제(洞祭)와 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제의에 앞서 옛날부터 땅속에 묻어 둔 항아리의 물을 보고 점을 치는 '물보기'라는 예점(豫占)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곧 지난해 용수제 때 항아리에 채워 놓은 물의 양이 많이 줄어 있으면 그해 비가 잦고, 적게 줄어 있으면 가뭄이 들 것으로 여긴다. 용수제가 끝나면 곧바로 짐대가 있는 곳으로 옮겨 짐대제를 지낸다.

4. 화신제 뒤풀이 화신제와 짐대제가 끝나면 뒤풀이라 할 수 있는 달집태우기 놀이가 이어지고, 동네 마당밟이를 마지막으로 순천구산용수제는 끝이 난다.

의의 순천구산용수제는 마을의 풍수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거행되는 마을신앙으로, 풍수신앙으로 확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민속신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용수제는 마을신앙인 동시에 공간민속이다.

참고문헌 **순천문화재이야기**(순천시, 2007), **순천시의 문화유적**(순천대학교박물관, 1992), **승주향리지**(승주군, 1986).

필자 **표인주(表仁柱)**

신대

정의 우리나라 민속 신앙에서 하늘이나 산속, 또는 신당에서 신을 받거나 옮길 때 쓰는 대나무나 서낭대.

어원 신을 받거나 금역을 표시하는 대나무 등을 신대 혹은 신간(神竿)이라 한다. 농기나 솟대도 신대에 해당한다. '신대'의 어원은 '신을 받는 대나무'로, 이를 줄여 '신대'라 한다. '신간'은 신대의 '대' 대신에 한자인 대나무 '간'자를 쓴 것이다. 솟대의 목간(木幹)은 나무로 된 긴 서까래를 말하는데, 나무 '목'자와 줄기 '간'자를 합하여 '목간'이라 하였다.

강릉단오제 생목신대
강원 강릉시
1988.6.18. 배도식

형태 마을에서 동제를 주관할 제관을 뽑을 때 쓰는 신대는 비교적 작은 2~3m의 생죽(生竹)을 쓰는데, 아랫부분은 가지를 쳐 버리고 상부의 사분의 일 정도에만 가지와 잎을 달아 쓴다. 무당이 개인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신대의 크기도 이것과 비슷하다. 별신굿을 할 때 쓰는 신대는 이보다 큰 것을 쓰는데 보통 5~6m의 생죽을 이용한다.

서낭대는 굵고 긴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손으로 잡는 아랫부분은 맨 대나무로 두고, 그 위로는 흰 베를 감아서 보호하며 상부의 꼭대기에는 꿩의 꽁지를 매단다.

농기도 서낭대와 같은데, 옷을 입힌 것도 있고 입히지 않고 윗부분에 농기를 매달아 사용하는 것이 많다.

솟대는 긴 서까래 나무를 이용하는데, 주로 소나무나 오리나무를 쓴다. 가늘고 긴 나무를 잘 다듬어서 그 위에 오리 모양의 나무새[木鳥]를 앉혀서 완성한다. 솟대의 높이는 지역마다 다르다. 대개 5~10m 정도가 많다.

생목신대는 살아 있는 나무에 채단을 감아 신목으로 쓴다. 영산 영명사의 단오제, 함양 마천 오도재 서낭당에서 그러하다. 산에 있는 생목을 베어 신대로 사용하는 예도 있는데, 대관령성황당에서 성황신을 모시고 내려오는 신목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금역 신대는 동제당이나 밥무덤 등의 신역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세우는 신대이다.

내용 좁은 의미의 신대는 동제신대와 굿당신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제관을 뽑는 데 쓰는 동제신대이다. 동제를 지낼 때는 제사를 맡아 주관할 제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막상 제주가 되면 금기가 엄격하였기에 아무나 섣불리 이를 수락하려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시켜 대를 잡아 제관을 뽑는다. 이때 쓰는 것이 동제신대이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의 경우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대를 잡는 여인이 목욕재계하고 마을 풍물패와 함께 동제당으로 간다. 제사를 올리고 나서 대를 잡으면 신이 강신했다는 표시로 대나무가 떨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잡이 여인은 신대를 잡고 마을로 들어와 제관이 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은 이 신대를 보고 합장하며 절을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신대가 그 사람을 사정없이 후려치는데, 대잡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 한다. 신대가 들어간 그 집에서는 상을 차려 정화수를 올리고 신대를 정중히 모시게 된다.

둘째로 무당이 쓰는 굿당신대이다. 무당이 별신제 같은 큰굿을 할 때는 신대를 세워 하늘의 신인 천왕이나 마을신인 동신의 강림을 받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대는 상당히 큰 것으로 윗부분에 잎이 붙은 생죽을 쓴다. 신이 쉽게 강림하면 좋은데, 만약에 무슨 부정이 있어 신이 응하지 않으면 여러 번 강신을 시도한다. 풍어를 위한 별신굿을 할 때는 첫날 굿당 앞에 신대를

밀양 퇴로리 동제 신대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1993.2.1. 배도식

세우고 신내림(강신)부터 맨 먼저 하게 된다.

마을의 동제 때나 풍어굿을 할 때는 대를 잡아 신의 강림이 있어야 마을 행사를 치를 수 있으므로 이때 신대는 신이 내려앉는 이동식 거처인 셈이다.

서낭대는 서낭신이 내려앉는 신대이다. 평소에는 동제당이나 서낭당에 고이 모셔져 있지만, 이 서낭신이 필요에 의하여 나들이를 할 때에는 서낭대를 대령하여 여기에 옮아 좌정하도록 한다. 말하자면 서낭대는 이동식 신당인 셈이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의식을 차리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서낭신을 모신다. 술을 붓고 고한 후에 서낭기와 서낭대를 모셔 낸다.

서낭대가 외출할 때에는 격식을 차려 몸체에 하얀 광목으로 둘둘 말아 장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두고 '서낭대에 옷을 입힌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서낭기를 정중히 달고 이를 꼿꼿이 세워 두 손으로 받들어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서낭대가 바깥출입을 할 때는 대개 마을에 큰 행사가 있든지 정월대보름날 서낭대 싸움이 있어 출전할 경우이다. 마을 사람들은 서낭기든 서낭대든 다 신체로 여기므로 이에 대한 외경은 대단하다.

동제를 지낼 때 서낭대에 신이 내렸는지 아닌지는 서낭대의 움직임으로 간파한다. 밀양 청운리나 영산

공주 유구 문금리 신대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2010.6.11, 배도식

영산 영명사 생목신대
충북 영산 영명사
2010.6.16, 배도식

의 죽사리 서낭대는 신이 내리면 신대가 떨린다고 한다. 안동 하회 별신굿의 서낭대나 은산별신제의 신장기는 꼭대기에 매달아 놓은 방울이 울면 신이 내린 것으로 안다고 한다.

영산의 마을 서낭대 싸움에서는 동부와 서부의 서낭대가 놀이마당 가운데에 나와 서로 힘을 겨룬다. 동부의 서낭대에는 동부마을의 신이 타고 나온 것이고, 서부의 서낭대에는 서부마을의 신이 타고 나온 것이다. 이 싸움은 신들의 대결이므로 서낭대를 잡고 있는 장정의 완력보다 서낭신의 영험이 얼마나 센가에 따라 승부가 결정 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마을의 서낭대는 대개 아주 큰 대나무를 쓰는데, 여기에 옷을 입히고 장목(꿩의 꽁지)을 달았다. 한 사람이 붙잡고 옮기기에는 힘겨울 정도로 무겁다.

영산의 영명사 절서낭대는 단오제 때 성황각의 마당에 세워서 단오제를 무사히 치르도록 지켜주는 신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곳 성황각의 뒤란에는 퇴역한 역대의 서낭대가 여러 개 보관되어 있다.

그 밖에 유명한 서낭대로는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밀양시 초동면 신호 · 신월 · 부북면 청운리, 충남 부여군 은산면,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등지의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신단수가 그러하듯이 마을의 서낭대는 신이 내리는 나무이므로 뿌리는 대지의 중심에 내려 뻗쳐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우주와 교통한다고 여긴다. 서양에서는 이를 우주목으로 부

풍어제 천왕대
부산 기장군 대변리
2007.2.24 배도식

르는데, 서낭대도 우주목처럼 하늘과 통하고 땅의 힘을 받으며 신령스러운 위상을 갖는다. 그래서 마을의 큰 행사에 나들이를 하고, 중대사에 반응을 보이며, 부정한 일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티를 보이기도 했다.

농기는 지역에 따라 불리는 명칭도 조금씩 다르다. 농신기, 농상기, 덕석기, 두레기, 서낭기 등으로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기와 서낭기를 엄연히 구분하는 곳도 있다. 전라 지역의 기세배에 사용하는 대기는 농기를 쓰는데, 이 지역에서는 농기가 서낭기처럼 마을의 영험한 신이 좌정한 신기로 여긴다. 농신기에는 대개 용이 그려져 있는 것이 많다. 경북 청송 진보 농신기에는 조선 태조대왕 신상이 그려져 있다. 농기 대신으로 밀양 백중놀이에서는 겨릅대로 만든 농신대를 놓고 제사를 드린다.

기세배를 할 때 쓰는 농기도 신대에 들어간다. 기세배 놀이를 하기 전에 마을에서 신기에 제사를 올린다. 이 놀이는 주로 충청 · 전라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전북 익산의 금마, 군산, 김제 등지에서 행하는 기세배 놀이가 유명하다. 그 밖에 공주의 송학리 소라실, 충북 보은 북실에서도 기세배 놀이를 한다. 경상도 쪽에는 유일하게 문경읍 가은읍 성저리에서 기세배 놀이를 하고 있다.

솟대는 기다란 나무 위에 오리 모양의 나무새를 올려서 만든 목간신대이다. 서낭대가 움직이는 신대라면 솟대는 고정형 신대이다. 솟대는 홀로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세우기도 하지만 주로 장승과 함께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승과 함께 마을 어귀에 서서 주로 공중으로 들어오는 재액을 막아 주는 것이 주된 임무다. 장승이 지상의 액막이라면 솟대는 새 모양을 해서 공중의 수살막이가 되는 것이다. 솟대를 부르는 이름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솟대, 솔대, 짐대, 진대, 진대배기, 진또배기, 오릿대, 거릿대, 수살대 등이 그것이다.

생목신대는 산 나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와 나무를 베어 신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경남 영산의 단오제 때 문호장이란 신인을 모신 영명사 문성황각에서는 앞뜰에 서 있는 서낭목에 흰 베 두 줄기를 나무 위로부터 내려 이 나무의 허리에 묶어 두고, 다른 흰 베로 감싼 작두칼 두 개를 거기에 묶어 달아 아주 신성한 생목신대를 만들어 놓는다. 단오제가 베풀어지는 이 신역에 잡귀잡신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역화하는 것이다. 또 함양 마천에서는 오도재 서낭당 옆의 오래된 고목에 오색의 채단을 감아서 신목으로 모시고 있다.

산 나무를 베어 신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강릉 단오제 때 대관령성황당에서 성황신을 모시고 단오제 굿당으로 옮길 때 쓰는 신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풍어제 천왕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006.2.16, 배도식

신대

거제 죽림리 동신제 신대 경남 거제시 거제면 죽림리, 2006.2.9, 배도식

기장 죽성리 국수당 금역 신대 부산 기장군 죽성리 두호마을, 2006.2.1, 배도식

영산놀이마당 신대 경남 창녕군 영산면, 2008.3.1, 배도식

밀양 부북 서낭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2010.6.3, 배도식

밀양 초동 서낭대 경남 밀양시 초동면 신월리, 2000.10.3 배도식

함양 마천면 생목신대 경남 함양군 마천면, 2010.5.27, 배도식

영산서낭대 경남 창녕군 영산면, 2008.3.1, 배도식

이 경우를 보면 균형이 잘 잡힌 3m 정도의 곧고 건장한 나무를 베어 여기다 오색의 채단을 두르고 힘센 장정이 두 손으로 받들어 든다. 신목의 사방에다 흰 천으로 벼릿줄을 길게 늘어뜨려 네 사람이 이 줄을 잡고 호위하면서 내려온다. 이때 연도의 사람들은 성황신의 행차를 보고 신성시하여 절을 하게 된다. 생목신대는 단오 굿당에 옮겨져 단오 제사를 받는 주신이 되며, 이후 베풀어지는 굿을 관장하게 된다. 따라서 굿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다.

은산별신제에도 생목신대가 등장한다. 별신제가 시작되는 첫날 마을 사람들이 풍물패와 함께 인근 산으로 가서 신대가 될 만한 참나무 네 개를 베어 오는데, 이를 진대라 한다. 이는 생목신대를 말하는데, 별신제가 진행되는 동안 신목으로서 제장을 지키다가 끝나는 날 장승을 세울 때 사방향에 함께 세운다고 한다.

동제당이나 서낭당 혹은 밥무덤, 제관의 집 앞에 황토를 뿌리고 대나무를 세워서 금줄을 쳐 놓았는데, 이때 세워 놓은 대나무도 이른바 금역을 나타내는 신대이다.

강릉, 영산 단오제의 서낭목, 은산의 진대는 모두 생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나무나 목간신대의 원형은 아무래도 신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김선풍 외, 문화재관리국, 1994), **문경 모산굴 기세배**(안태현, 문경새재박물관 조사연구총서 3, 문경시, 1999), **솟대**(이필영, 대원사, 2003), **신대와 농기**(이보형, 한국문화인류학 8, 문화인류학회, 1976), **은산별신굿**(임동권, 열화당, 1986), **한국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향토문화지**(경상남도, 1989).

필자 **배도식(裵桃植)**

신벌

표제어 지벌(856쪽)

신위

표제어 위패(718쪽)

제의

안동가송리동제
안동서지리성황당
안동하회동동제
양양동해신묘지
여수영당지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영암남해당지
영월영모전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예산대흥소도독사
완도예송리당산
완주고당리고당
용수동당산
우불산신사
울진12령새재성황사
원주강원감영지
원주원성성남리성황림

제의장소

안동가송리동제
안동서지리성황당
안동하회동동제
양양동해신묘지
양양임천리서낭제
양양죽정자리서낭제
여수화산마을당제
여제
연기학봉마을기고사
영고
영광법성포단오제
영광안마도당제
영광우평마을당산제
영암정동정호제
영주읍내리성황제
예산운산2리산신제
예천작평마을서낭제
오방돌리기
오방제
오온신제
완도어두마을갯제
완도장좌리당제
용신제
용왕제
용인상하동할미지석제
우물제
울릉해신제
원주강원감영제
월악산신제
유가돌기
유천동산신제
이사제
이천정개산산신제
일산동당제
임실구암리도깨비제

제물

오색천

제구

액
매기
오
쟁이
용기

용어

액
영험담
우실
위토
음복
인구전

자료

여제등록
연기원수산산신제문서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
울진개바우마을동제문서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신격

여귀
원귀
입향시조

신체

안성아롱개마을미륵댕이
영광도동리석장승
옥천청마리제신탑
울주방기리알바위
위패
음성마송리석장승
임실사곡리남근석
입석

안동가송리동제
안동서지리성황당
안동하회동동제
안성아롱개마을미륵댕이
액
액매기
양양동해신묘지
양양임천리서낭제
양양죽정자리서낭제
여귀
여수영당지
여수화산마을당제
여제
여제등록
연기원수산산신제문서
연기학봉마을기고사
영고
영광도동리석장승
영광법성포단오제
영광안마도당제
영광우평마을당산제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영암남해당지
영암정동정호제
영월영모전
영주읍내리성황제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
영천자천리오리장림
영험담
예산대흥소도독사
예산운산2리산신제
예천작평마을서낭제
오방돌리기
오방제
오색천
오온신제
오쟁이
옥천청마리제신탑
완도어두마을갯제
완도예송리당산
완도장좌리당제
완주고당리고당
용기
용수동당산
용신제
용왕제
용인상하동할미지석제
우물제
우불산신사
우실
울릉해신제
울주방기리알바위
울진12령새재성황사
울진개바우마을동제문서
원귀
원주강원감영제
원주강원감영지
원주원성성남리성황림
월악산신제
위토
위패
유가돌기
유천동산신제
음복
음성마송리석장승
이사제
이천정개산산신제
인구전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일산동당제
임실구암리도깨비제
임실사곡리남근석
입석
입향시조

안동가송리동제

상호참조 공민왕(88쪽)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서 전해지는 전형적인 풍물굿형 동제. 청량산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공민왕계 신앙 가운데 하나이다.

내용 동제는 정월대보름날과 단오에 지내며, 제당으로는 '부인당'과 '산신각'이 있다. 부인당은 공민왕의 딸을 모시는 곳이다. 여신을 모시기에 부인당이라 부른다. 산신각에는 이 마을의 주산인 입칠봉(이치봉) 산신령을 모신다. 산신령은 부인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된다. 공민왕 또는 부인이 호랑이(산신령)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부인이 산신령보다 높다는 것이다. 부인당은 왼쪽, 산신각은 오른쪽에 각각 위치한다. 두 당 모두 맞배지붕의 목조기와집이다. 원래 산신각은 없었으나 1992년에 외부인의 도움으로 신축했다. 부인당 내부 벽에는 '부인의 옷'이라 하여 치마저고리 수십 벌이 걸려 있다. 마을 주민이나 출향한 사람들이 서낭님께 정성을 바치기 위해 올린 것이다. 이 옷이 서낭신의 신체(神體)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위나 위패는 마련하지 않는다. 산신각 내부에는 동자를 거느린 산신령이 호랑이를 탄 그림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제물을 올리는 선반이 가로로 놓여 있다. 두 당의 내부는 3.3㎡가 안 될 정도로 좁다.

제관은 당주 한 명과 다수의 유사 · 헌관 등으로 구성된다. 당주는 동제의 주재자로서 정월동제와 단오동제 전반을 주관하고, 제사에 필요한 도구와 풍물을 보관하며, 동답을 관리한다. 제관은 65세 이상으로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이면 가능하며, 제사에만 참여할 뿐 다른 역할은 없다.

원래 이 마을에서는 서낭대를 내려 당주를 뽑았다. 정월 초이튿날 아침에 주민들이 부인당에 모여 '나림(내림)'을 받는다. 나림을 받을 때에는 신기 있는 사람이 경을 읽고 신을 청한 다음 "서낭님 어느 집으로 가면 좋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대가 저절로 움직여 당주가 될 사람 집을 찾아간다. 서낭대가 어느 집 앞에 멈추면 집 주인은 자리를 펴서 서낭대를 맞이하고 그 앞에 쌀그릇을 올린 소반을 놓고 절을 한다. 절을 마치면 풍물패와 구경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잔치판을 벌인다. 1990년대 말부터 서낭대를 내리지 않고 마을회의를 거쳐 당주를 뽑는다. 2005년에는 호주들이 초이튿날 오전 10시에 마을회관에 모여 당주를 뽑았다.

부인당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2010. 한양명

당주는 선정된 날부터 금기에 들어가고 사관을 드리기 시작한다. 사관을 드린다는 것은 당주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부인당에 가서 서낭님께 인사 드리는 것을 말한다. 당주는 출타할 때에도 반드시 서낭님께 "어디 갑니다"라고 고하며 정성을 다한다. 사관은 보통 정월 열하룻날부터 드린다. 당주는 또 자기 집 삽짝(대문) 양쪽에 소나무를 세우고 금줄을 친 뒤 집에서 당으로 가는 길 양편에 황토를 뿌린다.

제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충당한다. 동네의 공유재산으로 밭 1,000㎡와 논 660㎡가 있었으나 논은 묵히고 밭 330㎡만 당주가 부친다. 본래 당주는 동답을 경작하는 대가로 일정량의 나락이나 쌀을 마을에 내놓아 제비를 쓰게 하였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풍물패가 집집을 돌면서 지신밟기를 하여 쌀이나 곡식을 걷어 제비에 충당하기도 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려 공민왕의 딸인 서낭신이 청량산 꼭대기의 산성마을에 산신으로 좌정해 있는 공민왕신에게 '세배를 드리러' 갔다. 풍물패가 서낭대를 앞세워 공민왕당에 가면 산성마을주민들이 술과 음식을 내어 대접하고, 딸이 세배하러 왔다면서 세뱃돈을 주기도 했다. 요즘은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정초에 제당을 찾아 배례한 뒤 돈을 놓고 간다. 이 돈을 '세뱃돈'이라고 부른다.

동제를 전승하는 조직은 서낭계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당주 한 명과 유사 두 명이 중심이 되어 서낭계를 운영했다. 당시 유사는 가사리와 쏘두들에서 한 명씩 나와 문서를 관리했다. 동회에서 '계갈이'를 할 때 지난해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아 결산하며, 당의 보수를 의논하고 새 유사를 선출하였다. 현재는 유사 없이 당주가 서낭계의 재산과 문서를 관리하고 밭 330㎡를 부치고 있다.

현재 서낭계는 상여계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1985년에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낭계, 상여계, 배계를 통합하였다. 그러나 새 다리가 생기면서 배계는 사라졌고, 1992년에 서낭계와 상여계는 분리되었다. 흉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깨끗하게 서낭님을 모실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기에 서낭계와 상여계가 다시 통합되었다. 서낭계의 경비가 없어 매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흉사의 재정이라도 서낭님을 모시는데 쓰자"라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제물은 산신당보다 부인당에 더 많이 올린다. 부인당에는 메, 미역국, 명태포, 명태탕, 백찜(백설기), 고등어, 구운 미역, 밤, 대추, 감, 배, 간장, 탁주를 올린다. 나물은 쓰지 않으며, 고등어와 미역은 반드시 제장에서 불에 구워 올린다.

제물은 다른 마을의 제관보다 먼저 구입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를 "수지로 한다"고 한다. 제물 장보기는 당주의 몫이다. 당주는 정월 열나흗날 새벽에 자동차로 안동 신시장에까지 나가서 어물, 과일, 술을 구입한다. 제물을 구입할 때에는 가격을 흥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잡담을 나누지도 않는다. 면 소재지에 있는 떡집에 들러서 쌀을 맡겼다가 돌아오는 길에 떡을 찾아온다. 떡에는 어떠한 조미료도 넣지 않는다. 제주로는 요즘 탁주를 사서 쓴다. 원래 술은 입재일 2~3일 전에 당주가 직접 빚어서 썼다. 구입한 제물은 당주 집에 보관하며, 조리는 당주 부인 몫이다. 제물장을 보고 온 당주는 당을 청소하고, 땔나무를 마련하며, 제장에 금줄을 친다. 부인당과 산신당 주위에도 금줄을 친다.

부인당과 산신당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2010. 한양명

정월 열나흗날 저녁 6시 무렵에 당주는 식사 후 목욕재계하고 의관을 정제한다. 8시 무렵에 제관과 풍물패는 당주 집에 모여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당에서 풍물을 치며 한바탕 놀이를 한다. 9시 20분에 제물을 실은 차는 먼저 출발하고 제관과 풍물패는 질매구를 치고 따라가면서 단수치기를 한다. 단수치기는 옛날 당이 있던 곳과 수구맥이 쪽을 보면서 "서낭당 서낭당 서낭서낭 서낭당"이라고 구음(口音)하고 가락을 치며 세 번 절하는 것이다.

당에 도착하자마자 풍물패는 원을 그리며 한바탕 풍물을 치고 다른 쪽에서는 불을 지핀다. 제관은 고등어를 불에 굽고, 제물이 익으면 부인당과 산신각 순서로 진설한다. 두 당에 차린 제물은 양에서 차이가 있으나 진설 방식은 동일하다. 진설하고 난 뒤 바로 부정을 물린다. 부정치기는 솔잎뭉치에 물을 묻혀 당 주위에 뿌리면서 잡귀잡신을 물리치는 것이다.

10시가 조금 넘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다. 먼저 당주가 꿇어앉아 부인당에 세 잔, 산신각에 단잔을 각각 올리고 참례자가 모두 합동으로 사배를 한다. 그런 다음 당의 문을 닫고 신들이 음식을 드시는 동안 진법치기를 한다. 진법치기는 제관과 풍물패가 원진과 미지기진을 펼치면서 윗마당과 아랫마당을 오르내리는 것을 말한다. '삼삼구배' 또는 '삼삼진법'이라 하여 아홉 번을 오르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 적게 하기도 한다. 꽹과리 네 명, 북 한 명, 징 세 명, 소고 두 명으로 구성된 풍물패는 원진을 지을 때에는 흥겹고 빠른 삼채와 휘모리를 치고, 미지기진으로 윗마당과 아랫마당을 오르내릴 때에는 굿거리를 친다.

진법치기를 끝내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서낭소지, 산신소지, 대동소지, 우마소지, 자동차소지, 당주소지, 호구소지, 참례자소지 순서로 올린다. 호구소지의 경우 가송리 주민들은 모두 올리지만 쏘두들과 올미재의 경우 오는 사람들 것만 올려준다. 참례자의 소지는 연장자, 이장, 일반인 순으로 올린다. 이 밖에 출향 인사들이 소지를 올리기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소지올리기를 마치면 음복을 한다.

안동가송리동제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2010, 한양명

풍물

부인당 제물

산신각 제물

소지올리기

음복

거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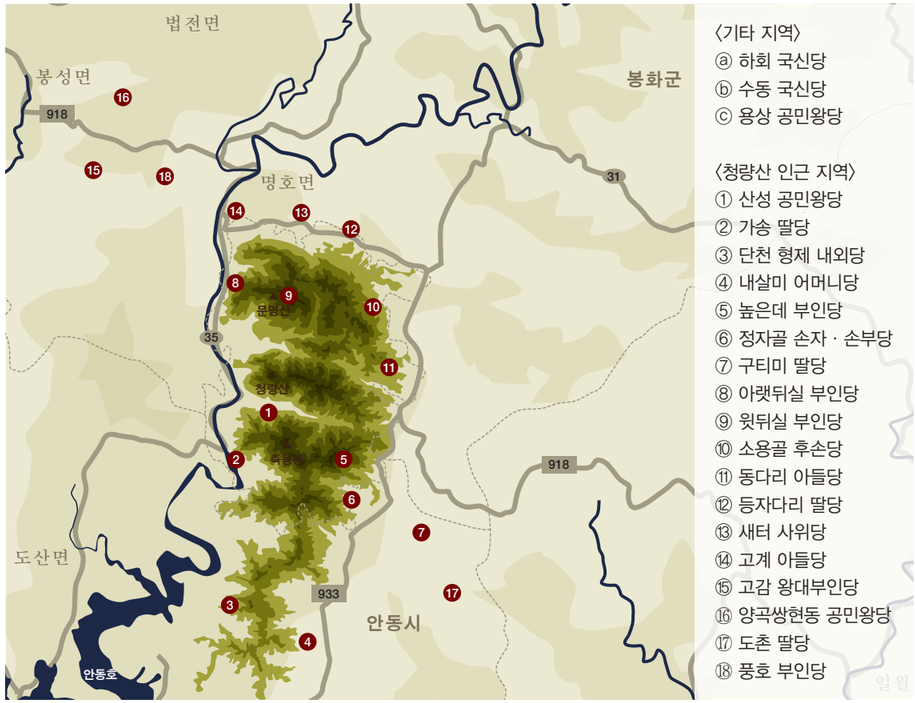
자정 무렵부터 거리당제를 올린다. 거리당제는 "일곱 골짜기의 잡귀들을 대접하여 초군들이 나무하고 풀을 베러 갈 때 잘 보살펴 달라"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느티나무 앞에 술 일곱 잔과 스무 개 정도의 백찜 조각을 올린 상을 차린다. 예전에는 떡을 좁쌀로 만들었으며 '약떡'이라 불렀다. 약떡을 먹으면 일 년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주민들과 아이들이 주워 먹었다. 제관은 상 앞에서 골짜기를 향해 주문을 외며 칼끝이 바깥쪽(골짜기 방향)을 향할 때까지 계속 던진다. 칼끝이 바깥쪽을 향하면 그제야 술을 뿌리고 잔을 상 위에 엎어둔다. 이어서 제관들이 재배하고 당주가 삼배하면 거리당제가 마치는 것으로 모든 동제가 끝이 난다.

특징 가송리의 동제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공민왕계 신을 모시는 일군의 신앙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청량산 꼭대기에 좌정한 공민왕을 중심으로 내살미의 공민왕 어머니, 북고리와 높은데의 부인, 가송리와 정자골, 등자다리의 딸, 새터의 사위와 같이 청량산 일대 20여 개 마을에서 공민왕계 신을 동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 가운데 산성마을, 내살미, 가송리는 공민왕신앙의 핵심 지역이다. 특히 가송리의 신은 공민왕과 사이가 각별한 딸로 인식되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민왕에게 세배를 드리러 갔다. 이와 같은 제의적 연대는 걸립을 통해 공민왕계 신을 모시는 다른 마을과도 이루어져 일상적, 종교적 유대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형적인 풍물굿형 동제이다. 가송리의 동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풍물과 결합되어 진행된다. 동제를 지내는 시간이 되면 풍물패가 당주 집에서 한바탕 논 뒤 길굿을 치면서 당으로 향하고, 도중에 단수치기를 하여 옛날에 당이 있던 곳과 수구맥이에 인사를 올린다. 당에 도착해서도 풍물을 치고 난 뒤 진설을 한다. 또 서낭신이 음식을 드시는 동안 진법치기를 하여 서낭신을 즐겁게 하며, 거리당제를 올리는 동안에도 계속 풍물을 친다. 이처럼 모든 제차(祭次)가 풍물과 결합된 까닭에 대해 주민들은 "서낭님이 풍물을 좋아해서 그렇다"라고 말한다. 이 마을의 열두 채 또는 열두 마치 가락과 진법치기는 경상도 풍물의 고형을 잘 간직한 것이다.

셋째, 치마저고리가 신체가 된다. 일반적으로 동신의 신체는 나무 또는 돌과 같은 자연물이거나 위패 또는 신위와 같은 인공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치마저고리를 신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역사례 공민왕계 신을 모시는 지역은 안동시와 봉화군으로 대별된다. 안동시에는 예안면 신남리의 구티미 · 정자골 · 높은데, 도산면의 가송리 · 단천리 · 원천리(내살미), 풍천면의 하회리, 풍산읍 수리, 용상동 등 아홉 개 마을이 있다. 봉화군에는 명호면 북곡1리의 산성마을 · 아랫뒤실, 북곡2리의 윗뒤실, 고계1



공민왕계 신을 모시는 지역

리의 고계 · 새터, 고계2리의 등자다리, 재산면 현동1리의 소용골, 현동3리의 동다리 등 여덟 개 마을이 있다. 이 밖에도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와 도촌리,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와 고감리 등지에서도 공민왕 신앙이 전승되었지만 현재 단절되었다.

참고문헌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안동시, 2004), 한국의 마을신앙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한양명(韓陽明)

안동서지리성황당

정의 마을을 수호해 주는 동신(洞神)을 모시는 마을 제당으로서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성소(聖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西枝里) 서갓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1993년 8월 18일에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00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안동서지리성황당의 유래와 역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안동의 읍지인 『영가지(永嘉誌)』의 기록으로 막연하나마 추정할 수 있다. 『영가지』에 따르면 서갓마을은 서가현촌이다가 나중에 서지로 불렸다. 고려 때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낸 남휘주(南暉珠, 1326~1361)공이 처음으로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하였고 그 뒤 직강(直講) 이봉춘(李逢春, 1542~1625)이 살았다고 전한다. 『와룡면지(臥龍面誌)』에 따르면 직장(直長) 이한(李漢, 1499~?)공이 주촌(周村)에서 이곳으로 이거한 뒤 자제들을 가르치기 위해 서간서당(西澗書堂)을 건립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영가지』 권6 고적조에 삼첩석, 모관석, 이첩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삼첩석(三疊石)은 부사(府司)의 문 안에 있으며, 형태는 보릿짚 삿갓과 같은데 세운 본래의 뜻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단지 늙은 아전(衙前)들이 전하기를 관리들이 번성하고 쇠퇴하는 것을 위해 세웠다고 하며, 또한 부기(府基)의 주맥(主脈)을 누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한다. 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관재(官災)를 입는다고도 한다.

모관석(冒冠石)은 관청의 문 안에 있으며, 높이가 한 길이다. 윗부분은 관과 같으며, 그렇게 만든 뜻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대체로 부사 문 안에 있는 것과 같았을 것으로 보이며, 주맥을 누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첩석(二疊石)은 관청의 서쪽 담 모서리에 있으며, 두 개의 돌을 갈아서 서로 맞추어 겹쳐 쌓았다. 만들어 둔 뜻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을 만지면 관재를 면하기 어렵다고 전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영가지』의 기록에 보이는 삼첩석, 모관석, 이첩석은 소실되어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 다만 비슷한 형태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 전하고 있다. 바로 서지리 서갓마을 뒷산에 있는 유적 삼첩석이다.

삼첩석과 이첩석은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거석문화 유적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후대에 풍수지리적으로 마을의 허한 곳을 보완하는 비보적(裨補的) 성격이 추가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형태 삼첩석이 자리 잡은 곳은 야트막한 야산이다. 숲이 울창하고, 접근하는 길도 인적의 왕래가 드문 한적한 곳으로, 신성영역임을 느끼게 한다. 그에 걸맞게 영역은 울창한 숲에 가려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쉽게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그곳에는 커다란 자연석 세 개를 쌓아 올린 삼첩석 1기, 두 개를 쌓아 올린 이첩석 1기, 모자처럼 생긴 모관석(冒冠石) 1기, 주먹보다 큰 돌들을 모아 쌓아올린 돌무더기 1기가 66㎡ 남짓한 공간에 조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동신으로 받드는 신체는 돌무더기이다.

삼첩석의 크기는 맨 아랫돌의 지름 220㎝에 높이 110㎝ 정도이고, 가운데 돌은 지름 185㎝에 높이 110㎝이며, 가장 위에 올려진 돌은 지름 105㎝, 높이 35㎝ 등으로 전체 높이는 255㎝ 정도이다.

이첩석의 크기는 아랫돌이 지름 160㎝에 높이 70㎝이고, 윗돌은 지름 85㎝에 높이 70㎝ 등으로 전체 높이는 140㎝ 정도이다. 아랫돌은 약간 파손되어 옆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돌무더기는 아랫면의 지름이 280㎝에 높이 170㎝ 정도이고, 사람 머리 크기 정도의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돌무더기의 꼭대기에는 아랫면 40㎝, 높이 60㎝의 뾰족한 돌을 세웠다.

내용 성황당의 신체는 돌무더기(누석단, 적석단)이고, 제의는 매년 정월대보름날 자시(子時)에 유교식 동신제(洞神祭)를 올렸다. 돌무더기는 마을 공동으로 섬기는 동신이 좌정하고 있는 동사(洞祠)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다. 제사는 제관 한 명과 유사 두 명이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고 전하나 1950년대를 전후하여 단절되었다.

조성된 시기는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지만 삼첩석과 이첩석은 같은 시기에 조성하고 돌무더기는 훨씬 후대에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남긴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삼첩석과 이첩석은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거석문화 유적으로 추정되며, 후대(後代)에 와서 풍수지리적으로 마을의 허한 곳을 인위적으로 보완 한다는 비보적 성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의의 이 유적들은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한국 선사시대의 문화와 후대 민속신앙의 한 과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으며, 고고학(考古學)과 민속학(民俗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영가지』의 기록에 보이는 삼첩석, 모관석, 이첩석은 소실되어 지금은 찾을 길이 없지만 삼첩석과 이첩석을 건드리면 관재를 입는다든가 주맥을 누르기 위한 풍수적 요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속신앙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안동군 지정 문화재편람(안동문화원 편, 영남사, 1994), 네이버 백과사전(100.naver.com), 두산 백과사전(encyber.com).

필자 김명자(金明子)

안동하회동동제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제의.

역사 하회마을은 '허씨 터전에 안씨 문전에 류씨 배판'으로 행세해 왔다. 이 향언(鄕諺)은 고려시대의 절 터 및 즐비하게 밀집한 기와집들과 상응하여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허씨가 정주하고, 그 뒤 안씨와 조선시대 초기에 풍산 류씨(豊山 柳氏)의 동성(同姓) 마을이 이뤄졌음을 알려준다. 류씨는 원래 인근 지역 풍산에 대대로 살아 오던 호장(戶長) 집안이었으며, 고려 말엽에 하회로 이주하여 안씨와 인척 관계를 맺고(안씨가 류씨의 외손이라고 한다) 안씨족이 쇠미해진 틈을 이용하여 지배세력으로 성장해 왔다고 한다.

하회마을은 낙동강 물줄기가 부용대의 높은 절벽과 한없이 넓은 백사장을 끼면서 마을의 동북, 남을 돌아 흐르는 산태극수태극(山太極水太極)의 절경 속에 물에 뜬 연꽃처럼[蓮花浮水形] 자리한 '길 끝에 고립된' 마을이다. 길 끝의 마을이자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터였기에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고 큰 변란 없이 전통적인 문화를 잘 보존해 올 수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1515~1573) 때에 벼슬길이 터져 관찰사에 이르렀고, 도학자로서 선비의 길을 걸은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1539~1601)과 임란 때의 영의정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고 17세기 쯤에 동성 마을을 형성하였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의 성황신제는 평시에는 '동제(당제)' 또는 '제사'라고 부르다가 5년 또는 10년마다 행하는 큰 대제(大祭)에서는 별신제라고 부른다. 신격은 '무진생성황님'이며, 17세의 처녀라고 한다. 국사당과 본당, 삼신당 등 3당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성황신제는 전형적인 농촌형 동제이면서 유교적 형식을 띠고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는 경북지방의 전형적인 유교식 동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내용 하회동의 서낭신은 여서낭신이며 무진생서낭[戊辰生城隍]님으로 불린다. 서낭제의 평상제는 동제라고 부르지만 3년이나 5년, 10년마다 조건이 갖추어지고, 신탁(神託)이 내리면 지내게 되는 별신굿이 있다. 이는 동제와 별신굿의 이중 구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별신굿은 매년 지내는 동제와 맞물리면서 몇 년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서낭신의 친정은 월애(풍천면 임금동)이며, 외가는 갈밭(풍천면 갈전동)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노인 이창희에 따르면 별신굿은 민산주(閔山主) 때에는 지내지 않았고, 다음 대인 김산주(金山主) 때에는 갑자년(甲子年, 1924)에 지

냈으며, 박산주(朴山主) 때에는 신(神)의 회갑해인 무진년(戊辰年, 1928) 에 지냈고, 현재의 김돌이(金乭伊) 산주(山主)는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별신굿은 무진년에 마지막으로 지내고 중단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회동의 별신굿은 기능으로 보아 마을굿으로서의 서낭신에 대한 대제이며, 별신굿놀이는 오신행사(娛神行事)로서 별신굿의 부분에 속한다.

하회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날 서낭당, 국신당, 삼신당에 동제(당제)를 지낸다. 서낭당제를 지낼 때 산주가 서낭신에게 고하는 글을 읽는다. 이 제문에는 하회마을에 터를 잡은 내력, 현재 마을의 상황, 서낭신에게 바라는 내용이 두루 담겨 있다.

〈1983년 당제 축문〉

유세차 갑자 정월 병인삭 십오일 경진 하회 동민 일동은 성심으로 동심합역하야 근구 주과 포어하야 벽대경고우 무진생 성황님 전하오니 복원 성황님은 불수지찬이라도 만반진수 생각하시고 반가이 흠향하시옵기 엎드려 천만 축원하옵니다. 복원 성황님께서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성황님의 하늘 같은 덕택을 입사와 오늘까지 무사 태평하옵게 지내오니 하해같아온 은혜를 어찌 만분지 일이라도 갚사오리까만은 성황님 하늘 같은 은덕으로 금년에 새로 만만복록을 입사옵기 바라옵고 오늘날 저희들이 소소한 정성을 드리오니 복원 성황님은 아무쪼록 남북이 통일되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돌아와서 여러 사람들이 안락 태평하게 하시옵기 천만 복출하옵고 더구나 우리 하회일동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한 사람이라도 치폐없이 무사 태평하게 하여 주시옵기 천만 복축 복망하옵니다.

금년 일 년 내에 어느 가정이라도 전부 한 가정같이 무사 태평하여 전 가정이 일 년 내에 만병이 없이 평안하게 하시옵고 재수대통하고 흉한 악운은 멀리 가고 좋은 복록과 즐거운 경사 돌아오게 하시옵고 집에 있을 때는 한 가정이 화락하고 출입하거든 만사 절로 잘 되어서 몸이 편하고 운수대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사람 부자 되게 하시옵고 자손 없는 사람 옥동자가 많이 나게 하여 주시옵고 멀리 나간 자손들 수이 무사 편안하게 돌아와서 부모형제 숙질간 즐거이 상봉하게 하여 주시옵고 천만 가지가 모두 잘 되어서 운수 불길하든 사람들도 만사가 절로 순하게 펴어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농사 짓는 사람은 풍년되어 일 년에 천만 석씩 쌓아 놓게하여 주시고 상업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천만 금씩 생기도록 하여 주시고 국가공무에 힘쓴 사람 공중사업에 힘쓴 사람 개인 직업에 힘쓴 사람 모두가 일년 삼백육십 일에 병 없고 재수대통하여 만복이 절로 돌아와서 한시라도 근심걱정 없이 하여 주시옵기 천만 번 엎드려 받자옵고 억만 번 정성껏 비나이다.

복원 복축 성황님께서는 국태민안하고 시화세풍되며 우마육축이 번성하고 병든 사람이 절로 낫고 안 된 세상 멀리 가고 착한 사람 모여들고 악한 사람 착하게 되어 우리 하회일동 여러 천만 사람들이 금년 일 년 내에 만복이 절로 오고 천만 가지 근심걱정 봄눈 녹듯 없어져서 일 년 동안 여러 사람 태평화락하고 자손번창하고 부귀영화로 내내 지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엎드려 바라옵고 대강원정 드리오니 밝으신 성황님은 굽어살피시고 서사 흠향하옵소서.

〈2008년 당제 축문〉

무자년 정월 보름날 부락 대표 김종흥. 찬과 술과 정결한 어가로 제물을 차려놓고 무진생서낭님 신령님께 고하나이다. 천하만물지중 유인이 최기라 하였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만수무강 행복을 누리도록 천지신명에게 바라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라 할 수 있다. 조물주는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크게는 사회를 꾸리고 적게는 한 부락을 조성하여 집단적으로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 부락도 전서공이 터를 잡아 육백여 년 동안을 훌륭하신 조상님의 얼을 계승해오고 있으며 부락의 안녕과 발전은 무진생성황님께서 수호감사 주신 덕택으로 육백여년 긴 세월 동안 무사태평의 영예를 이루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하회부락으로 만들어 주셨다.

백이십호의 전 부락인은 무진생성황신령님께 고개숙여 빕니다. 천만년 내내 동네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연년풍년이 들게 하여 주시고 객지에 나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시며 부락에 사는 남녀노소는 모두 건강하며 재수대통하게 해 주시며 120여 부락인은 상부상조 정신으로 융화단결 하여 이리 번창하게 해주시며 주기적으로 유행 질병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부락인의 생명수인 수도업무를 만년이 가도록 청결하게 하여 오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보잘것없는 제수이오나 정성들여 올리는 제수이오니 만반진수로 생각하시고 반가이 흠향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상향.

하회마을 서낭당제
경북 안동시 하회동
2009.2.9, 조정현

동제 축문은 서낭신과 마을 사람들의 유기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나라와 마을, 가정 차원의 문제들이 두루 제기되고 순서대로 마무리되고 있다. 1983년 동제 축문과 2008년 동제 축문을 잘 살펴보면 당시 사회적 상황과 주민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축문에는 동제를 주관하는 산주에 관한 부분과 전통마을의 주민으로서 느끼는 자부심, 농촌마을로서 겪는 인구 유출 등 사회적 상황이 드러난다. 그리고 주민들은 서낭신에게 풍요다산(豊饒多産), 제액초복(除厄招福), 생기복덕(生氣福德)을 소망하고 있다.

두 자료는 모두 현장에서 조사된 것으로 주민이 직접 작성하고 순수 한글로 쓰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회마을에서는 모두 세 곳의 당(堂)을 모신다. 화산 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서낭당, 마을 동쪽 당말개에 자리 잡은 국신당, 마을 한가운데의 삼신당이 바로 하회사람들이 섬기는 당이다. 원래 하회에는 다섯 곳의 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옛날에는 서낭당, 국신당, 삼신당을 비롯해 큰 고개와 작은 고개의 성황당을 함께 섬겼다고 한다. 하지만 도로를 넓히면서 큰 고개의 성황당이 훼손되고 작은 고개로 마을을 드나드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면서 큰 고개와 작은 고개의 성황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다.

정월대보름날 새벽 6시가 되면 주민들이 마을 어귀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주민들은 서낭당으로 올라간다. 서낭당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둔다. 얼마 뒤에 산주와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원이 제물을 지고 올라온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놀았기 때문에 보존회라는 것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별신굿이 사라지고 탈놀이가 복원되면서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라는 것이 생겼다. 동제에 참여하는 주민이 줄게 되면서 보존회원들이 당제에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존회원이 짊어지고 온 제물을 차리는 동안에도 주민들이 한두 명씩 모여든다. 제물로는 백설기, 흰메, 세 가지 채소, 탕국, 익히지 않은 어물, 과일을 올린다. 제물이 모두 준비되면 산주가 당 안으로 들어가서 기름 종지에 불을 밝히고 향을 사른 다음 제관 모두 절을 올린다. 그런 다음 산주가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나서 축문(祝文)을 읽는다. 축문을 다 읽으면 모두 절을 하고 산주가 마을을 대표해서 소지를 올린다. 보통 소지가 타면서 하늘 위로 솟아오르면 좋다고 여긴다. 산주가 소지를 올린 뒤에 개인적으로 당 안으로 들어가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리면 서낭당제가 일단 마무리된다. 제를 마친 제관들은 모두 모여 음복(飮福)한다. 음복은 제사를 마치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수나 제주를 먹는 것을 말한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 복을 얻는다고 여긴다.

제관들이 음복을 마치기 전에 산주는 서둘러 국신당으로 간다. 산주는 국신당과 삼신당제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산주와 함께 제관이 하나둘 따라나선다. 산주를 따라간 제관들은 명주실을 감은 명태포를 제단에 올리고 제를 지낸다. 향을 사르고 절을 한 다음 술을 올리고 다시 절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서낭당제처럼 축문을 읽거나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국신당제가 끝나면 산주와 제관은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삼신당으로 향한다. 삼신당제는 국신당제와 같은 제물을 차리고 절차도 같다. 삼신당제를 마치면 산주와 제관의 제의가 모두 끝난다.

동제(당제)가 모두 끝나면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인다. 젊은 부녀자들이 음식을 준

비하는 동안 나이 많은 남자 어르신들이 방에 모여 동회(洞會)를 연다. 동회에서는 지난해 마을에서 있은 일을 보고하고 올해 있을 대소사를 의논한다. 이날은 남녀노소 모두 모여 음식을 먹고 즐겁게 논다.

하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월대보름날의 동제는 네 차례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먼저 1960년대부터 사월초파일의 동제가 없어지면서 공동체 제의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동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전까지 풍산 류씨 문중에서 주로 내던 동제의 비용을 1970년대부터는 마을공동체 전체가 갹출해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는 아예 동민이 갹출하지 않고 마을기금으로 비용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변화는 풍산 류씨들의 참여이다. 반상(班常)의 구분이 없어지고 마을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다 함께 공동체를 위한 제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변화는 탈놀이보존회 회원들의 참여이다. 탈놀이보존회 회원들은 동제 비용을 위해 부조를 하였고, 하회마을 사람들이 전승하지 못한 탈놀이를 전승함으로써 하회별신굿의 전통 기반에 편입하였다.

변화 과정에서 탈놀이보존회 회원들은 초기에 아주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또한 외지인들에 대한 배타가 심한 고립된 마을이다 보니 하회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내의 동신에 대한 신앙심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것의 전승을 돕는 탈놀이보존회의 참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마을 대표 10여 명과 탈놀이보존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하여 동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까지 다른 성씨들만이 지내던 동제에 1980년대부터는 마을의 이장과 하회마을보존회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탈춤보존회 회원들도 동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반 문화나 유교적 문화 형태가 구시대의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 동시에 국가정체성 또는 지역 정체성의 중요한 기제로 민속문화가 주목받게 되면서 하회의 류씨들도 더욱 적극적인 전통문화 전승의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마을공동체신앙과 생태민속–하회별신굿의 생태민속학적 해석**(조정현,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2010). **민속마을 하회여행**(임재해, 밀알, 1994). **씨족부락의 구조연구**(김택규, 일조각, 1979). **안동하회별신굿**(성병희, 경북예악지, 1989). **영남 지방의 동제와 탈놀이**(박진태, 태학사, 1996). **하회마을조사보고서**(경상북도, 1979). **하회탈놀이의 의미변화**(류정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하회탈춤 전통의 재창조와 안동문화의 이미지 변화**(조정현,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필자 조정현(曺鼎鉉)

하회마을 삼신당
경북 안동시 하회동
2009.2.10. 조정현

안성아롱개마을미륵댕이

정의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아롱개마을에 있는 미륵당. 미륵댕이 안에 있는 보살입상과 석불입상은 1986년 5월 22일에 '안성시 향토유적 제10호·13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마을 사람들은 제당을 '미륵댕이', '미륵데기'라고 부른다. 이는 미륵당, 미륵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륵댕이는 가로 12m, 세로 7m 면적에 삼면으로 높이 130㎝ 정도의 시멘트 블록으로 담장을 둘렀으며, 앞쪽으로 철책을 치고 문을 만들어 당(堂)으로서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 안에 아양동 보살입상과 아양동 석불입상 등 2기의 미륵상이 나란히 서 있다. 각 미륵상 앞에는 제단을 두었고, 뒤쪽으로 초를 켜는 함을 각각 설치하였다. 당 내부 바닥은 돌과 시멘트로 기단을 만들어 높이고, 앞쪽으로도 시멘트 바닥으로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왼쪽의 키가 큰 미륵이 '아양동 보살입상(향토유적 제10호)'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미륵상을 여미륵님, 할머니미륵님으로 부르고 있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아양동 보살입상은 높이 337㎝, 어깨 폭 118㎝이다. 배꼽 정도까지 노출되어 있는 몸통 길이가 150㎝, 목 위부터 화관(花冠)을 쓴 얼굴 길이가 120㎝ 정도로 두상이 몸체에 비해 길다. 상체는 키가 훌쩍 크고 꽃무늬가 선명한 보관을 썼으며, 눈·코·입이 가지런하고 양귀가 가늘고 길어 한눈에 보아도 여성스럽다. 어깨도 곧고 당당하며, 긴 목에 윤곽이 뚜렷하다. 팔과 몸통의 선명한 꽃무늬는 마치 단장을 막 끝낸 도시 미인처럼 화려하다. 머리 뒷면에는 둥근 원이 여럿 음각되어 있어 광배를 새긴 듯하며, 하얀 돌로 눈동자를 심은 것도 특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오른손은 엄지를 세운 채 가슴에 얹었고, 밑으로 내린 왼손과 허리 아랫부분은 매몰되어 있다. 아랫부분을 포함하여 전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본래의 높이는 약 11자 반(380㎝)이라고 하였다.

오른쪽에 있는 미륵은 '아양동 석불입상(향토유적 제13호)'이다. 마을 사람들은 남미륵님, 할아버지미륵님이라고 부른다. 높이는 260㎝, 어깨 폭은 79㎝이다. 무릎 위 허벅지 정도부터 노출되어 있는 몸체는 약 155㎝, 관모를 쓴 얼굴 길이는 100㎝ 정도로 화강석 하나로 조각하였다. 기다란 관모는 장식이 없어 소박하고, 목이 짧아 두상과 어깨는 붙었다. 옷에도 별 무늬가 없으며, 좌우로 늘어진 소맷자락에만 주름이 뚜렷하다. 인상은 위엄이 깃들어 있으나 얼굴의 윤곽은 생전 다듬은 적이 없는 무뚝뚝한 시골 할아버지 형상이다. 석불 앞에 시멘트로 조성한 제단석이 있다.

보살입상 옆에있는 수령이 오래되어 보이는 가시나무는 보살입상보다 낮게 베어져 있다. 이는 가시나무 가지가 우거져 보살입상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보살입상의 안전을 위해 벤 것이다. 이 가시나무는 이곳에서 '망우리(쥐불놀이)'를 하던 아이들의 실수로 불에 타기도 하였으나 안쪽에서 새순이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담장 왼쪽에는 보살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널찍한 제단이 있다.

역사 아양동 1통 아롱개마을은 2010년 현재 40여 가구

아롱개마을 미륵당 입상
경기 안성시 아양동 아롱개마을, 2010.6.5 김지욱

가 거주하고 있으며,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지금도 토박이가 많이 살고 있다. 이 지역은 안성천이 아산만과 연결되는 곳이다. 예전에는 서해안의 바닷물이 이 부근까지 들어와 안성천의 찬물과 만나면서 안개가 많이 생겼다 한다. 동네가 항상 안개에 싸여 있어 동네 모습이 아른거리게 보인다 하여 마을 이름을 '아롱개', '아룽개'라고 하였다. 아롱개마을의 미륵부처는 아양동 2통 아양주공아파트 107동 바로 뒤에 있다.

미륵부처는 원래 현 위치에서 3m 앞에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해로 불상이 넘어져 목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마을 사람의 꿈에 미륵이 나타나 주민들이 두레를 만들고 쌀을 거두어 복구했다고 한다. 그때 쓰러진 불상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사를 지내게 되었다. 석불입상의 제단석에 '을사년 정월십사일 아양동일동(乙巳年 正月十四日 峨洋洞一同)'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1965년 1월에 보수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말에 안성시내에서 들어온 보살이 이 미륵당 앞집에 법당을 차리고 살면서 당을 관리하고 미륵부처에게 불공을 드리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에는 주민들이 주관하여 마을고사를 지내고, 사월초파일에는 보살이 주관하여 신도들이 모여 제를 지낸다. 특히 초파일에는 연등을 달고 신도가 많이 찾아와 주변이 성황을 이룬다.

내용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개천에 쓰러져 있던 미륵님을 다시 찾아 세워서 고사를 지낸 이후에는 마을에 재앙이 없고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도 사상자 없이 돌아왔다고 한다. 당 안에 있는 나무에도 불이 나서 나무가 죽었다고 여겼다가 마을 사람들이 미륵님께 기원하니 메마른 고목 줄기에서 새순이 돋아나서 살아났다고 한다. 이는 미륵부처가 아롱개마을을 지켜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을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다. 몸이 아프거나 다리를 젖히는 등 개운하지 않은 일이 생겨 아침 일찍 미륵당에 가서 기도를 하였더니 불편한 몸이 나았다는 주민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미륵부처에 대한 의례를 '고사'라고 한다. 지금도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아롱개마을 토박이 20~30명이 고사에 참여하고 있다. 고사는 아침 10시에 시작하여 오전 중에 마치고, 참여한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으로 점심을 먹는다.

제물은 마을 부녀회장이 중심이 되어 부녀회에서 마련한다. 보통 사흘 전에 안성 장에서 구입하며, 마을회관에서 장만한다. 고사 제물 준비 외에 고사 후에 다 함께 먹을 점심으로 밥과 찌개를 넉넉히 준비한다. 부녀회에서 제물 장만을 주관하게 된 것은 1995년부터였다. 제물은 시루떡, 제주, 사과, 밤, 곶감, 대추, 배, 북어 등이다. 예전에는 마을에 술을 잘 담그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직접 제주를 담갔으나 요즘에는 막걸리를 사다가 제주로 쓰고 있다. 시루떡도 제물을 장만하는 집에서 직접 쪘으나 지금은 방앗간에다 맞춰서 고사 당일에 가져온다.

제물은 보살입상과 석불입상 앞 제단석에 각각 진설한다. 제단석 맨 앞에 술과 술잔을 두고 다음 줄에 배, 사과, 밤, 대추, 곶감을 올린다. 맨 뒤쪽 가운데에는 실타래로 묶은 통북어를 올린 떡시루를 놓고 양쪽에 촛불을 밝힌다. 미륵불이기 때문에 어육은 쓰지 않는다. 고사 절차는 간단하다. 통장이 술을 따라 주면 대표가 절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보통 마을에서 연세가 많은 노인이 대표가 된다. 최근에는 마을 노인 대여섯 명이 참여하며, 이들이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대표가 된다. 고사를 위한 별도의 축문은 없다. 고사가

아롱개마을 미륵당 입상측면과 제단
경기 안성시 아양동 아롱개마을, 2010.6.5 김지욱

아롱개마을 미륵당 석불입상 제단석
경기 안성시 아양동 아롱개마을 2010.6.5. 김지욱

끝나면 마을 주민들이 각자 개인소지를 올린다. 미륵당을 관리하는 보살이 고사 지낼 때 와서 경을 읽어 주고 마을 대동소지를 올려 주기도 한다. 고사 지내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소요되며, 고사를 마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두레를 잠깐 친다. 예전에는 마을에 두레패가 있어서 고사를 지낸 뒤에 마을을 돌면서 걸립하였으나 2006년경부터는 두레를 칠 사람이 없어 고사 장소에서 두레를 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미륵고사를 한 번 지내는 데 20만 원 정도의 제물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두레패의 걸립이 없어진 뒤부터 아양동 1통 통장이 관리하는 자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김지욱,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한국의 마을신앙 상·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김지욱(金志昱)

액(厄)

정의 사람을 해치고 일을 방해하는 악한 기운. 액은 사람에게 무서운 질병이나 사고가 나도록 만들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갈등과 파국으로 이끄는 사악한 힘을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

역사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등에 나오는 정월에 제웅 버리기, 오쟁이 다리 놓기, 액막이 연날리기를 하는 풍속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 액에 대한 관념이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등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인 학자들과 이능화 등의 민속학자들의 조사보고서에도 액에 대한 내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액에 대한 관념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내용 한자로 액(厄)은 재앙, 불행, 멍에, 사나운 운수 등으로 풀이된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독한 기운 또는 사나운 운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선조들은 알 수 없는 불행이 자신에게 닥쳤을 경우 주로 이 액과 살이란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왔다. 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귀신이나 어떤 신(神)적 개념하고는 다른 의미로서 인간을 해치는 초자연적 힘이라 할 수 있다.

액은 횡액(橫厄), 수액(水厄), 삼재(三災)의 액년(厄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천연두 등 전염병이 마을에 퍼지게 되면 그 마을은 큰 재앙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전염병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한 의례로서 액막이제 등을 지내는 마을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디딜방아액막이제, 액막이굿 또는 횡수막이, 제주도의 신과세제 등이다. 디딜방아액막이제, 액막이굿, 제주도의 신과세제 등은 한 해의 액을 방비하기 위한 제의이기 때문에 정월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한정하여 행해진다.

액(厄)과 살(煞)은 인간 세상에 나타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서로 유사한 개념의 기운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액은 시간, 살은 공간과 각각 관련 있는 개념이다. 이것은 강화도의 〈고사소리〉에 잘 나타나 있다. 액과 살에 관해 노래하고 있는데 "하루허구두 열두 시 시시때때로 드는 액은"으로 시작하여 1월에서 12월에 드는 액을 나열하면서 그 각각의 액을 막아내는 방도도 함께 나열하고 있다. 〈횡수막이 타령〉 등으로 명명되고 있는 이 노래는 액막이 때 흔히 불리며 지역에 따라 가사가 약간씩 다를 뿐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 고사소리를 통해 '액'은 시간, '살'은 공간과 각각 관련된 관념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하루허구두 열두 시 시시때때로 드는 액은
정월달에 드는 액은
정월이라 대보름날 액맥이 연으로 막아내고
이월에 드는 액은
이월이라 한식날 한식 차례로 막아내고

삼월달에 드는 액은
삼월이라 삼짇날 제비새끼 명마구리 연자초리로 막아내고
사월달에 드는 액은
사월이라 초파일날 부처님 전에 관등놀이로 막아내고
오월달에 드는 액은
오월이라 단오날 그네줄에다 막아내고
……

이뿐만 아니라 서울굿인 횡수막이에서 불리는 〈횡수막이 타령〉에도 열두 달에 드는 횡액과 수액을 그 달의 좋은 기운이 들어 있는 날의 힘으로 막아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월 한 달 드는 홍수
정월대보름으로 막아내고
이월 한 달 드는 홍수
이월 개춘에 막아내고
삼월 한 달 드는 홍수
삼월삼짇날로 막아내고
사월 한 달에 드는 홍수
사월초파일로 막아내고
……

이를 통해 달이 지날 때마다 수시로 액이 들 수 있다는 인식과 달마다 액을 막아낼 수 있는 특정한 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사소리〉, 〈횡수막이 타령〉 등에서는 액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살에 대해서도 동시에 노래하고 있다. 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간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서사방 출입을 하시면 서낭살이 위태하니 서낭살을 풀어보자"로 시작하면서 각각의 장소에 나타나는 살을 나열하고 있다.

동서사방 출입을 하시면
서낭살이 위태하니 서낭살을 풀어보자
산으로 가면 산신살, 들로 가면은 들룡살,
도시로 가면은 교통살,
죽은 나무엔 동테살, 혼인 대상엔 주당살,
아기를 낳으면 삼신살 삼신 끝에는 부정살
도둑이 들면 손재살, 불이 나면 화재살,
동네방네 불안살
조왕터전을 접어드니 바깥 마당엔 벼락살
대문상간에 접어드니 대문상간에 수문장살
지붕마루엔 용충살,
마루대청을 접어드니 마루대청엔 성주살
건넌방에는 군중살,
안방상간 접어드니 아랫목에는 제석살이요
이벽저벽이 벽화살,
내외지간엔 공방살, 횟대 끝에는 넝마살

굿의 첫머리에는 주당물림을 하여 주당살을 물리치는 의례가 있다. 주당물림을 할 때에는 무당과 악사 둘만 남고 주당살을 피해 모두 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는 주당살에 맞아 급사할 수도 있다고 여긴다. 그런데 이 주당살은 열흘을 기준으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한다. 초하룻날에는 우물, 이튿날에는 문, 사흗날에는 행랑, 나흗날에는 칙간, 닷샛날에는 마굿간, 엿샛날에는 마당, 이렛날에는 마루, 여드렛날에는 방, 아흐렛날에는 굴뚝에 각각 있고 마지막 날인 열흘 때에는 아무 데도 있지 않는 것으로 관념된다.

또한 상가(喪家)에 문상을 다녀와서 몸이 아프면 '상문살이 들었다' 또는 '살 맞았다'라고 하며, 예상치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 '살이 끼어서 그렇다'라고 한다. 살은 사람이 기거하는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언제 어디에서나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살이고, 또 한 번 오르게 되면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마을 제의로서의 디딜방아액막이 제의, 굿으로서의 액막이굿 또는 횡수막이, 신과세제 등은 정월에 그해의 액을 미리 막고자 하는 예방의례 성격을 띠고 있다. 액막이굿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삼재풀이 역시 특정한 해에 드는 삼재를 막기 위한 예방의례이다. 이로 보아 액은 강원도 〈고사소리〉와 〈횡수막이 타령〉에도 나타나듯이 어떤 달[月]에 나타나기도 하고, 삼재와 같이 특정한 해[年]에 사람에게 닥치기도 한다. 또한 제주도의 〈저승본풀이〉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는 "날액과 달액을 막아주고 재수대통 시켜주기"를 축원하고 있다. 이렇듯 액은 특정한 날, 달, 해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살이 공간에 고정적으로 거처하고 있는 나쁜 기운이라면 액은 주기적 또는 특정한 때에 공간을 침범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기운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살**(이필영,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새남굿**(김헌선,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신과세제**(강정식,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액막이굿**(김은희,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조선무속고**(이능화, 동문선, 1995), **조선무속의 연구**(秋葉隆 · 赤松智城, 동문선, 1991).

필자 **김창일(金昌一)**

액매기(厄買旗)

정의 정월대보름날에 불사르는 동화(洞火)의 싸리나무홰 꼭대기에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거는 깃발.

형태 액매기는 '액운을 파는 기'란 뜻을 지니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산 일대의 산간마을에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복기(迎福旗)' 또는 '망월기(望月旗)'라고 부르기도 한다. 액매기는 일제강점기 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보고한 『조선의 향토오락』을 통해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즉 광주의 정월대보름날 풍속에 "마을에 따라서는 동네 근처의 달이 잘 보이는 곳에 싸리로 크게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축원문을 쓴 종이깃발을 세운다. 어린이들은 따로 작은 횃불을 만들어 나이 수대로 끈을 묶어 달이 뜰 때에 그 횃불을 들고 달에 절을 한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커다란 싸리나무단 위에 축원문을 써서 세운 종이깃발이 액매기이고, 아이들의 나이 수대로 묶은 작은 횃불은 말린 쑥대를 엮어서 만든 '다북대(일명 달님대)'를 말한다.

액매기는 마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1리의 액매기는 한지를 방패연처럼 잘라서 꼬리를 붙이고, 좌우에는 삼각형의 지네발 세 개를 각각 부착했다. 기폭에는 망월기라고 썼다. 초월읍 선장동의 액매기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싸리나무홰 꼭대기에 거는 큰 기이고, 다른 하나는 두레의 영기(令旗)와 흡사하게 생긴 명령기(命令旗)이다. 선장동의 액매기에는 영복기라고 새겨져 있다. 재질은 한지이고, 형태는 세로로 제작된 농기와 유사하다. 기폭의 끝에는 초록 · 빨강 · 파랑 · 노랑 네 가지 색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여덟 가닥의 꼬리를 길게 덧붙였다. 또한 기폭의 좌우에는 역시 네 가지 색종이를 지네발(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오려서 한쪽에 16개씩 형형색색으로 장식했다.

선장동 액매기의 제작에는 창호지 7장이 소요된다. 그 절반인 3.5장은 기폭에 사용하고, 2.5장은 지네발, 나머지 1장은 꼬리를 만든다. 본래 꼬리와 지네발은 창호지에 물감을 들여서 화사하게 치장하였으나 최근에는 간편한 색종이를 사서 쓴다. 2009년에 제작된 선장동 액매기는 길이 360㎝, 폭 56㎝이고, 꼬리는 길이 45㎝, 지네발은 길이 44㎝, 폭 30㎝이다. 기폭의 최상단에는 해와 달을 색종이로 오려붙였는데, 좌측의 붉은색은 달을, 우측의 노란색은 태양을 상징한다. 해와 달의 하단에는 마을의 주소, 가구 수, 행사 연도, 축원문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명령기는 '명기(命旗)'와 '영기(令旗)' 두 개가 있다. 이는 액매기를 걸 때 싸리나무홰 양쪽 옆구리에 꽂는 정사각형의 작은 깃발이다. 색상은 붉은색이 명기, 노란색이 영기이다.

내용 액매기는 정월대보름날을 맞이하여 질병소멸 · 재액퇴치 · 화재방지 ·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상징물이다. 따라서 그 속에는 싸리나무홰에 '액운을 파는 깃발'을 걸고 불살라 없애는 의식으로 모든 재앙이 소멸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하여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이 찾아오면 솜씨가 좋은 사람이 정성을 다해 액매기를 만들고,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축원문을 써내려 간다. 이 축원문은 액매기의 기능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선장동 액매기의 축원문은 '경기도광주시초월읍선장동거십칠호가기축정월십오일거하재회남녀노소아동망월재배질병소액영복 기(京畿道廣州市草月邑仙掌洞居十七戶家己丑正月十五日炬下齋會男女老少兒童望月再拜疾病消厄迎福 旗)'이다. 홍미로운 사실은 액매기에 기입하는 가구 수에는 '달님 복'이라 하여 실제보다 한 가구를 더 추가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 기폭의 양옆에는 별도의 축원문이 두 줄로 묵서되었

액매기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장동, 2009.1.14(음), 강성복

액매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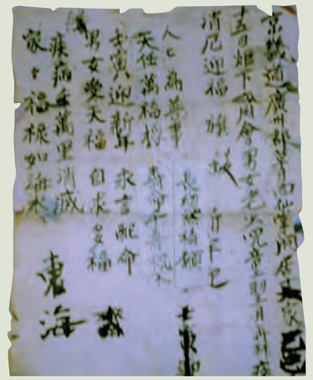
액매기

액매기의 좌우에 거는 명령기

동화에 걸린 액매기

동화에 걸린 액매기와 명령기

액매기에 쓸 축원문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장동, 2009.1.14(음)
강성복



는데, 오른쪽은 '인위선사(人爲善事) 천임만복수(天任萬福授)' '장유묵도원(長幼默禱願) 수명천수축(壽命千壽祝)' '질병천만리소멸(疾病千萬里消滅)'이다. 왼쪽에는 '기축영신년(己丑迎新年) 남녀수천복(男女受天福)' '영언배명(永言配命) 자구다복(自求多福)' '가가복록여해수(家家福祿如海水)'라고 새겼다. 이처럼 가가호호 남녀노소의 무병장수와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집집마다 창호지·붓·먹값을 따로 받기도 했다.

초월읍 갈월마을의 액매기도 선장동과 동일한 형태이다. 다만 기폭의 상단에는 해를 뜻하는 원이 하나만 그려져 있고, 깃발의 좌우를 장식한 지네발과 꼬리는 색종이를 쓰지 않고 흰색 한지를 오려붙였다. 선장동과 갈월은 사실상 한마을이면서도 액매기의 장식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고려하여 깃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여자로 인식되는 선장동에서는 액매기를 곱게 단장함으로써 여성임을 나타냈고, 남자인 갈월은 아무런 채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초월읍 신월3리의 액매기는 남녀 두 개를 만든다. 그 까닭은 음양의 조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동화 역시 양쪽에 두 개를 세우고 동화의 꼭대기에는 액매기를 꽂는다. 이 기는 달을 상징한다. 기폭의 상단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원이 그려져 있는데, 여자에 꽂는 붉은색은 보름달을 뜻하고, 남자인 푸른색은 해를 상

경기 광주시 초월읍 갈월, 2009.1.15(음), 강성복

액매기 태우기

갈월 액매기

징한다. 두 기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문이 묵서되어 있다.

이에 비해 초월읍 도평리의 액매기는 한지에 '화덕진군(火德陳軍)'이라 쓰고, 그 밑에 '경기도광주시 초월읍도평리가가호호화재예방화덕진군소멸(京畿道廣州市草月邑道坪里家家戶戶火災豫防火德陳軍消滅)'이라 묵서했다. 이 마을에서 액매기는 화재를 소멸시키는 상징적인 존재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는 태화산의 화기(火氣)와 관련이 있다. 즉 예부터 태화산에서 화기가 매우 강해 인근 마을에 화재가 잦았다. 그래서 이 산에서 보이는 모든 마을은 정월대보름날이면 가가호호 나무를 묶어서 동화대를 세우고 보름달이 떠오를 때 불을 질러 화재를 예방한다고 한다.

초월읍 선동1리의 액매기는 한복판에 망월기라고 쓰고, 그 양옆에 주소와 축원문을 빼곡하게 적었다. 이 깃발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있어 이를 본떠 제작하기 때문에 그 모양과 축원문의 내용은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근에는 마을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중소기업 발전'이란 문구가 추가되었다. 액매기의 왼쪽에 적힌 축원문은 역질소멸, 국태민안, 마을의 평안 등 정월대보름날을 맞이하여 주민들이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액매기는 무속에서 액운을 물리칠 목적으로 지붕에 꽂는 깃발과 상당한 친연성이 있다. 기폭의 상단에 그려진 해와 달이 그 표상이다. 이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정월대보름날에 나이가 해와 달의 직성(直星)을 만난 사람은 종이로 해와 달의 모양을 오려서 나무에 끼워 지붕의 용마루에 꽂는다"라고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용마루에 꽂는 해와 달은 정초에 무당에게 신수점을 보아 삼재(三災)가 들었거나 죽을 운이 닿은 사람이 액땜을 위해 미연에 행하는 주술적인 처방의 하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액매기는 정월대보름날 싸리나무홰와 함께 불사르는 상징적인 의례를 통해 마을에 깃든 재액(災厄)을 없애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광주시사 3**(광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조선의 향토오락**(촌산지순 · 박전열, 집문당, 1992),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해동화놀이와 장승제의 전승양상과 활용방안**(광주문화원,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양양동해신묘지(襄陽東海神廟祉)

정의 나라에서 동해신에게 풍농풍어(豊農豊魚)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낸 곳.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1월 22일에 '강원도 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동해신묘를 세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사』를 참조하면 고려시대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보면 조선 초기에 국가 제사 가운데 중사(中祀) 장소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성소부부고』, 『여지도서』, 『관동읍지』, 『현산지』, 『동국문헌비고』, 『향토지』 등에 기록이 전한다. 18세기 기록을 보면 동해신묘는 정전(正殿) 여섯 칸, 신문(神門) 세 칸, 존사청(尊祀廳) 두 칸, 동재(東齋) 두 칸, 서재(西齋) 두 칸, 백천문(百川門) 한 칸 규모였다. 제향은 세수(歲首)에 별제(別祭)를 올리고, 춘추로 상제(常祭)가 있었다. 1722년(경종 2)에 양양부사 채팽윤과 1752년(영조 28)에 양양부사 이성억이 중수하였다. 1800년(정조 24)에는 어사 권준의 상소에 따라 강원도관찰사 남공철 주관으로 중수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와 백천문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전에 백천문은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1908년(융희 2) 12월 26일 일제의 민족문화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동해신묘는 철폐되었다. 당시 양양군수 최종락이 정부의 영에 따라 신위는 신묘 뒤편에 매장하고 신묘를 철폐하였다는 기록이 양양군 『향토지』에 전해진다. 현재 동해신묘는 1993년부터 시작한 동해신묘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원한 것이다. 1800년(정조 24)에 관찰사 남공철이 지은 글인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와 1605년(선조 38)에 허균이 지은 〈중수동해용왕묘비(重修東海龍王廟碑)〉도 복원되었다. 오석으로 되어 있는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는 높이는 35㎝, 둘레는 60㎝ 안팎으로 사면에 글씨가 석각되어 있으며 훼손이 심한 상태다.

양양동해신묘
강원 양양군 조산리
2005.7.8. 이한길

내용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천과 바다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였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해의 동해신묘(강원도 양양군)와 더불어, 서해의 서해신사(황해도 풍천), 남해의 남해신사(전라도 나주-현재 전라남도 영암)는 주요한 국가 제의의 장소로 매년 음력 이월과 팔월에 왕이 친히 향과 축을 보내 제사를 지낸 곳이다. 동해신묘는 조선시대 사전(祀典)을 정비하는 과정에 중사(中祀)로 제정되었다. 동해신묘의 위치를 보면 서북쪽으로 대나무와 솔밭이 있고, 서쪽은 민가와 접해 있다. 남쪽과 동쪽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높은 대지 위에 새로 지은 정전이 1동 있다. 정전의 서북쪽으로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와 〈중수동해용왕묘비〉가 있다. 면적은 1,316㎡이고, 소재지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39 외 1필지이다. 1993년에 복원할 당시 조산리 399번지와 434-55번지의 1,058㎡를 옛 동해신묘지로 설정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복원한 것이다.

동해신묘제를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동해신묘에서 제향하고 있다. 양력 1월 1일 오전 6시에 해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제향하고, 또 여름 해수욕장 개장시기인 양력 7월 10일을 전후하여 오전 10시쯤에 해변용왕제를 제향하고 있다. 이 두 행사 모두 양양군수가 초헌관이 되고, 양양군 의회 의장이 아헌관이 되어 진행한다. 해맞이행사는 1995년 제1회를 시작하였고, 해변용왕제는 1993년에 동해신묘를 복원한 다음부터 시작하였다. 해변용왕제는 동해신묘를 복원하기 전에는 바닷가에서 병풍을 쳐놓고 제향했던 것으로 그 역사는 오래되었다.

동해신묘에 관한 여러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허균의 글에 전하는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력 갑신년 7월 양양부 동산리에 사는 어부 지익복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바람이 그 배를 몰고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 이렇게 일주야를 달려 동쪽으로 한 섬에 닿았는데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인도하여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왕궁에 나아가니 궁 뜰에는 창을 든 병사의 경계가 매우 삼엄하였다. 왕이라는 자가 보라색 옷을 입고 궁전에 앉아서 말하기를 "내가 강릉에서 제사를 받아먹은 지 수천 년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강릉부 사람에게 쫓기어 이곳으로 옮겨와 보니 좋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상제께 호소한 끝에 이제 비로소 허락을 받았으니 너의 힘을 빌려 관원에게 뜻을 전하고 옛 땅 내 집에 돌아가고자 하니 너는 목민관에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몰아치게 할 것이니 백성들이 나의 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고는 바람을 몰아 돌려보내 주었는데 하루가 못 되어 동해로 돌아왔다. 어부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으나 감히 관가에 나아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향임(鄕任) 이석림에게 말하여 관아에 보고하게 하였다.

이 설화 외에도 동해신묘에서 관우를 제향하였다는 설화도 양양군에서 전해온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신에게 제향한 곳으로는 동해의 양양동해신묘 외에 남해의 남해신사(전라도 나주), 서해의 서해신사(황해도 풍천) 등이 있고, 육지와 접해 있는 북쪽에서는 두만강신사(함경북도 경원)와 압록강사(평안북도 의주) 등이 있다. 동해신묘는 조선 초기에 나라에서 제사를 정비하여 서해 · 남해와 함께 주관한 곳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동해묘에 관한 소고**(정영호, 청람사학 창간호,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사학회, 1997), **동해신묘의 문화사적 고찰**(장정룡,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양양 동해신묘**(강릉대학교박물관, 1999).

필자 **이한길(李漢吉)**

양양임천리서낭제

정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에서 지내는 마을 제사. 임천리는 관내 3개 반이 있다. 반별로 제향하지 않고 리 단위로 모여 제향한다. 주민은 9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임천리는 1945년 이후 북한 치하에 있었으며 당시에 인근 마을에서는 미신 타파를 이유로 마을마다 마을 제의가 사라졌으나 임천리는 밤에 몰래 제향하면서 그 전통을 유지해 왔다. 임천리에는 산신제와 서낭제 두 개의 마을 제의가 있다.

내용 **1. 제의 일시** 예전에는 날을 받아 제향하였으나 6·25전쟁 이후로는 정월 초정일(初丁日)로 고정하였다. 그러나 정초에 출산, 상고 등 부정이 발생하면 제일(祭日)은 2월, 3월로 연기되곤 하였다. 2005년에 정월 초사흗날로 고정하였다. 예전에는 새벽 3~5시쯤에 석성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낸 다음 마을로 내려와 조용히 있다가 오후 해가 질 무렵에 산신당 아래에 있는 서낭당으로 가 서낭제를 지냈다. 2005년 1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제향하기 시작하였다.

2. 당집과 당목 예전의 산신당은 석성산 뒤편에 있어서 마을과는 거리가 멀어 많이 힘들었다. 1950년대 초에 석성산 자락이지만 남대천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산신당을 옮기고 주위에는 돌담을 둘렀다. 1957년쯤에 본래 산신제를 지낸 곳에 황일선 여사가 산신각을 새롭게 건축하였다. 이 산신각은 2005년에 있은 양양을 휩쓴 대형 산불에도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어서 그 영험이 입증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산신각은 이제 마을과 관련이 없는 곳이다.

예전의 서낭당은 마을 어귀에 있던 서낭목(느티나무)이었다. 이 서낭목이 고사하였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서낭으로 모시고 제향하였다. 1978년쯤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낭목이 있던 자리에 주택이 들어섰다. 원래 서낭이 있던 곳은 마을땅이었지만 등기를 해 놓지 않아 군 소유가 되었고, 군에서는 사업자에게 이 땅을 매각하여 주택을 지었다. 서낭을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자 서낭을 주택 앞의 마을 공터로 옮겼다. 그러나 1991년에 이곳마저도 주택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다시 지금의 자리(산신당보다는 조금 아래에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3. 신위 산신제는 석성산 산신, 서낭제는 성황지신·토지지신·여역지신을 각각 제향한다. 본래 축문에는 성황신(서낭신)에만 제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은 3위지신에 제향한다. 이로 미루어 전승 과정에서 새로운 신격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4. 축문과 홀기 마을에 전하는 축문과 홀기가 있다. 이 축문과 홀기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축문은 석성산 산신제 축문이라고 명명하였다. 양양군에서 홀기가 있는 마을은 감곡리, 조산리, 임천리의 세 곳뿐이며 이것은 근처에 양양향교가 있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홀기는 인구 감소로 제관 선정이 용이하지 않던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5. 제관 제관은 제일을 남기고 일주일을 전후하여 마을회의를 열어 선정한다. 예전엔 생기복덕을 보아 제관을 선정하였다. 인구가 감소하여 제관을 모두 갖추기가 어려워져서 1980~1990년대부터는 생기복덕을 보지 않는다. 제관은 헌관 세 명, 축관 한 명, 집사 한 명으로 모두 다섯 명이다. 초헌은 주로 고령자가 맡고, 그 외 아헌과 종헌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다. 예전엔 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집사가 두 명 있었다. 마을에서 특별히 장만해 놓은 제복은 없다.

6. 제물 산신제의 제물은 서낭제와 별도로 차렸으나 대체로 간소화하였다. 산신제의 제물은 명태, 삼실과(곶감, 대추, 밤), 감주(술 대용), 메, 생고기(주로 돼지고기) 등이다. 산신제도 3신위이므로 제상을 세 개 차린다. 서낭제의 주요 희생물은 소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도 돼지를 희생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보아 희생물의 변화는 오래전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지금은 돼지고기 생육을 사용하며 신위당 한 근씩 모두 세 근을 사용한다. 신위가 3신위이므로 메는 세 그릇이며 수저도 세 벌이다. 어물인 명태도 세 마리를 장만한다.

예전에 산신당을 옮기기 전에는 산신당 근처에 우물이 있어 이 우물을 이용하여 메뿐만 아니라 온갖 제물을 장만하곤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서낭답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돌려가며 부치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출로 서낭제를 지냈다. 그러다가 토지문서가 6·25전쟁 이후에 사라져서 서낭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별도의 서낭계는 없다.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는 예전부터 마을에서 장만해 놓은 것이 있었으나 6·25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분실하여 마을에서 새로 장만한 것이다.

산신각
강원 양양군 임천리
2006.1.31, 이한길

7. 제의 절차 예전에는 제삿날을 받으면 동네의 깨끗한 집을 빌려 주인은 다른 집에 있게 하고 그 집에서 제관들과 집사 두 명(음식 담당)이 제물을 장만하였다. 집사들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렀다. 이 집에 금줄을 치고 송침을 하였다. 송침은 소나무 가지를 꺾어 문가에 거꾸로 세워 놓는 것으로, 금줄과 같은 기능을 한다. 2005년부터는 마을회관에서 제수를 장만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에만 송침을 한다. 제의 진행에서 예전엔 홀기를 따랐지만 요즘은 홀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을 제의는 유교식이어서 소지를 올리지 않고 제당에 실타래나 종이도 매달지 않는다.

산신제를 먼저 제향한 다음 서낭제를 제향하였다. 오전에 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낸 뒤 마을로 돌아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제수를 장만하여 서낭제를 지냈다. 2005년부터는 산신제와 서낭제를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마을회관 내에 제상을 진설할 때 왼쪽부터 성황지신·토지지신·여역지신의 순서로 위패를 진열하고, 성황·토지·여역의 순으로 각 헌관이 헌작을 하였다. 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낼 때 위패(또는 지방)는 달리 없었다. 그러나 서낭제를 지낼 때에는 한지에 3신위의 지방을 써 붙여 놓고 제향하였다. 마을 제사가 끝나면 징을 쳤다. 징 소리가 나면 주민들은 제사가 끝난 것을 알고 마을회관에 모여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개인별로 올리던 터고사도 마을 제사가 끝나야 올릴 수 있었다. 1963년쯤까지는 징을 치던 풍속이 전승되었으나 이후 1995년쯤까지는 제대로 전승되지 않다가 1995년쯤부터는 이마저도 완전히 중단되었다.

지역사례 산신제를 제향하고 나서 서낭제를 제향하는 마을은 양양군 관내에도 어성전리, 죽정자리 등 몇 곳이 있다.

참고문헌 양양군마을제당조사(장정룡, 양양문화원, 2002), 한국의 마을신앙 CD(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이한길(李漢吉)

양양죽정자리서낭제

정의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죽정자리 주민들이 서낭당에서 마을의 안녕과 태평 등을 기원하며 지내는 동제.

역사 옛날 큰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서낭당이 있어 서낭목이라 불렀다. 봄고사는 여기서 지냈으며, 가을고사는 마을의 당에서 지냈다. 초계 정씨(草溪 鄭氏) 7대조 어른이 현몽하기를 '내가 사실 여기 나무에 살고 있으니 식은 밥이라도 한술 보내 달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내용 **1. 명칭 및 제일** 죽정자리는 1~3반인 죽리와 4~6반인 정자리를 합하여 이루어진 행정구역이다. 죽리는 대나무가 많아서, 정자리는 마을에 정자가 있어서 각각 붙여진 이름이다. 죽정자리는 6반까지 있다. 서낭당은 1~3반에 죽리서낭당, 4·5반에 정자리서낭당, 6반에 서낭당으로 모두 세 곳에 있다. 서낭고사는 모두 같은 날에 지낸다.

죽리 서낭고사는 '당제사' 또는 '서낭당제사'라고

도 하며, 예전부터 봄과 가을로 일 년에 두 번 정일(丁日)을 택해 지내고 있다. 주로 초정일(初丁日)에 지내며, 이날이 맞지 않으면 중정일(中丁日)로 넘겨서 지낸다. 정자리 서낭고사는 정월 초정일과 시월 초정일로 일 년에 두 번 지낸다. 그러나 부정한 것을 보거나 일이 벌어지면 중정일로 미뤄 지내기도 한다.

2. 제관 죽리서낭당에는 토지지신, 성황지신, 여역지신의 세 분의 신을 모신다. 토지지신을 중심으로 왼쪽에 성황지신, 오른쪽에 여역지신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서낭고사도 중앙의 토지지신부터 지내고 성황지신·여역지신 순으로 지내며, 제관 세 명이 각각 한 분의 신을 맡는다.

서낭고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도가' 또는 '차지'라 하며, 두 집이 맡아서 한다. 이 가운데 한 집은 가을, 다른 한 집은 봄에 각각 책임을 맡으면서 두 집이 서로 도와준다. 제물을 준비할 때에는 부정을 가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돕거나 하는 일은 없다. 도가를 맡은 집은 당고사가 정해지면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다. 도가는 마을에서 돌아가며 맡으며, 마을 어귀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두 집씩 정해진다. 도가를 맡은 집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그다음 집으로 넘어간다.

제관은 보통 세 사람을 선정한다. 그리고 축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 축관을 선정한다. 축문은 토지지신, 성황지신, 여역지신 몫으로 모두 석 장이 전해온다. 예전부터 전해 오던 한문으로 된 축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한글로 옮겨 적어 사용하고 있다. 축관은 마을에 따로 정해진 사람이 있어 간혹 제관과 축관을 겸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제관 세 명이 따로 축을 읽었으며,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 가운데 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제관이 되었다.

제관은 제일이 정해지면 집 안에만 있었으며, 보통 제관으로 선정되고 닷새 정도는 나들이를 금한다. 그리고 제일(祭日)에는 동네 물가에서 목욕재계하고 당으로 나갔다. 추운 정월에는 가마솥에 물을 데워서 사용하였다. 제관은 해마다 누가 맡을지 거의 정해져 있다. 소를 잡아서 고사를 지낼 때에는 부정하지 않으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으나 요즘은 도가와 제관만 참여하는 정도이다. 더욱이 마을에 노인들만 남아 있어 일반 주민들의 서낭고사 참여는 더 어

죽리서낭당 여역지신 제물진설
강원 양양군
현남면 죽정자리
2003.11.8. 최호식

려워지고 있다. 서낭고사에 여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은 도가를 맡은 집의 여자들도 제물을 이고 서낭당에 나오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음식만 장만해 줄 뿐 서낭당에는 나오지 않았다.

3. 제물 죽리 서낭고사의 주요 제물은 가을에 바치던 수소 한 마리와 봄에 바치는 수탉 세 마리이다. 예전의 가을 서낭고사에는 반드시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우시장에 나가 깨끗한 수소를 골라서 사 오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서 잡았다. 소는 가죽을 벗긴 다음 부위별로 잘라서 바쳤다. 쇠고기는 나무꼬챙이에 꿰어 산적을 만들었다. 제물 준비는 모두 서낭당에 가마솥을 걸고 하였다. 현재는 쇠고기 세 근과 탕으로 처녑, 간, 허파, 창자 등 내장이 골고루 들어간다. 즉 고기를 사서 쓰더라도 부위별로 조금씩은 다 들어간다. 음복할 때에는 내장탕을 이용한다. 봄 서낭고사에 반드시 수탉을 쓰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수탉 세 마리를 잡아서 바친다. 이때에는 쇠고기를 쓰지 않는다.

메는 생우메(새옹메) 세 그릇을 집에서 지어 가지고 간다. 제주는 서낭고사가 치러지기 이틀 전에 세 주전자 분량으로 준비하였다가 제일에 걸러서 사용한다. 제주는 서낭당 앞에 묻고 그 위에 모닥불을 피워 땅을 달궈서 술이 잘 빚어지게 한다. 그리고 금줄을 쳐 이곳의 접근을 금하고 도가집도 이때 금줄을 친다. 2010년에는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린 바람에 금줄은 서낭고사를 치르기 하루 전에 쳤다. 금줄은 서낭고사가 끝나면 바로 제거한다.

모시는 신이 세 분이기에 제물은 어물과 과일을 제외하고 모두 세 그릇씩 준비한다. 제물은 떡, 탕, 채소, 어물, 포, 과일, 돼지머리, 메 등이다. 쇠고기는 비싸서 봄에 북어 한 쾌, 가을에 돼지고기 세 근을 각각 바치고 있다. 가을에 지내는 서낭고사에서는 본래 돼지 한 마리를 잡았으나 제물 비용이 많이 들어 세 근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서낭고사 제물 가운데 가장 먼저 담는 것은 토지신(土地神)의 몫으로 한다. 두 번째가 성황신(城隍神), 세 번째가 여역신(癘疫神)의 몫이 된다. 이에 따라 제물을 담을 때에는 제물이 담기는 제기마다 1·2·3이라는 숫자를 써서 구분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 제물 가운데 1이라는 숫자가 붙은 것은 토지지신 앞에 진설하게 된다.

예전에는 제일이 결정되면 제물비용을 모으러 집집마다 다녔다. 지금은 가구당 10만 원을 거둬 마련한 동네기금이 있어 이 돈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로 제물 비용을 충당한다. 가구당 10만 원을 모은 지는 15년 정도 되었으며, 2010년 현재 120만 원이 저축되어 있다. 또한 마을에서 계를 모아 논을 샀다. 모두 3,600㎡ 정도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확으로 서낭고사를 지냈고, 장리쌀을 주어서 돈을 늘리기도 하였다. 처음 논을 살 때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쌀을 한 말씩 냈다.

정자리 서낭고사는 집집마다 쌀 한 되를 걷어서 제물을 마련한다. 2000년 이전만 해도 가구마다 10만 원을 내 그것을 농협 정기예금으로 저축해 두고 그 이자로 제물 비용을 충당하였다. 지금도 농협에 210만 원이 예치되어 있지만 제물 비용은 따로 걷어서 충당한다.

예전의 서낭고사에는 마을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큰 그릇을 하나씩 들고 나왔다. 고사가 끝나면 이 그릇에다 집집이 쇠고기 한 근, 떡 한 뭉치, 곶감 한 개, 대추 한 알, 밤 한 톨을 담아서 나눠 주었다.

4. 제차 정자리 서낭고사는 도가 집에서 제물을 경운기로 옮긴 뒤 제관 두 명과 함께 고사를 지낼 준비를 한다. 먼저 남자들은 서낭당 청소를 하고 불을 지펴 주위의 찬 기운을 가시게 한다. 도가 집의 안주인은 이틀 전에 묻어 둔 항아리에서 제주를 걸러낸다.

제단에 제물을 차리는 동안 제관 세 명은 도포로 갈아입고 유건을 쓰는 등 복장을 갖춘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세 제관은 나이순으로 연장자가 맡으며, 보통 큰 부정한 일이 없으면 계속 맡는다.

먼저 초헌관이 분향을 하고 사배한 뒤 술을 한 잔 올린다. 그러고 나서 제관이 함께 사배를 드린다. 신위 앞에 술을 한 잔씩 올리고, 메의 뚜껑을 열고 수저를 꽂는다. 초헌관이 사배하고 무릎을 꿇고서는 술을 한 잔씩 올리고, 음식에 올려진 수저의 위치를 바꾼다. 똑같이 아헌관과 종헌관이 뒤를 이어 한다. 종헌관의 순서가 끝나면 전체가 절한 뒤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리고 잠시 묵념을 하다가 초헌의 홍소리에 일어난다. 메에 꽂은 수저를 걷어낸 다음 메의 뚜껑을 닫고는 전체 사배 드림으로써 당고사의 본 제차(祭次)는 끝난다.

다음은 제물을 조금씩 덜어내어 퇴수그릇에 담고서는 밖으로 나가 성황님께 축원을 고한 뒤 담은 음식을 비워낸다. 고사가 끝난 뒤 남는 것은 소지 올림과 음복이다. 소지를 올리기 전에 큰 소지 종이를 접어서 명주 실타래로 성황신에 해당하는 입석에 달아맨다. 이를 '성황당 소지'라고 부른다. 자신들의 정성을 잘 받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어느 가정이든 잘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매단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제관 세 명이 한 동씩 맡아 집집마다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를 다 올리면 음복을 하고 마친다.

5. 제의 목적 및 특징 동네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잘되게 해 달라는 것이 서낭고사의 목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토지지신은 동네가 편안하도록, 성황신은 동네 주민들이 아무 탈 없이 지내도록, 여역신은 동네의 사람이든 가축이든 나쁜 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서낭당에 세 분의 신을 모시고 있다.

동신으로 세 분의 신을 모시는 사례는 강원도 지방을 포함하여 동해안 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 다만 죽정자리 같은 산촌지역과 달리 바닷가 어촌마을은 바다의 풍어를 관장하는 여서낭을 따로 모신다는 차이점이 있다.

죽정자리 서낭고사에서 삼헌관을 선정하는 것과 제일을 정일로 정한다는 점, 축을 포함하여 제차에서 유교식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점 등은 이 지역의 동제

양양죽리서낭제 강원 양양군 현남면 죽정자리, 2003.11.8, 최호식

배례

분향

헌작

축문낭독

가 유교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유교식 동제는 강원도지방을 포함하여 타 지역의 서낭제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마을의 인근 지역에 향교 등이 있어 이곳에서 학습을 한 마을 주민이 생기면 그동안의 제례가 유교식으로 바뀌는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죽정자리 현지조사**(2003년 11월 10일), **민속박물관 사람들의 세시풍속현장조사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8).

필자 **김진순(金鎭順)**

여귀(厲鬼)

상호참조 여제(621쪽), 여제등록(623쪽)

정의 불행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제사를 지낼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 전염병과 같은 해를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귀신.

유래 여귀란 말은 조선 태종 때 여제(厲祭)의 도입과 함께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여제의 대상으로 여겨진 여귀의 유형을 살펴보면 창·칼에 죽은 자, 물·불이나 도적에 죽은 자, 재물을 빼앗기고 핍박당해 죽은 자,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은 자, 억울하게 형벌을 받아 죽은 자, 천재(天災)와 전염병으로 죽은 자, 맹수나 독충에 물려 죽은 자, 얼거나 굶주려서 죽은 자, 전투에서 죽은 자, 위급한 상황에서 목매어 자살한 자, 담장이나 집에 깔려 죽은 자, 난산(難産)으로 죽은 자, 벼락 맞아 죽은 자, 추락해서 죽은 자,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자 등이 있다. 본디 중국에서도 여귀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무사귀신(無祀鬼神)만을 가리켰지만 후대로 오면서 불행하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존재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여제와 함께 유입된 여귀 역시 이러한 포괄적인 여귀 개념이다. 그러나 흔히 여귀를 무사귀신으로 표현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여귀는 제사 지낼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죽은 귀신을 가리킨다.

내용 여귀는 억울하거나 불행한 죽음을 당하였고 제사를 지낼 후손이 없어서 그들의 원통함과 억울함, 외로움으로 원기(怨氣)가 쌓여 병을 일으키고 화기(和氣)를 상하게 해서 변괴(變怪)를 초래한다고 여겨졌다. 여귀가 초래하는 대표적인 위험은 바로 즉 역병(疫病)과 전염병이다. 이 때문에 여귀를 여역신(癘疫神), 역병신(疫病神)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여귀에 의한 질병으로 여겨진 것에는 여역(癘疫), 반진(斑疹), 시기(時氣), 괴질(怪疾), 홍역(紅疫) 등이 있다. 이러한 질병은 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퍼질 수 있는 전염병이다. 물론 여귀는 전염병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뭄도 초래한다고 여겨졌다. 가뭄이 발생한 때에도 여제를 실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국가는 여귀로 인한 역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과 각 지방에 여단(厲壇)을 세우고 청명(淸明)과 7월 15일, 10월 1일 등 일 년에 세 차례 제사를 지냈다. 이처럼 여단은 이미 조선 전기에 사직단(社稷壇)·성황단(城隍壇)과 함께 군현(郡縣) 제사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한편 이러한 정기적인 여제 외에도 갑자기 한 지역에 전염병이 돌면 비정기적인 여제인 별려제(別厲祭)를 지냈다.

조선시대에 행해진 여제의 대상은 여귀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여제의 중요한 대상의 하나는 성황신(城隍神)이다. 이에 따라 여제는 두 개의 제사로 구성된다. 먼저 여제 사흘 전에 성황신에게 여제를 알리는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를 행한다. 성황발고제는 성황신으로 하여금 여제를 위해 여귀의 무리를 모아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제를 지낸다. 제단 구성에서도 성황신과 여귀가 구분된다. 즉 성황의 신좌(神座)는 단 위에 남향으로 하고, 여귀는 15위를 둘로 나눠 단 아래 좌우로 마주 향하게 배치한다.

이러한 여귀와 여제는 넓은 의미의 원혼(冤魂) 개념을 전제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원혼 관념은 이미 고대부터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여귀라는 용어와 여제라는 제의는 중국에서 유입되었지만 여귀와 여제가 기초한 원혼 관념 자체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즉 여귀와 여제는 조선시대에 유교 사전(祀典) 체계의 확립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용되었지만 그 관념적 기반은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귀는 한국 민간에 수용될 여지를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지역사례 강원도나 전남 진도 같은 지역에서 뚜렷하게 여귀라는 명칭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여귀는 마을신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진도에는 여제단이 있어서 정월이 되면 여제단에 '무자귀(無子鬼)'를 가뒀다가 10월에 풀어 주는 여제를 지냈다. 강원도 영동 남부 지역에는 제당에 성황신과 함께 여역신을 모시거나 마을 제의의 하위 제차로 이름 없는 귀신들을 위한 거리고사를 지내는 마을이 많다. 거리고사의 대상인 이름 없는 귀신들은 여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존재이다. 함경도지방에서도 여제가 중요시되었다. 예컨대 함경남도 단천군에서 지내는 마을 동제는 여제의 성격을 띠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산신제를 3~5년에 한 차례 지내는 것에 비해 여제는 일 년에 두세 차례 지냈다.

마을 제의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각종 질병 구축이라는 점에서 여귀와 같은 존재를 대상으로 한 마을 제의는 계속 전승될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민간의 마을 제의에서 모셔지는 여귀는 마을 제의의 주신(主神)이 아닌 하위신으로 모셔지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문헌 **17세기 여제의 대상에 관한 연구**(이욱, 역사민속학 9,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조선시대 국가 사전과 여제**(이욱, 종교연구 19, 한국종교학회, 2000), **진도의 여제고**(나경수,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7),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필자 **이용범(李龍範)**

여수영당지(麗水影堂址)

정의 최영, 이순신, 이대원, 정운 장군, 용왕신, 산신을 모시는 제당으로서 영당풍어굿의 제의 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30-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 12월 26일에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44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1. 민간신앙에서 중요한 종교적 공간으로서의 영당** 영당은 본래 남산 산록에 있던 것으로 보아 동제당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왜구들의 노략질이나 풍랑, 흉어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한 어촌 사람들이 바닷가로 옮겨와 용신당으로 삼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영당이 위치한 당머리와 봉산리(남산동)·국포리(국동) 일대는 고기잡이를 주로 하는 어촌이며 이 지역 어민들이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당집을 건립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용왕신을 받들어 모신 것으로 추정되고, 나중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배향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역사적인 인물신을 배향하는 공간으로서의 영당 이순신 장군을 모시기 이전에 고려 충신 수사 최영 장군을 모시다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을 모시게 된 것은 그가 노량해전(1598년)에서 순국한 이후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순신을 주신으로 충신 정운, 이대원 양위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이들은 모두 이곳 여수 앞바다를 수호한 장군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당연히 수호신으로 받들 수 있는 역사적 명분이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역사적인 인물들을 제당에 안치하게 된 것은 당시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충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 상황적 맥락이 작용되었으며, 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수호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민속종교적 심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흔히 무속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무속신격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그처럼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이들은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사당 추존과 더불어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바다 수호신을 받드는 공간으로서의 영당 영당에서는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으며, 영당 앞을 지나는 배들은 고사미를 내고 고사를 지낸 뒤에 출어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영당은 일제강점기인 1943년에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다. 당시 영당에 모셔진 4위의 영정 가운데 이대원의 화상만 남고 최영·정운 화상은 소실되었으며, 이순신 화상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60년에 여수 신청 사람들에 의해 영당이 재건되었다. 여기서 신청 사람들은 굿을 진행하는 무당, 굿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악사, 무가 출신의 재인이나 예인 등을 말한다. 여수에는 악공청이 있다. 이들은 취고청에 소속되어 좌수영의 군사훈련이나 연희에서 음악을 담당했고, 충민사나 향교 및 영당 제사 등 지역의 중요한 의례나 행사 때에도 역시 음악과 관련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공청이 신청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들 집단이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영당을 후대에 재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5년에는 일제강점기 때 영당 대지 소유권을 획득한 이우헌이 대지를 여수시에 기부 체납하였다. 이우헌 이전에는 사사지(社寺地)로 1915년에 김청여와 장진황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1976년에는 어항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영당이 철거되었다. 그 후 1979년에 영당풍어굿 보존회가 창설되면서 풍어굿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단법인 향토민속문화보존회가 결성되어 정부에 영당 복원을 요청하였다. 1982년에 원양어업조합 협찬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의 영당을 복원하였다.

형태 **1. 영당의 규모** 영당은 현재 돌산대교 넘어가기 전 바로 오른쪽 아래편인 국동 어항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82년에 복원된 목조건물 한 동(면적 35.19㎡)으로 팔작지붕에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 전후 일퇴의 규모이다.

2. 배향된 신격 1994년에는 용왕신, 산신, 최영, 이순신, 이대원, 정운 등의 6위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건물 내부 양 측면에 산신과 용왕신, 정면에는 왼쪽부터 정운·이순신·최영·이대원 장군 순으로 총 여섯 개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이순신은 1591년에 전라좌도 수군절제사가 되어 여수에 부임하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왜군에 맞서 수많은 전공을 세우다가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였다. 이순신은 사후에 곧바로 여수 충민사에 배향되었다. 승려 옥형이 극진히 제사를 모셨으며 "바다에 경보할 것이 있으면 이순신이 꿈에 나타나 기미를 알렸다"고 한다. 이것은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어민들의 출어와 풍어를 관장하는 영당의 주신격으로 좌정하게 된 계기를 보인다. 최영은 조선 건국 세력에 의해 처형된 인물로, 백성들에게는 영웅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지역수호신으로 모셔지는 경우가 많았다. 영당에서 최영을 신격으로 배향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대원은 1586년에 고흥 녹도만호가 되었고, 1587년에 고흥 앞바다 손죽도 인근 해상에서 왜구와 싸워 큰 전공을 올리고 그해 이월 열이렛날 왜구와 격전을 벌이다 포로가 되어 선상에서 사망하였다. 이대원은 여수 손죽도 이대원 사당에 배향되었고, 영당에서도 신격으로 모셔졌다. 정운은 1591년에 녹도만호로 임명되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순신의 막하에서 옥포해전·당포해전·한산해전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다가 부산포해전에서 전사하여 이대원장군사당에 배향되었고, 영당에서도 신격으로 모셔지고 있다. 산신은 영당 왼쪽에 모셔져 있고, 탱화는 산신이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용왕신은 영당 오른쪽에 모셔져 있고, 탱화는 용위에 올라 앉은 모습이다.

영당 복원 이후 진남제 기간에 영당풍어굿을 하고 있다

내용 영당에서 행해진 풍어굿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살아 온 여수 지역 사람들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의식이다. 풍어굿은 바다로 나가서 연등을 띄우는 등의 뒷전굿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굿거리가 영당을 중심으로 연행된다. 원래 영당풍어굿은 유림과 무당에 의해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큰굿으로 청신굿·오신굿·퇴신굿이 있으며 20여 개 작은 굿거리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영당풍어굿은 민속문화보존회가 주관하여 축제인 진남제의 한 행사로 해마다 행해지고 있다. 또한 1991년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전남 대표로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였다. 영당풍어굿은 매해 5월 6일에 진행된다. 해마다 5월 5·6일쯤에는 여수진남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축제와 결합되어 축제의 한 행사로 연행되는 것이다. 축제와 연계된 영당풍어굿은 크게 풍어제, 풍어굿, 풍물굿(용왕굿)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영당 처마와 담 위로 지등을 줄지어 매달아 장식한다. 담에는 오색기를 줄지어 세워 놓고 영당 마당에 곳대를 세웠다. 윗부분에는 어사화 같은 꽃을 달았고, 바로 밑에는 여러 개의 고를 주렁주렁 매달았다.

1. 풍어제 풍어제는 유교적인 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관은 삼헌관, 집사, 축관으로 구성되었

다. 초헌관은 여수수산협동조합장이, 아헌관은 여수시장, 종헌관은 진남제전 위원장이 각각 역할을 맡는다. 홀기집사는 영당보존회 및 향토민속문화보존회장이 맡는다. 본당에 진설된 제물을 보면 제상은 크게 3상으로 구분된다. 정면에 모셔지는 4위의 신격에게 올려지는 장군상이 있고, 양 측면의 산신상과 용왕상이 있다. 각각의 제상에 올리는 제물은 가로로 5열을 구분해 순서대로 진설한다. 신위 앞 1열은 술·메·국·떡, 2열에는 육고기와 생선, 3열에는 부침개, 4열에는 나물, 5열에는 과일 등을 올린다. 물론 장군상에는 메를 네 그릇 올린다.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관들과 삼현육각을 연주할 악사들이 자리를 잡아 앉고, 제사는 유교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2. 풍어굿 제사가 끝나면 풍어굿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순서는 부정치기-제석굿-거리넋-고풀이-길닦음으로 진행된다.

3. 풍물굿 풍어굿이 끝나면 풍물패가 걸립굿, 어장굿, 오방굿 등을 연주하며 액맥이굿을 한다. 액맥이굿의 풍물패가 나가면 그 뒤에 무녀와 악사 및 참여자들이 따라가서 배를 탄다. 배에서는 풍물패가 뱃머리에 서고, 중앙에는 제물로 돼지머리가 놓이며, 제물 바로 뒤에는 무녀들이 앉고 그 주위에 연등이 놓인다. 배 옆에는 스님이 목탁을 들고 서 있다. 배 주위로는 참여자들이 구경하고, 배가 출항하기 전부터 풍물을 친다. 배가 항해하는 동안 풍물패는 연주를 하고, 스님은 목탁을 치며, 무녀들은 합장하여 비손을 한다. 그러다가 스님이 목탁을 치면 연등을 바가지에 담아 바다에 띄워 보내고 돼지머리를 바다에 던진다. 그러고 나서 풍물패가 신명나게 연주하면서 배는 선착장으로 돌아온다.

의의 영당지는 역사적인 인물이 신격화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제의적 공간으로서의 중요한 의미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신앙적 믿음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종교적 의미가 큰 곳이다. 특히 임진왜란 때 장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이 지역의 실질적인 수호자로서 활동했고, 사후에 지역 주민들에 의해 고을수호신으로 신격화된 것은 이들의 신앙적 심리를 잘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당지는 남해안 지역의 어로신앙 및 용왕신앙의 실상을 가늠할 수 있는 곳으로서 민속신앙적 의미가 크다. 영당은 본래 자연신을 모신 해신당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운데 후대에 역사적 환경이 작용되어 인물신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민속신앙의 통시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사적 가치가 크다. 영당지야말로 여수 남해안지역 민속신앙의 변화 양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민속자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여수시의 문화유적**(조선대학교박물관, 2000), **여수 아으 동동다리**(김준옥, 민속원, 2004), **여수·여천향토지**(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여수 영당, 풍어굿, 악공청**(이경엽 외, 민속원, 2007), **여수향토사**(김낙원, 향토문화사, 1962).

필자 표인주(表仁柱)

여수화산마을당제

정의 천제·당제·헌식제를 총칭하는 말로,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산마을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신앙.

유래 개도(介島)는 월항, 신흥, 화산, 여석, 모전, 호령의 여섯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전남 여수시 화정면에서 가장 큰 섬이다. 화산은 이 가운데 가장 큰 마을이다. 화산은 면소재지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5.5㎞ 떨어져 있다. 화산마을에는 면 출장소와 농협 등 관공서가 있으며, 200여 가구가 넘는다. 주업은 농업이다. 마을 뒤편으로는 해발 338m의 천재봉이 있다. 순천부사 관헌 아래 도감에서 관리를 두고 말을 키웠다는 터가 지금도 천재봉에 남아 있다. 또한 봉화산 정상에는 봉화대가 있다고 한다.

조선 숙종 때 개도는 나라의 말을 기르는 곳이었다. 그런데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말이 죽어가는 재앙이 계속 일어났다. 말을 기르는 책임자는 심한 문책을 받고 쫓겨났다. 후임으로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이씨라는 사람이 책임자로 뽑혔다. 이씨는 곧 산봉우리에 제단을 쌓고 천지신명께 목장의 우환인 질병을 없애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목장의 말들이 죽어가는 일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씨 슬하에는 복녀라는 이름의 열네 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다. 복녀는 날마다 아버지를 도와 말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점이 박힌 백마가 앞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큰일이로다. 말이란 짐승은 다리에 힘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젠 쓸모없는 말이 되고 말았다. 목관에게 보고하여 폐마시켜야겠다" 하고 매우 근심스럽게 말했다. 복녀는 그 말을 듣자 아버지에게 매달려 애원하였다. "아버님 저 말을 소녀에게 맡기시면 반드시 다리를 고쳐서 명마로 만들겠습니다.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는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열흘의 말미를 주겠다. 그동안 말이 거동을 못한다면 하는 수 없이 없애야 한다" 하고 복녀에게 다짐을 받고 허락하였다.

복녀는 정성을 다해 말을 간호하고 말과 함께 기거하면서 천지신명께 하루도 빠짐없이 두 손 모아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녀가 말을 보살펴 주다가 몹시 곤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복녀야. 너의 정성이 하도 지극하여 너를 도우러 왔다. 내가 그 말이 낫도록 약을 알려 줄 테니 명심하여 듣거라. 네가 밤마다 지성을 드리던 제단 옆 옹달샘에 가면 가재가 있을 것이다. 그 가재 세 마리를 잡아서 말에게 먹이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니라." 산신령은 이 말을 남기고는 사라졌다. 깜짝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다. 심상치 않은 꿈이라고 생각한 복녀가 옹달샘에 가보니 과연 그곳에 가재가 있었다. 곧바로 가재 세 마리를 잡아서 말에게 먹였다. 그날 밤 복녀는 잠을 못 이루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새자마자 복녀는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있어야 할 말이 온데간데 없어 복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우렁찬 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산봉우리 위에 점박이 말이 늠름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중간 생략)

그 후부터 복녀와 애마 점박이는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화동에 주재하는 목관이 목장에 와서 하는 말이 대장군이 탈 장군마를 고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복녀가 애지중지하는 점박이가 선발된 것이었다. 복녀는 그 사실을 안 순간 눈앞이 캄캄하였다. 끌려가는 애마 점박이도 복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지 가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치면서 우는 것이었다. 점박이와 이별한 복녀는 애마와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그 자리에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고는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였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복녀의 아버지가 목장에 나갔다가 복녀가 심어 놓은 느티나무 곁에 숨어 있는 말을 발견하였다. 아버지가 복녀에게 급히 뛰어가서 "복녀야 점박이가 왔다. 어서 일어나라"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복녀는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복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복녀는 매우 온화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애마인 점박이가 숨이 끊어질 바로 그 순간에 복녀도 영원히 애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저승으로 간 것이었다. 복녀의 아버지는 복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복녀와 점박이 말을 느티나무 아래 나란히 묻어 주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마녀목이라 부르게 되었고, 매년 이곳에 제사를 지냈다.

내용 마을에서 지내는 공동제의로는 천제와 당산제가

화산마을당제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산마을
2008.3.11. 서해숙

있다. 천제는 음력 삼월 초하룻날 자시(子時), 당산제는 이튿날 오후 5시쯤에 각각 지낸다. 제일이 왜 3월 1일과 2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예전부터 그렇게 지내오고 있어 따르고 있다고 한다.

1. 제당의 구성 천제를 지내는 곳의 위치를 사람들은 천재봉이라 한다. 천재봉은 마을 뒷산 정상 부근에 있다. 이곳에는 돌로 쌓아 만든 넓은 제단이 있다. 이곳을 상당이라고 한다. 상당 아래 산 중턱에는 기우집이 있다. 기우집은 제를 지내기에 앞서 몸과 마음을 닦고 정성을 들이는 곳이다. 당산제를 지내는 곳은 마을 옆에 있다. 이곳은 천제당이라는 당집으로, 예전에는 기와집이었으나 2005년에 현대적 건물인 철근 콘크리트로 중건하였다. 건물은 정면 두 칸 측면 한 칸의 콘크리트 기와지붕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하당이라고 부른다.

천제당 내부에는 제기가 보관되어 있다. 지난해에 제물로 쓴 명태 한 마리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천제당은 일 년에 한 번 제를 지낼 때 외에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천제당에 구리로 만든 말 한 마리를 모셔 두었는데 1990년대 말에 도난당하여 그 이후로는 당집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말을 모셔 두고 제를 지내는 이유는 예전에 도감을 두고 말을 키운 목장터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말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이해된다.

상당의 신격은 동쪽은 청제지신, 서쪽은 백제지신, 남쪽은 홍제지신, 북쪽은 흑제지신, 중앙은 황제지신, 그리고 칠성신이다. 하당의 신격은 당산 할아버지와 할머니이다. 상당의 신은 천신, 하당의 신은 마을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 당제의 준비 제관을 마을에서는 '당주'라 한다. 당주는 음력 2월 중에 마을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생기복덕을 보아 적당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전에는 당주를 세 명 선출하였으나, 2002년부터 이장이 의무적으로 당주가 되고 한 명만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당주는 상당과 하당을 모두 지낸다. 당주로 선출되면 제 지내기 사흘 전에 모든 제물을 마련하여 기우집으로 올라간다. 기우집으로 올라가 치성을 드리면서 제 올릴 준비를 한다.

천제당(하당)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산마을
2007.6.28, 서해숙

메(밥)를 지어 올릴 쌀은 먼저 일곱 되 정도 준비한다. 이 쌀을 매일 찧고 까불어서 싸래기나 깨진 쌀은 제외하고 온전한 낟알만 골라 두 되 정도로 추려낸다. 이 쌀을 무명베로 만든 자루에 넣어 매일 한 번씩 씻어서 말린다. 삼월 초하룻날 오후에 이 쌀을 씻어 물에 걸러 두었다가 밤 10시쯤에 상당으로 들고 올라간다. 당주는 상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샘에서 목욕재계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상당에 도착하면 입마개를 쓰고 솥에다 시루를 올려 쌀을 쪄서 메를 짓는다. 메가 다 지어지면 조그만 공기에 메 일곱 그릇을 담는다. 제단 위에는 메 다섯 그릇, 제단 아래에는 메 두 그릇을 각각 놓는다. 메 다섯 그릇은 상당의 신격인 청제지신·백제지신·홍제지신·흑제지신·황제지신에게 올리는 것으로, 방위를 보고 제물을 차려 놓는다. 그리고 메 두 그릇은 칠성신과 뒷전밥이다. 하당의 제물로는 당주 집에서 가져 온 떡·굴비·마른명태 등과 각종 전류, 메밀범벅, 과실, 탕, 닭, 고기, 메, 국 등이다.

3. 당제의 진행 상당의 경우 분향-제물진설-헌작-재배-소지-헌식-무당굿 순으로 진행된다. 축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제를 지낼 때 소지를 올리면서 마을의 평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한다.

상당제가 끝나면 무당이 무당굿을 하고 마을의 매구꾼들이 매구를 친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헌식하며 논다'고 말한다. 무당은 여수에서 두 명이 온다. 이

당집앞 제단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산마을
2007.6.28, 서해숙

들은 3월 2일에 와서 3일에 돌아간다. 이후 당산제 상에 올린 제물을 한지에 담는다. 이때 여덟 개를 만든다. 이것을 매구를 치면서 마을 주위에 있는 8당산에 하나씩 묻는다. 당산에 제물 묻기가 모두 끝나면 당주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매구를 치면서 놀다가 헤어진다.

예전에 천제와 당산제를 한 해 거른 적이 있었다. 이때 마을에 우환이 있어 다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제를 잘못 모시면 바로 우환이 생긴다고 한다. 예전에 제관이 제를 잘못 모신 후 바로 죽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당제를 지내고 헌식을 할 때 외지에서 구경을 하러 많이 왔다고 한다. 심지어 엿장수까지 왔다고 한다.

4. 용왕굿 당제를 지낸 이튿날인 3월 3일 오전 9시쯤 용왕님을 모시는 용왕굿이 마을 앞 바닷가에서 행해진다. 당주가 큰 상 하나를 차려내고, 각 가정에서 헌식상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와 줄을 지어 놓는다. 당주 집에서 만든 떡과 술을 각 가정에서 나온 상에 나누어 준 다음 당주와 집사가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다음엔 무당이 용왕굿을 한다. 마을의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등도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오후 1시쯤엔 짚으로 만든 오쟁이를 깨끗한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고 매구를 치면서 각 상을 한 바퀴 돈다. 이때 모든 상에서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오쟁이 속에 넣는다. 오쟁이를 짊어진 사람이 바닷가로 가서 바닷물 속에 오쟁이를 던져 침수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용왕님을 대접하고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후 무당은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바가지에 담아 물밥을 만들어서 바닷가에 부어 놓는다. 이는 수중고혼(水中孤魂)을 달래는 의미이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매구를 치면서 온 마을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논다.

의의 화산마을당제는 전형적인 호남지방 남해안 지역의 마을신앙으로서 마을신의 유래가 서사적인 틀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적 가치가 있고 또 당제 후 용왕굿을 한다는 점에서 민속신앙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남도민속의 이해**(표인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남도설화문학연구**(표인주, 민속원, 2000), **명소지명유래지**(전라남도, 1987), **여수시의 문화유적**(여수시 · 조선대학교박물관, 2000).

필자 **표인주(表仁柱)**

여제(厲祭)

상호참조 여귀(615쪽), 여제등록(623쪽)

정의 여귀(厲鬼)에게 지내는 제사. 제사를 지내 줄 자손이 없거나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여귀'라고 한다. 여제는 이러한 여귀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역사 여제의 역사는 기록에 따르면 멀리 중국의 주나라 시대까지 소급된다. 주나라의 제례에 대해 적고 있는 『예기(禮記)』에 따르면 천자는 일곱 가지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다섯 가지 제사를 지내고, 대부는 세 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이들 제사에 포함하여 여제는 반드시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이후 약간의 형태적인 변화가 보이기도 하지만 역대 왕조를 통해 계속해서 여제를 중시하여 지냈다.

우리나라에서 여제는 조선 태종(太宗, 재위 1400~1418) 때 처음으로 기록에 나온다. 태종은 우리나라의 모든 제례가 중국 명나라 태조 때 만들어진 『홍무예제(洪武禮祭)』에 의거하면서도 유독 여제를 지내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예조(禮曹)에 명을 내려

앞으로 여제에 관련된 제법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는 물론 각 군·현 단위의 고을까지 여제단을 만들어 여제를 지내게 되었다.

형태 여제는 본래 민간이 아니라 관에서 지내던 것이다. 중국의 경우 『명사(明史)』에 여제를 지내는 형태가 소상하게 나온다. 여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태종 때 만들어진 여제를 모시는 제사 방식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소개되어 있다. 조선 초에 정해진 여제를 지내는 형태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제사를 받아먹지 못하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 줌으로써 한을 풀어 주고, 여귀가 민간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하고자 한 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단위는 서울과 지방의 각 행정단위로 나누었으며, 현을 최하위 단위로 하였다. 제사 날짜는 봄에는 청명(淸明), 가을에는 7월 15일, 겨울에는 10월 1일이다. 제사 장소는 각 성의 북쪽에 따로 여제단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제물은 서울에서는 양 세 마리, 돼지 세 마리, 쌀 45말을 쓴다. 지방에서는 서울에 비해 3분의 1을 감하고, 현에서는 그 반으로 다시 줄인다. 제물 가운데 양은 노루나 사슴으로 대신 할 수도 있다. 제관은 서울이나 개성은 당상관(堂上官)을 파견하였고, 각 지방은 그 수령이 맡았다.

내용 여제는 중국에서 수입하여 관에서 주관한 제사였다. 이는 동양의 생사관(生死觀) 또는 귀령관(鬼靈觀)에 근거한 것이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제사를 지내 줄 자손이 없거나 억울하게 죽은 혼령은 여귀가 되어 구천을 맴돌면서 살아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믿었다. 민간에서 무속을 통해 천도굿을 행하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역시 이러한 원귀를 위해 관에서 주도하는 제사를 지내게 된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신라시대에 전쟁터에서 비명횡사한 사람을 위해 가을에 팔관회를 모시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이러한 행사가 불교의 수륙재(水陸齋)로 대체된다. 수륙재는 본래 중국에서 520년(양 무제 보통 원년)에 처음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971년(고려 광종 22)에 수원 갈양사에서 혜거국사(惠居國師)가 처음 시행하여 고려·조선조를 거치면서 계속되어 왔다. 조선시대 초에 많은 선비가 여제를 모시기 때문에 수륙재는 모시지 말도록 상소를 올렸다. 수륙재는 단종 대에 이르러 드디어 왕명으로 금해졌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자생적인 팔관회가 시행되다가 중국으로부터 수륙재와 여제를 수입하여 국가를 위해 죽은 영령이나 제사를 모셔 줄 후손이 없는 불쌍한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 줌으로써 나라와 고을에 끼칠 해악을 막고자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에 매년 여제를 모셨지만 특히 나라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여제가 조정에서 논의되고, 그 거행이 촉구되던 사례가 많다. 황해도와 경기 일원에 전염병이 창궐하였을 때 문종은 스스로 여제 축문을 지어 내려 제사하게 하였다. 중종은 전사자 및 압사자에 대해 치제하였으며, 전염병이 돌 때마다 수령에게 특명을 내려 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선조는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을 위해 여제를 지내도록 하였고, 광해군·인조·현종 때에도 역시 전염병이 크게 돌아 방액을 위해 여제를 지냈다. 순조 12년에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따로 여제를 지냈다.

지역사례 조선 후기에 이르면 관에서 지내던 제사가 전기만큼 엄격하게 모셔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사정과 맞물려 관에서 지내던 제사를 민간에서 차용하여 민간신앙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든 고을에서 있었던 성황단과 여제단 역시 민간에서 맡아 모시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시사한다.

특히 여제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재미있는 형태로 민간신앙에 여제가 수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진도읍 교동리에서는 거리제가 행해질 때 여제도 이에 부수되는 행사로 치러졌다고 한다. 지금은 없어졌으나 여제단이라고 불리던 제당은 옛날에 진도읍의 북산인 철마산 아래쪽, 현 향교 옆에 있었다고 한다. 여제단은 돌담이 둘러 있었다. 기와지붕에 3.3㎡ 남짓한 크기였다. 사방으로 벽이 있었고 앞쪽으로 두 쪽 문이 있어서 자물쇠를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서 그곳을 지날 일이 있어도 일부러 길을 피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지나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

여제는 진도읍 교동리에서 주관하였다. 교동리는 서외리, 북상리, 사정리, 송현리 등 4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옛날에는 전우라고 부르는 이장 한 사람과 네 명의 반장이 있었다고 한다. 제사는 일 년에 두 번 지냈다. 봄에는 정월대보름날에 모셨으며, 가을에는 시월 중 어느 날 모셨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진도읍 교동리의 중심 마을인 사정리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거리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회관 앞에 600여 년 된 팽나무가 당산나무이다. 정월 열나흗날 밤부터 대보름 새벽까지 거리제가 모셔지고 나면 네 개 마을에서 뽑힌 제관들이 제물을 갖추어 여제단에 오른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풍물을 울리면서 마치 토끼몰이를 할 때처럼 "우~우~" 하는 함성과 함께 귀신을 몰고 여제단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이 포위망을 좁혀 귀신을 몰아 여제단에 이르면 함성과 풍물소리가 절정에 달한다. 제관들은 여제단 앞에 제상을 차리고 제의를 지낸다. 제사가 다 끝나면 누군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떤 사람이 "무자귀(無子鬼, 곧 자식 없이 죽은 귀신을 이르는 것으로 생각됨)" 하고 소리를 지르면 모여 있던 사람들이 모두 따라 "무자귀" 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이내 여제단의 문을 걸어 잠근다. 그러면 귀신들이 그 속에 갇히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진도에 떠도는 모든 귀신을 여제단 안에 가두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고, 특히 무자귀라는 말이 뜻하듯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귀신에 대한 기피관념이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월대보름날에 거리제의 일환으로 행해지던 여제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농사철에 즈음하여 해를 끼칠까 하여 귀신을 잡아 가두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현재 40~50대의 동민들에게까지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다. 시월이 되면 다시 제관들이 모여 여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때는 정월대보름 때 잡아 가둔 귀신들을 농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라고 풀어 주는 것이라 한다. 마을 사람인 조중환에 따르면 여제단은 '귀신을 잡아 가두는 감옥'이다. 또 여제는 농사철에 가두었다가 농한기에는 풀어 주는 정기적인 행사이다. 진도에서의 여제는 동제에 포함되어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치러진 것이다.

한편 함경도 지방에서도 여제가 동제로 모셔진 사례가 보인다. 전경욱의 조사에 따르면 함남 단천군과 북청군 여러 마을에서 매년 한 차례나 두 차례 마을 제사로 여제를 지낸 예가 많았다고 한다. 마을마다 각기 다른 형식으로 여제를 지내지만 일반적인 여제에 대한 의식(意識)은 비슷하다. 즉 마을의 안녕과 풍요, 전염병과 재화(災禍)를 막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四庫全書, 新增東國輿地勝覽, 禮記, 朝鮮王朝實錄, 洪武禮祭, 진도의 여제고(나경수, 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1994),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조중환 면담(1982년 4월 25일).

필자 나경수(羅景洙)

여제등록(厲祭謄錄)

상호참조 여귀(615쪽), 여제(621쪽)

정의 1637년(인조 15)부터 1727년(영조 3)까지 예조에서 여제 설행과 관련된 계사(啓辭), 서장(書狀), 상소(上疏) 등의 내용을 베껴 기록한 책.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유일본이며, 연월일을 먼저 적고 해당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책의 상단에 기사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부기하였다.

내용 여제는 조선시대 국가 제사 중 하나로서 소사(小祀)에 속하였다. 정기적인 제향일은 청명일과 7월 15일, 10월 1일이며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거행하였다. 한성부와 지방 군현에서는 제향일 3일 전에 각 지역 성황신에게 발고제(發告祭)를 거행하고 제향일에 각 지역 여단에서 성황신과 여귀의 신위 15위를 모시고 제향을 지냈다.

여귀 15위는 특정한 사람이나 귀신이 아니라 칼에 맞아 죽은 자(遭兵刃死者), 수화나 도적을 만나 죽은 자(遇水火盜賊者), 남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핍박당해 죽은 자(被人取財物逼死者), 남에게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은 자(被人强奪妻妾死者), 형화를 만나 억울하게 죽은 자(遭刑禍負屈死者), 천재나 역질을 만나 죽은 자(因天災疾疫死者), 맹수와 독충에 해를 당해 죽은 자(爲猛獸毒蟲所害死者), 얼고 굶주려 죽은 자(凍餒死者), 전투에서 죽은 자(戰鬪死者), 위급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因危急自縊者), 담이 무너져 압사

한 자(被牆屋壓死者), 난산으로 죽은 자(産難死者), 벼락 맞아 죽은 자(震死者), 추락하여 죽은 자(墜死者), 죽은 후 자식이 없는 자(歿而無後者)와 같이 비명횡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제등록』은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여제를 제외하고 비정기적인 여제만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쟁이나 공무로 인해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이다. 이때의 제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불특정 다수의 죽음을 위로하는 형식이었다. 이 책의 첫 기사에 해당하는 정축년(1637) 8월 28일 기사는 병자호란의 주요 격전지였던 쌍령과 마희천의 전몰자 치제에 관한 것이다. 무인년(1638) 5월 13일과 6월 20일의 기사는 각각 강화도에서 절의를 위해 죽은 사람과 전망인(戰亡人)을 위한 제사 기록이다. 경진년(1640) 6월 22일과 병신년(1656) 9월 4일의 기사는 바다에서 파선으로 인해 수장된 수군들을 위한 제사에 관한 기록이다. 이러한 위안제(慰安祭) 형식의 제향이 여제의 범주에 포함되어 기록된 것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이란 공통점 때문이다.

둘째는 전염병이나 가뭄을 물리치기 위한 제사이다. 무인년(1638) 7월 18일 기사는 함경도에 여역이 크게 번져 여제에 쓸 향·축·폐백과 약물을 내려보낼 것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후 각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중앙에서 향축을 내려보낼 것을 요청하는 지방 감사 또는 예조의 계청과 그에 관한 논의들이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기양을 위한 여제를 정기적인 제향과 구별하여 '별려제(別厲祭)'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제는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지내는 제사로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의 기록으로 볼 때 가뭄 때에도 여제를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뭄 역시 원혼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별려제에 관한 기사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상의 문제로, 초기 기록에서는 제사 대상이 모호하며 산천신도 제사 대상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등록에 등장하는 산천으로는 지리산, 금성산, 백양산, 연덕산, 공산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662년(현종 3)에 조정에서 여제의 대상에 관한 논의를 거쳐 『국조오례의』에 실린 것과 같이 성황신과 무사귀신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정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또 하나는 제장(祭場)의 문제로, 전몰처(戰歿處)를 포함한 무주시매처(無主尸埋處)가 여제 장소로 선택된다는 점이다. 전몰처가 여역과 가뭄 때에 여제의 장소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40년(인조 18)부터이다. 이후 전몰처가 점차 확대되어 1671년(현종 12)에 오면 민충단(愍忠壇), 험천, 쌍령, 금화, 강화, 진주, 남원, 금산, 달천, 상주, 원주, 울산 등 13곳이 주요 제장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임란 또는 호란 때 우리 병사나 명나라 병사들이 크게 패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곳이다. 그리고 1671년과 1672년 대규모의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묻힌 교외의 무주시매처도 숙종 대부터는 기양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별려제는 정기제를 거행하던 여단보다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생겨난 전몰처나 무주시매처가 제장이 되었다.

『여제등록』은 명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제정하였던 형식적 여제가 조선 후기 전쟁과 재난을 겪으면서 토착적인 주요 제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여귀에 대한 유교 이념과 국가의 구휼정책, 그리고 원혼에 대한 민간신앙적 모습이 결합하여 공동체 신앙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고문헌 **17세기 여제의 대상에 관한 연구**(이욱, 역사민속학 9, 역사민속학회, 1999), **조선시대 국가 사전과 여제**(이욱, 종교연구 19, 한국종교학회, 2000), **조선시대 여제의 기능과 의의–'뜬귀신'을 모셨던 유생들**(B. 왈라번, 동양학 3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1), **조선시대 원혼을 위한 제사의 변화와 그 의미**(이욱, 종교문화연구 3, 한신인문학연구소, 2001).

필자 **이욱(李煜)**

연기원수산산신제문서 (燕岐元帥山山神祭文書)

정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서 전승되는 원수산산신제의 홀기(笏記)와 축문 등 제반 의례절차를 기록한 동계문서.

내용 양화리는 원수산을 등지고 삼기강(三岐江)으로 불리는 금강변의 비옥한 터전에 자리한 마을이다. 일찍이 고려 말엽의 충신이자 부안 임씨의 중시조가 되는 임난수(林蘭秀)가 이곳에 정착한 이래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왔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조선의 취락』에는 충남에서 가장 특색 있는 동족마을의 하나로 양화리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원수산산신제는 바로 부안 임씨 집성촌인 양화2리 가학동이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동짓달 초에 거행하는 동제이며, '원수산산신제문서'는 19세기 산신제에 대한 제반 절차 및 계를 운영하면서 생산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문서의 표제는 '산제홀기 병축문 산신ㅁㅁ헌취위궤(山祭笏記 併祝文 山神ㅁㅁ獻就位詭)'로 되어 있다. 첫 장을 넘기면 '산제사완정일십일월초삼일(山祭祀元定日十一月初三日)'이라 하여 산제일을 명기하고, 그 뒤에 「제물진설도」, 「산제홀기」, 「산제축문」 등이 기록되었다.

축문 옆에 '병자시월이십이일경초(丙子十月二十二日敬抄)'라고 명기한 것으로 보아 1876년 또는 1816년에 작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효(孝)·우(友)·제(悌)·목(睦)·임(任)·휼(恤)의 육행지목(六行之目)과 불효(不孝)·불우(不友), 부제(不悌)·불임(不任)·불휼(不恤)·불화(不和)·불경(不敬)의 팔형지목(八刑之目), 제사필치성(祭祀必致誠)·인리상교조(隣里相校助)·의관필정제(衣冠必整齊) 삼건행실지목(三件行實之目) 등의 지켜야 할 덕목, 「종중통문(宗中通文)」, 「계후포양공사(稧後褒揚公事)」, 「분급사(分給事)」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병진년(1856년 추정) 이후로 병자년(1936년 추정)까지 동계의 논의사항을 정리한 「수계사(修稧事)」를 매년 기록하였다. 「수계사」에는 추봉조(秋捧租), 추봉전(秋捧錢), 분급사(分給事), 제후공사(祭後公事), 계후공사(稧後公事), 상벌공사(賞罰公事), 임원명단 등 동계 기금의 식리와 수입 지출에 대한 기록 및 상벌을 준 계원의 명단이 기재되었다. 이와 함께 첨부된 고소장은 연기군 남면 가학동 통장 임노원 등이 본동의 원수산 산제는 수백 년을 이어온 규례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소의 도살을 허락해 줄 것을 1907년(융희 원년) 11월 30일 군수서리에게 청원한 것이다. 좌측에는 같은 날 군수서리가 처결한 제사(題辭)가 있다.

원수산 산제홀기는 조선 후기 유교식 산신제의 전범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행례절차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吉禮)」와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된다. 홀기에 기록된 산신제의 행례절차는 제집사와 축관이 제단 앞뜰에 차례로 도열해 있다가 손을 씻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집례가 부르는 홀에 따라 참신례(參神禮)-강신례(降神禮)-초헌례(初獻禮)-독축(讀祝)-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사신례(辭神禮)-음복례(飮福禮)-분축(焚祝)-망예례(望瘞禮)-소지(燒紙)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홀기에 등장하는 제관은 축승(祝陞),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봉로(奉爐), 봉향(奉香), 봉잔(奉盞), 전잔(奠盞), 사준(司罇), 집례(執禮) 등인데, 행례절차에 따른 각 제관과 집사의 역할이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이로써 원수산 산제홀기는 성균관이나 향교의 석전홀기(釋奠笏記) 또는 서원·사우의 제향홀기를 상당부분 마을 차원의 산신제에 걸맞게 준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수산산신제의 제물 차림은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 원수산산신제 제물 차림

원수산산신제문서는 조선 후기 주변마을이 산신제를 주관할 목적으로 동계(산제계)를 운영하였음을 보여준다. 문서에는 여기에 참여한 마을로 월룡(月龍)·학천(鶴川, 궉말)·상촌(上村)·복룡(伏龍)·원곡(元谷, 원사골)·학동(鶴洞)·외삼(外三) 등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양화리 임헌우(1914년생) 옹에 따르면 동계가 해체되기 직전인 30여 년 전까지도 양화2리와 갈운리 원사골·상촌에 거주하는 세대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었고, 이웃마을인 진의리 긴여울·성전에서도 일부 세대가 계원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절목이나 좌

목, 그 내력을 기록한 서문이 전하지 않는 까닭에 동계를 조직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재 남아 있는 문서만으로도 그것은 적어도 조선 후기의 관행을 계승한 조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계는 상계원(上稧員)과 하계원(下稧員)으로 구분되었다. 상계원이란 사족의 후예인 부안 임씨를 의미하고, 하계원은 그들의 노복이나 머슴으로 입향한 하층민을 지칭한다. 또한 동계의 운영은 상계원의 자격을 갖춘 마을 사람들이 순번제로 유사와 공원 각 한 명을 선정하여 대소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계에서는 매년 산신제를 지내는 일 외에, 각 자연마을별로 책임자격인 별임(別任)을 두어 선행을 행한 자와 악행을 저지른 자를 가려서 예속의 교화에 힘썼다. 이에 대해 경신년 11월 19일에 작성된 '수계사(修稧事)'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오직 우리 동계는 비단 전곡(錢穀)의 취리(取利)가 공정할 뿐 아니라 오로지 약법(約法)의 상규(相規)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무릇 수년 간 사람들의 마음에 틈이 벌어져 예속이 무너졌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오호라! 이미 지나간 일은 논하지 말고 지금 이후 동계에 속한 각 리별로 별임을 정하여 선행을 행한 자는 칭찬을 해주고, 악행을 범한 자는 징계를 내려 영원히 입법을 좇아 행하도록 한즉 이 역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말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을별로 별임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날 월룡별임, 학천별임, 상촌별임, 복룡별임, 원곡별임 등 5명이 선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각 별임은 백배 유념하여 혹 계의 규약을 범한 자가 있으면 단속하고, 이를 관에 알려 징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결의가 있은 후 10일 뒤인 경신년 11월 29일에는 상촌과 외삼에 거주하는 2인이 징벌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이날 이후에 또 규약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비단 벌을 줄 뿐 아니라 훼가출동(毁家出洞, 집을 부수고 마을에서 쫓아냄)하고 할명좌목(割名座目, 좌목에서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동계의 운영은 자산으로 비치된 전곡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장리(長利)로 빌려 주고 원금과 이자를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식리(殖利)를 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제수비용으로 충당되었으며, 산신제를 마치면 이튿날(동짓달 초삼일) 총회를 열고 주연을 베풀었다. 이날 전 계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회합을 갖고 유사와 공원을 선출하였으며, 전곡의 수납과 새로운 대출을 결정하는 등 제반 대소사를 논의하였다. 모든 결산을 마친 뒤에는 '계후포양공사(稧後褒揚公事)'를 실시하여 마을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 예컨대 부모에 대한 효도가 극진하거나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한 자, 곤궁한 이웃을 도운 자, 동네를 위해 선행을 베푼 자를 추천받아 칭찬하고 상을 주는 자리를 가졌다. 그 대상은 부안 임씨 외에 비복인 하계원도 포함되었으며, 현전하는 동계 자료에는 해마다 수상자의 성명과 공적 사실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경신년부터는 별임을 두고 악행을 저지르거나 상하가 불손한 자를 단속, '계후상벌공사(稧後賞罰公事)'를 통해 포상과 더불어 징벌을 내림으로써 풍속을 바로잡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의의 원수산산신제문서는 조선 후기 원수산 주변의 여러 마을이 동계(산제계)를 구성하여 산신제를 지낸 사실과 유교식 행례절차의 의미가 잘 드러나 있다. 원수산 산신제는 황소를 도살하여 희생으로 바치는 등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므로 원수산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에서는 동계를 운영함으로써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산신제라는 공동의 신앙의례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수산 동계가 성립되고 지속되었던 배경에는 혈연·지연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즉 동계에 참여했던 양화리·진의리·갈운리는 여말선초 부안 임씨가 터를 잡은 이래 집성촌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집안에서 부리는 노복을 제외하고는 타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종족마을을 이루었다. 이러한 혈연적 일체감과 더불어 오랜 세월 생활문화를 공유해온 끈끈한 유대감이 모태가 되어 원수산 동계는 산신제를 주관하는 일은 물론 마을의 풍속을 교화하고 미풍을 진작시키는 향촌의 자치조직으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원수산산신제문서는 부분적이나마 그 실상이 생생하게 갈무리되어 있는 기록물이다.

참고문헌 대전·충남지역 촌계류문서수집사업 최종보고서(강성복·유병덕 외, 국사편찬위원회, 2008), **조선 후기 충청지역의 동제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연기학봉마을기고사

정의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학봉마을에서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농기(農旗)를 모시고 지내는 제사.

내용 금천리는 쇠내골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1구와 2구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금천, 학봉, 황산이 합쳐져 하나의 마을을 이룬 곳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금천1리와 금천2리로 나뉘면서 각각 원래의 금천이 금천2리, 학봉과 황산이 금천1리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금천1리라는 행정구역명보다는 학봉·황산 등 마을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금천2리가 원래의 금천이었다는 의미로 원금천이라고 불린다. 현재에 사용하는 금천1구, 금천2구의 구분은 금천1리, 금천2리의 구분과 다른 것이 없다. 학봉마을은 금천2구를 지칭한다.

학봉마을은 80가구 정도로 이루어진 각성바지 마을이다. 전체 가구 가운데 마을 토박이는 2~3가구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친(父親)이나 조부(祖父) 대에 입촌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경우 학봉마을 옆에 본원(本院)을 두고 있는 금강대도(金剛大道)의 신봉자가 대부분이다.

마을회관 앞 깃발
충남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학봉마을
2004.2.3. 김영광

1. 학봉마을의 농기 농기(農旗)는 농신(農神) 또는 신농씨(神農氏)와 관련이 깊은 기물이면서 마을의 상징이기도 한 복합적 성격을 지닌 존재이다. 이 때문에 농기를 소중히 다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과 농기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게 나타나곤 한다.

한강 이남의 농촌에서 정월대보름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 세시풍속 가운데 기세배(旗歲拜)라는 것이 있다. 서로 인근에 위치한 마을끼리 농기를 앞세우고 한 곳에 모여 우열을 가리고, 그 서열에 따라 동생이 된 농기는 형님이 된 농기를 마주칠 때마다 깃대를 기울여 절을 해야 한다. 이는 이듬해 새로운 서열이 정해질 때까지 지켜진다.

금남면 일대에도 이와 비슷한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농번기에 이르러 두레가 한창일 때 일을 나갔다가 다른 마을의 농기와 만나면 그 자리에서 한바탕 기싸움이 벌어진다. 싸움은 매우 치열하여 깃대가 꺾이기도 하고 기가 찢어지기도 한다. 일단 결말이 나면 패배한 농기는 한동안 승리한 농기 앞에서 깃대를 낮추어 수그려야 한다. 기세배와 같은 모습이다.

기싸움이 벌어지면 깃발이나 깃대도 튼튼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힘 좋은 젊은 장정이 많은 쪽이 우세하기 마련이다. 학봉마을은 동네가 가난하고 장정이 많지 않아 주변 동네의 기싸움에서도 자주 패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금강대도를 신봉하여 입촌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는 장정이 많이 늘어났고, 이와 함께 다른 마을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학봉마을의 농기는 아래로 긴 직사각형 모습으로 가로 170㎝, 세로 220㎝의 광목에 '농천하대본(農天下大本)'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글씨는 검은색 천을 글씨 모양대로 잘라서 광목에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새겼다. 기 주변에는 역시 검은 천으로 지네발을 달았다. 농기에는 '단기 사이구이년(檀紀 四二九二年)'이라 적혀 있어 1959년에 제작한 깃발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깃대는 8m 길이의 대나무를 사용하고, 깃대 끝은 장목(꿩의 꽁지)으로 장식하였으며, 그 밑에는 머

영기
충남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학봉마을 2004.2.3. 김영광

리태라 부르는 흰 술을 달았다.

영기(令旗)는 높이 45㎝, 너비 55㎝의 삼각형 깃발이다. 다른 마을의 영기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다. 역시 광목으로 만든 깃발에 푸른 글씨로 '令'자를 써 넣었다. 원래는 깃대 끝에 창촉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으나 그것이 부러진 뒤 대나무 막대기로 대치하였다.

2. 기고사의 준비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가 지날 즈음 동네에서는 기고사 준비를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기고사를 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고사를 지낼 집 선정이 우선이었다. 고사 집은 무엇보다 마을에서 연륜이 있고 신임이 두터운 사람의 집으로 선정하되 그 집에 궂은일이 없어야 했다. 젊은 여자가 있어 생리를 하는 것, 근간에 상을 치르거나 상가에 다녀오는 등의 일이 모두 궂은 일에 속한다. 또한 마당이 넓고 집의 규모도 큰 곳이 좋았다.

농기는 정월 초열흘날에 기고사를 지낼 집 마당에 미리 세워 놓는다. 이 때문에 농기를 모신 집에서는 더욱 몸단속을 하기 마련이었다. 일단 농기를 세우게 되면 집주인도 외출을 자제하고 외부 사람들도 안으로 절대 들이지 않는 것이 예사였다.

제사에 관한 음식은 기고사를 지내게 된 집에서 모두 준비하였고, 그에 관한 비용은 물론 동계의 자금에서 충당되었다. 제관은 총 세 명을 선정하되 주로 고사 집 주인과 동네 어른, 이장이 맡아 오는 것이 관례였다. 제관들 모두 선출된 뒤에는 부정을 조심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야 했다.

근간에는 따로 기고사를 지낼 집을 정하지 않고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지낸다.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농기와 영기를 마을회관 앞마당에 세우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자정 이전에 모든 고사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사의 제물은 비교적 간단하다. 고사상 위에 올리는 것은 돼지머리, 백설기 시루, 시루에 꽂을 북어 두 마리, 밤, 귤, 배, 사과, 촉, 초, 잔 등이다.

3. 기고사의 연행 날이 어두워지면 미리 세워 둔 농기 앞에 병풍을 치고 고사반을 준비한다. 제물을 진설하여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기고사가 연행된다.

먼저 풍장패가 풍장을 울리며 제상 주변을 도는 동안 초헌관이 분향(焚香)하고 재배를 한다. 강신례(降神禮)로 빈 잔에 집사가 술을 채워 주면 초헌관은 이를 퇴주잔에 물리고 빈 잔을 상 위로 올린다. 강신 후 초헌관은 재배한다.

집사는 초헌관이 다시 내려 들고 있는 잔에 술을 따르고 초헌관은 제상 위에 올려 헌작(獻爵)을 한다. 헌작 후 독축(讀祝)을 한다. 이때 초헌관은 자리를 물리지 않고 부복(俯伏)한 상태이며, 참가한 마을 사람들은 국궁(鞠躬)을 한 상태이다.

維歲次 甲申正月更子 朔 十四一 開祝
金川二區 洞民一同 敢昭告于
農旗之神 欽維我 農旗之神 自古司穀司命
惠及黎民居此洞民
伏蒙 重恩 歲歲安過 伏感無量 伏維
農旗之神 當今 特加 惠監特賜 保佑
使我洞民 時和年豊 五穀豊登 家給人足
福利增進 災殃消滅 壽福綿綿 大洞一室
親睦和合 英材輩出 福祉具現 一里咸寧 安過太平
謹具酒果 恭伸奠獻 尙饗

농기
충남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학봉마을, 2004.2.3. 김영광

기고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학봉마을, 2004.2.3. 김영광

독축이 끝나자 초헌관이 몸을 일으켜 미리 준비한 돈봉투를 돼지머리의 입에 꽂아 넣고 두 번 절한다. 아헌관이 헌작을 하고 역시 돈봉투를 돼지머리의 입에 꽂아 넣으며 재배한다. 종헌관 역시 헌작 후 돈봉투를 돼지머리 입에 꽂고 재배한다. 이때 풍장패는 각 헌관이 재배를 하고 일어날 때마다 풍장을 울리며 분위기를 돋운다.

종헌관의 헌작과 재배까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이때 자리에 참여한 모든 마을 사람은 준비한 소지종이를 나누어 가지고 비손하며 각자 자신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기를 끝낸 사람들은 음복을 한다. 한쪽에서는 시루의 손잡이 부분에 꽂은 북어를 내려 실타래로 감은 뒤 농기의 깃대 상단에 묶는다. 이것으로 기고사는 끝나고 마을의 부녀자들은 철상(撤床)을 시작한다.

기고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에서 고사상에 올린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거나 풍장을 울리며 즐긴다. 마을회관 한쪽에서는 따로 음식을 마련하여 식사를 겸한 음복을 준비한다.

참고문헌 민속박물관 사람들의 세시풍속현장조사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8. 2004.2.3~6: 김창호 현지조사).

필자 김창호(金昌鎬)

영고(迎鼓)

정의 상고시대 부여(夫餘)에서 하늘에 지낸 제천의식. 부여의 국중대회(國中大會)로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수렵 또는 농경의례 성격의 기원제(祈願祭)이자 감사제(感謝祭)이다.

내용 문헌 기록에는 『후한서(後漢書)』「동이전(東夷傳)」 부여조(夫餘條)에 "섣달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여러 날을 두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데 이것을 영고(迎鼓)라

고 한다. 이 기간에는 형옥(刑獄)을 다스리지 않고 죄수를 석방한다"라고 하였다. 이 밖에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부여조(夫餘條)에도 "은정월(殷正月)이 되면 하늘에 제사 지낸다. 이때가 되면 온 나라 안에 모두 모여서 날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가 되면 감옥에서 형벌을 다스리지 않고 죄수들도 풀어 내보낸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후한서』에서 납월(臘月)이라고 된 부분이 『삼국지』에서 은정월(殷正月)이라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은력(殷曆)의 정월은 하력(夏曆)이지만 오늘날 음력으로 치면 12월이므로 같은 달이다.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 삼한의 제천의식을 추수와 관련 있는 10월에 지냈다. 이로 미루어 오직 부여에서 농산물의 수확기가 아닌 12월에 지냈다는 점과 부여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하면 이 제의가 추수감사제 성격의 농경의례라기보다 수렵의례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영고는 제사의 시기가 납월이라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수렵과의 관련성이 보인다. 납월은 12월의 다른 이름이며, 왕이 짐승을 수렵하여 제사하는 풍속에서 비롯되었다. 이 풍속은 그대로 전승되어 납일(臘日)·납향(臘享)·납평제(臘平祭)라 하여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풍속은 중국에서 유래한 왕중심의 제의이다. 부여는 육축(六畜)으로 벼슬 이름을 지어 마가(馬加), 우가(牛加), 구가(狗加), 저가(豬加) 등이 있었다. 이처럼 그 고을에 모두 동물로 가(加)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농경보다 수렵과 가축을 중심으로 생업활동이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제사한 시기와 관련하여 납월의 납(臘)은 옛날 주(周)나라 때 모든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12월에 행한 제사의 명칭이었다가 나중에 12월의 이명(異名)이 되었다. 영고에서는 사냥한 짐승을 하늘에 바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풍속은 조선시대에도 전해 온다.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에는 납평(臘平)·납향(臘享) 또는 가평절(嘉平節)이라 하여 지난 일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신에게 보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날 새나 짐승을 잡아 종묘와 사직에 공물로 바쳤는데 이 고기를 납월고기라고 불렀고, 이날 궁중에서 지어 진상하는 약을 납약(臘藥)이라 하였다. 지방에서는 산돼지, 산토끼, 꿩을 진상하기 위해 사냥을 하였는데 모두 부여에서 하늘에 제사하던 영고의 잔영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사의 대상은 하늘이다. 하늘에 대한 제사인 천제(天祭)는 우리 민족의 가장 원형적인 천신 숭배신앙이다. 부여의 천신제인 영고는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러 날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거국적인 국중대회였다. 제의 과정에서 여러 날 술을 마시고 노래하였다(連日飮酒歌舞)는 내용은 고구려, 동예, 삼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축제적 성격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영고(迎鼓)는 대상신인 천신을 맞이하며[迎] 북을 두드리는[鼓] '맞이굿'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이때 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는 것은 오늘날 경축일을 맞아 사면하는 제도의 원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여는 국법이 상당히 정비되어 있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 집 식구들은 데려다 노비로 삼고,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여자가 질투할 때에도 죽일 정도로 형벌이 엄격했으나 이 날 만큼은 형벌을 다스리지 않고 죄수를 풀어 준 것을 보면 대단히 큰 의의가 있는 제의였음을 알 수 있다. 며칠간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제의를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상하가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래와 춤도 단순한 오락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신을 즐겁게 하는 의식의 하나였다. 이때는 고기잡이나 사냥·농경 등 중요한 생산 활동이 씨족 공동 노동과 생산 활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단의례로서 씨족의 결속을 다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종교적 기원의식의 성격을 띤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따르면 부여에서는 군사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에도 임시로 하늘에 제사하는 제천의식을 행하였다. 이때는 소를 잡아 그 발굽으로 일의 길흉을 점쳤는데, 발굽이 갈라져 있으면 흉하고 합쳐져 있으면 길하다고 여겼다. 부여의 천신제(天神祭)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치기를 기원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담당하는 부족장은 크면 수천 호를 다스리고 작으면 수백 호를 다스렸다고 하고 있어 부족 단위에서도 수시로 제천의식을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제천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단결시키는 구실을 했다. 또 전쟁에서 이기면 군왕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고 군왕은 그 권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영고와 같은 제천행사를 거국적으로 거행하여 왕권을 과시했다.

영고는 군왕이 추종자나 백성들에게 자신을 천신과 교감하는 존재로 보일 수 있는 통로였으며 천신으로부터 명을 받은 왕의 통치권을 과시하고 이를 정당화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통합을 강화하고자 한 의례이다.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천손(天孫)의 신화가 탄생되었고,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동제의 시기나 내용 성격 등에 원형으로 전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志, 後漢書, 공동체신앙의 역사**(이기태,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창솔, 2004), **한국 민속의 세계 9**(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보성문화사, 1982), **한국사강좌 1-고대**(이기백, 일조각, 1982), **한국의 풍속사 1**(김용덕, 도서출판 밀알, 1994).

필자 **김용덕(金容德)**

영광도동리석장승

정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당산거리에 있는 2기의 장승. 1992년 11월 30일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91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석장승은 영광읍 도동리의 천주교회 입구에 있다. 예전에 우시장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는 장승뿐만 아니라 당산나무도 있다. 얼마 전에 군내버스 정류소가 생기고 시장통과 맞닿아 번화한 거리가 되었다. 본래는 장승 셋이 큰길 쪽 방향을 향해 일렬로 서 있었으나 오래전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함께 서 있는 당산나무는 매우 오래된 팽나무이다.

석장승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한 쌍 2기의 형태로 각각 '서방대장(西方大將)', '동방대장(東方大將)'으로 불린다. 1987년 조사에서는 두상 아랫부분이 매몰된 상태였다. 1992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자료가 되면서 묻힌 부분을 끌어올렸다. 현재 높이는 145㎝ 크기이다. 서방대장은 높이 180㎝, 두상 길이 80㎝, 두께 25㎝에 달한다. 서방대장의 몸통에 새겨진 '도광십이년(道光十二年)'의 '도광(道光)'은 청(淸)나라 선종(宣宗)의 연호(年號)이다. 이에 따라 '도광십이년'은 조선 순조 32년을 말하며, 1832년에 해당된다.

동방대장은 높이 80㎝, 두상 길이 80㎝, 두께 40㎝ 크기이다. 동방대장이라고 앞면에 새겨진 할아버지장승은 북쪽을 향하여 서 있으며, 음각과 양각으로 얼굴의 윤곽이 새겨져 있다. 전체적으로 조형적 불균형에서 오는 우직스러움이 느껴지면서도 마음씨 좋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 소박한 시골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오르게 한다. 눈은 둥근 안경을 쓴 듯하고, 코 역시 거의 둥그렇게 처리하여 모난 데가 없다. 초승달처럼 반원을 그리고 있는 입술은 눈, 코와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 턱 아래 두 줄로 내려뜨린 음각의 자국은 수염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마 부분은 망건을 쓴 모습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비스듬히 뒤쪽으로 기울어진 이마는 얼굴 길이만큼 길다.

남향인 할머니장승은 몸통이 사다리꼴로 올라가다가 머리 부분에서 네모꼴로 깎였다. 할아버지 장승이 두꺼운 것에 반해 할머니장승은 두께 18㎝의 판석을 사용했다. 눈과 코는 할아버지장승과 같이 원형으로 그렸으나 입은 기형적으로 크게 네모꼴로 그리고, 그 안에 이빨 모양을 요철형으로 파 놓았다.

내용 영광도동리석장승은 당산나무 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불린다. 3m 거리를 두고 각각 북쪽과 남쪽으로 등을 돌린 채 서 있다. 할아버지장승과 할머니장승 사이에는 거칠게 다듬은 원통형 돌이 서 있다. 이 또한 장승으로 불린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작은 장승을 '애기장생' 또는 '말막뚝이'라고도 한다. 이들 3기를 통칭하여 '장승' 또는 '대장돌'이라고 한다.

통상 장승이나 대장돌로 불리는 입석으로, 마을 수호신격에 해당된다. 특히 득남을 기원하는 기자신앙석(祈子信仰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건립 연대로 보아 천연두(天然痘)를 막기 위해 세운 장승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영광읍 단주리의 목장승과 묘량면 영당마을의 목장승이 천연두 등 질병 예방을 위해 세웠다는 내용이 구전되고 있다.

1996년 이후로 도동리석장승과 관련한 의례는 중단되었다. 할아버지장승의 전체적인 형태는 시묘석인(侍墓石人)의 문인석(文人石) 형상을 취하고 있다. 머리에는 유건(儒巾)을 썼으며, 양각(陽刻)으로 튀어나온 두 눈은 부리부리하다. 균형 잡힌 코에서도 위엄을 읽을 수 있다. 아랫입술까지 새긴 입은 반쯤 벌어

졌으며, 이빨이 새겨져 있다. 얼굴 밑 부분에는 홀(笏)로 추정되는 조각도 보인다.

1987년 이전까지는 정월대보름날에 장승과 당산나무 아래서 당산제를 지냈다. 당산제 절차는 일반적인 마을의 당산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산 주위에 황토를 뿌리고 흰 종이를 끼운 왼새끼줄을 묶어 당산나무와 장승을 일시적 보호공간으로 격리한다. 제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 사람으로 선택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제물을 준비하고 제의를 시작한다. 흰떡, 콩나물, 녹두나물, 돼지머리, 조기, 상어, 청어, 삼색실과 등 제물을 준비한다. 메를 진설하고 나면 축문을 읽어 신격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구한다. 당산 제의 비용은 통상 인구전(人口錢) 등으로 호명되는 호당갹출(戶當醵出) 방식을 택했다.

당산제가 끝나면 가가호호 마당밟이를 연행했다. 매굿패의 구성은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나발 등을 중심으로 잡색(雜色)들이 뒤를 이었다. 잡색은 양반, 참봉, 할미, 포수, 초랭이, 창부, 중, 각시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악대의 복색은 쾌자를 덧입고 그 위에 청·홍·황색의 띠를 둘렀으며, 쇠잡이를 제외한 전원이 고깔을 착용했다.

당산제가 끝나면 남녀로 편을 갈라 외줄다리기를 했다. 스무 살 이전의 총각들은 모두 여자 편에 속한다. 대개의 마을들이 그렇듯이 이 마을에도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장승 옆에 서 있는 입석(높이 40㎝, 둘레 110㎝)에 입히는 의례를 치른다. 영광군에는 이러한 줄다리기와 입석감기의 의례가 광범위하게 전승된 것으로 보고된다. 묘량면 영당마을의 수살, 군남면 동월리 치산마을 할아버지 및 할머니당산의 선돌, 홍농읍 진덕리 진정마을의 입석, 군남면 반안리 안수마을의 할머니당산인 오릿대에 줄 감는 풍습 등은 도동리의 장승과 더불어 이러한 전통의 맥을 이어 오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남녘의 벅수**(이종철 외, 김향문화재단, 1990), **벅수와 장승**(김두하, 1990), **영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전남대학교박물관, 영광군, 1993), **영광군의 장승유적**(강현구, 전남문화재 6, 전라남도, 1993), **옥당골 영광향토문화사료집 12**(영광문화원, 1994), **전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6).

필자 **이윤선(李允先)**

영광법성포단오제

정의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지역에서 치러지는 서해안 최대 규모의 단오절 축제.

역사 우리 민족 고유의 5대 명절(설·한식·단오·추석·동지) 가운데 하나인 단오절은 현대에 이르러 거의 단절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한편 법성포 지역의 단오제는 강릉단오제와 함께 쌍벽을 이루며 전통민속 축제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법성포단오제의 유래는 문헌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역사적 정황이나 사실을 기반으로 볼 때 그 시초는 조선 중기로 추정되고 있다. 법성포 지역에는 조선시대 때 조창(漕倉)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조창의 존재가 오늘날의 법성포단오제를 형성하게 했다고 한다. 이 지역 조창인 법성창(法聖倉)은 호남지방 28개 마을의 세곡을 거둬들여 보관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컸다고 한다. 호남지방 대부분의 세곡은 조운의 거점인 법성창에 보관되었다가 서울로 운송되었다.

법성포 앞바다인 칠산어장은 조기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기 생산이 풍부한 곳이었다. 봄철이면 각지의 조기잡이 어선들이 법성포 앞바다로 몰려들어 전국 최대의 조기 파시(波市)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법성포단오제가 일찍 형성되었을 것이고, 규모 또한 성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법성포의 유수한 물산객주들이 '백목전계'라는 협동조직을 만들어 단오제 행사 비용을 치렀다고 한다. 또한 세곡을 나르는 조운의 선적이 음력 오월에 있었고, 법성창이 매월 5일과 10일에 큰 규모로 섰기 때문에 법성포단오제 때 몰려든 부보상들이 단오제를 후원하기도 했다. 법성포단오제는 1907년쯤에 단절되었다가 1946년에 부활되었으나 1976년 그네뛰기 행사 도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단오제의 전통이 이후 10년 동안 단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성포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1986년에 법성포단오제가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의 법성포단오제에서는 제의를 비롯한 다양한 민속놀이가 펼쳐졌다. 제의는 법성포 지역의 세습무 집단이 맡아 담당하였다. 『법성포견문기(法聖浦見聞記)』와 『법성향지(法聖鄕誌)』를 보면 법성포에서 활동해 온 세습무 집안은 네 집 정도로 거론된다. 칠산어장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무속인이 많았고 무속도 매우 발달해 있었다. 주로 농악과 무당굿 반주를 담당하던 무부(巫夫)들도 법성포단오제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무부들은 풍물패를 구성하여 마을을 돌며 걸립을 하거나 용왕굿의 악사로 참여하였다.

법성포의 대표적인 무녀로 꼽히는 인물은 김앵순(金櫻順, 1919~1995)이다. 김앵순은 그의 남편인 김성락과 외지의 세습무들도 초빙하여 용왕굿을 큰 규모로 연행했다고 한다. 김앵순 이후에는 최정옥 무녀가 그녀의 뒤를 이어 용왕굿을 담당하였다. 최정옥의 사망 이후에는 일반인인 김명자·최용 일행이 굿을 학습하여 잠시 그 자리를 대신했으나 굿 연행 능력의 한계로 교체되어 2008년부터는 광주광역시의 세습무계 출신인 이장단·박영태 부부가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법성포단오제의 주최와 주관은 (사)법성포단오보존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소요 경비는 법성포단오보존회원과 법성면 상가의 갹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법성포단오제는 매년 단오절(음력 5월 5일) 시기에 맞춰 법성포단오보존회의 주관으로 닷새 동안 개최되고 있다. 단오제 행사가 있기 한 달 전부터 법성포단오보존회의 제전위원회, 단오보존회 부녀회, 법성포 로타리클럽, 법성포 청년회 등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성포단오제 행사를 준비한다. 제물은 단오보존회의 부녀회원들이 마련하며, 법성포단오제 때 행해지는 제의는 법성포단오보존회의 제전위원장인 오봉수의 관리 아래 제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법성포단오제에서는 제의, 민속놀이, 각종 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제의로는 산신제(인의제), 당산제, 무속수륙재, 용왕제 등이 진행된다. 민속놀이는 선유놀이, 길놀이(오방돌기), 전국국악경연대회, 연등행진, 그네뛰기대회, 씨름대회, 영광우도농악공연 등이다. 이 밖에도 법성포굴비의 홍보 및 관촉을 위한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가 접목되고 있다.

산신제는 법성포의 진산(鎭山)인 인의산(仁義山)에서 모셔지고 있어 '인의제'라고도 한다. 오봉수 제전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동영, 박종현, 이용운 등의 제전위원들이 산신제를 맡아 진행한다. 초헌·아헌·종헌을 맡을 제관들은 축제가 시작되는 날 오전 10시쯤에 인의산에 올라가서 유교식 제사 방식으로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 때에는 마을 수호신인 산신을 대접하고 영광군민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한다.

당산제는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에서 낮 12시쯤에 지낸다. 법성포 진성당산이 할아버지당산, 인의정 아래의 노거수가 할머니당산이다. 할아버지당산제는 제관들이 제상을 마련해 놓고 축문을 읽으며 유교식으로 지내지만 할머니당산제는 풍물패만 참여하여 약식으로 치른다. 제의 담당자들은 당산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 및 영광군민의 화합을 기원한다.

무속수륙재는 2008년에 세습무 전금순에 의해 복원된 무당굿에 해당된다. 2008년까지만 해도 법성포단오제에서는 액막이 목적으로 잡신을 대접하는 유교식 '한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지내왔으나, 한제의 정

진성당산제
전남 영광군 법성포
2002.6.14, 최호식

인의산산신제
전남 영광군 법성포
2002.6.15. 최호식

통성 문제로 논란이 일자 법성포단오보존회가 유교식 한제 대신 무속수륙재를 새롭게 복원하였다. 무속수륙재는 억울하게 죽은 잡신들의 한을 풀어 주어 액을 막는 의식이다. 이 굿의 핵심인 '중천멕이놀이' 과정에서는 무당이 여러 잡신의 역할을 도맡아 악사와 재담을 나누며 잡신의 한을 연극적으로 풀어 준다. 전금순은 전북 정읍 무계 출신이지만 영광 법성포 지역의 세습무들과 친척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전금순의 무계 집안 출신들이 법성포단오제 때 무속수륙재를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전금순의 공연을 토대로 복원된 무속수륙재는 세습무계인 이장단·박영태 부부가 전수하여 2009년 단오제 때부터 연행되고 있다.

용왕제는 풍물패, 제관, 세습무 일행의 주관으로 지낸다. 이들은 배를 타고 법성포 앞바다로 이동하여 선상(船上)에서 제사를 지낸다. 제관과 무당 일행이 용왕의 탱화를 걸고 제물을 차리는 동안 풍물패는 배의 한가운데에서 흥겹게 풍물을 친다. 본격적인 용왕제는 유교식 제관과 무당에 의해 연행된다. 2005년까지는 용왕제가 이 지역 정통 세습무의 주관 아래 무속식 방식으로 연행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 세습무가 단절된 최근에는 유교식 제관과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초빙된 세습무가 연합하여 용왕제를 지내고 있다. 제관들이 먼저 축문으로 제사를 올리고 나면 이장단 무녀와 박영태 악사 일행이 본격적으로 용왕굿을 연행한다. 용왕제의 마지막 절차인 헌식 과정에서는 무당이 쇠머리를 바다에 던지며 영광군민의 무탈과 풍어를 기원한다. 헌식이 끝나면 풍물패가 흥겹게 풍물을 치며 구경꾼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판을 조성한다.

용왕제가 끝나면 법성포의 고유 민속놀이인 선유(仙遊)놀이가 펼쳐진다. 선유놀이 때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부녀자들이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장구장단에 맞춰 춤과 노래로 한껏 어울려 논다. 과거에는 마을 부녀자들이 소리꾼과 삼현육각잽이를 대동하고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선유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단오제 때 민속놀이와 국악 공연은 대부분 숲쟁이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단오제 때 단오난장이 크게 섰을 때 숲쟁이공원이 바로 단오난장의 중심 무대였다고 한다. 놀이판을 통해 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상인들은 다양한 놀이의 시연이 가능한 이 숲쟁이에서 단오난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단오제 때에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이 숲쟁이에 모여들어 줄타기·판소리·민요 등의 공연과 그네뛰기·널뛰기·씨름·줄다리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펼쳤다. 이곳에서 국악경연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 대회는 전주 대사습놀이보다 훨씬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이 대회에서 장원한 사람만이 기예자나 명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최근에도 숲쟁이공원에서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그네뛰기대회 등의 경연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또 각설이공연, 마술공연, 마당놀이 등의 공연과 각종 체험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의의 법성포단오제는 조선 중기 때부터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규모의 민속 축제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지역축제와는 달리 법성포단오제는 단오절의 전통성에 기반을 두고 법성면 상가의 갹출과 법성포단오보존회원들의 후원, 법성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민속축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법성포단오제**(나경수 외, 월인, 2007), **법성포단오제의 수륙재 수용 가능성-정읍 전씨 무계의 수륙재를 중심으로**(이영금, 한국무속학 17, 한국무속학회, 2008).

필자 **이영금(李永金)**

법성포수륙재
전남 영광군 법성면
수협위판장
2008.10.26. 이영금

영광안마도당제

정의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 온 마을 제사.

특징 영광 안마도에서는 1970년대까지 제의를 행했다. 마을제 명칭은 '당제', '당산제' 등으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네 마을이 연대하여 마을 제사를 지내던 안마도에서는 당제(堂祭)로 통칭한다. 서해, 남해의 도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명해 온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개 자연마을 단위별로 마을 제사를 지내며, 섬 전체의 마을이 연합하여 닷새 동안 제의를 치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격이나 성격은 도서해안 지역에서 연행되는 당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해안 표착형 설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 제사라는 점, 특히 중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적 특성을 거론할 수 있다.

유래 제의 대상으로 선정된 신격과 신체(神體)는 안마도의 당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신화는 안마도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신씨할머니와 관련된다. 어느 날 신씨할머니의 꿈에 한 장수가 나타나 "나는 당나라 장수인데 한 번도 전쟁터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곳 북쪽 산 너머 선창가까지 왔다. 나를 이곳 산봉우리에 묻고 매년 설날에 매굿을 해 제사를 지내 달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궤짝과 말이 당너머라는 바닷가에 밀려왔다. 잠이 깬 신씨할머니는 이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당너머 바닷가로 가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현몽한 궤짝이 실제 떠밀려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궤짝을 열어 보았더니 1m 이상 되는 긴 머리털과 중국 화폐가 들어 있는 큰 주머니, 철마 세 마리, 옷, 당제의 의례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마 세 마리를 큰당에 모시고, 이곳에 항아리를 묻어 궤짝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의 대상은 신씨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가 된다. 통상 당할아버지와 신씨할머니에 대한 제의가 중심으로 연행되지만 제상으로 보면 당할머니의 몫이 따로 차려지는 점으로 미루어 3신위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신대는 두 개뿐이어서 선대나 후대에 신격에 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내용 제당은 여섯 군데의 제당으로 구성되었다. 큰당, 작은당, 큰아들당, 작은아들당, 셋째아들당, 넷째아들당이 그것이다.

큰당은 곰몰마을 뒷산(해군기지)에 위치한다. 신격은 할아버지에 해당된다. 큰당은 당집은 없고 돌담

으로 둘러싸여 있다. 돌담 주변에는 동백나무숲이 우거졌다. 큰 당 입구의 왼쪽은 당할아버지 신격으로 호명된다. 판석(板石) 위에 쌀 두 가마 분량이 들어갈 크기의 항아리가 있다. 그 앞쪽으로 철마 세 마리를 안치했다. 항아리 안에는 신대[神木]에 매달았던 당목(무명베)과 노잣돈 주머니를 넣어 두었다. 당할아버지 맞은편을 신씨할머니당으로 부른다. 큰당 안에서 할아버지당과 신씨할머니당을 구별하기 위해 돌담을 쌓았다. 신씨할머니당에도 마찬가지로 판석 위에 항아리를 두었다. 물론 현재 항아리나 철마는 전승되지 않는다. 돌담과 판석만이 제의 터의 위엄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작은당은 큰당에서 남쪽으로 100m쯤 아래에 있다. 신격은 할머니에 해당된다. 당 자체가 소실되어 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구당터'(옛날 당이 있던 곳이라는 뜻)라고 부른다. 큰아들당은 큰당에서 남쪽으로 산 아래에 있는 곰몰마을 어귀에 위치한다. 신격은 큰아들에 해당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할아버지당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 밖에 작은아들당, 셋째아들당, 넷째아들당의 경우도 할아버지당으로 인식한다. 작은아들당은 등몰마을 어귀에 위치한다. 신격은 작은아들에 해당된다. 셋째아들당은 신기마을 어귀에 위치한다. 신격은 셋째아들에 해당된다. 넷째아들당은 월촌마을 중앙에 위치한다. 신격은 넷째아들에 해당된다. 이들 아들 당의 신체는 모두 팽나무이다.

안마도에는 신기·월촌·곰몰·등몰의 네 자연마을이 있다가 등촌마을의 가구 수가 줆으로써 신기마을과 통합되어 세 마을로 구성되었다. 당주(제관)나 신대잡이를 대표자 또는 대리자로 내세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제의의 주체가 된다.

제비(祭費)는 호구전 등으로 호명되는 인구당 갹출 방식을 택해 충당한다. 안마도에서는 이를 '지붕머릿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비의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제물을 마련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당주(또는 제관)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전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제관은 당주 네 명으로 구성된다. '신대잡이'로 호명되는 제의 보조자도 여덟 명이 선정된다. 당주와 '신대잡이'는 네 개 마을에서 각각 한 명, 두 명을 선출한다. 특히 당주의 경우 생기복덕을 봐서 손(孫)이 귀하거나 깨끗한 집을 선정한다. 당주로 선정되면 부정한 일을 하거나 부정한 것을 최소한 봐서도 안 된다. 부정한 일로 인식되는 것은 부부동침, 대소변을 보는 일, 궂은 곳(상갓집, 산가 등) 출입, 궂은 음식을 먹는 행위 등 포괄적이다. 물론 궂은일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관 선정에서 제외된다. 대소변 등 불가피하고 사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목욕재계하여 부정을 씻는다. 이러한 금기는 당제가 끝날 때까지 지켜진다.

제물도 깨끗한 사람(궂은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약 닷새 전에 인근의 내륙 포구인 법성포 장에서 구입해 온다. 제물을 구입할 때에는 값을 깎아서도, 흥정을 해서도 안 된다. 꼭 필요한 제의 물품은 삼색실과와 조기 등 해산물이다. 음식 조리에는 당주의 가족만이 참여할 수 있다. 조리 중에 음식 맛을 보면 안 된다. 가능한 한 음식은 싱겁게 만든다. 제상에 오르는 제물은 삼색실과를 포함해 조기, 나물, 메(밥), 술, 떡 등이다. 육류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의 진설은 일반적인 조상제사와 같다. 산의 정상에서는 제상을 두 개 준비한다. 한쪽은 신씨할머니상이고 다른 쪽은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상이므로 메는 세 개가 된다.

곰몰마을에서는 음식을 주로 섣달그믐날과 정월 초나흗날 두 번 준비한다. 등몰마을에서는 정월 초하룻날에 음식을 준비한다. 신기마을에서는 정월 초이튿날에 준비한다. 월촌마을에서는 정월 초사흗날에 준비한다. 물론 준비하는 곳은 각 마을의 당주 집이다. 제기(祭器)도 당주 집의 그릇을 사용한다. 제를 지낼 때 사용한 도구 등은 당주 집에 보관한다.

제일은 주로 섣달그믐날부터 정월 초닷샛날까지로, 길일을 택하여 정한다. 큰당의 당할아버지와 신씨할머니를 모시고 내려와 큰아들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게 하고 연이어 둘째 마을, 셋째 마을, 넷째 마을 순으로 묵게 한다. 마지막날 다시 큰아들 마을인 곰몰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한 뒤 다시 큰당으로 올라가 제의를 마치게 된다. 다만 네 마을 가운데 궂은일, 예를 들어 초상 등이 발생하면 해당 마을에서는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 신대를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건너뛰어 제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마을 신대잡이나 마을 주민들은 당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등몰마을의 가구 수가 줄어들어 신기마을에 통합된 이후로는 곰몰, 신기, 월촌의 세 마을에서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이때에는 곰몰마을에서 이틀밤, 신기마을에서 하룻밤, 월촌마을에서 하룻밤, 다시 곰몰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 큰당으로 올라가 제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을의 병합과 상관없이 안마도 당제가 닷새 동안의 의례기간을 준수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제의는 제물 진설-분향(焚香)-헌작(獻爵)-재배(再拜)-헌작(獻爵)-재배(再拜)-소지(燒紙)-음복(飮福)-철상(撤床) 순으로 진행한다.

섣달그믐날 낮부터는 곰몰마을을 중심으로 제의가 이루어진다. 곰몰마을의 당주와 신대잡이, 어린 남자아이들과 깨끗하다는 구성 요건을 갖춘 남자들이 꽹과리와 징 등을 울리면서 큰당으로 올라간다. 큰당에 신대를 모시러 가는 까닭에 큰아들 신격에 해당되는 곰몰마을이 제의를 담당하는 것이다.

큰당에 도착하면 곧바로 신대를 만든다. 신대는 대나무이다. 대나무는 대개 육지에서 생대를 사다가 당주 집에 보관하면서 말린다. 대나무의 꼭대기에 동백나무 가지를 창호지로 묶는다. 항아리에 보관된 당목을 동백나무 가지의 밑동에 깃발처럼 매달아 둔다. 당목은 할아버지신대와 할머니신대를 합하여 한 필 반 길이이다. 할아버지신대와 할머니신대를 만들고 나면 이 신대를 모시고 하산한다. 이때 메는 올리지 않는다. 신대를 모시고 내려올 때에는 신대잡이가 신대를 들고, 어린 아이들은 당목 끝을 잡는다. 대개 오후 2시를 전후하여 내려올 때면 곰몰마을 당산, 즉 큰아들당에서는 굿청(농악)을 벌인다. 신대가 곰몰당산으로 내려와 곰몰 굿청과 합류하면서 곰몰마을 축제판이 벌어진다. 연이어 신대는 당주 집에 모셔진다. 신대로 상징되는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가 곰몰 당주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는 셈이다. 신대는 안채의 안방 앞 처마 끝에 모셔진다. 당주 집의 대문에서 볼 때 당할아버지 신대를 왼쪽에 세우고 약 3m 오른쪽으로 당할머니 신대를 세운다. 이때 당주는 음식은 올리지 않고 술만 올린다. 저녁이 되면 당주는 메를 올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면 준비한 제물을 올린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이 되면 등몰 당주와 등몰 신대잡이, 등몰 굿청이 함께 곰몰마을로 올라온다. 등몰 굿청은 곰몰 굿청과 함께 곰몰당산에서 축제판을 벌이고, 당주는 곰몰 당주 집으로 간다. 등몰 당주가 곰몰 당주 집에 도착하면 곰몰 당주와 함께 음식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등몰당산에서 굿판을 벌이고 난 뒤 등몰 당주 집으로 신대를 모시고 가서 둘째 밤을 보낸다. 이튿날 아침, 즉 정월 초이튿날이 되면 신기마을의 당주와 굿청 및 신대잡이가 올라온다. 굿청과 신대잡이는 등몰당산에서 등몰 굿청과 함께 굿판을 벌이고, 신기 당주는 등몰 당주 집으로 가서 아침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등몰 신대잡이가 신대를 모시고 등몰당산으로 간다. 신기마을과 등몰마을의 굿청이 굿판을 벌인 다음 신기마을의 신대잡이가 신대를 인수하여 신기마을로 향한다. 이때 등몰마을 사람들은 노잣돈이라고 하여 엽전주머니를 당목 끝에 매달아 준다.

신기마을 당산(셋째아들 당산)에서 굿판을 벌인 다음 신대잡이는 신대를 모시고 신기 당주 집으로 간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흘째 밤을 보내고 초사흗날 아침에 월촌마을의 당주와 굿청, 신대가 동일한 형식으로 올라온다. 월촌 당주가 신기마을의 당주 집으로 가서 아침 제사를 지내고 나면 신기마을의 신대잡이가 신대를 인수하여 월촌마을로 간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노잣돈이라고 하여 엽전주머니를 당목 끝에 매달아 준다.

월촌 당주와 월촌 굿청, 신대잡이가 모시고 간 신대를 중심으로 굿판이 벌어진다. 동일한 방식으로 월촌 당주 집에서 나흘째 밤을 보낸다. 정월 초나흗날 아침에는 월촌 당주만 참여하여 제사를 지낸다. 월촌 당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 신격은 역순으로 동일한 제사 형식을 거치면서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역순으로 돌아나와 곰몰 당주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정월 초닷샛날 아침 제사를 곰몰 당주만 참여한 가운데 지낸다. 점심 때쯤 되면 곰몰마을의 어린 아이들과 부정이 없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신대를 잡은 신대잡이와 함께 큰당으로 올라간다. 정상에 있는 항아리에 신대에 묶은 당목과 노잣돈 주머니 등을 넣고 마을로 내려오면 모든 마을 제사가 끝나게 된다. 대나무는 곰몰 당주 집에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제사 때 사용하게 된다.

제의의 목적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축문이다. 그러나 안마도에는 구전만 있을 뿐 축문이 전해 오지 않는다. 주민들에 따르면 치병(治病), 제액(除厄), 풍농(豐農), 풍어(豐漁), 자손의 번창 등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문헌 **공동체신앙과 당신화 연구**(표인주, 집문당, 1996년), **영광 안마도 촌제 조사 보고**(표인주, 전남문화재 6, 전라남도, 1993), **전남 영광군 안마도당제 고찰**(표인주, 한국민속학 26, 한국민속학회, 1994), **전남 영광군 안마도당제 고찰**(표인주, 남도민속문화론, 민속원, 2000).

필자 **이윤선(李允先)**

영광우평마을당산제

정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우평마을에서 400여 년 동안 연행되어 온 마을 제사.

특징 우평마을은 도깨비설화를 모티프로 설촌(設村)되었고, 이를 전제로 한 당산제가 연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거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산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제(厲祭)'와의 상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근자에는 영광 우도농악이 2006년부터 합세하면서 규모나 제차가 예능중심으로 확장되었다. 물론 이것이 아니더라도 영광우도농악의 모태격이라 할 수 있는 마을 제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이런 점에서 마을제사의 의례형식보다는 거기서 파생된 예능화된 농악의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평마을은 본래 영광군 도내면에 속하였다. 우들, 우평, 도깨비둠벙 등으로 불렸다. 우평 또는 도깨비둠벙이 있으므로 '도깨비터'라고도 하였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우평리라 고쳐 부르고 영광면(읍)에 편입되었다. 우평1리, 우평2리 우평3리로 나뉜다. 우평1리가 본마을이고 2, 3리는 이후에 세워진 마을이다.

우평 본마을은 1500년대 말에 해주(海州) 오명렬(吳命烈)이라는 사람이 설촌하였다. 오씨 집성촌으로 마을이 번창해 오다가 김해 김씨(金海 金氏), 영성 정씨(靈城 丁氏) 등과 함께 살게 되었다.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와우형국(臥牛形局)이라 하여 우평(牛坪)이라 불린다고 한다. 당산제 때 올리는 제물 가운데 우족(牛足)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평마을당산제는 추수가 끝나는 10월쯤에 풍년·풍어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축제인 까닭에 정초에 치러지는 일반적인 마을제와는 구별된다. 당산제가 문화행사로 확대된 최근에 이르러서는 제의 일시가 10월에서 11월 첫째주 토요일로 바뀌었다. 나아가 2010년 현재 사회기업의 일환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연행하는 난장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당산제뿐만 아니라 마을 제사, 풍물난장, 관광객들이 어울리는 우도농악 축제로 확산되어 문화체험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유래 우평마을 사람들에게 구전되어 오는 설화가 『영광군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 영광읍 우평마을은 500여 년 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도깨비들이 살던 터였다. 사람이 이 터에 들어와 살았는데 자꾸 도깨비들이 방해를 하였다. 밤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 집을 부수고 못살게 하였다. 마을 터를 놓고 도깨비와 사람 간에 시비가 생겼다. 그러나 사람이 도깨비를 이겨낼 수 없었다. 궁리 끝에 사람들은 도깨비들과 협상을 하였다. 무슨 일을 해 주면 터를 물려주고 해코지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도깨비가 말하였다. "본 터의 중앙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고, 음력 시월 열나흗날 도깨비들을 위하여 당산을 모시고 제사를 훌륭하게 모셔 달라. 제물의 음식은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메밀묵과 우평을 올려 달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우평은 마을 이름이기도 하지만 마을이 소의 형국을 지녔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우족'이라고도 한다. 반드시 소의 발목을 당산 제의 제상에 놓아 달라는 부탁인 셈이다. 사람들은 도깨비가 요구한 대로 마을의 사방에 당산나무를 심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정초에 제사를 지내는 도깨비둠벙을 포함해 오당산이 생겨나게 되었다. 마을의 경관 구조도 이를 근거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이렇듯 도깨비와 사람간의 약속은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

내용 제의를 행하는 공간은 '오당산'이라고 호명되는 '우들'에 있는 느티나무 당산이 중심이다. 해마다 음력 시월 열나흗날 밤에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내다가 지금은 그 일시가 바뀌었다. 도깨비설촌설화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마을의 지명들도 도깨비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도깨비둠벙'이다. 우평마을 앞쪽에 있는 둠벙으로, 처음 우평에 터를 잡을 때에는 자주 허물어졌다고 한다. 하루는 도깨비 꿈을 꾸고 그 지시대로 도깨비둠벙에 가서 메밀떡과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낸 뒤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해마다 정월 첫 인일(寅日)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를 지내 왔다. '도깨비터'는 우평마을의 본래 이름이기도 하였다. '두깨비터'라고도 부른다.

우평마을은 이 오당산을 중심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마을 제사를 지냈다. 통상 이 제사를 당산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의례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궂은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제관 선정에서 제외된다. 대개 '당주'로 호명되는 제사 책임자를 우평마을에서는 '하주'라고 부른다. 하주로 선정되면 부정한 일을 하거나 부정한 것을 최소한 봐서도 안 된다. 부정한 일로 인식되는 것은 부부동침, 대소변을 보는 일, 궂은 곳(상갓집 등) 출입, 궂은 음식을 먹는 행위 등 포괄적이다. 하주가 부정을 타게 되면 도깨비가 화를 내어 마을에 해코지를 한다고 여긴다. 실제로 마을 앞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던 해가 있었을 때 하주가 부정을 타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제사를 지낼 때 하주는 음력 시월 그믐날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맑은 찬물로 목욕재계한다.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어도 반드시 목욕을 다시 하여 몸의 부정을 씻었다. 당산제를 지내는 상달, 즉 음력 시월에 초상이 나거나 출산이 있는 경우에는 깨끗함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여 동짓달의 좋은 날을 다시 택하여 마을 제사를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당산제를 깨끗이 모시지 않은 경우 그해 운수가 불길하다고 여긴다. 이에 따라 손수 한 집도 빠짐없이 떡과 음식 등 제물을 만들어 방, 곳간, 샘, 철륭(장독대) 등지에 차려 놓고 그해의 행운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제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족과 메밀묵이다. 이는 마을 이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족은 마을의 형세, 메밀묵은 설촌설화에 등장하는 도깨비와 각각 관련되어 있다.

제비(祭費)는 호구전 등으로 호명되는 인구당 갹출하여 충당한다.

제차(祭次)는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그 실상을 알기가 어렵다. 다만 현재 영광 우도농악보존회와 더불어 연행하는 절차들이 전통적 맥락을 잇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대개 마을 제의 구성상 영광군의 여타 마을들과 큰 변별성은 없다는 점에서 현재 준수되고 있는 절차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마을의 독특한 도깨비설화와 관련된 설촌, 이것을 뒷받침하는 마을 제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도깨비 김서방을 불러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을의 우물을 퍼내 새 물이 차도록 기다렸다가 그 물로 음식을 만든다. 현재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물아래 와탄천 인근에서 도깨비 김서방을 불러내는 것으로 마을제를 시작한다. 흔히 '물아래 도깨비 김서방'으로 통칭되는 김서방 도깨비를 불러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다.

당산 제의를 중심으로 마당밟이까지 당산 제의 범주에 해당된다. 광의의 당산 제의와 협의의 당산 제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마당밟이를 포함한 제의 전반을 호명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오당산 아래에서 행하는 의례만을 호명한다는 점이 다르다. 당산제는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마당밟이까지 포함해 소개한다.

1. 당산굿 현재의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으로 유교제례화해 있다. 집사 두 명이 제의의 진행을 돕는다. 제물을 진설하고 축문을 독하고 징굿(진설, 강신)을 시작으로 인사굿-초헌-독축-아헌-종헌-소지-구정놀이-인사굿-음복-대동놀이 등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2. 샘굿 샘굿에서는 샘굿가락을 친다. 구음보로는 "솟아라 솟아라 푹푹 솟아라"라고 한다. 샘굿가락을 치고 나서 칠채가락(풍류가락)을 치면서 샘으로 들어간 역순으로 잡색부터 돌아나온다. 가락은 자진일채-음매깽깽-자진일채-음매깽깽-자진일채-샘굿가락-음매깽깽-자진일채 순서의 구성을 취한다.

3. 들당산굿 마당밟이를 할 때 개별 집들에 당도하면

우평마을 당산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우평마을
2006.2.13, 서해숙

서 치는 가락을 말한다. 대포수가 가장 앞줄에 선다. 잡색들이 그 뒤를 따른다. 나쁜 귀신은 당산굿에서 다 물리치고 좋은 귀신은 들당산굿에서 불러들인다고 한다. 일채질굿을 치다가 사이사이로 칠채가락(풍류가락)을 친다. 일채질굿에서 칠채가락, 다시 칠채가락에서 일채질굿으로 순환하는 구성을 취한다.

4. 문굿 및 마당굿 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치는 굿이 문굿이다. 구음보로는 "쿤쿤 문여소 문 안 열면 갈라요"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채가락으로 진행하고 잡색부터 거꾸로 들어간다. 마당굿은 일채, 이채, 삼채가락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진일채-늦은삼채-모는가락-안바탕(맺음-구정놀이가락-맺음가락) 등으로 구성된다. 또 한편으로는 자진일채-늦은삼채-제넘기기굿(시넘)-팟싹굿 등의 구성을 취한다.

5. 성주굿 가가호호 집을 지키는 성주를 달래기 위한 굿에 해당된다. 마루에 쌀을 담은 소반을 놓고 그 위에 돈과 무명실을 올려 놓은 다음 촛불을 밝혀 두고 판을 벌인다.

6. 정지굿 일명 부엌굿이다. 솥뚜껑을 뒤집어서 엎어 놓고 그 위에 촛불을 밝힌 다음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 놓는다. 이는 불을 관장하는 조왕신께 제를 올리는 것이다. 이어 쌀을 사방에 뿌린다. 잡귀를 몰아낸다는 뜻이다. 가락으로는 자진일채-음매깽깽-정지굿가락-음매깽깽-이채-음매깽깽-자진일채 순으로 구성한다.

7. 장광굿 일명 장독대굿이다. 대개는 장독대를 철륭이라고 하여 철륭굿을 치지만 여기서는 귀신이 놀라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주로 벙어리가락을 친다고 한다. 가락을 보면 장광을 들어가는 가락-넘어가는 가락-자진일채-음매깽깽-자진일채-인사굿 등으로 구성된다.

8. 철륭굿 철룡굿이라고도 한다. 영광에서의 철륭은 마을이나 집터를 지켜 주는 신으로 큰 바위나 움푹 파인 곳, 약간 높이 솟은 곳 등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한다. 주로 일채, 이채, 삼채 가락으로 구성한다.

9. 판굿 판굿은 당산 제의 의례가락이 예능화되어 기량을 뽐내는 굿판에 해당된다. 모둠굿, 오채질굿, 오방진굿, 잡색탈놀이, 허허굿, 구정놀이, 인사굿 등으로 구성된다.

10. 날당산굿 당산 제의를 모두 마치는 굿에 해당된다. 모든 굿을 마치고 마을을 빠져 나오면서 치는 굿이다. 상쇠의 부포짓에 따라 부쇠와 가락을 주고받는다. 또한 상쇠와 잡색들이 춤을 추는 등 다양한 부포짓과 진법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

11. 잡색의 형성과 의미 잡색의 형성은 주로 농악에서 거론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도깨비설촌설화와 관련하여 잡색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대포수, 양반, 할미, 창부, 조리승, 참봉, 비리쇠, 각시, 홍적삼, 큰애기 등으로 구성되어 갖가지 연극적인 형태와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제의의 목적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축문이다. 현전하는 축문의 내용은 대개 초인적인 조화 능력을 지닌 신의 힘을 기원하는 내용, 각종 질병의 퇴치 및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 천재지변의 화를 면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 많은 복이 내려 재수가 대통하기를 기원하는 내용, 만사형통하고 입신출세를 기원하는 내용,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기원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소, 사안에 따라 축문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영광문화원에서 발간한 『향맥』 제9호(1996)에 소개되어 있는 축문 가운데 성황당(城隍堂)에 고하고 제사 지내는 여제축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여제가 바로 도깨비 신격에게 고하는 축문이라는 점에서 우평마을의 도깨비당산제 및 네 개 방위로 구성된 마을의 구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제축문이라는 점에서 당산제축문과는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것이 영광읍에서 진행하는 도깨비축문이라는 점에서 그 상관성을 시사할 수 있다.

당산옷입히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우평마을
2006.2.13, 서해숙

"아, 너희들 제사를 못 받는 모든 귀신들아, 조용히 듣고 떠들지 마라. 너희가 당초 모습을 생각한다면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었으니 오행의 기운과 사대의 형체로 똑같이 태어났으니 의관을 갖추고 서로 만났으며 마을을 맞대고 살면서 무리를 지어 살았도다. 그때에는 어찌 피차간에 해를 끼쳤을 것인가. 그러다가 죽게 되자 행과 불행이 다르게 되었고 혹은 싸움터로 나가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였고 혹은 형벌을 받아 몸을 망치기도 하였고 혹은 싸우면서 치고 박고 하다가 죽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무거운 것에 눌려서 죽기도 하고 혹은 목매어 죽기도 하고 굶주리거나 얼어서 죽기도 하고 그 밖에 좋게 죽지 못한 자들을 모두 다 들어서 말할 수가 없도다. 유유히 떠도는 외로운 혼은 쉴 곳조차 없어서 거친 산이나 시든 풀밭에서 원통하여 소리 내어 우는도다. 전왕(前王)은 이를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단을 쌓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주게 하셨으니 가히 백골에 살을 붙여준 격이나 다름없고 죽은 잿더미에서 불을 일으켜 준 셈이라고 할 수 있도다. 어둡고 캄캄한 속에서 아마도 모두가 감사해 하리라. 하물며 지금은 성명(聖明)이 왕위에 계시어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인신이 감화를 하며 육기가 언제나 봄기운이 도는 판국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방정을 떨고 성가시게 굴어 독을 퍼트리며 재앙을 일으켜 형세가 구름그물 안개그물 같고 기운이 얼어붙은 얼음이나 활활 타는 거센 불과 같아 부딪치는 자마다 죽어가며 백성들이 장차 모조리 없어지게 생겼으니 논밭은 경작되지 못하고 들판에는 시체가 구르는도다. 성상께서 밤중에도 몇 번씩을 일어나 일념으로 백성들을 근심하시어 크게 말씀을 내심으로써 모든 선비들이 제를 지내고 이곳으로 달려왔도다. 이에 날을 잡아 목욕재계하고 성황신을 청하여 윗자리에 임하게 하여 모든 귀신을 모조리 불러들여 단으로 와서 명령을 듣게 하는 바이다. 우리의 향기로운 밥을 배불리 먹고 우리의 맑은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바람을 따르고 비를 쫓아 맘대로 하늘 밖으로 바다 밖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가거라.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단의 풀이 방석과도 같고 단의 나무가 일산과도 같으니 이곳에 편히 있고 영원히 단의 밖이나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는 살아서 사람에게 죄를 짓고 죽어서 세상에 화를 끼치는 것이니 어찌 복숭아나무의 화살과 범의 부적뿐이겠는가. 내 장차 상제에게 조상을 갖추어 고하리라."

참고문헌 영광읍지 상(영광군, 1998), 향맥 9(영광문화원, 1996).

필자 이윤선(李允先)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永同堂谷里十二將神堂)

정의 관운장을 비롯하여 12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신당.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당곡리에 위치하며, 1972년 12월 26일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영동군 당곡리는 '당(堂)이 있는 골짜기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곧 십이장신당(十二將神堂)을 이전한 이후에 생겨난 명칭이다. 신당은 애초 상촌면 고자리 '산너머당골'에 있었다. 어느 날 영동군수의 꿈에 관운장이 나타나 '이곳이 바람이 세어 못 살겠으니 고곡리로 옮기라'고 지시하여 사당을 옮기고 마을명을 당곡리로 개칭하였다.

당은 흔히 '관우사당(關羽祠堂)' 또는 '관우묘(關羽廟)'로 불리고 있으며, 본당(本堂)과 별각(別閣)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당에는 '12장신'의 영정, 별각에는 관우의 적토마 화상을 각각 모셔 놓고 있다. 본당의 12장신은 구체적으로『삼국지(三國志)』의 주요 등장인물로서 관운장(關雲長), 장익덕(張翼德), 제갈공명(諸葛孔明), 조자룡(趙子龍), 황충(黃忠), 강유(姜維), 마초(馬超), 마직(馬稷), 요화(寥化), 위연(魏延), 창위(蒼偉), 마축(麻竺)이다. 본당은 16.5㎡ 규모의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맞배기와지붕 형태이다. 별각은 0.66㎡ 규모의 맞배기와지붕 형태이다.

역사 당곡리십이장신당의 연원은, 다만 전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관련한 전설이『전설지』에 수록되어 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신당은 상촌면 고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영동현감 꿈에 신당의 주인격인 관운장이 현몽하여 말하기를,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편치 못하니 저 산 너머 고곡리 정결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기에 그 후 신당을 고곡리로 옮기고 마을이름도 당곡리로 바꿨다고 한다.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내부
국립민속박물관

때는 선조대왕 25년 어느 봄날이다. 선조대왕께서는 춘곤을 못 이겨 깊은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위풍이 당당한 한 장군이 적토마를 타고 청룡도를 들고 삼각수를 날리며 늠름하게 대궐 안으로 들어와서 선조대왕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아우님 그간 별고 없으신지? 나는 삼국시대 관우인데 우리의 의리와 인정을 잊지는 않았겠지?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말일세. 우리 삼형제는 살아서는 합심협력하며 서로를 도왔고 특히 형님(유비)이 촉한의 왕이 되자 나(관우)와 동생(장비)은 촉한에 충성을 바치고 마침내 순국하지 않았는가? 우리 삼형제는 한 세대가 끝나고 영혼의 세계에서도 그 의를 지켜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형님은 명나라의 신종황제가 되고 나는 전쟁에서 인명을 너무 많이 해쳐서 인간 환생이 안 되었고 아우는 현재 조선왕이 되었지. 머지않아 동생의 나라에는 큰 병란이 일어날 텐데 아무 방비도 없이 나날이 보내는 동생이 딱해서 지금 내가 일깨워 주러 왔네. 이 난리는 표독한 왜적이 쳐들어오는 난리인데, 7~8년이나 걸릴 테니 명나라 신종황제(유비)에게 구원을 청해서 수습하도록 하게. 내가 신종황제에게 도원의 고사를 들어 간곡히 부탁할 테니 주저 말고 시행하게'하고 사라졌다. 이상한 꿈이었다. 그러나 정신이 아찔하고 머리가 핑 돌았다. 선조대왕은 조정의 백관과 더불어 방책을 논의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힘없는 조정은 별 도리가 없었다. 마침내 관운장이 현몽한 것처럼 선조 25년 4월 왜군 15만이 부산에 상륙하여 쳐들어오니 이것이 임진왜란인 것이다. 막아낼 재주가 없는 선조대왕은 서울을 비우고 의주로 피란을 가니 삼천리 강산은 초토화가 되고 피가 흘러 강이 되었다. 이 틈에 많은 보물과 문화재는 왜적들의 손에 들어갔고 피란민들은 쫓기다 굶어죽은 자가 부기지수였다. 임진왜란이야말로 반만 년 이래 대전란이었는데 자칫하면 국맥이 끊어질 뻔한 위기에까지 다다랐다. 선조대왕께서는 의주에서 사신을 명나라 신종황제에게 보내어 원병을 청하였다. 그 요청이 간곡해서인지, 관우의 신종황제에 대한 현몽에 감동해서인지 신종황제는 이여송을 총수로 하여 5만의 군사를 파병하였는데 마침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과 이순신 장군님의 활약으로 전쟁은 가까스로 끝이 났다.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간에 겪은 말할 수 없는 오욕과 회한과 비통과 수모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마는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것이 있다. 그것은 관우의 현몽이요, 명나라에 대한 고마움이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관제묘를 건립하였는데 명나라 신종황제는 사신을 보내어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이상의 전문을 통해 당곡리십이장신당의 연원을 조선시대 선조대로 소급할 수 있다. 또한 국난의 위기를 '관운장'이라는 명장을 통해 극복하려는 데에서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당곡리십이장신당에서는 해마다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 이를 흔히 '산제 잡순다'고 한다. 제일은 정월 열나흗날이며, 제관은 관운장 명의의 밭 660여㎡를 경작하는 이달용(1937년생)이다. 이 밭은 원래 1941년에 사망한 이용석 명의의 소유였다가 그의 유언에 따라 관운장 명의의 땅이 되었다. 이달용이 이 땅을 경작하는 대가로 십이장신당 및 제의를 관리하고 있다. 제장은 산제당(山祭堂), 큰당(十二將神堂), 마방집(十二將神堂別閣), 새터 남근석, 당골 돌무더기 등 의 다섯 곳이다. 금기는 제의 사흘 전부터 수행한다. 술, 담배, 부부관계 등을 금하고 매일 목욕재계한다. 마을 사람들도 제의 당일에는 가능한 외부 출입을 삼간다.

제의는 자정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산제당에 올라가 메, 소금, 동동주 등을 진설한다. 제의 절차는 분향-헌작-재배 순이다. 두 번째 제장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충북 영동군 영동읍 당곡리. 이창식

은 큰당이다. 당 문을 열고 제단에 백설기, 포, 쌀, 동동주 등을 진설한다. 제의 절차는 분향-헌작-독축-재배 순이다. 세 번째 제장은 마방집으로, 마방집의 문을 열고 제물 약간을 떼어 진설한다. 제의 절차는 분향-헌작-재배 순이다. 네 번째 제장은 새터 남근석 앞이다. 제물 진설 및 제의 절차는 마방집에서와 동일하다. 다섯 번째 제장은 당골 돌무더기 앞이다. 제물 진설 및 제의 절차는 마방집에서와 동일하다. 제의를 끝내고 날이 밝으면 마을회관에 모여 제수떡과 제주를 조금씩 나누어 먹는다.

참고문헌 **민속지**(충청북도, 1987), **영동군 문화유적분포지도**(영동군, 2006), **전설지**(충청북도, 1982),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이창식(李昌植)

영암남해당지(靈巖南海堂址)

정의 고려 현종 때부터 남해의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 외삼문과 신당이 복원되어 1986년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97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남해당지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1005번지에 위치한다. 남해당지에 대해서는 『고려사』, 『동국여지지』, 『여지도서』에 남해신사(南海神祠), 『세종실록지리지』에 남해신사당(南海神祠堂), 「광여도(廣輿圖)」, 「해동지도(海東地圖)」, 「전라남도 군현지도」, 「변사인방안지도」에 남해당(南海堂), 『대동지지』에 남해신단(南海神壇)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악해독조(嶽海瀆條)에 삼신(山神)은 중앙에 삼각산(三角山), 서쪽에 송악산(松嶽山), 남쪽에 지리산(智異山), 북쪽에 비백산(鼻白山)이 있다. 또 해신(海神)은 강원도 양양의 동해묘, 황해도 풍천의 서해단, 전라도 나주의 남해당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3대 해신제 제사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증보문헌비고』에 남해신당이 1028년(현종 19)에 비로소 사전(祀典)에 올랐으며, 남해신사 제사가 중사(中祀)로서 춘추로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장례원(掌禮院)에 내린 소서(沼書)를 통해서도 남해신사 해신제는 오악(五嶽)에 지낸 국제(國祭)와 같은 수준의 제사였음을 알 수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남해당의 해신제가 정3품관 이상의 관리와 주현 수령이 맡고 축문은 국왕이 직접 관여하였으며 음복(飮福)과 수작(受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매우 중요한 국가제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해신제를 지내던 축문, 과정, 제기 등의 남아 있는 자료는 없다.

유래 남해신사 제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된 역사서는 없지만 현재 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1010년(현종 원년)에 고려의 친송정책(親宋政策)에 불만을 품은 거란의 성종이 군사 40만을 이끌고 침략하였다. 1011년(현종 2) 정해일(丁亥日)에 현종이 나주로 피란하여 남해포에서 자게 되었다. 그날 밤 현종의 꿈에 나타난 백발의 수신(水神)이 빨리 영산강을 건너 무안 몽탄으로 피신하라는 암시를 주었다. 현종은 즉시 잠에서 깨어 꿈에서 이른대로 군대를 이동함으로써 거란군으로부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현종은 환궁하여 이곳에 자신을 도와준 꿈속의 백발 수신을 위해 당을 짓게 하고 인근 6개 고을(영암, 나주, 해남, 강진, 영광, 함평)의 수령들로 하여금 일 년에 한 차례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한다.

이때 제관들로 선정된 수령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이 부족하면 급사를 당한다는 말에 모두가 두려워하여 유고가 있을 것에 대비해 두 명의 예비자까지 두어가며 제사를 모셨다. 또한 제관인 수령들이 두려움 때문에 늦게 도착하여 제사를 지낼 때면 모든 마을 주민이 횃불을 들고 나와 수령이 오는 길을 환하게 밝혔다고 한다. 특히 제사를 지내던 수령들이 두려워한 묘당(廟堂)은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용이 사방으로 새겨져 있어 가까이 접근하기를 싫어했다. 특히 서까래나 용마루는 모두 용의 뿔과 비늘 단청으로 되어 있어 그 형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접근하는 것조차 더욱 두려워하였다.

남해신은 용신(龍神)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사를 지낼 때면 영산강 반대쪽인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의 주룡량(駐龍梁)에서 용이 나타나 남해포로 들어오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구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밀물 때 영산강을 통해 바닷물이 올라오고 상류에서 흙탕물이 내려와 만나는 형태가 용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는 영산강 줄기의 전체적인 지형과 어우러져 나타나는 시각적인 모습이다. 남해신사는 현종 이래로 관(官)과 민(民)에 의하여 계속 제사를 지내 오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복원되어 봄과 가을에 제를 지내고 있다.

의의 남해당지는 1997년에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구릉사면이 2단으로 조성되었고 상단은 제사지로 사용되었다. 제사지는 주변보다 높게 조성하였으며 2열의 석축렬로 담장시설을 축조하여 주변과 차별성을 두었다. 출토품으로는 자기류와 기와류 동전을 비롯하여 토제품, 철제품 등이 수습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규모가 확인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구가 확인된 해신제사터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영암 남해신사지**(목포대학교박물관 · 영암군 2000), **향토문화유적조사–영암군 시종면**(사단법인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85).

필자 송태갑(宋泰甲)

영암정동정호제

정의 영암정동정호제는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정동마을에서 정월대보름 새벽에 마을의 재난 예방과 풍년 · 풍어를 기원하는 샘굿. '우물제'라고도 부른다.

유래 이 마을에서는 정호제를 지내게 된 내력이 설화로 전해 온다. 다음은 『영암전설집』에 소개된 것이다.

가을걷이를 막 끝낸 마을 사람들은 근 한 달째 이곳저곳에 샘을 파고 있었다. 넓게 펼쳐진 들판은 어느새 칼날 같은 바람줄기를 몰아대며 갈대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간간이 흩날리는 눈발은 겨울이 깊어 가고 있음을 가늠케 하였다. 열 자를 파고들어도 물길은 비칠 기색이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지하 깊숙이 파내려가던 덕수는 비 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을 훔치며 암반에 막혔다고 투덜댔다.

"마을 이곳저곳 파 볼 만한 곳은 다 판 듯한데 이제 어디를 파야 할까요?"

샘 파는 일을 잠시 중단한 마을 사람들은 빙 둘러앉아 새참을 먹으며 제각기 의견들을 내놓았다.

"우물 파기가 명당자리 잡기보다 힘들어서야. 이곳은 물줄기가 말라 버린 곳이야."

샘 팔 장소가 정해지면 황소같이 덤벼들어 두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해치운 덕수는 이제 이골이 난 듯 불평을 터뜨렸다. 노인들은 정성이 부족하다며 제삿날을 잡아 우물제를 지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15일로 제삿날을 잡은 마을 사람들은 북, 꽹과리, 장구, 소고를 치켜들고 제단 앞에 모였다.

"천지신명이시여 자자손손 먹을 수 있는 생명수를 콸콸 내려주소서. 여기 모인 마을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비나이다."

마을 촌장은 기원을 끝마치고 술잔을 채워 제단에 올렸다. 며칠째 별러 온 풍물놀이패는 징소리에 발을 맞추어 제상 주위를 빙빙 돌면서 물이 쏟아지기를 축원하였다. 꽹과리 소리는 중모리에서 휘모리로 곡선을 그리듯 울려 퍼졌다. 마디마다 울려 퍼진 징소리만이 애처롭게 물먹은 소리로 밤하늘에 쿵쿵 메아리쳤다.

마을 사람들 가슴에는 이미 샘물이 펑펑 솟아나고

있었다. 징과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때마다 한 움큼의 물줄기가 들녘을 향해 콸콸 흘러가는 모습이 눈 앞에 어른거렸다. 장작 두 더미를 살라 버린 불꽃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불 먹은 숯덩이만이 둥그렇게 저녁노을 빛으로 무덤을 이루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취한 대로, 추위에 떨던 아낙네들은 종종걸음으로 손을 잡고 뿔뿔이 흩어졌다.

"굿도 소용없구먼."

굿을 마치고 나서 사흘째 다시 우물을 파내던 마을 사람들이 양지녘에 모여 시름이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름진 들판이 널따랗게 펼쳐진 앞뜰은 동쪽으로 가물거리는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를 모아 넘실넘실 들녘을 파고들었다. 처음 마을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바람막이 소나무가 울창한 둔덕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실 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땅속 깊숙이 어디든지 파 내려가면 물줄기는 솟아오르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우물물 얻기가 이처럼 힘들 줄은 아무도 몰랐다. 우물을 파는데 지친 사람들은 누구 하나 새로운 방도를 찾을 생각 없이 움푹 파여진 구덩이를 바라보며 수갑 채워진 손을 하고 앉아 있었다.

"어허 무슨 일이온데 넋 나간 꼴로 앉아 있소이까. 부처님께 염불이라도 하고 계신지요. 관세음보살."

어디서 왔는지 두툼한 바랑에 시주를 많이 얻은 듯 배가 불러 있는 스님 한 분이 다가오고 있었다. 스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번들거린 대머리를 좌우로 흔들고는 바랑을 땅에 부리며 주저앉았다. 여느 때 같으면 허리 굽혀 합장으로 공손히 받아들일 사람들도 예를 잊은 듯 이곳을 떠나 다른 정착지로 가야 할 걱정만 앞세웠다.

"이곳은 물줄기가 외줄로 뻗은 형국이군. 단지 한 군데 있긴 있는데."

스님은 지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들릴 듯 말 듯한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물 때문에 온 신경이 쏠려 있던 마을 사람들 귓속에 단지 윙윙거린 한 단어는 물이었다. 모기 소리보다 작은 스님의 물이란 소리만은 귀청을 울리며 큰 소리로 들렸다.

"스님 물이라고 하셨는데 물이 어떻다는 겁니까?"

덕수는 불끈 일어서며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는 스님 얼굴에 바싹 코를 들이밀었다.

"어허 성미가 급하시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법이오."

스님은 느긋한 몸놀림으로 급히 달려드는 덕수의 거동을 진정시켰다.

"이곳에 우물을 파되 20척 정도를 파내려 가면 암반이 보일 것이오. 암반 틈새에 물줄기가 있습니다. 30분 후면 댓잎 3개가 떠오를 것입니다."

스님은 두 눈을 감은 채 염불을 외우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넋 나간 시선으로 귀를 세우고 있을 때 스님은 이미 바랑을 둘러메고 걷기 시작하였다. 느린 듯 지친 듯 흐느적거린 몸놀림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없었다.

"괴이한 중이로군. 미친 셈치고 한번 더 파 보드라고."

마을 사람들은 달갑잖은 거동으로 다시 땅을 파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허허한 심정으로 파 들어간 깊이는 해가 넘어갈 쯤 겨우 20척이었다.

"스님이 거짓말은 안 하였을 것이고, 이왕에 파들어 갔으니 조금만 더 파 보소."

마을에서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가을 저녁 추위에 덜덜 떨며 물 나오기를 눈 빠지게 지켜보고 있었다.

"야 물이다! 물이 나온다!"

덕수의 삽날이 암반층을 여는 순간 봇물 터지듯 물줄기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30분이 지나자 차오른 물 속에서 댓잎 세 개가 둥둥 떠올랐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우물제를 지내고 있다.

내용 정동은 원래 '샘몰'이라 불리는 마을로, 1000여 년 전에 형성된 반농·반어촌이다. 마을 앞에는 창진포가 있다. 배로 실어 보낼 세미(稅米)를 쌓아둔 창고가 있었고, 목포로 왕래하는 객선이나 신안 앞바다로 드나드는 배가 정박하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크게 번성하기도 하였다.

정호제는 당산굿을 치고 난 뒤 정동샘(1971년 5월 16일 보수공사)에서 행하는 샘굿을 말한다.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당산굿을 필두로 샘제를 올리고, 샘물은 풍어제에 사용하였다. 샘굿이 끝나면 2월 초하룻날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지신밟기를 하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생기복덕을 맞추어 제관을 정한다. 제관 가운데 가장 청결한 집을 선정하여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 제물로는 술, 흰설기떡, 삼채, 오과, 포, 육어 등이다. 제사는 유교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독축을 한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某日(干支)十五日(干支) 幼學某祭官(姓名)敢昭告于. 높은신 우리 샘 각씨님께 드리옵니다. 금년에도 이 정성을 모아 공을 드리오니, 우리 동네 매사가 형통하고 마을 전체 인물들이 훌륭하게 출세할 것이며, 부락민 전체가 이 샘물이 약이 되어 여러 병질을 몰아내어 무병할 것을 축원하오니 흠향하옵시고 항시 맑은 물이 되시길 재배 상향."

아헌이 잔을 올리고 종헌이 첨작한 다음 본격적으로 풍물을 친다. 풍물은 꽹과리 3, 쟁 1, 장구 1, 북 1, 상모 3, 소고 15, 영기 2, 농기 1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1, 2, 3채를 돌려 치고 4, 5채로 풍물패가 서서 재배한 뒤 "컹컹 나으소서, 자발자발 나으소서" 하고 소리에 맞추어 외친다. 샘굿을 1, 2, 3채를 느리게 맞추어 치면서 샘 세 바퀴를 돌고 굿을 그친다. 그런 뒤 제관 이하 마을 사람 및 풍물패 모두 음복을 하고 나서 샘굿을 치고 퇴장한다. 풍물패는 마을 앞 당산에 올라가 당산굿을 친다. 모든 사람이 당산에 들어서면 당산신 앞에 서서 재배하고 굿머리를 돌려 '영산다래기'를 쇳소리 없이 한다. 한참 뒤에 다시 1, 2, 3채로 돌려서 '진풀이굿'을 매긴다. 진풀이굿이 끝나면 풍물패가 당산에서 나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당밟이를 한다. 참고로 남도문화제에서 불린 정동정호제의 노랫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샘물 품어내는 당금소리

어–야 영 차 물을 품세 어울러서 당거주소(선소리)
어–야 영 차 물을 품세 어울러서 당거주소(후렴)
정월이라 대보름은 우리 각씨님네 날이라네
어–야 영 차 물을 품세 어울러서 당거주소
우리제원 정성모아 각씨님네 뫼세보세
어–야 영 차 물을 품세 어울러서 당거주소
작년 물은 품어내고 새 물로 채워보세
어–야 영 차 물을 품세 어울러서 당거주소
이–샘터를 잡을 적에 월출산을 주산삼아
어–야 영 차 물을 품세 어울러서 당거주소
태산봉을 노적삼아 이 샘 터를 잡었으니
(후렴) 어–야 영 차 물을 품세 어울러서 당거주소
대한 가뭄 온다 해도 마를 날이 있을손가
어–야 영 차 물을 품세 어울러서 당거주소
우리제원 일심으로 이 정성을 드리오니
어–야 영 차 물을 품세 어울러서 당거주소
황우동심 받으시고 우리 마을 도우소서
어–야 영 차 물을 품세 어울러서 당거주소

고사소리

고사로다 고사로다 샘 각씨님께 고사로다
이 샘 명당 잡을 적에 백두산 줄기 타고
태백산을 타고 내려 지리산에서 갈라 가지고
광주 무등을 감고 돌아 월출산 굽이굽이 맑은 정 고히 담고
태산봉으로 몰고 돌아 정동후등 맥을 집어
여기가 바로 약원 약수로고나
아– 물을 마시면은 만병통치 될 것이요
아들 나면 효자 낳고 딸을 나면 열녀 낳고
소를 나면 약대소요 말을 나면 용천마라
훌륭한 인물 많이 배출하여 나라에 이바지하고
마을 단합 곱게 되어 영구불멸 하옵소서

의의 정동정호제는 민속놀이이면서 민속신앙이자 민속음악이라는 점에서 종합예술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는 서사적인 제사의 유래는 신화적 의미가 있고, 샘굿의 구성이 호남 풍물굿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어 민속음악적 가치가 있다. 또한 샘굿은 마을굿과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축제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영암군지 하(영암군지편찬위원회, 1998), 영암의 전설집(영암문화원, 1994).

필자 표인주(表仁柱)

영월영모전(寧越永慕殿)

정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소재한 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의 영정을 모신 사당. 영월군의 고을신앙

처소로 기능하는 동시에 영월읍 영흥11리 마을서낭당으로 신앙되고 있다. 1977년 11월 28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영모전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5량 구조로 된 목조 기와집이다. 외벌대의 자연석 기단에 자연석 초석을 사용했고, 그 위에 각기둥을 세웠다. 벽의 정면은 트여있고, 측면과 배면은 막혀 있다. 중인방을 기준으로 벽의 아래는 자연석을 쌓은 화방벽으로 하고, 위는 홍살창으로 되어 있다. 내부 가구는 3변분작의 5량 구조이다. 정면과 배면에 각각 퇴보를 설치하고, 고주 없이 평주를 설치하여 대보를 걸어 맞보 형태의 가구 구조로 되어 있다. 대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치게 하였다. 측면에는 충량을 측면 기둥에서 대보 위로 걸었으며 그 위에 동자주를 설치하여 외기 중도리를 받치고 있다.

내부는 한식 우물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간막이 도리를 이용하여 가운데 1.5칸을 감실로 구획하여 놓았다. 감실의 상부는 트여 있다. 감실의 내부는 가운데에 제상이 놓여 있고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며, 배면 쪽 툇간에 영정이 있다. 감실 내부 천장만을 평반자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의 천장은 연목을 그대로 노출시킨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부연 없이 연목만을 설치한 홑처마로 되어 있고, 형태는 팔작지붕이다. 처마 부분과 합각지부의 날개 기와는 와구토를 사용하여 치장하였다.

역사 영모전은 원래 영월의 읍치 성황사로, 성황신을 모시던 곳이다. 건립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성황사가 군 북쪽 3리에 있었다는 기록과 지금 영모전의 위치와 일치한다. 1871년에 간행된 『관동읍지(關東邑誌)』에도 성황사의 기록이 있고, 경오년(1750)에 부사 정간(鄭幹)이 영월성황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명고선생문집(鳴皐先生文集)』 권6 〈영월 성황사 개정 전말(寧越城隍祠 改定 顚末)〉에 보인다. 이에 따르면 성황사는 본래 제단과 담장이 없이 다만 세 칸짜리 집을 얽어 만들고 여기에 목상(나무인형)을 만들어 안치했다고 한다.

영월성황사는 1792년(정조 16)에 개축한 이후 목상을 모시고 읍치 성황사로서의 전통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27년에 이규진이 목상을 불태우고 단종이 백마를 타고 날아가며 충신 추익한(秋益漢)이 단종을 모시는 영정을 봉안하였다. 이 영정은 한성부윤을 지내고 낙향해 있던 추익한이 영월로 유배간 단종에게 산머루와 다래를 진상하면서 위로했다는 고사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윤용구가 「영모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편액을 달았다. 이 영정은 6·25전쟁으로 훼손되었으며, 그 후 영월군이 김기창 화백에게 같은 주제로 의뢰하여 그린 단종과 추익한의 그림을 모시고 있다. 1989년에 외부공사를 하여 지금에 이른다.

내용 현재 영모전 내부 중앙에 모신 영정에는 충신 추익한이 백마를 탄 단종에게 산머루를 진상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단종대왕지신위'라고 쓰인 위패를 모셨다. 왼쪽에는 '충신 한성부윤 우천추선생신위'를 모셨고 벽에 '영모전 유래기 부 추익한 사적'을 나무에 새긴 편액을 걸어 놓았다.

그렇지만 조선 영모전은 읍치 성황사로 기능하였다. 『명고선생문집』에 따르면 향리와 백성들이 단옷날 호장이 중심이 되어 무당을 데리고 이틀 동안 굿을 했다고 한다. 사당을 지키는 사람은 삼년에 한 번 모자와 허리띠와 신발과 홀을 갖추어 무당과 함께 나무인형 앞에 나아가 종이돈을 잡고 신을 맞이하여 수령의 안장을 지운 말을 빌려 타고 온 읍을 돌아다녔다. 그런 뒤 관청에 돌아와 정좌하면 또 성찬을 차려 잔치를 베풀었으며 발고하는 날에는 제관이 신의 위판을 받들지 않고 나무인형 앞에서 일을 행하였다고 한다.

경오년(1750)에 부사 정간이 "성황사의 차례가 국가의 사전에 정해져 있는데 위판은 있으되 사용하지 않고 음사에서 일을 행하니 상도를 어기고 예의를 어김이 심하다고 생각하였다"며 토지신에게 사유를 고하고 제단을 쌓고 주신을 받들어 일을 행하는 것을 항식으로 정하고, 향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음사를 부의 서쪽 외진 곳에 옮기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최근까지 영모전에서 올리는 제향은 두 종류가 있었다. 먼저 단종이 승하한 음력 10월 24일에 올리는 기신제가 있다. 이 제향은 원래 읍치성황제의 기능이 변모된 것으로 보인다. 영월읍장이 초헌관이 되어 모시다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1995년부터 영월군수가 초헌관직을 맡았다. 그러나 2008년부터 장릉 경내 정자각으로 옮김으로써 더 이상 영모전에서는 기신제를 지내지 않는다.

현재 영모전에서 전승되는 제사는 정월 초이튿날에 영흥11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내는 서낭제이다. 이 서낭제는 단종이 사약을 받고 승하한 관풍헌(觀風軒)을 중심으로 주변의 영흥2리, 4리, 7리, 9리, 10리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다. 마을에서는 먼저 당주를 선정하여 제물을 준비한다.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날 영모전과 당주 집 앞을 청소하고 황토를 뿌린다. 제사를 지낼 때 영모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짚을 태워 부정을 가신다. 초헌관은 영흥11리 이장, 아헌관은 군수 또는 대행자, 종헌은 다른 마을에서 참석한 이장 가운데 선정한다.

서낭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산신제를 지낸 다음 대왕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정면 왼쪽에 제물을 진설하고 지낸다. 위패는 따로 모시지 않는다. 산신제를 지내는 이유는 단종이 태백산 산신이 되었다는 고사에 근거한다고 한다. 이어서 대왕제를 위한 제물을 진설하고 헌작-재배-독축 순으로 제사를 지낸다. 산신제에서는 이배를 하지만 단종 신위를 모시는 대왕제는 사배하고 산신축과 대왕축을 고한다. 대왕제가 끝난 뒤 잡귀를 풀어 먹이는 고수레를 한 다음 마을의 안녕과 주민을 위해 소지를 올린다. 마을소지, 이장소지에 이어 각 반장이 가구별로 소지를 올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생략하고 있다.

제물은 산신제와 대왕제가 거의 같다. 산신시루, 대왕시루를 각각 찌고 메도 각각 올린다. 쇠고기산적·채탕·육탕·어탕의 3탕을 올리고 나서 메밀전, 두부전, 조기와 포, 채소로 고사리와 도라지를 준비한다. 술은 청주를 쓴다. 다만 대왕제를 지낼 때에는 단일왕이라고 하여 과일을 하나씩만 올리고, 산신제에는 생돼지고기를 올리는 것이 다르다. 제수 비용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하되 개인 찬조도 받는다. 제수장을 볼 때에는 값을 흥정하거나 깎지 않는다. 제물은 당주집에서만 만든다. 제사가 끝나면 당주집으로 와서 마을잔치를 하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마을회의를 하여 단합을 도모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영모전은 영월군청에서 관리한다. 최근 영모전은 영월 지역 무속신앙의 중심처로 보인다. 태백산 산신이 된 단종을 모시는 무당들이 찾아와 치성을 드리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월 단종제 가운데 지역의 무녀들이 단종대왕굿을 한다. 이때에는 반드시 먼저 영모전을 찾아가 대왕신을 모셔온다.

참고문헌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민속원, 1998), 영월문화재대관(영월문화원, 2006).

필자 황루시(黃縷詩)

영주읍내리성황제(榮州邑內里城隍祭)

상호참조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656쪽)

정의 조선시대 후기 때 순흥부(順興府) 읍치(邑治)에서 행하던 관행(官行) 성황제였으나 조선왕조의 종말과 함께 지역민이 주관하는 동제 형식으로 변화한 성황제.

역사 이 성황제는 조선시대 초기에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端宗)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사건인 계유정난(癸酉靖難)과 관계 있는 금성대군을 모신 것이다. 금성대군(錦城大君)은 수양대군의 친동생으로, 단종복위운동 사건이 탄로난 뒤 흥주도호부(興州都護府)로 유배되었다. 거기서 이보흠(李甫欽) 부사를 비롯한 많은 지역 인사와 함께 다시 복위운동을 펼치다가 거사 직전에 발각되어 금성대군은 사사(賜死)되고 도호부는 폐부(廢府)되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죽임을 당하였고, 당시 목숨을 잃은 지역민의 수가 엄청나서 그 피가 죽계천(竹溪川)을 메우고 10리까지 흘러 내려갔다고 한다. 도호부는 숙종 대에 복부(復府)되었고, 금성대군도 나중에 복관(復官)되었다.

현재 행해지는 성황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폐부되었다가 복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금성대군은 지역 주민들이 이전부터 신앙하던 성황신으로 모셔지게 되는 상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복부된 뒤 금성대군은 이 고을 사람의 꿈에 나타나 "(이웃 마을인) 죽동의 거랑(죽계천)에 나의 피가 묻은 돌[血石]이 있으니 그것을 옮겨서 제사를 지내 달라"고 하였다. 주민들은 그 사실을 논의하여 금성대군을 죽동의 성황신으로 모시면서 매년 행하는 성황제의 대상

신으로 삼았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 성황당에 모셔진 혈석(血石)에 오줌을 누는 등 해코지할 때 금성대군은 다시 주민의 꿈에 나타나 두레골로 옮겨서 제사를 올려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지역민은 당시 산신각만 모시고 있던 두레골에 성황당을 건립하고 혈석을 옮겨 모시게 되었다. 이로써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의 성황사는 이곳의 진산인 비봉산 기슭에서 모시던 읍치 성황사(邑治城隍祠)를 '본당(本堂)', 읍내리에서 4㎞ 이상 떨어진 지리산 중턱의 단산면 두레골에 있는 성황당을 '상당(上堂)'('두레골 성황당'이라고도 함)으로 각각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있던 제당'과 '위계가 높은 제당'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순흥부 읍치의 성황사에서 모시는 성황신은 부(府)의 수호신인 '순흥안관성황신'이다. 이 역시 금성대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의는 향리들이 주재하였다. 그러나 이 성황제는 조선왕조의 종말과 함께 국가가 주도하는 관제(官祭) 성격에서 이 지역사회의 지배계층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고 전하는 농민집단인 초군청(樵軍廳)으로 제사권이 이전되었다. 초군청은 일제강점기에 성황제를 주도하고 죽동의 혈석을 두레골로 이전하였다. 또한 초군청은 광복 이후에 열악한 제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논을 구입하고 초군청 자금을 불려 나가면서 경제적 기반과 함께 두레골 성황당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연명등기하여 법적 기반을 다졌으며, 초군청 성원을 늘려 나가면서 사회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여기에 성황제에 대한 신성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신앙적 장치까지 마련하면서 성황제를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회의 변화 속에서 제의집단의 변화와 상징물의 봉헌 장소 이동, 성황제를 전승하기 위한 제의집단의 다양한 노력 등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들 과정에 대한 구비전승 자료가 현재까지 생생하게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조선시대 후기에 국가권력(도호부)에 의한 지역 주민의 상징적 중심 이동과 제당 중수를 통한 지역민 정체성의 통합 등에 관한 이건기 및 중수기가 현재까지 현판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가 끝나고 일제강점기로 통치권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주도하던 성황제가 민간으로 주도권이 이양되고,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구비전승 자료와 함께 당시에 참여한 인물들을 통하여 확인된 증언자료 및 서류 등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주민들이 성황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한 일종의 농민단체인 '초군청'에 관한 많은 문서가 보관되어 있어 주도권 변화와 제의를 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속의 변화와 지속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현존하고, 이 자료를 통해 민속이 '민(民)의 생활양식'이며 민의 변화가 생활양식(문화)을 변화시킨다는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초군청의 문서들은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의 혼란스러우면서도 빈곤했던 농민들이 상징적 중심을 통하여 생활의 활력을 키우면서 자기[民] 중심의 문화를 존속하고 이용함으로써 그들만의 문화, 즉 민속을 계승·변화·발전시키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내용 **1. 제관 선정** 정월 초사흗날이 되면 초군청 소속의 좌상과 고문 및 역원(성원)들이 좌상댁에 모여 제관을 선출하고 성황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보통은 설날 이전에 제관을 정해 두고, 이날 추인받는 것이 상례이다. 제관은 상당제의를 주관하는 '상당'('상당어른' 또는 '상당주인'이라고 함)과 본당제의를 주관하는 '본당'('본당어른' 또는 '본당주인'이라고 함)으로 각 한 명이다. 제물 운반 같은 여러 가지 일을 거드는 사람 또는 동행할 사람들은 별도의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들도 제관이라고 부른다. 이때 모인 주민들은 거론되는 사람들과 그 집안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론된 사람에 대한 정(淨)과 부정(不淨)을 가려 선정한다. 그 기준은 집안에 자녀·손자녀·가축 등이 임신한 자나 환자, 사고자, 기독교 신자 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였다. 금기 기간에 출타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선정된 사람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은 성황신에 대한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해 자신과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좌상은 초군청의 총책임자이지만 성황제 동안에는 '상당주인'이 총책임자가 되어서 제의에 관한 사항을 총지휘한다. 이러한 위계는 제관 선정 직후에 행해지는 '술잔 돌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술잔은 상당주인에게 "술 드시라"는 경칭과 함께 가장 먼저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당주인, 좌상, 고문의 연령순으로 돌려졌다.

2. 금기와 재계 정화의례는 제관이 재계와 금기행위를 행함으로써 일상적인 상황에서부터 제의적 신성성을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관 부부는 초이렛날에 희생물인 '양반'을 모시기 위해 영주시장으로 가기 전 아침 일찍 '상당주인'댁에 모여 죽계천으로 가서 목욕을 한다. 이러한 재계 행위는 매일 식사 전에 행하며, 성황제를 행하는 날까지 계속한다. 목욕을 하러 갈 때는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끼리 줄을 지어 간다. 이때 밝은색 수건을 목에 걸고 고개를 숙인 채 가며, 가면서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 수건은 멀리서도 제관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발견하면 놀란 듯이 돌아서서 가야 한다. 제관들이 부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인 것이다. 이 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보통 개울의 얼음을 깨고 목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초사흗날에 '상당'댁에 모인 제관들은 함께 금줄을 꼬아서 두고, 인근의 산으로 가서 금줄을 쳐 둘 소나무를 베어 온다. '상당'댁으로 돌아온 제관들은 '상당'댁의 대문 양쪽에 소나무를 세우고 금줄을 친다. 그리고 '상당'은 자기 집 앞 양쪽으로 골목길 입구까지 황토를 한 줌씩 놓아둔다. '본당'과 다른 제관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이때부터 제관들 부부는 제의를 행하는 날까지 부부관계와 외출, 다른 사람과의 직·간접적 접촉, 욕설, 싸움, 살생, 개고기 먹기 등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금한다. 마을을 다닐 때도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눈길이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 혹시라도 오염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과수(果樹) 가지치기, 쇠죽 끓이기, 집안청소, 식사와 잠자기 등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생활은 가능하지만 집 안에서도 분뇨 등 냄새가 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들은 부정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3. '어른모시기'와 장보기 정월 초이렛날이 되면 좌상과 제관들은 성황제의 희생물인 '양반'을 모시고 제물을 장만하기 위해 영주 장(場)으로 향한다. 이날은 성황제에서 가장 신성한 '어른'을 모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동하기 전인 이른 새벽에 '상당' 댁에 모여 차를 타고 영주 장으로 출발한다. 2004년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상당'이 즉시 차를 세워서 함께 가던 모든 사람에게 강으로 내려가 얼음을 깨고 세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먼저 영주 우시장(牛市場)으로 간다. 이곳에서 '양반'을 선정해 구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며칠 전에 희생물로 적절한 대상을 미리 물색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반'이 선정되면 그 자리에서 '근봉(謹封)'이라고 쓴 한지를 '양반'의 등에 묶는다. 그리고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정화수를 상에 차려 두고 제관복을 차려입은 제관들이 재배를 올린다. 이때부터 일반적인 소는 희생물인 '양반'으로 승화되기 위해 정화의례를 거치게 된다. 호칭도 '양반님'이며, 언어는 모두 경어체로 사용해야 한다. 제관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양반님 빨리 가시더", "양반님 저리 가시더"라고만 말할 뿐이다. 여물도 '양반님 식사'라고 표현해야 한다. 예전에는 '양반'을 곧바로 마을까지 '모시고' 와야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시장에 달린 마방(馬房)에 며칠 모셔 두기도 하고, 마을로 모실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양반님'이 '상당'댁에 도착하면 마당에 미리 만들어 둔 우사(牛舍)인 '양반님 숙소'로 모셔 두고 짚을 주면서 "양반님 식사하시더"라고 하고, 이것을 잘 먹을 때는 "잘 자신다"고 한다. 제관들과 그 부인들은 모두 목욕재계한 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양반님 숙소' 앞에서 절을 한다. 이러한 절차는 '치성드린다'고 하며, 상당성황제를 행하는 정월 열나흗날 새벽까지

양반 모시기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1995.2.10, 이기태

지속한다.

장보기는 '양반님'을 모셔온 뒤에 행한다. 제관들과 그 일행은 아주 작은 소리와 손짓으로 의사를 소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주 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정체를 금방 알아볼 수 있으며, 비록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을 붙이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물건을 사러 상점이나 노점에 들르면 그 주인이 가장 좋은 물건을 내놓으면서 가장 적절한 값을 부른다고 한다. 제관들이 물건 값을 흥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주인은 해를 입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주 장의 사람들은 제관들에게 성황제를 위한 찬조금을 건네기도 한다.

4. 제수 장만 제수는 본당제의의 것은 '본당' 댁, 상당제의의 것은 '상당' 댁에서 제관들 부인이 각각 준비한다. 그래서 이들 집을 '도가(都家)'라고도 한다. 특히 상당주인댁을 '상도가(上都家)'라고 한다. 떡을 찔 때 외부인이 들여다보거나 부정을 타게 되면(부정에 오염된다는 말) 떡의 김이 빠져나와 잘 익지 않으면서 떡의 표면에 새 발자국이 생긴다고 하여 떡 찌는 과정을 매우 중시한다. 두 제의의 제물은 메, 탕, 나물류, 부침개, 떡, 생선 등 동일하다. 본당제의에서는 쇠고기가 있다는 것과 위패가 많다 보니 상당제의에 비해 양이 훨씬 많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5. 본당제의 집사들은 정월 열사흗날 이른 아침에 '본당' 댁에서 제주(祭酒)가 든 병 주둥이를 한지로 막아두는 '제주 봉하기'를 한 다음 제물을 차량에 싣고 본당이 위치한 순흥면 읍내리의 진산(鎭山)인 비봉산(飛鳳山) 기슭으로 향한다. 특히 집을 나서기 전에 떡시루 위에다 종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힌 종짓불을 올려 둔다. 이 불은 제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꺼지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한다. 제물을 실은 차량이 집을 떠날 때 제관 부인들은 집 앞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절한다. 집사들은 제물을 지게에 나누어 싣고 본당까지 올라간다. 이때 '본당'이 앞서고 '상당'과 좌상 및 나머지 제관들이 그 뒤를 따른다. 제당에 도착한 이들은 먼저 제당과 그 주변을 청소하고, 제당 뒤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와 제당 주변을 돌면서 "부정 풉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솔잎

본당에 모셔진 술할마시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1995.2.12
이기태

에 물을 적셔서 뿌린다. 이 과정이 '부정풀기'이다. 그러고는 제당 안으로 들어가 제상 위에 모셔져 있는 위패에 절을 올리고는 한지를 고깔 모양으로 접어서 위패에 걸어 둔다. 이것을 폐백을 드린다고 한다. 위패는 왼쪽에서부터 산신지위[三神堂神位], 서배위신위(西配位神位), 순흥안관성황신위(順興按官城隍神位), 동배위신위(東配位神位)가 있다. 왼쪽에 산신을 모시고 순흥안관성황신을 중심에 모시는데 이는 순흥부 시절 순흥부 관아를 보호하던 신이다. 오른쪽 끝의 바닥에는 납작한 작은 돌이 놓여 있다. 이 돌에는 '술 할마시'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술 할마시'는 이 지역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마고할매'라고 한다. 제관들은 '술 할마시'에게 술을 부어 주면 일 년 동안 술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제의는 모든 위패 앞에 제물을 진설한 다음 각 신위 앞에서 술을 따르고 순흥안관성황신-산신-서배위신-동배위신의 순으로 재배한다. 그러고 나서 제관들이 함께 재배하고 소지(燒紙)를 올린다. 소지는 대통령소지에서부터 도지사소지-군수소지-면장소지-순흥주민일동소지-지서주임소지-초군청소지-개인소지 순으로 올린다. 소지의 순서에서 이 제의가 관제(官祭)였음을 엿볼 수 있다. 개인소지는 찬조자들의 명단을 펼쳐 두고 덕담을 하면서 올리는 소지이다. 종이에 불이 잘 붙고 공중으로 잘 올라가면 소원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에 한 제관이 '술 할마시'에게 다가가서 "할매요. 올해 술 많이 생기게 해 주소"라고 말하면서 돌에 술을 붓는다. 이때 절은 하지 않는다.

제의가 끝나면 철상하고 '본당'댁으로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간단한 음복을 하고 곧 헤어졌다. 하당주인은 집의 금줄을 걷어낸다. 제관들은 이때부터 외출을 하지 않고 집 안에 머물면서 잠도 자는 등 휴식을 취한다. 이튿날 새벽에 출발해야 하기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2004.2.3, 차정환

본당 제물진설

본당제의

상당 전경

때문이다.

6. 상당제의 정월 열사흗날 저녁때가 되면 좌상과 '본당' 및 다른 제관들이 상도가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 그 뒤 제물을 점검하고 함께 밤을 지새는 제관이 있는가 하면 집에 돌아가는 제관도 있었다. 열나흗날 새벽 3시쯤이 되면 모든 제관(11명)이 상당주인댁에 모여서 제물을 차에 싣고, '양반님'은 다른 차에 태우고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출발한다. 이것을 '양반님 출타하신다'고 한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발해야 하는 것은 본래 8㎞ 정도의 산길을 '양반님'을 모시고 걸어서 가야하기도 하지만 이곳에 교회가 들어온 이후로는 새벽 4시에 읍내리 교회의 종이 울리기 때문에 이 종소리가 울릴 시각쯤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가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새롭게 이해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장소에서 차를 멈추고는 칠흑같이 깜깜한 새벽에 모든 제관이 개울로 내려가 화톳불을 피우고 개울의 얼음을 깨뜨린 다음 얼음물에 목욕한다. 이들은 화톳불 옆에서 잠시 몸을 녹인 뒤에 상당으로 향한다. 상당주인댁에 모인 제관 부인들은

'양반님이 출타'하실 때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합장하면서 큰절을 올리고, 그 뒤 함께 목욕한 다음 상당주인댁에 모여 조용하게 하루를 보낸다.

제당은 '양반 숙소'라고도 부르는데 공간이 매우 넓다. 제당에 들어선 상당주인은 먼저 바가지에 물을 떠서 소나무 가지에 적신 뒤 주변에 뿌리면서 제당을 한 바퀴 돈다. 이것을 '부정풀기'라고 한다. 제당은 편평한 넓은 마당이 중심에 위치하고, 돌로 된 계단 맨 위쪽에는 금성대군의 피가 묻어 있다는 혈석을 모시고 있는 상당(上堂)이 있다. 그 왼쪽 계단 밑에는 소백산령지위(小白山靈之位)라고 쓴 위패를 모신 산신각(山神閣)이 위치하며, 주변에는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상당주인은 산신각에 술과 술잔, 미역 한 오라기를 바친다. 상당에는 준비해 온 다양한 제물을 차린다. '양반님'은 제당 맞은편 소나무 숲의 정해진 나무에 묶어서 모셨다. 제당에 도착한 이들은 집사들이 미리 준비해 둔 장작으로 불을 지펴 새앙(새옹)에 밥을 짓는 '새앙 짓기'를 한다.

동이 틀 무렵에 사제관(四祭官, 상당주인 · 하당주인 · 좌상 · 고문)은 '식전(食前) 새앙'을 짓고 나머지는 희생제의인 '제물 돋우기'를 한다. '제물 돋우기' 과정은 양반 '지우기'와 '돋우기'로 이루어진다. '지우기'는 희생을 치르기 위해 목숨을 끊는 과정이다. 제관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전에도 재인(才人)을 부르기도 했고, 지금도 보통 전문 도살꾼을 초빙한다. '돋우기'는 희생물의 가죽을 벗기고 육신을 해체하는 작업인 '각뜨기'와 해체한 희생물의 부위를 산신과 금성대군에게 바치는 과정인 '돋우기'가 있다. '돋우기'에서 왼쪽 앞다리는 산신에게 먼저 바치고, 간 · 염통 · 허파 · 비장 등을 상당에 바친 다음 고기와 골 등을 상당에 바치는 것으로 끝난다. 제당에 바치고 남은 부위들은 제관들, 초군청 임원들, 주민 음복용 등으로 분배해 자루에 담아 둔다. 희생물의 분배는 제관의 수고비인 셈이며, 주민 몫은 대보름날 아침에 상도가에 모인 주민들과 함께 음복하기 위함이다. 이때는 이미 오후 3~4시가 된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제관들은 화톳불의 숯을 이용해 야외용 작은 솥인 '새앙(새옹)'에 메를 짓기도 하고, 희생물의 발을 화톳불에 던져 넣어서 털을 그슬린 다음 그 털을 벗기는 작업도 하며 내장을 개울가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씻는 일을 하였다. 새앙에 메를 지을 때에는 불을 입으로 불어서도 안 되고, 뚜껑을 열어도 안 된다. 메물이 넘치지 않도록 소나무 가지로 물을 적셔서 솥에 뿌리면서 잘 지켜보아야 한다. 메물이 넘치든가 메가 설익거나 타거나 하면 정성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온갖 정성을 들여야 한다. 메가 다 되면 제당 주위의 갈대를 꺾어 젓가락을 만들어 새앙에 걸쳐서 산신당에 갖다 두고 절한 다음 물러난다. 1~2시간이 지난 뒤에 그 새앙을 물려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남는 메는 버리지 않고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저녁때가 된다. 이때까지 메를 계속 지어서 올리고,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면서 자정이 되도록 기다린다. 피와 내장은 제물로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 넣어 끓여서 제관들의 술안주로 사용한다.

자정 무렵(정월대보름날 자시)이 되면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사제관이 각각 메를 지어 상당에 올리면서 제의를 시작한다. 시계가 없었을 때에는 제당의 일정한 나무에 달이 걸릴 무렵으로 밤 12시를 추정했다고 한다. 제의는 술잔 올리기-재배-독축-재배-소지올리기-철상의 순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한다. 이곳에서도 소지올리기는 본당제의에서처럼 대통령소지에서부터 찬조자소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한다. 이때 산신각의 제의는 행하지 않는다. 제의가 모두 끝나면 철상한 다음 서둘러서 마을로 돌아간다. 이른 새벽에 마을에 도착한 이들은 주민들이 피워 둔 짚불을 타넘고 집으로 들어간다. 또 다른 정화의례인 셈이다. 상도가에 도착한 제관들은 금줄을 걷어낸 다음 방 안에 모여 간단하게 음복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한다.

7. 음복과 결산 대보름날 아침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주민이 상도가에 모인다. 사람들에게는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은 희생물의 날고기가 한 접시씩 제공된다. 제당에서 가져온 가마솥의 국이 술안주로 밥과 함께 제공되기도 한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 고기를 모두 먹지만 남으면 종이에 싸서 집으로 가져간다. 이 고기를 먹으면 고뿔(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특히 개가 이 고기를 먹으면 즉사한다고 하여 조심한다. 음복의 공간은 성별로 분리된다. 남성은 사랑방, 여성은 안방에서 각각 음복을 한다. 젊은 사람들은 마당에서 음복하면서 놀이도 즐겼다. 이 마을에서는 음복날에 행하는 농악이 유명하다. 2004년까지만 해도 농악의 상쇠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한마당이 행해졌다. 상쇠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유명무실하였다가 최근에 '순흥초군청축제'가 행해지면서 부활됐다.

상도가에 음복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한쪽에서는 상당주인, 하당주인, 좌상, 서기 등이 모여 성황제에 사용된 경비와 찬조금 등을 결산한다. 정리가 끝나면 그 내역을 전지(全紙)에 기록해 마당 한 쪽에 붙여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음복을 마친 뒤에는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참여하는 줄다리기가 읍내리 부잣집들의 후원 아래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지금 '순흥초군청축제'에서 재현되고 있다.

참고문헌 읍치 성황제 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이기태, 민속원, 1997).

필자 이기태(李淇泰)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1995.2.13. 이기태

양반 돋우기

혈석과 희생물

'쇠양밥'을 지어올린 후 제의지내는 모습

상당제의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 (榮州邑內里城隍祭文書)

상호참조 영주읍내리성황제(649쪽)

정의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순흥부 읍치 성황사의 이건과 중수를 하게 된 사연과 경과 및 조선왕조의 종식과 함께 민간주도형으로 주재집단이 변화한 이후에 제당을 중수한 내용, 그리고 광복 이후 성황제와 성황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기금을 모금한 내용과 기금의 증식과정 및 찬조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내용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는 「성황사이건기(城隍祠移建記)」, 「성황사중수기(城隍祠 重修記)」, 『모연문(募緣文)』, '순흥소농조합 규약', 『임원록(任員錄)』, 『두여고사기(斗餘告祀記)』, 『소임급찬조방명록(所任及贊助芳名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황사이건기는 나무 현판으로 조선 후기인 1754년 4월에 성황사를 이건하던 상황에서 그 과정을 소개한 글이다. 이건기에는 제당을 이건한 이유와 과정, 의미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성황사이건기(城隍祠移建記)

생각컨대 부(府)의 경계를 보호하고 편하게 하는 것은 성황(城隍)만 같은 것이 없고 관방(關坊)을 거느리고 이끄는 것도 성황(城隍)만 같은 것이 없다. 주부군현(州府郡縣)을 막론하고 이 성황을 의논(議論)했다. 이것으로 비를 막고 바람을 막으며 초하루마다 경건히 예를 드리면 복을 받음이 몹시 클 것이다.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고 또 각각 신을 모시고 치제(致祭)한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유를 고해야 할 것이며, 부 경계의 봉내(封內)를 영솔(領率)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성(城)이라 하고 황(隍)이라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지니라.

지금 치소 내의 진산(鎭山)에 성황사(城隍祠)가 오래되었다. 세월이 갈수록 기와가 깨어지고 벽이 허물어 썩어 기울어져 무너지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다. 만약 이런 성황이라면 재앙을 없애고 우환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맹수가 사람을 핍박하고 악독한 여귀가 끊이지 않아서 신도 꾸짖어 금하지 않으니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답답한 심

성황사이건기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2004.2.2
차정환

정으로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전 금년 정월 모일에 부사(府使) 조공(趙公)이 부인(府人) 김창회(金昌會) 김치윤(金致胤)에게 명하여 깨끗한 곳에 이건하고 화려하게 집을 지었다. 무릇 이건 사업을 경영하니 전에 비해 크고 세밀하며 기일을 정하여 처리해서 일찍이 작업을 하여 시기를 넘지 않고 역사(役事)가 이미 완료되었다. 기도하면서 신상(神像)을 받들어서 제사를 드리니 나무로 만든 소상(塑像)이 의젓하게 앉아 마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듯했다. 봉안(奉安)하는 날에 명랑한 기운이 퍼져 나가니 훈훈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이에 알겠다. 신이 다가옴을 헤아릴 수 없지만 싫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알겠노라. 마침내 이어서 찬송(讚頌)의 시(詩)를 바친다.

소백(小白)의 양지 바른 남쪽 순흥 고을 산허리에
우뚝 솟은 사당은 먼지가 이끼에 깊이 잠겼다.
신이 노하여서 재앙을 일으킨다.
사람은 죽음과 병에 걸리고 짐승은 멋대로 날뛴다.
관을 방어하는 데 이로움과 해로움이 모두 성황에 달렸다.
이 때문에 두려워서 다시 도모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
깨끗한 곳에 터를 잡고 지어서 이미 소상을 받들어 모셨다.
사당 모습을 새로이 바꾸니 희생과 술이 향기롭다.
신께서 도우셔서 우리 순흥 경내를 은혜롭게 하소서
요망한 재앙을 구제하여 백성의 생명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상서로운 경사가 크게 베풀어짐에 온갖 행복이 몰려온다.
송(頌)을 써서 새겨 걸었으니 어찌 천년 만년에 그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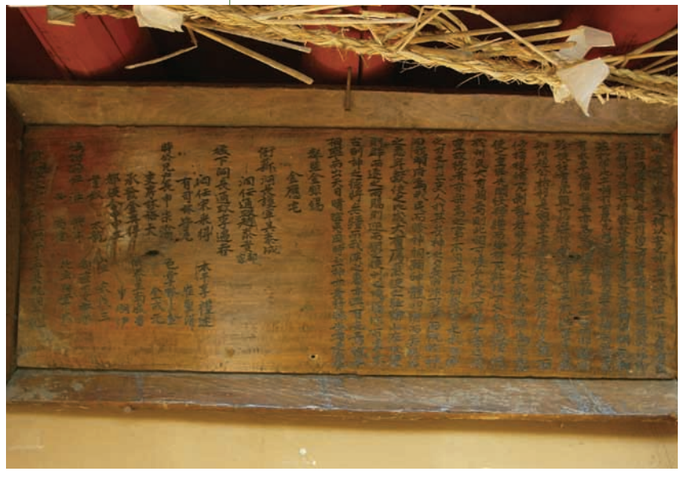
건륭(乾隆) 19년 갑술(甲戌) 4월(四月) 일(日)

성황사중수기는 나무 현판으로 조선 후기인 1766년 여름에 성황사를 중수한 이유와 과정,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성황사가 국가 권력과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상징적 중심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통치에 성황사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황사중수기(城隍祠重修記)

고을의 성황신(城隍神)이 있으니 그를 위해 사(祠)를 지어서 봉안했다. 신(神)은 한 고을을 주관하니 한 고을의 책임을 맡은 자는 이 사당(祠堂)을 경시하지 못하고 중시 여기는 것이다. 고을의 원이 관리하는 바로서 고을이 다시 설치된 이후로 사당이 있어 왔다. 고을의 원이 늘 수리하고 개수(改修)해서 그것을 살피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 총사(叢祠)나 음사(淫祠)에 비하지 않았다. 깨끗한 곳에 터를 잡고 길한 날에 사당(祠堂)을 세워서 고을의 모든 재앙(災殃) 괴변(怪變)을 기도(祈禱)해서 없애지 않음이 없었다. 간혹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 어려울 때 또한 기원을 빌면 신도 또한 꾸짖고 나무라서 좋은 데로 돌린다. 요구함이 있으면 곧 그것에 응함이 있으니 신이야 말로 참으로 기이하도다. 지난 갑술년(甲戌年)에 고을 원(元) 조공(趙公)이 비로소 이 동네에 옮겼는데 당의 규모가 몹시 완벽하고 치밀했다. 그 이후 해마다 풍우가 괴롭혀서 기둥이 무너지게 되니 그 형세가 하루 저녁도 지탱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제 우리 정후(鄭候, 고을 원님)가 특별히 백성의 민의(民意)를 위해서 중수(重修)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역사(役事)에 필요한 양식을 조달하고 재목(材木)을 공급하고 일꾼을 허락했다. 또 명하여 성황사(城隍祠)는 고을 백성들에게 몹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 사당을 업신여길 수 있겠으며 이 역사를 늦출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알리는 것이 믿음으로써 했기에 일하는 사람 또한 그 일을 즐거이 하니 한 달이 걸리지 않아 공사가 끝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우리 현명한 고을 원님의 힘이었다. 고을 아전이 신상(神像)을 봉안(奉安)하는 날 저녁에 목욕재계하고 백배(百拜)하면서 신에게 축원(祝願)하기를 우리 현명한 고을 원님이 백성을 위해서 신사(神祠)를 수리(修理)했나이다. 원컨대 신께서는 명부(明府)의 뜻을 체득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해마다 곡식은 풍년들었던 가까운 시기와 비유해서 크게 하시고 만일 전염병이 들면 산 왼쪽편으로 몰아주시고 재변(災變)이 일어나면 물리쳐 주소서. 비를 바라면 거기서 맞춰 내려주시고 우리 고을 경내로 하여금 유독 태평성대를 만들어 주신다면 신의 덕이 장차 끝이 없을 것이고 우리 원님의 은혜도 더불어 빛날 것이라고 축원했다. 축원을 끝내고 서로 거느리고 나오니 날씨는 개어서 따뜻하고 은혜로운 바람이 때맞추어 불어오니 신도 또한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상으로 기문(記文)을 대신하노라.

건륭(乾隆) 31년 병술(丙戌) 맹하(孟夏) 기망기(旣望記)



성황사중수기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2004.2.2
차정환

『모연문』은 주재집단이 관(官)에서 지역민에게로 이관된 이후인 병오년(1906)에 지역민들이 제당을 중수하기 위해서 읍내리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많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모금하였던 기록이다. 『모연문』은 한지를 묶어서 1권으로 만들어졌다. 『모연문』의 제일 앞장에는 모금을 하게 된 사연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장부터는 모금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또는 관직 또는 택호와 금액을 기록했다. 성명의

기록란에는 빨강이나 파랑, 초록 등의 색지가 덧붙여져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 의미는 파악되지 않았다. 여기에 기록된 기부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당시에 성황당이 이 지역주민들의 상징적 중심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모연문(募緣文)

대저 살펴보면 빗물에 목욕하고 바람에 머리 빗으며, 바야흐로 영신(靈神)의 완전(宛轉, 천천히 춤추는 모양)을 우러러보니, 무겁기는 산과 같고 깊기는 바다와 같은데, 다행히 중생의 모연지덕(募緣之德)이 성함을 보고 정성이 지극함을 느끼노라. 엎드려 바라옵건대 두곡 성황이시여, 몇년이나 계시면서 영비(靈秘)함이 찬연히 보였습니까. 법식(法式)은 지금까지 이르지만 굿하고 보답함은 여러 모양입니다. 말은 성지합황의 크고 넉넉함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굿은 야유와 도깨비들을 을러서 이것을 꾸짖어 못하게 하는데, 기도하면 응함이 있음을 비웃는 촌민의 어리석음에 신령님은 속에서 가식으로 받듦을 엿보고 기다리며 그것을 듣는구나. 이에 두여(斗如)의 옛터를 돌아보니 홀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본사(本祠)구나. 소백의 깊고 깊은 언덕은 울창한 숲이 둘러싸 있는데, 상단곡(上丹谷)의 빽빽이 들어찬 그늘에 걸터앉으니, 나뭇가지는 움직이는 별을 가로막고 과객의 어리석음을 살피는구나. 한데서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다만 초부의 한 가지 정성으로 기도드리니, 급벌 천년의 터를 보호하는 숲뒤 한 모퉁이 터가 있구나. 이 마을의 소가 지레 겁을 내는 것은 차라리 이 산신의 영(靈)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에 여러 번을 폐하고 속(俗)되어도 다시 일어서는 때에 이르러, 이미 여러 사람이 도모해서 상의하는 모임을 가졌더니, 상원지가절(上元之佳節)에 산골짜기 물의 영에게 깊이 제사 올리고, 또한 존령의 강림을 받드니 동북풍의 바람이 사방에 조용하네. 기뻐하면서 북을 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춤을 추니, 두루 충만하게 신이 내리시고 고요하게 신을 맞이한다. 처음에는 배우들의 잡진(雜陳)으로 시작하여 무격의 어지럽고 떠들석함이 즐겁고, 동풍이 만신령(萬神靈)을 나부끼니 우운(雨雲)이 무지개같이 아름답구나. 풍악소리는 만죽지(萬竹枝)를 족히 움직이고 노랫소리는 별똥처럼 빠르고 번개처럼 흐르는 구나. 모든 집에는 명월이 완연하여 아름다움을 보는 것 같고, 일지춘매(一枝春梅)는 그 선물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즐기는구나. 그러나 또한 베풀어진 춤이 다 끝났는데도 망설여지지만 어찌 그 빈터에 천천히 할 수 있는가. 모든 백성들과 군자들이시여. 무릇 불문(佛門)에 불공드리는 자리마다 종이가 겹겹이 쌓였고, 또한 시주 장소에 집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도우니, 과연 이 모든 것에 가히 칭찬할 만하지 않은가. 한 톨의 쌀과 한 오라기의 실이 모이면 태산처럼 크지 않겠는가. 돈으로서 곡식으로서 이에 이 공든 탑이 무너지겠는가.

'순흥소농조합 규약'은 한지 2장이며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전국적으로 면소재지에 설립되었던 소농조합이 지역사회의 농민조직을 이용하여 농촌사회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 성황사의 주재집단의 우두머리인 좌상이 노동조직의 작은 우두머리가 되는 등 주재집단이 소농조합의 일원으로 전락하면서 성황제가 매우 위축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에 농촌지역의 동제(성황제)가 처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임원록』은 순흥면 읍내리 노무자 모임(順興面 邑內里 勞務者會中)에서 1946년(丙戌七月初七日)에 시작하여 1992년까지 작성하였다. 1993년부터는 공책에 기록하였다. '노무자회'는 일제강점기에 변경해서 사용했던 초군청의 명칭이다. 여기에는 초군청 임원의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1946년부터 지금까지 좌상과 총무가 각 1명이며, 간사의 숫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좌상은 초군청의 대표이며, 총무는 좌상을 도와서 전체의 일을 총괄하고, 간사는 초군청의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1951년부터는 집사가 등장하고, 1963년부터는 고문의 직책이 등장하는 등 초군청 조직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세분화되고 더욱 조직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광복 이후에 초군청이 성황제 주재집단으로의 기반을 스스로 다지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1946년부터는 좌상과 총무 각 1인과 간사 4인이지만, 1951년부터는 공문집사(公文執事) 1인과 간사 9인, 1956년부터는 집사 1인, 간사 14명, 1960년부터는 간사 12명, 1963년부터는 고문 3명이 추가되면서 간사 17명, 1964년에는 고문 3명과 간사 30명, 1965년에는 고문 4명과 간사 21명이, 1967년에는 고문 6명과 간사 18명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전의 것은 주민들이 소각하여 찾을 수 없다.

『두여고사기』는 두여동고사수전기(斗餘洞告祀收錢記)이다. 1948년도에 두렛골 성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순흥면 일대의 모든 마을로부터 모금한 상황과 그 자금을 주민들에게 빌려 주면서 이식을 받아서 자금을 늘려 나가는 1993년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민 집단인 초군청은 1948년도에 성황제를 주관하는 읍내리 1 · 2구를 비롯하여 읍내 3구(사현정), 내죽 1구(속수동), 청구 1 · 2 · 3구, 내죽 2 · 3구(송림), 태장 1 · 2(묵동) · 3구, 석교 1 · 2(당촌) · 3구, 지동 1 · 2구, 순흥시장 사람들, 덕현, 배점 1 · 2구, 고두암 등 순흥 지역민 전체가 동참하는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펼쳐서 현금 4만 9,970원, 백미 235되, 율미 8합, 소두 1되를 모금하였다. 초군청에서는 이 기금을 주민들에게 빌려주어서 이자와 함께 이듬해에 받아들이는[收錢] 방법으로 기금을 증식하였다. 그 조건은 '모든 차용자는 보증인을 두어야 하며, 이자는 100원당 매월 5원씩이며, 반제일(返濟日)은 음력 11월 24일'이다. 이자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지만 매우 저렴한 편이다. 이러한 노력은 초군청 성원들 스스로 지역 정체성의 중심인 성황제를 활성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자기[民] 중심적 문화창조 행위의 일환이다. 이 기록은 매년 성황제를 수행할 때 찬조금액과 제물 구입 등 소요경비, 초군청 재산 등의 변화, 즉 수입과 지출, 잔고 등을 기록한 양성황당수지부(兩城隍堂收支簿)이기도 하다. 이 기금은 초군청이 성황제를 수행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이전의 것은 주민들이 소각하여 찾을 수 없다.

『소임급찬조방명록』은 상당 성황당과 하당 성황당의 제의를 주관하는 제관의 명칭과 그 해의 찬조자 명단과 찬조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무신년(1968)부터 1992년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의 찬조자 숫자와 찬조금액의 변화를 통해서 성황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즉 1982년부터 제당을 이용하는 보살들의 찬조와 외지인들의 찬조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부터는 순흥면장의 찬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의 성황제가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만 행해지다가 외부인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이 확립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지역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民] 중심적 노력을 살필 수 있도록 한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초군청에는 아주 오래된 문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에 주민들이 오래된 문서들을 직접 소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곳에 소개한 임원록과 두여고사기, 소임급찬조방명록 등은 조사 당시인 1993년도에 남아 있던 것들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3년도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 문서들마저도 보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 소각하였다고 한다.

의의 성황사 이건기와 중수기는 조선 후기의 지방 수령들이 읍치 성황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통치질서를 확립, 유지, 강화하였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성황사의 이건과 중수과정에서 향리와 지역사회 유지들이 참여하면서 지역민 통치에 이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자료를 통해서 조선 후기의 지역사회에서 대상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신앙이 지역민의 정체성을 장악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치전략에 크게 이용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조선시대에 각 지역사회의 성황사가 지니는 중요성은 조선왕조의 종식과 함께 중단된다. 왕조가 종식되면서 각 지역사회의 성황사의 행방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의 지역민 집단인 초군청이 주도하는 성황제를 통하여 그 일면을 살필 수 있었다. 즉 조선 후기에 이 지역에서 조직되었던 '초군청'이 조선왕조가 종식되는 시점에서 순흥부에서 행하던 성황제를 이관 받아서 지역민 중심의 성황제로 주재집단이 변화하면서 유지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모연문』은 관 주도의 성황제가 민(民) 주도의 성황제로 주재집단이 변화하면서 겪게 되었던 지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펼쳤던 모금운동의 내력과 극복 과정을 기록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임원록』·『두여고사기』·『소임급찬조방명록』 등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초군청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극복하고 성황제를 영속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즉 초군청 임원들의 숫자를 확대하면서 인적 자원을 확보한 내용, 기금의 이식과 관련한 수전(收錢) 상황, 성황제 수행과정에서의 수입과 지출 및 잔고 등을 기록하였으며, 소

임과 찬조자들의 명단과 금액 등을 정리하였다. 이들 자료는 마을사회에서 주민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등을 엿볼 수 있으며, 마을사회사의 변동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읍치 성황제 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이기태, 민속원, 1997).

필자 이기태(李淇泰)

영천자천리오리장림 (永川慈川里五里長林)

정의 제방 보호와 마을의 수호 및 풍치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마을 주민들이 조성한 숲. 1999년 4월 6일에 '천연기념물 제404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영천시 화북면 면소재지인 자천리로 들어오는 35번 국도변에 1㎞ 남짓한 길이로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다. 5리에 걸쳐 있다고 이 숲을 '오리'장림(五里長林)으로 불렀으나 현재 숲의 길이는 5리의 반밖에 안 된다. 면적은 6,600여 ㎡이다.

오리장림에는 현재 12종 282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숲을 이루는 수종은 활엽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 낙엽활엽수는 은행나무 1그루, 왕버들 37그루, 굴참나무 87그루, 시무나무 9그루, 느티나무 25그루, 팽나무 26그루, 풍게나무 18그루, 회화나무 26그루, 말채나무 2그루, 등 9종 231그루가 있다. 상록침엽수로는 적송 27그루,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 19그루 등 3종 51그루가 있다. 나무의 수령은 20년에서부터 450년이 넘는 나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느티나무, 왕버들, 회화나무 등의 고목이 많다. 가슴높이의 나무둘레가 4~5m나 되는 고목도 적지 않으나, 그루로 수령 100년 안팎의 나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숲 속에는 제장(祭場)도 있다. 화강암으로 네모지게 쌓은 석단 위에 큰 돌을 하나 올려놓은 형태로, 석단이 무너지지 않게 시멘트로 잘 발라 두었다.

역사 오리장림은 제방 보호와 마을의 수호 및 풍치 조성을 위해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주민들이 1500년대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역사를 입증하듯이 450년이 넘는 노거목들이 다양한 자태를 자랑한다. 자천리에서는 1600년쯤부터 매년 정월대보름날 이 숲에서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이 숲은 1982년에 영천시 '천연보호림 제11-20-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에 다시 '천연기념물 제404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래된 마을 숲들이 전쟁, 태풍, 개발 등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훼손되었듯이 오리장림도 원형을 많이 잃었다. 영천시와 청송군을 잇는 35번 국도가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숲을 동서로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목이 그때 잘려 나갔다. 1959년의 사라호 태풍 때에도 숲의 일부가 사라졌다. 그런가 하면 1972년에는 이 숲의 바로 옆에 자천중학교가 설립되면서 숲의 일부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뒤에도 국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숲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 오리장림의 면적은 6,600여 ㎡이고, 길이는 5리의 반인 1㎞ 남짓이다.

최근에 와서는 전통마을 숲에 어울리지 않게 외래수종을 심기도 하였다. 특히 20여 그루의 개잎갈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은 이 숲의 본래 모습을 망가뜨린 흠이 되고 있다.

내용 오리장림은 마을의 바람막이, 제방 보호 및 수해 방비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조성한 숲이다. 근래에는 마을 이름을 따서 '자천숲'으로도 알려졌다.

숲이 있는 화북면 자천리는 영천시내에서 북쪽으로 20여 ㎞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자천은 영천의 진산인 보현산에서 흘러내린 앞내가 '잘내' 또는 '자을천(慈乙川)'이라 불리던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또 자천리는 보현산에서 시작된 고현천이 마을 앞을 휘감고 지나가는 지형이어서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하여 수시로 농사를 망치곤 하였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홍수 방지를 위해 나무를 심어 넓고 긴 숲을 조성한 것이다.

자천1·2리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이 숲에서 동제를 지내 왔다. 봄에 잎이 무성하면 그해는 풍년이 든다는 속신도 전해진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중단되기까지 매년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가 행해진 신성한 숲이었던 것이다. 신성한 숲의 전통은 『삼국유사(三國遺事)』「기이」 1편에 실려 있는 신라의 '시림(始林)'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림은 신라 개국 당시 국가 차원의 제사가 이루어진 신성한 숲이다. 박혁거세와 김알지가 이곳에서 신성한 존재로 출현하였다. 신성한 숲의 전통은 영남지방에서 흔히 보는 동구(洞口)의 '비보숲(裨補藪)'들로 이어져 왔다. 마을에서 방풍림이나 수해방비림으로 조성한 경우라하더라도 여기에 풍수적 해석이 보태지면서 비보림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경우가 많다. 마을을 수호하는 공간인 만큼 마을공동체신앙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의 송림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자천1·2리가 합동으로 오리장림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자천리에서는 정월대보름이 되기 열흘 전에 흉이 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제관, 제주, 축관을 한 명씩 선출하였다. 정월 열사흗날 아침이 되면 제관들이 모여 왼새끼로 금줄을 꼬아 오리장림의 제당과 자신들의 집 주변에 두르고 황토도 뿌려 둔다. 이때부터 제주는 제수 마련을 위한 장보기 외에 일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근신한다. 제물로는 메, 국, 장닭, 백편, 건명태, 나물류(배추·고사리·도라지나물), 과일류(밤·대추·곶감·사과·배) 등을 올렸다. 정월 열나흗날 자정에 행해진 제의는 초헌-고축-아헌-종헌 순으로 이루어진 헌작과 배례 후에 제관-제주-축관-동네의 순서로 소지를 올림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아침이 되면 모든 동민이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을 나누고 결산을 하였다.

오리장림의 동제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과 더불어 중단되었다가 다시 화북면 단위의 제의로 부활되었다. 영천에서 청송으로 이어지는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화북면 내 18개 마을 이장들이 모여 제의를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장소가 오리장림으로 정해진 것은 이 숲이 국도변에 있는 데다 숲 속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날이 지나면 화북면 번영회가 주체가 되어 대보름 전날 전후로 택일을 한다. 면장, 이장 대표, 지서장 또는 조합장이 각각 제의의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맡는다. 제물로는 돼지, 삼실과, 술, 사과, 배, 명태포를 올린다.

한편 이 숲은 오랫동안 자천리 주민들에게 놀이의 장이기도 하였다. 음력 칠월 논매기가 끝나면 행하는 '희초(또는 서리초)'를 이 숲에서 했으며, 단오놀이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지금도 오리장림 숲은 여름이면 마을 앞을 흐르는 고현천의 맑은 물과 더불어 하늘을 가리는 숲 그늘이 어우러져 멋진 피서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름 휴가철이면 피서객이 몰리는 데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숲이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숲 속에 상점, 화장실, 음수대 등이 들어서 있다. 신성한 숲의 전통을 되살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숲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마을 숲 조사보고서(경상북도, 2008), 길 따라 숲 따라(김봉규, 노벨미디어, 2008).

필자 천혜숙(千惠淑)

영험담

상호참조 당신화(212쪽)

정의 동신(洞神)신화, 마을신화 등으로 명명되는 당신화(堂神話)의 한 유형. 마을의 당신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형성·전승되어 현존하는 신격의 정당성을 말하는 현재적인 신화이다.

내용 본래 당신의 좌정유래담만 당신화로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며, 영험담은 전설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렇지만 영험담 또한 신화적 성격을 지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신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요컨대 당 및 당신과 관련된 신성담론을 당신화라고 하며, 이것은 좌정담과 영험담으로 나뉜다.

좌정담은 마을의 당신이 좌정하게 된 동기를 보여 주는 것으로, 과거에 일어났다고 말해지는 신화이다. 이에 반해 영험담은 지속성을 띤다. 이에 따라 좌정담이 당신의 좌정 유래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영험담은 완결되지 않고 현재에도 형성·전승되고 있는 살아 있는 신화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영험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신성한

존재(당신)이자 공간(당집)이기 때문에 특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 설정과 금기 위반에 따른 징벌이다. 금기 설정과 금기 위반에 따른 징벌은 함께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금기 설정만이 이야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영험담은 당집 이전(移轉)이나 제관 선출 등과 관련되며, 당집 주변과 그 제의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당집과 관련된 영험담은 마을 주민들에게 당신을 모시고 있는 당집이 여전히 신성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그 신성성과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제의와 관련된 영험담 역시 당집과 관련된 영험담처럼 제의의 신성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례 서울 지역 마을당인 부군당과 관련된 영험담 가운데 '을축년 대홍수' 관련 영험담,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 관련 영험담, '6·25전쟁' 관련 영험담 등이 다수의 부군당에서 발견된다.

을축년 대홍수, 일제강점기, 6·25전쟁은 당대를 산 사람이라면 모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커다란 사건이자 공동체의 위기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심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대상이 마을공동체의 신(神)인 부군과 부군당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을신의 위엄을 신앙하는 것으로 공동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을 것이다. 당집과 함께 당굿의 전승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부군당인 행당동 아기씨당에서는 당주무당에 의해 좌정유래담과 함께 영험담이 전승되고 있다. 아기씨당에는 다른 마을의 당보다 좀 더 다양한 영험담이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당집과 당굿이 견고하게 전승되고 있으며, 당신화가 당굿을 전승하고 있는 당주무당에 의해 전승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아기씨당에서 전승되고 있는 영험담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기씨당

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을 적마다 마을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서 무신도를 반닫이에 숨겼다가 난이 평정된 뒤 가마에 모셔 왔다고 한다.

② 6·25전쟁 때 인민군이 당에서 잠만 자고 나면 설사 등 탈이 생겨서 뭐 이런 곳이 있냐며 도망쳐 갔다고 한다.

③ 시집 못 간 딸이 있는 단골집에서 '노구메'를 짓고 삼색과일과 예단을 당에 바치기도 하고, 아들 못 낳는 사람도 정성을 들이면 효험을 보았다.

④ 진퍼리(현재의 행당동)에서 사근동 쪽으로 혼인하려면 꼭 당 앞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신랑, 신부 일행이 당 앞을 그냥 지나치면 가마꾼의 발이나 말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신랑 신부가 내려서 당을 예우하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영험함은 어떤 이가 말의 피를 사당 앞뒤로 뿌린 뒤부터 사라졌다.

모두 당의 신성함과 당의 주신(主神)인 아기씨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④의 영험담이다.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민간신앙인 마을당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것을 ④의 영험담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당의 신성성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신 유래담 또는 당신 좌정담이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좌정하게 됐는가를 보여 주는 서사가 과거완료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것과 달리 영험담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으며 당신에 대한 믿음과 그 마을에서의 위상 역시 함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영험담 역시 모두 을축년 대홍수, 일제강점기, 6·25전쟁을 반영하고 있다.

영험담이 전승되고 있는 행당동 아기씨당
서울 성동구 행당동
2004.6.11. 김기형

서울 밤섬 부군당과 당산동 부군당, 경북 문경 화장마을 서낭당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영험담이다.

서울 영등포구 밤섬 부군당

① 인민군이 부군님 화분을 찢었다. 인민군은 여의도 벌판을 나가다 몰살당하였다. 현재 그림은 홍제동 사신당에서 모셔 왔다. 인민군이 말을 타고 갈 때 당 앞에서는 말발굽이 떨어지지 않아 움직이지 못하였다. 나중에 내려서 당에 대한 유래를 듣고 걸어서 갔다고 한다.

② 6·25전쟁 때 첫 폭격으로 53명이 죽을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 당집 주위의 13가구만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군당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였다. 아파트도 없고 노들길이나 88대로가 생기기 훨씬 전에는 은행나무가 있던 당산 언덕이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대였다고 한다. 지대가 높아 물이 침범하지 못하였다. 강물에 떠내려 가던 사람도 이 당산으로 기어오르면 살아날 수 있었다.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당시 당집 근방에 있어서 무사한 28개 집을 보호하기 위해 당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북 문경시 화장마을 서낭당

황산들에 있던 서낭당을 현재 위치인 동산모리로 옮긴 것은 1980년 이전이다. 그 당시 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가축이 당 앞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 등 마을의 흉재가 있었다. 그래서 당을 현재 새마을창고 앞 동산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흉한 일이 그치지 않아서 현재 위치로 옮겼더니 마을의 불안이 사라졌다.

이들 영험담은 모두 해당 신격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생성·전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집과 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상치 않은 일들을 해당 신격과 결부시킴으로써 해당 신의 신성함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영험담의 형성 및 전승은 결국 해당 신격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 제의가 유지·강화되게 한다.

한국의 문헌 신화를 비롯한 구비신화의 대부분이 과거완료형으로 서술되어 있는 데에 반해 당신화의 일종인 영험담은 공동체 내에서 계속 생성·전승되는 신화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신화로서 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 안산 잿머리 마을신화 연구**(유여종,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구비담론으로 본 군자봉 성황제**(장장식,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마포-어제와 오늘·내일**(마포구청, 1992), **서울민속대관 1**(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990), **서울의 마을굿**(박흥주, 서문당, 2001), **서울지역 당신화 연구**(고영희,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전남의 전설**(김정호, 전라남도, 1987), **한국의 마을제당-충청북도**(국립민속박물관, 2000), **화장마을 당신화의 요소 및 구조 분석**(천혜숙, 민속연구 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6).

필자 김기형(金基珩)

예산대흥소도독사 (禮山大興蘇都督祠)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대잠도(大岑島)에 위치했던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蘇定方)을 모신 사당. 일명 '소정방사'로 기록되기도 한다.

위치와 형태 사료에 등장하는 소도독사는 대흥의 대잠도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잠도는 현재 대흥에서 사용되는 지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도독사는 조선시대에 폐허가 되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조선 초기 소도독사를 언급한 때에는 지금의 봉수산 동쪽(앞)에 작은 규모의 사당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대잠도는 바다에 실재한 섬이 아니라 섬처럼 오롯이 솟은 봉우리 또는 유사시 물에 잠겨 있어 섬처럼 보이는 지형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충남 공주시의 씨악섬이나 전북 무주군의 앞섬[前島]

・뒷섬[後島], 금산군의 섬동[島村] 등이 좋은 본보기이다.

이러한 지리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대잠도의 위치를 비정하면 무한천변의 송지연(宋池淵) 일대로 추정된다. 송지연은 봉수산 동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료에 기록된 소도독사와 방향이 일치하고 있으며, 두 개의 시냇물이 합수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홍수가 나면 연못 주변이 마치 물에 떠 있는 우산(섬)처럼 보였다고 한다. 실제 소도독사를 읊은 시에는 연못 주변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울창한 숲으로 에워싸여 있어 유사시 섬이 연상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송지연은 1960년대 예당저수지가 조성되면서 모두 물속에 잠기는 바람에 더 이상 소도독사의 자취를 추적하기 어렵다.

역사 소도독사가 사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사(高麗史)』 권56 「지리지」 홍주 대흥현조이다. 이에 따르면 "당나라의 소정방 사당이 대잠도에 있다. 춘추로 향축(香祝)을 내려 제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써 소도독사의 제향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나라에서 향축을 내려 치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도독사는 16세기 중엽까지 대흥에 존속되다가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기묘사화 때 피화를 당한 이약수(李若水)가 1531년(중종 26) 대흥에 유배를 왔다가 소도독사를 찾은 감회를 읊은 시에 "소장군사당이 대흥 봉령산(鳳靈山)에 있다. / 봉령산 동쪽에 오래된 사당이 있으니 / 노수(老樹)가 하늘을 찌르고 연기와 구름 뒤덮였네. / 당시의 호령(號令)은 뇌성벽력처럼 빠르고, / 오늘의 위성(威聲)은 초목을 불태우네" 라고 노래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소도독사는 당시까지도 건재하였다. 그러나 불과 20여 년이 흐른 뒤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송겸(宋謙)은 소정방 사당이 무너져 내린 황량한 모습을 목도하고 "봉수산 앞 부서진 작은 집, / 연못 주위는 적막한데 수목만 무성하네. / 황량한 사당은 다만 소장군 받들던 표식일 뿐, / 무너진 성첩 여기가 임존성인 줄 누가 알리" 라고 하여 무너져 내린 사당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 두 편의 시로 짐작건대 소도독사의 제향은 사실상 16세기 중엽에 중단되고, 그 사당마저 방치되어 폐허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소도독사에 대한 국행제(國行祭)의 전통은 조선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따르면 소정방의 신호(神號)는 고려시대 이래 '대잠도호국지신(大岑島護國之神)'으로서 나라의 수호신으로 숭앙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1437년(세종 19) 삼월 열사흗날에 대대적인 국가의 제사[祀典]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때 소도독사는 '대잠도호국지신'이라고 쓴 위판에서 '호국' 두 자를 삭제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써 소도독사의 신격은 '대잠도지신'으로 격하되어 단지 고을의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에서 대잠도의 소정방은 정녕 호국신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대흥현조에는 "고려 때에는 봄가을로 사신을 보내어 향과 축문을 내려 치제했으나 지금은 다만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도독사의 제향은 조선 세종 이후에는 국행제가 폐지되고 대흥으로 부임하는 지방관이 주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조선 초기에 소정방은 소도독사와 별도로 대흥의 성황신으로도 떠받든 징후가 포착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대흥현 사묘조에는 "성황사는 봉수산에 있다. 속설에 전하기를 당나라 장수 소정방을 사당의 신으로 위한다. 본읍에서 춘추로 치제한다"라고 하여 소정방을 성황신으로 숭배했을 개연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소도독사의 제향이 대흥의 읍민들에게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즉 소도독사는 고려 때 '대잠도호국지신'으로 봉작되고, 나라에서 춘추로 향축을 내렸을 정도로 중요한 제향이었다. 따라서 오랜 세월 소도독사의 제향을 지켜본 읍민들은 소정방에 대한 외경심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자연스레 고을의 수호신이라는 신앙 관념이 자리하게 되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이 점차 확산되어 결국 대흥의 성황신으로도 숭앙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더욱이 소정방은 백제 멸망의 주역으로서 일세를 풍미한 장수인 데 백제부흥군의 최후 거점인 임존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물이기에 성황신으로는 제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정방을 성황신으로 받든 것은 조선 초기에 국한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속설에 기인한 것이지 관아에서 소정방의 위패를 공식적으로 설치했다고 간주하기가 어렵다. 세종 때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가의 제사를 정비한 마당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을 성황사의 주인으로 봉안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대흥군읍지(大興郡邑誌)』 사묘조에 "성황신 소정방을 본읍에서 춘추로 제사했다고 하나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기록이다. 이로써 소정방이 성황신이라는 관념은 대흥에서 17세기 이전에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나 『호서읍지(湖西邑誌)』,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등에 성황사의 위치만 기록되었을 뿐 소정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성황신 소정방에 대해 세종의 사전 정비 때 유사한 기능을 지닌 사묘를 통폐합하면서 소도독사가 성황사에 합사된 결과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잠도지신'으로 강등된 소도독사는 비록 국가의 제사에서는 배제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대흥으로 부임하는 지방관이 제향을 주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중종 26년에 교촌리로 유배를 온 이약수가 봉령산 동쪽의 소도독사를 목격했듯이 늦어도 16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세종의 사전 정비 이후에도 소도독사가 한 세기 이상 존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도독사가 성황사에 흡수 통합되었다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소도독사는 관찰사 송겸이 시로 남겼듯이 성황사와는 무관하게 16세기 중엽까지 존속되다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례 소정방을 고을의 수호신으로 모신 또 하나의 사례는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에 있는 삼장군당(三將軍堂)이다. 마을 서쪽 삼정산 장군봉 정상에 자리한 이 당은 세 장군을 모신 까닭에 유래된 이름이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삼장군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유신을 비롯해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그의 부장(部將)인 이무(李茂) 장군이다. 세 장수는 김유신이 장군리 넓은 들판에서 처음 당나라 군사를 맞이할 때 조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세 장군을 잊고 지냈는데 고려 때 장군봉 인근에서 사람과 가축이 변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를 괴이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까닭을 알아보니 세 장수의 고마움을 모르고 제사도 올리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사공씨가 나라에 상소하여 삼장군당을 짓고 매년 단오에 관민이 합심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삼장군당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군위현 사묘조에 그 사적이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김유신 사는 효령현 서악(西嶽)에 있다. 속칭 삼장군당이라고 한다. 해마다 단오가 되면 현의 수리(首吏)가 고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역기(驛騎)에 깃발과 북을 달고 신을 맞이하면서 거리를 누빈다. 허주의 시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 장수는 서성(西城)의 주인이라 했는데 그 풍속이 지금까지 내려오니 그 사연이 분명하구나. 해마다 단옷날을 어기지 아니하니 깃발을 세우고 북을 치면서 신의 뜻을 위로하는구나"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삼장군당의 제향은 읍민들을 거느린 우두머리 관리가 깃발을 앞세우고 풍악을 울리며 신을 맞이하는 거리행진을 벌였고, 수많은 사람이 장사진을 이루고 온갖 잡희(雜戲)가 베풀어지는 성대한 지역축제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牛泉遺稿, 大東地志, 大興郡邑誌, 東國院宇錄, 世宗實錄,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練藜室記述, 俎豆錄, 增補文獻備考, 대흥 소도독사와 읍치 성황사(강성복, 백제연구 4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9), 백제 이후의 예산과 임존성(김갑동, 백제문화 2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9), 성황신 소정방과 대흥(변동명, 역사학연구 30, 호남사학회, 2007),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강성복(姜成福)

예산운산2리산신제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운산2리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산제당에서 매년 정월 초닷샛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 지내는 산신제. 산신제를 지낸 다음 마을 중앙 느티나무 앞에서 거리제인 오방제를 지낸다.

유래 운산2리산신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산신을 모셨다고 한다. 즉 운산2리

에서는 호환(虎患)이나 돌림병 등 여러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뒷산에 산신, 마을 어귀에 거리신인 오방신을 각각 모셨다고 한다.

내용 산제당은 마을 뒤의 소쟁이산 중턱에 위치한다. 운산리에는 산제를 지내는 산제당과 제사 준비를 하는 산제당집으로 나뉘어 있다. 산제당 아래에 산제당집이 있다. 산제당집은 방과 부엌이 있는 두 칸 집이다. 안에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제기가 잘 보관되어 있다. 이곳은 산제를 지낼 때 제물을 마련하고 제관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제당의 오른편에는 산제를 올릴 때 사용하는 '산제당 샘'이 있다. 이 우물은 떡을 찌거나 메를 지을 때 사용한다. 이 밖에 통돼지를 잡을 때 사용하는 샘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마을에서 음력 섣달 스무날에서 그믐날 사이에 학식이 있는 분이 책력을 봐서 제일(祭日)을 정한다. 대개 음력 정월 초열흘날 이전의 좋은 날로 택한다. 제일뿐만 아니라 산제를 주관할 제관(祭官)도 선정한다. 제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닿는 사람 가운데 연장자가 하며, 부정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 몸을 조심한다. 산제일이 가까워오면 도시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까지도 마을에 와서 함께 정성을 드린다. 제를 지낼 때 외지인은 마을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다.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산제들기'를 한다. 산제들기는 집집마다 자발적으로 올해의 산신제에 참여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다. 산제에 들었는데 특별히 효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듬해에 산제들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마을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간 사람이나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산제에 들겠다고 비용을 보내오면 소지를 올려준다. 산제에 든 사람을 '산제원'이라고 하며, 산제원은 남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마을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산제에 든다.

제비(祭費)는 산제답(山祭畓)에서 나온 도조(賭租)와 주민들에게 갹출한 돈으로 충당한다. 먼저 산제답은 산제당집 바로 아래에 있는 계단식의 논으로, 다섯 다랑이가 있다. 주민들이 갹출하는 비용은 해마다 다르다. 보통 가구당 5,000원을 추렴한다. 마을 주민들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을 낸다'고 한다. 제비를 내면 소지를 올려주기 때문이다. 외지로 나간 마을 사람들도 설에 귀향하여 동네 주민이나 가족들에게 소지 비용을 맡겨서 제비로 충당하도록 한다.

산제당집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리, 2002.2.16
국립민속박물관

제비가 마련되면 통돼지·떡·삼색실과·식혜·포·메·탕·두부 등 제물과 시접(匙楪)·소지종이 등을 장만한다. 제물은 모두 여섯 몫으로 산제당과 오방(五方)에 각각 놓을 것을 준비한다. 소 값이 저렴한 경우에는 통돼지 대신 통소를 잡아 올리기도 한다. 통돼지나 통소를 잡으면 머리는 산제당, 네 다리는 사방, 뱃살은 중앙에 각각 올린다.

산신제 하루 전날에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들은 산제당 샘을 깨끗하게 치우고, 산제당집과 자연제당의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리고 제사 당일 오전 6시에 제관과 몸이 깨끗한 일부 마을 사람들이 산제당에 오른다. 이들은 제당을 청소하고 목욕재계를 한 이후에 제물을 장만한다.

산제원들은 산제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가장 먼저 황토를 구해온다. 구해온 황토를 대문 앞 양쪽으로 세 무더기씩 놓는다. 황토를 놓는 이유는 부정한 사람이나 피를 본 사람의 접근을 금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예전에는 대문에 금줄도 둘렀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제의 준비는 크게 산제당집 안에서 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산제당집 안에서는 위목을 작성하고 소지명단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한다. 밖에서는 돼지를 잡고, 제기를 씻고, 산신제를 지낼 때 불편이 없도록 전기시설을 마련한다.

산제당 밖에서의 제의 준비는 다음과 같다. 산제를 지낼 때 올리는 돼지는 '산제톳'이라고 부른다. 산제톳은 거세를 하지 않은 수퇘지를 사용한다. 산제당에는 절대로 여자가 갈 수 없으며, 수퇘지를 거세하면 암컷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색깔이 까만 '꺼먹돼지'나 '밤돼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요즘은 꺼먹돼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백돼지를 사용한다.

돼지를 잡으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손으로 털을 말끔하게 제거하고 머리를 베어낸다. 그리고 정수리에 식칼을 꽂아서 산제당집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가 제의가 시작되면 제관이 맨 앞에 서서 돼지머리를 들고 올라간다.

머리를 자르고 나서 배 부분의 고기를 떼어낸다. 이를 '업장'이라고 부르며 '중앙황제지신(中央黃帝地神)'에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한다.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여섯 조각으로 나눈다. 두 앞다리는 각각 동방과 서방, 두 뒷다리는 각각 남방과 북방에 두고 오방돌기를 할 때 제물로 올린다.

한편 산신제에 올릴 떡, 오방메, 산신메, 식혜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두 말 정도 소요된다. 산제에 올리는 떡은 멥쌀과 콩을 섞어서 만든다. 분량은 10㎏ 정도 된다. 예전에는 직접 산제당집에서 절구질을 하여 떡을 쪘으나 요즘은 방앗간에 주문한다. 오방메는 6㎏ 분량, 산신메는 한 되 서 홉 분량이다. 나머지는 식혜를 만든다. 산신메는 예전 샘 옆자리, 오방메는 부엌에서 각각 짓는다.

운산리에서는 산제에 두부탕을 올린다. 두부는 마을에서 제의 당일에 만들어서 사용한다. 북어는 따뜻한 물에 불려 두었다가 나무몽둥이로 두들겨 껍질을 벗긴다. 제상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올린다. 예전에는 산제당집 주변의 나뭇가지를 잘라 젓가락을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동네에 여유 비용이 있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산제당이나 산제당집 주변에서 제의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근처의 산에 가서 사철나무인 소나무나 대나무를 잘라 온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깃대'라고 부른다. 오방제를 지낼 때 각 방위에 도착하면 그 방위의 신목을 깃대에 달고 제사를 지낸다. 산제당집 안에서는 위목(位目)을 작성한다. 산신지위(山神之位)라고 쓰면 이것을 바로 제단에 있는 바위에 붙여 놓는다. 그리고 동방청제지신(東方靑帝之神), 서방백제지신(西方白帝之神), 남방적제지신(南方赤帝之神), 북방흑제지신(北方黑帝之神), 중앙황제지신(中央黃帝之神) 등을 작성한다.

제물진설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리, 2002.2.16 국립민속박물관

산제당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제의를 준비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 그 사람은 바로 산제당을 내려가야 한다. 산제에 올릴 통돼지와 떡·탕 등이 마련되면 점심을 먹는다. 제의 당일에는 모든 마을 사람이 비린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점심은 비리지 않은 음식으로 간단하게 차린다.

모든 제의 준비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난 오후 6시쯤부터 산신제를 지낸다. 제를 올리기 전에 제관은 마지막으로 세수를 한다. 세수를 한 다음 제복으로 갈아입고 산신제에 임한다. 먼저 제관이 맨 앞에 돼지머리를 들고 올라가면 그 뒤에 다른 사람들도 각자 제물 등을 들고 뒤따라 올라간다. 제관 일행이 제물을 들고 산제당에 도착하면 다음과 같이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이 진설되고 제관이 헌작을 하면 제관 일행은 재배를 한다. 재배를 한 다음에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운산2리 산신제 축문

維歲次 壬午正月辛亥朔初五日乙卯
幼學○○○ 敢昭告于
皇天后土明山大川之神
乾大坤地 止以靜體 一氣所周 成形理賊
資始資生 動則有聲 五行旣均 尊我生民
民人攸告 陰陽失宜 降厲非時 維時維靈
家國賴興 灾殃頻仍 象凜不保 伊祈伊禱
時惟孟春 齊一殫心 以幣以牲 神監在玆
恭修明禋 恐非循因 物薄誠賮 載揚載顯
賜福孔嘉 冀蒙神休 靡忱曷報謹告虔告 尙饗

독축이 끝나면 제관 일행이 재배한 다음 산제당집으로 내려온다. 제관 일행이 내려오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원래 산제당에서 올려야 하지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산제당집에서 올린다. 소지는 산제에 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관뿐만 아니라 여타의 산제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올린다. 소지의 내용은 주로 안과태평(安過太平), 운수대통(運數大通), 재액소멸(災厄消滅) 등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산제원들이 소지를 올릴 때 제관은 뒤에서 모든 액을 소멸해 달라는 의미로 '초록방'을 읊는다. 초록방은 "幼學 ○○○ 家內眷蜀保體 官灾口舌 三灾八亂 四百四病 一時尼消滅"이다. 초록방을 읊어서 액을 소멸한 다음에 소지를 올려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소지보다 초록방을 빨리 읽어야 한다.

소지와 초록방 읊기를 다한 제관 일행은 다시 산제당으로 올라가 재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산신제가 끝난다. 제관 일행은 간단하게 음복을 한 다음 제물을 들고 산제당집으로 내려온다.

산신제가 끝나면 제관 일행은 오방에 올릴 제물을 고리짝에 담아서 지게에 지고 마을로 내려와 오방제를 지낸다. 오방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두 패로 갈라 동쪽과 서쪽으로 간다. 동쪽과 서쪽에서 제사가 끝나면 산제당으로 돌아와 다시 제물을 지고 동쪽 패는 남쪽, 서쪽 패는 북쪽으로 각각 간다. 남쪽과 북쪽의 제사가 끝나면 중앙으로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낸다. 동쪽은 '동방청제지신'으로 천태리와 경계를 지고 있는 '동달'에서 지내고, 남방은 '남방적제지신'으로 '두줍메'에서 지낸다. '두줍메'는 두 집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서방은 '서방백제지신'으로 '서달'의 공판마당 서낭 근처에서 지낸다. 공판마당은 산 위에 공을 찰 수 있을 정도로 평편한 공터이다. 북방은 '북방흑제지신'으로 정주나무반의 '우묵고개'에서 지낸다. '우묵고개'는 두 봉우리 사이의 우묵한 곳이어서 '우물고개'라고도 부른다. 중앙은 '중앙황제지신'으로 마을회관 뒤쪽의 길가에서 지낸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오방을 모두 돌지 않고 산제당과 중앙에서 각각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오방제의 순서는 산신제와 동일하다. 다만 축문의 내용이 산신제와 다르다.

운산2리 동방청제지신제 축문

維歲次 壬午正月辛亥朔初五日乙卯
幼學 ○○○ 敢昭告于
東方靑帝之神 南方赤帝之神
西方白帝之神 北方黑帝之神 中央黃帝之神
地有定名 比厥生靈 六氣不和 降厲非常
方分五位 咸安其地 五行失宜 人心凜危
有願攸應 金木水火 信墜于土 寔贊陰功
亶行祀事 仁義禮智 有靈各守 默垂冥佑
維時孟春 楮幣脯菓 疾邪疫送 方里及井
敢陳菲薄 庶幾來格 攸伏攸畏 一心齊氣
展誠思報 載薦明禋 以祀以禱 敬伸虔告 尙饗

산제당 제의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리, 2002.2.2.16
국립민속박물관

소지올리기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리, 2002.2.16
국립민속박물관

축문을 읊은 다음에는 위목을 떼어내어 소각한다. 독축이 끝나면 옆에서 제관이 초록방을 읊으며 산제원들은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모두 올린 제관 일행은 다음 제장으로 옮겨간다. 오방제가 모두 끝나면 제관 일행은 다시 산제당집으로 올라간다. 이곳에서 제관 일행은 제비를 낸 사람들에게 봉송(奉送)할 음식을 일일이 나누어 담는다. 그런 다음 밤을 지새우고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마을로 내려온다.

한편 마을에는 산제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일제강점기 때 '구리미'라는 곳에 임병구라는 사람의 부친이 살았다. 어느 날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현재의 광시면 소재지로 끌고 갔다. 일본 경찰은 그를 죽이려고 총을 머리에 겨누고 발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총부리가 부러져서 임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상히 여긴 경찰이 "너는 누구를 모시는 사람이냐?"라고 묻자 임병구의 아버지는 "나는 산신(山神)을 모시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은 산신의 무서움을 알고 그를 풀어 주었다. 그 즈음에 운산리 주민들은 산신제를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산신의 영험함과 음덕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여 계속해서 제의를 지내고 있다.

산신제가 끝날 무렵에 소지불이 훤하게 오르면 각 가정에서는 집안의 평안과 자손의 건강을 기원하는 '맞시루'를 올린다.

참고문헌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이관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이관호(李官浩)

예천작평마을서낭제

정의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작곡리 작평마을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당과 의례가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축문과 문서가 잘 보관되고 있는 서낭제.

역사 작평(鵲坪)은 일명 '까치들'이라고 하며, 아래까치들과 위까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천 윤씨(醴泉尹氏)들이 영조 때 아랫마을에 터를 잡았으며, 앞산이 까치집처럼 생겼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작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석씨(石氏)가 광해군 때 입촌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1610년(광해군 2)에 충주석씨(忠州 石氏) 21대손 복수(福壽)가 안동군 풍산면 도양동에서 이곳으로 이주할 때 기념 식수한 것이 현재의 용각정(龍角亭) 느티나무이며, 다래덩굴을 치고 들어온 곳이 바로 풍수지리상 까치혈에 해당하는 곳이라 하여 까치들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마을 앞에는 철종 때 사람 남영필(南永弼)의 효자비각이 있다. 마을 앞산인 용각산에는 명당인 용뿔의 산혈(山穴)이 있다고 하여 지난 천년 동안 지관(地官)들이 드나들었으나 찾지 못했다는 말이 전한다. 현재는 각성바지 마을이며, 풍물이 매우 활성화된 마을이다.

내용 작평마을서낭제의 제당은 나무기둥과 돌로 쌓은 벽체, 양철지붕으로 된 서낭당이다. 당 내부에는 두꺼운 나무판자로 된 제단과 그 앞에 '작평성황 배성황 배동막성황신위(鵲坪城隍 配城隍 配東幕城隍神位)'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다. 원래 이 서낭당은 나무

였는데 1992년 2월 10일에 중수하면서 시멘트와 블록을 이용해 현재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서낭당은 1867년(고종 4)에 산꼭대기에 있던 것을 아랫마을 옆에 위치한 작은 산의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비석에 새겨진 신이 셋인 것은 이웃 마을인 동막(東幕)에서 모시지 않는다는 신을 이 마을로 모셔 와서 본래부터 모시던 두 서낭신과 함께 모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1936년)는 별신굿을 하면서 모셔 왔다고 한다.

제의 명칭은 서낭제[城隍祭]이다. 제의는 음력 정월 열엿샛날 0시에 행한다. 정월 초열흘날이 되면 도가와 유사를 선정하고, 도가에 금색(금줄)을 친다. 서낭제 때 초헌은 도가가 맡는다. 아헌관과 종헌관은 정월대보름날 낮에 서낭당에 금색을 치고 청소를 한 뒤에 선정한다. 제물은 어류(청어), 백감주(2되), 삼실과, 떡(쌀 2되), 참기름 등이다. 육류와 술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기름은 종지에 담아서 불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예전에는 도가에서 직접 참기름 두 되를 만들어 사용했다. 지금도 종지에 담아 밝힌 참기름불이 서낭제가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잘 살핀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공동재산이 없기 때문에 제의의 경비는 정월 초사흗날에 풍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걸립해 모은다.

제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정월대보름날 낮 12시가 가까울 무렵에 남성들이 모여 꽹과리, 북, 징을 들고 굿을 치면서 제당으로 올라간다. 12시가 되면 남자 여섯 명이 금줄을 꼬고 두 명은 서낭당 청소를 하면서 한지를 서낭당에 붙인다. 한지를 붙이는 것은 잡신을 쫓기 위함이라고 한다. 금색이 만들어지면 한지를 그곳에 꽂아서 서낭당 주변의 나무에 둘러친다. 이 일이 끝나면 세 명이 서낭당 앞에 서서 굿을 친다. 이것을 '서낭굿'이라고 한다. 이들은 서낭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절을 세 번 하고 나서 굿을 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낭당 주위를 두 차례 돌고 마을을 향해 내려간다. 마을에 도착하면 주민들은 굿을 멈추고 점심식사를 간단히 하고 나서 제관을 선정한다.

정월 열엿샛날 0시가 가까워지면 주민들은 굿을 치기 시작한다. 굿은 세 차례로 나누어서 친다. 첫 번째는 제관들에게 제의 준비를 시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관들에게 서낭당을 향해 출발하라는 신호이다. 신호에 따라 제관들이 제당에 도착하면 먼저 제물을 진설하고 제의를 진행한다. 제의는 홀기에 따라 강신-재배-고축(告祝)-초헌례-아헌례-종헌례-부복-국궁-재배-소지올리기 순으로 진행한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辛亥)正月(壬子)朔十六日
仰堂主 順興安秉模 謹齋沐 敢昭告于
城隍氏之神位 配城隍氏之神位 配東幕城隍氏之神位
伏以鶴山西麓洞鵲有名天作 園林峰秀 巷明居處
世世崇寧 人人孝悌 家家才良
伏惟 城隍在上
洋洋導達 和氣垂惠五福 比屋之潤 莫派德壬
農工商各業其職紅素庫 袴紈齊蜀生斯長斯 百歲無繹
歌唱擊壤 其新九嘉 阿逐殃除 去山阿
人無口舌 村無盜賊 官不刑杖 災消福積
閉中日月 靜裡乾坤 六畜成長 五穀繁殖 鷄爲狗吠達乎
閭村衛三千周九十 維鵲維巢如意習 習旣往之惠
惟神所賜將來之福 亦惟神顧人和家潤
神亦有願旣生旣育 壽福綿遠方來 吉祥納于門
○如水有淸如火以明愚昧者人○○者
財物○至薄 豈闕獻禮至誠
須祝無物不誠 我心湟恐○夜○寧令辰
何夕月正旣望擊鼓鳴金八音克諧馨
我酒禮潔 我○盛至誠需于神
其度思敬拜 獻頌慕○默佑
尙饗

열엿샛날 오전 10시쯤에 마을 사람들은 도가에 모여 음복을 한 다음 당고사에 사용한 비용 등을 정리하고 풍물을 치면서 즐겁게 논다. 이 마을에는 '제수흥성기'라는 결산보고서가 있다. 보통 주민들에게 5,000~3만 원을 걷는다.

참고문헌 산간신앙 2(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필자 이기태(李淇泰)

오방돌리기

표제어 마을돌기(275쪽)

오방제(五方祭)

정의 음력 정월 초순에서 대보름 무렵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오방신에게 올리는 마을공동제의. 오방은 다섯 방위, 즉 동서남북과 중앙을 말한다. 오방신은 오방을 신격화한 것으로 동방의 청제대장군(青帝大將軍), 서방의 백제대장군(白帝大將軍), 남방의 적제대장군(赤帝大將軍), 북방의 흑제대장군(黑帝大將軍), 중앙의 황제대장군(黃帝大將軍)을 일컫는다.

특징 오방제는 이러한 신들에게 한날 한시에 올리는 제의로, 우리나라 동제의 양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느 동제와 구별되는 특이한 점은 제물의 진설에 있다. 즉 신격이 오방장군인 까닭에 주요 제물은 각 장군의 몫을 별도로 준비한다. 예를 들면 술잔, 포, 메, 탕, 삼실과를 다섯 그릇씩 진설한다. 일부에서는 오방장군을 위해 다섯 개의 제상을 준비하여 각각 제물을 차려서 한 상씩 올리기도 한다. 오늘날 오방제라 표명하는 마을공동제의는 충청남도 일원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지역사례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마을에서는 매년 섣달그믐날 저녁부터 정월 초하루 새벽녘까지 마을의 세 곳에서 제를 지낸다. 이를 '오방제'라고 부른다. 제를 지내는 장소는 '하당', '중당', '상당' 세 곳이다. 하당은 마을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바닷가 언덕마루이다. 원래 100여 년 전에 지은 초가 형태의 건물이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개축하고 기와를 얹은 기록이 있으나 1970년대 말에 심한 비바람에 무너져 건물 터만 남아 있다. 그 옆으로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상당은 마을 뒤편 왕자산 기슭에 있다. 건물은 없고 커다란 바위 앞이다. 그 앞에는 제사를 지내기 알맞도록 16.5㎡ 정도의 평평한 터가 있다. 중당은 마을 뒷산에 위치한 '오방제각(五方祭閣)'을 말한다. 이 오방제각은 원래 100여 년 전에 지은 기와집이었다. 1995년에 폭우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자 마을 주민들의 집념으로 1997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이다. 오방제는 섣달그믐날 저녁에 상당과 하당에서 먼저 제를 모신 뒤 오방제각에 올라가 이튿날 새벽까지 제사를 지낸다. 제관인 화부가 오방제각 청소를 하고 솥을 걸고 음식 만들 준비를 하다가 자정이 가까워지면 메를 짓고 국을 끓인다. 제사에 사용하는 고기는 삶지 않고 구워서 상에 올린다. 예전에는 화부가 되면 엄격하게 금기를 지켰으나 지금은 많이 생략되고 있다. 화부가 제사 준비를 완료하는 자정 무렵이 되면 제관과 축관이 오방제각으로 올라가 새벽녘까지 제사를 지내고 내려온다. 원성호마을의 오방제의 역사는 300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의 목적은 마을 주민들의 평안과 바다로 고기잡이 나가는 어선의 무사고 및 풍어를 빌기 위함이

동방청제지신 제의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리, 2002.2.16, 국립민속박물관

제상

제의

오방제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리, 2002.2.16, 국립민속박물관

서방백제지신 제의

북방흑제지신 제의

중앙황제지신 제상

다. 성호리가 한창 번성하던 때에는 오방제가 성황을 이루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바다가 막히면서 옛날 분위기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에서는 음력 정월 초사흗날과 시월 초사흗날에 산신제를 마치고 마을 앞 사거리로 내려와서 오방제를 지낸다. 신체(神體)는 따로 없고 단지 다섯 방위를 수호한다고 여겨지는 오방장군이 오방제의 대상이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한지에 동방청제대장군, 서방백제대장군, 남방적제대장군, 북방흑제대장군, 중앙황제대장군을 각각 묵서하여 차일(遮日)에 붙이고 제를 거행한다. 제물은 삼실과, 포, 술, 메로 모두 다섯 그릇 준비하여 진설한다. 소지도 오방장군을 위해 다섯 장을 차례로 올리며 마을이 평안하기를 기원한다.

이들 제의와 같이 오방제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현행 동제에서 오방신의 요소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별신제로 유명한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서는 사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각각 장승이 세워져 있다. 장승의 명문도 사방의 잡귀를 추방한다는 의미에서 동서남북 '축귀대장군(逐鬼大將軍)'으로 되어 있다. 또 별신제의 축문에는 수많은 장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맨 앞을 장식하는 것이 오방장군이다. 은산과 이웃한 외산면 만수리의 장승 역시 그 신격은 전형적인 오방장군으로 인식된다. 이곳에서는 정월 초사흗날 거리제를 지낼 때 한지에 '오방신장전(五方神將前)'이라 쓴 신위를 장승의 동체에 붙이고 술잔과 탕을 다섯 개씩 준비한다. 이처럼 장승은 방위신으로서의 신격이 두드러진 까닭에 동제의 신앙 대상물 가운데 오방신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목장승 전승 지역으로 꼽히는 충남 칠갑산과 공주시 주변의 장승은 오방신 계통의 명문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장승제 외에 탑제와 거리제, 무속신앙, 가정신앙, 풍물굿에서도 오방에 대한 방위적 요소와 함께 신앙적·제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금산의 마을공동체신앙(금산문화원, 1990),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마을제당 3(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서해숙(徐海淑)

오색천

정의 서낭당 및 미륵당의 나무나 미륵의 목에 감아 주거나 오색 또는 삼색 기(旗)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헌물용 천.

내용 서낭제 제물을 차려 놓고 무당을 초청하여 축원하며 쌀을 오색천에 싸서 붉은 고추와 함께 나무에 매단다. 손진태는 우리의 서낭당을 몽골의 '오보'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오보'는 돌을 쌓아 놓고 그 위에 막대기를 꽂고 오색천을 매달아 놓았는데 이처럼 서낭당에 오색천을 헌물로 드린다는 것이다. 해안지방 당에서도 서낭신에게 제물로 오색천을 헌납하고 제물 소의 목에도 오색천을 감아 준다. 뱃기는 단색·삼색·오색으로 하여 외폭 기, 세폭 기, 다섯폭 기를 만든다. 가장 위가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가장 아래가 땅을 상징하는 흑색을 기본으로 청홍흑색·청홍황백흑색 등으로 한다.

필자 이인화(李仁和)

오온신제(五瘟神祭)

정의 고려시대에 온역(瘟疫)을 일으키는 다섯 방위의 전염병신 또는 사계절과 한 해의 중심, 즉 다섯 계절의 전염병신을 물리치기 위한 국가 제사. 각 마을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마을 제당에 합사하기도 하였다.

내용 전염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던 고려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전염병 중에서 전염성이 강한 온질(瘟疾)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 고려 숙종과 예종 대에 온질이 유행하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오온신제(五瘟神祭)를 지냈다. 신종 대에도 제를 지낸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전염병 치료법으로 크게 유행했다고 할 수 있다.

오온신제는 민간 차원의 제사라기보다 국가 차원의 제사이다. 도교(道敎)의 초제(醮祭)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고, 무속의례로 보기도 한다. 그 성격이 무엇이든 전근대사회에서 전염병은 악질(惡疾)이라 불렀다. 전염병은 바람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적당한 약물 치료법을 찾기가 어려운 질병으로 취급되었기에 종교적 방법이 동원되곤 했다. 오온신제 역시 이러한 전염병 대처방법 중 하나이다. 당시에는 모든 질병을 귀신의 탓으로 여겼기에 귀신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적 방법이 치유법으로 사용되곤 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고려는 본래 귀신을 두

려워하며 믿고 음양에 얽매여 병이 들면 약은 먹지 않고, 부자 사이 같은 아주 가까운 육친이라도 서로 보지 않고 오직 저주와 염승을 알 따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도 종교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전염병은 오늘날까지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피해가 커서 대처법이 다양하다. 전근대사회에서는 꾸준히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전염병에 대한 종교적 방법을 사용했다. 그 예로 여역지신(癘疫之神)이라 하여 전염병과 온갖 질병을 예방하는 신령으로 여기기도 한다. 비록 오온신제라고는 칭하지 않지만 전염병과 몹쓸 질병에 대한 제사는 이러한 영향 속에 있다.

온역은 역질(疫疾)의 하나로, 고려 중기에 크게 유행했다. 고려 중기에는 10년에 한 번씩 전염병이 돌고, 해골이 길거리에 굴러다닐 정도로 전염병의 피해가 컸다. 국가 차원에서 이 전염병을 진압하기 위해 1100년(숙종 5)부터 1203년(신종 6)까지 오온신제, 온제(瘟祭)를 지냈다. 명칭은 다르지만 이 두 제사 모두 온역(瘟疫)이 돌때에 지냈다. 오온신을 중국에서는 다섯 방위의 전염병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계절과 한 해의 중심을 포함하여 다섯 계절의 전염병 신령을 지칭하기도 한다. 오온신에 대한 이러한 관념에서 오온신제가 거행된 듯하다.

오온신제는 고려의 국도를 포함하여 지방의 행정단위인 5부(五部)에서 각기 거행되었다. 1100년(숙종 5) 6월에 5부에서 오온신제를 거행했고, 1101년(숙종 6) 2월에는 5부에서 온신제를 지냈다. 숙종 6년 3월에는 오온신제를 지냈고, 1109년(예종 4)에 5부에서 온신제를 지냈다. 1203년(신종 6)에는 군중(軍中)에 대역(大疫)이 돌자 칠귀(七鬼)와 오온신에게 치제했다. 이처럼 오온신제, 온신제는 국중보다 지방 행정단위인 5부에서 거행되는 사례와 관련이 깊다. 5부에서 일제히 오온신제를 지냈다는 것은 중앙과 지방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5부는 고려의 전국을 대표하는 곳으로, 전염병이 발발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치료법을 사용했다. 전염병을 치료하던 종교적 방법인 도교의 초제, 도부신초제(道符神醮祭), 불교의 경행(徑行), 반야법석(般若法席), 소룡도장(召龍道場) 등이 5부에서 거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오온신제는 지방 단위에서 행해졌다. 이는 오온신제가 다섯 방위의 신령에게 지내는 제사인 동시에 지방 5부에서 행해진 지방형 전염병 치료방법이었다고 하겠다. 전염병이 발병한 경우에만 거행되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정기적이지 않다.

오온신제는 다른 전염병 치유법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적 치유책인 여제(厲祭)로 대체된다. 여제는 전염병을 유발하는 15위의 무주고혼(無主孤魂)에게 지내는 유교식 제사이다. 이것은 조선 건국 후 불교식 의례의 유교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체된 의례이다. 1400년(정종 2)에 처음으로 여제단(厲祭壇)을 각 주현(州縣)에 설치했다. 사직단제, 성황제와 더불어 여제도 고을의 수령이 주관하는 제사인 관행제(官行祭)로 치러졌다.

여제는 여단(厲壇)이라는 제단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간혹 여제당(厲祭堂)이라 하여 당집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전남 진도와 강원도의 일부 마을에는 지금도 남아 있다.

지역사례 전남 진도의 교동리에서는 1920년대 초반까지 여제가 거행되었다. 여제단은 기와지붕을 얹은 단칸집으로 사방에 돌담이 둘러져 있었다. 이 제사는 교동리가 주관하고 이 밖에 서외리, 북상리, 사정리, 송현리 등이 참여했다. 제사는 일년에 두 번, 정월대보름과 시월에 지냈다. 정월 열나흗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거리제를 모신 뒤 4개 마을에서 뽑힌 제관들이 제물을 갖추어 여제단으로 향한다. 이때 주민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농악기를 울리고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 "우~"하는 함성을 지르며 귀신을 몰아 여제단까지 함께 간다. 귀신을 몰아 여제단에 이르면 함성이 절정에 이른다. 제관들은 여제단 앞에 제상을 차리고 치제한다. 제사를 마친 후에 한 사람이 "무자귀(無子鬼)"라고 외치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일제히 "무자귀"하며 엎드려 절을 하고 이내 여제단 문을 닫는다. 이는 진도에 떠도는 귀신을 가둔 것이라고 한다. 여제단은 '귀신을 잡아 가둔 감옥'이라고 한다.

강원도 삼척시 일원에서는 여역지신을 모시고 질병 예방과 치유를 위해 마을 제사를 지낸다. 이 제사를 '서낭제' 또는 '거리제'라고 부른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서낭당에는 성황지신, 사직지신(또는 토지지신), 여역지신의 위패를 모셔 두었다. 조선시대에 수령이 주관하던 관행제의 대상 신격들로, 관행제가 민간화 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삼척 지역에서는 보편적이다. 이러한 마을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주변 마을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낭당은 하천의 자연제방 앞이나 고갯마루의 경계에 설치한다. 여역지신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소의 전염병인 우역(牛疫)에도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조선 후기에 전염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한 방법이 없던 전염병 예방책, 방어책으로 여역지신이 마을신앙의 신령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전염병의 발생 원인이 귀신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상식이 확산되었다.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에서는 이러한 까닭에 1990년대 후반에 6위(位)의 서낭신 중 여역지신을 제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질병에 대한 대처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자연스레 없앤 것이다. 전근대사회에서 전염병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질병에 대한 대처법으로 시작된 오온신제는 여제, 여역지신에 대한 서낭제 등으로 명칭이 다르지만 당시에는 효과적인 치유책이자 예방책으로 오랫동안 존속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고려시대 전염병과 치병의례(이정숙, 이화사학연구 34, 이화사학연구소, 2007), 중국의 신령(G. 푸르너저, 조흥윤 역, 정음사, 1984), 진도의 여제고(나경수, 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1994).

필자 김효경(金孝慶)

오쟁이

정의 나쁜 액과 질병을 담아 없애는 제의용 도구. 거리제를 지낼 때 액운이 낀 사람의 오쟁이를 만들어 개울이나 마을 밖으로 던져 한 해의 액운을 미리 막거나 떨쳐버리는 데 사용한다.

형태 오쟁이는 마을 제의의 하나인 거리제 이외에 볏가릿대[禾竿] 풍속은 물론 가신신앙 등에서도 보인다. 따라서 오쟁이의 형태와 크기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오쟁이라는 명칭에 '짚으로 만든 작은 섬[멱서리, 가마]'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은 보자기나 주머니에 물건을 넣어 놓은 형태를 통틀어 오쟁이라 부르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제의용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오쟁이'의 명칭은 제의적 측면보다는 오쟁이가 지닌 본래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쟁이가 지역에 따라 여러 용도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20~30㎝로 작은 섬 모양으로 생긴 것을 통틀어 오쟁이라 부른다. 강화도 교동의 가신신앙에서 보이는 오쟁이는 일반적인 오쟁이와 달리 닭둥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오쟁이는 한 뼘 반 정도의 길이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다.

내용 마을신앙에서 오쟁이가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거리제와 마을 제의로 나눌 수 있다. 거리제는 정월 초사흘이나 대보름 무렵에 마을 어귀 또는 거리에서 무병제액과 풍농을 기원하는 마을굿의 하나로, 신격의 대상에 따라 노신제 · 장승제 · 서낭제 등으로 불린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행해지는 거리제에는 오쟁이가 제의용 도구로 사용된다. 이 지역 거리제의 과정에는 하천에서 행하던 '액막이 다리 놓기' 혹은 '수막음 다리 놓기'라는 것이 있다. 액막이 다리 놓기는 귀한 자식을 낳았거나 식구 가운데 액운이 낀 사람이 있을 때 볏짚으로 오쟁이 세 개를 만들어 그 안에 동전을 담아 마치 다리를 놓듯 개천에 늘어놓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오쟁이를 진도 주민들은 '오장치'라고 부른다. 이 지역의 거리제에 등장하는 오쟁이는 섬처럼 엉성하게 엮어 만든 것으로, 20~30㎝의 네모난 가방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지역사례 전남 진도 지역에서는 거리제 이외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어린아이가 죽을 때면, 죽은 아이를 오장치에 담아 당산나무가 모셔진 산으로 가져가 외진 곳에 있는 나무에 걸어 놓기도 한다. 죽은 아이를 나무에 걸어 놓으면 부패하거나 까마귀가 파먹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마을과 가정에 액막음이 된다고 믿었다. 전남 장성군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풍속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매림'이라 하였다.

충남 내포 지역에서 정월대보름날에 행해지던 볏

가릿대 세우기에서도 볏가릿대 꼭대기에 오곡을 넣어 만든 오쟁이를 매달아 놓는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오곡의 씨앗과 곡물을 싸서 장대의 끝에 매달아 마을의 공터나 공동 우물 또는 부잣집 마당 옆에 세워 놓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정월대보름날에 세워둔 볏가릿대는 2월 1일에 내리는데, 오쟁이에 넣어둔 곡식의 상태를 보고 한 해의 풍년을 점치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이 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노비들에게 나이 수대로 나눠 주기도 하였다.

경기도 도당굿에서도 오쟁이가 제구의 하나로 쓰인다. 도당굿의 뒷전 거리인 어뎅이를 놀리는 과정에서 지피로 만든 작은 섬 모양의 오쟁이가 보이는데, 여기서의 오쟁이는 온갖 만물이 들어 있는 보물주머니와 같은 구실을 한다. 어뎅이는 오쟁이에 담긴 온갖 물건을 되찾고자 만물의 이름을 열거한다. 이것은 굿하는 곳에 만물이 쌓이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효과를 위한 행동이다. 마지막에 어뎅이는 오쟁이에 담긴 온갖 만물을 챙겨서 다시 전국적인 노정을 행한다. 그리고 노정기의 형식으로 조선 팔도를 헤매다가 도당굿에 가는 도당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도당굿에서의 오쟁이는 온갖 만물을 챙기고 노정을 떠난다는 의미에서 별비[노잣돈]를 보관하는 주머니의 성격이 강하다. 다른 지역[인천광역시 동막]의 도당굿에서는 굿꾼이 오쟁이와 함께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며 별비를 걷는다. 굿꾼이 들고 다니는 빗자루는 무언가를 쓸어 담는 용도이고, 빗자루와 함께 가지고 다니는 오쟁이는 쓸어 모은 돈을 담는 도구인 것이다.

가신신앙에서의 오쟁이는 가신(家神)의 하나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강화도 교동면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오쟁이가 여러 가신과 함께 안방에 모셔져 있는데, 이것은 집안의 자손들이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다.

한편 강화도 교동면에서는 전염병이 돌 때 죽은 아이의 시체를 오쟁이에 담아 소나무에 걸어 놓는다. 이렇게 하면 전염병이 물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력 정월대보름날 오쟁이 세 개에 동전 하나씩 넣어 개울가에 버리는데, 그러면 그 해의 액운이 다 물러간다고 한다.

오쟁이가 쓰이는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보면, 오쟁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와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마을의 나쁜 액과 질병을 담아 버리는 도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액과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와 기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오쟁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풍속 중에 정월대보름날에 제웅을 만들어서 버리는 '제웅치기'가 있다. 제웅치기는 그해 나쁜 액이 든 사람의 제웅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버리는 풍속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제웅을 버리면 누군가가 제웅을 주워 가는데, 그렇게 하면 제웅을 줍는 사람에게 그 액이 옮아간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한 해 아무런 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액막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당굿 뒷전의 전통연희적 분석-동막도당굿을 중심으로**(묵진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6), **경기도 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짚풀 문화**(인병선, 현암사, 1995),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1).

필자 **서종원(徐鍾源)**

옥천청마리제신탑 (沃川靑馬里祭神塔)

정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에 있는 탑신당, 솟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등을 아우르는 용어. 1976년 12월 21일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의 제신탑은 탑신당, 솟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제신당(祭神堂)' 또는 '탑신제당(塔身祭堂)'으로 부르고 있다. 탑신당은 지름 5m, 높이 5m 가량으로 잡석을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전형적인 돌탑 형태를 취하고 있다. 꼭대기에는 기다란 돌이 솟아 있다. 솟대는 탑신당 바로 옆에 있으며, 5m가량의 높이에 오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두 기의 장승은 모두 1.5m가량의 크기이며 사람의 형상을 먹으로 그려 넣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내용 첫째, 탑신제를 지낸다. 제의 일시는 정월대보름날 오전 10시로 고정되어 있다. 제관은 지난 일 년 동안의 부정 여부 및 생기복덕 합당 여부를 가려 한 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제관은 일주일 동안 근신한다. 제의 일주일 전부터 집 주위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둘러쳐서 외부인의 접근을 금한다. 제물은 제관이 백설기, 삼색실과, 제주(청주) 등을 풍성하게 마련한다. 제비는 가구당 '정성미' 한 되를 갹출한 공동기금과 옥천문화원의 보조로 충당한다. 본격적인 제의에 앞서 마을 풍물패가 흥을 돋운다. 제의는 진설, 분향, 헌작, 소지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 헌작은 옥천군수, 옥천문화원장, 도의원, 군의원, 면장 등 제의에 참여한 단체장 가운데에서 희망자가 담당한다. 제의가 끝나면 참여자 모두 짐대제를 지내기 위해 솟대로 이동한다.

둘째, 솟대제를 지낸다. 솟대의 오리는 윤달이 든 해에 새로 깎아 올린다. 솟대용 신목은 정월 초닷새를 전후한 시기에 50년 이상 된 울곧은 나무로 지역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이후 정월 열나흗날에 본격적으로 벌목을 한다. 벌목하기 전에 나무 아래에 백설기, 청주, 포로 간단히 진설한 다음 재배한다. 이때 이장은 "우리 주민들이 훌륭하다고 선정을 했고 또 산주인하고도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비손한다. 벌목은 반드시 도끼를 사용하며, 세 번째 도끼질까지 "도끼밥이오! 도끼밥이오! 도끼밥이오!"를 연방 외친다. 이후 신목이 운반되고 다듬고 세우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신목을 운반하면서 "모셔가세 모셔가세 천하장군 모셔가세 / 모셔가세 모셔가세 지하장군 모셔가세 / 모든악귀 물리치실 추악신을 모셔가세 / 영신신령 주신선물 조산들로 모셔가세"라고 노래하면서 행동을 통일한다. 제의 명칭은 '짐대제'이다. 제의 일시는 정월대보름날 탑신제를 마무리하고 나서 곧 바로 진행한다. 제관, 제물 제비 마련 제의 순서, 헌작 등은 탑신제와 같다. 제의가 끝나면 참여자 모두 장승제를 올리기 위해 장승으로 이동한다.

셋째, 천하대장군을 대상 신격으로 장승제를 지낸다. 장승은 솟대와 마찬가지로 윤달이 든 해에 새로 깎아 세운다. 장승용 신목 선정을 비롯해 제의 전반이 솟대의 경우와 같다. 다만 제의 명칭은 '장승제'이다. 제의는 정월대보름날 짐대제를 끝내자마자 곧 바로 이어서 진행한다. 제관을 비롯해 제물, 제비, 제의 순서 등은 탑신제와 같다.

넷째, 지하대장군을 대상 신격으로 장승제를 올린다. 장승과 관련한 내용 역시 솟대와 같다. 이것도 제의 명칭은 '장승제'이다. 제의는 정월대보름날 천하대장군장승제를 마치자 마자 진행한다. 제관을 비롯한 제물, 제비 등은 탑신제와 같다. 다만 제의는 천하대장군을 기원의 신격으로 삼아 올린 제물의 일부를 떼어내 지하대장군 앞에 진설하는 것으로써 이루어진다. 한편 이 의식은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숫총각이 전담한다. 제의를 마무리하면 풍물을 울리며 음복한다.

참고문헌 **민속지**(충청북도, 1987), **옥천군 문화유적분포지도**(옥천군, 2006),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이창식(李昌植)**

완도어두마을갯제

정의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어두마을 선창에서 양식어업의 발전과 마을의 안전을 목적으로 행하는 마을 의례. 바닷가 마을에서 행하는 갯제는 둑제, 풍어제, 어장제, 서낭제, 날제, 수신제, 해신제, 용신제, 용왕제, 용굿, 유황제, 헌식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역사 약산면 해동리 어두마을 갯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을 당산의 유래와 관련된 비석에 새겨진 기록을 볼 때 300여 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두리는 300여 년 전인 1600년대 말에 김씨, 박씨, 권씨 세 성씨가 들어와 정착했다. 이들 입도조가 들어와 심은 나무가 형제처럼 서로 꼬여서 한 나무처럼 자랐다. 마을에서는 이 당산나무를 할머니당산이라 부르며 정월대보름날에 제사를 지냈다. 나무가 고목이 되어 쓰러져도 마을 사람들은 땔감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마을 주민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 나무를 가져다 땔감으로 사용한 뒤에 좋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마을 노인들은 갯제의 역

사도 당제와 같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당제는 입도조 세 분이 심은 나무를 신체(神體)로 모시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의례이지만 갯제는 용왕님에게 갯일, 특히 김 양식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수산의례다.

내용 어두리에서는 정월과 팔월 두 차례 갯제를 지낸다. 갯제 대부분이 섣달그믐날이나 정월대보름날에 지내는데 어두리갯제는 팔월 보름날에 개최하는 점이 특징이다. 주민들은 팔월에 하는 갯제를 특별히 '보름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김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90년대까지 어두리의 주요 소득원은 김 양식이었다. 김 양식의 성패는 김 포자가 잘 붙느냐 잘 붙지 않느냐에 의해 결정되었다. 인공으로 포자를 붙이는 방식이 개발되기 전까지 어두리 갯벌에서 포자를 직접 붙였다. 어두리 갯벌은 포자가 잘 붙고 품질도 좋아 완도는 물론 일본에서도 김발 포자를 받아갈 정도였다. 이처럼 자연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갯벌과 바다를 모시는 의례가 발달했다.

예전에 어두리에서는 마을 앞 선창, 선두포, 진짝지의 세 곳에서 갯제를 지냈다. 선창에서는 크게 지냈으며, 나머지 두 곳은 배를 타고 나가 돼지머리를 바다에 헌식하고 비손을 했다. 이들 세 지역에 갯제를 지낸 것은 김 양식장의 운영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완도의 김 양식장은 매년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김 양식 행사권이 있는 가구들은 어장의 위치를 주비(제비)를 뽑아 선택한다. 어두리는 마을을 둘러싸고 동쪽, 서쪽, 남쪽의 갯벌이 마을어장이다.

제물진설
전남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어두마을, 2003.9.9
국립민속박물관

헌식
전남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어두마을, 2003.9.9
국립민속박물관

갯제
전남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어두마을, 2003.9.9
국립민속박물관

추첨에 따라 어느 쪽이나 양식지가 될 수 있다. 김 양식이 잘 안 되면 갯제를 제대로 못 지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갯벌에서 정성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1990년 이후 김 양식장은 미역 양식장으로 바뀌었다. 약산면 어두리의 김 양식장은 멀리 청산도 인근 깊은 바다로 옮겨 가기도 했다. 연안의 갯벌이 오염되고 지주식 김 양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지주식 김 양식은 부류식 어장으로 바뀌었다. 마을 주민 100여 가구가 김 양식을 하던 것이 네댓 사람으로 줄었다. 양식장도 마을어장이 아니라 별도로 허가를 냈다. 초기에는 김 양식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마을의례였지만 소수가 개인면허로 김 양식을 하면서 마을의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세 곳에서 행하던 의례는 선창에서만 하는 의례로 축소되었다.

갯제의 형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가가호호 음식을 준비해 작은 상을 차리고 갯제를 지냈다. 액막이 의례의 일종으로 바가지에 쌀을 조금 넣고 초를 꽂아 불을 밝히고 바다로 떠나보내기도 했다. 김 양식이 본격화되면서 마을공동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요즘은 매년 반별로 돌아가면서 갯제를 지내며, 어촌계장과 반 부녀회 책임자에게 맡겨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어두리갯제의 운영은 마을임원 구조를 이해해야 알 수 있다. 어두리마을 임원은 이장, 어촌계장, 지도자,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반장(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제는 이장이 주관하지만 갯제는 어촌계장이 맡는다. 음식은 부녀회 또는 마을의 깨끗한 집에서 준비한다. 반별로 부녀회 책임자가 있다. 갯제의 제주는 이장, 어촌계장, 지도자가 맡는다. 이를 '삼부요인'이라고 한다.

김 양식이 번창할 때에는 보름 전날 밤에 김 양식이 잘되는 마을 갯벌에 몰래 들어가 개흙을 훔쳐다가 어두리 갯벌에 뿌렸다. 많이 훔친 곳은 인근 가래마을 갯벌이다. 다른 마을 청년들도 어두리 갯벌에 와서 개흙을 훔쳐간다. 당시에는 서로 못 훔쳐가게 청년들이 지키는 '김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나오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잘사는 집 대문 안의 흙을 훔쳐다가 자기집 부뚜막에 바르는 '복토훔치기'와 비슷한 의례이다.

갯제를 지내면서 김 포자가 '남의 마을로 가지 말고 우리 마을로 가서 엉겨 붙어라'라고 빌기도 한다. 주민들은 김발에 잡태(파래, 매생이)가 붙지 않고 김 종자만 붙어 잘되기를 물아래 용왕님에게 빈다. 팔월 추석은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의 계절이지만 김과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을 하는 어민들에게는 바다농사의 시작이다. 어두리처럼 김 양식이 발달하고 수산업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는 전통적으로 행해 오던 정월 갯제 외에 추가적인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당시 지주식 김 양식은 마을어장에서 이루어지며, 공동으로 관리하고 작업하며 분배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이 높았다.

갯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보름 전날에 제물을 준비한다. 제비로는 마을에서 10여 만 원을 지급한다. 제물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음식을 장만하는 화주 집에서는 이것으로 제물을 마련한다. 그만큼 당제에 비해 갯제는 축소되었다. 열나흗날 오후 5시에 선창 바닥에 자리를 깔고 제물을 차린다. 제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돼지머리이다. 돼지머리는 용왕님에게 헌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과일과 나물, 메 세 그릇과 술 석 잔을 올린다. 삼부요인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그리고 징소리와 함께 돼지머리를 바다에 던진다. 갯벌이 드러날 때 시작한 갯제는 마무리될 무렵에는 물이 들어와 헌식하기 좋은 물때가 된다. 돼지머리 헌식에 이어 떡, 메, 과일, 나물 등을 용왕님께 바친다. 이때 물아래 용왕님께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 잘되게 해 달라고 빈다. 육

상축양 등 바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돼지머리, 나물, 정화수를 차려 놓고 비손을 하기도 한다. 이웃한 당목마을보다 징소리가 먼저 나야 좋다고 믿기 때문에 갯제는 해가 지기 전에 일찍 지낸다.

지역사례 갯제의 형태는 당제와의 결합형과 독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제와 결합한 경우에는 상당제, 하당제, 갯제(거리제) 삼원구조이거나 당제와 갯제로 이원화 되기도 한다. 당제가 엄격한 제관 중심의 의례라면 갯제는 남녀노소 참여하는 축제형인 경우가 많다. 갯제는 불러온 신을 보내거나 잡귀잡신과 액을 물리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연안의 갯제는 양식어업의 풍흉 및 쇠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반면에 먼 바다의 갯제는 고기잡이, 특히 안강망어업의 쇠퇴와 관련이 깊다.

특히 어두리와 같은 섬에 위치한 득암리의 갯제는 매우 독특하다. 매년 정월 열나흗날 저녁 7시쯤에 마을 청년 20여 명이 마을 선창에서 갯제를 지냈다. 지금도 마을 부녀자들이 갯제를 주관한다. 깨끗한 가정에서 제물을 걷고 장만하여 마을청년회관, 마을중앙, 선착장에서 제를 지냈다. 절차를 보면 짚 위에 진설을 하고 술을 올리고 재배하는 간단한 순서이다. 제를 주관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물아래 김서방' 하고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어이' 하고 대답한다. 이어 제물을 바다에 던져 헌식을 하고 풍물을 치면서 '거렁지 띄우기'를 한다. 거렁지는 짚으로 만든 일종의 배로, 거렁지 안에는 작은 그릇에 불을 밝히고 약간의 제물을 담았다. 주민들은 거렁지를 띄워 보내면서 해난 사고 방지와 김, 미역, 톳 등 해조류의 풍작을 기원한다.

참고문헌 **갯벌을 가다**(김준, 한얼, 2004), **김준의 갯벌이야기**(김준, 이후, 2009), **서남해안 갯제와 용왕신앙**(이경엽,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필자 김준(金準)

완도예송리당산

정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의 당목계곡에 있는 당산제를 지내는 제장.

형태 예송리 다목계곡 동백나무 숲 안에 두 칸짜리 기와로 지붕을 한 당집과 당집 뒤쪽에 시멘트로 제단을 만든 산신제 제장, 갯가 소나무 밑 절개지에 해신제를 지내는 제장이 있다.

역사 보길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서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보길도와 예작도 두 개의 유인도와 10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예송리는 경작지가 영세하여 밭이나 산비탈을 이용한 고구마와 보리가 주요 식량자원이었지만 김과 전복 양식을 비롯해 최근에는 미역 양식이 활발하다. 예송리는 예의를 숭상하고 인륜의 도덕을 함양하는 뜻에서 예작(禮作)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월송과 예작 마을을 합하여 예송리라 하였다. 예송(禮松)이라는 의미는 예의 바르고 온화한 풍속을 계승하고 있으며 마을 주변의 소나무들도 예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변의 상록수림은 1962년 12월 3일에 '천연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예송리 당은 마을 뒤쪽 서북쪽으로 격자봉과 동쪽 산 능성이 마주한 계곡에 있다. 일 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이 흐르며, 주변에는 수백 년 된 잿밥나무 · 흰가시나무 · 동백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 예송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신위를 모시고 있는 당이 위치한다. 당초 예송리에는 할머니만 모셔오다가 몇년 전에 부용리에 있는 할아버지 당에서 할

당집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006.12.16
김준

당산나무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006.12.16
김준

아버지를 모시고 와 현재는 두 분을 모시고 있다. 당집 계곡에 당신목이 있으며, 그곳에 제당을 만들어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당할머니 신위와 당할아버지 신위를 모시고 섣달 그믐날 밤 10시에 당제를 지낸다. 제주는 보름 전에 마을 대공회에서 생기복덕을 따져 선정한다. 제주에 선정되면 제일 하루 전날 당목 계곡에서 깨끗한 생수로 목욕재계를 한다. 제물은 쇠머리 한 개, 메 두 그릇, 해물 세 가지 이상, 건포, 탕, 삼색과일(대추, 밤, 감)을 준비한다. 특히 삼색과일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 대추는 자손 번식을 의미하고 감은 감나무의 생명력처럼 어려움 극복과 번성, 밤은 밤 씨앗이 싹틀 때 밤이 달려 있는 것처럼 항상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명심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천연기념물인 예송리 마을 숲은 해안가를 따라 발달해 있다. 이 상록수림은 길이 약 740m, 폭 30m쯤 되는 대상림(帶狀林)으로 반달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숲은 그 뒤쪽에 있는 부락과 농경지를 보호하고 방풍림 구실도 하였으며, 어족(魚族)을 보호하는 어부림(魚付林) 기능도 잘 발휘한 것으로 짐작된다. 약 300년 전에 심어졌다는 말이 있으며, 그 뒤 자연생의 수종이 많이 가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록활엽수림이라고는 하지만 상당수의 곰솔이 자라고 있다. 곰솔 가운데 큰나무를 골라 이 마을 사람들은 당산목으로 정하고, 그 나무줄기가 비스듬히 누워 있기 때문에 시멘트 기둥을 설치해 보호하고 있다. 당산목 곰솔의 수령은 1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섣달그믐날에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당제(堂祭)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고기잡이의 안전 및 풍어를 축원한다. 이처럼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의 신성(神性)을 외경함으로써 자신들의 생존이 평화롭고 풍요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청**(cha.go.kr).

필자 김준(金準)

완도장좌리당제

상호참조 송징장군(511쪽)

정의 장보고와 청해진 군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당제와 양식 및 어업이 잘되고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갯제를 포함하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장좌리제당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2009.3.12, 김준

의 마을 의례.

역사 장좌리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속한 마을로, 읍소재지에서 북으로 약 5㎞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장좌리의 본래 이름은 장재리(張在里)였다고 한다. 장씨 성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장보고 일가와 관련성을 빌미로 일제강점기 장보고의 흔적을 없애려고 장좌리(長佐里)라 했다는 설이 있다.

이곳에 828년(신라 흥덕왕 3)에 중국과 일본의 무역로를 확보하고 해적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장보고는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끄는 청해진대사로 임명되었다. 청해진은 서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해적을 소탕하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 중계무역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한 장보고는 이후 신라 왕위 계승에 휘말려 귀족 김양(金陽)의 사주를 받은 염장(閻長)에 의해 841년 암살당한다. 장보고가 죽자 청해진도 851년(문성왕 13)에 폐지되어 1만여 군사와 주민들은 벽골군(전북 김제)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장좌리에 다시 마을이 형성된 것은 임진왜란 후 인동 장씨(仁同 張氏), 진주 소씨(晉州 蘇氏), 창원 황씨(昌原 黃氏)가 입주하면서이다.

장좌리 주민들은 장섬과 마을 사이 물길을 막아 물고기를 잡았다. 수심이 낮고 물발(조류)이 좋은 장섬 일대는 완도에서 가장 일찍 김 양식이 시작된 곳이다. 김 양식으로 인근 죽청리와 대야리 논을 가장 많이 부치기도 했다. 지주식 김발이 쇠퇴하면서 김 양식은 중단되고 일부 석화 양식, 미역 양식, 낙지잡이(주낙), 바지락 양식을 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미역공장이 들어서면서 물때에 맞춰 갯일을 하던 생업 대신 새벽에 출근해 밤에 퇴근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청해진이 설치된 장섬은 장좌리 주민들이 고구마를 캐고 마늘을 심던 밭이었다. 한 바퀴를 도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은 섬, 정상에 후박나무와 동백숲이 우거졌을 뿐이다.

장좌리제당은 장섬의 당집과 마을 안 당나무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장섬의 당집 주위에는 후박나무와 동백나무가 우거져 있다. 1984년에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었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청해진 관련 발굴조사와 복원이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장섬과 장좌리를 연결하는 목교가 완공되었다. 장섬에 있는 당집 중앙에는 장보고 대사의 그림이 걸려 있다. 왼쪽에 혜일 대사, 오른쪽에 정년 장군을 각각 모셨다. 예전에는 송징 장군을 주신(主神)으로 모셨으나 1982년 남도문화제에 출전하면서 청해진과 관련이 있는 장보고 대사를 추배했다. 이후 네 분을 모시다가 최근에는 장보고 장군, 혜일 대사, 정년 장군 세 분을 모시고 있다. 장좌리 마을당제의 주신격이 송징 장군이냐 장보고 장군이냐 하는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지내고 있지만 임억령의 영웅서사시 〈송대장군가(宋大將軍歌)〉를 보면 무당에 의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내용 당제를 준비하기 위해 처음 하는 일은 정월 초사흗날 마을 대동공회(大同公會)를 개최해 제관, 제비, 당굿 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다. 제관으로 당주 부부와 집사를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려면 친가는 물론 처가까지 부정과 유고(有故)가 없어야 한다. 당주는 제물 일체를 준비하고, 집사는 독축과 집례를 관장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소변·대변을 본 뒤 손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제물은 쇠머리, 돼지 한 마리, 생선, 과일, 나물 등이다. 구입할 때에는 흥정하지 않고 값을 치른다. 제물을 만들 때 간을 보지 않으며, 고춧가루 등 양념을 하지 않는다. 제물 외에 주민이나 참가자들이 먹을 음식은 부녀회에서 별도로 준비한다. 정월 열나흗날이 되면 당집·공동우물·사장거리를 청소하고, 금줄을 치고, 황토를 파다가 놓는다. 이러한 준비는 반별로 돌아가며 한다. 당주는 매일 마을의 길이 열리는 썰물 때 장섬에 들어가 당집에 불을 밝히고, 물이 들면 배를 타고 빠져나온다. 당제는 마을회의(대동공회)-금기 및 당제준비-당굿(당제)-사장굿-샘굿-마당밟이-파장굿-갯제-결산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당제가 시작되는 정월대보름날에는 개(갯벌)를 막아 주민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전에는 사나흘 동안 개를 막기도 했다. 당제를 위해 장좌리 사람들은 정월대보름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장섬을 오른다. 매년 당에 오를 시간이면 물길이 열려 굿을 하면서 오를 수 있다. 당주가 제물과 함께 가장 앞서고, 진설을 위해 부녀회원들이 따른다. 이어 길굿을 치면서 굿꾼들이 당집에 오른다. 당으로 오르는 일행은 남자짐꾼(제물), 여자짐꾼(진설), 당주부부, 이장, 집사, 포수, 우창부, 좌창부, 상쇠, 수징, 부징, 장보고기, 영기, 부쇠, 삼쇠, 종쇠, 영기, 설장구, 부장구, 설북, 2북, 3북, 4북, ……, 13북, 끝북 순이다.

완도장좌리당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2005.2.23, 송기태

완도장좌리당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2005.2.23, 송기태

당산나무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2008.12.14
김준

당주가 당집에 들어가 제물을 진설하고, 해가 뜨려는 순간 포수의 신호에 따라 상쇠가 굿을 치면 당집 마당으로 들어가 도열한다. 당집 안에선 신체(神體)를 마주보고 중앙에 이장, 오른쪽에 집사, 왼쪽에 당주부부가 각각 선다. 이장이 술을 올리면 초헌-독축-아헌-소지 순으로 제의가 진행된다. 재배할 때마다 굿을 친다. 이어 이장과 포수가 들어가 한지에 음식을 싸서 땅에 묻고 술을 붓는다. 이를 사신(辭神)이라고 한다. 사신을 하는 동안 당주 내외, 집사, 포수, 창부는 제상에서 제물을 내려 헌식 준비를 한다. 헌식은 여자당주와 집사가 주관한다. 이는 장군님을 따라온 군사들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 헌식상의 음식들을 아침식사로 음복한다. 음복을 하고 난 다음 잡귀잡신굿과 당집을 도는 날당산굿을 끝으로 내려와 배를 탄다. 배를 타고 마을로 돌아올 때에는 해적을 물리치는 '전승락', 청해진으로 환진하는 배굿 '선승락' 등이 재현된다. 마을에서는 마을샘굿, 당굿과 마당밟이로 이어진다.

堂祭 祝文
維歲次 檀紀四千三百三十八年 (乙酉) 正月十五日
長佐里 里民代表 (郭貞男) 敢昭告于
顯張淸海大使保皐之神位
顯宋大將軍徵之神位
威冠一代 靈存永世追慕 玆値上望 謹以淸酌
庶羞恭伸 奠獻 尙饗

당제와 별도로 정월 그믐날에 지낸 갯제는 1980년대 이후 당제와 같은 날짜에 진행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갯제의 신격은 용왕이며, 음식은 당주 집에서 준비한다. 당제와 같은 날짜에 지내지만 음식만은 별도로 준비한다. 보통 오후 6~7시쯤에 장좌리와 장섬 사이 북쪽 물이 빠진 갯벌에서 지낸다. 당주부부가 음식을 준비해 진설하면 군중이 굿을 치면서 갯벌로 이동한다. 이때의 굿은 당에서 치는 제굿과 같다. 당주, 집사, 이장이 제관이 되어 제를 진행한다. 제를 지내고 준비해 둔 짚에 제상의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 헌식을 한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상을 바닷가에 내놓고 그것을 거리밥으로 하여 마을 안과 집 안의 잡귀를 퇴송했다. 갯제 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을유년을 맞이하여 장좌리의 무궁한 발전과 마을 주민들이 무병장수하여 행운 함께하시며, 바다에는 다시마, 감태, 미역, 낙지

갯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2009.3.12
김준

풍어를 이루고, 조업 시에는 만선으로 돌아오도록 용왕님 전에 비나이다."

지역사례 광주·전남지방의 마을굿은 일반적으로 당산제(당제)라고 부른다. 가장 일반적인 제일은 음력 정월대보름으로 열나흗날 밤에 시작하여 대보름날 새벽에 끝난다. 당산제를 모시기에 앞서 정월에 마을에서 궂은일이 생기면 당산제를 모시지 않고 연기한다. 제장은 제단과 제당으로 구분한다. 제단은 수목이나 바위가 많고, 제당은 완도·신안 등 도서해안 지역에 많이 남아 있다. 한때 새마을사업으로 많은 제당이 사라졌지만 근래에 다시 제당을 짓는 마을도 생겨나고 있다. 신격으로는 나무나 바위 등 자연신, 임경업 장군·사도세자·최영 장군 등 역사적인 인물신, 서해와 남해 도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말 등 동물신이 있다. 당산의 구성은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 등으로 나뉜다. 마지막까지 마을 주민들로부터 신격으로 모셔지는 것에는 할머니당신이 많다.

완도 지역의 대표적인 당산제로는 약산면 당목마을당산제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정월 초엿샛날 10시 무렵에 마을숲 당집에서 몽돌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낸다. 이날은 개를 막고 주민이 모두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하루를 즐긴다. 개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이자 칠게와 도요새와 낙지의 생존공간이다. 제를 마친 주민들은 당할머니에게 올린 제주를 한 잔씩 주고받으며, 당집 앞에 차려 놓은 음식을 이웃 마을 청년들에게 권한다. 이웃 마을 청년들도 당할머니에게 봉투를 내놓는다. 그 사이에 여자들은 당집 안의 음식을 당산나무 아래로 옮겨 놓는다. 당산나무는 예부터 액을 막고 소원을 빈,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목이었다. 막걸리병을 든 할머니가 당산나무에 소원을 빈다.

"어쨌거나 우리 마을 사람들 잘되게 해 주시고, 이 길로 다니는 자동차 사고 없이 해 주시고, 객지로 나간 자식들 모두 잘되게 해 주십시오."

350여 년 전 당목리에 권씨, 박씨, 신씨 세 성씨가 들어와 살았다. 마을길과 농사지을 땅을 만들다가 돌 하나가 나와 괭이로 내려치자 피가 흘렀다. 다른 쪽에서도 둥근 돌이 나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 돌을 마을숲으로 옮겨 제각을 짓고 당할머니와 당할아버지로 모시고 매년 정월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참고문헌 **바다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는 섬 여행**(김준, 웅진, 2009), **바닷가 마을굿에 나타난 3수 원리분석**(박흥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당제**(송기태, 한국의 마을신앙 하, 국립민속박물관, 2007), **완도읍 장좌리 장좌마을 당제**(조경만 외, 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995), **완도 장좌리 당제의 제의 구조와 세계상**(나경수, 광주·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1998).

필자 **김준(金準)**

완주고당리고당

정의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에 있는 마을제당. '고당(姑堂)'은 고당마을을 수호하는 당할머니를 모신 당집이다.

형태 고당리 당집인 '고당'은 마을 가운데에 있으며, 당집 주변은 입구가 트여 있는 낮은 돌담으로 둘러쳐져 있다. 고당에는 원고당마을의 수호신인 당할미가 모셔져 있다. 당집은 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이며, 벽면은 네 면 모두 상반부가 창살문으로 되어 있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목조 건물이다. 당집의 정면 윗부분에는 「姑堂」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고, 당집 안에는 고당리 산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 6·25전쟁 전에 당집에는 당할머니의 유래를 글로 써 놓은 것이 있었으나 전쟁 때 소실되었다고 한다. 당집도 전쟁 당시 불에 타 마을 사람들이 피란을 갔다가 돌아와서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당집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고당리는 전북 산간 지역인 완주군 운주면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 고당리 제당은 두 곳에 있다. 산제당은 마을 뒷산 선야봉에, '고당'이라는 당집은 마을 안에 각각 있다. 고당리 마을 앞뒤에 있는 봉우리는 모두 덕유산 줄기가 뻗어 내려온 것이며 선야봉 중턱에 있는 산제당은 큰 소나무와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마을 안에 있는 고당은 당집 형태로 되어 있다.

산제당과 고당에서 모시는 신은 공통적으로 '당할

고당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2010.6.24
김월덕

산제당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2010.6.24
김월덕

미 산신'으로 여겨진다. '고당'에서 모신 고당리의 수호신은 할미신, '고당'은 본래 '할미당'으로 각각 불렸다. 고당에 모셔진 당할미는 고당리 마을을 개창한 마을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선야봉의 할미신이 마을에 내려와 고당리를 개창했다고 전한다.

고당리 산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선야봉에 있는 당골의 산제당에서 먼저 지내고, 그다음 마을 안에 있는 '고당' 당집에서 지낸다. 당제를 지내기 위해 먼저 동네에서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출하고, 비용 마련에 대한 의논을 한다. 제관은 생기복덕이 맞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출해 제관으로 뽑히면 집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일이 없도록 금기를 지켜야 한다. 고당리 산제 비용은 마을기금과 공동전답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한다.

산제 당일 아침에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산제당에 올라가 제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금줄을 두른다. 제관은 직접 장을 봐와 제물을 준비한다. 제사 용구는 당집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시장에서는 돼지머리, 과일, 건어물, 나물, 초 등을 구입한다. 본래 산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제관, 이장, 짐꾼이 산제당에 제물을 들고 올라가서 제를 지낸 뒤 마을 안에 있는 고당에 와서 당제사를 지냈다. 이때 밤길이 어둡기 때문에 일행이 산제당에 오를 때 굿패가 산제당 아래까지 동행 하며 풍물을 쳐 준다. 그러나 근래에는 오후에 산제와 당제를 지내고나서 굿패를 구성할 사람이 없어 풍물은 치지 않는다.

산제당과 고당에서의 제의 절차는 같지만 제물은 따로 준비한다. 제관이 제물을 차리고, 대동소지와 호청소지를 올리며 축원을 한 다음 절을 하는 순서로 제의를 지낸다. 과거에는 제를 마치면 마을 사람들이 제관 집에 모여 음복을 하고 풍물을 치면서 놀았다. 그리고 이튿날인 정월대보름에는 굿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축원하는 마당밟이굿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고 산제당과 고당에서 간단한 제사만 지낸다.

의의 고당리에서는 고당에 모신 할미신을 마을 뒷산인 선야봉의 여산신으로 여기고 있다. 여산신의 역사적 전통을 잇고 있는 할미신을 마을 수호신으로 숭배한다는 점에서 고당리당제는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완주의 문화유산** 1(완주문화원 · 우석대박물관, 1998), **전라북도 마을지킴이 · 정악**(전라북도, 2004).

필자 **김월덕(金月德)**

용기(龍旗)

표제어 농기(186쪽)

용수동당산

정의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에서 동제를 지내는 제당. 1995년 5월 12일에 '대구광역시 민속자료 제4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여러 그루의 당나무와 돌무더기 형태로 조산(造山)한 제당이다. 돌무더기 앞에는 큰 돌로 된 제상이 있다.

역사 용수동은 과거에는 달성군 공산면이었으나 1981년에 대구광역시 동구로 편입된 지역으로 팔공산 동화사로 가는 왼쪽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배씨와 구씨가 들어와서 살았다고 한다. 당산은 이때 들어온 배씨와 구씨가 마을 어귀에 나무를 심고 돌을 쌓아 제사를 지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용수동이란 명칭은 마을 어귀 당나무 옆 개울에 용소(龍沼)가 있어 그곳에 용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이 마을길이 팔공산의 부인사, 동화사, 파계사 등 사찰로 올라가는 중심 도로였기 때문에 용수동은 인근 마을보다 일찍 형성되었다.

용수동당산
대구 동구 용수동
2010.6.2. 이균옥

용수동당산
대구 동구 용수동
2010.6.2. 이균옥

내용 당굿은 1970년대 이전 음력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행하였으나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없어졌으며, 당나무와 돌로 조산한 당만 남아 있다.

동제를 지낼 때 제관(祭官)의 선출 방법은 섣달 그믐날 당(堂)에서 당굿(農樂)을 쳐서 당신(堂神)의 대내림을 받아 신대가 가는 대로 따라가서 멈추는 집의 호주가 제관이 되며, 만약 제관의 책무를 거부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었다. 과거에 신대가 멈춘 집에서 제관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대가 쓰러지면서 소의 등을 쳐서 소가 죽은 적이 있다고 한다. 제관은 한 명이고 제수(祭需)는 마을 공동 부담으로 마련한다. 제관은 제사를 지내는 날 마을 앞 개울에서 목욕재계하고 혼자서 제사를 올렸다.

참고문헌 **한국의 마을제당-경상북도**(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이균옥(李均玉)**

용신제(龍神祭)

표제어 용왕제(689쪽)

용왕제(龍王祭)

정의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바다의 용왕신에게 올리는 마을공동제의.

내용 용왕제는 바닷가 마을에서 행하는 의례이다. 지역과 마을에 따라 갯제, 용신제, 해신제, 풍어제 등으로 부르고 있다. 용왕제는 배나 어장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고사나 푸닥거리, 마을에서 무당을 불러서 하는 풍어굿과는 성격과 형식을 전혀 달리한다. 분포권 역시 호남지방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용왕제가 바다의 용왕신에게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의례인 만큼 어민들의 생계활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연행 방식이나 시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용왕제는 마을 제사인 동제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당산제와는 별도로 행해지는 곳도 있다. 또 여러 양식으로 행해진다. 여자들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마을의 해산물에 대한 산업적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개 용왕제가 확대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용왕제는 동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풍농을 비는 농촌 지역의 줄다리기나 달집태우기같이 동제의 부대행사로 보기도 한다.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벽파 · 원포 · 금호마을과 의신면 모도 · 수품마을 등에서는 오늘날에도 용왕제를 모시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진도의 동남단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들이다. 이들 마을에서 모시는 용왕

용왕제
국립민속박물관

제는 당제와 결합되어 있으며, 음력 정월에 모시고 있다. 당제가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에게 올리는 제의인 반면에 용왕제는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모두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지만 기능과 연행 방식에 있어서는 내용을 달리한다. 당제의 제장은 당집이나 마을 뒷산이며, 용왕제의 제장은 선착장이나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마을 앞 또는 우물이 되기도 한다. 간혹 마을에 따라 용왕제를 거리제, 갯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역사례 전남 진도군 모도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에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고 그 이튿날인 정월 초사흗날 새벽에 마을 어귀의 독샘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미리 제물을 장만하여 독샘 앞의 바닥에 차려 놓는다. 이때에는 당집에 올린 제물 외에 돼지머리도 함께 올려놓는다. 제관은 미리 메를 많이 해 가지고 와서 일일이 빈 그릇에 메를 담아 준다. 이렇게 제관이 차려 놓은 제물 외에 제장 주변에는 개개인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개의 상을 줄줄이 놓고서 함께 제를 지낸다. 지금은 간소화되어 각 가정에서 상을 가져오지 않고 제관이 준비한 제물로만 제를 지내고 있다.

이러한 제의 양상은 진도군 벽파마을의 용왕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품마을은 마을 뒷산에 위치한 제단과 마을 앞 포구 두 곳에서 산신제와 용왕제를 지낸다. 과거에는 엄격하게 남자들 중심으로 거행되었으나 지금은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제의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무당이 제의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서남해 일대에는 별신굿의 전통이 있었고, 수품마을이 진도의 주요 항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신굿으로서의 큰 당굿을 열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되기도 한다.

용왕제에는 남녀 모두가 참여하고, 제물 역시 육류를 포함하여 준비한 모든 것을 차려 놓는다. 특히 부녀자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한 제상을 가지고 나와 개개인의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는 축제적인 제의 형태이다. 이러한 용왕제는 진도 외에 신안, 완도, 해남, 장흥 등 도서연안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제의 명칭이나 양상은 대동소이하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나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전북 부안군 위도의 경우 용왕제가 동제의 말미에 속하면서 대미를 장식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례 방식은 서로 다르다. 대포리의 경우 동제를 모시면서 몹시 엄숙한 분위기가 계속되지만 용왕제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에서 행해진다.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밤새 가무를 하고 놀다가 새벽에 용왕에게 소 한 마리로 간주되는 쇠뼈를 헌식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장좌리의 경우는 바다일과 관련된 모든 마을 사람이 각 가정에서 정성껏 제물을 차려서 바닷가에 가져다 놓고 개인적으로 절을 하며 해산물의 풍작을 빈다. 또 위도의 경우 띠뱃놀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띠배에 허수아비를 태워 마을의 액운을 멀리 바다에 띄워 보내는 송액의 기능과 복합적으로 결착된 제를 행하기도 한다.

일찍이 도서·해양민속의 기층을 이루는 용왕신앙의 구체적인 전승 형태로 용왕제(갯제)를 주목하였다. 도서연안권에서 당제와 용왕제의 결합 형태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신안군 흑산면 일대에서는 대부분의 당제가 용왕제와 결합되어 있을 만큼 특징적인 전승 양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용왕제의 수행 방식에서 지역에 따라 헌식과 바가지 띄우기 의례, 허수아비 의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징 용왕제는 대체로 당제와 결합된 제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상당에서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산신 등에게 제를 지낸 뒤에 하당인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올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허수아비 의례 같은 제의 양상이 보이지 않아 지역적 차별성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물애밥' 같은 헌식의례를 대신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듯 오늘날까지 용왕제를 지내는 마을들은 도서연안 지역에 위치하며, 바다에서의 생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바다에서의 삶이 절대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태환경과 자연환경에 따라 하나의 문화양상으로 정착·전승된 것이며, 마을의 특성에 따라 도서해양적 생활이 의미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광주·전남의 민속연구(나경수, 민속원, 1998). 진도군 마을신앙 양상과 도서해양문화적 특징(서해숙,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7).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서해숙(徐海淑)

용인상하동할미지석제

정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지석마을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지석(支石)을 대상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드리는 마을 제사.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석제(支石祭)'라 칭하면서 할미지석제, 지석제사, 바위할머니제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용 지석제는 1600년쯤부터 매년 음력 시월 초에 행해지고 있다. 상하동 지석마을 원로들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부터 행해졌으며, 6·25전쟁 중에도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지석마을은 곡부 공씨(曲阜 孔氏)의 세거지인 만큼 지석제도 공씨 가문에서 대대로 지내왔다고 한다. 지금은 지석제보존위원회에서 '고인돌청년회'를 결성하여 매년 음력 10월 초순에 택일하여 지석제를 지내고 있다. 제사 비용은 마을 이장이 주관하여 헌성금을 받고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상하동에는 본래 마을 위쪽의 상지석(上支石)과 아래쪽의 하지석(下支石) 2기의 지석묘가 있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 상하지석 두 곳을 합하여 '상하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상지석은 할아버지 바위로 불리고 하지석은 할미바위, 지석할머니, 바위할머니, 할머니바위 등으로 불렸다. 현재 상지석은 무너져 멸실되었고, 하지석만 남아 상하동 지석제의 신체(神體)로 숭앙되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하지석이 할머니바위로 불리게 된 것은 바위할머니가 바위를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석 위에 손자국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바위할머니의 손자국이라고 한다.

상하동할미지석제의 신체인 하지석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3동 389-3번지에 있다. 용인에서 수원으로 가는 국도 42호선 도로변에 있는 하지석은 마을 원로들에 따르면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예전의 위치에서 약간 옮겨졌다고 한다. 도로 공사 때마다 길바닥을 돋우는 과정에서 지석묘는 점차 길보다 낮게 자리 잡게 되었다. 지석묘 주변 사면에는 콘크리트로 담을 쌓고 그 위에 철제 난간을 둘렀다. 이 때문에 길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며, 가까이 다가가서 난간을 넘겨다보아야 겨우 볼 수 있다.

할미지석제 신체(고인돌)
경기 용인시 상하동
2003.10.30. 홍순석

당집은 없고 고인돌만 있다. 고인돌은 덮개돌이 사다리꼴로 길이 3.1m, 넓은 모서리가 3.1m, 짧은 모서리가 2.8m, 두께 1m이다. 장축은 남서향으로 길이가 짧은 상태이다. 용인 지역의 다른 사다리꼴 평면 덮개돌에 비하여 두께가 두꺼운 편이다. 매우 두툼한 바둑판식 덮개돌과 유사하다. 덮개돌 아래의 굄돌들은 무너져 이 두툼한 덮개돌 아래에 깔려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덮개돌이 아래 두툼한 굄돌을 뉘어서 깔고 있어 이층으로 겹쳐진 이중 덮개돌과 유사한 구조이다. 탁자식 고인돌의 유형이지만 이층 덮개돌 구조로 볼 수 있어 중부지방 이남에서 나타나는 탑파식(塔婆式) 고인돌의 원형으로 추정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지석제를 지내기 한 달 전쯤 마을회의를 열고 노인회의 자문으로 제삿날을 정한다. 제사 일주일 전에는 부정한 사항이 없는 사람으로 당주와 제관을 정한다. 제관은 당주 한 명과 축관 한 명으로 모두 두 명이다. 제관 선정 이후에 마을에 초상이 나면 제일을 다음달로 연기하여 다시 택일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술·담배, 살생, 조문, 부부관계 등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한다. 제관은 식수도 개울을 파서 샘우물을 만들어 사용한다. 샘우물에는 금줄을 쳐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지석묘 주위를 청소하고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한다. 금줄은 지석과 당주 집에만 두른다. 당주 집 앞에는 인근 야산에서 황토를 파와 세 군데 뿌리고, 사기그릇에 정화수를 떠놓는다.

제사 당일 저녁 무렵이 되면 주민들이 모여든다. 이장의 주도 아래 상하동 부녀회, 청년회 회원들이 제사 준비를 한다. 일부는 지석묘 옆 넓은 마당에 장작불을 지펴서 한기(寒氣)를 막고, 일부는 음식을 준비한다.

오후 8시쯤에 본격적으로 지석제를 준비한다. 당주와 축관은 유사 세 명과 함께 의관으로 갈아입는다. 제수는 당주 집에서 마련한다. 9시쯤이 되면 당주와 유사 등 선출된 제관 몇 명만이 고인돌 보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제사를 시작한다.

제수는 돼지를 잡아 사용하였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소를 제물로 올리고 있다. 제물로 쓰이는 소는 열흘 전에 구입해 길러서 사용한다. 제수용 소는 반드시 잡털이 없는 황소여야 한다. 교미한 적이 없는 중소가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 제수로 올릴 때에는 소피, 곱창, 각 부위 등을 모두 사용한다.

떡은 백설기를 사용하며, 여덟 되 정도 준비한다. 술은 조라술을 사용한다. 당주가 제사 하루 전날에 조라술을 담가서 지석묘 주변에 움막 같은 이엉을 엮고 그곳에 술독을 묻어 둔다. 대략 쌀 한 되 일곱 홉으로 조라술을 빚는다. 서 홉은 식혜를 만든다. 이때 사용하는 쌀은 모두 당주가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한다.

메를 짓고, 탕은 소의 곱창으로 만든다. 포는 통북어 세 마리를 마련한다. 눈알이 빠진 것은 안 된다. 떡 시루에 통북어를 꽂는다. 이 밖에 삼색과일과 생두부를 진설한다. 나물은 무나물만 놓는다. 향은 목향, 잔은 세 개를 놓는다.

술, 메, 탕에 사용하는 물은 모두 제관이 미리 개울을 파서 금줄을 두른 샘우물에서 길어다가 사용한다. 불을 지피기 위해 미리 나무를 해 지석묘 근처에 두고 제사 당일에 이 나무를 태운 숯불로 메와 탕을 짓는다.

제삿상은 유교식으로 진설한다. 제기는 당주 집에서 가져와 사용한다. 제사는 분향-헌작-독축-소지-술뿌리기-음복 순으로 한다. 축문은 예부터 전하는 일정한 서식에 간지(干支)만 고쳐서 읽는다.

소지는 마을 사람들 이름을 전부 기록하고, 헌관이 일일이 "아무개 소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올린다.

支石祭 祝文

維歲次 (干支)十月 (干支)朔 初四日 (干支)
幼學 (堂主名) 我洞里住民之於
謹具小牽酒果 齋浴虔誠 敢昭告于
支石之神 蒼然全体 忍起平地 鎭壓大村
遙然氣像 別呼磅礴
鍾神造化 賴及大洞 秦鞭難動
漢鼓猶鳴 敬之受祐 慢之有殃
吾村有卜 賴神之靈 齋誠虔禱
卒世安樂 謹具蔬餠 尊靈是憑是聽
謹具再拜 靈其保佑 用神 虔告
謹告

한문으로 쓴 글에 운을 띄워 읽는 축문을 국역하면 다음과 같다.

"유세차 (干支) 시월 (干支)삭 초○일(干支) 유학 (당주 이름)과 우리 마을 주민은 삼가 작은 소와 술, 과일을 갖추고 목욕재계하여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삼가 아뢰옵니다. 지석묘의 신령, 창연한 큰 돌덩이, 평지에 우뚝 솟아 큰 마을을 진압하시고, 원대한 기상이 방박하다고(야무지다고) 할 만하더이다. 종신의 조화가 큰 고을에 미치나니, 진나라의 채찍이 어지럽게 움직이자 한나라 북이 울리는 듯합니다. 경건히 도움을 받드나니 재앙을 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을에 복이 있어 신의 영험을 입었나이다. 목욕재계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나니, 영원토록 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가 나물과 떡을 갖추어 감히 길상을 바라나니, 높으신 신령께서는 이를 의지하고 들어주옵소서. 삼가 예를 갖추어 재배하나니, 신령으로 보호하고 도와주소서. 신에게 경건하게 아뢰옵고 또 아뢰옵나이다."

오후 9시 30분쯤 제사가 끝나면 떡과 북어, 제수에서 조금씩 떼어내 지석묘 위에 올려놓는다. 제관들이 음복하고 나면 소의 내장을 끓여서 마을 사람들 모두 나누어 먹는다. 특히 제사떡은 '복떡'이라고 여겨 주민 모두가 조금씩 나눠 먹으며, 노인들을 위해 봉송하기도 한다. 희생으로 사용한 소는 헌성금을 낸 주민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 제관에게는 특별히 몫을 더 준다. 제수는 당주가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밤 11시 무렵에 주민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지석제는 마무리된다.

상하동할미지석제는 용인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 신앙이다. 신체가 지석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상하동 지석마을이 도시개발로 급변하고 있고, 신체인 지석묘가 국도 42번 도로변에 있기에 얼마나 존속될지를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석제보존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지석제를 지내고 있다. 지석제의 당주를 맡은 공달영, 공병헌, 박해원, 조상기 등은 이 마을의 토박이로 "할미지석제는 상하동 지석마을의 안녕과 결속을 위한 제사인 만큼 절대 폐해질 수 없는 마을신앙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구성면지(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8), 용인시사 2(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6), 용인의 마을의례(한국역사민속학회 외,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0), 디지털용인문화대전(yongin.grandculture.net).

필자 홍순석(洪順錫)

소지올리기
경기 용인시 상하동
2003.10.30, 홍순석

우물제

표제어 샘제(435쪽)

우불산신사(于弗山神祠)

정의 우불산 일대 지역을 수호하는 우불산 산신을 모시고 있는 제당.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113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91년 12월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87호'로 지정되었다. 우불산신사는 기우제에 특히 효험이 있어 가뭄이 심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 제당에서 기우제를 올리면 제를 지낸 뒤 사흘 안에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형태 우불산신사는 정면에 석축 기단 위에 우불산신을 모시는 앞면 3.7m, 옆면 2m 규모의 제당과 출입문 측면에 제기를 보관하고 제물을 조리하는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제당은 단청 맞배지붕 형태이며 중앙에 「우불신사(于弗神祀)」라고 쓴 나무 현판이 걸려 있다. 우불산신사 주위에는 돌담에 기와로 장식한 담장이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출입문 앞쪽으로 수령이 1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서 있다. 우불산신사 앞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예전에 이 개천은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도 끝이 닿지 않을 정도로 수심이 깊었다고 한다.

역사 우불산신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우불산의 옛 명칭은 우화(于火)이며 24소사(小祀) 중 하나로 신라시대부터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해마다 음력 이월에 제의를 올렸다고 하며,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는데, 특히 기우제의 효험이 있었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소사에 산악신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이 시대에도 국가에서 관리를 보내 제를 지내게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태종실록』 권1 태종 14년 8월 신유조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신라시대와 같이 우불산신제가 소사로 받들어졌고 국가에서

우불산신사 위패
경남 양산시 용당동, 2010.6.1, 황경숙

우불산신사
경남 양산시 용당동
2010.6.1. 황경숙

우불산신사
경남 양산시 용당동
2010.6.1. 황경숙

매년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제사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울산군 사묘조에 보면 우불산신사는 1623년(인조 1)에 세워졌으며, 1644년(인조 22)에 제사(齊舍) 세 칸을 세우고 임야 및 전답 5두락을 단의 재물로 하여 해마다 이월과 팔월 하정일(下丁日)에 울산부사로 하여금 제를 지내게 하였다.

조선시대 우불산은 울산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근대 이후 행적구역이 개편되면서 지금은 양산시에 편입되어 있다.

우불산신사는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쳤다. 지금의 건물을 1918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1974년에 중수하였다. 중수할 당시 제당은 맞배지붕 형태의 목조건물로 무단청이었으며, 제당 출입문 위에는 「우불산신사(于弗山神祀)」라는 나무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우불산신사 보존회'에서 다시 보수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우불산신사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보수 전과 대비해 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은 제당의 건물에 색을 입히고 단청으로 장식한 변화와 제당 출입문 위의 현판이 「우불신사」로 교체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제당에 오르는 계단과 기단의 일부를 시멘트에서 돌로 교체하거나 제당 출입문에 유리를 부착하고 담장에 기와를 얹어 마감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내용 우불산신사의 내부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이 중앙에 놓여 있으며, 제단 위에는 나무로 만든 위패 보관함 안에 '우불산신령 위(于弗山神靈 位)'라고 쓴 나무 위패가 모셔져 있다.

우불산신제는 신라시대 이래로 국가의 24 소사 중 하나로 매해 음력 이월과 팔월 하정일 두 차례 제를 모셔오다가 우불산신제가 국가적 의례로 행해지는 전통이 단절된 이후에는 우불산 일대 지역(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과 웅촌면 일대까지)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섬겨져 지역주민들이 주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공동으로 제의를 행해 왔으나, 근래에는 제의 담당층이 제한되어 서창, 소주, 덕계, 평산 등 네 개 마을 주민들이 주관하며 매해 한차례 음력 팔월 하정일에만 제의를 베풀고 있다.

우불산신제를 주관하는 제주는 매년 음력 팔월 초유일(初酉日)에 우불산신사 보존회와 유림회 회원들이 모여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주의 선정 기준은 그 해 부정이 없는 사람 중에서 마을의 발전에 공헌한 이나 생기복덕을 보아 깨끗한 이를 가려 선정한다. 제주로 선정된 이는 제를 지내기 사흘 전부터 부정을 가리는 금기를 행하며 제당 주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먼저 가신다. 과거에는 제주의 금기가 제를 지낸 뒤에도 일정 기간 지속되었으나, 근래에는 제를 지낸 뒤 달리 행해지지 않는다. 제의를 베풀 때에는 제주를 비롯하여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다. 이때 출산과 혼사는 달리 가리지 않으나 초상과 사고 등 흉사는 가려 흉사가 있는 이는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의에 진설하는 제물은 녹포(근래에는 쇠고기와 돼지머리로 대신함), 생선회 또는 육포, 생미나리, 살짝 익힌 조밥, 수수밥, 과일(밤, 대추, 배, 감, 석류) 등이다. 이를 음복하면 액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긴다. 제의의 절차는 제당에서 산신제만 지내며 제의 방식은 유교식으로 행한다. 제의가 끝난 뒤에는 제물의 일부를 떼어 제당 앞에서 잡귀를 풀어먹이는 시석을 행한 뒤, 우불산신사 안의 부속건물에서 날것으로 올린 제물을 조리하여 제의에 참여한 이들이 제당 옆에 위치한 사찰에서 함께 음복한다. 음복이 끝난 뒤에는 제의를 주관한 우불산신사 보존회 회원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한다.

우불산신사의 연원에 대한 구전자료는 주로 조선의 건국주인 태조 이성계와 연계되어 전해진다. 일설에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 전국의 명산들을 돌아보던 중 우불산에 오게 된 이성계가 우불산의 형세가 장엄하고 경관이 수려한 것에 반한 이성계가 이곳에서 발원하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우불산신사를 짓게 하였다고 한다. 다른 일설에는 조선 왕조가 개창될 무렵 이성계가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다가 우불산에 산신이 거주한다는 말을 듣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제를 지냈는데, 이후 우불산신의 도움으로 왕으로 등극한 이성계가 명을 내려 우불산신사를 짓게 하고 유림들로 하여금 봄·가을 정일에 제를 지내도록 하였다고도 한다.

우불산신의 영험함에 대한 구전자료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일본군을 응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우불산 남쪽에 진을 치자 우불산신이 신풍(神風)을 일으켜 왜병들을 몰살시켰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이 있던 어느해 울산부 서면장(西面將)이 우불산성에 진을 치고 왜군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왜병들이 지경고개를 넘어 화승총을 쏘면서 우불산성으로 쳐들어 왔다. 바로 그때 남루한 차림의 한 도인이 걸어와 왜병들을 바라보며 필묵으로 글을 쓰고는 글쓴 종이를 손에 들고 하늘로 날렸다. 그러자 도인이 글을 쓴 종이가 바람에 실려 대운산 상봉에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 낙엽이 왜병이 있는 곳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낙엽은 모두 병졸로 변하여 왜군들과 대적해 싸워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왜병을 섬멸시킨 바람을 우불산신이 현신하여 일으킨 바람이라 하여 신풍(神風)이라 하고 패한 왜병들의 시신이 쌓여 있던 곳을 왜시등(倭屍嶝)이라 불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 이 지역에 부임한 일본인 관리들은 본인과 가족들이 해를 입어 일본인들이 이 지역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고, 특히 우불산신사가 있는 곳은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우불산신의 영험담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우불산신사를 강제로 헐도록 하였는데, 사람들이 신벌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나서지 못하자 윤씨라는 사람이 큰소리를 치며 앞에 나서 사당을 허물기 위해 기왓장을 뜯었다. 그런데 얼마 후 기왓장을 뜯은 윤씨는 갑자기 병을 얻어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으며, 이 일을 지휘했던 일본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한편, 우불산 앞길에는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해도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야만 했다. 이를 어기고 말을 탄 채 지나가다가는 화를 피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루는 경상감사 양씨가 이러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면서도 우불산신을 믿지 않고 이 같은 사실을 의심하여 말을 탄 채 제당 앞으로 지나갔다. 그러자 홀연히 한 점 붉은 구름이 산꼭대기에 뜨더니 맹호로 돌변해 무례하게 말을 타고 제당 앞을 지나간 경상감사 양씨를 물어 죽였다. 그 무덤이 아직도 웅촌면 검단리 산기슭에 있다고 전해진다.

참고문헌 땅이름 울산사랑(강길부, 도서출판 정도, 2002), 양산군지(양산군, 1989).

필자 황경숙(黃京淑)

우실

정의 마을 출입구나 풍수적으로 허한 곳에 흙 또는 돌로 담을 쌓거나 수목을 조성하여 외부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도록 마을 주위를 감싼 울타리. 우실은 서남해안 도서해안 지역인 전남 신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진도군, 여수시, 광양시와 경남 남해군 등지에 분포해 있다. 우실의 본디 말은 '울실'로, 마을의 울타리라는 자의(字義)가 있다. 지역에 따라 우술, 우슬, 마을 돌담, 돌담장, 당산거리, 방풍림, 방조림, 방파림, 사정나무터, 정자나무거리, 어유림(魚遊林), 어부림(漁付林), 숲, 노거수림 등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다.

내용 우실은 마을의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조성되었기 때문에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우실의 종류는 생명력이 왕성한 노거수의 총림인 '생우실', 축조하고 보수하기가 쉬운 '토담우실', 견고하고 영구적인 '돌각담우실', 1980년대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목책우실'과 '파자우실' 등이 있다. 목책우실은 울짱우실로 말뚝 같은 것을 쭉 벌려 박아 만든 울이다. 파자우실은 짚, 대, 갈대, 수수깡 등을 발처럼 엮어서 만들어 마을 앞에 친 울타리이다.

우실의 형태로는 '갈 지(之)' 자형으로 엇갈린 두 직선형 울, 단열(單列)직선형 울, 복렬(複列) 울, 내외원(內外垣)의 자웅교합형 울, 직고선형 울, 원륜형 울 등이 있다. 우실에는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이 중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 안과 밖이 서로 맞볼 수 없도록 하였다. 곧 안담[內垣]과 바깥담[外垣]이 교접된 출구는 '갈 지(之)' 자 꼴로 엇갈리게 되어 있어 전면이 보이지 않는다.

우실은 은촌(隱村), 방풍(防風), 방사(防砂), 방조(防潮), 방수(防水), 방습(防濕), 방건(防乾), 방염기(防鹽氣), 방음(防音), 방수(防獸) 등 자연재해를 방어하는 마을의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마을의 바람막이가 되어 풍속을 조절한다. 그 효력 범위는 우실의 높이와 길이의 10배에서 25배의 구역에 이른다 하며, 수확량도 20% 안팎으로 늘었다고 한다. 마을의 등성이에 방사 우실이 있으면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기능 외에 우실은 마을로 들어오는 액을 막고 잡귀들의 침입을 방어하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허한 곳을 우실로 보정하여 마을의 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한다.

우실은 특별한 기술이 없던 고대에는 야수의 위험과 자연의 재해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 표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공간을 은폐하기 위한 생존 수단이며, 생산과 휴식을 위한 인간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흔적들은 성의 축조 원리에도 남아 있고, 주거공간의 울타리에도 재현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변 석성의 입구를 보면 밖에서 직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옹성을 쌓고, 일반 주거공간에서도 차면담을 세워 밖과 안을 구분한다. 특히 도서 지역의 민가 구조를 보면 밖에서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꺾어서 들어가도록 출입문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모두 우실의 구조와 유사하여 상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듯 우실은 자연지리적 환경에 영향 받으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적응 방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자연의 순응과 방어의 기재로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성과 속의 경계담[境界垣]이 되고 재액과 역신을 차단하는 자아경계의 방벽이며, 통과 금기를 나타내는 주거공간의 울타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내부와 외부 공간을 연관시켜 주는 결합절이며, 내적 규범을 통어하고 독립성을 담보하는 마을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우실의 구체적인 사례로 전남 신안군 우이도 진리의 서북쪽 뛰안너머 고개 능선에 위치한 돌각담 우실이 있다. 이 우실은 1700년대 후기 문씨 입도조들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강한 하늬바람과 뒷개에서 밀어닥친 모래 및 해적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 한다.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우실은 두 직선의 돌담이 교합되는 지점에 윤선형의 출입문이 있다. 1905년에 마을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마을의 번창과 우환을 막으려면 담을 쌓아야 한다고 일러 주어 수목의 우실이 있던 좌우에 석장을 길게 축조한 것이라고 한다. 신안군 장산도 도창리 뒤편 도로변 긴 등성에 350여 년 된 팽나무, 소나무, 주엽나무, 가중나무, 예덕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길이 400여 m의 노거수림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도(道)의 미곡창고가 있던 해변 선적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실을 조성했다고 한다.

전남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마을 앞 제방의 우실은 400여 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옥황상제가 말을 타고 내려와 마을 앞이 너무 허하여 나무를 심게 했다고 한다. 또한 우백호(右白虎)는 있으나 자손과 영귀(榮貴)를 주재하는 좌청룡(左靑龍)이 없어 이 우실을 청룡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처럼 풍수지리학적으로 우실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외래마을 앞 동남쪽에 조성된 우실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염기를 막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案山)의 풍류림(風流林)으로 조성되어 마을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신륙리 육동마을 앞의 우실은 송총림(松叢林)으로 조성되어 바다에서 보면 널따란 육동마을 전체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마을 뒤편에 있는 진산(鎭山)의 당할머니를 모신 상당과 마을 중간 지점인 들판 길가에 있는 당할아버지를 모신 하당목이 해변에 있는 우실과 일직선상임을 볼 수 있다. 이 우실숲의 벌목이나 고목의 채취는 마을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의 우실은 1700년대에 마을을 가리면서 방풍과 방조를 위해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숲이 주는 그늘로 인해 여러 어류가 모여들어 우실 어유림, 어부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세기 말엽에 이 숲의 일부를 벌채하였다가 태풍의 피해와 우환이 계속 발생하자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남도민속고**(최덕원, 삼성출판사, 1990), **다도해의 생활문화 '우실'**(blog.paran.com/eastpeak).

필자 **서해숙(徐海淑)**

울릉해신제

정의 육지 거주자들이 울릉도로 이주하여 그곳에 적응하면서 행하는 동제.

역사 울릉도의 동제는 산신제(山神祭)와 해신제(海神祭)가 공존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울릉도의 지역사, 인구변동, 마을의 형성 과정, 제의 수행집단의 변화들과 관련된다. 이 두 가지 민속제의가 형성된 과정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사의 변화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문화 및 생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울릉도 동제의 구성 형태 변화는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00년대 초기 이전이다. 선주민과 초기 집단 이주민들은 척박한 섬의 환경에서도 어업보다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였다. 물론 그들 가운데 해안에 장막을 치고 조선(造船)이나 미역 채취를 하면서 살던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높은 계곡이나 중산간지대를 중심으로 채약(採藥)과 화전(火田) 등 농사를 생업으로 하면서 석문동, 지통골, 깍새 등지에서 살았다.

산신당은 농업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초한 제의 수행처였다. 조선 왕실에서는 처음으로 1882년에 이규원 감찰사 일행을 울릉도 개척을 위해 파견하였다. 이때 이 일행은 소황토구미(학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산신당에 기도를 드리고, 울릉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섯 곳에서 산신당에 기도를 드렸다. 현재 학포의 산왕각(山王閣) 현판에 「光緖 十年 甲申 十月(1884년, 고종 21)」이라고 쓰인 글씨는 이곳이 초기 입도민의 제의처임을 암시하고 있다. 학포의 산왕각은 태하동의 산제당보다 6년 일찍 생겼다고 전한다. 더욱이 성하신당(聖霞神堂)의 경우 태종 대에 울릉도민들을 모두 철수시킬 때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지금까지 제당과 함께 의례가 잘 유지되고 있다. 즉 중산간지대(중봉)나 해안에서 떨어진 산록(학포, 저동)마다 거주지로서의 산막(山幕)이 산재한 구역을 중심으로 산신당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주자들은 이러한 곳에서 제의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육지에서 행하던 신앙관습이 울릉도에 그대로 이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울릉도에는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도 바다를 주관하는 신에 대한 제의를 수행한 적이 있었음이 태하동 성황당에서 확인된다. "태하동 성황당은 원해신당(元海神堂)"이라는 주민의 표현이나 '남양동 해신당은 태하동에서 따로 나온 신당'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당시 울릉도민이 신앙하던 바다의 신은 해신당이 아닌 성황당에서 모셔졌다. 즉 '해신제'라는 표현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사용된 것으로, 용

천제당
울릉도 태하동
2003.11.4. 이기태

왕신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더욱이 해신제는 해신당보다도 성황당과 산신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성격이 다른 신위를 별도의 공간에서 모시기보다 동일한 공간에서 합사(合祀)하는 것이 한국의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1884년쯤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포의 산신당에는 좌우에 각각 해왕신위(海王神位)와 울릉도산신대왕신위(鬱陵島山神大王神位), 사동3리의 신리 해신당에는 좌우에 산신신위(山神神位)와 해신신위(海神神位), 옥천 · 우복 해령사(海靈社)에는 좌우에 산신위(山神位)와 해신위(海神位), 사동1리(새각단) 해신당에는 산신지위(山神之位) · 동사신위(同社神位) · 해신지위(海神之位)가 각각 등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신위에서 왼쪽과 가운데에 모셔진 것이 주로 산신(山神)과 동신(洞神)인 것으로 보아 주민들은 산신과 동신이 해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해신당이 건립되고 이를 중심으로 해신제가 수행되었지만 산신이 높은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입도(入道)한 이들이 모시던 신격이 지금까지 전승된 것으로, 한반도에서 입도한 이들의 문화와 연속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제가 울릉도의 모든 산업과 주민의 생활방식을 지배하고 통제하던 일제강점기이다. 주민들 가운데 어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특히 일본의 어업기술이 주민들에게 이전되었다. 이 시기는 해신제가 어업 종사자들의 중심 제의로 자리매김되던 때였다.

"일제강점기에 울릉도에 거주한 일본인들은 해신각과 신사(神社)를 건립하였다"는 울릉도민의 말이나 태하동 성하당연기(聖霞堂緣起)의 '점점실개산신각왜인우설해신각(占占悉皆山神閣 倭人又設海神閣)'이라는 표현과 같이 신사는 도동 · 사동 · 남양동 · 태하동 등지에 있었으며, 이들 신사에서 해신제를 행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울릉도의 마을 확산이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천부3리(죽암), 천부4리(석포), 남서2리(구암) 등과 같이 그 시기에 산신당이 증가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오징어잡이가 1930년대에 이르러 울릉도민에게 또 하나의 생업으로 자리 잡은 것을 감안하면 어업과 관련된 제의에서 일본식의 '해신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 이 시기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이 시기는 울릉도의 토착 동제와 일본의 해신제가 상이한 모습으로 공존하던 때였다.

세 번째는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이다. 울릉도민에게 일제의 종식은 일본인 중심의 해신제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인 중심의 해신제는 광복과 더불어 종식되고, 울릉도민은 일본인의 신사를 해신당으로 사용(도동)하거나 일제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거나(현포동, 천부동, 죽암, 현포) 제당을 파괴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해신당을 신축(큰모시개, 사동, 남양동, 도동3리, 저동2리)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제당 가운데 학포동과 함께 정착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은 태하동 제당이다. 이곳에는 다섯 개의 제당(천제당, 산제당, 성황당, 법화당, 해신당)이 있다. 산제당과 해신당은 울릉도민들이 가장 먼저 산신을 모신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해신당은 본래 해변에 있었으나 개척령 이후 인구가 늘면서 현재의 위치인 선착장 뒤편으로 옮겼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는 신사(神社)가 있어서 일본인들이 해신제를 행하던 곳이었고, 본래는 정월대보름날과 삼월삼짇날에 행하던 제를 1990년대 초부터 삼짇날에만 지내고 있다. 천제당은 강원도 첨사(僉使)가 연 1회 순찰차 입도할 때 상제(上帝)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법화당은 1874년(고종 11)에 순종 탄생을 축하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강원도 영장(營長)을 수토사(搜討使)로 삼아 명승지인 이곳에 축원당을 세우고 삼 년마다 영장을 보내 축원케 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증가하면서 제의는 중단되었다.

주민의 수가 갈수록 줄고 서구적 사고와 생활양식의 팽배, 기독교인의 증가로 인해 현재 산신제를 행하는 곳은 24개리 가운데 14개리(도동1 · 2 · 3리, 저동1 · 2 · 3리, 천부1 · 3 · 4리, 현포1리, 태하1 · 2리, 사동1 · 2리)이며, 동신위에 제사를 행하는 곳은 남양2리(석문)와 남양3리(통구미)이다. 또한 24개 리(里)에서 행하다가 어촌계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면서 2006년에는 도동1 · 2리, 저동, 죽암, 천부(2007), 현포, 평리동(현포2리 포함), 태하, 학포, 남양, 통구미, 사동3리(1990)와 사동3리 간령(1996), 저동3리(1980) 등의 어촌계에서만 해신제를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울릉도의 동제는 전통적 의례성이 점차 상실되어 해체되거나 해신제와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내용 해양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울릉도의 동제는 특수한 제의 특성을 지닌다기보다 육지에서 행하는 동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즉 울릉도로 이주한 주민들이 고향에서 행하던 제의를 변화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특성과 함께 이전에 행하던 제의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동제가 새로운 환경에 이식된 뒤에도 이전의 모습과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행하려는 주민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 동제 울릉도 태하동 성하신당의 사례를 통해 울릉도 동제를 살펴보자. 성하신당 제의를 수행하는 과정은 제관 선정, 제수 준비, 정화의례, 정형화된 의례 진행 과정, 소지, 음복, 지신밟기 등 육지에서 동제를 행할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특히 동제를 지내는 동안 금기와 목욕과 같은 정화의례를 행하며, 희생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한 해의 안녕과 평안 · 풍요를 비는 기원을 하는 과정도 유사하다.

제의는 먼저 제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관은 설을 쇠고 나서 마을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유사(제당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제주와 제관 두 명을 선정한다. 이때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이로서 유교적 사고가 있으며 가정에 이상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월 열사흗날이 되면 유사와 제주는 금기를 시작한다. 제당 주변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치며, 제관과 제주 집에도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친다. 그리고 부부가 목욕을 하여야 하며, 보기 싫은 곳에 가지 않고 초상이나 아기 낳은 집 등 부정으로 여기는 것을 보아서도 안 된다. 몸을 깨끗이 하는데 소변을 봐도 손을 씻어야 할 정도로 근신했다. 그래서 이것을 '병원 환자 다루기보다 더 깨끗이 한다'고 한다.

이날부터 제수를 준비한다. 도동에 가서 장을 보고, 생선과 나물 등은 마을에서 구한다. 경비는 옛날에는 '동답(洞畓)'이라고 하여 서너 마지기의 논에서 나는 쌀을 팔아 마련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이 논을 개간하여 소작을 주고 매년 도조를 받아서 경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 이것을 매각 처분하였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참배하면서 두고 간 헌금과 배를 지은 사람들이 희사한 돈으로 제비를 충당한다. 본래 무보수로 일하던 유사가 이 모든 관리를 했으나 현재는 태하경로당에서

담당한다. 대개 지난해의 제관이 관리인으로 지정된다. 그 관리인에게 수고비로 일 년에 100여 만 원을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경로회관에 보관한다. 일 년 동안 적립된 돈은 설을 쇠고 난 뒤 제당의 유지비와 제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열나흗날이 되면 제주 부부가 제수를 준비한다. 제수는 제당마다 별도로 준비한다. 그날 밤 12시쯤이 되면 제주와 축관 겸 제관 두 명으로 모두 세 명이 준비한 제수를 제당으로 가져 가서 제의를 행한다. 이때 남자들만 제의에 참여하며, 소요 시간은 세 시간 정도이다. 제의는 천제당-산제당-성황당-해신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당 제의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제수를 들고 다음 제당으로 가서 제의를 행한다.

진설하는 제물은 다음과 같다. 배 · 사과 · 감 · 곶감 · 밤 등 과일(제주댁의 마음에 따라 바나나 등도 사용. 과일은 손질하지 않은 채로 사용), 우럭 · 볼락 · 문어 · 오징어 등 어물(비늘과 내장을 제거한 뒤 찌며, 이것을 튀길 때는 콩기름을 사용), 꼬치용 쇠고기와 삶은 돼지머리 및 꼬치용 돼지고기 등 육류(닭은 사용하지 않음. 해신당에는 돼지 다리 한쪽을 사용), 파전 · 두부전 · 고기산적 · 문어꼬치 · 쇠고기꼬치 · 돼지고기꼬치 등 전, 술(쌀 한두 되를 누룩으로 제주 댁에서 제조. 제의를 행하고 난 뒤 음복주는 소주), 메, 산나물(고비, 고사리, 콩나물, 무나물 등을 참기름으로 볶아서 사용. 이들은 깨끗한 집에서 구입), 탕(모두 민탕을 쓰며, 꼬치를 만들고 남은 것과 문어고기 잘게 썬 것, 오징어 잘게 썬 것, 두부를 넣어 끓인 것) 등이다.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각 제당 제의 절차는 축문만 다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동일하다. 축문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것이다. 주민들은 축문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두었다. 이 책에는 한자로 된 축문과 한글로 된 축문이 함께 수록돼 있으며, 제의에서는 한글 축문을 사용한다. 천제당의 제의에서는 축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당에서 행하는 제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강신(제주가 향을 사르고 술을 따라 모사에 붓는다)-참신(참가한 제관이 재배)-초헌례(첫 번째 잔을 올림)-독축(축문 읽음)-아헌-종헌-유식(메 뚜껑을 열고 수저를 얹어서 소원을 빈다. 모두 끓어앉아서 엎드린다)-재배-철상(참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복주를 마시고 철상한다)-소지올리기(이 절차는 번거롭다고 하여 2000년 들어 생략함)-귀가.

날이 밝으면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러 온다.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면서 하루를 논다. 제주 집과 제관 집을 시작으로 하여 집집마다 돌면서 풍물을 치며 술을 마시고 논다. 이것을 '풍물치고 논다'고 한다.

2. 해신제 울릉도의 해신제로는 개인이 동제당에 들러서 행하는 유형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동제 유형이 있다.

성하신당에서 행하는 해신제는 '배고사'라고 하여 선주나 어로작업을 하는 사람, 집안에 우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성하신당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등 개인이 행하는 유형이다. 특히 배를 만든 사람은 어떠한 종교를 믿더라도 여기에 와서 무사고와 선원의 안녕을 빈다. 또한 군민의 안녕 및 풍어, 풍년, 해상작업의 안전을 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해신제를 태하동에서 주로 지냈다. 1997년부터 동제와 해신제를 통합하여 제사를 지낸다. 태하동에서는 해신제를 배고사라 하기도 한다. 처음 배를 짓게 되면 선주는 태하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때 돼지는 주로 바닥에 칠성점이가 박혀 있는 앞다리만 사용한다. 이런 돼지는 신에게 바치는 희생물로서 의미가 높기 때문이며, 머리와 함께 사용한다. 이 밖의 제물은 메, 떡, 과일, 해물 등이다. 이 제물의 양을 많이 준비해 제의를 마친 뒤 술과 함께 태하경로당에 가져가서 노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제사를 지낼 때는 선주와 선장, 기관장, 구경꾼, 무당 등을 배에 태우고 간다. 무당은 도동에서 주로 데리고 간다. 제단에 제물을 차리는 방법은 해물을 위쪽, 과일을 아래쪽에 차리는 등 기제사와 동일하다. 선주가 먼저 술잔을 올리고 나서 선장과 기관장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선주가 제사를 올린 뒤 밖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봉투에 돈을 넣어 서낭당에 바치기도 하고, 한복과 신발과 양말까지 두 벌씩 준비해 바치기도 한다. 제단에 위패만 모셔져 있던 때에는 작은 의복을 준비했다. 그러다가 1988년에 신체(神體)를 석고상으로 다시 모시고는 '처녀 총각이 어른한다'고 하

해신당
울릉도 태하동
1999.1.15. 이기태

면서 두 신을 혼인시켰다. 이때 군수와 경찰서장 등 기관장들도 모두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도동 사람들도 참여하는 등 큰 잔치를 열었다. 그 후 서낭당의 참배객들은 어른 옷인 큰 옷을 제당에 바치게 되었다. 서낭당에는 참배객들이 바친 옷이 많이 걸려 있다. 이곳에 옷이 여러 벌 쌓이면 마을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입도록 한다.

참배객들이 바치는 돈은 유사가 받아서 기록하고, 그 돈을 모아서 제당 관리비와 제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의를 행하는 것은 신의 기분이 좋아져서 사업이 잘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현재 운항 중인 포항~울릉도 정기여객선인 선플라워호의 선주도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이곳의 해신제는 울릉도민들에게 유명하다.

학포의 해신제는 동제 유형이다. 이곳의 해신제는 마을 남쪽에 위치한 산왕각에서 행한다. 현판에는 칡덩굴에 종이와 솔잎을 끼워서 달아 두었으며, 제당은 양철지붕에 돌로 벽을 쌓았다. 입구에는 '뿔뚜나무(보리수)'가 서 있다. 제당 내부에는 해왕신위(海王神位)와 울릉도산신대왕신위(鬱陵島山神大王神位)가 모셔져 있고, 각 위패에는 백지를 접어서 덮어 두었다. 즉 현판은 '산왕각'이지만 주민들이 '해신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先)주민들이 산신을 주로 모시다가 일제강점기 이후 어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해신을 동시에 합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당 내부에는 삼짇날 풍어제를 행할 때와 지신밟기를 할 때 사용하는 북과 징이 보관되어 있다.

제의는 3월 3일 새벽 4시쯤에 제관 두 명, 제주와 축관 각 한 명이 참여하여 이루어진다. 축문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한글로 기록된 것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축문 자체가 없어졌다. 제일(祭日) 열흘 전에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은 사흘 전에 제당과 집에 해송가지와 백지 조각을 달아 둔 금줄을 친다. 1994, 1995년부터는 칡덩굴로 금줄을 만들어 사용한다. 그리고 하루 전에 제당을 청소한다. 황토는 제당 입구에만 뿌리고, 제관의 목욕은 자기 집에서 행한다. 제수는 주과포, 메, 나물(콩나물과 산나물), 돼지머리(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머리만 사용함), 문어, 전복, 소라 등이다. 제의를 행한 아침에는 음복을 하면서 술을 마신다. 이때 꽹과리를 치고 다니며, 모든 배에 올라서 풍어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낸다.

학포 주민들은 정월대보름날에 산신제도 지낸다. 산신당에는 토지산령지위(土地山靈之位), 성황신지위(城隍神之位), 여질지신위(癘疾之神位)의 세 위패가 하나의 제단에 나란히 모셔져 있다. 오른쪽에는 별도로 토지지신산령지위(土地之神山靈之位)의 위패가 있다. 이는 1950년 즈음 인근 삼막마을의 신위를 합설하였기 때문이다. 제의를 행할 때에는 산신당에서 제의를 먼저 행한 다음 그 음식을 가지고 산왕각으로 내려가서 해신당의 제의를 올린다. 이것으로 보아 주민들은 산신이 해신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공동체 신앙의 변화를 통한 집단 정체성 회복**(이기태, 지역문화사의 민속학적 인식, 민속원, 2004), **독도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도민의 문화**(박성용 · 이기태, 독도 울릉도의 종합적 고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1998), **울릉도 동제의 의례성과 제의 수행집단의 변화**(박성용, 독도 · 울릉도 사람들의 생활공간과 사회조직 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독도연구총서 2, 경인문화사, 2008).

필자 이기태(李淇泰)

울주방기리알바위

정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알바위. 1997년 10월 9일에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며, 1994년 울산 MBC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알바위는 바위에 알[卵]처럼 움푹 파인 반구형(半球形)에 가까운 구멍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에 새겨진 고대 유적의 하나로 이해된다. '알터', '성혈(性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알바위가 있는 곳은 작은 동산이다. 숲이라고 할 정도는 못 되지만 꽤 큰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 소나무 군락 사이사이에 화강암 바위들이 불규칙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화강암 바위 위에 알 모양의 움푹한 구멍들이 파여 있다. 바위는 둘레가 4~5m에 이르는 큰 것에서부터 채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것 등 다양하다. 이들 바위에는 많게는 40개, 적게는 1개의 알 모양의 움푹 파인 구멍들이 있다. 쉽게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들도 있지만 큰 것은 지름과 깊이가 각각 10㎝ 정도에 이른다.

바위에 새겨진 알 모양의 움푹 파인 구멍들은 바위에 작은 돌로 둥글게 문질러서 생긴 자국이다. 아이 갖기를 염원하는 부인네들이 작은 돌로 바위를 문지르다가 그 돌이 바위에 붙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성혈은 이 속설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대개 그런 바위를 붙임바위 또는 부암(附巖)이라고 부른다.

성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도 있다. 성혈은 고인돌의 뚜껑돌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여성 성기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는 설명도 있고, 태양을 상징하는 제의와 관련한 주술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최근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 뚜껑돌 위의 성혈 가운데에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여 천문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한반도 남부

알바위가 위치한 동산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010.6.13
박경신

에서 성혈 암각은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철기시대 초기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기리 알바위는 바위에 여러 개의 성혈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운데에는 동심원 모양으로 둥글게 성혈을 배치한 바위도 있다. 특히 일부 성혈은 십자형의 인공적인 선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처럼 성혈과 성혈 사이를 인공적인 선으로 연결한 것은 주술력을 모으려는 유감주술의 결과이거나 어떤 천문학적 사실을 설명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선은 상당히 깊게 파인 것도 있고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어서 한눈에 보아도 뚜렷한 목적으로 바위에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주변의 지리적 여건이나 많은 성혈이 새겨진 바위들이 군집해 있다는 사실로 보아 고대의 어떤 제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제의는 없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동산에서 마을 제의를 지낸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이 마을에서는 현재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자시(子時)에 마을제를 지내고 있는데, 제의 장소는 이곳 알바위가 아니라 개울 건너 30~40m 떨어진 삼남농협건물 앞쪽에 있는 당산나무 앞이다.

알바위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010.6.13
박경신

이 당산나무는 몇 년 전에 말라죽어 밑동과 줄기만 남아 있고 그 옆에 심은 새끼나무가 제법 자라 있다. 따라서 현재 이곳 알바위에서 행하는 마을단위 제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다같이 돌자 울산 한바퀴(도서출판 처용, 1999).

필자 박경신(朴敬伸)

울진12령새재성황사

정의 보부상이나 이후 선질꾼들의 신앙 처소로서의 기능과 함께 세상을 뜬 보부상과 선질꾼들을 위한 재사(齋舍) 기능을 함께 하던 제당.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에 있다.

형태 울진과 봉화를 연결하는 12령 가운데 새재 바로 아래에 중수를 하여 반듯하게 유지되고 있는 새재성황사는 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으로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제당이다. 소나무 판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만들었으며, 정면에는 좌우 여닫이문을 달았다. 제당 정면 입구에는 '조령성황사(鳥嶺城隍祠)'라 쓴 편액을 걸었다. 성황사 내부에는 중수와 관련한 현판이 14개 걸려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1868년 이후의 중수와 운영에 대한 현황을 잘 알 수 있다. 대관령 서낭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지는 이 성황사는 당 내부에 여자 화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역사 12령에 있는 새재성황사를 중수하고, 이를 어떤 성격으로 운영하였는지 이를 운영한 주체는 언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사실들은 성황사 내에 있는 중수 현판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현판 내용을 중심으로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령성황사 중수기(鳥嶺城隍祠 重修記)」에 따르면 새재성황사는 "上之 五年 戊辰 七月"로 1868년(고종 5)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68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戊寅 四月 日"이라는 문구를 통해 1878년에 새재성황사 지붕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光緖十肆年 戊子"라고 하여 1888년(고종 25)에 성황사를 중수하였다. 이를 기록한 현판에는 중수에 참여한 보부상단의 직책과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을미년(1895년이나 그 이전으로 추측) 음력 10월 상순, 을해년(1935) 4월 20일, 무자년(1948) 4월 30일, 신축년(1961), 1983년에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1868년 중수 기록이 담긴 「조령성황사 중수기」에 목수(木手)와 함께 '화공 황순기(畫工 黃順基)'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중수하면서 당신도(堂神圖)를 그려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1894년에 성황당(城隍堂) 당신도를 바꾸었다. 이를 기록한 현판에 따르면 당시 화공 이치윤(李致潤)이 성황당 당신도를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1962년 10월 15일에 조령성황사영정(鳥嶺城隍祠影幀)을 봉안하였으며 화사(畫師) 이택룡(李澤龍)이 그렸다는 사실을 적은 현판이 있다.

둘째, 새재성황사를 중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제당의 기능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8년에 중수한 이래 1916년까지 작성된 중수 현판에는 조령성황사 또는 성황당을 중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1919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조령성황보호금열명기(鳥嶺城隍保護金烈名記)」에 '재소창설발기인(齋所創設發起人)' 즉 '재소(齋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이후 보부상 조직이 와해되면서 과거 보부상단에 속하였던 사람들끼리 새재성황사를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면서 선대 보부상 조직원들을 추모하는 등의 처소로 활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만들어진 중수 현판 가운데 1919년의 '재소중수발기인(齋所重修發起人)'과 1932년의 '조령성황재사중수시기부인방명록(鳥嶺城隍齋舍重修岩寄附人芳名錄)'에도 12령 새재성황사를 넘나들며 장사를 하는 행상단의 안전과 장사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선대 보부상 등을 위한 재실(齋室)을 겸한다는 의미를 지닌 '재소(齋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부상단의 신앙 공간으로 이용되던 새재성황사가 일제강점기 이후 재실의 기능도 함께하였음을 보여 준다.

셋째, 중수를 주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재성황사 운영 주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868년 이래

성황사를 중수한 것은 12령을 오가며 장사하면서 일정한 조직을 갖춘 행상 즉 보부상들이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이 확대되고 좀 더 체계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한 새재성황사 중수는 「시재기(施財記)」를 작성한 때까지였다. 1904년 이후 전국적으로 보부상단이 해체됨에 따라 이 지역의 보부상단도 해체되었고, 보부상을 이은 선질꾼들이 12령을 넘나들며 봉화와 울진 간의 상품 거래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16년에 만든 현판인 「조령성황보호금열명기」에는 '전공사원(前公事員) · 전장무원(前掌務員)'이라 하여 보부상 해체 이후의 상황을 알려주는 명칭이 보이며, 1935년에 중수하면서 게판(揭板)한 「조령성황재사중수시기부인방명록(鳥嶺城隍齋舍重修岩寄附人芳名錄)」, 「조령성황당중수시기부인방명록(鳥嶺城隍堂重修時寄附人芳名錄)」(1948), 「조령성황사중수임원급기증방명록(鳥嶺城隍祠重修任員及寄贈芳名錄)」, 「조령성황사중수시(鳥嶺城隍祠 重修時)」(1961), 「조령성황사영정봉안시(鳥嶺城隍祠影幀奉安時)」(1962)를 통해서 중수를 주재한 직책이 '주무(主務)'와 '유사(有司)'였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선질꾼들이 주도하여 제물을 준비하여 제를 지냈으며, 선질꾼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빛내마을에서 제당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제당 내부에는 정면과 좌우에 제단이 있다. 제당 내 정면에는 '조령성황신위(鳥嶺城隍神位)'라고 묵서한 나무 위패가 있다. 제당 명칭과 위패로 보아 성황신을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두대간의 고갯마루 중에서 강원도에 있는 제당 명칭이 '○○山靈閣'이고, 모시는 신령 또한 산신 계통이 많다는 점과 비교하였을 때 성황신을 모시는 것은 큰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 행상단이 이곳을 지날 당시 제당 아래에 주막이 있었고, 소규모의 마을과 전답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마을 수호신의 역할과 함께 행상단을 위한 신앙의 처소로서의 기능을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부 벽에는 각종 중수기가 걸려 있다.

제당은 새재 고갯마루에 위치한다. 보부상들이 주로 다닌 울진 후포의 다투고개, 태백산 사길령, 원주 신림의 싸리재와 가라파, 봉화의 고치령, 태백의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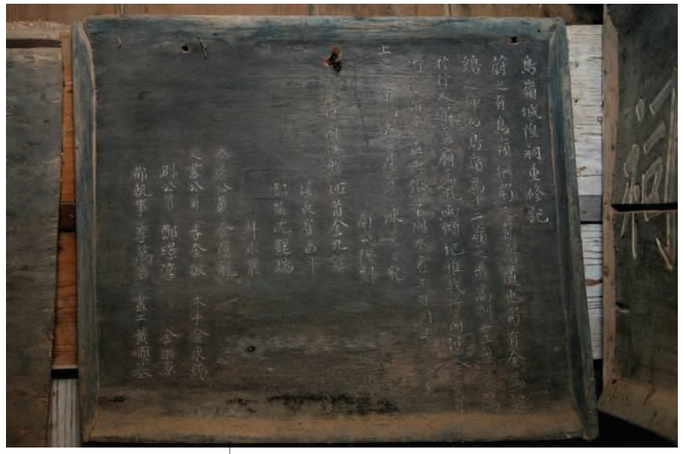
새재성황사 내 전경과 중수 현판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2009.3.28 김도현

령, 임계의 삽당령 등 대부분의 고갯마루에는 이들이 위한 제당들이 위치하고 있다.

1967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단 위에 마구 할매의 화상(畫像)이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없다. 새재성황사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당신도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1868년에 만들어진 「조령성황사 중수기」에 따르면 '화공 황순기'가 제당을 중수하면서 당신도를 그려 봉안하였고, 1894년 중수기에 따르면 화공 이치윤이 성황당 당신도를 다시 그려 봉안하였다고 하였다. 1962년에 조령성황사영정을 다시 봉안하였는데, 이를 그린 화사는 이택룡이다. 1967년 조사 자료에 기록된 마구 할매의 화상은 이 영정을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목(神木)은 제당 동쪽에 있는 높이 20m의 들미나무이며, 제당 둘레에는 파손된 기와와 돌로 나지막한 돌담을 쌓았다. 그리고 제당에서 찬물내기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아래에 보부상이나 선질꾼들이 지나면서 돌을 던져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돌무지가 남아 있다. 인근의 안일왕 산성과 관련하여 아밀왕이 성을 쌓기 위해 돌을 나르던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새재성황사 편액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2009.3.28 김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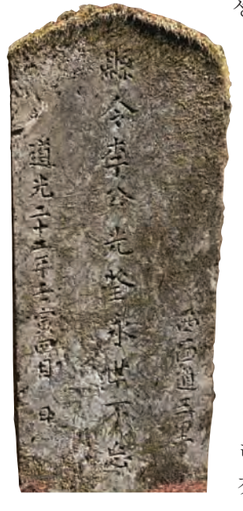


새재성황사 내 1868년 중수 현판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2009.3.28 김도현

이와 함께 제당 주변에 도광(道光) 22년 임인년(壬寅, 1842)에 세운 '이광전 영세불망비(李光筌 永世不忘碑)'가 세워져 있다. 새재성황사와 함께 이 불망비는 새재가 주요 교통로였음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제사는 1년 중 봄과 가을에 지냈다. 제관은 연장자로 선정하였으며, 제비(祭費)는 위답(位畓)에서 부담하였다고 한다. 준비한 제수는 술 · 메 · 백설기 · 쇠고기 · 과실이었으며, 고사를 지낸 후 별신굿을 하였다고 한다. 두천리 주민들에 의하면 새재 서낭당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10월쯤에 좋은 날을 받아 굿을 하였다. 소요되는 경비는 위답(位畓)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소작료를 받아서 모으고, 찬조도 받았다. 하루 굿을 하였고, 무당 3~4명이 와서 진행하였다고 한다. 굿을 하면 인근에 있는 빛내 · 장평 · 홈교 · 소광2리 · 찬물내기 · 소광1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굿을 보러 왔으며, 선질꾼들은 여유 시간이 있으면 보고 갔으며, 일부는 시주를 하였다고 한다.

선질꾼들이 더 이상 12령을 다니지 않으면서 새재성황사 운영은 인근 마을인 소광1~3리가 함께 하였고, 이 때 장평과 찬물내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참여하였다. 30여년 전에 더 이상 인근 마을 모두가 유지하기 어려워 빛내마을(소광3리)로 넘겨주었다.



새재성황사 아래에 있는 이광전 영세불망비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2009.3.28. 김도현

원래 빛내마을 서낭당이 있었으나, 새재서낭당을 큰 서낭으로 모셨다. 그러나 지금은 빛내서낭당은 없고 새재성황사 운영 또한 마을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의의 새재성황사에서 모신 신령은 '조령성황신위'이다. 즉 '조령(鳥嶺)'을 비롯하여 고갯마루에서 일반적으로 산신을 모셔야하나 성황신을 모시고 있다. 고갯마루에 있는 제당에서 성황신을 모신 사례는 봉화의 박달재, 고직령, 강원도 임계에 있는 삽당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달재에 있는 제당 명칭이 산령각이며, 고직령 또한 산령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이들 제당을 성황각 또는 성황당이라 부르며, 이들 제당에서는 '산령각'이라는 제당 명칭과는 달리 성황신을 모신 것이다. 박달령에서는 후대에 만들어진 중수 현판에 제당 명칭을 마을에서 부르는 '박달령 성황각'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강원도 내의 고갯마루에 있는 산신당에서는 대부분 산신을 모신다.

즉 경상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대부분의 고갯마루에 있는 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은 '산이나 고개 이름+성황신'이라고 표기한 신령을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강원도에서는 고갯마루에 있는 제당에 모신 신령은 '○○ 산신령'인 예가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경상도 지역에서 모시는 신령이 산신에서 성황신으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치령에서 영월 방향의 자연마을에서 모시는 신령은 '태백산 성황신위'인 예가 있으며, 고치령에서 봉화 방향의 마을에 있는 마을 제당에서는 '소백산 성황신위'를 모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시고 있는 신령이 산신에서 성황신으로 변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신(神)'을 표현함에 있어 '산신'을 '성황'으로 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산신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면에는 산신의 영험에 의지하려는 측면이 계속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재성황사에서 모시는 '조령성황신'은 지역의

전통을 반영하여 산간이나 고갯마루에 있는 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이 '산신당의 산신-산신당의 성황-○○山[○○嶺]성황사의 성황'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고갯마루에 있는 국시나 제당에는 이곳을 지나는 행상들이 안전과 상업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 개인적인 치성을 드리는 예가 대부분이나 새재성황사에서는 12령을 넘나들며 장사한 보부상과 그 뒤를 이은 선질꾼들이 지속적으로 제당 중수와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적인 구심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1919년의 「재소중수발기인」과 1935년의 「조령성황재사중수시기부인방명록」 현판을 보면 새재성황사를 마을제당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선배 보부상들을 위한 재소(齋所)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보부상단의 공식적인 조직은 와해되었어도, 새재성황사 중수와 유지 및 제사에 보부상단의 후예와 선질꾼으로 대표되는 행상단이 지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과거 보부상단의 맥을 이어가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질꾼들이 더이상 12령을 다니지 않으면서 새재성황사 운영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이 또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빛내마을에서 모셨다. 지금은 새재성황사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전통은 없어졌다. 보부상단이 운영하던 후포 다투고개 산신각,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원주 치악산 싸리재와 가리파 성황당도 이 지역을 오가며 장사한 상단들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근 마을 주민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새재성황사 운영의 변동 양상은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보부상단이 남겨둔 재산이 있어 이

울진12령새재성황사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2009.3.28
김도현

울진 내성 행상불망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2009.3.28
김도현

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제사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새재성황사에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그 명맥이 끊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67년 조사 자료와 현지 조사 결과 새재성황사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성황제사를 지냈다. 제당 운영에 보부상들이 적극 참여한 울진 후포 산신각은 5월 6일에 제당을 처음 만들었기에 이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제는 매년 음력 사월 보름에 지내며, 태백시에 있는 느릅재에서는 매년 음력 사월 열엿샛날 산령제를 지낸다. 치악산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한 보부상과 관련있는 싸리재와 가리파의 성황당에서는 매년 삼짇날과 중양절에 제를 지낸다. 대부분의 자연 마을에서 정월 초하루나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산 정상 부근에 있는 제당들이어서 겨울에 쌓인 눈 등으로 인해 겨울에는 이곳을 오가며 장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갯마루의 눈이 녹은 후 본격적인 상업 활동을 하기 전에 상단의 안전과 상업 활동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명단 현판, 無題 현판**(1916), **城隍堂改像時**(1894), **施財記**(1800년대 중반 이후로 추정), **齋所重修發起人**(1919), **鳥嶺城隍堂重修時寄附人芳名錄**(1948), **鳥嶺城隍保護金烈名記**(1919년 이전), **鳥嶺城隍祠 蓋瓦時**(1878), **鳥嶺城隍祠 重修記**(1868), **鳥嶺城隍祠重修時**(1961), **鳥嶺城隍祠**(1895), **鳥嶺城隍祠影幀奉安時**(1962), **鳥嶺城隍祠重修任員及寄贈芳名錄**, **鳥嶺城隍齋舍重修崙寄附人芳名錄**(1935), **重修 上樑文**(1983), **重修記**(1888),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보부상 집단의 신앙 결사와 후포 산신각**(천혜숙, 동해안 마을의 신당과 제의, 민속원, 2007), **울진 12령 넘나든 선질꾼들의 삶과 문화**(안동대학교박물관 · 울진문화원, 2005), **울진 12령 새재[鳥嶺] 성황사와 보부상단**(김도현,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10),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 연구**(이소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제 연구**(신종원 · 노남호, 강원문화사연구 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8), **한국의 보부상**(이창식, 밀알, 2001).

필자 **김도현(金道賢)**

울진개바우마을동제문서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거일1리, 속칭 구암(狗岩) 또는 '개바우'라고 부르는 반농반어촌의 마을 자치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동제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및 재산관리 등을 기록한 문서.

역사 개바우마을의 자치조직은 동수조직(洞首組織)이라고 하는 '노계(老契)'이다. 이 조직의 생성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1850년인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계는 당고사의 수제관(首祭官)인 존위(尊位)를 지냈던 사람들로 구성된다. 노계의 성원 중에서 최고령자를 '좌상(座上)'이라 하고, 그다음의 고령자를 '부좌상(副座上)'이라고 부른다. 즉 노계는 마을 일의 실무를 책임졌던 좌상 집단인 것이다. 마을의 실무를 책임지는 담당자로는 유사(有司)와 동수(洞首)와 존위가 있다. 이들은 노계에서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은 마을의 정식 주민이어야 한다. 즉 이 마을로 새로 이사 온 사람과 마을 안에서 분가한 경우에도 입참례(入參禮)를 행해야 비로소 정식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 그 대상자는 유사에게 입참례를 행할 시기를 알려주면, 유사는 동수에게, 동수는 존위에게, 존위는 좌상에게 알려서 행사를 하게 된다. 그 방법은 동사에서 노계의 성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음료수를 준비해 놓고 "이 마을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다. 입참례를 행하지 않으면 미역짬의 분배를 받을 수 없고 마을회의에서도 발언권이 없다.

유사는 동네 일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동임의 첫 단계이다. 동수는 유사를 지낸 사람 가운데 순서대로 맡으며, 7년 만에 동수를 맡은 사람도 있어서 그 시기는 일정치 않다. 유사를 거치지 않고 동수가 된 사람은 '와채동수'라고 하며, 이들은 실제 마을회의나 모든 경우에 유사보다도 낮게 취급된다. 존위는 수제관으로 고사를 주도한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1년이다. 당고사의 기간에는 모든 주민에게 반말을 하고,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에게는 서로 맞절을 한다. 즉 주민들은 그를 주민대표로서 인정하는 셈이다. 본격적인 고기잡이철은 중구고사를 지낸 뒤 시작되며, 동임을 맡은 사람은 고사를 지내기 전에는 바다에 나갈 수 없다. 예전에는 동임을 맡으면 6개월간 배를 타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고 한다.

즉 이 마을의 자치조직은 좌상을 정점으로 한 어

른들의 집단인 노계가 있고, 그 밑에 다양한 마을 일들을 주관하는 존오와 동수, 유사가 있어서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치조직에서 매년 행하는 마을의 다양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다음의 문서들이다.

내용 문서의 분류와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표기는 본래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1. 동안류(洞案類) 동안류는 6건으로 구암리의 주민 자치조직[일명 동수조직('洞首組織')이라 함]의 규칙과 임원 구성을 기록한 문서이다. 동중좌목성책(洞中座目成册, 1895), 동중좌목(洞中座目, 1899), 구암분동동안(狗巖分洞洞案, 1900), 동안(洞案, 1909), 동중의안(洞中議案, 1940), 구암동동원좌목기(狗巖洞洞員座目記, 1866)가 여기에 해당된다.

2. 성책류(成册類) 성책류는 28건으로 주민 자치조직의 다양한 활동상황(제당의 증개축, 공동 재산의 관리와 증식, 세금납부, 공동노역 등)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들이다.

신건모옥개초성책(新建茅屋蓋草成册, 1850), 본동패계이패성책(本洞牌稧李牌成册, 1868), 본동별보전분급기(本洞別補錢分給記, 1868), 공납성책(公納成册, 1895), 남하리면구암동사환미수성책(南下里面狗巖洞社還米修成册, 1899), 구재성책(鳩財成册, 1899), 선염곽세구별성책(船鹽藿稅區別成册, 1900), 각양공납보급장책(各樣公納報給掌册, 1903), 공전수조성책(각양공납원수성책)[公錢修造成册(各樣公納元修成册), 1905)], 곽암방매기구재성책(藿巖放賣記鳩財成册, 1905), 입문기(入文記, 1905), 각동구걸보급록수성책(各洞求乞報給錄修成册, 1906), 각세금영수정성책(各稅金領收正成册, 1908), 입문여부비기동별보성책(入文與浮費記洞別補成册, 1908), 구암동결수신고성책(狗巖洞結數申告成册, 1909), 구암동중별보성책(狗巖洞中別補成册, 1909), 각동구걸성책(동사성공시)[各洞求乞成册(同舍成工時), 1910], 남하리면구암동식목성책(南下里面狗巖洞植木成册, 1911), 신유보폐전이래자노반별보성책(新襦補弊錢移來者老班別補成册, 1916), 궐기(闕記, 1917), 관전성책개초성책(關錢成册盖草成册, 1926), 구동송계성책(九洞松契成册, 1926), 동사신축비록(洞舍新築費錄, 1958), 평

구암동 완문(1882)
1986. 이기태

해군청훈시접수부(平海郡廳訓示接受簿, 1914), 구암동성황당중수청조문(狗巖洞城隍堂重修淸助文), 남하리면구암동인구조사성책(南下里面狗巖洞人口調査成册, 1909), 구암동연명부총(狗巖洞連名簿總, 1911), 재무조사부(財務調査簿, 1913), 송계관전수성책(松稧官錢收成册, 1905) 등을 성책류로 분류할 수 있다.

3. 완문류(完文類) 완문류는 7건으로 구암리의 사회질서 확립과 주민의 기풍 진작을 위한 규약을 기록한 문서이다. 완문(完文, 1870), 구암동완문(狗岩洞完文, 1882), 남하리면완문(南下里面完文, 1898), 구암동완문(狗岩洞完文, 1901), 구암진완문(狗岩津完文, 1906), 남진완문(南津完文, 1909), 근남면향약절목(近南面鄕約節目)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 하기류(下記類) 하기류는 62건으로 주민 공동제 제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하기류에는 정조고사하기(正朝告祀下記, 1925), 동중하기(洞中下記, 1926), 동중계(洞中計, 1927), 신미고사하기(新米告祀下記, 1928), 중양일도신록(中陽日禱神錄, 1928), 별고사하(別告祀下, 1928), 정초고사하기(正初告祀下記, 1928), 천신고사하기(薦新告祀下記, 1929), 중양도신하기(中陽禱神下記, 1930), 고사하(告祀下, 1932), 고사하기(告祀下記, 1930), 중양도신하기(重陽禱神下記, 1930), 고사하(告祀下, 1932), 정초고사하(正初告祀下, 1932), 동중하기(洞中下記, 1933), 동중하기(洞中下記, 1936), 동중류이하기(洞中流伊下記, 1938), 고사하기(告祀下記, 1938), 성조고사하기(成造告祀下記, 1940), 신미고사하(新米告祀下, 1940), 고사하기(告祀下記, 1943), 하기(下記, 1946), 제사하기(祭事下記, 1947), 정초고사하기(正初告祀下記, 1948), 동중하기(洞中下記, 1948), 정조고사하기(正朝告祀下記, 1949), 하기(下記, 1949), 정조고사하기(正朝告祀下記, 1950), 제하기(祭下記, 1950), 제사하기(祭事下記, 1954), 구월중구무인소비(九月重九巫人消費, 1955), 제사하기(祭事下記, 1956), 하기(下記, 1957), 중양고사하기(重陽告祀下記, 1957), 정조고사하기(正朝告祀下記, 1958), 제사하기(祭事下記, 1958), 하기(下記, 1959), 제(사하기)[祭(祀下記), 1960], 신미제하(新米祭下, 1961), 중양제사하기(重陽祭祀下記, 1961), 정초고사하기(正朝告祀下記, 1962), 신미고사하기(新米告祀下記, 1962), 중양고사하기(重陽告祀下記, 1963), 정초고사하기(正朝告祀下記, 1964), 동중유리하기명세서(洞中流離下記明細書, 1963~1964), 성황중수하(城隍重修下, 1938), 정조고사하기(正朝告祀下記), 중양시(重陽時, 1967), 중양고사후하기(重陽告祀後下記), 중양도신잡비(重陽禱神雜費), 정조제하기(正朝祭下記), 중양고사하기(重陽告祀下記), 동중하기(洞中下記)가 있다.

5. 수기류(手記類) 수기류는 5건으로 골매기제 성원인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어장 침입 또는 어획량에 따른 세금 등 구임리와 인근 마을들 사이에서, 또는 어로세 등 다양한 돈 거래 행위를 기록한 문서이다.

동중전수기(洞中前手記, 1900), 박향장전수기(朴鄕長前手記, 1903) 외 24건, 박향장전표기(朴鄕長前標記, 1905) 외 4건, 이행수전수표(李行首前水標, 1907) 외 11건 등이 해당된다.

6. 분배기류(分排記類) 분배기류는 28건으로 골매기제의 중요한 자금이 되는 원천인 마을 공동구역인 '짬'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짬'의 분배와 수익금의 분배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후리항하기분배기(厚里舡下記分配記, 1903), 화포암분배(和布岩分排, 1930), 화포암추첨기(和布岩抽籤記, 1937), 화포추첨기(和布抽籤記, 1938), 별신하기분배(別神下記分排, 1938), 곽암추첨기(藿岩抽籤記, 1940), 화포암추첨기(和布岩抽籤記, 1944), 화포암추첨기(和布岩抽籤記, 1945), 화포암분배기(和布岩分配記, 1945), 화포암분배기(1946), 풍락화포함기(1매, 1948), 화포함분별명부(1매, 1948), 화포대금입(和布代金入, 1949), 화포암분별기(和布岩分別記, 1950), 절곽혈매도금(絶藿穴賣渡金, 1959), 화포암입금(和布岩入金), 호포배정기(戶布排定記, 1902), 채조분배기(採藻分排記, 1926), 채조분배기(採藻分排記, 1951), 곽암분배시하기(藿岩分排時記下), 곽암분배기(藿岩分排記), 후리항하기분배기(厚里舡下記分配記, 癸卯二月), 화포암분배(和布岩分配, 1930), 화포암추첨기(和布岩抽籤記, 1937), 화포암풍락대금(和布岩風落代金, 1958), 화포암입금(和布岩入金) 등이 분배류에 해당된다.

7. 봉상기류(捧上記類) 봉상기류는 26건으로 골매기제의 중요한 자금이 되는 '짬'(곽암)의 수익금이나 어로 수익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을 공동기금의 운용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곽암방매기(藿岩放賣記, 1893), 동중별보추봉상기(洞中別補推捧上記, 1904), 이상존회계(李上尊會計, 1905), 구암동기어개광기(狗岩洞幾魚改筐記, 1908), 동중노반전본리추봉기(洞中老班錢本利推捧記, 1911), 봉상전기(捧上錢記, 1911), 동중곽수봉기(洞中藿收捧記, 1911), 남하리면구암리저축별명기(南下里面狗岩里貯蓄別名記, 1912), 백미수입기(白米受入記, 1924), 동중별보전(洞中別補錢, 1925), 일본인연조금(日本人捐助金, 1926), 동중별보전(洞中別補錢, 1926), 제초초(除草抄, 1928), 유용(流用, 1930), 중앙기부금(中央寄附金, 1930), 고사시입금(告祀時入金, 1943), 오락기기부금(娛樂器寄附金, 1947), 기부기(寄附記, 1948), 동중금차용(洞中金借用, 1950), 제사비입금(祭祀費入金), 곽암방매기(藿岩放賣記, 1913), 동중구암병수봉기(洞中狗岩幷收捧記, 1913), 곽암전수입(藿岩錢收入, 1919), 구암리곽암 수입금(狗岩里藿岩 收入金), 곽암전배정암수산금원납기(藿岩錢排定岩水産金元納記, 1920), 패미출방기(牌米出放記)가 봉상기류에 해당된다.

8. 규약서류(規約書類) 규약서류는 9건으로 골매기제의 중요한 자금이 생산되는 '짬'(곽암)의 미역 채취와 관련한 규약과 계약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계약서(契約書, 1914), 곽암채취시인원규칙(藿岩採取時人員規則, 1920), 임야경계서약서(誓約書, 1924), 구암대동회석상화포채취규(邱菴大洞會席上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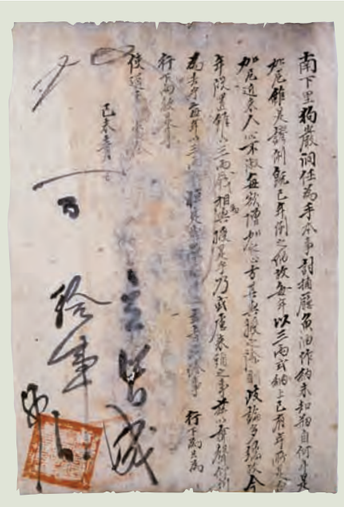
布採取規, 1930), 습곽선조약서(拾藿船條約書, 1933), 서약서(誓約書, 1934), 화포채취규약서(和布採取規約書, 1934), 화포분배시조약의 건(和布分配時條約의 件, 1935), 계약서(契約書, 1948)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9. 전장기류(傳掌記類) 전장기류는 8건으로 구암리 공동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보관 상황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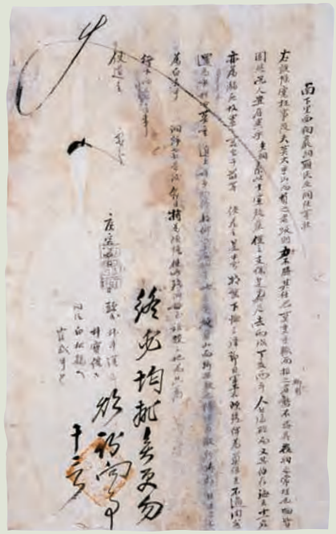
동중입문기(洞中入文記, 1908), 구임유사전장기(舊任有司傳掌記, 1910), 신임전장기(新任傳掌記, 1915), 도신시치부록(禱神時致富錄, 1926), 취회시입금기(聚會時入金記, 1931), 현금출납부(現金出納簿, 1933), 전장기(傳掌記, 1934), 총회시구책이래(總會時舊册移來, 1929) 등이 있다.

10. 입지 · 소지류(立旨 · 所志類) 입지 · 소지류는 12건으로 모두 조선 후기의 것으로 구암동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양한 송사를 관청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남하리구암동임위수본사……(南下里狗岩洞任爲手本事……, 1895) 외 3건, 남하리면구암동거박두한백학조윤인길정구보전개필등장(南下里面狗岩洞居



남하리 구암동임위수본사(1895)
1986, 이기태



남하리면 구암동 두민 급 동임등장(1890)
1986, 이기태

朴斗漢白學祚尹仁吉鄭九寶全啓弼等狀, 1906) 외 3건, 구암동동임위첩장등……(狗岩洞洞任爲牒狀等……, 1893)외 2건, 우문위영구준행사……(右文爲永久遵行事……, 1889) 외 4건, 남하리구암동민인등장(南下里狗岩洞民人等狀, 1864), 구암동거박성관박원식등(狗岩洞居朴成寬朴元植等, 1887), 남하리구암동동임위첩보사……(南下里狗岩洞洞任爲牒報事……, 1889), 남하리구암동동민등장(南下里狗岩洞洞民等狀, 1890), 남하리면구암동두민급동임등장(南下里面狗岩洞頭民及洞任等狀, 1890), 남하리구암동동민등장(南下里狗岩洞洞民等狀, 1892), 남북각진혜민등도부장(南北各津仁民等到付狀, 1899), 구암동박보배백학손등등장(狗岩洞朴寶培白學遜等等狀, 1904)이 해당된다.

11. 기타 15건으로 이들 중에서 묶어져 있거나 두루마리 형태 등으로 보관된 문서들은 분류가 가능하나 낱장으로 존재하는 위의 문서들은 특별히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타로 분류된 것은 문서의 머리 부분에 제목이 표기된 것들이다.

김택수후리채전기(金澤水厚罹債錢記, 1900), 휘리선중전수기(揮罹船中前手記, 1902), 각동구공표(各洞求公標, 1905), 대로소설궐계(大路小雪闕計, 1922), 도로궐기(道路闕記, 1926), 동사개초초(洞舍盖草抄, 1928), 도로수선시궐기(道路修繕時闕記, 1932), 도로수선우시(道路修繕于時, 1937), 동사낙성식(洞舍落成式, 1958), 동사낙성식부조부(洞舍落成式扶助簿, 1958), 품청 보고제일호(稟請 報告第一號, 1911), 게방(揭榜, 1921), 계방(啓榜, 1923), 성조택일(成造擇日, 미상), 오월수입금부(五月收入金簿, 미상) 등이 있다.

12. 분류 불가 19건으로 제목의 표기가 없이 낱장으로 존재하는 문서들은 분류 불가로 처리하였다.

미대(米代), 금은이전명문(金銀伊前明文), 구암동(狗岩洞) 외 3건, 망(望), 수입금(收入金), 입금부(入金簿), 입금(入金) 인부대, 기(記), 하기(下記), 십육년정월십이일(十六年正月十二日), 미분수금(未分授金), 구월구일회계(九月九日會計), 목수(木手)엔젱기, 공외(恐外) 13건, 칙론(勅論) 등이 있다.

의의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1리 개바우(狗岩)마을의 문서들은 마을의 역사 중에서 100여 년간 이 마을이 겪었을 다양한 생활사의 증거물들이다. 자료들은 모두 촌락사회의 이념적 중심이었던 '골매기제'라고 부르는 동제와 동제의 주체였던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100여 년 동안의 촌락사를 통해서 사회변동과 동제의 변화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 생성되고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 개의 제당은 동제가 마을의 역사를 반영하는 상징적 증거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당은 마을 입구의 안쪽에 위치한 기와집 형태의 박씨골맥이당, 마을 입구의 바깥쪽에 위치한 산기슭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김씨골맥이당, 마을 입구 바닷가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인 이씨골맥이당 등이다. 자연물을 제당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인공건축물 제당에 비해서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두 자연물 제당의 대상신 성씨인 김씨와 이씨가 박씨에 비해서 더 선주민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마을에서 전승되는 "이씨 터전에 박씨 골맥이"라는 향언(鄕言)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제당의 위치와 대상신의 성씨는 마을의 형성 배경 및 변화사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1986년 조사 당시 마을에서 주도권을 행세하는 밀양 박씨들이 박씨골맥이를 자신의 조상으로 이해하면서 골맥이제사를 주관하고 있었음이 확인될 정도로 상징물을 이용한 마을 정치의 변화상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당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매년 3회에 걸친 당고사를 통하여 동제의 생태환경 적응의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즉 한 해의 풍농과 풍어 및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의 정월고사와 7월 백중일을 전후하여 햅쌀이 났을 때 택일하여 추수감사제의 의미를 지니는 신미고사,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9월 중구일에 행하는 중구고사가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크게 행하는 의례는 중구고사이다. 세 개의 제당에 모두 제의를 행하는데, 이것은 어촌마을의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제의는 동사(洞舍)의 성주에 대한 제의를 합하며 네 번 행하는 것이다. 다른 두 고사에는 박씨골맥이와 성주에 대한 2개의 제의뿐이다. 박씨골맥이당이 의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제당이 다른 두 곳에 비해서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 차례의 제의에서 마지막 절차는 동사(洞舍)에서의 성주고사이다. 이것은 세 개의 성씨 골맥이당에서 각각 행하던 의례가 주민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인 동사로 결집되어서 이들 의례가 사회통합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제관은 유고(有故)가 있는 사람과 입참례(入參禮)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으며, 1년에 1명씩 능력과 행실에 따라서 노계(老契)에서 선정한 유사(有司)와 동수(洞首) 및 존위(尊位)가 담당한다. 이들 가운데 유고가 생기면 당년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러한 자치조직은 서구문물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한국 농촌사회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자치조직의 조직과 운영 및 한국 촌락사회의 조직과 운영실태 및 변동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동해안어촌민속지**(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마을 공간분담과 당고사**(이기태, 지역문화사의 민속학적 인식, 민속원, 2004), **韓國東海沿岸の民俗祭儀**(金宅圭 · 益田庄三編著, 日韓漁村の比較研究, 行路社, 1991).

필자 **이기태(李淇泰)**

원귀(寃鬼)

정의 생전에 요절 · 객사 · 횡사 등으로 원한(怨恨)이 남아 저승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惡靈)을 일컫는 말.

내용 원귀는 왕신(王神), 몽달귀신, 삼태귀신, 객귀(客鬼), 영산, 수비, 수부 등으로 불린다.

흔히 영혼은 사령(死靈)과 생령(生靈)으로 나눌 수 있다. 사령은 사람이 죽은 후 저승으로 가는 영혼이고, 생령은 살아 있는 사람의 몸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다. 사령은 다시 조상령과 원혼으로 나눌 수 있다. 조상령은 순조롭게 살다가 저승으로 들어간 영혼으로 선령(善靈)이 되고 원혼은 생전에 원한이 남아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혼으로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지역사례 원귀를 달래는 마을신앙도 각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은산별신제는 원귀와 관련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옛날 은산지방에 유행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근심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의 한 노인이 잠시 낮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마루에 앉아 있으려니 한 신선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마을에 병마가 들어 근심인 것을 풀어 줄 터이니 나의 청을 들어주겠느냐?"라고 말하였다. 마을 노인은 "병만 없어진다면 무슨 청이건 듣겠노라"하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신선이 "나는 내 부하와 함께 억울하게 죽었으나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풍우(風雨)에 시달리고 있으니 잘 매장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 장소를 가르쳐주고 사라졌다. 노인은 깜짝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다. 노인은 바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꿈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르쳐 준 장소를 찾아가 보니 과연 수많은 전사의 백골이 산재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골을 잘 매장하고 그 원귀를 위령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랬더니 병마는 없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원동암 사도세자 당제도 원귀와 관련이 있다.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가 죽고 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던 1776년 이 마을 사람들 꿈에 사도세자가 나타났다. 마을 앞에 배 한 척이 닿더니 귀공자가 내려 마을 뒷동산에 올라,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이르기를 "나는 사도세자이다. 원한이 뼈에 사무쳐 나라를 두루 돌다가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곳 풍광이 좋아 내 혼이 머물 것이니 그리 알라"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사람들은 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저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같은 꿈이 계속되기에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고 초혼장을 지낸 뒤 단을 모시고 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이 제사는 음력 정월 상순 정일에 지낸다.

이 밖에도 배가 고파 물만 마시다 죽은 소금장수, 전쟁터에서 죽은 김충로 장군, 거사를 일으키려다 죽은 왕망, 선비를 사랑하다 죽은 청상과부 송여인 등 한이 맺혀 죽은 원혼을 달래는 제사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공동체신앙과 당신화연구**(표인주, 집문당, 1996), **巫와 민족문화**(조흥윤, 민족문화사, 1990),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이건욱(李健昱)

원주강원감영제(原州江原監營祭)

상호참조 원주강원감영지(713쪽)

정의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의 조선시대 사적지인 강원감영지(사적 제439호) 일원에서 해마다 9월 또는 10월에 열리는 종합축제.

역사 조선시대 초기의 치악산에 동악단을 쌓고 조정에서 봄과 가을에 보내온 향과 축문을 바탕으로 원주와 인접한 일곱 개 고을 수령들이 모여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봉행한 동악제가 원주강원감영제의 기원이 되었다. 동악제를 계승하여 1971년부터 '군도제'로 시작하였으며, '원주치악제'로 개최되다가 강원감영지가 사적 제439호로 지정되자 그 명칭이 '강원감영제'로 바뀌었다.

내용 원주강원감영제는 '시간여행, 강원감영 500년'을 주제로 조선시대의 다양한 지방제도와 문화를 볼거리로 내세우며 치악산동악단과 원주강원감영지(原州江原監營址) 일원에서 해마다 9월 또는 10월 중에 열리는 축제이다.

축제의 배경 및 취지는 강원감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장소에서 500년의 역사를 지켜 왔으며 강원도의 정치와 경제 ·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강원감영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강원감영 문화의 전통을 재현하여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유일의 행사인 '관찰사순력행차'를 핵심 주제로 동악제 · 관찰사고유제 · 신구관찰사교인식을 하고, 이와 아울러 치악산산신제를 재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강원감영문화제는 원주시 행구동 국형사(國亨寺) 앞에 위치한 치악산동악단에서 동악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동악제는 (사)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원주시장이 초헌관이 되어 강원감영문화제의 시작을 알리고, 국태민안과 강원도와 원주시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는 현존 최고(最古)의 유교식 산신제이다. 조선시대에도 강원도관찰사가 새로 부임해 오면 먼저 이곳 치악산동악단에서 동악제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례는 동악제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국형사가 주관하여 불교식으로 진행되는 산신대제가 있고, 강원감영지 선화당에서 진행하는 관찰사고유제(觀察使告由祭)가 있다. 관찰사고유제는 부임 관찰사가 지방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례로서 관찰사순력행차 이후에 진행된다. 고유제를 지낸 다음에는 관찰사연회가 벌어진다. 그리고 치악산산신당에서 원주의 무속의식으로 진행되는 치악산산신제가 있다.

강원감영문화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많은 행사는 관찰사순력행차이다. 관찰사순력은 관찰사가 각 고을을 순찰하던 제도로 '순행'이라고도 한다. 관찰사의 순력에는 수백 명의 수행인이 따른다. 강원감영문화제의 관찰사순력행차는 취고수악대와 취타대를 선두로 하여 기수와 군관 · 군졸 · 의장 · 대고수를 이어 관찰사와 육방관속이 행차하며, 전국에서 모인 역대 관찰사 후손들이 뒤를 따르는 등 전체 1,600여 명 규모의 대형 행차와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강원감영문화제의 전통 재현 행사에는 이 밖에도 조선시대 감영의 수문병 교대의식을 재현한 수문병교대식과 취타대행진, 조선시대 시간을 알리는 북치기 의식을 재현한 시보북치기, 24반 무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조선시대 전통무예(24반무) 진법 · 활쏘기 · 기창 · 제독검 · 쌍검 · 교전 · 검법베기 등 전통무예 시범, 읍 · 면 · 동 대항 제기차기와 투호경기로 펼쳐지는 민속경기 및 어린이향시 재현, 전통혼례, 기로연회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지역사례 경상감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는 2001년에 경상감영 400주년 행사로 감사행차, 신구감사교인식, 경상감사선발대회, 경상감영 향음주례를 비롯한 감영 관련 행사를 하였다. 또 경북 상주시는 감사도임순력행차의 재현, 상산관 과거시험 재현, 관찰사 재판 모습 재현 등의 행사를 했다. 문경시는 1999년부터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행사를 하고 있다.

참고문헌 **2008 강원감영제보고서**(강원발전연구원, 강원감영제위원회, 2008), **2009 강원감영문화제**(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 2009), **강원감영, 우리에게 무엇인가?**(오영교, 강원감영문화제 세미나 학술토론집,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 2009).

필자 김진순(金鎭順)

원주강원감영지(原州江原監營址)

상호참조 원주강원감영제(712쪽)

정의 조선시대 강원도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관청이 있던 자리.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54-1에 있으며, 2002년 3월 9일에 '사적 제439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강원감영지(江原監營址)는 전체면적이 9,608.6㎡로,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宣化堂)·포정루(布政樓)·청운당 등이 원래 위치에 남아 있다. 또 중삼문지, 내삼문지, 담장지 등 관련유구가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감영 이전의 원주목 관아 건물지 등이 하층에 그대로 잘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아 건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강원감영 청사로 사용된 선화당은 정면 7칸과 측면 4칸의 단층이며, 팔작지붕이다. 선화당 건물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원주목사 이후산(李後山, 1597~1675)이 1667년(현종 8)에 완공하였다고 전해진다. 내부는 네 방향에 내진주(內陳柱)를 세워 모두 툇간으로 달았으며,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고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선화당의 정문인 포정루는 2층 누각으로서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초익공집으로 팔작지붕에 겹처마이다. 1667년 선화당이 건립될 때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가운데 6·25전쟁 때 파손되어 다시 보수하였다. 문루(門樓)는 직사각형 초석(礎石) 위에 민흘림기둥이며 2층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주위에 계자난간(鷄子欄干)을 돌렸으며 궁창부는 별다른 장식이 없다. 선화당 옆에는 온돌방과 창고가 함께 있는 민도리 계통의 기역(ㄱ) 자형 목조 기와집인 청운당이 있다. 청운당은 후대에 옮겨지어진 건물이다.

역사 강원감영은 강원도 내 26개 부·목·군·현을 관할하던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 1395년(태조 4)에 설치되어 1895년(고종 32)에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감영이 폐지될 때까지 500년 동안 강원도의 정청(政廳) 업무를 수행한 곳이다.

태조 4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영동의 강릉도(江陵道)와 영서의 교주도(交州道)가 강원도로 합쳐지면서 원주에 감영을 설치하게 되었다. 강원감영이 원주에 설치된 이유는 각 도의 감영은 도내(道內)의 계수관(界首官) 가운데 가장 큰 고을에 설치하되 한양(漢陽)으로부터 도계(到界) 지점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이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강원도 계수관 가운데 가장 큰 지역이며, 지리적으로 한성부에서 가장 가까운 도계 지점이고, 도내를 순력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원감영의 건물들은 1750년대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관찰영(觀察營)' 항목에 건물의 동수(棟數)와 칸수[間數]가 기록되어 있다. 4대문을 각각 하나의 건물로 볼 때, 선화당을 비롯하여 객사(客舍), 포정루 등 총 31동 509칸이었다. 1830년대에 편찬된 『관동지(關東誌)』 '강원감영 영지(江原監營 營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총 33동 450칸으로 관풍각의 칸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1875년에 강원감영의 건물은 43동 459칸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규모를 알 수 있고, '1893년 중기(重記)'의 기록 등을 감안하면 19세기 말 강원감영에 있던 건물은 적어도 50동 670칸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강원감영은 이후 1895년에 조선 8도제가 23부제로 개편되면서 원주가 충주부에 소속됨으로써 감영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1896년 이후에는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의 본부로 사용되다가 일제강점기 때 원주헌병수비대가 사용한 이후 6·25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지금까지 도심 속에 선화당·포정루·청운당의 일부 건물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1995년에 강원 정도 600주년을 맞아 도심 속 역사문화사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시작되고 2000년부터 선화당, 포정루, 중삼문, 내삼문, 행각(行閣) 등 시설을 정비·복원하여 2005년 8월 31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내용 원주 시내의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강원감영지는 선화당·포정루·중삼문·내삼문·내아·행각 등 건물과 공방고·책방이 있던 터가 정리되어 있고, 선정비군에 여러 개의 비석이 서 있다. 그리고 선화당 뒤쪽의 책방지 옆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 나무는 강원감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수령 600여 년의 고목이다.

선화당은 강원감영의 본관 건물로, 강원도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곳이다. 선화당(宣化堂)이라는 편액은 임금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관찰사는 이곳에서 행정, 농정, 조세, 재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 강원감영제의 유교식 제례인 '관찰사고유제'가 이곳 선화당에서 행해진다. 조선시대에도 관찰사가 부임하면 치악산동악단에서 동악제를 지낸 다음 선화당에서 고유제를 지냈다고 한다.

강원감영의 정문인 포정루는 '포정(布政)'은 어진 정사를 베푼다는 의미이다. 포정루는 그동안 '선위루(宣威樓)', '강원감영문루(江原監營門樓)' 등의 편액을 달았다가 1991년 문헌에 근거하여 조선시대 강원감영 정문의 명칭인 '포정루(布政樓)'로 편액을 바꿔 달았다.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정전(正殿)인 선화당으로 들어가려면 포정문을 거쳐 중삼문을 지나 내삼문을 통과해야 했다. 현재 강원감영지에는 중삼문과 내삼문이 복원되어 있다. 이외에도 '청운당'이라 불리는 내아(內衙)와 행각이 있다.

터를 복원한 것은 공방고지(工房庫址)와 책방지이다. 공방고지는 공방에서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보관한 창고인 공방고가 있던 자리이다. 책방지 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인근 주민들이 둥치에서 뻗은 두 가지를 암수로 보고 신성시하여 제를 지내던 나무라고 한다.

강원감영지는 이밖에도 선화당을 중심으로 하여 외곽으로 둘러쳐진 담장터, 행각터 등과 선화당 뒤쪽에 있는 연못터인 방지의 호안석축 등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관아의 건축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계속해서 관풍각, 봉래각, 환선정, 연지 등이 복원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강원감영**(원주시, 2009), **강원감영지**(김성찬 역주, 원주사료총서 6, 원주시, 2006), **강원감영-청운당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지현병 외, 강원문화재연구소·원주시, 2006).

필자 김진순(金鎭順)

원주원성성남리성황림 (原城城南里城隍林)

정의 성남리마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성황당이 있는 숲.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산191번지에 소재하며 1962년 12월 3일에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성황림의 전체 지정구역 면적은 6만 3,877㎡이다. 성황림 안에는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벽을 만들고 기와로 지붕을 얹은 당집형의 서낭당이 있다. 현재 서낭당 내부에는 토지지신(土地之神)을 모신 위패와 한지 한 장을 접어서 바친 위목이 벽면의 새끼줄에 걸려 있다. 그리고 서낭당 양 옆에는 숲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오른쪽에 있는 전나무는 남서낭이고, 왼쪽에 있는 음나무는 여서낭이다.

내용 성황림에 관한 문헌 기록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등이 있다.

성황림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치악산국립공원 상원사 방향의 동쪽으로 매화산 줄기, 서쪽으로 금창리, 남쪽으로 신림리, 북쪽으로 남대봉을 마주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7월의 성황림은 울타리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고, 인근 학교에서 나온 중학생들이 숲 체험학습을 하고 있었다. 성황림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평상시에는 문을 잠그고 체험학습 등 단체방문 때에만 문을 열어 준다고 한다. 성황림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서낭당은 당집 주변으로 넓게 금줄이 쳐 있었고, 오른쪽의 전나무에는 소원종이를 잔뜩 매단 새끼줄이 둘러져 있으며, 왼쪽의 음나무에는 한지 위목이 걸려 있다.

신림(神林)에는 두 군데의 당숲이 있다. 성남1리의 소나무숲은 아랫당숲이고, 성남2리 자연잡목림으로 이루어진 성황림은 윗당숲이다. 현재 아랫당숲은 예전의 장마 피해로 거의 사라지고 소나무 몇 그루만 남아 있다.

성황림은 온대지방의 낙엽활엽수림(落葉闊葉樹林)이다. 서낭당 옆에 신목으로 모시는 전나무는 높이 29m, 가슴높이 지름 1.3m인 고목이다. 치악산 성황신이 이 나무를 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여서낭으로 모시는 음나무를 포함하여 신목 주변에는 회화나무, 고욤나무가 둘러서 있다. 가장자리에는 복자기·왕느릅나무·들메나무·돌배나무 등과 함께 사이사이에 피나무·갈참나무·졸참나무·층층나무·쪽동백나무·버드나무·각시괴불나무 등이 섞여 있다.

이 밖에도 박쥐나무·개암나무·산초·보리수·오갈대나무·광대싸리·고추나무·두릅나무·누리장나무·울리불나무·조록싸리 등을 포함하여 90여 가지의 나무와 복분자딸기·초자딸기·찔레·으름덩굴·노박덩굴·사위질빵·큰꽃으아리 같은 덩굴식물이 어우러져 자라고 있다. 입구에서 본 숲의 끝쪽에는 키 큰 소나무들이 있다.

성남리 마을 사람들은 이 숲에 신이 산다고 믿어 신림(神林)이라 했으며, 치악산의 성황신(城隍神)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100여 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숲을 보호해 왔다고 한다.

매년 4월 8일과 9월9일에 상을 당하거나 궂은 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제주(祭主)로 선정하여 돼지나 소를 잡고 떡과 술을 빚어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 왔다.

성황림의 가치는 신단수의 원형을 엿볼 수 있다는 점, 서낭목과 함께 숲 전체가 숭배의 대상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 평지에서 볼 수 있는 활엽수림이라는 점 등에 있다고 한다. 온대 지방을 대표할 만한 활엽수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며, 아직도 마을 사람들의 수호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나무와 숲이 있었네(전영우, 학고재, 1999). 마을 숲-한국전통부락의 당 숲과 수구막이(김학범 · 장동수 공저, 열화당, 1994).

필자 김진순(金鎭順)

월악산신제(月岳山神祭)

정의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월악산신당에서 매년 음력 정월과 시월에 지내는 산신제.

역사 월악산신제는 삼국시대 때부터 나라에서 거행한 제의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삼국시대에 월악산을 나라의 명산으로 여겨 신라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사(小祀)로서 산신제를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1254년(고종 41) 12월 월악산신을 조정의 신묘(神廟)에 합사(合祀)하고, 1256년(고종 43)에 월악신사(月岳神祠)를 지어 국행제(國行祭)를 지냈다고 하였다. 『고려사』의 기록을 현대어로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 고려 고종 41년 7월에 몽골의 장수 동정원수(東征元帥) 차라대(車羅大)가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여 압록강을 건너와 그해 9월 충주성을 공략할 때 월악산신께서 풍우를 일으켜 원나라 군대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성중에서 정예병을 뽑아 반격함으로써 차라대가 더 이상 충주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상주로 남하하였다. 이에 임금께서는 그해 12월 월악산천신기(月岳山川神祇)를 신묘(神廟)에 합사(合祀)하고 "월악산신대왕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었나이다"라고 고(告)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 뒤인 고종 43년 4월에도 몽골군이 다시 침략하여 충주성을 공략, 입성하여 성민들을 도륙하였다. 관리와 노약자들은 항거하지 못하고 월악산신사로 피란하여 올랐다. 홀연히 안개와 구름이 끼고 비바람과 천둥번개를 일으켜 몽골군을 퇴각시킨 신의 도움이 있었다.

또한 월악산신의 호국적 성격을 보여 주는 아래와 같은 설화들이 주변에서 구전과 기록으로 전승되고 있다.

> 몽골군이 월악산성에 물밀듯 쳐들어왔다. 별안간 안개가 끼고 천둥과 번개가 요란스럽게 일어나더니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공격하던 몽골군은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여 세찬 번개와 천둥에 넋을 잃고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필시 월악산신이 노한 것이라고 생각한 몽골군은 겁을 먹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문경 쪽으로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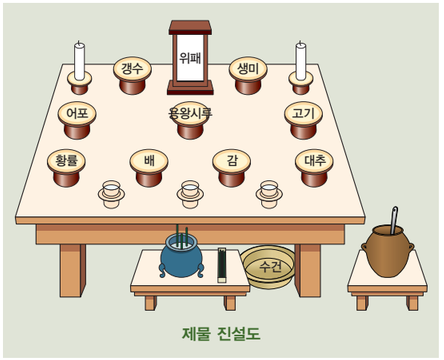
월악산신제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음력 정월과 시월에 관청에서 주도해 제를 지냈으나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 그 후 마을 주민들에 의해 동제로 명맥만 유지하였다. 산신제를 지내는 월악산신당은 원래 상·중으로 나뉘어 두 개의 당이 있었고, 당 안

월악산 산신각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2009.1.4 이창식

월악산신제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2009.11.26 이창식

에는 여러 띠 동물 모형의 조각품이 있었다. 그러나 1978년에 철거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 1983년에 송계리 주민들이 상당의 산신당을 재건하여 동제를 지내왔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면서 다시 중단되었다. 2000년에 현재 하당의 산신당을 새롭게 신축하여 매년 정월과 시월에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평안을 위하여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내용 매년 음력 정월과 시월 초열흘날에 지내고 있다. 제일 당일 산신당의 사방에 네 가지 색의 천을 매어 제장을 정비한다. 제물은 제상의 뒤쪽으로 가운데에 '월악산산신령대신위(月岳山山神靈大神位)'라 쓴 위패를 세우고 양쪽 끝 촛대에 촛불을 밝힌 다음 그 사이 좌우에 갱수와 생미를 놓는다. 그 앞으로 가운데에 용왕시루, 오른쪽에 고기, 왼쪽에 어포를 진설한다. 그 앞으로 왼쪽부터 황률, 배, 감, 대추를 놓고 맨 앞에 잔대를 갖춘 술잔을 세 개 놓는다. 제상 앞 향상에는 향로와 향합을 놓으며 제상 오른쪽의 주상에는 국자를 갖춘 술항아리에 술을 담아 놓는다. 당주(고양주)는 마을에서 단정하고 깨끗한 집을 선정하여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 진설도

제관은 초헌관 · 종헌관 · 아헌관 각 한 명, 축관과 집례 각 한 명, 집사 두 명으로 구성된다. 산신제는 집례의 진행에 따라 초헌-독축-아헌-종헌-소지-음복의 순서로 진행된다.

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山神 祝文

維歲次 某年正月(十月)干支朔 初十日 干支
幼學 某人 敢昭告于
月岳山王神靈之神
寒水面民 年中平安 所望如意祈願
災害病疾 一令除去 人口蕃盛 白室安堵
雨順風調 五穀豐登 穰穰滿家
六畜蕃殖 無災無害 旣修多福 家戶笑滿
出人行路 災厄掃除
登山諸人 無事歸去 家族相逢 慈悲視祐
謹以脯肉 謹以虔告

산신 축문

유세차 모년정월 (간지) 삭 초열흘 (간지) 유학○○○는 고하나이다.
월악산왕 신령님. 한수주민들이 올해에도 평안하고 소원성취하기를 비옵니다. 모든 재해와 질병 일행에 제거하시어 인구가 번성하며 편안토록 하옵시고, 비가 순하고 바람이 고르게 불어 오곡이 풍년되어 곡식이 집안 가득토록 하옵시며, 가축들이 많이 늘고 재앙과

산신각 내 정면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2009.1.4 이창식

해악이 없이하여 다복한 가운데 집집마다 웃음이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횡액을 막아주시옵고, 산에 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귀가하여 가족과 만나도록 자비스러움으로 보살펴 주시옵기를 삼가 포육을 올리고 공경을 다하여 고하나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三國史記, 제천시지 하**(제천시, 2004), **한국 무형유산 대표목록 분류체계 및 기초자료 연구**(한국민속학회, 2009).

필자 **이창식(李昌植)**

위토

표제어 동답(237쪽)

위패(位牌)

정의 동신(洞神)의 신위(神位)를 모셔 놓은 나무패.

내용 신위는 죽은 사람의 위패 또는 산천초목 등의 신령을 나타내는 신체(神體)를 모셔두는 자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위패(位牌)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인데,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것이다. 목주(木柱) · 영위(靈位) · 위판(位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형태는 몸체와 받침대로 되어 있다. 위패는 대개 서원이나 성균관 대성전의 공자위패와 비슷하게 만드는데 유교에서처럼 일정하게 크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위패에 쓰인 문구는 마을신의 성격을 나타낸다. 산신을 모신 경우에는 '○○산신지위(山神之位)' 또는 '○○산왕지위(山王之位)', 성황신을 모신 경우에는 '○○성황지신(城隍之神)'을 쓴다. 토지신을 모신 경우에는 '○○토지지신(土地之神)', 인물신을 모신 경우에는 '○○○지위' 등 마을신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 마을 제의에서 제사의 대상은 마을을 지켜 주는 동신이기 때문에 동신의 신위를 모셔 놓은 곳인 위패는 신체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마을제당은 암석을 신체로 삼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대부분은 신목(神木)이 당이며 곧 신체이다. 그리고 옆에 당 건물을 세움으로써 위패, 신도(神圖), 방울, 목신상, 서낭대를 신체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

여역지신 신위
강원 강릉시 왕산면 도마2리 탑동마을
고청제, 2005
코리아루트

참고문헌 **마을신앙 대상물로서의 신체의 유형과 특징**(이관호, 생활문물연구 21, 국립민속박물관, 2007), **신주고**(최순권,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2004), **한국의 제사**(최순권,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이유나(李泑娜)**

유가돌기

표제어 마을돌기(275쪽)

유천동산신제(柳川洞山神祭)

정의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주민들이 보문산 산신에게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 1997년 1월 9일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유천동에서 언제부터 산신제를 지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을 거주자들은 1500년대 중기부터 지내온 것으로 여기고 있다. 유천동산신당 역시 언제 지어졌는지 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어져 오는 구술에 따르면 과거에도 지금의 위치 그대로였다.

유천동 산신당은 특이하게 들 한가운데에 있다. 산신당은 보통 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마련이지만 보문산 산신을 모시는 유천동은 실제 보문산과 약 1.5㎞ 떨어져 있어 산 어귀에 당을 짓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당시 들 한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당이 들어서게 되었다. 도시화되기 이전에는 당집이 평지보다 높이 솟은 곳에 위치해 사람들 눈에도 잘 띄었고, 당집에서 마을도 잘 내려다보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구획정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모습으로 바뀌었고, 주변에도 집들이 들어서면서 다른 집들과 뒤섞이게 되었다.

원래 제당은 7㎡ 정도의 작은 크기였다가 1986년에 개축하고 문화재 지정 이후 2001년(辛巳年, 상량문 기재)에 약 12㎡ 면적의 새로운 제당으로 건축되었다. 이때 원래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약 20m 이동하여 맞배지붕, 납도리 삼량집, 기단석 쌓기, 강화다짐 등 전통한식 구조로 지어졌다. 제당 내부에는 산신도가 있다. 산신도는 그림의 형태를 알아보기가 힘들어 1986년 개축 때 페인트 가게를 하던 주민이 페인트칠을 해 형태를 복원했다. 그 후 제당을 다시 지을 때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인 이정오 보유자가 산신도(가로 180㎝, 세로 120㎝)를 그려 새롭게 봉안하였다.

산제당
대전 중구 유천동
2010.5.7. 이명진

과거 유천동산신제는 상평마을과 중평마을의 동계인 유향계에서 각각 제를 지냈다. 두 마을에서 매년 음력 동짓달에 좋은 날을 택하되 날을 달리 하여 산신제를 지내다가 1968년 유향계 총회를 통해 동짓달 초사흗날로 제일(祭日)을 정하고 이후 두 마을이 함께 지내고 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유향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유향계는 산신제는 물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등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도시화로 인해 가구 · 인구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점차 유향계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산신제는 몇몇 원주민에 의해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고, 급기야 10여 명으로부터 희사금을 받아 제사를 지내는 상태였다. 1994년 더 이상 마을토박이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마을 주민들은 '유천동산신제보존회'를 발족하여 오늘날까지 산신제를 이끌어 오고 있다.

2010년 현재 보존회 회원은 회장단을 비롯해 총 23명이다.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2명), 재무국장, 감사(2명), 고문 등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보존회원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부회장과 재무국장은 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며, 감사는 회장단에서 천거하여 총회 때 결정한다. 고문은 회장이나 부회장을 지낸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일반 회원은 유천동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산신제 참석률이 좋고 협조도 잘하는 사람을 천거하여 뽑는다. 천거는 회장단에서 하되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정기총회는 일 년에 한 번 산신제 열흘 전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보존회원은 일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년 이상 회비 미납자, 회의 불참자, 유천동의 생활권을 벗어난 자 등은 자동으로 제명된다.

내용 유천동산신제는 매년 동짓달 초사흗날에 행해진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초나흗날 자시(초사흗날 자정)에 제를 지냈다. 동네에 초상이나 출산 등 부정이 들면 다른 날을 택해 제를 지냈다. 부정이 들 때 제를 지내게 되면 동네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고 여긴 까닭이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공개행사로 초사흗날 오후 6시경에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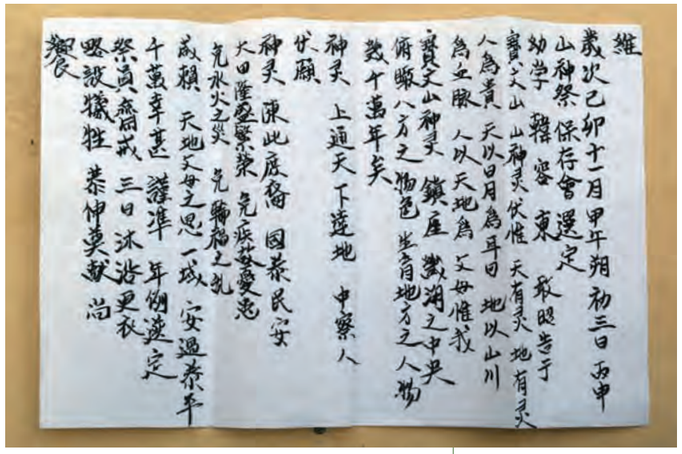
제의 열흘 전에 총회를 열어 제관을 정하고, 산신

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논한다. 제의 일주일 전부터는 산신당을 청소하고, 금줄과 황토를 쳐서 부정으로부터 보호한다. 금줄은 왼새끼로 꼬고 사이사이에 흰 종이를 끼워 산제당 주변에 둘러친다. 특히 제당의 출입구에는 사람의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게 둘러서 사람들이 주의하도록 한다. 황토는 산제당의 출입문과 제당 입구에 세 무더기씩 놓는데, 주로 보문산에서 파 온다.

제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봐서 좋은 사람으로 선정하며, 제관은 유사(헌관), 우집사, 좌집사, 축관 각 한 명으로 모두 네 명이다. 이 가운데 집사는 한 명이 늘어 두 명이 되었다. 이들은 유향계에 속한 인물 가운데 선출하였으며, 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선출된 경우가 많았다. 유사로 정해지면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보존회원 가운데 집에 큰 불상사가 없고 덕망과 인덕을 갖춘 사람 가운데 적임자를 선출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다시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을 제관으로 임명한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날마다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한다. 특히 유사는 부부간의 잠자리, 비린 음식, 상가(喪家) 등을 피해야 한다. 생물을 죽이는 것이나 피를 보는 것도 피해야 한다.

제물은 유사 부부가 준비하여 유사의 집에 보관하였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에는 산신제를 공개행사로 치르면서 산신당 가까운 집에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고 있다. 장은 제관들이 본다. 이때에도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한다. 제물을 구입할 때에는 절대 흥정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장을 볼 때 제기도 구입하였다. 제기는 목기를 사용하며, 매년 구입하였다. 사용한 제기는 제물 장만 등으로 고생한 유사가 가져간다. 그러다가 점차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제기를 가져가지 않게 되어 한 가지 목기를 장기간 사용했다. 1998년 경부터는 사기로 된 제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의 제기는 산신당에 보관하고 있다.

산제에 올리는 제물은 돼지, 떡, 삼탕, 삼채, 삼실과, 포, 제주, 사과, 배 등이다. 돼지는 한 마리를 통으로 잡아서 올린다. 이때 돼지의 머리가 동쪽을 향하도록 놓는다. 1980년 이후에는 제의가 간소화되고 제의 비용도 비싸져 돼지 머리만 올리기도 했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부터 다시 통돼지를 올리고 있다. 과거에는 돼지를 산신당 옆에 있던 옹달샘에서 잡았다. 지금은 이 옹달샘이 없어지고 새롭게 복원한 모습만 남아 있다. 떡은 시루째 올리는데 석 되 서 홉을 찐다. 시루 양쪽에는 북어포를 꽂고, 떡시루에는 쌀종지와 세발 심지를 함께 올린다. 삼탕으로는 육탕(쇠고기), 어탕(명태), 소탕(두부)을 올린다. 삼채는 무스나물(무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또는 숙주나물)이다. 삼실과는 대추, 밤, 곶감이다. 제주는 원래 유사의 집에서 담아 썼으나 지금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술 가운데 곡식으로 만든 것이라 하여 청주를 사용한다.



산신제 축문
대전 중구 유천동
2005.12.3. 차정환

제비는 제의를 지내기 20일 전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걷었고, 사람들은 쌀이나 돈 등을 정성껏 냈다. 마을이 점차 도시화되어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이 늘게 되면서 집집보다는 상가를 돌며 후원을 받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는 시와 구에서 지원되는 일정의 금액과 보존회원들의 향촉대(香燭代, 향과 초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약소한 성의)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임시총회를 통해 보존회원의 연회비 납부 규정화를 추진하였다.

제례 당일이 되면 가장 먼저 풍물을 치며 마을을 돈다. 현재는 유천1동, 2동의 풍물패가 각각 자신의 구역을 돌며 산신제의 시작을 알린다. 산신제는 '분향-강신-참신-헌작-독축-소지-분축-음복'의 순서로 진행된다. 헌작은 한 번만 행한다. 이때 우집사가 술잔에 술을 따르고 좌집사가 전작(奠爵, 술을 받아 신위 앞에 올리는 일)한다.

현재 축문의 내용은 유천동 주민의 건강과 화재 방지, 교통사고 예방 등을 기원하는 것이다. 1978년, 1987년, 2009년에 각각 사용한 축문을 비교하면 유향계에서 보존회로 변화되었음을 실증할 수 있으며, 당시 사회의 환란과 축원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1978년〉 한문

維歲次
戊午十一月丙申朔初三日
柳鄕稧選定代表 幼學權永雲 敢昭告于
寶文山神靈 伏惟 天有靈 人爲貴 天以日月爲耳目
地以山川爲血脈 人以天地爲父母 惟我 寶文山神靈
鎭坐畿湖之中央 俯瞰八方之物色 生育地方之人物
幾千萬年矣 神靈 上通天 下達地 中察人 伏願 神靈
陳此庶裔 一免水火之災 三免交通輪禍之亂 咸賴天
地父母之恩 一域安過太平 千萬幸甚 謹準年例選定
祭員 齋戒三日沐浴更衣 略設犧牲 恭伸奠獻
尙饗

〈1987년〉 국한문혼용

維歲次 西紀一九八七年 丁卯歲十一月 丙午 初三日
幼學○○○은 柳鄕員과 柳川洞民을 代表하여 敢히
寶文山神靈任께 仰告하옵나이다. 幼學 등 愚昧한 本
洞民들은 神靈任의 恩德으로 天地爲父母하고 日月星
辰照鑑下에 길이 保全하고 있사옵니다. 寶文山神靈任
께서는 이곳 中都大田에 鎭坐하시와 億兆蒼生을 굽어
살피시고 愛護撫育하여 주심에는 衷心으로 感銘不已
이옵나이다. 神靈任께서는 上通天하시고 下達地하시
며 全知全能하신 줄 믿사옵니다. 伏願컨대 우리 柳鄕
員 및 洞民들과 畜生에 이르기까지 雨順風調로 各其
生業에 따라 所願成就하고 富裕한 生計를 이룩하여
有能한 英材를 많이 배출케 하여 주시옵고, 一免 疫疾
의 殃禍와 水火의 災殃과 兵役中의 災 三免交通輪禍
之亂 咸賴天, 橫厄 交通事故 諸般의 患亂病苦를 防禦
하여 주시옵고, 우리 柳川洞民 各 家庭에 幸運이 깃들
게 도와주시옵기 祈하나이다. 悚懼하옵게도 今年은 幼
學이 祭典에 選定되와 沐浴齋戒하옵고 略設淸酌하와
삼가 奉行하오니 歆饗하옵소서.

〈2009년〉 한문

維歲次
己丑十一月乙未朔初三日 丁酉
保存會選定 幼學 金弘太 敢昭告于
寶文山神靈 伏惟 天有靈耳目 地以山川爲血脈 人以
天地爲父母 惟我 寶文山神靈 鎭坐畿湖之中央 俯瞰
八方之物色 生育地方之人物 上通天 下達地 中察人
伏願 神靈 陳此庶裔 一免病疫之禍 二免水火之災
三免交通輪禍之亂 咸賴天地父母之恩 一域安過太
平 千萬幸甚 謹以年例選定 犧牲 恭伸奠獻
尙饗

산신도
대전 중구 유천동
2005.12.3. 차정환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나면 불태운다. 소지는 제관이 직접 마을 사람들의 것을 올려준다. 이때 산신제의 향촉대를 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올린다. 소지까지 올리고 나면 산신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제의는 끝난다. 제의가 끝나면 징을 세 번 쳐서 제의가 끝났음을 알린다. 이때 징은 제의의 끝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호랑이가 쇳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산신을 모시고 내려온 호랑이를 산으로 보내는 의식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징이 울린 뒤에야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만큼 산신제의 엄숙함과 경외감이 대단했다. 제의가 끝나면 사람들이 모두 나와 음복을 한다. 산신제를 지낸 음식을 먹으면 복이 있다고 여겨서 이웃과 경로당에 전달하면서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지역사례 대전을 비롯해 충청도 지방에도 다양한 산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이들 제의는 과거에 제관들 중심

으로 엄숙하게 지내왔으나 점차 대중화 · 축제화되고 있다. 대전 지역에서는 관저동의 구봉산 산신제, 보문산 시루봉 산신제, 도마동의 도솔산 산신제 등이 전승되고 있다. 인근에도 계룡산 산신제를 비롯하여 부여의 저석리, 옥산면, 은산면 등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특히 부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은산별신제가 전승되는 곳이기도 하다. 은산의 별신당에 장군(복신 대사, 토진 대사)과 함께 모셔진 산신도가 있고, 따로 산신을 위한 독산제당(獨山祭堂)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신이 당의 원래 주인으로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유천동산신제**(대전광역시, 2005). **유천동산신제와 거리제**(이필영, 대전문화 11,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필자 **이명진(李明珍)**

음복(飮福)

정의 제의를 진행하는 중간이나 거행한 뒤 제의에 참여한 이들이 신령의 뜻이 담긴 음식을 받아먹으며 복을 비는 행위. 대개 술잔이 행위의 중심이 되므로 음복이라 한다.

음복
강원 양양군 현남면
죽정자리, 2003.11.8
최호식

음복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2002.8.15
황헌만

내용 모든 제의의 핵심은 신령에게 인간의 뜻을 아뢰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제물을 준비하여 상에 올리고 제의를 거행한다. 제의의 진행 과정에서 차려진 음식들은 전적으로 신에게 올리는 인간 정성의 표현이다. 지정된 음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의 뜻이 반복적으로 인간에게 전달된다. 때로는 공수라고 불리는 언어로, 때로는 제의 집행자의 동작과 행위로 신의 의사가 인간에게 전해진다. 특히 상에 차려진 음식 가운데 일부를 신령이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의 집행자가 제의에 참여한 이들에게 준다. 이는 음식을 통해 인간과 신령이 하나가 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령의 뜻이 인간에게 전달됨을 뜻하기도 한다. 일단 상에 차려져 신령에게 바쳐지는 순간 그 음식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성스러운 힘을 지닌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음복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의미를 넘어 신령과 인간이 접촉함을 뜻하게 된다.

음복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2003.11.24
최호식

의의 음복은 음식을 통해 신령과 인간이 하나가 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제의에 참여한 이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음도 음복이 주는 효과이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필자 **홍태한(洪泰漢)**

음성마송리석장승

정의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오미마을에 있는 세 기의 석장승. 2002년 3월 15일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2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마송리장승은 오미마을 앞을 흐르는 냇가의 다리 밑을 기점으로 하여 마을도로 왼쪽(음성군에서 청주시 방향)에서 냇둑을 따라 세 기가 약 100개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서 있다. 1920년대 충북선을 가설하기 전까지 현재 장승의 위치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에 각기 있었다고 한다. 이들 장승 세 기는 모두 화강암 재질이며, 마을 사람들은 흔히 '장성님'이라고 부른다.

1호 장승은 전체 높이 240㎝에 앞면 너비 40㎝, 얼굴 길이 80㎝이다. 머리에는 관음보살과 같은 관을 쓰고 이마에는 백호가 표시되어 있다. 눈과 눈썹은 '一' 자형이다. 오른쪽 귀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며, 왼쪽 귀는 아래로 처져 있다. 입은 다문 듯 미소를 띠고 있다. 손가락은 나뉘어 있지 않으며, 팔짱을 끼고 있다.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목 부분은 양각기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몸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나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렵다.

2호 장승은 전체 높이 260㎝에 앞면 너비가 50㎝다. 문관석(文官石) 형태의 미륵형 장승이며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있다. 이마가 얼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길며, 두 귀는 눈 위쪽으로 가지런히 붙어 있다. 두 손은 앞으로 모아 잡고 있다. 눈은 부리부리하고, 코는 주먹코 형상이며, 입은 꽉 다문 듯하다. 몸체에는 '정계대장군(靜界大將軍)'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3호 장승은 전체 높이 220㎝에 앞면 너비 50㎝이다. 선돌형 장승으로, 아무런 조각이나 장식이 없이 다만 앞면에 정계대장군(靜界大將軍), 왼쪽 면에 '신묘정월일(辛卯正月日)'이란 명문이 각각 새겨져 있을 뿐이다. 왼쪽 면의 명문은 장승의 연원을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역사 마송리장승의 조성 연대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장승의 양식이 불두형(佛頭形, 불상 머리 모양)으로 이마에 백호의 흔적이 있고, 풍화 정도로 미루어 조선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촌로들에 따르면 제주 고씨 집안에서 1713년(숙종 39)에 무관 고증명이 마을 수호를 위해 장승을 세웠다고 하지만 3호 장승에 새겨져 있는 신묘정월일(辛卯正月日)이란 명문과 연대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은 떨어진다.

내용 마송리에서는 장승 세 기를 대상 신격으로 하여

매년 장승제를 지내고 있다. 제일(祭日)은 정월 초에 길일로 선택하며 보통 정월대보름날 이전으로 잡는다. 마을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제일을 연기하거나 제의를 아예 치르지 않는다.

제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 여부를 가려 장승마다 제를 주재할 헌관, 축관, 집사 각 한 명을 선정한다. 모두 아홉 명의 제관을 선출하는 것이다. 제관들은 삼일금기(三日禁忌)를 준수한다. 대문에 왼새끼로 금줄을 둘러치고 세 무더기의 황토를 펴 모든 부정을 막는다. 마을 사람들도 외출을 삼가며, 일상에서조차 행동을 조심한다.

제물은 반장이나 헌관 가운데 한 사람이 준비한다. 예전에는 장승마다 헌관들이 제물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제물은 삼색실과, 백설기, 포, 술, 과자 등 비교적 간소하다. 주로 음성장에서 구입한다. 이때 손짓만으로 제물을 요구하며, 흥정도 하지 않는다.

마송리에서는 장승제를 흔히 "헌관하러 간다"고 한다. 제의 당일 오전 11시 즈음에 제관들은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장승마다 동시에 백설기에 촛불을 밝힌 다음 제물을 진설한다. 제의는 유교식 절차를 따른다. 제의가 끝나면 마을회관에서 음복한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正月朔日 ○○○ 百拜 敢昭告于
梧山靜界大將軍尊神
災殃消盡惡凶瘟乃攘其禍
毒猛獸乃遠其害諸般妖穢
廊淸如掃吉祥輻湊父母鶴壽
子孫蟄士雲梯農登露積
浴酒投餠含哺而歌肉啖魚
鼓腹而舞無限年太平安過
玆敢百拜祝願.

즉 마을의 풍농과 평화, 사악한 기운의 소멸 등 일반적인 기원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음성군 문화유적분포지도**(음성군 · 청주대학교박물관, 2002), **음성민속지**(음성문화원 · 음성향토문화연구회, 2002), **충북지방의 장승 · 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4), **한국의 동제 상**(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안상경(安相敬)**

이사제

표제어 포제(954쪽)

이천정개산산신제

정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지내는 마을 제사.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개산산신제, 지석리산신제, 소당산산신제라고 부른다.

내용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의 뒷산은 정개산이다. 사람들은 정개산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여기고 격년제, 즉 이 년에 한 번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곳은 정개산 중턱으로, 이곳을 '산지사터'라고 부른다. '산지사'는 '산제사'의 사투리, '산지사터'는 '산제사를 지내는 터'라는 의미이다.

정개산은 풍수적으로 명당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부터 무덤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 암매장을 해 산신령의 진노를 사서 마을이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한다. 1950년대에 정개산 중턱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 조상묘를 쓴다고 여겨 그곳으로 달려가 땅을 파헤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정개산산신제에는 당집이나 신목이 없다. 단지 중

금줄
경기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2001.2.21
국립민속박물관

산신제 제물
경기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2001.2.21
국립민속박물관

턱에 제물을 진설하기 위해 축대를 쌓아 놓았을 뿐이다. 축대의 크기는 소 한 마리를 놓고도 남을 만하다. 제를 올릴 때에는 이곳에 차양을 친다. 축대로부터 아래로 10m 떨어진 지점에는 큰 바위가 있다. 큰 바위 밑에는 그릇 · 시루 · 술병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제사 때마다 이것을 사용한다.

정개산 중턱은 산신령이 사는 곳이다. 그렇기에 산지사터 위로는 무덤을 쓸 수 없도록 마을에서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산지사터 주위에서 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나무도 베어서는 안 된다.

제사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제관 선정과 제물 준비이다. 제사를 지내기 일주일 전에 제관, 축관, 화부를 뽑는다. 제관과 축관은 각각 한 명, 화부는 두 명을 선출하는데, 생기복덕을 가려 선출한다. 이들을 뽑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책력으로 따진다. 제관 등으로 뽑힌 사람들은 집 대문과 마을 어귀에 금줄을 치고 금기된 생활에 들어간다.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초식 위주로 한다. 그리고 제사 지내기 사흘 전부터는 외출을 금하고, 음식도 소식(小食)을 한다. 또한 매일 목욕을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제를 지내기 전날에도 목욕재계를 하며, 이때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근신한다.

제의 비용은 각 가구에서 쌀 한 말씩 추렴하여 사용한다. 이것은 2년치를 모아서 하는 것이지만 부족할 경우 마을에 적립된 돈으로 충당한다. 제의비용을 추렴할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마을 행사라고 하여 무조건 거두게 되었다.

산신제의 가장 큰 제물은 황소이다. 산신제를 주관하는 대동회에서는 잡색이 없는 황소를 구입하며, 보통 3살 이상 된 소이다. 소는 2년 동안 집집마다 거둔 쌀로 구입한다. 소의 값이 비싸고 쌀의 가격이 떨어지면 개인별로 돈을 보태 구입한다. 일 년에 집집마다 추렴하는 쌀은 대두 한 말이다. 이 쌀을 '산제미(山祭米)' 또는 '동미(洞米)'라고 부르며, 이장이 관리한다.

소값이 비싼 때에는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어른들이 "어려운 일제강점기에도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여 계속 소를 잡고 있다. 구입한 소는 부정이 없는 집에 두었다가 제사 당일 정개산의 흐르는 물에 깨끗이 몸을 씻긴 다음 이천의 도살장에서 잡아 제당으로 운반한다. 특히 소를 도살할 때에는 잡은 부위가 빠지지 않도록 열 명 정도가 참관한다. 소의 가죽도 가져온다. 토막 낸 쇠고기는 경운기를 이용해 마을로 옮긴다. 예전에는 모두 지게로 날랐다.

황소 이외에 귀한 제물은 대구이다. 대구는 물고기 가운데 가장 비싸다. 상태가 좋은 대구를 고르기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구입한다. 이 밖의 제수로 대추, 밤, 감의 삼색과일이 있다. 가게에서는 흥정을 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조용히 사온다.

음력 이월 초하룻날 새벽 4~5시가 되면 제관과 화부는 제사 준비를 위해 정개산을 오른다. 당 주위에 흐르는 물로 먼저 세수를 한다. 원래는 목욕재계를 하였지만 지금은 세수로 약식화하였다. 그런 뒤 제관과 화부는 메를 지어 정화수와 함께 제단에 올려서 절하고, 메와 누룩을 버무려서 땅에 묻은 다음 그 위에 불을 지펴 조라술을 만든다. 조라술은 15시간 만에 숙성되어 그날 밤 12시에 지내는 제사에 쓸 수 있다. 오전 중에는 백설기를 쪄 제단에 올린다. 떡가루는 제관 집에서 미리 찧는다.

제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오전에 잡은 소를 당으로 운반한다. 마을 사람들은 당 주위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 밑에까지만 운반하고 당까지는 화부들이 운반한다. 소를 산 중턱 축대까지 운반하기 위해 화부들은 여러 차례 지게를 지고 다녀야만 한다.

제삿상에는 먼저 쇠가죽을 깔고 토막 낸 고기를 맞추어 소의 형태가 되도록 한다. 이때 소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하며, 소 이외에 조라술과 삼색과일 등을 진설한다. 이 시간이 되면 축관이 산으로 올라오며, 한쪽에서는 쇠목을 넣어 선짓국을 끓인다. 선짓국

산신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2001.2.21
국립민속박물관

은 소금만 넣어 간을 맞추며, 소를 운반한 마을 사람들의 안주가 된다.

밤 10시쯤이 되면 삼실과와 대구포를 올리고 본격적으로 제사 지낼 준비를 한다. 이전에 차려 놓은 백설기 등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제물 진설이 완료되고, 밤 12시가 되면 산신제를 시작한다. 먼저 제관이 술을 올리고 절을 두 번 한 다음 축관이 절을 하고 축문을 읽어내려 간다. 독축(讀祝)이 끝나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소지와 당에 오른 사람인 제관·축관·화부들의 소지만 올린다. 개인별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소지가 끝나면 간단히 음복을 한다.

한편 회관에 모여 있던 마을 사람들은 쇠고기와 선짓국을 운반하기 위해 시간에 맞춰서 산에 오른다. 마을로 운반한 소는 회관에 보관하고, 선짓국과 조라술 등은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산신제의 축문은 한문과 한글 두 가지가 있다. 한글축문은 한문의 내용을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2000년쯤에 수하리의 나기창(1930년생)이 번역한 것이다. 실제 제의 과정에서는 축관이 한문을 아는 사람이 맡아서 문제가 없지만 뒷날에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한글축문도 보관하고 있다. 한문축문은 세로로 쓰여 있고 한글로 토를 달았으며, 한글축문은 가로로 적었다. 한문축문과 한글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年 ○月 ○日 幼學○○○ 敢昭告于
鼎蓋山神 崇高惟嶽 峻極于天 巍巍其德
衆人景仰 昭昭維靈 一洞瞻望
敢陳太牢 神其格思 齋誠將祀 壇上儼然
伏惟尊靈 歆此泂酌
保佑生民 驅出厲疫 消灾致祥 掃蕩妖氛 轉禍爲福
五穀發穫 物阜民安 六畜繁殖 時和年豊
民乃隨業 報效如在 神亦載寧
永戴神功 保護周旋 一坊欣萬 使民安樂 永世無斁
尙饗

"정개산 산신이시여 뫼는 숭고하시고 하늘같이 높으시며 덕은 높고 웅장하시며 뭇사람들이 존경하며 영기는 밝고 밝으시니 온 동리사람이 우러러 바라보옵니다. 감히 큰 희생을 벌이오니 신령은 감동하소서. 목욕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향을 올리고저 하오니 제단이 엄숙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귀하신 신령께서는 잔을 휘둘러 흠향하시옵소서. 백성을 보우해 주시고 역병을 몰아내 주시고 모든 재앙을 없이 하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불길한 재앙을 없애 주시어 화가 도리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곡은 잘 여물고 물건은 살찌고 백성은 편안하며 육축은 번식하며 나라는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 들고 백성들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야 신령님께서도 또한 편안하옵소서. 오래도록 신령님의 공덕을 뫼실 것이오니 보호하도록 주선하소서. 온 동리가 즐거움이 가득하고 백성들의 안락함이 오래 끝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흠향하소서."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지낸 날 아침에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을 한다. 이때 선짓국과 쇠목만을 쓰고 다른 부위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쇠목 외의 다른 부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몫이기 때문이다. 소는 지석리 5개반 반장들이 참여하여 반별로 나누며, 제사에 쓰인 대구와 과일 등도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나눈 고기 가운데 제관, 축관, 화부에게는 수고했다는 의미로 고기 한 근씩을 따로 떼어 준다.

의의 지석리의 산제사는 지금도 명맥을 잇고 있으며, 6·25전쟁 때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점과 전사자가 없는 점을 모두 산신의 도움으로 보아 산신제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이다. 지석리에는 2000년쯤에 교회가 마을에 들어왔으나, 신자는 대부분 외지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과 교인들 사이에 약간의 알력이 존재하기도 한다. 2010년 현재 100가구 가운데 산제사에 참여하는 수는 80가구이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 1(경기도박물관, 1998), **이천의 민간신앙**(홍순석, 민속원, 2004).

필자 **홍순석(洪順錫)**

인구전(人口錢)

정의 마을 제사를 모시기 위해 각 가정의 사람 수에 따라 일정액을 걷는 비용.

내용 마을에서 동제를 모실 때 제물 장만과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다. 제사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각 가정을 단위로 일정액을 걷는 호구전(戶口錢)과 각 가정의 가족원 수에 따라 걷는 인구전(人口錢)이 일반적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제토(祭土) 등 공동 자산이 있어서 그 수익금으로 제사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고, 마을자금에서 일정액을 제사를 모시기 위해 사용하는 예도 있다. 또 근래의 일이지만 마을을 떠나 사는 출향민 가운데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 제사 비용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다.

동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여 모시는 것은 아니다.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을회의 등을 통해 가려 뽑는다. 유고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직접 참여하여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제사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인구전은 성별이나 나이 등과 상관없이 각 가정의 모든 가족 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인구전으로 비용을 부담할 때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몫까지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아의 안전한 출산을 빌기 위한 신앙적 행위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원초적인 의식으로 보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관습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태어난 지 일 년이 지나 돌이 되면 금방 나이가 두 살이 된다. 이러한 나이 계산법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먹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습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의식 때문인지 인구전으로 제사 비용을 걷을 때는 태아의 몫까지 빠뜨리지 않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구전이라고 하더라도 상을 당했거나 출산했다는 등 가정에 유고가 있으면 그 집의 비용은 걷지 않는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필자 **나경수(羅景洙)**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日本地理風俗大系-朝鮮編)

정의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일본 신광사(新光社)에서 간행한 『일본지리풍속대계』 중에서 1930년 조선편으로 구성되어 간행된 책.

내용 『일본지리풍속대계』는 총 19권으로 이중 16권(조선편 상권)과 17권(조선편 하권)이 조선편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관동총론(関東總論)으로 시작해 2권 대동경(大東京), 3권 관동남부(関東南部) 순으로 일본의 본토를 먼저 소개하고 있으며, 10권 이후부터는 중국지방(中國地方), 규슈와 홋카이도, 사할린, 대만, 조선이 차례대로 구성되고, 마지막으로 18권과 19권은 총론(總論)과 총색인(總索引)으로 되어 있다. 일본 본토뿐 아니라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 중국, 사할린 등을 포함한 일본의 식민 지배권이 미치는 지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리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포괄하고 있는 백과사전식 형태를 갖고 있다.

『일본지리풍속대계』는 지리와 풍속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지리라는 자연환경적 특성과 풍속으로 대변되는 인문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환경적 특성은 지세와 기후, 지질, 해안선과 지리적 구분, 동물과 식물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인문적 환경은 역사, 문화, 풍속관습, 산업과 교통, 인구와 취락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전집에는 지형과 경관을 비롯해 당시 주민들의 민속과 주거,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편집위원은 총 21명으로 자연과학과 공학, 지리학, 인류학, 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중 조선과 관계가 깊은 일본인 학자로는 2명이 등장한다. 먼저, 1902년 조선으로 건너와 각종 고고학적 유적과 건축물을 답사했으며, 이후 1915년부터 1935년까지의 조사 사진 자료를 모아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간행한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7~1935)가 있다. 그는 주로 연혁(沿革)과 고적(古蹟)부분에서 낙랑유적과 삼국시대 등 고고유물과 유적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가 있다. 그는 1896년 이래 대만 · 만주 · 몽고에 관한 민족지적 조사를 주로 담당했으며, 1911년부터는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일하면서 조선에 관한 고고학적 · 민족학적 조사를 했던 인물이다. 세키노 다다시, 도리이 류조가 남긴 유리원판 사진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그 외에도 비록 조선과의 연관은 적지만 일본 인류학의 아버지인 쓰보이 쇼고로의 뒤를 이어 도쿄제국대학 인류학교실을 운영했던 자연인류학자 마쓰무라 아키라(松村瞭)가 포함되어 있어 일본제국 내 다양한 민족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편은 『일본지리풍속대계』의 16권과 17권인데, 16권은 조선의 자연환경과 지리 · 역사 · 문화 · 산업 등에 대한 개설서 역할을 하고, 17권은 경상남도부터 함경북도까지 지방별로 해당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6권의 구성체계는 총설, 지리적 특징과 지리적 구분, 연혁과 통치, 문화, 풍속관습, 산업과 교통, 인구와 취락, 동물과 식물 순이다. 여기서 조선민속 관련 항목은 대부분 문화와 풍속관습에 포함되어 있다. 문화는 다시 유학(儒學), 신교육(新教育), 종교신앙(宗教信仰), 미술공예(美術工藝), 음악(音樂)으로 세분되며, 풍속관습은 예속(禮俗), 음식(飮食), 가사(家事)와 농사(農事), 오락(娛樂), 토속신앙(土俗信仰), 의복과 주거, 관혼장제(冠婚葬祭)로 구성되어 있다.

17권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국경(國境)의 삼림(森林), 고적(古蹟)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에 자원으로서 삼림과 고적을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편의 집필위원은 16권이 24명, 17권이 13명으로 총 37명이다. 그 중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일본지리풍속대계』의 전체 편집위원이면서 '조선편'의 집필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명한 학자로는 『조선의 성(朝鮮の姓)』,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 『조선의 취락(朝鮮の聚落)』을 남긴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와 『조선의 귀신(朝鮮の鬼神)』, 『부락제(部落祭)』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그리고 『이조각종문헌풍속관계자료촬요(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 등 역사민속 관련 자료집 편찬으로 유명했던 이마무라 도모(今村鞆)가 있다. 또 조선총독부의 관료나 전문기술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조선에서 직접 거주하거나 조선 관련 일에 실무경험이 많은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 대한 자연환경과 지형, 지질, 동식물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풍속과 문화,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당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배자적 시각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고대사 서술에 있어 낙랑군(樂浪郡)의 강조와 광개토대왕비문 해석에서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으며, 한일병합의 정당성을 '동문동종(同文同種)'에 기원한 일선동조론으로 기술하는 등 동화정책과 부합되는 서술이 상당수 삽입되어 있다.

조선민속과 관련된 자료는 16권의 문화와 풍속관습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문화 중에서 종교신앙(宗教信仰) 항목과 풍속관습의 예속(禮俗)과 오락(娛樂), 토속신앙(土俗信仰), 관혼장제(冠婚葬祭)편에 민속 관련 항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종교신앙의 경우에는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와 함께 귀신신앙(鬼神信仰), 양재방귀법(禳災防鬼法), 기복귀신(祈福鬼神), 풍수신앙(風水信仰), 묘지풍수(墓地風水) 등이 표제어로 선택되어 민간신앙을 다른 종교와 대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풍속관습(風俗慣習)의 하위 표제어인 토속신앙, 예속, 오락 등에는 민간신앙, 세시풍속,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관혼상제와 의식주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중에서 민간신앙에 대한 비중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문화에서 종교신앙의 하나로 귀신신앙(鬼神信仰)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풍속관습편 토속신앙(土俗信仰)에서 각종 민간신앙과 점복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신앙 비중의 강조는 무라야마 지준과 이마무라 도모의 역할에 의한 것으로, 집필 역시 이 두 학자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무라야마 지준은 그의 저서 『조선의 귀신(朝鮮の鬼神)』이 간행된 1929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귀신신앙편을 집필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된 사진 역시 동일한 것임이 확인된다. 그는 귀신신앙을 조선인의 신앙의식의 본류로 이해하고 민간신앙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귀신의 개념과 종류, 대상, 방재법 등을 그의 저서와 거의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마을신앙 관련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무라야마 지준은 기복귀신편에서 '복을 귀신에게 기원하는 것으로 산신제(山神祭), 동신제(洞神祭), 농사제(農事祭), 용신제(龍神祭), 우기(雨祈), 자기(子祈)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중 동제를 '동내(洞內)의 안녕을 바라는 제'로 설명하고 있다. 마을신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사진자료가 설명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승과 산신제, 성황신 세 가지가 등장한다.

장승은 "조선의 무속에서 액과 재난은 모두 귀신의 저주로 여겨져 관혼상제 시에는 미리 무당을 불러 길한 향과 길일을 점치게 하는데, 그때 장승은 귀신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장승은 '그로테스크한 것'으로 소개되며 "장승 덕분에 악귀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해 마을이 평안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신제의 경우는 "제주(祭主) 이외에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되어 일본의 마쓰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며, 제주로는 그 어떠한 액도 들어 있지 않는 장년의 남성이 선택되어 수일간 깨끗이 한 후 제사에 임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성황신 역시 사진과 함께 "성황당을 왕래하는 자는 그 죄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 침을 뱉고 돌멩이를 하나 던지고 지나가며, 언제부터인지 바뀌어 아이를 기원하는 자가 많이 오며 남녀 간의 소원을 비는 자도 생겼다"라고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이 외에도 민속 관련 사진자료가 풍부하게 삽입되어 있는데, 역신을 막기 위해 대문에 엄나무를 걸어두거나 부적을 붙인 사진, 출산 시 대문에 걸어둔 금줄, 병을 막기 위해 환부에 글씨를 쓰는 관습, 맹인독경, 인왕산 기자바위, 풍장(風葬)과 초장(草葬), 국사당, 장례식, 성묘를 비롯해 떡치기, 연날리기, 남사당패의 무동, 김장, 활쏘기, 단오 그네뛰기, 가면극, 널뛰기 등 세시와 놀이 관련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朝鮮古蹟圖譜(朝鮮總督府, 民族文化, 1995), 朝鮮の鬼神(村山智順 저, 김희경 옮김, 동문선, 2008), 日本地理風俗大系 16,17-朝鮮編(新光社, 1930).

필자 권혁희(權爀熙)

일산동당제(日山洞堂祭)

정의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서 행해지는 마을 제의. 이 당제는 2003년 4월 24일에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이 당제의 역사적 유래에 대한 정확한 문헌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마을 노인들이 이 동제가 200년 이상 되었다고 어른들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당제는 유교식 제의와 별신굿의 이원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울산지역 해안마을 당제의 일반적인 형식이기도 하다. 지금은 사정이 마을마다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도 별신굿을 하는 마을에서는 유교식 제의와 별신굿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마을에서는 이 년마다 한 번 음력 시월 초하룻날부터 사나흘 동안 24거리의 별신굿을 한다. 이 별신굿은 동해안세습무집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데 동해안굿 가운데에서 가장 충실하게 자료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마을 별신굿은 부정거리-상하당맞이-가망거리-세존거리-성조거리-군웅거리-제석거리-내천왕거리-산신거리-조상거리-손님거리-대왕거리-외성조거리-외세존거리-우천왕거리-용왕거리-맹인거리-부인거리-소가망거리-황제거리-걸립거리-장수거리-월래거리-대거리의 24거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산동의 유교식 제의는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과, 별신굿이 있는 해의 음력 시월 초하루 즉 별신굿 첫날 자시(子時)에 남자들인 마을 임원들의 주관 아래 신당(神堂)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유교식 제의는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행해지는 제의와 별신굿이 있는 해의 10월 초하루에 지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결국 이 마을에서는 이 년을 주기로 세 차례의 유교식 제의와 한 차례의 별신굿이 진행되는 셈이다.

이 마을의 신당은 마을 북쪽 끝의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작은 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산자락이 약간 경사가 있어서 35도 정도의 계단을 통해 신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신당 안에는 제물을 진설할 수 있는 작은 단이 마련되어 있고, 다른 장치는 없다.

유교식 제의는 신당과 작은당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물론 중심이 되는 것은 신당에서의 제의이다. 신당에서의 제의는 제주(祭主)와 마을 임원 한 사람이 참여한다. 신당 안은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기에는 불편할 정도로 좁다. 제물을 진설한 다음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재배(再拜)한다. 이때 제주는 부복(俯伏)하여 있고, 다른 마을 임원이 준비해 온 축문을 읽는다. 축문 낭독이 끝나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신단을 향해 재배한다. 재배가 끝나면 다시 정화수(井華水)를 한 사발 신단에 올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다시 재배한다. 제주가 먼저 소지(燒紙) 한 장을 올리고 난 후, 이어서 마을 임원이 다시 소지 한 장을 올리고는 제를 끝낸다. 두 사람이 음복(飮福)을 한다. 잠시 후에 제물을 물려서 그 물린 제물의 일부를 따로 자그마한 상(床)에다 담아 신당의 바깥쪽을 향해 차려 놓고는 제주가 간단하게 거리물림을 한다. 이들이 신당에서 제를 지내는 동안 또 다른 마을 임원 몇 사람은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아랫당에 가서 간단히 제를 지낸다.

유교식 제의에서는 제문(祭文)을 사용한다. 이 제문은 한지에 붓으로 쓴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제의 때마다 제문을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한 번 쓴 것을 연월일(年月日)의 간지(干支)만 바꾸어서 계속 사용한다.

제물은 유교식 제의에서 쓰는 것과 별신굿에서 쓰는 것이 다르다. 어느 쪽이든 마을에서 비용을 받아 전적으로 제주의 집에서 준비한다. 시장에서 사와야 하는 것은 제주가 직접 가서 사오되 반드시 부르는 대로 그 값을 주고 사 온다. 유교식만 할 때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준비해서 지내지만 별신굿을 할 때에는 많은 제물을 준비한다. 별신굿을 할 때에 특히 신경을 쓰는 제물은 쇠머리, 엿, 밀가루로 만든 용(龍)이다. 쇠머리는 정갈하게 다듬은 다음 푹 삶아서 제상에 올리게 되어 있다. 엿, 밀가루 용은 이 마을 별신굿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제물이다. 엿을 제물로 쓰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역 양식을 많이 하고 해녀(잠녀)들이 자연산 미역 채취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 미역이 줄이나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해 달라는

일산동 할배당
울산 동구 일산동
2010.7.6, 박경신

일산동 할배당 위패
울산 동구 일산동
2010.7.6, 박경신

뜻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유감주술로 이해할 수 있다. 밀가루 용을 제상에 올리는 것은 이 마을이 해변마을이며, 바다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용은 밀가루를 반죽해 길이가 40㎝쯤 되게 빚어서 쟁반에 올려놓고 쟁반째 솥에 넣고 찐다. 입은 대추로 만들고, 눈은 붉은 콩을 박아서 만든다.

경상도지방에서는 마을 수호신을 대개 '골매기' 또는 '골매기신(神)'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그 신이 남자인 때에는 '골매기할배', 여자인 때에는 '골매기할매'가 된다. 이곳 일산동에서도 마을 수호신을 골매기할배와 골매기할매라고 부른다. 이들은 부부신이며, 입거시조신(入居始祖神)이고, 할배 하나에 할매가 둘이다.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을에 부부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현재 상당이라는 마을 신당에 모셔져 있는 입거시조부부신이다. 이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어떤 여자가 혼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던 남자의 작은 부인이 되었다. 이 작은 부인은 마을 북쪽 끝의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현재 그 집터 자리를 '작은당'이라고 부른다. 이 작은당은 구조물이 없고 집터만 남아 있다. 별신굿을 할 때에는 무당들이 이 작은당에서 간단한 축원굿 한 거리를 한다.

유교식 제의이든 별신굿 제의이든 제주는 같은 사람이다. 제주는 마을 사람 가운데 신망이 있고 부정이 끼지 않은 사람으로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주는 바꾸지 않는다. 제주는 마을의 모든 제의를 주관하며, 제물을 준비하고, 제의를 집행한다. 제일이 다가오면 목욕재계하고 부부생활도 금하는 등 극도의 금기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마을과 같다.

제주와 함께 제의를 진행하는 마을 임원은 대개가 어촌계 임원들이다. 이 마을에는 어촌계가 잘 조직되어 있어서 이 마을 자치조직의 핵이자 마을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오촌계라는 튼튼한 자치조직이 살아서 기능하고 있기에 이 마을의 제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의를 주관하는 마을 임원들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선정한다. 어촌계 계원은 소형어선의 선주, 선원, 해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녀가 남자 선주, 선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어촌계 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특이하다. 이것은 해녀들이 마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 인근은 수심이 비교적 얕고 미역이나 전복 등 어패류가 잘 자라서 이를 채취하는 일이 마을의 중요 소득원으로 되고 있다.

일산동은 울산 지역에서는 유원지로 알려져 있다. 좋은 해수욕장이 있고, 울기등대 등 명승지가 있으며, 방어진과도 바로 이어져 있다. 교통도 매우 편리하고 바로 옆에 현대중공업이 있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상가가 많이 들어섰고, 따라서 주산업도 많이 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인근에는 좋은 어장이 있고, 동해안에서는 드물게 천혜(天惠)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마을에는 어선이 상당히 많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직 상당수 남아 있으며, 해녀도 상당수 있다. 어업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마을공동체는 미약한 상태로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근처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형성됨으로써 외지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현재 상당수에 이르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대로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 온 토착민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이 마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나마 별신굿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 임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별신굿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호응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신성관념도 상당히 퇴색된 상태여서 관심 있는 몇몇 마을 임원이 힘겹게 별신굿을 꾸려 나가는 형편이다. 특히 젊은층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그나마 노인층이 강권해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일산동 할배당 내부
울산 동구 일산동, 2010.7.6, 박경신

의의 일산동당제, 특히 별신굿은 신성한 제의이자 마을공동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당제 기간이 되면 어선들은 어로작업도 중지하고 오색 깃발을 달아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출신 인사들도 마치 설이나 추석에 귀성하는 사람들처럼 고향마을로 돌아온다. 골매기할배 · 골매기할매의 보호 아래 자신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였고, 골매기할배 · 골매기할매의 음덕이 지금도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함께 지켜 주고 있다는 굳건한 공동체의식이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것이 이 마을 당제의 현장이다.

참고문헌 **울산지방무가자료집 1~5권**(박경신 엮음,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한국의 별신굿 무가 1~12권**(박경신, 국학자료원, 1999).

필자 **박경신(朴敬伸)**

임실구암리도깨비제

정의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구암리에서 전승되는 마을 제의. 화재를 방지하고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신앙이다.

유래 이 제의는 도깨비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몇 차례의 화재로 마을이 큰 손실을 입었으며, 그 이유가 도깨비불의 장난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 뒤로 겨울의 초입인 음력 시월 그믐날에 도깨비제를 지낸다. 이것은 불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 시작된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내용 구암리는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에 위치한 산간마을로, 마을 어귀에 거북 형상을 한 바위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45가구에 400여 명이나 되는 주민이 있었으나 1996년 20가구에 40명, 2003년 11가구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이 마을에서 전승되는 도깨비제는 풍물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며, 유교식 제의가 가미된 특징을 보인다. 원래 이 마을에는 임실필봉농악의 상쇠를 맡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분이 이 제의를 주도했다. 그러나 상쇠가 사망한 이후 풍물은 약화되었다.

당은 마을 어귀인 문턱거리의 느티나무 밑이다. 당 주위나 제관집 입구에 금줄을 치거나 황토를 뿌리는 행위 등 특별한 금기는 사라졌다. 단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이다.

도깨비제는 음력 시월 그믐날에 행해진다. 제관은 당일 정하며, 제물 장만은 이장 부부가 담당한다. 제물은 이장 부인이 이틀 전에 백운면 소재지에서 구입하며, 메밀 역시 이곳의 방앗간에서 찧어온다. 제물로 과일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메밀시루떡은 이장 부인이 자기 집에서 시루로 찐다.

이장 부인의 제물 장만이 끝날 무렵인 저녁 7시 30분쯤 마을 사람들이 이장 집으로 모인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제관을 정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을 창고로 가서 장구, 북, 징 등을 챙겨 온다.

풍물이 울리면 제관 등을 앞세워 당으로 향한다. 당에 도착하면 짚으로 자리를 만들어 이장이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특별히 진설하지 않고 큰 쟁반에 담은 상태 그대로 놓는다. 제물을 놓으면 절을 세 번 올린다. 그런 뒤에 간단한 축원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축문이 없기 때문에 소지도 하지 않는다. 철상과 간단한 고수레를 한 다음 마을 안쪽 삼거리로 이동한다.

삼거리는 원래 방죽이 있었으며, 불이 날 경우 방죽의 물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곳에서도 간단한 고사가 행해진다. 이곳에서도 절을 세 번 올린다. 절을 할 때마다 잔을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잔을 올리고 나면 역시 사방으로 고수레를 한 뒤 이장집으로 철수한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간단하다.

이장집에 모인 사람들이 간단하게 음복을 하면 제의가 끝난다. 특히 메밀로 만든 시루떡을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이것을 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먹이면 공부를 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제사 비용은 쌀 한 말 값만큼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준다. 원래는 동네밭이 1,000㎡ 정도 있어 여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충당하였으나 현재는 밭을 없앴다.

특징 구암리는 인근 여느 지역과 달리 제의가 시월에 행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인근 마을인 관촌면 상월리는 음력 정월 초이렛날,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는 정월 대보름날 각각 도깨비제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하지 않으나 구암리의 경우 불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의 초입에 해당되는 때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조사할 때 문의한 결과 정월은 춥고, 이때는 농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기도 했다.

구암리의 도깨비제는 마을의 화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마을 뒤쪽의 대운재에서 도깨비불이 내려와 화재가 많이 났다는 것이다. 한 집에서 불이 나면 이웃집으로까지 번져 큰 화재가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마을의 도깨비제는 도깨비를 달래 불이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지붕 개량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로, 그 후로 다행스럽게 불이 나지 않아 제의의 전승 목적이 약해졌다.

지역사례 이러한 화재와 관련한 도깨비제는 전북 산간지역에서 활발한 전승을 보였다. 지금은 거의 전승이 끊기고 구암리 정도만 겨우 전승되는 실정이다.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에 문화재관리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충북지방에서 화재 방지와 관련한 도깨비제가 행해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신평동에서는 도깨비불이 원인이 되어 마을에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승을 세웠다고 하며,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에서는 산제당 나무를 벤 뒤에 도깨비불이 나타나 불을 지르는 등 장난이 심해 매년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충북이나 전북의 산간 마을에서 화재 방지를 기원하기 위한 도깨비제가 활발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물차림
전북 임실군 관촌면 구암리, 2003.10.24 김종대

참고문헌 **저기 도깨비가 간다**(김종대, 다른세상, 2000), **전북 산간 마을에서 전승되는 도깨비신앙의 유형과 그 특징**(김종대, 전북의 민속, 전라북도, 2005).

필자 **김종대(金宗大)**

임실사곡리남근석

정의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사곡리 자경마을 앞에 있는 남근석. 1998년 1월 9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31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덕치면 사곡리는 임실군의 서남쪽 순창군과 인접한 곳으로, 회문산을 끼고 있다. 원래 길지와 명당이 많아 풍수가의 관심을 끄는 곳이기도 하다. 동쪽의 원통산을 배경으로 그리 크지 않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고, 섬진강의 상류인 사곡천이 회문산 기슭을 따라 흐른다. 원통산 아래에는 서쪽 회문산을 향하여 세 개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세 곳 마을과 이어지는 논밭의 들판 한가운데에 남근석이 서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농지 정리 과정에서 두 동강난 것을 마을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 다시 붙여 현재 위치에 세워 놓았다.

자경마을 앞 도로변에 서 있는 이 남근석은 화강암 석조물 1기이다. 남성 성기 모양을 한 자연암석이지만 인위적으로 조각한 것으로, 민족 고유신앙인 성기숭배사상에서 다산(多産)과 풍년을 기원하고 질병이나 악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높이 200㎝, 둘레 113㎝의 원추형 사각꼴로 되어 있다. 남근석 윗부분을 두툼하게 턱 모양으로 쪼아 귀두(龜頭)를 장식하였다.

마을의 구전에 따르면 마을에 돌림병이 심하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풍수지리상 마을 형상이 여자의 음경을 닮았기 때문이라 하여 마을 어귀에 남근석을 세워 지세의 기운을 누르고 보완하려 했다고 한다. 옛날부터 남근은 무속과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어 풍요

임실사곡리남근석
전북 임실군 덕치면 사곡리, 2010.6.20, 이영배

와 생식을 상징하였다. 나무나 돌로 남근 모양을 조각하거나 남근과 비슷하게 생긴 돌이나 나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 생식과 풍요를 기원하며 제의(祭儀)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사곡리남근석을 대상으로 한 제의는 자세하게 전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현재에도 제는 지내지 않고 일 년에 한 번 정월대보름날 마을 청년단에서 굿을 한다고 한다. 앞 동네인 양지마을과 합심하여 10여 명으로 굿패를 꾸려 정월대보름날 오전 10시 즈음에 동네를 돌면서 남근석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저녁에 양지마을 공터에서 대보름 불놀이를 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장승**(안승복, 동천당, 2008), **문화재청**(cha.go.kr).

필자 **이영배(李永培)**

입석

표제어 선돌(485쪽)

입향시조(入鄕始祖)

정의 마을에 처음으로 들어와 터를 잡고 정착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조상. 한 지역이나 마을과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인격신으로 관념되어 마을신앙에서 신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내용 마을을 개척하거나 동성집단의 경우 성씨의 첫 시조로 상정한다. 입향시조는 실존 인물로서 조상숭배와 연관되어 기록과 구전으로 추적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마을신앙의 대상이 되는 입향시조는 대부분 '○씨', '○씨 할머니', '○씨 할아버지' 형태로 성씨만 구전되어 내려온다.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흔히 '골맥이'라 부른다. 그 성씨를 처음 정착한 '마을 창건신', '시조신', '수호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이 마을을 개척할 때 처음으로 심은 나무 또는 쌓은 돌무더기 등을 마을의 역사로 생각하여 이들을 신성시 여겨 입향시조가 그곳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매년 입향시조를 위한 제의를 지낸다.

입향시조는 마을신화를 구성하는 마을신의 한 유형으로 공동체신앙에서 신격의 대상이 된다. 마을 범위에서 신성시되는 이야기들은 주로 마을의 당신 및 입향시조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두 가지 이야기는 때로 일치하여 전승되기도 한다. 마을을 처음 개척한 입향시조가 죽어서 마을의 동신으로 좌정한 경우에는 당신화가 곧 입향시조가 되는 것이다. 입향시조를 동신으로 섬기는 것은 마을공동체 성원들의 집단적 무의식에 의한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다.

입향시조를 당신으로 모시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동성마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향시조를 모심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가문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며 이야기의 시작도 선조의 인물전설을 우선으로 전개된다. 입향시조, 중시조 및 가문의 훌륭한 인물의 일화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방향으로 이야기판이 형성된다. 이때 자연물 전설도 대부분은 선조의 행적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설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하여 마을공동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향시조 관련 이야기는 개촌의 신성한 역사, 곧 신화를 압축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입향시조는 동성집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지만 지연의 공유 또한 혈연 공유 못지않게 중요한 신화적 기반을 이룬다. 마을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우주이자 세계이다. 자연과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마을의 구성원들은 다른 마을과 구분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마련이다.

제의의 대상으로 모셔지는 입향시조는 동신신앙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것이어서 신화로서의 기능이 명백한 편이지만, 신화는 망각되고 제의만 남아 있는 마을도 많다. 그리고 입향시조는 잊혀지고 오히려 원혼의 신격화가 한국 당신화의 보편문법이라 할 만큼 원혼신의 비중이 높아졌다.

입향시조가 잊혀진 이유는 마을 구성원의 교체나 이주가 잦은 데 있다. 개촌(開村)에 관여한 성씨 집단이 이주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입향시조의 존재는 망각되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숭배와 믿음이 자연 약화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전승집단의 교체와 더불어 마을의 신격도 자연스럽게 교체가 이루어졌다. 더러 입향시조를 잊지 않고 섬기더라도 이주한 집단은 거기에 새로운 신격을 보탰다.

지역사례 입향조를 당신으로 모시는 지역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경북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영남지방에서는 당수나무의 경우 마을을 세운 입향조들이 심었다는 전설이 많다. 입향조는 대개 마을의 골맥이로서 신격화된 일종의 신인(神人)이기 때문에 당수나무는 결국 개촌 인물이 세운 신령스러운 나무로 인식되고 있다.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의 입향시조를 마을 수호신으로 여겨 매해 제의를 지내고 있다.

군위군 고로면 논들마을에서는 음력 정월대보름날 자시에 동제를 지낸다. 제의를 지낼 때 성씨별 입향조로 간주되는 동신을 위해 여섯 개의 제상을 차린다.

영덕군 영해면 대진동은 본래 영해군 읍내면의 지역으로 동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나라, 한날기, 대진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공수진과 건달동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대진이라 하고 영덕군 영해면에 편입시켰다. 이 마을은 1650년경에 김해 김씨(金海 金氏)가 개척하고 동해바다 경관이 좋은 천연적인 항구가 있어 대진(大津)이라 칭하였다. 마을 동신을 '김씨터전 권씨골맥이'라는 구전에서 김씨가 개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울진군 대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마을수호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동제지낸다'고 한다. 마을의 동신은 네 분이다. 첫째 한 분은 본제 동신의 김씨터전 권씨골맥이로 마을 중간에 맞배 기와지붕의 제당 안에 신주로 모셔져 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이진마을의 동제는 '최씨 터전'과 '윤씨 · 서씨 골목'을 모시는 제사로, 정월대보름날 전날 밤에 지낸다. 최씨 터전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온 입향조를 가리키고, 윤씨 · 서씨 골목은 입향조 다음으로 들어온 분들이다.

의의 입향시조는 마을을 개척한 인물이자 동성마을의 시조이다. 이들의 행적과 이야기를 통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혈연, 지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농어촌 마을은 입향시조를 신격화하여 제의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참고문헌 **마을공동체의 성격과 설화의 전승양상**(임재해, 한국민속학 18, 한국민속학회, 1985),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마을신화 연구방법–마을신화지를 위한 구상**(천혜숙, 민속연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5), **문화유적 분포지도–영덕군**(대구대학교박물관, 2008), **민속신화의 범주와 그 민속사회적 가치–마을신화와 당신화를 중심으로**(천혜숙,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1998).

필자 **백민영(白旻永)**

제의

장동산디마을탑제
장성생촌마을당산제
장승제
장흥호계리별신제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정읍원정마을당산제
제주무릉2리평지동포제
제주상귀리당제
제주성읍리포제
제주신촌리포제
제주신흥리포제
제주어음리비멘이당제
제주온평리포제
제주제석제
제주제충제
제주추자도천제 · 장군제
제주풍해방지의례
제주해신제
제주행원리포제
제주회천동석불제
제천면산산신제
제천오티별신제
죽령산신제
증평남차리수살제
지신밟기
진도수역마을충제
진도해창마을당제
짐대제

제의장소

장산마고당 · 천제당
장성영천리방울샘
제주납읍리포제단
제주최영장군사당
제주해신사
죽령산신당
지리산남악사

신격

잡귀
전횡장군
죽령산신

잡귀
장동산디마을탑제
장산마고당 · 천제당
장성생촌마을당산제
장성영천리방울샘
장승
장승제
장흥방촌리석장승
장흥호계리동계문서
장흥호계리별신제
전횡장군
정읍백암리남근석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정읍원정마을당산제

ㅈ

정화
제관
제수물목기
제웅
제주(祭主)
제주(祭酒)
제주골왓마을방사탑
제주납읍리마을제
제주납읍리포제단
제주몰래물마을방사탑
제주무릉2리평지동포제
제주무릉리방사탑
제주북신미륵
제주상귀리당제
제주성읍리포제
제주쇠당의례
제주신촌리포제
제주신흥리방사탑
제주신흥리포제
제주어음리비멘이당제
제주온평리포제
제주용수마을방사탑
제주인성리거욱대
제주제석제
제주제충제
제주최영장군사당
제주추자도천제 · 장군제
제주풍해방지의례
제주해신사
제주해신제
제주행원리포제
제주회천동석불제
제천면산산신제
제천오티별신제
제천입석리선돌
조라
주부
주저리
죽령산신
죽령산신당
죽령산신제
죽령산신제문서
증평남차리수살제
지리산남악사
지법
지신밟기
진도수역마을충제
진도해창마을당제
진주명석자웅석
짐대
짐대제
짚말
짚장군

신체

장승
장흥방촌리석장승
정읍백암리남근석
제주골왓마을방사탑
제주몰래물마을방사탑
제주무릉리방사탑
제주복신미륵
제주신흥리방사탑
제주용수마을방사탑
제주인성리거욱대
제천입석리선돌
진주명석자웅석
짐대

자료

장흥호계리동계문서
죽령산신제문서

제물

제주
조라

제구

제수물목기
제웅
주저리
짚말
짚장군

용어

정화
제관
제주
주부
지법

잡귀(雜鬼)

상호참조 무주고혼(291쪽)

정의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온전한 신앙의 대상이기보다는 잘못하면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존재. 잡귀(雜鬼), 잡신(雜神) 또는 이 둘을 합성하여 잡귀잡신으로 불린다. 제의의 중심에는 마을의 주신격 내지 여러 기능의 신격들이 모셔지고 대접을 받게 된다. 이들 존재에게는 제의의 가장 마지막에 음식을 조금씩 떼어 내 풀어먹이게 된다. 이 잡귀잡신은 그 용어에서도 보이듯이 단수의 신이 아닌 원과 한을 품고 죽음에 이르게 된 여러 인간적 존재를 두루 통칭하는 단어이다. 자식 없이 죽은 무주고혼(無主孤魂), 장가들지 못하고 죽은 총각귀신, 장애를 지니고 죽은 귀신, 애를 낳다가 죽은 귀신 등이 이러한 예들이다. 한편 무당이 진행하는 마을굿에서는 이 잡귀잡신들이 굿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뒷전에서 놀이 형식으로 연행되어 유희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내용 잡귀잡신은 정격신(定格神)의 반대 개념이다. 신의 명칭과 근원 또는 직능이 분명한 정격신과 달리 신계(神界)에 존재는 하지만 위계가 낮아 제의의 중심에 초청되지 않거나 인간에게 좋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협적인 대상으로 관념된다. 이 때문에 정격신에게는 기능에 따른 소원을 구한다면 잡귀잡신에게는 위로와 달래기를 통해 동네의 안녕을 구하게 된다. 잡귀잡신은 수많은 하위 신격을 어울러 정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신격이 속하게 된다. 유교식 제사로 치러지는 마을제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잡귀잡신으로 통칭되지만 신의 세계가 다양한 무속식 마을제에서는 각각의 형상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잡귀잡신은 부정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마을제에서 본격적인 제의가 있기 전에 잡귀의 범접을 금하는 금줄치기와 황토 뿌리기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본격적인 제의 이전에는 잡귀잡신이 부정적인 존재이지만 마을제에서는 축귀 의식을 적극적으로 갖추고 있기보다 이들을 제어할 능력이 있는 주신을 잘 대접하고, 제의가 끝나는 말미에 이들을 달래서 해코지를 면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마을 주신에게 정성을 들인 뒤에는 잡귀잡신이 받아먹고 가라는 의미로 차려진 제물을 조금씩 추려서 주위에 뿌려 주는 행위인 고수레, 헌식, 해물리기 등이 용어는 달리하면서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민간신앙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잡귀잡신에 대한 제의를 행하였다. 이른바 조선시대의 제사를 관장하는 봉상시(奉常寺)에 신실을 두고 동쪽에 여섯, 서쪽에 아홉의 잡귀들을 봉안하였다. 또 7월 15일과 10월 15일에 여단(厲壇)을 두어 이들 존재에 대한 제의를 시행하였다. 이것이 '여제(厲祭)'이다. 이들 존재에 대한 제의를 통해 질병과 변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1929년 간행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귀신』 가운데 여귀(厲鬼)에 대한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봉상시(奉常寺)에 신실을 만들어 놓고 제신을 봉안하는데 그중에는 무사의 귀신을 2좌 15위에 나누어 모시고 있다. 즉 다음과 같다.
>
> 동좌육위(東坐六位)
> 조병인사자(遭兵刃死者). 우수화도적사자(遇水火盜賊死者). 피인취재물핍사자(被人取財物逼死者). 피인강탈처첩사자(被人强奪妻妾死者). 조병화부굴사자(遭兵禍負屈死者). 인천재질역사자(人天災疾疫死者)
>
> 서좌구위(西坐九位)
> 위맹수독충소해사자(爲猛獸毒蟲所害死者). 전투사자(戰鬪死者). 피장옥압사자(被墻屋壓死者). 동뇌사자(凍餒死者). 인위급자액사자(因危急自縊死者). 산난사자(産難死者). 진사자(震死者). 몰이무후사자(歿而無後死者). 추사자(墜死者)
>
> 그리고 이 귀신을 제사 지내는 것은 청명(淸明)과 7월 15일과 10월 15일 세 차례 행하고, 그 제사는 북쪽에 있는 여단(厲壇)에 성황일위(城隍一位)와 무사귀신(無祀鬼神) 15위를 경성 부윤이 주재자가 되고, 예조(禮曹)에서 사관(祀官)을 보내어 거행하였다. 이렇게 정중하게 제사를 지낸 까닭은 사당이 없는 귀신, 즉 여귀는 분한(憤恨)의 기가 응집되어 질병이 생기게 하고,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며 변괴를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위하는 것이다.

서쪽에 봉안된 존재는 보통 불의의 사고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다. 맹수와 독 있는 벌레에 물려 죽은 자, 전투를 치르다가 죽은 자, 무너진 담장이나 집에 깔려 죽은 자, 얼거나 굶주려서 죽은 자, 위기로 인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자, 애를 낳다가 죽은 자, 벼락 맞아 죽은 자, 자식이 없이 죽은 자, 추락해 죽은 자들이다. 이들 존재는 오늘날 무당이 진행하는 마을굿의 뒷전에서 시각화하고 있는 잡귀잡신과도 일치하고 있어 흥미로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잡귀를 물리치는 제의는 여러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지동마을 서낭제에서는 흥미로운 행위가 존재한다. 이른바 잡귀를 쫓는 '바가지 깨기'이다. 마을 제의 음식을 장만하는 당주 집(도가 집)에서 음식을 당으로 가져 가기 전에 이를 깨고 간다. 전국적으로 바가지 깨기는 상장례에서 많이 등장한다. 즉 출상날 방 안의 관을 마당에 차려 놓은 상여로 옮기면서 바가지를 깬다. 이를 연장하여 마을 제의에 적용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바가지 깨지는 소리에 잡귀들이 달아난다고 관념한다.

나로도 신금리(현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의 당제에서는 흥미롭게 잡귀잡신을 위한 축문이 조사되었다. '하당(下堂)객귀문'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丙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部落 잡신 너희들에게 告한다. 李가나 洪가나 金가나 明가나 여러 각종 성받이 너희들은 오라는 데 없고, 갈 데 없고 먹을 데 없는 너희들을 爲해서 우리 洞內에서 갖은 성찬을 마련하여 너희들에게 먹이고자 차려 놓았으니 많이 먹고 우리 部落에 利로운 것은 많이 가지고 오고 害로운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가거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장 거리 중천으로 모두 다 혼백으로 보내니라.

축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마치 '객귀물리기'와 같은 협박적인 내용이다.

농악(풍물)이 결합된 마을제에서는 본격적인 제의 전후에 풍물을 거나하게 울려서 잡귀를 물리친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달포마을 당산제에서는 유교식 제사를 마치고 나면 한바탕 풍물을 울리는 판굿을 거행하고 이 과정에서 잡귀를 쫓는다는 '퇴구굿'을 한다. 퇴구굿은 판굿을 하면서 마을 경계면의 도로에까지 나와서 짚더미를 태우는 형식이다.

잡귀잡신의 대표형을 허재비(허수아비 또는 인형)로 시각화하고 이를 퇴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여러 지역에 존재한다. 이 년마다 열리는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의 오티마을 별신제가 그러한 사례이다. 오티마을은 산신당, 상당, 작은재 서낭, 구실재 서낭, 흰티재 해너물재 서낭, 본당 서낭의 여섯 개의 당을 가지고 있다. 이 년마다 별신이 드는 해로 관념하고 별신이 들지 않는 해에는 산신당과 본당에서만 제사를 드리지만 별신이 드는 해에는 여러 당을 돌며 제사를 지낸다. 이 별신제의 말미에 바로 허재비를 물리치는 이른바 허재비놀이가 존재한다.

허재비를 가지고 물리치는 놀이는 무당이 진행하는 마을굿에서 많이 나타난다. 인천 · 안산 · 부천 · 수원 · 화성 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도당굿의 뒷전에서 화랭이가 제액의 상징, 잡귀잡신적 존재인 '정애비'를 가지고 이를 퇴치하는 놀이를 한다. 경남 거제, 통영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별신굿에서도 '적덕이'이라는 존재를 퇴치하는 놀이를 한다. 놀이는 아니지만 허재비를 띠배에 띄워 보내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전북 부안 위도 띠뱃굿에 있다.

한편 잡귀들도 하나의 신격 체계에 놓고 하위신으로서 인식하는 사례도 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의 기받이 별신제는 상당, 중당, 하당이라는 세 곳의 당에서 순차적으로 마을제를 치른다. 상당은 산신이며, 마을 주신격인 '당할머니'를 모신다. 중당은 이 마을의 실존 인물인 김선근을 신격으로 모신 곳이다. 김선근은 불교에 귀의하여 이 마을에 속거한 인물로, 생전에 이 마을에 많은 공적을 남겼고, 작고 직전에 마을에 땅을 희사하였다. 하당은 마을 어귀에 짚으로 지은 신당이다. 바로 이곳에 여러 잡신과 원귀를 모신다. 이 마을의 별신제는 이틀 동안 치러진다. 첫날에는 상당제와 중당제가 모셔지고, 정월대보름인 이튿날에는 하당제를 지내게 된다. 하당의 신격 대상이 여러 잡귀이고, 이와 연관하여 잡귀를 연희적으로 물리는 '원님놀이'가 진행된다.

참고문헌 **경기도도당굿 무가의 현지연구**(김헌선, 집문당, 1995), **남도민속고**(최덕원, 삼성출판사, 1990), **남해안굿 갈래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巫와 민족문화**(조흥윤, 민족문화사, 1990), **조선의 귀신**(村山智順, 김희경 역, 동문선, 1990), **한국민**

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마을신앙 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김형근(金亨根)

장동산디마을탑제

정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에서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마을로 들어오는 액(厄)을 막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탑제. 1998년 7월 21일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특징 장동 산디마을은 조선시대 회덕현(懷德縣)의 진산(鎭山)인 계족산(鷄足山)의 중턱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계족산신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아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고, 마을 어귀에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할아버지탑과 할머니탑에서 탑제를 지낸다. 이 가운데 눈에 잘 띄는 탑제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산신제-탑제의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산신제-탑제의 이중구조는 계족산 인근 마을들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시월에 산신제를 올리고, 이듬해 정월에 탑제를 올린다. 이 마을에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제사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6 · 25전쟁 때에도 부상자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피란고지여서 전쟁의 피해도 보지 않았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는 마을 어귀의 탑에서 탑제를 지낸다. 이 제사는 '거리제' 또는 '노상제'라고도 부른다. 마을로 들어오는 온갖 액을 막기 위해 마을 어귀의 숲거리에 탑을 세웠다.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언덕쪽에 할아버지탑, 내를 건너 아래쪽에 할머니탑이 각각 있다. 할아버지탑이 할머니탑에 비해 조금 크다. 할아버지탑은 둘레가 100㎝이고, 위에는 높이 30㎝의 뾰족한 머릿돌이 올려져 있다. 할머니탑은 둘레가 80㎝이고, 역시 위에는 높이 20㎝의 작은 머릿돌이 한 개 올려져 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탑의 머릿돌에 종이를 씌우고 두 탑을 금줄로 연결한다. 부부간이므로 연결해 두는 것이다. 두 탑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에는 가마니로 다리를 놓아 역시 부부간의 돈독한 정을 과시한다. 탑제가 거행되는 시간에 맞추어 각 가정에서는 '마중시루'를 올린다. 마중시루는 마을의 신령을 집 안으로 맞이하는 시루이다. 마중시루는 보통 산신제를 거행할 때 마련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탑제와 더불어 행한다.

탑제를 정성껏 지내면 계족산신이 응답을 하여 산울림이 들린다고도 한다. '계족산이 울면 비가 오고 풍년이 든다'는 전설과 관련이 깊다. 몇 해 전에 탑제를 지내다가 산울림이 들려 그해의 풍년을 기약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주민 모두 산신당을 향해 절을 한다. 탑제와 산신제는 계족산 아래에서 생활하는 장동마을 주민들에게 마을의 안녕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수호하는 것으로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내용 장동의 산신제와 탑제는 대전시 대덕구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마을신앙의 구조를 하고 있다. 계족산은 대전의 동쪽을 수호하는 지역의 진산이다. 계족산 뒤편으로 '열두 산뒤' 마을이 있다. 그 가운데 산디마을이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다. 그래서인지 마을의 주신으로 계족산 산신을 모신다.

산디마을은 벌집 형국이다. 집을 한 계단씩 올려지어 벌집처럼 생겼으며,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벌집처럼 한 개뿐이다. 이 마을은 49가구가 넘으면 불이 나서 집이 헐려 늘 49가구를 유지한다는 전설이 어

할아버지 당산
대전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 2005.2.21
최호식

할머니당산
대전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 2005.2.21
최호식

려 있다. 대전은 일제강점기에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산디마을은 산속 깊숙이 위치해 전통문화가 비교적 오래도록 보존되었다.

이곳의 탑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시작된다. 이에 앞서 음력 섣달 스무엿샛날에 제관 일행을 선정해 제사를 준비한다. 제물을 장만하는 고양주와 제사를 주관하는 집사, 제물을 지고 가는 짐꾼 등을 선출한다. 과거에는 신수를 보아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으로 선정했으나 1995년 이후로는 제관 선정이 어려워 다섯 가구씩 의무적으로 돌아가며 맡는다. 고양주는 산신제까지를 주관하므로 상유사라 하여 특별히 깨끗한 사람을 뽑는다.

제사 하루 전날에 신탄진 장에 나가 제물로 밤, 대추, 사과, 배, 곶감, 명태, 향, 소지종이, 양초, 참기름을 산다. 할아버지탑과 할머니탑에 동일하게 제물을 올린다. 제주(祭酒)는 고양주가 일주일 전에 담고, 떡은 백설기로 마련한다. 이곳에서는 '탑제는 당일정성, 산제는 삼일정성'이라고 한다. 산신은 마을의 상당에서 모셔지는 최고의 신령이기에 깊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 산신제에는 제관 일행 이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 비의(祕儀)로 거행되는 산신제에 비해 탑제는 마을 어귀의 열린 공간에서 베풀어지기 때문인지 부정하지 않으면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열나흗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고, 낮 12시가 되면 제사 준비를 한다. 고양주 집에서 탑제에 올릴 떡을 안치면 각 가정에서도 마중시루를 올린다. 저녁 8시쯤이 되면 풍장패가 풍물을 울리면서 고양주 집으로 간다. 고양주 집에서는 마당에 상을 펼치고, 쌀 한 말과 물 한 동이를 놓아둔다. 처마에는 마을을 상징하는 농기(農旗)를 걸쳐 둔다. 농기가 세워져 있기에 멀리서 보아도 고양주의 집을 확인할 수 있다. 마당 한가운데에 옥수(玉水) 한 그릇을 상에 올려놓으면 풍물패가 그 앞에서 풍물을 한바탕 치면서 "만복을 받읍쇼!" 하고 축언을 한다. 천주님께 제사를 지냄을 알리는 의식이라 한다. 그런 다음 우물, 장독대, 부엌 순서로 풍물을 치며 지신을 밟는다. 이어 농기 앞에서 농신제를 지낸다. 술 한 잔을 올리고 나서 간단히 비손하고 풍장을 친다. 그런 다음 마을의 공동우물을 돌며 간단히 비손한다. 이를 요왕제라고 한다. "물 줍쇼! 물 줍쇼! 사해 용왕님 물 줍쇼!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 동해물도 따르고, 서해물도 따르고, 맑은 물만 출렁출렁!"이라 하며 풍장을 친다.

그런 뒤 마을을 돌아 할아버지탑으로 가서 제물을 진설한다. 술, 과일, 포, 떡만을 올린 소찬이지만 거룩하게 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설한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탑에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에 앞서 탑의 몸통에는 금줄을 드리우고, 탑의 윗돌에는 종이를 씌우고 금줄을 감아 탑을 의인화한다. 이것을 '탑의 옷을 입힌다'고 한다. 이는 고양주가 하는 일로, 다른 사람이 대신하지 않는다. 고양주가 정성을 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제상 위에 제물을 진설하면 고양주가 분향하고 술 석 잔을 올린다. 헌작을 하면 고양주와 집사가 나란히 재배한다. 축문은 읽지 않고 소지만 올린다. 대동소지-고양주소지-노년층소지-중년층소지-청년층소지-소년층소지-우마소지 순서로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할아버지탑 제사가 끝나면 곧장 할머니탑으로 옮겨가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할아버지 탑 앞으로 옮겨와 음복한다. 제상에 올린 떡을 나누어 먹으며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원한다.

장동산디마을탑제 대전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 2005.2.21, 최호식

고양주 집에서 농신제

할아버지 당산제의

할아버지 당산제의–소지올리기

할머니 당산제의–제물진설

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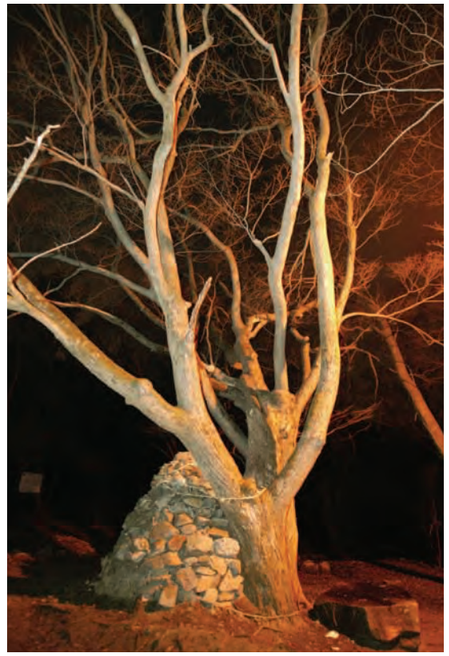
음식이 담긴 오쟁이

또 떡과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종이로 싸서 탑 위에 올려놓았다. 최근에는 짚으로 만든 오쟁이에 담아 올려놓는다. 이 제물을 먹으면 재수가 좋다고 하여 서로 가져가려고 한다. 떡도 떼어내 나누어 준다. 이 떡을 먹어도 재수가 좋다고 여긴다. 특히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부녀자들은 반드시 얻어먹는다.

탑제가 거행되는 동안 각 가정에서는 집안의 안과태평을 빌기 위해 탑제에 맞추어 마중시루를 올리고 마을에 임재한 신령을 집 안으로 불러들인다.

모든 제사가 끝나면 고양주가 마지막 정리를 위해 해물리기를 한다. 물이 담긴 바가지에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담아 부엌칼로 휘휘 저은 다음 탑 앞쪽으로

할머니당산과 제단
대전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 2005.2.21 최호식



나아가 바가지에 담긴 것을 마을 밖으로 휙 내던지며 "허파세!"라고 외친다. 그런 뒤 들고 있는 부엌칼로 땅에 '열 십(十)' 자를 긋고는 마을로 돌아온다. 모든 부정한 것을 물리쳤다는 상징이다.

마을로 돌아와 고양주의 집으로 가서 음복하고 제주를 나누어 마신다. 이 술은 맛이 하도 좋아 먹다 보면 취하는 줄을 모르지만 실제로는 취해서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여 '앉은뱅이술'이라고 한다.

이튿날에는 주민들이 모두 모여 제비 결산을 하고 척사놀이를 하며 하루를 논다. 대보름을 맞이하여 풍농을 기원하는 다양한 민속행사가 어우러진 마을 축제마당이 된다.

정월 탑제가 마을의 액을 막기 위한 제사였다면 음력 시월 초사흗날에 거행하는 산신제는 한 해 동안 마을을 편안하게 돌보아주신 산신령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이다. 과거에는 마을이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탓에 산짐승으로부터의 피해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산신제를 지냈다고도 한다. 마을 뒤편의 계족산 중턱에 산신당에 있다. 마을에서는 산신당이 보이지 않지만 산신당에 오르면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본래는 1950년대에 지은 작은 두 칸의 초가집이었다. 한 칸에는 산신의 위패를 모셨으며, 다른 한 칸에는 제기를 보관하고 제관들이 추위를 피하는 곳으로 이용했다. 1995년에 대덕구의 지원으로 개축하여 두 칸에 기와를 얹은 형태가 되었다. 그 옆에는 본래 있던 긴 돌이 하나 서 있다. 산신당을 짓기 이전에는 이 돌을 산신으로 여겼다. 그 옆에는 제사를 지낼 때만 사용하는 샘이 있다. 이 마을에는 산신을 위패 형태로 봉안했다. 산에서 직접 통돼지를 잡아 제물로 사용하며 산신령이 들을 수 있도록 돼지가 '꽥꽥' 소리를 내게 해야 잘 지냈다고 여긴다.

탑제와 더불어 산신제는 계족산 아래에 위치한 마을들에서 지내는 보편적인 제사이다. 산디마을의 제사는 주민들의 열성과 믿음 속에서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존속되었다. 주민들에게 탑제와 산신제는 마을의 든든한 울타리인 셈이다.

참고문헌 **대덕구민속지**(대덕구청, 1989), **민간신앙**(이필영, 대전의 민속지, 1998), **대덕구사–신앙**(이필영, 대덕구, 2006), **한국의 마을신앙 상**(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김호경(金孝慶)**

장산마고당 · 천제당 (萇山麻姑堂 · 天祭堂)

정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산 1-1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제당. 2009년 12월 7일에 '부산광역시 민속자료 6호'로 지정되었다. 마고당에는 장산 일대 지역의 수호신인 상산마고할미, 천제당에는 천신(天神) · 지신(地神) · 산신(山神)을 각각 모시고 있다. 장산 중턱의 너덜겅(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에 자리한 장산마고당과 천제당은 우리 고유 민속신앙 제당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산과 천제당이 하나의 권역 속에 형성되어 있는 민속신앙적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형태 장산마고당은 마고할미를 모시는 본당을 중심으로 산신을 모시는 산신단과 제기를 보관하고 제물을 장만하는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천제당은 돌로 만든 제당으로 마고당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산기슭에

있다.

마고당 일곽은 본당을 제외하면 모두 인근의 자연석을 쌓아 올린 돌담으로 둘러쳐져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돌담의 규모는 높이 2~4m, 길이 25m 가량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쌓아서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고 있다. 담장 왼쪽과 뒤에는 너덜겅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잡목이 우거져 있다.

붉은 시멘트 벽돌 건물인 본당은 앞면 201㎝, 옆면 199㎝ 규모다. 청기와 맞배지붕 형태로 용마루 오른쪽에 치두, 왼쪽에 치미로 장식되어 있다. 본당의 정면 창방 위에는 「상산마고당(上山麻姑堂)」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창방 아래에는 광창을 길게 내고, 가운데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꽃 문양에 둘러싸인 태극 문양의 장식이 달려 있다.

본당 오른쪽 아래에는 돌로 만든 산신제단이 있다. 산신제단은 지상에서 48㎝ 높이에 앞면 50㎝, 옆면 57㎝, 두께 8㎝ 크기의 자연석을 올려 만든 것이다. 본당의 왼쪽 아래에는 제기를 보관하고 제물을 장만하는 부속건물이 있다. 부속건물은 앞면 221㎝, 옆면 230㎝ 규모의 시멘트 건물이다. 벽돌을 쌓아 만든 벽면에 두 짝 여닫이문을 설치한 정면을 제외한 왼쪽, 오른쪽, 뒤쪽은 주변 막돌과 시멘트 모르타르를 쌓아 벽체 겸 담장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기와는 맞배지붕 형태이다.

천제당은 마고당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약 100m 떨어진 장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천제당은 신선이 내려와 노닐었다는 신선바위 뒤에 바위 제단을 한 단 더 높게 쌓은 형태이다. 제물을 진설하는 제단은 앞면 50㎝, 옆면 75㎝, 두께 8㎝ 규모의 직사각형 형태인 화강암 반석이다. 천제당은 제단 뒤편의 큰 바위로 벽체를 삼고 그 양쪽으로 자연석을 올려 쌓은 돌담이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돌담 뒤로는 소나무가 무성하여 장엄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돌담의 규모는 길이 130㎝, 높이 90㎝, 폭 13㎝이다. 제단 뒤쪽의 바위에는 천제당에 모신 신격의 신체인 3기의 입석이 세워져 있다. 가운데 입석의 크기는 높이 90㎝, 밑변 20㎝, 폭 15㎝이다. 왼쪽의 입석은 높이 61㎝, 밑변 20㎝, 폭 15㎝ 크기이다. 오른쪽의 입석은 높이 48㎝, 밑변 20㎝, 폭 17㎝이다. 이들 입석은 천신 · 지신 · 산신(山神)을 상징한다고도 하며, 천(天) · 지(地) · 인(人)을 상징한다고도 한다. 천제단 하단 길 아래에는 사방 1m 안팎 규모의 너덜경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석간수가 고이는 샘물이 있다. 이 샘물로 정화수를 올리고 제의 때 제물을 장만한다.

역사 현존하는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동래부동하면고문서』 가운데 「동하대동중절장산신당중건록문」에 따르면 장산은 조선시대 중엽부터 봉산(封山)으로 지정되어 나라에서 육림 · 벌채하다가 서기 1741년 이래 동하면민이 장산에 기우제를 지낸 것을 시작으로 조선 중엽 이후부터 마고할미를 모신 제당을 세워 정월과 유월 두 차례에 제를 모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장산마고당은 조선 중엽에 건립되어 제의가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헌에는 현재의 제당이 1924년에 중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24년에 제당을 중건한 연유는 당시 당사가 노후에 비바람을 막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중건은 마을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마고당 현판의 낙관 '중원갑자칠월중건(中元甲子七月日重建)'과 제당 안 천장부의 상량문 '중원갑자칠월육일미시입주상량(中元甲子七月六日未時立柱上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52년 6월에 인근 군부대의 탄약고 야적장에서 폭발된 탄약의 파편 일부가 날아와 당사 지붕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당사는 군부대의 관할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훼손된 지붕을 보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한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의 꿈에 마고할미가 나타나 "내가 비를 맞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며 꾸짖었고, 그 일을 계기로 마고할미의 꿈을 꾼 마을 주민이 군부대 사령부에 간곡히 요청해 사비를 들여 지붕을 지금의 것으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천제당의 건립 시기에 대한 문헌자료와 구전자료는 달리 없다. 그러나 마고당에 제를 올릴 때 천제당에서 먼저 제를 올리는 것이 오랜 관행인 것으로 보아 천제당의 건립 시기는 마고당사의 건립 시기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해운대구에서 설치한 안내문에는 "천제단은 2천 3백년 전 장산국이 씨족끼리 형성된 마을공동체로서의 일체감과 수렵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자연숭배사상에서 천신과 산신에게 제천의식을 일 년에 두 번(1월과 6월)씩 올리던 곳이다"라고 쓰여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일대, 2000.10.3, 황경숙

장산마고당

천제당

내용 마고당 본당 내부에는 제물을 진설하는 제단이 디긋(ㄷ) 자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제단 위 벽면에는 '상산마고령상신위(上山麻姑靈上神位)'라 쓴 나무위패가 걸려 있다. 그 아래 제단 위에는 정화수 그릇 두 개, 촛대 세 개, 쌀을 담은 제기 한 개, 향로 한 개 등이 놓여 있다.

현재 제의를 모실 때 사용하는 제구(祭具)는 마고당의 부속건물에 보관되어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제구를 마을에서 따로 보관하였다고 한다.

제의는 장산 일대의 운촌, 중동, 미포, 장지, 오산, 좌동 등 여섯 마을에서 윤번제로 매해 음력 1월 3일과 6월 3일 두 차례 제의를 베풀어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는 이들 여섯 마을의 동장들이 회의를 거쳐 제의를 좌동에서 일임하도록 하여 이후로 좌동에서 제의를 모시고 있다. 좌동에서 제의를 전담하여 모시게 된 이후로 1996년까지는 좌동마을 주민을 대신해 폭포사의 주지스님이 망제 형식으로 제의를 대행해 왔다.

1995년 좌동 주민들이 장산마고당과 천제당의 전통 민속문화적 가치를 절감하고 보다 발전적인 계승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산신당보존관리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1997년부터는 장산신당보존관리위원회(2010년 6월 10일 '장산향토문화보존사업회'로 개칭됨)에서 제의를 주관하여 모시고 있다.

마고당과 천제당 제의는 매년 음력 정월 3일과 6월 3일 두 차례에 행해진다. 정월에 행하는 제의는 전염병 예방과 각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6월에 행하는 제의는 풍해, 충해, 병해 등 삼재를 막고 풍어와 풍농 등 기풍을 기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의의 절차는 원래 천제당제-마고당제-거릿대제(현 국민은행 신시가지 지점에 있던 당산나무) 순이었으나 좌동에서 제의를 일임하여 모시면서부터는 천제당제-마고당제-산신단제-제석당제 순으로 변화하였다. 과거와 달리 거릿대제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해운대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거릿대장군의 신체(身體)가 없어지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제석당제를 지내는 것은 제석당이 좌동의 당산이며, 좌동에서 제의를 일임하면서 좌동의 당산제가 마고당제로 흡수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좌동 당산인 제석당은 1993년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장산의 산기슭으로 이전되었다. 제당 안에는 '장산산왕대신신위(萇山山王大神神位)'라고 쓴 나무위패와 신석(神石)인 자연석이 봉안되어 있다.

제를 주관하는 제관은 제의 열흘 전에 마을 주민 가운데 생기복덕을 보아 부정이 없는 깨끗한 이를 선정하며, 선정된 제관은 제물을 운반할 이를 지명하여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이는 제의를 지내기 전후로 열흘동안 부정을 가리는 금기를 행한다.

제의에 진설하는 제물은 신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준비한다. 천제당에는 생쇠머리, 조리하지 않은 생선, 떡, 삼색과일, 제반, 술 등을 올린다. 마고당에는 육류와 어류를 일절 올리지 않고 떡, 메, 나물, 과일, 제반, 정화수를 진설한다. 산신단에는 쇠고기, 메, 나물, 정화수 등으로 간소하게 차린다. 제의 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하지만 천제당 · 산신단 · 제석당에는 삼배를 올리며, 마고당에는 구배를 올린다. 제의를 마친 뒤에는 제석당에서 제관들이 음복한 다음 당일

진시(辰時)를 경과한 뒤에 하산하여 마을 경로당에서 남은 제수음식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음복한다.

구전하는 영험담으로는 운촌 마을에서 제를 주관하던 어느 해에 제물로 쇠머리를 올리지 않고 돼지머리를 올린 탓에 제관이 신벌을 받아 다시 제를 모셨다고 한다. 또 광복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해 유월제의 때 노인들의 모임인 갑계에서 제물로 쓸 송아지를 잡아 제를 올렸다. 이때 날이 더워 제관들이 두루마기를 벗어 신당 옆 바위 위에 얹어 놓자 갑자기 두루마기 하나가 하늘로 날아올라 양운폭포 아래 가마소에 떨어졌다고 한다. 사람들이 몰려가 소에 빠진 두루마기를 건지기 위해 긴 막대기 두 개로 휘저었으나 끝내 두루마기를 찾지 못하였다. 소에 빠진 두루마기의 주인은 당시 자신의 처가 임신하였음에도 제에 참여하여 변을 당한 것이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소에 빠진 두루마기 주인은 병이 들어 죽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동래부동하면고문서**(해운대민속, 해운대구청, 서면문화사, 1996), **부산의 당제**(김승찬 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주영택, 해운대지구향인회, 2010), **장산의 역사와 전설**(김병섭, 도서출판국제, 2008).

필자 **황경숙(黃京淑)**

장성생촌마을당산제

정의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생촌마을에서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마을 제사.

유래 생촌마을당산제는 마을이 형성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터를 잡은 성씨는 장흥 고씨(長興 高氏)이고, 1800년쯤에 광산 김씨(光山 金氏), 1820년쯤에 경주 김씨(慶州 金氏)가 이주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촌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9㎞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고산(526.7m)의 동남 기슭 두 개의 골짜기에 형성된 동향마을이다. 6·25전쟁을 치르는 2년 동안 당산제를 중단했을 때 마을 어른들의 꿈에 당산신이 "배고프다. 추워죽겠으니 옷을 입혀 달라" 하여 서둘러 당산제를 모시고 줄다리기를 하여 독당산(할머니당산)에 줄을 감아 주었다고 한다. 그 뒤 1980년 제11회 남도문화제에 출연하여 민속놀이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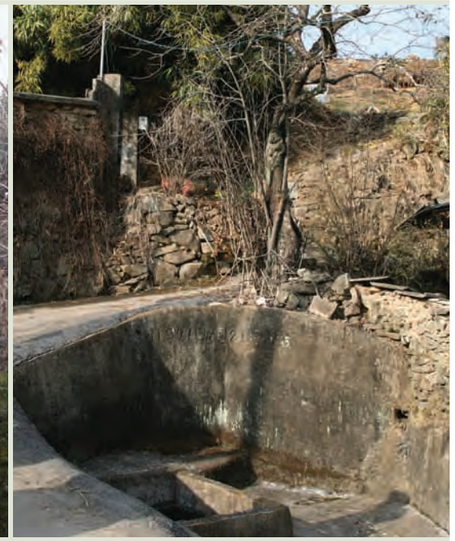
내용 **1. 제당 구성** 당산은 천룡당산, 고랑뜸샘, 양지뜸샘, 할아버지당산, 할머니당산으로 모두 다섯 곳이다. 천룡당산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수령이 약 500년, 높이 12m, 둘레 2.6m인 소나무이다. 고랑뜸샘과 양지뜸샘은 정추당산이라 부른다. 할아버지당산은 내당산·정자나무당산이라고도 부르며, 마을 중앙에 있는 팽나무이다. 이 팽나무는 1975년쯤 태풍으로 인해 큰 가지가 부러졌으나 바로 옆에 있는 집이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가지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산으로 옮겨 두었다고 한다. 또 1988년 여름 풍수해로 당산목이 동강나자 1990년 2월 그곳에 느티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할머니당산은 외당산·독당산이라 부르며, 마을 어귀 왼쪽 논에 세워진 자연석(입석)이다.

2. 당산제 준비 제사는 음력 정월대보름 새벽 1시쯤에 지낸다. 비가 내려도 그대로 진행된다. 제관을 정한 후나 정월 초하룻날 이후 마을에 초상이 나면 제관이 아닌 사람만 참여하고, 열이튿날 이후에 초상이 나면 제사가 끝날 때까지 운구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제관 집에서 초상이 나면 제사 지낼 날을 다시 정한다. 마

할아버지 당산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생촌마을
2006.4.5. 서해숙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생촌마을, 2006.1.20. 서해숙

천룡



우물

을에서는 정월 초하루부터 제를 모실 때까지 전혀 굿소리를 내지 아니한다. 음력 정월 초닷샛날쯤 마을회의에서 나이와 대보름날의 일진에 맞추어 제주, 축관, 화주 등 세 사람을 선정한다. 이들은 일진을 봐 생기복덕에 맞아야 하고, 궂은 곳에 간 적이 없어야 하며 집안에 우환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적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만 뽑기도 한다. 세 사람 가운데 연장자가 헌관, 학덕이 있는 자가 축관, 젊은 사람이 집사(화주)가 된다.

제관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운이 좋고 장소가 편리한 사람의 집을 택하여 열이튿날부터 사흘 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제사 모실 준비를 한다. 제관들이 사용하는 방에는 가족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루에 발을 쳐서 차단한다. 제관들은 선정된 이튿날부터 비린 것은 물론 육고기까지도 일절 먹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금기를 지킨다. 마을 사람들도 초상집이나 궂은 곳에 가지 않는 등 함께 근신한다.

열이튿날 새벽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한 명은 집에서 새끼를 꼬고, 두 명은 제물을 사러 장에 간다. 새끼는 왼새끼로 100여 발 꼰다. 이때 절대로 침을 뱉어서 꼬아서는 안 되기에 곁에 물그릇을 두고 사용한다. 새끼를 꼬면서 침을 뱉었을 경우 다시 꼬아야 한다. 이렇게 꼬아 놓은 왼새끼는 열사흗날 5당산과 마을 어귀, 화주 집 등에 청소를 하고 나서 치는 금줄로 사용한다. 천룡당산에는 제상을 만든다. 대나무를 베어다가 네 기둥을 만들고 대를 엮어 위에 깐 것이다. 제사가 끝나면 제상은 그대로 놓아두고 이듬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청소할 때 소각한다. 할머니당산에는 지난해 감아놓은 줄을 청소하여 인근 논에 뿌려 퇴비로 사용한다. 그리고 금줄은 쇠말뚝으로 구멍을 뚫어 대나무를 꽂아서 치고, 대나무를 꽂은 양편에 황토를 한 줌씩 띄엄띄엄 놓는다. 금줄을 친 날부터는 마을 사람들도 비린 생선이나 육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 비용은 예전엔 호구전이라 하여 돈이나 쌀을 집집마다 성의껏 갹출해 사용했다. 그러다가 1980년 제11회 남도문화제에 출전하여 민속놀이 부문에서 받은 우수상 시상금(60만 원)과 1981년 범죄 없는 마을 시상금(300만 원)으로 마을 공동답 2,000㎡를 구입하여 1983년부터는 그 소출을 제사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충당한다.

제물로는 비린 생선이나 육고기는 사지 않고 채소류·삼실과·건포 등을 마련한다. 제기 및 제반 집기(시루, 물동이, 바가지, 그릇 등)는 새로 구입한다. 물건 값은 깎지 않고 상인이 달라는 대로 지불한다. 이

렇게 새로 구입한 제기와 집기는 제사를 지낸 뒤 화주 집에서 쓰게 된다.

제수는 열나흗날에 장만하며 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화주는 입마개를 쓰고, 화장실에 다녀오면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음식을 절제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양념을 하되 고춧가루는 사용하지 않고 간도 맞추지 않는다. 제물은 메 네 그릇, 갱(미역에 찬물만 부은 국) 네 그릇, 제주(막걸리), 편(작은 팥시루떡), 무숙채 · 콩나물 · 고사리 등(3채 또는 5채), 조기, 대추 · 밤 · 감(또는 곶감) · 배 · 사과(3과 또는 5과), 메밀범벅 등이다. 메밀범벅은 메밀묵으로, 제물로 사용하지 않고 도깨비밥으로 사용한다.

3. 당산제 진행 제사는 대보름날 새벽 1시 이전에 시작한다. 제관들은 옷을 갈아입고 떡시루와 메 등 제물을 지게에 지고 천룡당산으로 간다. 제관 이외에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 천룡당산, 양지뜸샘, 고랑뜸샘, 나무당산(내당산), 독당산(외당산)의 5당산을 차례로 돌면서 제사를 올린다. 천룡제에서는 모든 제물을 사용하고, 다음 4당산제에서는 천룡제에서 사용한 제물을 4분의 1씩 다른 그릇에 덜어서 사용한다. 제의는 진설-분향-초헌-독축(축관이 축과 비손축원문을 읽음. 비손축원문은 상황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읊었으나 요즈음은 종이에 써서 읽는다.)-아헌-종헌-소지-음복-헌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天龍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某日干支十五日干支
幼學 某祭官 (姓名) 敢昭告于
天龍之神 天作高山 鎭此南方 大闢村閭
居民生活 實賴神休 少幼吉慶 耆老益壽
斥禍降福 士子登科 農夫積廩 永世是寧
今以吉辰 齋誠祈祝 神其佑之
謹以 淸酌脯果 祗薦于神 尙饗

〈井甃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某日干支十五日干支
幼學 某祭官 (姓名) 敢昭告于
井甃之神 源泉洋 環周里閭
生民活潑 德澤潤沾 福祿沈長藏
今以吉辰 齋誠祈祝 神其佑之
謹以 淸酌庶羞 祗薦于神 尙饗

〈社壇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某日干支十五日干支
幼學 某祭官 (姓名) 敢昭告于
社壇之神 環周村閭 鎭此生民
保護衆生 防禦疾苦 呵禁不祥
今以吉辰 齋誠祈祝 神其佑之
謹以 酒果 祗薦于神 神其佑之 尙饗

〈비손축〉
년으로는 ○○년이옵고 월로는 정월이옵고 일로는 15일이옵나이다. 한 장의 소지라도 만장의 소지장으로 알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생촌 각 생제원 남녀노소 없이 다 길영하시옵고 부자자효 형제우애하고 부화부순하게 해 주시옵고, 국사를 위하여 군대에 가 있는 젊은 청년들도 책임 완수하오며 사자등과 농부적경하오며 우마경축도 일생월생하며 질병제악을 다 축송하여 소멸케 하옵시고, 매사가 태평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남녀 다 재수도 복도 수명도 많이 주시옵소서.
간단한 축원이지만 태산같이 높고 서해바다같이 널리 받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나이다.

할머니당산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생촌마을, 2006.1.20, 서해숙

독당산까지 다섯 당산에 올리는 제사가 다 끝나면 맨 나중에 도깨비바우(마을 어귀 다리 밑)에 가서 메밀범벅을 미리 깔아 놓은 짚 위에 부어 주면서 "물 우게 김서방, 물 아래 박서방 많이 묵고 물러가거라"라는 말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온다. 제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일절 풍물소리는 내지 아니한다.

제사는 새벽 4시쯤 끝난다. 제관들은 화주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쉰다. 이들은 예전에는 사흘 뒤에나 숙식하고 있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나 지금은 보름날 아침 정결한 마을 대표 두 명이 제관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제사 비용 등을 결산하고 음식을 먹어 주기 때문에 이틀만에 나올 수 있다. 제주 가족들은 제사가 끝난 뒤 일 년 동안 궂은 곳에 가지 않고 궂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지금은 6개월 정도 지킨다.

4. 줄다리기와 줄감기 대보름날 아침 9시쯤 마을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나발소리가 들리면 짚 한 다발씩을 들고 당산 끝에 모여 용줄을 꼬기 시작한다. 중심에 큰 새끼줄 두 개를 놓고 그 위에 일곱 가닥의 짚으로 용줄을 들인다. 당산 주변의 정자나무 4그루를 한 바퀴 감을 정도(약 40~50m)면 알맞은 길이가 된다. 농악대가 당산 끝을 세 번 돌고 재배하면 남자들은 어깨에 줄을 멘 다음 농악대를 앞세우고 고랑뜸샘, 천룡, 양지뜸샘 순으로 돌며 굿을 친다. 옛날에는 5당산을 차례로 돌았으나 지금은 3당산만 돌고 있다. 당산을 다 돌고 나서 마을 앞길로 내려와서 남녀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다. 총각들은 여자 편이 된다. 보통 세 번 싸워서 두 번 이겨야 한다. 줄다리기를 할 때 서로 회초리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언제나 내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놀이를 벌인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독당산(외당산) 입석에다 줄을 감아 놓는다. 줄은 밑에서부터 감아 올라가 두 겹 내지 세 겹이 되도록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감는다.

5. 마당밟이 줄감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당밟이 굿을 친다. 이때 화주 집과 부정한 집은 치지 않는다.

의의 생촌마을당산제는 호남지방의 서부지역과 산악지역 마을신앙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민속신앙적 가치가 있다. 즉 제당이 다섯 곳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2당 구성이라는 부분은 산악지역 마을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고, 제사를 마치고 나서 줄다리기를 하고 이 줄을 입석에 감아 놓는 것은 호남지방의 서부지역 마을신앙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장성군 마을사-삼계면(장성군, 1991), 장성군의 문화유적(조선대학교박물관, 1999).

필자 표인주(表仁柱)

장성영천리방울샘[長城鈴泉里鈴泉]

정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15-3번지 오동촌마을 어귀에 위치한 우물.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마을에서 동제를 지낸다. 2001년 9월 27일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186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샘은 둘레 15m, 높이 2m, 수심 1m, 면적 145㎡의 타원형 우물이다. 지하에서 물이 방울처럼 솟아오른다고 하여 '방울샘'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샘가를 석축으로 쌓고 석축 맨 윗부분과 샘 주변으로는 대리석을 둘렀으며, 아래로는 배수로가 나 있다. 샘 주변에는 샘을 보수한 사실이 기록된 빗돌이 서 있다.

역사 방울샘의 시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동촌마을이 400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우물로서 기능하던 방울샘의 역사도 400년 이전으로 소급된다고 할 수 있다. 방울샘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대동지지(大東地志)』이다. 이 책에는 방울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소재지만 기록되고 있다. 다음으로 『호남읍지』에 포함된 「장성부읍지」 산천조에 다음과 같은 내

장성영천리방울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2010.6.5, 이옥희

용이 전한다. "부(府)의 동쪽 5리에 있다. 물이 솟아나오는 것이 방울과 같은데 영험과 이적이 자주 있다.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다(鈴泉 在府東五里 湧水如鈴 頻靈異 當旱祈雨祭)."

1927년에 간행된 「장성읍지」 이적조(異蹟條)에 방울샘과 관련된 기록이 전한다. "영천은 장성면 영천리에 있는데 샘의 맥이 드러난 곳의 모래 가운데에서 수많은 방울들이 떠올라 끊이지 않으니 이름 부르게 되었다. 물 색깔의 적백으로써 세상일을 징험하고 청탁(淸濁)으로 1년 일을 점쳤다. 샘 안에 물고기는 모두 오른 눈이 멀었다. 비록 다른 물에 있던 것도 한 번 이 샘에 들어오면 또한 눈이 먼다. 사람들이 만일 고기를 잡으면 반드시 재해를 받게 되는 까닭에 서로 경계하고 침범하지 않았다(鈴泉在長城面鈴泉里泉脈散出沙中萬鈴浮上不絶故名之以水之赤白驗世事淸濁占年事泉中魚族盡盲右目雖他水所産一入是泉則亦盲人若釣取必受災害故相戒不侵)."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이미 조선시대부터 방울샘은 제의 공간이면서 점세(占世)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샘 옆에 세워진 빗돌에는 '영천수축실적(鈴泉修築實積)'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으며 1931년에 공사를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1991년에 재정비 하면서 석축 위에 대리석을 올리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우물 바닥에 자갈을 넣었다고 한다.

내용 방울샘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 샘은 지하에서 물이 방울처럼 솟아오른다고 하여 방울샘으로 불린다. 이러한 현상은 지질학적 측면에서 지층 구조상 지질습곡대에 의해 지표 가까이 노출된 지하 대수층이 지표에 가장 근접한 지역 위에서 형성되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샘은 500여 년 전에 용이 승천한 늪이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샘의 상태를 보고 나라의 평안과 풍흉을 점쳤는데 동학농민운동과 6·25전쟁 등 나라에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황토물이 나오고 풍년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뜬물처럼 우윳빛 물이 나왔다고 한다. 오동촌마을에서는 방울샘을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 여기고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당산나무에서 지내는 당산제와 함께 방울샘에서 샘제를 지내며 신성시 하고 있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 오전에 당산나무와 방울샘 주변에 금줄을 치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밤 11시쯤에 당산할아버지에게 먼저 제를 올리고 나서 방울샘으로 옮겨 샘제를 지낸다. 마지막으로 당산할머니에게 제를 지내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大東地志**, **장성군 마을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7), **장성군의 문화유적**(장성군·조선대학교박물관, 1999).

필자 **이옥희(李玉姬)**

장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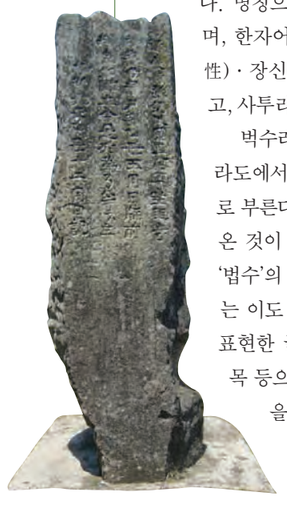
상호참조 장승제(756쪽)

정의 나무나 돌로 다듬어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물(形象物)로 마을이나 절의 들머리 또는 고개 등지에 세웠던 일종의 수호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령시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치성을 드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영암 동구림리 국장생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2010.6.3, 배도식

영암 구림리 국장생
전남 영암군 구림리, 2010.6.3, 배도식

어원 장승의 어원은 1527년 최세진이 『훈몽자회(訓蒙字會)』(중권 제9장)에서 후(堠)를 설명하면서 '댱승 후'라 기록하였으며, 이 '승'이 '쟝승→장승'으로 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승의 한자어 표기는 장생(長生, 長柱)으로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댱생'이라 발음했지만 이도 '댱승→쟝승→장승'으로 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 통도사 국장생
경남 양산 하북면 백록
2010.6.9, 배도식

장승을 부르는 명칭에는 장생, 장성, 장싱, 장신, 벅수, 벅슈, 벅시, 후, 수살, 수살막이, 수살목 등이 있다. 명칭으로 보아 장승이 일반적인 용어이며, 한자어로는 장생(長生, 長柱)·장성(長性)·장신(長神)·장승(張丞) 등으로도 쓰고, 사투리로 장싱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벅수라는 말은 경상도 해안 지역과 전라도에서는 장승을 벅수, 벅슈, 벅시 등으로 부른다. 이는 법수(法首) 또는 법슈에서 온 것이 아닌가 추측되지만 확실치 않다. '법수'의 의미를 '신선' 또는 '선인'으로 보는 이도 있다. 후(堠)는 옛 문헌에 장승을 표현한 글자이고, 수살·수살막이·수살목 등으로 표현한 것은 장승을 세워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살(煞)인 나쁜 재액을 막아 준다고 여기고 붙인 말이다.

역사 일찍이 손진태는 우리나라 장승의 기원을 부족국가시대의 소도, 입석, 누석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63항)에 전남 장흥군의 신라국 무주 가지산 보림사 보조국사 영탑비명에 '장생표주(長柱標柱)'라는 명문이 있음을 보아 당시에도 장생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같은 책(291항)에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의 기록에는 손내천(孫仍川, 또는 손잉천)에 국장생(國長柱)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울주의 상천리에도 고려시대에 세웠다는 국장생이 남아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영암군 불우조)에도 국장생의 기록이 있다. 이들은 모두 조선시대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권4, 보양리목조)에

양산 통도사 국장생
울산 울주군 하북면 상천, 2010.6.9, 배도식

운봉 서천리 돌장승
전북 남원시 운봉 2010.5.27, 배도식

영암 쌍계사지 돌장승
전남 영암군 쌍계사지, 2010.6.3, 배도식

운봉 서천리 돌장승
전북 남원시 운봉 2010.5.27, 배도식

양산 통도사 목장승
경남 양산시 통도사, 2010.5.27, 배도식

남원 실상사 돌장승
전북 남원시 실상사, 2010.5.27, 배도식

남원 실상사 돌장승
전북 남원시 실상사, 2010.5.27, 배도식

남원 실상사 목장승
전북 남원시 실상사, 2010.5.27, 배도식

옥천 사기점 목장승
충북 옥천군 사기점, 2010.6.10, 배도식

아산 송악 목장승
충남 아산시 송악면 종곡, 2010.6.11, 배도식

하동 목장승(천하대장군)
경남 하동군 석계초등학교, 2010.5.27, 배도식

하동 목장승(지하여장군)
경남 하동군 석계초등학교, 2010.5.27, 배도식

연기 대곡리 목장승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한적골, 2010.6.11, 배도식

연기 대곡리 목장승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한적골, 2010.6.11, 배도식

청도 운문산선원에 장생이 있었다(943)는 기록과 운문산선원에 장생표탑(長生標塔)이 있었다(946)는 기록도 보인다.

조선 전기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권5)에 '김해에서 밀양으로 가는 길가에 장생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권24, 여지고 도리조)에 '석장생(石長柱)'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이상의 역사적인 여러 기록을 보아 신라 · 고려 ·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장생, 장생표주, 장생표탑, 국장생, 황장생 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각기 기능은 달랐겠지만 모두 장승이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 예부터 장승을 깎아 세우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면서 장승제를 지내고 있는 마을이 많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의 장승제는 은산별신제와 같이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소라실,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한티, 이화리 새점, 정산면 용두리, 천장리, 송학리 상송, 아산시 송악면 종곡리의 장승제도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몇 백 년이 되었다 전한다. 또 오래전부터 장승제를 지내오고 있기는 하지만 오래되어 역사를 잘 모르는 곳으로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사기점과 동이면 청마리 마티,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한적골 등이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판소리 사설 〈가루지기타령〉에 나오는 경남 함양군의 장승도 오래되었다. 함양 마천면 추성리의 벽송사에는 약 100년 된 것으로 보이는 유명한 목장승이 장승각에 보관되어 있다.

돌장승으로는 세운 연대를 알 수 없는 영암 쌍계사지 돌장승, 18세기 중엽에 세웠을 것으로 보는 나주 불회사의 돌장승과 운흥사의 돌장승도 유명하다. 1906년에 세웠다는 명문이 있는 통영의 돌벅수도 특색 있는 장승이다.

형태 장승은 얼굴, 몸통, 체근(體根, 땅에 묻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얼굴은 눈이 큰 퉁방울과 우뚝 솟은 코와 크게 벌려 이빨이 모두 드러나는 입으로 만들어져 있고, 목의 구분 없이 바로 몸통으로 연결되며, 팔과 다리의 표현이 없다. 장승은 만드는 나무에 따라 허리가 굽거나 약간 기우뚱한 것이 있어 재미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대개 일자형으로 바로 서 있다. 장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표현이다. 그 모습이 해학적이어서 우락부락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무섭게 보이면서도 다정다감하게 느껴져서 신기하고 재미가 있다.

장승은 남장승과 여장승으로 구분된다. 지역에 따라 눈 · 코 · 입을 그려 넣는 곳도 있지만 좀 잘 만드는 곳에서는 눈 · 코 · 입을 조각하고, 귀도 만들어 붙여 입체적으로 나타낸다. 머리 모양도 그려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관을 쓰거나 사모를 달아내기도 하고, 여장승의 경우 비녀도 만들어 붙였다. 대표적인 것이 옥천군 사기점, 공주시 소라실 및 전북 남원시 실상사 앞의 목장승, 경남 하동군 석계초등학교 앞의 것이다. 남장승은 관모에 사모뿔이 있고, 여장승은 긴 비녀를 꽂았다. 이곳의 여장승들은 쪽머리까지 만들어져 있다. 남장승이 사모 달린 관모를 쓴 예는 많다. 충남 연기군 소정면의 한적골,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충남 청양군 정산면의 상송과 충남 옥천군 동이면의 마티, 충남 아산시 송악면 종곡리 등이 그렇다.

장승을 깎아 채색을 한 곳으로는 연기군의 한적골이 대표적이고, 얼굴 모양을 조각하기보다 그려 넣기 위주로 한 곳은 청양의 한티가 대표적이다. 반각반화의 묘미를 살린 곳은 청양의 용두리이다. 광주의 엄미리의 것은 얼굴을 입체적으로 깎고 그려 넣기도 했으며, 수염을 따로 붙이고, 배 부분을 평면으로 깎아서 천하대장군이라 써 놓았다.

장승은 대개 길 양편에 1기씩 세우거나 언덕에 나란히 남녀 한 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 동서남북 네 방향에 1기씩 세우는 곳도 있다. 중부지방의 청양이나 연기, 공주의 소라실, 광주의 엄미리처럼 옛것을 뽑지 않고 세워 둔 채 새로 또 세워서 여러 기의 장승이 집단으로 서 있는 곳도 있다.

장승은 만드는 재질로 보아 나무로 깎아 세우면 나무장승(목장승)이고, 돌로 깎아 세우면 돌장승(석장승)이다. 나무장승은 주로 소나무와 밤나무를 이용했고, 돌장승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화강암을 많이 썼다.

기능 장승의 가장 큰 기능은 수호신의 역할이다. 마을 앞의 장승은 마을, 절 앞의 장승은 절을 각각 지키기 위해 세운 것이다. 마을이나 절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나쁜 기운이나 병마 · 재액 · 호환을 방비하는 동시에

청양 한티 목장승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2010.6.10, 배도식

청양 새점 목장승
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2010.6.10 배도식

청양 용두리 목장승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2010.6.10, 배도식

함양 벽송사 장승
경남 함양군 벽송사, 2010.5.27, 배도식

함양 마천고개 장승
경남 함양군 마천고개, 2010.5.27, 배도식

마을의 풍농과 화평, 출타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는 것이 장승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살막이 장승으로 대표적인 진도 덕병의 돌장승은 마을 어귀에서 목에 쇠뼈를 달고 살막이를 하고 있다.

절을 지키는 장승은 대개 절 들머리의 길 양쪽에 서서 마주보고 있다. 목장승이 있는 곳으로는 함양 벽송사, 순천 선암사, 양산 통도사 등이다. 또 돌장승이 서 있는 곳으로는 창녕 관룡사, 남원 실상사, 나주 운흥사와 불회사, 영암 쌍계사지 등이다.

장승은 수호신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승의 몸체에 어디까지는 몇 리라고 써서 이정표 구실을 하기도 했다. 이를 노표(路標)장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 광주시 하번내, 전남 진도군의 석현리 장승에는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장승의 또 하나 기능은 풍수적으로 보아 지세가 허한 곳에 세워 지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풍수에서는 비보적(裨補的) 역할이라고 하는데, 절이나 마을에서 고려하여 세웠다. 서산시의 해미읍성에는 사방에 비보장승을 세웠다.

장승은 마을의 네 방위에 세워 방위신 역할도 했으며, 성문 앞에 세워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도 했다. 아산 종곡리에는 동방·서방·남방·북방 축귀대장군을 세워 놓았고, 청양 용두리에는 장승 하나에 '동서남북중앙축귀대장군'이라고 써서 모든 방위를 지키도록 했다.

내용 일반적으로 장승의 몸체 전면에 세로로 새겨지는 글자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가장 많다. 청양 새점에는 '동방청제축귀대장군'과 '서방백제축귀대장군', 아산 종곡리에는 '천하축귀대장군'과 '지하축귀여장군'이라고 했다. 공주의 소라실에는 남장승에 '동방천원축귀대장군', 여장승에 '서방지하축귀여장군'이라고 했다. 여기서 '천원(天元)'은 하늘, '지하(地下)'는 땅이란 뜻으로 각각 쓰였다.

경남 통영의 돌장승에는 '토지대장군', 함양 벽송사 목장승에는 '금호장군'과 '호법대신'이라 했으며, 진도 덕병의 돌장승은 '대장군'과 '진살등(鎭殺嶝)'이라 썼다. 남장승에 대장군이란 이름이 붙는 예는 많지만 여장승에 진살등이란 이름이 붙는 경우는 유일하다. '진살등'은 살기나 재액을 눌러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의 선암사 들머리의 목장승에는 '방생정계(放生定界)'와 '호법선신(護法善神)'이란 독특한 기록이 있다. 방생정계는 '매인 것들에게 자유를 베푼다(안내 입간판의 설명)', 호법선신은 불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이란 뜻이다.

장승을 만들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벨 때 그냥 베는 것이 아니라 깍듯이 예를 갖추어야 한다. 적당한 나무가 정해지면 그 앞에 술을 한 잔 붓고 정중히 절을 한 뒤에 도끼질을 한다. 장승을 깎을 때에는 대개 솟대도 함께 깎는다. 이 작업은 대부분 정월 열나흗날에 하고, 정월대보름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승제를 지낸다. 푸짐하게 제수를 차리고 술도 올린 다음 절을 하고, 축문을 읽고 소지도 올린다. 장승제를 지내기 전부터 풍물패는 동네를 몇 바퀴나 돌면서 축제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리려는 듯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달이 뜨면 달집을 태우고 마을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벅수와 장승**(김두하, 집문당, 1990), **장승**(안승복, 동천당, 2008), **장승**(황헌만·이종철 외, 열화당, 1988), **장승제**(김수남·황루시, 1986), **전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6),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풍속기행**(이형권, 고래실, 2003).

필자 **배도식(裵桃植)**

장승제

상호참조 장승(750쪽)

정의 장승을 세울 때 또는 세워진 장승을 향해 마을공동체의 벽사진경을 기원하는 제의.

역사 장승제의 대상인 장승이 문헌상에 등장하는 것은 신라와 고려의 장생표(長生標), 장생표주(長生標柱), 장생표탑(長生標塔), 국장생(國長生), 황장생(皇長生) 등이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조에 걸쳐서는 생(柱), 장승(長承, 長丞), 장생(長柱), 장생우(長柱偶), 후(堠), 장성(長城/長性), 장선주(長先柱), 장선(長仙), 댱승, 쟝승, 장신 등 매우 다양한 명칭이 보인다. 한편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 보면 '후(堠)'를 '댱승 후'로 표기하고 있어 이미 16세기 쯤에 장승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승이란 일반적인 명칭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를 다르게 표현하는 곳도 있다. 예컨대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지역의 장성·벅수·벅시·법수·법시·당산할아버지, 충청도의 장신·수살막이·수살이·수살목, 평안도와 함경도의 댱승·돌미륵, 제주도의 돌하르방·우석목(偶石木)·거오기·거액(去厄) 등이 그것이다. 장승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벅수'는 장승이 도참·풍수·불교신앙 등과 결부되어 산천의 비보(裨補), 즉 복수(卜水) 기능이 첨가되면서 이것이 벅수로 변이되었다. 수살막이·수살이·수살목 역시 살방(殺防), 수살방(水殺防), 수살목(水殺木)의 뜻을 지닌 풍수지리적 비보(裨補)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장승의 기원에 대한 학설로는 불교기원설, 고유민속기원설, 비교민속기원설 등이 있다. 불교기원설은 사찰의 토지 경계표시, 즉 장생고표지(長生庫標識)에서 왔다는 설이다. 고유민속기원설은 솟대, 선돌, 서낭당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교민속기원설은 기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북방기원설, 남방기원설, 환태평양기원설 등이 있다. 한편 노표(路標)인 후(堠)에서 장승이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10리, 30리마다 이수(里數, 거리를 '리' 단위로 나타낸 수)와 지명을 기록한 후를 설치토록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와 김수장(金壽長)의 『해동가요(海東歌謠)』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는 아예 후와 장생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늦어도 16세기쯤에는 후를 노표 및 장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건립 연대가 확실하게 알려진 장승으로는 전북의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의 석장승(1689년 건립),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실상사(實相寺)의 석장승(1725) 등이 있다.

형태 장승의 재료는 나무나 돌이다. 돌장승은 주로 남부지방에 있다. 장승은 사찰이나 지역 간의 이정표와 경계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주된 기능은 마을을 침입하는 잡귀잡신과 나쁜 기운을 막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승의 겉모습을 무사·장군·역사(力士)·문수(門守) 등으로 묘사하여 무섭게 만들고, 지역에 따라 얼굴에 황토 칠을 하여 축귀(逐鬼) 기능을 강화한 곳이 있다. 또 잡귀와 재액을 쫓고 마을을 보호하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따위를 묵서(墨書)하고, 경우에 따라 그 아래에 '축귀(逐鬼)'란 말을 추가하기도 한다. 사찰이나 지역 간의 이정표와 경계표로 기능하는 장승은 사찰의 입구나 길가 등에 세워지지만 잡귀와 재액을 쫓고 마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장승은 마을 어귀에 남녀 한 쌍을 모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간혹 마을의 중심과 사방 둘레에 각각 세우기도 한다.

내용 장승과 관련한 제의로는 장승으로 세울 나무를 벨 때, 그것을 다듬어 장승으로 세워 영력(靈力)을 불어넣을 때, 해마다 당산제와 함께 장승에 제사를 지낼 때의 세 가지가 있다.

장승제는 대체로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지내는 곳이 많다. 이날 아침 마을에서 정인(淨人)으로 선정된 남자들이 장승으로 세울 나무를 베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다. 이때 산에 오를 때는 아무데로나 올라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해의 역수(曆數)에 따라 삼살방(三煞方), 곧 세살(歲煞)·겁살(劫煞)·재살(災煞)에 해당하는 방위를 피하여 길방(吉方)으로 올라가야 한다. 장승목으로 쓸 나무로는 밤나무, 대추나무, 참나무 등 목질이 단단한 나무를 선호하지만 이런 나무가 흔치 않기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쓰는 편이다. 깎기 쉽고 깎은 후 붉은색으로 변하는 물오리나무도 흔히 쓴다. 장승으로 쓸 나무는 개소리나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자란 것으로, 옹이가 없고 곧게 자란 것이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장승은 양지, 여장승은 음지에서 각각 자란 나무로 쓴다. 남장승은 여장승보다 키와 둘레가 조금 커야 한다.

일단 장승으로 쓸 나무가 선정되면 그 앞에 주(酒)·과(果)·포(脯) 등 간단히 제물을 차리고 목수가 재배(再拜)를 한 뒤 산신축(山神祝)을 하고 나서야 나무를 벤다. 이때 총각은 참여할 수 없다. 성인이 아니면 신을 대할 수 없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부정한 사람, 곧 복을 벗지 못해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거나 최근에 살생을 한 사람 등은 참여할 수 없다. 나무를 다 베고 나서는 그 그루터기에 흙을 덮어 흔적을 없앤다. 산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장승제작과정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2002.2.25, 국립민속박물관

다. 벤 나무는 손질하여 통나무로 만든 다음 장승을 세울 장소로 운반한다. 이때 남장승으로 쓸 나무를 행렬의 선두에 내세운다. 장승목으로 쓸 나무를 메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마중을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누구라도 장승목을 넘으면 안 된다.

장승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자라난 방향과는 반대로 나무의 뿌리 쪽이 장승의 머리 부분이 되도록 한다. 이는 머리 부분이 몸통에 비하여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 외에 일상적인 모양을 뒤집음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지닌 나무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승은 남장승을 먼저, 여장승을 뒤에 세운다. 이때 남녀 장승의 눈이 서로 마주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남녀 장승의 금실이 좋아지고 그만큼 마을의 제액초복(除厄招福) 효과도 커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마을에서는 장승 혼례식은 물론 합궁(合宮) 장면까지 연출하기도 한다.

해마다 당산제(堂山祭)와 함께 지내는 장승제는 일반적으로 마을을 지키는 주신(主神)인 당산신(堂山神)에 대한 제사, 즉 당산제를 마친 뒤에 간소한 제물을 차리고 지낸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장승은 상당산 · 중당산 등의 당산신에 비하여 하위의 신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 장만한 제물의 일부를 조금 나누어서 사용한다. 상당산-중당산-하당산의 순으로 당산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상당산과 중당산의 당산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풍물소리를 죽이고 제의 절차에 따라 독축, 소지(燒紙) 올리기 등의 순서를 밟는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있는 하당산에 이르면 경건성과 엄숙성이 한결 떨어진다. 역시 마을 어귀에 위치한 장승에 대한 제의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성이나 금기 같은 것이 없다. 술 한 잔, 돼지머리, 명태 한 마리, 나물 몇 접시를 차리고 풍물소리를 울리는 가운데 이장이 재배하는 식으로 간단히 마친다.

지역사례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수척마을의 장승제는 당산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원래는 산신제인 윗당산제와 하당산의 당산제로 지내 오던 것이었으나 장승이 썩어 넘어지면서 당산제가 끊겼다. 그러던 것이 마을에 교통사고나 비명횡사 등 여러 재앙이 생기면서 1994년 마을회의를 통해 당산제를 복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윗당산제는 생략되고 당산제의 중심이 장승제로 옮겨지게 되었다. 제일(祭日)은 음력 정초 3일 · 5일 · 7일 가운데 생기복덕일을 가려 지낸다. 제일이 정해지면 마을 뒷산에서 적당한 밤나무를 골라 잘라 와서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한 쌍을 양각으로 조성한다. 높이는 170㎝, 둘레는 100㎝ 정도이다. 제물은 가제(家祭)와 대동소이하지만 돼지머리를 더 차리고 소지를 준비한다. 제사는 반드시 자시(子時)에 할아버지장승 앞에서 지내며, 분향-헌작-독축-소지-축원 순으로 치른다.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아터골의 마을회관 옆 공터인 장승배기에는 장승 2기가 서 있으며, 이곳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장승제를 지내 오고 있다. 이곳의 장승제는 6 · 25전쟁 때 생활이 어려워 중단된 것을 1984년 짚으로 1m 크기의 허수아비 장승을 만들어 세워 두고 제를 지내면서 부활되었다. 이후 1990년까지 허수아비 장승으로 제를 지내 오다가 1991년 마을청년회에서 현재 마을회관 옆 장승배기에 장승 두 기를 세웠다. 예전에는 제를 지내기 한 달 전쯤에 깨끗하고 부정 타지 않은 사람 가운데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뽑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월에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관, 집사 두 명을 선출한다. 이 가운데 초헌관 · 아헌관 · 종헌관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초상집이나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사흘 정도 근신을 하며, 매일 목욕재계를 한다. 또 예전에는 장승제 당일에 마을의 샘을 깨끗이 푸고 제의가 끝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금했다. 물론 장승제에 소용되는 물은 반드시 이 샘물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터로 물을 뽑아 쓰고 있어 이 풍습은 사라졌다. 제물로는 삼색실과, 떡시루, 돼지머리, 메, 포, 술, 청수 등이 사용된다. 주로 부여군의 보조금으로 제물을 준비한다. 전에는 풍물패가 마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제비(祭費)를 걸립했다. 제사는 보통 저녁 7시쯤에 시작된다. 마을회관에서 풍물패의 인도로 제물을 운반하여 진설하고, 유교식으로 제를 진행한다. 원래는 전해 내려오는 축문이 있었으나 6 · 25전쟁 때 소실되어 새로 작성한 축문을 읽는다. 소지는 먼저 제관이 대동소지(大同燒紙)를 올리고 이어 호주소지(戶主燒紙)를 올려준다. 그런 다음 가구당 소지 한 장을 나누어 각자 자신의 소지를 올린다. 장승은 두 기밖에 없지만 실제는 오방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줄에 오색천을 잘라 끼운다. 제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장승 앞에 둔다. 돼지머리는 코를 떼어 놓는다. 이는 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승제에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마을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끝나면 떡을 먹고 홍을 돋우기 위해 풍물을 치며 놀았다. 장승배기에서 여흥이 끝나면 마을회관으로 옮겨 음식을 먹고 뒤풀이를 계속하며 시간을 보낸다.

참고문헌 **대장군신앙의 연구**(임동권, 민속원, 1999), **민초들의 지킴이 신앙**(김형주, 민속원, 2002), **벅수와 장승**(김두하, 집문당, 1990), **비보장생의 기원과 관념에 대한 시론**(신종원, 사학연구 31, 한국사학회, 1980), **장생**(이두현, 공간, 1970), **장생표의 성격과 기능 검토**(박호원, 생활문물연구 10, 국립민속박물관, 2003), **장승**(이종철 외, 열화당, 1988), **장승 · 솟대의 역사**(천진기, 한국민속사논총, 지식산업사, 1996), **장승의 기원과 변천시론**(이종철, 이화사학연구 13 · 14, 이화사학연구소, 1983), **장승의 현지유형에 관한 시고**(이종철, 한국문화인류학 17, 한국문화인류학회, 1985), **장승제**(황루시, 평민사, 1986), **장승제의 신앙체계**(이종철,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II, 일지사, 1987), **조선 땅의 마을 지킴이**(주강현 · 장정룡, 열화당, 1993),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한국민속문화**(류종목 · 오세길, 세종출판사, 1999), **한국민속학논고**(이두현, 학연사, 1984), **한국의 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민속**(김성배, 집문당, 1995), **한국의 장승**(이상일, 열화당, 1976),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75).

필자 **류종목(柳鍾穆)**

장흥방촌리석장승

정의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에 소재한 한 쌍의 돌장승. 1999년 2월 26일에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3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장흥방촌리석장승은 성문 앞에 세운 공공장승이다. 질병을 방비하기 위한 기능 등 시기적으로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방촌리 별신제의 하위 신체로서 마을 수호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장흥 방촌리는 해안에 연하면서 천관산을 마주하고 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이 300여 개 분포한다. 고려시대의 장흥부(회주목) 치소와 치소성, 조선시대 장흥 위씨(長興 魏氏) 동족촌으로서 많은 문화재가 있다.

장흥방촌리석장승은 관산읍에서 방촌으로 넘어드는 국도 23호선 도로변 좌우측에 서 있다. 화강석으로 된 2기의 석장승 가운데 서쪽에 위치한 장승은 '남장생', '벅수', 명문에 따라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이하 '남장승'으로 표기)으로 불린다. 이 장승과 마주하는 동쪽의 장승은 '미륵석불', '벅수', '돌부처', '여장생' 등 다양하게 불리나 명문은 없다(이하 '여장승'으로 표기).

남장승은 전체적으로 간략하고 평면적이다. 얼굴이 있는 위쪽의 폭이 아래보다 조금 넓다. 얼굴에는 왕방울눈이 이중 선각으로 처리되었고, 주먹코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양옆 볼까지 찢어진 입을 보면 입술은 두텁고, 입꼬리는 귀밑으로 치켜 올라가 전체적으로 익살스럽게 활짝 웃는 형상이다. 목 밑에서 가슴의 명문 위쪽까지 역삼각형의 수염이 넓게 선각되어 있다. 수염 밑에서부터 좌대까지 '진서대장군'이라는 명문이 한자로 새겨져 있다. 크기는 높이 235㎝, 앞면 최대너비 54㎝, 두께 40㎝, 머리 높이 57㎝, 둘레 160㎝이다.

여장승은 남장승에 비해 풍만하면서도 조각이 깊고 무서운 인상을 하고 있다. 얼굴 반을 차지한 부리부리한 왕방울눈이 툭 튀어나와 있고, 우뚝 솟은 주먹코가 남은 얼굴 반을 차지하고 있다. 두터운 입술을 하고 있는 입은 직선에 가깝고 짤막하다. 이마에는 반원형으로 나란히 곡선이 선각되어 있다. 크기는 높이 197㎝, 앞면 최대너비 48㎝, 두께 48㎝, 머리 높이 92㎝, 둘레 173㎝이다.

역사 장흥방촌리석장승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래가 전한다. 방촌리석장승은 건립 당시 성문을 수호하는 공공장승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1265년(고려 원종 6) 장흥부(長興府)가 회주목(懷州牧)으로 승격 개칭되고『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장흥도호부 건치연혁조에는 회주목의 치소가 있던 방촌을 보강하고자 상잠산성(觴岑山城)과 회주고성(懷州古城)을 축조하면서 성문 부근의 둔군동(屯軍洞)에 남녀 장승을 세웠다고 전한다. 회주고성은 고려 말때 극심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치소를 지키고자 축조된 성으로, 방촌마을 주변에 그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이 회주고성 읍성의 보허 진압(補虛 鎭壓) 및 수호를 위해 서문 밖에

이 장승을 세웠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창궐한 두창(痘瘡, 천연두)을 퇴치하기 위해 '진서대장군'이라는 명문을 새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진서대장군'이란 명문을 놓고 "옛날 중국 황제들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의 왕에게 봉한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 등의 명칭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 강남에서 오는 두신(痘神)을 퇴치하기 위하여 오히려 중국 황제의 권위를 빌려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이라는 명문을 새김으로써 호귀(胡鬼)마마를 되돌아가게 하자는, 옛 선비들의 재치가 만들어 놓은 해학이 깃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방촌리석장승을 성문을 지키는 공공장승보다는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해 세운 장승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방촌리석장승은 고려 말에 건립된 성문장승으로 보는 견해와 조선시대 후기(17~18세기)에 창궐한 천연두를 퇴치하고자 건립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방촌리석장승은 후대에 접어들어 마을공동체 제의인 별신제의 하위 신체로서 마을 수호의 기능이 가미되어 나타난다.

내용 방촌리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마을 대동계(1768년 조직)가 주관하여 '토지신'에게 별신제를 거행한다. 제의에 앞서 장승에 금줄이 둘러쳐지고, 정월대보름이 되면 장승에서부터 매구(풍물)와 함께 별신제가 거행된다. 별신제는 토지신에게 마을의 질병 방지와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제장은 마을회관 앞의 '뜸밭'으로 평지제단이며, 짚과 한지로 만든 허수아비들을 논둑에 세워 놓고 제사를 지낸다. 방촌리석장승은 마을공동체 제의인 별신제의 신체로서 마을 수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벅수골'이란 땅이름(지명)도 전하고 있다.

별신제라는 말은 광주시와 전남 일대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몇 년에 한 번 모시는 형태의 마을 제사도 없다. 유독 장흥 지역에서만 특이하게도 별신제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용산면 운주리, 관산읍 방촌리 등지에 그 유례가 보인다. 이들은 매년 모시는 전형적인 마을 제사이면서도 명칭과 양식을 약간 달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들 별신제가 보이는 양식의 공통성은 정형화된 관제(官祭)형식을 빌려 왔다는 것이다.

별신제 거행 기간에 제관은 물론 마을 전 주민이 각종 금기를 지키고 근신을 한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은 집례, 음식을 장만하는 화주 두 명, 축관, 삼헌관으로 모두 일곱 명이다. 이들은 정월 초사흗날 마을 어른들에 의해 선정된다. 선정 조건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등이다. 예전에는 득남을 원하거나 별도로 공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원해 맡기도 했다. 근래 들어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생기복덕에 따라 제관이 되어 제사를 지내곤 하지만 과거에는 마을 어른들이 단골에게 제의절차를 진행하도록 맡겼다.

과거에는 방촌을 단골판 구역으로 하는 단골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밀양 박씨 성의 사람이 마을과 집안의 크고 작은 굿들을 맡았다. 단골은 방촌 사람들의 굿을 담당해 주고 봄과 가을에 식량을 얻어서 생활했다. 이 단골이 별신제를 맡아서 지내다가 일제강점기 중엽부터 일반 주민들이 맡아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제관은 제사 사흘전에 화주의 집으로 옮겨 제사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제사 하루 전에 제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장 · 석장승 · 화주(초헌관이 화주가 된다) 집에 황토를 깔고 왼새끼에 창호지를 끼운 금줄을 쳐 부정한 잡인의 접근을 금한다. 제를 준비하는 동안 미리 마을 주민들에게도 일체의 부정을 조심하고 가축을 잡지 말라고 당부한다. 제장과 화주 집의 정화작업이 끝나면 제관들은 화주 집에 모여 허수아비를 제작한다.

허수아비는 짚, 창호지, 대나무로 만든다. 짚으로 허수아비의 형체와 제물을 담는 오쟁이를 만든다. 창호지로는 만들어진 허수아비의 얼굴을 감싸고 손과 발가락을 표현한다. 대나무는 제상 앞에 허수아비를 세워 두기 위한 것이다. 만들어진 한 쌍의 허수아비에 성별을 표현하기 위해 할아버지의 경우 먹물로 상투와 수염, 할머니의 경우 쪽진머리에 비녀를 각각 그린다.

제물은 화주 집에서 준비한다. 제일 하루 전에 대동계 공사원과 별유사가 관산 장(3, 8일장)에 가서 돼지고기, 닭, 소의 간, 나물, 과일, 어류 등 제물을 구입한다. 이때 가격을 깎으면 정성이 부족해진다고 하여 흥정을 하지 않는다. 제물을 준비할 때 제관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음식에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장흥방촌리석장승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1997.2.22, 서해숙

여장승

남장승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제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자(祭資)라 하여 마을 대동계 자금으로 충당되며, 매년 15만 원 정도(1995년 기준) 소요된다.

제의 당일 요즘엔 덕석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제장에 덕석기를 꽂아 놓고, '벅수골' 위의 샘에서 화주가 목욕후 장승에 금줄을 둘러쳤다고 한다. 작은 기(旗) 2개와 함께 세우는 덕석기를 잘못해 넘어뜨리게 되면 그 넘어진 쪽 마을의 사람이 죽는다 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다 한다.

별신제는 음력 정월대보름날 아침을 먹고 회관에 모이기 시작해 매구의 어우름 마당으로 시작한다. 먼저 마을 진입로에 있는 진서대장군과 미륵석불에 간단하게 제물을 차리고 화주가 제사를 지낸다. 이때 매구꾼들은 화주와 함께 인사를 드리고 매구를 친다. 화주는 장승에게 재액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달라고 기원한다. 장승 앞에서의 간단한 제의가 끝나면 화주와 매구꾼들은 화주 집으로 돌아와 술과 음식을 먹으며 한바탕 논다. 이후 매구를 치며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마당밟이를 한다.

대보름날 오후 반나절이 지난 뒤 아침 일찍 장승에서부터 시작하여 집집마다 돌며 치던 매구꾼이 마을 전체 마당밟이가 안 되더라도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제장인 마을회관 앞 '뜸밭'으로 돌아온다. 이어 제관들은 모두 제복을 갖추고 별신제를 시작한다. 제는 진설, 분향, 재배, 강신, 재배, 헌작, 재배, 독축, 합동재배, 아헌, 종헌, 첨작, 분축, 소지의 순으로 여느 기제사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제의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허수아비 등에 있는 오쟁이에 가득 담고, 나머지 제물은 제관 및 온 동네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음복을 한 뒤 마을 어귀에 있는 '허새비골'(산저마을 산밑 앞 개울)로 허수아비를 가져가서 헌식한다. 이 행위는 허수아비에 음식물을 주어 달래고, 마을의 온갖 액운을 허수아비 속으로 들여보내 마을 밖으로 내쫓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 안에는 마을 주민을 괴롭히는 액운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이다.

장흥방촌리석장승은 고려시대 후기에 성문장승으로 세워졌다가 후대에 이르러 마을공동체 신앙인 별신제의 하위 신체로서 기능이 습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고려시대의 치소와 관련된 공공기능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천연두의 창궐 등 질병과 재

난으로부터 대응, 향촌 공동체의 제의 공간적 신체로서의 기능 등 시기적 변화를 통하여 기능도 습합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별신제는 조선 후기 이래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민속의례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특히 장승이 별신제의 하위 신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참고문헌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남녘의 벅수**(이종철 외, 김향문화재단, 1990), **마을 굿을 통해 본 허수아비의 지역적 특성**(이주승, 실천민속학 2, 실천민속학회, 2000), **벅수와 장승**(김두하, 집문당, 1990), **장흥군의 문화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 · 전라남도 · 장흥군, 1989), **장흥 방촌리 석장승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조경만 · 나승만, 전라남도, 1999), **장흥읍지**(정묘지, 1747년), **전남지방의 장승 · 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6), **전통문화마을 장흥 방촌**(장흥군 · 방촌마을지편찬위원회, 1994), **향토문화유적조사-장흥 관산 방촌**(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85).

필자 김희태(金熹台)

장흥호계리동계문서 (長興虎溪里洞契文書)

상호참조 장흥호계리별신제(767쪽)

정의 조선 후기부터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에서 전승되어 온 장흥호계리별신제와 동계 관련 기록물. 2008년 4월 11일 장흥호계리별신제와 함께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43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조선 후기(별신제 1702년께, 대동계(동계) 1715년)부터 전해오는 공동체 기록물(동계안, 집강록, 제관록, 흘기, 풍물 부의책 등 관련 문적 15책과 상서 2건, 절목 1건)로서 동계 창설과 운영 등 마을사의 변천, 그리고 공동체 제의인 별신제의 운영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들 문서는 지금까지 300년의 역사를 두고 기록되어 온 것들로서 별신제뿐만 아니라 마을사 전체를 조명해 줄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지금도 매년 별신제를 모시고 나면 '대동계'라는 마을총회를 열어 별신제의 결산은 물론 이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역사라 할 수 있다.

내용 장흥호계리동계문서는 1715년(숙종 41)에 대동계를 만든 내력을 담은 『대동창계(大洞刱契)』라는 책과 함께 지금도 매년 별신제를 모시고 나서 그해 선정되었던 제관과 결산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가 결책되어 보관되어 있다. 또 예전 마을의 풍물을 마련할 때 부의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 내역을 기록한 책, 제관록, 그리고 흘기 등 문적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재난을 구제해 달라는 등장 상서와 향도제감절목 등이 있다. 장흥호계리동계문서 목록은 좌측의 표와 같다.

『대동계안(大洞稧案)』은 대동계서(序)와 완의(完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계의 배경과 목적과 마을에 관련된 제반 규율과 의무 등 일종의 자치규약 34개조에 대해서 적고 있다. 상부상조를 회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기강을 어지럽히는 자에 대한 처벌, 춘추강회의 실시, 마을의 공동납 등 대동계를 운영하고 마을을 교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제의 갑인년은 1734년으로 보고 있다.

『대동창계(大洞刱契)』는 을미년(1715)과 신축년(1721)에 기록된 대동계 임원과 계원 명단, 그리고 8조의 완의이다. 표제가 "大洞刱契(第一 肅宗四十一年乙未)"로 되어 있는데 숙종 41년 을미년은 1715년이다. 지금 남아 있는 호계리 동계문서 가운데 가장 이른 것으로, 표지에 창계(刱契)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1715년)에 대동계가 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1715년 기록에는 계원들의 명단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고 명단 밑에 생년간지와 자(字)를 기록하고 있다. 1721년 기록에는 계원 명단이 나오면서 유사와 별유사 등 직임을 기록하고 있다. 8개조의 완의가 있다.

『호계촌중집강안(虎溪村中執綱案)』(第二)는 임신년(1752)과 정유년(1777) 사이 계 임원 명단이다. 표지가 결락되어 있다. 임원은 1년 단위로 교체되었는데, 1754년에서 1758년 사이에 유임의 기록도 함께 보인다. 촌장(1), 도유사(1), 공사원(2), 유사(2), 직월(2) 등의 임원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1721년 이후 중단된 호계리 대동계가 1752년부터는 촌장을 비롯한 마을의 대부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 조직 기반도 확고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호계촌중집강안(虎溪村中執綱案)』(第三)은 신축년(1781)과 신묘년(1831)사이의 대동계 임원에 대한 기록이다. 문서 앞부분과 정미년(1787)에 작성된 완의 2종이 있다. 문서 앞부분의 완의는 마을 공동 소유의 상여 활용에 관한 내용이다. 1787년의 완의는 춘추강회를 실시할 때 힘을 보태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따르지 않으면 마을에서 쫓아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 계원들 가운데 상을 당한 사람이 생기면 상사 치를 때 부의금을 거두어 주도록 하였다.

『대동계촌안(大洞契村案)』은 임진년(1832)과 무오년(1858) 사이의 임원에 관한 기록이다. 촌장, 도유사, 공사원, 유사 등의 직임인데, 1847년부터 1853년 사이는 공사원과 유사 대신 별유사가 기록되고 있어 조직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호계리집강안(虎溪里執綱案)』(第五)는 무오년(1858)과 계유년(1873) 사이의 임원에 대한 기록이다. 촌장 1인, 도유사 1인, 공사원 2인, 유사 2인인데, 1867년과 1870년 사이는 공사원이 3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계리집강안(虎溪里執綱案)』(第六)은 계유년(1873)과 갑오년(1894) 사이의 임원에 대한 기록이다. 표제에는 갑술년(1874)이지만 실제 그 전 해인 1873년부터 기록하고 있다. 조직인 유사 중심에서 직월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호계대동안(虎溪大洞案)』은 을미년(1895)에서 임신년(1932) 사이의 임원에 대한 기록이다. 촌장 1, 도유사 1, 공사원 1, 직월 1, 직일 1인의 체제이다.

『호계대동중(虎溪大洞中)』은 계유년(1933)에서 계사년(1953) 사이 임원에 대한 기록이다. 임원 직임의 수가 변화를 보이며, 현대사의 혼란한 시기인 광복과 6 · 25전쟁 전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호계동안(虎溪洞案)』은 무술년과 병신년의 동안 2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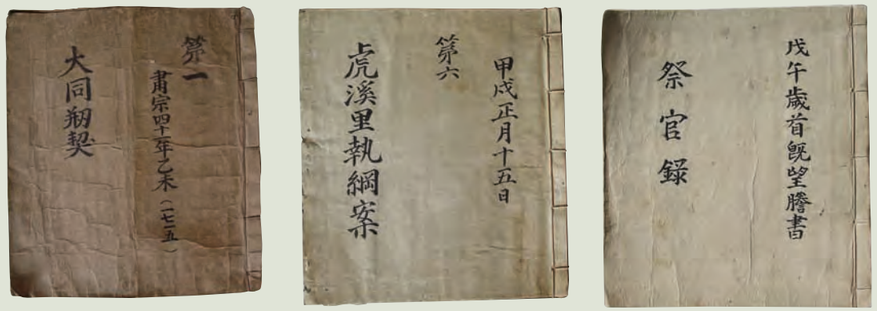
『호계동중금고부의책(虎溪洞中金鼓扶儀册)』은 경인년 마을에서 금고(농악기)를 마련하면서 부의를 받은 내용을 일일이 기록한 내용이다. 마을 주민은 물론 인근 면과 마을, 보림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희귀한 문서이다. 마을은 장동 11개 마을, 부평 39개 마을, 그리고 보림사중 등 모두 54곳에 이른다.

『제관록(祭官錄)』은 호계별신제의 제관록이다. 무오년(1918)의 호계대동별신제향 회유문 등의 기록과 함께 있다. 표제의 무오세수기망담서(戊午歲首旣望瞻書)라는 기록으로 보아 무오년에 처음 등서한 것

연번	문서명	연도	크기(㎝)
1	大洞稧案(甲寅二月十五日)	1734	44×29
2	大洞刱契(第一　肅宗四十一年乙未)	1715, 1721	35×30
3	虎溪村中執綱案(第二)	1752~1777	34×28
4	虎溪村中執綱案(第三)	1781~1831	35.5×25.5
5	大洞契村案(第四　壬辰二月初一日)	1832~1858	34×26
6	虎溪里執綱案(第五　戊午十二月 日)	1858~1873	35×27
7	虎溪里執綱案(第六　甲戌正月十五 日)	1873~1894	31.5×29
8	虎溪大洞案(第七　乙未正月十五 日)	1895~1932	30.5×28.5
9	虎溪大洞中(第八　歲癸酉正月十五日)	1933~1953	38×27
10	虎溪洞案(戊戌年正月 日)	무술	32.5×28
11	虎溪洞案(丙申春正月小望)	병신	23×25.5
12	虎溪洞中金鼓扶儀册(庚寅正月初六日)	1890	31×27
13	祭官錄(戊午歲首旣望瞻書)	경진	30×26.5
14	別神祭祭需傳掌記(西紀一千九百二十一年辛酉正月)	1921	20×21
15	虎溪大洞別神祭笏記(并祝文)		25× 9.5
16	上書 1(龍溪面虎溪里居化民李奎精安東岳李憲徽等)	정미	59×93.5
17	上書 2(龍溪面虎溪里居化民李奎精安東岳李憲徽等)	무신	58×100
18	節目(龍溪面香徒除減節目)	갑술	113.5×48

장흥호계리동계문서 목록

2003.8.14. 서해숙



대동창계(大洞禊契) 호계리집강안(虎溪里執綱案) 제관록(祭官錄)

으로 보인다. 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해[歲次未攷]도 있으며, 1950년, 1953년, 1960년 등 서기가 함께 기록된 곳도 있다.

『별신제제수전장기(別神祭祭需傳掌記)』는 신유년(1921)의 별신제 제수에 관한 기록이다.

『호계대동별신제홀기(虎溪大洞別神祭笏記)』는 호계리 별신제의 홀기이다. 김기권(金基權)이란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호계리 별신제의 축문은 만수재 이민기(1646~1704)가 지은 것으로 『만수재집』 권5에는 호계신기축문(虎溪新基祝文), 호계지신축문(虎溪地神祝文), 장항지신축문(獐項地神祝文), 호계별신축문(虎溪別神祝文) 등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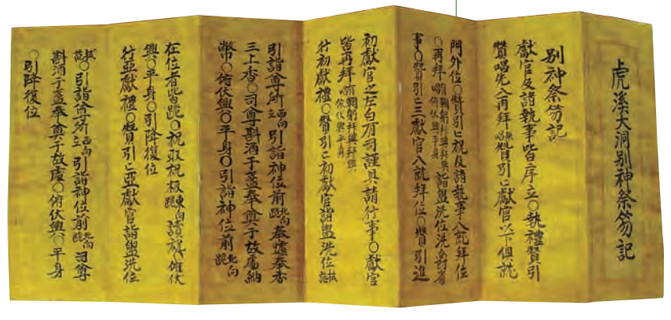
『상서(上書)』1은 정미년 7월에 성주(장흥부사)에게 용계면 호계리 화민 32명이 연명으로 올린 상서이다. 폭우로 인해 전답이 유실되고 인명이 표류하여 익사하였으며 제방이 파손되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있었는데 이를 구휼해 달라는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서 원조를 하겠다는 제음(題音)이 있다.

『상서(上書)』2는 무신년 정월에 성주(장흥부사)에게 용계면 호계리 화민 29명이 연명으로 올린 상서이다. 전년 6월에 입은 태풍의 피해로 잠긴 제방을 보수하여 물이 소통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전년(정미년)에 올린 상서의 답신에 확인하여 처리한다고 했는데, 해가 바뀌고 농사철이 다가와도 안 되고 있어 장정을 동원해 보수해 주고, 인근의 장서면(長西面) 상하점(上下店)과 와석정(瓦石亭) 홍거리(洪巨里) 등의 주민도 동원해 달라는 내용이다.

『절목(節目)』은 갑술년에 용계면의 향도역을 감제하는 절목이다. 용계면에 부과된 향도역을 순찰사가 조정해 주었는데 시일이 지나 다시 부과되자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감제해 줄 것을 청하였고, 그에 따라 감제해 준 절목이다.

의의 장흥호계리동계문서는 조선시대 후기(1702년께 별신제, 1715년 대동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매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역사 자료이며, 마을공동체 의례인 별신제의 연혁과 변천을 알 수 있는 가치도 있다. 별신제는 전남지역에서는 흔한 용어는 아니지만, 장흥 호계리 지역에서 매년 모시는 전형적인 마을 제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전남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민간신앙으로서의 당산제와는 크게 차이를 보인다. 제의(祭儀) 형식은 유교식 제차로 진행되는데, 제차 · 제물 · 제관 등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길례(吉禮)」에서 볼 수 있는 관제(官祭)의 형식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어서 호계리 별신제를 통하여 관제가 민간화되어 가는 양상을 알 수 있다. 호계리에는 별신제와 당산제가 병행되어 오다가 당산제는 폐지되었지만 민간신앙화된 별신제는 지금도 살아 있는 마을문화의 하나로서 매년 수행되고 있다. 특히 장흥 호계리 별신제는 1700년대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관련 자료가 현존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신제 및 동계문서가 함께 가치가 있다.

호계대동별신제홀기(虎溪大洞別神祭笏記) 2003.8.14. 서해숙



참고문헌 **晩守齋集, 長興邑誌, 동백정의 문학사회학적 연구**(임형,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장흥군의 문화유적**(목포대박물관 · 전라남도 · 장흥군, 1989), **장흥 호계리 별신제연구**(김삼기, 장흥문화 9, 장흥문화원, 1986), **장흥 호계마을 사람들의 삶과 앎**(나경수 외, 심미안, 2004.),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별신제 조사 연구**(나경수, 민속학연구 10, 국립민속박물관, 2002), **호계리의 역사와 문화-호계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학술발표회**(사단법인 장흥 호계리별신제보존회, 2007.9.15).

필자 김희태(金熹台)

장흥호계리별신제(長興虎溪里別神祭)

상호참조 장흥호계리동계문서(764쪽)

정의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에 모시는 마을 제사. 장흥호계리별신제는 고문서와 더불어 2008년 4월 11일에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43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현재 전해지고 있는 마을의 고문서를 보면 1702년에 대동계가 만들어지고, 이와 더불어 별신제가 모셔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고문서와 함께 별신제를 모실 때 사용하는 축문, 홀기 등을 저술한 만수재(晩守齋) 이민기(李敏琦, 1646~1704)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학문을 연찬(硏鑽)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형태와 내용 **1. 별신제를 모시는 장소와 신격** 마을 북쪽을 따라 넓은 제방이 쌓였으며, 제방 너머 호계(虎溪)가 흐른다. 호계는 깊지 않은 개천으로, 주변에 자갈밭이 넓다. 별신제는 그곳 자갈밭 위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지낸다. 이곳 자갈밭에서 지내는 제사를 '별신제'라고 하며, 마을 사람들은 '천제(天祭)'라고도 부른다. 별신제의 신은 모두 3위(位)로서 천(天), 지(地), 인(人)을 신격으로 하여 모신다. 메와 탕은 제상에 올리지 않지만 떡이나 술은 모두 3의 숫자를 맞춰 올린다.

제터준비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2003.2.15. 서해숙

2. 제터의 준비 자갈밭의 일정한 곳에 제터를 잡으면 음력 정월 열나흗날 오전에 생대나무를 세우고 주변에 금줄을 친다. 대나무는 28개를 세우며, 제관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곳만 남기고 둥그런 형태로 대나무를 세워 빙둘러 금줄을 친다. 금줄은 왼새끼를 쓰며, 한지를 잘라 새끼 사이사이에 끼운다. 대나무 28개는 하늘의 28수[宿]를 뜻한다고 한다. 제장 주변에는 제관들이 머물면서 그날 사용할 축문을 베껴 쓰도록 하기 위하여 차일을 가설한다. 차일은 금줄 밖에다 친다. 삼면은 막고 앞쪽만 트인 채로 하여 제관들이 앉아 있을 정도의 높이이다. 차일 옆에는 당일 오전에 준비한 장작을 놓아둔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관과 풍물패들이 제장에 도착하면 장작더미에 불을 지핀다.

3. 회의와 제관 선정 별신제를 위해 매년 음력 초이렛날에 마을회관에서 마을 회의가 열린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날 회의는 별신제를 지낼 사람들을 뽑기 위한 것으로, 마을 이장이 주관한다. 마을에 내려오는 『별신제향제관망정(別神祭享祭官望定)』에는 제사를 지낼 사람들의 역할을 구분하여 적어 놓았다. 제관은 이에 따라 대개 21명 정도가 이날 선정된다. 이들을 선정할 때에는 특별히 생기복덕을 보지 않지만 집안에 유고가 없는 깨끗한 사람만을 뽑는다. 상복을 입고 있는 가정과 아기를 낳은 가정을 가장 큰 부정이 있는 집으로 생각하며, 정

장흥호계리별신제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2002.2.24, 국립민속박물관

월 들어 개고기를 먹은 사람이나 정월에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이 죽은 사람도 제외된다. 특히 제물을 장만하는 장찬(掌饌)의 경우 가장 깨끗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며, 가능하면 혼자 사는 여노인을 가장 선호하고 젊은 사람은 피한다. 이날 뽑힌 사람들은 궂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일절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초상이 난 집이나 산고(産故)가 든 집은 절대 가린다. 마을에 초상이 나더라도 별신제는 모시지만 별신제를 지낼 사람은 초상집에 가지 않으며, 초상집에 다녀온 사람은 별신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뽑힌 사람들

헌작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2003.2.15
서해숙

에게는 글로 써서 각각 통문을 돌린다. 풍물을 칠 사람은 따로 뽑지 않고 유고가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굿을 친다.

4. 당샘 준비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정해지고 나서 초열흘날쯤에 당샘을 판다. 요즈음은 집집마다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따로 당샘을 파지 않지만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쓰는 우물물은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부정을 탈 수도 있어 따로 샘을 팠다. 별신제를 지낼 냇가 자갈밭의 깨끗한 곳을 골라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온다. 주변에 금줄을 쳐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고 단지 제물을 장만하는 장찬만이 그 물을 사용한다. 장찬은 당샘물을 맨 처음 길어다 제주(祭酒)부터 안친다. 그리고 매일 목욕을 할 때 이 물을 길어다 쓴다.

5. 제물 준비 제물 준비를 맡은 장찬은 별신제를 지낼 제물을 장만한다. 그리고 수탉의 다리와 날개를 묶어 제장에서 희생으로 쓰도록 준비한다. 예전에는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제장에서 모가지를 잘랐다고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 닭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살아 있는 수탉을 제상 밑에 두었다가 제사가 끝나면 모가지를 잘라 그 주변에 피를 뿌리고 머리는 땅에 묻는다. 피는 악마를 쫓기 때문에 목을 잘라 피를 뿌리는 것이라 한다.

6. 제사 준비 제사를 지낼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을회관에 모인다. 풍물을 치는 사람들은 농악기를 이때 손보기도 한다. 이때 특별히 하는 것은 없으며, 제사를 모실 시간까지 함께 모여 잡담을 나눈다. 밤 10시쯤이 되면 제관들은 제복으로 갈아입는 등 제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풍물을 치는 사람들 역시 풍물 복장을 하고 대기한다. 밤 10시 30분쯤이 되면 마을회관에서 풍물패가 풍물을 울리기 시작하여 마당에 모여 계속 풍물을 치다가 제장으로 향한다. 이들을 뒤따라 제관들 역시 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장에 도착하면 풍물패는 주변을 돌면서 계속 풍물을 치고, 제관들은 축문을 쓰는 등 준비에 들어간다. 축문은 아래와 같다.

維歲次(干支) 後學(某) 敢昭告于
別神之神 二氣迭旋 三陽宣和 天地交泰 舍生品彙
造化之迹 有鬼有神 盛矣其德 佑我烝民 丁斧寅釦
駕風鞭霆 驅厲逐魔 廓淸四方 視聽吾人 誕降吉祥
有誠必格 有禱必應 時維孟春 萬和方暢 日吉辰良
齊沐告誠 俯伏就位 星斗定中 牲肥尊潔 三酌禮成
神旣醉飽 百靈俱享 錫我白福 惟日不足 家無疾疫
野登麥菽 焚香拜祝 靜息淸明 用伸處告 神其
尙饗

7. 별신제 모시기 밤 11시 30분쯤이 되면 풍물패와 제관 일행이 제물을 장만하는 장찬 집에 이르러 제물을 제장으로 옮긴다. 제물을 진설하고 나면 홀기를 읽는 집례가 초헌관부터 차례로 호명을 하고, 호명된 사람은 금줄 안으로 들어와 선다. 호명을 모두 마치면 홀기에 맞추어 초헌관부터 잔을 올리고 제사를 시작한다. 집례는 한문식의 홀기를 부르다가 제관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쉬운 말로 설명도 한다.

사신배를 끝으로 제사를 마치면 제상 밑에 놓아둔 닭의 모가지를 자른다. 자른 닭머리는 땅에 묻는다.

8. 소지와 음복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순서로 한지를 한 장씩 나누어 들고 소지를 올리면서 소리내어 구축(口祝)을 한다. 주로 국태민안, 소원성취, 농사풍년 등을 비는 내용이다.

소지가 모두 끝나면 제상 위에 올린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일곱 장의 백지로 싸서 자갈밭에 묻고 난 다음 음복을 시작한다. 제상 위에 있는 과일과 떡을 나누어 먹고, 제주(祭酒)도 한 잔씩 나누며, 제상 한쪽 밑에 놓아둔 무를 쪼개 무사태평할 거라면서 조금씩 나누어 먹는다. 철상을 하고 나서 손궤에 제기와 남은 제물을 담고 풍물패를 앞세워 장찬 집으로 향한다. 풍

물패와 제관 일행은 장찬 집에 도착하면 제물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마당굿을 한다. 마당굿을 마치면 장찬이 안방에 마련한 상에 둘러앉아 술과 안주를 나누면서 정담을 나누다가 각 가정으로 돌아간다.

9. 별신제 결산 별신제를 지내고 나서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결산을 한다. 이장이 별신제와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하고,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의문이나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이때 말한다. 장찬 집에서 준비해 온 안주와 음식을 놓고 마을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하면서 별신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눈다.

본래는 대동계로 불리는 마을총회를 별신제를 마치고 하였으나 생활의 대부분이 양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동계를 양력 12월 25일에 한다. 대동계에서는 마을의 재반사를 논의하고 이장의 선출이나 품삯을 결정하는 등 중요 사안을 다룬다.

10. 영험담 마을에서는 별신제와 관련하여 갖가지 영험담이 전승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군대에 가서 죽은 사람이 아직 없다고 한다. 이는 모두 별신제를 잘 지내왔기 때문에 그 덕택으로 별 사고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별신제 제물을 준비하다가 맛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런 후 그 사람은 몸에 열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따로 제물을 준비해 별신제를 지내자 그때서야 몸의 열이 식었다고 한다.

또 별신제를 지내는 사람이 금기 기간에 부인과 동침을 했다. 아침에 인기척이 없어 어머니가 방문을 여니 둘이 붙어서 아무리 용을 써도 떨어지지를 않았다. 비가 올 때 소에게 씌우는 소어치(부리망)를 씌우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나서야 떨어졌다고 한다.

예전에 닭을 희생으로 쓰기 전에는 산 돼지의 모가지를 잘라 머리를 땅에 묻었는데 어떤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파내 먹었다고 한다. 그 즉시 그 사람은 천병에 걸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희생을 할 돼지나 닭을 제상 밑에 따로 묶지 않지만 그것들은 마치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다고 한다. 그것은 신이 엄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상에 올린 오곡을 그대로 놓아 두는데 오래되도록 새들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한다. 별신제가 끝나면 제장을 만들기 위해 가설한 대나무나 금줄, 호리상 역시 다음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없어지도록 그대로 둔다. 손을 댔다가는 화를 입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별신제 조사 연구**(나경수, 민속학연구 10, 국립민속박물관, 2002), **호계리의 삶과 앎**(나경수 외, 심미안, 2005).

필자 **나경수(羅景洙)**

전횡장군(田橫將軍)

상호참조 보령외연도당제(321쪽), 보령외연도전횡장군당(324쪽)

정의 중국 제나라 출신의 무장으로서 서해안 외연열도에서 풍어의 신으로 모시는 인물신.

내용 역사에 전하는 전횡은 한 고조 유방(기원전 274~195)과 동시대에 활약한 중국 전국시대의 인물이다. 사마천의 『사기』「전담열전」에 따르면 전횡은 삼형제가 평민의 신분으로 몸을 일으켜 번갈아서 제나라의 재상을 거쳐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그의 호걸다운 면모는 유방에게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유방이 황제로 등극하여 팽월을 양나라 왕으로 삼자 피살될 것을 두려워한 전횡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 500여 명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 섬에서 살았다. 유방은 전횡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신을 보내어 회유하였으나 전횡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사신이 낙양에 당도하기 전에 스스로 칼로 목을 찔러 목숨을 끊는다. 유방이 그 소식을 듣고 의롭게 여겨 섬에 남아 있는 부하들을 데려오도록 하였으나 사신으로부터 전횡의 비보를 접한 500여 명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연은 1936년에 건립된 외연도 「전공사당기(田公祠堂記)」에도 자세한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전횡의 고사는 『사기』에 소개된 이후 천고의 미담이 되었으며, 당나라 문호 한유(韓愈)는 '제전횡문(祭田橫文)'을 지어 애도하였다. 또한 정몽주 · 정도전 등 숱한 문인들이 전횡을 추모하는 시와 글을 남겼고, 『선조실록』과 『숙종실록』 등에는 의로움의 상징적인 인물로 거론하기도 하였다. 이런 전횡을 풍어의 신으로 받드는 까닭은 외연도와의 인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서산의 사찬읍지인 『호산록』(1619)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 쾌청한 날에 도비산에 올라보면 바닷길이 분명하고 해중(海中)에 위안도(蔿眼島) · 오호도(嗚呼島)가 있다. 이 섬은 전횡의 제나라 지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혹자는 이르기를 오호도는 전횡이 의사 오백 명을 인솔하고 한고조를 피하여 살던 섬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의 포은 선생께서 중국에 조회가기 위하여 바다를 건널 때 오호도에 이르러 전횡의 의리를 생각하여 한 구절의 시를 써서 이르기를 '오백 명의 사람들이 서로 죽고 말았으니 전횡의 높은 절의 천년에도 감동하네. 당시에 잃은 땅을 대체 무엇 때문에 책망할까. 대한(大漢)의 너그럽고 어진 정치 만민을 얻었도다'라고 하였다. 내가 천년 아래에 있어서 이 시를 외울 적마다 세 번을 감탄하면서 책상을 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어찌 죽을 나이를 당하여 그 섬을 오늘에야 바라볼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 배를 타고 빨리 노를 저으면서 그 섬에 도착하여 오백 명 의사의 영령을 불러 위안제를 지내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이 기록에 보이는 위안도는 '오얀도'로 불리는 외연도를 지칭하고, 오호도 역시 외연열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횡도(田橫島)를 언급한 옛 문헌에는 전횡도는 홍주의 앞바다에 있으며, 일명 오호도이다. 토질이 매우 비옥하고 닥나무와 옻나무, 화살대가 난다. 둘레는 95리이고, 옛 성터가 남아 있다. 그 곁에는 작은 섬이 있으며, '횡건(橫巾)'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횡건은 외연도에 딸린 속칭 '빗갱이머금'이란 열도를 지칭한다.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에 '비껸' 또는 '횡견도'로 불린다. 이처럼 전횡이 은거했다는 오호도를 외연도로 비정하려는 움직임은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실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려 때부터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몽주는 중국 사신으로 파견되어 오호도를 지나면서 전횡의 높은 절의를 찬미하는 한시를 지어 읊은 것이다. 따라서 '외연도=전횡도'라는 세간의 인식은 서해안 일대는 물론 의리를 중시하는 식자층을 중심으로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외연도 당산에는 전횡이 놀았다고 구전되는 '전횡장군놀던바위'가 있다. 이는 외연도가 전횡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덧붙여진 지명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가 하면 전횡이 피신한 곳은 어청도로 구전되기도 한다. 전횡은 초나라의 패왕 항우가 자결하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자 두 명의 형제와 500여 명을 거느린 채 돛단배를 타고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어청도에 도착했다고 한다. 전횡이 어청도를 발견한 날은 바다 위에 안개가 약간 끼어 있었는데 갑자기 푸른 산 하나가 우뚝 나타나서 군사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섬에 상륙하였다. 이 섬에 살게 된 전횡은 푸른 섬이라 하여 어청도(於淸島)로 지었다는 것이다. 전횡은 식량이 떨어지자 인근을 지나는 선박을 보면 쇠로 만든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서 수송선을 어청도로 대피하도록 한 다음 배를 탈취하여 생활했다고 한다.

녹도에서도 유사한 전설이 전해진다. 그렇지만 어청도와는 달리 전횡은 주민들을 구제하는 의적형(義賊型)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 즉 섬 주민들을 위해 세곡선을 쇠부채로 끌어당겨 쌀을 나누어 주고 그 배를 불살랐다고 한다. 이러한 영웅적인 모습은 전횡이 신격화된 이후에 형성된 전설일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그것은 전횡이 외연열도에서 오랜 세월 당제의 주신으로 지속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연도에서 당제의 제물을 구입하러 가는 장배가 떠나면 어청도 쪽으로 마파람(남풍)이 불고, 당제를 다 모시면 하늬바람(북서풍)이 분다고 한다. 또 전횡장군의 동생 두 명이 남쪽으로부터 왔다가 제사를 함께 즐거이 받고 나면 다시 북풍을 타고 어청도로 돌아간다는 속설이 전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청도의 당산신은 전횡 장군의 아우들이라는 이야기도 구전된다. 이는 두 섬에서 모신 전횡의 신격 사이에도 은연중에 상하의 구별이 있음을 반영하는 전설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횡이 은거한 곳은 외연도나 어청도가 아니라 산둥반도 연안의 섬으로, 중국의 산둥성(山東省) 지모시(卽墨市) 동부 해안에 자리한 톈헝섬(田橫島)을 일컫는다. 이 섬의 위쪽에 있는 오백 장령의 무덤은 가장 유명한 역사유적이다. 후세 사람들이 전횡과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500 열사의 충성과

의리에 감동하여 전횡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횡이 피신한 섬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외연도 또는 어청도로 알려진 까닭은 지리적인 위치상 산둥반도와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고성은 전횡이 신격화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무엇보다 전횡과 그를 따르는 무리의 의로운 죽음은 섬 주민들에 의해 해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고, 결국 풍어의 신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외연도에서 전횡의 신격화는 늦어도 조선 전기로 거슬러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충청수영이 위치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건립된 「유격장군청덕비(遊擊將軍淸德碑)」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9호로 지정된 이 비석은 정유재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파견된 명나라 장수 계금(季金)의 업적을 기리고 바다에 나갈 때 소원을 비는 신으로 모시기 위해 1598(선조 31)에 충청수영의 군졸들이 주축이 되어 건립하였다. 비문의 요지는 계금 장군은 인자함과 청렴함, 덕성을 겸비한 장수로서 삼천의 동덕지사(同德之士)를 거느렸으니 500명의 동덕지사를 얻은 전횡과 누가 더 많고 적으냐는 것이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계금 장군의 위엄이 외연도에서 제사를 받는 전횡보다 더 효험이 있을 것이므로 영맹(獰猛)한 서해바다의 신으로 모시고 영원히 제향을 받들자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횡은 이미 외연도에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당제의 주신으로 신격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횡은 특정 성씨에 의해 배향되고 있다. 전북 군산시에서 토성으로 널리 알려진 담양 전씨(潭陽 田氏) 후손이 그들이다. 군산의 담양 전씨는 전횡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겨 1926년에 치동묘(淄東廟)를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 왔다. 최근에는 오곡리 원오곡 마을로 사당을 옮겨 치동원이라 칭하며 제향을 받들고 있다. 군산의 치동묘는 어청도 전횡사당의 당호와 동일한 것이어서 긴밀한 관련성을 암시한다. 물론 담양 전씨의 치동묘는 외연열도의 당제와는 분명 구분되는 것이지만 전횡을 조상신으로 섬기는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지모시 톈헝섬에도 전횡 일가를 배향한 제왕전(齊王殿)이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횡은 역사의 영웅으로 인식되더라도 관우처럼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萬機要覽, 史記, 湖山錄, 군산 답사 · 여행의 길잡이**(김중규, 도서출판 나인, 2003), **도서지**(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7), **서해안 동제의 중국계 신격 전횡 연구**(이경엽, 도서문화 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0), **외연도 동제**(황의호, 보령문화 17, 보령문화연구회, 2008),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충남 서해도서의 민속연구**(박계홍, 백제연구 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3), **충청남도문화재대관 2**(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남**(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5), **한국의 마을제당–충청남도**(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강성복(姜成福)

정읍백암리남근석

정의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원백암마을에 있는 남근석. 1977년 12월 31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3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백암리남근석은 화강석을 가로 80㎝, 세로 40㎝, 높이 80㎝의 크기로 거칠게 4면을 다듬어서 하부 기단을 땅에 묻었다. 상부는 원통형의 높이 130㎝, 둘레 88~90㎝ 남근 모습을 섬세하고 균형 있게 제작하여 기단석에 홈을 파서 연결하였으며, 정상부는 벙거지나 귀두(龜頭)를 연상케 마무리 조각을 하였다.

역사 제작 연대는 상세히 알 수 없지만, 1600년대 말에 이 마을의 자선사업가인 모은(慕隱) 또는 창음(蒼陰) 박잉걸(朴仍傑)이 부락의 번영과 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전한다.

내용 흰바위[白巖] 마을 어귀 서쪽에 자리 잡은 이 남근석은 백암 열두 당산의 하나이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당산제를 모신다. 전에는 남근석당산 앞에 여근목이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원래 24방위에 맞추어 세운 24개의 당산이 있었다고 한다. 24개의 당산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졌고, 몇 개의 당산만이 마을 주위에 남아 있다.

화강석의 네모난 기단 1m가량에 원통형의 남근형태를 조각한 이 신앙물은 1600년대 말에 이 마을의 자선사업가인 모은(慕隱) 또는 창음(蒼陰) 박잉걸

정읍백암리남근석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2010.6.20 이영배

이 마을의 번영과 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웠다고 전해진다. 1676년(숙종 2) 때 백암리에서 태어난 박잉걸은 효행으로 명정(命旌)이 내려 벼슬을 받았으나 말년에 자선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하다. 구절치와 굴치의 험한 곳에 길을 만들었고, 태인에 대각교(현재 거산교)를 가설하였으며 산 속에 석탄사를 중건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남근석은 당산, 남근(형)당산(석), 남근석, 자지바위라고도 불린다. 남근석은 마을 어귀에서 액과살을 막아주고 생남(生男) · 소원성취 · 농사풍년을 가져다 주는 당산신으로 신앙되고 있다. 전에는 동네나 다른 동네 부인네들이 시루떡, 백설기, 밤, 대추, 사과, 배 등을 차려 와서 남근석에 밤에 몰래 제사하여 아들 낳기를 빌었다고 한다. 또한 애를 낳지 못하는 동네 아낙네들이 이곳에 큰절을 네 번 하고, 남근석 주위를 돌면서 절을 하고 남근석을 안아 주면 어린애를 갖는다는 설이 있었다. 근래에는 남근석에 제사지내는 것은 볼 수 없고 옆의 당산장군석에 동네 평안과 가족 무고를 빈다.

남근석 당산에는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년과 제액을 위하여 당산제를 지낸다. 이때 자손이 없는 여인이 공을 드리면 생남의 효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애기를 못 낳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빌거나 남근석의 돌이끼를 긁어 다려 먹으면 임신한다는 말이 있다. 남근석은 마을 어귀에 있지만 '농바위'라고 불리는 '음부석'이 마을 뒷산에 있다. 특히 비가 온 뒤 '농바위'가 빗물로 인하여 반들반들 윤이 나면 맞은편 동네인 '오류리' 처녀들이 바람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또한 남근석에 손대면 눈이 먼다고 전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예닐곱개의 큰바위가 있었고, 숲쟁이라 하여 대추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다. 이곳에서 50m 전방에 개천이 흐르고 집도 있었다고 하지만 일제강점기 초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변했다고 한다. 이곳은 1m 이상 보토(補土)되어 깊이 파면 돌로 만든 세숫대야와 돌들이 나온다고 한다.

참고문헌 **샘고을역사문화길잡이**(김익두 외, 정읍시 ·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정읍문화재지**(김남곤, 정읍문화원,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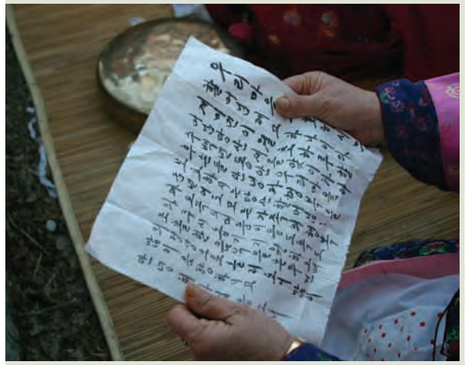
필자 이영배(李永培)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정의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원오류마을에서 음력 2월 초하룻날에 여성들이 주동이 되어 행하는 동제.

유래 원오류마을에는 당산제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마을에 살던 양반집 처자와 상민 출신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전북 정읍시 북면 원오류마을, 정수미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전북 정읍시 북면 원오류마을, 정수미

총각이 서로 좋아했으나 신분상의 차이로 혼인을 하지 못했다. 이를 비관하던 총각이 상사병에 걸려 죽자 처녀도 병을 얻어 뒤따라 죽었다. 그 뒤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거듭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죽은 총각의 원혼(일부는 처녀의 원혼이라고도 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 속곳춤을 추고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하나는 마을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자 그 원인이 도깨비이므로 도깨비를 물리치기 위해 여자들이 나서서 당산제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용 및 특징 원오류마을은 6·25전쟁 전에는 120여 가구에 이르는 제법 큰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 50여 가구가 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이다. 원오류마을당산제는 1970년대에 중단되었다가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자 부녀회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1985년부터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 원오류마을당산제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마을 여성들이 주도하며, 남자들은 직접 나서지 않는다. 6·25전쟁 이전에는 남자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러나 1985년에 당산제를 다시 지내기 시작하면서 일부 남자들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오류마을당산제는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마을 앞 냇가 버드나무가 늘어선 곳에 있는 당산나무 앞에서 지낸다. 신격은 당산할머니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당산제를 지내기 전에 상고(喪故)나 출산이 없는 깨끗한 집을 제물 장만할 집으로 미리 정해 놓았지만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함께 제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없다. 당산제 당일 아침이 되면 부녀자들은 당산나무 주위에 금줄을 치고, 깨끗한 집을 다니면서 쌀, 팥, 메밀 등 곡물이나 돈을 걷는다. 추렴한 돈으로 제주와 몇 사람은 장에 가서 제물을 구입한다. 제물은 시루떡, 서너 가지 나물, 삼실과, 북어, 메밀묵, 오곡메 등이다. 본래 원오류마을당산제에서 차리는 제물과 음식은 매우 소박했다. 그러다가 근래에는 마을을 찾는 외부 방문객도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여유가 있어 제물 외에 많은 음식을 차린다.

현재의 원오류마을당산제는 1990년쯤부터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루어진 형태이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1985년 당산제 복원 이전에는 해가 질 녘부터 밤사이에 당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해가 지면 마을 부녀자들은 속곳을 거꾸로 뒤집어쓴 채 풍물이나 세숫대야, 냄비 등 요란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금속성 생활도구들을 들고 나와 두드리고 춤을 추면서 마을을 세 바퀴 돌았다고 한다. 현재 속곳춤은 계속 하고 있지만 밤중에 하지는 않고, 쇳소리 내기는 아예 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원오류마을당산제가 폐쇄적인 당산제에서 개방적인 마을축제로 변하면서 해가 질 무렵에 당산제를 끝마친다. 제의 마지막에는 사방을 향해 계속 절을 하면서 소지를 올리고, 제물 일부와 메밀묵 등을 사방에 뿌려 잡귀잡신을 풀어먹인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당산제가 끝나면 일행은 굿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마을로 돌아온다. 예전에는 남은 제물을 마을로 들고 와서 어느 한 집에 모여 놀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

해물리기
전북 정읍시 북면 오류리, 2006.2.28, 김월덕

갔다. 지금은 마을회관에 모여 뒤풀이를 한다. 마을회관에서는 노인들을 비롯해 주민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서 미리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밤늦도록 어울려 논다.

의의 원오류마을당산제의 특징인 여성들의 속곳과 금속성 도구들이 내는 쇳소리는 강한 주술성을 통한 액막이 수단이다. 당산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을에 화재를 일으키는 도깨비를 물리치는 것이라는 점을 보면 원오류마을당산제는 도깨비제와 같은 계통의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원오류마을당산제와 같이 여성들이 주도하는 당산제는 일상에서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금지된 집단신명을 발산할 기회를 여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축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전라북도 마을지킴이 · 정악**(전라북도, 2004). **호남지역 여성주재형 마을굿의 상징성과 축제성**(김월덕, 한국민속학 46, 한국민속학회, 2007).

필자 **김월덕(金月德)**

정읍원정마을당산제

정의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원정마을에서 음력 정월 열엿샛날 지내는 동제.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줄당기기(줄다리기)와 함께 행해진다.

내용 산외면 원정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열엿샛날에 줄당기기와 진쌓기를 한 다음 마을 초입의 당산나무에 줄을 감은 뒤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은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이며, 신격은 당산할머니이다. 원정마을당산제는 정월 초사흗날부터 준비가 시작된다. 풍물패가 마당밟이를 시작하여 보름이 될 때까지 줄당기기나 당산제에 필요한 경비를 갹출한다. 원정마을당산제는 이처럼 추렴을 하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제의 비용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읍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당산 주변을 청소하고 풍물패가 당산에게 고하는 굿을 치면서 당산나무에 금줄을 쳐 놓는다. 예전부터 원정마을 줄당기기가 있는 정월 열엿샛날은 외부에서 많은 구경꾼과 상인이 마을로 몰려들어와 마을 어귀에는 금줄을 치지 않았다고 한다. 원정마을에서는 당산제를 주관하는 제관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마을 책임자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다. 금기도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지키며, 당산제 당일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산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월 열엿샛날 아침에는 당산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을의 집집마다 방문하여 볏짚을 거둬들인다. 마을 공터에 장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걷어 온 볏짚으로 줄을 꼰다. 줄은 세 가닥씩 세 번을 꼬아 외줄을 만든다. 줄이 완성되면 풍물패가 줄머리와 줄꼬리를 왔다 갔다 하며 줄굿을 쳐 준다. 예전에는 줄이 굵었기 때문에 해질녘에야 줄이 완성되어 줄당기기를 밤중에 했으나 근래에는 줄꼬기가 끝나는 대로 줄당기기를 한다.

줄당기기를 할 때에는 풍물패가 동원된다. 예전에는 마을에도 굿을 잘 치는 잽이가 많았고, 게다가 외지에서 유명한 잽이를 불러다 밤 늦도록 판을 크게 벌였다고 한다. 줄당기기의 편은 남자 편과 여자 편으로 나누며,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믿음 때문에 세 번을 겨루어 두 번을 여자 편이 이긴다. 줄은 농업을 관장하는 비의 신을 상징하고, 신성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줄당기기를 하기에 앞서 마을 사람들은 줄머리에 절을 하면서 한 해를 무사히 보내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줄당기기가 끝나면 곧바로 진(陣)을 쌓았다가 푸는 놀이를 한다. 이를 '진치기' 또는 '진쌓기'라고 한다.

정읍원정마을당산제 전북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2004.2.6, 김월덕

진치기는 옛날 군대에서 적을 포위하는 모습을 재연한 놀이라고 한다. 풍물패가 앞장서고 마을 주민들이 줄을 들고 크게 원을 돌다가 나발소리가 울리면 도망가는 풍물패를 줄이 뛰어가면서 줄머리부터 줄꼬리까지 멍석을 말듯이 감았다가 다시 푸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몇 차례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남자들은 짓궂은 놀이를 즐긴다. 현재는 마을회관 앞에 넓은 공터가 진치기 장소로 사용되지만 이 공터가 없던 때에는 마을 안의 모시밭이나 보리밭에서 진치기를 했다.

진치기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줄을 메고 마을 당산으로 가서 줄을 당산나무에 감는다. 이것을 '당산할머니 옷 입힌다'고 한다. 줄은 지난해에 감은 줄을 치우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감는다. 당산에 줄을 감고 나서 당산제를 지낸다. 과거에는 제의를 유교식으로 하지 않고 간단한 고사 형식으로 한 다음 동네 부잣집으로 가서 뒤풀이를 했다고 한다. 지금은 당산나무 아래에 돼지머리, 대추, 밤, 감, 술, 메, 메밀묵, 팥죽 등 제물을 차리고 독축을 하며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제를 지내는 동안 부녀자들은 소지를 올리며 동네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고, 풍물패는 당산 주변에서 계속 풍물을 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제장에서 음복을 한 다음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어울려 놀면서 뒤풀이를 한다.

의의 원정마을당산제는 줄당기기와 풍물과 제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호남지방의 전형적인 당산제이다. 특히 줄당기기는 그 자체가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제의적 속성이 강하다. 원정마을에서는 흉년이 들어 볏짚을 구하기 어려운 해에도 칡덩굴로 줄을 만들어 했을 정도로 줄당기기에 대한 신앙성을 오래 유지해 왔다. 진치기와 같은 독특한 줄놀이가 발달해 있고, 제의 날짜도 정월대보름날이 아니라 하루 지난 열엿샛날이라는 점도 원정마을당산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당산제 날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마을을 방문하기 때문에 원정마을당산제는 마을 단합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전라북도 마을지킴이 · 정악(전라북도, 2004). 전북전통민속 상(전라북도, 1990).

필자 김월덕(金月德)

정화(淨化)

정의 부정한 장소나 특정한 생명체를 맑게 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 외국어로 가령 purification나 lustration 등이 쓰이는 것은 이러한 각도에서 이 용어의 소종래를 규명하는 것일 수 있다. 신성한 장소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행위가 정화에 해당한다. 정화는 우리 마을신앙의 전통 속에서 유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지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요소이다. 부정을 가시는 행위에서 비롯되어 부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용 정화는 부정 가시기인데, 정화의 양상과 기원을 견주어 보면 이 점을 쉽게 유형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물, 불, 흙, 피 등으로 하는 정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 이 밖에도 정화 방식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화가 복합적인 양태를 보여 준다.

물에 의한 정화 가운데 우주적 상상력을 보여 주는 전례는 홍수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홍수신화에서 물로 세상을 정화하고 이 정화에 의해 세상을 다시 창조하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생산과 파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물이다. 물에 의한 정화는 윤리적 측면이 있고, 인간의 선악을 심판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신화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장자못 전설〉 같은 사례이다.

인천 걸립농악패의 우물고사
인천 동구 화수동
화도진공원, 2010.4.18
김헌선

길목에 제의를 올려 정화한다 충남 홍성군 세부면 판교리 수룡동, 2002.2.23, 국립민속박물관

물은 영원한 생명력의 상징이다. 생명수 · 정화수 등이 물이 지니는 생생력을 일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맑게 하는 기본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물은 생생력과 생산력에 기초하고 있다.

생명수의 신화적 기원은 죽은 생명의 더러움을 맑게 하고 이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개념적 요소이다. 생명수의 기원 신화 가운데 물로 사람을 살리는 〈바리공주〉,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 등이 생명수를 보여 주는 기본적인 신화이다. 약수나 샘물을 길어서 죽은 존재를 살리는 일을 물로 하게 된다.

정화수는 물로 정화하는 생명수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초적 관념을 지니고 있다. 새벽에 물을 길어서 이 물로 정성을 바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태이고, 이것이 정화의 가장 근본적인 사유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정화수를 길어서 새벽을 열고 이 정성으로 신앙에 기원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서로 일맥상통하는 특징이 된다.

농악대굿으로 하는 샘굿이나 우물굿 역시 이러한 각도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샘굿과 우물굿은 한해 동안 물이 잘나기를 기원하는 것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샘물이나 우물을 정화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속성이 있다.

불에 의한 정화 역시 간단하게 볼 수 없다. 불은 무엇을 태우는 속성이 있어서 이를 통해 대상을 정화하는 것은 민간신앙의 각도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불에 의한 정화를 보여 주는 적절한 사례 가운데 윤리적으로 못된 인간을 징벌함에 있어 불로 정화하는 실제적인 본풀이가 있는 점은 여러 각도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천지왕본풀이〉에서 수명장자를 불로 징치하고 화덕진군에게 새로운 존재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정화의 신화적 기원을 해명할 수 있는 소중한 전례가 된다. 불을 통해 악을 징치하는 것이지만 불에 의한 정화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자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은 정주변 구연본의 〈천지왕본풀이〉이다.

"베락장군 내보내라, 베락ᄉᆞ제 내보내라. 울레장군 내보내라, 울레ᄉᆞ제 내보내라. 화덕진군 화덕장군 내보내라." 수명장제 칩의 정을 더꺼 놓고 불천수를 시겨 간다. "수명장제 칩의 사름 죽어난 딘 일곱 신당 뒤예

들어사근 얻어먹고, 화덕진군 화덕ᄉᆞ제 나간 딘 불찍ᄉᆞ제라 얻어먹기 서련ᄒᆞ라."

("벼락(霹靂)장군 내보내라, 벼락사자 내보내라. 우레장군 내보내라, 우레사자 내보내라. 화덕진군(火德眞君) 화덕장군 내보내라." 수명장자 집의 정랑을 닫아놓고 불천수를 시겨간다(불로 징벌을 가한다). "수명장자 집의 사람 죽어간 곳에는 일곱 신당 뒤에 들어서서는 얻어먹기 법, 화덕진군 화덕사자 나간 데는 불찍사자 얻어먹기 법을 마련하라")

불이 중요한 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심판에 머무르지 않고 악행을 정화해서 새로운 존재로의 의미를 지니도록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불이 생생한 정화와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물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황토도 있다. 황토는 물림의 기능이 본질적인 것이지만 황토를 배설하는 것 자체가 황토를 통해 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세속적으로 더러워진 곳을 맑게 정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황토인 점은 이에 대한 관념이 일정하게 작용 하면서 생긴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피는 매우 중요한 정화의 수단이 된다. 피를 가지고 특정하게 병든 쪽을 정화하거나 마을의 경계면에 뿌리는 행위 등을 볼 수 있다. 이는 정화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대수대명을 하면서 피를 뿌리는 행위와 관련된다.

더욱이 희생이 된 짐승의 고기를 모든 주민이 나누어서 먹는 행위는 이러한 각도에서 정화 관념을 한층 제도화해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입각해 짐승의 피와 고기를 나누어 먹거나 잡아먹는 행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정화 방편이 된다.

정화는 형태와 수단을 달리하면서 세속적인 공간을 신성한 공간,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화의 유형은 우리 문화의 정신적 근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로 모든 것을 정화하고 심판하는 관념이나 불로 정화하고 심판하는 기능이나 관념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관념은 자체적으로 생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무속신앙과 서로 겹쳐지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일차적으로 부정관념과 정화관념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정화와 부정은 서로 깊은 저층에서 만나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청정과 부정, 정갈과 오예 등은 신앙적으로 신성과 세속의 대립에 의한 기본적인 것이다.

무속신앙에서 씻김이라는 절차가 있다. 이 역시 장례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씻김은 씻골이라는 이중장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씻골을 하게 되면 육탈을 하고 뼈에 온전한 것이 깃든다는 것이 정화의 관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절차의 무속적 의례화가 곧 씻김이다.

씻김은 정화의 핵심적인 절차를 이루게 된다. 영혼이 맑게 씻겨져 새로운 존재로 전환하고 새로운 형태로 증발하는 것이 핵심적인 제차이다. 물, 향물, 쑥물 등을 통해 영돈말이 형태로 된 존재를 씻기는 절차이다. 영돈말이에 누룩, 넋, 솥뚜껑을 얹고 비를 사용해 영혼을 맑게 하는 정화의례를 거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의 정화를 하는 것이다. 물로 씻김을 하는 것과 물로 정화하는 마을신앙의 의례 역시 서로 통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로 정화하는 의례 가운데 역시 무속의례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굿이나 황해도굿에서 정신이 혼란을 일으킨 존재에게 '화전치기'를 하는 굿은 이러한 각도에서 의의를 부여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불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맑은 영혼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발상이다. 화전굿을 하면서 영혼을 정화하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무속신앙에서만 불과 물을 통한 정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을신앙의 일반적인 관념 속에서 불과 물에 의한 정화가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우물을 청소하여 정화한다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생촌마을
2003.3.8
국립민속박물관

물로 제당 주위를 정화한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2004.2.2
차정환

들어 가뭄에 물을 기원하는 의례도 광의의 범주에서 필요한 물의 기원이고, 이와 달리 불에 의해 한 해 정화를 하는 의례 역시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까부리와 달집태우기는 이러한 관념을 보여 주는 적실한 사례이다. 물을 기원하면서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하고 물을 까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이와 달리 달집을 태워서 이를 통해 풍요가 오도록 기원하는 것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정화는 결과적으로 다각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른바 기원과 주술, 무속에서 심판과 정화 등의 관념이 복합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관념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화의 핵심적인 공간이 바로 부엌이 되는 점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경험한다. 부엌은 물, 불, 아궁이 등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정화의 공간이 된다. 이 정화의 공간은 무당들이 하는 굿, 농악대가 하는 농악 등에서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정화의 관념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마을의 공동우물 등지에서 이러한 관련 양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필자 김헌선(金憲宣)

제관(祭官)

정의 마을에서 동제를 지낼 때 제의를 주관하거나 제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의 총칭.

내용 제관(祭官)은 제주(祭主)·축관(祝官)·헌관(獻官)·집사(執事)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과 동제의 규모에 따라 제관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규모가 큰 유교식 마을 제의 또는 고을 제의의 경우 제관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여러 명의 제관을 선출하기도 한다. 제주는 동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동제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한다. 축관은 축문을 읽는 것, 헌관은 술잔을 올리고 내리는 일을 각각 담당한다. 집사는 선정된 제관들을 보조한다.

동제의 제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은 40세 이상의 성인남자, 상주가 아닌 사람, 가족 가운데 최근에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없는 사람, 제의가 끝날 때까지 부인에게 월경이 없는 사람, 생활환경이 깨끗하고 재혼한 일이 없는 사람, 제일에 생기복덕이 닿은 사람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위주로 동제를 지내기 보름 전에 마을회의에서 제관을 선정한다.

제관으로 뽑힌 사람들은 동제를 지내기 전에 제당을 깨끗이 하고 제물의 준비부터 일련의 제의 과정에 참여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마을신앙 상·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디지털양산문화대전**(yangsan.grandculture.net).

필자 이유나(李泑娜)

제수물목기(祭需物目記)

정의 제수물목단자(祭需物目單子)로 제수(祭需) 마련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명(器皿)과 물품의 수량을 적은 것, 또는 동제에서 사용하는 제수의 종류와 양을 기록한 문서.

내용 한지 묶음이나 한지 두루마리 형태가 일반적이며, 약 22×25㎝이다. 현대에는 공책에 기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경북 문경시 호계면 부곡리에서 사용하는 제수물목기를 사례로 본다.

동제사물목기(洞祭祀物目記) 1권으로 임진년(1952)부터 기록이 시작된다. 동제의 준비에 필요한 제수의 내

용과 구입 비용이 기록되어 있다. 제수의 종류와 양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비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동제에 관한 공동체의 부담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마을공동 재산의 효율적 운영이 물가변동과 같은 외적 변화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동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음을 알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제수 내용의 근소한 차이는 다른 문화요소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제의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마을사회와 지역사회의 변화과정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유년(1969)부터 금줄 멜 때 비용이 기록되고, 제물 준비를 위해서 시장에 갔다 온 차비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동체의 행사에서도 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버스가 마을까지 들어온 후부터는 제관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시장을 다녀왔음을 알 수 있다. 물목기의 기록체제의 변화로는 경술년(1970)부터 한자 표기에서 한글 표기로 변화하였다. 또한 동미(洞米)와 동기(洞器) 등의 계산이 합산되던 것이 경술년부터 종류별로 기록되었다. 제수에는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사년(1953)의 기록에는 돼지고기[猪肉]가 확인되어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술안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 자료는 동제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동제가 마을사회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긴밀하게 적응·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합성계(合成契) 합성계는 1권이며 '동기추'라 불리면서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임인년(1962)부터 기록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이 마을의 '원주민'으로 불리는 7개 문중만 거주할 때에는 동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문서가 없어도 잘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그러나 임인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전입해 온 타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도 '원주민'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성격의 자치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1962년에 이르러 명칭 변경과 함께 자치조직 규약을 문서화하고 약간의 강제적인 성격을 띠면서 재조직되었다.

합성계의 목적은 계칙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각성촌락에서 필요한 주민들의 융화단결과 개인의 대사(大事)를 공동의 대사로 여기면서 적극 협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계칙에 의하면 촌락 주민들의 유대감은 "본 계원은 동일한 권한이 부여된다"라는 평등의식의 강조에서 출발한다. 계칙이 공표된 처음에는 불참자가 있어서 규제책을 문서화했으나 그 뒤 모든 주민이 계원이 되었다.

지신밟기
경북 문경군 호계면 부곡리, 1989.2.20
이기태

합성계 장부에는 임원 명단과 계금의 지출내역, 포편기(布便記, 계금을 빌린 사람과 원금과 이자를 기록)와 보간기(保簡記, 보관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출내역은 합성계에서 주관하는 마을 공동작업이나 행사에 지출된 내용이다.

이 문서는 동제의 주체인 마을 주민들이 사회변동 현상을 극복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한 주민 중심적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동대지수도(봉)기(洞垈地收都(捧)記) 1권으로 촌락 공동체의 공동재산인 논과 산은 국가소유로 귀속되거나 학교 부지로 기부하였고, 현재는 동대지만 남아 있다. 언제부터 마을공동체 소유의 대지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대지수도기를 보면 기축년(1949)부터 20가구가 살다가 신묘년(1951)에 21가구, 이듬해인 임진년(1952)과 계사년(1953)에는 20가구가 살다가 갑오년(1954)부터 19가구가 살고 있다. 동대지 면적은 6,052㎡이며 수도금액은 쌀 4말5되(나락 9말)를 당년의 시장 시세에 따라 결정하고, 이 금액을 평당으로 환산한다.

동제 경북 문경군 호계면 부곡리, 1989.2.19, 이기태

농악대가 상당에서 인사하기

하당 제의

조사 당시(1989)에는 동대지세가 평당 45원이며, 총금액은 82,800원이었다. 동대지는 동민 전체의 공동소유이므로 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동대지세로 받는 셈이다. 합성계가 동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 동계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이것은 합성계의 식리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마을에 자생하던 배나무를 베어서 매매한 수입도 합성계금에 포함한 것이 이것을 말해 준다.

동대지세는 재산세 명목인 대지세, 매년 행하는 동제 비용, 마을공동 경비 등에 사용하며, 남는 금액은 주민들에게 빌려 주어서 이자를 늘리면서 동기금을 불려 나간다. 이렇게 모여진 금액은 10년마다 행하는 별신굿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공동재산의 이익금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공동재산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또한 마을공동체 신앙인 동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경비 조달방법을 이해하게 한다. 즉 동제는 주민 공동의 자발적 경제활동을 통한 유지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신제향기(禱神祭饗記) 1권으로 이 기록은 조사 당시에는 기해년(1959)과 무신년(1968) 등 2회만 기록되어 있다. 제수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무신년에는 접대용으로 쓰인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무신년 물목기'에 별신굿의 과정을 약술한 '도신제향기'와 굿판의 제수 위치를 설명한 그림도 첨가되어 있다. 이 자료는 10년 주기로 행해지는 별신제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함으로써 별신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엿보게 한다.

의의 위의 네 종류 자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중앙통치 구조와는 다른 측면에서 자생하여 발전한 촌락 자치조직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 촌락 공동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공동경제생활의 모습도 파악할 수 있다. 또 각성 촌락 안의 구성원 변화에 따라 발생한 촌락 자체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등주의를 기초로 한 융화단결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촌락 공동체의 종교적 관행인 동제를 중심으로 촌락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변동에 따른 공동제의의 변화와 기타 촌락 주민의 일상생활 모습의 단면들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부곡리의 동제**(김택규·이기태·영남대학교·경상북도, 경북예악지, 1989), **부곡리의 동계-합성계**(이기태, 향토문화 4, 향토문화연구회, 1988).

필자 **이기태(李淇泰)**

제웅

정의 볏짚과 풀 등으로 사람의 형상을 제작하여 마을제의가 끝날 무렵에 불에 태우거나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액막이형 제의도구이자 신체.

내용 제웅은 지역에 따라서 제웅이 · 허수아비 · 허(헛)재비 · 정업이 · 허숭애비 · 처용 등이라 불리며, 한자로는 초용(草俑) · 초우(草偶)로 쓰기도 한다. 제웅의 일반적인 모습은 오늘날 여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나 논두렁에 세워진 허수아비와 흡사하다. 제웅은 흙을 구워 만든 토우(土偶), 나무를 깎아 만든 목우(木偶), 돌을 다듬어 만든 석우(石偶) 등과 마찬가지로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비슷하지만 만드는 재질이 볏짚[蒿]이나 풀[草]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

마을신앙에서 제웅이 등장하는 곳이 다양하고 지역과 제의에 따라 제웅이 지닌 의미와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제웅의 크기와 형태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성인 정도의 크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30~40㎝ 크기의 제웅이 등장하는 지역도 있다.

제웅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정월대보름날 풍속 중에 하나인 제웅치기에 등장하는 제웅과 마을제의에서 등장하는 제웅이 있다. 마을제의에 등장하는 제웅은 다시 내륙과 해안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지역에서 등장하는 제웅은 형태와 기능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내륙 지역의 제웅은 허수아비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 내륙 지역의 마을제의에 제웅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도당굿이다. 경기도 도당굿의 뒷전거리에서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인 정애비(정업이)를 치죄하고 태움으로써 마을의 온갖 액을 물리친다. 정애비를 징치(懲治, 징계하여 다스리는 행동)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굿판을 정화하고 악을 없애기 위함이다.

충북 제천시 오티별신제에서도 액운의 상징인 제웅이 보인다. 이 지역에서는 신명꾼 두 명이 제웅을 손에 들고 춤을 추는데, 이때 신명꾼 개인들이 들고 있는 제웅을 서로 어르고 싸움을 시킨다. 이는 곧 재액이 마을을 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놀다가 어느 순간 제웅을 땅에 쓰러뜨린다. 그러면 다른 두 명의 신명꾼이 막대기로 제웅을 내치기도 하고, 수수팥떡을 꽂아 만든 화살로 쏘아 맞힌다. 마지막으로 용검도라고 불리는 칼을 제웅의 가슴에 꽂는다. 이렇게 해서 제웅을 죽이는데, 이것은 곧 마을의 나쁜 액운이 마을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두 지역 이외에 충북 단양군 벌천리 빗재마을의 장승제에서는 장승을 세운 다음 마을 어귀에 줄을 쳐 놓고 두 개의 제웅을 걸어 놓는다.

해안 지역의 마을제의에서 등장하는 제웅은 성기 부위가 노출되거나 특별하게 강조된 모습을 하고 있다. 해안 지역 마을제의에서 제웅이 등장하는 사례는 여러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위도면 대리 지역에서 행해지는 위도띠뱃굿이 대표적이다. 띠뱃굿 마지막에 바다에 띄워 보내기 위해 제작된 띠배 안에 제웅[허재비 · 허수아비]을 7개 만들어 놓는다. 이들 7개의 제웅은 각각 선장, 갑판장, 화장(火長) 등의 명칭이 부여되며 각자의 역할에 맞게 띠배 안에 놓이게 된다. 이 지역의 제웅은 40㎝ 정도의 크기에 성기 부위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여신(女神)이기에 남자의 성기를 부각시킨 제웅을 바다에 보내어 모의적인 남녀 결합을 통해 풍어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도 지역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하고 있는 제웅은 흑산도의 소사리 · 사리 · 수리 마을 제의에서도 볼 수 있다. 소사리에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 마을의 당제를 지내고 음력 7~8월쯤에 날을 받아 별도의 둑제를 지낸다. 둑제 때는 소를 잡고 푸짐하게 제물을 장만하여 마을 전호(全戶)가 상을 차려 해변으로 가지고 나와 공찬(供饌)하며 고기와 해초가 잘되도록 발원한다. 이때에 허수아비 용왕님에게 풍악을 올리고 해변을 돌며 술과 음식을 먹이고 발원한 후 배에 싣고 나가서 먼 바다에 띄운다.

수리 마을은 음력 정월 초나흗날이 제일이며 하당거리제를 지내면서 갯제(풍어제)를 같이 지낸다. 그러나 지금은 하당제를 지내지 않고 갯제만 지내는데, 갯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용왕의 신체인 제웅이 등장한다.

수리 지역의 갯제는 주민들이 모두 참가하는 제사로, 특히 제물을 장만한 부녀자들이 제상을 갯가에 들고 나와 용왕에게 소원성취와 풍어를 빈다. 이때 짚으로 신체인 용왕의 모습을 허수아비 형태로 만들어 제단 앞에 모셔 놓고 제주가 익살을 부리며 축언을 한다. 갯제의 제주는 축언과 집제(執祭)를 하지만 생기를 보지 않고 신분에 관계없이 입담이 좋은 사람이나 공인이 선정된다. 갯제에 등장하는 제웅은 마을에서 선정된 제주와 집주(執主)가 제작하는데, 그 크기는 신장 1m에 가슴둘레 0.5m 정도이다.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을 만들고, 성기 부분을 크게 노출시킨다. 이렇게 만든 제웅을 먼 바다로 띄워 보낼 수 있도록 별도로 작은 방주(方舟)를 만들어 용왕을 그 중앙에 앉히고 나면, 부녀자들은 방주 앞에 개별로 차린 제상을 늘어놓는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제단 뒤편에 오색의 풍어기인 봉기(奉旗)를 꽂고 제주와 집사들이 축언을 한다. 제주는 허수아비와 자문자답하는 덕담으로 제사를 올리며 초복풍어와 소원성취를 비는데, 문답의 사설이 익살스럽고 풍자적이어서 놀이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풍어제가 끝나면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술배(비)소리와 액운을 풀고 가도록 수살막이를 부르면서 먼 바다로 용왕인 제웅을 띄워 보낸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영산도 · 태도 · 가거도 등 주로 어촌 지역에서 제웅을 용왕의 신체로 모시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마을의 당제와는 별도로 날을 잡아 부녀자들 중심으로 행해지는 제의에 제웅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용왕의 신체인 제웅과 제주 사이에서 마치 연극을 하듯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놀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제웅을 해안가 뱃머리까지 모셔다

위도띠뱃굿의 제웅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010.2.16
서종원

위도띠뱃굿의 제웅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010.2.16
서종원

놓고 제웅을 바다로 띄워 보내면 마을 사람들이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면서 제의를 마친다. 이렇듯 흑산도 일대의 마을 제의에서 제웅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양상은 위도띠뱃굿에서 보이는 띠배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나쁜 액을 바다에 띄워 보내고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여러 지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제웅은 악을 소멸하거나 액막이를 하기 위한 제구이자 용왕을 상징하는 신체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인간을 대신하는 제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 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다도해당제**(최덕원, 학문사, 1984), **신체로써 제웅이 지닌 의미 연구–흑산도 지역의 마을제의에 등장하는 제웅을 중심으로**(서종원, 생활문물연구 4, 국립민속박물관, 2002), **오티별신제의 현지 연구–어문연구 3**(이창식,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99),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서종원(徐鍾源)**

제주(祭主)

정의 마을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의의 주장(主將)이 되는 사람.

내용 각 지역과 마을에 따라 당주, 화주, 도신 등의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유교식 마을 제의를 지내는 지역에서는 동제를 지내기 전에 대동회를 열어 제관을 선정한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생기복덕을 가려 궂은일을 당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뽑는다. 간략하게 지내는 마을 제의에서는 제주를 한 사람만 뽑아 헌관 · 축관 등을 겸하게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제의에서는 제주 · 헌관 · 축관 · 집사 등을 뽑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잡이를 통해 제주를 선정하기도 한다. 부산 두호마을동제나 안동 가송리동제에서는 서낭대를 내려 제주를 뽑았다. 서낭대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서낭대가 멈추는 집에 들어간다. 집주인은 자리를 펴고 상을 차려 서낭대를 맞이한다. 서낭대를 받은 사람은 그해 제주로 선정되어 제의를 주관하는 일을 맡는다.

선정된 제관은 제의를 지내기 며칠 전부터 금기에 들어간다. 특히 제주는 다른 제관들에 비해 가려야 할 사항이 많다. 제의의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정을 가리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2004).

필자 **백민영(白旻永)**

제주(祭酒)

정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신을 불러 모시기 위하여 땅에 붓거나 신에게 대접하는 술.

내용 자연적으로 알코올 발효에 의하여 고대인은 생긴 거품 물질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 것에 대하여 신비하게 생각하였고 이것에 주술적 의의를 담았다. 제사 주재자가 술을 마시고 취한다는 것은 주재자의 몸에 신이 강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인간이 술을 마시고 황홀경에 빠지는 행위가 신과의 교통이듯이 신도 술을 마시고 인간과 교통한다고 믿은 것이다. 이 치취성(致醉性) 음료는 신과 인간을 매개해 주는 신성한 술로 존재하였다. 술이 지니는 신성성은 제사이든 연회이든 회동(會同) 때 반드시 그 존장(尊長)이 술로 땅에 제사 지내는 의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행위를 '좨주[祭酒]'라 하였다.

마을마다 모시는 고유의 신이 다름에 따라 신격에 따른 제사 방법이나 제사 음식도 다른 특징을 지닌다. 사용되는 술은 곡주가 기본이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덕망이 있고 나이 든 정인(淨人) 남자가 선택되어 제관이 되는 경우 강신(降神)을 위하여 집사자로부터 술잔을 받아 세 번으로 나누어 모사(茅沙) 그릇에 붓고,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을 행하는 유교 형식의 의례절차를 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술은 주로 청주(淸酒)류이다. 마을에서 뽑힌 남자 제관이 주재자이면서도 직업 무당이 참여하는 별신굿, 당굿, 도당굿의 대제(大祭)에서는 탁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엄격한 유교 형식의 제례에서는 맑은 물인 명수(明水)와 현주(玄酒)를 포함하여 술의 발효 정도에 따라 술이 막되어 찌꺼기가 뜰 때의 술인 범제(泛齊), 술이 되고 나서 즙(汁)과 찌꺼기가 서로 섞여 있는 예제(醴齊), 술이 익어 넘쳐서 아주 엷은 푸른빛이 된 앙제(盎齊), 술이 익어 빛깔이 붉게 된 체제(緹齊), 술이 무르익어 찌꺼기가 가라앉은 침제(沈齊)로 분류하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충분히 익혀 윗물을 뜬 술을 청주(淸酒)라 하였다. 그만큼 침체가 가장 청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주는 사람이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술의 등급을 따지면 가장 하위의 술이다. 참으로 맑고 깨끗한 명수가 가장 귀한 술이고 다음이 물인 현주, 다음이 범제이다. 그 다음이 예제 · 앙제 · 체제 · 침제 순이고, 가장 등급이 낮은 술이 청주이다.

유교 형식의 마을제 때 올려지는 청주는 찹쌀, 누룩, 물로 빚는다. 겨울에 밑술을 빚어서 몇 차례 덧술을 행한 다음 100일 정도 발효시킨다. 이렇게 해서 빚어진 청주가 감향주(甘香酒)나 백일주(百日酒)류이다. 이들 청주류와 제주로 쓰이는 청주의 다른 점은 술을 만들 때 재료에 신성성을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이다.

조선왕조의 엄격한 유교의례에서는 신을 강림하게 하기 위한 제주용으로 울창주(鬱鬯酒)를 썼다. 울창주는 청주에 울금을 넣어 끓여 울금향이 나도록 빚은 일종의 가향주(加香酒)이다. 이 술은 곡주를 빚을 때 꽃 · 식물의 잎이나 생강즙 · 계피 등을 첨가하여 향이 나도록 빚은 술인 국화주, 송순주, 강주, 계강주, 도화주, 두견주, 매화주, 송령주, 송근주, 이화주, 백화주, 법주, 솔방울술, 송액주, 송엽주, 송절주, 송화주, 연엽주, 연화주, 오가피주, 이자주, 인진주, 정향주, 죽엽주, 초주, 창포주, 창출술, 청호주 등과 같은 가향주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 울창주는 음과 양의 법칙을 적용하여 울금의 냄새와 색이 음신(陰神)을 맞이하는 데 강한 양기(陽氣)가 있다고 보아 빚은 술이다.

유교에서 맑은 물 명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듯이 별신굿 등을 할 때 마을 사람들은 젖줄에 해당하는, 마을에 물을 공급해 주는 천(川)이나 당샘[井] 속의 맑은 물에 가망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이 물로 만든 술을 '조라', 즉 신주(神酒)라 하였다. 은산별신제 때 조라술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별신제를 하는 전 해 음력 팔월에 목욕재계한 화주(火酒, 主祭者)는 통밀을 맷돌에 갈아 체로 친 것에 화주 집의 지하수를 끓여서 식힌 물을 넣고 간신히 뭉쳐질 정도로 반죽한다. 누룩틀에 삼베를 깔고 그 반죽을 넣고는 그 위를 다시 삼베로 덮고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발로 단단히 밟아 다져 성형시킨다. 이것이 누룩디디기이다. 디딘 누룩은 25~28도의 건조한 곳에서 약 한 달 동안 4~5일 간격으로 뒤집어 주면서 쑥을 덮어 띄운다. 누룩의 숙성이 끝나면 덩어리째 단지 안에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술 빚을 때 절구에 넣고 찧어 곱게 부수고는 어레미에 쳐서 그늘에 2~3일 동안 말린다.

정월 초사흗날 각 집에서 걸립한 쌀을 물에 불렸다가 시루에 쪄서 만든 지에밥을 삿자리 위에다 펴서 차게 식힌다. 이것을 가루로 만든 누룩과 잘 혼합한다. 이에 앞서 목욕재계한 화주는 이른 아침에 물동이를 들고 별신당 옆을 가로질러 흐르는 은산천으로 가서 금줄을 치고는 간단한 제사를 지낸 다음 상탕(上湯)의 물을 담아 온다. 이 물에 누룩과 혼합한 지에밥을 잘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담기가 끝나면 단단히 봉하여 사흘 동안 방 안에 불을 지펴서 숙성시킨다. 이것이 조라술이다.

찹쌀 · 누룩 · 물로 빚어 사흘 뒤에 술 위에 밥알이 뜨면 마시는 술인 부의주(浮蟻酒) · 백화춘(百花春)이나 술을 빚어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거른 술인 탁주(濁酒)인 막걸리류가 조라술과 같은 제조 방법으로 만든 술이다. 다만 술 제조 때 사용된 물의 차이로 조라술과 탁주를 분류하는 것이다. 가망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물로 만든 술은 은산별신제 때에는 화주 집 방에서 발효시켰지만 마을에 따라서는 성황나무 아래에 황톳불을 놓아 땅을 뜨겁게 하여 술단지를 묻어서 발효시킴으로서 신성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유교에서 명수(明水)에 신성성을 부여하듯이 정화수(井華水)는 산제를 치르는 동안 제상에 올려지는 물이다. 명수와 정화수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는 없지만 술이 없던 시절에 명수가 술 대용의 신의 음료이었듯이 정화수 역시 술이 없던 시절에 마을제 때 올려진 술의 대용이라 할 수 있다. 정화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을제 때 상에 오른 제주의 시조인 셈이다.

술 못 먹는 귀신 없고 글 모르는 귀신 없다.
제삿술로 친구 사귄다.
술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남의 술로 제사 지낸다.
죽어서도 석 잔인데 한 잔 술이 어디 있나.
죽어서도 석 잔이다.
죽어서 석 잔보다 살아서 한 잔 술이 낫다.
죽어 석 잔 살아 석 잔이다.
술은 살아서도 석 잔이고 죽어서도 석 잔이다.
술잔은 짝수로 마시지 않는다.

이상의 전래 속담은 제사음식 가운데에서 중요한 제물로 자리매김 해 온 제주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술은 굘 때 걸러야 한다.
옷은 새옷이 좋고 술은 묵을수록 좋다.
친구와 술은 오래될수록 좋다.
꽃 피자 임 오시고 임 오시자 술도 익는다.

술은 오랫동안 발효시켜야 참 술맛이 난다는 이야기이다. 대제(大祭)에서 오랫동안 발효시켜 거른 청주를 선호하지 않고 당일 또는 사흘 만에 술을 떠서 제주로 쓰는 이유도, 범제와 예제를 귀한 술로 여긴 옛 것을 숭상하는 유교의 제주에 대한 관념과도 서로 통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禮記, 世宗實錄, 朝鮮巫俗の硏究(赤松智城 · 秋葉隆, 朝鮮印刷株式會社, 1938),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문화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은산별신제(김상보, 무 · 굿과음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음식속담사전(송재선, 동문선, 1998),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 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김상보, 광문각, 1997).

필자 김상보(金尙寶)

제주골왓마을방사탑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2동 골왓마을에 있는 5기의 방사탑. 1995년 8월 26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8-3~7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방사탑은 마을 북쪽에 4기가 동서 방향으로 줄지어 서 있고, 마을 남쪽에도 1기가 있다. 마을 북쪽의 4기 방사탑은 가장 서쪽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남쪽의 것이 방사탑 5호이다. 이들은 대체로 원뿔형 또는 원통형 모양을 하고 있다.

마을 북쪽의 4기 가운데 가장 서쪽의 방사탑인 1호(민속자료 제8-3호)는 전체적으로 잘 다듬어진 원뿔 형태이다. 탑은 3개의 밭이 만나는 지점에 있고, 기단석이 밭의 경계인 밭담 위에 있다. 이에 따라 탑은 밭담이 먼저 만들어진 뒤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탑이 있는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기 때문에 바깥쪽의 높이는 416㎝이고 안쪽의 높이 335㎝이다. 안팎의 높이가 81㎝ 차이를 보이는 곳에 세워진 것이다. 탑의 하단 지름은 주변의 잡석으로 인하여 측정하기 어렵다. 중단 지름은 375㎝, 상단 지름은 150㎝이다. 골왓마을의 방사탑 5기 가운데 가장 크다. 특이점은 단순한 원뿔형이 아니라 2개의 단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3층 형태라는 것이다. 밑에서부터 181㎝ 지점과 239㎝ 지점에 각각 단을 마련하였다. 이런 형태는 제주도의 방사탑 가운데에서는 유일하다. 표준이 될 만한 쌓음돌은 40×35㎝, 41×34㎝, 32×20㎝, 28×13㎝ 정도로서 허튼층쌓기를 하였다. 부분적으로는 거칠게 다듬은 돌들도 보이지만 대부분이 현무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방사탑의 윗부분에는 높이 60㎝, 너비 25㎝ 정도의 길고 구부러진 돌을 허하다고 여겨지는 북쪽을 향해 세워 놓았다.

방사탑 2호(민속자료 제8-4호)는 1호에서 동쪽으로 37.2m 떨어져 있다. 탑의 기단석이 밭의 경계석인 밭담 위에 있다. 북쪽이 높고 앞쪽이 낮은 지형이다. 높이는 바깥쪽에서 355㎝, 안쪽에서 295㎝이다. 안과 밖이 60㎝ 차이를 보이는 지대에 세워졌다. 하단 지름은 돌무더기로 인하여 측량할 수 없다. 중간 지름은 394㎝, 상단 지름은 254㎝이다. 현무암으로 막돌허튼쌓기를 하였다. 평균이 될 만한 쌓음돌의 크기는 55×25㎝, 37×13㎝, 27×25㎝, 19×17㎝이다. 탑 위에는 나무막대가 꽂혀 있다.

방사탑 3호(민속자료 제8-5호)는 2호에서 동쪽으로 약 50m 떨어져 있다. 탑의 높이는 바깥쪽에서 310㎝, 안쪽에서 280㎝이다. 안팎의 높이 차이가 30㎝ 정

제주 제주시 이호동, 2010.7.15, 강소전

골왓마을방사탑 1호

골왓마을방사탑 2호

골왓마을방사탑 3호

골왓마을방사탑 4호

골왓마을방사탑 5호

도인 비교적 평탄한 지대에 있다. 탑의 크기는 하단 지름이 262㎝, 상단 지름이 226㎝이다. 현무암 자연석을 쌓았다. 표준으로 삼은 쌓음돌의 크기는 48×46㎝, 38×26㎝, 31×27㎝, 26×18㎝이다. 탑 위에는 길쭉한 모양의 돌을 세웠다.

방사탑 4호(민속자료 제8-6호)는 3호에서 동쪽으로 약 55m 떨어진 곳에 있다.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높이는 서쪽인 바깥쪽에서 150㎝, 동쪽인 안쪽에서 193㎝이다. 윗면 지름은 동서 방향으로 257㎝, 남북 방향으로 230㎝이다. 하단 지름은 동서 방향으로 422㎝, 남북 방향으로 307㎝이다. 윗면에서 보면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 여느 탑들과 다르다. 표준으로 삼은 쌓음돌의 크기는 43×32㎝, 39×20㎝, 26×22㎝, 16×16㎝이다. 현무암 자연석으로 막돌허튼층쌓기를 하였다. 탑 위에는 길쭉한 모양의 돌이 세워져 있다.

방사탑 5호(민속자료 제8-7호)는 마을 남쪽의 길가에 있다. 지형은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이 낮다. 높이는 바깥쪽에서 295㎝, 안쪽에서 170㎝이다. 지름은 상단이 160㎝, 하단이 280㎝이다. 평균 크기의 쌓음돌은 142×62㎝, 40×35㎝, 34×27㎝, 22×16㎝이다. 현무암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였다. 탑 위에는 나무막대를 십자가 모양으로 하여 꽂아 두었다. 가로로 놓인 나무막대는 새 모양으로 깎았다. 까마귀를 뜻한다고 한다. 1997년에 예전의 것을 바탕으로 복원했다고 한다.

내용 제주시 이호2동 골왓마을에는 모두 5기의 방사탑이 있다. 이들 방사탑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의 1519-1, 1521-2, 1513-1경계 일원 등지에 세워졌다. 골왓마을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남쪽에 형성된 자연마을이다. 주민들은 마을의 허한 곳에 방사탑을 세워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부정한 액을 막고자 하였다. 이 이유로 마을 북쪽에 4기, 남쪽에 1기의 탑을 세웠다. 북쪽에 있는 4기는 동서 방향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면서 줄지어 세워졌고, 남쪽에 있는 1기는 마을 안의 길가 바로 옆에 있다.

마을의 북쪽은 지대가 낮고 하천과 비슷한 작은 골짜기들이 있는 지형으로, 바다가 훤히 들여다보여 북풍이 불면 바닷바람이 마을에 닿을 정도라고 한다. 한편 구전에 따르면 예전에는 이 근처에 모래가 전혀 없었다.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면서 모래들이 쌓이기 시작하여 갑자기 모래구릉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뒤로 골왓마을 주민들에게 액운이 생기고 어디선가 불똥이 날아와 화재가 나자 이러한 불길한 일들을 없애려고 탑을 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북쪽의 방사탑을 세울 때에는 돼지를 묻었다고 하며, 탑의 윗부분에는 새 모양의 돌이나 나무막대를 올려놓았다.

마을 남쪽 역시 지형이 험한 편으로, 마을의 서쪽으로 길게 골과 구릉을 이루고 있다. 방사탑은 동쪽에 세워졌고, 탑 위에는 나무로 까마귀 형태를 만들어 서쪽의 구릉을 향하게 하였다. 이는 서쪽 구릉이 칼과 같이 강인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까마귀가 이를 쪼아 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제주거욱대**(강정효, 각, 2008), **제주민속유적**(제주도, 1997),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해설집**(제주시 ·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8), **문화재청**(cha.go.kr).

필자 강소전(姜昭全)

제주납읍리마을제

상호참조 제주납읍리포제단(792쪽)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서 홍역신인 서신, 마을 수호신인 토신, 손님신[客神]인 포신에게 마을의 풍요 및 무사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남성 중심의 유교식 마을제. 1986년 4월 10일에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납읍리는 예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한 전통적인 유림촌(儒林村)이다. 이에 따라 이 마을의 모든 민간신앙 의례는 유교 색채가 농후한 것이 특징이며, 아울러 포제도 예전 그대로 유교식 제법으로 유지 · 보존되고 있다.

납읍리포제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납읍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포제가 발생 연대를 알 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濟州牧) 풍속조(風俗條) 상음사(尙淫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또 봄과 가을에 남녀가 무리지어 광양당과 차귀당에 술과 고기를 갖춰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又於春秋男女群聚 廣壤堂 遮歸堂 具酒肉祭神)." 여기서 남녀가 무리를 지어 술과 제물을 갖추어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했으니 이는 남녀 공동으로 지내는 마을제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남자들은 남자끼리 모여 유교식으로 포제를 지내고, 여자들은 여자끼리 모여 무속의 당굿을 지낸다. 이 기록을 통해 이전의 마을제는 남녀 공동으로 신당에서 심방을 청하여 당굿으로 지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포제 진설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07.2.2
문무병

제주도에 향교가 세워져 유교가 보급된 것은 조선 초기이며, 그것이 일반 민간에 널리 보급된 것은 더 후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을제가 유교식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조선 초기보다 훨씬 후대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마을제는 처음에 남녀가 함께 모인 가운데 당굿으로 행해졌지만 남성 중심 사회에 유교문화가 보급 · 전파되면서 무속의 당굿을 미신시하는 풍조가 번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남자들은 무속 중심의 당굿에서 이탈 · 독립하여 유교식 포제라는 새로운 마을제를 창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형태는 조선 중엽 이후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제단은 마을 금산공원 안에 있다. 상록수가 울창한 공원 한가운데에 돌을 쌓아 울타리를 두른 곳에 포신단(酺神壇), 토신단(土神壇), 서신단(西神壇)이 있다. 제장 정면(북쪽)에 서신단과 토신단, 오른쪽에 포신단이 각각 배치돼 있다. 제단의 상석(床石)은 자연석으로 만들었고, 상석 뒤에는 지방을 써 붙일 수 있도록 비석 모양의 작은 돌을 각각 세워 놓았다. 제청 건물은 제장 남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제장의 넓이는 동서 길이 8m, 남북 길이 15m 정도로 꽤 넓고 바닥도 잘 정비돼 있다. 서신단 왼쪽에 망료위가 있고, 토신단과 포신단의 각 오른쪽에 직육면체의 돌이 하나씩 놓여 있다.

납읍리의 제단에 모시는 신은 서신(西神), 토신(土神), 포신(酺神) 세 신위(神位)이다. 세 개의 신단(神壇)에는 각각 비석 모양의 작은 돌을 세워 놓았다. 여기에 신위를 나타내는 지방을 써 붙인다. 포신단(酺神壇)에는 포신지위(酺神之位), 토신단(土神壇)에는 토신지위(土神之位), 서신단(西神壇)에는 서신지위(西神之位)라고 각각 써 붙인다. 포신은 손님신으로서 인물재해지신(人物災害之神)이고, 토신은 마을의 토지신으로서 마을 수호신이며, 서신은 홍역신(紅疫神)이다.

제사는 춘제(春祭)와 추제(秋祭)로 연 두 차례 지내다가 현재는 정월 상정일(上丁日)의 춘제만 지낸다. 상정일에 마을에서 부정한 일이 생겨 행제하지 못하게 되면 중정일(中丁日)로 연기하고, 이날에도 행제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해일(亥日)에 지낸다. 곧 혹정혹해(或丁或亥)일에 지내는 것이다.

연말이 되면 포제 준비를 위한 '포제상회[酺祭鄕會]'를 열어 제향비, 제청(제관들이 합숙 재계할 집), 제의 준비, 제관 선출 문제 등을 논의한다. 향회에는 향장이 주장(主掌)해 오다가 향장제가 없어지면서 이장(里長)이 각 동장의 협조 아래 회를 소집한다. 이 향회에서 제관 선출과 제비(祭費)의 예산 결산을 한다. 제비는 마을의 기금 또는 마을 사람들의 부조금, 이장 · 동장 · 유지들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관은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집례(執禮), 대축(大祝), 찬자(贊者), 알자(謁者), 봉로(奉爐), 봉향(奉香), 전작(奠爵), 사준(司樽), 봉작(奉爵), 전사관(典司官)의 12제관(十二祭官)이다. 그러나 전사관은 정식 제관이 아니고 제물 관리를 담당한다. 헌관(獻官)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고령자가 선출돼 제를 진행한다. 지금은 이장이 초헌관을 맡는다. 집례는 예절과 제법을 잘 아는 자로 선출하며, 대축은 축을 쓸 수 있고 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소제관(小祭官)은 원래 결혼한 사람만이 선

납읍리포제의 삼헌관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07.2.2, 문무병

출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미혼자도 맡는다. 제관들은 제일 사흘 전에 제청에 입재해 합숙한다. 입재 전후에는 몸 정성을 다하고 불상사가 없도록 한다. 시체를 보지 않아야 하며, 개고기 따위를 먹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늘 없는 고기로 만든 음식은 삼간다.

정월 정일(丁日) 자시(子時)가 되면 각 제관은 청금(靑衿)에 유건(儒巾)을 쓰고 집례가 부르는 홀기(笏記)에 따라 제례를 진행한다. 홀기는 향교의 석전제 홀기와 비슷하다. 다른 점은 진홀(搢笏, 홀을 띠에 꽂음)과 집홀(執笏, 홀을 잡아 가슴에 댐)이 없고, 소퇴궤(小退跪, 조금 물러나 꿇어앉음)가 없는 것뿐이다. 진홀과 집홀이 없는 것은 헌관들이 홀(笏)을 들지 않고 행제하기 때문이며, 소퇴궤가 없는 것은 초헌례를 지낸 뒤 독축할 때 초헌관이 소퇴궤하지 않은 채 대축이 독축하기 때문이다. 홀기에 따른 제의는 전폐례(奠幣禮)-초헌례(初獻禮)-독축(讀祝)-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철변두(撤籩豆)-망료위(望燎位) 순으로 진행한다. 이때 신위가 3위이므로 전폐례 이하 각 예를 각 헌관이 포신, 토신, 서신 순으로 행하여 원위치로 돌아온 뒤 사배(四拜)를 함이 조금 다를 뿐이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酺祭祝

維歲次云云 幼學 姓名 ○○○ 敢昭告于
酺神之靈 伏惟酺神 除灾降福 保我人民 報賽無斁
土神之靈 保艮社神 惠我恩德 願賜物豐 長養壽城
西神之靈 降臨西神 善良兒輩 以賜紅疫 全然無頗
謹以牲幣 醴齋粢盛 遮品式陳 祇薦于神 尙饗

제물은 제일 전날인 병일(丙日)에 준비하여 정일 자시가 가까워지면 제단에 진설한다. 제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 도량서직(稻粱黍稷, 벼와 기장)의 네 가지 메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粱)·서(黍)·직(稷)이 없어서 양(粱) 대신 도(稻), 쌀메 두 그릇, 서(黍)와 직(稷) 대신 차좁쌀메 두 그릇을 올렸다. 그러다가 지금은 같은 메를 두 그릇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여 쌀메 한 그릇, 차좁쌀메 한 그릇만 올린다. 희생(犧牲)은 동네에서 기르던 검은 돼지[黑豚]를 골라 털을 벗겨 내장은 꺼내고 통째로 올린다. '모혈(毛血)'이라 하여 돼지의 털과 피 약간을 접시에 담아 준비한다. 폐백(幣帛)은 명주(明紬)와 백지(白紙)를 쓴다. 3신위 몫을 준비하면서 명주는 석자 두 치, 백지는 한 권을 써 오다가 요즘은 5~7장을 각각 올린다. 과류(果類)로는 밤, 대추, 비자, 귤, 배 등을 쓴다. 제주(祭酒)는 감주(甘酒)를 예주(禮酒)로 사용한다. 해어(海魚)는 포(醢) 대신 조기 말린 것을 구워서 올린다. 채소류는 미나리와 무채를 올린다. 이를 '청근(菁根)'이라 부른다.

참고문헌 **제주도 마을제 종합보고서–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2010), **제주도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제주도, 1986), **제주도 본향당신앙과 본풀이**(문무병, 민속원, 2008), **제주도부락지 2**(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도지**(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의 문화재–증보판**(제주도, 1998), **제주의 민속**(제주도, 1998), **제주의 전통문화**(제주도교육청, 1996),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필자 **문무병(文武秉)**

제주납읍리포제단

상호참조 제주납읍리마을제(790쪽)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의 금산공원 안에 있으며,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납읍리마을제를 지내는 포제단.

형태 포제단은 '천연기념물 제375호'로 지정한 납읍 난대림지대가 있는 금산공원 안에 마련되어 있다. 금산공원 입구를 지나 조금 올라가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포제단이 나온다. 포제단 주위로 돌담을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쌓아 전체적인 제장을 마련하였다. 제장은 동서 길이가 8m, 남북 길이가 15m 정도로 비교적 넓은 편이다. 바닥도 자연상태로 잘 정비되어 있다. 제장의 북쪽에 제단이 마련되었고, 남쪽에는 기와를 덮은 포제청이 있다.

제단은 모두 세 개이다. 북쪽인 제장 정면에 서신단(西神壇)과 토신단(土神壇)이 있고, 그 오른쪽에 따로 포신단(酺神壇)이 마련되어 있다. 토신단과 포신단의 크기가 서로 비슷한데 견주어 서신단은 비교적 작고 단출한 편이다. 제단의 상석(床石)은 모두 자연석을 이용하여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상석 뒤에는 자그마한 돌을 비석 모양으로 다듬어 세워 포제를 지낼 때 지방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한다. 망료위(望燎位, 능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문을 태우던 곳)는 서신단 왼쪽에 있다. 이 밖에 토신단과 포신단의 오른쪽에 직육면체의 자연석이 하나씩 놓여 있다. 한편 그동안 제단 주위에 쇠말뚝을 박고 쇠줄을 연결하여 제단을 보호하다가 현재는 쇠줄을 철거한 상태이다.

내용 금산공원 안에 있는 포제단에서 납읍리마을제를 지낸다. 포제의 대상 신은 제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신(土神), 서신(西神), 포신(酺神)이다. 토신은 마을의 토지신(土地神)으로서 부락수호신이며, 서신은 홍역신(紅疫神)이고, 포신은 객신(客神)으로서 인물재해지신(人物災害之神)이라고 한다. 행제 순서는 토신, 포신, 서신의 순으로 한다. 예전에는 음력 정월에 춘제(春祭), 칠월에 추제(秋祭)라 하여 두 차례 포제를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1960년대에 마을회의의 결의를 통해 추제는 폐지되고 현재는 정월의 춘제만 지낸다.

참고문헌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2**(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주도부락지 2**(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필자 **강소전(姜昭全)**

납읍리포제단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10.6.6
강소전

제주몰래물마을방사탑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2동의 몰래물마을에 있는 2기의 방사탑. 1995년 8월 26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8-1호와 제8-2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형태 방사탑 2기가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세워져 있

제주 제주시 도두동, 2010.6.6, 강소전

몰래물마을방사탑 1호

몰래물마을방사탑 2호

다. 동쪽 방사탑이 1호, 서쪽 방사탑이 2호이다.

방사탑 1호(민속자료 제8-1호)의 외형은 전체적으로 잘 다듬어진 원뿔형이다. 지형은 대체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바깥쪽에서 높이는 402㎝이고 밑지름은 443㎝이다. 표준으로 삼은 쌓음돌의 크기는 101×95㎝, 73×54㎝, 44×35㎝, 25×21㎝이다. 방사탑의 속은 잡석으로 메웠다. 원뿔형의 가장 윗부분에는 새 모양과 비슷한 다소 길쭉한 형태의 자연석 두 개를 설치하면서 끝부분을 서로 맞대어 붙여 놓았다. 1990년대에는 이 두 개의 자연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고 한다.

방사탑 2호(민속자료 제8-2호)는 1호와 약 14m 떨어져 있으며, 역시 원뿔형이다. 지형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마을에서 보면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다. 지반은 암반과 잡석으로 이루어졌다. 현무암 자연석을 이용하였고, 잡석으로 속을 채웠다. 표준으로 삼은 쌓음돌의 크기는 98×82㎝, 85×55㎝, 50×27㎝, 20×16㎝이다. 높이는 바깥쪽에서 424㎝, 안쪽에서 250㎝이다. 밑지름은 주변의 잡석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윗지름은 180㎝이다. 1호에 견주어 탑 위에는 특별한 모양의 장식물이 없고 자연석만 올려놓았다.

내용 방사탑은 제주시 도두2동 690-1번지, 도두2동의 몰래물마을 해안 쪽에 있다. 물래물마을이 형성된 조선시대 중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의 '엉물'과 '물동산' 지경의 남쪽이며, '탑거리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에 있다. 방사탑은 물동산에서 직선으로 남쪽 약 70m 지점에 있으며, 현재 방사탑 근처에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접근하기도 수월하다.

원래 몰래물마을에는 방사탑이 3기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의 '구한질' 남쪽에도 1기가 더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현재 해안 쪽에 2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방사탑은 마을 안에서 허하다고 인식된 방위나 지경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액을 막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예부터 몰래물마을에서는 북쪽인 해안을 허하다고 여겨 이곳에 방사탑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 몰래물마을에는 제주국제공항 확장 공사로 사람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었지만 방사탑은 아직 남아 있어 마을의 옛 자취를 지키고 있다.

참고문헌 **몰래물향토지**(제주시 도두2동, 2000), **제주거욱대**(강정효, 각, 2008), **제주민속유적**(제주도, 1997), **제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재청**(cha.go.kr).

필자 강소전(姜昭全)

제주무릉2리평지동포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쪽 끝에 위치한 대정읍의 중산간 마을에 속하는 무릉2리 평지동 주민들이 지내는 유교식 마을제. 매년 음력 정월 길일을 택하여 마을의 대표 다섯 명을 제관(祭官)으로 선정하고 이장(里長)이 함께 준비하여 지낸다.

역사 평지동(平地洞)은 예전부터 옹기를 굽는 마을로 유명하다. 또 농남봉(農南峯), 조소악(鳥巢岳), 가시악(加時岳)이 발달하고 국유 목장인 모동장(毛洞場)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넓게 펼쳐진 평원에 들어선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인 평지동에서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마을의 옛 이름이 '고바치', '고바지(池)', '고전동(高田洞)', '은지(隱池)'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 물이 좋은 곳이었기에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4 · 3사건 때 완전히 소개(疏開)되었다가 복구된, 오래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마을이기도 하다.

당동산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2004.2.12, 김동섭

무릉2리 평지동에서 포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증언에 따르면 4 · 3사건으로 소개되었다가 복구하고 나서부터 마을 주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마을에서 하는 포제(酺祭)를 따라 이 마을에서도 거행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포제제관기(酺祭祭官記)』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보아 초헌관(初獻官) · 아헌관(亞獻官) · 종헌관(終獻官)과 집례 · 대축의 집사(執事) 두 명으로 모두 제관 다섯 명을 마을 사람 가운데에서 선정하고, 이장이 함께 포제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헌관 부인들이 제청에 함께 입제하여 제관들의 식사와 제물을 준비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내용 **1. 제관 선정** 무릉2리 평지동민의 안녕과 무사풍요를 위해 치러지는 포제의 제관은 반별로 선정하여 거행하고 있다. 무릉2리 평지동은 반별로 5, 6반(班)에 속하는 행정구역이다. 이에 따라 짝수 해에는 홀수 반인 5반, 홀수 해에는 짝수 반인 6반에서 각각 제관을 선정하여 거행하는 것이 이 마을의 전통이라고 한다.

이런 전통 속에서도 제관으로 선정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친척 가운데 상복을 입은 자, 상처(喪妻)하여 홀로 된 사람, 손가락이 없거나 발을 저는 장애인 등은 제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 집사들의 직분이 다양하게 나누어진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헌관 세 명을 포함해 집사 두 명이 제관으로 선정되고 마을 이장이 함께 제의 봉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관에 선정되면 여느 때와는 달리 대단한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을 자제하고 부인과도 내외를 하게 된다. 흉사에 다니지 아니하고, 병원이 있는 방향을 피하여 돌아가며, 젊은 딸이 있는 경우 이웃이나 친척 집으로 보내어 있을지도 모를 부정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비하게 한다.

2. 제청(祭廳) 2004년부터 무릉2리 향사(鄕舍, 지금은 경로당으로 이용)를 제청으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깨끗한 집(젊은 여자가 함께 거처 내에 함께 식구로 살고 있지 않는 집)으로 전사관(奠祀官) 댁을 선정하여 입재 정성하였다고 한다.

3. 입재(入齋) 제관들은 나흘 동안의 입재 정성을 통해 제의 봉행에 임하고 있다. 첫째 날 금줄설치 · 상견례 · 직분익히기, 둘째 날 축문에 관한 의견교환 · 전기 설치를 위한 전선(全線) 준비, 셋째 날 제단 청소 · 축 작성 · 제물 준비 및 확인, 넷째 날 제의 봉행 및 파제 · 음복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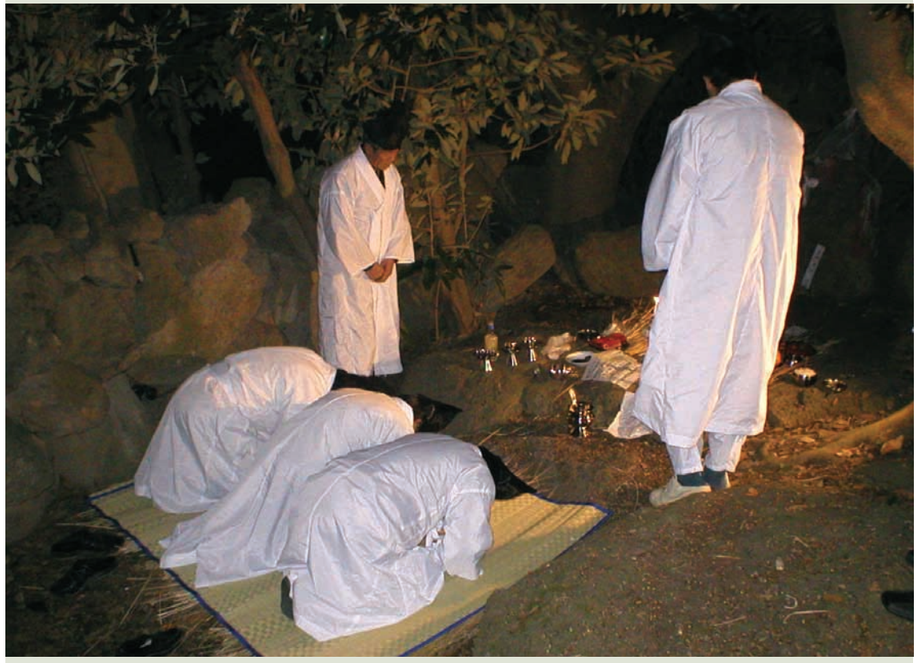
4. 제비(祭費) 제의 봉행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정월 초열흘날쯤에 '마을총회'를 통해 제향비를 결정한다고 한다. 제향비는 각 동의 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거두어 활용한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의 지원금, 여유 있는 사람들의 희사금도 답지되어 원만하게 치러지고 있는 편이다.

5. 제복(祭服) 예전에 제관들은 제각각 직분에 맞는 제복을 준비해 입재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평상복으로 제청에 입재하면 마을 공동으로 준비한 제복을 이용한다. 제복은 동장 주관으로 매해 세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관들의 제복으로 유건(儒巾),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평지동, 2004.2.12, 김동섭

제물진설

잡식 궤 묻음



제의봉행

흰색 두루마기, 세조대가 갖추어져 있다.

6. 진설(陳設) 포제에 사용하는 제물에는 희생(犧牲), 간, 곤메 2, 조메 2, 해어(옥돔) 한 마리, 육포(쇠고기) 1, 오과(유자, 사과, 대추, 밤, 곶감), 채소(미나리), 축문, 지방, 소지 세 장, 제주(단술) 소주, 초, 향이 있다.

제의 봉행이 가까이 다가오는 밤 10시 30분쯤이 되면 메의 재료로 올린 흰쌀, 좁쌀을 내려 '메'를 치기 시작한다. 11시쯤이 되면 메가 완성된다. 이때 '당동산'의 제단으로 이동한다. 당동산에 도착하면 제관이 제단(祭壇)으로 사용할 판석(板石) 위에 '새'를 펴서 제단을 마련한다. 그러면 내장을 꺼냈을 뿐 익히지 않은 희생용 닭을 올린다. 어포로 준비한 생선 옥돔도 내장을 꺼냈을 뿐 배도 가르지 않았다. 육포로 준비한 쇠고기도 날것을 사용한다. 미나리를 비롯해 유자, 사과, 대추, 밤, 곶감도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생채로 쓴다. 물론 익힌 것이 아닌 '메'에도 수저 대신 '무남저'를 사용한다. 무남저는 '새'를 간추려 만든 것이다. 진설이 완료되면 '궷문'을 열고 제의 봉행을 시작한다.

7. 제차 제의는 청신-초헌례-아헌례-종헌례-분축-철상-음복 순으로 이루어진다.

청신은 모든 제관이 나아가 재배(再拜)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초헌관이 배석(拜席)으로 나아가 꿇어앉으면 종헌관과 아헌관 등 모든 제관이 따라 꿇어앉는다. 집례와 대축이 잔에 제주(祭酒)를 부은 다음 초헌관에 주었다가 제단에 올리고, 초헌관은 재배를 한다. 그리고 꿇어앉으면 대축이 축을 고한다.

그런 뒤 축문을 제단에 올리고 나서 모든 제관이 일어나 배석에서 물러나면 아헌관이 배석으로 나와 꿇어앉는다. 집례와 대축은 초헌관이 올린 잔을 내려 주변에 부은 다음 다시 잔을 채워 아헌관에게 주었다가 제단에 올린다. 아헌관은 배석에서 재배하고 물러난다.

아헌관이 아헌례를 마치고 물러나면 종헌관이 배석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종헌관이 배석에서 물러나면 집례와 대축도 처음 자리인 배석 뒤로 와 선다. 제관 모두가 재배를 하고 축과 지방을 사르는 분축의 의례를 치른다. 그러고 나서 결명이라는 제단에 올린 제물을 조금씩 끊어 제주잔에 담아 잡식을 한다.

그 뒤 제물을 담아 온 컨테이너에 제기와 제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는다. 제단에 올린 제물을 모두 담으면 제의는 전부 끝나게 된다.

포를 봉행하고 돌아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제물로 올리 사과를 깎아 먹고 몸을 누인다.

아침 6시쯤에 동회장이 제청을 찾아 수고하였음을 치하한다.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음복에 참석해 주기를 청한다.

참고문헌 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김동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2010).

필자 김동섭(金東燮)

제주무릉리방사탑

정의 제주지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 자연석을 원통형으로 쌓아 올린 설치물. 1995년 8월 26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의 넓게 평토(平土)한 농경지 가운데에 돌을 쌓고 네 개의 돌기둥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탑'이라고 부른다. 원통형의 설치물 위에는 '돌하르방'처럼 생긴 돌기둥을 세워 놓았다. 높은 곳에 올라서서 마을안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수호신의 모습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무릉1리는 대정읍 관내의 해안가 마을이다. 한라산 쪽으로 무릉2리, 서쪽으로 신도2리, 동쪽으로 영락리와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무릉리가 언제 설촌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구전에 따르면 1550년쯤 백씨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물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탑이 있는 '앞논물' 지경이 무릉리 마을이 들어선 곳이다. 지금은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만, 설촌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이 식수(食水)로 이용하기 좋은 물통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마을 안에는 봉천수이긴 하지만 식수로 이용한 물통도 여럿 있었다. '물동산', '송당물', '굿물'이 그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붕을 개량하고 도로를 포장하게 되었으며, 전기도 보급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을 주민의 안녕을 담보받고자 지낸 포제(酺祭)도 미신이라고 하여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포제동산'이라고 하여 아직도 제단은 마을에 남아 있다. 연초가 되면 할머니들은 본향당으로 가서 일 년간 가운(家運)과 가족의 안녕을 돌봐 달라고 빌고 있다.

무릉1리는 야트막한 구릉들이 둘러가며 전체적으로 감싸는 듯한 지형을 보이고 있으나 서쪽은 훤히 트여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평탄한 농경지(農耕地)가 형성되어 바다에까지 연이어 있다. 지금은 방풍림으로 막힌 듯한 곳도 있지만 예전에는 바닷가 쪽인 서쪽이 허(虛)했다고 한다.

이러한 곳을 풍수적으로 보면 한 마리 동물에 비견된다. 마을 사람들은 동쪽은 머리, 서쪽은 꼬리에 각각 해당한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꼬리 부분인 '미군(尾群)'이 약해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을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는 허한 곳이라고 본 것이다.

옛 사람들은 네 방위 가운데 한 곳이 허하고 약하면 그곳으로 잡귀(雜鬼), 액운(厄運), 전염병(傳染病) 등이 들어와 마을 사람들과 가축에게 해를 끼친다고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액을 예방하고 막음으로써 태사른땅(고향)을 지키고 자손들의 입명(立命)과 번영(繁榮)을 위하고자 마을 서쪽에 탑을 쌓기로 했다. 탑은 언제 쌓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설촌과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평탄한 곳을 찾아 남북으로 길게 탑 네 개를 쌓기로 했다. 남쪽의 것은 70m, 나머지 것들은 30m 간격으로 쌓았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잡석을 이용하였다. 탑 안에는 가마솥을 깨트린 무쇠조각을 넣었다. 예전에는 새로운 무엇을 도모하고자 할 때 소금이나 팥을 뿌리거나 바가지를 부수어 방액하는 속신이 있었다. 이와 같이 솥을 부수어 조각난 무쇠를 탑 속안에 넣어 방액하고자 한 속신을 마을 사람들은 믿은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무릉1리에 전해오는 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릉리방사탑 1호 마을복지회관에서 바다쪽으로 나와 마을길을 따라 조금 지나치면 농경지를 만나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서 조금 큰 '물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마을 사람들은 '앞논물'이라고 한다. 그 농경지 사이로 난 농로는 포장되어 있으며, 마을과 바다로 이어진 농로 왼쪽의 농경지 가장자리에 탑이 있다. 탑의 굽이 농로의 바닥보다 높은 농경지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농로의 포장이 좀 더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탑은 밭담을 쌓은 크기의 잡석으로 쌓았다. 밑지름은 넓고 위가 좁은 원통형이다. 이 탑은 대정읍 무릉리 3094번지에 위치하며, 1995년 8월 25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8-12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높이 220㎝, 밑지름 390㎝, 윗지름 340㎝, 석상 높이 45㎝ 정도이다. 원통에 비해 석상의 크기는 아주 작다.

무릉리방사탑 2호 마을에서 바다쪽으로 이어진 농로와는 달리 '앞논물' 앞을 가로질러 옆 마을로 이어진 농로가 나 있다. 세 개의 탑은 그 길을 따라 있다. 무릉리 방사탑 2호로 명명된 탑은 1호와 '앞논물'의 간격만큼 떨어진 밭담 사이에 자리한다. 큰 덩어리의 잡석을 중심으로 쌓아 올렸으며, 윗부분은 잔돌로 마감하였다. 상부에는 석상을 올렸다. 밭의 경계를 위해 쌓은 주변의 밭담보다 높게 쌓았으며, 밑이 크고 위가 좁은 원통형이다. 이 탑은 대정읍 무릉리 3099번지에 위치하며, 1995년 8월 25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8-13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높이 170㎝, 밑지름 420㎝, 윗지름 390㎝, 석상 높이 35㎝ 정도이다. 1호와 마찬가지로 원통에 비해 석상의 크기가 아주 작다.

무릉리방사탑 3호 이 탑은 '앞논물' 앞을 가로질러 옆 마을로 이어진 농로 오른쪽의 농경지 가장자리에 있다. 무릉리 방사탑 3호로 명명된 이 탑은 2호와 30m 정도 떨어져 있다. 잡석을 주로 쌓았으나 한 사람이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큰 잡석도 많다. 윗부분은 잔돌로 봉긋하게 마감하였고, 상부에는 석상을 올렸다. 밑이 크고 위가 좁은 원통형이다. 이 탑은 대정읍 무릉리 3126-2번지에 위치하며, 1995년 8월 25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8-14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높이 150㎝, 밑지름 290㎝, 윗지름 240㎝, 석상 높이 30㎝ 정도의 크기이다. 마찬가지로 원통에 비해 석상의 크기가 아주 작다.

무릉리방사탑 4호 '앞논물' 앞을가로 질러 옆 마을로 이어진 농로를 따라가다가 마을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또 다른 도로를 만나고, 이를 가로질러 조금 높은 동산으로 이어지는 길 오른쪽 밭의 가운데 길가에 있다. 농경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석을 주로 쌓았으며, 밑부분은 큰 덩어리의 잡석으로 되어 있다. 윗부분은 잔돌로 봉긋하게 마감하였고, 상부에는 석상을 올렸다. 밭의 경계를 위해 쌓은 주변의 밭담보다 높게 쌓았으며, 밑이 크고 위가 좁은 원통형이다. 이 탑은 대정읍 무릉리 3126-1번지에 위치하며, 1995년 8월 25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8-15호로 지정 · 보호되고 있다. 높이 185㎝, 밑지름 300㎝, 윗지름 210㎝, 석상 높이 30㎝ 정도의 크기이다. 석상의 크기 또한 원통에 비해 매우 작다.

이들 탑을 마지막으로 보수한 때는 1990~1995년이라고 한다. 마을에 많은 피해를 준 사라호 태풍 때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좀체 허물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았다. 한편 4 · 3사건 때 탑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성(城)을 쌓은 적이 있다. 그 때 탑의 일부가 조금 손실된 적이 있지만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냥 두고 지내오다가 문화재 보수비용이 나오면서 전문가의 손을 빌려 보수하였다.

탑 위에 세운 석상에서 지세(地勢)가 허한 곳으로 들어와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잡귀, 액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내려는 수호신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지세가 허하다고 하는 곳을 방비하기 위해 언제부터 탑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릉1리에서 가까운 영락리는 물론 서귀포시 서홍동에서는 소나무를 심어 방비하였다고 한다.

필자 김동섭(金東燮)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010.6.11, 김동섭

무릉리방사탑 1호

무릉리방사탑 2호

무릉리방사탑 3호

무릉리방사탑 4호

제주복신미륵(濟州福神彌勒)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서 양쪽에 있는 석상(石像). 여기에 기원하면 사람들에게 재복을 내려주는 것으로 관념된다. 1971년 8월 25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이칭 미륵불(彌勒佛), 자복미륵(資福彌勒), 자복신(資福神), 큰어른 등으로도 불린다. 동쪽의 것은 동자복(東資福)·동미륵(東彌勒), 서쪽의 것은 서자복(西資福)·서미륵(西彌勒)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불상과는 다른 모양이지만 '미륵불', '자복미륵'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보아 미륵불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복미륵, 자복신 등으로 불린 데에서는 재물과 복을 내려주는 존재로 숭앙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큰어른'이라는 명칭은 그 높이가 3m에 이를 정도로 큰 데서 비롯됐음을 말해 준다.

역사 복신미륵은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현재로서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의 근거는 동자복이 있는 자리에 고려시대 만수사(萬壽寺)라는 절이 있었고, 서자복이 있는 용화사가 고려시대 해륜사(海輪寺)라는 절이 있던 자리라는 점이다. 이 두 절은 조선 숙종 대에 이르러 무불파괴시책(巫佛破壞施策)에 의해 불타고 미륵만 남게 되었다. 미륵의 형태에서 고려 후기 불상이 통속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근거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것도 아직 분명한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형태 커다란 현무암을 깎아 돌하르방 형태로 다듬었다. 모자, 머리, 몸통의 모양이나 전체적인 비율이 이 지역 돌하르방의 모습과 유사하다. 다만 몸통에는 소맷자락 모양이 뚜렷해 돌하르방과 매우 다르다. 특히 동자복은 손 모양도 일반적인 돌하르방의 형태와 다르다. 동자복은 높이 286㎝, 얼굴 길이 161㎝, 아랫몸 둘레 662㎝이다. 서자복은 높이 273㎝, 얼굴 길이 135㎝, 아랫몸 둘레 315㎝이다. 동자복은 노출되어 있으나 서자복은 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내용 복신미륵은 제주시 동서 양쪽에 마주하고 세워져 있는 석상을 함께 이른다. 동쪽의 것은 동자복, 서쪽의 것은 서자복이다. 이들 모두 옛 제주성 바깥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

동자복은 '제주도 민속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으며 제주시 건입동 만수사 터에 있다. 이곳에는 근래까지 개인주택이 있을 때 동자복은 개인주택 울타리 안, 건물 뒤쪽의 23㎡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관련 의례도 전승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2009년에 제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야외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서자복은 '제주도 민속자료 제1-2호'이며, 제주시 용담1동 용화사라는 절 안에 있다. 서자복 곁에는 남근 모양의 석상이 있다. 석상은 높이 75㎝, 둘레 100㎝이다. 이를 동자승, 동자미륵이라고 한다. 이 석상에 걸터앉아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게 된다는 설이 있다. 이로 보아 이 작은 석상은 남근석으로 관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자복은 남성, 동자복은 여성이라고 관념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것도 서자복을 남근석이라고 보는 데 근거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도 아들을 낳는 데 효험이 있다고 하여 이 동자복과 서자복에 기원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절에서는 음력 이월과 동짓달 보름에 서자복을 위하여 법당에서 예불을 드린다. 그런가 하면 용담1동 동한두기마을에서 포제를 지낼 때는 그에 앞서 서자복 앞에서 간단히 제사를 지낸다. 정월대보름날 자정이 가까워지면 금줄을 걷어 내고 미륵제의 제관과 집사들이 용화사로 간다. 이때는 미리 정해 둔 헌관, 독축, 집사만 참여한다. 먼저 미륵 앞의 제단에 돼지머리와 간단한 제물을 올린다. 제사는 비교적 간단히 지낸다. 단작을 올리고 고축한 뒤 잡식하여 마친다. 이때의 축문에는 '미륵존불(彌勒尊佛)'이라 하고 마을의 온갖 일을 망라하여 기원 사항으로 적는다.

복신미륵은 제주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으리라고 추정된다. 복신미륵이 제주성 바깥의 동서에 쌍으로 존재하고, 둘 모두 사찰 경내에 있고, 서로 마주서서 제주성 안을 굽어보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에서 제주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풍수지리설로 풀이하기도 한다. 복신미륵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제주성의 양쪽을 감싸 흐르는 줄기로 이는 곧 좌청룡 우백호의 기가 모이는 곳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곳에 미륵을 마주 세움으로써 제주성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풀이하는 셈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동서의 미륵 가운데 서자복만 제구실을 하고 있다. 동자복은 거의 잊혀서 유물로만 남아 있다. 이것은 서자복에 대하여 개인, 마을, 사찰에서 저마다 의례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제 개인집 울타리에 갇혔던 동자복이 공원화됨으로써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복신미륵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음은 오늘날 동한두기마을의 포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한두기마을에서는 마을을 수호해 주는 것으로 보아 지금도 마을 제사를 지낼 때마다 기원하고 있다. 후대에는 주로 수복을 이루어 주는 것으로 관념되었다. 크게 보면 공동체신앙이 개인신앙으로 바뀌어 간 셈이다.

특징 복신미륵에 대한 신앙은 민간의 개인신앙, 마을신앙, 불교가 결합된 양상을 보여 준다. 개인, 마을, 사찰이 하나의 대상을 두고 제각기 의례를 벌이는 점도 주목된다. 동한두기마을에서 미륵제를 지낼 때 돼지고기를 바친다는 점도 특별하다. 사찰 경내에 돼지고기를 들이고 미륵불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점에서 서자복은 더 이상 불교적 존재에 머물지 않는다.

의의 제주도에서 공동체신앙이 개인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 복신미륵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이 확인된다.

제주도에는 곳곳에 자그마한 미륵돌을 모시고 기자(祈子) 축원을 하는 당들이 있다. 서자복의 작은 석상은 이와 같은 당신앙과 관련이 있다. 본래 서자복도 기자치성과는 무관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당에서처럼 작은 석상을 곁에 두고 아들 낳기를 기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朝鮮巫俗の研究 下(赤松智城·秋葉隆, 大阪屋號書店, 1937), 문화유적분포지도-제주시(제주시, 1998), 민속사진집 령(현용준, 각, 2004), 용담동지(용담동지편찬위원회, 2001).

필자 강정식(姜晶植)

제주상귀리당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주민들이 마을 수호신을 모신 본향당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이렛날에 한 해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 제사.

역사 본래 심방이 당굿으로 벌이던 것을 마을 사람들이 유교식으로 바꾸어 지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당굿을 크게 벌였다. 이것이 당제로 바뀐 것은 그다지 오랜 일이 아니다.

형태 무속식 당굿을 대신하여 유교식 제법으로 당신(堂神)을 위한다. 요란하게 풍물을 울리면서 춤을 추며 기원하는 대신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폐백과 술을 바치고 절을 하며 기원한다.

내용 상귀리당제는 이 마을 본향당이 있는 '황다리궤'에서 지낸다. 본래 심방에게 맡겨 당굿으로 지내던 것을 남자 대표들이 제관을 맡아 유교식 제법으로 지내는 것이다.

상귀본향당은 'ᄇᆞ름웃또 송씨부인, ᄇᆞ름알또 강씨영감'을 모시는 당이다. 이들은 상귀리 사람들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호적(戶籍)을 관장하는 본향신이다. 제일은 음력 정월 초이렛날이다. 부부이던 두 신이 바람 위와 아래로 나뉘어 좌정하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가 구전된다. 송씨부인이 부정한 음식(돼지고기)을 먹은 강씨영감을 바람이 불어오는 아래쪽 방향으로 내쫓고 자신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위쪽에 좌정하였다. 제장 중간쯤에 담을 쌓아 안과 밖으로 나누어 놓고 바위 아래 틈새에 따로 제단을 마련하였다. 본래 이곳에서는 당굿을 성대하게 벌였다. 소미 여러 명과 참여하여 풍물을 울리면서 굿을 하였다. 별거를 하는 송씨부인과 강씨영감 부부를 함께 모시기 위하여 심방은 온갖 정성으로 굿을 해야 했다고 한다. '본향듦'을 할 때에는 심방이 당 입구 쪽으로 나가 신칼을 지면에 눕히고 '신칼치메'를 끌면서 신목 아래를 지나 제단까지 가는 행동을 함으로써 당신을 모셔 들이는 모양을 모의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한다. 한편 강씨영감에게는 제물로 돼지고기를 바쳤다고 한다.

당제의 대상 신은 당굿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향신 2위이다. 당제의 제일도 본래의 당제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제사 시간은 유교식 마을 제사와 마찬가지로 자시(子時)로 정해져 있다. 제관은 모두 남자로 구성된다.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조용히 시간이 되기를 기다린다. 이때 마을 사람들도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 즐긴다. 제관은 주민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제관들은 시간이 되면 차를 타고 제장으로 이동한다. 도착하는 대로 먼저 제장을 정리하고 제물을 진설한다. 하르방·할망 제단이 따로 있어서 제물도 따로 차려 올린다. 제사도 따로 벌인다. 홀기는 없으나 축문은 있다. 소지를 사르는 것으로 제사를 마무리한다. 제사를 마치면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음복을 한다. 여느 유교식 마을 제사처럼 여자의 참여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마을에서는 유교식 마을 제사인 포제를 따로 지낸다. 포제단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는 철저하게 당제와 포제가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당제를 유교식으로 바꾸어 지내는 경우 대체로 별도의 마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당제를 유교식으로 지내면서 별도의 유교식 마을 제사를 두고 있는 상귀리의 사례는 매우 특별하다. 이 마을 사람들이 본향당신에 대한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징 제사 장소와 제일, 제물 등은 무속식 그대로 두고 제사 시간과 주체만 유교식으로 바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의의 마을 사람들이 본향신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든 지속해 보려는 시도로 주목할 수 있다. 메인심방 제도가 사라지고 큰심방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당굿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나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본향신에 대한 의례를 지속해 온 사례이다.

참고문헌 **민속사진집 령**(현용준, 도서출판 각, 2004),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2-민속**(북제주군, 1998).

필자 **강정식(姜晶植)**

제주성읍리포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쪽에 위치한 표선면의 중산간 마을에 속하는 성읍1리 주민들이 지내는 유교식 마을 제사. 매년 음력 정월 상정일(上丁日) 또는 상해일(上亥日)에 마을의 대표 11명을 제관(祭官)으로 선정하여 지낸다.

역사 성읍1리에서 포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제관건기(祭官建記)』라는 기록에 따르면 제관으로는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전사관(奠祀官)에 차헌관(次獻官)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사로는 집례(集禮), 대축(大祝), 찬인(贊人), 찬자(讚者), 알자(謁者), 봉향(奉香), 봉로(奉爐), 봉작(奉酌), 전작(奠酌), 사준(司樽), 취반(炊飯), 도예차 등 모두 17제관이 마을 사람 가운데 선정되어 포제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경 중심의 생업 형태가 다양한 업종으로 바뀌면서 제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1982년부터 제관의 수를 줄였다고 한다. 우선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던 준소(樽所)를 제단 안으로 옮김으로써 준소를 담당한 집사의 수를 줄였으며, 부녀회에서 제청 내 음식 준비 등을 담당함으로써 취반(炊飯)을 줄일 수 있었다. 물론 헌관과 집사의 유고를 대비하여 운영한 예차 헌관과 도예차도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운영하도록 조정하였다고 한다.

내용 **1. 제관 선정** 성읍1리 주민들의 무사풍요를 기원하는 포제의 제관은 성읍1리 마을향회에서 선정한다. 제관은 집안이 우수하고 몸이 깨끗한 사람으로 정하였다. 장가를 가지 않았거나 상처(喪妻)한 사람, 상복을 입은 사람은 제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피했다고 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여느 때와 달리 대단한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을 자제하고 부인과도 내외를 한다. 흉사(凶事)에 다니지 아니하고, 병원이 있는 방향을 피하여 돌아간다. 젊은 딸이 있는 경우 이웃이나 친척 집으로 보내 있을지도 모를 부정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비하게 하였다.

2. 제청 제단이 있는 곳에 제청을 마련한 것은 1983년쯤이다. 그 이전에는 개인 집을 제청으로 정해 입재를 하였으며,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등 마을 내에서 직책이 있는 사람의 집이 주로 선정되었다. 좀 잘 사는 사람의 집이어야 경제력도 있고, 집안 내의 공간도 넓어서 여러 사람의 제관이 들어와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 집을 제청으로 정해 입재할 때는 닷새 동안 정성을 들였다고 한다. 일단 제관들이 제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만 생활하여만 했다. 목욕도 가마솥에 물을 끓여 하고, 제의 봉행 전날에는 직접 희생을 손질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때 제관의 식사는 제관의 사가(私家)에서 준비해 제청으로 가져와 올렸다. 경제력이 약한 집안의 사람들은 이 때문에도 제관 선정을 기피하기도 했다고 한다. 제관들의 식사를 제청에서 공동으로 준비하여 이용하게 된 것도 제단 내에 제청을 꾸미고 나서부터라고 한다.

3. 입재 제관들은 사흘 동안의 입재 정성을 통해 제의 봉행에 임하였다. 첫날 아침 9시쯤 입재 상견례, 둘째 날 희생 등 제물 준비 및 봉하는 의식, 셋째 날 제의 봉행 및 음복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날 상견례에서는 헌관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한 해의 무사 안녕을 서로에게 축원하는 인사를 하게 된다. 상견례가 끝나면 식사를 한다. 그 이후에 제관들은 헌관방과 집사방을 통해 직분에 맞는 소임에 대해 익히게 된다. 대축 집사는 헌관들 앞에서 종이를 잘라 헌관과 집사들의 직분을 적은 집사방을 작성하여 헌관과 마을 원로들의 점검을 받아 제청 내에 붙인다.

둘째 날에는 희생과 여러 제물을 준비한다. 포제에 제물로 사용되는 '메'는 도량서직 네 가지를 쓰던 것을 좁쌀, 수수쌀, 흰쌀, 찹쌀을 한 되씩 준비해 올린다. 희생(犧牲)으로는 검은 수퇘지로, 통째로 손질하여 올린다. 물론 모혈(毛血)도 함께 준비했다가 올린다. 녹포(鹿脯)로 상어, 생선으로 옥돔, 쇠고기를 준비한다. 그리고 사과, 배, 곶감, 밤, 대추, 밀감 등 과일과 채소로 청저(靑菹)로 쓸 '미나리채'와 근저로 쓸 '무채'를 준비한다. 소금과 폐백(창호지, 옥양목), 향저(香箸, 향나무 젓가락) 다섯 개, 제주(祭酒)로 청주(淸酒)를 준비한다. 이 밖에도 향, 초(초롱 포함), 칼, 홀기(笏記), 축문(祝文), 지방(紙榜)을 준비한다. 하단 제물로는 대미로 쌀 한 되, 중미로 메밀쌀 한 되, 소미로 기장쌀 한 되, 생선 구운 것 한 마리, 과일 일곱 가지, 돼지 내장 삶은 것 전부, 제주로 소주 한 병을 준비한다.

4. 제비 물자나 제물을 구입하는 등 제의 봉행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에는 불턱(해녀들이 물 밖으로 나와 불을 피우는 곳)을 나눈 집마다 분담할 수 있는 제미(祭米)를 갹출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 후 생활이 바뀌면서 쌀을 갹출하는 풍습은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구당 2,000원에서 5,000원의 제향비(祭享費)를 마을향회에서 갹출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각 동의 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거두어 활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2001.2.5, 김동섭

제관들

삼헌관

용하였다고 한다.

5. 제복 예전에는 제관에 선정된 사람들은 제각각 직분에 맞는 제복을 준비해 입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1994년쯤부터 마을 공동으로 준비한 제복을 이용하고, 마을회에서 주관하여 매해 세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관들의 제복으로 유건(儒巾)과 녹색의 도복(道服), 행경(行傾)이 갖추어져 있다.

6. 진설 자정이 가까워오는 밤 10시 50분쯤이 되면 '메' 재료로 올린 좁쌀과 차좁쌀, 곤쌀과 찹쌀을 내려 '메'를 치기 시작한다. 11시 30분쯤이 되면 메가 완성된다. 이때 제관들은 한복과 두루마기를 손질하고 그 위에 제복을 차려입기 시작한다.

제복을 차려입은 제관들은 제단으로 옮겨간다. 이때 청년회원과 집사들은 준비한 제물을 함께 옮겨간다. 어둠을 밝히는 사각 초롱불에 의지하면서 '새'를 깐 제단 내에 제물을 진설하면 제의 준비는 전부 끝난다.

7. 제차 포제는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헌관들이 집사의 안내를 받아 제장에서 제의가 이루어진다. 준비례-전폐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례-철변두-망료례-마침례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이하게도 제의에 동참한 원로, 청년회원 등 참례자들을 위한 참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8. 하단제 포제를 마치고 나면 제단 아래쪽에 마련된 하단으로 이동하여 진설한다. 하단에는 3위의 신(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제수임신, 마을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염제신, 육축의 번성과 농업의 번성을 관장하는 목동신)이 모셔져 있다. 이들을 위하는 제의에서는 이장이 제관이 된다. 홀기나 별도의 형식은 없으나 우선 이장이 제단 앞으로 나와 사배를 올린다. 그리고 잔으로 올리는 헌작을 드리고 조금 물러나 무릎을 꿇으면 대축이 나와 축문을 내려 고축한다. 이러는 과정을 삼신위(三神位)에게 별도로 고하고 물러난다. 그리고 다시 잔을 올리고 물러나면 옆에 있는 집사들이 축문을 내려 소지를 하고 하단제를 전부 마친다.

9. 음복 제청으로 돌아온 제관들은 제복을 벗어놓는다. 제관과 집사들은 물론 일부 참여자들도 함께 음복을 한다. 음복에는 희생으로 올린 돼지 두 마리를 삶아서 음복에 충당한다.

참고문헌 제주도 마을제 종합보고서-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2010).

필자 김동섭(金東燮)

진설
제주 서귀포시 포선면 성읍1리, 2001.2.5, 김동섭

제주쇠당의례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민들이 우마(牛馬)를 잃었을 때 신에게 그것을 찾기를 기원하는 의례.

유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2리에는 '윤남동산'이라는 신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승된다.

> 옛날 어떤 사람이 이 길을 지나다가 소나기를 만났다. 비를 피하기 위해 이 언덕바위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비를 피하고 있다가 심심하여 지팡이로 흙을 짓이겼다. 그러고는 그 흙으로 인형을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비는 그쳤고, 그 사람은 그곳을 떠나며 인형을 그 자리에 놓고 "너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다리를 절게 하여 얻어먹어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몇 년 뒤에 그 앞을 다시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말이 다리를 절었다. 이상하게 여겨 인형을 찾았더니 그곳에 인형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인형을 들고 "은공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고는 부쉈다. 그랬더니 그 인형의 몸속에서 붉은 피가 흘러 나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말의 다리가 절었고, 이 당 앞을 지날 때에는 당신에게 돈을 바쳐야만 말이 무사하였다.

내용 제주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소와 말을 방목에 의존하여 사육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마소를 잃어 애를 태우는 일이 잦았다. 이를 되찾기 위하여 일정한 성소(聖所)에서 신에게 우마가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례가 전승되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마을 동쪽에는 '쇠당'이라는 신당(神堂)이 있다. '쇠당'은 현재 폐당된 상태이지만 흔적은 엿볼 수 있다. 이 신당은 밭담 아래 잡석을 쌓아 제단으로 삼았다. 이곳에는 '쇠하르방'과 '쇠할망'이라는 신이 거처한다고 믿었다. 소나 말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이 신당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의례를 올리며 잃은 우마를 찾아 달라고 당신(堂神)에게 빌었다. 이 신당에서 의례를 올리고자 할 때에는 제물과 함께 짚신 한 켤레를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당신에게 자기가 올린 짚신을 신고 나와 함께 동행(同行)하여 잃은 우마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사설을 구송(口誦)하였다. 그러고 나서 잃은 우마를 찾으러 산으로 올랐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2리에 '윤남동산'이라는 신당이 있다. '윤남'은 윤노리나무의 제주어이다. 윤노리나무는 자그마한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데, 바로 이곳을 두고 '윤남동산'이라고 한다. '윤남동산'은 당신의 영험성이 세기로 유명하여 조선시대에는 목사(牧使)도 이 당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려 돈을 바치고는 걸어가야 했다. 먼 길을 갈 때 도시락을 들고 가는 사람들도 이 당 앞에서는 도시락을 열어 음식을 조금 던져 주고 지나가야지 그대로 지나갔다가는 흉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지금은 '윤남동산'의 이야기처럼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돈을 바치는 일은 없지만 우마를 잃은 사람들이 그것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의례는 전승되고 있다. 우마를 잃은 사람은 '윤남동산'의 제단에 제물과 동전을 올리고 나서 절을 한다. 그리고 제물의 일부분을 떼어내 멀리 내던진다. 그러면 항상 까마귀가 날아와 음식물을 주워 먹고 어디로 날아간다. 그 까마귀가 날아간 방향으로 따라가면 어김없이 잃은 우마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좌동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제주도전설(현용준, 서문문고, 2002), 행원리의 민간신앙(고광민, 현곡양중해박사화갑기념논총, 제주대학교 간행위원회, 1987).

필자 고광민(高光敏)

제주신촌리포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조천읍의 바다에 연해 있는 신촌리 주민들이 매년 정월 상정일(上丁日) 또는 상해일(上亥日)에 지내고 있는 유교식 마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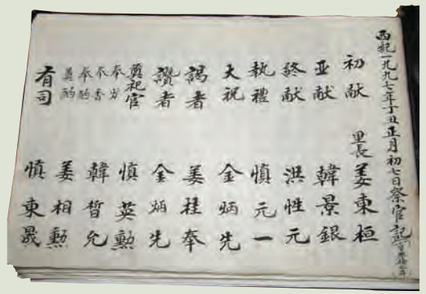
역사 신촌리에서 언제부터 포제가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포제제관기(酺祭祭官記)』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보아 1860년부터는 포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제관으로는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집례(集禮), 대축(大祝), 알자(謁者), 찬자(讚者), 전사관(奠祀官), 봉로(奉爐), 봉향(奉香), 봉작(奉酌), 전작(奠酌), 사준(司樽), 유사(有司)의 총 14제관이 마을 사람 가운데 선정되어 포제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포제와 함께 치르고 있는 용신제는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 제관과 집사는 포제에서와 같으나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관을 선정하고 제물을 준비해 치르고 있음이 다르다.

내용 **1. 제관 선정** 사토지신(四土之神)을 봉축하고 향민의 안분낙업(安分樂業)을 기원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포제의 제관은 신촌리 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초헌관은 이장이 맡는다. 해상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용신제의 제관은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이 중심이 되어 선정한다. 여기에서 초헌관은 어촌계장이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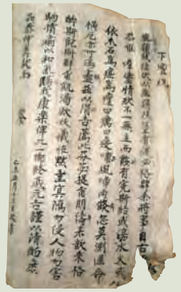
제관에 선정되면 여느 때와는 달리 대단한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을 자제하고, 부인과도 내외를 한다. 흉사에 다니지 아니하고, 병원이 있는 방향을 피하여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997.2.14, 김동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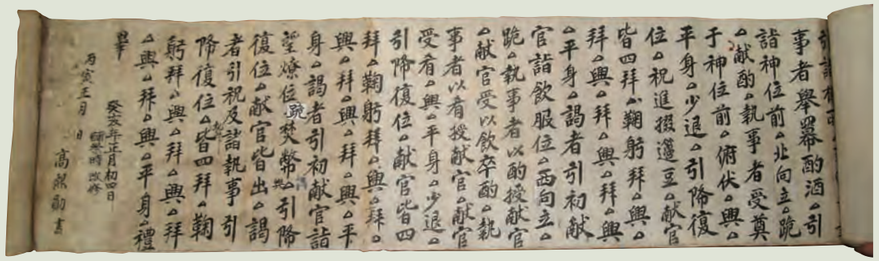


정축년(1997) 제관기

포제축문



하단축문



홀기(부분)

돌아가며, 젊은 딸이 있는 경우 이웃이나 친척 집으로 보내 일어날지 모르는 부정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비하게 한다.

2. 제청 신촌향사는 향사 건물과 관리사로 갖추어진 건물로, 1975년 3월 12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공무(公務)를 처리하던 곳이다. 정확히 언제 건립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중동 길가에 있던 것을 1805년(순조 5)에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몇 차례의 보수·개조로 변형된 것을 옛 모습처럼 보수하여 신촌리사무소로 사용하다가 1977년 신촌리사무소를 새로 지어 이사한 뒤로 사용치 않고 있다.

향사 건물은 전면 일곱 칸, 측면 두 칸의 우진각지붕의 기와집이다. 중앙의 대청이 넓다. 이곳에서 제관들의 입재 정성은 물론 신촌리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사 건물은 향사 왼쪽에 위치하며, 전면 세 칸의 우진각지붕 기와집이다.

3. 입재 제관들은 3일간의 입재 정성을 통해 제의 봉행에 임하고 있다. 예전에는 제관에 선정된 사람들이 제각각 직분에 맞는 제복을 준비해 입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복을 갖고 제청에 입재를 하면 마을 공동으로 준비한 제복을 사용한다. 이장이 주관하여 매해 세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관들의 제복으로 유건(儒巾)과 녹색의 도복(道服), 행경(行傰)이 갖추어져 있다.

입재는 첫날에는 상견례를 하고, 둘째 날에는 희생 등 제물 준비 및 봉하는 의식을 하고, 셋째 날 제의 봉행 및 음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관들의 입재가 이루어지면 제청은 물론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 세 곳(원당봉 옆 입구, 신촌초등학교 옆 입구, 조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왼새끼로 만든 금줄인 '삿'을 맨다. 이는 마을민의 안녕을 위한 제의가 치러지고 있음을 알려 부정한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표식이다.

첫날 상견례에서는 헌관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한 해의 무사 안녕을 서로에게 축원하는 인사를 한다.

둘째 날에 대축 집사는 종이를 오려서 축문과 신위를 작성한다. 그 외의 제관들은 아침부터 희생을 손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997.2.14, 김동섭

포제

용신제 진설모습

질하는 등 제물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오후 4시쯤부터 제물을 봉한다. 제복으로 갖추어 입은 제관들이 준비한 제물을 일일이 헌관들에게 아뢰고 점검을 받는 의식이다. 점검을 받은 제물은 제상(祭床)에 신위(神位)와 함께 진설한다.

포제 제물로는 희생(犧牲)으로 돼지 한 마리, 쇠고기 한 근, 청저로 미나리 반 단, 근저로 무 한 개, 과일 일곱 종, 대미로 쌀 한 되, 중미로 메밀쌀 한 되, 소미로 기장쌀 한 되, 제주로 생감주 한 병, 폐백으로 시렁목 일곱 자, 속지 한 권을 준비한다.

하단 제물로는 대미로 쌀 한 되, 중미로 메밀쌀 한 되, 소미로 기장쌀 한 되, 생선 구운 것 한 마리, 과일 일곱 종, 돼지 내장 삶은 것 전부, 제주로 소주 한 병을 준비한다.

용신제 제물과 용신제 하단제의 제물은 포제 때와 같다.

마을 포제와 용신제의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전사관(奠祀官)은 큰물 '본향당', 동쪽의 '불턱할망당', 일레낭거리에 있는 '일레할망당'을 찾아 배례(拜禮)하고

어촌계 용신제당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997.2.14
김동섭

마지막으로 신촌리민의 안녕과 무사 풍요를 기원하고 돌아온다. 이때 메와 생선, 과일 일곱 종, 감주 한 병을 준비해 제단에 차리고 위한다. 이것이 마을의 전통 풍습이다.

물자나 제물을 구입하는 등 제의 봉행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에는 불턱을 나눈 가구당 분담할 수 있는 제미(祭米)를 갹출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 후 생활이 바뀌면서 쌀을 갹출하는 풍습은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구당 2,000~5,000원의 제향비(祭享費)를 마을향회에서 갹출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각 동의 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거두어 활용한다.

4. 제의 순서 포제는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제장에서 준비례-전폐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철변두-음복례-망료례-마침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홀기에는 헌관들이 들고 있는 홀(笏)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음복례가 철변두 다음에 이루어지는 점도 다른 마을과 차이가 난다.

포제를 마치고 나면 측면에 마련된 하단제를 봉행한다. 하단제는 포제에 따라온 잡귀들을 위한 제의이다. 왼쪽에 작은 상을 설상하고 보시메 세 그릇, 바닷고기, 과일을 차린다. 이때에는 전사관이 초헌관이 된다. 전사관은 우선 사배(四拜)를 하고 잔을 석 잔 올린다. 그러면 그 옆에 서 있던 집례가 다가와 꿇어앉아 고축하고 잡귀를 쫓는 독경을 한동안 하다가 독경 말미에 술을 입에 물었다가 뿜는다. 이때 전사관과 집례는 물러나고 집사들은 밖으로 나가 잡귀를 대접하

면 하단제도 전부 마친다.

그런 뒤 바닷가에 별도로 마련한 어촌계의 용신제단으로 옮겨 가 어촌계원 중심으로 구성한 별도의 제관들이 포제 때와 같은 형식으로 용신제를 지낸다.

용신제까지 제의를 모두 마치면 제관과 집사들은 신촌향사에 돌아와 제복을 벗어 놓는다. 그리고 제관 · 집사는 물론 참여자들도 함께 음복을 한다. 음복에는 희생으로 올린 돼지 두 마리를 삶아서 음복에 충당한다.

참고문헌 **제주도 마을제 종합보고서-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2010), **조천읍지**(김민규, 조천읍, 2010).

필자 **김동섭(金東燮)**

제주신흥리방사탑

정의 제주지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 자연석을 원통형으로 쌓아 올린 탑. 1995년 8월 26일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마을 사람들이 만든 포구(浦口) 내에 넓고 평편하게 형성된 암반(巖盤) 위에 하나를 세웠고, 포구를 형성하는 코지의 높은 곳에 또 하나를 세웠다. 원통형의 탑 위에 '돌하르방'처럼 생긴 돌기둥을 세워 놓은 것도 있다.

신흥리는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14㎞ 떨어진 조천리와 함덕리 사이의 바닷가에 자리한 마을이다. 북쪽은 바다이고, 나머지 방향은 조천리와 함덕리가 둘러싸고 있다. 땅은 좁게 물가를 따라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는 마을은 예부터 '왜포', '내포(內浦)', '고포'라 불리던 곳이다. 주변의 다른 마을에서 분리되어 그들 마을보다 늦은 1914년 무렵에 형성되었기에 신흥리라 불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어촌과 같이 바다를 가꾸면서 농사도 짓고 있다. 해마다 정초에 남성들은 포제(酺祭), 여성들은 당굿, 어촌계원들은 해신제(海神祭)를 각각 지내면서 마을민의 안녕과 계원들의 해상에서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다. 2010년 현재 270가구 73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바다와 밭을 함께 가꾸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어촌이다.

신흥리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바다와 연결된 평탄한 암반으로 되어 있고 지형이 '깅이(게)' 형국을 하고 있어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쫓기듯 허덕이면서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을 지나가던 신안(神眼)이 마을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편을 보고 '탑'을 세워 방비(防備)할 것을 일렀다.

마을 사람들은 협력하면서 5개의 탑을 포구 주변에 세웠다.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2개만이 옛 모습 그대로 전해질 뿐이다. 볼래낭 할망당 부근에 세운 것과 마을을 가로질러 포구로 이어지는 '새물깍' 부근의 갯가 수문(水門) 근처 '덕장'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곳에 세운 것은 성창을 만들 때 훼손되면서 옛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다.

탑을 세우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언제나 쫓기듯 살던 팍팍한 삶이 개선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활도 번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2010.6.17, 김동섭

신흥리방사탑 1호

신흥리방사탑 2호

신흥리 포구주변 탑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2010.6.17, 김동섭

신흥리방사탑 1호 마을에서 도로를 따라 신흥리 포구에 닿으면 포구 중앙에 바다 쪽으로 길게 자연석을 쌓아 만든 방파제가 뻗어 있다. 포구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이어서 '큰개'라고 불리는 곳이다. 포구로 밀려 들어오는 멸치 떼를 몰아서 잡을 때 이용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한다. 신흥리방사탑 1호는 이 방파제의 끝에서 5m 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큰개에 있는 탑이라는 뜻으로 '큰개탑', 새들이 움푹 파인 상부에 날아와 새끼를 부화하는 곳으로 이용하면서 '생이탑'이라고도 부른다. 특히 신흥리방사탑 2호인 '오다리탑'과 대비시켜 음탑(陰塔)이라고도 불린다.

신흥리방사탑이라는 명칭으로 1995년 8월 26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8-10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이 탑은 조천읍 신흥리 521번지(큰개)에 위치한다.

높이 245㎝로 사람 키보다 높다. 밑지름은 370㎝, 윗지름은 330㎝이다. 평상시에 물이 들어와 바닥을 볼 수 없지만 물이 빠졌을 때 보면 현무암 자연석 암반 위에 큰 돌로 굽을 놓고 그 위로 갈수록 작은 잡석을 쌓아 올려 전체적으로 밑이 넓고 위가 좁은 원추형이다. 상부는 편평하게 보이지만 중앙 부분이 50㎝ 정도 움푹 파여 있다.

신흥리방사탑 2호 마을에서 포구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가면 현무암의 자연석들로 인해 조금 높은 듯한 곳에 자연석을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신흥리방사탑 2호가 있다. 탑 상부에는 사람의 얼굴을 조각한 것처럼 생긴 현무암 자연석이 얹혀 있다.

바다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시멘트 포장을 한 도로가 난 긴 '코지'가 있다. 이곳을 마을 사람들은 '오다리코지'라고 한다. 지금도 탑 옆에서 성게 작업을 하는 나이 드신 해녀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신흥리방사탑 2호를 오다리 코지에 있는 탑이라는 뜻으로 '오다리탑', 상부에 세워 놓은 양근(陽根) 같은 석상 때문에 신흥리방사탑 1호인 '큰개탑'과 대비해 '양탑(陽塔)'이라고 부른다.

이 탑은 신흥리방사탑이라는 명칭으로 1995년 8월 26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8-11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 탑은 조천읍 신흥리 531-1번지(불턱)에 위치한다.

바닥이 불균형을 이루어 높이를 측정하기 어렵다. 높은 쪽은 250㎝, 낮은 쪽은180㎝ 정도이이며, 밑지름은 432㎝, 윗지름은 410㎝ 크기이다.

코지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 놓은 것이어서 언제나 전체를 볼 수 있다. 현무암으로 구성된 잡석을 모아 굽을 만들고 그 위로 갈수록 작은 잡석을 쌓아 올려 전체적으로 밑이 넓고 위가 좁은 원추형이다. 상부는 편평하게 보이지만 중앙 부분에 사람 형상을 한 돌을 세워 놓았다.

2006년에 해안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신흥리 포구 주변에 3개의 탑 세 개를 더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 형태와 크기는 선인(先人)들이 쌓은 것과 비슷하다. 두 개는 큰개탑보다 좀 더 북쪽인 바다 쪽으로 나가 양식장이 있는 곳에서 사구(砂丘)가 발달해 물이 빠지면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바닥은 현무암을 암반으로 하여 역시 굵고 큰 현무암을 굽으로 놓고 위로 갈수록 작은 돌을 쌓아 올려 밑이 넓고 위가 좁은 원추형을 이루고 있다. 상부에는 석상인 듯 느껴지는 돌을 올려놓았다.

또 하나의 탑은 발달한 사구가 끊긴 지점에 형성

된 암반 위에 굽을 놓고 현무암의 잡석을 쌓아 올렸다. 밑이 넓고 위가 좁은 원추형이다. 상부에는 사람 모습인 듯한 돌을 얹어 놓았다.

나머지 하나는 포구 오른쪽으로 말굽형의 코지 위 높은 동산에 위치하고 있다. 소형 보트가 정박하는 시멘트로 만든 포구를 곁에 두고 자리한 해신당(海神堂)의 제단 옆에 잡석을 쌓아 올려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안전, 풍어, 만선을 담당하는 해신을 매년 정월 초아흐렛날에 모셔와 위하는 곳이다. 밑지름이 넓고 윗지름이 좁은 원추형이며, 상부에는 키 큰 돌을 세워 놓았다.

마을 사람들의 바쁘고 지친 삶으로 몰아가는 액을 방비하게 위해 신안(神眼)이 일러주고 마을 사람들이 세운 탑은 옛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웃 주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온전하게 자리하고 있다.

필자 김동섭(金東燮)

제주신흥리포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마을에서 매년 정월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택일하여 벌이는 마을제.

역사 이 마을은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포제를 지낸 역사도 그리 오래지 않다. 이웃 함덕리에 속해 있다가 늦은 시기에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1950~1960년대의 포제물종축홀기(酺祭物種祝笏記), 포제의식절차 등의 문건을 보존하고 있다.

형태 유교식 제법으로 포제를 상단제와 하단제로 나누어 지내고, 별도의 장소에서 해신제를 지낸다. 마을공동체 전체의 의례와 특정한 생업공동체의 의례를 함께 지낸다. 바다가 주요 생업 공간인 사정이 반영된 셈이다.

기능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을 기원함으로써 삶에 대한 활력을 고취하고 마을 공동체 전체의 유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내용 신흥리에서는 포제를 위한 제단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마을회관 2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행제를 한다. 이곳을 흔히 '제방(祭房)'이라고 한다. 1층의 경로당을 제청으로 삼고 정성을 들인다. 제청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한쪽에 제관들이 기거하는 곳을 정해 두고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공간으로 삼는다. '포제동산'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단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관련 전승이나 기록이 없어 상세한 내력은 알 길이 없다.

신흥리에서는 포제를 지낼 때 해신제를 함께 지낸다. 포제는 상단제, 하단제로 나뉜다. 상단제는 포신을 위한 것이다. 포신은 마을 전체의 안녕과 생업의 풍등(豊登)을 돕는 신이다. 하단제는 다수의 하위신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마을을 떠도는 무주고혼을 포함한다. 이들을 잘 대접해야 탈이 없다고 한다. 해신제는 해신을 위한 것이다. 해신은 바다일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등을 돕는 신이다.

본래 제일, 제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은 마을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제일은 정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골랐다. 마을에 상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포제를 연기하였다. 제관은 덕 있는 사람, 연령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한다. 부부가 해로하는 이여야 한다.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제관 자격이 없다. 마을이 작아서 성씨나 동네를 안배하는 일은 없다. 소집사는 장가든 사람 가운데 고른다. 요즘에는 제관 선정 방법이 바뀌었다. 제관은 노인회에서 선정한다. 집례, 알자 등 소제관과 해신제 제관은 이장이 선정한다. 과거에는 개인 집을 제청으로 삼았다. 향장(鄕長)과 두로(頭老) 등 원로들이 해마다 적절한 방위를 보아 선정하였다. 깨끗한 집, 상중(喪中)이 아닌 집이어야 하였다. 주인은 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안주인은 식사 준비를 도와야 하였다.

옛날에는 제비를 가구마다 일정한 현물이나 현금으로 거두어 마련하였다. 마을 경비는 내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나 포제의 제비는 모두 냈다. 지금은 마을 공금으로 해결한다. 향우회, 사업체 등에서도 기부를 한다. 마을 사람들도 제청을 찾아 조금씩 희사를 한다. 적지만 바닷가에 밀려온 풍조(風藻)를 팔아 얻은 수익도 보탬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돈은 포제기금으로 따로 관리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집사들에게 수고비를 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제관은 제청에서 일정한 기간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 요즘에는 사흘 동안 합숙하며 재계한다. 이때 마을 어귀, 제청에 금줄을 걸어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금줄은 포제를 지내기에 앞서 걷어낸다. 과거에는 걷어낸 금줄을 태워 없앴지만 요즘에는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문전제, 철갈이, 칠성제 등을 하는 사람들이 얻어간다. 새끼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 제관들은 사흘 앞둔 날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개별적으로 제청에 모인다. 과거에는 신흥리사무소에 모여 함께 제청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제청에 도착하면 먼저 삼헌관을 모셔 앉히고 집례 이하 집사들이 절을 한다. 옛날에는 정성을 들이는 동안 큰물성창의 '셋물깍'에서 물을 떠다가 데워서 목욕하고, '셋물깍'의 물로 제물을 마련하는 데 썼다. 그러나 샘에 금줄을 치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샘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성을 들이는 동안 식사는 제관 집에서 책임졌다. 이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을 가려 제관을 맡겼다. 제관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 끼니마다 제청으로 날랐다. 헌관 이하 집사들은 제관들이 차려온 음식을 먹었다. 요즘에는 마을회관에 마련된 제청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끼니를 해결한다. 입재한 첫날 점심부터 하루 세끼의 식사를 제공한다. 제일 하루 전날 밤에는 부녀회에서 떡국을 제공한다. 예나 지금이나 돼지고기는 금한다. 음식을 장만하는 일은 주부 두 사람의 몫이다. 주부 두 명은 이장이 선정한다. 물품 구입은 부녀회에서 협조한다. 옛날에는 포제를 앞두고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행동거지를 조심하였다고 한다. 일주일 안에는 인분을 뿌리는 것도 하지 않고 '통시', '쉐막'에서 거름도 내거나 운반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축문은 하루 전날 아침 새벽에 목욕하고 나서 썼다. 지금은 붓으로 쓰지 않고 복사해두었다가 바뀌는 대목만 채워 쓴다. 두 차례가량 행제 연습을 한다. 옛날에는 희생을 장만하는 것이 큰일이었다. 희생은 돼지이다. 돼지는 두 마리를 준비한다. 포제용과 해신제용으로 두 마리가 필요하다. 포제용은 털과 내장만 제거한다. 제물로 쓰고 난 뒤에는 분육한다. 해신제용은 열두 부위로 나누되 머리와 꼬리만 제물로 쓴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의 음복용으로 쓴다. 과거에는 돼지를 처리하는 일이 큰일이었다. 포제용은 집사들이 맡아 처리하고 해신제용은 마을 사람들이 맡아 처리하였다. 바닷가에서 불로 그슬어 돼지털을 제거하고 다시 제청으로 옮겨 나머지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양돈장에서 전사관의 감독 아래 모든 처리를 하여 가지고 온다.

하루 전날 저물기 전에 제물을 봉하는 의식을 행한다. 제청의 금줄을 걷어내고 제물을 2층 제장으로 옮긴다. 제관, 집사들이 모여 제물 봉하는 의식을 행한다. 집례가 고하는 대로 제물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제상에 올려 봉한다. 제물마다 일일이 백지로 띠를 만들어 묶는다. 이때 제관과 집사는 모두 제복으로 갖추어 입었다가 끝나면 벗어서 두루마기 차림으로 대기한다. 삼헌관, 집례, 대축, 알자는 청금(靑衿)을 입는다. 나머지는 하늘색 두루마기를 입는다. 삼헌관은 갓, 나머지는 유건을 각각 쓴다. 행전은 차지만 버선 대신 양말을 신는다. 현재 이용하는 제복은 10여 년 전에 마련한 것이며, 제기와 함께 제방에 보관해 둔다. 밤 9시 반쯤에 봉한 제물을 진설하고 축문을 올린다. 그리고 쌀자루를 부엌으로 보내 메를 짓게 한다. 메는 포신, 해신의 몫 두 그릇을 산메로 짓는다. 과거에는 도량서직에 해당하는 쌀을 섞어 쪄냈으나 지금은 쌀로만 짓는다.

옛날 사가(私家)를 제청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장으로 이동하는 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였다. 이때는 주민, 특히 여자가 돌아다니는 것을 금하였다. 제관 일행을 가로지르는 불경을 저지를까 염려해서이다. 이 때문에 청년들이 미리 골목마다 지켜 서서 불상사를 방지했다. 집사(희생), 초헌관 · 아헌관 · 종헌관, 집례(폐백), 대축(축문), 알자(쌀 구덕), 기타(하단제, 해신제 제물) 순서로 이동하였다.

행제는 11시쯤에 준비하여 11시 30분에 시작하며, 대개 12시가 되기 이전에 끝난다. 포제는 상단제, 하단제로 나뉘고 해신제가 따른다. 상단제는 마을회관 2층의 제장에서 지낸다. 하단제는 마을회관 옆 한쪽 공간에서 행한다. 해신제는 바닷가에 따로 마련된 해신제단에서 행한다. 상단제가 끝나면 이어서 하단제를 한다. 하단제 제관이 단헌단작하고 고축하여 마친다. 해신제는 상단제를 위한 메를 진설하면 해신제단으로 출발하여 상단제의 시작과 동시에 지낸다. 역시 해신제 제단이 단헌단작하고 고축하여 마친다. 어

선이 있는 이들이 함께 따른다. 그곳에서 돼지머리로 음복을 한다. 본래 해신제는 포구 한쪽 귀퉁이에서 지낸 것이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면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7, 8년 전에 시유지에 담을 두르고 제단을 마련하였다.

제사를 마치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제장으로 올라가 배례를 한다. 음복은 마을 남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한다. 이 자리에서 포제와 관련된 수입 지출의 결산보고가 간단히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분육이 중요한 일이었다. 전사관이 남은 고기를 헌관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나서 나누어 주었다. 머리와 전각은 초헌관 몫이었다. 나머지도 상하에 따라 차례로 나누었다. 목, 후각, 숭(가슴) 등을 우선으로 쳤다. 집사는 나머지 자르기 좋은 것으로 조금씩 나누었다. 헌관 집에서 매 끼니 식사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고기를 많이 준 것이다. 이 밖에 상중이어서 상식(喪食)을 올리는 집, 연로한 어른이 사는 집에도 고기를 조금씩 보내었다.

한편 전각 하나는 남겨 두었다가 이날 아침 잠수굿이 초감제로 넘어가면 가지고 간다. 이때 삼헌관, 이장이 굿청에 가서 절을 하고 산을 받는다.

특징 상단제와 하단제를 나누어서 행하고, 다시 해신제를 별도로 행한다. 포제를 지낸 뒤에 그 제물로 당신에게 고하고 잠수굿을 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에 대한 의례는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한다. 신흥리마을은 뒤따르는 경우이다. 유교식 용신제, 무속식 잠수굿을 남녀별로 따로 행하는 사례인 점도 특별하다.

포제와 잠수굿이 바로 이어지는 점 역시 특별하다. 유교식 마을제와 무속식 마을제가 연이어 이루어지는 셈이다. 비슷한 사례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를 들 수 있다. 동복리에서는 포제를 지낸 뒤에 당굿을 벌인다.

의의 포제와 당신앙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와 남녀 의례가 철저하게 구별되는 사례로 주목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현지조사(2008년 2월 16~17일).

필자 강정식(姜晶植)

제주어음리비멘이당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비멘이 마을에서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벌이는 마을 제사.

이칭 당을 근거로 하여 벌이는 마을 제사여서 '당제(堂祭)'라고 한다. 제의 방식은 유교식이어서 다른 마을처럼 포제(酺祭)라고 할 듯도 하지만 당제라고만 한다. 달리 '본향제(本鄕祭)'라고도 한다. 이것은 축문에 함께 적어 두는 명칭일 뿐 사람들의 입에 흔히 오르내리는 명칭이 아니다.

역사 어음1리 당제의 역사는 당굿 형태로 오랜 역사를 거쳐 온 것이다. 지금의 당제는 본래 당굿으로 크게 벌이던 제의를 유교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큰심방을 불러 당굿을 성대하게 벌이던 오랜 전통이 있었다. 이때 제비는 제일 하루 전날까지 집집마다 돌면서 곡식을 거두어 마련하였다. 이 당시에는 어음1리와 2리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였다고 한다. 1947년쯤까지 이와 같이 당굿을 크게 하는 전통이 이어졌다. 4·3사건 당시에는 마을이 소개되는 바람에 당굿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제의도 지내지 못하였다. 메인심방도 난리통에 죽었다. 이 때문에 당굿의 명맥을 잇지 못하게 되었다. 당굿이 사라지게 되자 대신 어음1리 비멘이마을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제관을 선정하고 유교식 제의를 벌이게 된 것이다. 비록 마을 남성들이 유교식 제법으로 제의를 지내지만 여러 가지 무속식 제의의 전통은 그대로 계승하였다.

형태 무속신인 본향신을 대상으로 하여 무속식 제물을 올려 유교식 제법으로 의례를 행하니 무속식과 유교식이 절충된 의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내용 비멘이당제는 마을 뒷동산 '당밧' 지경에서 지낸다. 이곳에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흔히 '당제단'이라고 한다. 장방형으로 담을 높이 두르고 그 안에 역시 장방형의 제단을 두었다. 본래는 잡석을 대충 쌓아 제단으로 이용했으며 2003년에 지금의 제단을 마련하였다. 2,036㎡에 이르는 부지를 확보하고 진입로를 포장하였다.

제단 가까이에 이 마을 본향당인 비멘이할망당이 있다. 본래 이곳에서는 이 일대에서 이름난 심방을 불러 당굿을 크게 벌였다. 구전에 따르면 이 마을의 본향신은 송씨할망, 문씨영감이라고 한다. 송씨할망은 비멘이할망당에 좌정한 신이다. 문씨영감은 따로 좌정하여 당이 별도로 있었으나 오래전에 사라졌다. 문씨영감은 돼지고기를 먹은 부인이 부정하다 여겨 별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굿을 할 때에는 '공새미'에서 준비하여 깃발을 여러 개 들고 풍물을 치면서 당으로 이동하였다. '본향듦'에서는 문씨영감을 당으로 불러 모셔야 한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할망·하르방 상봉시킨다'고 하였다. 그런데 워낙 하르방을 모시는 것이 힘들어 심방들이 자진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한 시간 넘게 산판을 놓아 보아도 하르방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괘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였다. 그러면 주민들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술을 흩뿌리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당굿은 하루 종일 이어지게 마련이었다. 이와 같이 하니 이 마을 당굿이 구경거리로 부족함이 없었다. 사람들은 송당 다음으로 당굿의 규모가 컸다고 자랑한다. 인근의 봉성리, 납읍리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당굿을 구경하곤 하였다고 한다. 큰심방이 사라지자 당굿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당굿을 대신하여 당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요즘에는 일 년에 한 번 당에 가서 기원한다. 가족이 아프면 두 차례 찾기도 한다. 당에 갈 때에는 돼지고기 제수를 조금씩 따로 놓아 두었다가 가지고 가서 바친다.

당제를 지내기에 앞서 마을총회를 열어 제관 선정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의논한다. 마을총회는 대개 제일을 닷새쯤 앞두고 연다. 미리 마을 어른들과 의논하여 가려 둔 제관 후보자를 총회에서 공개하여 허가를 얻는다. 대개 대축을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제관은 어른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제관은 모두 다섯 명으로 구성된다. 헌관 세 명, 집사 한 명, 전사관 한 명이다. 초헌관은 이장이 맡는다. 집사는 대축을 겸한다. 전사관은 제물 구입과 준비를 전담한다. 제관은 장가든 사람 가운데 특히 복 좋은 이로 선정한다. 제관이 선정되면 제관들이 정성을 들일 제청을 정한다. 제청은 개인 집 가운데 비교적 깨끗한 곳을 고른다. 오후 4시쯤 미리 작성해 둔 원고를 토대로 하여 축문을 쓴다. 제관들에게는 약간의 수고료를 지급한다.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제관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제일을 앞두고 마을 어귀, 제청 입구, 제장 입구에 금줄을 친다. 마을 어귀에는 금줄을 높이 친다. 제관들은 제일 아침부터 행제할 때까지 제청에서 근신한다. 본래 일주일 근신하던 것이 사흘로 줄었다가 다시 하루로 바뀐 것이다. 지금도 앞선 이틀 정도는 집에서 정성을 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인적이 드문 아침 일찍 제청에 모인다. 아침 일찍 회의하여 제반 사항을 의논한다. 이를 '기돗제회의'라고 한다. 제청에 있는 동안 특별히 음식을 금기하지는 않는다. 돼지고기를 금기해야 한다는 것도 없다.

제비는 마을 공금으로 마련한다. 과거에는 가구별로 돈을 걷어 제비를 마련하였으나 지금은 공금이 충분하여 제비를 따로 걷지 않는다. 마을 경내에 소재한 유력 기관으로부터 상당액을 기부받고 있어 마을 공금이 풍족하다.

제물은 닭, 메, 시루떡, 돌레떡, 과일(대추, 밤, 귤 등), 채소(미나리), 생선, 소주 등이다. 희생(犧牲)으로는 수탉을 쓴다. 하르방신인 문씨영감이 돼지고기를 금기하기 때문이다. 이 닭을 '대제물(大祭物)'이라고 한다. 닭은 두 마리, 메도 두 그릇 준비한다. 이것은 할망·하르방 2위에 따로 올리기 위함이다. 다른 제물도 할망·하르방 2위에 올릴 수 있게 준비한다. 닭, 메, 시루떡, 돌레떡 등은 당굿을 할 때 흔히 쓰이는 제물이다. 이들 제물은 모두 제청으로 정해진 사가(私家)에서 준비한다. 그 집의 주부가 제관들의 식사와 제물 차림을 도맡는다. 당제에 참여가 허용되는 유일한 여성이기도 하다. 결국 제청을 정함에 있어 그 집에 제물을 준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10년 이상 같은 집을 제청으로 삼게 되었다. 제물을 준비할 때에는 '공새미' 물을 떠다가 쓴다. 물에 금줄을 치지는 않는다.

비멘이마을당제는 정월대보름날 밤 9시에 지낸다. 유교식 마을 제사는 대개 정월 상정일(上丁日) 자시(子時)에 지낸다. 이에 비추면 비멘이당제의 제일이나 행제 시간은 여느 마을의 유교식 마을 제사와는 매우 다른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그다지 오랜 일이 아니다. 이 마을에서도 본래 다른 마을처럼 자시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을 편의를 좇

아 이와 같이 바꾼 것이다.

준비 과정이나 행제 방식은 모두 흔히 말하는 유교식이다. 저녁 8시쯤 되면 마을 뒤쪽에 있는 제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 제청을 나서기 전에 미리 손을 씻는다. 제청 입구에 맨 금줄을 걷어내고 집사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 들게 하여 앞세운다. 매우 가까운 곳임에도 차를 타고 이동한다. 인원이 많지 않아 제물을 한 번에 옮기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장에 도착하면 먼저 제단을 청소하고 제물을 진설한다. 안쪽 벽에 '본향지신 신위(本鄕之神 神位)'라고 쓴 지방을 붙인다. 제물은 할망 · 하르방 두 신위 앞에 따로 진설한다. 제기는 제청으로 정해진 집의 것을 이용한다. 닭은 털과 내장만 제거하고 올린다. 닭의 생간을 내어 함께 올린다. 생선도 날것을 올린다. 이처럼 제물을 날것으로 올리는 것은 유교식을 따른 것이다. 메에는 띠 줄기를 조금 잘라 꽂아 놓는다. 메를 신위에 하나씩 올리고 띠 줄기를 꽂는 것은 무속식을 따른 것이다. 진설이 끝나면 각자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제복은 도포에 유건이다. 제복은 평소 마을회관에 보관해 둔다.

특이하게도 홀기는 따로 없다. 그러나 행제의 순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 전폐례-초헌례-독축-아헌례-종헌례-철변-분폐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대축이 배례를 하고 물러서면 삼헌관이 배례를 하고 전폐례가 이어진다. 축문은 다른 마을 포제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미리 써 둔 것을 대축이 독축한다. 축문의 첫머리에 제목처럼 적어 둔 것은 '본향제축(本鄕祭祝)'이다. 철변은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술잔에 모으는 것으로 대신한다. 철변을 한 뒤에는 삼헌관, 전사관, 대축 순으로 배례하고 물러난다. 이어 분폐가 이루어진다. 축문을 사르고 제관 각자가 소지를 사르는 것이다. 제관이 저마다 소지를 사르는 것은 무속식을 따른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모두 걷어낸다. 한편 제장에서는 엄숙해야 한다. 대화를 하거나 소리를 내서는 일절 안 된다. 그릇소리도 내지 않는다.

행제를 마치면 다시 제청으로 돌아가 음복을 한다. 음복은 제청에 모인 제관과 집사만 함께한다. 돼지를 희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분육(分肉)은 하지 않는다. 다만 따로 사 둔 암탉 몇 마리를 삶아 제관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옛날에는 처음으로 제관이나 집사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초행료'를 내라고 하여 술 한 되를 받아 나누어 마셨다.

한편 제관들이 제청에 들어가 행제를 마칠 때까지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따로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논다. 이때에는 돼지고기도 꺼리지 않고 먹는다. 동네 남성들이 대부분 모인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제주도 여러 마을에서 무속식의 당굿과 유교식의 포제를 병행하는 사례를 볼 수 있으나 이 마을에서는 흔히 포제라고 하는 유교식 마을제를 따로 하지 않는다. 마을 제사는 당제 하나뿐이다. 당굿이 그대로 당제로 바뀌어 유일한 마을 제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징 무속식과 유교식 제사법이 혼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게다가 간편화 현상이 더해져서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새를 보이기도 한다.

의의 당굿이 유교식 의례로 변화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마을신앙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현지조사(2005년 2월 23일).

필자 강정식(姜晶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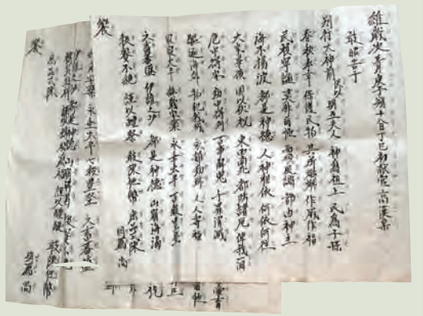
제주온평리포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유교식 마을 제사.

역사 온평리의 포제(酺祭)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 제주도의 향촌사회에 유교 의례가 보급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포제를 지내게 되면서 남자들이 맡아서 하는 유식(儒式) 포제와 여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식(巫式) 당굿으로 마을 제사가 이원화되었다. 하지만 모두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위하는 의례이다. 특히 온평리에서는 포제에 이어 본향당에서 '포젯굿'을 하고 있어 유식 마을제와 무식 마을제의 양상을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004.2.5, 서헌강

입재



축문

제물진설

제의봉행

한편 포제단은 예전에는 온평초등학교 옆에 있었으나 너무 일주도로 변에 있다고 여겨 1900년대 중반에 해안 쪽의 속칭 '진동산'으로 옮겼다고 한다. 온평리본향당에서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포제단이 있다.

내용 온평리포제는 '큰제'와 '별제'로 나뉜다. 큰제에서는 토지지신(土地之神), 별제에서는 본향지신(本鄕之神)을 각각 모신다. 큰제는 홀기에 따라 제관들이 모두 참여하지만 별제는 초헌관과 대축만이 가서 단헌단작으로 간단히 지낸다.

제장인 포제단 주변에는 돌담을 쌓았으며, 주위에 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있다. 큰제와 별제를 지내는 제단은 넓적한 바위를 이용하여 각각 따로 마련하였다. 큰제의 제단이 좀 더 크고, 별제의 제단은 큰제 제단의 왼쪽에 다소 작게 설치하였다.

제일은 포제의 일반적인 선정 기준인 '혹정혹해(或丁或亥)'에 따르지 않고 지관에게 가서 적절한 날로 택일하여 선정한다. 정월이 지나지 않도록 택일하고, 시간은 자시(子時)를 기준으로 한다. 입재(入齋)하기 전에 마을에 상이 나면 포제는 연기하고 입재 뒤에 상을 당하면 그냥 진행한다. 입재한 이후에 부정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명심한다.

포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장이 마을회의를 소집한다. 이를 포제향회(酺祭鄕會)라고 부른다. 포제향회에는 마을의 가구당 남자가 한 명 참석한다. 이때 상을 당하였다든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사람은 참석하지 않는다. 즉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향회에서는 제관을 선출하고 제향비(祭享費) 규모를 결정한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일정한 분량의 쌀을 모아 제비를 충당하였지만 현재는 마을기금과 부조비를 활용한다.

제관은 일정 기간 마을에 거주하고, 부정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며, 연령이 좀 있고 덕망 있는 주민 가

운데에서 선출한다. 예전에 제관이 많은 때에는 18제관이었으나 지금은 6제관이 제를 지낸다. 6제관은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대축(大祝), 집례(執禮), 알자(謁者)이다.

제물은 유식제례(儒式祭禮)의 진설법을 따른다. 곡류로는 도(稻), 양(粱), 서(黍), 직(稷)을 올리는 게 원칙이다. 여기에 폐백(幣帛), 실과(實果), 제주(祭酒), 녹포(鹿脯), 채소(菜蔬), 해어(海魚) 등을 마련한다. 적절한 해당 제물을 구하기 어려우면 대용을 사용한다. 희생(犧牲)으로는 소 한 마리를 쓴다. 제상에 올라가는 부분은 등심 부분이다. 나머지는 제상 옆에 따로 놓아둔다. 희생으로 소를 쓰는 이유는 마을 본향당신이 돼지고기를 부정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값이 비싸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소를 택하여 잡는다.

포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제관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제관에 선출되면 제관의 집에는 금줄이 쳐지고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된다. 포제 사흘 전에는 제관들이 모두 포제청에 모여 합숙하며 재계(齋戒)하게 된다. 예전에는 따로 포제청이 없어 주민들 가운데 부정하지 않고 포제단과 가까운 집을 골라 '제청 집'으로 선정하여 지냈다. 하지만 1996년에 마을노인회관이 지어지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는 노인회관을 포제청으로 사용하였다. 제기(祭器)와 필요물품도 공동으로 마련해 놓았다. 포제청에는 금줄을 쳐서 잡인들의 접근을 막는다. 제관들은 포제가 끝날 때까지 합숙하며 식사 등을 제공받는다. 제관들은 포제를 위해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해 놓은 청금(靑衿)과 유건(儒巾) 등 제복을 갖추어 입는다. 포제 하루 전날에는 예행연습을 충분히 하여 둔다.

포제는 포제단에서 해당 제관과 마을 유지, 부정하지 않은 남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지낸다. 이때 제물 준비를 맡은 여자는 원칙적으로 포제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돼지고기를 먹은 이는 참여할 수 없다. 본향당신이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정월이어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참여하는 이가 많은 편은 아니다. 포제의 행제(行祭)는 홀기(笏記)에 따라 전폐례(奠幣禮)-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철변두(撤邊豆)-망료(望燎) 순서로 진행된다. 축문은 해마다 새로 마련하며,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다만 그해에 특별히 기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한다. 포제가 끝나면 포제단에서 간단히 음복한 뒤에 포제청으로 돌아와 다시 함께 모여 앉아 나누어 먹는다.

한편 온평리에서는 포제를 지낸 뒤에 날이 밝기를 기다려 포제단 근처의 본향당에서 심방이 무속식으로 당굿을 한다. 이를 '포젯굿'이라고 부른다. 포제의 삼헌관도 당굿에 참여한다.

지역사례 제주도 전역에서 현재까지 포제를 지내는 마을이 여럿 남아 있다. 마을에 따라서는 농포제(農酺祭), 이사제(里社祭) 등 명칭이 다를 수도 있지만 포제라는 명칭이 가장 보편적이다. 포제에서는 보통 포신(酺神)·토신(土神)이나 지신(地神)·이사신(里社神) 등을 모신다. 포제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내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 중단되었다가 근래에 되살려 지내는 마을도 있다. 포제의 중단은 대체로 일제강점기나 4·3사건, 미신타파운동이 극심하던 산업화·근대화 시기와 관련이 있다.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포제의 준비와 행제법은 사실 대동소이하다. 한편 온평리와 같은 서귀포시 성산읍 관내의 시흥리, 오조리, 수산1리, 수산2리,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난산리, 신산리, 삼달1리, 신풍리, 신천리 등의 마을에서도 포제를 지낸다.

참고문헌 **남제주군문화유적분포지도**(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3), **백록어문 2**(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87), **제주도 마을제 종합보고서-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2010).

필자 강소전(姜昭全)

제주용수마을방사탑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포구에 있는 2기의 방사탑. 1995년 8월 26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8-8호와 제8-9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용수마을방사탑은 2기로 조성되어 있다. 1호는 북쪽의 '새원탑', 2호는 남쪽의 '화성물탑'이다.

방사탑 1호(민속자료 제8-8호)는 포구의 바닷가 암반 위에 잘 다듬어진 원추형으로 만들어졌다. 높이 370㎝, 밑지름 500㎝, 윗지름 260㎝이다. 쌓음돌은 현무암 잡석이며 막돌허튼층쌓기 방법으로 쌓았다. 방사탑의 안은 잔돌로 잡석채움하였다. 표준으로 선정한 쌓음돌의 크기는 127×82㎝, 100×57㎝, 46×43㎝, 44×23㎝이다. 탑의 윗부분에는 높이 100㎝, 너비 60㎝ 정도의 길쭉하면서 끝이 구부러진 돌을 세워 놓았다. 방향은 서쪽을 향하고 있다. 방사탑 위에 세운 이 돌이 매의 부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매조재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사탑 2호(민속자료 제8-9호)는 바닷가 암반 위에 원추형으로 세워졌다. 현무암 자연석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였고, 잡석으로 안을 채웠다. 크기는 높이 340㎝, 윗지름 220㎝, 밑지름 490㎝이다. 표준으로 선정한 쌓음돌은 상단과 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쌓음돌의 상단 크기는 48×30㎝, 50×20㎝, 44×28㎝이다. 하단은 108×89㎝, 120×60㎝, 97×32㎝이다. 탑 위에는 높이 105㎝, 너비 80㎝ 정도로 길쭉한 모양의 돌이 세워져 있다. 새의 부리와 비슷한 형태이다. 서쪽에 있는 차귀도와 바다를 향하고 있다. 방사탑 1호와는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제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010.6.6, 강소전

용수마을방사탑 1호

용수마을방사탑 2호

내용 용수리 포구에는 방사탑 2기가 남북으로 세워져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서 근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에 있는 방사탑은 포구의 오른쪽, 남쪽의 방사탑은 포구의 왼쪽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한편 방사탑이 자리한 지경의 이름에 따라 북쪽의 방사탑은 '새원탑', 남쪽의 것은 '화성물탑'이라고 부른다.

방사탑은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부정한 액을 막기 위하여 쌓아 올린 돌탑이다. 마을 안에서 허하다고 인식된 방위나 지경에 세워 놓는다. 용수리에서는 바다 쪽인 서쪽이 허하다고 여겨 방사탑을 쌓았다. 예부터 주민들이 고기를 잡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잘 들어오자 포구 주위의 남쪽과 북쪽에 1기씩을 세웠다고 한다. 새원탑 안에는 소의 목과 어깨 부위에 걸치는 멍에, 화성물탑 안에는 보습을 각각 묻었다고 전해진다. 마을의 허한 곳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술적 의미가 엿보인다.

참고문헌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1(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주거욱대**(강정효, 각, 2008), **제주민속유적**(제주도, 1997), **문화재청**(cha.go.kr).

필자 강소전(姜昭全)

제주인성리거욱대

정의 제주지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 자연석을 원통형(圓筒形)으로 쌓아 올린 설치물. 1995년 8월 26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2010.6.19, 김동섭

인성리거욱대 1호

인성리거욱대 2호

내용 넓은 농경지를 중심지로 형성된 '알벵뒤' 지경 안에 각각의 농경지를 잇는 농로(農路) 가까운 곳에 세워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안으로 악하고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는 수호신으로 여기며, 이를 '거욱대'라고 부르고 있다. 원통형의 설치물 위에는 '돌하르방'처럼 생긴 돌기둥을 세워 놓았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는 대정고을의 중심마을로 제주도 서남부에 위치한다. '남문앞물'은 현성 축조 당시에 파게 되었다고 한다. 현성을 쌓을 때 노스님이 지나가다가 모슬봉에 화기가 있으니 그냥 두면 마을 사람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일러주었다고 한다. 그 대책으로 마을 남쪽에 물을 파서 방비하라고 하여 이 물통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물은 주로 우마(牛馬)들의 급수나 빨래에 이용하였다.

인성리는 중산간의 여느 마을처럼 주변에 모슬봉, 송악산, 단산, 당산봉 등 오름이 많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는 대정읍 중심부이다. 제주시에나 서귀포시에서 대정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인성리는 예부터 교통이 특히 발달했다. 주변에 대정성지, 추사적거지, 대정향교가 있다.

인성리 안길을 이용하여 단산으로 가다 보면 '개죽은 못' 근처에 넓고 편평한 농경지가 나온다. 이를 마을 사람들은 '알벵뒤'라고 부른다.

단산과 모슬봉을 양쪽에 두고 중앙의 평탄한 곳에 자리 잡은 인성리는 농경지가 발달해 이웃 마을인 모슬포에까지 농경지가 이어진다.

지금은 방풍림(防風林)이 조성되거나 농경지 내에 비닐 하우스 등이 설치되어서 그리 넓지 않은 지역으로 보이지만 시설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만 해도 상당히 넓고 평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1416년에 대정현이 설촌되고 1418년에 축성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으로 보아 그 당시부터 인성리 마을도 형성되어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인성리는 대정현의 중심 마을로서 마을 사람들도 별 탈 없이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00년(광무 4) 당시 이문사 존위가 행정책임자로 근무할 때 마을에 까닭 모를 이유로 집에 화재가 발생하고, 우마들도 질병에 걸려 죽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존위는 마을 사람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화재와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만 했다. 마을 내에 글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찾아가 물어도 보고, 심방을 찾아가 문점도 해 보았으나 알 도리가 없었다. 하루는 용하다는 '정시'를 찾아가 의논하게 되었다. 그는 "인성리는 마을의 남방(南方)인 모슬봉과 단산 사이가 너무 넓고 지대가 낮아 풍수지리적으로 허(虛)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허한 곳으로 악운과 재앙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변고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이곳은 높은 산이나 돌 등으로 막혀 있지 않아 방위가 허하고 약하다고 알려진 곳이다.

정시는 '거욱대'를 세워 방비(防備)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몰려나와 협력하면서 '거욱대'를 세웠다. 지세가 허한 마을 남방의 넓고 평탄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2010.6.19, 김동섭

인성리거욱대 3호

인성리거욱대 4호

'알벵뒤'에 거욱대 네 개를 세워 방비하게 되면서 마을에는 평안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온 병과 화재도 잦아들게 되었고, 우마의 질병도 없어지게 되었다.

주민들은 농경지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 잡석을 이용하여 우선 눌급처럼 조금 큰 돌로 '굽'을 돌리고, 그 위에 차곡차곡 돌을 쌓았다. 사람 키의 1.5배 정도 높이로 거욱대 네 개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 올렸다. 전체적으로 원추형으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장군 모습으로 마을을 지켜 줄 수호신의 얼굴로 돌을 다듬어 세웠다.

단산과 모슬봉 사이의 '알벵뒤'에 세워진 네 개의 거욱대 가운데 두 개는 1995년 6월 28일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은 인성리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심하게 훼손된 두 개의 거욱대를 후대에 복구되면서 원형이 손상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마을에 전해 오는 네 개의 거욱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성리거욱대 1호 인성리의 거욱대 가운데 가장 왼쪽에 있다. 즉 단산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인가가 밀집한 마을 안길을 벗어나 단산으로 넘어가는 곳에 펼쳐진 농경지 사이로 여러 개의 농로(農路)가 설치되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로(水路)가 깊고 넓게 만들어져 있고, 그 수로를 경계로 하여 농경지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특별하게 달리 불리는 명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거욱대'라고 한다. 이 거욱대는 위치만 알려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전승되어 오다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보수되어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 거욱대는 대정읍 인성리 441번지에 있다.

농경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석을 밑지름이 넓고 윗지름이 좁게 쌓아올려 전체적으로 원추형을 이루고 있다. 상부는 편평하게 마감한 다음 사람 모습의 두부(頭部)와 몸통으로 형상화하여 돌하르방처럼 깎은 석상(石像)을 올려놓았다. 이 석상은 마을로 들어오는 액운을 막아내기 위해 남쪽을 향해 있고,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인성리거욱대 2호 인성리의 거욱대 가운데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하고 있다. 인가가 밀집한 마을 안길을 벗어나 모슬포 방향으로 접어들면 오른쪽에 있다. 농경지의 밭담을 무단으로 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보존 상태가 다른 것보다 양호한 편이다.

인성리방사탑 2호라고 명명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거욱대'라고 한다. 1995년 8월 26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8-16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주소는 대정읍 인성리 493(문화재 등록 497)번지이다. 농경지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석을 주로 쌓았으나 아래쪽 일수록 굵은 돌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밑이 넓고 위가 좁은 원추형이다. 거욱대는 높이가 220㎝ 정도로 사람 키보다 높다. 밑지름은 210㎝, 윗지름은 190㎝ 정도이다. 상부는 약간 동그랗게 정리한 다음 사람 모습의 두부와 몸통으로 형상화한 길쭉한 자연석을 올려놓았다. 상부의 자연석이 남쪽을 향하도록 하여 마을로 들어오는 액운을 막아 주도록 기원한 마을 사람들의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인성리거욱대 3호 인성리의 거욱대 가운데 인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모슬봉 방향인 왼쪽 농경지의 밭담을 경계로 하여 농로로 이어진 밭 가운데에 있다.

인성리방사탑 3호라고 명명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거욱대'라고 한다. 1995년 8월 26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8-17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대정읍 인성리 490-1(62-1)번지가 주소이다. 농경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석을 주로 쌓아 올였으며, 밑지름이 넓고 윗지름이 좁은 원추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 높이가 220㎝ 정도로 사람 키보다 높다. 밑지름이 200㎝ 윗지름은 170㎝ 정도이다. 상부는 편평하게 한 다음 사람 모습의 두부와 몸통으로 형상화한 길쭉한 자연석을 올려놓았다. 이 상부의 자연석은 마을로 들어오는 액운을 막아내도록 하기 위한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인성리거욱대 4호 인성리의 거욱대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다. 즉 모슬봉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있어 모슬포로 이어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 방풍을 위해 높게 쌓은 밭담을 넘어가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거욱대와 농경지 사이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깊고 넓게 만들어진 그 수로를 경계로 하여 농경지 바깥쪽에 있다. 주변에는 산담과 같이 거욱대를 보호하기 위해 장방형(長方形)의 홑담이 둘러쳐져 있다.

이 거욱대는 예전에 훼손되었다가 마을 사람들이 후대에 복원한 것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채 전승되고 있다. 주소는 대정읍 인성리 587-1번지이다. 농경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석이라기보다 석공들이 석축을 쌓기 위해 사용하는 각석에 가까운 돌로 쌓아 올렸다. 전체적으로 원통형이 되도록 밑지름이 넓고 윗지름이 좁다. 상부는 편평하게 한 다음, 사람의 모습을 두부와 몸통으로 형상화하여 돌하르방처럼 깎은 석상을 올려놓았다.

특히 현성과 가깝기 때문인지 수로 너머 농경지의 가장자리와 거욱대가 자리한 반대쪽의 공터에는 쉽게 옮길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각석들이 모여있다. 이로 미루어 현성을 쌓을 때 이용한 석재의 일부로 추정된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모슬포에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거욱대와 관련한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군인들이 그냥 돌무더기로 보고 거욱대 두 개를 허물고 그 돌을 막사를 짓는 데 사용하였다. 당시 마을에는 훈련장으로 이용하면서 군인들이 임자 없는 거욱대의 돌 같은 것을 허문 것이 많았다. 2기만 남아 전해져 오다가 1961년에 거욱대 2기를 복원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마을에는 예전처럼 거욱대 4기가 남방의 허한 곳을 방비하게 되었다.

돌을 쌓고 그 위에 하르방을 세우는 이유는 높아야 위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쁜 것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르방의 모습도 무섭고 장군처럼 만든 것이다.

필자 김동섭(金東燮)

제주제석제(濟州帝釋祭)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풍농을 기원하던 의례.

내용 제주제석제는 자취를 감춘 지 제법 오래됐다. 제주도 여러 마을에서는 '제석제'를 올린 장소만 하나의 지명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제주도의 제석제는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의 사례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발굴한 사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마을에서는 조와 메밀 농사에 해충(害蟲) 없이 풍년이 들기는 바라는 목적에서 올리는 의례를 두고 '제석제'라고 하였다. 제일(祭日)은 조와 메밀을 파종하기 이전에 택일(擇日)하여 일 년에 두 차례 이루어졌다. 제장(祭場)은 이 마을 '제석동산'이었다. 마을의 하인(下人)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석제를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면 집집마다 정해진 수량의 곡식을 내주었다. 이런 일을 '제물 받음'이라고 하였다. 하인은 모은 곡식으로 여러 가지 제물을 마련하여 솥과 제물을 들고 '제석동산'으로 올라갔다. 하인은 '제석동산'에서 솥을 앉혀 메를 짓고 솥째로 제단에 올리고 나서 제석신에게 분향·배례하였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고태완(1921년생)의 사례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는 음력 칠월 중에 택일하여 '제석동산'에서 '제석제'를 지냈다. 마을에서는 '제석제'를 주관할 한 사람을 선정하였다. 그 사람을 두고 '소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하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걷어 제비(祭費)를 마련하였다. '소임'과 '하인'은 제비로 제물을 마련하고 '제석동산'으로 가서 '제석제'를 지냈다.

가파도에서는 섬의 동남쪽에 있는 제단에서 음력 정월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자시(子時)에 '포제(酺祭)'를 올렸다. 포제가 끝나면 다시 제단 옆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의를 다시 올렸다. 이때의 제의를 두고 '제석제(帝釋祭)'라고 하였다. '제석제'는 제관과 집사 두 사람만으로 조촐하게 이루어졌다. 제의를 올리는 동안에 제관은 제석신에게 "우순풍조(雨順風調)하게 하여 주시고, 소도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해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잡충(雜蟲)도 농작물에 들지 못하게 잘 막아 풍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하고 구송(口誦)하였다.

참고문헌 **민속자료조사보고서 39-부락제당**(이두현 · 장주근 · 현용준 · 최길성, 문화재관리국, 1969), **제주도부락지 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도의 무속과 그 주변**(현용준, 집문당, 2002).

필자 고광민(高光敏)

제주제충제(濟州除蟲祭)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농사에 피해를 주는 메뚜기를 비롯한 병충해 방지를 위해 여름에 지내던 제의.

내용 제주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밭농사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왔다. 밭농사로는 겨울농사와 여름농사가 있었다. 여름농사의 으뜸은 조[粟]였다. 조의 파종은 하지(夏至)에서부터 소서(小暑)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무렵에 메뚜기의 피해로 말미암아 농사를 그르치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메뚜기를 제거하려는 의례가 전승하였다.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대홍은 메뚜기로부터 피해를 본 조밭에 제물을 차리고 간단하게 제의를 올린 적이 있다. 제의의 대상은 풍농을 주관하는 제석신(帝釋神)이었다. 제석신에게 올린 제물에서 조금씩 걷어 놓은 '잡식'을 밭에 뿌리면서 "제석님아, 마소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구송(口誦)을 한다.

우도에는 '말축굿'이라는 제충의례가 전승하였다. '말축'은 메뚜기를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이 굿은 1945년 무렵까지 전승하다가 맥이 끊겼다. 다행히 1973년에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의 학술조사보고서에 우도에서 구전하고 있는 '말축굿' 내용을 기록하여 둔 것이 있다.

'말축굿'은 메뚜기의 피해가 극심하였을 때 우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우뭇개'에 있는 '돈짓당'에서 행했다. 우도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마다 제물을 준비하고 '돈짓당'으로 왔다. 어선이 있는 집안에서는 수탉 한 마리를 더 가지고 왔다. 가구마다 차리고 온 제물을 제단에 줄줄이 열을 지어 올려놓고 당굿을 치르고 난 뒤에 '말축굿'을 벌였다. 무당은 "어떤 마소, 어떤 마소를 아무개 테우리가 몰러 갑니다"라고 외쳤다. '테우리'는 목동을 이르는 제주어이다. 그러면 소무(小巫) 두 사람이 '테우리' 차림을 하고 "내가 아무 마소를 몰러가겠다"고 하며 제장으로 나섰다. 두 '테우리'는 수탉의 코에 줄을 꿰어 끌며 우도 한 바퀴를 양쪽으로 돌았다. '테우리'는 "어어령 떠어령 어허허허"라는 말과 소를 모는 소리를 내며 "아무 마소가 내려간다"고 외쳤다. 두 '테우리'는 약속 장소에서 만나 마을 한가운데 길을 지나 제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수탉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서 바다에 던졌다.

두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메뚜기의 피해를 모두 말과 소가 밭에 침입하여 조를 뜯어먹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산읍의 사례에서는 제석신을 대상으로 제의를 올리며 "제석님아, 마소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며 제충(除蟲)을 기원하는 것이고, 우도의 사례에서는 그런 마소, 곧 수탉을 찢어 죽여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제충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유감주술로, 말과 소를 몰아내듯 가상의 병충을 몰아내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민속사진집 령(현용준, 도서출판 각, 2004), 제주도부락지 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필자 고광민(高光敏)

제주최영장군사당(濟州崔瑩將軍祠堂)

상호참조 제주추자도천제 · 장군제(823쪽)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자도 사람들이 최영 장군의 은덕을 기리면서 한 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55번지에 소재하며, 1981년 8월26일에 '제주도 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최영장군사당은 고려 말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영 장군이 1374년 (공민왕 23년)에 잠시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그물을 이용한 어로법을 가르쳐 준 일이 있어 주민들이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사당을 세웠다는 전설이 있다. 사당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관리하여 왔으나 퇴락을 피할 수 없었다. 1935년에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사당을 새로 지었으며, 1970년에 국가 보조로 건물을 다시 복원하였다. 1974년에 단청과 담장을 보수하였으며 1998년에 외문을 새로 지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형태 최영 장군을 모시는 사당은 추자초등학교 뒤쪽 산등성이에 있다. 상추자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곳이다. 사당은 면적 16.5㎡, 평면 세 칸의 우진각기와지붕 형태이다. 현판에는 「최영대장신사(崔瑩大將神祠)」라고 썼다. 내부에는 영정과 돌 위패를 모시고 있다. 사당 주위에 자연석을 장방형으로 에워 울타리를 쌓았다. 울타리 안쪽에 다시 시멘트 담장을 두었다.

사당 왼쪽 문 앞 위에는 『최영장군신사신축기(崔瑩將軍神祠新築記)』가 걸려 있다. 종서로 새겨진 내용은 "漂漂氣像 與闕張 張肩 堂堂忠義 使夷齊 齊立. 以麗朝臣都統 節鉞摩南 沍伏耽羅 候風斯島故 島民 去後益詠而立祠 牲牛尊誠 致祥消魔之己自數百年靈驗 □自甲午以後茅宇甲戌以來 風霖可年層 棟礎崔巍地人往獸踏 祠土 不潔 驚惶洞詣 卜地新創 大西里區長 李起雄 有志人 夙興夜深之誠而此地建營之 庶民 自來敖不活躍鷹廟有歡樂樂以謂其□曰神境淨 永世不忘之功 註以記也 西紀一九三五年 乙亥 二月 二十五日(하략)"이다. 이것은 1935년 당시 사당을 새로 지은 내력을 담고 있다. 본래 초가 형태인 사당이 퇴락하여 볼품없게 되자 뜻을 모아 온전한 모양으로 지은 것이다.

사당 안에는 비석 모양으로 만들어진 위패가 있다. 높이는 1m가량이며, 표면은 검은색이다. 거기에 '조국도통대장 최영장군 신위(朝國都統大將 崔瑩將軍神位)'라 음각하고 빨간색으로 칠하여 놓았다. 위패의 왼쪽에는 영정을 걸어 모시고 있다. 사당 주위에는 돌담을 두르고 사당의 맞은편에 문을 달았다. 사당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 바로 옆에는 최영사당금표(崔瑩祠堂禁標)라는 비가 있다. 비의 앞면에는 '신묘금지비(神廟禁地碑)'라 음각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측면 글자는 많이 마모되어 알아볼 수 없다.

내용 고려 공민왕 시절 제주도에는 목호(牧胡)에 의한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민왕 23년에 석질리(石迭里) 등이 난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최영 장군을 제주행병도통사(濟州行兵都統使)로 삼아 이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최영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제주도로 원정을 오가는 도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 추자도 점산곶(點山串)으로 대피하게 되었다. 추자도는 예부터 제주도를 오가는 배들이 풍랑을 만날 경우 대피하는 곳으로, 해중(海中)의 유일한 후풍처(候風處)였다. 기록에 따르면 최영 장군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25일간 등 모두 30일간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30일 동안이나 머물렀으니 주민들에게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만도 하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다에 고기는 많으나 주민들이 잡을 줄을 몰라 궁핍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최영 장군이 그물을 만들어 고기잡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추자도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풍부한 어족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거에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일로 주민들은 장군의 덕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사당을 지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음력 칠월 보름날과 섣달그믐날에 풍어와 풍농을 빌며 제사를 지내 왔다. 이를 대제(大祭), 사당제(祠堂祭) 또는 당제(堂祭)라고 한다. 대제는 본래 여름철인 칠월에 지냈다. 추자도는 여름철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고, 최영 장군을 모시는 것이 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선주들이 윤번제로 사당을 관리하고, 제비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오늘날에는 수협에서 사당의 관리를 맡고 대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도 도맡아 하고 있다. 수협(水協)에서 대제를 맡으면서부터 제일을 봄철인 음력 이월 보름날로 옮겼다. 택일하여 날이 좋지 않으면 길일(吉日)로 바꾸어 제사를 지낸다. 제사 시기를 바꾸게 된 까닭은 주요 어족자원이 조기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조기의 성어기가 봄철이기 때문이다.

과거 주민들이 제사를 맡아 지낼 때는 제주(祭主)를 한 사람 정하였다. 제관은 축관 한 명과 제관 한 명으로 구성하였다. 제관들은 제주의 집을 제청으로 삼아 일주일 동안 정성을 들였다. 그곳에서 목욕재계를 하고, 제물을 비롯한 제반 음식을 마련하였다. '큰새미'라고 하는 샘에 3~4일 동안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금하고, 그 물을 떠다가 제사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였다. 제장에도 금줄을 쳐서 부정한 이의 출입을 막았다. 희생으로 소 한 마리를 올렸으며, 통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올리되 고기는 삶고 내장은 생으로 올렸다. 기타 제물로는 메, 갱(쇠머리 삶은 물), 어물(삼치 · 도미 · 갈치 · 방어 · 조기 등), 나물(시금치 · 콩나물 · 산나물 · 듬북기 · 녹두나물), 시루떡 등을 올렸다.

한편 신위의 양쪽에는 작은 그릇에 장군과 똑같이 제물을 차려 올렸다. 이것은 호위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돼지고기는 제물로 올리지 않았다. 음복은 제관과 참례자들이 함께하였으며, 남은 음식은 땅에 묻었다. 근래에는 최영 장군에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어업인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도 함께 지낸다.

영흥리 뒷산 높은 곳에 산신당이 있고, 대서리 바닷가에는 해신당이 있었다고 한다. 대서리 뒷동산에 최영장군사당이 있다. 이 사당은 무속 신당의 기능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으니 산신당-장군당-해신당의 구도가 갖추어진 셈이다. 실제로 상추자에서 풍어제를 지낼 때는 산신제-장군제-해신제를 차례대로 지내 왔다.

특징 제주도 추자도는 최남단 지역으로, 이곳에서 최영 장군을 신격화하여 모신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재한 인물을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켜 마을신으로 모시면서 풍어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참고문헌 백록어문-추자도학술조사보고(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회, 199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2-민속(북제주군, 1998).

필자 강정식(姜晶植)

제주추자도천제 · 장군제

상호참조 제주최영장군사당(822쪽)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의 최영장군사당과 영흥리산신당에서 지내는 마을 제사.

유래 고려 때 최영 장군이 목호(牧胡)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제주도로 가던 도중 태풍을 만나 추자도에 머물게 되었다. 그때 최영 장군이 추자 사람들에게 낚시 만드는 법과 고기 낚는 방법, 그물 짜는 법, 멸치잡이 등을 전수시켰다고 한다. 추자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신사를 지어 최영 장군을 모시게 되었다. 그때부터 장군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영흥리에 모셔져 있던 최영 장군이 새벽에 걸어서 바다를 건너오다가 멈춘 자리에 표석을 세우고 그 자리에 당을 세웠다고도 한다.

내용 추자도의 당으로는 산신당(山神堂), 장군당(將軍堂), 처녀당(處女堂), 해신당(海神堂) 등이 있다. 산신당으로는 '영흥리 뒷산 절기미 산신당', '신양리 돈대산 산신단의 샘', '횡간도 산신 성황당'이 있다. 장군당으로는 '대서리 최영장군사당', 처녀당으로는 '묵리 당목치동산 처녀당(아기업개당)'과 지금은 폐당이

제주추자도장군제 제주 제주시 추자면, 2009.2.9, 문무병

된 '신양 1리 당그미 처녀당', 해신당으로는 '예초리 물생이끝당'이 각각 있다. 그리고 완전한 형태의 당이라 할 수는 없지만 풍어제를 하거나 바다에서 죽은 망자의 영혼상을 차리고 용왕제를 지내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바위로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리, 예초리, 횡간도 어디에나 다 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해신당이 있다. 또 당은 아니지만 마을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초리의 '엄바위 장승'이 있다.

추자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제는 산신제, 사당제(장군제), 장승제, 용왕제가 있다. 이러한 당제들은 바다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추자도 사람들에게 생산 활동과 밀접한 축제, 고기잡이의 풍어를 비는 풍어제의 의미를 지닌다. 이 가운데에서도 영흥리 뒷산 절기미 산신당의 천제(天祭)와 최영장군사당인 장군당의 사당제(祠堂祭)는 추자도 마을 제사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제의라 할 수 있다.

최영장군사당은 추자초등학교 서북쪽에 있다. 현재의 건물은 1974년에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겹처마 합각지붕으로 복원하여 자연석으로 담장을 둘렀다. 최영장군사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남동쪽에는 '최영사당금표'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비석 앞면에는 '신묘금지비'라는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측면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마멸되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사당 내부에는 영정과 함께 '조국군통대장최영장군'이라는 글씨가 음각된 위패가 돌로 만들어져 있다.

과거 추자도는 멸치잡이가 생업의 전부였기에 7~8월 멸치잡이 철이 되면 음력 칠월 스무닷샛날을 기준으로 날을 잡아 멸치를 많이 잡게 해 달라고 제를 지냈다. 그러다 조기가 많이 잡히면서 이월로 옮겨 제를 지내게 되었다. 현재는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제를 지낸다. 제관으로 남자 한 명을 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한 달(30일) 동안 부부관계를 금하고 몸을 정갈하게 해야 했다. 또 월경 없는 처녀들 가운데 몇 명을 정해 물을 나르고 음식 준비를 돕게 하였다. 현재는 한 사람을 지정해 모든 준비를 맡긴다.

제물로는 쇠머리, 메, 나물, 생선, 과일, 떡, 식혜, 술 등을 올린다. 형편에 따라 소 한 마리를 잡기도 하고 쇠머리만 준비하기도 한다. 메는 여덟 그릇을 올린다. 최영 장군과 그 신하들을 위한 것이다. 특히 최영장군 몫의 메그릇은 크기가 커서 한 되 메를 해야 그릇이 찬다고 한다. 장군제에 사용되는 떡은 작은 떡을 괸 다음 그 위에 긴 떡을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씩 걸쳐서 올린다. 사당 안에 절구통을 들여 직접 만든다. 제주(祭酒)는 한 달 전에 막걸리를 빚어 사용한다. 음식은 당 밖으로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에 직접 와서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은 땅에 묻는다. 깨끗한 우물을 지정해 한 달 전부터 금줄을 쳐서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물 준비에 필요한 모든 물은 이곳에서 길어 온다.

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장군당의 제는 영흥리 산신당에서 먼저 제를 지내고 나서 시작한다. 횃불로 신호를 보내면 산신당에 술을 한 잔 올리고, 다시 횃불로 신호를 보내면 장군당에서 메를 올림으로써 제사가 시작된다. 제물을 다 차린 다음 열다섯 명 안팎의 걸궁패(걸립패)가 올라가서 절을 하고 걸궁(걸립)을 시작한다. 걸궁은 사당 문을 열어 놓고 사당 밖에서 하며, 제관이 제를 지내는 동안에는 하지 않는다. 제가 끝나면 제물을 챙겨 바닷가로 가서 용왕제를 지낸다. 용왕제는 '당너머 고사바위'에 가서 지낸다. 음식을 차려 놓고 동서남북 용왕님께 제를 지낸 다음 걸궁을 친다. 남은 음식은 바다에 던지고 돌아온다. 과거에는 마을의 선주들이 멸치젓을 내놓고 팔아 비용을 충당했다. 현재는 수협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무속인은 참여하지 않으며, 마을 남자만이 참여한다.

영흥리에는 뒷산(큰산) '절기미'라고 부르는 곳에 산신당이 있다. 입구에 '산신당(山神堂)'이라고 적힌 비석이 세워져 있고, 시멘트로 만든 단 안에 '산신령신위(山神靈神位)'라고 새겨진 비석이 모셔져 있다.

제일은 음력 이월 초하룻날이며, 그날이 부정할 경우 이튿날에 한다. 이곳에서는 천신, 지신, 용왕신을 모신다. 지방에는 '천주신명대왕(天主神明大王)', '지주신명대왕(地主神明大王)', '용해궁공신명대왕(龍海宮公神明大王)'이라고 적는다. 풍어와 가정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과거에는 제관으로 마을에서 부정을 타지 않은 깨끗한 사람 가운데 네댓 명을 선정했으나 요즘은 마을 이장이 제관을 담당한다. 음식 준비는 모두 남자들이 한다. 제물로는 소나 염소 등의 희생은 쓰지 않고 보통 제사 때 쓰는 메 세 그릇, 시루떡, 해물, 채소(고사리, 버섯, 콩나물), 백지, 술 등을 올린다.

음력 이월 초하룻날의 당제 이외에 정월 초하룻날과 대보름날에도 간단하게 제를 지낸다. 또 삼월삼짇날에 마을 이장과 계발위원장, 깨끗한 마을부인 세 명 등 다섯 명이 당에서 제를 지낸다. 여자들은 주로 음식을 나르는 역할을 한다. 비가 안 오거나 어장이 잘 되지 않은 때에는 기우제를 겸해 제를 지냈다고 한다. 당 옆에 소나무를 쌓아 놓고 제를 지내는 중간에 불을 지핀 뒤 '하느님 이 불을 끄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고 나면 사흘 뒤에 비가 왔다고 한다. 즉 천제와 기우제를 겸해 지낸 것이다. 또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해신제는 따로 지낸다.

특징 상(上)추자도의 마을제는 영흥리 뒷산 절기미 산신당의 천제와 최영장군사당인 장군당의 사당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천제는 고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늘신'에게 올리는 제의이다. 사당제는 추자도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최영 장군, 즉 '땅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상추자도의 대제는 이전에는 6, 7월 멸치잡이의 '풍어제'로 지낸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치른다. 대제는 영흥리 뒷산 산신당에서 천제를 먼저 시작한다. 산신당에는 천신, 지신, 용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천신제를 먼저 한다. 천제가 끝나면 영흥리 산신제는 이어서 지신제와 용신제를 하여 제를 마치고, 대서리에서는 천제가 끝날 때부터 장군당의 사당제를 시작하고 이어서 '당너머 고사바위'에서 해신제를 하여 용왕에게 제물을 드리고 당제를 끝낸다.

산신제와 사당제를 두 축으로 진행되는 상추자도의 대제는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주, 시간과 공간, 바다와 산, 하늘에 계신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하(下)추자도의 돈대산에 오르면 추자의 모든 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예부터 하추자도의 세 마을에서 제관을 선출하여 산신단에 올라 샘물에 금줄을 치고, 물을 길어 중송아지 한 마리를 희생으로 잡아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은 신성한 샘물만 남아 있고 산신단(山神壇)이 없어져 산신제를 지내지 않는다.

상추자도가 최영사당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양반 문화가 어촌의 생활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면 하추자도는 해녀의 '바당밭[海田]' 물질을 토대로 하여 해촌생활 문화가 이루어졌다. 하추자도에는 해녀가 많았기 때문에 물질하다 죽은 처녀를 모신 신당이 많다. 이러한 처녀를 모신 처녀당 말고도 해촌의 생활과 정서를 물씬 풍기는 해신당이 예초리 물생이 끝에 하나 있다. 이를 '물생이당'이라 부른다. '물생이'는 '물살이 센 곳'이란 뜻이다. 이곳은 물살이 센 곳, 즉 벼랑 끝에 위치해 추자도 어민들의 해상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고 어장의 풍어를 약속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의 당제는 섣달그믐날 밤 11시에 시작하여 정월 초하룻날 새벽 1시에 끝난다. 새해의 첫 문을 여는 것이다.

추자도는 문화적인 영향 관계를 따져볼 때 제주도 문화권이라기보다 전라도문화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제주도에 속해 있지만 오랜 기간 전라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마을공동체 신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제주도의 경우 마을공동체 신앙은 여성 중심의 당신앙(堂神仰)과 남성 중심의 유교식 마을 제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추자도의 마을공동체 신앙은 전라도 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남성 중심의 당산제(堂山祭)나 용왕제(龍王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주와 조왕 등을 각 가정에서 모셨다고 하지만 현재는 정월과 이월에 공동체로 진행되는 당제, 해신제, 걸궁, 지신밟기, 풍어제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2), **제주도 본향당신앙과 본풀이**(문무병, 민속원, 2008), **제주도지**(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제주도, 1998), **제주의 전통문화**(제주도교육청, 1996), **추자도**(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1999), **추자도 학술조사보고서**(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6),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필자 **문무병(文武秉)**

제주풍해방지의례 (濟州風害防止儀禮)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부속도서에서 자연물을 대상으로 풍해 방지를 기원한 금기와 각종 신앙행위.

내용 제주도와 제주도의 부속도서에서는 어떠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풍해 방지를 기원하는 금기와 신앙이 전승되었다. 실태는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다.

1.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두럭산' 이 마을 동쪽 바다에는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는 자그마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를 두고 '두럭산'이라고 한다. 두럭산은 바닷물에 떠 있는 셈이다. 마을 사람들은 두럭산을 금기의 대상으로 삼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럭산 위에서 고기를 낚는 일이나 해녀들이 그 주변에서 잠수하는 일을 꺼렸다. 그리고 두럭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설도 전승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산을 거의 '오름'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섯 개가 있다. 그것을 제주의 오대산(五大山)이라고 한다. 바로 한라산(漢拏山), 성산읍 성산리의 성산(城山), 표선면 성읍리의 영주산(瀛洲山), 안덕면 사계리의 산방산(山房山),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두럭산이다. 그런데 두럭산은 산이라 할 만한 것이 못된다. 바다에 떠 있는 자그마한 바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산이라고 한다. 이 두럭산은 한라산과 서로 대(對)가 되는 산이라고 한다. 한라산은 영산이어서 운이 돌아오면 장군이 난다고 한다. 한라산에서 장군이 나면 두럭산에서는 이 장군이 탈 용마가 난다고 한다. 그래서 두럭산을 신성한 산으로 여겨 그 가까이에서는 언동을 조심한다. 해녀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이 두럭산에서 큰소리를 지르면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 곤경에 빠진다고 한다. 옛날 제주도에 '설문대할망'이라는 키가 매우 큰 할머니가 있었다. 이 할머니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 두 발을 놓고 앉아 이 두럭산에 빨래를 놓고 빨았다고 한다.

2.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셍이동산' '셍이동산'은 이 마을 '빌렛개'라는 포구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동산에 오르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어느 누구나 이 동산에 오르기만 하면 바람이 불어닥쳤고, 이 때문에 포구로 배를 잘 들여 맬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 금기를 모르는 사람이 이 동산에 올랐다가 이를 본 마을의 어부나 해녀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하였다.

3.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할망당' 이 마을에는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문주란의 자생지인 '난도(蘭島)'라는 섬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섬을 두고 '난드리여'라고 한다. '당목'이라는 해변에서부터 '난드리여'까지 폭 2.8m, 높이 1.4m 규모의 돌담이 100m 안팎으로 가로놓여 있다. 썰물 때에는 이 돌담을 따라 걸어서 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섬 동남쪽에 '할망당'이라고 이르는 커다란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 오르면 신은 조화를 부려 바람을 일으켜서 거센 풍랑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누구라도 '할망당'이라는 바위에 오르기를 꺼린다.

4. 서귀포시 하효동의 '신소' 이 마을 동쪽에는 '효돈천(孝敦川)'이 있으며, 그 하류 지역을 두고 '신소'라고 이른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함부로 돌멩이 하나라도 던지는 일을 꺼린다. 돌멩이라도 던지면 이곳에 깃들어 있는 신이 놀라고, 놀란 신은 곧바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5. 가파도의 '까마귀돌' 제주도 부속도서 가운데 하나인 가파도의 남쪽에는 '황개'라는 포구가 있다. 그 바깥에 동서로 바윗돌이 길게 늘어서 있다. 가파도 사람들은 이곳을 '뒷성'이라고 한다. 가파도 사람들은 이 바윗돌을 의지하여 '황개'라는 포구를 만들 수 있었다. '뒷성'이라는 곳에는 커다란 바윗돌이 하나 서 있다. 이를 두고 '까마귀돌'이라고 한다.

이 돌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얽혀 있다. 1974년 8월 초순, 제주해운국(濟州海運局)에서 가파도 해안의 한 지점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 가파도 사방 몇 군데에 하얀 페인트를 칠한 일이 있었다. 그때 제주해운국의 한 직원이 이 바윗돌에 올라갔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 태풍이 불었다. 그들은 그날 무사히 이 섬을 떠날 수 있었지만 그때 이 섬에 있던 어선이 몇 척 뒤집히고 농작물이 말라죽는 등 많은 피해를 보았다.

6. 마라도의 '장군바위' 제주도 부속도서 가운데 하나인 마라도의 동남쪽에 '장군바위'가 있다. 섬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령스럽게 여겨 왔다. 어느 누구라도 이 바위 중간쯤에 오르면 중간 크기의 너울이 치고, 끝까지 오르면 큰 너울이 친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섬사람들은 장군바위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 가까이에서도 언동을 조심하였다. 그리고 마라도에서 포제(酺祭)와 기우제(祈雨祭)를 올리고 나서 다시 이곳에서 유교식으로 의례를 치렀다. 마라도 사람들은 이 의례를 두고 '신선하르방제'라고 하였다. '신선하르방제'는 제관과 집사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졌다. 의례를 올리는 동안 제관은 "신선하르바님, 큰바람 막아 주옵소서"라고 구송(口誦)하였다.

함부로 거석에 올라가거나 신성한 물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금기를 어기면 자연물에 깃들어 있는 신이 조화를 부려 풍해를 일으켰다. 제주도와 가파도의 자연물이 풍해 방지를 기원하는 금기의 대상물이라면 마라도의 '장군바위'라는 자연물은 금기는 물론 의례의 대상이었다.

참고문헌 **마라도의 역사와 문화**(고광민, 미간행), **제주도부락지 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도전설지**(제주도, 1985).

필자 **고광민(高光敏)**

제주해신사(濟州海神祠)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포구를 통하여 바다를 드나드는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당. 1973년 4월 3일에 '제주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해신사의 역사는 비교적 뚜렷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해신사는 1820년(순조 20) 제주목사 한상묵(韓象默)이 처음 세웠다. 1841년(헌종 7)에 방어사 이원조(李源祚)가 한 차례 건물을 보수하였으며, 1849년(헌종 15)에는 방어사 장인식(張寅植)이 돌에 '해신지위(海神之位)'라는 글자를 새겨 보존하도록 하였다. 1975년에 사당이 낡고 공간이 좁아 본래 위치에서 서북쪽 해안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 지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형태 해신사는 정면과 측면 모두 단칸으로 이루어진 비각(碑閣) 형태의 건물이다. 각주(各柱)로 장혀와 도리를 받치고 5량조로 결구하여 바로 서까래를 얹고 합각지붕을 덮었다. 하부에만 심벽을 치고, 외부로는 돌담을 둘렀으며 상부에는 살창을 세웠다. 또 모로단청으로 단장하였다. 전면에 판문을 달았으며, 약간의 공간을 남긴 채 장방형의 겹담을 두르고 일각대문을 달았다. 해신사의 안에는 '해신지위'라고 새긴 돌 위패가 있는며 옥개석을 갖춘 작은 비각으로 둘러싸여 있다.

내용 해신사는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공간으로 쓰였다. 대개 마을 포구에는 해신당에 해당하는 제당을 따로 두게 마련인데 화북 포구에서는 해신사가 이를 겸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북 포구는 제주도와 한반도의 뭍을 드나드는 주요 관문이었다. 목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화북 포구를 이용하여 나들이를 하였다. 여기에 후풍관(候風館)을 따로 두고 기상의 변화에 대처하였다. 화북 포구 일대는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1678년(숙종 4)에는 화북진성을 쌓고 조방장을 두기도 하였다. 항내에서 파선 사고가 잦자 1736년(영조 12)에 김정(金政) 목사가 포구를 정비하였다. 한편 뱃길이 워낙 험하여 자연스레 안전한 여행을 기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1820년(순조 20)에 목사 한상묵이 해신사를 세웠다. 해신사는 보수하고 옮겨 다시 세워 오늘에 이른다.

해신사에서는 출항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정월대보름날에도 제사를 크게 지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제주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제1관문 구실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화북 포구가 그런대로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는 점이다. 오늘날 화북 포구는 더 이상 제주의 관문이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촌의 평범한 포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신사에서 뭍 나들이를 위한 항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일은 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도 해마다 정월 초닷샛날이 되면 정성을 다해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풍등을 기원하는 해신제를 지내고 있다. 관이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 이후 오랫동안 해녀와 어부 중심으로 해신제를 지내오다가 1990년쯤부터 마을제로 바꾸어 지내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부락과 중서부락에서는 제각기 마을제를 지내오던 터였다. 이를 모두 그만두고 해신사에서 함께 해신제를 지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셈이다. 제관은 헌관 세 명과 집례, 대축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된다. 제사를 앞두고 사흘 동안 정성을 들인 뒤 초닷샛날 새벽에 제사를 지낸다. 이때 기원하는 내용은 고기잡이 배의 안전과 풍어, 마을의 안녕이다.

참고문헌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제주시, 1998).

필자 강정식(姜晶植)

제주해신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 마을에서 멸치잡이의 풍어를 비는 굿. 해마다 늦봄이 되면 멸치 떼가 제주도 연안에 몰려들기 시작해 이때가 되면 모래밭이 있는 해안 마을에서는 지인망(물가에 긴 그물을 둘러쳐서 양 끝에 줄을 연결하여 육지에서 끌어당겨 어획하는 도구)으로 멸치 떼를 끌어당겨 잡는다. 이의 풍어를 비는 굿이다. '그물코ᄉᆞ(그물고사)' 또는 '멜굿(멸치굿)'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래 그물고사 또는 멜굿(멸치굿)은 옛날에는 심방을 빌려 굿으로 해 왔고, 그 후 유교식 제법으로 바꾸어 전해 오다가 1970년대부터 멸치 떼가 몰려오지 않아 지인망어업(地引網漁業)이 없어지면서 제의도 소멸되었다. 굿으로 할 때는 그 이름을 '그물코ᄉᆞ' 또는 '멜굿'이라 했고, 유교식 제법으로 바뀌면서 '해신제(海神祭)'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내용 그물고사(멜굿)의 대상 신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는 어부들의 신인 선왕신(船王)으로, '영감' 또는 '참봉'이라 불리는 '도체비(도깨비)'이다. 옛날 모래밭이 널리 분포돼 있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와 구좌읍 김녕리 · 월정리 · 동복리, 서귀포시 성산읍 동남리 등의 마을에는 그물접[網契]이 구성되어 멸치를 몰아다 주는 영감 도체비를 위한 멜굿 · 도체비굿이 많았다. 특히 함덕리에는 멸치를 몰아다 주는 도깨비를 '말둥이영감'이라 불렀고, 또 그 '말둥이영감'이 멸치 떼를 많이 불러 주게 하는 도깨비굿 〈영감놀이〉가 있었으나 1960년대가 되어 멸치는 잡히지 않고 해수욕장이 개발되면서 사라져 버렸다.

제비(祭費)는 각 그물접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제관은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과 양 집사를 합쳐 모두 다섯 명이다. 헌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 사람으로 고른다. 제관들은 제일 사흘 전부터 합숙해 재계를 하고 제를 지낸다. 제의는 상단제와 하단제로 나누어 지낸다. 상단제신은 해신, 하단제신은 바다에서 죽은 무주고혼이다. 제관은 상단제의 아헌관이 헌관이 되고 양 집사가 서서 행제한다.

제의 순서는 먼저 헌관이 배례하여 분향을 하고 술잔을 드린다. 술잔은 작은 종지를 쓴다. 헌관이 드리는 잔을 집사가 받아서 메 양푼 둘레에 올리고 그 술잔 앞에 숟가락을 하나 꽂는다. 다시 헌관이 술잔을 드리면 집사가 받아 양푼 둘레에 올리고 숟가락 하나를 꽂는다. 이렇게 술잔 30여 개를 계속해서 올리고 숟가락도 술잔 수대로 양푼 둘레를 돌아가며 꽂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독축을 하고 잡식을 한다. '잡식'은 제상에 올린 각종 제물을 그릇에 한 숟갈씩 떠 놓고 이를 바다에 가서 어장이 잘되게 해 달라는 축언을 하며 숟가락으로 제물을 떠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이로써 제의는 끝난 셈이다. 마지막으로 '지묻음'이 남아 있다. '지묻음'은 상단제를 끝내고 난 뒤 돼지 머리와 모혈(毛血)을 창호지에 싸 둔 것을 들고 배를 타고 200m 정도 바다로 나가 이것을 물속에 던지는 것이다. 지묻음을 하는 사람은 배를 타고 나가 "금년 해신 · 용신들이 도와서 어장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축언을 고하고 지를 바다에 던지고 돌아온다. 해신제는 의례 방식이 유교식 제의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정형화되지 못했고 〈요왕맞이〉 '지드림'과 같이 무속의례의 잔영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지역사례 **1. 조천읍 함덕리의 멜굿** 함덕리는 제주도에서 제일가는 멸치어장이었다. 해수욕장이 개발되기 전만 해도 해수욕장이 있는 '큰사시미' 왼쪽으로 '당뒤', '만월여', '중턱굴', '올랫여', '서모' 등 모두가 기름진 멜밭(멸치어장)이었다. 집어등에 의한 포획이 먼바다에서 행해지고, 해수욕장이 개장되면서 지금은 멸치어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물코가 천 코라도 베릿배가 주장이더라'는 속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온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소속된 접꾼끼리 힘을 모아 동아줄을 당긴 것이다. 그물을 당기다 보면 멸치 무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멸치가 잡혔으며, 지금의 해수욕장 모래밭에서 멸치 파시가 펼쳐졌다. 선진망 계원이 아니어도 공공연하게 '내어놓은 도둑질'을 하여 마을의 어느 집도 멸치가 들어가지 않은 집이 없었다.

그물접 1접은 30~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성기에는 10접까지 있었다. 접에는 주장이 되는 '도가', '도가'를 돕는 '소임', 어군(魚群)을 탐지하는 '해상', 계원 관리와 수확의 분배를 맡은 '공원', '큰배사공' 두 명과 사공 세 명 등이 있었다. '큰배사공'은 몫을 나눌 때 3찍이라 해서 보통 계원의 세 배를 받고, '도가'와 '해상'은 2찍 씩을 받았다.

함덕리는 멸치로 부자가 된 마을로, 멸치를 몰아다 주는 '말둥이영감'에게 해마다 멸치잡이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어굿으로 '멜굿'을 행했다. 이 굿은 그물을 부리는 함덕마을의 8개 그물접 계원들이 주동이 되어 이루어졌다. 팔선진의 도가(계장) · 으뜸 · 소임들이 중심이 되어 택일을 하고, 일주일 동안 몸정성을 다한다. 굿을 할 때에는 8~10명의 심방을 데리고 이

멸치후리기 제주 제주시 이호동, 2005.7.30, 문무병

레굿[七日祭]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경비 관계로 배고사로 끝내기도 한다.

제장은 현재 탈의장이 있는 곳의 빈 공간에 마련하고, 굿의 마지막 석에는 반드시 '말둥이영감'을 놀리는 〈영감놀이〉를 한다. 굿이 끝나면 말둥이영감을 모신 제단이 있는 천연동굴로 가서 '영감몫'이라고 하여 돼지 희생을 올린다. 이때 희생으로 쓴 돼지머리는 껍질을 벗기고 머리뼈만 제공한다.

2. 구좌읍 김녕리의 그물고사[海神祭] 정월에 택일하여 해안 그물어장 현장에서 저녁 7시 반쯤에 시작한다. 상단과 하단에 모신 신이 있다. 상단신은 해신, 하단신은 바다에서 죽은 무주고혼의 영혼들이다. 그물고사의 운영은 어망의 계 모임인 그물접에서 지낸다. 동김녕리는 창골접, 신산접, 고봉개접, 아락접 등 네 개의 '접(接)'으로 갈라져 있다. 전에는 접마다 따로 제사를 지냈으나 1969년부터는 네 접이 합동으로 지내게 되었다. 제사 비용은 각 접에서 공동부담하고, 회의를 통해 제관을 뽑는다. 제관은 초헌, 아헌, 종헌의 삼제관과 양 집사를 합쳐 다섯 명으로 행제(行祭)한다. 헌관은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고른다. 제를 준비하며 사흘 동안 합숙·재계(齋戒)를 한다. 이때 멸치젓과 돼지고기는 금한다.

제사는 상단제와 하단제를 지낸다. 상단제의 제물로는 메 4기(숟가락을 안 쓰고 향 가지를 두 개씩 꽂음), 오과(五果), 건어, 미나리채, 미역채, 전복, 감주(甘酒), 현주(玄酒, 井華水), 청주, 폐백(幣帛, 마포 한 필), 모혈(毛穴), 돼지 희생 등을 준비한다. 제상은 바다를 뒤로하여 세운다. 하단제의 제물은 상단제에 올리는 것을 모두 올리지만 상(床) 발을 지워 얕게 배설한다. 단, 메는 메그릇에 따로따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큰 양푼 하나에 가득 떠서 그대로 올린다. 제관은 상단제의 아헌관이 혼자 헌관이 되고 양 집사가 서서 제를 지낸다.

3. 구좌읍 월정리의 덜레 그물고사 제 터는 바닷가 '덜레'라는 곳에 있다. 이에 따라 제(祭)의 명칭을 지명을 따서 '덜레'라 하기도 하고, '그물고사'라 하기도 하며, 어른들은 '해신제'라 부르기도 한다. 제단 형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장방형의 돌담 울타리를 쌓고 그 안에 상단과 하단 두 개의 제단을 나란히 반석으로 깔아 놓았으며, 양 제단 사이에는 돌담을 쌓아 가렸다. 왼쪽 제단이 상단, 오른쪽 제단이 하단이다. 각단은 상석과 향석 두 개로 되었고, 상단 옆에는 폐백을 태우는 망료위가 있다. 상단에 모신 신은 해신(海神), 하단의 신은 무주고혼(無主孤魂)이다. 제일(祭日)은 정월·삼월·유월의 초이렛날이며, 3개 망(網)에서 일년에 한 차례씩 한다.

월정리는 여섯 개의 그물접이 조직되었다가 세 개의 접으로 줄었고, 1970년대 말에는 전부 없어졌다. 이름은 '3망, 5망, 6망'이라는 숫자로 이름을 붙인다. 각 망은 망장(網長), 공원(公員), 소임(所任)의 세 임원이 운영한다. 제의는 각 망 회의에서 제관을 선출하고 준비한다. 제관은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으로 삼헌관을 뽑고, 집사 두 명을 합쳐 다섯 명으로 구성한다. 제의는 상단제와 하단제로 구분된다.

상단제는 희생 한 마리, 메 4기[稻粱黍稷], 해어(海魚), 황육(黃肉), 미역채, 미나리채, 오과(五果), 모혈 등을 진설하여 삼헌관이 직배(直拜)로써 행제한다. 제의 순서는 홀기(笏記) 낭송 없이 배례·삼상향·헌폐 후 초헌관이 헌작하여 독축하고, 아헌관과 종헌관이 헌작하면 철변두하고 분폐함으로써 끝난다. 상단제 후에 하단제를 지낸다. 하단에는 바다에서 죽은 고혼들 몫의 메와 해선(망선, 떼배 등) 몫의 메를 합쳐 30여 기를 올리고, 다른 제물은 상단과 같이 올린다. 행제도 상단제와 같이 한다.

상·하단제와 동시에 무식제당(巫式祭堂)인 해신당과 '솔락개'라는 어장 포구에도 각각 고사를 지낸다. 해신당에는 망장의 처나 소임이 가서 제물을 제단에 진설하고 축을 고함이 없이 간단히 제를 올린다. 어장 포구에는 망장과 공원 등이 가서 제물을 진설하고 독축 없이 간단히 의례를 한다. 제를 모두 지내고 나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지묻음'을 하는 것은 김녕리의 그물고사와 같다. 월정리에서는 특히 수수밥 등 제물을 싸서 바다에 던진다. 이는 도체비(도깨비신)에게 어장의 풍등을 기원하는 것이다. 도체비신은 어장에 불을 밝혀 돌아다니면서 어로를 방해하기도 하고 돕기도 한다.

4. 제주시 화북동 해신제 '제주시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는 '해신사(海神祠)'는 1820년(순조 20)에 목사 한상묵(韓相默)이 해상 활동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화북포 해안에 지은 사당이다. 1841년(헌종 7)에 방어사(防禦使) 이원조(李源祚)가 건물을 중수하였고, 1849년(헌종 15)에 방어사 장인식(張寅植)이 '해신지위(海神之位)'라는 신위를 돌로 새겨 보존케 하였다.

해신사에 모신 해신은 배를 타고 육지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해상사고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해신은 마을 사람들이 해신당에 모시는 요왕신·선왕신, 해녀들의 바다밭[海田] 경작을 돕는 요왕신, 어부들의 배가 잘되어 만선풍어가 되게 해주거나 멸치잡이의 만선이 되게 해주는 선왕신(도깨비)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마을에서 해신제를 지낸다. 조선시대에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해신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해신신앙이 되어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해신제를 지내고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마을제 종합보고서-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2010), **제주도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제주도, 1986), **제주도 본향당신앙과 본풀이**(문무병, 민속원, 2008), **제주도부락지 2**(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도지**(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의 마을 시리즈 3-함덕리**(오성찬 외, 반석, 2002), **제주의 문화재-증보판**(제주도, 1998), **제주의 민**

속(제주도, 1998), **제주의 전통문화**(제주도교육청, 1996). ,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필자 문무병(文武秉)

제주행원리포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마을에서 매년 정월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택일하여 벌이는 마을 제사. 천제(天祭), 천신제(天神祭), 동포제(洞酺祭), 갯포제(-酺祭), 이사제(里社祭)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역사 행원리포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본래 마을 위쪽에 제단을 두고 포제를 지내다가 제단을 바닷가로 옮겨 마련하고 해신제를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복수의 신위를 모시면서 당신까지 함께 위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내용 포제단은 마을 동쪽 해안가에 있다. 제장은 소나무가 우거진 야트막한 모래 언덕에 마련되었다. 제장 자리를 주위보다 조금 낮게 다듬어서 평탄하게 하고, 주위에는 돌로 울타리를 쌓아 둘렀다. 입구에 제청과 부속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제장 바닥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제장 북쪽에 시멘트로 마감한 제단이 있다.

포제의 준비는 마을총회로부터 시작된다. 포제를 지내기 한 달 전, 즉 섣달 말에 '연말총회'를 연다. 여기에서 제관 선정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관은 특히 오복(五福)을 갖추고, 조강지처와 해로(偕老)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연령순으로 선정한다. 제관은 초헌, 아헌, 종헌, 집례, 대축, 알자의 여섯 명이다. 본래 열두 명이었으나 초헌, 아헌, 종헌, 집례, 대축, 알자, 찬자, 전사관의 여덟 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현재와 같이 축소된 것이다. 여기에 큰당과 남당의 제사를 맡는 '당제관'이 추가된다. 당제관은 이장이 맡는다. 한편 예전에는 장생령 두 명이 따로 있어 희생의 처리와 제물의 준비 등을 맡았다. 지금은 동장들이 함께 이 일을 맡고 있다.

제관들은 제일을 앞두고 며칠간 합숙하며 정성을 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청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포제단에서 가깝고 깨끗한 집을 제청으로 정하여 이용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포제단에 제청을 마련하여 이용하고 있다. 정성을 들이기 위하여 제청으로 갈 때부터 정해진 예법이 있다.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지정된 제청에서 사흘 동안 합숙하며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제청 입구에는 금줄을 친다. 금줄은 볏짚을 꼬아 만든다. 이때 반드시 왼새끼여야 한다. 제관들은 이 기간에 부정한 음식(돼지고기, 말고기 등)을 먹지 않으며, 사흘 동안 향물로 몸을 씻어 깨끗이 해야 한다. 예전에는 한겨울임에도 샘을 찾아 찬물로 목욕하는 것을 감수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연로한 제관들은 고생이 많았다. 요즘에는 제청 한쪽에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불편이 모두 해소되었다.

제청은 세 칸이다. 가운데 마루를 두고 방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 한쪽 방은 제관과 집사들이 기거하는 곳이고, 다른 한쪽 방은 장생령 등 제사의 준비를 돕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기거하며 쉬는 방이다. 본래는 제관 방과 집사 방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옛날에는 집사인 알자의 경우 제관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알자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제관들이 기거하는 방에는 벽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벽장에는 신위를 모시고 제물을 차려 놓는다. 제물 뒤쪽에는 '포신지위(酺神之位)'라고 쓴 지방을 붙여둔다. 메는 산메를 지어 올리고, 오곡메를 따로 지어 함께 올린다. 폐백은 베 한 필을 올린다. 환육은 쇠고기로, 날것을 올린다. 이 제물은 포제를 지낼 때 그대로 제단에 옮겨 진설한다. 삼헌관은 제물이 진설된 벽장을 기준으로 오른쪽, 나머지 집사들은 왼쪽에 각각 앉는다. 제관과 집사를 제외한 이들은 본래 제청 출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요즘에는 비교적 제청 출입이 자유롭다. 마을 사람들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찾아와 제관들의 노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희사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제청 앞쪽에는 따로 건물이 있다. 이곳에서 제물을 마련한다. 마을 아낙네 가운데 한 사람이 선정되어 제물 준비를 도맡는다. 대개 50대 이상의 노령자이며, 제물 준비를 해 본 경험이 많은 이가 선정된다. 사흘 동안 제관과 집사, 방문하는 마을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이곳에서 마련한다.

포제 이틀 전에는 희생을 처리한다. 희생을 처리하는 일은 동장들이 맡는다. 먼저 돼지 두 마리가 도착하면 쓰러뜨려 앞발과 뒷발을 각기 묶는다. 종이에 '봉(封)'이라 써서 다리에 감아 맨다. 그런 뒤에 널빤지 위에 눕혀 놓는다. 제복을 차려입은 제관들이 나와 희생을 봉하는 제사를 모신다. 이 의례가 끝나면 본격적인 희생 처리에 들어간다. 한 마리는 바닷가로 옮겨 가서 처리하고, 다른 한 마리는 제장에서 처리한다. 바닷가에서 처리한 것은 당제, 제장에서 처리한 것은 포제에 각각 쓴다. 포제에 쓸 희생을 처리할 때에는 온갖 정성을 다한다. 일반적으로 돼지를 처리할 때는 우선 숨통을 끊어 놓고 털을 불로 그슬리지 제거한 뒤에 처리한다. 당제에 쓸 희생도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포제에 쓸 희생은 불로 그슬지 않고 끓인 물로 살갗을 익혀 처리한다. 그 뒤 배 부위를 길게 갈라 내장을 꺼낸다. 포제에 쓸 희생은 내장만 빼낸 채로 마치 살아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꾸민다. 바로 앉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다. 당제에 쓸 희생의 처리도 털과 때를 벗겨내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것은 역시 같다. 그러나 포제에 쓸 희생과는 달리 머리, '솔뒤(목)', '전각(앞다리)' 둘, '후각(뒷다리)' 둘, '접착뻬'(어깨), '숭(가슴)', 갈비 둘, '부피(꼬리)', '일룬(허리)' 등 부위별로 도려낸다. 이때 도려내는 부분이 모두 열두 개여서 '열두뻬'라고 한다. '열두뻬'는 솥에 넣어 삶고 내장은 '수에'(순대)를 만든다.

한편 이틀 전과 전날 저녁에는 본향당과 남당에 가서 제를 올린다. 포제를 지내기에 앞서 포제를 지내게 되었음을 고하는 것이다. 먼저 이틀 전 저녁에는 큰당에 가서 제를 올린다. 저녁 8시쯤 되면 당제관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제청을 나선다. 이때 제사를 도울 남자 한 명과 주부 한 명이 함께 차를 이용하여 큰당으로 이동한다. 밤길이어서 호롱불을 들고 길을 밝힌다. 과일, 오곡메, 산메, 떡, 희생, 폐백, 건어, 술 등을 올린다. 포제 전날 밤에는 남당에 가서 제를 올린다. 역시 제관은 이장이다. 이때는 동네 아낙네 몇 명이 함께 가서 제를 모신다. 이들은 '줌녀(潛女)' 대표들이다. 남당에 모시고 있는 중이대사는 돼지고기를 받아먹는 신이다. 이 신에게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리는 뜻으로 '열두뻬'를 부위별로 조금씩 썰어 바친다. 제가 끝나면 '지'를 쌴다. '지'는 제단에 올린 제물을 조금씩 덜어내 종이에 싼 것을 이른다. 이장은 가장 크게 '지'를 싸서 바닷가로 옮겨가 바위 틈에 두고 온다. 아낙네들도 각기 '지'를 싸서 바닷가로 간 뒤 바닷물에 '지'를 던지고 온다.

포제에는 희생으로 돼지를 올리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금한다.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제청이나 포제단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 제장에서 포제단으로 가는 길에는 황토를 뿌린다. 제장을 정화(精華)하는 의미이다. 어두워지기 전에 제관들은 예행연습을 한다. 이때 예법을 잘 아는 동네 어른이 방법을 일러주고 잘못을 바로잡아 준다. 자정이 되면 드디어 포제를 지낸다.

제관은 하늘색 도포를 입고 검은색 유건을 쓴다. 제관과 집사의 제복은 같다. 포제의 진행 순서와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거의 같다. 다만 집례석에 쪼그려 앉은 알자가 홀기를 읽는 점이 다르다. 제의 순서는 전폐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철변두-망료 순이다. 초헌례를 하면서 고축(告祝)을 한다.

축문의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이 마을의 생업과 관련된 것들이다. 농업과 관련된 내용, 즉 우순풍조 · 육축번성 등이 보편적인 대목이다. 여기에 덧붙여 어업, 농공업, 상업까지 기원하는 바를 두루 갖추었다. 옛날에는 어업과 농업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생업 수단이다. 이 마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공장이 들어섰고 최근에는 농공단지가 들어서서 공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농공 증산을 기원하는 대목이 필요한 셈이다. 그런가 하면 농공단지는 생산물을 파는 상업적 측면의 활동도 중요시된다. 그러므로 상업과 관련된 기원이 없을 수 없다. 교통안전과 같은 내용이 근래 추가되었다. 달라진 세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에 쓴 포제 축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원리에서 바다일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바다를 통한 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바다가 중요한 생업의 공간인 만큼 따로 해신제(海神祭)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행원리 마을은 어촌이기 때문에 해신을 위한 제의가 중시되는 것이 당연하다.

포제를 마치면 제관과 집사들은 제청으로 돌아간다. 제청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음복을 한다.

특징 복수의 신을 한데 모셔서 위하며, 포제를 지내기

에 앞서 당신에게도 제의를 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에 대한 의례가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앞선다. 제청에서 정성 들이는 방법, 희생 처리와 관련한 의례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점도 특별하다.

의의 포제와 당신앙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일부 상충되는 사항이 있지만 슬기롭게 문제점을 비켜가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점에서도 소중한 사례이다.

참고문헌 행원리의 민간신앙(강정식, 제주학 5, 제주학연구소, 2010).

필자 강정식(姜晶植)

제주회천동석불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 마을에서 매년 정월 상정일(上丁日)에 화천사(華泉寺) 경내의 석불을 대상으로 벌이는 마을 제사.

역사 석불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다만 구전으로 보아 석불을 모시게 된 것은 18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03년(숙종 29)에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 내 당과 절을 훼철할 때 이 마을에 있던 큰 절도 파괴되었다. 그 이후로 마을 청년들이 계속해서 죽자 주민들은 이것이 절이 파괴된 탓이라고 여기고 석불을 만들어 모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형태 불교적 성격의 석불을 대상으로 유교식 제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당신을 비롯한 무속신까지 함께 모시고 있는 등 매우 복합적인 형태를 지닌다.

기능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생업의 풍등(豐登)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확인하게 한다.

내용 석불제의 대상은 다섯 석불(石佛)이다. 자그마한 돌로 만들어진 미륵의 형상이다. 축문에서는 이를 '석불열위지신(石佛列位之神)'이라고 한다. 달리 당내화생미륵존불,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 법신불청정법신비로자나불, 원만보신로자나불, 극락도사아미타불이라고 제각기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석불제를 지낼 때나 마을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별다른 구분이 없다. 석불은 동회천동의 화천사라는 사찰 경내에 있다. 사찰 건물의 뒤쪽에 있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다.

제일은 정월 첫 정일(丁日)이다. 선달 스무닷샛날에 동총회를 열어 제향위원 예닐곱 명을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제관을 선정하게 한다. 제관은 헌관 세 명, 대축 한 명, 집사 두 명으로 구성한다. 제관과 집사는 건강하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여야 한다. 제사 비용은 희사금과 마을경비로 마련한다.

제관은 사흘 동안 제청에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 개인 집을 골라 제청으로 삼는다. 자녀를 다 키워 여유가 있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없는 집을 고른다. 그곳을 흔히 '도가'라고 한다. 정성을 들이는 기간에는 제관을 비롯하여 도가의 부인도 돼지고기와 술을 금한다. 제일 사흘 전에 마을 어귀에 해당하는 곳마다 금줄을 친다.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금하기 위함이다. 마을 사람들도 제관들과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하여 부정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다. 제관들이 도가에서 정성 들이는 동안에는 주민들이 방문하여 제주를 전하거나 희사금을 주기도 한다. 외지에 나가 사는 이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석불에 종이로 만든 옷을 입혀 둔다. 제일 밤 8시쯤에 도가를 떠나 8시 30분쯤에 화천사에 이른다. 먼저 석불에 제물을 진설하고 당신, 물신, 산신 순으로 진설한다. 석불의 경우 가운데, 그 왼쪽과 오른쪽, 바깥 왼쪽과 오른쪽 순으로 진설한다. 제물은 메 여덟 그릇, 편 여덟 그릇, 오과(五果), 채소, 제주, 명태 등이다. 메와 편이 여덟 그릇인 것은 제의의 대상이 다섯 석불 외에 산신, 물신, 당신 셋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오과는 배, 사과, 밤, 대추, 귤로 마련한다. 채소는 콩나물, 미나리, 무이다. 제주로는 소주와 음료수가 쓰인다. 명태 외의 바닷고기는 쓰지 않는다. 당연히 돼지고기는 제물로 쓰지 않는다. 메, 편, 채소는 신위마다 따로 올리되 나머지 제물은 하나로 함께 올린다. 산신에게는 쇠고기, 물신과 당신에게는 다른 바닷고기를 각각 올리기도 한다.

제의의 순서는 일반적인 포제와 조금 다르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잔을 올린다. 이어 독축을 하고 배례를 한다. 첨작은 하지 않고 잡식을 한다. 석불에 입혀 둔 종이를 걷어 사르는 것으로 제사를 마친다. 축문의 내용은 일반적인 포제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요 기원 사항은 주민안녕, 오곡풍등, 육축번성을 이루어 주고 전염병이 범접치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제사를 마치면 제관들은 바로 도가로 되돌아간다. 그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음복을 한다. 제사에 쓴 제복과 제기는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특이하게도 제복과 제기의 관리는 부인회에서 맡는다.

병술년(丙戌年)에 호열자가 창궐할 때에도 석불과 당이 있어 이 마을에는 침범하지 못하였다고 전한다. 석불이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히 득남을 원하는 사람이나 행방불명자를 찾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

특징 석불을 모셔 유교식 제법으로 마을 제사를 지내면서 산신, 물신, 당신 등 무속신들을 함께 제향한다. 당신에 대해서는 정월 열나흗날에 따로 당굿을 벌인다. 정작 이들 두 제의를 할 때에는 서로 오고가는 것이 없다. 석불에 종이옷을 입혔다가 벗겨내어 사르는 것도 특별하다.

남자들은 석불제, 여자들은 당굿을 각각 지내 남녀 의례로 철저히 분리된 듯하다. 석불제에는 당신까지 함께 모시지만 여자는 배제된다. 당굿에는 남자가 참여하지 않아 결국 배제되는 것이나 같다. 한편 여자들은 개별적으로 석불을 찾아 기원하기도 한다.

의의 유교식 마을 제사에서 불교 성격의 석불을 모시면서 당신을 포함한 무속신을 함께 제향하는 특별한 사례이다. 한편 제주도 당신앙에서 미륵을 모시는 사례는 비교적 흔하지만 회천동석불제처럼 유교식 제법으로 모시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참고문헌 회천리 학술조사보고(백록어문 10,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회, 1994).

필자 강정식(姜晶植)

제천면산산신제

정의 매년 음력 7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부산리에 접한 면산의 산신당에서 연행되는 산신제.

특징 대부분의 마을 제사가 음력 정월 또는 팔월 이후에 연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천면산산신제는 음력 7월에 연행되는 산신제로, 연행 시기상 사례가 흔치 않다.

내용 부산리는 제천에서 서남쪽으로 25㎞가량 떨어진 충주시와의 경계에 위치하는 마을로, 현 행정구역상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속한다. 몇 개의 자연마을이 합쳐져 구성되었으나 충주댐 건설로 아래쪽에 있는 마을들은 수몰되고 현재 16가구에 3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마을은 첩첩산중의 오지에 입지한 전형적인 화전촌(火田村)이다.

본래 부산리는 조선시대 청풍군 수하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제천군 수하면에 속하게 되었고, 1929년 다시 청풍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 충주댐의 담수와 더불어 독립적인 행정리를 이루던 단돈리, 방흥리, 오산리, 진목리를 부산리에 병합하여 오늘에 이른다.

부산리는 산신당이 위치한 면산과 접하고 있어서 생긴 지명이다. 면산은 며느리산 · 며뉘산 · 면의산 등으로 불리면서 이를 한자로 옮겨 부산(婦山)이 되었고, 이를 따라 마을의 행정명도 부산리가 되었다. 면산의 명칭에 대한 또 다른 설(說)에 따르면 이성계(李成桂)의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한 고려 유신 72명 가운데 세 사람이 이곳으로 옮겨와 목숨을 구하였다 하여 면위산(免危山)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변하여 면산이 되었다고도 한다.

1. 제당의 구성 부산리의 제당은 상당 · 하당의 이중적 구조가 많이 나타나는 충청 지역에서 흔치 않게 상당 · 중당 · 하당의 삼중적 구조를 보여 준다. 상당에는 산신을 모신 산제당(山祭堂)이 위치하고, 그 밑 마을과 인접한 곳에는 중당인 당산(堂山)이 자리하며, 마을 어귀에는 서낭당[城隍堂]으로 여기는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부산리의 산제당은 부산리 뒤편에서 서쪽으로

300~400m가량 떨어진 면산 자락에 있다. 정면과 측면이 한 칸가량 되는 작은 크기의 목조건물 위에 지붕은 석면 슬레이트를 얹었다. 상량문의 '단기 사이구이년(檀紀 四二九二年)'이라는 글자에서 산제당이 1959년에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제당 주위에는 말채나무 · 백화나무 · 칭칭이나무 · 팽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당샘 주변으로는 푸른 이끼가 풍부하게 자라고 있어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산제당 내 정면에는 '산신지위(山神之位)'라고 쓴 신위가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산제당 자리에는 원래 건물이 없이 제단만을 설치해 두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당시 작은 선돌을 세워 당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 이 선돌은 지금도 산제당 곁에 남아 있다. 선돌 옆에는 메를 짓고 청수를 올릴 때 이용되는 깊이 50㎝ 정도의 산제샘이 있다.

산제당 아래쪽으로 약 30m쯤 떨어진 작은 평지에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이것이 부산리의 중당인 당산나무이다. 원래 당산목은 수령이 수백년은 됨직한 느릅나무와 돌배나무가 서 있었으나 두 나무 모두 넘어져 없어졌다.

느릅나무가 넘어진 것은 1985년이라고 한다. 그해 제관이 손을 다쳐 피를 보았고, 산제를 모시는 날에는 비가 많이 내려 평상시보다 일찍 제를 지냈는데 두고 온 촛불이 사흘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아 불길한 조짐으로 여겼다고 한다. 연이어 산신제를 모신 고양주가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더니 그해 가을에 분 태풍으로 느릅나무가 쓰러졌다고 한다.

돌배나무는 1998년에 넘어졌다. 산제당에 여자의 접근을 금하는 규율을 어긴 탓에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진다. 현재의 당산나무 두 그루는 1999년에 식수한 것이다.

부산리의 서낭당은 마을 어귀의 길가에 있다. 수종은 느티나무이다. 별도의 신체나 돌무더기는 없고 시루를 올려놓을 때 사용되는 가로 53㎝, 세로 30㎝의 돌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서낭목의 크기는 둘레 337㎝, 수고(樹高)는 10m 안팎이다. 예전에는 서낭목 맞은편에 또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길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었으나 고사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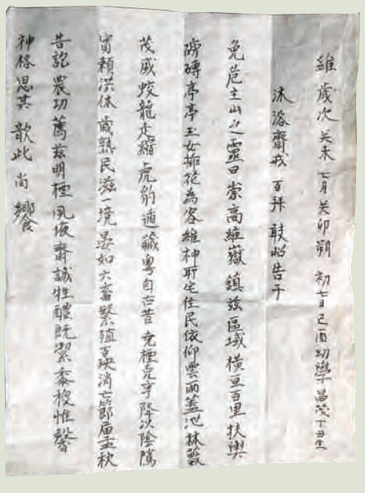
2. 제의의 준비 부산리의 면산산신제는 매년 음력 6월 그믐날에 날을 받고 고양주와 축관을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음력 7월 초사흗날을 전후하여 날이 잡힌다.

음력 7월 초하룻날 아침이 되면 고양주는 우선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준비한다. 왼새끼를 꼴 때에는 지푸라기 끝이 10㎝쯤 밖으로 삐치게 한다. 이는 잡귀나 돌림병이 금줄에 걸려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금줄의 주술적인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한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금줄의 중간 중간에 듬성듬성 끼운다.

고양주가 금줄을 꼬는 동안 그의 부인은 쌀 석 되서 홉을 깨끗이 씻어서 밥을 짓고 누룩에 섞어 조라술을 빚는다. 조라술은 작은 항아리에 넣어 당산나무 옆에 땅을 파고 묻어 발효시킨다.

제물은 여느 마을의 동제에 비해 매우 단출한 편으로, 통돼지 · 백설기 · 통북어 · 메 · 조라술 · 밤 · 대추 등을 준비한다. 요즈음 제물의 대부분은 읍내의 장터에 나가 미리 구입한다.

제물의 특징이라 한다면 상당, 중당, 하당에 올리는 제물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산제당에는 메와 청수만을 올린다. 당산에는 통돼지와 조라술 · 북어 · 밤 · 대추를 올리며, 하당인 서낭당에는 백설기를 올린다. 이 가운데 산제당에 올리는 메는 산제당 옆에서



산신제 축문
충남 제천시 청풍면 부산리, 2003. 7.28. 황헌만

산신제 충남 제천시 청풍면 부산리, 2003.7.28, 황헌만

직접 짓고, 조라술은 미리 당산 옆에 묻어 둔 것을 꺼내어 사용한다. 서낭당의 떡시루는 고양주의 집에서 솥에 얹어 쪄낸다.

3. 제의의 연행 제의 당일 아침이 되면 고양주와 축관은 면산에 올라 산제당과 당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을 어귀의 서낭당 주변도 정리해 둔다. 이때 준비해 둔 금줄을 산제당 입구, 산제당, 당산 입구, 당산나무, 마을 어귀, 서낭당에 걸어 산신제가 연행될 것임을 알린다. 제당 정리를 마치고 금줄을 치고 나면 다시 고양주 집으로 내려와 하당인 서낭당에 올릴 떡시루를 솥에 올려 찐다.

떡시루가 완성되면 고양주와 축관, 마을 사람 두세 명이 함께 제수로 올릴 돼지를 잡는다. 돼지는 당산에 올릴 제물이므로 당산과 마을 중간 즈음에서 준비한다. 내장을 빼 내고 털만 손질할 뿐 머리는 자르지 않는다. 당산에 올릴 때 통돼지를 그대로 올리기 때문이다.

돼지 손질이 끝나면 축관과 제관은 메를 지을 노구솥, 쌀, 청수그릇, 촉대(燭臺) 등을 챙겨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제상에 올릴 메는 당 옆 샘물을 길어 직접 짓는다. 메 준비가 끝나면 고양주와 축관은 제복으로 갈아입고 산신의 신위 뒤에 걸린 한지와 실타래를 새것으로 교체한 다음 메와 청수를 진설(陳設)하여 산신제를 지낼 준비를 끝낸다.

산신제의 제차는 매우 간결하다. 초에 불을 밝힌 뒤 분향을 하고 재배한다. 곧이어 독축(讀祝)이 이어지고 독축 후 재배한다. 재배 뒤에는 메를 몇 숟가락 떠서 함께 진설된 청수에 만다. 이는 유식(儒式) 제사에서 헌다(獻茶)와 같은 의미이다. 축문을 살라 소지를 올리고 재배하면 산신제의 모든 제차가 끝난다.

산신제가 끝나면 고양주와 축관은 다시 고양주의 집으로 내려와 당산제에 쓸 제물을 지게에 지고 당산으로 오른다. 당산제의 제물로는 통돼지, 북어, 밤, 대추를 올린다. 이때 묻어 둔 조라술을 꺼내 사용한다.

당산제의 순서는 미리 당산목에 감아 둔 금줄에다 접은 한지를 거는 것으로 시작하여 제물을 진설하고 분향 · 재배 · 헌작으로 이어지며, 제상에 진설한 북어에 실타래를 감아 당산목에 거는 것으로 간단히 끝나게 된다. 철상을 하면서는 헌작한 조라술을 당산 주변에 골고루 뿌리며, 남아 있는 조라술로 간단히 음복을 하고 마을로 내려온다.

다시 고양주 집으로 내려온 고양주와 축관은 오전에 마련해 둔 떡시루를 지게에 지고 하당인 서낭당으로 향한다. 서낭당에 도착한 고양주는 미리 둘러 둔 금줄에다 한지를 접어 걸고 시루를 진설한다. 시루 안에는 청수그릇을 얹고 그 안에 청수를 붓는다. 서낭제의 제차는 초에 불을 밝히고 분향한 다음 재배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난다.

대다수의 동제가 음력 정월과 시월 이후, 특히 정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음력 칠월에 연행되는 부산리의 산제는 흔치 않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자료를 찾아보면 부산리와 인접한 장선리와 제천시 청풍면 · 한수면, 충주시 산척면 ·

충남 제천시 청풍면 부산리, 2003.7.28, 황헌만

당산제

당산제 제물

서낭제

동량면 등에도 음력 칠월 동제가 연행된다는 보고가 있어 이러한 관행이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거론된 칠월 동제 연행 지역이 대부분 산촌이며 화전민이 입지한 지역이어서 지난날 화전촌 지역의 보편적인 세시풍속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와 더불어 화전촌의 주된 농업 생산물인 고추, 감자, 옥수수 등의 수확기도 이때와 겹쳐 있어 생산물의 수확과 음력 칠월 동제의 연관성도 생각할 만하다.

참고문헌 민속박물관 사람들의 세시풍속현장조사6년 DVD(국립민속박물관, 2008).

필자 김창호(金昌鎬)

제천오티별신제

정의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에서 전승되어 오는 별신제. 2001년 2월 3일에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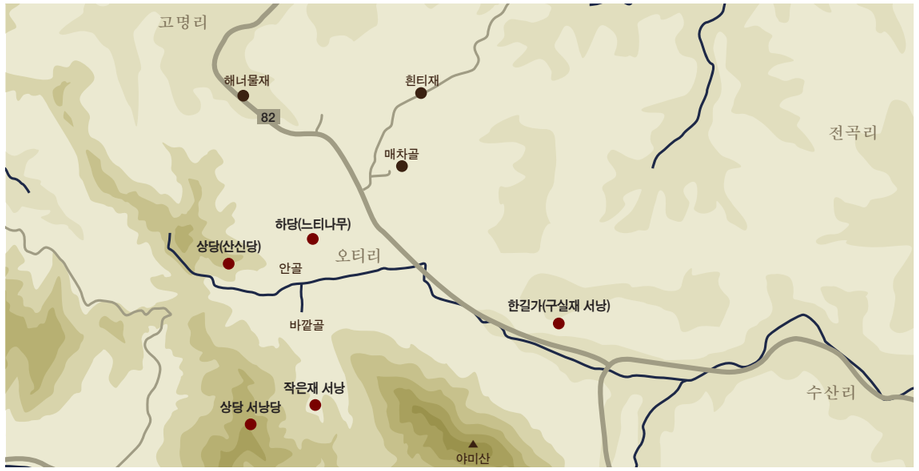
특징 산신제와 서낭제로 구성된 동제(洞祭)이다. 산신제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지는 유교식 제사로서 남자 위주의 제관들만이 참여하고 풍물이 수반되지 않는다. 서낭제는 개방적이며, 서낭대로 신의(神意)를 직접 확인한다. 풍장이 울리는 잔치 분위기의 제사이다. 한 해는 산신제만 지내고 이듬해에는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낸다. 충북 동북부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로 매년 지내는 산신제와 서낭제가 하나의 지역 특색으로 전승되어 온다. 오티별신제는 이러한 지역 전통을 잘 간직한 대표적인 동제이다. 그러나 '별신(別神)'이 어떤 신령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외형상 서낭이 별신인 듯 보이지만 신위(神位)나 제물 등은 별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 무당이 참여하지도 않는다.

내용 오티리[吾峙里]는 원래 봉화재, 해너물재, 흰티재, 구실재, 말구리재라는 다섯 고갯마루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들 고개는 각각 충주, 제천, 청풍, 지곡, 덕산으로 이어진다. 이들 고개마다 서낭이 모셔져 있다. 지금은 도로 개설로 인하여 해너물재, 흰티재, 구실재는 평탄지가 되었다.

오티별신제는 격년으로 치러진다. '별신이 들지 않는 해'에는 산신제와 매차골 서낭제만 지낸다. 이들 제사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모셔진다. 상당인 산신당은 안말 뒷산에 있고, 하당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이다.

산신제와 더불어 서낭제를 지내는 해, 곧 별신제를 올리는 해에는 '봉화재의 상당 서낭', '작은재 서낭', '구실재', '해너물재', '흰티재'의 5개 서낭에서 제사를 지낸 뒤에 마지막으로 이곳 하당에 있는 느티나무를 모신다. 이들 서낭 가운데 봉화재 정상에 있는 '상당 서낭'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서낭은 모두 '하당 서낭' 또는 단순히 '하당'으로 불린다. 산신당인 상당과 대비되는 하당이 아니라 서낭 가운데에서도 하당에 속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평소에는 이들 네 개의 '하당 서낭'과 '느티나무 하당'을 구분하지 않고 동민(洞民)들은 모두 '하당'이라고 불렀다. 오티별신제가 2001년에 충북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될 무렵부터 느티나무 하당을 '본당(本堂)'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별신이 드는 해이든 그렇지 않든 안골 산신제를 지낸 뒤에는 이어서 항상 건너편의 매차골에서 서낭제를 지낸다. 이는 매차골만의 동제로서 다섯 고갯마루의 서낭제와는 다른 제사이다. 산신제와 함께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매차골 주민 가운데 제관을 선출한다.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신앙대상물의 위치

'별신이 드는 해'에는 열나흗날 산신제와 매차골 서낭제를 지내고, 보름날에는 마을을 둘러싼 다섯 고갯마루에서 서낭제를 지낸다.

상당 서낭은 으뜸 서낭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상당 서낭의 위치 역시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봉화산 정상이다. 조선시대에 봉화대(烽火臺)가 있은 곳이라 하여 '봉우뚝 서낭'으로도 불린다. 하당 서낭이 이웃 마을과의 경계에 위치하여 오티리의 영역을 확정하고 알리는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면 상당 서낭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한 상징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각각의 상당, 곧 산신당과 상당 서낭당은 모두 그들의 보조 하위 신인 수비를 거느리고 있다. '산신 수비당'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오른쪽의 산 아래에 있고, '상당 서낭 수비당'은 상당 서낭당 바로 앞의 소나무를 신체(神體)로 한다.

먼저 '별신이 드는 해'의 산신제와 서낭제를 소개한다.

1. 산신제 산신제는 해마다 음력 열나흗날 오후에 안골 서쪽의 골짜기에 위치한 와가(瓦家) 한 칸으로 된 산신당에서 지낸다. 산신당은 예전부터 '붉은당'이라고도 불려 왔다. 산신제는 오후 늦게 지낸다. 과거에는 해가 저물고 나서 산신제를 지냈다.

이장과 총무 등 마을 대표들은 아침 일찍 장을 봐서 고양주 집에 제물을 가져다 준다. 산신제 제물 마련은 고양주 집에서 한다. 고양주 내외는 산신제 하루 전에 목욕재계를 하며, 당일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제물 준비를 한다.

고양주 집에서 제물을 마련하는 사이에 조역을 맡은 사람들은 돼지를 끌고 산으로 간다. 산신당 아래의 조역장에서 도살하여 해체 및 분육(分肉)을 하고, 솥에서 삶아 낸다. 돼지가 어느 정도 삶겼으면 큰 그릇에 받쳐 산신당으로 가져간다.

진설이 끝나면 제관이 분향(焚香)을 하고 헌작(獻爵)을 한다. 축문에 이어 소지를 올린다. 산신소지-대동소지-고을소지-국가소지 순으로 올린 다음 가가호호(家家戶戶)소지를 한 장씩 올려준다. 제관 일행은 조역장에서 음복을 한다. 오티리에서는 산신당 안에서 음복하지 않는다.

하산한 제관, 축관, 고양주, 조역은 함께 하당인 느티나무로 향한다. 이곳에서는 제물을 진설하고 분향한 다음 단잔만 올린다. 다음에는 느티나무 하당 바로 옆에 있는 산신 수비당에서 간단히 제사를 지낸다.

매차골 서낭제
김병관

2. 매차골 서낭제 다음으로 매차골 동제인 서낭제를 지낸다. 마을 어귀 오른쪽 언덕 위로 소나무 한 그루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당집이 있다. 서낭제의 제관은 매차골 주민 가운데에서 뽑는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제관은 분향을 하고 잔을 올린다. 축문은 읽지 않는다. 다음에는 서낭소지를 올리고 나서 국가소지-제천군소지-오티리 마을소지-개인소지-우마소지 순으로 올린다.

3. 상당 서낭제 보름날 오전에 오티리의 다섯 고개에 위치한 서낭에게 제를 올린다. 특히 봉화재의 서낭은 더욱 중요시되어 '상당 서낭'으로 불린다. 그래서 먼저 상당 서낭을 위하고, 이곳으로부터 가까운 위치 순서대로 서낭 네 개에 제를 지낸다. 곧 작은재, 구실재, 흰티재, 해너물재의 차례이다. 근래에는 흰티재와 해너물재의 서낭제는 안골 앞 삼거리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다섯 고개 모두에서 서낭대를 잡기 때문에 대잡이를 항시 대동한다.

이른 새벽에 풍장패를 앞세우고 제관과 동민들은 봉화재에 오른다. 서낭당 앞에 다다르면 기수(旗手) 두 명이 깃대를 창(槍)처럼 잡고 정면을 향해 내려 "와!" 하고 크게 외치면서 제당을 한 바퀴 돈다. 기수 뒤로 모든 사람이 따라서 돈다. 이렇게 해야만 잡귀의 범접을 막을 수 있다.

농악패는 쉬지 않고 풍장을 울리고 제관들만이 당집으로 들어가 제사를 지낸다. 술은 단잔을 올리고 축문은 생략한다. 소지는 상당서낭소지-별신제소지-나라소지-마을소지-제관 · 축관 · 고양주소지 순으로 올린다.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수비에게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수비까지 위하고 나서 비로소 서낭대를 잡는다. 이때 계속해서 풍장이 울리는 가운데 신령이 대에 강림하길 기원한다. 대잡이 곁에는 말솜씨가 좋은 재담꾼이 서서 신령이 대에 잘 강림하시길 기원한다. 이윽고 대에 신령이 내리면 대잡이에게 마을의 현안을 질문하고 신의를 얻는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2010.2.28, 이필영

상당 서낭당의 풍물패

작은재 서낭제

해너물재 서낭과 흰티재 서낭의 합동제사

4. 하당 서낭제 다음에는 하당 서낭인 작은재, 구실재, 해너물재, 흰티재에서 제를 지낸다. 본래 당집은 없었고 매차나무와 돌무더기가 있었다. 지금은 돌무더기도 없다. 예전에는 이곳 서낭을 지날 때 행인들이 돌

제천오티별신제 김병관

상당제의

서낭대잡이

허재비 곤장치기

허재비 풀이

이나 동전 · 헝겊 등을 던져 예를 표했다.

네 개의 하당 서낭제는 모두 동일한 절차와 내용으로 모셔진다. 곧 분향-헌작-재배-소지로 이루어진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다음 서낭을 모실 때마다 술잔이 하나 추가된다는 사실이다. 곧 상당 서낭에서는 한 잔을 올렸지만 작은재에서는 두 잔, 구실재에서는 세 잔, 해너물재에서는 네 잔, 그리고 마지막 흰티재에서는 다섯 잔을 각각 올린다. 결국 서낭의 순위에 따라 각각 다섯, 넷, 셋, 둘, 한 개의 잔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각 서낭에서도 모두 서낭대에 신령을 내리게 하여 신탁(神託)을 받는다.

5. 본당제(하당제) 하당 서낭제에 이어 안골 어귀에 위치한 느티나무에서 본당제를 지낸다. 산신부터 상 · 하당에 이르는 마을의 모든 신령을 모시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본당'으로 불리게 되었다.

본당제 제물로 예전에는 통소를 쓸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쇠머리와 우족 네 개만 올린다. 여기서는 잔을 일곱 개 놓는다. 이는 산신, 상당 서낭, 하당 서낭(작은재, 구실재, 해너물재, 흰티재), 하당(느티나무)의 일곱 신령을 위한 것이다. 제를 마치면 역시 서낭대를 잡아서 신의를 묻는다.

서낭대를 놀리고 나면 비로소 본당제가 끝이 난다. 그러면 제물을 내려서 음복을 하고, 구경꾼들까지 모두 모여 식사를 한다.

6. 해물리기 마을회관 앞에서 식사를 마치면 마지막 절차로 해물리기를 행한다. 인근에서 쇠를 잘 치기로 유명한 오티리의 풍장패가 한판 요란한 장단과 가락을 쳐 대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서낭대에 신령을 내려

본당제의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2010.2.28
이필영

신의를 묻는다.

다음에는 마을의 재담꾼이 볏짚으로 만든 허재비로 해(害)를 물리는 허재비풀이를 한다. 한 쌍의 남녀 허재비는 각각 '당나라'와 '당초위'라고 부른다. 재담꾼은 이들을 한참 동안 어르고 달래며 중간에 호통도 치고 곤장을 들기도 한다. 마을의 액운과 함께 어서 멀리 도망가라는 주문이다. 이처럼 어르고 달랜 다음에도 나갈 것 같지 않다고 여기면 다시 엎어놓고 곤장을 친다. 엄포를 줄 만큼 주었다고 여기면 곤장을 거두고, 수수팥떡이 꽂힌 화살을 허재비를 향해 쏘아댄다. 이때 재담꾼은 "칼로 찌르면 배가 갈라지고! 화살로 찌르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 어서 도망을 가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바가지에 여러 제물을 담아서 마을 밖으로 내버린다. 허재비를 비롯한 잡귀들을 풀어먹이는 행위이다. 이번에는 허재비 등이 잘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을 바깥 방향으로 식칼을 힘껏 던진다. 이때 칼끝이 마을 밖을 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객귀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칼끝이 밖을 향할 때까지 다시 던진다. 칼끝의 방향이 바깥으로 되어 있으면 땅바닥에 X 자를 긋고 그 가운데에 칼을 꽂는다. 바가지는 한 옆에서 밟아서 깨뜨린다. 재담꾼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침을 퉤하고 뱉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돌아온다. 칼은 그대로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치운다.

모든 제사 절차가 끝나면 더 이상 풍장을 울리지 않는다. 마을에서 쇳소리가 들리면 나간 객귀가 다시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본당에 모여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제물로 올린 돼지뼈나 쇠뼈는 개가 먹지 못하도록 땅에 묻는다. 이는 신령이 운감한 제물이기 때문에 깨끗이 처리하려는 것이다. 한편 떡과 돼지고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집집에 조금씩 나누어 준다. 쇠머리는 이튿날인 열엿샛날 점심 때 국을 끓여서 나누어 먹는다. 이날을 '학개닦는날'이라고 한다. 일종의 뒤풀이이다. 쇠족은 제사를 지내느라 수고한 고양주, 제관, 축관, 이장 등에게 나누어 준다.

마을의 대수대명인 당나라와 당초위 허재비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2010.2.28
이필영

참고문헌 **오티별신제의 성격**(최명환, 제천 오티별신제의 성격과 특징, 충북문화재연구원 학술세미나, 2010), **오티별신제의 절차와 내용**(남향, 제천 오티별신제의 성격과 특징, 충북문화재연구원 학술세미나, 2010), **제천시 오티별신제**(이창식, 제천문화원, 2001).

필자 **이필영(李弼泳)**

제천입석리선돌

정의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에 있는 일곱 개의 돌을 쌓아 이루어진 돌. 2001년 2월 2일에 '충청북도 기념물 제117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선돌백이라고도 부르는 화강암 재질의 이 선돌은 세 단으로 되어 있다. 하단부는 전체 높이 66㎝의 낮고 폭이 넓은 세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그 위에 높이 96㎝, 너비 140㎝, 두께 96~116㎝의 돌 세 개를 올려놓아 중앙부를 이룬다. 상단부에는 전체 높이 245㎝, 너비 258㎝, 둘레 654㎝의 커다란 돌을 올려놓았다. 일곱 개의 돌이 쌓여 하나의 선돌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선돌의 전체적인 크기는 높이 407㎝, 너비 258㎝, 두께 90~125㎝로 매우 큰 편에 속한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이 선돌에서 유래하여 이 마을은 입석(立石)으로 불리고 있다.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선돌의 축조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자풍속의 부녀제의 등으로 이 선돌을 믿고 있었다. 선돌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선돌을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1974년에 자발적으로 '선돌회'를 조직하여 관리하다가 1986년부터 매년 음력 시월 중에 택일하여 선돌제를 지내고 있다.

제의는 일반적인 유교식으로 지낸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의로서 수호적 기능의 대상물로 섬기고 있다.

이 선돌은 기자신앙의 대상물이기도 하다. 길에서 돌을 던져 선돌 위에 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밤에 제를 지내고 돌을 던졌다. 음력 정월대보름날 한밤중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선돌에다 금줄을 두르고 음식을 차려 놓은 다음 부녀자가 제를 행하였다고 한다. 이 선돌에 얽힌 마고전설이 확인된다.

> 까마득한 옛날 충주 언저리를 나돌아 다니던 마고(麻姑)할미들이 우연하게 이곳에서 마주쳤다. 평소 사이가 나빠 서로 으르렁대던 두 마고할미는 서로 힘자랑을 하게 되었다. 한 마고할미가 옆에 있던 큰 돌을 냅다 던졌다. 그 돌은 논 가운데로 날아가더니 땅에 박혀 우뚝 섰다. 이것을 본 다른 마고할미가 역시 커다란 돌을 집어들더니 앞서의 할미가 던진 곳을 향해 던졌다. 그 돌은 하늘을 날아 먼젓번에 던진 돌 위에 떨어져 두 개의 돌이 겹치면서 하나의 돌처럼 되었다. 결국 여기서 벌인 두 마고할미의 힘내기는 승부를 보지 못한 채 끝났으며 두 마고할미는 각기 제 갈길로 떠났다. 이때 마고할미가 던진 돌이 입석리의 선돌이다. 지금도 이 선돌의 중간에 층이 진 것같이 보이는데 이는 두 개의 돌이 겹쳐 있어 그런 것이다.

입석리의 선돌은 원래 형태가 잘 남아 있다. 충북 지방에서 조사된 선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며, 일곱 개의 돌로 쌓은 매우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참고문헌 성, 숭배와 금기의 문화(김종대 외, 대원사, 1997), 제천시지 하(제천시, 2004), 충북의 민속문화(이창식, 푸른사상사, 2003), 한국의 성숭배문화(이종철, 민속원, 2003).

필자 이창식(李昌植)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2009.10.28. 이창식

선돌

선돌제

조라

표제어 제주(786쪽)

주부(主婦)

정의 마을신앙이나 가정신앙에서 제물을 준비하거나 의례를 직접 주관하는 주체로서, 한 가정의 안주인인 가정주부.

내용 주부는 민간신앙에서 신앙의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례를 의뢰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주체이다. 주부는 가족 구성원의 안녕이나 집안의 화평을 위해 다양한 의례를 거행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의례를 행할 때는 개인신앙의 주체가 되고, 가정을 단위로 의례를 베풀 때는 가정신앙의 주체가 된다. 심지어 마을신앙에서 제물을 장만하기도 하고 제사를 직접 수행하는 마을신앙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주부는 민간신앙에서 의례를 수행하는 직·간접적인 주체의 종교적 사제(司祭)이다.

특히 가부장권을 중시하는 의례가 남성 중심, 즉 가장(家長) 중심으로 베풀어진다면 그 이외의 민간신앙 주체는 그 집의 주부(主婦)이다. 주부는 한 가정의 안주인인 동시에 집안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모든 의례의 주관자인 셈이다.

민간신앙은 무속, 마을신앙, 개인 및 가정신앙으로 구분된다. 주부는 이들 의례에서 제각기 다른 역할을 맡는다. 무속은 전문 사제가 주축이 되어 베푸는 의례이지만 그러한 의례가 시행되려면 주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하여 종교적인 해결책이 요구될 때 그 집안의 안주인인 주부는 무당이나 법사를 찾아간다. 그런 뒤 굿이 거행될 때 주부는 제물을 준비하고, 각종 굿이 진행되는 동안 별비(別費)를 올리기도 하고, 각 절차에서 비손을 하거나 소지를 올리는 등 종교적 소망을 담은 의례를 주관한다. 무당과 더불어 주부는 굿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마을 제사에서도 주부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 우선 제사를 주관할 제관은 신수를 보아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 가운데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그 부인이 정(淨)한가 부정(不淨)한가의 여부이다. 월경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등 주부의 깨끗함 역시 고려 대상이 된다. 제관과 더불어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자로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주부는 제물을 장만해야 하는 실질적인 역할이 주어지므로 중시된다. 제물 마련은 제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부는 마을 제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주부가 마을 제사와 관련을 맺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문화의 전승 주체로서 남성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할 때나 여성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주부가 그 주체가 된다.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전통의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려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부는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민간신앙의 주관자로서 그 집안의 가운(家運)을 유지하고 지키는 수호자이다.

간혹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제비를 거두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돈을 걷는 사람은 '돈주부', 쌀을 걷는 사람은 '쌀주부'라고 한다. 그러나 이때의 주부는 여타의 주부(主婦)와 다르다. 주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사용된 예에 불과하다.

지역사례 일부이기는 하지만 마을신앙이 주부에 의해 주관되기도 한다. 남성이 지내 오던 제사가 중단될 위기가 되자 여자들이 나서서 제사를 유지하기도 하고, 마을 뒷산의 산신이 여성이라 하여 여자가 제관이 되기도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산의절마을, 교촌동 칠성당마을의 경우 남자가 제사를 중단하자 여자들이 나서서 제사를 존속시키고 있다. 산의절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무당이 서낭제를 주관하였다. 최근에 부정이 없는 깨끗한 여자를 선정해 제관으로 삼아 제사를 모신다. 칠성당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과 칠월칠석에 용왕제와 칠성제를 지내다가 마을 남자들이 제사를 중단하였다. 마을회의를 거쳐 제사를 부활시키면서 제관으로 여자를 선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망월동 분토마을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당산제를 미신으로 간주하여 중단하자 최근에 할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부활시켰다.

대전 중구 구완동 완전마을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이유로 여자가 산신제의 제관직을 맡고 있다. 이 마을의 산신은 '산신할머니'라 불리는 여산신이다. 여산신을 모실 제관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여자가 제관이 된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과례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낼 때 제관은 여자, 축관은 남자가 맡는다.

탑제, 장승제, 거리제, 용왕제 등 하당(下堂) 제사 가운데 용왕제는 여성이 맡아서 하기도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윗사정마을에서는 마을 어귀 장승 앞에서 남자들이 거리제를 지내면 그 뒤를 이어 여자들이 공동우물에서 샘제(용왕제)를 지낸다. 이때 남자들은 제사를 지내는 동안 풍물을 울려 준다.

여성의 성적(性的) 역할이 강조되어 주부가 의례의 주관자가 되기도 한다. 마을 단위로 기우제를 지낼 때 여성이 주축이 되어 지내기도 한다. 남성들이 기우제를 지내기에 앞서 여성들이 나서서 먼저 기우제를 지낸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완동 옥녀봉마을에서는 가뭄이 들면 남자들이 지내기에 앞서 주부들이 나서서 기우제를 지낸다. 밤에 치(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들고 우물이나 냇물로 나가 치로 물을 까부른다. 치 끝으로 떨어지는 물의 모양이 비가 오는 것과 같다는 모방주술의 원리를 이용한 의례이다. 이 의례에는 남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경북 경주시에서는 가뭄이 들면 여자들이 남산에 올라가 일제히 소변을 누기도 하고,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자북마을과 전남 진도에서는 명산에 묘를 써서 가뭄이 들면 여자들이 나서서 명당에 묻힌 시신을 꺼내고 기우제를 지낸다. 이 기우제에는 할머니나 주부만이 참여한다.

간혹 주부 가운데 특별한 자격이 추가되기도 한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맏아들을 낳은 여자만이 물을 들고 나서서 부잣집 처마에 물을 끼얹으며 기우제를 지낸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남편을 잃은 과부 삼대가 사는 경우 그들을 불러 놓고 머리 위에 솥뚜껑을 뒤집어씌우고 동네 사람들이 그 위에 물을 뿌린다. 이처럼 맏아들을 출산한 사람 또는 과부 등 특별한 자격은 주부 가운데에서도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 존재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광주의 당산제**(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93), **기우제와 지역사회**(임장혁, 민속원, 1998), **민간신앙**(이필영, 대전의 민속지, 1998), **음력 정월의 세시풍속과 가정주부**(김효경, 샤머니즘연구 5, 한국샤머니즘학회, 2003), **충남지역의 동제연구—동제 관련 촌락자료를 중심으로**(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효경(金孝慶)**

주저리

정의 짚을 원추형으로 엮어서 가신(家神)을 안치한 단지나 신체(神體) 등을 덮는 데 사용하는 조형물.

내용 주저리는 집 안에 모신 터주단지 · 칠성단지 · 업단지 · 대감단지 등을 덮어서 신체를 보호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유주지, 유지기, 유두지, 터줏가리, 업가리, 짚가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주된 재료는 볏짚이다. 이 외에 갈대, 밀짚, 수숫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볏짚만큼 빈도가 높지 않다.

주저리는 해마다 다시 엮어서 갈아주는 것이 관례이다. 가을걷이를 마치면 집안에서 상달고사를 지내기 전에 깨끗한 볏짚을 골라 주저리를 엮는다. 가령 터주단지의 주저리는 어른 서너 주먹만큼의 짚을 가지고 만든다. 갈퀴 등으로 볏짚의 하부에 달린 잔잎을 긁어 낸 뒤 상부를 묶는다. 이어 묶은 부분의 위쪽을 꺾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한다. 이렇게 주저리를 만들고 나면 마치 우산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된다. 다 엮은 주저리는 하부 중앙을 벌려 터주단지에 씌운다. 그리고 왼새끼로 꼰 금줄로 단지 주위를 묶어 주어 주저리가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이처럼 주저리로 단지를 덮어 두는 것은 눈 · 비로부터 터주단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 주저리를 씌우는 데 왼새끼가 사용되는 것은 잡귀의 범접을 막고 쥐 따위의 해충을 물리치려는 주술적인 목적이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벼를 베면 볏단을 묶어 가정의 앞마당에 가져다가 쌓아 놓았다. 볏단은 보통 원추형으로 쌓는데 다 쌓고 나면 상부에 주저리를 엮어 덮어 놓았다. 볏가리를 덮는 주저리 또한 터주단지의 주저리와 동일하다. 다만 터주단지의 그것보다 볏짚의 양을 많이 하여 주저리를 만든다. 이처럼 주저리를 만들어 볏가리를 덮는 것은 이슬이나 비로부터 벼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주저리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2010.4
박종익

지역사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산자뜸의 마을 주민은 야산과 주택 대지의 경계 부분에 대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이 경계 부분에 단지를 놓고 주저리로 덮어 놓았다. 이것을 업가리라고 한다. 족제비나 구렁이, 두꺼비 등의 업신을 위할 목적으로 봉안한 신물(神物)이라는 것이다. 주저리를 씌운 업가리는 경기도 지역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사례이다.

충북 옥천 지역에는 마을 어귀에 놓여 있는 선돌이나 돌탑의 머릿돌에 간혹 주저리를 씌우기도 한다. 선돌이나 탑의 머릿돌은 그 자체가 암석인 까닭에 눈과 비를 맞아도 손상될 염려가 없다. 그럼에도 주저리를 씌우는 까닭은 선돌이나 탑의 머릿돌을 사람의 두상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충남 공주 · 금산 · 대전 등에서는 동제를 지내기 전에 선돌과 탑의 머릿돌에 한지를 씌우고 왼새끼로 묶어 두기도 한다. 이를 '옷 입히기'라고 하는데, 이는 마을신을 위해 묵은 옷을 벗기고 새옷으로 갈아입힌다는 폐백의 의미이다.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는 주저리형의 당집이 등장하기도 한다. 즉 건물 형식의 당집 대신 볏짚을 터줏가리 모양으로 엮어서 산제당으로 모신 것이다. 짚으로 이엉을 얹듯이 엮은 이 제당은 높이 1.5~2m, 둘레 3m 내외의 비교적 큰 규모인데, 마을에서는 속칭 '터줏가리'라고 부른다. 이곳에는 쇠말을 안치하거나 동제를 모시는 날 터줏가리 속에 제상을 안치하고 제를 지내기도 한다. 또한 마을에 따라서는 산제당의 제기(祭器)를 보관할 목적으로 주저리를 씌우기도 한다.

전남 진도에서는 풍요를 기원할 목적으로 유지깃대에 주저리를 매달아 놓았다. 버섯 모양의 주저리를 엮어 깃대에 매달아 놓았는데, 그 이면에는 생업의 풍요의지가 깃들어 있다.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에서는 고기잡이와 관련된 주저리달기 풍속이 전한다. 이 주저리달기는 고기잡이의 결과를 축하하고 또한 과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 일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민들이 목선을 사용하여 고기잡이를 하였다. 따라서 이동 시에는 해류와 바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특히 원거리 고기잡이 때에는 해류의 이동과 바람의 방향 및 세기를 이용하여 돛배로 항해하였다. 고대리 안섬을 비롯한 서해안 어부들은 정초부터 연평도에 나가 고기잡이를 많이 하였다. 정초로부터 봄철에 이르는 연평도 고기잡이에서는 주로 조기를 잡았다. 그런데 해류와 돛을 활용한 이동인 까닭에 이동 자체가 순조롭지 못하였다. 특정 장소에 한 번 이동하게 되면 의도하는 곳으로의 이동은 다음 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따라서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고기를 잡는 것이 목선 어부들의 관행이었다. 일정한 지역에서 머무는 기간은 물때를 기준으로 보름부터 두 달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처럼 특정 장소에서 오랜 기간 고기를 잡는데 만선이 되면 현장에서 잡은 고기를 거래하였다. 잡은 고기를 팔아넘겨야 창고가 비게 되고 다시 잡은 고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전에는 고기를 사러 다니는 상선이 있었는데 이들 상선에 고기를 팔아넘겼다. 현장에서 팔아넘기는 고기는 부두의 어시장에 넘기는 값에 비해 비교적 싼 편이었다. 보통 제값보다 20~40% 싼 값으로 고기를 넘겼다고 한다.

이렇게 보름에서 두 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고기를 잡고 나면 어부들은 자신의 고향 포구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이때 그동안 잡거나 판 고기의 양에 비례해서 주저리를 뱃기에 단다. 관행상 잡아서 판 고기가 한 배일 경우 하나의 주저리를 달고, 다섯 배인 경우는 다섯 개의 주저리를 단다. 이처럼 잡아서 판 양만큼의 주저리를 뱃기에 매달아 뱃머리에 세우고 고향의 포구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멀리 포구가 보이

면 풍장을 울리며 흥겨운 리듬의 〈배치기소리〉를 한다. 일명 〈봉죽타령〉이라고도 불리는 〈배치기소리〉는 선창자가 앞소리를 매기고 후창자가 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리듬이 매우 빠르고 경쾌하다.

한편 주민들은 포구에 나와 목선의 귀환을 맞이한다. 그리고 부두 가까이 배가 다가오면 뱃기를 통하여 누구네 배가 들어오는지를 살핀다. 또 배가 보다 가까이 오면 뱃기에 걸린 주저리를 보고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배의 선주를 비롯한 선원들의 가족에게 축하인사를 건넨다. 선주와 선원들의 가족 역시 이 주저리를 보고 고기잡이의 풍흉을 인지한다.

이러한 전통에 유래하여 송악읍 안섬에서는 제당의 한 쪽에 봉죽기를 세워 놓고 당제를 지낸다. 봉죽기는 일종의 뱃기라고 할 수 있는데, 뱃기의 상부에 서리화를 꽂고 깃대에 주저리를 매단 것이다. 여기에서 서리화는 조선시대 과거급제자의 모자에 꽂아 주는 어사화를 모방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장식을 깃대 상부에 꽂아 놓는 것은 고기잡이에서 장원을 하게 해 달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깃대에 주저리를 다섯 개 매단 것도 바다에 나가 다섯 차례의 만선을 하게 해 달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섯 배 가득 고기를 잡아서 팔 수 있게 해 달라는 풍어의 의미로 뱃기에 주저리를 매달아 세우고 당제를 지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금산의 탑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용인의 마을의례**(용인시 · 한국역사민속학회 외, 2000),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인병선, 현암사, 1995), **장동이 민속지**(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안섬 당제의 실상과 활로 모색**(박종익,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한국의 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짚 문화**(국립민속박물관, 1991), **한밭의 마을신앙**(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1993).

필자 **박종익(朴鍾翼)**

죽령산신

표제어 다자구할머니(194쪽)

죽령산신당(竹嶺山神堂)

상호참조 다자구할머니(194쪽), 죽령산신제(849쪽), 죽령산신제문서(851쪽)

정의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3리에 있으며, 조선시대 국행제(國行祭)이던 죽령산신제의 제당. '국사당(國師堂)'이라고도 불리며, 목조기와 형식을 갖추고 있다. 1976년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죽령산신당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世宗) 19년 3월 계묘(癸卯)에 "단양군의 죽령산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죽령산지신이라 쓰고 위의 제사지내는 곳은 선덕 7년의 수교에 의해 죽령산 기슭으로 옮길 것(丹陽郡竹嶺山小祀 廟位版 書竹嶺山之神 右祭所 依宣德七年受敎 移竹嶺山麓)"이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조선 초기 사전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제장(祭場)이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장의 이동은 세종 연간에 추진된 사전(祀典)의 등제 및 신호(神號)의 개혁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국가의 사전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죽령산이 국행의례로서 소사(小祀)로 등재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산 정상에 있던 제당이 산 중턱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후 죽령산신당의 중수(重修)에 대한 내용은 죽령산신제문서인 『치성문(致誠文)』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치성문』 가운데 「죽령사 중수재건기(竹嶺祠重修再建記)」의 해당내용을 보면 "本竹嶺山神堂祠宇 幾函轉覆之境 而是歲春三月 重修再建竣工 檀紀四二八一年戊子三月 都監白"이라 하여 1948년 3월에 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3리에 위치한 죽

죽령산신당 전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3리, 2010.6.9, 오문선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3리, 2010.6.9, 오문선

죽령산신당 전퇴부분

죽령산신당 내부

령산신당의 상량문은 "檀紀四二八一年 戊子三月初八日未時 上樑伏願基壽永昌"으로 기록되어 있어, 1948년의 중수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죽령산신당은 해발 400m의 용부원3리 앞 당산 정상에 위치하며, 당의 주변에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둘러싸고 있다. 죽령산신제의 제사대상은 죽령산신으로, 그 신격(神格)은 다자구할머니이다. 용부원리 죽령산신당 내부에는 '죽령산신지위(竹嶺山神之位)'라 적은 위패를 모셔 두고 있다.

현재 죽령산신당은 전면 세 칸, 측면 한 칸, 뒷면 통칸의 규모이며, 평면은 장방형으로 전퇴집의 형식이다. 기둥은 나무로 만든 원기둥이다. 지붕은 조선시대 권위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팔작지붕 형식을 갖추고 있다. 산신당의 내부는 단을 설치하여 죽령산신당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천장에는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처마와 기둥 등의 단청은 가칠단청으로, 무늬 없이 단색으로 칠한 단청이다. 주로 수직부재인 기둥이나 동자주 등은 붉은색, 나머지는 옥색으로 칠했다. 당의 앞마당은 자연석을 넓적하게 다듬어 깔아 정비하였다.

무속인들이 출입하여 당 주변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 당 외부에 울타리를 치고 당의 출입문에도 열쇠를 달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참고문헌 **죽령국행제조사연구**(이창식 · 안상경, 박이정, 2003).

필자 **오문선(吳文仙)**

죽령산신제(竹嶺山神祭)

상호참조 다자구할머니(194쪽), 죽령산신당(848쪽), 죽령산신제문서(851쪽)

정의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전승되고 있는 마을 제사. 조선시대에는 국행제(國行祭)로 봉행되었다.

역사 조선 태조 연간에 전국 산천의 사전화(祀典化)와 유교화(儒敎化)가 진행되면서 1414년(태종 14)에 악(嶽), 해(海), 독(瀆) 및 명산대천의 사전분류체계가 확정되었다. 조선 초기에 사전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죽령산(竹嶺山)은 국행의례의 소사(小祀)로 등재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봄과 가을에 나라에서 향축을 내려 제사지냈는데, 소사(小祀)로 한다"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호서읍지(湖西邑誌)』 등에도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유교적 제사로 정비되기 이전의 죽령산신당은 무격(巫覡)에 의한 별기은(別祈恩)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 별기은의 대상이 되는 신은 감악(紺嶽), 송악(松嶽), 덕적(德積) 등과 같은 명산의 신령이었고, 이를 위해 사설 신사를 두루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실록』 세종 19년 3월 계묘조에 "단양군의 죽령산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죽령산지신이라 쓰고 제사지내는 곳은 죽령산 기슭으로 옮길 것"이라고 기록한 내용은 죽령산신당이 본래 별기은의 제사공간이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내용 죽령산신당이 자리한 공간인 죽령산의 죽령(해발 689m)은 '죽령재' 또는 '대재'라고 불리기도 하며, 충북 단양군 대강면과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경계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삼국시대부터 전장의 요충지이자 영남과 호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서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닌다.

용부원리마을의 산 중턱에 자리한 산신당에는 '죽령산신지위(竹嶺山神之位)'라 적은 위패를 모셔 두고 있다. 죽령산신당은 국사당이라고도 불리며, 해발 400m 정도의 당산 산마루 정상에 목조기와 건물 형식을 갖추고 있다. 1895년 3월에 전면 세 칸, 측면 한 칸, 뒷면 통칸, 앞면 전퇴(前退)로 개방한 팔작지붕으로 중수가 이루어졌다. 1976년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3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죽령산신제의 제사 대상은 죽령산신이며 그 구체적인 신격(神格)은 다자구할머니이다. 이로 인해 죽령산신당을 '다자구할머니당'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다자구할머니를 죽령산신으로 모시게 된 것과 관련해 이 일대를 괴롭히던 산적들을 다자구야 할머니의 지혜로 물리치게 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국행제 소사의 경우 제사일은 중춘(仲春)과 중추(中秋)의 상순 기간에 택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죽령산신제의 제일은 음력 삼월과 구월 중순의 정일(丁日, '丁'자가 들어간 날)에 잡는다. 이러한 제일의 전통은 조선시대 국행제 전통의 계승으로 볼 수 있다. 제일이 정해지고 나서 마을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한 달 정도 뒤에 새로운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낸다.

한편 『죽령산치성문(竹嶺山致誠文)』에 따르면 "매년 원월(정월)에 국가로부터 향축을 받아서 일 년에 세 차례 제사를 지낸다(每歲元月自國家躅 以吉辰一年三次致祀焉)"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로 보아 중춘과 중추의 제일 이외에도 정월에 고유제(告由祭)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국행제이던 죽령산신제는 현재 관의 지원을 받아 제를 지내는 마을 단위의 제사로 전승되고 있다. 제일이 정해지면 제사 사흘 전에 마을 어귀와 죽령사, 도가 집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신한다. 또한 부정한 일이 없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마을에서 죽령사에 이르는 길을 포함해 제당 주변을 정비한다.

제물의 구입과 손질은 도가에서 맡아서 한다. 의례 하루 전에 목욕재계한 후 단양시장에서 제물을 구입한다. 죽령산신제에 올리는 제물은 봄과 가을의 절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개 쌀 서 홉 정도를 새옹에 담아 큰 솥에 넣어 찐 메, 쌀 석 되 분량에 간을 하지 않고 장만한 백설기, 삼색실과, 나물, 포, 교미 경험이 없는 검은 돼지인 희생물 등이다.

도가에서 제물 준비를 마치면 마을 이장과 집사 등이 도가 집 대문에서 제물을 인도받는다. 이때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대문 안으로 들어서지 않는다. 인도받은 제물은 죽령산신당에 진설된다. 이때 죽령산신의 위패에 반으로 접은 4절지 크기의 창호지를 올려 놓는다. 이는 죽령산신을 새옷으로 치장한다는 상징적 의미이다.

죽령산신제의 의례는 『죽령산별제홀기(竹嶺山別祭笏記)』에 의거해 봉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산신제를 지내는 제관 가운데 헌관은 마을 이장을 포함해 제사 당일 참여한 각 기관 및 단체장의 직급순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제관은 산신제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

먼저 집례(集禮)가 개사배(皆四拜)를 행하라 하면 모든 헌관이 이에 따라 예를 올린다. 이어 초헌관에게 초헌관예관세위(初獻官詣盥洗位)를 행하라 하면 초헌관은 오른쪽에 준비해 둔 대야에서 손을 씻고 사당 안에 들어가 신위 앞에 꿇어앉아 삼상향(향을 세 번 올림), 집작(술잔을 받음), 헌작(술잔에 술을 받음), 준작(헌관이 술잔을 준작에게 주면 준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앞에 올림), 배례(예를 두 번 올림), 퇴잔(잔을 내려놓음), 음복 순으로 의례를 행한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이와 동일한 순서로 의례를 행한다. 한편 제관이 아닌 경우에도 의례에 참여하여 종헌 이후 배례를 올리기도 한다.

현재 죽령산신제의 제사 비용은 단양군의 지원과 참여한 사람들의 찬조금으로 운영된다. 본래 죽령산신제 봉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할머니땅으로 불리던 밭을 마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이 땅이 국가에 환수되면서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제비를 충당해 오다가 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다자구할머니 설화의 신화적 성격**(이창식 · 최명환, 동아시아고대학 7,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 **죽령국행제 조사연구**(이창식 · 안상경, 박이정, 2003), **죽령국행제의 무속적 기원과 전승**(이창식 · 안상경, 한국무속학 7, 한국무속학회, 2003), **죽령산신당 당신화 다자구 할머니와 죽령 산신제**(최운식,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필자 **오문선(吳文仙)**

죽령산신제문서(竹嶺山神祭文書)

상호참조 다자구할머니(194쪽), 죽령산신당(848쪽), 죽령산신제(849쪽)

정의 대한제국시기부터 2008년까지 죽령산신제와 관련된 기록들로서 『죽령산신당제관분정기(竹嶺山神堂祭官分定記)』, 『죽령산제홀기(竹嶺山祭笏記)』, 『치성문(致誠文)』 등 3종이며 모두 필사본이다. 이들 기록은 현재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3리 노인정에 보관되어 있다.

내용 『죽령산제홀기』는 산신제의 절차와 축문을 기록한 것으로 절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죽령산신제의 절차는 세종 대에 편찬한 오례의(五禮儀) 부록 제산천의(諸山薦議) 행례와 일치하며, 향교에서 봄 · 가을로 거행하는 행례와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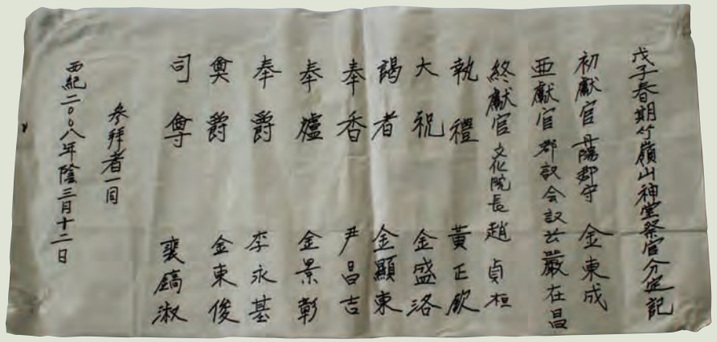
죽령산제홀기에는 죽령산신제의 축문을 쓰는 법도 기록되어 있다. '식제축문(式祭祝文)'이란 제목의 이 기록은 일반적인 축문의 경우와 같이 제사일자와 국왕이 신하를 보내어 고한다는 내용, 축원 등이 담겨 있다. 또 하나의 '식제축문'이 있는데, 이 기록에는 먼저 소개된 축문에서 국왕이란 표기 대신 황제를 쓰고 있다. 이는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것으로, 1908년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가 폐지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축문으로 보인다. 청주대학교박물관에는 1902년에 작성된 축문이 소장되어 있어 서로 비교할 수 있다. 1902년 축문에는 죽령국행제의 행례를 위해 황제가 보낸 신하로 통정대부, 단양군수, 영춘군수가 소개되어 있다. 이 또한 국가의 공식 제사가 폐지되기 이전에 행해졌던 죽령국행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왕을 대신하여 지방관이 국행제였던 죽령국행제를 거행하던 모습을 보여준다.

『죽령산신당제관분정기』는 제사 때마다 산신제 홀기에 의거하여 제관 등의 역할과 그것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2008년 춘계제향의 경우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집례(集禮), 대축(大祝), 알자(謁者), 봉향(奉香), 봉로(奉爐), 봉작(封爵), 전작(奠爵), 사준(司罇)의 역할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은 단양군수, 단양군의회의장, 단양문화원장의 단양군의 기관장이나 공무원, 마을이장 등이 맡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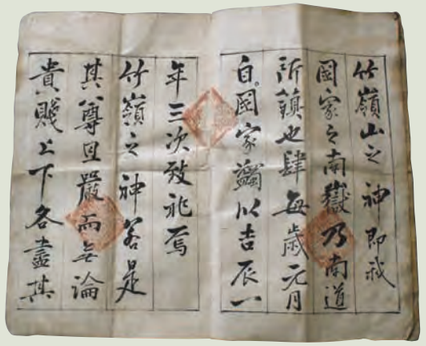
『치성문』은 죽령국행제의 대상이 되는 신령의 신격(神格), 제일의 선정, 의례형식, 의례의 참여범위, 제물의 정도, 금기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을유년 정월의 고유제에 비용을 추렴한 마을 및 마을 사람들의 명단과 이들이 낸 금액을 각각 적고 있다. 또한 1948년 중수재건기로, 거의 쓰러질 지경에 이른 죽령산신당 사우를 춘삼월에 중수재건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수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낸 비용과 명단을 기록하였다.

뒷부분에는 1960년 춘계제향에 성금을 낸 죽령역장, 1960년 추계제향에 성금을 낸 죽령선로수장이 도

죽령산신제문서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3리, 2010.6.9 오문선



죽령산신제 제관분정기



죽령산신제 치성문(연혁)

죽령산신제 치성문

료 5통, 신축년 3월 춘계제향에 경북 춘양 제일기업 주식회사 문학술, 1964년 춘계 영양산업주식회사 단양출장소, 1966년 추계 단양군수, 1967년 춘계 단양산업 회장, 죽령역장, 1968년 춘계 영주읍 이동석, 죽령역장, 1969년 3월 영양산업, 줄경분교 교사 김용갑, 1969년 추계 죽령역장 등 성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과 액수가 부기되어 있다. 이들은 이 지역과 관련 있는 죽령역장, 학교교사, 기관장 등이며, 주변지역의 기업인 등이다. 직함이 표기되지 않은 인물은 출향인사일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의의 죽령산신제문서인 『죽령산신당제관분정기』, 『죽령산제홀기』, 『치성문』 등의 기록은 죽령국행제의 대상이 되는 신격, 제일 선정, 의례형식, 의례의 참여범위, 제물의 정도, 금기사항, 비용의 추렴, 중수, 제관 명단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조선시대 국행제였던 죽령산신제의 민간화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학술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죽령국행제 조사연구(이창식 · 안상경, 박이정, 2003).

필자 오문선(吳文仙)

증평남차리수살제 (曾坪南次里水殺祭)

정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남차3리 장래마을(장천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수구제 형태의 마을 제사.

역사 남차리수살제의 연원은 전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관련한 전설이 『증평군지』에 수록되어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남차리 앞에는 장래천(長來川)이라는 작은 내가 흐르고 있다. 예전에 장마가 지면 장래천이 범람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제방을 쌓았지만 피해는 줄지 않았다. 이에 숫수살과 암수살을 방위에 맞게 세우고 수살막이 고사를 올리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수해가 없었다. 그러나 병자년(丙子年)에 또 한 번 큰 장마가 졌다. 이때 장마는 '배나무고개'까지 삼켜 버렸다. 장마는 숫수살도 삼켜 버렸다. 그런데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 오던 숫수살이 암수살 옆에 이르더니 급한 물살에도 그 자리에 멈추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남성이 여성을 찾아온 것이니 이는 천리(天理)로 볼 수 있다'며 숫수살과 암수살을 양쪽으로 세워 놓고 더욱 영험하게 위하였다.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정월 열나흗날에 수살막이 고사를 올리고 있다.

장래천의 범람을 본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율리저수지'를 조성한 것이 1962년이다. 남차리수살제의 연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수살제가 형성 · 전승되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초정약수에서 증평 방향으로 약 8㎞ 즈음에 '장천마을' 표지석이 있다. 표지석을 지나 돌아 왼쪽 도로에 '내수살' 제단, 오른쪽 도로에 '외수살' 제단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1984년에 화강암 대리석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제단을 설치한 것이다. 외수살 앞의 제단은 가로 107㎝, 세로 75㎝, 높이 28㎝이며, 뒤의 제단은 세로가 68㎝이다. 그리고 내수살은 가로 107㎝, 세로 75㎝, 높이26㎝이다. 제단 앞면에는 '외수살' 및 '내수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제일(祭日)은 음력 정월 열나흗날로 고정하고 있다. 행례 시간은 저녁 9~10시이다. 제단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마을로 지나는 버스가 끊길 때를 맞추어 정한 시간이다. 제관(祭官)을 흔히 '유사'라고 하며, 제의 일주일 전에 생기복덕을 가려 세 명을 선출한다. 제관(초헌), 축관(아헌), 집사(종헌)이다. 제관들은 제의 전일과 제의 당일에 금기를 지킨다.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지 않으며, 술과 담배를 삼가고, 개고기와 같은 추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예전에는 외수살 옆에 있던 우물에서 일주일가량 매일 목욕재계하였다고 한다. 또한 제의 전일 제관의 집 주위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둘러쳐 외부인의 접근을 금한다. 금줄은 왼새끼이며, 1m 간격으로 사고지를 꽂는다. 황토는 마을 앞쪽에 있는 두류산에서 마련한다. 황토는 대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네 무더기, 왼쪽에 세 무더기를 각각 편다. 황토 일곱 무더기를 펼치는 것으로써 칠성(七星)의 가호를 기원한다.

제물은 총무와 축관이 마련하며, 마을 전체 서른세 가구에서 만 원씩 갹출한 경비로 충당한다.

제물은 2004년까지 희생물로 통돼지를 외수살에 진설하였으나 2005년부터 외수살 및 내수살에 돼지머리 하나씩 진설하는 것으로 마을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 밖에 시루떡(백설기), 삼색실과, 통북어 두 마리, 제주(동동주, 맑은술) 등을 진설한다. 시루떡은 석 되 서 홉을 두 시루 찌며, 삼색실과는 가구 수에 맞추어 넉넉히 준비한다.

제의 당일 아침에 유사 및 마을 지도자들이 제장을 정비한다. 제장의 정비와 더불어 유사가 전일에 준비한 금줄을 제장 주위에 둘러친다. 행례는 저녁 9~10시부터 본격화된다. 마을회관에서 마지막으로 손질한 제물을 트럭으로 운반하고, 유사가 한 데 진설을 한다. 진설은 외수살부터 한다. 진설을 마무리하면 유사들이 손을 정갈히 씻고 분향한다. 제차(祭次)는 분향재배-강신재배-초헌-아헌-종헌-고축-소지 등 유교식 예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집사가 신목(神木) 주변에 약간의 떡을 놓는다. 유사를 비롯하여 제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한다. 음복은 밤을 새워 이튿날까지 이어진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維歲次 ○○ 正月 ○○朔 ○○日 ○○
> 幼學○○○ 敢昭告于
> 水口之神 寸泰人安 五穀豊穰 疫疾不犯
> 家家太平 務農豊稔 營商興利 雖屈雨季 少無侵潰
> 或曰旱魃 俾免枯渴 鬼水不侵 火變方禦 工事出役
> 竟無傷毁 三災遠退 百福並至 六畜旺盛 兒曹充健
> 謹以酒果 祗薦于神
> 尙饗

증평남차리수살제장 일대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2010.8.24
이창식

지역사례 '수구제'라는 명칭은 제당이나 신앙의 대상체가 마을 어귀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듯 하지만 충북지방에서는 마을 어귀에 있는 대상에 따라 '수구제'(28개 마을), '장승제'(27개 마을), '둥구나무제'(30개 마을), '선돌제'(7개 마을) 등으로 전승되고 있다. 마을 어귀는 사람이 출입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액이나 살, 잡귀 등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수구제는 특히 마을 수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수구제는 괴산군(1개 마을), 보은군(3개 마을), 옥천군(5개 마을), 증평군(1개 마을), 제천시(2개 마을), 청원군(13개 마을), 충주시(3개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장승제는 괴산군(3개 마을), 보은군(3개 마을), 영동군(2개 마을), 옥천군(11개 마을), 청원군(7개 마을), 청주시(1개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둥구나무제는 보은군(1개 마을), 영동군(20개 마을), 옥천군(8개 마을), 청원군(1개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선돌제는 괴산군(1개 마을), 보은군(1개 마을), 영동군(3개 마을), 옥천군(1개 마을), 제천시(1개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수구제'를 비롯하여 장승제, 둥구나무제, 선돌제 등은 산신제나 서낭제와 같은 마을의 본제사를 지내고 나서 다시 마을 어귀로 와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마을 어귀에 둔 신앙 대상체만을 단독으로 위하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 이들 수구제의 명칭은 그대로 마을신앙의 명칭이 된다.

주신제가 제관만이 참여해 정숙하게 치러지는 데 비해 이들 수구제(장승제, 둥구나무제, 선돌제)는 주신제를 지내기 이전 또는 이후에 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만 제의 절차나 제물 등의 차림이 주신제보다 다소 약화된 형태를 띠고 있음으로 하여 현재 마을신앙에 있어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주신제 없이 수구제만으로 마을신앙이 전승되는 경우에는 수구제에서도 주신제 못지않은 신앙성을 보인다.

참고문헌 **민속지**(충청북도, 1987), **증평군지**(증평군, 2005), **충북 마을신앙의 전승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충북개발연구원, 2008), **한국의 마을신앙 상**(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이창식(李昌植)**

지리산남악사(智異山南嶽祠)

정의 지리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

유래 남악사는 통일신라가 삼산오악(三山五嶽)의 산악숭배 사상을 중국에서 도입하면서 유래되었다. 신라에서는 삼국통일 직후에 지방 통치 편제로 9주 5소경과 삼산오악을 배치하면서 남원에 남원경을 두고 지리산을 남악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고대부터 지리산은 왕실 및 국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태조 왕건의 고려왕조 창업과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사전(祀典)에 중사(中祀)로 지리산신사에서 지방수령이 제사를 봉행하는 장소였다.

역사 통일신라가 전국에 삼산오악을 배치하면서 지리산에 성모천왕을 산신으로 배향한다. 『삼국유사』 권5 「감통」7 선도성모수희불사조에 따르면, 통일신라 조정에서 지방통치의 수단으로 삼산오악을 배치하면서 선도산의 성모(聖母)를 지리산 천왕봉에 이식시켜 성모천왕(聖母天王)의 산신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1287년에 올린 『제왕운기(帝王韻紀)』 세기편의 "지리산의 산신은 선도성모"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지리산 천왕봉에 성모천왕을 모신 성모사가 있었다. 이 성모사는 지리산의 남악사와는 다른 것이다. 성모사가 민간인들이 섬기고 관리한 신당(神堂) 형태인데 비하여 남악사는 지방관리들이 지리산신제를 지낸 사묘(祠廟)였다.

남악사의 역사는 『제왕운기』 세기편에 "우리 태조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여 지리산의 감몽을 받았기에 남악사를 남원소의방(南原所義坊)에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볼 때 고려 초에 지리산에 태조 왕건의 고려왕조 창업을 기념하는 남악사가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남원소의방은 고려시대 행정구역명으로, 현재 전남 구례군 광의면과 산동면 일대를 가리킨다.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당동마을에는 남악사지(南嶽祠址)라고 전해 오는 유적지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사묘조에는 지리산신사가 남원부의 남쪽 64리 되는 소아리(小兒里)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지리산신사가 남악사로 추정된다. 남악사지 발굴 결과 통일신라 말 고려 초기의 건물지와 조선 초기의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나말여초(羅末麗初)에 남악사가 조성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와와 전(塼)을 비롯해 남악제사를 봉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粉靑沙器)와 조선 후기의 백자류(白磁類) 및 제기(祭器)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고려 초에 왕조 창업 기념으로 남악사를 창건하였으며 조선 후기까지 남악사는 지리산신사로서 중창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천왕봉의 성모사는 통일신라 때 성모천왕을 배향한 사당이고, 남악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조선 초기에 중앙집권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전을 정비하면서 지리산신사로 새롭게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천왕봉의 성모사가 성모천왕의 사당이라면 지리산신사는 지리산 산신에 대한 국행제의에서 비롯되었다. 고려 말 전국 명산대천의 산천신을 봉작하는 관행에 따라 1393년(태조 2)에 지리산신에게 호국백(護國伯)의 작위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치제하는 형식도 바뀌었다. 1414년(태종 14)에 예조에서 산천을 등제(等第)하면서 전국의 명산대천을 대·중·소사로 편입시키고 지리산신을 중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1416년(태종 16)에 예조는 악(嶽)·해(海)·독(瀆)과 산천(山川)에 제사를 행하는 관원을 정하도록 하면서 고을 수령들에게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1437년(세종 19)에는 산천단묘순번별감(山川壇廟巡審別監)에서 단묘(壇廟)와 신패(神牌)의 제도를 상정하면서 남원부의 지리산은 중사(中祀)로서 사묘의 위판을 '지리산지신(智異山之神)'으로 쓰겠다고 하였다. 이때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에 지리산신사가 세워진 것이다. 남악사가 지리산 노고단에서 옮겨 온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온당리 당동에 고려시대 남악사가 창건되었다가 조선 초에 남악사가 지리산신사로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악사와 지리산신사는 시대를 달리한 동일한 사묘인 것으로 보인다.

『남원지(南原誌)』에는 1737년(영조 13)에 남원부사의 지원으로 남악사를 중창하였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 책에는 "남악사에는 '지리산지신'이라고 쓴 위패가 있으며, 매년 춘·추·정초에 왕명으로 제를 올렸다. 재난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헌관은 당상관, 대축은 수령, 집사는 생원·진

사 · 유생들이 맡았으며, 제물은 관청에서 마련하였다. 예전의 전우(殿宇)는 세 칸이어서 제관들이 불편해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내내 지리산의 남악사에서 춘추(春秋)로 국행제의(國行祭儀)가 거행되었으며, 지리산의 산신이 영험하여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면 비를 내리게 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전염병이 크게 돌면 지방관청에서 향과 축을 보내어 여제(厲祭)를 지냈다. 지방 수령들은 국가적인 재앙이 닥치면 지리산 산신에게 제사를 올려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은택을 베풀기를 기원하였다.

형태 지리산의 대표적인 사묘는 남악사이다. 사묘는 모두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 반의 전통적인 사묘 건축물이다. 지리산 노고단(1,507m)의 지맥인 간미봉(艮美峰)에서 서남쪽 지맥 말단부에 위치하는 남악사에는 위판 하나가 봉안되어 있었다. 남악사는 1737년에 중창하면서 사묘가 좁아 불편하다는 요청으로 전우(殿宇), 신문(神門), 성생청(省牲廳), 객사(客舍), 유생청(儒生廳), 지응청(支應廳), 마구(馬廐), 대문 등이 건립되었다.

의의 지리산 천왕봉의 성모사는 성모천왕을 배향한 신당의 성격이 강하지만, 남원부 소의방 소아리에 위치한 남악사는 지리산 산신을 배향한 국가적 사묘였다. 성모사는 민간인과 무격들이 제사의 주체인 반면에 남악사는 국가의 산천 제사 가운데 중사의 사묘로서 왕을 대신하여 지방 관찰사가 제사를 주관하는 국행제의였다. 지금은 이러한 전통제의가 상실되었지만 남악사의 제사는 구례군의 '지리산남악제', 함양군의 '지리산천왕축제'에서 역사적 전통을 잇고 있다.

참고문헌 **남악사**(구례문화원, 2000), **남악사지지표조사보고서**(목포대학교박물관 · 전라남도 구례군, 1992),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최석기 외 옮김, 돌베개, 2001), **조선시대 사전제도와 금성산신**(송화섭, 한국문화와 역사민속, 신아출판사, 2003), **조선시대 산신숭배와 지리산의 신사**(김아네스, 지리산 그곳에 길이 있다, 지리산권문화연구단 학술발표회, 2010), **지리산의 노고단과 성모천왕**(송화섭, 도교문화연구 27, 한국도교문화학회, 2007).

필자 **송화섭(宋華燮)**

지벌

정의 마을 사람들의 불신(不信), 무지(無知), 탐욕, 부주의(不注意), 오만 등으로 인하여 마을 신령을 서운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여 당하는 벌. 특히 마을신앙과 관련한 각종 금기를 어기거나 부정을 저질렀을 때 지벌을 받을 수 있다.

내용 마을신앙의 전 과정과 이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는 신령들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노여워하거나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신성을 모독하지 않으며, 지극 정성으로 마을 신령을 대접하여 아무쪼록 신의를 거부하거나 위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를 어겼을 때 마을 신령은 그에 상응하는 지벌을 내린다. 위배의 일반적 정도(程度)와 지벌의 강도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사소한 위배라 하더라도 곧 죽음에 급박하게 이를 수 있고, 중대한 위배라 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벌을 받을 수 있다. 응징의 강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신의(神意)에 달려있다.

지벌의 원인과 그에 따른 책벌의 사례를 부정과 신성모독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성모독에는 무성의한 태도도 포함된다.

'산부정', '죽은 부정'을 비롯하여 사소한 일체의 부정이라도 지벌을 당하는 원인이 된다. 동제 기간에 출산이나 초상과 같은 큰 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손을 조금 베어 피가 비치거나 동네 개가 죽은 것을 보아도 안 된다. 비린 것이나 누린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새우젓도 금지된다. 부부 합방도 당연히 엄금(嚴禁)된다. 제사 중에 제관들이 대소변을 보아서도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대소변을 본 뒤에 목욕이나 세수라도 해야 한다. 생리 중의 여인은 되도록 집 바깥출입을 삼간다. 피부정을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금기는 마을에 따라 특수성을 띠기도 한다. 예를 들어 뱀 서낭을 모시는 마을에서는 뱀과 상극인 돼지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금기 대상이다. 이 때문에 평소에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용신을 모실 때도 마찬가지이다. 용신은 돼지를 가장 싫어한다.

지역사례 금기들을 소홀히 하거나 지키지 않고 동제를 진행하면 지벌을 맞는다. 다음의 예화가 부정에 의한 지벌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제관 댁의 소가 갑자기 죽었다. 제일을 연기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사람도 아닌 소인데 어떠랴 싶었다. 그래서 당제를 예정대로 그대로 치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해 여름까지 마을의 소가 일곱 마리나 차례로 죽었다. 문복(問卜)을 하니 제관을 잘못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그해 7월에 큰 굿을 하고 나서야 마을이 평안해졌다."

"당주네 부인이 월경하는 것을 감추고 제물을 준비하였다. 그 이후 집안에서 키우던 돼지가 아무 까닭 없이 갑자기 죽었다."

"제주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피를 흘린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갑자기 산제당에 모래가 뿌려지고 메에 수저를 꽂는데 수저가 부러졌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였다.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산제에 참여했다가 곧바로 이유 없이 죽었다."

"제관 부부가 동침을 했더니 결합된 두 몸이 떨어지지 않았다. 놀란 나머지 산신에게 잘못을 빌었더니 그제야 두 몸이 떨어졌다."

"개고기를 먹은 사람이 성황제를 구경하였다. 금방 뼈가 뒤틀려 다리도 건너기 전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상가(喪家)에 입고 간 옷을 그대로 입고 동고사를 지냈다. 그해 마을에 큰 흉사가 있었다."

"제물 준비를 하는데 고양이가 조기를 물고 달아났다. 이를 쫓아가 다시 찾아서 제사를 올렸다. 제관의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산제 제물을 이고 산을 오르는데 쇠머리가 굴러떨어졌다. 어떠랴 싶어 쇠머리를 주워 산제를 지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유사의 며느리가 계속 유산을 하였다."

"산제당에 올릴 떡을 찔 때에 임신부, 변소에 다녀온 사람, 개고기를 먹은 사람은 대표적인 금기 대상이 된다. 이들이 부엌에 들어오거나 엿보기만 해도 시루번이 부풀거나 터져서 떡이 설게 된다. 이때에는 산신에게 잘못을 빌고 꽃떡을 시루 안에 올리는 등 뱅이를 한다."

한편 역시 가장 무서운 지벌은 마을 신령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마을 신령에 대한 직접적 공격 또는 신체나 제당에 대한 파괴 행위는 즉각적인 지벌을 야기한다. 마을의 신목(神木)인 당수나무를 벌목하거나 훼손시킨 사람들에 대한 지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수나무의 영험성은 대체로 나무를 해친 자들에게 신벌이 내린다는 이야기로 나타난다. 곧 나무를 베어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다치거나 죽었다든지, 바람에 떨어진 나뭇가지일망정 결코 화목(火木)으로 쓰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거의 모든 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마을에서 물레방아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의 느티나무를 베려고 하니 소 울음소리가 심하게 났다. 그래서 벌목을 중단했지만 베려 한 사람들은 모두 까닭 없이 죽었다. 느티나무가 소 울음소리를 냈다 하여 우명목(牛鳴木)이라고 불리고 있다.

마을에서 위하는 곰솔나무에서 송진만 떼어도 동티가 난다든지 나무에 소변을 보면 앉은뱅이가 된다는 등의 전설도 있다. 또한 당수나무 아래에 상여를 놓으면 조문객들이 병이 난다고 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당수나무를 베려다가 급살(急煞)을 맞거나 다친 일본인 순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이는 당수나무의 영험에 의한 지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저항의식을 표현한다. 불가항력적인 식민 당국의 폭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마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마을의 신목을 잃었지만 비현실적인 세계에서조차 그러한 좌절을 지속시킬 수가 없다. 마침내 벌목을 지시하거나 실제 나무를 베어낸 인부들은 귀가(歸嫁)한 뒤에 곧바로 피를 토하거나 복통을 호소하며 덧없이 죽어 갔다.

이것이 사실이거나 허구이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지벌을 받았다고 믿고 대내·외적으로 전승시키는 민간사고(民間思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현실의 좌절이나 실패를 정신적 보복이나 저항 또는 승리로 전환시킨 것이다.

마을 신령에 대한 신성모독이나 신의의 거부나 위배, 부족한 정성도 노여움을 불러일으켜 지벌을 받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다음의 사례들에서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다.

"마을회의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어떤 사람을 제관으로 뽑았다. 그런데 여러모로 귀찮고 힘들 것 같아 제관직을 수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제관을 냈다. 얼마 후 제관직을 맡지 않은 사람의 자식이 별스럽지 않게 가볍게 앓더니 이내 죽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무당에게 무꾸리를 하였다. 무당은 "너는 산에 해당이 되었는데 왜 가지 않았느냐"고 힐난을 하였다."

"마을 이름에 소 우(牛)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통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 어느 해인가 제사 비용을 줄인다고 쇠머리로 대신하였다. 곧바로 동네 소 열 마리가 이유 없이 죽었다. 그래서 통소를 잡아 새로 동제를 모셨다."

"산제당의 쇠말을 훔쳐 갔더니 갑자기 봉사가 되었다."

"산제에 올릴 돼지를 잡다가 콩팥을 몰래 먹었다. 그랬더니 입이 돌아갔다. 다시 새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야 비로소 입이 되돌아왔다."

"산제를 지내기 위하여 제물을 지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이때 떨어진 밤을 주워 먹고 그 자리에서 복통을 일으켜 죽는 일이 있었다."

"김유신장군사당 앞을 일본 헌병이 말을 타고 지나갔다. 말발굽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꼼짝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말에서 내려 사당에 절을 올린 뒤에야 말발굽이 떨어져 그 앞을 지날 수 있었다."

"예전에는 부인당(夫人堂) 앞길로 사람이 많이 다녔다. 이때 말을 타고 가던 행인들은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말 다리가 부러지거나 말 탄 사람이 앉은뱅이가 되었다. 월경하는 여자가 이 앞을 지나도 앉은뱅이가 되었다."

"마을의 숲 속에 터줏가리 모습의 군웅 장군당을 모셨다. 워낙 군웅의 신력이 강하여 그곳을 지나는 말의 말굽이 들러붙어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언젠가 배의 돛대로 쓸 나무를 이곳에서 베던 나무꾼들이 숲에서 빠져 나갈 수가 없었다.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낸 뒤에야 하산할 수 있었다. 군웅당 숲 속에 누워 있으면 귀 달린 구렁이가 돌아다니면서 집으로 되돌아가라고 이를 정도로 영험하였다."

"어느 추운 겨울에 헐벗은 거지가 당산할머니(돌로 만든 오리솟대)에 감아 놓은 베가 탐이 났다. 그래서 옷을 지어 입으려고 당산 기둥에 올라갔다가 몸이 그대로 기둥에 붙어 동사(凍死)하였다. 지금도 당산 기둥에 남아 있는 거무스레한 자국은 바로 거지가 죽은 자취라 한다."

이러한 지벌에 관한 믿음은 동민에게 마을 신령의 영험을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경외(敬畏)하도록 만든다. 또한 마을신앙과 그 의례를 일정한 형식과 내용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관념적 장치가 된다. 마을 신령과 동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지벌은 개인이나 가정 또는 마을 단위로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벌의 연좌제'가 적용된다. 이때의 연좌는 '연좌(緣坐)'와 '연좌(連坐)' 모두 해당된다. 지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신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 및 친인척을 넘어 동네 전체로 파장을 일으킨다. 또 이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까지 이른다.

대체로 지벌은 급하고 엄하게 즉각 내려져 죽음, 부상, 사고를 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간혹 마을 신령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하기보다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어떤 징조로 미리 나타내 제관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유도한다. 또한 그러한 징조로서 자신이 받을 정당한 종교적 대우를 확보하기도 한다. 마을 신령의 노여움이 극대화되어 무서운 책벌(責罰)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이 같은 징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지벌'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지벌 관념은 동제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제관이나 마을 주민들의 '꺼림칙한 사건의 기억'에서 형성된다. 마음에 걸려 있던 불안한 기억이 동제 이후에 일어난 어떤 불의의 사건·사고와 연계될 때 지벌은 그 불행한 결과를 설명하는 원인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마을의 역사를 경유하면서 반신반의(半信半疑)를 거쳐 점차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승되고 각인된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일제하 민간신앙의 지속과 변화**(이필영,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혜안, 2004).

필자 **이필영(李弼泳)**

지신밟기

상호참조 걸립(51쪽), 걸립패(54쪽)

정의 마을굿(당굿)을 한 다음 각 집을 차례로 돌면서 풍물을 치며 집 터 곳곳의 지신(地神)을 밟아 달램으로써 한 해의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는 마을 민속의례. 주로 정초에서 정월대보름 사이에 행해진다.

특징 지신밟기는 정초에 마을굿을 통해 공동신에 대한 의례를 치르고 가가호호의 안녕을 축원하는 신앙적·주술적 의례이다. 마당밟이, 뜰밟이, 집돌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지신밟기가 가가호호 순방을 할 때 마당이나 뜰을 시작으로 집 터 곳곳의 지신을 밟기 때문이다. 지신을 밟는다는 것은 집 안 곳곳에 좌정하고 있는 지신이 함부로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풍물과 축원 등으로 지신을 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집돌이는 마을에서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동제(당제, 당굿, 당고사) 때 집집마다 순방하는 것을 일컫는 유가돌기, 돌돌이와도 관련이 있다.

지신밟기를 매구(매굿)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매구는 지신밟기와 다른 민속의례로 파악된다. 매구는 섣달그믐날 밤에 마을의 각 집을 돌며 풍물을 치는 벽사진경(辟邪進慶) 의례로, 이렇다 할 정해진 절차 없이 풍물소리를 크게 내며 한바탕 치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매구가 새해를 맞기 위해 사악한 기운을 쫓는 일종의 나례의식이라면 지신밟기는 정초에 일 년 동안의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는 초복(招福)의식이라 할 수 있다.

지신밟기는 경기·강원·영남·호남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영남지방에 지신밟기가 많이 남아 있으며, 영남·호남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매구(매굿)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역사 조선시대 문인인 이옥(李鈺, 1760~1812)이 봉성(오늘날 경남 합천군 근경)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봉성문여(鳳城文餘)』라는 문집에 매구와 지신밟기로 보이는 마을행사를 아이들에게 전해 듣고 그 내용을 〈매귀희(魅鬼戱)〉라는 글로 적은 것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에도 매구와 지신밟기 같은 마을 민속의례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음력섣달 스무아흐렛날 저녁에 고을 사람들이 봉성문 밖에서 매구굿을 벌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례이다. 아이들이 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광부(狂夫) 세 사람이 가면을 썼는데 한 사람은 선비, 한 사람은 할미, 한 사람은 귀면을 했다. 금고(꽹과리·징·북·장구 등 풍물악기)를 빠르게 치면서 소리를 아울러 했기 때문에 아주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정월 초이튿날에 시끌거리면서 창 밖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엿보니 종이 깃털 장식과 흰 총채를 들고 앞장서서 가는 한 사람, 작은 동발을 든 세 사람, 징을 든 두 사람, 북을 쥔 일곱 사람이었다. 이들 모두 붉은 쾌자를 입고 전립을 썼으며, 전립 위에는 지화를 꽂았다. 남의 집에 이르러 떠들면서 놀이를 벌이니 그 집에서 소반에 쌀을 담아 문 밖으로 나온다. 이를 화반, 곧 꽃반이라고 한다. 이는 또한 남아 있는 풍습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十二月二十九日夕 邑人設魅鬼戱于鳳城門外 例也. 童子觀而歸言 狂夫三人着假面 一揩大 一老婆 一鬼臉 金鼓迭作 謳謠竝唱以樂之 正月二日 有喧而過窓外路者 窺之 執紙毦白拂先者一人 執銅小鈸者三人 執銅鉦者二人 執鼉鼓者七人 皆衣紅掛

子 戴氈笠 笠上插紙花 到人家噪戲 其家盤供米出門 名曰花盤 其亦儺之餘風歟

이옥이 봉성에서 아이들로부터 전해들은 섣달 스무아흐렛날의 일은 매구라고 볼 수 있다. 풍물악기를 치면서 소리(노래)를 했으며, 선비와 할미 그리고 귀신얼굴을 한 잡색이 뒤따랐음을 알 수 있다. 또 정월 초이튿날에 꽹과리[銅小鈸], 징[銅鉦], 장구, 북, 소고[鞉鼓] 등 악기를 치면서 남의 집에 이르러 떠들며 놀이를 벌이면 그 집에서 소반에 쌀을 담아 문 밖으로 내온다고 하였다. 남의 집에 이르러 떠드는 것은 축원의 말이나 고사소리일 것이며, 소리와 놀이를 받은 집에서 쌀을 내오는 것은 최근까지 전해지는 지신밟기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봉성 지역에서는 섣달그믐쯤에는 매굿을 쳤고, 정월 초에는 지신밟기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된 자료를 보면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매굿과 지신밟기를 병행하거나 용어를 혼용한 경우가 발견된다. 이에 따라 마을굿인 당굿(당산굿)에서 시작하여 집집을 방문하는 집굿으로 진행되는 공통점이 있는 매굿과 지신밟기가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가 후대로 오면서 벽사의식이 강한 매굿이 약화되고, 축원과 오락성이 강한 지신밟기가 성행하게 됐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마을 전체와 개별 가정을 동시에 축원하던 지신밟기는 진정한 마을공동체 의례라고 할 수 있지만 당굿에서 시작해 집돌이로 이어가는 전래적인 방법으로 지신밟기를 진행하는 마을은 현재 많지 않다. 다만 마을의 풍물패가 뜻을 두어 정초에 허락된 집이나 상점에 가서 풍물을 쳐 주고 덕담을 해 주는 형태의 지신밟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마을공동의례는 소멸하고 개별 가정의 복덕만을 축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형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섣달그믐에 하는 매구는 정초에 이루어지는 지신밟기·마당밟이와는 형태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 항에서는 지신밟기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지신밟기는 마을의 풍물패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문 연희패인 걸립패가 마을에 들어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고색동 풍물패의 지신밟기
경기 수원시 고색동
2005.2.17. 시지은

1. 마을의 풍물패가 지신밟기를 하는 경우 정초, 보통 정월 초사나흘에서 보름 사이에 꽹과리·징·북·장구·태평소 등으로 구성된 마을의 풍물패가 당(堂)에 가서 당굿을 지내고 마을 공동우물에 가서 샘굿을 한 다음 집집을 돌게 된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굿을 비롯하여 성주굿, 조왕굿(부엌굿), 철용굿(터주굿, 장독굿), 곡간굿 등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한다.

문굿은 주인의 허락을 얻기 위해, 즉 문을 열어 달라고 치는 굿이다. 여기에는 마루에 상을 차려 놓고 지내는 성주굿, 부엌에 들어가 치는 조왕굿, 뒤꼍의 장독대로 가서 치는 철용굿이 있다. 집에 샘(우물)이 있으면 샘굿(우물굿)을 하고, 노적이 있으면 노적굿을 치며, 측간굿(뒷간굿)·방앗간굿·마구간굿 등 방문하는 집의 형태나 환경에 따라 굿의 내용이 달라진다.

방문하는 집안 곳곳에 좌정해 있는 지신을 밟으면서 액막이 축원을 하면 그 집에서는 풍물패가 가는 곳마다 쌀과 실, 촛불, 정화수 등으로 간단한 상을 차려 놓는다. 풍물패의 축원에 집주인은 돈을 내놓기도 한다. 이렇게 모인 쌀이나 돈은 풍물패나 마을 전체의 공동기금으로 사용된다. 지신밟기가 모두 끝나면 집의 사정에 따라 간단한 식사나 술상을 내온다. 풍물패는 음식을 먹고 인사굿을 한 다음 다른 집으로 향한다.

마을 풍물패에서는 부족한 인원, 예를 들어 상쇠·장구잽이·소고잽이 등을 다른 마을에서 청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다른 마을에서 온 잽이(치배)는 일정 정도의 수고비를 받는다.

2. 걸립패가 마을에 들어와 지신밟기를 하는 경우 걸궁패라고도 부르는 걸립패는 절이나 마을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전문적으로 악기를 치고 고사덕담을 하는 풍물패를 말한다. 걸립패가 한 마을에 들어가 지신밟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걸립패의 기능에 대한 일종의 시험인 문굿을 치르고 나서 마을의 당산에 올라 당산굿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을의 각 집을 돌며 지신밟기를 한다. 이때 지신밟기는 마을 풍물패의 지신밟기와 같이 문굿을 치고 마당에 들어가 집 안 구석구석을 돌며 악기를 치고 고사덕담을 한다. 걸립패가 지신밟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을 풍물패의 축원에 비해 길고 예술적인 고사덕담이 불린다. 이때 집주인은 곡식과 돈을 상 위에 놓아둔다. 이것은 마을에 필요한 기금이 된다. 이 기금은 마을과 걸립패가 일정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마을 풍물패가 지신밟기를 하면서 모은 전곡(錢穀)이 풍물패나 마을의 공동기금이 되는 것과 달리 걸립패가 지신밟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을과 걸립패가 나누어 가지게 되어 마을의 기금 조성과 걸립패의 수입 두 차원을 충족시키는 것이 큰 차이이다.

마을 풍물패나 걸립패가 지신밟기를 하는 경우 외에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음이나 부산 수영과 동래의 탈놀음 등처럼 정초에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놀이비용을 마련하는 경우도 지신밟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지신밟기를 할 때에는 농기(農旗)·영기(令旗) 등을 든 기수가 앞장서고, 꽹과리·징·북·장구·태평소·소고 등의 치배가 악기를 치고, 대포수·양반·하동·각시 등의 잡색이 따른다.

사용하는 장단은 각 지역의 길굿, 절하는 장단, 휘모리·자진가락·두마치와 같은 이채장단, 덩더꿍이·자진삼채·덧뵈기와 같은 삼채장단이 주로 쓰인다.

먼저 풍물패가 마을 당산이나 당에 올라가 지신밟기 할 것을 간단하게 고하는 것으로 당굿을 마치고 마을 공동우물에 가서 샘굿을 한다. 샘굿은 대체로 샘에 금줄을 치고 간단한 제물과 술을 차려 놓으면 풍물패가 축원을 하면서 샘 주변을 한 바퀴 돈다.

샘굿을 마치면 풍물패는 마을에 내려와 집집을 돌며 본격적으로 지신밟기를 한다. 각 집에서는 문굿을 비롯하여 성주굿, 조왕굿(부엌굿), 철용굿(터주굿, 장독굿), 곡간굿 등을 진행한다. 각 굿을 진행할 때 풍물

집 앞에서 문굿을 치는 풍물패
경기 수원시 고색동
2005.2.18. 시지은

패는 축원의 말을 한다. 축원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물굿은 용왕님께 물이 잘 나오게 해 달라고 하거나, 아들딸 낳게 해 주고, 물이 맑아서 배탈 없이 건강하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아따 그 물 맛있다 꿀떡꿀떡 마시고
>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먹자
> (전북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농악)

문굿은 주인에게 우리가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쥔쥔 문 여시오
> 문 안 열어 주면 갈래요
> 나그네 손님 들어갑니다
> (부산광역시 아미농악)

부엌에서 조왕굿을 할 때 잡귀잡신이 물러가도록 성주 조왕님께 빌고 아울러 그 집이 재수대통하도록 빌어 준다.

> 정제구석도 니구석 방구석도 니구석
> 마래구석도 니구석 삼사십이 열두구석
> 잡귀잡신 물러라
> (전남 진도근 소포농악)

이 밖에도 방앗간굿에서는 방아가 고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빌고, 마구간에서는 소나 말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축원하며, 철용굿에서는 그 집의 부귀를 빌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신밟기의 축원은 주로 그 집의 잡귀를 몰아내고 재수가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역에 따라 고사소리가 발달한 곳의 풍물패나 걸립패는 〈지신풀이〉, 〈성주풀이〉와 같은 '풀이'를 하기도 한다. 이 풀이는 앞에서 서술한 축원의 말보다는 길이가 꽤 길고 내용이 풍부하다.

지역사례 지신밟기는 지역마다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곳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평택 농악 경기도 평택 지역에서는 정월 초하룻날이나 초이튿날부터 대보름날까지 지신밟기를 한다. 지신밟기를 시작하는 날에 쇠꾼들은 서낭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며 당에 가서 당굿을 치고, 마을의 큰 우물에 가서 샘굿을 친다. 그리고 각 집을 방문하여 마당굿을 치고, 마루 앞에서 고사소리를 하고, 터주굿 · 조왕굿 등을 친다.

2. 강릉 홍제농악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는 정월대보름날부터 사나흘 동안 농악대가 집집을 돌며 농악을 치면서 고사를 지내는 지신밟기를 한다. 열나흗날 밤에 뒷산 여성황사에 올라가 서낭굿을 하고 대보름날부터 집집을 들러 지신을 밟는다. 굿패가 서낭기를 들고 풍물을 치면서 문굿을 치고 들어가 다양한 놀이를 한 다음 마당굿 · 조왕굿 등을 하며 집 안 구석구석을 돈다.

3. 대구 고산농악 잽이들이 문 앞에서 문굿을 치고 들어가 마루에서 성주풀이를 하고, 집 안 곳곳을 돌면서 조왕풀이 · 장고방풀이 · 용왕풀이 · 고방풀이 · 방앗간풀이 · 마구간풀이 · 마당풀이를 한다. 축원의 내용이 상쇠의 사설로 읊어진다.

4. 진주 농악 당산에 올라가 당산굿을 하고, 공동우물이 있으면 우물굿을 하고 나서 가가호호 방문한다. 각 집을 방문하여 문굿을 하고 들어가 마당을 돌면서 신나게 논 다음 집 안 곳곳을 돌며 조왕굿, 장독간굿, 성주굿 등을 한다.

5. 김제 농악 전북 김제 지역에서 마당밟이는 걸궁굿으로 이루어진다. 문굿을 치며 마을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다른 마을의 농악대, 즉 걸궁패는 마을 공동우물에 가서 샘굿을 치고 당산으로 가서 농악을 하겠다는 사실을 고하는 당산굿을 한다. 그리고 가가호호를 방문해 집 마당에 들어가 한판 노는 마당굿과 개인놀이를 한 다음 고사굿, 조왕굿, 장독굿 등을 진행하고 다음 집으로 옮긴다. 마당밟이를 다 하면 날당산굿을 치면서 마을을 떠난다.

6. 임실 필봉농악 전북 임실군 필봉 지역에서는 섣달그믐에 치는 매굿과 정초에 치는 마당밟이를 따로 진행한다. 매굿은 섣달그믐날 밤에 마을에 사악한 기운을 쫓는 굿이다. 먼저 당산으로 가서 고하고 마을에 내려와 공동우물에서 샘굿을 친 다음 마을 집집이 들러 농악을 치면서 집굿을 친다. 매굿은 특별한 내용이나 절차 없이 집집을 돌아다니며 한바탕 치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며, 각 집에서 쌀이나 돈을 약간 내놓기도 한다. 음력 정월 초에 쇠꾼들이 동청마당에 모여 매굿에서와 같이 당산굿을 치고 샘굿을 친다. 그다음 집집이 들러 문굿을 치고 들어가 마당굿, 정지굿(성주풀이), 철용굿, 노적굿(뒤주굿) 등 마당밟이를 한다.

의의 마을의 신앙적 의례를 크게 유교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무당이 진행하는 경우, 풍물패가 진행하는 경우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지신밟기는 전적으로 풍물패가 진행하는 마을의 신앙 의례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풍물패가 영기를 앞세워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주술적 행위를 하는 지신밟기는 풍물패가 지닌 신앙적이고 신성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풍물패가 들고 다니는 영기 · 농기 등이 무속에서 사용하는 신대의 역할과 상통하고, 그 과정에서 풍물패의 상쇠가 일종의 사제자 역할을 하며, 크고 웅장한 풍물소리가 제액(除厄)의 기능을 하는 등 신앙적 측면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농악**(정병호, 열화당, 1986), **우리나라 농악의 현주소와 과제**(김헌선, 평택농악발전연구회, 2005), **이옥전집 3**(이옥, 소명출판, 2001), **평택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동방미디어, 200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82), **민속촌농악단 단장 정인삼선생 면담**(2010년 6월 26일).

필자 시지은(施知恩)

진도수역마을충제

정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역리 수역마을에서 매년 음력 유월 초하룻날에 해충 퇴치를 위해 지내는 제사.

유래 수역마을 뒷산 정상 부근에 큰 소나무가 서 있다. 그 앞에서 충제(蟲祭)를 지낸다. 충제를 모시는 사람은 세 명으로, 미리 마을에서 가려 뽑는다. 헌작(獻酌)과 독축(讀祝) 등 유교식 제사 방식을 따라 충제를 지낸다. 충제는 여름에 농작물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가 오지 않는 때에도 충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충제는 농신제(農神祭) 성격이 짙다.

현재는 수역마을에서 충제를 주관하지만 예전에는 달랐다. 6 · 25전쟁 전까지만 해도 수역리에 속하는 수역마을, 매향마을, 신흥마을, 월평마을, 북치마을의 다섯 마을이 공동으로 제사 비용을 마련하여 지냈다. 제비는 공동으로 염출하지만 제사는 다섯 마을이 매년 돌아가면서 지냈기 때문에 각 마을은 5년에 한 번 제사를 주관했다. 다섯 마을 가운데 수역마을이 반촌(班村)이라 하여 중심이 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다른 마을은 일절 충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섯 마을 가운데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수역마을만 매년 충제를 모시고 있다.

내용 매년 음력으로 유월 초하룻날에 수역마을에서는 충제를 지내 오고 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른다. 제사를 모시기 사나흘 전에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관 세 명을 선정한다. 집안에 산고(産故)가 들거나 초상이 난 사람이 아닌 유고 없는 사람을 뽑는다. 특히 축관을 중요시한다. 축관은 마을에 있는 칠성사(七星寺) 스님에게 의뢰하여 생기복덕을 맞춰 뽑는다.

제수 비용으로는 2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요즈음은 제관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 1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총 50만 원 정도가 든다. 이는 전액 마을자금으로 충당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사흘 동안 궂은 곳에 출입하지 않고, 추한 음식으로 간주되는 개고기도 먹지 않는다.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 역시 충제를 지내는 기간에는 매우 엄격하게 금기를 지킨다. 이때는 논밭에 나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빨래를 해서도 안 된다. 특히 흰 빨래를 밖에 내걸면 크게 해를 입는다고 여긴다. 이러한 금기는 충제 때가 동제 때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지켜진다.

충제를 지내러 올라가는 산길이 험해 2007년에 굴착기로 산길을 닦았다. 예전에는 지게를 이용해 제물을 날랐으나 2007년부터는 경운기를 이용한다.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날에는 제단에까지 전기선을 연결한다. 제물은 재료를 준비해 가서 산에서 조리한다.

음력 유월 초하룻날 오전 5시에 제관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 산에 오른다. 이른 시간에 산에 오르는 것은 혹시 궂은 것을 보거나 궂은 사람을 만날까 싶어서다. 산에 오르면 일단 차일을 치고, 가까운 샘물에서 목욕재계를 한다. 낮 시간에는 서로 담소를 나누거나 라디오를 듣기도 하면서 지낸다. 오후 4시쯤부터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메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콩나물 · 녹두나물 · 오이나물 등의 세 가지 나물, 대추 · 밤 · 곶감 · 참외 · 수박 등 과일, 마른 명태, 수탉 한 마리, 막걸리 등이다. 수탉은 붉은 털이 있는 것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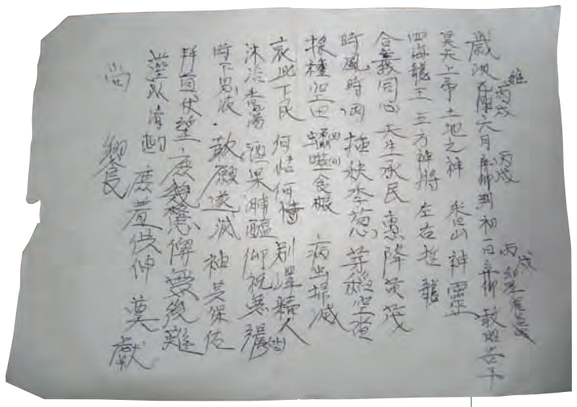
밤 10시쯤 되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다. 순서는 집안에서 제사를 모실 때와 같다. 축문은 아래와 같이 마을에 전해져 온다.

維歲次 (丙戌) 六月(丙戌)削初一日(丙戌)
幼學○○ 敢昭告于
昊天上帝 土地之神 香山神靈
四海龍王 五方神將 左右哲龍
合義同心 天生承民 惠降黃茂
時風時雨 插秧季葱 芽稻空畓
採種空田 螯噬食根 病虫埽滅
哀此下民 何怙何恃 別擇精人
沐浴香湯 酒果脯醢 仰祝無彊
時下思夜 敢願逐滅 神其保佑
拜首伏望 庶幾格思 俾無後難
謹以淸酌 庶着供伸 奠獻
尙饗

제사를 마치면 소지를 올린 뒤 헌식을 위해 제상에 골고루 올린 제물 가운데 일부를 미리 준비한 한지로 싼다. 이때 상에 올린 수탉도 머리를 떼어내고 함께 싸서 충제단 옆에 구덩이를 파고 묻는다.

간단히 음복을 하고 새벽 5시쯤에 짐을 챙겨서 마을로 돌아온다. 제관들은 각자 집에서 쉬었다가 낮에 노인당으로 모인다. 마을 사람들 역시 노인당에 모여서 제사에 올린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마을 사람들은 충제를 지내면 농작물에 해충이 싹



수역마을충제 축문
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역리, 2006.7.13 이옥희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20여 년 전 어느 해에는 충제를 지냈는데도 병충해가 심해 날을 받아서 다시 제를 지낸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 다섯 마을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충제를 지낼 때 수역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에서 제를 지냈으나 그해에 해충이 심하여 수역마을에서 다시 따로 충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충제는 기우제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뭄이 극심한 때에 비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충제를 지내고 나자 비가 내려 제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사람들이 비를 맞은 적도 있다고 한다.

충제는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동제와 달리 부대행사 없이 매우 엄격하게 지낸다. 남자만 참여하는 것과 제의절차를 보면 유교적 성격이 강함을 느낄 수 있다. 충제를 지내면서 사용한 비용은 마을총회 때 일 년 사업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보고한다.

이 마을 충제는 아직까지도 고형(古形)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다. 제관들이 1박 2일 동안 산에서 머물면서 제물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관도 세 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주민들이 반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충제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충제의 효과에 대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마을에 비하면 전승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연령이 높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갈 젊은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전승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한다.

참고문헌 진도의 마을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7).

필자 나경수(羅景洙)

진도해창마을당제

정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해창리 해창마을에서 매년 음력 정월 그믐날에 모시는 마을공동제의.

역사 해창마을은 진도읍사무소에서 서쪽으로 10여 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제강점기 때 시행한 고작리(庫作里) 간척사업 이전부터 병기창과 식량창고가 있던 진도의 해상관문이었다. 이곳이 번성한 때에는 200가구에 이르는 큰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38가구 42세대 109명이 살고 있다. 주요 성씨는 밀양 박씨(密陽 朴氏), 김해 김씨(金海 金氏), 경주 정씨(慶州 鄭氏), 경주 이씨(慶州 李氏), 원주 이씨(原州 李氏), 현풍 곽씨(玄風 郭氏), 양천 허씨(陽川 許氏), 인동 장씨(仁同 張氏), 진주 강씨(晉州 姜氏), 경주 박씨(慶州 朴氏), 경주 채씨(慶州 蔡氏) 등이다. 간척사업 이후 주민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 벼, 구기자, 대파, 월동배추를 경작하며 농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마을 주민이면 3만 원을 내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도계(喪徒契)가 있다. 상도계에서는 마을에 초상이 나면 상여소리를 하고 출상을 한다. 이 상도계는 1961년부터 동정계(同情契)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해창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그믐날에 거리제와 함께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고 있다. 당제는 마을 뒷산 중턱에 위치한다. 당집은 한 칸으로 되어 있어 여느 마을의 당집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당집 주변은 돌담으로 둘러져 있고, 입구에는 양쪽과 가운데에 세 개의 돌기둥이 세워져 있어 들어오고 나가는 문 구실을 한다. 입구에서 당집까지 1m 남짓한 거리이고 바닥은 돌과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당집 외부는 돌기둥을 세워 벽면에 시멘트를 발라 놓았고, 정면은 나무 재질의 문이 달려 있다. 제를 모시지 않는 평소에는 이 출입문이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다. 지붕은 기와를 얹었으며, 지붕 위는 풀이 덮여 있어 당집 옆의 큰 이팝나무 및 주변 대나무숲과 하나된 모습으로 고즈넉하다. 당집 출입문에는 태극문양이 오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서까래와 도리 역시 오색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어 여느 마을의 당집과는 달리 독특한

해창마을 당집
전남 진도군 진도읍 해창리 해창마을 2006.7.14. 서해숙

해창마을 당집내부
전남 진도군 진도읍 해창리 해창마을
2006.7.14. 서해숙

멋을 풍기며 고풍스러워 아름답기까지하다. 당집 내부에는 대리석 제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할머니 조각상이 서 있다. 조각상 아래에는 '당신(堂神)'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제단 위에는 향로와 촛대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당을 '할머니당'이라고 부른다. 이는 당신의 신격이 여성이고, 여자를 모신다 하여 부르는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당할머니가 아니라 '당각시'이므로 '각시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의 당제가 언제부터 모시게 되었는지 전하는 문헌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은 예전부터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당집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숲으로 보아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것으로 보인다. 당집 주위 고목들이 예전에는 더욱 무성했다고 하는데 광복 직후에 큰 나무들을 베어내 그 과정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다고 마을 사람들은 전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그곳이 사유지 밭이어서 소유자 소원(진도읍, 전 남진제재소 대표)으로부터 제당 부속 땅으로 희사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1350년부터 87년 동안의 공도기(空島期)가 끝나고 군치소(郡治所)가 고군면에서 현재의 진도읍으로 바뀌어 1440년부터 행정이 재개된 이후 이 마을은 진도의 관문으로 조성된 창고마을 겸 항구여서 당의 역사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진도군 보호수로 지정받은 나무 가운데 진도에서 가장 큰 이팝나무가 이곳에 있다. 일명 쌀나무인 이 나무에 꽃이 많이 피면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내용 당제를 모시기 위한 제관은 해창리 개발위원 여섯 명과 이장이 모여 선정한다. 대략 정월 초사흗날이면 제관이 결정된다. 이 마을에서는 제관을 '당주'라고 부른다. 제관은 60세 이상의 마을 사람 가운데 생년월일과 제일을 맞추어 부정이 없는 깨끗한 여성으로 가려 뽑는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합심하여 올리는 제의이기 때문에 제일 당일에는 들일을 하지 않고, 마당에 세탁물도 널지 않으며, 가무(歌舞)를 삼가고, 이웃끼리 언쟁도 하지 않는 등 모두가 근신한다. 특히 제관들은 아침 일찍 목욕을 하고, 제를 마칠 때까지 언행을 삼간다.

제일 오전에 제관은 6.6㎡ 남짓한 당집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당주는 가장 먼저 당각시를 목욕시킨다. 전에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화강암으로 새로 조각하여 앉힌 당각시를 물수건으로 머리로부터 깨끗이 닦아 내린다. 당제 제관이 여자인 이유가 당신인 당각시를 목욕시켜 드리는 것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간혹 시험이나 취직 등 자식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당각시를 목욕시키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당 주위에는 목욕시켜 드린 수건이 수북이 쌓여 있다. 청소할 때 당주가 그 수건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당주의 남편이 마당에서 이 수건을 불태운다.

제의 시간이 되면 당주의 남편과 보조원들은 당주인 제관이 장만한 제물과 제기, 필요한 물건들을 마을 위 산자락에 자리한 당집으로 옮긴다.

당제를 모시기 전에 거리제를 지낸다. 거리제 제물은 제청에서 장만하되 매우 간소하게 현장에서 끓인 미역국과 메를 올린다. 메는 솥째 차려 놓고 술, 통돼지 한 마리 등만 짚을 깔고 땅바닥에 차린다. 그러나 당제는 많은 음식을 진설하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기울인다. 당제 음식을 장만하는 당주의 사립에는 금줄을 쳐 놓고서 외부인의 접근을 금한다. 이는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다. 국과 메를 비롯하여 구운 생선, 거리제터에서 잡은 돼지의 목살, 나물, 식혜, 세 가지 과일인 사과 · 배 · 딸기, 포를 당 안에 차리고 향을 사른 뒤 제주를 올린다. 일 년 만에 바치는 음식을 맛있게 드시라는 뜻에서 수저를 밥그릇에 꽂고 젓가락은 생선 위에 올려놓는다.

제물을 진설하면 이어서 당주인 제관은 당각시에게 온절 두 번과 반절 두 번을 하고 손을 모아 구축을 한다. 구축은 "당각시님, 차린 것은 부족해도 많이 드시고, 어쩌든지 우리 해창리 주민들 병 없이 올 한 해도 잘살고, 타관에 나가 있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아무 탈 없이 하는 일들 성공시켜 주십시오. 비나이다!"라고 한다. 모든 제의를 마치면 촛불과 음식을 그대로 두고 모두 집으로 간다. 이처럼 당제는 여자 제관을 중심으로 거리제와는 별도로 마무리된다.

당제를 지낸 이튿날에는 마을 사람 모두 마을회관에 모여 총회 겸 잔치를 연다. 남은 비용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윷놀이를 한다. 전에는 집집마다 돌면서 농악을 쳤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마을총회에서 지난해의 마을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새해 사업을 의결한다. 품삯 조정도 이날 협의하여 일 년 동안 적용시킨다.

옛날에는 마을의 공동체 질서와 도덕에 위배되는 마을 구성원을 징계하는 절차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때 불효자나 도벽이 심한 자에게 '덕석몰이'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마을총회의 모든 내용은 기록되어 '동안(同案)'이라는 문서철로 남겨진다. 진도의 마을마다 보존해 오던 '동안'은 거의 멸실되었으나 해창리는 1915년부터 시작된 동계안을 마을 총무가 보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해창마을당제는 작지만 기와집으로 품위를 갖춘 당집이라든지 대문 전변에 커다랗게 그린 오색태극그림과 여자가 제관이라는 점 등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옛날 큰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로서 안전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의 선장실에 오색실이나 오색천을 함께 넣어 모시는 배서낭과 그 신체(神體)가 젊은 여성인 점은 이 마을의 당신을 당할머니가 아닌 '당각시'로 부르는 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당제가 예전에 비해 오늘날에는 눈에 띄게 축소되고, 제의 성격 역시 퇴색되었다고 해창마을 사람들은 우려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소포만 간척사업으로 바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의 대상과 종교적 신심이 약해진 것이 우선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제를 모시기 위해 여러 가지를 근신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서로 제관을 맡지 않으려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마을 자산이 2,000만 원이 넘고,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출향 향우들까지 무사안위과 제액을 기원하는 제의로 확대되고 있으며, 마을 사람 모두가 단합하여 제를 지내고 있고, 이를 앞으로도 계속 지내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적 민간신앙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진도군의 마을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7).

필자 서해숙(徐海淑)

진주명석자웅석(晋州鳴石雌雄石)

정의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에 있는 성숭배 신앙의 대상인 한 쌍의 암수 바위. 1988년 12월 23일에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12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숫돌은 높이 87㎝, 밑둘레 214㎝의 자연석이다. 위에 귀두같이 볼록하게 된 부분이 있어 남자 성기 형상을 하고 있다. 높이 77㎝, 밑둘레 147㎝의 자연석으로 된 암돌은 모습이 여자가 족두리를 쓴 형상을 하고 있다. 명석각(鳴石閣)이라는 석각(石閣) 안에 자웅석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내용 지역 사람들은 '운돌' 또는 '명석(鳴石)'이라고 부른다. 전설에 따르면 고려시대 때부터 이 암석을 숭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성숭배의 대상물로 숭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읍지 같은 문헌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기록돼 있다. 1231년(고려 고종 18)에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일설에는 고려 공민왕 때 여진 및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진주성을 쌓을 때 백성들이 부역에 동원되었다. 이 지역 광제암(廣濟庵)의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가 급히 걸어오는 한 쌍의 돌을 만나서 "무령석물(無靈石物)이 어디로 가느냐?"하고 물으니 돌들이 "진주성 부역에 고생하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성 돌이 되고자 갑니다"하고 답하였다. 이미 성을 다 쌓았다고 하자 돌들이 애석하여 크게 울며 전신에 눈물을 흘리더니 그 자리에 섰다. 그 뜻이 가상하여 이 자웅석을 '운돌'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또 스님이 감복하여 "거룩한 보국충석(輔國忠石)이여!"하며 아홉 번 절을 하였다고 하여 그 위 골짜기를 구배곡(九拜谷) 또는 구복곡(九伏谷)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명사 두사충(杜思忠)은 "크나큰 그 돌/ 낭랑한 그 울음이여/ 그 이름의 크고 장함/ 천만년 빛나리(磊磊維石 琅琅其鳴 其名宏大 於千萬齡)"라고 〈자웅석찬(雌雄石讚)〉이라는 시를 지어 보냈다고 한다. 지금도 국가 대사가 있을 것 같으면 운돌의 눈물인듯 암석 표면에 물이 흐르며 예언의 징조를 보인다고 한다.

원래 숫돌은 현 위치에서 북동쪽 300m 지점의 논두렁에 서 있었고, 암돌은 북쪽 500m 지점의 하천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이것을 1970년 삼짇날(음력 3월 3일)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1973년에 명석각을 준공하여 모셨다.

매년 음력 삼짇날 정오에 명석각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제례를 지낸다. 이 자웅석과 삼짇날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날이 첫 봄의 명절이어서 자웅석을 이전하고 제일(祭日)로 삼았다고 한다. 관심이 있는 면민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제관 세 명, 집사 두 명, 축관 한 명, 독축 한 명이 주관하여 유교식 제의를 치른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제관은 민(民)과 관(官)이 해마다 교대로 맡는다. 민이 맡을 때는 명석면 노인회장 등 지역의 원로와 출향 인사가 제관이 되고, 관이 맡을 때는 면장 · 학교장 · 파출소장 등이 제관이 된다. 제를 마치면 제장 앞 마당에서 참여자들이 음복을 하고 각종 민속놀이를 하면서 면민의 봄축제를 벌인다. 제를 지내는 목적은 보국충석을 기리고 풍농을 기원하는 것이다.

진주 명석각과 자웅석
경남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2010.5.18
정상박

이런 제의는 마을공동체가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기 형상석인 '운돌[鳴石]'을 바탕으로 '명석면(鳴石面)'이라는 면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특이하게 면 공동체 단위의 제의가 되었다.

의의 이 자웅석은 본래 성기숭배의 대상물이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신격과 제의 목적이 변하면서 전설이 형성되어 계속 숭배해 왔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던 성기 형상석에 고통 받는 민중의 현실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소원이 부가되어 운돌 전설'이 형성되었고, 보국충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긴 조선시대에는 보국안민의 주제가 부각된 전설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보국충석으로 관민 모두의 관심을 끌면서 면 이름으로 삼게 되고 면 단위의 제의를 행하게 되었다. 이 자웅석은 주민의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신격과 기능이 변화하거나 첨가되면서 계속 숭배하여 온 한국 성숭배 변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晉州通誌(一鵬精舍, 1964), **성기암설화의 변이전승 고찰**(정상박, 석당논총 1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1), **전설의 사회사**(정상박, 민속원, 2000), **한국구비문학대계–진주시 · 진양군**(정상박 · 류종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필자 정상박(鄭尙圤)

짐대

표제어 솟대(505쪽)

짐대제

표제어 솟대제(508쪽)

짚말

정의 무속의 마마배송굿 혹은 동제의 제장에 재액(災厄)을 물리칠 목적으로 안치하는 짚으로 엮은 말.

형태 짚말은 마을에 따라서 대나무로 만든 죽마(竹馬)나 싸리나무로 만든 말이 사용되며 실물과 흡사한 모습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머리와 갈기는 물론 이목구비와 꼬리, 다리, 고삐까지 정교하게 말의 형태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마마배송굿에서 두창신(痘瘡神)을 전송하는 말은 짚이나 싸리로 만든다. 이 말을 상마(上馬)라고 한다. 상마의 등에는 세 개의 오쟁이를 만들어 단다. 하나는 메를 담고, 두 번째 오쟁이에는 떡과 마부의 수고비, 세 번째 오쟁이에는 과일을 담아 준비한다. 각각의 오쟁이에는 청 · 홍 · 황색의 깃발을 꽂고, 상마의 등에는 붉은색 일산(日傘)을 고정하여 세운다. 상마의 머리에는 마등(馬燈)을 의미하는 등심지를 묶고 목에는 워낭을 매단다.

동제의 제장에 안치되는 짚말도 이와 유사하다. 충남 부여의 괴목정 노신제에도 짚말이 등장한다. 이 짚말은 몸통의 길이가 120㎝이고 여기에 말머리를 부착한 것인데, 주둥이가 헤벌어진 모습은 질주하는 말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귀는 막대기에 짚을 덧씌워 묶은 다음 머리 양쪽에 꽂았고, 머리와 몸통을 연결한 목 부분은 짚을 거칠게 흘러내리게 하여 갈기를 나타냈다. 말의 다리는 나무막대에 짚을 둘둘 감아 몸통의 앞뒤에 각각 2개씩 절러 두었는데, 뒷다리가 튼튼해 보이도록 굵게 한 것이 특징이다. 꼬리는 짚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몸통의 끝에 묶되 볏짚의 탈곡된 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였다. 고삐는 두 발 남짓 새끼를 꼬아 이것을 주둥이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연결했다. 짚말의 옆구리에는 오쟁이 두 개를 부착하였다. 완성된 짚말의 크기는 꼬리를 포함하여 길이 약 150㎝, 높이 50㎝, 몸통둘레 45~50㎝, 다리 40㎝, 귀 13㎝이다.

동해안 별신굿의 '말치레 놀이'에 사용되는 짚말은 길이 60㎝, 높이 45㎝, 몸통의 직경은 15㎝ 정도이다. 새끼로 고삐를 꼬고, 짚으로 오쟁이 두 개를 만들어서 말 옆구리에 하나씩 달아맨다. 그런가 하면 전남 신안의 고란리 당제에서는 죽마를 사용한다. 대나무로 말의 골격을 만들고, 머리는 짚으로 엮어 단단하게 뭉쳐서 참종이를 씌운 다음 먹으로 눈과 코를 그린다. 귀도 대나무로 만들고 목에서부터 큰 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서 꼬리에 붙이고, 그 위에 짚을 깔아 탈 수 있도록 한다. 양쪽 두 갈래의 대기둥 안에 발을 넣게 만들고 꼬리도 댓잎으로 만들어 붙인다. 마부가 끌 수 있도록 목줄을 걸고 양쪽에 매어 둔다.

내용 짚말은 두창신[천연두신]을 배송(拜送)하는 마마배송굿과 깊은 친영성이 있다. 두창에 걸리면 13일째 되는 날 환부에 딱지가 생기면서 병이 끝난다. 이날 마마신을 공손히 돌려보내는 '마마배송굿'이 벌어진다. 이 굿은 지역에 따라 '손님굿'이나 '별상굿'이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실제 말이나 짚말을 만들어서 반드시 두창신을 전송하는 의식이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능화는 『조선무속고』에서 "두창신을 전송하는 의식은 말과 마부를 부려 마마신이 탈것을 갖추고, 기타 의장은 벼슬아치의 행차 때와 같이하되 말이 없으면 짚말[芻馬]로 대신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천연두가 창궐하였을 때 짚말에 두창신을 태워서 배송하는 상징적인 의식이 베풀어졌음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2003.1.15(음), 강성복

짚말에 오쟁이를 매는 모습

완성된 짚말

제장에 안치된 짚말

제를 마친 뒤 오쟁이에 넣어둔 제물과 돈

알 수 있다. 이처럼 마마를 전송할 때 온갖 의장을 갖추고 말(혹은 짚말)을 준비하여 성대한 굿을 하는 데에는 천연두를 공경히 대접하여 보냄으로써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의약이 발달하지 못한 지난날에 돌림병의 창궐은 무수한 인명을 빼앗아가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중에서도 천연두는 가장 무서운 괴질로 인식되었다. 설령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일생을 곰보로 살아가야 하는 탓에 그 두려움은 더욱 컸던 것이다.

지역사례 현행 동제나 별신굿에도 마마배송굿을 차용한 의식이 전승된다. 동해안 별신굿의 손님굿 마지막 제차에는 짚말을 데리고 놀다가 나무에 매어 둠으로써 마마를 배송하고 축원하는 의식이 있다. 이른바 '말놀이' 혹은 '말치레 놀이'가 그것이다. 또한 전남 고란리 당제에서 장군과 마부가 벌이는 놀이는 이와 대동소이하다. 즉 마을 사람들은 당제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신당 주변으로 농악을 치며 모여든다. 이때 장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나무로 말을 만든다. 장군은 말을 만들어 타고 마부 두 명과 함께 대열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제관과 엄숙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진종일 놀던 장군 일행은 대열 사이를 빠져나와 동네 앞 개울가에 가서 "병고가 없고 풍년이 들어 도초면민 잘살게 해주시오"라고 축원한 뒤 말을 버리고 달려온다. 말이 지나가면 그냥 보내지 않고 주로 어린아이들을 시켜서 가시나무나 회초리로 두들겨 패게 한다. 이것은 농사가 잘되고 액운을 쫓아낸다고 해서 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회초리를 맞고 나갈 때는 말의 머리 부분 신우대가 확 퍼져야 좋다고 한다.

부여 괴목정에서는 노신제를 지낼 때 미리 만들어 둔 짚말을 제단 옆에 안치한다. 거리굿을 마치면 섬을 상징하는 오쟁이, 그 양쪽에는 통북어 두 마리와 과일을 가득 담고 노잣돈으로 사용될 지폐도 놓는다. 짚말을 데리고 나갈 마부의 소임은 구경 나온 아이들에게 맡기는데, 한 아이는 앞에서 말의 고삐를 쥐고, 다른 아이는 뒤에서 말의 몸통과 다리를 든다. 이때 제관이 "번개처럼 내빼라"고 소리를 지르면 전력을 다해 동구 밖으로 뛰어간다. 이는 해마다 마을에 깃든 액운을 짚말이 태우고 나감으로써 모든 악귀를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간 아이들은 오쟁이에 실린 제물과 돈은 빼내어 사이좋게 나누어 갖고 짚말은 그냥 길옆에 버리고 돌아온다. 더러는 짚말과 함께 액운이 소멸된다 하여 불태우기도 했으나, 가급적 소각하지 않는 것이 이 마을의 전통이다. 왜냐하면 짚말이 온전하게 살아 있어야 이듬해에도 다시 찾아와서 재액을 싣고 간다는 믿음 때문이다.

의의 마마배송굿이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에 짚말이 사용된 것은 말이 지닌 벽사력(辟邪力), 곧 악귀와 병마를 쫓는 주술적인 힘에 기인하는 것이다. 짚말은 말의 생물학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상징물이기도 하다. 말은 1,000m를 1분에 주파하는 준족이다. 게다가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액운을 싣고 나갈 동물로는 가장 적격이다. 마부가 짚말을 동구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전속력으로 뛰거나 회초리로 마구 때리는 것은 한시바삐 액운을 몰고 가라는 '속거천리(速去千里)'의 의미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쟁이에 많은 제물을 실려 보내는 것은 잡귀를 잘 대접하고 위무함으로써 더 이상 마을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는 '해물리기'의 성격이 드리워져 있다. 이는 마치 서해안 당제에서 '발심지'나 '띠배'와 같은 퇴송선(退送船)에 제물과 허수아비를 실려 뜬귀신을 바다 멀리 추방하는 의식과 동일한 상징성을 지닌 것이다.

참고문헌 괴목정 노신제와 동화(강성복, 부여문화원, 2003), 다도해의 당제(최덕원, 학문사, 1984), 민속문화에 나타난 말의 의미(표인주, 한국의 마 민속, 집문당, 1999), 신안군 도초면지역 민속종합조사보고(남도민속학연구 창간호, 남도민속학회, 1991), 전통 연행예술 속의 오브제 연구(허용호,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 19, 계명구락부, 1927), 충청민속문화론(강성복, 민속원, 2005), 한국민속동물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의 무(조흥윤, 1985).

필자 강성복(姜成福)

짚장군

정의 재액(災厄)을 물리칠 목적으로 동제의 제장에 임시로 안치하는 장군상의 하나.

형태 대부분 짚으로 장군을 만들지만, 마을에 따라서는 대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음력 정초나 정월대보름에 전승되는 거리제나 장군제에 간혹 짚장군이 등장한다. 짚장군은 가부좌를 튼 사람의 등신상(等身像)보다 조금 크게 제작된다. 여기에 갑옷을 입히고, 칼 · 창 · 화살 등의 모형 무기 따위를 소지시켜 장군의 위용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홍가골 장군제(거리제)는 짚으로 만든 축귀대장군(逐鬼大將軍)을 장군막(將軍幕)에 안치하고 치제하는 독특한 액막이 의례이다. 짚장군은 가부좌를 한 자세로 만들어진다. 머리에는 벙거지처럼 생긴 투구를 쓰고, 새끼로 촘촘하게 엮어서 만든 갑옷을 몸에 걸친다.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화상을 한지에 그려서 가면을 씌우고, 이마에는 붉은색 띠를 질끈 동여맨다. 그 표정이 자못 해학적이어서 무섭기보다는 우스꽝스럽다. 가슴에는 '축귀대장군'이라 묵서한 위목을 부착하여 잡귀를 구축하는 대장군임을 나타낸다. 몸집에 비해 팔과 다리가 짧아 심한 비대칭을 이루지만, 손과 발가락은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어진 편이다. 왼쪽 옆구리에는 대나무 칼이 채워져 있으며, 다리 사이에는 발기된 성기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

홍가골 짚장군의 형태는 제작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최근에 제작된 장군은 몸 전체를 새끼줄로 엮었으며 목 부위에 갑옷을 입혔다. 얼굴은 가면 대신 수염을 비롯해 눈썹 · 눈 · 귀까지 짚으로 만들었다. 팔다리를 길게 만든 것도 기존의 장군과 다른 점이다. 등 뒤에는 두 가닥의 멜빵을 부착하여 유사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 발기된 성기와 불알은 실물에 가깝도록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오른쪽 어깨에는 작은 망태기를 대각선으로 둘렀는데, 이 망태기는 오쟁이와 마찬가지로 거리제를 마친 뒤에 장군이 흠향할 제물을 담아 주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 장군의 몸체는 앉은키 95㎝, 가슴둘레 106㎝, 다리 95㎝, 성기 20㎝이다.

일제강점기 말까지 충남 공주시 중학동과 산성동에서는 짚으로 만든 장군을 안치하고 장군제를 지냈다. 산성동 장군은 몸집이 두세 아름이 될 정도로 큰 편이었으며 짚단 1~2동이 소요되었다. 장군을 들고 마을을 돌 때는 네 명 또는 여섯 명이 들었다고 하니 그 크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장군은 가부좌를 한 자세로 투구와 갑옷을 입혔다. 손에는 창을 쥐고 있었으며 어깨에 활과 활통을 멨다. 투구와 갑옷은 각대기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은색을 칠하여 반짝반짝 빛이 났고 움직일 때마다 덜렁거렸다. 그 밖에 장군의 복장은 창호지로 분장을 하였다. 반면에 중학동에서는 남녀장군을 안치하였는데, 나중에 대나무로 장군 내외를 만들었으며 창호지를 몸에 발라 장식을 하였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짚장군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짚으로 남녀 허재비 인형 2개를 만들어 놓고 거리제를 지냈다. 허재비의 몸집은 사람보다 다소 크게 만들었다고 한다.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비녀를 꽂은 모습이었다.

내용 동제의 연행 현장에 등장하는 짚장군은 재액을 일소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제를 전후하여 장군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마을을 도는 '장군놀이'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액운이 없기를 축원하는 '장군걸립'이 베풀어진다.

지금도 해마다 정월 초삼일에 산신제와 장군제를 거행하는 부여 홍가골에서는 아침부터 젊은이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짚과 땔나무를 갹출한다. 이것으로 마을 앞 도로변에 장군을 안치할 작은 막을 짓는다. 장군막이 완성되면 왼새끼를 꼬아 시신을 염하듯이 짚으로 만든 장군을 일곱 매로 묶어서 안치한다. 당일 산신제를 마치면 장군을 짊어지고 풍물을 울리며 제관의 집으로 간다. 이때 제관은 별도로 마련한 제물로 간단하게 제를 지낸 다음, 다시 장군을 짊어진 '장군애비'를 앞세우고 길군악을 울리며 장군막으로 향한다. 도중에 우물을 만나면 샘굿을 치고 간다. 제장에 도착하면 장군막 우측에 장군을 좌정시킨 뒤 그 앞에 제상을 차리고 제를 지낸다.

장군제를 마치면 장군애비는 풍물패를 대동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한 해 동안 무탈하기를 축원해 준다. 초저녁에 시작된 걸립굿은 한 집도 빠짐없이 도는 까닭에 예전에는 동이 틀 무렵에야 끝이 났다고 한다. 이때 장군을 맞이한 가정에서는 초사흘 고사로 올린 쌀이나 돈을 내주었으며, 더러는 장군에 동전을 넣어 주기도 하였다. 장군걸립이 끝나면 다시 장군막으로 돌아와서 장군의 가슴에 돈과 쌀을 넣어 주며 "나쁜 액을 다 가져 가십시오!"라고 크게 소리친다. 그런 다음 장군을 짊어지고 장군둠벙으로 가서 버리는데, 장군과 함께 모든 액운이 소멸된다고 한다. 일단 장군을 버리고 나면 횃불을 끈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을로 돌아와 음복을 한다.

공주 중학동의 장군제는 짚장군의 기능이 한층 극명하게 드러난다. 장군제는 임시로 천막을 설치하여 이곳에 장군을 안치하고 제를 지냈는데, 제사 후에는 장군을 메고 온 마을 사람이 골목골목을 행진하며 장군놀이를 즐겼다. 행사를 마치면 장군의 정면이 공주 시내를 보게 하고 불을 질렀다. 장군이 앞쪽으로 넘어지면 그 해는 액운이 들 징조이고, 뒤로 넘어지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전한다.

논산 상월에서는 거리제를 지내기 전에 짚으로 만든 허재비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걸립을 하였다. 걸립을 당한 집에서는 한복의 동정을 떼어 허재비의 목에 걸어 주면 한 해의 액땜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것은 마

짚장군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홍가골, 2009.6
강성복

짚장군에 부착된 망태기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홍가골, 2009.6
강성복

치 달집을 태울 때 마을 사람들이 저고리의 동정을 불사르고, 액년(厄年)이 든 가정에서 거리제를 지내며 당사자의 동정을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와 동일한 의식은 장승을 매개로 한 동제에서도 나타난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서는 해마다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장승제를 지냈다. 장승은 윤달이 드는 해마다 삼살방(三煞方)을 가려 다시 깎아 세웠다. 남녀장승이 만들어지면 이를 등에 업고 홍겹게 풍물을 치면서 가가호호를 방문한다. 이때 풍물패를 맞이한 집에서는 대주의 저고리 동정을 떼어 장승의 관모에 매달아 준다. 그렇게 빠짐없이 각 가정을 돌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여 장승의 몸에 동정을 매기도 했다. 이로써 한 해 동안 대주에게 액운이 없고 집안이 무탈하다고 여겼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바람으로 아이가 입던 옷깃을 떼어 장승에 달아 주는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걸립이 끝날 무렵이면 마을 사람들이 매달아 놓은 동정과 옷고름으로 장승이 하얗게 뒤덮일 정도였다.

의의 거리제나 장군제에 등장하는 짚장군은 제장에 임시로 안치되는 주술적인 존재이지만, 그것이 곧 신체(神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액운과 잡신을 구축(驅逐)하는 신승물(神乘物)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다. 제사 후에 소임을 다한 장군을 불사르거나 동구 밖에 내다버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결국 짚장군은 출중한 무예를 지닌 장수야말로 액운을 쫓는 주술적인 힘이 더욱 강할 것이라는 민간사고가 전제된 산물이다. 이 때문에 장군을 등에 지고 온 마을을 도는 장군놀이를 베풀거나, 장군애비가 장군을 메고 걸립을 할 때 동정을 걸어 주고 아이들의 옷깃을 매달아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짚장군은 가정과 마을에 깃든 모든 액운을 일소하는 존재이자, 궁극적으로는 향복무강(享福無疆)을 축원하는 동제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회리 장군제 조사보고서(부여문화원, 2002), 공주의 민속신앙(공주문화원, 1995), 백마강(부여군, 2008), 천안 북수~송촌 간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강성복(姜成福)

제의
천상제
천왕메기
청도비동당제
청양정산동화제
청주선도산장승제
충제
충주목계별신제
침호두

신격
창귀

신체
철마

제물
창호지

참신
창귀
창호지
천군
천상제
천왕메기
철마
청단일
청도비동당제
청양정산동화제
청양청소리산신제문서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
청주선도산장승제

大

축문
충제
충주목계별신제
치성비요
침호두

제구
축문

자료
청양청소리산신제문서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
치성비요

용어
참신
천군
청단일

참신(參神)

정의 마을신이 오신 것으로 여기고 인사를 드리는 절차.

내용 마을에서 제사를 베풀 때 신령을 초청하는 강신(降神)을 행한 뒤 마을신이 오셨다고 여기고 인사를 드린다. 제관 이후 참례자 일동이 재배를 한다. 산신제에는 선출된 제관 일행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제 집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제사가 거행되는 동안 신령을 맞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불을 밝히고, 밤을 지새우면서근신한다. 직접 제장에 올라가 참신할 수 없어서 집안에서 참신하는 방법인 셈이다.

마을에 오신 마을신을 맞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각 가정에서 인사를 드리기도 한다. '마중시루' 또는 '마짐시루'가 그것이다. 마을신을 집 안으로 모시기 위해 미리 시루를 마련해 두었다가 분향과 재배를 마치거나 마을제사를 마치면 마을 제당에서 마중시루를 올리라고 신호를 해 준다. 그 시간에 맞추어 각 가정에서 시루를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마을신을 맞이하여 인사를 드리는 절차로, 참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을을 찾은 신령께 인사를 올리는 절차인 참신은 주민들이 마을신앙의 주체이며, 그 안에서 신령에게 도움을 구하는 존재임을 알리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마을을 찾은 마을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는 모든 마을신앙에서 나타난다.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한다는 자체가 신령을 알현하는 방법이다. 참례자가 제한적인 산신제의 경우에는 제관만이 참신하지만 마을에 남아 있는 주민들도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며 불을 밝히고 참신한다. 밤을 지새우는 것 자체가 예를 다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禮記**,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 1994), **산신제에 수반되는 '마짐시루'의 의미와 성격**(강성복, 어문연구 61, 어문연구학회, 2009).

필자 **김효경(金孝慶)**

창귀(倀鬼)

정의 호식을 당해 죽은 사람의 귀신. 창귀는 범의 노예가 되어 항상 곁에 붙어 다니면서 시중을 들고 식사를 책임지며 길 안내를 맡는다.

내용 창귀는 또 다른 사람을 범에게 잡아먹히게 해야만 범의 위권과 부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리 놓기로 다른 사람을 범에게 잡아먹히게 하고서야 비로소 창귀 역할의 임무 교대가 된다. 그래서 창귀는 항상 호식당할 사람을 찾는다. 창귀는 사돈의 팔촌뿐만 아니라 이웃사촌, 친구 등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다니며 불러내 범에게 잡아먹히게 만든다. 예부터 범에게 물려간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창귀 때문이다. 창귀가 있는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간 창귀의 발호에 언젠가는 사돈의 팔촌까지 범에게 물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창귀는 신맛이 나는 매화열매나 소라, 골뱅이 등을 좋아하여 그것이 있으면 먹는 데 정신이 팔려 범을 호위하는 일도 잊는다. 그러면 범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그냥 잡으면 된다.

창귀는 항상 서럽게 울며 슬픈 노래를 부르며 다닌다. 사람이 이유 없이 슬픈 노래와 서럽게 우는 것은 창귀가 덮어 쓰여 그렇다. 창귀는 슬픔의 화신으로,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준다. 이미 범에게 잡혀갈 팔자라면 창귀가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한다.

범에게 당하는 모든 환란을 호환이라고 한다. 다치기만 해도 호환이라고 한다. 범에게 잡아먹히면 호식 또는 호사(虎飼), 호람이라고 한다. 1900년대만 하여도 범에게 잡아먹히는 호식은 그 당시 큰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범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머리와 그 밖의 신체의 일부를 남겨 둔다. 유족들은 그 유구를 발견하면 창귀의 모든 사악함을 태워 완전 소멸시키고자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덤을 만들고, 시루를 엎어 놓고, 시루 가운데 구멍에 가락(실을 감는 꼬챙이)이나 칼을 꽂아 호식총이라는 무덤을 만든다.

돌무덤은 망자와의 인연을 끊고 벌초하지 않아도 되며, 다시는 오지 않아도 되고 돌무덤 자체가 금역이다. 시루는 하늘을 뜻하고 산 것을 죽이는 형구(刑具)로서 철옹성같이 창귀를 가두는 것을 상징한다. 가락은 벼락을 뜻하고 가락이 물레에서 맴돌기만 하듯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무서운 창귀를 제압하고자 창귀의 다리 놓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을 화장하고, 돌무덤을 쌓고, 시루를 덮고, 가락을 꽂는 특이한 형태의 호식총을 만들었다. 범이 사람을 물고 가서 먹는 곳을 호식터 또는 호람(虎噉)이라고 한다. 다른 곳에 비해 태백산 지역에는 호식총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으로, 아직까지 그 유지(遺址)가 남아 있다.

호환을 당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의 처리는 일반 사고에 의한 죽음과는 달리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무당굿에서는 이렇게 호환을 당한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범굿'이나 '호탈굿'을 벌이기도 한다.

범굿은 범에게 물려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범굿은 호탈굿이라고도 한다. 호탈은 한지에다 물감으로 범의 안면과 몸뚱이를 그려서 사람이 이 범의 껍질을 입고, 짚으로 방망이를 만들어 범의 꼬리가 되게 만든 것이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시체를 찾기 위해,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예방하기 위해 범굿을 하였다. 그래서 호환을 입은 일이 있은 마을의 별신굿에서는 반드시 범굿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에서도 범굿을 한다. 범굿은 동해안 일대에서 행해지는 별신굿의 일종이지만 별신굿과 다른 점은 호탈굿, 범굿으로 불리는 한 거리가 포함되어 있어 호랑이로부터 호환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곳의 범굿은 삼 년마다 한다. 제상에는 쇠머리와 간단한 제물을 올리고 쇠머리 양쪽에 식칼 두 개를 꽂는다. 그 밑에는 소나무 가지를 쌓아 호랑이가 드나드는 산중(山中)을 만든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마을 사람이나 가축을 해쳤기 때문에 소를 잡아 굿을 한 뒤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먹고 가라고 쇠머리를 뒷산 중턱에 묻었다. 이 때문에 범굿 또는 호탈굿으로 불려 왔으며, 구 영일군 일대 몇 마을에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사리범굿**(하효길 · 황효창, 열화당, 1989), **민간신앙 속의 호랑이**(김태곤,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십이지신 호랑이**(김강산, 생각의 나무, 2009),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조선땅 마을지킴이**(주강현 · 장정룡, 열화당, 1993),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호식장**(김강산, 태백문화원, 1988).

필자 **천진기(千鎭基)**

창호지(窓戶紙)

정의 주로 문을 바르는 데 쓰는 빛깔이 조금 누르스름하고 줄진 결이 있는 한지. 소지 명부를 작성하거나 금줄, 서발심지, 신장대, 고깔, 깃발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내용 문종이, 문창, 문창지, 문창호지로도 불리는 창호지는 길지보다 두껍다. 미륵의 목에 감아 주고, 산신당에 서너발 길이로 천신기를 만들며, 입춘날 입춘대길(立春大吉)이란 글을 써 붙이는 데 사용했다. 서낭당 수목에 포편(베 조각), 지편(창호지 조각), 오색백편(오색비단 조각), 의편(저고리 동정), 모발, 전화(돈과 재물), 짚세기 등을 걸어둔다. 이 가운데 창호지는 행운과 초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창호지에는 대개 기원 당사자의 생년월시, 성명, 주소, 소망을 기재한다. 또한 잡귀가 들지 못하도록 왼손새끼에 창호지를 잘라 끼워 금줄을 만든다. 송석하의 화간(禾竿)조에 보면 볏가릿대 위에 "백지(白紙)를 길게 좁게 비여서 그것을 한쪽만 잔칼질을 하여서 찬찬히 감아둔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금산의 탑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이인화, 민속원, 2006),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부여지역의 민속신앙**(이필영, 역사민속학 6, 역사민속학회, 1997), **안섬풍어제**(이인화, 도서출판신화, 2003), **정선지역 동제의 특징**(권혁준,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조선땅 마을지킴이**(주강현 · 장정룡, 열화당, 1993), **춘천의 동제연구**(김의숙,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충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태백시의 동제와 성신앙**(김기설,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필자 **이인화(李仁和)**

천군(天君)

상호참조 소도(497쪽)

정의 삼한(三韓)시대에 천신(天神)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보던 제사장(祭司長).

내용 제정(祭政)이 분리되어 있던 삼한시대에는 정치적 통치자인 주수(主帥)와 제사를 주관하는 전문적 사제인 천군(天君)이 있었다. 각 지역 집단에서 천군이라는 사제자를 선택하여 천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재하게 하였으며, 천군은 귀족이 지배하는 지역 사회의 대표자이지만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유동적인 제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천군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三國志)』, 『후한서(後漢書)』, 『진서(晉書)』 등에 보인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에 "귀신을 몹시 섬기기 때문에 고을마다 한 사람을 뽑아 세워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장하게 한다. 이 사람을 천군이라 부른다"고 하였고, 『후한서(後漢書)』「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에도 "여러 나라의 고을에서는 각각 한 사람이 천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장하게 한다. 이 사람을 천군이라 하고 또 소도(蘇塗)를 세운다.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고 하였다. 『진서(晉書)』「사이전(四夷傳)」 마한조(馬韓條)에는 "나라마다 각각 한 사람을 세워 천신에게 제사를 올리게 하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 한다"고 하였다.

삼한에서의 제천의례는 귀족의 지배 영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러 나라에는 각각 따로 읍이 있는데 이것을 소도라고 하였다. 이 소도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삼국지』에는 "사방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 돌아가지 않는다. …… 그들이 소도를 세운 뜻은 마치 불가에서 절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후한서』에는 "언제나 5월이 되어 밭갈이가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밤낮으로 술 마시고 놀면서 여럿이 모여 춤추고 노래하는데 한 사람이 춤을 추면 수십 명이 따라 춤을 춘다. 10월이 되어 농사일이 다 끝나면 또다시 이와 같이 논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가무오락을 즐기기 전에 먼저 천군이 농경 제천의례를 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귀족에 의해 행해지던 각 지역의 제의에는 예부터 부족의 독자적인 가무와 악기의 연주가 있었다. 이러한 각 부족의 음악은 저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서 부족 전통의 상징이 되어 왔다. 5월과 10월에 귀신에게 제사지낸다고 하면서 천신이라 표현하지 않고 귀신이라 표기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귀신은 천신을 비롯한 많은 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된다.

각 국은 사회적으로 귀족 연합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집권체제로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지역신을 흡수하여 제사의 체계를 일원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치구조의 변화는 이전까지 귀족이 지배하던 영역 중심의 공동체신앙 일부가 중앙집권체제 형식으로 변화되었으며, 일부는 귀족의 지배 영역에서 정착하게 되어 지역공동체 신앙으로 변화하였음을 암시한다. 이후 각 제의는 왕 중심의 천신제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귀족 단위의 제의는 음사(陰祀)의 범주에 속하게 되고, 이것이 민간 중심의 집단신앙 형태로 분화 발전하게 된다. 민간 중심의 집단신앙은 음사에 포함됨으로서 더 이상 지배체제의 이념이 될 수 없고 하층민의 신앙으로 전락하여 중앙권력에서 분리된 지역공동체 신앙으로 정착하게 된다.

참고문헌 **三國志, 晉書, 後漢書, 한국공동체신앙의 역사**(이기태,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창솔, 2004), **한국 민속의 세계 9**(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보성문화사, 1982), **한국사강좌 1-고대**(이기백, 일조각, 1982), **한국의 풍속사 1**(김용덕, 밀알, 1994).

필자 **김용덕(金容德)**

천상제(川上祭)

정의 신라와 고려시대에 홍수나 가뭄이 있을 때 하천 상류에서 백신(百神)에게 지낸 제사.

역사 천상제는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잡지(雜志)」 제사조에 따르면 신라는 건수(犬首), 문열림(文熱林), 청연(靑淵), 박수(樸樹)의 네 군데 제장(祭場)에서 천상제를 거행하였다. 이사천상제(四川上祭)는 별제(別祭)로 장마나 가뭄으로 인하여 거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선덕왕(宣德王)이 후사가 없이 죽자 김경신(원성왕)은 김주원과 왕위를 다투게 되었는데, 북천신(北川神)에게 제사한 후 물이 넘쳐 흘러 김주원이 알천을 건너오지 못하여 그 덕분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라의 천상제는 고려의 천상제로 이어졌다. 고려는 개경 송악산 계곡에서 천상제를 거행했다.

내용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가뭄과 장마는 가장 큰 재앙이었다. 이에 따라 기우제와 기청제는 중요한 국가의례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신라는 기청과 기우를 위해 천상제를 거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가뭄과 장마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도량을 개설하여 불경을 강독하기도 하고, 도교의 초례(醮禮)를 통해 기우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악진해독(嶽津海瀆)에게 빌기도 하였고, 토룡(土龍)을 만들거나 용(龍)을 그려 여기에 빌었다. 기우제의 제장은 태묘·사직을 비롯해 사찰과 악진해독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송악산·동신당(東神堂)·박연(朴淵) 등도 중요한 기우제 장소였다. 이들 제장 외에 특별히 천상제라 하여 송악산 계곡에서 제사를 지냈다.

고려의 천상제는 홍수와 가뭄에 대해 기청과 기우를 위한 제사, 기설제로 거행되었다. 1035년(정종 원년) 5월에 천상(川上)에서 기청제를 지냈다. 이에 대해 『고려사(高麗史)』에서는, "늘 홍수와 가뭄에는 백신을 송악산 계곡에서 제사하는데 이를 천상제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1051년(문종 5) 12월에는 "대설의 절후에 눈이 1척에 차지 못하므로 유사로 하여금 택일하여 천상(川上)에서 눈을 빌게 하라"고 하여 천상제가 기설제로 거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천상제는 기우, 기청, 기설을 위해 송악산 계곡에서 행해지는 국가제사였다.

의의 고려의 천상제는 신라의 천상제를 계승한 것이었다. 신라는 견수, 문열림, 청연, 박수의 네 군데 제장에서 천상제를 거행하였고 고려는 이를 수용하여 송악산 계곡에서 천상제를 거행하였다. 고려는 신라의 국가제사를 수용하였지만 제장(祭場)은 고려의 것으로 재편하여 개경의 진산인 송악산에서 천상제를 거행한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천상제가 거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고려시대의 산천제**(김철웅, 한국중세사연구 11, 한국중세사학회, 2001), **한국 중세의 길례와 잡사**(김철웅, 경인문화사, 2007).

필자 **김철웅(金澈雄)**

천왕메기

정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일대 주민들이 동제당인 천왕당에서 옛날부터 신(神)으로 받들어 온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에게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해 오는 지신풀이. 1989년 6월 15일에 '천왕메기'라는 명칭으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기천왕'은 현재의 북비산 로터리 위쪽, 말천왕은 비산3동 삼성예식장 위치에 각각 있던 고목이었다. 중천왕은 비산1동 1번지 자리에 있는 고목이다. 이곳 비산1동에는 천왕목(天王木)을 비롯해 사당과 조산(造山)이 있었다. 사당 안의 벽에는 천왕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사당과 조산은 1960년대 이후 대구광역시의 도시개발 과정에 철거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구전에 따르면 약 400년 전인 1600년쯤 대구 지역에서 계속된 가뭄과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 마을 주민들이 중천왕 자리에 흙으로 당집을 짓고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그 후 주민들은 당집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돌을 하나씩 던졌다. 그 돌이 쌓여 조산이 되었고, 주민들은 여기에 돌을 던지는 것을 천왕에 대한 치성으로 생각하였다. 해마다 정월에 천왕제를 지냈지만 치성이 부족하면 또다시 가뭄이 들거나 질병에 시달렸다고 한다.

천왕메기는 '비산풍물굿'의 한 과정이었으나 1989년 6월에 '천왕메기'라는 이름으로, '비산풍물굿'은 북놀이인 '날뫼북춤'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내용 보통의 지신밟기가 가가호호에서 이루어지는데

천왕메기는 마을굿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천왕메기는 현재 질굿-문굿-대내림(천왕제)-고사 독축-천왕메기(지신풀이)-천왕굿-천왕놀이-질굿(마을굿)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질굿 · 대내림 · 천왕굿 · 천왕놀이는 농악, 문굿 · 천왕메기는 지신풀이, 고사 독축은 유교식 제의이다. 현재 천왕메기의 연행자는 약 50명이다. 이들은 축관, 징, 북, 장구, 기수, 소고, 대감, 각시, 포수, 대잡이, 태평소 등을 담당하고 있다.

천왕메기의 연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질굿 마을 풍물패가 서낭굿을 모시는 천왕당 문 앞까지 이동하면서 치는 굿이다. 이동하는 과정인 동시에 서낭굿 시작을 알린다.

2. 문굿 천왕당 문 앞에 도착하면 짧게 흥을 돋운 뒤 문굿 사설로 모든 부정한 액과 살을 물리치고 한 해의 만복을 기원한다.

3. 대내림 천왕문 앞에서 이동하여 천왕당에 도착하면 대내림을 비는 천왕굿을 치면서 신이 내려 제관과 독축관을 선정할 때까지 계속한다.

4. 천왕제 대내림 마지막에 당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꿇어앉으면 제관이 의례를 행한다. 독축관이 축을 읽고 마지막 '상향(尙饗)' 소리에 맞추어 천왕메기굿을 시작한다.

5. 천왕메기굿 장단에 맞추어 산과 물과 나무 등 여러 신에게 예를 갖춰서 천왕에게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이다.

6. 천왕메기 지신풀이 마을의 모든 질병과 액을 쫓는 다양한 사설을 읊으면서 축원한다. 다음은 천왕메기 지신풀이의 사설이다.

남산은 봉이요 주산은 당산이라
안강은 강이요 여산은 도읍이라
천간이 착하시니 하늘이 생기시고
지복이 착하시니 땅이 생기셨네
인호술상하니 사람이 생기셨네
그때 그 시절에 동방문이 열리시고
그때 그 시절에 서방문도 열리셨네
남방문도 열리시고 북방문도 열리셨네
오구제석 천왕문이 사방으로 열리셨네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라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임진강이 둘러있고
강원도라 금강산은 해금강이 둘러있고
경기도라 삼각산은 한강수가 둘러있네
충청도라 계룡산은 공주금강 둘러있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네
전라도라 지리산은 용림수가 둘러있네
제주도라 한라산은 사면바다 둘러있네
맥이맥이 성황님네 봉봉이 성황님네
앞도당산 천왕님네 뒷도당산 천왕님네
골골마다 천왕님네 자리 잡던 천왕님네
이승한생 고해 중에 지극성심 이 중생은
오늘날 이 자리에 맑은 정신 가다듬어
대자대비 신통자재 거룩하신 천왕님께
한 많은 모든 포부 애원발원 하나이다
해와 달이 천만산을 차별 없이 비추지만
그중에서 높은 산을 제일먼저 비추듯이
천왕님의 신력으로 중생차별 없아오니
지극정성 급한 중생 제일먼저 구원하사
천만소원 성취시켜 안락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어두움이 그믐밤과 같사오니
천왕님의 은덕으로 일월같이 비추소서
어느때나 밝고밝아 무명어둠 없게 하고
이 마음에 쌓인 죄가 엄동설한 눈같으니
봄바람 부슬비로 부드럽게 녹여지고
화화초초 선명하듯 화창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왕님전 비나이다
이 고을 많은 인생 소원성취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왕님전 비나이다
이 고을 많은인생 가뭄에서 벗어나고
모진질병 들어올 때 천왕님이 막아주소
천만가지 성취시켜 안락하게 하옵소서

7. 천왕굿 지신풀이가 끝나면 천왕당 앞에서 또 흥겨운 굿판이 벌어진다. 천왕당 앞에서 행하는 굿이라 하여 천왕굿이라고 한다.

8. 천왕놀이 지신풀이와 천왕굿이 끝나면 천왕당을 돌아 기천왕과 말천왕 앞에서 한판 굿을 한다.

9. 판굿 삼천왕에 대한 굿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의 놀이인 판굿으로 이어진다. 이때는 풍물패의 놀이 순서에 따라 정적궁이-반직굿-엎어빼기-다드래기-강강술래-허허굿-오방진-모둠굿-살풀이-개인놀이-덧뵈기로 진행된다.

참고문헌 날뫼문화(대구서구문화원, 2005), 문화재청(cha.go.kr).

필자 이균옥(李均玉)

철마(鐵馬)

정의 철로 만든 말의 형상으로 마을 제당에 모셔지는 신격.

내용 철마(쇠말)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사례가 조사 · 보고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쇠말 또는 쇠물로 불리기도 한다. 대다수의 철마는 길이 5~10㎝ 크기의 주물로 모형 말을 간략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말은 큰 몸통에 비해 다리가 짧게 표현되고 다리 일부가 없거나 무릎 아래가 잘려 나간 모습으로도 발견된다. 대부분이 철마이지만 간혹 흙으로 구워 만든 토마(土馬)와 돌로 만든 석마(石馬)를 모시기도 한다.

철마
1988, 국립민속박물관

철마의 신격은 모셔지는 마을과 당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마을신앙에서 주가 되는 신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마을신이 타고 다니는 동물신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마을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기도 한다.

철마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철마는 호환(虎患)을 퇴치하기 위해 말의 형상으로 철마를 만들어서 마을 수호신으로 삼거나, 솥점이나 옹기점이 있는 마을에서 작업의 성공을 위해 철마를 제당에 제물로 바쳐 봉안했다고 한다.

지역사례 경북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는 쇠가 많이 나는 골짜기여서 소일, 쇠일로 불렸다. 마을에서 모시는 당은 '고마실 서낭당'이라 부르며, 당집 안의 벽감실 속에 주된 신인 서낭님을 모시고 있다. 서낭의 신체는 한지를 접은 형태이며, 서낭 아래에 무쇠로 만든 말인 철마(수배) 두 마리를 봉안하고 있다. 철마는 길이 22㎝, 높이 9.5㎝의 암수 한 쌍이다. 암말은 몸통을 붉은색 천으로, 수말은 푸른색 천으로 감싸놓았다. 이 암수 한 쌍의 철마를 모시게 된 유래담도 전해진다.

임진왜란 때 한 장수가 말을 타고 금곡리 고마실에 와서 상처를 치료하다가 죽자 말이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부짖으면서 마을 주위를 맴돌았다. 얼마 뒤 왜군이 이 말을 잡아서 타려고 하자 말은 왜군 장수를 태우지 않고 바위에 머리를 받아 죽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 마을 주민들은 의로운 말의 죽음을 가상히 여겨 외로움을 달래 주기 위해 당집을 짓고 고사를 지냈다. 이로 인해 마을 이름도 고마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고마실의 당고사에도 철마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 고마실의 당고사는 정월대보름날 자정에 지낸다. 열나흗날 밤 11시에 제관은 부인과 함께 제물을 지게에 지고 당으로 올라간다. 진설이 끝나면 고축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신인 서낭님소지가 첫 번째로 올라가고 서낭님을 모시는 수배님(철마)의 소지가 두 번째로 올라간다. 이후 제관과 마을 사람들의 소지가 올라가고, 가축(우마)의 무병성장을 기원하는 소지를 마지막으로 올린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자동 고리현마을에는 철마(쇠물)가 당집에 봉안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쇠와 관련된 일을 한 이 마을에서 일이 잘되게 해 달라고 마을신에게 철마를 제물로 바쳤다고 전한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2리에서는 2월 초에 고창제를 지낸다. 마을에는 당이 세 개 있으며, 그 가운데 첨당에 쇠로 만든 철마가 수십 개 봉안되어 있다. 지난날 마을에 솥점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솥점을 번창하게 해 달라고 철마를 만들어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첨당에 모시는 철마의 다리는 대부분 세 개이다. 마을 사람들은 철마가 마을을 괴롭히는 호랑이와 싸워 마을을 지켜 줬고, 그때 다리 하나를 잃었다고 말한다.

전남 완도군 생일면 서성리 서성마을의 정성당에도 철마(쇠말)가 모셔져 있다. 정월 초아흐렛날 새벽에 당제를 지내는 정성당에는 쇠말 10여 개 가운데 다섯 개가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이 밖에 철마를 모신 흔적이 이야기로 남아 있는 지역도 있다.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신금마을에는 백마의 상을 조각해 모시게 된 당신화가 전한다. 나로도의 신금리에는 1700년경에 명씨가 마을을 열었다. 당시 밤마다 마을 뒷산 호암산에서 백마가 마을 안으로 뛰어내리는 일이 생겼다. 마을 주민들은 백마가 나타나는 것을 마신(馬神)을 모시라는 계시로 알고 백마의 상을 조각해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전남 진도군 진도읍 북산 철마산에는 1900년까지 큰 개 크기의 철마가 있었고, 산 정상에 보관한 철마를 도둑이 쇠를 녹여 쓰기 위해 훔쳐갔다가 동토(凍土)가 난 이야기가 전해진다.

철마의 재질이 백자나 돌인 예도 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당에는 당신할머니와 할머니를 모시는 '마부'가 모셔져 있다. 마을 주민의 현몽으로 갯가에서 항아리 속에 든 말을 발견하고 연도 당으로 모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마부'는 백자로 구운 말의 형상이며 다리가 부러진 세 마리의 말과 한 마리의 완형 말이 있다.

경남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에는 두 마리의 석마가 느티나무 밑에 놓여 있다. 석마리에는 석마를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게 된 이야기가 함께 전하고 있다. 과거 석마리에는 호환이 몸시 심해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돌로 말을 만들어 마을 어귀에 세우면 호랑이의 습격이 없어질 것이라고 조언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석마를 만들어 마을 어귀에 세우자 호환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 마을 수호신으로 석마를 모시게 되었다.

참고문헌 **남도문화연구**(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86),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민간신앙**(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 문화재관리국, 1969), **성덕2리**(정종수, 경기지방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9), **안동의 동제**(학술총서 1, 안동민속박물관, 1994), **우리문화의 상징세계**(김종대, 다른세상, 2001),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이세나(李세나)**

청단일

정의 마을제사를 지낼 제관을 뽑는 날.

내용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제사를 지낼 제관을 뽑는 날을 청단일이라고 칭한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동제를 지내며 정월 초사흗날에 이장과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제관을 뽑는다. '유고가 없고 깨끗한 사람' 가운데 도가 한 명과 제관 두 명을 선출한다. 원구1리 '뚜들'마을의 경우 정월 초사흗날이 되면 동제를 지낼 제관 세 명과 도가 한 명을 뽑는다. 이 마을 역시 제관을 선정하는 날을 청단일이라고 부른다.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1리에서는 정초에 '청단공회'를 열어 제관을 선출한다. 청단공회는 제관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로 개최하는 동회를 말한다. 예전에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어른들만 모여 도가(원제관) 한 명과 제관 세 명, 심부름꾼 두 명을 선정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제관 수를 줄였다. 지금은 초열흘날에 여자를 포함한 동민 전체가 참여하는 청단공회를 개최하여 도가 한 명과 제관 한 명, 심부름꾼 한 명을 선출한다. 창수면 인량2리 역시 정월 초사흗날 열리는 제관 선출 회의를 '청단공회'라 부른다. 이 밖에 창수면 오촌1리에서는 정월 초사흗날 '청단공론'을 해서 동제를 지낼 도가와 삼헌관을 뽑는다.

이 회의에는 마을의 어른들과 제관을 맡을 만큼 깨끗한 사람 십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북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 어사마을에서는 동제 제관 선출회의를 '청단회의'라 부른다. 주민들에 따르면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 깨끗한 사람을 뽑는 회의"이기 때문에 청단(靑團)회의라고 부른다. 이 마을은 정월대보름날에 동제를 지내며 정월 열이튿날에 청단회의를 열어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엄선해 제관으로 선출한다.

참고문헌 **용과 여성, 달의 축제**(한양명, 민속원, 2006).

필자 **한양명(韓陽明)**

청도비동당제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비동마을의 당제. 금곡리는 청도지역에서 비교적 크고 부유했으며 천왕기의 세력도 가장 강했다고 알려진 마을이었으나 사회 변동 속에서 당제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역사 금곡리는 '쇳골'이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金谷'이라고 한 것이다. 200가구가 넘는 큰 마을인 때에는 마을에 일꾼이 6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하지만 100가구 정도뿐인 지금에는 평택 임씨(平澤 林氏)들이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마을에는 밀양 변씨(密陽 卞氏)가 처음 들어오고 그다음에 김해 김씨(金海 金氏), 평택 임씨 순으로 입향하였다. 평택 임씨는 1600년대 말에 대구에서 입향했다. 당시 마을 어귀에 심은 느티나무 숲은 일제가 강점기 때 총기 제작을 이유로 베어간 뒤 그 일부만 현재 남아 있다. '쑤'라고 하는 이 숲은 느티나무와 팽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숲은 냇물이 직접 흘러 나가지 않고 마을을 돌아서 나가도록 보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 풍수지리적으로 물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마을의 복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마을의 동산(洞山)은 200ha가 훨씬 넘은 때도 있었지만 현재 160ha뿐이다. 이처럼 동산이 많은 것은 동재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활과 농업에 필요한 나무와 풀을 충분히 얻기 위함이었다. 신미년(1931) 음력 이월 스무날 마을에 큰 불이 나 여섯 집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탄 일이 있었다. 그때부터 초가이던 마을의 집들은 모두 기와와 슬레이트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이 마을에 초군(樵軍)이 있었다. 초군은 마을에서 머슴이나 소작을 하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다. 초군은 농민조직으로서 좌상을 필두로 숫총각들이 조직 구성원이었다. 이들이 천왕기(천왕대)를 들고 풍각면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 행사에 참가했다. 이 조직은 5·16쿠데타(1961)가 일어난 시기에도 존속했지만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에는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이기태

서낭당 내부

서낭당 외관

이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의 작은 돌다리에는 임경업 장군(1594~1646)과 관련한 전설이 있다. "임경업 장군이 그 넓적한 돌을 어깨에 메고 작은 돌은 옆구리에 끼고 가져와서 이곳에 걸쳐 놓은 것이 이 다리이다. 그러나 이 다리의 돌은 1931년 마을에 불이 났을 때 반으로 갈라졌다."

내용 **1. 제당과 대상 신** 제당을 당산 또는 서낭당이라고 한다. 당산에 있는 제당의 형태는 골기와로 잘 지어진 당집이다. 당산에 모시는 신은 '서낭 할배'라고 부른다. 당집에는 현판이 있었으나 지금은 찾을 수 없으며, 상량에는 '崇禎紀元後四戊辰癸亥八月十一日巳時堅主上樑 課癸亥辛酉乙亥辛巳'라고 적혀 있어서 1868년(고종 5)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집은 기와지붕과 나무로 된 한 칸짜리 목조건물이다. 규모는 정면 220㎝와 측면 190㎝, 지붕은 정면 274㎝와 측면 370㎝, 처마까지의 높이는 310㎝이다. 당집에는 한 짝의 여닫이문이 있고, 당집 안에는 제상과 향로대가 있다. 내부의 뒤쪽에는 세로로 작은 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한지를 매년 감아두어서 두툼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한지가 말아져 있는 이 속에는 천왕기가 있다. 예전에는 천왕기를 매년 사용한 다음에 감아 놓았다고 한다. 당집의 양 측면과 뒷면은 기와와 돌로 담이 쳐져 있다. 당집 앞쪽은 낮고 넓게 3단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

천왕기는 직사각형이고, 밑에는 꼬리가 달려 있다. 천왕기의 바깥 부분은 남색, 안쪽은 홍색이다. 꼬리는 흰색이면서 3개가 있다. 천왕기가 달려 있는 천왕대는 예전에 정월대보름날 풍각면에서 풍물을 치며 행사할 때 마을에서 앞세워 들고 나온 천왕대 가운데 하나이다. 이 대보름 행사에는 씨름이나 줄다리기 등을 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당집을 짓기 전에는 그곳에 있는 당나무 옆에 서낭으로 여겨지던 돌이 세워져 있었다. 이 돌은 당집 바로 옆 담에 세워져 있다. 이 돌은 넓적하고 둥글며, 긴 쪽의 길이가 70㎝ 정도이다.

금곡리 비동 당산의 서낭은 경남 창녕군 성산면 연당리의 서낭과 내외지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왕래하지 않고 있다. 금곡리의 서낭이 외서낭이고, 창녕군 성산면 연당리의 서낭은 내서낭이며 '연하(軟河)각시'라고 한다. 외서낭과 내서낭은 서로 사이가 좋아서 한 번 천왕대가 붙으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광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만났을 때 천왕대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 하여 힘으로 떼어내려다 천왕대가 부러진 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신(神)의 힘이 무척 세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뒤로 서로 왕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제를 통하여 분동(分洞)과 같은 마을 간의 상호 연계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금곡리에는 원래 지금의 서낭당을 제외하고 '앞당'이라는 또 다른 제당이 있다. '앞당'은 마을 바로 옆으로 흐르는 냇가에 자리 잡고 있다. 당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종은 소나무이다. 예전에는 다섯 그루였으나 지금은 세 그루이다. 이 '앞당'의 제의에는 메도 없고 축문도 매우 짧을 정도로 간단하다.

2. 제의 절차 이 마을의 제의는 '당제'라고 부르며, 마을에 질병이 없고 농사가 풍년 들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제는 생기복덕을 맞추어 제관을 뽑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1993년부터 반별(班別)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맡아 지내고 있다. 금곡리는 8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제는 음력 정월 열사흗날 자정에 행한다. 당제의 축문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축관이 축문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축문을 펴 놓고 매구를 치면서 빌기만 할 뿐이다.

제관은 선출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지 닷새 전에 마을회의에서 선출된다. 제관은 헌관 한 명, 축관 한 명, 조비(助裨) 세 명이다. 이들은 20~60세 남자 가운데 선출된다. 헌관과 축관은 모든 가족의 생기복덕에 맞추어 엄격하게 선정한다. 그러나 허드렛일을 돕기 위한 보조원인 조비는 생기복덕과 무관하며, 젊은 사람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제물은 '원집'이라고 불리는 집에서 금기를 엄수하며 장만한다. 과거에는 동네 토지를 주어서 경작하게 하고, 그 수확물은 당제를 지내는 데에만 사용하게 하였다. 당시에는 봉토로 한 마지기를 주었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봉토를 주었다. 그러나 주민이 주는 등 사회 변동과 함께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원집'을 서로 맡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 모두의 생기복덕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자 점차 혼자 사는 사람을 '원집'으로 뽑게 되었다. 1998년에는 마을에 1,750㎡ 정도의 동답(洞畓)이 있지만 경작할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제물은 1일과 6일에 장시가 열리는 풍각 장터를 이용한다. 희생은 소를 사용하였다가 1950년대 중반에 돼지로 바꾸었다고 한다. 돼지는 조비들이 마을 경비로 구입하고, 수퇘지만을 삶아서 제상에 올린다. 소를 제물로 사용할 때에는 풍각면의 소 잡는 사람을 불러 마을 위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조용하고 깨끗한 냇가에서 소를 잡았다. 1920년대 말에는 당제에 사용한 쇠고기의 다른 부위를 마을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한 냥의 당제 부조금을 내고 받아 간 적도 있다고 한다. 즉 당시에는 주민들이 가구당 한 냥의 돈을 추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조비들이 마을 경비로 수퇘지를 장만하여 삶아서 제상에 올린다. 쇠고기는 생머리, 삶은 살코기, 간을 올렸다. 쇠머리는 원집이 '천제(天祭)'를 올리는 제장에 묻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돼지머리는 그곳에 묻지 않는다. 이 밖의 제물로는 해삼, 백쩜, 탕, 나물, 메 등이 있다.

천제는 음력 정월 열이튿날 밤 11시 30분~12시 사이에 행하며, 원집 내외만 참여한다. 천제는 당제당과 다른 산에 위치한다.

제관들은 당제를 지내기 바로 전에 산신제를 행한다. 절차는 유교식 묘사(墓祀)의 산신제와 유사하다. 금곡리의 산신제에는 술을 세 번 올리며, 술을 한 번 올릴 때마다 독축을 세 번 한다. 결과적으로 세 번 술을 올리고 아홉 번 독축을 하는 것이다. 제물은 떡이 없고 메, 술, 삼탕, 돼지고기 등이 사용된다.

당제는 원집이 지내는 천제와 제관들이 지내는 산신제가 끝난 뒤에 행한다. 즉 산신제를 지내고 제물을 가지고 원집으로 오면 다시 당제에 쓸 제물을 준비해 서낭당으로 이동하여 제의를 행한다. 당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마을에서 낮에는 대동음복을 행한다. 이때 당제에 대한 결산보고 등을 한다.

참고문헌 산간신앙 2(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필자 이기태(李淇泰)

청양정산동화제(靑陽定山洞火祭)

정의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에서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동화대에 불을 놓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 거대한 화목(火木)을 불사르는 행위로 마을에 깃든 액운과 재앙을 소멸한다는 상징성을 띠는 동화는 '동네불'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달집태우기와는 구분된다. 정산동화제는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았으며, 1989년 12월 29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1991년에 건립된 유래비에는 동화제가 400여 년 전부터 청양군 칠갑산을 중심으로 몇몇 마을에서 전승되어 왔으나 지금은 유일하게 송학리에서만 전래된다고 기록되었다. 그 시원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화전(火戰)의 일종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구전에서도 임진왜란 때 봉홧불을 놓은 것이 동화제의 유래가 되었다는 속설이 전한다. 즉 당시 이율곡은 천리를 내다볼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쟁을 예견하고 왜적에 대항할 의병을 모집하였다. 그때 송학리는 의병 소집에 응할 여력이 없어 외송마을 어귀에 오방신장(五方神將)인 장승을 건립하여 왜병을 물리쳐 달라고 기원했다고 한다. 전쟁이 발발하자 마을 사람들이 합심으로 동화대를 세우고 불을 놓아 왜군이 침범하지 않기를 비는 천제를 지냈으며, 이것이 동화제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지금도 동화제는 곧 하늘에 소지(燒紙)를 올리는 상징적인 의례로 인식되고 있다.

동화제의 전통은 일제강점기 때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에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부여 지방에서 정월 열나흗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집집마다 땔나무 한 묶음을 내어 나뭇단을 크게 묶고 커다란 횃불을 만들어 동구 밖에 세웠다가 밤에 불을 붙인다. 불이 타오르는 광경을 보며 각자의 복을 기원하면서 논다"라고 했다. 이로써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염원하는 동화제의 전통이 널리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충남지방의 동화제는 칠갑산을 끼고 있는 청양군 정산면과 부여군 외산면·내산면 등의 산간마을에 집중적으로 분포

한다. 따라서 『조선의 향토오락』에 소개된 동화는 송학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산동화제는 예부터 송학리에 속한 하송 · 상송 · 비봉 세 마을이 결성한 대동계에서 주관하여 왔다. 그리하여 2002년에 개편된 대동회의 규약에는 '문화재 보존' 조항을 신설하여 "본회에서는 고전문화인 동화제 보존관리를 대동회에서 주관하여 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행사로 추진한다"(제1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대동회 예하의 부인회는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제수품의 준비와 행사 당일의 음식 준비를 도맡아 한다.

내용 마을에서는 정산동화제 일주일 전쯤 마을회의를 열어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닿는 정결한 사람으로 제관 · 축관을 선출하고 비용을 결정한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펴서 외부인의 접근을 일절 금하고, 집에서 두문불출한 채 매일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며 정성을 기울인다. 특히 피부정을 엄하게 여겨 달거리를 가리고,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다. 그러나 동화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제관의 금기는 흐지부지되어 옛말이 되었다. 지금은 단지 행사 당일에 회의를 열어 삼헌관, 축관, 집사 두 명으로 모두 여섯 명을 정한다. 2010년에 거행된 동화제를 중심으로 준비 과정과 주요 연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주 담그기 동화제가 임박하면 닷새 전에 제주를 빚는다. 이를 위해 미리 여름에 밀을 갈아서 술약을 넣고 누룩을 띄워 둔다. 시장에서 구입하는 누룩은 싱겁기 때문에 지금도 송학리에서는 손수 만든 누룩으로 제주를 담근다. 제주를 빚는 절차는 먼저 술밥을 찐다. 시루에 술쌀을 넣고 솔잎으로 덮은 뒤 가마솥에 얹어서 30분 가량 불을 지피면 김이 피어오른다. 잠시 후 밥이 다 되면 돗자리를 펼쳐 놓고 술밥과 솔잎을 골고루 섞는다. 여기에 누룩을 붓고 버무린 다음 술독에 안치하고 뚜껑을 덮는다. 다 익은 술은 동화제를 올리기 직전에 용수(싸리나무나 대오리로 만든 둥글고 긴 통)로 거른다.

2. 시장 보기 동화제의 비용은 충청남도와 청양군에서 받는 지원금과 대동계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수품의 구입은 정산 장에서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제관으로 선정되는 사람이 맡았지만 현재는 부녀회장과 총무가 필요한 물목을 기록해 놓았다가 이틀 전에 시장에서 구입한다. 다만 나물이나 과일 등은 가능한 한 마을의 농가에서 재배한 생산물로 주문한다. 하루 전날에는 이장과 반장이 통돼지를 구입한다.

3. 장승 · 솟대 제작 대동계장과 이장은 정월 열사흗날 오후에 몇몇 주민과 함께 산으로 가서 장승목과 솟대목을 베어 온다. 재목은 곧게 뻗은 소나무이다. 이와 함께 동구 밖에 금줄을 칠 가느다란 소나무 두 그루도 베어 온다. 그리고 당일 아침부터 상송마을 밖에서 낫, 끌, 톱, 자귀 등을 이용해 장승 한 쌍과 솟대(오릿대)를 만든다. 장승은 속칭 '오방신장'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장승의 명문도 남장승에는 '동남방청제축귀대장군(東南方靑帝逐鬼大將軍)', 여장승에는 '서북방백제축귀대장군(西北方白帝逐鬼大將軍)'이라고 각각 묵서한다. 솟대는 기역(ㄱ) 자로 꺾인 옹이가 박힌 소나무를 다듬어 오리 형태를 갖추고, 여기에 장대를 연결하여 장승 곁에 세운다.

4. 동화대 만들기 동화대의 제작에 필요한 땔나무는 집집마다 한 짐을 갹출하여 충당한다. 마을에서는 동화대의 규모가 클수록 액운을 막는 주술적인 힘도 커진다고 믿는다. 또한 땔나무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해 운수가 좋다는 속설에 따라 예전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나무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다. 동화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목은 주로 싸리나무였다. 그러나 싸리나무가 귀해진 뒤로 잡목이나 가시나무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동화대에 대나무를 많이 섞는다. 이는 불에 탈 때 폭죽이 터지는 소리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정월 열나흗날 오후 땔나무가 준비되면 마을 앞 광장에서 동화대를 묶을 동아줄을 엮는다. 서너 명이 한 조가 되어 새끼를 꼬고 짚을 먹이며, 또 한 사람은 이를 엮어서 줄을 만든다. 그리고 세 가닥의 새끼줄을 하나로 합쳐 다시 꼬면 굵직한 동아줄이 완성된다.

동화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아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에 깔고 그 가운데에 10m쯤 되는 길쭉한 지주목을 눕힌다. 이 지주목을 일명 '고줏대[高柱臺]'라 한다. 그런 다음 밑에서부터 땔나무를 차곡차곡 쌓고 동아줄로 단단히 묶는다. 이때 동화대를 묶는 줄은 반드시 홀수로 하되 다섯 줄이나 일곱 줄로 엮는 것이 보통이다. 완성된 동화대를 세우는 일은 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마을 청장년이 모두 동원되어 한쪽에서 줄로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손으로 밀어올렸다. 조금씩 공간이 생기면 지주목으로 동화대를 받치면서 서서히 일으켰다. 그러나 근래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 굴착기에 밧줄을 걸고 들어올려 손쉽게 일으켜 세운다. 이윽고 동화대가 하늘을 향해 곧추서면 쓰러지지 않도록 사방을 지주목으로 받치고, 동화대의 꼭대기에 미리 묶어 둔 세 가닥의 줄을 늘어뜨려 농기를 세우듯이 팽팽하게 지면에 고정시킨다. 이때 풍물패는 동화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한바탕 흥겹게 풍장을 친 다음 절을 한다.

5. 정주나무제 동화제를 지낼 시간이 임박하면 제관은 닷새 전에 담근 술을 용수로 걸러서 술동이에 담는다. 이를 '제주 봉한다'고 한다. 같은 시간에 마을회관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전성시를 이루고, 한창 신명이 오른 풍물패의 쇳소리는 더욱 호흡이 가빠진다. 동화제의 행렬이 출발하면 몇몇 부녀자는 제물을 머리에 이고 정주나무로 향한다. 정주나무제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당시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지가 잘라지고 난 뒤 공교롭게도 멀쩡하던 주민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등 우환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한 할머니의 꿈에 정주나무신이 나타나 계시를 내렸고,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합동으로 제를 지내게 되었다. 정주나무제는 여성들이 주관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나무 밑에 시루떡, 두부탕, 불밝이쌀, 청수, 과자 등을 진설한 다음 향을 사르고 나무를 한 바퀴 돌아 부정을 물리친다. 이어서 술을 헌작한 뒤 정주나무에 사배를 하고, 나머지 세 방향에 각각 사배를 드린다. 소지는 정주나무 할아버지소지-대동소지-산신소지 순으로 석장을 올린 뒤 참석자의 개인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마치면 불밝이쌀과 술을 정주나무 주변에 뿌리는 것으로 잡귀를 풀어먹인다.

정주나무제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2010.2.27
강성복

6. 동화제 영기, 농기, 오방기 등 각종 깃발을 앞세우고 마을회관을 출발한 제의행렬은 경쾌한 길군악을 울리며 동화대가 서 있는 마을 앞으로 간다. 그 뒤를 제물 운반자와 제관, 마을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간다. 제장에 들어서면 동화대를 왼쪽으로 한 바퀴 돌고 제상을 차린다. 제물은 돼지머리, 백설기, 탕, 통북어 다섯 마리, 오색실과, 과자, 청수, 불백기(불밝이쌀), 술 등이다. 제상이 차려지면 달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동화대에 불을 지핀다. 이때 점화자는 대개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이나 장가를 들지 못한 노총각이다. 동화대에 점화를 하게 되면 운수가 대길하여 평소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점화 방식은 횃대를 들고 동화대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불을 지른다. 서서히 불길이 타오르면 상노인이 "정월 대보름날 청양 정산동화제 망월이여!" 하고 큰소리로 외친다. 이를 신호로 유교식 동화제가 진행된다. 제의는 초헌관이 초헌례로 향을 세 번 올리고 분향(焚香) 재배한 다음 축문낭독-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주민 일동 재배-음복례(飮福禮) 순으로 이루어진다.

동화제가 시작되면 보름달을 보러 나온 주민들에게 일일이 소지종이가 지급되고, 각자 동화대 앞에서 소지를 사르며 새해의 소망을 축원한다. 마을에서는 동화가 잘 타야 그해 액운이 없다고 믿으며, 도중에 꺼지거나 불길이 신통치 않으면 불상사가 있을 징조로 여긴다. 바야흐로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던 동화대는 잠시 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 이때 그 방향을 보고 길흉을 점친다. 즉 동구 바깥쪽으로 넘어지면 마을의 액운을 몰고 나가는 것이므로 재수가 좋고, 마을 안쪽으로 쓰러지면 재앙이 닥칠 조짐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동화대는 미리 방향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동구 바깥쪽으로 쓰러지도록 세운다.

청양정산동화제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새울마을, 2005.2.21, 황헌만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2010.2.27, 강성복

하송마을 장승, 솟대

장승 세우기

7. 장승제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장승제를 지낸다. 이를 노승제(路丞祭) 또는 장성제라고 한다. 동화제가 송학리 전 주민이 참여하는 대동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장승제는 상송마을 단독으로 치르는 조촐한 의례이다. 이에 따라 동화제와는 별도로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닿는 화주(化主)를 선정하여 제를 주관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마을의 14가구가 매년 삼짝(사립문) 돌림으로 화주를 맡는다. 제수 비용은 반계(班契)의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물은 백설기, 메, 포, 삼색실과, 불백기, 술 등이다. 장승의 신격이 오방신장이어서 탕 다섯 그릇, 포 다섯 마리, 잔 다섯 개를 진설한다. 시저(匙箸, 수저)도 다섯 벌 놓는다. 화주댁에서 백설기와 메가 다 되면 징을 쳐서 잠시 뒤에 장승제가 시작됨을 알린다. 이윽고 화주는 장승·솟대가 있는 동구 밖에 제상을 차리고 유교식 절차에 따라 장승제를 지낸다. 장승제를 마치면 화주는 마을의 평안을 축원하는 대동소지와 장승소지를 올리고 나서 화주, 축관, 이장, 계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소지를 차례로 올려준다.

지역사례 동화제는 충남 칠갑산을 중심으로 하는 청양군 정산면과 부여군 내산면·외산면·은산면에 집중되어 있고, 공주시 사곡면 일부 산간마을에서도 여기저기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 전승되는 동화제는 절차나 동화대를 만드는 방식, 속신 등이 송학리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벌말의 경우 노총각이나 아들이 없는 집에서 점화를 맡도록 하되 동화에 불을 지른 사람은 막걸리 한 말이나 얼마간의 돈이라도 내놓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서는 여느 마을과 달리 동화제를 지내고 나서 새벽에 불을 지른다. 이때 동화에 처음 불을 놓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달려갔다. 예전에 동화에 불을 놓고 아들을 얻은 집이 있었는데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동화'로 지었다는 일화가 구전되고 있다.

동화제는 경기도 광주시 무갑산 자락의 산간마을에도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기타 경기도 포천시 및 용인시 등에서도 전승 사례가 보고되었다. 광주지역의 경우 해동화 또는 동화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동화의 본디 뜻은 '동화로 액운을 풀어 없앤다' 또는 '마을의 재액을 풀어주는 불'이란 해동화(解洞火)이다. 이에 따라 동화대를 불사르는 목적은 충남지방의 동화제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단지 한 가지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무갑산 일대에서는 동화대의 꼭대기에 새해의 소망을 담은 축원문을 쓴 종이깃발을 만들어서 꽂는다는 사실이다. 이 깃발은 농기와 흡사한 모습으로 제작된다. 맨 위에 해와 달이 그려져 있으며, 액운을 파는 기란 의미에서 '액매기(厄賣旗)' 또는 복을 맞이하는 '영복기(迎福旗)' 등으로 불린다. 마을에 따라서는 화재막이 성격이 강하게 내포된 '화덕진군소멸(火德陳軍消滅)'이라고 묵서한 깃발을 꽂기도 한다.

동화제는 거대한 동화대를 불사르는 행위를 통해 마을의 모든 재액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례이다. 그 화목으로 싸리나무가 선택된 까닭은 화력이 좋아서 잘 꺼지지 않는 데다 불 기운이 맑고 깨끗하여 제액초복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화제는 '달집태우기'와 일정한 친연성이 있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면서도 한편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달집태우기에 내재된 이른바 '달을 그슬린다'는 관념이 동화제에는 전혀 깃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화목의 재료도 달집태우기는 연기를 피우기 위해 소나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달집'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달집과 동화대는 형태, 기능, 제작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송학리 대동회 규약**, **광주시사** 3(광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괴목정 노신제와 동화**(강성복, 부여문화원, 2003), **부여의 민간신앙**(이필영, 부여문화원, 2001), **용인의 마을의례**(한국역사민속학회 외,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0), **장벌리 탑제와 동화제**(강성복, 부여문화원, 2001), **조선의 향토오락**(村山智順, 박전열 역, 집문당, 1992),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충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1), **해동화놀이와 장승제의 전승양상과 활용방안**(광주문화원,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청양청소리산신제문서 (靑陽靑所里山神祭文書)

정의 20세기 초부터 2006년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의 산신제 의례절차와 이를 주관하는 동계(산제계)의 운영내력을 기록한 문서.

내용 청소리 산신제문서는 총 4건으로, 『강신기(講信記)』 2책, 『계원명부』 1책, 『청소동 재산대장』 1책이다. 산신제와 직접 관련된 자료는 『강신기』와 『계원명부』이다. 1905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강신기』는 산신제의 「제수기(祭需記)」, 「소지인명부(燒紙人名簿)」, 「계서(稧序)」, 「입의신증(立議新增)」, 「추입기(追入記)」, 「강신기」 등이 차례로 수록되었다.

「제수기」는 매년 산신제를 지낼 때 필요한 제기(祭器)와 제물(祭物)의 종류를 기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기는 사기 2개, 접시 6개, 술동이 4개, 대접 2개, 토부(土釜) 1개, 시루 1좌, 호(壺) 1개, 조라단지[小甕] 1개, 백지 5권, 명태 2미, 대추·밤·감 3승, 곡자 1개, 닭[鷄] 1수, 청기름 2종발, 백미 3두 등이다. 백미는 상산시루미(米) 서되서홉(三升三合)을 비롯해, 조라미·노기미·하산시루미·하산노기미로, 이는 상산제(上山祭)와 하산제(下山祭)에 올릴 떡·메·술의 제조에 사용되는 쌀을 의미한다. 「소지인명부」는 산신제의 마지막 절차인 호구소지를 올릴 때의 명단이다. 따라서 이 명단은 당시 청소동의 가구 수와 인구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런가 하면 청소리 산제계의 시말을 기록한 「계서」는 "마을에 산신이 있는 것은 고을에 사(社)가 있는 것과 같다"고 전제한 뒤, 산신제의 비용은 경자년(1840) 이후로 65년 동안 계를 만들어 그 이자 수입과 해마다 걷은 돈으로 충당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폐단이 생겨 규칙이 무용지물이 되자 1905년 다시 계를 중수하게 된 배경이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이를 위해 「입의신증」 세 가지 조목을 추가하였다. 즉 "산신제를 모실 때 재계(齋戒)를 근본으로 하고, 원금을 빌려 줄 때는 보증인을 세우되 만약 기한을 어긴 자가 있으면 일제히 찾아가서 돈을 받도록 할 것"을 규약으로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계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리 26가구가 집집마다 벼 1~3두씩 갹출하여

자산으로 삼았다.

「추입기」는 1908년 이후 새로 가입한 주민들의 명단과 납부한 '추입조(追入租)'를 연도별로 기록했다. 또한 「강신기」는 을사년(1905)부터 기해년(1959)까지 매년 음력 9~10월 동계의 강신일에 결의된 사항을 기록한 것인데, 주로 기금의 식리(殖利)와 동답의 운용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에 이어서 작성된 경자년 「강신기」는 1960년부터 2006년까지 47년 동안 동계의 결산을 기록한 장부책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동 동계의 재정은 현물수입(도조수입과 대부수입), 추입조(追入租), 미조(米租), 전조(錢租) 등인데, 해마다 마을을 운영하면서 기록한 수입지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962년 가을에 개초(改抄)된 『계원명부』는 「산제축문」, 「산제제수기」, 상산제(上山祭)와 하산제(下山祭)의 「제물진설도」, 「계원명단」이 실려 있다. 유교식 절차로 진행되는 청소리 산신제는 축문을 21회 낭독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축문 옆에 '최소한 칠독(七讀)'이라 추기(追記)하여 근래의 변화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계원명단에는 기본금(액면)·산제계·건물 가입 명목으로 가구당 납부한 금액을 비롯해 이후에 가입하는 계원의 납부 현황과 추입년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청소동에서는 1960~1970년대 타지에서 이사를 온 세대나 분가한 사람은 기본금·산제계·건물·신입례 이 네 가지의 비용을 각각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관례였다. 근래까지도 대동(동계)에 드는 몫으로 벼 2말, 산제계 벼 2말, 신입례로 벼 2말을 각각 부담해야 비로소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청소동 재산대장』은 마을(동계)에서 보유한 공동재산 목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부·건물부·건구(建具)·식기구(食器具)로 나누어 기재하였고, 문서의 말미에는 청소동에서 보유한 전답의 부동산 표시를 하였다. 먼저 부동산부는 청소리와 동강리에 소재한 전답의 지번과 평수를, 건물부는 창고·공회당·상여막의 건물 형태와 면적 등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건구는 마을의 공공기물인 사륜차·보교(步轎)·혼구·상여·농악기·저울·종·농기구 등 동물(洞物)의 현황과 식기류의 종류와 수량이 낱낱이 수록되었다. 말미에는 변경된 청소동 부동산의 주소와 지번,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가 작성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으로 미루어 1962년 계원명부를 다시 작성하면서 등재한 것으로 추정되며, 식기부와 부동산 표시는 이후에 추기(追記)한 것이다.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2008.7, 강성복

임자년(1912) 강신기

계사년(1923) 강신기

의의 청소리에서는 주산인 석봉산(石峰山) 기슭에 산제당을 마련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상산제와 하산제를 지낸다. 이를 위해 1840년 마을 사람들이 산제계를 조직하여 해마다 그 기금으로 제수비용을 충당하여 왔다. 이 계는 오늘날 동계로 뿌리를 내려 산신제 및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리 산신제문서는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산신제의 전승 양상과 마을의 운영에 관한 기록물이다. 따라서 그 속에는 산신제의 지속과 변화는 물론 마을사의 단면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동제를 비롯한 향촌사회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대전·충남지역 촌계류문서수집사업 최종보고서(강성복, 국사편찬위원회, 2008), **백마강 상**(부여군, 2008),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 (淸原玉花里山祀禊文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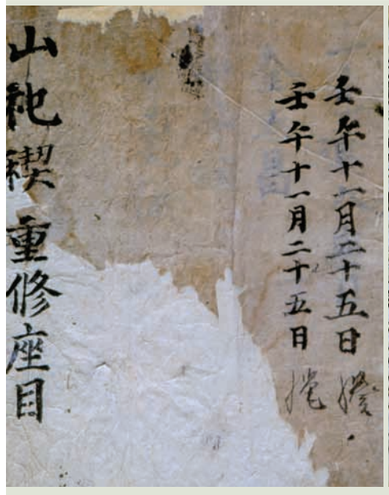
정의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산신제 및 탑제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세기 중반에 결성한 동제계(洞祭禊) 관련 문서.

역사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는 조선 전기 이래 재지사족의 기반을 지닌 파평 윤씨, 경주 이씨, 안동 김씨 등이 세거하면서 반촌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중요한 구성원을 이루며 촌락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청원 옥화리 산사계는 19세기 중엽에 조직한 산사계로서 이들 몇몇 성씨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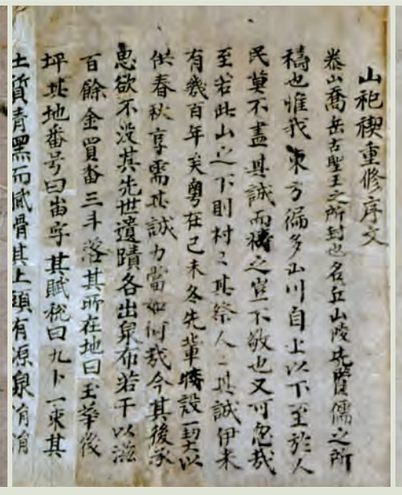
옥화리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촌 가운데 산사계에 참여한 마을은 '강당말(굴밑 포함)'과 '괴머리골'이다. 1882년의 『중수좌목(重修座目)』에는 하계원(下契員)을 포함하여 모두 35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애당초 산사계가 상·하민을 아우르는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계원으로 등재된 인물이 고작 5명에 불과하고, 그들 대부분은 머슴으로 입향했다가 일정 기간을 거주한 뒤에 마을을 떠난 것을 보면, 결국 파평 윤씨와 안동 김씨를 주축으로 하는 재지사족의 후예들이 산사계의 결성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중수좌목에 실려 있는 성씨별 분포 현황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1882년 산사계 중수에 참여한 35명 중에서 파평 윤씨는 절반에 가까운 1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 김씨와 경주 김씨가 각각 4명, 밀양 박씨가 3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그밖에 청주 한씨, 남평 문씨, 전주 이씨 등은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파평 윤씨는 옥화리로 입향한 조선 전기 이래 여전히 동사를 주도하는 유력한 성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세기 중엽에 들어오는 안동 김씨는 중수좌목의 서사지역(書寫之役)을 담당할 만큼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래 안동 김씨가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다'는 촌로들의 증언에서도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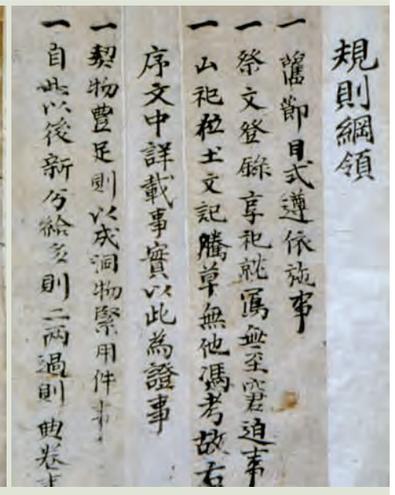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1997.9, 강성복



산사계중수좌목(1882)



산사계중수서문



규칙강령

1882년의 『중수좌목』 서문에는 동제를 지내게 된 내력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미년(1859) 겨울에 선배들이 특별히 계 하나를 조직하여 이로써 봄·가을로 제수를 갖추게 되었으니 정성을 다함이 어찌 마땅하지 않은가. 이제 그 뒤에 계승하고자 선세유적(先世遺蹟)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집마다 천포(泉布) 약간을 거출하여 이로써 백여 금으로 논 세 마지기를 매입하였다(己未冬先輩特設一契 以供春秋享需 其誠力當如何矣 今其後承思慾不沒先世遺蹟 各出泉布若干以滋 百餘金買畓三斗落)." 산사계를 중수한 것은 봄·가을로 제사를 받들고 그 뜻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일, 곧 호당 약간의 돈을 갹출하여 산제답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내용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는 애초 1859년에 작성되었고 이후 23년이 지난 1882년 음력 11월 24일에 중수되었다. 이때 『산사계중수좌목(山祀禊重修座目)』에 '규칙강령(規則綱領)' 5개 조목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청원군 옥화리 산사계의 운영 실태 및 계기적인 변화상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一. 舊節目式遵依施事
(구 절목의 규칙에 따라 시사할 것)
一. 祭文登錄享祀就寫無至窘迫事
(축문을 문서에 적어 두고 제사에 나아갈 때 베껴서 곤란한 일이 없도록 할 것)
一. 山祀位土文記謄草無他憑考故右序文中詳載事實以此爲證事
(산사의 위토는 문기에 등초하여 틀림없이 이에 의거하여 상고할 것이며, 고로 서문 중에 상세하게 사실을 기재하니 이로써 증빙을 삼을 것)
一. 契物豊足則以成洞物緊用件事
(계의 재물이 풍족해져 동네의 재정이 늘어나면 제반사에 요긴하게 사용할 것)
一. 自此以後新分給多則二兩典卷事
(이로부터 이후에 새로 분급할 때 많아서 곧 두량을 초과하면 문권을 전당으로 잡힐 것)

위의 조목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규칙강령 5개 조목은 세세한 운영 규약이라기보다 후세에 당부하는 유훈에 가깝다. 아마도 그것은 1859년에 산사계를 처음 결성할 당시, 이미 상세한 절목을 마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첫 번째 규칙강령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결계 시의 절목이 남아 있지 않은 까닭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구절목(舊節目)에 의거하여 시사(施事)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아, 산신제 및 탑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따름이다.

두 번째 규칙강령은 축문과 관련한 사항이다. 중수좌목에는 산신제와 탑제의 축문 양식을 각각 등록하여 지금도 매년 향사시에 이를 그대로 베껴서 사용한다. 세 번째 규칙강령의 산사위토(山祀位土)는 1882년에 계를 중수하면서 가구당 거출한 백여 금으로 매입한 세 마지기(3두락)의 산제답을 의미한다.

중수좌목의 서문에는 산제답의 소재지와 면적, 지번은 물론 부세·토질·비척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소재지를 말할 것 같으면 옥화뒷들이요, 그 지번은 수자(甾字)요, 그 부세(賦稅)는 아홉짐일속(九卜一束)이요, 그 토질은 청흑하여 매우 기름지다. 논 윗머리에 샘이 하나 있는데 물이 졸졸 흘러 가득차 넘치므로 비록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길고(桔槹)에 번거로움이 없어 자족하니 참으로 깊은 산중의 청동해(靑銅海)로다. 이에 동중의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을 정하여 약속하기를 도조는 28두로 완정하였다(其所在地曰玉華後坪 其地番號曰甾字 其賦稅曰九卜一束 其土質靑黑而膩滑 其上頭有源泉 涓涓盈溢 雖亢旱不渴涸 不煩桔槹而自足 信絶陝靑銅海也 乃與同社諸人議定約束 完定賭租二十八斗)."

산제답은 지난날 가장 중요한 산사계의 물적 토대였다. 이와 함께 좌목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마을에서는 밭 1,653㎡를 산사계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촌로들의 제보에 따르면, 과거에는 마을의 소임(小任)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으나 광복 이후에는 반장에게 경작권을 부여했다고 한다. 도조는 산제답의 경우 백미를 기준으로 28두를 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논과 밭을 합하여 줄곧 28두로 하다가 중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5두를 징수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전기 가설비용을 마련하느라 대부분의 산제답은 매각되어 현재는 자투리 약 1마지기 일부만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서로 농사짓기를 꺼려 아예 도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네 번째 규칙강령은 산사계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산사계를 조직한 것은 산신제 및 탑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지만, 이후 계의 재물이 풍족해져 재정이 늘어나면서 각종 동중지사에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그릇·저울·말박·되·풍물 등의 동물(洞物)을 공용으로 구비하는 한편 제반 긴급사에 사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 규칙강령은 기금의 식리(殖利)에 대한 규정이다. 산사계의 재정은 동답의 경작자로부터 받은 도조와 추입자가 입계금으로 낸 쌀인데, 해마다 대출을 원하는 계원들에게 분급하고 이듬해 이자와 원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계금을 늘려나갔다. 이자는 그때그때 마을 형편과 물가 변동에 따라 동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중수좌목에는 새로 분급시에 2량이 넘으면 문권으로 전당을 잡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래에는 현실에 맞게 차용증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1인당 대출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산사계의 정기계회는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고양주의 집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기금의 결산, 대여금의 각출, 산제답의 도지 및 신입자의 추입금 수납, 임원 선출 등 제반동사를 논의한다. 회의를 마치면 점심을 겸하여 조촐한 주연을 베푼다. 이렇게 청원군 옥화리 산사계는 산신제 및 탑제를 매개로 성립되었지만, 그 조직과 운영 실태를 보면 철저하게 생활공동체에 기초한 촌계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을에서 산사계를 대동계(大洞契)에 대응하는 소동계(小洞契)로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의의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는 마을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흔치 않은 기록물이다. 이 자료를 통해 자연촌 단위에서 마을신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주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청원군 옥화리의 산신제와 탑제는 충청 내륙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마을신앙의 전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산사계는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동제계(洞祭契)이자 촌계류(村契類)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산사계를 작성한 19세기 중엽 이래 산신제와 탑제를 가능케 했던 물적 토대로서, 나아가 마을 운영의 구심체로 기능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민속문화를 연구함에 간과하기 쉬운 역사성의 문제와 사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메워 줄 수 있으며, 미흡하나마 촌락의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山祀禊重修座目, 山祭稧稧受拂簿, 괴산군지(괴산군, 1990), 청원군의 동제(청원문화원, 2000), 청원 옥화리 산사계의 성격과 산신제·탑제(강성복, 민속학연구 11, 국립민속박물관, 2002), 충북 청원 지방의 동제에 관한 연구(이정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필자 안상경(安相敬)

청주선도산장승제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서원말에서 정월대보름을 기해 올리는 장승제. 흔히 '선도산 할아버지 할머니 장승제'라고 한다.

내용 청주선도산장승제의 연원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18세기 초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장승제가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촌로들의 제보에 따르면 선도산장승제는 애초 '선도산할아버지바위'와 '선도산할머니바위'를 대상 신격(神格)으로 삼은 산신제였으며, 그러다가 산세가 험해 그곳 제장까지 오르내리기 어려워 선도산할아버지와 선도산할머니를 장승으로 깎아 장승제를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관련한 내용을 '선도산장승제 유래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발 574m의 선도산 끝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김우현, 신용, 권상, 신집 네 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과 함께 홍살문이 세워진 신성한 곳으로 봉계서원이 있던 유적지로서 유서 깊은 전형적인 산악형 농경마을입니다. 이곳에 최초로 자리 잡아 7대째 살아오신 고 신철휴 옹의 구전에 의하면 무오년

1798(정조 22)에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마을 주민의 기근 상태는 극에 달하였고 괴질까지 번져 민심이 흉흉하게 이르러 선도산 팔부 능선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바위에 비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는데 신기하게도 단비가 내리고 괴질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매년 정월 보름이면 제사를 지냈는데 해가 거듭되면서 산세가 험한 중턱까지 오르내리기 어렵게 되자 마을 상터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두 분의 장승을 만들어 고사를 지내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러 21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미풍양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 · 취업 · 득남 · 사업 · 결혼 등 찾는 이가 소원성취를 빌고 가는 등 청주시의 명소로서 사랑받는 선도산의 장승제로 계승 발전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선도산장승제 계승발전사업 추진위원회

'선도산장승제 유래비'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두 기의 장승을 선도산할아버지와 선도산할머니로 인식하고 매우 영험한 마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다.

한편 선도산이라는 명칭도 한자로는 '仙到山'이라고 쓰지만 '선도'는 '우뚝 서 있는 큰 바위'를 뜻하는 '선돌'일 가능성이 높다. 산 정상에 못 미쳐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선도산할아버지바위'와 '선도산할머니바위'로 인해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용 청주선도산장승제의 제일(祭日)은 정월대보름날 오전 10시로 고정되어 있다. 제관은 열흘 전에 동회(洞會)에서 한 해 부정 및 생기복덕(生氣福德) 여부를 가려 한 명을 선정한다. 제관을 흔히 '깨끗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선정은 비교적 엄격하다. 특히 홀아비의 경우 절대적으로 배제한다. 제관은 당일금기(當日禁忌)를 준수한다. 제의 하루 전에 대문 앞에 금줄을 둘러치고 황토를 펴 외부인의 접근을 금한다.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금기를 준수하였으며, 마을 옆 개울에서 매일 목욕재계를 하였다. 선도산 물줄기가 마을 옆 개울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직도 마을 옆 개울을 일종의 성수(聖水)로 여기고 있다.

제물로는 삼색실과, 흰시루, 포, 탕, 정종, 돼지머리 등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석 되 서 홉의 시루를 제관집에서 직접 쪘다고 한다. 이를 '재수떡'이라고 불렀고, 음복할 때 마을 사람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선도산장승제단
충북 청주시 월오동
서원말, 2010.7.20
안상경

장승은 격년으로 새로 깎아 제장에 안치한다. 장승 재목은 반드시 선도산에 있는 '조선 소나무'로 정한다. 제의 사흘 전에 제관 및 청년회를 중심으로 선도산에 올라가 조선 소나무를 베어 온다. 이때 '장승 재목으로 베는 것이니 양해해 주십사'라는 사실을 고지하며 간단하게 고사를 지낸다. 이후 베어 온 조선 소나무를 제의 하루 전날에 장승으로 깎는다. 장승의 외형은 투박하며, '글을 많이 읽은' 노인회장이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및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라고 먹으로 직접 쓴다. 장승이 완성되면 제단에 세워 놓고 금줄을 둘러쳐 외부인의 접근을 금하는 등 제장 주변을 정비한다. 제의에는 남녀노소가 불문하고 동참한다. 제의는 제관을 중심으로 유교식 절차에 준해 이루어진다. 분향-초헌-아헌-종헌-고축-소지 순이다. 소지로는 천하대장군소지, 지하여장군소지, 대동소지, 개인소지 등을 올린다. 이후 마을회관에서 음복하고 윷놀이나 널뛰기를 하며 종일토록 잔치를 베푼다.

한편 근간 몇 년 동안(2001년부터 2009년까지)은 선도산장승제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청주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지역권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큰 규모의 장승제로 변모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마을 촌로들이 그러한 제의를 감당할 수 없어 2010년부터 다시 마을 자체적으로 장승제를 올리고 있다. 장승은 격년마다 새로이 깎아 계속 누적되어 제단을 중심으로 왼쪽 팽나무에 10여 기, 오른쪽 느티나무에 10여 기가 있다. 현재 제단 조형물은 2008년에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너비 5.5m, 높이 3.2m이다. 돌장승 한 벌은 둘 다 높이 3m이다.

선도산 장승
충북 청주시 월오동
서원말, 2010.2.7
안상경

지역사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수조사한 '한국의 동제'를 기초자료로 통계를 내면 충북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신앙의 유형은 산신제(395개 마을), 서낭제(290개 마을), 탑제(56개 마을), 장승제(27개 마을), 수살제(28개 마을), 샘제(16개 마을), 둥구나무제(30개 마을), 선돌제(7개 마을), 거리제(8개 마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마을신앙의 유형 가운데 특히 산신제가 충북 전역에 걸쳐서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단양군과 제천시에서는 산신제보다 서낭제가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동군은 둥구나무제, 옥천군은 탑제 및 장승제, 청원군은 수구제가 각각 산신제 다음으로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신제가 두루 분포하면서도 상당제와 하당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상당제인 산신제에 탑제, 장승제, 수구제, 샘제, 둥구나무제, 선돌제, 거리제 등의 하당제가 두세 가지씩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한편 음성군은 단독 제의로 나타나는 산신제가 두드러진다.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등지에서는 마을신앙을 세분화하지 않고 상당제와 하당제를 모두 합쳐 '동제'나 '동고사' 또는 '동제사'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하당은 지역에 따라 독자적 형태를 하고 있다. 장승을 하당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형태 및 지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승과 선돌의 결합'이다. 옥천군의 군북면 항곡리 항골마을, 군북면 환평리 시범마을, 청성면 화성리 석성마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당집과 장승의 결합'이다.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빗재마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오량동마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장승과 신목의 결합'이다. 보은군의 외속리면 서원리와 탄부면 하장1리, 청원군의 가덕면 행정리, 문의면 괴곡리 괴실마을, 미원면 중리 족실마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승제작(서원말 노인회장)
충북 청주시 월오동 서원말, 2001.2, 안상경

2001년 선도산장승제 소지올림
충북 청주시 월오동 서원말, 2001.2, 안상경

넷째, '장승과 돌탑의 결합'이다.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향정마을, 청원군 문의면 마구리와 문덕리 앞실마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돌탑과 샘과 장승의 결합'이다.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마징이마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장승과 솟대와 돌탑의 결합'이다.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수동마을,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마티마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소도마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곱째, '당집과 신목과 장승의 결합'이다. 보은군 산외면 문암리 복실골마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덟째, '장승과 선돌과 돌탑과 신목의 결합'이다.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성암마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문화유적 분포지도-청주시(충북대학교박물관 · 청주시, 1998).

필자 안상경(安相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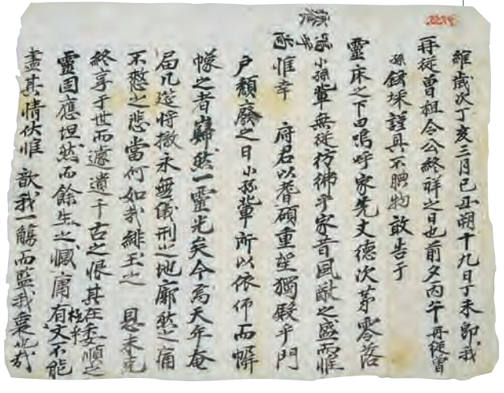
축문(祝文)

정의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의지를 언어로 신에게 전달하는데, 이를 문자로 기술한 것.

내용 마을이라는 공간 내에서 거주하는 공동체의 주민은 지연을 기반으로 생활을 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마을의 수호신에게 종교적 인식에 대한 실천적 표상으로 제의를 올리면서 현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원을 한다. 제의에서 구체적인 신격(神格)과 공동체의 기원 내용이 축문에 나타나 있다. 제의에서 축문을 읽는 것을 독축(讀祝)이라고 한다.

마을 제사인 동제는 유교식 또는 유교와 무속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축문이 의례에 사용된 시기는 중국의 예법이 우리나라에 수용된 고려 말로 볼 수 있다. 유교적인 예법에 따라 의례를 진행하고 축문의 서식도 이에 따랐다.

유교식 의례는 일반적으로 참신(參神), 재배(再拜), 분향(焚香), 초헌(初獻), 독축, 아헌례(亞獻禮), 종헌(終獻), 부복(俯伏), 음복(飮福) 등의 순으로 한다. 제관은 3명으로 초헌 · 아헌 · 종헌을 담당하며, 축관(祝官)은 축문을 낭독하는 독축을 담당한다. 제관은 마을의 구성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며 맡거나 제일(祭日)과 본인의 생년월일의 간지(干支)를 대조하여 생기복덕(生氣福德)에 맞는 남자가 선정되므로 자주 교대된다. 그러나 축관은 한문에 조예가 깊어야 하므로 공동체 내에서 고정적인 인물이 정해져 있다. 동



축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가로 33㎝, 세로 25.8㎝
19세기

제의 준비는 3~5일 전부터 시작되는데, 축문은 대개 제사 당일 작성한다.

축문의 형식은 서두(書頭)에 세차(歲次) 즉 간지에 의해 정한 해를 쓰고, 다음에 월 · 일을 쓴다. 다음에 축문을 올리는 사람의 신분을 밝힌다.

「유세차(維歲次) OO년(年) OO월(月) OO일(日) ……감소고우(敢昭告于)」의 형식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축문의 서두(書頭)는 유가 제례(儒家祭禮) 축문 형식과 동일하다. 단지 유가 제례에서는 초헌관이 장자(長子)로 되어 있으나 동제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민대표모 감소고', '주민일동 감소고', '유학모(幼學某) 감소고' 등으로 신분을 밝힌다. 동제가 마을 주민 공동체의 행사이기에 '주민일동' 또는 '주민대표'로 제관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신분에 직함(職銜)이 있으면 이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직함이 없으면 '유학모'로 쓰도록 하는 것은 장례에서 개형(開熒)할 때에 토지지신(土地之神)에게 지내는 서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동제 축문의 기본서식이 유가의 제례축문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축문의 본문에는 산신, 성황신, 산천신(山川神) 등의 신위명(神位名)이나 지명(地名)을 제외하면 사언체(四言體)로 되어 있다. 내용은 신의 신성성을 찬양하고 마을 구성원들의 희구(希求)를 기원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사언체의 축문은 『시경(詩經)』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경』은 유가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필수교과로 되어 있다. 동제 축문의 제작자는 각 마을에 따라 다르지만 유학을 접한 자로서, 마을에 전하는 상황이나 신위의 성격에 맞는 내용을 사언체로 작성해왔다.

축문의 말미(末尾)는 대부분 「상향(尙饗)」으로 맺고 있다. 유가 제례 축문의 말미에는 예외 없이 상향으로 되어 있는 점이 동일하다. 이상과 같이 동제 축문은 서두와 말미, 그리고 본문의 사언체 형식으로 보아 유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축문은 한문으로 작성하였으나 20세기 전후부터 한글로 작성한 축문이 등장하였다. 한글 축문은 한문 축문을 한글로 음을 달아 놓거나 한글로 쉽게 축문을 기술한 형태로 등장하였다. 한글의 축문에도 서두는 '유세차 연월일 등 감소고우'로 시작하고 있다. 말미는 '상향' 또는 '신령님은 제물을 받으시옵소서'로 마치고 있다.

동제에서 독축은 하나의 축문을 낭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관치(官治)의 단위였던 읍치(邑治)의 성황제에서는 여러 신위의 축문을 각각 썼다. 강원도 강릉의 동제는 '성황제(城隍祭)' 또는 '고청제(告淸祭)'라고도 하는데 성황신을 주신(主神)으로 가운데 모시고 토지신(土地神)과 여병신[厲神]을 좌우로 배향하여 신위(神位)를 안치하고 제를 지낸다. 신위를 모신 제당 내에는 돌로 쌓은 장방형의 제단이 있다. 축문은 성황축(城隍祝), 토지축(土地祝), 여역축(厲疫祝), 동단제축(洞壇祭祝) 등을 각각 쓰고, 신위별로 독축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한글의 축문으로 만들어 신위에게 고(告)하는 지역도 있다.

독축이 끝나고 나면 제문은 동그랗게 말아 소지한다. 축문은 태우는 것을 망료(望燎)라고도 하는데, 이때에 각 집의 호주(戶主) 수만큼 한지를 준비하여 이름을 부르고 축원하며 소지하기도 한다. 소지는 신을 보내는 송신(送神)의 의미도 담겨 있다. 축문을 소지할 때에 잘 타서 재가 위로 올라가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속신도 전한다.

정기적으로 행하는 동제의 축문 내용은 대부분 마을의 안녕과 오곡풍요, 가축의 번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축문을 쓰지 않는 마을에서는 구두로 축원과 행운을 기원한다. 그러나 호환(虎患)이나 전염병, 한재(旱災)를 당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제례는 신을 위협하여 재액(災厄)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행한다. 따라서 축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기도 하지만 제례에 참여자가 구술로써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문헌 **남도민속학개설**(지춘상외, 태학사, 1998), **동제 축문의 형식고**(최승순, 한국민속학총서 4 민간신앙, 한국민속학회편, 교문사, 1989), **부락제**(조선총독부, 1937), **한국민속대관 3 민간신앙 · 종교**(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필자 임장혁(任章赫)

충제(蟲祭)

정의 전라남도 진도군 동부 지역에서 병충해 방지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여름철에 행하는 동제.

덕병마을 충제 구축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2006.6.26, 나경수

역사 진도 지역에서 언제부터 충제를 지내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촌로들에 따르면 예전부터 지내 오던 것을 계승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황충(蝗蟲) 등 벌레가 기승을 부릴 때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포제(酺祭)를 지내는 일이 자주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진도의 충제는 전통사회의 포제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문헌으로 처음 정착된 것은 1987년에 발행된 『진도군의 문화유적』이고, 다음으로 2007년에 발행된 『진도군 마을굿』에도 조사된 내용이 수록되었다. 『진도군의 문화유적』에는 충제 전승 지역이 진도읍 수역마을·전두마을·포산마을·해창마을, 군내면 덕병마을·용장마을, 의신면 거룡마을·신정마을·옥대마을·칠전마을·만길마을 모두 11개 마을에서 전승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7년에 발행된 『진도군 마을굿』에는 진도읍 수역마을·전두1리, 군내면 덕병마을·정자마을, 의신면 만길마을·신정마을·중리마을 모두 7개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점점 전승 지역이나 전승 내용 면에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내용 충제의 전승 양상을 제의 지역,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의 신격, 제의 장소, 축문 유무, 현행 유무 등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충제의 제의 시기는 거의 모든 마을에서 음력 유월 초하룻날을 채택하고 있으며, 포산마을의 경우에는 음력 유월 초하룻날과 칠월 초하룻날 가운데 택일하였다. 시간대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0시 전후를 택하고 있다. 근래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간대를 전날 밤 9시대로 앞당기고 있는 마을이 있지만 밤이라는 시간성에는 변함이 없다. 음력 유월 초하룻날은 하절기로 벼가 낟알을 키우고 있을 시기이며, 여름철 폭우와 가뭄 등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을 때이다. 이 시기에 해충이 번식하면 그해 농사는 풍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충제의 제의 시기로서의 당위성을 지닌다. 제의 명칭은 충제를 대표명으로 하지만 산제 또는 산신제와도 통용되고 있는 마을이 세 곳 있으며, 풍년제와 통용하는 마을도 한 곳 있다.

구분	제의 지역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의 신격	제의 장소	축문 유무	현행 유무
1	진도읍 수역 마을	충제 (산신제)	음6월1일	산신	뒷산 중턱 당솔나무	유	유
2	진도읍 전두 마을	산충제	음6월1일	산신	뒷산 정상 수목	무	유
3	진도읍 포산 마을	충제 (산제)	음6월, 7월 1일 중 택일	산신	앞산 중턱 소나무숲	유	무
4	진도읍 해창 마을	충제	음6월1일	산신	뒷산 짓봉우리	무	무
5	군내면 덕병 마을	충제	음6월1일	산신	뒷산 중턱	유	유
6	군내면 용장 마을	충제 (산제)	음6월1일	산신	앞산 정상	유	무
7	군내면 정자 마을	충제	음6월1일	산신	마을 뒷산	유	유
8	의신면 거룡 마을	충제	음6월1일	산신	뒷산 중턱	유	유
9	의신면 신정 마을	충제	음6월1일	후토 지신 수호 천룡	뒷산 중턱	유	유
10	의신면 옥대 마을	충제	음6월1일	산신	뒷산 중턱	유	무
11	의신면 중리 마을	충제	음6월1일	산신	뒷산 중턱	무	무
12	의신면 칠전 마을	충제 (풍년제)	음6월1일	산신	앞산 정상	유	무
13	의신면 만길 마을	충제	음6월1일	천신, 지신	뒷산 중턱 짓바우	유	유

진도 지역 충제의 전승현황

제의 장소는 대체로 마을 뒷산 중턱 또는 마을의 앞산으로 산에 위치하고 있다.이는 충제의 신격이 거의 산신인 점과 연관을 맺고 있다. 예외적으로 의신면 신정마을의 경우 신격을 후토지신과 수호천룡으로 구체화하였고, 의신면 만길마을에서는 천신과 지신이라고 하였다.

충제의 제의 방식은 엄숙한 유교식 제의절차를 따른다. 이에 따라 풍물은 따르지 않는다.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도 세 명 이내로 소수이며, 남자만 참여할 수 있다. 충제에 올리는 제물은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메와 주과포로 간단하다. 특별한 점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닭의 모가지를 쳐서 제물로 바친다는 점이다. 산 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다른 지역 산신제에서도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제의절차이다.

축문은 진도읍 전두마을·해창마을, 의신면 옥대마을을 제외한 9개 마을에 존재한다. 충제의 축문에는 해충 소멸, 농사 풍년,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충제의 구조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 즉 충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월대보름날에 지내는 거리제 또는 망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간적 차원에서 볼 때 망제는 정월대보름날, 충제는 음력 유월 초하룻날에 각각 지내고 있어 겨울과 여름으로 분화되어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망제는 마을 끝이나 마을 앞 삼거리, 충제는 마을의 산에서 각각 지내고 있어 마을 내부와 마을 외부로 구분될 수 있다. 제의에서 모셔지는 신격을 보면 망제의 경우 당할머니나 객귀, 충제에서는 산신을 각각 위하고 있다. 제의 방식이나 제의 수행 태도 면에서 보면 망제는 풍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동참이 장려되는 등 축제적 경향을 띤다. 그러나 충제는 유교식 제의절차에 충실하며,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마을에서 선정한 소수의 남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띤다.

충제를 지내는 마을에서는 충제를 지내지 않는 다른 마을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충제를 지내는 마을의 제보자들은 예전부터 충제를 지낼 수 있는 마을은 반촌(班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진도읍 수역마을에서는 수역리에 속하는 5개 마을(수역마을, 매향마을, 신흥마을, 월평마을, 북치마을)이 연합해 충제를 지냈다고 한다. 당산제와 거리제는 마을별로 지내더라도 충제는 여러 마을이 연합해 지냈는데 5개 마을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마을은 예전부터 반촌이었다고 하며, 수역마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즉 충제를 지낸다는 것은 반촌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농약 발달로 충제를 통해 해충을 막기 위한 현실적 요구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동제 전승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제라는 명칭은 진도군에서만 보고되었다.

참고문헌 **진도군 마을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7), **진도군의 문화유적**(진도군 · 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충제의 제의적 의미와 정치적 기능 고찰**(이옥희, 남도민속연구 18, 남도민속학회, 2010).

필자 **이옥희(李玉姬)**

충주목계별신제(忠州牧溪別神祭)

정의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마을에서 남한강 상권의 강화와 뱃사람의 안녕을 위해 정기적으로 치른 축제형 마을 제사.

역사 충주시 엄정면 목계마을은 1930년대 이전까지 남한강 수운의 중심지였다. 목계마을이 남한강 수운의 중심지로 떠올라 성황을 누릴 수 있은 원인은 '가흥창(嘉興倉)의 설치와 존속'에 있다. 가흥창은 지금의 목계교에서 하류로 약간 내려간 지점의 강변에 있던 조선시대 조창(租倉)으로, 1465년(세조 11)에 설치되어 개항 전까지 존속했다. 가흥창에 수납된 세곡은 남한강 물길을 따라 서울의 용산창까지 운송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부터 대부분의 장시가 5일장의 정기성을 띠게 되자 목계마을의 경우 고려 때부터 조선 중기까지 지속된 관 주도에 의한 상업활동에 기반을 두고 민간에 의한 상업활동이 보태지면서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대단위 장시가 형성되었다.

부흥당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마을, 2009.9.21, 이창식

산신도

서낭각시도

용신도

목계마을 장시의 확대는 새로운 장시문화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누구든 이곳에 모여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면서 현실적 억압을 풀었고, 잔치를 벌이거나 공동 놀이를 통해 결속을 다지면서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났다. 주색잡기와 음주가무가 부합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투전이나 골패 등 도박은 물론 상업적 성격이 강한 유흥 공간이 마련되었다. 기녀의 노랫가락이 우선하였지만 봉건사회의 분화에 따라 토지를 잃고 유랑하며 걸식하는 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광대짓을 하는 사당패나 걸립패도 목계마을 장시의 유흥을 돋우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연희에 상업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부상이나 객주들의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장시의 활성화는 물론 유흥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목계마을의 장시는 근대화 과정의 발달과 비례하여 쇠퇴하였다. 1925~1930년에 중부의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와 충주~조치원 간 충북선 열차가 개통되면서 목계나루의 활기는 점차 시들어졌고, 1973년에 콘크리트 다리가 가설되면서 나룻배도 사라졌다. 더욱이 이 지역을 통째로 휩쓸고 간 1936년의 대홍수에 의해 장시의 건물 200여 채가 파손되었다. 한 해 뱃길의 무사와 상권의 활성화를 기원하던 배고사나 별신제도 사라졌고, 대규모의 줄다리기나 남사당놀음도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삼거리에 세워 놓은 '목계 줄다리기와 별신제 유래비'를 통해 이전의 번성함을 짐작할 뿐이다. 전문에는 내륙 팔도에서 가장 홍청댄 다섯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중원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였다는 지역적 자부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도시가 융성한 만큼 상권의 활성화 및 그 보존을 위한 당고사·배고사·별신제를 올렸으며, 난장을 벌여 놓고 남사당패를 불러들인 가운데 대규모의 줄다리기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목계문화역사마을가꾸기를 통해 주민들 중심으로 문화체험관과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용 목계별신제는 당고사-배고사-별신제-줄다리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당고사 당고사는 성황제의 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제장은 목계인도교 옆 봉제산(봉산, 부엉산, 부흥산 등)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목조와가(木造瓦家) 양식의 부흥당(富興堂)이다. 당내에는 가운데 정면에 서낭각시도, 오른쪽에 용신도(龍神圖), 왼쪽에 산신도(山神圖)를 각각 봉안하고 있다. 당고사는 원래 정월 초닷샛날부터 초열흘날까지 지속되었다. 정월 초닷새 즈음에 단골무당이 광대와 악사를 대동하고 사흘 동안 광대놀이를 하였다. 정월 초아흐렛날에는 아침부터 각 가정을 돌며 지신을 밟는 등으로 축원을 하였으며, 밤에는 제관의 집에서 안반굿(案盤-)을 하였다.

그러나 남한강의 수운이 쇠퇴하면서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자, 1960년대에 마을회의를 열어 제일을 정월 초아흐렛날로 고정하였다. 오늘날에는 제관의 선출이 엄격하지 않다. 한 해 동안 특별하게 부정한 일이 없으면 관례적으로 마을 최고 원로와 이장[구장]이 맡는다. 제물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2000년쯤만 해도 무당이 '조배술'을 당 안에서 직접 담그는 등 진설의 원칙에 충실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지역의 동제와 마찬가지로 약식의 제물을 진설한다.

제의 당일 해질 무렵 오후 7~8시에 마을원로 및 제관 등이 복색을 갖추고 무당과 함께 제장으로 올라 촛불을 밝히고 향을 지핀 다음 본격적으로 의례를 행한다. 유교식 예법에 따라 제물을 진설한 뒤 무당이 〈부정풀이〉를 구송하여 제장을 정화시킨다. 제차(祭次)는 시종 엄숙하며, 분향-헌작-재배-축-소지 순으로 유교식 진행이다. 제의 후 약간의 떡을 떼어 놓고 하산한다.

2. 배고사 배고사는 남한강의 용신을 대상 신격으로 하여 '운항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 때문에 제장을 용신과 조우할 수 있는 목계강변의 나루터[선착장]로 삼았다. 제일은 정월 열나흗날로 고정하였다. 정월에 당고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뱃사람은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제의를 통해 자신들의 기원을 용왕에게 전달하려 했다. 이에 따라 선주나 뱃사람이 직접 제관 역할을 하였다.

제일 보름 전부터 나루터에 금줄을 치고, 이곳을 통과하는 뱃사람들에게 경비를 갹출하여 제물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목계나루가 한창 활기를 띠고 있던 1909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 해에 목계지역을 통과한 배는 무려 827척이었다. 이 가운데 441척은 청풍, 71척은 단양, 65척은 영월을 넘어 영춘까지 각각 왕래하였다.

행례는 제일 보름 전에 선착장에 금줄을 둘러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전통신앙의 관념 속에서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는 용왕에게 지극한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운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모두가 제의에 참여했다. 유교식 제차에 의해 의례를 마친 뒤 약간의 음식을 떼어내 놓는 식의 진행이었지만 누구든 용왕에게 배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당고사보다 훨씬 성대하고 요란했다.

3. 별신제 별신제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무속제의이다. 보통 3~4년을 주기로 사월초파일을 전후한 2~3일 동안 영신굿-오신굿-송신굿 순으로 굿판을 벌였다. 지역의 동회장을 중심으로 중원 지역은 물론 전국 팔도의 무당들이 제의를 주관하였다. 무엇보다 팔도의 명무(名巫)들이 자신들의 기예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축원을 했기 때문에 각지에서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지역민은 물론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던 상인, 인근 지역의 외지인들까지 한데 어울려 흥청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목계별신제가 제공했다. 중원의 모든 무당이 별신제를 주관했다는 김춘식의 1985년 기록자료를 통해 별신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다가 근대화가 진척되면서 원형을 갖춘 별신제가 단절되었다. 1925~1930년에 중부의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와 충주~조치원 간 충북선 열차가 개통되면서 목계나루의 활기는 점차 시들어져 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별신제의 명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

4.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3년을 주기로 2월 말경에서 3월 초순 사이에 4~5일 동안 행하였다. 인근의 각 동리뿐만 아니라 충주, 원주, 장호원 등지에서 농악기를 앞세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줄은 정월 농한기를 이용하여 짚으로 꼬았다. 동편[동계·내계]은 동편, 서편[서계]은 서편에서 각각 짚을 마련하였다. 약 800더미의 짚을 마련하였으며, 짚을 마련하는 데에만 20여 일이 소요되었다. 동편은 평산, 서편은 샘티산에서 각각 10여 일 동안 줄을 꼬았다. 일단 상속회(원줄)만 꼰 뒤에 강변으로 나가서 종속회[매기수염]를 꼬았다. 상속회를 꼴 때는 산자틀을 이용하였다. 비녀목은 남성을 상징하는 동편에서 마련하였다. 재질은 소나무 내지 향나무를 사용하였다. 줄[용신]은 한쪽의 길이가 100여 척에 이르는 쌍줄이었으며, 표면에는 상중석회를 붙였다. 상속에서 종속회[매기수염]를 한 가닥씩 뽑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상속회가 가늘어졌다. 용두[용마루·용머리]의 길이는 7척가량이었으며, 용목의 굵기는 1~1.5척 되었다. 곁줄의 굵기는 5㎝쯤 되었으며, 칡을 합해 묶었다. 이렇게 꼰 줄의 한쪽 길이가 70~80m였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마을, 2009.9.21, 이창식

뗏목

황포돛배

암수줄과 용두목

줄 옮기기

연행 공간은 남한강변의 공터를 삼았다. 이곳을 흔히 '줄터'라고 불렀다. 편은 동과 서로 나누었다. 동편은 동계와 내계를 아울러 구성하였으며, 서편은 서계 단독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동남서녀(東男西女) 및 남청여홍(男靑女紅)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동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각 편에서 두세 명의 편장을 선출하였고, 이들 가운데에서 도편장을 선출하였다. 줄다리기 경합에 앞서, 이장[구장] 및 마을원로가 주축이 되어 약식의 당고사를 지냈다.

줄꾼들이 도편장의 지휘에 따라 일정 지점까지 이동하여 양편이 마주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용두를 걸었다. 양편의 줄꾼들이 어느 정도 다가서면 한 편의 도편장이 '술렁수'를 띄웠다. 이때 상대편에서는 "꼴레꼴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암줄과 수줄이 처음으로 맞닿게 되면 양편의 줄꾼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이런 과정을 보통 세 번 거치고 나서야 "줄을 걸자"는 도편장의 구호가 떨어지며, 이어 "눕혀! 당겨!" 하는 등의 지시에 따라 용두를 걸게 된다. 양편의 승강이가 때로는 석전(石戰)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남성을 상징하는 동편[동계와 내계]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더라도 줄꾼들은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다. 더욱이 승벽이 매우 심해 동편은 "서편은 동에 똥물 먹고 죽어라!", 서편은 "동편은 서에 똥물 먹고 죽어라!"며 서로 상대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여성들도 끌려가지 않기 위해 치마폭에 자갈을 싸안으면서까지 악착같이 줄을 당길 정도였다. 줄의 움직임에 따라 도편장이 휴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때 불리한 쪽에서는 경기 지역이나 강원 지역에 청병을 하기도 하였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그대로 두어 장마에 용처럼 떠내려가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東國文獻備考,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목계별신제 조사연구(이창식, 충주문화원, 2004), 목계 부흥당 당고사(이노영, 전통문화발굴, 예성문화동호회, 1994), 목계의 정신과 문화(김경렬, 목계향우회, 2002), 목계지역의 민속고(류덕균, 중원어문학 1,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6), 중원의 역사와 문화유적(김현길, 청지사, 1984), 충북의 민속문화(이창식, 푸른사상사, 2003), 한국민속종합보고서-충청북도(문화재관리국, 1978), 한국의 보부상(이창식, 밀알, 2001).

필자 이창식(李昌植)

치성비요(致誠備要)

성호참조 서울가양동성황제(459쪽)

정의 192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서 전승되고 있는 성황제 관련 기록.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 13쪽 분량이다. 크기는 가로 21.4㎝, 세로 28.5㎝이며, 두께는 0.4㎝으로 세로쓰기 되어 있다.

역사 전체 기록 가운데 산신제 축문과 성황당 축문이 기록된 쪽에는 한글축문을 적은 종이가 덧붙여져 있다. 이것은 한자로 쓰인 『치성비요(致誠備要)』의 본문에 작은 글씨로 한글음을 표기해 놓고 사용하다 추후 한글로 옮긴 축문을 덧붙여 사용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 맨 마지막 장은 잉크로 기록한 제수물목(祭需物目) 부분이 있는데, 치성비요와 글씨체가 다르고 사용된 필기구가 다른 것으로 보아 1921년 이후 가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용 『치성비요』의 전체 목차는 치성여비용변비연혁(致誠與費用辨備沿革), 목록(目錄), 제일(祭日), 행사위원(行事委員), 당주(堂主), 용수(用水), 행사절차(行事節次), 제수진설도(祭需陳設圖), 산신제축(山神祭祝), 성황당축(城隍堂祝), 제수물목(祭需物目), 제용기물(祭用器物) 등이다.

『치성비요』 가운데 치성여비용변비연혁은 제의의 방식과 제비 추렴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치성비요가 기술된 당시의 제의방식인 유교식 제의 이전에는 "무녀를 써서 빌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성황제가 무당에 의한 마을굿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비 추렴은 시기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졌다. 갑오년(甲午年)인 1894년부터는 제비의 추렴 대상이 읍내동(邑內洞)에 국한되었는데, 당시의 제비추렴은 각 가구마다 빈부의 차이 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졌다. 정사년(丁巳年)인 1917년 이후에는 백미와 찹쌀, 팥을 부유한 가구에서 거두고, 대동계(大同契)의 기금으로 돼지머리를 구입해 나머지 제수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빈부의 차이 없이 거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제비 추렴에서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 고려되고, 이것이 실제적인 제비 추렴에 적절하게 반영되기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제비의 추렴 대상에서 부정(不淨)이 있는 집은 일시적으로 제외되었으며, 제사를 마친 후에 제비를 거두었다. 여기서 부정이란 동제에서 일반적으로 부정한 대상이 되는 상(喪)을 당하거나 출산을 한 가정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사 후에 제비의 추렴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추렴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그 외 제비의 추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으로 예수교 등 타 종교의 신봉자들이 있다.

제일(祭日)은 성황제 날짜와 제일(祭日)의 연기에 대한 기록이다. 제일은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다. 만일 제의를 지내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마을에 상이 나는 부정한 일이 생기면 한 달을 미뤘다가 다시 지냈다. 부정한 일이 생겨 달을 넘겼다가 제사를 지내거나 아예 생략하기도 하는 것은 동제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죽음이 갖는 부정 관념과 연관을 지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상을 당하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3~4일 정도 상가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가양동의 경우 성황제를 지낼 무렵 출산 예정인 경우 마을 밖으로 나가 다른 곳에서 출산을 해야 했다. 현재는 출산과 관계된 일을 성황제와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정의 관념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부정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지는 상이 나는 경우 한 달을 미뤘다 다시 성황제를 지내는 원칙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행사위원(行事委員) 부분은 제관의 숫자와 자격에 대한 기록이다. 기록된 제관은 헌작(獻爵)위원, 독축(讀祝)위원, 집사(執事)위원, 간사(幹事)위원 등으로 분류하여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헌작은 제단에 나가 잔을 드리고 절을 하는 제관으로 대개는 마을의 유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맡았다. 또 독축이나 집사는 한학에 밝거나 제사 일을 잘 아는 사람이 맡으므로, 해마다 바뀌기보다는 비교적 고정적인 편이었다. 간사는 주로 소임이라 불리는 이들로, 마을을 다니며 제비를 추렴하거나 제수를 구입하고 제기 등을 챙기는 일을 맡았다. 또 제일 전에 우물이나 당, 당에 오르는 길 등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이들의 몫이었다. 이러한 제관의 자격을 부정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 국한시킨 것은 이들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직접 제사를 준비하여 지내는 제관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부정한 일이 없는 사람이란 개념도 제사 즈음에 부인에게 월경이 없거나 해산을 하지 않은 경우, 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 상갓집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역시 부정의 시간적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가양동성황제의 제관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천역사보존회와 노인정의 회원, 가양1동의 동장(洞長), 지역유지 등이 맡는다. 이렇게 제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고정화되어가거나 지역의 기관장과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등이 참가하는 양상은 여러 지역의 동제에서 두루 접하는 현상이다.

당주(堂主)는 당주의 선정 방법과 자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다. 당주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장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선정되었다. 부정한 일이 없는 사람이 당주의 자격요건으로, 당주는 부유한 집 가운데 매년 돌아가면서 수시로 선정하였다. 지금은 가양동 노인정에서 제물 일체를 장만하거나 부녀회에서 맡기 때문에 당주를 선정하지 않는다.

용수(用水)는 당우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듬물로 불리는 당우물은 향교의 우측편으로, 성황산 아래의 골짜기에 있는 것을 쓰고 있다. 본래 깊이는 70~80㎝였다. 성황제의 제물 일체는 이 우물을 이용하여 장만하였다. 제사 전날 아침 일찍 우물을 청소하고, 제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우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

치성비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
2005.11.2, 오문선

이 우물의 관리는 가양동 노인정에서 맡아 왔다. 지하에 집수시설(集水施設)을 마련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로 개발하여 사용해 왔으나 식수로 부적격판정을 받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당우물로서의 역할은 사라졌다.

행사절차(行事節次)는 제의의 진행과 제의 후 음복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성황제는 유교식으로 진행되며, 산신제 후 성황제를 드리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는 성황제로 통칭되는 제의가 실제로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현재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치성비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 2005.11.2, 오문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성황당 옆에 설치된 천막 아래서 음복이 진행되었다. 성황당에 가지고 올라왔던 제물은 당 아래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 줄 반기용떡은 성황당으로 가져오지 않고 노인정에 두었다가 나누어 준다.

제수진설도(祭需陳設圖)는 제수와 제물의 차림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다. 소개된 제물은 떡, 메, 정화수(청수), 후추차, 산자, 식혜, 탕, 과일(세 접시), 채(나물), 돼지머리, 두부이다. 진설도 밑에 부기된 내용에 의하면 산신제와 성황제의 제물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산신제에는 돼지머리나 쇠머리를 진설하지만 성황제에는 돼지머리나 쇠머리 대신 두부를 진설하는 점이다.

『치성비요』의 진설도에 소개된 성황제의 제물 가운데는 육류에 해당의 제물이 없다. 이것을 통해 성황제에 모셔지는 신령인 도당할머니가 제물을 '소로 받는' 신령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기를 제물로 받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육으로 받는' 표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말로, 고기 대신 채소 등의 제물을 받는 신령임을 뜻한다. 2004년 성황제의 경우 제물은 돼지머리, 쇠고기적, 떡, 메, 포, 청수, 과일(5종류 5접시), 산자, 다시마튀각, 식혜, 탕, 누름적, 술 등이었다. 제물진설도에 등장하는 두부적이나 후추차가 현재는 제물로 오르지 않고, 누룩으로 하루 전에 담갔다 걸러 쓰던 술도 막걸리를 구입하여 대신한다.

이후 축문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산신제축(山神祭祝)과 성황당축(城隍堂祝) 두 가지이다. 산신제와 성황제 모두 한문으로 쓴 것과 한글로 옮겨 쓴 두 종류이다. 두 종류의 축문 모두 전문을 한글로 옮겨 적은 종이를 덧붙이고 이후 축문의 전문(全文)이 실려 있다.

그 외 제수물목(祭需物目)과 제용기물(祭用器物)의 부분이 있는데 각각 백미(白米)를 비롯한 제수물목 21건과 수통(水桶) 외 제용기물 21건에 대한 기록이다.

의의 『치성비요』는 제사의 연혁과 제의절차, 제수물목, 제관, 당우물, 축문, 제물의 진설, 제사용 기물 등 성황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지역

사례로서 성황제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기록으로서뿐 아니라 성황제 위상의 변화와 제비의 추렴 양상, 의례 형태 등의 변화를 담고 있어 성황제의 역사와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자료이다.

참고문헌 **강서구 가양동 성황제 관련자료** 『치성비요』(오문선, 도시역사문화 3, 서울역사박물관 연구논문집, 서울역사박물관, 2005), **고을수령의 국가제사, 마을제사가 되다**(서울역사박물관, 2005, 기록영화).

필자 **오문선(吳文仙)**

침호두(沈虎頭)

정의 호랑이 머리를 침수시키는 기우법.

내용 침호두는 용의 형상물을 만들거나 용을 대신하는 생물체를 동원하지 않은 채 용이 거하는 처소에 호랑이 머리를 집어넣어 용호상박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잠연해 있는 용을 승천하도록 자극하는 의례이다. 이에 따라 호두(虎頭)는 용신을 위무하는 희생제물이라기보다 용신을 자극하는 대항적 주물(呪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용의 움직임에 따라 구름도 일어난다는 믿음을 전제로 부동의 잠룡을 일으키기 위해 용이 선호하는 것으로 유인, 용이 꺼리는 것으로 위협, 용의 처소를 더럽히는 부정화의 방식 등이 기우제로 활용되었다. 침호두는 용이 꺼리는 적대적인 맹수를 이용해 위협하는 두 번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오잡조(五雜組)』 권9 물부(物部)1에는 "사나운 동물들은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중에 잠겨 있는 용에게 호랑이 머리를 투척하면 반드시 용이 경악과 분노로 용솟음친다. 그래서 이미 서역인들은 우물 옆 나무에 사자를 매달아 바치기도 한다. 사자는 곧 이리저리 움직이며 괴로워한다. 잠시 뒤에 비바람이 불고 어두워지면서 용이 우물로부터 날아오른다. 이는 사자와 용이 서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랑이(虎頭, 虎骨) 또는 사자가 용을 위협하는 맹수로 이용될 수 있었겠지만 동아시아의 기우제 전통에서는 호두(虎頭)가 활용되었다.

침호두의 기우법은 1416년(태종 16)의 사례에서 등장한다. 당시 침호두를 거행한 장소는 한강이었으며, 이후에는 한강 이외에 박연(朴淵)과 양진(楊津)에서도 거행되었다. 조선 전기에 이미 한강·양진·박연 등지에서 국행기우제의 일환으로 침호두를 실행하는 것이 공식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용지(龍池), 용연(龍淵), 용소(龍沼), 용추(龍湫), 용택(龍澤) 등지에서도 침호두가 거행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밀양의 구연(臼淵), 함안의 도장연(道場淵), 은산 진악산(進樂山)의 석혈(石穴), 고산의 용연, 홍천 가리산(加里山)의 용연, 맹산의 원지(圓池) 등지에서도 가물 때 침호두를 거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확립된 국행기우제의 12제차 가운데 제6차에 한강의 침호두가 편제된 이래 조선 말까지 한강의 침호두가 지속적으로 거행되었으며, 20세기 초엽까지도 지방의 용추에서 침호두를 설행한 사례가 『기어(紀語)』 1928년 7월 10일 기록에서 확인된다.

침호두에 쓸 호랑이를 단시간에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간혹 호랑이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이미 사용한 썩은 호두를 다시 쓰기도 했으나 제물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침호두에 사용하는 호랑이 머리는 용신을 위협하는 매개물이지만 유교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경건한 희생제물로 간주하려 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토룡기우, 화룡기우, 석척기우 등이 의례 경건주의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축소되거나 개정된 것에 비해 침호두는 국가와 지방의 기우제에서 한발을 타개하는 기우법으로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祈雨祭謄錄, 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최종성, 종교학연구 16,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7),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석전·기우·안택**(조선총독부, 1938), **용부림과 용부림꾼-용과 기우제**(최종성, 민속학연구 6,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필자 **최종성(崔鍾成)**

칼판고사

키

칼판고사 제의

키 제구

칼판고사

상호참조 보령외연도당제(321쪽)

정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의 당제에서 희생인 소를 도살한 뒤 분육(分肉) 과정에서 사용한 나무 도마에 지내는 고사. 부정(不淨)이 들기 쉬운 소의 도살과 해체, 조리 과정을 무사히 끝낸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뜻을 지닌다.

내용 보령외연도당제는 상당제와 하당제로 구성된다. 상당제에서는 산제와 장군제, 하당제에서는 용왕제와 안당고사를 각각 지낸다. 장군제는 고대 중국 제(齊)의 장수(將帥)인 전횡(田橫)의 사당에서 지낸다. 이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소이다. 당제에서 소는 '지태'라고 불린다. 그 뜻은 잘 모르지만 신령에게 바칠 소이기에 종교적 존칭(尊稱)으로 그리 부른다.

산제당에서 '노구제'와 '기미제'를 마치면 지태를 잡기 시작한다. 노구제는 노구솥으로 지은 메를 바치는 간단한 제사, 기미제는 떡메로 치고 떡살로 찍어 만든 일종의 절편을 올리는 제사이다. 지태는 '바깥화장(火匠)'이라고 명명(命名)된 소만을 특별히 다루는 제관들이 잡는다. 지태는 산신제를 끝낸 다음에야 잡을 수 있다. 이때 바깥화장들은 반드시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해야 한다. 지태가 도살되면 피와 사지(四肢), 우족(牛足), 쇠머리, 쇠가죽, 유통[乳筒, 쇠꼬리·고환(睾丸)·신(腎)], 내장(內臟, 간·처녑·지라·허파 등)을 분육하여 부위별로 일정한 조리 기준에 따라서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은 굽는다. 물론 내장 일부는 날것으로 마련한다. 이렇게 준비된 육고기는 산제당과 전횡장군사당 등에 조리가 되는 대로 수시로 진설한다.

지태를 잡아 그것을 삶고 구워내는 일이 끝나면 바깥화장은 칼판고사를 지낸다. 칼판은 통나무로 만든 도마를 일컫는다. 지태를 제물로 올리는 일이 큰 탈 없이 잘 끝났기 때문에 칼판을 깨끗이 닦아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칼판 앞에 구운 고기와 날고기를 한 그릇씩 진설하고 바깥화장이 헌작(獻爵), 재배(再拜)하는 정도의 간단한 제사이다. 칼판고사를 지내고 나서야 곡물을 다루는 안화장이든 육고기를 다루는 바깥화장이든 비로소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전횡장군사당에 제상을 차리고 칼판고사를 지내면 마을 사람들은 당에 올라가 장군제를 참관할 수 있고 당 음식도 먹을 수 있다. 밤새 피비린내 나는 지태의 도살과 해체, 굽고 삶아내는 긴 과정을 거쳐서 여러 제당에 진설을 끝내면 이윽고 먼동이 터 온다. 오래전에는 이때 즈음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칼판고사 지낸 장소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충남 서해 도서지방의 당제 연구-외연도를 중심으로**(이필영, 국사관논총 82, 국사편찬위원회, 1998).

필자 **이필영(李弼泳)**

키

정의 곡식을 까불러서 쭉정이를 가려내는 농기구로서 기우제 때에 사용하는 도구.

내용 키는 산죽이나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다. 전래 농업사회에서 키는 필수품이기에 이에 따른 여러 민속들이 생겨났다. 정월대보름날 키에 밥과 채소를 담아 소에게 먹이면서 무엇을 먼저 먹는지에 따라 한 해 어떤 곡식이 잘 될지를 점친다. 키는 곡물을 다루는 기구이므로 곡식을 까불 때에는 반드시 집 안쪽을 향해서야 한다. 바깥쪽으로 서서 까부르면 복이 나간다고 한다. 키는 집의 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엎어놓지 않고 반드시 배가 위로 향하도록 젖혀 놓는다. 엎어놓으면 곡식이 땅으로 떨어지듯이 집안의 운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아이에게 키를 씌워 이웃집으로 소금을 얻어오라고 보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 도구로도 사용하였다. 기우제는 하지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제향한다. 마을 단위로 제향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어떤 큰 산이나 바위, 도랑, 샘 등에서 몇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지내기도 한다. 가뭄이 들면 마을의 아낙네들이 강가나 냇가로 가서 키를 씻으며 여러 행위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키 씻기에 대해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도구라서 항상 부정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씻으면 저절로 우물물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관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즉 키에 묻은 부정물을 씻으면 그 부정물이 성지인 강가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해 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신을 화나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하려는 방법과도 통한다. 또한 "키는 별자리의 28수 중에서 용꼬리에 해당한다. 꼬리자리는 28수의 8번째로 창룡칠숙의 마지막 자리이며 키를 닮은 모양을 하고 있다. 따라서 키로 물을 퍼내는 것은 용꼬리를 물에 넣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하며, 용꼬리를 씻어서 물을 내리게 하려는 교감주술로 보기도 한다. 키로 물을 퍼내는 것은 비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으로 보는 유감주술로, 키 씻기는 키가 갖고 있는 주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집 어귀에 키를 걸어 두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미신이 있는데, 이처럼 키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다고들 생각한다. 따라서 씻는 행위는 그러한 기능을 쇄신하기 위함이다. 여성끼리만 참가하는 이유는 우물이 여자들의 공간이고 또 키도 여자들이 관리한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지역사례 부녀자들은 마을 부근의 도랑이나 냇가에 가서 키로 물을 까부르며 서로 물을 끼얹고 옷을 적시며 한바탕 논다. 키로 물을 까부르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다. 특히 장난기 있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벌거벗고 키질을 하며 익살을 떨기도 하며, "비가 오지 않아 속옷을 빨아 입지 못하니 제발 비 좀 내려 주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한다.

충남 금산 양전리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강변에 가서 키를 까부르며 비가 오기를 기원하였다.

강원도 고성군 백촌리 기우제에서는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할머니들이 부정을 타야 비가 온다고 하여 개울물을 떠다가 홀딱 벗고 키로 물을 까불렀다. 주로 밤중에 하였는데, 30여 년 전까지도 하였다. 운암천(과거의 진천)에서 주로 하였고 용수골에서도 하였다.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2리 기우제에서는 날이 가물어 견디기 힘들 지경이면 혼자된 할머니들 세 분이 밤에 키를 가지고 선유담 가 방축에 가서 물을 키에 담아 까부른다. 이때 주의할 점은 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웃으면 역효과가 난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 우스운 상황이라 혹시라도 웃음이 나올까 봐 입을 틀어막기도 하였다. 혼자된 할머니들은 부정이 없다고 하여 그분들이 간다. 선유담가 방축 위에 있던 조그만 못은 지금은 없어졌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4리의 삼부연에는 개적심(개의 피로 바위를 적신다는 기우제)과 키질을 하면서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삼부연 안으로 수없이 투석을 한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을 위시한 몇 개 면의 마을에서는 가뭄이 들면 집집마다 짚을 가져다가 새끼줄을 꼬아서는 농처럼 생긴 농막골 용바위로 간다. 그리고 바위를 새끼로 감고 여자들만이 잡아당긴다. 용바위 속에는 장군의 금은보화가 들어 있다고 여긴다. 이때 한쪽에서는 키로 물을 까부르고 속곳을 뒤집어쓰거나 빨래를 하기도 한다.

키질하는 아낙네
강원 정선군 동면 호촌리, 2009.10.28
이한길

참고문헌 **강원고성군개발촉진지구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이한길, 관동대학교박물관, 2008), **금산의 마을공동체 신앙**(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0), **기우제와 지역사회**(임장혁, 민속원, 1999),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김의숙, 집문당, 1993), **한국의 농경문화 1**(국립민속박물관, 2000).

필자 **이한길(李漢吉)**

제의
탑제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
태백산천제
태백황연동유령제

제의장소
태백산천제단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통영삼덕리마을제당
통영최영장군사당

신격
테우리신

신체
통영문화동벅수

제물
통북어

제구
터줏가리

자료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문서

용어
퇴송

탑제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문서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
태백산천제
태백산천제단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태백황연동유령제
터줏가리
테우리신
통북어
통영문화동벅수
통영삼덕리마을제당
통영최영장군사당
퇴송

탑제(塔祭)

정의 마을의 주신(主神) 또는 하당신(下堂神)으로 마을 어귀나 그 주변에 원뿔대 형태의 돌탑을 조성하고 음력 정초에 모시는 동제(洞祭)의 한 종류. 탑은 서낭당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돌무더기 계통의 신앙 대상이다. 탑제는 불교 및 풍수지리와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형성·전개되어 왔다.

내용 마을 어귀에 세워진 원뿔대 모습의 돌탑을 학계의 일부에서는 '누석단(累石壇)', '장생표탑(長生標塔)' 등으로 일컫지만 실제 마을에서는 단순히 '탑'이라고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거리탑(거리제 탑, 거리제 잡숫는 탑 등)', 영남지방에서는 '조산(造山)'이라고도 부른다. 탑이 세워져 있는 곳은 탑거리·탑선거리라고 부르며, 탑에 대한 제사는 탑제·탑고사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거리제, 수살매기제라고도 부른다.

탑은 거의 막돌을 이용해 원뿔대 모습으로 쌓아 올린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작은 돌이나 진흙·시멘트 등을 써서 탑 안을 채우기도 하며, 돌과 돌 사이의 틈새를 메워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탑은 기본적으로 기단부(基壇部), 탑 본체, 탑윗돌, 때로는 내장물(內藏物)의 네 요소로 구성된다. 일부 마을에서는 탑의 바로 앞에 선돌을 양쪽으로 세워 놓기도 하고, 탑의 한쪽 측면에 판석으로 짜서 만든 감실(龕室)을 조성하기도 한다. 탑제를 지낼 때 감실에 불밝이쌀을 놓고 촛불을 밝힌다.

기단부에는 탑을 더욱 견고하게 앉히기 위해 땅을 단단하게 다지거나 막돌을 한두 층 땅 위에 고르게 깔아서 그 위에 탑을 축조한다. 간혹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어귀에 있는 야트막만 언덕이나 산기슭을 기단부로 이용하기도 하며, 아예 마을 어귀의 장군바위 같은 큰 암반을 기단부로 하여 탑을 쌓기도 한다.

탑도 대개 마을의 다른 신앙 대상물처럼 마을이 형성될 때 조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탑은 무당이나 지관(地官) 등의 권유에 의해 세워진다. 지관은 풍수론에 의거해 재앙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 무당은 흉액을 막기 위하여 탑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세운다.

곧 마을을 풍수지리 입장에서 보고 어느 한 방위에서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거나 어느 한 지형이 허(虛)하다면 그러한 장소에 탑을 쌓는다. 마을 앞산에서 살기(殺氣)나 화기(火氣)가 뿜어진다든지 마을 앞이 아주 허전할 정도로 터져 있다면 이를 비보(裨補)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고 탑을 쌓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물이 자꾸 나가게 되고 재앙이 들끓는다고 한다. 이른바 조산비보(造山裨補)나 수구(水口)막이를 위한 탑이다.

탑은 대개 마을 어귀에 남녀를 구별하여 2기를 쌓는다. 이들 탑은 할아버지탑과 할머니탑이라고 불린다. 대체로 할아버지탑이 할머니탑보다 크게 조성된다. 그러나 간혹 1기만 쌓기도 하며, 마을 뒤편에 조성하기도 한다. 영남지방의 탑인 조산의 경우 마을 어귀는 물론 마을과 들 또는 들과 산이 만나는 경계 지역에도 흔히 세운다.

탑을 쌓을 때에는 마을 사람 모두의 정성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어느 집 하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고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탑을 쌓은 보람도 있으며, 탑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도록 버텨낼 수 있다.

탑제 전북 진안군 부귀면 삼봉마을, 2000, 서해숙

전남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금상마을, 2004.2.20, 차정환

탑제 준비

탑과 솟대

마을에 따라서는 탑을 쌓을 때 탑 안에 종교적 상징성을 지니는 내장물을 봉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풍농을 희구하기 위해서는 오곡 단지, 밥 걱정 없는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는 솥과 밥주걱, 온갖 재운을 긁어들이라는 뜻으로는 쇠스랑, 액운을 물리기 위해서는 부적을 넣는다. 이 밖에도 마을의 형국이 지네여서 불안하다면 그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금두꺼비를 봉안하는 등 마을 형편에 따라 봉안물은 다양하다.

마을 사람들이 합심 협력하여 탑 안에 자신들이 염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내장물을 넣고, 진흙과 시멘트를 사용해 큰돌과 작은돌을 적당히 원뿔대 모양으로 쌓아올리고 나서 맨 꼭대기에 탑윗돌을 얹는다. 탑윗돌은 탑의 정상 부위에 세운 선돌을 말한다.

모든 마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할아버지탑에는 가늘고 길며 끝이 뾰족한 탑윗돌을 올리며, 할머니탑에는 상대적으로 짧고 펑퍼짐하며 끝이 둥그런 탑윗돌을 세운다. 탑윗돌은 탑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탑을 쌓고 탑제를 지내고 나서야 마을의 제일 어른이 탑 위에 탑윗돌을 세운다. 탑윗돌 자체가 '마을의 어른'이라고 하여 탑제를 지내기 전에 여러 겹의 금줄을 둘러 특별히 모시기도 한다. 대개의 마을에서는 탑제를 지낼 때 탑윗돌에 따로 폐백을 봉헌한다. 이를 흔히 '옷 입히기'라고 칭한다. 이 밖에도 마을의 소망에 따라 두꺼비돌, 거북이돌, 오방신장기 등을 탑 위에 올리거나 세우기도 한다.

탑제의 절차는 장승제나 신목제(神木祭) 등 다른 마을 어귀의 제사와 비슷하다. 제관은 제일(祭日)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계하고 마을 어귀의 탑과 그 주변을 말끔히 청소한다. 저녁 황혼에 땅거미가 대지를 감싸기 시작하면 탑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서두른다. 꽹과리·장구·북·징을 앞세운 풍물패가 요란하게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탑제의 시작을 알리면 풍물패·제관·유사 등 제물을 나르는 사람들을 선두로 하여 그 뒤로 마을 사람 모두가 행렬을 지으며 탑 부근으로 간다.

탑 앞에 제관과 동민이 모두 모이게 되면 풍장 소리는 일단 멈춘다. 제관이 진설하고 분향, 헌작한 다음 재배하고 소지를 올린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하염없이 손을 비비거나 두 손을 모은 채 탑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망을 기원

한다.

탑제에는 불교적 분위기가 짙고 부녀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점이 특징적이다.

어떤 마을은 탑제를 지낼 때 부녀자들이 초를 들고 나와 '나무아미타불'을 외며 탑 주위를 돌면서 집안과 아들이 잘되기를 기원한다. 이때 탑에는 집안의 아들 수대로 촛불을 밝혀둔다.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초를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이다. 또한 마을에 따라서는 탑의 금줄 사이사이에 '불(佛)' 자를 쓴 길지를 끼운다.

탑제는 돌을 쌓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신앙행위로 여기며, 그렇게 쌓아올린 대상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한국 민족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낭당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돌무더기도 그러하다. 돌무더기 위에 장승이나 솟대·미륵을 앉히는 관습, 무당을 비롯하여 각 개인이 조성하여 모시는 돌탑, 불교사찰 입구 또는 등산로 주변의 고목이나 바위 위에 쌓인 돌들, 장승의 머리 위에 조약돌을 올려 쌓는 풍습 등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돌을 쌓아 신앙 대상으로 하는 전통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탑에 대한 원초적인 신앙은 그후의 여러 종교와 습합된다. 여기에서는 몽골을 비롯한 북아시아 초원지대의 '오보(oboo)'와 계통을 함께 하는 돌무더기신앙, 비보 탑으로 대표되는 풍수신앙의 요소, 환히 촛불을 밝히고 탑돌이를 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불교적 요소까지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여러 종교 요소는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훌륭히 조화되어 탑신앙을 구성한다. 이른바 '한국 종교의 혼합성'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금산의 마을공동체 신앙**(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금산문화원, 1990), **금산의 탑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2002),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조산지-합천 민속지 연구 2**(이남식, 두산김택규박사 화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간행위원회, 1989), **충남 금산의 탑신앙 연구**(이필영, 백제문화 21,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89), **충남 금산지역의 유적보고**(정동찬, 충북사학 1, 충북대학교사학회, 1987).

필자 **이필영(李弼泳)**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문서 (太白山四吉嶺山靈閣稧文書)

상호참조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921쪽)

정의 19세기 후반부터 태백산사길령산령각 내에 게판(揭板)된 17개의 중수(重修) 및 신입기(新入記)를 적은 현판과 산령각계 계원 및 산령각제를 주관한 계수·유사 등과 함께 고사하기(告祀下記) 등을 작성한 문건 일체.

역사 태백산 사길령을 오가며 장사하였던 보부상들이 영로(嶺路)의 안전과 장사의 번성을 위해 산령각을 세우고 매년 음력 4월 15일 제사를 지냈다. 이후 보부상이 해체되고 이들에 의한 상품 교류가 축소되었어도 태백시 혈리에 사는 주민들이 산령각계라는 이름으로 보부상들이 남긴 재산을 관리하고 산령각제를 매년 지내고 있다.

태백산사길령산령각 내에 있는 중수 현판과 사길령 산령각계에서 보관 중인 문서를 중심으로 산령각계(山靈閣契)와 당고사(堂告祀) 운영에 대한 연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령각 중수와 관련한 연혁을 중수 현판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오래된 현판은 1888년에 작성한 「상원무자사월십오일태백산산령각중건부조기(上元戊子四月十五日太白山山靈閣重建扶助記)」인데, 삼척을 비롯하여 경상도 봉화, 안동, 황해도 해주, 평안도 평양 등 전국 각지에서 온 보부상들이 중수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계축년(1913)에 계수(稧首) 박영수(朴永秀) 외 4명의 계수와 그 외 4명을 합쳐 9명이 만들어 게판(揭板)한 현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령각이 행로의 안전 등을 위해 중요함을 적었다.

경신년(1920)에 중수하였음은 「경신사월십오일사길령령각중수시기부열명기(庚申四月十五日四吉嶺靈閣重修時寄附列名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때 계수와 유사가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계수를 포함하여 계원 169명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1920년에 박영수(朴永秀), 민영규(閔永奎), 김덕률(金德律) 3명이 중수에 관여하였음을 밝힌 「대정구년경신사월십오일사길령령각중수기(大正九年庚申四月十五日四吉嶺靈閣重修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1920년 중수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해 뒤인 신유년(1921)에 산령각을 1920년에 중수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신유년사월십오일령각수리기념(辛酉年四月十五日靈閣修理記念)」이란 제목의 현판을 걸었는데, 현판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계수와 계원들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산령각을 '영각(靈閣)'으로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제당은 1999년 9월 20일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때 중수를 주도한 직책은 반수·계수·유사였음을 게판(揭板)된 현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중수 현판과 함께 1923년, 1924년, 1929년, 1935년 4월 15일에 신입 회원들을 영입한 것을 기념한 현판인 「계해사월십오일신입기(癸亥四月十五日新入記)」, 「갑자사월십오일신입기(甲子四月十五日新入記)」, 「기사사월십오일신입기(己巳四月十五日新入記)」, 「을해사월십오일(乙亥四月十五日)」이 걸려 있어 당시 회원으로 가입한 명단을 알 수 있다. 이 현판을 통해 당시 신입회원을 받아들인 계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신입 회원들은 입회비로 5냥(兩)을 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각종 현판과 함께 사길령 산령각계에서 보관 중인 문서를 통해 사길령 산령각계의 운영에 대한 연혁을 알 수 있다. 먼저 경오년(1870)에 작성된 「태백산산령각수계계안성첩(太白山山靈閣修稧稧案成帖)」에는 당시 만든 규약과 제의를 주도한 직

태백산산령각수계계안성첩(太白山山靈閣修稧稧案成帖)
강원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계 계장댁 2010.6.2. 김도현

천금록 내용
강원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계 계장댁, 2010.6.2. 김도현

책과 명단, 제문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870년대에 사길령 산령각제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었고, 이때 만들어진 제의 관련 직책은 계수, 공원, 유사(유사, 도유사, 별유사)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제의 담당 직책과 규약이 지금까지 잘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자년(1768)에 만든 「산령각중수시부조열명록(山靈閣重修時扶助列名錄)」을 비롯하여 1892년에 작성한 「태백산령각계원명록(太白山靈閣稧員名錄)」, 1898년부터 작성한 「태백산령각계원각록(太白山靈閣稧員各錄)」, 1909년부터 신입계원을 중심으로 작성된 「신입기」 등을 분석한 결과 1969년까지 사길령이 연결된 삼척과 봉화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길령 산령각계 운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신년(1908)에 만들어 기유년(1909)에 가입한 명단을 적기 시작한 『천금록(千金錄)』에는 고사(告祀)에 참가한 계원들의 거주지에 대한 기록을 기유년(1969)까지 적었다. 이후의 기록에는 계원들의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지역 주민 위주로 산령각계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서에 찍은 도장이 1921년부터 '사길령상민계수지인(四吉嶺商民契首之印)'이라 새겨진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공식 명칭이 '사길령상민계(四吉嶺商民契)'였으며, 사길령을 오가던 상인 집단이 계속 사길령 산령각제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금록』에는 매년 음력 4월 15일 당고사를 치렀던 조직과 계원의 성명, 갹출한 금액, 거주 지역 등을 기록하였다. 이를 가로·세로 각 2㎝ 정방형의 '사길령상민계수지인(四吉嶺商民契首之印)'으로 확인하였다. 이 도장으로 확인한 것은 경오년

(1990)까지이다. 지금은 '태백시혈동새마을회인'이라 새긴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길령을 오가던 상인들의 활동이 쇠퇴함에 따라 사길령 산령각계는 사길령 아래에 있는 태백시 혈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새롭게 작성한 『천금록』에 의하면 계수, 계장, 유사(12명), 별유사(2명) 외에 신입회원 18명을 적었는데, 그중에는 각종 법인과 태백시의회 차원에서도 신입 회원으로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길령 산령각계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사길령산령각 내 현판과 사길령산령각계에서 보관 중인 문서들을 통해 계원들의 규약과 간부, 제의를 준비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과 신입회원, 공동기금을 빌려 주어 이식한 사례 등을 알 수 있다. 문서에 나타난 특징적인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기록을 통해 제의를 주관한 계수, 공원, 도유사, 별유사 등의 직책을 매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시기는 항상 산령각제를 마친 후 다음해 담당자를 뽑아 임명하였는데, 이는 이들 조직이 삼척과 봉화의 장시를 관장하기보다는 산령각제 운영을 통한 결속을 다지는 것을 중시한 조직이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사길령 산령각에서 고사를 지낼 때 준비한 각종 제수(祭需) 비용을 적은 것이 「고사하기(告祀下記)」이다. 경인년(1890)에 작성한 「고사하기」를 보면 제물로 쓸 소 한 마리 값이 29냥 5전 등 총 55냥 6전 7푼의 경비로 제수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건을 통해 당시의 제사 규모와 제수의 종류를 대강 알 수 있고, 또한 당시 물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사길령 산령각계에는 보유 자금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등 자본 증식에도 관심을 가졌다. 당시 계원이 아닌 사람도 돈을 빌릴 수 있었으며, 조직을 이끌었던 계수(稧首)도 돈을 빌려 쓴 기록이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급기(流給記)를 보면 일 년 동안 급채(給債)해 준 것을 거두어들이고 다시 돈을 빌려 주어 점점 기금을 늘려 나가는 과정을 해마다 기록하였다. 이 기록을 계수와 임원들이 수결을 하여 확인하고 인계인수하면 이듬해 임원들이 그 돈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길령산령각계에서 보유한 토지가 점차 늘어 20,000여 ㎡에 이르고 있는데 이미 100여 년 전에 구입한 땅이라고 한다. 문건 속에는 도조(賭租)를 준 기록이 많고 지금도 소유한 땅을 배추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도지를 주고 있다. 신유년(1921)에 도지를 준 기록에 의하면 각처에 토지가 있어 연간 140냥이 넘는 도조를 거두어들이고 이자수입 50여 냥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아 재정 기반이 매우 건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풍부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삼밭을 비롯한 여러 곳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소작인의 가옥을 새로이 건립하여 주기도 하였음이 각종 기록에 나타나 있다.

다섯째, 사길령산령각계문서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유사(有司)나 공원(公員) 등의 직책에 임명되어 산령각계 운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길령산령각계문서 가운데 「계원열명좌록(稧員列名座錄)」에 최명숙(崔明淑), 김진옥(金振玉), 이치옥(李致玉), 김주옥(金珠玉) 등의 이름이 보이고 그 밖의 문서에도 안화숙(安和淑), 박문숙(朴文淑), 손숙이(孫淑伊), 이화지(李花枝) 등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 울진12령새재성황사 내에는 일제강점기 이후 여성들이 상단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수 현판이 성황사 내에 걸려 있다. 이것으로 보아 보부상단이 해체된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각지에서 여성들의 행상단 참여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태백산령각계원각록(太白山靈閣稧員各錄)」에 보면 경자년(1900)에 박성화(朴聖化)가 산령각(山靈閣)에 화상(畫像)을 제작할 때 5냥을 부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예전에 산령각에 당신도(堂神圖)를 그려 모셨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산령각계를 운영하면서 '반수(班首)'와 '상민(商民)'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부상단이 해체되기 전에 전국 각 지역 장시를 배경으로 성장한 보부상단의 조직과 관련한 명칭인데, 사길령 산령각계에서 보부상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은 보부상단이 주도하여 운영한 전통을 잘 계승하겠다는 나름의 의지가 이와 같은 명칭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의 대부분의 고갯마루에 있는 국시나 제당에는 이곳을 지나는 행상들이 안전과 상업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 개인적인 치성을 드리는 예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울진과 봉화의 장시를 관장하였던 보부상단의 공식적인 조직에서 울진12령새재성황사 운영과 제의를 주도하였던 사례도 있다. 사길령산령각에서는 울진12령새재성황사 운영과는 달리 산령각제를 지낼 것을 목적으로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를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신입 회원을 받아들여 이를 바탕으로 산령각의 중수와 운영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보부상단이 해체되었어도 사길령을 넘나들며 장사를 하던 행상들이 사길령산령각계 운영에 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사길령을 통한 교역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어도 혈리를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고 지속적으로 신입 회원을 받아들여 산령각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추어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실들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사길령산령각계문서이다.

그리고 문서에 나타난 계원들의 출신지가 전국 각지에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태백산 사길령이 전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였던 보부상들의 주요 교통로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甲子四月十五日新入記**(1924), **庚申四月十五日四吉嶺靈閣重修時寄附列名記**(1920), **癸亥四月十五日新入記**(1923), **己巳四月十五日新入記**(1929), **己酉四月十五日 各有司錄**(1909), **大正九年庚申四月十五日四吉嶺靈閣重修記**(1920), **四吉嶺契中家垈文券**(1881), **四吉嶺新入稧金出入帳(1926)**, **壬午四月十五日 이후 문건**(1941~), **山靈閣重修時 扶助列名錄**(1888), **上元戊子四月十五日太白山山靈閣重建扶助記**(1888), **辛酉年四月十五日靈閣修理記念**(1921), **신입회원 下記**(~庚辰年 4월 15일까지), **乙亥四月十五日**(1935), **自辛酉四月十五日士吉嶺告祀時所用下記**(1921), **千金錄**(1908~), **千金錄(2005~)**, **太白山靈閣稧員各錄**(1898), **太白山靈閣稧員名錄**(1892), **太白山山靈閣修稧稧案成帖**(1870),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울진 12령 샛재[鳥嶺] 성황사와 보부상단**(김도현,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10),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문건 조사 연구**(김강산, 장시와 교통체계, 민속원, 2008),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제 연구**(신종원 · 노남호, 강원문화사연구 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8).

필자 **김도현(金道賢)**

강원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2009.2.22, 김도현

사길령산령각중수기(四吉嶺山靈閣重修記)와 신입기(新入記)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전경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 (太白山四吉嶺山靈閣祭)

상호참조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문서(918쪽)

정의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8통 2반에 위치한 고개 새길령(사길령, 신로치, 사길치)에 있는 산령각에서 지내는 제의. 이 산령각은 사길령을 오가며 장사를 하였던 보부상들이 고갯길의 안전과 장사의 번성을 위해 세우고 매년 음력 사월 보름날에 제사를 지냈다. 이후 보부상이 해체되고 이들에 의한 상품 교류가 축소되었어도 태백시 혈리에 사는 주민들이 산령각계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남긴 재산을 관리하고 이에 의한 수익금과 신입회원들의 입회비로 산령각제를 매년 지냄으로써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있다.

역사 태백산사길령산령각 내에 있는 중수 현판과 사길령산령각계에서 보관 중인 문서를 중심으로 산령각과 운영에 대한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오래된 현판으로 1888년에 작성한 「상원무자사월십오일태백산산령각중건부조기(上元戊子四月十五日太白山山靈閣重建扶助記)」에 따르면 삼척을 비롯하여 경상도 봉화 · 안동, 황해도 해주, 평안도 평양 등 전국 각지에서 온 보부상들이 중수에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산령각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백산산령각수계계안성첩(太白山山靈閣修稧稧案成帖)」(1870)으로 보아 1870년 이전에 산령각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20년에 중수하였으며, 최근에는 1999년 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사길령 산령각 중수에는 항상 산령각계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현판과 함께 사길령산령각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통해 사길령산령각계의 운영에 대한 연혁을 알 수 있다. 먼저 경오년(1870)에 작성된 「태백산산령각수계계안성첩」을 보면 1870년대에 사길령산령각제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었고, 이 때 만들어진 제의 관련 직책은 계수 · 공원 · 유사(유사, 도유사, 별유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사길령산령각제를 운영하는 직책과 방법 등이 이미 1870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잘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1921년부터 '사길령상민계수지인(四吉嶺商民契首之印)'이라 새겨진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길령을 오가던 보부상 집단의 명칭이 '사길령상민계(四吉嶺商民契)'였으며, 그들이 사길령산령각제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태백시혈동새마을회인'이라 새긴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보부상 집단이 쇠퇴함에 따라 사길령 산령각계가 태백시 혈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태백산령각계원각록(太白山靈閣稧員各錄)」에는 계원인 박성화(朴聖化)가 산령각 화상(畫像) 제작에 부조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사길령산령각에 산신령을 그린 당신도를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단종대왕의 화상이 제단 정면에 걸려 있다.

내용 사길령은 현재 태백시 소도동 혈리의 정거리에서 천평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날 강원도에서 경상도 춘양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 고갯길에는 산령각과 함께 국수당이 있으며, 신수로 모시는 엄나무가 있다. 조선 후기에 보부상들이 이 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안전을 기원하고 상업의 번창을 위해 산령각을 짓고 매년 음력 사월 보름에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먼저 제당 형태를 살펴보면 산령각은 디귿(ㄷ) 자형 토석혼축(土石混築) 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정면 두 칸, 측면 한 칸 규모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건물은 소나무 판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만들었으며, 정면에는 좌우 여닫이문을 달았다. 제당 정면 입구에는 '산령각(山靈閣)'이라 쓴 편액을 걸었으며, 내부에는 중수 현판을 비롯하여 각종 현판 17개가 걸려 있다. 제당 내부 정면에 제단을 일(一) 자 형태로 만들어 설치하였으며, 제단 위에 '태백산산령지위(太白山山靈之位)'라고 새긴 나무 위패를 모셨다. 제당 정면 오른쪽에는 단종대왕 등을 그린 당신도를 걸었다. 이는 무속인들이 모신 것이라 한다. 국수당은 산령각 옆에 있다. 예전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높이 약 1m, 폭 80㎝ 정도의 작은 규모이다. 예전에 당집이 없을 때 지나가는 이들이 고갯길의 무사 안전을 기원하며 이곳에 돌을 던져 만든 돌무더기이다. 이 사례는 구부시령이나 댓재 · 백복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단종대왕 당신도
강원 태백산 사길령
2009.2.22. 김도현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 강원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2009.2.22 / 2010.5.28, 김도현

태백산산령지위 위패와 단종대왕 당신도(2009)

제수 진설

분향

제관 음복

망료

소지 올림

제일은 매년 음력 사월 보름날 아침에 지낸다. 순서는 산령각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제를 지낸 뒤 제수 일부를 내려 옆의 엄나무 앞에 진설하고 술을 한 잔 올린다.

산령각 내부에 '태백산산령지위'라고 새긴 위패를 모셨다. 예전의 기록을 보면 산령각 외부 기둥에 '태백산산왕대신위(太白山山王大神位)'라 새긴 주련을 걸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사길령산령각에서 태백산신을 모셨음을 알 수 있다. 태백산산신령에게 국태민안(國泰民安), 우순풍조(雨順風調)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사길령산령각제 준비를 위한 제수 비용은 20,000여 ㎡의 토지 임대료와 이자 수입, 계원 신입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관은 예전에는 산령각계 간부들이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태백시장, 문곡 · 소도동장, 산령각제회 반수(班首) 등 지역 기관장을 제관으로 모신다. 제수 준비와 운영은 계장이 주도하며 유사들이 도와준다. 이와 함께 유교식으로 제의를 진행하기에 홀기, 축관, 알자, 집사를 임명한다.

산령제를 지내기 위해 준비한 제수로는 오곡, 쇠머리, 소의 염통과 간, 쇠고기 덩이살, 떡, 문어, 포, 미역, 김, 삼실과(대추 · 밤 · 곶감), 과일(수박 · 사과 · 배), 채소(미나리 · 콩나물 · 무) 등이 있다.

제수 준비는 산령각제를 지내기 하루 전날 계장댁에 모여 하며, 참례자들을 위한 점심 준비용 음식도 함께 준비한다. 이때 산령각계 반수와 계장, 유사 등이 모여 토지 임대료 및 기타 재정 상황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로 남겨 두는 작업을 한다.

제수를 진설하기 전에 제당 전면에 한지를 걸고 실을 위패에 두른다. 전면에 건 한지가 어떤 의미인지 산령각계원 중에서 아는 사람은 없지만 다른 지역 사례로 보았을 때 태백산산신령의 신체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의 과정은 유교식 의례를 따라 강신-참신-초헌례-고축-아헌례-종헌례-음복-송신-소지-음복례 순으로 진행된다. 제관들의 음복례가 끝나면 참례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지를 올린다. 기본 절차를 마치면 제수 가운데 일부를 내려 엄나무 앞에 진설하여 술을 올리고 재배한다. 이는 수부를 위한 의례로 볼 수 있다.

사길령산령각에서 제의를 진행하면서 읽는 축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維歲次 庚寅 四月 甲子朔 十五日 戊寅
太白市 副市長 金鎭滿 敢昭告于
太白山靈神位前 伏惟尊靈
代天宣化 鎭我一方
下民加護 居安而樂
惟靈之賜 食飽而援
惟靈之捕 導民至德
加民惠澤 士農工商
無非共獲 一里洞屬
無汝無我 新綠肇夏
涓吉報祀 牲酒雖簿
夙夜摩寧 陟降之靈
度鑑愚衷 望垂默佑
克有始終 伏惟 尙饗

소지를 마치면 제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돌아갈 때 쇠고기 한 덩이와 떡을 나누어 준다. 그리고 산령각제를 마친 후 당해 연도 고사에 대한 내용들을 『천금록(千金錄)』에 작성한다.

지역사례 주요 고개를 오가며 장사를 한 보부상단 관련 산령각(성황당)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여러 고갯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당이다. 이들 제당 가운데 일부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이를 오가는 보부상(이후 선질꾼)들이 제당이 훼손되면 돈을 모아 중수하였고 매년 제의를 주도하였다. 경북 울진군 후포면 다투고개에 있는 산신각, 태백산 사길령산령각, 원주 치악산 싸리재와 가리파 성황당, 울진 새재성황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울진과 봉화의 장시를 연결하여 물화의 교역과 판매를 주관한 보부상 조직은 반수, 접장(接長), 반수공원(班首公員), 본방공원(本房公員), 문서공원(文書公員), 성주도감(城主都監), 도집사(都執事), 도공원(都公員), 별공원(別公員), 별임(別任), 장재(掌財), 수전유사(收錢有司), 칠읍도공원(七邑都公員), 대방(大房), 비방(比房) 등으로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고 울진새재[鳥嶺]성황사의 중수와 제의를 주도하였다. 이에 비해 태백산 사길령산령각을 비롯하여 울진 후포 다투고개에 있는 산신각과 원주 치악산 싸리재와 가리파 성황당의 경우 울진 새재성황사 사례와는 달리 보부상들이 계를 조직하여 이들 고개를 넘나드는 상행위를 관장하면서 고갯마루에 있는 제당 운영과 제의를 주관하였다. 즉 사길령을 중심으로 삼척과 봉화의 장시를 아우르는 보부상 조직은 없었지만 사길령을 중심으로 한 보부상 조직은 있었다. 이들은 상업활동에서의 안전과 번성을 위하는 동시에 사길령산령각계를 조직하여 매년 산령각제를 지냄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四吉嶺契中家垈文券(1881), 四吉嶺新入稧金出入帳(1926), 山靈閣重修時扶助列名錄(1888), 己酉四月十五日 各有司錄(1909), 壬午四月十五日(1941~), 自辛酉四月十五日士吉嶺告祀時所用下記(1921), 千金錄(1908~), 太白山靈閣稧員名錄(1892), 太白山靈閣稧員各錄(1898), 太白山山靈閣修稧稧案成帖(1870),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김도현,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 · 태백시, 2009), 삼척군지(심의승, 1916), 울진12령 샛재[鳥嶺] 성황사와 보부상단(김도현,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10),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제 연구(신종원 · 노남호, 강원문화사연구 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8).

필자 김도현(金道賢)

태백산천제(太白山天祭)

상호참조 태백산천제단(932쪽)

정의 태백산천제단[천왕당]에서 매년 10월 3일 오시(午時)에 해당하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사이에 세계평화(世界平和), 민족통일(民族統一), 국태민안(國泰民安),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기원하며 하늘에 지내는 제사.

역사 천제를 지내는 태백산이 경상도에서 잘 보이고 경상도에 걸쳐 있지만 경상도지방에서도 강원도 삼척부에 속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 중심 영역은 당시 삼척부 관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기록에 따르면 태백산은 태백산 봉우리를 포함하여 주변의 문수봉, 함백산[크고 작은 작약봉], 창옥산, 천의봉, 상대봉, 장산, 금대봉, 연화봉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권역이었다. 동쪽으로는 우보산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충북 단양군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금대봉을 경계로 하며, 남쪽으로는 경상도 순흥부에 닿아 있었다. 문화권을 중심으로 설정하여도 태백산 권역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북 북부지역, 충청도를 아우르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태백산에서의 제사는 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제의(祭儀)를 주관한 주체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다섯 곳에 중사(中祀)를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 태백산이 중사(中祀)에 속하였음은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비롯한 각종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김방경의 아들 김순을 태백산제(太白山祭)를 지내기 위한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로 파견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여지도서(輿地圖書)』 봉화현 역원조에 도심역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고려의 사전에 태백산제가 공식적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김순에 의한 일회성 태백산제가 아니라 태백산제를 위해 파견된 관리들을 위해 상설 역인 도심역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고려시대에 태백산제를 지속적으로 설행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고려시대에도 태백산을 국가제사를 위한 제장(祭場)으로 여겼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시대 태백산에서의 국가제사는 신라시대의 중사에 이어 태백산신에게 제사를 지낸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조 대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태백산을 동진(東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백산에서 비록 국가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민간에서 태백산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고, 이에 따라 지방 관청과 무당들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성현의 『허백당집』 등을 보아 조선시대 태백산에서의 제사는 일정 부분을 향리들이 주도하면서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때 태백산에 설치된 제당을 '태백천왕당(太伯天王堂), 천왕당(天王堂), 천왕사(天王祠)'라고 하였다는 것은 천왕신(天王神)을 모신 제의가 행해졌음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각종 기록을 종합하면 태백산사(太白山祠)는 천왕당이고, 태백사(太白祠)는 천왕사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태백산사나 태백사 등으로 불리는 제당에서도 천왕신을 모셨다고 볼 수 있

다. 조선시대에 태백산과 함께 인근에 있는 삼척의 근산사(近山祠)를 천왕(天王)을 모신 천왕당이라 하였으며, 현재 충북 속리산에도 천왕사가 있다.

조선시대에 태백산 천왕당에서 모신 천왕(天王)을 천신(天神)으로 볼 것인지 산신(山神)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천왕은 지역이나 제당에 따라 산신이나 천신으로 비정될 수 있으며, 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불교에서 욕계나 색계 따위의 온갖 하늘의 임금, 역사적으로 상고(上古)시대에 수호신을 이르던 말, '환웅'을 높여 이르던 말, '해모수'를 높여 이르던 말, 중국에서 천자(天子)를 이르던 말"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천왕지신(天王地神)'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도교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시대에 왕실에서 외산제고사를 파견하여 태백산제를 지낼 때 모신 신령을 산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세기부터 단종이 사후 태백산신으로 좌정하였다는 믿음이 태백산 주변 및 영월 지역 주민과 무당들 사이에 뿌리 내렸으며, 단종대왕을 천왕으로 여기는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태백산신과 천왕을 별개로 여겨야 함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1735년부터 1737년 사이에 기록된 이인상의 「유태백산기」에 천왕신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당시 태백산 천왕당[태백당]에서 모신 천왕을 천신으로 여겨야 할 가능성을 좀 더 높여 준다.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한 경상좌도 의병장 유종개와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의병운동이나 동학을 비롯한 신종교의 신자들 및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태백산에 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예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동학에서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동학교단 재건 활동의 효시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된 49일 수련법은 이곳 태백산 자락에서 처음 시작되어 동학의 공식적인 수련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37년에는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 이튿날에 독립기원제를 지냈다고 한다.

한편 태백산에서의 천제에 대한 기록이 다양함에도 제사를 지낼 때 삼베나 소를 바친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제의 과정을 알려주는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오래된 기록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 1938년 기록에 따르면 제단을 설치한 후 28수기[宿旗]를 비롯한 각종 깃발과 제수를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 사례를 확인하였다.

1949년에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시멘트 단과 한 배검의 비석은 없었다. 그리고 제단은 구단탑(九段塔)이라 하여 아홉 단(段)으로 쌓아 올렸다. 그 주위에는 33천기(天旗)와 28수기를 꽂고, 단의 중앙에는 태극기와 구성기(九星旗) 또는 칠성기(七星旗)를 세웠다. 제물도 아홉 종류였다.

1949년 최익한(崔翼漢)의 『수기(手記)』에 따르면 당시 태백산제는 10월 3일 자시(子時)를 기해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거행하였다. 이 때 중앙에는 태극기, 중간에는 칠성기와 현무기(玄武旗)를 각각 꽂고 주변에 33천기와 28수기를 배치하였다. 제기(祭器)는 경북 봉화군 춘양의 유기점(鍮器店)에서 81개를 맞추어 일 회만 사용했다. 모든 참제자는 저녁에 등정하여 천제를 모시고 이튿날 아침에야 하산했다.

제관은 모두 백의(白衣) 도포를 입었다. 참제(參祭)할 사람은 일 년 전부터 일체의 부정을 가리고 심신(心身)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제물은 모두 날것으로 하였으며 아홉 종류로 아홉 벌을 장만했다. 곧 81개의 제물을 올린 셈이다. 청옥(靑玉), 청송엽(靑松葉), 금(金), 은(銀), 진주(珍珠), 백미(白米) 외에도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두 종류가 더 있었다.

내용 현재 행해지는 태백산천제는 1987년에 '태백산천제위원회'가 결성되어 각종 준비와 의례를 주관하여 지내다가 2008년에 명칭을 '천제보존회'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제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2008년에 천제를 주재한 인사는 제주(태백시장 박종기), 헌관(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태백문화원장 권영한), 번시관(정창교), 집례(안석호), 축관(김영복), 집사(이창복)이다.

실무 준비는 태백문화원에서 주관하며, 매년 10월 3일 천제단에서 오시에 천제를 지낸다. 제수는 천주(가양곡왕주), 소머리, 오곡(쌀, 보리, 콩, 조, 기장), 고사리, 미역, 대구포, 밤, 대추, 곶감, 백설기(한 시루), 삼베, 물이다. 한라산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산에서 가져온 흙을 각각의 주머니에 담아 올린다. 물은 태백산 정상 아래에 있는 용정(龍井)의 물을 이용한다. 메는 준비하지 않으며, 쇠머리와 떡을 제외한 다른 제수는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제의 장소인 태백산천제단(천왕당)은 태백산 정상에 있으며, 소재지는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 80 및 혈동이다. 1991년 10월 23일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되었으며, 천제단과 함께 지정된 자료는 천제단 뒤쪽 북방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 장군단과 천제단 남쪽 언덕 아래에 위치한 하단이다.

천제단 내부에는 해, 달, 북두칠성을 그린 기를 세워 놓았다. 동쪽에 세운 해 깃발 안에는 삼족오(三足烏), 서쪽에 세운 달 깃발 안에는 토끼 그림을 각각 그렸다. 이와 같이 해와 달을 그린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도상(圖像)이다. 그리고 예부터 북두칠성이 각 절기의 기준 별자리여서 이를 그린 깃발을 제단 북쪽에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단 외곽에는 28수기와 각종 염원을 쓴 깃발을 세웠다. 28수기는 『천문유초(天文類抄)』, 『보천가(步天歌)』, 『성경(星鏡)』,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地圖)」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을 28개의 주요 별자리를 이용하여 동서남북으로 구분한 뒤 이를 각각 청룡·백호·주작·현무라는 사신에 대비시켜 만든 별자리 깃발이다. 이들 깃발에는 각각 상징하는 별자리를 그렸다. 구체적으로 동쪽에 배치한 깃발은 각성기(角星旗), 항성기(亢星旗), 저성기(氐星旗), 방성기(房星旗), 심성기(心星旗), 미성기(尾星旗), 기성기(箕星旗)이다. 서쪽에 배치한 깃발은 규성기(奎星旗), 누성기(婁星旗), 위성기(胃星旗), 묘성기(昴星旗), 필성기(畢星旗), 자성기(觜星旗), 삼성기(參星旗)이다. 북쪽에 배치한 깃발은 두성기(斗星旗), 우성기(牛星旗), 여성기(女星旗), 허성기(虛星旗), 위성기(危星旗), 실성기(室星旗), 벽성기(壁星旗)를 상징하는 깃발을 그렸으며, 남쪽에는 정성기(井星旗), 귀성기(鬼星旗), 류성기(柳星旗), 성성기(星星旗), 장성기(張星旗), 익성기(翼星旗), 진성기(軫星旗)이다. 이들 깃발 가운데 제단 내에 배치한 깃발은 노란색 테두리, 동쪽에 배치한 깃발은 파란색 테두리, 서쪽에 배치한 깃발은 하얀색 테두리, 남쪽에 배치한 깃발은 빨간색 테두리, 북쪽에 배치한 깃발은 남색 테두리로 마감하였다.

이와 같이 제단 내에 해·달·북두칠성을 그린 깃발을 세우고 제단 외곽에 28수기를 동서남북으로 각각 구분하여 세운 것은 태백산에서 천제, 즉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에 하늘을 상징하는 주요 요소들을 깃발로 만들어 배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8수기와 함께 세계평화(世界平和), 민족통일(民族統一), 국태민안(國泰民安), 우순풍조(雨順風調), 민족(民族)의 영산(靈山) 태백산(太白山), 태백산 천제(太白山 天祭)[대한민국 천제(大韓民國 天祭)]'라고 각각 쓴 깃발을 만들어 배치하였다. 이들 깃발은 천제에서 기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938년 이전에 태백산에서 천제를 거행할 때 28수기를 비롯한 별자리 깃발을 세웠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지만 앞에서 소개한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은 후, 1938년 6월 16일(음력 5월 8일)에 윤상명을 비롯한 교도들이 독립기원제를 지내면서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팔만기·오행기·구령기와 함께 일월성신기와 28수기를 세웠다는 기록, 1949년의 사진과 최익한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태백산천제를 지낼 때 제단 주위에 별자리 깃발을 세우는 전통은 1987년 태백산천제위원회가 결성되어 천제를 주관하기 이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제단 주변 둘레돌에 금줄을 세 겹으로 둘러서 참제원들이 각자 소원을 적은 한지를 끼워서 천제가 끝나고 소지를 올릴 때 함께 태워 참제원들의 염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해 준다.

1987년부터 태백산천제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천절에 지낸 천제는 영신굿-천황굿 사설 구송-개의(開儀)-번시례(燔柴禮)-강신례(降神禮)-참신례(參神禮)-전폐례(奠幣禮)-진찬례(進饌禮)-고천례(告天禮)-헌작례(獻酌禮)-송신례(送神禮)-음복례(飮福禮)-망료례(望燎禮)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의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거나 태백산신을 모신 전통은 태백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거리 등 문제로 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백산 줄기가 내려온 산봉우리나 능선 아래에 상당으로 여기는 천제단(천제당 또는 천지단)을 마을 단위로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많은 마을에서 태백산과 관련한 당신화가 만들어져 단군을 모시거나 천제를 지내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태백산신령을 마을 제당의 주신(主神)으로 모셔서 마을의 안녕과 복

태백산천제 강원 태백산천제단, 2008.10.3 / 2009.10.3, 김도현

천제단 입구에 친 금줄(2008)

천제단 주위의 28수기, 만장기와 참제원들(2008)

전통제례악 연주(2008)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기 전에 천신을 청함(2009)

번시례(2008)

홀기대로 진행하는 집례(2008)

분향(2008)

천무 공연(2008)

천제단에 소원을 적은 종이를 거는 참제원(2008)

강신례(2008)

태백산천제 강원 태백산천제단, 2008.10.3 / 2009.10.3, 김도현

전폐례에서 봉지들이 제수를 천단에 올림(2008)

고천례(2008)

헌작례(2008)

제수 진설(2008)

고축(2009)

음복례(2008)

제관들 소지올림(2008)

참례원들 소지 올림(2008)

태백산 천제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소지를 올리기 위해 기다리는 참제원들(2009)

태백산천제 황헌만

을 기원하는 마을 또한 많다.

이들 마을에서는 천신을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늘로 인식하면서 마을신으로 모시는 서낭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신령으로 여기고 기우제를 지낼 때 모시거나 거리고사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모신다.

참고문헌 南冥先生別集, 昭和 十六年 刑公 第 310號/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朝鮮總督府, 1942), 遊太白山記, 遊黃池記, 立齋遺稿, 崔先生文集道源記書(姜時元, 1880), 秋江集, 虛白堂集,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최광식, 한길사, 1995), 국립춘천박물관(국립춘천박물관, 2002),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1 신앙 · 생활자료(문화재청, 2005),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김도현,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 · 태백시, 2009), 태백산 천제단의 역사성과 문화재적 위상(임동권, 태백문화 7, 태백문화원, 1993), 태백산 천제의 역사와 의례(김도현, 역사민속학 3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태백시 문화유적 분포지도(태백시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국립민속박물관, 1997), 함백산 절골 천제당 운영 양상과 그 성격(김도현, 강원문화연구 30,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9).

필자 김도현(金道賢)

태백산천제단(太白山天祭壇)

상호참조 태백산천제(9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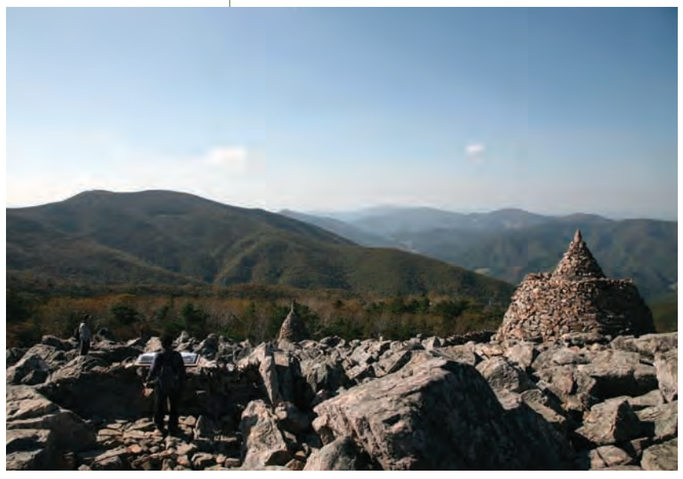
정의 천제를 지내기 위해 만든 제단. 태백산 정상에 있으며, 소재지는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 80 및 혈동산87-2이다. 장군단, 하단과 함께 1991년 10월 23일에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천제단(天祭壇)은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가운데 하나로, 장군단과 하단의 중간에 있는 해발 1,560m의 봉우리에 위치한 중심 제단이다. 천제단은 규모 면에서 여느 단과 달리 월등히 크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태백천왕당(太伯天王堂) · 신사(神祠) · 태백산사(太白山祠) · 천왕당(天王堂) · 태백신사(太白神祠) · 태백사(太白祠) · 천왕사(天王祠) · 태백당(太白堂) · 구령탑등으로 일컫기도 하였다.

태백천왕당 · 천왕당 · 천왕사 · 구령탑이라는 명칭은 모시는 신령(神靈)을 모두 천신(天神) · 천왕(天王)으로 보는 호칭이며, 구령탑은 천(天)의 9개 분야(分野)인 구천(九天)에서 유래한다. 신사(神祠) · 태백산사(太白山祠) · 태백신사(太白神祠) · 태백사(太白祠)는 태백산의 신령을 위하는 사당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후대에 일부에서 부르는 마고탑은 태초(太初)에 천지를 이룩한 거인 할머니가 쌓은 탑이라는 의미로서 천지가 시작된 공간임을 암시한다.

기록 (시기)	제당 · 제의 · 제관 명칭	제사 일시
『삼국사기(三國史記)』 제사지(祭祀志)	중사(中祀)	
『고려사(高麗史)』열전(列傳) 김방경(金方慶) (1283)	태백산제고사 (太白山祭告使)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태백천왕당 (太伯天王堂)	봄 · 가을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世祖) 2년(1456) 3월 28일	신사(神祠)	
성현(成俔)의 『허백당집(虛白堂集)』 신당퇴우설(神堂退牛說)	태백산에 당이 있다.	4월 8일 강림, 5월 5일 태백산으로 돌아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원도(江原道)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사묘(祠廟)	태백산사(太白山祠) 천왕당(天王堂)	봄 · 가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도(慶尙道) 봉화현(奉化縣) 역원(驛院)	태백산제(太白山祭)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 (1625년 경상도 관찰사 김치(金緻) 재위 시기)	태백신사(太白神祠)	
허목(許穆)의 『미수기언(眉叟記言)』(1595~1682)	태백사(太白祠)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1595~1682)	천왕사(天王祠)	
강재항(姜再恒)의 「황지기(黃池記)」(1719)	태백신사(太白神祠)	
이인상(李麟祥)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1736)	천왕당(天王堂, 천왕 모심, 천왕신도 언급), 석불도 모심	
심의승(沈宜昇)의 『삼척군지(三陟郡誌)』(1916)	태백당(太白堂)	
사건번호 소화16년형제936호(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1938)	구령탑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태백당(太白堂)	

역대 기록에 나타난 태백산 관련 제당 명칭



태백산천제단
강원 태백산, 2009.10.3
김도현

1736년에 쓴 이인상(李麟祥)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에 당시 태백산 천왕당(天王堂)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천왕당에 도착했다. 통금시간까지 도착하기로 약정했는데 드디어 60리 길을 걸어온 것이다. 천왕당 서쪽 당에는 석불이 있고 동쪽 당에는 나무상이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천왕이라고 한다.

이 자료를 통해 당시 천왕당이 당집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왕당에 석불(石佛)과 함께 천왕이라 불리는 나무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천왕당에서의 종교 의례가 불교와 민간신앙이 공존하는 형태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1953년 사진 자료에 따르면 제단의 돌이 흐트러져 방추형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후 정비하

천왕단 내 제단 및 위패
강원 태백산, 2004.10.7, 김도현

여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현재 제단은 자연석 편마암으로 쌓았으며 둘레 27.5m, 높이 2.4m, 폭은 좌우 7.4m, 전후 8.4m의 약간 타원형을 이룬 원형제단이다. 남쪽으로만 계단이 설치되었고 석단 상부에는 제단이 설치되었다. 제단의 앞면 축대에는 「천제단 대종교태백지사근제(天祭壇 大倧敎太白支司謹製)」라 새긴 글이 남아 있다. 제단 위에는 높이 76㎝, 폭 40㎝, 두께 30㎝ 정도의 「한배검」이란 비가 있다.

그리고 태백산 천제단과 장군단 일원에서 2000년 4월 9일 신인수에 의하여 쇠말 네 점이 수습되어, 2000년 11월 30일 국가에 귀속된 후,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네 점 모두 말의 등에 안장이 놓여지고 한 개를 제외하고 꼬리 쪽에 말띠꾸미개가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현재 태백산 정상부 바로 아래에 있는 망경사(望鏡寺) 옆 산기슭에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되는 석불과 대좌가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 심의승(沈宜昇)의 『삼척군지(三陟郡誌)』와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의 기록을 종합하면 망경사 터에 태백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망경사 옆에서 발견된 석불과 대좌가 당시 태백당(천왕당)에 모셔졌던 석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군단(將軍壇)은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가운데 하나로 중앙에 위치한 천제단에서 북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다. 지도상에서 해발 1,566m의 「태백산」이라 표기되어 있는 봉우리가 장군단이 있는 지점이다.

유일사 방향에서 등산하면 세 개의 제단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단이다. 제단의 높이는 약 2.9m이고, 둘레는 약 20m로 장방형이며 편마암으로 축조하였다.

남쪽으로만 계단을 설치하였고, 내부의 중앙에 70㎝ 정도의 제단을 쌓았다. 제단 내에는 자연석을 세워 놓았다. 장군단의 신격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단(下壇)은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중 하나로, 천제단 남쪽 언덕 아래로 0.2㎞ 지점에 있다. 부소단(夫蘇壇) 또는 구을단(丘乙壇)으로도 불린다.

태백산 장군단 강원 태백산, 2008.10.3, 김도현

태백산 망경사 전경
강원 태백산
2009.10.3, 김도현

별도로 지내는 제는 없으며, 북쪽으로만 계단이 없고 나머지 세 방향에는 모두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제단 꼭대기의 북쪽 면에 45㎝가량의 자연석을 세워 놓았다.

현재의 모습은 최근에 정비한 것으로 단의 총 높이는 약 190㎝, 폭은 약 510×410㎝이다.

태백산 정상에서 500m쯤 아래에 망경사라는 사찰이 있고, 여기에 용정(龍井)이 있어 옛날부터 천제에 올릴 제수(祭需) 준비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망경사 부근에는 '조선국태백산단종대왕비(朝鮮國太白山端宗大王碑)'라는 명문이 새겨진 단종비각(端宗碑閣)이 세워져 있다. 1950년대 중반에 한 무녀의 꿈에 단종이 태백산신으로 현몽하여 세웠다고 한다. 이는 18세기부터 단종이 사후 태백산신으로 좌정하였다는 믿음이 태백산 주변을 비롯해 영월 지역 주민들과 무당들 사이에 뿌리 내렸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준다.

현재 태백산 내의 신앙 공간을 크게 정리하면 당골 입구에 있는 서낭당[부정당으로 여김]에서 시작하여 장승거리, 반재, 망경사 입구에 있는 서낭당을 지나 망경사와 용경, 단종비각, 천제단, 장군단, 하단을 거쳐 문수봉에 이르는 넓은 영역이 신성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천제를 위한 실제 종교 공간은 망경사 입구에 있는 서낭당 터부터라고 하며, 여기서부터는 근신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종교 종단은 1987년에 지역 유지들과 제휴하여 당골에 단군성전을 건립하면서 태백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천제에서 분리되어 자체 건립한 단군성전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역사 태백산의 영역은 태백산 봉우리를 포함하여 주변의 문수봉 · 함백산(크고 작은 작약봉) · 창옥산 · 천의봉 · 상대봉 · 장산 · 금대봉 · 연화봉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권역이다. 동쪽으로 우보산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충북 단양군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금대봉을 경계로 하며, 남쪽으로는 경상도 순흥부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권을 중심으로 설정하여도 태백산 권역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북 북부지방, 충청도를 아우르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태백산에서의 제사는 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제의를 주관한 주체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국토 방위를 위하여 다섯 곳에 중사(中祀)를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 태백산이 중사에 속했음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각종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김방경의 아들 김순을 태백산제를 지내기 위한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로 파견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여지도서(輿地圖書)』 봉화현 역원조에 기재된 도심역 관련 내용을 분석해보면 고려의 사전에 태백산제가 공식적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김순에 의한 일회성 태백산제가 아니라 태백산제를 위해 파견된

태백산 망경사 아래 서낭당 터
강원 태백산, 2006.7.8, 김도현

하단 전경
강원 태백산, 2006.7.8
김도현

관리들을 위해 상설역인 도심역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고려시대에 태백산제를 지속적으로 설행하였고, 이는 고려시대에도 태백산을 국가제사를 위한 제장으로 여겼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세조 대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태백산을 동진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태백산에서 비록 국가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민간에서 태백산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고, 이에 따라 지방 관청과 무당들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현의 『허백당집(虛白堂集)』 등을 보았을 때 조선시대 태백산에서의 제사는 일정 부분을 향리들이 주도하면서,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 때 태백산에 설치된 제당을 '태백천왕당 · 천왕당 · 천왕사'라 하였다는 것은 천왕신(天王神)을 모신 제의가 행해졌음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각종 기록을 종합하면 태백산사는 천왕당(天王堂)이고, 태백사는 천왕사(天王祠)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태백산사나 태백사 등으로 불리는 제당에서도 천왕신을 모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태백산과 함께 인근에 있는 삼척의 근산사(近山祠)를 천왕을 모신 천왕당(天王堂)이라 하였으며, 현재 충청북도 속리산에도 천왕사(天王祠)가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태백산 천왕당에서 모신 천왕을 천신(天神)으로 볼 것인지, 산신(山神)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천왕은 지역이나 제당에 따라 산신이나 천신으로 비정될 수 있으며, 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불교에서 욕계나 색계 따위의 온갖 하늘의 임금, 역사적으로 상고(上古)시대에 수호신을 이르던 말, '환웅'을 높여 이르던 말, '해모수'를 높여 이르던 말, 중국에서 천자를 이르던 말"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천왕지신(天王地神)'이란 표현이 나온다. 이는 도교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시대에 왕실에서 외산제고사를 파견하여 태백산제를 지낼 때 모신 신령은 산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18세기부터 단종이 사후 태백산신으로 좌정하였다는 믿음이 태백산 주변 및 영월 지역 주민과 무당들 사이에 뿌리내렸으며, 단종대왕을 천왕으로 여기는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태백산신과 천왕을 별개로 여겨야 함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1735~1737년에 기록된 이인상의 「유태백산기」에 천왕신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당시 태백산 천왕당[태백당]에서 모신 천왕을 천신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을 좀 더 높여 준다.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한 경상좌도 의병장 유종개를 비롯하여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의병운동이나 동학을 비롯한 신종교의 신자들 및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태백산에 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

제당골 서낭당
강원 태백산, 2009.10.3
김도현

거나, 수련 활동 또는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에 제단을 차리거나, 탑을 쌓은 뒤 하늘에 제사를 지낸 예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동학에서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동학교단 재건활동의 효시여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된 49일 수련법은 이곳 태백산 자락에서 처음 시작되어 동학의 공식적인 수련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37년에는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은 후,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 이튿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 때 28수기(宿旗)를 비롯한 각종 깃발과 제단을 준비하여 천제를 지냈다.

1949년 기록에도 태백산에서 10월 3일 자시(子時)를 기해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천제를 거행하였다. 이때 중앙에는 태극기, 중간에는 칠성기(七星旗)와 현무기(玄武旗)를 각각 꽂고 주변에 33천기와 28수기를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태백산에서 국가제사를 지낸 전통과 함께 민간인이 많이 찾은 종교적 성소이면서 의병운동과 신종교 활동을 한 단체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광복 이후에는 대종교 교인들이 태백산 정상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지금은 태백산천제위원회가 결성되어 1987년부터 매년 10월 3일에 천제를 지낸다.

의의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거나 태백산신을 모신 전통은 태백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태백산에서 제사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백산 줄기가 내려온 산봉우리나 능선 아래에 상당으로 여기는 천제단(천제당 또는 천지단)을 마을 단위로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것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즉 많은 마을에서 태백산과 관련한 당신화가 만들어져 단군을 모시거나 천제를 지내는 예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태백산신령을 마을 제당의 주신(主神)으로 모셔서 마을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을 또한 많다.

이들 마을에서는 천신을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늘로 인식하면서 마을신으로 모시는 서낭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신령으로 여기고 기우제를 지낼 때 모시거나 거리고사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모신다.

태백산에서 설행된 신앙 의례와 함께 사길령 산령각 중수기 등으로 보아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보부상들이 이곳 태백산을 백두대간을 통한 전근대 교역의 중심지로 여겼다는 점 또한 태백산과 천제단이 지닌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南冥先生別集, 昭和 十六年 刑公 第 310號/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遊太白山記, 遊黃池記, 立齋遺稿, 崔先生文集 道源記書(姜時元, 1880), 秋江集, 虛白堂集,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최광식, 한길사, 1995), 국립춘천박물관(국립춘천박물관, 2002),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1 신앙 · 생활자료(문화재

청, 2005),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김도현,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 · 태백시, 2009),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조선총독부, 1942), **태백산 천제단의 역사성과 문화재적 위상**(임동권, 태백문화 7, 태백문화원, 1993), **태백산 천제의 역사와 의례**(김도현, 역사민속학 3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태백시 문화유적 분포지도**(태백시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국립민속박물관, 1997), **함백산 절골 천제당 운영 양상과 그 성격**(김도현, 강원문화연구 30,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9).

필자 김도현(金道賢)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상호참조 태백황연동유령제(941쪽)

정의 강원도 태백시 황연동 유령(楡嶺)에서 나그네의 행로 안전과 마을의 안녕 및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 장소.

형태 유령은 신라 때 임금이 신라의 5악(五嶽) 가운데 하나인 태백산(太白山)에서 천제를 지내기 위해 소를 몰고 넘던 고개이고, 조선시대에는 남쪽에 있는 태백산을 향해 망제(望祭)를 올리던 곳으로 우보산(牛甫山)이라고도 한다. 인근에 있는 태백시 주민들과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이 이곳 정상에 산령당을 지어 놓고 고개를 넘을 때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 마을에 질병이 돌지 않고 평안함과 농사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다.

당집이 있는 곳은 황연동 14통 솔안마을로, 예전의 통리1구에 해당한다. 당은 2005년 4월 유령제 봉사회의 기금과 회원들의 특별찬조금으로 개축하였다. 앞면은 세 칸(3문), 옆면은 두 칸으로 된 팔작기와지붕이다. 건축면적은 59.4㎡이다. 당 안에는 위패는 없고 호랑이를 탄 신령과 동자 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 전면 벽에 걸려 있다.

유래 유령은 백두대간 줄기인 삼수령(三水嶺 · 피재,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소재)에서 백두대간과 갈라진 줄기가 낙동정맥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에 나타나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현재 기차와 자동차가 다니는 통리재(桶里峙)가 생기기 전에 영동 지역인 삼척(三陟)과 영서 지역인 태백을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주민들은 고개가 높고 험하여 오르기 힘든 데다 짐승, 특히 호랑이가 득실거려 호랑이의 피해를 많이 보았다. 이 때문에 고개를 넘을 때에는 무서워서 혼자 넘지 못하여 여러 명이 모여 넘었고, 어

유령산령당
강원 태백시 황연동
2002.5.29, 김기설

떤 때에는 짐승을 쫓기 위해 징과 꽹과리를 치며 넘었다고 한다.

이 고개를 자주 넘는 주민들은 목숨을 잃어가며 힘들게 고개를 넘을 게 아니라 산령을 섬기고, 산령의 도움을 받아 아무 탈 없이 고개를 넘고 싶어 하였다. 주민들이 피재를 안심하고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개 정상에 산령당을 짓고, 산령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냈다. 산령제를 지내고 나서부터는 별 탈 없이 고개를 잘 넘어 다닐 수 있었다. 그 후 나라에서 산령제를 지내 주었다. 그러다가 나라에 난리가 나고 어수선하여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하게 되자 나라에서는 여러 해 동안 제사를 도와 주지 못했고, 주민들도 제사를 지내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산령당이 심하게 훼손되고, 마을에 질병이 창궐하고, 농사도 잘 되지 않았다.

그 즈음 영서 지역인 황지(태백시 황지동)에 사는 효자가 아버지 제삿날에 제물을 사 가지고 이 고개(유령)를 넘게 되었다. 효자는 낮에 집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늦어서 고개를 넘어 영동 지역에 있는 소달 장(所達 場, 삼척시 도계읍 소달리 소재)에 장을 보러 갔다. 제물을 장만한 효자는 혼자 늦게 이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날 따라 집에서 늦게 떠나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넘게 된 것이다.

효자는 제수를 장만하여 부지런히 걸어 고개에 이르렀다. 고개에 이르니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를 본 효자는 그만 놀라 기절하였다.

한참 지나 깨어 보니 호랑이가 옆에 있었다. 겁에 질린 효자는 호랑이에게 빌었다. "오늘이 아버지 제사인데 제사를 지내야 하니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니 호랑이가 말하였다. "효성이 지극하니 살려 준다. 대신 청을 들어줄 수 있느냐?" "청이 무엇입니까?" "황소를 한 마리 잡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네, 지낼 수 있습니다."

효자가 약속을 하자 호랑이가 "나는 이곳에 있는 산신이다. 그동안 너희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고갯길을 함부로 다니기에 너희를 혼내고 잡아먹었다. 오늘 너를 잡아먹으려고 했으나 하늘이 낸 효자라 살려 보내니 돌아가서 산제를 정성껏 지내면 다시는 재앙이 없으리라" 하고 사라졌다.

그때 효자가 사는 동네에서는 밤이 늦도록 효자가 돌아오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마중

강원 태백시 황연동, 2002.5.29, 김기설

제주(祭酒) 단지

제단

유령제

소지올리기

을 나왔다. 고개에 이르니 효자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와 같이 집으로 왔다. 집에 온 효자는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호랑이와 한 약속대로 황소 한 마리를 잡아 고개에 와서 제사를 지냈다. 이날이 바로 음력 사월 열엿샛날이다.

그 뒤 주민들은 산령을 성심껏 모시기 위해 산령당을 복원하고, 효자는 매년 황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 제사를 다시 지내고서부터 짐승으로부터 피해가 없이 고개를 잘 넘어 다녔고, 마을에 농사도 잘 되고, 전염병도 돌지 않았다.

그런데 효자 한 사람이 매년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좀 무리였고 힘이 들었다. 그래서 황소를 준비하지 못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자 또 다시 마을에 재앙이 생겼다. 짐승들이 고개를 넘는 사람들을 해치고, 마을에는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다.

불안해진 마을 사람들은 돈을 갹출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제사를 다시 지내니 마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산령을 섬기지 않으니 산령이 호랑이로 변신해 나그네에게 제사를 지내 달라고 한 것이었다.

내용 유령산령제는 매년 음력 사월 열엿샛날에 지낸다. 제사는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로 구성된 유령제 봉사회 회원들이 주관하여 지낸다. 회원들은 헌관을 맡지 않고 대신 제사를 진행하는 집례(執禮), 대축(大祝), 찬인(贊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제사를 준비하는 유사는 제사 지내기 한 달 전에 정한다. 유사는 회원 가운데 정하는데 생기(生氣)는 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산령당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유사직을 맡았으나 지금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예전에는 걸어다녔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유사가 되면 제물을 준비하여 산령당까지 옮기기 힘이 들었다. 이런 이유로 제물을 옮기기 쉬운 곳에 사는 회원들이 유사를 한 것이다.

음력 사월 초하룻날에는 제물로 쓸 황소 한 마리를 잡고, 초이튿날에는 제사에 쓸 술을 담근다. 술은 산령당 앞에 구덩이를 파서 단지를 묻고 담근다. 땅을 파고 짚에 불을 지펴 구덩이 주위를 여러 번 돌려 부정을 제거한 다음 단지를 묻는다. 단지를 묻고 술을 담그고 금줄을 친다.

유사는 제사 일주일 전에 목욕재계하고 나서 산령당과 자기 집 앞에 금줄을 친다. 유사는 제사를 준비할 때에만 나들이하고 가능한 한 집에 머문다. 헌관들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금기하는 것은 없으나 가능한 한 행동을 조심하고, 제사 전날에 목욕재계를 한다. 제례에 제관으로 참여하는 유사 · 집례 · 대축 · 찬인들도 전날에 목욕재계를 한다. 헌관과 제관들은 절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지낸다. 헌관은 삼헌관이다. 초헌관은 태백시장이, 아헌관은 태백시 의회의장이 그 직분을 수행한다. 종헌관은 태백시 유도회장이나 태백시 문화원장 또는 태백시 노인회장 등이 한 해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맡아 한다.

헌관은 관복을 입고 당 앞에서 당을 향해 서 있다가 집례의 홀기에 따라 당 안으로 들어가 절을 한다. 절은 사배 한다. 제사는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사신례, 소지 상천례의 순으로 진행된다. 소지 상천례(燒紙 上天禮)는 사신례를 한 다음 주민들의 소원이 담긴 소지를 태우는 예이다. 소지에는 각자의 생기와 소원을 적어 놓았으며 소지는 초헌관이 한꺼번에 태운다. 소지를 한 사람씩 올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소지축(燒紙祝)을 읽는다.

> 존령님께서는 흠향하시옵고, 소지를 올리는 모든 분들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살펴주시고, 국태민안과 태백시와 삼척의 번영과 발전을 하도록 살펴주시고, 만만인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축원드리옵니다

제물은 메 네 그릇, 백설기, 쇠머리, 쇠다리, 쇠 내장, 쇠갈비, 쇠 전육, 포(어물), 삼실과(대추 · 밤 · 감), 수박, 사과, 배, 포도 등이다.

비용은 봉사회의 기금과 유령(느릅고개)에 인접한 태백시 황연동 ·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이 갹출한 돈, 회원들의 회비, 참여자들의 찬조금, 소지를 올린 새전(賽錢) 등으로 충당한다.

참고문헌 민속신앙부문(김의숙, 강원문화연구 5,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5). 태백시지(태백시, 1998).

필자 김기설(金起卨)

태백황연동유령제

상호참조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938쪽)

정의 강원도 태백시 황연동 유령(느릅재)에서 매년 음력 사월에 행하는 산신제.

유래 1500년쯤 상장면(황지)에 사는 효자가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장만하러 소달면(오늘날의 도계읍)의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느릅령에 호랑이가 있어 한두 명이 넘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기 일쑤였다. 보통 6~8명이 함께 고개를 넘어야 안전했다. 그런데 효자가 돌아오는 날에 마침 함께 넘을 사람이 없었다. 이날 밤에 선친 제사가 있는 효자는 할 수 없이 혼자서라도 넘어야 했다. 그러다가 끝내 호랑이에게 잡혔다. 효자가 살려 달라고 사연을 얘기하니 호랑이는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냐고 물었다. 소원이 뭐냐고 하니 황소 한 마리를 잡아 제향하라는 것이었다. 효자는 엉겁결에 응낙하였다. 그때 마침 황지의 마을 사람 7~8명이 효자가 돌아오지 않자 호랑이에게 해를 당한 것 아닌가 염려하여 무리지어 횃불을 들고 효자를 찾으러 나왔다. 그들이 효자를 발견한 순간 효자는 기절했고 호랑이는 마침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효자를 구해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하여 제사를 무사히 지낸 효자는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소를 한 마리 마련하여 산령제를 올렸다. 범은 곧 산령이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처음 올린 제일이 음력 사월 열엿샛날이었다. 이듬해 마을 농사가 흉년이고 질병이 만연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주민들은 산령에게 제를 올리지 않아 그런가 하고 여기고 부랴부랴 황소를 장만하여 제를 올렸다. 그랬더니 마을이 다시 평온해졌다. 이후부터 호랑이(산령)에게 제향하는 풍속이 생겨났다.

유령산령당
강원 태백시 황연동, 2009.5.10, 이한길

유령제 유래문
강원 태백시 황연동
2009.5.10, 이한길

내용 느릅령[楡嶺]은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 사이에 있는 고개다. 이곳에서 매년 제의가 있어 왔다. 태백시 지역도 예전에는 삼척시 관내였기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1981년 태백시가 만들어지면서 이곳의 행정 편제가 태백시 관내가 되었다. 삼척시 관내에 속하였을 때에는 삼척시 도계읍에서 주관하였으나 이제는 태백시에서 주관한다. 유령제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전승되는 과정에서 한때 제의가 중단된 적도 있고, 노제로 대행한 적도 있다.

1. 제의 일시 매년 음력 사월 열엿샛날 오전 11시쯤에 제향한다.

2. 당집과 당목 당집이 있는 곳은 황연동 14통 솔안마을로, 예전의 통리1구에 해당한다. 황연동은 황지2동과 연화동(통리 부근)이 행정적으로 합해지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2005년 4월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유령산령당(楡嶺山靈堂)을 중건하였다. 당시 산당을 중건하기 위해 평생회비로 1인당 20만 원을 받았다. 평생회원에게는 살아 있는 동안 무사안녕을 비는 소지를 올려준다. 현재 회원은 사망 100여 명, 생존 200여 명이다. 산당 안에 화분 세 폭이 걸려 있다. 전승되어 오던 전설을 형상화한 것이다. 가운데에는 호랑이를

탄 산신령, 오른쪽에는 효자 내외, 왼쪽에는 산과 나무가 각각 그려져 있다.

3. 신위 유령산산신령이다.

4. 축문과 홀기 축문과 홀기는 전승되어 오던 것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95년에 박광옥(1941년생)이 수정하였다. 홀기 역시 2000년쯤에 박광옥이 수정하였다. 원래의 홀기에는 음복례가 나중에 나오지만 수정한 홀기에는 망예례(望禮禮, 폐백과 축문을 태워 땅에 묻는 의식)가 나중에 나온다. 그리고 분축례(焚祝禮, 축과 지방을 내려 사르는 의식)를 할 때 회원들의 소지 역시 함께 사르는 것을 추가하였다.

5. 제관 제관의 선정 등 제반 사항은 유령제위원회에서 주관한다. 현재 유령제위원회 회장은 태백시 박광옥이다. 유령제위원회에서 헌관을 정하지만 초헌관은 시장, 아헌관은 시의장으로 거의 고정이다. 종헌관만 매년 새로 선정한다. 종헌관은 주로 관내 교육장이지만 종교 문제로 거절하면 상공회의소 소장이나 문화원장 등이 대신한다. 2006년쯤에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새로 장만하였다. 제물을 장만하는 일은 당주가 맡는다. 당주는 제의 치르기 한 달 전에 새로 뽑으며 주로 솔안마을 사람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제당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제물 제주(祭酒)는 당주가 음력 사월 초하룻날에 누룩과 쌀 2말 정도를 빚어 직접 담근다. 보통 청주 15말 분량은 나온다. 주요 희생은 소이다. 소는 제사 하루 전날 도살장에서 기술자를 초빙해 당주 집에서 잡는다. 기술자에게는 보통 수고비 10만 원을 지불한다. 소를 잡은 다음 갈비나 꼬리 등은 팔기도 하지만 팔리지 않으면 제사 이튿날 국을 끓이는 데 사용한다. 쇠가죽도 그슬린 다음 국을 끓이는 데 집어넣는다. 제의에 사용하는 소는 500kg 정도 된다. 소를 잡으면 반 근 정도로 끊어 고기 약 500점을 만든다. 이것을 살짝 구워서 산령제에 한 꼬치를 사용하고, 유령제에는 7~10꼬치를 큰 바구니에 담아 사용한다. 쇠머리도 제상에 올린다. 그러나 다리나 꼬리는 올리지 않는다. 진설은 유령제 당주가 직접 한다. 제물 차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을 두 개 차렸다. 육 · 포 · 술 · 과일(수박, 배, 사과, 참외, 대추, 곶감) 등은 두 그릇씩이고, 쇠머리를 비롯한 탕 · 채소(고사리) · 대구포 등은 한 그릇씩이다. 메는 생용(새옹)에다 짓는다. 신령 앞에 놓는 두 그릇은 산신령 내외에게 바치는 것이고, 그 앞에 양쪽으로 놓는 두 그릇은 신령을 보좌하는 좌우 동자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재배
강원 태백시 황연동
2009.5.10. 이한길

오늘날 유령제의 운영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에서 나온다. 1970~1980년대까지는 매년 모금을 하여 유령제를 지냈다. 그러나 점차 기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회원제를 만들었다. 처음에 평생회비는 1만원부터 시작했다. 이후 2만 원, 5만 원, 20만 원을 거쳐 2008년부터는 30만 원이다. 회원의 자격 요건은 자유롭다. 나이,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유령산신령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유령제 행사를 위해 유령제위원회와는 별도로 유령제봉사회를 1980~1990년에 만들었다. 회원 명단은 목판에 새겨 당 안에 걸어놓았다. 산당은 평상시 개방하지는 않지만 이용을 원하는 이가 있으면 빌려 주기도 한다. 유령제가 열리면 찬조금, 축원금 등이 들어온다.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만들어 운영 경비에 충당하고 있다. 매년 유령제에 사용되는 비용은 소값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대체로 400~600만 원 든다.

7. 제의 절차 당주는 음력 사월 초하룻날이 되면 제당에 제주를 봉하고 금줄을 친다. 금줄은 왼새끼를 꼬고 그 사이에 한지를 잘라 넣어 만든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산령제를 먼저 올린다. 산령제는 태백산산신령에게 지내는 망제(望祭)로, 유령(느릅령)이 태백산 준령에 있기 때문에 지낸다. 산령제를 지내는 시간은 보통 유령제를 시작하기 전에 30여 분이면 끝난다. 산령제에 사용하는 제물은 과일 세 개, 메 한 그릇, 포 한 개, 쇠고기 반 근(통째로), 술 등이다. 산령제는 유령제위원회 회장이 헌작 · 재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해 당주로 뽑힌 이가 헌작 · 재배를 할 수도 있다. 고축을 하지 않으므로 헌작은 단잔이다.

제의는 홀기에 준하여 진행한다. 유교식이지만 소지는 올린다. 한편 유령제에서 소지를 올리는 방식이 특이하다. 한지를 접어 한 장씩 소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지 몇백 장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함을 미리 만들어 분축례를 할 때 소지함째 불사른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퇴송을 하였다. 제의가 끝나면 음복한 다음 모두 점심을 먹는다. 점심은 쇠고기국밥이다. 또 제사에 사용한 쇠고기 반 근과 떡 등을 집어넣은 도시락을 만들어 현장에 온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보통 제의는 낮 12시쯤이면 마치지만 집행부는 12시가 넘어도 결산을 하느라고 분주하다.

지역사례 마을 제의에서 소(또는 돼지)를 잡는 것은 동해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태백시에서도 통리, 백산, 철암, 현리(소도를 의미), 황지(연화산) 등 여러 곳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마을신앙 상·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이한길(李漢吉)

터줏가리

표제어 주저리(846쪽)

테우리신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목축(牧畜)이나 목축에 종사하는 이들을 관장하는 신. 제주도에서는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 곧 목동(牧童)이나 목자(牧者)를 '테우리'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테우리신은 목축과 관련된 일이나 목축에 종사하는 목동 등 목축 전반을 관장하는 목축의 신을 말한다.

내용 목축의 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주도굿 초감제와 〈세경본풀이〉, 그리고 조천읍 북촌리 본향당인 〈가릿당본풀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감제에서 신들을 위계에 따라 나열하는 대목인 '젯ᄃᆞ리앉혀 살려옴' 대목을 보면 "하세경 정이엇인 정수남이 살려옵서. 천앙테우리, 지왕테우리, 인왕테우리 세경만국 저테우리,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ᄉᆞ오륙수장에 놀던 테우리 거느립고 열두시만국 거느령 ᄌᆞ손에 시만국 번성시켜 주저, 양반의 집원 ᄌᆞ부일월 상세경, 심방의 집원 직부일월 상세경 연다 알로 살려옵서"라고 되어 있다.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정수남이를 여러 테우리, 곧 목동들을 거느리는 신격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목축신인 정수남이뿐만 아니라 그가 거

느리는 여러 테우리까지 제의 대상으로 삼아 목축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실제 〈세경본풀이〉를 보면 정수남이가 목축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오곡열두시만국을 마련ᄒᆞ던 상세경 문도령 중세경 ᄌᆞ청비 마련ᄒᆞ고 하세경 정이엇인 정수남이 칠월 마불림으로 받아 먹기 마련허고 일이삼ᄉᆞ오륙수장에 테우리를 마련허여 ᄌᆞ부일월 상세경이 뒈옵네다"라고 되어 있다. 자청비가 집안 남종인 정수남이를 목축신으로 좌정시켜 마불림제(우마의 증식을 기원하는 제의)를 얻어먹고 살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보건대 정수남이는 마불림제의 대상 신격으로서 목축과 테우리들을 관장하는 존재, 곧 테우리신임을 알 수 있다.

정수남이를 목축의 신, 곧 테우리신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본향당인 〈가릿당 본풀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칠월 열나흗날 동경테우리 서경테우리 남경테우리 북경테우리 정이웃인 정수남이 정술덱이 잘 위ᄒᆞ민 우리 북촌에 있는 ᄆᆞᆯ무쉬, 일수장 이수장이 가까우니 그레 가겠투록 아녀서 잘 먹으민 우리 지경데레 ᄆᆞᆯ아다 준다"라고 하여 '정이 없는 정수남이 정술덱이'를 마을의 말과 목장을 관장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지역사례 목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테우리신에 대한 대표적인 제의로 테우리코사가 있다. '테우리코시' 라고도 불리는 테우리코사는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목축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보통 '테우리코사'는 해변이나 어촌을 제외한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많이 행해진다. 이 제의는 목축업, 축산업을 하는 이들이 키우고 있는 마소의 증식과 번성을 기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목축신을 모시는 제의는 보통 백중 무렵에 행해진다. 그런데 백중 무렵에 행해지는 제주도 당굿으로 마불림제가 있다. 마불림제는 음력 7월 13일에서 7월 15일 쯤에 행하는 당굿이다. 그런데 이 제의를 마불림제라 하지 않고 백중제라 하는 당이 있다. 이때의 백중제는 우마의 증식을 기원하는 성격이 강한 제의이다. 특히 구좌읍 송당 지역과 같이 목축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우마의 증식을 기원하는, 곧 목축신을 위하는 제의가 벌어진다.

목축신을 위하는 제의는 이처럼 테우리코사, 테우리코시, 쉬멩질, 테우리맹질, 백중제 등으로 불린다. 이때 모셔지는 신격은 목축신이 중심이 된다. 이 신격의 정체와 유래가 다른 사례가 몇 가지 전해진다. 첫 번째 사례는 목축신인 정수남이를 위한 고사를 지내면 집안의 말과 소가 번성한다는 생각에서 제의를 지낸다는 것이다. 테우리신을 위한 테우리코사에서 모셔지는 대상이 정수남이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는 백중 즈음에 마을 남자들이 한밤에 산으로 가서 테우리코사를 목축신에게 올리는 것이다. 이때 목자들은 자기들의 말이나 소를 방목하는 동산 이름을 하나하나 섬겨 나간다. "천왕테우리도 먹엉 갑서, 인왕테우리도 먹엉 갑서, 지왕테우리도 먹엉 갑서. 테우리도 먹엉 갑서" 하면서 하나하나 동산 이름을 섬겨 나가는 것이다. 대부분 그 마을 목장의 이름이 거의 입에 오르내린다. 목축신격이 정수남이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천왕테우리, 인왕테우리, 지왕테우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목축을 하는 사람과 목동 중심의 제의라는 성격이 이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테우리 백종이를 목축신으로 모시는 경우이다. 테우리 백종이가 방목지의 풀 백가지 종을 알고 말을 잘 돌보아 말이 잘 번식되었으나 후손이 없어 마주가 테우리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하여 음력 7월 14일 자시에 방목장에서 메, 생닭, 팥을 넣지 않은 떡, 채소, 계란 세 개, 술, 다섯 가지 과일을 준비하여 함께 제를 지내고 고수레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제주도 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의 마불림제가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된 원인과 그 의의**(이수자, 역사민속학 19, 역사민속학회, 2004).

필자 **허용호(許龍鎬)**

제주 송당리 테우리코사 제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006.8.7, 최호식

제천면산산신제의 통북어
충북 제천시 면산, 2003.7.28, 황헌만

단단해 잡귀를 잡아먹고 액을 퇴치하는 제물이다. 민속 제의에서 통북어는 눈알이 분명하고 크며 입이 딱 벌어진 것을 제물로 택한다. 보통 장승제에서 통북어는 제상에 올리기도 하지만 백지로 둘둘 말아 천하대장군 몸통과 천하여장군 머리에 실타래로 묶어 놓는다. 남자는 힘을 허리로 쓰고 여자는 짐을 나를 때 머리에 이기 때문이다. 실타래로 묶는 것은 오랫동안 잡귀를 길게 잡으라는 의미라고 한다.

필자 **이인화(李仁和)**

통북어

정의 산신제, 장승제, 유황제 등 모든 민속 제의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중요한 제물.

내용 통북어는 눈이 크고 입을 벌리고 있으며 형체가

통영문화동벅수

정의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에 세워진 돌장승. 1968년 11월 23일에 '중요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국보 제305호인 세병관(洗兵館)으로 오르는 길

가 오른쪽에 홀로 세워져 있다. 벅수의 크기는 높이 198㎝, 둘레 160㎝이다. 몸체의 앞면에는 '토지대장군(土地大將軍)'이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광무십년병오팔월일동락동입(光武十年丙午八月日同樂洞立)'이라는 건립 연대를 새겼다.

벅수는 화강석으로 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몸체에 비하여 머리가 크다. 툭 튀어나온 눈과 양 옆으로 삐쳐나온 송곳니가 짙은 인상을 준다. 귀면(鬼面) 형상으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웃고 있는 입과 비례가 맞지 않는 얼굴 생김새로 인하여 익살스러운 이미지를 전한다.

얼굴 전반에는 채색을 하였는데 많이 벗겨져 있다. 모자·눈썹·귀·수염 등은 검은색, 얼굴은 붉은색으로 각각 칠하였다. 머리 위에는 모자를 썼으며,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나 있다. 코는 뭉툭한 삼각형이고, 귀는 부처님과 같이 길게 늘여졌다. 입의 양끝을 위로 세워 U 자형으로 웃고 있다. 송곳니 사이에는 이빨 다섯 개가 드러나 있고, 턱 아래에는 세 가닥의 수염이 새겨져 있다.

역사 통영문화동벅수는 1906년에 마을의 재앙을 막고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동네 노인들이 벅수계를 조직하고 세병관 입구에 세운 것이다. 세병관은 1603년에 충무공 이순신의 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건물이며 이후 삼도수군통제사영(三道水軍統制使營)으로 사용되었다. 벅수가 세워진 문화동은 조선시대에는 거제현에 속하였지만 1914년에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통영군 통영면 대화정(大和町)이 되었으며, 1955년에 충무시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1995년 통영시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천사로 인하여 '충무시문화동벅수'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 돌벅수는 시가의 낮은 중심지대에 위치한다. 마을의 방역(防疫), 방액(防厄)을 위한 비보(裨補)장승으로 동남방이 허하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한다. 벅수의 현재 위치는 1983년에 새로 옮겨진 것이다. '벅수이설내력'이라는 비석에 "이 벅수는 처음 도로 아래쪽에 있었으나 도시 계획에 의한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77년 만에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고 설명되어 있다.

내용 경남 통영 지역에서는 장승을 '벅수'라고 한다. 벅수는 민간신앙의 대상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통영문화동벅수는 비보장승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체로 벅수가 남녀 한 쌍을 이루지만 이 돌벅수는 홀로 세워졌다. 1930년대 이전에는 마을 노인들이 매년 봄과 가을에 차일(遮日)을 치고 오후에 한 시간 정도 간단한 제상을 차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는 벅수에게 지내는 동민 전체의 의식은 사라졌으며, 간혹 가정에서 벅수 앞에 촛불을 밝히고 간단한 제물을 차려 치성을 드린다. 통영문화동벅수는 건립시기가 명확히 밝혀져 있으며, 험상궂으면서도 웃고 있는 장승의 해학적 미학을 잘 보여 주는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참고문헌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7).

필자 유승훈(柳承勳)

통영삼덕리마을제당

정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에 있는 마을제당. 마을 어귀에서 장군봉까지 마을 곳곳에 마을수호신을 모셔 놓고 있다. 마을제당은 장군당을 비롯하여 천제당과 당산나무 10여 그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삼덕리 장군당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010.6.24
천진기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010.6.24, 천진기

장군당 장군신도(근대)

장군당 장군신도(현대)

있다. 당 안에는 장군도, 목마 두 마리, 산신당과 산신도, 돌벅수 한 쌍 등이 놓여 있다. 이들 일련의 마을신앙 가운데 장군신도는 '중요민속자료 제9-1호', 장군당 안의 대목마는 '중요민속자료 제9-2호', 벅수는 '중요민속자료 제9-3호' 등으로 세분하여 1968년 11월 23일에 지정되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해 '중요민속자료 제9호 통영삼덕리마을제당'으로 통칭하고 있다.

형태 **1. 장군당과 장군신도** 장군봉은 송장개에서 바라본 산의 지형이 갑옷과 투구를 쓴 장군의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장군봉 정상에 장군당이 있다.

장군당은 이곳에 수군 만호가 있던 시대에는 초가지붕이었으며 1925년쯤에 기와지붕으로 개수하였다고 한다. 장군당을 산제당 또는 상당이라고도 한다.

그 안에 걸린 장군신도는 갑주를 착용한 장군의 모습이다. 장군신도는 현재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수염에 갑옷을 입고 양손에 칼을 쥐고 있다. 표현 기법이 거칠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깔끔하게 그려졌다.최근 것은 목마 뒤에 걸려 있고, 옛 것은 바닥에 내려져 있다. 이 신은 원래 장군봉의 산신령이라고 전해진다. 통영 지방이 이순신 장군의 대첩지여서 근년에 무신이나 남신을 이순신 장군과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신도(神圖)도 여기에 근거하지 않았는지 추측되고 있다. 장군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이 1968년에 발간한 『삼덕리부락당제(三德里部落堂祭)』를 보면 이순신 장군 또는 고려 장군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현지 마을에서는 최영장군사당으로도 인식하고 있다. 지금의 신당은 1988년에 재건축한 것이며, 신당 옆에는 산신을 모신 당을 새로 만들어 놓았다.

장군봉의 장군은 4월 17일이 생일이며, 이날 당 앞에서 메를 지어 생일을 축하해 준다. 또한 큰 어장이 있는 사람들은 당집 안의 목마에 돈이나 물고기를 걸어 두기도 한다.

2. 대목마(大木馬) 장군당의 장군신 그림 앞에 서 있는 두 마리의 목마 가운데 큰 목마(용마라고도 함)이다.

목마는 모두 마을 쪽을 향해 서 있다. 놋쇠로 만든 말도 있었으나 도난당하였다. 큰 목마는 1935년쯤에 만든 것으로, 소박한 형태를 하고 있다. 작은 목마는

장군당 내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010.6.24, 천진기

이 해안에서 어장을 하는 일인(日人)이 풍어 기원으로 헌납한 것이다. 길이 68㎝, 높이 65㎝로 비교적 정교하다.

큰 목마는 여덟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긴 몸통에 두 귀, 네 다리, 꼬리를 끼워 맞추었다. 갈기와 눈등은 먹으로 그려 표시했고, 코는 크게 파냈다. 입과 이빨은 조각한 뒤 붉은색으로 칠하였다. 조각을 했다기보다 나무토막을 잘라 별다른 장식 없이 말 모양을 만들고, 먹으로 세부를 그린 형태이다.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영성한 듯 보이는 소박한 말의 모습이 오히려 친근감은 준다.

작은 목마는 정교하게 만들었다. 큰 목마와 달리 말의 외형을 매끈하게 마감했고, 선각·음양각과 먹등을 통해 실제 말 모습과 흡사하도록 만들었다.

말과 관련된 설화에 따르면 장군당의 말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가지고 가다가 물에 빠뜨렸다고 한다. 또 한 예전의 말은 철마였는데 다른 마을에서 훔쳐 가다가 그 배가 바다에 빠졌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어업을 크게 하던 다나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정교하게 만든 목마를 장군당에 모셨다고 한다. 그는 고기를 잡으면 가장 좋고 큰 것을 목마에 걸었으며, 어획량도 다른 사람에 비해 많았다고 한다.

장군당 큰말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010.6.24, 천진기

두 마리의 목마 가운데 작고 정교한 것이 다나카의 것이고, 크고 투박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다나카가 가지고 온 목마는 1960년대에 없어졌고, 그 이후 마을의 머슴이 새로 큰 목마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작은 목마는 2000년쯤에 양개일이라는 스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들 때 장군봉이 보이면 가마나 말에서 내렸으며,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장군봉이 보이는 세포고개를 넘을 때면 꼭 낙마하거나 말이 다쳤다고 한다. 이를 참지 못한 세포마을 사람들은 밤에 몰래 장군봉에 있는 철마를 훔쳐 바다에 버렸고, 그 이후부터는 낙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 철마가 없어진 사실을 안 삼덕리 사람들이 목마를 만들어 안치했다고 한다. 장군봉에 올라갈 때에는 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지 않는다. 장군에 대한 예우와 권위를 보여 주고 위해 주는 것이다.

장군당 작은말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010.6.24 천진기

3. 벅수 통영에서 원항마을로 들어가는 어귀 양쪽에 돌벅수 한 쌍이 서 있다. 남벅수는 마을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여벅수는 왼쪽에 각각 있다. 재료는 화강암으로 192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크기는 한 쌍의 벅수가 각각 85㎝, 90㎝이고, 둘레는 98㎝, 93㎝이다. 벅수는 모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남벅수는 머리장식으로 건(巾)을 쓰고 있다. 마을의 경계표시와 함께 마을지킴이 역할도 한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010.6.24, 천진기

남벅수

여벅수

내용 삼덕리는 원항, 당포, 관유 등 세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관유는 별도의 산신당을 가지고 있고, 원항과 당포는 장군봉에 있는 장군당과 산신당에 마을제사를 모신다.

장군봉의 장군당과 산신당에 드리는 마을공동체 제의는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원항마을은 섣달그믐날, 당포마을은 정월 초이튿날에 각각 제의를 치른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제관을 선정해 지냈으나 지금은 인근의 스님이나 무당에게 의뢰한다.

당포마을은 정월 초이튿날 산신과 장군신에게 제의를 지낸 다음 마을로 내려와서 벅수제와 용왕제를 지낸다. 벅수제와 용왕제가 끝나면 매구꾼들은 먼저 벅수 앞에서 풍악을 치고 절을 한 다음 용왕제를 지낸 바닷가 쪽에 가서 매구를 치고 역시 절을 한다. 그런 다음 마을의 우물과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며 마을의 태평을 기원한다.

원항마을은 섣달그믐날 밤 10시쯤에 장군당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이튿날 오전 5~6시쯤에 벅수제를 시작으로 당산나무제, 용왕제 순으로 지낸다. 장군당·산신당 제의는 스님과 무당 등에 의뢰하여 단독으로 지내고, 벅수제 이후 제의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낸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 6시쯤 이장이 징을 치면 제의가 시작된다. 마을공동체 제의와 별도로 장군당, 산신당, 벅수, 당산 등에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이 마을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제가 잘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신앙 대상이 다양하게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마을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치가 크다.

참고문헌 **경남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 말 민속론**(천진기,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6),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천진기(千鎭基)**

통영최영장군사당

정의 최영 장군을 신으로 모신 사당. 경남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150번지에 있으며, '장군당(將軍堂)'으로도 부른다. 1983년 7월 20일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사당은 단칸의 건물로서 목조와 시멘트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지붕은 기와를 얹었다. 사당 건물은 6.6㎡ 남짓하며, 전체 넓이는 약 26.5㎡이다. 상량문에 따르면 1952년쯤에 지어진 건물로서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인 1984년에 보수작업을 거쳤다. 사당 주위에는 담벽을 쳤으며, 오른쪽에는 수령 200년이 넘는 팽나무가 우뚝 서 있다. 이 팽나무는 최영장군사당과 함께 제당을 구성하고 있는 신목(神木)이다. 이곳에서는 불임 여성들이 와서 비손 하거나 어부들이 고기잡이 나갈 때 그 부인들이 와서 빌었다고 한다.

역사 최영 장군은 고려 말의 대표적인 명장이자 충신으로,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등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하지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요동정벌이 좌절되었고, 이성계의 군대와 싸우다가 잡혀서 유배를 당하였으며, 결국 개경에서 참수(斬首)되었다. 고려를 끝까지 지키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 최영 장군은 민중에게 위대한 영웅으로 인식되었고, 민간신앙에서 신격화의 대상이 되었다. 최영 장군은 덕물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 신령으로 모셔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 남해군 평산, 통영시 사량도와 산양 등 남해안 지역에서도 제당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다.

남해안의 민간신앙에서 최영 장군을 높이 숭상하는 까닭은 최영 장군이 왜구를 물리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최영 장군은 양광전라도왜구체복사(楊廣全羅道倭寇體覆使)로서 왜구를 격파하였으며, 남해군 평산포 수군 진영을 순시한 뒤 미조항에 들러 수군을 격려하였다고 전해진다. 환갑이 넘은 나이로 왜구를 토벌한 공로가 인정되어 해도도통사(海道都統使)에 오르기도 하였다.

최영장군사당이 있는 곳은 과거 진(鎭)이 있었다고 하여 '진촌(鎭村)'으로 불렸다. 1934년에 간행된 『통영군지』에서는 "사량도는 군의 서쪽 수로(水路) 50리에 있다. 옛날에는 수군만호진(水軍萬戶鎭)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사량도는 통영시와 남해군의 중간에 있는 섬으로, 남해로 들어오는 왜구를 방어할 수 있는 요충지로서 수군의 진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왜구를 격파한 최영 장군을 숭배하는 사당을 만들고, 왜구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인물신으로 모신 것이다.

내용 최영장군사당 안에는 최영 장군의 초상화와 '고려공신최영장군영위(高麗功臣崔瑩將軍靈位)'라 적혀 있는 위패가 있다. 영정의 오른쪽에는 말 옆에서 언월도를 들고 서 있는 마부상의 그림이 있다. 왼쪽에는 연꽃 위에서 합장하고 있는 다섯 선녀를 그린 그림이 걸려 있다.

최영장군사당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과 섣달 열나흗날에 사당제를 지낸다고 한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서는 진촌마을의 동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동제를 정월 열나흗날 밤 10시부터 지내며, 이를 '제만' 또는 '제만모신다'라고 한다. 옛날에는 만호(萬戶)와 면장(面長)들이 제관을 하였다고 전해지지만 근래에는 정결한 사람으로 제관과 유사를 뽑아 지낸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일주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근신해야 한다. 제물은 메 · 떡 · 돼지고기 · 채소 · 건어 등이며, 제관집에서 준비한다. 제일이 되면 제관과 유사가 함께 제당에 올라가서 분향재배, 음복의 순으로 제를 지낸다. 이튿날에는 마을 유지들이 유사 집에 모여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제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동네 주민들이 해변에서 제상을 차린 뒤에 바다에 치성을 드린다. 옛날에는 제사가 끝나면 사당 앞마당에서 풍물을 치는 등 재미있게 놀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국역 통영향토지**(통영문화원, 1996), **남해안의 민속신앙**(하종갑, 우석, 1984), **문헌설화와 구비전승에 나타난 고려의 기억-문화적 기억 속의 최영 장군**(백은영,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문화재관리국, 1972).

필자 **유승훈(柳承勳)**

퇴송

표제어 한식(984쪽)

제의
포제

제의장소
포제단
포항북송리북천수

신격
포신

편탕
제물

피막
용어

편탕
포신
포제
포제단
포항북송리북천수
피막

편탕

표제어 생떡국(440쪽)

포신(酺神)

정의 마을의 제반일을 관장하고 보호해 주는 신. 포제지신(酺祭之神), 농포신(農酺神), 이포신(里酺神)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역사 언제부터 포신을 마을제의 대상으로 섬기기 시작하였는지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유교식 마을제가 시작된 것과 때를 함께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포제와 같은 제의가 이루어진 것은 19세기 전반의 일이다.

내용 제주도에서는 매년 정월 또는 7월에 상정일(上丁日)을 기하여 유교식 마을제를 지낸다. 이를 흔히 포제, 농포제 등으로 지칭하였다. 이 포제의 대상이 되는 신은 태세(太歲), 이사(里社), 포신(酺神), 토신(土神) 등이다. 이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것이 포신이다. 오늘날 포신은 유교식 마을제의 대상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이 포신에 대한 관념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대략 정리해 보면 (1) 마을의 생명, 재산, 토지, 생업 등 제반일을 관장 보호하는 신 (2) 자연, 인문 제반사를 관장하는 여러 신의 통칭 (3) 천신(天神)으로서 주로 농업을 관장하는 신 (4) 사람에게 재해를 주는 신 등으로 여럿이면서 그 성격이 모아지지 않는다. 포신만을 모시는 경우에는 (1), (2)와 같은 관념을 지닌다. 토신 또는 토지신을 마을 수호신격으로 함께 모시는 경우에는 (3), (4)와 같은 관념을 지니기도 한다. 결국 어떤 신을 함께 모시는가에 따라 포신에 대한 관념이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흔히 다른 신들과 함께 모셔진다는 사실은 이들이 제각기 다른 직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포신이 본래부터 (1), (2), (3)에 해당하는 신격이 아님은 함께 모시는 다른 신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서는 마을수호신인 토신, 홍역신인 서신(西神)을 포신과 함께 모시면서 포신을 (4)의 인물재해신(人物災害神)으로 관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물재해신의 성격은 포신의 본래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신은 마을제에서 모시는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 서열상 최상위의 신이 아니다. 포신이 중심적인 신격으로 부상한 까닭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지만 원래 포신은 마을에 재해를 내려주는 신이다. 이에 따라 포신이 주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시던 것이 마을제가 간소화되면서 다른 신들의 성격이 포신에 통합되어 현재와 같은 관념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부락제당(이두현 외, 문화재관리국, 1969),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2-민속(북제주군, 1998), 제주도 포제의 역사민속학적 고찰(이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필자 강정식(姜晶植)

포제(酺祭)

상호참조 포제단(957쪽)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유교식 마을 제사의 일반적인 명칭. 정월 정해일[或丁或亥日]에 희생(犧牲)으로 소·돼지 등 가축을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생산물의 풍요와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남자 유지들이 제관이 되어 유교적 의례 방식에 따라 거행하는 마을 제사이다.

유래 포제는 조선시대 때 남성 우위의 유교적 봉건질서가 확립되고 무속을 천시하여 굿을 제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을의 정치적 질서와 관련된 형식의례로 생겨났다. 원래는 당굿과 포제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진행되다가 후대에 와서 여성이 주도하는 당굿(마을굿)과 남성이 주도하는 유교식 마을 제사로 분리된 것이다.

이러한 단서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마을 제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서는 마을포제가 끝난 이튿날 바다에서 해신제를 지낸다. 해신제에서는 축문을 읽는 유교식 의례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심방이 주관하는 요왕굿을 한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는 포제를 지내는 자시(子時)에 당에서도

포제의 제관들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07.2.21
문무병

굿 시작을 알리는 '삼석울림'의 연물[巫樂]을 울리고, 포제가 끝난 이튿날 아침부터 굿을 한다. 이를 포젯굿이라고 한다. 두 마을 모두 포제와 굿의 제물을 똑같이 마련한다. 이를 미루어 남녀 모두 하나가 되어 행하는 공동의 축제이자 한 해 농사의 풍등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던 당굿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능이 분화되면서 조선시대에 와서 무속의 당굿과 유교식 제사인 포제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일반적으로 포제(酺祭)라고 부르지만 마을에서 부르는 명칭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포제(酺祭), 농포제(農酺祭), 이포제(里酺祭)라고 한다. 포제의 대상 신이 '포신지령(酺神之靈)'인 데서 나온 명칭으로, 가장 대표적이며 일반적이다. 둘째, 이사제(里社祭), 동사제(洞社祭)라고 한다. 이사제는 대상 신이 '이사지신(里社之神)'이며, '마을의 사직(社稷)을 담당한 신'을 위한 의례란 뜻이다. 이때 '사(社)'는 '토신(土神)', '직(稷)'은 '곡신(穀神)'을 각각 뜻한다. 셋째, 향제, ᄆᆞ을제, 동넷제라고 한다. 이는 모두 마을 공동의 의례인 데서 나온 명칭으로, 포제·이사제 등 명칭과 복합적으로 쓰인다. 넷째, 거리제 또는 가제(街祭), 별제라고 한다. 거리제, 가제는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등 몇몇 마을에서만 사용하는 명칭이다. 거리제의 제신은 '항구지령위(巷衢之靈位)', 즉 '거리귀신'이다. 길에서 비명에 죽은 원혼들을 위한 굿이며, '거리도청제'가 유교식으로 변한 것이다. 다섯째, 치성제(致誠祭, 애월읍 하귀리 등), 건성제(建誠祭, 성산읍 신풍리 등)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쌓아 올린다는 뜻에서 명명되었다.

포제의 대상 신격은 마을에 따라 1위에서부터 4위 이상 되는 곳도 있으며, 같은 명칭의 신위이면서 성격은 마을마다 다르게 관념되고 있다.

1. 촌락 수호신만 모시는 경우(1位) '포신지위', '토지지신위', '항구지신위', '이사지신위' 등 가운데 어느 한 신위의 지방을 써 붙여 1위의 신에게만 제를 지낸다. '포신지위(酺神之位)'가 가장 많고 '항구지신위(巷衢之神位)'가 가장 적다.

2. 촌락 수호신과 풍농신을 모시는 경우(2位) '토지지신위(土地之神位)'와 '포신지위(酺神之位)' 두 신에게 제를 올린다. 이때 '토지지신위'는 촌락 수호신이고 포신은 농신으로 관념되기 때문에 축문의 내용도 토지지신에게는 마을의 당면한 문제, 포신에게는 오곡풍등과 육축번성 등 농업에 관한 축원으로 각각 꾸며진다. 포신이 상위의 신으로 관념되고 있다(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구좌읍 평대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등). 성산읍 온평리에서는 신을 '존령지전(尊靈之前)', 촌락 수호신을 '별행대신(別行大神)' 또는 '본향지신(本鄕之神)'이라고도 한다.

3. 촌락 수호신과 원혼을 모시는 경우(2位) 촌락 수호신인 '포신지위(酺神之位)'와 원혼인 '무사귀신지위(無祀鬼神之位)' 또는 '제신지위(諸神之位)'라는 지방을 써 붙이고 제를 지낸다. 이때 포신의 제단을 '상단', 무사귀신(無祀鬼神)의 제단을 '하단'이라고 한다. 제의도 '상단제(上壇祭)', '하단제(下壇祭)'라고 하여 상단제를 지내고 나서 하단제를 지낸다(구좌읍 월정리 등). 또 상단에는 촌락 수호신인 '국신지령(局神之靈)', 하단에는 '목숨차지 신'인 '사명대신(司命大神)'을 각각 모시고 제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사명대신'은 원래 전염병을 막아 주는 신으로 음력 칠월에 별제를 올리며, 최근에는 정월의 포제에서 상단제와 함께 하단제로 치르기도 한다(성산읍 고성리 등).

4. 촌락 수호신과 목축 수호신을 모시는 경우(2位) 촌락 수호신인 '수토지신위(守土之神位)'를 상단, 목축 수

호신인 '운행지신위(運行之神位)'를 하단에 각각 모시고 행제하는 경우이다(성산읍 삼달리).

5. 촌락 수호신, 원혼, 무속신을 모시는 경우(3位) 촌락 수호신인 포신을 위한 상단제와 원혼인 제신을 위한 하단제를 순차로 행한 뒤 무속 제의인 마을굿에서 모셔지는 '도청신'과 '본향당신'의 제의를 치르는 경우이다. 도청지신제(都廳之神祭)는 '도청제' 또는 '도청굿'이라 하여 향사 자리에서 마을굿으로 행해졌다. 지금은 유교식으로 고사를 지낸다. 본향당신에 대한 제의도 약식으로 행해진다(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6. 촌락 수호신, 병역신, 목축 수호신, 제사상관장신(諸事象管掌神)을 모시는 경우(4位) 포신 이외에 '염질지신위(染疾之神位)', '목동지신위(牧童之神位)', '제수임지신위(諸首任之神位)'를 모시고 행제하는 경우이다(표선면 성읍리).

7. 촌락 수호신, 간지신(干支神), 병역신, 무속신을 모시는 경우(4位) 서귀포시 월평동의 이포제 축문을 보면 그 해의 간지(干支)를 맡아 보는 천신인 '태세지신위(太歲之神位)', 촌락 수호신인 '이사지신(里社之神)', 본향당신(일뤠할망)으로 보이는 '칠성지신(七星之神)', 전염병을 막아 주는 '유행지신(流行之神)'을 모시고 있다. 지금은 포제를 지내고 있지 않다.

포제는 마을 남자들에 의해 관리된다. 연말이 되면 포제 준비를 위한 포제상회[酺祭鄕會]를 열어 제향비, 제청(제관들이 합숙 재계할 집), 제의 준비, 제관 선출 문제 등을 논의하고 포제가 끝나면 결산 총회를 한다. 포제상회는 마을의 지연·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으로, 자치성이 강하다. 포제를 관리하는 조직체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구공동체조직(舊共同體組織)이다. 이 조직의 일반 형태는 마을의 장인 향장(또는 洞首), 향장의 보좌역인 공원(公員), 경리·서무역을 맡은 총무(總務), 연락 및 사무 보좌역인 차지(次知), 연락 및 잡역인 조사(助事)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과도적인 조직인 '향장(鄕長)-이장(里長)-반장(班長)'의 조직체계로, 구공동체조직과 신행정조직의 중간 형태이다. 향장은 연로자를 추대하여 마을의 권위적 존재로 앉히고 실질적 집행은 이장이 알아서 하는 경우이다. 셋째, 마을 행정조직으로 향장제가 없어지면서 이장-반장의 조직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을 소집해 포제상회를 열고 제의를 준비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포제에서는 12제관을 선출하지만 예비 제관인 도예차(都預差)까지 넣어 13제관을 뽑는 데도 있다. 초헌관(初獻官, 제관), 아헌관(亞獻官, 제관), 종헌관(終獻官, 제관), 집례(執禮, 홀기를 낭송하는 사람), 대축(大祝, 축문을 낭송하는 사람), 알자(謁者, 집례가 홀기를 읽으면 그에 따라 제관을 인도하는 사람), 찬자[贊者, 집례가 부르는 '국궁배(鞠躬拜)'를 받아 '흥(興)'을 창하는 사람], 봉로(奉爐, 향로를 받드는 사람), 봉향(奉香, 향을 받드는 사람), 봉작(奉爵,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는 사람), 사준(司樽, 술병을 관리하고 술을 부어 주는 사람), 전작(奠爵, 헌관이 올리는 술잔을 제상에 올리는 사람), 모든 제물을 관리하는 전사관(典祀官), 예비 제관 도예차를 합하면 모두 13제관이 된다.

제관들은 제청에 입소한 뒤 사흘 동안 정성[齊戒]을 들인다. 이를 '3일 정성'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5~7일 동안 정성을 들이기도 했다. 제청에 합숙하는 사흘의 정성 기간에는 금줄을 쳐서 부정한 자의 접근을 막고 공동생활을 한다. 이 기간에는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영장을 봐서도 안 되며, 오줌허벅을 진다든가 더러운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며, 개고기나 말고기와 같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며, 성행위도 삼가야 한다. 제주시 영평하동에서는 제를 지내기 일주일 전부터 제관들을 마을회관에 모아 놓고 정성을 들이면서 사흘 전부터 회관 바깥에도 나오지 못하게 한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금줄을 쳐서 외지에서 송장 같은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사흘 동안 제관들이 합숙하게 되면 첫째 날은 준비 및 예행연습을 하고, 둘째 날은 제물 및 축문·홀기 등 제문을 준비하며, 셋째 날에는 제물을 봉헌하고 행제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포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초헌관이 신위전으로 나와 향을 사르고 폐백을 올리고[奠幣禮], 신위전에 첫잔을 올린 뒤에 축문을 받들고 꿇어앉는다[初獻禮]. 대축이 초헌관을 대신해 축을 고한다[讀祝]. 이때 모든 제관이 부복한다. 아헌관이 신위전에 둘째 잔을 올리고 물러나면[亞獻禮], 종헌관이 신위전에 셋째 잔을 올리고 물러난다[終獻禮]. 초헌관이 음복위로 나와 음복을 하고 물러난다[飮福]. 집사들이 진설한 제상 위에 손으로 제기를 물리는 시늉만 하고 물러난다[撤邊豆]. 대축은 폐백과 축 등을 거두어 망료위에 나가 불사른다[望燎位]. 이때 초헌관이 함께 배석한다. 이 순서대로 집례가 창하는 홀기에 따라 각 제관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제물로는 희생(犧牲)으로 검은 돼지 한 마리를 준비한다. 이 밖의 제물은 유교식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 백미·기장(쌀로 대용)·수수(좁쌀로 대용)·피쌀(좁쌀로 대용)의 도량서직(稻粱黍稷)과 마른 사슴고기[鹿脯, 쇠고기로 대용], 소금에 절인 생선[魚醢], 대추·밤·유자·배·감 등 오과(五果), 미나리김치[芹菹]와 무김치[靑菹] 등 청근(菁根), 광목류와 백지 등 폐백(幣帛)이 쓰인다.

특징 유교식 마을 제사인 포제는 마을의 자치와 관련된 정치적 집회 성격이 강하다.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등을 빌고 집안마다 무사하길 비는 축문의 내용으로 보아 당신앙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심방이 굿으로 하는 의례가 석전제의 의전 절차에 따라 축문을 읽는 형식의례로 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교식 마을 제사는 석전제를 기본 틀로 하는 유교식 의례 방식에 따라 거행되며, 남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남성 유지들이 제관이 되어 거행하는 형식의례이다. 그러므로 포제는 고대부터 거행되던 무속적 당굿이 남성 중심의 유교식 제사 형태로 전해오는 마을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마을제 종합보고서-제주 유교식 마을 제의 전승현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2010), 제주도 본향당신앙과 본풀이(문무병, 민속원, 2008), 제주도지(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의 문화재-증보판(제주도, 1998), 제주의 민속(제주도, 1998), 제주의 전통문화(제주도교육청, 1996),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필자 문무병(文武秉)

포제단(酺祭壇)

상호참조 포제(954쪽)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유교식 마을 제의가 베풀어지는 제의 장소.

내용 포제단들은 거의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위치는 마을 어귀나 노변 등 일반적인 조건은 없지만 인가(人家)에서 떨어져 개소리나 닭소리 등이 안 들리고, 사람의 왕래가 번잡하지 않은 조용하고 음적(陰的)인 곳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포제단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했다가 '4·3사건, 도로 개설, 개발 사업' 등 이유로 포제단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증언도 여러 마을에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향사를 포제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 안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인가와 가깝게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포제단의 형태는 위치와 관련이 깊은 경우가 많은 셈이다. 즉 마을 위치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해변, 천변, 전지, 임야, 구릉 등 아무곳이나 택함으로써 그 곳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포제단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포제단을 형태적 특징으로 나누면 노지형(露地型), 돌담형(石垣型), 당우형(堂宇型)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노지형 노지형은 인가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에 돌담과 같은 시설물이나 제사(祭舍)와 같은 건물도 없이 23.1~26.4㎡의 노지에 자연석을 모아 평평하게 제단을 만들고, 작은 판석을 신위의 수만큼 가지런히 설치하여 놓은 제단 형태이다. 반석의 제단이나 165~200㎡의 넓이에 돌담 등 울타리도 두르지 않은 상태의 비탈진 자연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제단에서 제의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관들이 제단 옆에 마련된 임시 천막 거처를 제청으로 삼아 정성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찾을 수 있다. 호근동은 서귀포 시내에서 서쪽으로 15㎞ 정도 떨어져 있으며 바닷가에서부터 중산간에 이르기까지 넓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농촌마을이다. 예부터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산악을 이용하면서 살아야 했다. 이 때문인지 호근동의 포제단은 각시바위 정상 부근에 마련되어 있다.

호근동에서 포제는 정월 상정일에 치른다. 제관은 제청으로 입재하여 사흘 동안 정성을 들인 뒤 제의 봉행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호근동에서는 다른 마을과 달리 입재 사흘 전에 제청으로 입재하여 정성을 들

인다. 입재 사흘째 아침이 되면 각시바위에 있는 포제단으로 제청을 옮겨 정성을 들이다가 제의를 지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제의 하루 전날 각시바위 제청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예행연습을 한 뒤 이튿날 자정에 제의를 지내는 점 또한 다른 마을과 차이를 보인다.

노지형 포제단의 경우 추위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처로 천막을 설치한다. 이때 사람이 대기하는 곳과 제물을 준비하는 곳으로 나누어 설치해야 한다. 호근동의 경우 각시바위 주변 포제단에 오래전부터 천막을 설치하던 곳에 바닥을 평탄하게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나지막하게나마 돌담을 둘러 다른 지역과 구분하고 있다.

난방을 위해 임시 거처인 천막 안에는 석유난로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제관들은 천막 밖에 피운 모닥불에 의지해 추위와 졸음을 쫓는 편이었다.

돌담형 돌담형은 돌로 담을 둘러쌓고 그 내부에 제단을 설치한 형태이다. 제주도 내 포제단의 일반적인 형태로 가장 많이 있는 편이다. 제단 형태는 비가림 시설이 있는 형태와 비가림 시설이 없는 형태로 구분되기도 한다.

비가림 시설이 없는 형태로는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애월읍 하가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지의 제단이 있다. 명월리의 경우 1,000㎡ 정도의 포제단을 각석으로 돌담을 둘렀다. 그리고 마을로 연결된 길가에는 출입구로 살창의 철문(鐵門)을 설치하였다.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제단이 형성되어 있다. 다듬질한 큰 판석(板石)을 제단으로 삼고 그 아래에 받침을 돋우는 형식이다. 제단 앞에는 향로석(香爐石)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제단 주변에 관세위의 위치와 집례, 찬자의 위치도 작은 석재로 표시하고 있다.

하가리의 경우 660㎡ 정도 포제단의 경계를 자연석으로 담을 둘러 다른 지역과 경계를 지었다. 그리고 산업도로로 연결된 길가에는 출입구로 살창의 철문을 설치하였다. 살창을 들어서면 제관들이 입재 정성을 들이는 제청이 마련되어 있다. 그 안쪽의 깊고 높은 쪽에 작은 자연석 판석을 여러 장 모아 넓은 제단을 설치하였다. 그 앞쪽에는 작은 향로석을 놓았다.

성읍리의 경우 1983년 조성한 제청 옆으로 난 포장도로를 따라 난 안쪽에 330㎡ 정도 포제단을 자연석으로 담을 둘러 다른 지역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 조금 낮은 곳에 조그마하게 돌담을 둘러 하단을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출입구에 출입문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포제단의 제단은 출입구의 반대편 안쪽에 설치되어 있다. 장방형(長方形)의 넓은 반석(盤石)이 지면에 설치되고, 향로석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이 같은 형태의 포제단은 성산읍 온평리도 같다.

연미마을의 경우 제단 청소를 할 때 제단 전부를 덮을 수 있도록 제단 안에 천막을 설치하여 제의봉행에 임하고 있고, 법환동의 경우 비가림 시설이 없지만 아예 비닐하우스를 전체적으로 설치하여 우천이나 바람 등에 대비하고 있다.

비가림 시설이 있는 형태로는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아라1동, 2동 등지의 제단이다. 애월리의 경우 각석으로 담을 두르고 그 내부에 제관들이 옮겨다니는 '신도'(神道)를 판석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그 이외 지역은 소나무를 심어 조경하였다. 그 안쪽에 청기와를 얹은 비가림 시설을 하고 아래에 두꺼운 가공 판석(板石) 두 장을 받침에 고여 놓아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 향로석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같이 동일 포제단 내에 신위(神位) 2위를 함께 모시게 되어 토신(土神)과 포신(酺神)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애월리와 같이 2신위(里祀之神과 酺神之位)를 함께 모시는 마을로는 애월읍 유수암리를 들 수 있다.

아라1동의 경우 각석으로 담을 두른 다음 기와를 얹었으며, 담 안쪽은 시멘트 포장으로 단장하였다. 출입구 쪽이 마을을 향해 자리 잡도록 하였으며, 제의봉행 때 이곳에 금줄을 설치하고 부정을 방비하기도 한다. 그 안쪽에 제단을 설치하고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기와를 얹었다. 제물을 진설하는 제단 뒤에는 이사(里祀)라고 음각한 신위를 세웠다.

당우형 당우형은 포제를 모시는 제단으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치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경우 제관들의 정성을 위한 금기의 공간이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포제단 안에서 입재 생활을 하다가 제의 봉행을 하는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신촌리의 경우 신촌향사를 이용하고 있다. 원래 신촌향사는 향사와 관리사로 갖추어진 건물로, 1975년에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때 공무(公務)를 처리하던 곳이었다. 정확히 언제 건립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중동 길가에 있던 것을 1805년(순조 5)에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몇 차례의 보수와 개조로 변형된 것을 옛 모습처럼 보수하여 신촌리사무소로 사용하다가 1977년에 사무소를 새로 지어 이사한 뒤로 사용치 않고 있다.

제청으로 쓰고 있는 향사 건물은 전면 일곱 칸, 측면 두 칸의 우진각지붕 중앙의 대청이 넓은 기와 건물이다. 이곳에서 제관들의 사흘에 걸친 입재 정성은 물론 신촌리 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사 건물은 향사 왼쪽에 위치하며, 전면 세 칸 우진각기와지붕 건물이다.

건입동의 경우 포제당을 이용하고 있다. 원래 건입동의 포제단은 금산수원지 상류 부근에 있었다. 지금의 사라봉 중턱의 이 자리에 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 1991년경 마을 사람들이 제단을 조성하고 위패를 모시는 신주각[삼신위(三神位)로 토신지위(土神之位), 포신지위(酺神之位), 가신지위(街神之位)의 삼신

포제단

명월리 포제단
제주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002.2.18, 김동섭

성읍리 포제단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001.2.5, 김동섭

포제단

애월리 포제단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01.2.24, 김동섭

아라1동 포제단
제주 제주시 아라1동 2009.3.1, 김동섭

신촌리 포제단 제의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997.2.14, 김동섭

제주 제주시 건입동, 2008.2.16, 김동섭

건입동 포제당

건입동 포제당 제물 진설

위를 가리킨다]을 설치하면서부터 포제당(酺祭堂)으로 가꾸어지게 된 것이다.

삼양3동인 벌랑마을의 경우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다. 원래 삼양3동의 포제단은 마을 내 깨끗한 곳을 골라 포제를 치렀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마련되어 회관 안에 경로당이 개설되고 난방과 취사가 가능한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제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을회관 2층에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 그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포제를 봉행하게 되었다. 특히 삼양3동의 경우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 어촌계에서 포제와 함께 용신제가 치러지고 있다. 용신제당이 마을회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어 마을회관이 더욱 유리한 곳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산리의 경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옛 초등학교 옆에 슬래브로 포제단을 만들어 제의봉행에만 활용하고 일체 정성은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다. 슬래브 건물 안에는 판석(板石)으로 만들어 놓은 제단만 있을 뿐 아무런 시설이나 이용물은 없기 때문에 일 년에 한 차례 포제봉행에만 이용한다.

이상 3개 유형으로 나누었으나 노지형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여기서 발전하여 다른 공간과 포제단을 구분하여 경계를 지을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 돌담형인 것으로 보인다. 당우형은 후대에 오면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차량 등으로 제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늘면서 넓고 편리한 곳을 찾다가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주도의 포제단은 당초 개소리와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음적인 공간을 찾아 형성하였으나 후대에 오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서 깨끗한 곳을 찾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포제단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돌담형이 기본이지만 차츰 당우형으로 변하고 있고, 노지형은 가끔 있다.

신산리 포제단 제물 진설
제주 제주시 신산리 2007.2.21, 김동섭

삼양3동 포제단 제물 진설
제주 제주시 삼양3동, 1998.2.9, 김동섭

참고문헌 **제주 유교식마을 제의 전승현장**(김동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2010).

필자 **김동섭(金東燮)**

포항북송리북천수

정의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477번지에 위치한 소나무 숲. 방수, 방풍 등의 기능과 더불어 비보적 기능까지 담당하는 마을 숲으로 '천연기념물 제468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포항시 흥해 지역의 두내, 양촌, 천방, 큰동네, 건너각단 등 마을은 동쪽으로 바다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제법 널찍한 평지로 되어 있어 이 지역은 예부터 주요한 곡창지대로 꼽힌다. 이 평지의 가운데로 곡강천 또는 북천으로 불리는 천(川)이 흐르고 있다. 북천은 평지를 더욱 기름지게 하는 소중한 자연의 혜택이지만 문제는 수해이다. 북천에는 조선 말 때부터 토사가 흘러내려 강바닥이 높아지면서 홍수만 나면 강이 범람했다고 전한다. 수차례 수해를 겪으면서 피땀 흘려 일군 농사를 망치는 일이 반복되자 철종(재위 1849~1863) 때 흥해군수 이득강(李得江)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큰 제방공사를 강행했다. 북천변을 따라 길게 제방을 쌓고 그 위에 수해 방지와 바람막이를 목적으로 한 수림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풍수상 읍성과 흥해의 진산인 도음산(禱陰山)의 맥을 보호하여 흥해읍의 풍수 형국을 완성한다"는 비보풍수적 목적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포항 북송리의 북천수가 탄생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되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이 지역 지도인 「흥해현지도(興海縣地圖)」 및 1938년에 조사된 「조선의 임수」에도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역사적 유래가 깊다.

「조선의 임수」에는 숲의 길이가 2,400m, 너비는 150m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광복 직전에 일본인들에 의해 큰 훼손을 겪게 되어 대부분의 노송이 잘리는 운명에 처한다.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무단벌목, 방치에 따른 주민 생활오물 투여, 농경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북천수는 숲으로서의 고유한 모습을 거의 잃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일대 정비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형태로나마 남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규모는 길이 1,870m, 너비 70m(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면적은 21만 1,923㎡)로 조성 당시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숲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숲 가운데 세 번째로 긴 숲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 북송리의 북천수는 흥해읍의 수해 방지와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풍수상 도음산의 맥을 보호함으로써 흥해읍의 풍수 형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이다. 또한 정월대보름날에 숲의 제당에서 동제를 지내고, 이날 오후 3시 마을 앞산에서 산제를 지내며, 지난해에 묻어 둔 간수(소금물)병에 담긴 간수의 상태를 보고 그해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풍습이 있는 등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의 신앙적 대상이 되어 온 문화·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마을 숲이다.

북천수는 2.5㎞ 길이에 면적 21만 1,923㎡이다. 이곳은 수고 14~16m, 흉고직경 38~60㎝ 크기의 수령 50~200여 년의 소나무와 곰솔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현재 북천수의 조성 배경이 된 북천은 거의 유명무실한 모습으로 흔적만 남은 상태이고, 그를 따라 조성된 솔숲이 2006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북천수는 적송과 곰솔이 섞여 있다. 두내, 양촌, 천방, 큰동네, 건너각단 등으로 불리던 자연마을들은 1914년에 통합되어 북송리가 되었다고 한다. 즉 북송리에 북천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천수가 있어서 북송리가 생긴 것으로 결국 솔숲을 매개로 하여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셈이다. 북천수는 수해방지림인 동시에 방풍림의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아름다운 숲의 경치와 함께 숲길을 따라 수백 개의 장승 작품이 길게 늘어서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興海縣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의 임수**(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지오북, 2007), **포항시의회보 10**(포항시의회, 2007),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92), **문화재청**(cha.go.kr).

필자 **조정헌(曺鼎鉉)**

피막

표제어 해막(980쪽)

하기
하로산또
한라산신
한라산신제
할배까꾸재
함평수문리불막이제
해남소죽마을중구제
해남평암마을도제
해동성적지
해막
해물리기

ㅎ

허수아비
헌관
헌식
헌작
헛배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
홍성백월산홍가신제
홍성성호리제각창건기
홍성성호신당상량문 · 중수기
홍성수룡동당제
홍성옹암리당산제
홍성장촌마을산신제
화룡제
화재막이
황토
흑산도진리당
희생제물

용어
하기
해막
헌관
헌식
헌작
희생제물

자료
해동성적지
홍성성호리제각창건기
홍성성호신당상량문 · 중수기

제구
허수아비
헛배
황토

신체
할배까꾸재

신격
하로산또
한라산신

제의장소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
흑산도진리당

제의
한라산신제
함평수문리불막이제
해남소죽마을중구제
해남평암마을도제
해물리기
홍성백월산홍가신제
홍성수룡동당제
홍성옹암리당산제
홍성장촌마을산신제
화룡제
화재막이

하기(下記)

정의 제의가 끝난 다음 제의에 사용된 비용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결산을 기록해 놓는 장부.

내용 서낭제를 지내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하기닦기'라고도 한다. 하기에는 제의 비용 마련과 충당 방법 등을 기록해 놓았다. 본래 '하기'는 문서 아래에 기록한다는 뜻이다. 이로부터 파생하여 '아래에 기록된 내용'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낭제 문서 전체를 뜻하는 말로도 의미가 확대되었다.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노봉마을의 경우 마을에 전승되는 서낭제 관련 문서의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동해시를 비롯하여 강릉시, 양양군 일원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동해시 서낭제(이한길, 민속원, 2010).

필자 이한길(李漢吉)

하기
강원 동해시 망상동 본동마을, 2010.6.9, 이한길

하로산또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호동 및 표선면 가시리 안좌동, 성산읍 수산리와 시흥리 및 신양리 등지에서 모셔지는 마을 본향당신. '하로산'은 한라산을 의미하며, '또'는 남성 신격을 의미하는 존칭접미사이다. 이에 따라 하로산또는 한라산을 남성 신격화한 당신 명칭이다. '한라산님' 또는 '한라산 신령님'의 의미를 지닌다.

내용 제주도 여러 마을에서 모셔지는 하로산또는 마을 본향당신으로서 마을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호적(戶籍), 장적(帳籍) 등을 담당한다. 마을 사람들의 생산활동, 삶과 죽음, 질병과 재난 등을 관장하는 마을 신인 것이다. 이들 마을에서 하로산또는 보통 마을 본향당에 좌정(坐定)하고 있다. 하로산또를 모시는 제의는 대체로 일 년에 서너 차례 마을 본향당에서 매인심방을 중심으로 무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월의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 이월의 영등굿, 칠월의 마불림제 등이 그것이다.

서귀포시 호근동 본향당신이자 서호동 본향당신의 실제 명칭은 '애비국하로산또'이다. 이들 마을에 전하는 본향당신본풀이에 따르면 하로산또는 한라산 설명옥땅에서 을축년 삼월 열사흗날 자시(子時)에 솟아났다. 좌정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바둑장기를 두던 삼진사 삼백관을 만난다. 이들에게 하로산또는 호근마을 좌정 허가를 얻었다. 호근마을에서 좌정지를 찾아다니다가 돌혹에 좌정하였다. 그리고 단골을 정하고 매인심방을 정하였다. 그 이후 막내딸이 불효를 저지르자 바구니에 담아 버린다. 막내딸은 대정 형방이 말도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일러주었다. 막내딸의 능력이 뛰어남을 알고 형방이 말에 태워 데리고 갔다. 막내딸은 가는 도중 마을마다 일뤳당신을 마련해 두고 자신은 옥할망으로 좌정하여 제향(祭享)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호근동 본향당신본풀이는 하로산또와 그의 막내딸인 일뤳당신의 좌정담이다. 한라산에서 솟아나 좌정할 곳을 찾아다니다 호근마을에 좌정하여 제향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뒤에 덧붙여진 것은 하로산또의 막내딸과 관련된 본풀이이다. 막내딸이 태어났으나 불효를 하자 바구니에 담아 내버리지만 막내딸이 신통력을 보여 줌으로써 대정 형방을 따라가 대정골 당신으로 좌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엄밀하게 본다면 이 호근동 본향당신본풀이는 한라산신계 당신의 좌정경위담에 일뤳당신의 좌정경위담이 결부된 형태로 두 세대의 내력을 담고 있다.

그런데 호근동 본향당신본풀이에서 하로산또의 좌정경위담은 제주도의 다른 한라산계 신격의 본풀이와 공통적이다. 대체로 하로산또를 위시한 제주도의 한라산신계 본향당신은 한라산에서 솟아난 토착형 신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제주시 성산읍 수산리 울뢰ᄆᆞ루하로산당에 좌정한 하로산또는 이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수산본향당 본풀이에 따르면 이 당에 좌정한 하로산또는 처음 대국 중국에서 한라산에 귀양을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성산읍 수산1리와 2리는 물론 고성리, 오조리, 동남리, 성산리의 여섯 마을이 모두 본향으로 모시는 울뢰ᄆᆞ루 하로산당 안에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 하로산또의 신체(身體)로 자리한다. 이 나무인형은 머리가 없다. 본래부터 하로산또의 신체인 나무인형은 머리까지 온전한 것이었지만 1970년대에 어떤 청년이 이 신체의 목을 부러뜨렸다고 한다. 목을 부러뜨린 청년은 얼마 안 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진다.

하로산또라는 이름의 신격은 제주도에서 공통적으로 마을의 본향당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하로하로산'이라 불리기도 하는 성산읍 수산리 하로산또의 경우 생산, 물고, 호적, 장적을 차지한 마을신으로 인식된다.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호동의 하로산또 역시 생산, 물고, 호적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구러ᄆᆞ르 하로산또'라 불리는 표선면 가시리 안좌동의 하로산또 역시 생산, 물고, 호적, 장적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마을 사람들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을 담당하는 마을 본향당신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례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신격화한 당신을 모시는 마을은 많다. 한라산신계열이라 할 수 있는 신격이 좌정하고 있는 곳으로 수산본향당, 상창본향당, 중문본향당, 예촌본향당, 신예본향당, 색달본향당, 예래본향당, 호근본향당, 서귀본향당, 홍로본향당, 서홍본향당 조노깃당 등이 있다. 서귀포 일대와 성산포 일대에 본향당신으로 한라산신계열이 좌정하고 있다.

이들 마을에 좌정하고 있는 신격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다. 한라산을 신격화했고, 대체로 본향당신으로 좌정하고 있으며, 생업적으로 산신·수렵신적 속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그 이름은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울뢰ᄆᆞ루하로산, 제석천왕하로산, 고벵석도하로산, 고산국하로산, 동벡자하로산, 제석천왕하로산,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 등이 그 예가 된다. 대체로 지명이나 본향당 명칭 뒤에 '하로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거나 제석천왕, 백관, 동백자, 서백자 등의 명칭이 들어가기도 한다.

다양한 이름의 한라산신계 신격들 가운데 하로산또라 불리는 신격이 마을 본향당신으로 모셔지는 지역은 서귀포시 호근동, 서호동, 성산읍 수산리·시흥리·신양리, 표선면 가시리 등이다. 이들 마을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로산또라 불리는 남성 신격을 마을 본향당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나 마을에 따라 제일이 조금씩 구별되기도 한다. 또한 한라산에서 솟아난 토착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듯하지만 성산읍 수산리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귀양을 온 외래신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 울뢰ᄆᆞ루하로산당에 좌정하고 있는 신격은 흔히 하로하로산 또는 울뢰ᄆᆞ루하로하로산이라고 불린다. 물론 하로산또라 부르기도 한다. 울뢰ᄆᆞ루하로산당은 성산읍 수산1리와 2리, 고성리, 오조리, 동남리, 성산리 등 여섯 마을이 모두 본향으로 모시는 통합형 신당이다. 당에 좌정하고 있는 하로산또는 생산, 물고, 호적, 장적을 차지한 마을 토주관으로 인식된다. 당제일은 1월 2일과 13일, 2월 13일(영등제), 7월 8일, 11월 14일이다. 울뢰ᄆᆞ루하로산당에서 모셔지는 하로산또는 성산읍 시흥리 하로산당과 신양리 하로산당에서도 모셔진다. 성산읍 시흥리 본향당에서 모셔지는 신격의 이름은 수산리에서 가지를 갈라다 모신 울뢰ᄆᆞ루하로산이다. 수산리에서 가지를 갈라서 모셨음을 그 신격의 이름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성산읍 신양리 하로산당 역시 수산리에서 가지를 갈라 온 하로산또를 모신다. 당제일은 1월 2일, 1월 15일, 2월 15일, 7월 8일이다. 이 당은 2월 15일 영등굿을 크게 하는 당으로 알려져 있다.

서귀포시 호근동의 경우 본향당에서 하로산또 또는 애비국하로산또라 불리는 신격을 모신다. 서호동

본향당 역시 동일한 신격을 모신다. 이들 신격은 마을의 생산, 물고, 호적 등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당제일은 매달 8일로 독특하다. 매달 8일, 18일, 28일에 제를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당제일 규정은 두 마을에서 모셔지는 하로산또 속성의 독특함에서 온 것이라기보다 함께 좌정한 여성신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호근동과 서호동에서 하로산또와 함께 좌정한 여성신인 ᄋᆞᄃᆞᆫ애기단마실청이 지니는 여드렛당신[八日堂神]의 속성에서 당제일이 정해진 것이다.

하로산또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안좌동 본향당인 소꼽지당에서도 모셔진다. 여기서 하로산또는 생산, 물고, 호적, 장적 등을 담당하는 본향당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당제일은 1월 8일, 9월 8일이다.

참고문헌 **남제주군의 문화유적**(제주대학교박물관 · 남제주군, 1996), **무속신화와 문헌신화**(현용준, 집문당, 199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강정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제주도 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문무병, 민속원, 2008).

필자 **허용호(許龍鎬)**

한라산신

표제어 하로산또(964쪽)

한라산신제(漢拏山神祭)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산천단에서 한라산 산신에게 지내는 제사.

역사 탐라국에서 비롯된 한라산신제는 탐라국이 해체되는 1105년(고려 숙종 10)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라산신제 장소는 제사를 지내는 데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라산 정상 북벽이었다. 1253년(고려 고종 40) 10월 무신(戊申)에 국내 명산과 탐라의 신(神)에게 각각 제민(濟民)의 호를 내리고 춘추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리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한라산신제는 일 년에 봄과 가을 두 차례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1418년(태종 18) 4월 11일 신묘(辛卯)에 예조에서 제주의 문선왕 석전제 의식과 함께 한라산제를 지냈다. 한라산제는 전라도 나주 금성산의 예에 따라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1470년(성종 원년)에는 이약동(李約東, 1416~1493) 제주목사(濟州牧使)가 한라산신제 장소를 한라산 정상에서 산천단(山川壇)으로 옮겨와서 거행하였다. 봄과 가을로 한라산 정상에서 제사를 거행할 때마다 제사를 올리러 간 제주도민들 가운데 얼어 죽는 폐단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1601년(선조 34)에는 청음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선조의 명을 받아 한라산신제를 거행하였다. 1601년에 제주도 지역에서 소덕유 · 길운절의 역모사건으로 인심이 매우 동요하고 있었다. 당시 역모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도에 온 김상헌은 제주도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정성으로 한라산신제를 지냈다.

1703년(숙종 29)에는 이형상(李衡祥, 1653~1733) 제주목사의 치계를 바탕으로 한라산신제를 의논하였는데, 치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례의』를 살펴보니 주현(州縣)에서는 사직 문

한라산신제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2007.2.20, 문무병

한라산신제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2007.2.20, 문무병

선왕 포제(酺祭), 여제(厲祭), 영제(禜祭)만 제사한다 했습니다. 주현에서 풍운뇌우의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은 장계에 얘기한 대로입니다"

1474년(성종 5)에는 『오례의(五禮儀)』를 찬성(纂成)하며 한라산신제가 사전에 기록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더욱이 명산대천에 제사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니 지금이라도 사전에 등록하고 치악산 · 계룡산의 제례와 축문식에 따라 정월 · 이월 · 칠월에 제사토록 하였다. 그러나 한라산신제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계속 거행되고 있었다.

1793년(정조 17) 11월 24일 계축(癸丑)에는 제주어사 심낙수(沈樂洙, 1739~?)에게 향과 축문을 주어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는 '주현 명산대천의(州縣 名山大川儀)'에 의거하여 한라산신제를 거행하게 하였다. 1801년(순조 원년) 8월 1일 을사(乙巳)에는 한라산신제와 풍운뇌우제의 향과 축문을 실은 배가 풍랑으로 난파해 향과 축문 모두 바다에서 유실되었으므로 다시 급히 내려주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들 사료를 통해 한라산신제가 지속적으로 거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41년(헌종 7) 7월 초나흗날에 한라산신제를 거행했다. 제주목사는 향과 축문이 중앙에서 내려오자 좌수 · 유생들과 함께 치제하였으며, 돌담을 두른 묘(廟)가 있어 그곳에 신패(神牌)를 봉안하고 옆에는 소나무 30~40그루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1908년 한라산신제는 일제에 의해 폐지되었다. 광복 이후 산천단 마을 주민에 의해 부활되어 유지해 오다가 2009년부터 아라동 차원에서 한라산신제를 계승해 봉행하고 있다.

내용 제주도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한라산 정상에서 산신제를 지내 왔다. 그러나 그 시기가 2월이어서 기상이 악화되면 도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으며, 심할 때는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했다. 1470년(성종 원년) 당시 제주목사 이약동은 도민들의 노고를 덜기 위하여 이곳 산천단에 제단을 마련하여 산신제를 지내게 했다. 이때부터 매해 2월 첫정일[上丁日]에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다.

제주시 아라동 375-1번지 외 5필지 안에는 1964년 1월 31일에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곰솔[黑松]나무와 함께 그 부근의 지명이 되어 불리는 산천단이 있다. 이곳에는 한라산신제의 제단이 있다. 산천단은 한라산신제 외에도 산천제, 포신제(酺神祭), 기우제 등 오랜 시대에 걸친 제사 터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소림천(小林泉), 소림과원(小林果園), 소림사(小林寺) 고송(古松)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명소였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곰솔만 일부 남아 있다. 한라산신고선비(漢拏山神古墠碑), 이약동 목사 한라산신단기적비(紀蹟碑) 등이 서 있다.

원래 이곳에는 이약동 목사가 세운 묘단(廟壇)과 함께 한라산신선비(漢拏山神墠碑)가 있었으나 당시의 비들은 모두 소멸되고 없다. 지금 묘단 옆에 세워진 한라산신고선비와 동강난 기적비들은 조선 말기 이후 지역 유지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지만 이 비들도 중간에 없어진 것을 다시 찾아 세운 것이다. 그 뒤 1989년에는 지역의 유지들과 이약동 목사의 후손들인 벽진 이씨(碧珍 李氏) 문중회가 공동으로 제휘하여 추진한 목사 이약동 선생 한라산신단 기적비(牧使李約東 先生 漢拏山神壇 紀蹟碑)와 묘단이 새로 건립되었다.

산천단 한라산신묘(漢拏山神廟)에서 한라산제를 지냈다는 사실은 『제주읍지(濟州邑誌)』,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탐라록(耽羅錄)』,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사묘조(祠廟條)에 "산천단은 남문 밖 15리쯤 아라리(我羅里) 지경에 있으니 담당관원은 4인이다. 한라산신제(山神祭)를 봉행하는 장소이다. 1470년 목사 이약동(李約東)이 재임 시 이곳에 창건하였는데 지금은 없어졌다(山川壇 我羅里境 直四人 漢拏山神祭 舊時 山頂致祭 人多凍死 成宗元年 牧使 李約東 創建 今廢)"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한라산신제의 제관(祭官)은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집례(執禮), 대축(大祝), 찬자(贊者), 알자(謁者), 봉향(奉香), 봉로(奉爐), 사준(司樽), 봉작(奉爵), 전작(奠爵), 전사관(典司官)으로 구성된다. 축문(祝文)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正月朔日 獻官○○○
敢昭告于
漢拏山神 惟此山川 有神靈明
自古設壇 歲祀已久 今擇吉日
依舊明煙 惟
舊
神監顧
大韓民國奠我地 安玆居民 辟邪進慶 三災八難
官災口舌
疾病盜賊 永爲消滅
大韓民國 國泰民安 各自所願
意得成功 謹以淸酌 牲幣
祗薦于神 尙饗

제례(祭禮)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초헌관이 신위전에 폐백을 올리고(전폐례), 첫 잔을 올리고 축문을 받아드린 후 꿇어앉는다(초헌례). 대축이 초헌관을 대신해 축을 고한다(독축). 이때 제관 모두 굴복한다. 아헌례와 종헌례가 끝나면 초헌관이 신위전에 꿇어앉아 집사가 내려주는 술과 안주를 받아 마신다(음복례). 대축에 들어가 변과두를 거둔다(철변두). 다음에는 헌관을 비롯한 참여자 전원이 사배한다. 대축은 폐백과 축 등을 거두어 망료위에 나가 불사른다(망료). 이때 초헌관도 함께 배석한다.

한라산신제 봉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원조의 『탐라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신축년(1841) 7월 초 4일에 한라산신제를 봉행하였다. 축책(祝冊)이 서울에서 내려왔으므로 먼저 좌수와 유생들로 하여금 모셔서 따라가게 하고 나는 나중에 길을 떠났다. 신단은 주(州)에서 20리 되는 거리에 있었다. 돌담으로 두른 묘(廟)가 있고 여기에 신패(神牌)를 봉안하였다. 곁에는 포신사(酺神祠)가 있고 좌우에는 오래된 소나무 30~40그루가 빽빽하게 들어서 우거져 있었다. 제사를 지내는 날은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갑자기 개어 날씨는 맑고 상쾌했다. 제사를 지내고 관아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첫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포신묘(酺神廟)에 대해서는 이원진의 『탐라지』 「제주」 사묘조(四廟條)에 "포신묘는 소림 과원 안에 있다(酺神廟 在小林果園中)"고 하였고, 조선 정조대에 발행된 『제주읍지』에는 "포신단은 산천단 아래에 있다(酺神段 在山川壇下)"고 하였으며, 19세기 중반에 나온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포신묘는 옛날 소림 과원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한라산신묘 옆으로 옮겨 세웠다(酺神廟 舊在小林果園中 今移建于漢拏山神廟傍)"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포신묘는 사람과 사물에게 닥친 재해(災害)를 신에게 빌어 액을 막고 복을 빌던 제단으로, 오늘날의 포제단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한라산은 남쪽 끝에 있는 명산대천(名山大川)이며, 진산(鎭山)이요, 신령한 산이다. 운공(雲空)에 맞닿아 백령(百靈)이 머무는 곳으로 모든 산악의 으뜸이다. 그러므로 한라산에 제사하는 산천제(山川祭)는 산의 백령을 위하는 산신제이자 하늘을 여는 천신제의 의미를 지닌다. 한라산신은 천신의 권능을 빌려 탐라 백성들을 지켜 주는 산신이자 천기(天氣)를 관장하고 하늘의 기운과 풍운뇌우를 조절하는 천신(天神), 탐라 백성을 지켜 주는 한라산신으로서는 전염병의 재앙을 막아주는 신, 탐라 백성의 건강을 지켜주는 신, 곡식의 풍요와 가축의 번성을 지켜 주는 이사지신(里社之神)이자 포신(酺神)이다.

즉 한라산신은 탐라국과 탐라 백성의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시켜 주고, 전염병에서 건강을 지켜 주는 치병의 신이며, 3재인 풍재(風災) · 수재(水災) · 한재(旱災)를 막아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지켜 주는 신이다. 한라산신은 풍우를 조절하여 태풍과 장마를 막아 주며, 축산 번성과 농사의 풍요를 가져오는 산천신 · 풍운뇌우신 · 포신의 기능을 하는 신(神)이다.

참고문헌 **제주도부락지**(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의 전통문화**(제주도교육청, 1996), **제주의 민속**(제주도, 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제주도, 1998), **제주도지**(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도 본향당신앙과 본풀이**(문무병, 민속원, 2008), **아라동지**(아라동지편찬위원회, 2008),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제주도 마을제 종합보고서-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제주특별자치도, 2010).

필자 **문무병(文武秉)**

할배까꾸재

정의 가신(家神)신앙의 한 종류로, 골맥이할배를 모셔 놓은 신체.

형태 '할배까꾸재'는 '골맥이할배'와 '까꾸리(갈쿠리)'의 합성어이다. 신체가 까꾸리처럼 생겼다 하여 할배까꾸재라고 부른다. 모시는 대상 신에 따라 '영등까

할배까꾸재
1998, 국립민속박물관

꾸재', '삼신까꾸재' 등이 있다. 지역에 따라 까꾸재를 '까꾸지', '까꾸리' 등으로 달리 부르기도 한다.

까꾸재의 형태는 미역을 건져 올릴 때 쓰는 까꾸리라는 도구와 비슷하다. 가지가 많이 벌어진 소나무를 다듬어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이다. 길이는 30~40㎝이며 한지로 묶어 놓았다. 주민들은 이것을 할배까꾸재라고 부르면서 골맥이할배로 인식한다. 주택을 개량하면서 까꾸재의 크기를 줄여서 걸어 놓거나 큰 못을 하나 박아서 까꾸재를 대신하기도 한다.

내용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2리에서는 동제를 마친 뒤 각 가정에서 '할배까꾸재제사'를 지낸다. 가정에서 올리는 동신 제사이다. 주로 여성이 이 제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부엌에 모시는 경우가 많다. 간혹 남성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백석2리의 할배까꾸재는 선주들이 주로 모신다. 고기를 많이 잡는 데 효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까꾸재를 모시는 집에서는 비싼 고기나 특별하다고 여기는 고기를 잡으면 홀수로 까꾸재에 걸어서 말린다. 여름에는 벌레가 나기 때문에 걸지 않으며, 주로 가을과 겨울에 건다. 수확량과 관계없이 고기를 잡을 때마다 걸기 때문에 한 달만 되면 까꾸재가 꽉 차서 한 짐이 된다. 까꾸재의 고기는 정월대보름날에 지내는 할배까꾸재 제사에 쓴다. 까꾸재에 고기가 가득 찼는데 명절이 없으면 손 없는 날을 받아 걸어둔 고기를 쪄서 할배까꾸재 앞에서 제사를 지낸 뒤 같은 배를 타는 사람 또는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이를 '보새'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어업을 하는 집에서만 섬기는 것은 아니다. 까꾸재는 식구들의 안녕을 보살펴 주는 가신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기 때문에 어업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할배까꾸재를 모신다.

집을 짓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땅이나 집, 동물 등을 살 때, 몸이 아플 때, 선주가 어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할배까꾸재에게 조용히 빌거나 간단히 제사를 지낸다. 선주의 경우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귀향할 때 선주가 까꾸재에 걸 고기를 선원들에게 나누어 주면 선원들은 이것을 다시 부인들에게 '할배고기'라면서 준다. 부인들은 그것을 받아 날것 또는 찐 것을 까꾸재에 건다.

까꾸재를 없애거나 갈아야 할 때에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나무에 걸어 둔다. 까꾸재를 함부로 태우거나 버려서는 안 되며, 산에 걸어 놓고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까꾸재는 할배신이 좌정한 신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경북 울진군 기성면 봉산2리 갈매마을 역시 공동체신앙의 대상인 골맥이할배가 가제화돼 모셔지고 있다. 이를 '할배까꾸리'라고 부른다. 할배까꾸리는 현재 어업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한 집에서 대부분 모시고 있다. 주민들은 할배까꾸리가 고기를 많이 몰아주고 식구들의 안녕을 보살펴주는 것으로 여긴다. 까꾸리에는 자신들이 잡은 가장 큰 고기를 제물로 걸어 놓거나 외지에 사는 자식들이 '좋은 것(선물)'을 보내면 그 앞에서 먼저 알리고 사용한다.

이 마을의 할배까꾸리 형태는 크게 두 가지이다. 까꾸리라고 부르는 갈퀴 모양의 소나무와 한지를 접은 것이다. 일부 가정에서는 까꾸리에 한지로 묶어 신체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차이는 그것이 걸려 있는 위치 때문에 나타난다. 마루에 좌정한 골맥이할배의 신체는 한지 혹은 까꾸리에 한지를 묶은 형태가 대부분이고, 부엌 뒤편 추녀나 광에 걸려 있는 것들은 까꾸리에 고기를 매달아 놓는 경우가 많다.

갈매마을 역시 할배까꾸리를 골맥이할배의 신체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마을에서는 신체를 태우거나 바다에 버리지 않고 산에 올라가 나무에 걸어 둠으로써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갈매의 제의에 관한 민속지적 연구**(안혜경,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용과 여성, 달의 축제**(한양명, 민속원, 2006), **해촌의 공동체신앙에 대한 연구**(손부영, 민속학연구 4,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8).

필자 **한양명(韓陽明)**

함평수문리불막이제

정의 화재를 막기 위한 액막이 풍속의 하나로 마을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의.

유래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에서 불막이제를 언제부터 지낸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다만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어느 노승이 절터를 찾는 중에 노승봉에서 내려와 수문리를 보았다. 그 터가 명당이었으나 앞산 마루에 화기(火氣)가 있어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노승산으로 올라가는 고개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보고 절터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때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나 "이 마을은 계속 번창할 것이나 화재가 많은 것이 염려되고, 계곡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노승에게 액막이하는 방법을 묻자 노승은 "화기는 막을 수 있지만 낭떠러지는 어찌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었다. 노인은 화기 막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낭떠러지는 차차 대책을 세우겠다고 부탁했다. 노승은 마을 건너편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수문(水門) 위의 등허리에 항아리 셋을 묻되 그 항아리에 바닷물과 우물물을 반반씩 넣어 가득 채우고 꼭 봉한 다음 흙을 덮어서 무덤처럼 해두었다가 불이 나거든 열어 보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마을회의를 열어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물항아리를 사 오는 일은 '웃대미(윗마을)', 뚜껑을 만드는 일은 '아랫대미(아랫마을)', 항아리를 묻는 일은 '동그대미(중간마을)'가 각각 맡기로 정하였다. 정월대보름날 당제가 끝나고 좋은 날을 가려 항아리를 묻었다.

그 후 동그대미에서 불이 나 열어 보니 가운데의 항아리만 물이 없어졌으며, 아무리 살펴봐도 깨진 곳이 없었다. 다시 물을 채우고 묻어 두었다가 아랫마을에서 불이 나 열어 보니 역시 아래쪽 항아리만 물이 없어졌다. 윗마을에서 불이 나 열어 보았을 때 윗항아리만 물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동쪽의 위 항아리가 '웃대미', 가운데 항아리가 '동그대미', 아래 항아리가 '아랫대미'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항아리 뚜껑을 열어 봐 물이 없어진 항아리와 관계된 마을에 불이 난다고 믿게 되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면서 불이 나는 횟수는 줄어들었다.

한편 노승이 말한 것처럼 노승봉 낭떠러지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병신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마을에서 낭떠러지 입구를 막아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결국 낭떠러지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내용 화재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굴뚝이나 지붕에 막걸리·소금·쌀뜨물·물(간수) 등을 뿌리는 형태이다. 굴뚝이나 지붕은 화기와 직접 연결된 곳으로, 이곳을 잘 위하면 화재가 나지 않는다고 믿어 행해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집 안의 네 귀퉁이나 기둥 등지에 이것들을 뿌리기도 한다. 두 번째는 화재 예방을 위한 부적을 붙여 화재를 막고자 하는 형태이다. 민간에서는 화기를 막기 위한 부적을 붙이는데 보통 '수(水) 자'가 보인다. 세 번째는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의를 드리는 것으로, 보통 풍수적으로 화기가 서린 마을에서 지낸다. 함평수문리불막이제는 세 번째 사례에 해당된다. '수(水)' 자를 거꾸로 붙이기도 한다. 이는 물이 쏟아진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1. 제의 명칭 화재를 막기 위한 제의를 '불막이제'라고 부른다.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에서는 '불제', '불막이굿'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한다. 불막이제는 음력 이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지낸다. 제를 이월 초하룻날에 지내는 것은 그믐이 넘어서고 새로 시작되는 날이기에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전리에서

는 정월대보름날 당산제가 끝나면 불막이제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2. 제의 과정 여느 마을제사가 그러하듯이 제관을 선정하고 금줄을 두르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이다. 불막이제에서 보이는 독특한 것이 바닷물과 우물물을 길어 오는 일이다. 대전리의 경우 바닷물을 길어 오는 일은 마을에서 힘깨나 쓰는 젊은이들의 몫이다. 물론 젊은이 가운데 깨끗한 사람을 선정한다. 대전리에서 바닷가까지는 4㎞정도 떨어져 있으며, 1990년쯤까지만 하더라도 물지게를 지고 두 사람이 새벽에 물을 뜨러 갔다. 두 사람이 가는 이유는 교대로 물지게를 지기 위함이다. 그러나 경운기와 트럭이 등장하면서 물을 운반하는 것은 이것들로 대치되었다. 바닷물은 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다 중간에 들어가 깨끗한 물을 퍼 온다. 두 동이의 물이면 불막이제에 쓰고도 남는다. 물 한 동이의 양은 두 말 정도이다. 우물물은 마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웃샘의 물을 쓴다. 물을 뜨러 가기 전에 사람들은 목욕을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과일, 백설기시루, 포, 도라지, 고사리, 무채, 청주 등을 놓는다. 제물 마련에 들어가는 경비는 당산제 줄다리기 때 수렴한 돈으로 충당한다.

제의 진행은 풍물을 치면서 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간수 물을 담은 항아리를 꺼내 확인하고, 물을 보충하고, 항아리를 다시 묻고, 제사를 지내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대전리에서는 제관과 풍물패가 세 개의 항아리가 묻혀 있는 '진등'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윗마을에서 아랫마을에 해당하는 물항아리를 순서대로 열어 본다. 물이 줄어든 항아리에는 미리 준비한 바닷물과 우물물을 반반씩 섞어 채운다. 그리고 돌로 된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덮는다. 항아리는 각각 넉 되의 물이 들어가는 크기이며, 1m 간격으로 묻혀 있다. 항아리 위로는 70㎝가량 흙으로 덮는다. 항아리를 다 묻으면 유교식 제복을 입은 제관들이 제사를 지낸다. 축문은 제사가 끝나면 사른다. 제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하고 마을로 돌아온다. 축문 내용은 천지의 모든 신에게 마을의 평안을 비는 내용이다.

〈祝文〉
維歲次 辛巳二月丁巳
金相來 敢昭告于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
山王海王土地諸位之神
恭修歲事于
全南 咸平郡 孫佛面 大田里
三災八亂 疾病苦厄 民安
維時保佑 實賴神休敢以
酒饌敬伸 尊獻
尙饗

함평수문리불막이제 전남 함평군 손불면 수문리, 2001.2.21, 국립민속박물관

의의 화재는 한 번에 큰 재물과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다. 그러기에 궁궐이나 절, 민간에서는 불기운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주술적인 조치를 하였다. 조선왕조는 궁궐의 화재 발생을 관악산의 화기 때문이라고 보고 궁궐 앞에 해태상을 세우고, 남대문에는 「숭례문(崇禮門)」이라고 적은 현판을 세로로 건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崇禮門의 '禮'는 오행 중 불[火]에 해당하고, 세로로 문구를 쓴 것은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이기에 결국 불로써 불을 막으려는 주술적 행위이다. 마을에 세운 솟대에 물새를 올리는 이유도 마을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이다.

절이나 민간에서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금이나 물 같은 상징물을 이용한다. 경북 청도군의 운문사에서는 음력 정월 스무날쯤에 소금을 담은 단지를 불당 뒤에 묻고, 해인사에서도 절 경내 주위 여러 곳에 소금단지를 묻어 절 앞 화산(火山)의 화기를 누른다. 민간에서도 간수를 땅에 묻어 마을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의를 행한다. 불막이제는 풍수지리적인 자연관을 이용하여 화재를 막으려는 속신이다.

화재막이에 쓰이는 소금은 바닷물의 결정체로서 거대한 물을 의미하며, 물과 불이 상극이라는 수화상극(水火相剋)의 이치를 이용해 불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민간에서 기둥에 '수(水)' 자를 거꾸로 붙여 화기를 누르고자 한 것도 수화상극의 단편적인 예이다. 상량문에 '용(龍)' 자나 '귀(龜)' 자를 쓰는 것이나 문돌쩌귀를 거북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이들 동물이 수신(水神)적 존재이기 때문에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이다.

불막이제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거나 풍수적으로 화기가 서려 있다는 마을에서 행하고 있다. 간수를 담은 단지의 물은 용을 상징하며, 수신인 용의 힘으로 화재를 막으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항아리에 간물을 채우는 것은 용신의 신성력을 담는 것이며, 간물

자체가 용신일 수 있다. 정해진 날 깨끗한 곳에서 간물을 뜨거나 간물항아리가 묻혀 있는 자리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것도 바로 신이 깃든 장소이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불기운을 막겠다는 속신으로 소금, 바닷물, 물, 술 등 불과 상극인 물의 성질을 지닌 물질을 이용해 마을의 화기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것들을 뿌리는 행위는 화재를 진압하는 의미이며, 지붕에 주로 뿌리는 것은 예전에 초가지붕이 불에 잘 탔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간물단지신앙의 용신신앙적 성격**(김명자, 월산임동권박사송수기념논문집 민속학편, 월산임동권박사송수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86), **불액막이 풍습**(이건욱, 민속소식 80, 국립민속박물관,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화재예방-불막이제**(정연학, 민속소식 69,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필자 **정연학(鄭然鶴)**

해남소죽마을중구제

정의 당할머니인 중구(重九)할머니에게 마을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하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 소죽마을의 당제.

역사 소죽마을은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된다. 동남쪽에 본 마을이 있고 서남쪽 야산을 넘어 해안가에 '작은 엄남포'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다. 본 마을은 산의 구릉을 따라 있으며, 마을의 서북쪽에서 남쪽으로 야트막한 야산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다. 입향조인 양천 허씨(陽川 許氏)가 1300년쯤 이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작은 엄남포에서 소죽리로 들어가는 곳에 '혈주재'라는 높은 재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마나 상여가 지나다니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혈주재를 매우 신성시하였다. 어떤 풍수 전문가가 이 마을에 와서는 이 혈주재 때문에 소죽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올 거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혈주재의 한 가운데를 자른 바람에 큰 인물은 커녕 마을이 점점 쇠락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일본인들이 혈주재의 혈맥을 잘랐을 때 산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는 전설도 이 마을에서 구전되고 있다.

해남소죽마을 당집내부
전남 해남 송지면 소죽마을, 2010.6.20
이영금

소죽마을은 지형이 여자의 음부와 같다고 하여 '씹동네' 또는 '씹박골'이라고도 불린다. 마을은 음(陰)의 기운이 강한 형국이어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장수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소죽마을에서 바라다보이는 신흥리 장척마을은 남근을 닮은 지형이다. 옛날에는 장척마을 앞에 남근석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소죽마을 뒷산을 '중구날' 또는 '중구산'이라고 한다. 이 산 중턱에는 중구할머니를 모신 당집이 있다. 소죽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중구일(9월 9일)에 이 당집에서 중구할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다. 과거에는 지금의 당집 터에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으며, 이 소나무에 중구할머니가 좌정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 아래에 돌을 쌓아 3.3㎡ 남짓한 제단을 만들어 제를 지냈으며, 소나무가 썩어서 죽자 1994년에 소나무 터에다 당집을 지어 이곳에 중구할머니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중구할머니가 이 당집에 좌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집 안에는 중구할머니의 신체(神體)가 따로 없고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기와 징·장구·꽹과리 등 풍물기구만 있을 뿐이다. 전에는 나발도 있었지만 1996년에 당집에 도둑이 들어 분실하였다고 한다. 당집 안에 중구할머니의 신체는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중구할머니가 이곳에 거처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재수를 돌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죽마을 한복판에는 마을 공동우물이 있다. 이 우물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맛도 좋은 것으로 유명했다. 정월대보름 때에는 물맛이 좋고 수량이 많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자기 마을의 우물에 붓는 '샘물대기'를 했다. 이때가 되면 인근 마을 사람들도 소죽마을로 몰려와 우물물을 퍼갔다고 한다. 이러한 풍속은 수량이 많은 곳의 물을 가져가 부으면 그해 우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소죽마을 사람들도 이 마을 공동우물을 매우 신성시하였다. 이 공동우물을 제외한 소죽마을의 다른 곳에서는 우물을 파도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공동우물을 신성시하여 늘 깨끗이 사용했다. 중구제 때에는 이 우물에서 새 물이 솟게 하기 위해 묵은 물을 퍼내고 있다.

우물 근처에는 수령 3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암수 한 쌍의 은행나무가 있다. 이 은행나무는 1982년에 면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은행나무 바로 옆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당집을 중심으로 중구산의 양 산줄기가 소죽마을을 감싸안고 있으며, 왼쪽 산줄기가 닿는 곳에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서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이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풍물을 치며 어울려 놀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마을 공동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대 준다고 믿고 이 소나무를 특별히 귀하게 여긴다. 당집에 좌정한 중구할머니가 중구산 끝자락의 소나무 쪽으로 물을 보내면 이 소나무가 우물에 물을 대 준다는 것이다.

중구제가 언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소죽마을에서는 최근까지도 단절하지 않고 매년 음력 구월 초아흐렛날에 중구제를 지내고 있다. 음력 구월 초아흐렛날은 '중구절' 또는 '중양절'이라고 한다. 이 날짜는 양수(陽數)의 9가 겹치는 날에 해당된다. 중양절 무렵에는 햇곡식이 나기 때문에 과거에는 명절로 인식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추수한 벼로 떡과 메를 지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 음기(陰氣)가 센 소죽마을에서는 양(陽)의 수가 겹친 이날을 택하여 중구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소죽마을 사람들은 강한 음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양 기운이 강한 중구날을 택해 중구제를 지내온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에는 무당, 제관, 풍물패가 연합하여 중구할머니 제사를 지냈다. 무당은 이 마을에 살던 노시월이라는 점쟁이였다. 송지면 일대에서 이름난 무당인 노시월은 당제 때 제관들과 함께 마을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하는 비손을 해 주었다. 당제 때 마을 대표자로 선발된 제관들은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마을 군고패는 풍물을 치며 제사 분위기를 돋우었다. 그러나 2005년에 무당이 사망하고 군고패도 사망하거나 노령화되는 바람에 소죽마을의 중구제는 현재 동네에 있는 보경암에서 스님을 모셔다 제를 지내 오고 있다. 소죽마을 주민이 대부분 노인이어서 지금은 과거처럼 풍성하게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중구제 때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스님만이 참여할 뿐이다. 제물도 스님이 절에서 마련해 오며, 제사도 스님이 혼자 맡아서 불경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용 소죽마을은 송지면 일대에서 유일하게 중구제를 지내는 곳이다. 이 마을의 중구제는 매년 음력 구월 초아흐렛날 새벽 4시에 진행된다. 현재는 스님 주도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과거에는 무당, 제관, 군고패가 연합하여 매우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과거에 행하던 제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죽마을 사람들은 정월대보름날 제의보다 중구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누구 집에 강아지만 낳아도 제일을 다음 달로 연기할 정도로 마을 사람들은 중구제를 매우 엄격하게 지냈다. 중구제가 가까울 즈음에 출산을 앞둔 임부가 있으면 그 임부는 다른 곳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했다.

중구제를 지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팔월 그믐날에 마을회의를 하여 생기복덕에 적합한 사람들을 제관으로 선정했다. 제관은 여자 제주 한 명, 남자 제주 한 명, '바리채'라고 부르는 심부름꾼 다섯 명 등이었다. 이 밖에도 이 마을에 사는 무당이 고정적으로 제사에 참여하였다. 제주는 주로 나이든 사람이 선정되었다. 특히 여자 제주는 폐경을 한 깨끗한 사람이어야 했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구월 초하룻날부터 초여드렛날까지 금기를 엄격히 지켰다. 평상시에도 몸가짐을 단정히 하였으며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나서 찬물로 목욕재계했다. 남들과 언쟁도 하지 않았으며, 상갓집 등 부정한 곳에는 절대 가지 않았다. 제관 댁에 황토를 뿌려 부정을 멀리하였고, 일반 가정집에도 황토를 뿌렸다. 마을 사람들은 제일 하루 전날 새벽녘에 안길, 길가, 집안 등을 청소하고 마을 공동우물을 퍼낸 다음 우물 근처에 금줄을 쳤다. 그러고 나서 우물에 차일을 치고 제장에

전남 해남 송지면 소죽마을, 2003.10.26, 이돈기

당집

재배

소지올리기

영(令)을 꽂았다. 우물에 금줄을 치면 제물을 마련하는 여자 제주 이외에는 누구도 이 우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

여자 제주는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물을 마련하였다. 제물은 메 일곱 그릇, 국 일곱 그릇, 민어 한 마리, 조기 일곱 마리, 군고기 일곱 점, 감 일곱 개, 떡 석 되, 돌갓(도라지), 고사리, 숙주나물, 듬북 등이었다. 도라지, 숙주나물, 고사리는 반드시 제사상에 올려놓았다. 지금도 중구제를 지낼 때 이 세 가지 나물은 꼭 차린다. 중구제가 있는 구월 초아흐렛날 새벽에는 이 마을 무당, 제관, 군고패가 함께 당산나무가 있는 중구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아래에 제물을 차렸다. 최근에는 소나무가 사라져 새로 생긴 당집 안에다 제물을 차리지만 과거에는 소나무 아래에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상차림이 끝나면 군고패가 나발, 북, 꽹과리를 치면서 제사가 시작함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군고패는 제사를 시작할 때, 제사 중간, 제사가 끝날 때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풍물을 쳤다. 마을 사람들은 군고패의 풍물 소리를 들으며 제사의 진행 상황을 알게 되었다. 제사가 시작되면 남자 제주가 절을 세 번 하고 술을 올렸다. 이후 제주는 소지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했다. 소지를 올릴 때는 방지소지를 맨 먼저 올렸다. 그런 뒤 할머니, 제주, 이장, 지도자, 장수(長壽)한 자, 중년남자, 소년, 어린이, 복무자(군인, 객지, 타향), 득남, 가축 등을 위한 소지를 차례로 올렸다. 제관에 의한 유교식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 마을 무당이 간단하게 비손을 하며 마을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했다. 이후에 제주는 창호지에 메와 민어를 싸서 당산나무 밑에다 묻었다. 그런 다음 짚을 땅에 깔고 밥과 나물 등을 놓아 잡신들에게 헌식하였다. 중구제를 지낸 이튿날 아침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걸리를 나눠 들고 풍물을 치며 어울려 놀았다. 제사 비용은 밭 두마지기의 소출에서 해결하였고 (제주에게는 수고비 명분으로 나락 한 가마니를 주었다) 나머지 경비는 정월대보름날 마당밟이 때 마을 사람들로부터 걷은 돈을 사용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다양한 방식으로 중구제를 지내다가 최근에는 매우 간소하게 지내고 있다. 과거처럼 제관도 선정되지 않으며, 지켜야 할 금기도 따로 없다. 소죽마을에는 주로 노인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제물을 마련하거나 풍물을 칠 만한 사람도 없다. 그래도 제사를 중단할 수 없어서 2006년부터는 동네 절의 스님을 모셔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물도 스님이 마련해 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따로 장만하지 않는다. 중구제 하루 전날에는 마을 이장이 마을 공동우물을 퍼내고 금줄을 친다. 구월 초아흐렛날 새벽 4시쯤이 되면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스님의 네 명은 당집에 올라간다. 당집 안에 제물을 차려 놓으면 이들이 당집 바깥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풍물을 친다. 현재 풍물은 당집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집에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풍물을 치지 않는다. 제사는 30분가량 진행되며,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읊는 방식으로 제사를 모신다. 마지막에는 스님이 소지를 올리면서 마을 사람들과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한다. 과거에는 중구제를 마치고 동네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어울려 놀았지만 지금은 스님이 음식을 간단히 챙겨 오기 때문에 나누어 먹는 일은 없다.

이처럼 소죽마을 중구제가 많이 약화되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간단하게라도 이 제의가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선조들이 남긴 유산이기도 하고, 제사가 중단되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마을유래지**(해남군, 1987),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해남군**(해남군, 2002), **해남군의 문화유적**(해남군, 1986).

필자 **이영금(李永金)**

해남평암마을도제

정의 마을의 재앙을 막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거리의 잡신을 대접하는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평암리 평암마을 제의.

유래 전남 해남군 북평면 평암리 금부마을은 현재 평암마을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본래 이 마을은 '금부마을'로 불렀으나 금부마을이 일제강점기 때 사용한 명칭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이 '평암마을'로 개칭(改稱)하였다. 이 마을의 도제는 마을이 형성될 때부터 모셔 왔다고 한다. 이 마을의 입향성씨인 김해 김씨(金海 金氏)가 자손의 번창을 위해 도제를 지냈으며 이때 생긴 제의가 현재까지 이 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도제는 거리의 잡신을 대접하는 제사이다. 일명 '거리제' 또는 '헌식제'라고도 불린다. 도제는 거리에 나가 굶어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등의 잡신을 위하고 그 한을 풀어 주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귀신들은 제삿밥을 얻어먹지 못하고 거리를 떠도는 무주고혼(無主孤魂)이다. 억울하게 죽은 이 귀신들은 가슴에 한이 많아 마을에 큰 재앙을 끼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잡신들을 잘 대접하여 위로하면 마을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마을 공동제의로서 잡신을 대접하는 의식은 주로 전남지방의 해안·도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평암마을에서도 잡신을 위로하는 의식인 도제가 오랜 전통을 지니면서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도제를 잘못 지내면 마을에 궂은일이 많이 생긴다고 여긴다. 여름에 가뭄이 심하게 든 적이 있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이 도제를 잘못 지낸 데 있다고 보고 다시 제삿날을 택하여 한여름에 도제를 지냈다고 한다. 평암마을의 주민이 많이 줄고 노령화되는 바람에 요즘 도제는 마을 이장의 주관 아래 매우 간단하게 모셔지고 있다. 1995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의 무당, 제관, 풍물패가 연합하여 도제를 크게 지냈다. 그러나 무당도 1997년에 사망하고 풍물을 치던 사람도 노령화되거나 사망하여 과거처럼 제사 지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최근에는 마을 이장 부부가 제사를 도맡아 준비하고 있다. 제물은 이장 부인과 두세 명의 부녀회원이 마을회관에서 간단하게 준비하는 정도이다. 이처럼 도제 전승 현장이 많이 약화된 편이지만, 평암마을 주민들은 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마을에 궂은일이 생긴다 하여 도제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내용 평암마을의 도제는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오후 4시쯤에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지낸다. 최근에는 도제가 간소화되었지만 마을이 번창한 당시까지만 해도 이 마을 도제는 매우 성대했다고 한다. 과거에 행해진 평암마을의 도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제를 모실 때 일주일 전에 마을회의를 열어 제사를 모실 유사와 제물을 담당할 사람을 선정하였다. 유사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 생기복덕에 맞고 깨끗한 사람만이 선정되었다. 유사로 선정된 사람은 집에 금줄을 치고 대문 바깥에 황토를 뿌렸다. 유사는 사흘 동안 궂은 곳에는 가지 않았고, 소변만 보더라도 즉시 손을 씻고 목욕재계를 했다. 제물은 깨끗하고 유고가 없는 집안의 사람을 선정하여 장만하게 했다.

마을 공동제상에는 돼지머리, 사과, 대추, 밤, 곶감, 배, 자반, 건포, 간장, 식혜, 김치, 육고기탕, 듬북탕, 어물탕, 편, 떡, 적, 육물, 면, 메 두 그릇, 국 두 그릇, 잔 두 잔 등이 올라갔다. 도제를 모실 때에는 마을 공동제상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각자 개인상을 차려 마을회관 앞마당으로 가져왔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상(喪)을 당한 집, 개고기를 먹은 집, 소가 새끼를 낳은 집, 선영 제사를 지낸 집 등은 개인상을 차려올 수 없었다. 자식을 못 낳아 공들일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마을회관으로 가져와 큰 상을 차려 놓기도 했다. 그러나 공들이기 원하는 사람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만 허락되었으며, 제의 전날 목욕재계를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제사 장소에 와야 했다. 도제를 모실 때 참여한 마을 사람들은 50여 명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제상 앞에 돈을 올려놓고 절을 하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제상에 쌓인 돈은 이듬해에 지낼 도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풍물패는 도제를 지내기 전에 하천에서 손발을 씻고 목욕재계를 해야 했다. 오후 4시가 되면 풍물패가 마을 어귀에서 '들당산굿'부터 치기 시작했다. 풍물패는 잡신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4시부터 보름달이 솟을 때까지 계속해서 풍물을 쳤다.

보름달이 떠오르면 본격적으로 제사가 시작되었다. 무당과 유사가 마을회관 앞 공터에 마련된 제상 앞에서 제의를 시작하였다. 집사들이 제상을 차리면 유사가 먼저 유교식으로 의례를 행하였다. 유사가 술을 올리고 나서 재배를 하고 집사가 축문을 읽었다. 유교식 의례가 끝나면 이 마을에 사는 무당이 무속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무당은 단골네가 아니라 신을 받은 점쟁이였다. 무당은 마을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하는 비손을 하며 소지를 올렸다. 제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면 유사가 거래밥을 만들어 마을 어귀 삼거리에 묻었다. 돼지머리의 위턱은 거래밥과 함께 한지로 싸서 북쪽에 묻었고, 돼지머리 아래턱은 거래밥과 함께 한지로 싸서 남쪽에 묻었다. 마을 사람들은 묻은 거래밥을 꺼내 먹으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도제를 마치면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모두 챙겨 유사 집으로 가져갔다. 부녀자들은 유사 집에서 덕은밥(따뜻하게 데운 밥)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늦게까지 어울려 놀았다.

도제를 모신 이튿날에는 풍물패가 마을 어귀로 다시 가서 잡신을 돌려보내기 위해 '날당산굿'을 했다. 풍물패는 풍물을 치면서 "어제 저녁 잘 모셨은께 오늘은 잘 가쇼"라고 사설을 했다. 날당산굿을 마친 이튿날에는 풍물패가 다시 모여 집집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당밟이를 했다.

1995년까지만 해도 평암마을의 도제는 풍물패, 무당, 유사가 함께 주관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성대하게 연행되었다. 지금은 65가구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이 마을에 살았고, 풍물패의 기량도 대단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도제를 모실 마땅한 사람이 없어 마을 이장의 주관으로 간단하게 지내고 있다. 도제 때 비손을 해 주던 이 마을 무당도 사망하고, 풍물을 치던 사람들도 연로하거나 사망하여 풍물의 맥은 단절된 상태이다. 이 마을 도제는 최근까지도 중단하지 않고 지내오고는 있지만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으로 전승 현장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마을 부녀자 몇 명이 제사 당일 장을 봐다가 마을회관에서 공동제물을 장만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도 이젠 개인상을 따로 차려서 오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 마을에서는 2005년에 제의 날짜를 정월 초하룻날로 변경하기도 했다. 평암마을의 주민이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도제 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따로 음식을 마련하여 상을 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제의 날짜를 변경하면 설날을 맞아 외지에서 고향을 찾아온 자식과 며느리들이 개인상을 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명절 때에도 고향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고, 찾아왔다 해도 젊은 사람들이 마을 제사에는 통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날짜를 변경해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자 마을 사람들은 제의 날짜를 도로 정월대보름날로 변경하여 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회관 앞마당에서 도제를 지낸다. 제물을 마련할 때에는 다소 젊고 깨끗한 사람들만 참여하고 부정한 노인은 마을회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도제를 지낼 때에는 노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 대부분이 참가한다. 과거처럼 유사는 따로 선정하지 않고 지켜야 할 금기도 없다. 마을 제사는 마을 이장인 김영남과 주민인 백동인이 고정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연로하여 도제 지내기를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 이장이 전담하여 도제를 진행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사를 준비하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 대부분은 도제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도제가 중단되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여길 정도로 평암마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도제를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사가 시작되면 부녀회원들이 마을회관 앞마당에 공동제상을 차린다. 제상에는 돼지머리, 삼실과, 밥, 국, 삼색나물, 생선 등이 올라간다. 제물은 일반 가정집에서 차리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 과거에는 마을회관 앞마당에 50여 개의 제상이 즐비하게 놓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상이 없고 마을 공동제상만 차려질 뿐이다. 제사가 시작되면 제주(祭主)인 마을 이장이 술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이어 백동인이 축문을 읽으면서 마을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한다. 제사 방식은 초헌·아헌·종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도제를 지낼 때는 30명가량의 마을 사람이 참가한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소원을 빌고 싶은 사람은 제상에 돈을 올려놓고 절을 올리며 소원을 빈다. 과거에는 제상에 올라간 돈이 이듬해의 도제 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주민이 많이 줄어든 최근에는 가정마다 1만 원 내지 2만 원을 걷어 제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이장이 돼지머리 위턱과 아래턱을 따로 떼어내 거래밥을 만들어 마을 어귀의 삼거리 쪽에 묻는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돼지머리의 위턱은 거래밥과 함께 한지로 싸서 북쪽에 묻고, 돼지머리 아래턱은 거래밥과 함께 한지로 싸서 남쪽에 묻는다. 오후 6시쯤에 도제를 모두 마친 마을 사람들은 제상에 차려진 음식을 거둬 마을회관으로 가져와 나누어먹는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도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제사 방식이 많이 간소화되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해남군의 문화유적(해남군, 1986).

필자 이영금(李永金)

해동성적지(海東聖蹟誌)

정의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관왕묘(關王廟)가 세워지게 된 연혁을 기술한 책.

내용 관왕묘(關王廟)는 중국 삼국시대의 장수인 관우(關羽)를 향사한 사당이다. 중국에서 관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장수들이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관우의 사당을 건립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최초로 건립된 관왕묘는 1598년(선조 31) 숭례문 밖에 건립된 남관왕묘[南廟]이다. 남묘는 명나라 장수 진인(陳寅)이 전시에 부상을 입어 치료차 한양의 남산에 거할 때 묘당(廟堂)을 세우고 관우의 신상을 모시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성주(星州)와 안동(安東), 고금도(古今島)에 관왕묘가 건립되었고, 1599년(선조 32)에는 동관왕묘[東廟]의 건립이 착수되어 1601년에 완성되었다. 관왕묘는 명나라 장군들이 묘사의 건립을 주도한 만큼 조선의 정부에서도 그것을 도왔던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후에는 국가의 제사로 여겨질 만큼 자리 잡게 되었다.

영조시대에 관왕묘 제사는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의 소사(小祀)로 포함되었고 정조시대에는 중사(中祀)로 격상되었다. 이어 1832년(순조 32)에는 임란의 6주기를 맞이하여 서울의 동묘(東廟)와 남묘(南廟), 안동·성주·남원(南原)·고금도에 위치한 관왕묘에 물품과 사람들을 내려 보내어 특별한 의례를 거행하도록 하였다.

『해동성적지(海東聖蹟誌)』는 1876년(고종 13)에 간행된 목활자본의 책으로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관왕묘의 건립부터 제식(祭式), 사적에 관련된 문장과 기록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권1은 「묘사고(廟祠考)」, 「유인고(遺印考)」, 「사전고(祀典考)」, 「제문고(祭文考)」, 「영감고(靈感考)」로 구성되어 있고 권2는 「예문고(藝文考)」를 담고 있다.

권1의 「묘사고」에서는 한양의 남묘·동묘, 고금도의 탄보묘(誕報廟), 남원과 안동, 성주의 관왕묘의 건립 연혁과 관제신앙(關帝信仰)과 관련된 전설을 그린 그림, 한양의 남묘도(南廟圖)와 동묘도(東廟圖)를 실었다. 「유인고」에는 묘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각종 인장(印章)들의 종류와 형태, 인장문(印章文) 등을 도식화 하였다. 「사전고」에는 관제묘에서의 제사 규칙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문고」에는 역대 각 관왕묘의 치제문(致祭文)을 모아 연대와 작자를 수록하였다. 「영감고」에는 관제신앙과 관련된 11편의 이적(異蹟)과 사건을 모아 기록하였다.

권2의 「예문고」는 관우나 그의 사적에 관계되는 문장·기록들을 기류(記類)·명류(銘類)·시류(詩類)·부류(賦類)·찬류(贊類)·연류(聯類)·변류(匾類) 등의 항목으로 세세히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해동성적지』는 관제신앙이 임란 이후 우리나라에 전래된 과정과 이후 변화해 가는 모습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海東聖蹟誌, 19세기 후반 관왕 숭배의 확산과 관왕묘 제례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래 지역사회의 동향(손숙경, 고문서연구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필자 김창호(金昌鎬)

해막(解幕)

정의 동제 기간에 예상되는 출산의 '피 부정(不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신의 영역인 마을에서 임산부를 마을 바깥으로 피신시켜 그 기간에 생활하며, 때로는 출산도 하도록 만든 오두막. 피막(避幕), 산막(産幕)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마을신을 역정(逆情)나게 하는 큰 부정(不淨)은 '산 부정'과 '죽은 부정'이다. 산 부정은 아기의 출생, 죽은 부정은 초상이 난 것을 각각 일컫는다. 사람이 죽음을 맞는 시간은 때로 대충 예측할 수 있지만 초상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동제의 일정을 미루는 일은 없다. 그러나 출산의 경우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짐작할 수 있다. 출산 가능한 시간에 동제 일정이 겹치면 자칫 잘못하면 출산에 의한 '피부정'을 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만삭(滿朔)의 임산부는 마을신의 영역이 아닌 마을 바깥으로 동제 기간에는 쫓겨 나가 있어야 한다. 이때 만삭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달이 찬 임산부도 함께 나간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일부의 섬 지방에서 간혹 볼 수 있던 해막이 바로 그것이다. 마을 회의에서 당제 날짜가 잡히고 제관이 선정되거나 제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배가 뜨면 곧바로 임산부들은 해막으로 피신하였다. 이는 누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동제 전통에 의하여 스스로 기꺼이 피하는 것이다.

임산부가 해막으로 피신하지 않거나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마을에 재앙이 일어난다면 임산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의 빗발친 비난과 원망을 감당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원망에서 끝나지 않는다. 당제를 엄격히 치르는 일부 마을은 당제 기간에 산 부정이 발생하면 모든 당제 일정을 중지하고 제수 비용 일체를 산가(産家)에서 변상하도록 하였다.

마을 사람들조차 해막에 피신해 있는 임산부를 함부로 만날 수 없다. 부정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임산부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해막이 멀리서 바라다 보이는 지점에서 소리를 크게 질러 전달하였다. 결코 당제 기간에 어느 누구도 해막에 가서는 안 된다.

해막은 대개 마을과 반대 방향의 바닷가에 위치한다. 일부 마을은 공동묘지 부근이나 '혼(魂)불'이 날아가는 장소에 해막을 둔다. 마을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라면 해막은 비인간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다. 어떤 마을은 해막을 아예 인근의 무인도에 두기도 하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친인척 집으로 나가기도 한다.

해막에서 낳은 아이가 동제가 끝나고 마을로 귀환할 때에 일정한 의식을 치르는 마을도 있다. 이는 비인간적 영역에서 인간의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일종의 입사식(入社式)으로 보인다. 곧 마을로 돌아올 때에 갓난아이를 배에서 내리기 전에 산모가 먼저 하선(下船)하여 갯벌의 흙을 조금 떠서 아기의 이마에 칠해 준다. 갓난아이의 첫나들이에서 아기의 이마와 콧등에 숯검댕이를 바르는 풍습과 유사하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의 경우 음력 사월, 팔월, 십일월에 당제를 모시면서 이때마다 임신부를 마을 뒤편의 해안가에 있는 해막으로 피신시킨다. 해막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으로 되어 있다. 제일 며칠 전부터 남편을 비롯한 식구들이 임산부를 위한 식량과 땔감 등을 해막으로 옮긴다. 이때 '해막할매'라 하여 임산부를 여러모로 돌보아 줄 할머니 한 명도 따라간다. 해막할매는 아기를 많이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일종의 산파(産婆)이다. 해막할매는 해막에 도착하여 곧바로 '해막신(解幕神)'에게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비손을 한다. 아무쪼록 동제 기간에 임산부들에게 아무 탈이 없게 하고, 몸을 풀게 되면 순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해막 주위에는 밤마다 도깨비가 몰려들어 돌을 던지는 등 짓궂게 굴어서, 무섭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해막으로 쫓겨 온 임산부가 여러 명이나 되었고, 집이 아니어서 많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른 임산부들과 벗을 할 수 있어서 적적하지 않고 재미도 있었다. 간혹 해막에서 출산한 경우 이때 태어난 아이는 '해막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해막 아래에는 조그맣게 골이 파인 '해막고랑'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는 언제라도 물이 마르지 않는 '해막샘'이 있다. 외연도 사람들은 음력 칠월칠석이 되면 '태아물' 또는 '탯(胎)물' 맞으러 간다고 하여 해막샘에 다녀간다. 해막샘의 물로 간단히 목욕하는 세시풍속인 것이다. 해막샘에는 왕성한 생산력과 관련된 태아집물[양수(羊水)]이 흐른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것도 인간의 수명장수와 관계 있는 칠월칠석날에 탯물로 목욕을 하였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충남 서해 도서지방의 당제 연구-외연도를 중심으로**(이필영, 국사관논총 82, 국사편찬위원회, 1998), **파도를 건너는 천년의 노래**(강남주, 빛남, 1992).

필자 이필영(李弼泳)

해물리기

정의 동제(洞祭)에 초대받지 못했어도 몰려든 잡귀잡신을 동신(洞神)에게 바치고 남은 찌꺼기 제물로 풀어먹인 뒤에 마을 바깥으로 내치는 마을신앙의 마지막 절차. 마을의 화평을 위해 산신을 비롯한 여러 동신의 호의(好意)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언제라도 마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인 잡귀잡신을 내쫓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 년에 한두 차례 주기적으로 마을에서 잡귀잡신을 구축(驅逐)하여 마을의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시현하려는 의례이다. 그러나 이 해물리기는 마을신앙에서만 편차되어 있는 의례가 아니라 가정신앙이나 무속 등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내용 해물리기는 해(害)를 물리는 행위와 과정 및 결과를 뜻한다. '해'는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훼방을 놓으며, 이로 인해 피해와 손상을 주는 일체의 비가시적(非可視的) 존재나 힘을 일컫는다. '해롭다', '해치다', '해코지' 등의 낱말에서 보이는 '해'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물리기는 '물리다'란 동사의 명사형이다. '물리다'는 굿 따위를 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을 지닌다. 이에 따라 해물리기는 마을에 해를 끼치는 모든 초인간적 존재 및 힘을 몰아내는 의례인 셈이다.

해를 일으키는 주범은 잡귀잡신 또는 객귀(客鬼)라고 인식된다. 이들은 주로 조상이 되지 못한 불쌍한 귀신이다. 조상도 본질적으로 귀신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정상적인 삶과 죽음을 겪었고, 더욱이 봉제사(奉祭祀)를 해 줄 후손을 두었기에 부정적 의미의 귀신에서 벗어나 조상으로 승격된 혼백들이다. 사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저승에 안착하고, 후손과 정기적으로 상봉하는 제사를 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접도 받는다. 그러나 객귀는 생전의 삶도 평탄하지 못했고 죽음의 순간도 비극적이다. 정식 장례절차를 통해 그 죽음이 애도되는 기회도 없었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으되, 상징적으로는 온전한 죽음을 겪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승에도 저승에도 귀속되지 못하고, 이곳에도 저곳에도 거처할 곳이 없는 '뜬 귀'가

되어 객귀란 나쁜 이름까지 얻었다. 후손도 없지만 있어도 비정상적 관계에 놓여 있다.

이들 잡귀잡신은 늘 소외감에 시달린다.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고 피하거나 아예 모멸적으로 구박을 하고 내치기 일쑤이다. 외롭고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굶주리고 헐벗은 상태이다. 처지가 이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소외감을 달래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특히 사람들이 홍청거리고 술과 음식이 푸짐한 잔치판에는 어김없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마을의 종교적 잔치인 동제는 잡귀잡신들이 모여드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산신이나 다른 마을 신령처럼 동민(洞民)으로부터 초대받지 못했어도 기를 쓰고 찾아든다. 물론 동제를 시작하기 전에 마을에 금줄을 치고 황토도 뿌려서 잡귀의 범접을 막았지만 이미 마을에 들어와 있거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온 잡귀들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잡귀잡신이 마을에 계속 머물거나 돌아다닌다면 결국 재앙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예기치 못한 각종의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제관은 동제의 마지막 절차로서 비록 동신에게 바치고 남은 찌꺼기 술과 음식으로나마 잡귀잡신을 실컷 풀어먹여 잘 달래는 한편 겁박하여 그들을 마을 바깥으로 내친다.

이러한 해물리기는 반드시 마을 어귀에서 행한다. 마을 어귀는 마을의 안과 밖을 차단하는 동시에 연결하는 경계이며 문이기 때문이다.

먼저 제관은 허드렛물이나 된장국을 담은 바가지에 제물을 조금씩 담고 식칼이나 작대기로 휘휘 저어 섞어서 준다. 그리고 잡귀에 대한 회유와 협박의 이중적 의미가 담긴 주언(呪言)을 외치며 마을 바깥을 향하여 힘차고도 위협적으로 뿌린다. 바가지에 담긴 음식물은 땅바닥에 볼품없고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다. 이런 음식이나마 잡귀들은 허겁지겁 먹고 마을 바깥으로 쫓겨 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당제의 해물리기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병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부락 잡신 너희들에게 고한다. 이(李)가나 홍(洪)가나 김(金)가나 명(明)가나 여러 각종 성바지 오라는 데 없고 갈 데 없고 먹을 데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에서 갖은 성찬(盛饌)을 마련하여 너희들에게 먹이고자 차려 놓았으니 많이 먹고 우리 부락에 이로운 것은 많이 가지고 오고 해로운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가거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장 거리 중천으로 모두 다 혼백으로 보내니라! 횟씨싸!

말로는 성찬이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제물이다. 그러나 이 음식이나마 먹고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잘 먹었다 못 먹었다 아무 푸념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던 길로 그대로 사라지라는 것이다. 잡귀 주제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물러가지 않으면 대칼로 목을 찔러 한강에 던지든지 앞으로 국냄새나 장냄새도 못 맡게 할 만큼 쫄쫄 굶기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그리고 '헛파세!', '사파세!', '사파하!', '합시다까라!' 등 모호한 주언이 구사된다.

다음으로 잡귀들이 정말로 마을 바깥으로 쫓겨 나갔는지를 확인한다. 제관은 식칼을 마을 바깥으로 멀리 내던진다. 이때 식칼의 날카로운 끝 부분이 마을 바깥을 향해 떨어지면 잡귀가 구축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손잡이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아직 나가지 않은 것이다. 제관은 식칼의 끝 부분이 바깥으로 향할 때까지 여러 번 던진다. 이는 잡귀 구축 여부를 알아보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떠나지 않으려는 잡귀를 강제로 몰아내는 마지막 시도이기도 하다. 어떤 마을에서는 제관이 화살에 수수팥단지를 꽂아서 활로 쏘아 날리거나 손으로 수수팥단지를 힘차게 내던지기도 한다.

잡귀 구축이 확인되면 제관은 지체 없이 식칼을 들고 바로 그 자리의 땅바닥에 X 자를 긋는다. 그리고 식칼을 X의 교차점에 힘차게 꽂고 바가지를 그 위에 얹는다.

여기서 X는 잡귀잡신이 내몰려 나간 '마을 바깥'과 그들이 쫓겨나가 깨끗해진 '마을 안'을 차단하는 상징적인 부호이다. X의 교차점에 꽂은 칼은 이러한 의미를 보강할 뿐만 아니라 확정하기도 한다. 칼 위에 얹어 놓은 바가지는 이튿날에야 수습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해물리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곧바로 요란한 함성을 지르면서 마을 안으로 줄달음쳐 돌아오기도 한다. 이때 누구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당제에 의하여 정화된 마을에 잡귀가 뒤쫓아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해물리기의 목적이나 방식은 굿무의 '뒷전거리'나 경무(經巫)의 '내전(內奠)'과도 거의 비슷하다. 또한 가정신앙의 주술적 민간요법인 '해물리기'나 '잔밥먹이기'와도 상통한다. 곧 굿에 초빙된 조상들을 따라 쫓아온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굿의 송신(送神) 과정이며, 또한 재수가 없어 느닷없이 객귀가 붙어 생긴 급박한 질병을 역시 그들을 된장국이나 시래깃국 등으로 풀어먹여서 집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민간 사고의 한 단면을 살필 수 있다. 마을에 해가 된다고 하여 잡귀잡신을 구박만 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찌꺼기 제물이나마 배불리 먹이려는 동민들의 심성을 읽어야 한다.

참고문헌 **나로도의 당제**(최덕원, 남도민속고, 삼성출판사, 1990),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X와 十의 상징성**(이필영, 박물관학보 10~11, 한국박물관학회, 2006), **해물리기와 잔밥먹이기**(이필영, 한국의 가정신앙 하, 민속원, 2005).

필자 **이필영(李弼泳)**

허수아비

표제어 제웅(784쪽)

헌관(獻官)

정의 동제(洞祭)에서 마을신령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직분을 맡은 제관. 대체로 마을의 주신(主神)인 산신 등을 유교식 제사로 모실 때 헌관을 둔다. 일반적으로 동제를 총괄하는 대표격인 제주(祭主)가 헌작(獻爵)도 한다. 그러나 대규모의 동제, 별신제의 상당제 등에서는 헌관을 별도로 선정한다.

내용 헌관은 원래 유교식 제사에서 헌작을 맡은 제관을 뜻한다. 헌관은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제관을 대표하여 잔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 세 사람을 선출하며 이 가운데 초헌관의 역할이 가장 중시된다.

제사에 있어서 헌작은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이다. 정결한 장소에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진설하고, 비로소 조상을 모신다. 헌관은 제사에 앞서 반드시 재계(齋戒)를 한다. 이는 온전히 조상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헌관이 잔을 올리기 전에 관세(盥洗)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다음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는 육적(肉炙), 계적(鷄炙), 어적(魚炙)을 올린다. 원래는 헌작을 할 때마다 한 가지씩 불에 구워서 올렸다. 이는 유식(侑食)에 앞서 술과 안주로 반갑게 조상을 맞는 절차인 셈이다.

동제에서도 술은 매우 중요한 제물이다. 강신(降神)을 행할 때에 헌관은 집사자로부터 술잔을 받아 세 번에 나누어 모사(茅沙)그릇에 붓는다. 이는 마을신을 부르는 상징적 행위이다.

대체로 자연마을 단위의 동제에서는 헌관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祭主)가 단잔(單盞)으로 헌작을 끝낸다. 동제를 위해서는 제주, 축관, 유사만을 뽑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헌작은 제주가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별신제에서 유교식 제사로 모셔지는 상당제나 다소 대규모로 치러지는 동제 또는 더욱 정성을 들여 모시는 동제 등에서는 헌관을 따로 두기도 한다. 여기서도 헌관 한 명만 선정하는 경우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세 명을 모두 두어 격식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근래에는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제의 경우 지역의 기관장들이 헌관을 맡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초헌관은 시장(市長)이나 군수(郡守), 아헌관에는 문화원장, 종헌관은 노인회장 등이 각각 맡는다.

헌관은 제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정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 생기복덕(生氣福德) 등이 별로 적용되지 않거나 아예 생략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의 마을신앙 상·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헌작**(권오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필자 **이필영(李弼泳)**

헌식(獻食)

정의 절에서 대중이 공양할 때 음식을 조금씩 덜어 아귀에게 주는 것. 마을단위 제의에서도 마을 제의에 동참하지 못한 객귀나 수부를 풀어먹이거나 하위 제차로 용왕제를 지낸 뒤 용왕상에 올린 제수 등을 용왕에게 드리는 것, 또는 주민들이 제수를 들기 전에 신(神)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식 일부를 떼어 놓은 것 등을 헌식이라 한다. 이와 같은 헌식 또는 헌식을 하기 위한 제물을 이르는 용어는 마을 내에서 제물을 받는 대상이나 의미의 차이에 따라 표현되는 명칭은 거래밥 · 헌석 · 헌식밥 · 지신밥 · 고수레 · 퇴송 · 제반 · 걸반상 등 다양하다.

내용 마을 제의에서 행해지는 헌식은 구체적으로 행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헌식 대상 신령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먼저 헌식을 하는 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가지나 그릇에 제물 일부를 떼어내 제당 밖으로 헌식하는 유형이 있다. 이 때 제물은 마을 제의에 동참하지 못한 객귀나 수부를 위해 헌식한 것이다. 특별히 객귀를 위해 헌식하는 것을 많은 마을에서 '고수레'라고 한다.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군천리에서는 서낭고사를 마치면서 제물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제당 밖으로 헌식하여 잡귀들을 풀어먹인다. 귀신은 육십갑자를 다 부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귀신이 없기에 육십갑자를 부르면서 먹고 가라고 빈다.

둘째, 제물 일부를 떼어내 미리 준비한 한지에 싸서 놓아두거나 모신 신령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물 일부를 제당 주변에 남겨 두는 유형이 있다.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서는 서낭제를 지낸 뒤 한지 세 장에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잘 싼 다음 제당 밖으로 나와 북 · 동 · 남쪽 방향으로 멀리 던지는 형태로 헌식하였다. 이는 사방에 있는 신장(神將)들을 풀어먹이는 의미라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동사(洞舍)로 이용하는 대풍헌에 와서 성주고사를 지낸다. 성주고사를 지낸 뒤 한지 두 장에 각각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잘 포장하여 성주가 모셔진 벽에 있는 작은 선반 위에 제반을 한다고 하여 잘 올려두었다. 이는 마을에

헌식
경남 남해군 화계리
2009.2.9. 김도현

헌식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2010.2.27
김도현

서 모신 신들에게 먼저 흠향하게 한 뒤 제관들이 음복을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일부 마을에서는 한지에 싼 제물을 제당 내에 두고 돌을 올려놓은 예도 있다. 울진군 북면 덕천리 마분마을에서는 잡귀잡신을 대접하기 위해 제수를 조금씩 떼어내 한지에 싸서 당 주위에 놓아 둔다. 이와 같이 한지로 제물을 정성껏 포장하여 두는 것은 모시는 신(神)이 흠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헌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제사가 끝나면 제물 음식이나 희생 동물의 뼈 일부를 신앙 대상물에 직접 부착시키거나 그 일부를 제장(祭場) 주변의 땅에 묻음으로써 마을신에게 정성을 계속 표하고자 하는 방식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에서는 소의 턱뼈를 장승의 목에 걸어 준다. 짚으로 만든 오쟁이에 제물 일부를 조금씩 담아 장승이나 당수(堂樹), 수구맥이 선돌 등에 걸어 주기도 한다. 당산제를 마치고 음식의 일부를 조탑 앞에 묻거나 술 한 잔을 붓고 풍물을 쳐 주기도 한다. 주로 충청도지방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 이때 헌식한 제물을 헌식밥 또는 지신밥이라고 한다.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의 사방 경계에 사방신을 두고 이를 위하여 '밥무덤'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제상에 올린 메를 밥무덤 안의 구덩이에 묻은 뒤 돌을 덮은 형태이다. 제사를 지낸 당산나무 옆에 밥무덤을 만들어 메를 묻고, 마을 내 다른 제의 장소에는 한지에 싼 메를 가져가서 밥무덤을 만드는 마을도 있다.

셋째, 별도의 헌식용 제물을 준비하여 헌식하는 유형이 있다. 주로 용왕제를 지내는 마을에서 이 사례를 볼 수 있다.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 성황사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서낭고사를 지내고 하위 제차로 바닷가에서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며 용왕제를 지낸다. 이때 막걸리, 오징어포, 배, 조밥, 한지에 싼 조밥 3뭉치를 준비하여 지낸다. 술을 올리고 제관이 재배한 후 용왕님을 위해 준비한 모든 제물을 바다에 헌식한다. 여기서 조밥은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헌식한 것이라고 한다.

강원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근덕면 대진마을에서는 바닷가에서 제당에 올린 제물 일부를 내려 용왕제를 간단하게 지낸 뒤 제물 모두를 바다에 헌식하여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용왕님을 위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당포마을에서는 섣달그믐날 바다가 잘 보이는 공터에 배를 부리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참석하여 용왕제를 지내고 나서 물밥[용왕밥]을 바다에 헌식한다.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서 지내는 용왕제는 동백정 바로 옆 '큰안이'라 불리는 바닷가에서 치러진다. 용왕제는 큰안이에서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지낸다. 여기에 당기를 중심으로 선주들의 뱃기를 보기 좋게 세우고, 제상을 차린다. 특별히 돼지머리를 올린다. 진설을 마치면 헌작-재배-축원-소지 순으로 진행하고 이후 법사가 바다를 향해 네 장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에 이어 용왕밥을 바다에 헌식한다. 법사는 제상에 올렸던 제물과 메를 백지에 조금씩 싸

헌식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2004.2.4. 김도현

헌식 경북 울진군 기정면 구산리. 2006.5.31. 김도현

한지에 제물 싸기

한지에 싼 제물 올려두기

헌식
강원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 2005.2.23, 김도현

서 용왕밥 세 개를 만든 다음 파도가 들어오는 곳까지 나아가 하나는 왼쪽, 하나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오른쪽으로 힘껏 던진다. 그리고 제상에 남아 있는 다른 제물들도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바다에 던져 넣는다. 돼지머리도 통째로 바다에 던진다. 용왕제 제물로는 일절 음복을 하지 않고 모두 바다에 던져 넣는다. 이를 주민들은 '희식[獻食]'이라고 한다.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남촌에서도 거리제를 지낸 뒤 바닷물이 마을 앞까지 들어오면 용왕제를 지낸다. 이 마을에서는 개인별 소지를 올린 다음 바다의 용왕에게 김쌈을 만들어서 헌식한다. 영신은 엎어 놓은 징 위에 소지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김 한 장을 올려놓는다. 제상에 올린 메를 통째로 넣고 나물도 조금씩 넣은 다음 네 귀퉁이를 접는다. 먼저 웃줄상의 것을 내려서 김쌈을 싼다. 이때 김과 한지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상에 올린 술을 내려서 김에 바른다. 이렇게 '김쌈'을 네 개 마련한다. 사해(四海)에 각기 용왕이 계시기 때문이다. 상에 김쌈을 네 개 차려서 바닷가로 들고 나간다. 영신은 먼저 조그만 공기 그릇에 담은 생쌀을 집어서 바다에 뿌린다. 이렇게 세 차례를 행한다. 그리고 김쌈 한 개를 들고 선 채로 재배(再拜)한 뒤 바다를 향해 힘껏 던진다. 이때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다 먹어라!"라고 소리를 지른다. 김쌈을 던지고 나면 다시 선 채로 바다를 향해 재배를 올린다. 곧 김쌈 한 개를 던질 때마다 생쌀을 세 번 뿌리고, 던지기 전후에는 각각 재배를 올린다. 바다에 던진 김쌈이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잘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용왕님이 제사를 잘 받았다고 여기며, 그렇지 않고 김쌈이 바닷물 위에 둥둥 뜨면 흠향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대체로는 정성껏 준비하고 모시는 용왕제이기 때문에 김쌈은 어지간하면 모두 바닷속으로 잘 들어간다고 한다.

넷째, 제상에 올린 제물 일부를 띠배 등에 실어 각종 재액과 잡귀잡신을 멀리 보내는 유형이 있다. 전북 위도, 충남 외연도 등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헌식한 제물은 주로 용왕제에 올린 제물이다.

다섯째, 농악을 울리면서 흥을 돋우며 잡귀잡신을 위해 헌식하는 유형이 있다. 전남 해남군 금당 사람들은 이를 '헌석'이라 하여 제주들이 관여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과 군기패가 한다. 큰 그릇에 톳, 메, 물, 고기, 떡 등을 말아 담아가서 바닷가에 펴 놓은 짚 다발 위에 부어 놓은 다음 특별한 제차 없이 군기패가 '헌석매구'를 울리며 흥을 돋우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헌식 대상 신령에 따라 분류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잡귀잡신을 풀어먹이기 위해 헌식하는 유형이 있다. 마을 제의에 동참하지 못한 객귀를 풀어먹이기 위해 제의를 치른 뒤 음식 일부를 떼어내 제당 밖으로 헌식하여 객귀를 풀어먹인다. 이에 비해 충남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에서는 메밀떡을 준비하여 마을 제사를 지내기 전에 미리 잡귀잡신을 풀어먹임으로써 제당을 정화하려는 사례가 있다.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반천리에서는 서낭고사를 지낸 뒤 제수 일부를 떼어내 객귀 물림을 한다. 이때 제관은 "육십갑자에

헌식
경남 남해군 화계리
2009.2.9, 김도현

드는 귀신은 이거를 잡숫고 썩 물러가십시오"라고 말하며 고수레를 한다. 삼척시 도계읍 신리에는 객귀를 풀어먹이며 구송하는 축원문이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무에 맞은 목살귀
돌에 맞은 석살귀
뱀에 물린 살흥사
범이 물어 술흥사
인간 낳다 해산귀
복재 죽은 유리말명
무당 죽어 신장말명
총에 맞아 포살귀
……
무슨 귀신이더라도
서낭님이 근처 댕기미
얻어먹고 댕기는 귀신
오늘은 반드시 물러가거라

이와 같이 객귀를 풀어먹이는 것을 일부 마을에서 '퇴송'이라 칭하는 마을도 있다.

둘째, 수부신을 위해 헌식용 제물을 마련하는 유형이 있다.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마분마을에서는 소지가 끝나면 서낭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부신에게 "서낭님을 잘 모시고 다니라"고 대접한다. 짚을 둥글게 반으로 접어 묶은 다음 여기에 메를 얹어서 제단 정면에 있는 팽구나무 고목 주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세 개 놓는다. 수부신이 세 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삼척시 신남마을에서도 엄씨 할아버지 서낭당에서 제의를 치르고 나서 제당 입구 왼쪽에 메 세 뭉치를 한지에 올려 둔 뒤 간단한 의례를 행한다. 이 또한 서낭님을 모시고 온 수부를 위한 헌식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용왕을 위하는 과정에서 헌식하는 유형이 있다. 강원도 고성군 문암마을, 삼척시 신남마을과 후진마을, 경남 통영시 당포마을, 충남 서천군 마량리 등 용왕제를 지내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위 제차로 용왕제를 지냄으로써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한다. 이들 마을에서는 마을 제의로서의 용왕제를 지낸 뒤 용왕님을 위해 준비한 제물을 모두 바다에 헌식한다.

넷째, 마을 제의에서 배향한 신(神)이 계속 흠향하길 기원하며 준비한 제수 일부를 떼어내 남겨 두는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제반한다'라고 한다. 이는 모신 신령이 먼저 흠향하고 나서 사람들이 흠향해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정성을 계속 표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유형에서 모셔지는 신령은 일반적으로 마을 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이거나 조상신 또는 수부신이다.

이와 같이 헌식은 행하는 방법이나 의미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헌식을 받는 신령에 따라 행하는 방법이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나름대로 그 격을 높이 여길수록 정성을 다하여 헌식하고, 하위 신령들에 대하여는 간단한 방법으로 풀어먹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헌식의 대상 신령은 마을 제의에서 모신 신령으로부터 잡귀잡신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마을에 따라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용왕제를 지내는 일부 마을에서 헌식한 제물의 상태를 보아 신령이 흠향한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강원도 영동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경남 남해안 민간신앙**(정연학, 경남 어촌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2002), **남도민속학개설**(지춘상 외, 태학사, 1998),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2000), **삼척 해안지역 마을신앙 연구**(김도현, 역사민속학 2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삼척민속지 4-도계**(김진순, 삼척문화원, 2002), **서천의 당제**(이필영, 서천문화원 · 충청민속학연구소, 2004), **영덕 구계리 굿과 음식**(김도현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한국 마을신앙의 인물신 연구**(김효경,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의 마을신앙 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김도현(金道賢)**

헌작(獻爵)

정의 마을 제사에 오신 신령에게 술을 권하는 절차.

내용 마을 제사를 받기 위해 마을에 온 신령을 위해 술이나 정화수 등을 올린다. 술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헌작은 신령에게 정성을 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유교식 예법에 맞추어 보통 삼헌(三獻)이라 하여

세 잔의 술을 바친다. 세 잔을 바치는 것은 동양적인 수의 개념에서 숫자 '3'의 중요성과 관련이 깊다. 세 잔을 올리는 경우에는 독축(讀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첫잔을 올린 뒤 독축을 하고, 이어 아헌과 종헌을 올린다. 독축을 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단잔(單盞)만을 올린다. 술을 올리지 않을 때도 헌작이라 한다. 맹물을 따르기도 하지만 별도의 헌작 과정을 밟지 않고 정화수를 한 사발 미리 떠 올려 두기도 한다.

술이 지닌 주력(酒力)을 이용하여 신령의 환심을 끌고자 하는 행위가 헌작이다. 술은 고대사회 때부터 신령을 대접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킨 술은 마시면 몽롱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신령의 기분을 전환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술은 빠뜨리면 안 되는 제물이다. 석 잔의 술은 주민이 신령에게 바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이다.

지역사례 마을의 신령께 올리는 최고의 헌물(獻物)은 한 잔의 술이나 한 대접의 청수(淸水)이다. 물은 종교적인 속성을 지닌 원수(原水)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은 마을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 가운데 하나이다. 당제(산신제, 서낭제 등을 포함하는 용어)를 지낼 때에만 사용하는 샘이 별도로 마련된다. 그곳에서 물을 떠다가 신령께 바칠 메를 짓고 청수를 바친다. 물은 술보다는 원초적인 제물로 단출하게 올리는 소제(素祭)의 제물로 주로 사용된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좌정한 경우에는 술, 산신(山神)에게는 물, 남성 산신에게는 술, 여성 산신에게 물을 각각 바친다.

물과 술은 신령에게 바치는 가장 조촐한 제물이지만 그것에는 온갖 정성이 담겨 있다. 한 대접의 청수를 얻기 위해 미리 샘이나 우물을 품는다. 깨끗한 물이 고이면 그 첫물을 길어다가 신령께 바친다. 술 또한 제사를 앞두고 제관이 사흘 또는 하루 전날에 담근다. 제주는 '조라술'이라 하여 특별하게 부른다. 신령에게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존대하는 것이다. 조라를 담글 때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부정을 피한 깨끗한 사람이 담근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 떡과 메 이외에 제관이 직접 만들어 올리는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조라는 신령과 직접적인 영험담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산중에 만들어 둔 조라술을 몰래 꺼내 먹고 탈을 입었다는 것이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신벌(神罰)을 내리는 대표적인 것이 조라

헌작
강원 양양군 현남면 죽정자리 2003.11.8 최호식

헌작
경기 양평군 용문면 덕촌1리, 2002.2.13 황헌만

헌작 경기 양평군 지제면 망미리(안석불), 2002.3.3, 황헌만

라면 술은 신령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제물인 셈이다.

충남 예산군 상가리에서는 조라와 관련하여 재미난 이야기가 전한다. 산제당에 조라를 담가 두었는데 마을 주민이 그것을 몰래 꺼내 마셨다. 이 술을 마시면서 먼저 산신령에게 한 잔을 권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마시는 방식으로 모든 조라를 비웠다. 그 후 그 사람은 나날이 부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욕심쟁이가 조라를 몰래 훔쳐 마셨다. 욕심쟁이는 그 길로 하산하던 길에 다리가 부러졌고, 나날이 가산이 축나 거지가 되었다.

조라는 산신에게 바친 제물이므로 산신의 전유물이다. 이것을 인간이 홀로 차지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 산신에게 먼저 권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취한 것

헌작
경기 양평군 성덕리 2003.3.2. 최호식

은 신령을 대접한 것이 되므로 오히려 상(償)을 받는 빌미가 된 것이다. 이처럼 조라는 신령과 직접 연계된 대표적인 제물로서 신의(神意)를 확인하는 도구이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 1994), 충남의 세시풍속-예산군(김효경, 2002).

필자 김효경(金孝慶)

헛배

프제어 띠배(269쪽)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 (洪城白月山洪可臣祠堂)

상호참조 홍성백월산홍가신제(991쪽)

정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백월산(白月山) 산정(山頂)에 있는 홍가신을 모신 사당. 홍주정난사(洪州靖難祠)란 현판이 걸려 있는 이 사당에서는 홍주성(洪州城)내 홍성 읍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 안으로 인일(寅日)이나 묘일(卯日) 가운데 길일(吉日)을 택해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제당 명칭 역시 다양하여 산제당(山祭堂)·홍가신사당(洪可臣祠堂)·부엉공(또는 부원공)·홍주정난사(洪州靖難祠) 등으로 불린다. 현재 사당의 현판에는 「홍주정난사(洪州靖難祠)」라고 쓰여 있는데 정난사(靖難祠)를 청난사(淸難祠)라고도 부른다. 청난사는 고장을 맑게 해준 공신을 모셨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유래 1596년(선조 29)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홍주목사 홍가신과 그 외의 청난공신 등 모두 다섯 분의 높은 위업을 기리는 데서 유래한다. 즉 홍가신 목사가 선정을 베풀고 홍주를 떠난 이후 홍주읍성에는 각종 질병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 등 괴변이 잇달아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고 그를 사모하는 뜻에서 홍주의 주산(主山)인 백월산에 홍가신의 목상을 세우고 성 안의 사

람들이 해마다 제를 지냄으로써 각종 질병이 사라지고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홍주목사 홍가신을 비롯하여 무장(武將) 박명현(朴名賢)·임득의(林得義), 제찰사 종사관 신경행(辛景行)과 수사 최호(崔湖)의 다섯 청난공신과 함께 '백월산신(白月山神)'이 이곳에 모셔져 있다.

홍가신사당에 대한 기록은 청난비(淸難碑)와 건물의 중수(重修)를 기록한 상량문(上樑文)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청난비는 1641년(인조 19)에 김광현(金光鉉, 1584~1647)이 걸립하였으며 홍성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청난비에 기록된 사당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公)이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 지난 오늘날에 공의 충정은 더욱 빛난다. 홍주 사람들이 그 덕(德)을 사모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니, 백월산의 양지쪽에다 소나무 기둥에 잣나무 판자 신령 앞에 제기를 늘어놓으니 가지는 붉고, 파초열매는 누렇더라.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홍주정난사의 연혁을 살펴보면 만력(萬歷) 46년 무오(戊午) 1618년(광해군 10)에 창건하고 광서(光緖) 12년 병술(丙戌) 1886년 2월 15일(고종 23)에 중수하였다. 그 이후 기사(己巳)(1929년)과 갑인(甲寅, 1974년) 3월 27일에 각각 중수하고 2004년 12월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 2006년 3월 15일 사당을 새롭게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홍가신사당은 2006년 3월 15일 11시 홍성 군수 채현병을 비롯하여 홍주향토문화연구회, 산수보존협회, 월산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비 5,700만원을 들여 준공하였다. 2004년 12월에 발생한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 전소된 기존의 사당을 2005년에 문화재위원회 자문으로 새롭게 건립한 것이다. 전소된 홍가신사당은 건축면적 13㎡ 규모의 붉은 벽돌로 지은 한 칸짜리 기와집이다. 가운데에 쌍여닫이 유리문을 두어 출입 하고 있으며, 출입문 좌우 상부에 각각 창문을 만들어 놓았다. 기와집은 1975년 당시 홍성군수인 조영호의 지원으로 마을 주민 복선채 등이 현재 자리로 이전하여 중수한 것이다. 한편 1975년 현재의 자리로 사당이 옮겨 오기 이전에는 현재 위치로부터 북서쪽 약 100m 지점에 홍가신사당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돌로 쌓은 벽에 초가지붕이었다.

제당 안에는 오른쪽으로부터 일등 공신(一等功臣) 홍가신(洪可臣) 목사(牧使), 이등 공신(二等功臣) 최호(崔湖) 수사(水使), 이등 공신(二等功臣) 박명현(朴名賢) 우후(虞候), 삼등 공신(三等功臣) 임득의(林得義) 파총(把摠), 삼등 공신(三等功臣) 신경행(辛敬行) 등 정난공신(靖難功臣)의 위패(位牌)가 있다. 중앙에는 '백월산신지위(白月山神之位)'라는 산신 위패가 있다. 산신 위패 왼쪽에는 홍가신 일가(一家)로 보이는 목상(木像) 다섯 점이 있다. 목상은 남상(男像)이 두 개, 여상(女像)이 세 개이다. 중앙의 목상이 홍가신이다. 오른쪽은 아들과 막내딸이며 왼쪽은 부인과 큰딸로 보이는 목상이다.

여기서 홍가신의 가계(家系)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홍가신(중종 36년~광해군 7년, 1541~1615)은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2004년 이전) 충남 홍성군 백월산, 이관호

홍가신사당

홍가신사당내 신체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2006년 이후)

충남 홍성군 백월산, 이관호

충남 홍성군 백월산, 2010.2.21, 황헌만

충남 홍성군 백월산, 2010.2.21, 황헌만

충남 아산시 염치읍 출생이며 현재 염치읍 대동리 만전당 경전각은 홍가신의 후손들이 홍가신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사당이다. 그 후손에 따르면 족보상에 홍가신은 직계 후손이 없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마을 사람의 말에 의하면 목상은 16세기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며,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목상은 후세에 몇 차례 개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역사가 오래된 이 목상 역시 안타깝게도 2004년 12월 홍가신사당에 원인 모를 불이 나 소실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5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6년 3월 15일 홍가신사당 안에 기존의 목상을 모태로 새로 조각하여 원 위치에 새롭게 모셔 놓았지만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사당 내부의 신상과 위패 위치는 예전과 같다.

한편 1980년대 초 홍성군에서는 산 정상에 있는 홍가신사당을 산 아래로 옮기고자 하였다. 즉 산 중턱에 있는 산해암(山海庵)을 지나 홍성읍 월산리 방향으로 내려오면 산 아래에 평편한 곳이 나온다. 이곳에 새롭게 홍가신사당을 짓고 다섯 분의 위패를 모셨다. 백월산 정상에 있는 홍가신사당에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0월 홍주문화제 때 치러지는 '홍가신제'에 군수를 비롯하여 제의 참여자들이 산 정상에 올라야 하는데 산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사당을 산 아래로 옮기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홍성의 주산(主山)으로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의미가 상실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산 정상에 있는 홍가신사당은 그대로 둔 채 새로 지은 사당에 다섯 분의 위패만 새롭게 제작하여 몇 해 모시다가 지금은 새로 지은 사당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그 이후 백월산 동쪽 능선을 따라 찻길을 내어 현재는 산 정상까지 차가 오르고 있다.

참고문헌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이관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충남 서해안의 마을 공동체 신앙 연구**(이관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2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홍성군지-증보판**(홍성군지편찬위원회, 홍성군, 1990), **연합뉴스기사**(2006.3.15).

필자 **이관호(李官浩)**

홍성백월산홍가신제 (洪城白月山洪可臣祭)

상호참조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989쪽)

정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백월산(白月山) 산정 홍주정난사(洪州靖難祠)에서 홍주성(洪州城) 내 홍성 읍민(현재 행정구역상 오관리1·2·3구 주민)들이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 안으로 인일(寅日)이나 묘일(卯日) 가운데 길일(吉日)을 택해 지내는 산신제. 홍가신제를 마을 주민들은 산제(山祭), 정난사제(靖難祠祭), 홍가신제(洪可臣祭)라 부른다. 관(官)에서는 '백월산제(白月山祭)'란 이름으로 '홍성문화재 1호'로 지정하여 홍성내포축제가 거행될 때 제의를 치른다.

유래 1596년(선조 29)에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홍주목사 홍가신과 그 밖의 청난공신 등 모두 다섯 분의 위업을 기리는 데서 유래한다. 이몽학의 난은 임진왜란 중인 선조 29년에 이몽학(?~1596)이 주동이 되어 김경창(金慶昌), 이구(李龜), 장후재(張後載), 사노(私奴) 팽종(彭從), 승려 능운(凌雲) 등과 함께 승속

군(僧俗軍) 600~700명을 거느리고 충청도에서 일으킨 난이다. 1596년 7월에 이몽학 일당은 야음을 틈타 홍산현(鴻山縣)을 습격하여 이를 함락한 데 이어 임천군(林川郡), 정산현(定山縣), 청양현(靑陽縣), 대흥군(大興郡)을 함락한 뒤 그 여세를 몰아 홍주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홍주목사 홍가신은 무장(武將) 박명현(朴名賢)과 임득의(林得義) 등을 기용함은 물론 제찰사 종사관 신경행(辛景行), 수사 최호(崔湖) 등과 함께 힘을 합해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한편 이몽학은 그의 부하인 김경창, 임억명(林億命), 태근(太斤) 등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난을 토평(討平)하는 데 공을 세운 홍가신 목사 등 다섯 명에게 1604년 청난공신(淸難功臣)을 책록하였다. 1등에 홍가신, 2등에 박명현 · 최호, 3등에 신경행 · 임득의가 책록되었다. 이들 다섯 명의 공신은 현재 내포 지역의 중심지인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백월산 홍가신사당에 모셔져 있다.

한편 홍가신 목사가 선정을 베풀고 홍주를 떠난 뒤 홍주읍성에는 각종 질병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 등 괴변이 잇달아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고 그를 사모하는 뜻에서 홍주의 주산(主山)인 백월산에 그분의 목상을 세우고 성안의 사람들이 해마다 제를 지냈다. 그러고 나서 각종 질병이 사라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는 1641년(인조 19)에 김광현(金光鉉, 1584~1647)이 건립한 청난비(淸難碑, 충남 문화재자료 제165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는 "공(公)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난 오늘날에 공의 충정은 더욱 빛난다. 홍주 사람들이 그

2004년 이전의 홍가신사당 목상
충남 홍성군 월산리 백월산, 2002.2.23, 국립민속박물관

홍가신제 충남 홍성군 월산리 백월산, 2002.2.23, 국립민속박물관

덕(德)을 사모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노라. 백월산의 양지쪽 소나무 기둥에 잣나무 판자 신령을 모시고 그 앞에 제기를 늘어놓으니 가지 붉고, 파초열매 누렇구나"라고 청난비에 새겨놓았다.

내용 홍성읍에서 서쪽으로 약 4㎞ 가면 해발 394m의 백월산이 나온다. 일월산(日月山) 또는 월산(月山)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은 홍성읍의 주산으로, 홍성읍을 굽어보고 있다. 백월산 주변에는 동쪽으로 홍성읍 월산리, 서쪽으로 갈산면 갈오리, 남쪽으로 구항면 오봉리와 황곡리, 북쪽으로 홍북면 중계리 등 3개 면 1개 읍이 펼쳐져 있다.

백월산에는 신라 초엽에 만들어진 해풍현(海豊縣)의 성터인 해풍현성지(海豊縣城址)가 있다. 둘레가 9,700여 척이나 되는 석성(石城)인 이곳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석성 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으며, 산 정상에는 홍성읍을 내려다보고 있는 홍가신사당이 있다. 홍가신사당에는 「홍주정난사(洪州靖難祠)」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이곳에는 조선조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공로를 잊지 못하여 당시 홍주목사인 홍가신과 그 휘하의 장수 등 다섯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이곳에서 매년 정월대보름 안으로 인일이나 묘일 가운데 길일을 택해 홍성읍 오관리 1·2·3구 주민들이 홍가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때 제의를 앞두고 마을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1주일 이상 제를 연기한다.

홍가신제를 산제, 정난사제, 백월산제라고도 한다. 이처럼 제의 명칭이 다양한 만큼 제당 명칭 역시 산제당, 홍가신사당, 부엉공(또는 부원공), 홍주정난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정난사'를 '청난사(淸難祠)'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고장을 맑게 해 준 공신을 모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당은 석재(石材)로 지은 기와집이다. 현재 당집 바로 직전의 사당은 1975년 당시 홍성군수 조영호의 지원으로 마을 주민 복선채 등이 중수한 것이다. 그러나 2004년 12월 홍주정난사에 원인 모를 불이 나 제당을 비롯하여 내부에 있던 목상과 위패 등이 소실되면서 2006년 3월 15일에 지금의 사당을 새로 지었다. 현재 사당은 붉은 벽돌에 기와지붕이다. 쌍여닫이 나무문은 쌍 여닫이 유리문으로 바꿨으며, 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창문을 두고 있다.

한편 사당에 대한 기록 역시 유래에서 살펴본 청난비와 건물의 중수(中修)를 기록한 상량문(上樑文)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로 보아 홍주정난사는 1618년(戊午, 광해군 10)에 창건하고 1886년(丙戌, 고종 23) 2월 15일, 1929년(己巳), 1975년(甲寅) 3월 27일에 각각 중수한 다음 2004년 12월 화재로 인해 2006년 새로이 사당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당 안에는 오른쪽에 홍가신 목사(牧使), 최호 수사(水使), 박명현 우후(虞候), 임득의 파총(把摠), 신경행의 다섯 청난공신의 위패가 있다. 가운데에는 '백월산신지위(白月山神之位)'라는 산신 위패가 있다. 왼쪽에는 홍가신 일가(一家)로 보이는 목상 5기가 있다. 목상은 남상(男像)이 2기, 여상(女像)이 3기이다. 가운데의 목상이 홍가신이고 오른쪽에 아들과 막내딸, 왼쪽에 부인과 큰딸로 보이는 목상이 각각 있다.

홍가신(중종 36~광해군 7, 1541~1615)은 현재 충남 아산시 염치읍에서 태어났다. 현재 염치읍 대동리에 있는 만전당 경전각은 홍가신의 후손들이 홍가신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사당이다. 그 후손에 따르면 족보상에 홍가신은 직계 후손이 없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아무튼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목상은 16세기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목상 역시 안타깝게도 2004년 말 제당에 원인 모를 불이 나 소실되면서 2006년 기존의 목상을 모태로 새로 조각하여 사당에 모셔 놓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제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으로 정월 초하루를 전후하여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제 지낼 때까지 많은 금기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축관은 제관보다 덜 엄격하여 생기복덕을 보지 않는다. 단지 마을에서 한학(漢學)을 한 사람으로서 부정하지만 않으면 축관으로 선출한다. 요즈음엔 한학을 한 사람이 드물어 축문을 한글로 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제의 비용은 걸립을 하여 충당한다. 걸립은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홍가신이란 큰 기(旗)를 앞세우고 풍물을 울리면서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성의껏 곡식이나 돈 등을 내놓는다. 한 번 제를 지내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약 20만 원이다. 그러나 군에서 주도하는 백월산제의 경우 모든 경비를 군에서 부담한다.

제물은 홍가신제의 경우 감주, 산나물 3가지, 통밤, 삼색실과, 돼지머리, 메, 백설기, 김, 포 등이다. 유황제의 경우에는 멱만을 진설한다. 여기서 제물은 산신을 위한 제물 1상, 위패를 위한 제물 1상, 대감을 위한 제물 1상 등 모두 3상을 차린다. 돼지머리와 백설기는 1개만을 준비하고 메와 미역국은 11개씩 준비한다. 제물의 준비는 제관이 한다. 제기는 기존의 것

홍성백월산홍가신제 상차림

을 해마다 사용하며 마을 주민 복선채 집에 보관한다.

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날짜가 잡히면 읍내에 있는 조양문(朝陽門, 동문)에 황토를 뿌린다. 이때 제관의 집에도 황토를 뿌리고 왼새끼로 꼰 금줄을 친다. 제일 당일이 되면 새벽에 준비된 제물을 들고 홍가신이란 깃대를 앞세워 백월산 당집이 있는 곳으로 간다. 당집에 도착하면 제단 주변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편 다음 산 정상에 있는 우물에서 샘제를 지낸다. 샘제가 끝나면 이어 홍가신제를 지낸다. 홍가신제는 제물을 진설한 다음 삼배(拜)를 한다. 세 번 절하는 이유는 산신과 다섯 분의 위패, 홍가신 목사의 가족을 상징하는 목상에게 한 번씩 절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초혼(招魂)이라고 한다. 초혼이 끝나면 잔을 올리고 다시 삼배를 한 다음 독축(讀祝)을 한다. 축문에는 군민의 무사함과 태평성대함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축이 끝나면 다시 삼배를 하고, 소지(燒紙)를 올린다. 소지는 대동소지, 이어 군수, 읍민, 읍장, 경찰서장, 각 기관장, 제관, 걸립에 참여한 사람 및 그 가족들의 순으로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하산한다. 한편 마을에 남아 있던 동민들은 목상 인물과 똑같은 허수아비 다섯 개를 만들어 가마에 태워서 제를 지내고 하산하는 사람들을 마중 나간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 홍가신의 혼백을 허수아비에 옮기고 함께 내려와 풍물을 울리면서 홍성읍 내의 중요 지역을 돌며 샘제 등을 지낸 뒤 북문교 다리 밑에서 허수아비를 불태운다. 이때 연기가 백월산 쪽으로 향해 올라가면 홍가신의 혼백이 백월산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좋아한다. 그런데 홍가신제를 지내는 음력 정월은 계절적으로 북서풍이 부는 계절이어서 백월산의 동남쪽에 있는 홍성읍에서 불을 피워 그 연기가 백월산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을로 돌아와 풍물을 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루를 즐긴다.

제의 장소에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인원은 보통 30~40명이지만 많은 경우 70~80명이 된다. 또한 정월 길일을 택해 인근에 있는 무당들이 개인적으로 이곳을 많이 찾는다. 그런데 군 당국에서는 미신이라 하여 무당들의 굿을 제재하고 있다.

홍가신제의 금기에 대한 한 실례가 전해오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 홍성군수 등이 이 제의를 소홀히 하여 서너 차례 연기하였다. 그 이후 군수가 좌천되고 군청사가 불탔으며, 홍성읍장과 특무대장이 아무 이유 없이 죽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산제를 지내지 않아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여기고 이후 정성껏 산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그 이후 홍성 군수는 부임하는 즉시 홍주정난사에 가서 제를 지내고 위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이관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충남 서해안의 마을 공동체 신앙 연구**(이관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 17 · 25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홍성군지-증보판**(홍성군지편찬위원회, 홍성군, 1990).

필자 **이관호(李官浩)**

홍성성호리제각창건기 (洪城星湖里祭閣創建記)

정의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에서 1908년(융희 2) 오방제각(五方祭閣)을 창건하면서 그 시말을 기록한 현판.

내용 성호리에서는 정월대보름 당제가 지속되다가 18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동제가 성립되는데, 정월 초하룻날 자시에 거행되는 오방제(五方祭)가 그것이다. 성호신당에서 거행되었던 당제가 고깃배를 부리는 어민들이 주축이 되는 의례였다면, 오방제는 마을의 전 구성원들이 동참하는 명실상부한 대동제의의 성격을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2004.2, 강성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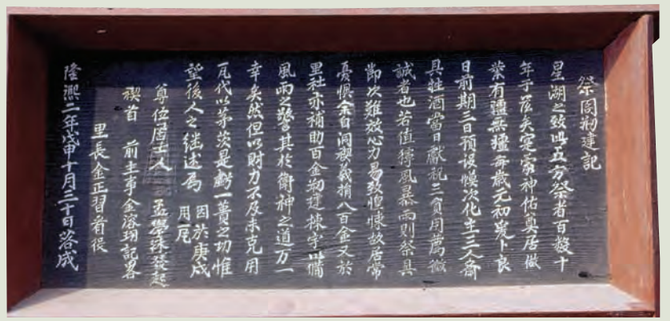
제물 진설

오방제

띠고 있다. 오방제각은 성호포구가 내려다보이는 마을 뒤편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이 제각은 1908년 10월 13일 성호리의 존위(尊位) 맹학수(孟學洙)가 발기하여 새로 지은 것인데, 동계장 김용후(金溶珝)가 기록한 「제각창건기」에 의하면 오방제각은 원래 백 수십 년 동안 제단만 조성되어 있어서 화주가 미리 제장으로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오방제를 지냈다고 한다.

즉 당집이 없으므로 오방제를 지낼 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정성을 다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제각을 짓게 된 것이다. 당시 오방제각의 창건에 소요된 비용은 동계(洞契) 의연금 800량과 이사(里社)에서 보조한 100량이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처음에는 초가로 지붕을 했다가 2년 뒤인 1910년에 기와로 교체하였다. 「제각창건기」에 성호리에서 오방제가 유래된 시기는 백수십 년 전의 일이라고 했으므로 18세기 중후반에 시작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을의 형성과 함께 지속되어 온 정월대보름 당제는 어촌이라는 생활터전 위에 성립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오방신장(五方神將)을 주신격으로 하는 오방제를 수용한 까닭은 어민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새로운 마을신이 필요했다는 방증이다. 이제 당제만으로는 성호리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


星湖之鼓鳴五方祭者百餘十
年于茲矣定宇神佑奠居儀
業有遺無稽無徵无初崇卜良
日前期三旬預候淨化主三人齋
具牲酒當日獻祀三員周萬微
誠者也若值雪風暴雨則祭具
勿次雖然公刃易敎慢懈故居常
屢儌全自閭潮公義捐八百金又於
里社永補助百金始建祓宇備
風雨之警其於衛神之道乃一
辛矣然但以財力不及未克用
瓦代以茅災是懼一簣之功惟
望後人之繼述焉 固於庚戌
月 尾
尊位原士人 孟學洙 發起
稧首 前主事金溶珝 記幕
里長金正習 看役
陰曆二年戊申十月三十日落成

제각창건기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2004.2, 강성복

중앙황제대장군지위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2004.2, 강성복

성호리 오방제각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2004.2, 강성복

고,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새로운 마을신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각창건기」는 이러한 동제의 변화배경을 상세히 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선 후기 성호리 마을변천사와 관련하여 추론이 가능한데, 18세기 후반 성호리에서는 1795년 향약이 창설되어 구성원을 상계 · 부계 · 하계원으로 구분하는 등 유교적인 질서와 교화가 한층 강조되었다. 이러한 향촌의 분위기는 17세기 초 성호리로 입향한 김녕 김씨와 순창 맹씨 등이 족세를 떨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 당시 이들 가계는 향약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은 상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경제력을 바탕으로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들이 오방제 수용과 향약 창설 등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의의 오방제는 우리나라의 동제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명칭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충남 홍성 · 예산 · 금산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 성호리 오방제는 기록으로 성립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이다. 그런 점에서 성호리 「제각창건기」는 조선 후기 서해안 동제의 전승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록물이다. 이와 더불어 마을의 주도세력에 따라 새로운 신격이 수용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성호향약좌목**, 18 · 19세기 농민층 분화와 향촌중인(정승모, 대동문화연구 5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조선 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조선 후기 홍성 성호리 동제의 성립과 신격의 변화**(강성복,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역사문화학회, 2007).

필자 **이해준(李海濬)**

홍성성호신당상량문 · 중수기 (洪城星湖神堂上樑文 · 重修記)

정의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성호신당의 상량문 및 중수기로 「성호신당상량문」은 1671년(현종 12) 한량 신계복(申啓福)이 썼고, 「성호신당중수기」는 1851년(철종 2) 가선대부 행용양위부호군(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 김낙흥(金洛興)이 기록한 것이다.

내용 성호리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풍어와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당제를 성호신당에서 지내왔다. 이 「성호신당상량문」은 1671년 신당에 비가 새고 무너져 내려 중수하면서 마을의 번성을 기원한 일종의 축문원이다. 한량 신계복이 쓴 이 상량문에는 성호리 당제의 역사와 신격의 특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상량문에 따르면 성호리에서는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사당을 짓고 화상을 그려 봉안해 왔었으며, 신격은 큰 배와 작은 배를 통솔하는 해신(海神)으로서 혜풍감우(惠豊甘雨)와 시화연풍(時和年豊)을 주관하는 영험한 신이었다. 이 상량문이 지어지던 때인 17세기 후반에도 이미 여러 세대가 지났다고 하였으므로 성호리 당제는 조선 전기부터 전승되어 온 동제임을 시사한다.

성호신당 편액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2004.2, 강성복

성호신당중수기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2004.2, 강성복

한편 1671년 수리된 성호신당은 이후 180년 뒤에 다시 중수되는데, 그 기록이 바로 1851년 6월 하순에 공사를 마치고 김낙흥이 기록한 「성호신당중수기」이다. 이 중수기에는 신당이 기와가 오래되고 기둥이 썩어 갑자기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해 봄에 수리를 결의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니 모두들 협조하여 3월에 착공하여 서까래와 재목은 하나같이 새로 깎고 다듬었으며, 칸수는 옛날과 같았지만 우뚝 솟은 난간과 빛나는 단청은 옛날과 비교하면 자못 볼 만하다'고 하였다.

성호신당터 하당제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2004.2, 강성복

그런데 이 중수기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봉안된 신격의 변화 문제이다. 즉 "이 당은 장군과 부인의 두 신상을 모신 곳인데 무릇 서해바다의 수운을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하여 봉안된 장군 부부는 1671년 당시와 다른 것으로, 이후 어느 시점엔가 성호신당에 봉안된 풍어의 신이 '신당지신'에서 '장군 부부'로 대치되었음을 알려준다. 중수기에 등장하는 장군과 부인의 화상은 임경업 장군(1594~1646) 부부로 1970년대 초까지도 성호신당에 걸려 있던 화상은 임경업 장군 내외였고, 그런 까닭에 속칭 '임장군당'으로 불리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성호리 신당에 모셔졌던 원래의 풍우해신은 18세기 이후 임경업 장군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격의 변화는 조선 후기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저명한 포구촌으로 손꼽혔던 성호리에서 조기잡이가 성행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1851년 중수된 이후 성호신당은 1970년대 초반 도괴된 이후 다시 건립되지 못했다. 어촌의 급속한 쇠락과 더불어 풍어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날 당제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의의 「성호신당상량문」과 「중수기」는 조선 후기 서해안 당제의 역사와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18세기 이후 서해안 일대에서 '조기의 신'으로 급속히 부상하는 임경업 장군이 신격화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또한 이를 통해 조기잡이에 임장군의 조력(助力)이

성패를 가름했다고 믿었던 임경업 장군이 당제의 신격으로 부상한 시기가 알려진 것보다 빠른 시기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조선후기 홍성 성호리 동제의 성립과 신격의 변화**(강성복,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역사문화학회, 2007), **한국수산지**(농상공부수산국, 1910), **한국의 마을제당 3-충청남도**(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이해준(李海濬)**

홍성수룡동당제

정의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마을 뒷산 용두(龍頭) 정수리 부분인 '당산(堂山)' 제당 터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무당을 초청하여 서해의 용왕신에게 지내는 당제. 당제를 지내는 당산을 '신령산(神靈山)'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현재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용미(龍尾)에 자리한 마을회관은 당제를 비롯한 마을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 10월 30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수룡동마을에서는 예부터 지금껏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정월대보름날에 서해를 지키는 용왕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수룡동당제를 지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면서부터 당제를 지냈다고 전해온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가 약 400년 전이라는 구전(口傳)과 조선시대 때 이곳에 선창과 수군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보아 수룡동당제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다.

수룡동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마을 공동 소유의 당산에서 서해 용왕신에게 당제를 지내고 있다. 그 믿음과 열정 또한 매우 대단하다. 현재 수룡동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외래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당제에 대한 믿음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해 당제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당제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각종 기록과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1965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당제를 지낼 때 사용한 지출 내역과 걸립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당제 물목기(物目記), 마을의 변천 모습과 당제 진행 과정 등을 담은 사진자료가 전해져 온다. 이들 자료는 마을 규모, 어선 현황, 당시의 경제 상황, 당제 참여도, 당제 규모 등 마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변천사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이다. 이는 순수한 애향심과 당제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모아진 자료들이다. 또한 1970년쯤 농어촌 사회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직전 또는 과도기적 시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모아놓은 것들로, 당시 당제의 전승 모습을 고증하고 계승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근래 들어 수룡동당제는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겪었다. 6·25전쟁 때 황해도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황해도식 당제를 자연스럽게 전해 주었으며, 원주민들 역시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이다. 즉 충청도식 당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당제의 규모나 웅장함, 배치기 노래의 리듬 등 황해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 현상을 조금씩 보탬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당제가 지금껏 치러지고 있다.

내용 당제는 용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마을 뒤편에 있는 당산에서 지낸다. 제장(祭場)은 당집 건물이 아닌 자연제당으로, 용의 머리 가운데 정수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마을을 비롯하여 멀리 천수만 앞 먼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도 당산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한다. 제단은 26.5㎡ 정도의 자연제단으로, 당수(堂樹)인 소나무 두 그루 아래에 석축을 쌓아 평편하게 만들어 놓았다. 제단은 크게 제물을 차리는 공간과 제관 일행이 제를 지내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그 주변에는 오래된 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이곳이 신성한 지역임을 금방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제를 지낼 때에는 추위와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천막으로 임시제당을 짓는다. 임시제당은 당제가 끝나면 곧바로 철거한다.

수룡동제당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2010.2 이관호

수룡동당제가 2003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면서 홍성군으로부터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자연제당 아래 서쪽 방향 산자락 끝에 당집을 지어 여기서 제를 지내고 있다. 당집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단청을 한 기와집이다. 내부는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는 약 380㎡, 건축면적은 약 33㎡이다.

제당 안에는 정면으로 선반 위에 마을에서 위하는 다섯 신의 위패가 놓여 있다. 마을에서 위하는 다섯 신은 왼쪽부터 당조부신지위(堂祖父神之位), 당조모신지위(堂祖母神之位), 당여신지위(堂女神之位), 당토지신지위(堂土地神之位), 당산신지위(堂山神之位) 순으로 모셔져 있다.

당제의 주된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에 있다. 특히 바다를 생업 현장으로 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뱃길에서의 무사함과 풍어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풍요로움에 대한 바람은 이들 어민에게 매우 자연스런 갈망이다. 또한 힘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을 사람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최근에는 당제가 마을 사람들의 단결과 화합의 자리가 되는 데에 무게를 크게 두고 있다. 아울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당제를 보존·계승시켜야 한다는 측면도 하나의 목적이 되고 있다.

대상 신은 바닷가이니만큼 용왕을 주신(主神)으로 모신다. 즉 수룡동에서는 당제를 지낼 때 다섯 몫의 제물을 마련하는데 이는 다섯 신에게 바치기 위함이다. 다섯 신은 당각시,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산신(山神), 지신(地神)으로 오당(五堂)을 모시는 셈이다. 여기서 주신은 여신(女神)인 당각시이다. 이 당각시가 여신으로서 서해의 용왕신인 것이다. 예전에는 배마다 당각시를 배서낭으로 위했기 때문에 늘 화장품, 치마, 저고리, 실, 바늘 등 여성용품을 함에 넣어 봉안하였다고 한다.

제당내부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2010.2, 이관호

수룡동당제의 제의 절차 및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전(祭前) 준비

1. 당주 선출 해마다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지내는 당제에 앞서 깨끗한 사람으로 '당주(堂主)'를 내고 축원을 전문적으로 해 줄 경쟁이[經巫]를 부른다. 즉 음력 정월 초이튿날이 되면 마을에서는 대동회의를 개최하여 당제에 관한 일을 상의하고 당주를 선출한다. 당주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선출한다. 일단 당주로 정해지면 일년 내내 부정이 없도록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근래에는 정초에 당주를 선출한 다음 모든 제의가 끝나는 대로 당주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번거로움이 있어 1995년부터는 마을 이장이 당제에 관한 일체의 일을 맡아 제를 주관하고 있다. 즉 현재는 마을 이장이 당주가 되어 초청된 무당과 함께 제를 지낸다. 여기서 무당은 주로 축원만 담당할 뿐이다. 제물 준비에서부터 제의 진행 등 일체의 과정은 이장과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다. 한편 수룡동의 경우 인근 여느 지역과는 달리 타 지역에서 무당을 초빙하지 않고 주로 전

형적인 충청도 굿인 앉은굿을 하는 경쟁이를 서부면 관내에서 초청한다.

2. 마을의 정화(淨化)와 금기(禁忌) 당주가 선출되면 마을 사람들은 당제 지낼 준비를 한다. 서너 명씩 모여 자연스럽게 금줄을 꼬고 샘을 품으며 마을 이곳저곳을 깨끗이 청소한다. 금줄은 왼새끼에 길지를 끼워 당주 집 대문에 매달아 놓는다. 그럼으로써 신성함을 표시하여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는다. 아울러 마을 뒤쪽에 있는 천마산에 가서 황토를 가져와 당주 집 대문 앞 양쪽에 한 무더기씩 뿌린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금토(禁土)'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주 집 이외에도 배가 있는 사람들은 황토를 대문 앞에 뿌려 놓는다. 그런 다음 당 우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마을에는 여러 개의 우물이 있다. 그 가운데 당주 집과 가장 가까운 우물을 그 해 당우물로 정한다. 제의 기간에 이 우물물을 일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당제와 관련해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마무리되면 마을 사람들은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한다.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마을회의에서 날을 새로 잡아 제를 지낸다. 날이 정해지면 이웃 마을에 애사(哀事)가 있어도 참가하지 않는다. 심지어 지친(至親)이 사망하였더라도 문상(問喪)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제를 앞두고 예상되는 '피[血]부정'을 막기 위하여 만삭의 임산부를 친정으로 보내거나 마을 바깥으로 피신시킨다. 여기서 마을 바깥은 당산 너머 육지 쪽에 있는 '용골'이다. 용골에서는 제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을 밖이라고 관념한다. 즉 용골은 신성지역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부정은 당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제당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주민들의 금기 또한 대단하다. 예부터 지금껏 당산에 있는 나무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심지어 마른 나뭇가지나 솔잎조차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법이 없다. 이를 어기면 반드시 화(禍)를 입는다고 한다.

3. 제비(祭費) 마련과 비용 결산 제비는 정월 초닷샛날쯤에 걸립으로 장만한다. 예전에는 각 가정에서 쌀 석 되를 직접 당주 집에 갖다 주었으나 근래에는 이장이 중심이 되어 집집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이장에게 갖다 주기도 한다. 이를 '당추렴'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사 경비는 주로 선주들이 부담한다. 선주(船主)들은 추가로 배의 규모에 따라 일정액의 돈을 성의껏 내놓는다. 집안에 부정이 있으면 당제를 끝내고 결산할 때 낸다. 이 밖에도 당제 당일에 들어오는 축의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한 번 제를 지내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100만 원 정도이며, 결산은 이튿날 이루어진다. 걸립하여 모은 경비는 제물 준비와 기타 경비로 쓴다. 초청한 무당에게는 20만 원 정도 준다.

4. 장 보기 제물은 광천 장에서 구입한다. 제물 구입은 당주가 정갈한 사람을 사서 준비하도록 시킨다.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또한 물건을 구입할 가게에 부정이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 부정이 없는 깨끗한 집에서 구입한다. 제물로 황소 머리 두 개, 삼색실과, 초, 소지종이 등을 구입한다. 여기서 쇠머리뼈는 제의가 끝난 뒤 반으로 쪼개 당산 서쪽 바닷가 나무에 매달아 둔다. 제물로 사용한 것이기에 짐승이 먹어 부정이 탈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제기는 당제를 위한 몫으로 마을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장만하지 않지만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자리는 매년 구입한다.

5. 제물 장만 제물은 당주 집에서 장만한다. 제물로는 쇠머리, 백설기, 팥시루떡, 삼색실과, 포, 술 등이 준비된다. 이때 제물은 당각시,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산신, 지신 몫으로 각각 다섯 상을 차린다. 상당제와 거리제 모두 동일하다. 단지 상당에는 백설기 시루, 거리제에는 팥시루떡을 각각 올리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술은 초닷샛날 쌀 한 말에 누룩 석 되로 담근다. 이장이 당제를 담당하면서부터는 아주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6. 물 달아 오기 당제에 앞서 '물 달아 오기' 행사를 치른다. 당제 준비를 마치면 마을 청년들은 각자 손에 빈 병을 하나씩 들고 물을 달러 간다. 수룡동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잘 나는 인근 지역에 가서 물을 달아 오는 것이다. 부근에서 가장 높은 천마산 줄기의 산에서 솟는 샘물을 병에 담아 병 입구를 솔잎으로 막아서 거꾸로 들고 마을로 돌아온다. 솔잎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천마산의 풍부한 수량(水量)을 수

물 달아오기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2002.2.23. 국립민속박물관

2002.2. 이관호

룡동으로 옮긴다는 믿음에서 행한 것이다.

상당제(上堂祭)

1. 뱃기 세우기 배를 부리는 선주들은 열사흗날 아침이 되면 소유하고 있는 배의 수만큼 뱃기를 안마당이나 대문에 세워 둔다. 그런 다음 밤이 되면 집안에 세워 두었던 뱃기를 들고 당주 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당주 집에 뱃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가면 길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주 집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는 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선주들은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당주가 밤 12시(제의 당일 0시)가 넘어 금줄을 걷으면 서로 먼저 들어가 마당에 뱃기를 세워 놓는다. 그러나 당주를 이장이 담당하면서부터 뱃기를 마을회관에 세워 놓았다가 당제 때 당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한편 당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뱃기 이외에도 당제 기간에 선주 집 마당에는 뱃기를 계속하여 세워 둔다.

2. 당 오르기 당제 당일인 대보름날 아침 9시가 되면 당주 집 마당(요즘은 마을회관)에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 놓고 무당(경쟁이)이 당제의 시작을 알리는 징을 한 번 치면서 비손을 한다. 이어 마을 사람들은 풍물패를 앞세우고 당산으로 향한다. 이때 당주는 참나무로 만든 횃대에 불을 붙여 들고 앞장을 선다. 횃불을 밝히고 가는 것은 혹시 모를 부정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당주 뒤를 풍물패와 무당, 제물을 진 유사, 뱃기를 든 선주들 순으로 행렬을 지어 오른다. 기(旗)를 올릴 때에는 연령이 많은 순으로 하지만 내릴 때에는 반대 순으로 한다. 다른 어촌처럼 기를 올리고 내릴 때 서로 경쟁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당 주위에는 천막을 쳐 놓아 바람이 들지 않게 한다.

3. 부정풀이 당에 도착하면 무당(경쟁이)은 온갖 부정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당 안으로 들어가 부정풀이를 한다. 사발에 고추와 숯을 넣은 물을 가지고 축원을 하면서 당 주위를 한 번 돈 다음 이를 당 밖으로 쏟아낸다. 마을 사람들은 부정풀이가 끝날 때까지 절대 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무당이 부정풀이를 하는 동안 선주들은 자신의 뱃기를 당 옆에 가지런히 세워 둔다. 당주는 들고 온 횃불로 당 옆에 불을 댕기고 당 안으로 들어간다. 이 불은 제의가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4. 본제(本祭) 부정풀이가 끝나고 제상이 차려지면 경쟁이가 본제(本祭)를 지낸다. 본제는 경쟁이의 독경(讀經)에 의한 축원으로 구성된다. 경(經)을 읽는 사이사이에 선주와 마을 사람들은 당 안으로 들어와 절을 하고 복(福)을 기원하는 의미로 돈을 바친다. 이와 같이 서너 석(席)의 앉은굿을 한 다음 경쟁이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당산소지-대동소지-당주소지-선주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2010.2, 이관호

깃발세우기

상당제

상당제

소지 순으로 올린다. 선주소지는 복 받는 행사와 겸해 실시한다. 이어 소지올리기가 끝나면 당산 신령님으로부터 복 받는 행사를 한다. 마을 이장이 나이 어린 선주부터 한 명씩 호명하면 해당 선주는 제단으로 나와서 복(福)돈을 놓고 절을 한다. 이때 경쟁이는 선주를 위해 축원하면서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올리기가 끝나면 경쟁이는 선주에게 제주(祭酒), 백설기, 길지(吉紙) 등을 나누어 준다. 고사 덕담을 받은 선주들은 이어 기를 내린다. 선주는 기를 내릴 때 경쟁이에게서 받은 떡과 고기를 길지로 싸서 뱃기 끝에 매단다. 선주들의 복 받는 행사가 끝나면 잠시 동안 제단 앞에서 풍물을 치며 마무리하는 것으로 상당제를 마친다.

5. 당산 내려오기 상당제가 끝나면 풍물을 치면서 기를 앞세우고 당산을 내려온다. 이때 제단 바로 아래에서 마을 기를 세워 놓고 경쟁이가 잠깐 동안 축원을 한다. 당제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간다는 인사이다. 제가 끝나 당주 집으로 내려온 일행은 해산 행사를 한다.

6. 해산 행사 해산 행사는 마을 기를 세워 놓고 개인 축원을 한다. 이때 호명하는 대로 한 사람씩 나와서

뱃기축원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2002.2.23. 국립민속박물관

2010.2. 이관호

기를 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경쟁이가 축원을 해 준다. 개인 축원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배고사 준비를 한다.

배고사

1. 뱃기 축원 배고사 준비를 하고 갯가로 나온 선주들은 다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기를 내린다. 쌀이 담긴 함지박을 무당이 먼저 바닥에 내려놓으면 선주들 역시 순서대로 각자 준비한 쌀 꽃반에 뱃기를 꽂는다. 그러면 무당이 축원을 해 준다. 이어 무당은 잡귀잡신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東桃枝]로 만든 화살에 시루떡을 끼워 사방으로 쏘아댄다.

2. 배고사 뱃기 축원이 끝나면 선주 내외들은 뱃기와 제물을 들고 각자 자신의 배에 가서 배고사를 지낸다. 제물은 집집마다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만 대개 시루, 탕, 과일, 고기, 조기 등을 마련한다. 배에는 선주와 가족만이 올라간다. 제물은 배 함판(중앙) 한 곳에만 차리지만 술은 이물, 고물, 함판 등에 각각 따라 놓는다. 배고사를 지내면서 선주는 "물아래 참봉, 물위 참봉 많이 운감하시오"라는 덕담을 곁들인다.

거리굿

1. 제물 준비 배고사를 마치고 해가 져서 어둑해지면 거리굿을 시작한다. 거리굿은 원래 산고개(새마당)에서 지냈다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선착장에서 지내다가 바다가 막히면서 지금은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에서 비닐로 임시제당을 만들어 놓고 지낸다. 거리굿은 마을에 들어오는 액운을 미리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거리굿의 제물은 당산제에서 쓴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백설기 대신 팥시루떡을 새로 마련하여 올린다.

한편 당산에서 모신 당제가 선주 중심인 것과 달리 거리굿은 아낙네들의 정성으로 이어진다. 각 가정에서는 대주(大主)의 주발에 불밝이쌀을 담아 만든 '꽃반'을 각자 들고 나와 제상 옆에 차려 놓는다. 꽃반은 대개 하나를 준비하지만 특별히 정성을 들이고 싶은 집에서는 식구 수대로 마련하기도 한다.

2. 거리굿 거리굿 역시 경쟁이가 주관한다. 경쟁이가

배고사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2002.2.23, 국립민속박물관

경을 읽는 동안 아낙네들은 제장(祭場) 주위에서 치성을 드린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희망자에 한해 당안으로 들어와 절을 하고 복(福)을 기원하는 의미로 돈을 바친다. 축원을 마친 경쟁이는 이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거리소지-대동소지-당주소지-세대주소지 순으로 올린다. 세대주소지를 올릴 때 꽃반을 준비한 가정에서는 앞으로 나와 자기 꽃반에 절을 하고 복돈을 놓는다. 그러면 경쟁이는 쌀점 신수를 보면서 덕담을 해주고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

3. 용왕제와 사살막이 거리굿을 끝낸 다음 경쟁이는 바닷가로 나가 비손을 하면서 용왕제를 지낸다. 이때 '사살막이'라 하여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활과 화살로 액막이를 한다. 사살막이는 '사살풀이' 또는 '퇴식(退式)'이라고도 한다. 사살막이는 수수팥 범벅으로 만든 새알심을 동도지(東桃枝)로 만든 화살에 꽂아 동서남북으로 쏘는 것으로, 마을의 잡귀잡신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용왕제를 마친 경쟁이는 혹시 잡귀(雜鬼)가 뒤따라올까 염려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돌아온다.

4. 거리제 사살막이가 끝나면 약간의 음식을 차려서 마을로 들어오는 삼거리로 나가 거리제를 지낸다.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잡귀를 막음은 물론 도로의 무사함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즉 마을 어귀 삼거리에 짚을 깐 다음 제물을 차려 놓고 그 옆에 짚불을 지펴 놓는다. 이어 경쟁이가 경문을 외어 해(害)를 물리면 제물을 사방에 흩뿌린다. 마을 어귀 문인석(門人石)이 있는 곳에도 제물을 떼어내 한지로 싸서 놓아둔다. 이는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것이다.

음복(飮福) 및 결산(決算)

모든 제의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밤새 흥겹게 논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배치기 노래〉나 〈풍어제 봉죽놀이(이밀량)〉 등을 한다. 이러한 놀이는 당제가 치러지는 중간중간에도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다시 모여 제비 결산을 보고, 쇠머리국을 끓여 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배고사
2010.2. 이관호

〈배치기 노래〉

선소리 : 장군님 전에 명복을 받아 우리 배 유덕선 도장원 했구려.
후 렴 : 아~하 아~에 에헤이요오 에~헤 어어이 어허어 어~ 에~헤 에어이 어어허이요오~
선소리 : 사해 바다 용왕님 복을 받아 만배등 장원을 우리가 했구려.
후 렴 : 아~하 아~에 에헤이요오 에~헤 어어이 어허어 어~ 에~헤 에어이 어어허이요오~
선소리 : 우리 배 선주님 거동보소. 조기 불뚝타고 덩실덩실 춤만 추누나.
후 렴 : 아~하 아~에 에헤이요오 에~헤 어어이 어허어 어~ 에~헤 에어이 어어허이요오~
선소리 : 금년신수 대통하여 춘하추동 행차마다 대만선이로다.
후 렴 : 아~하 아~에 에헤이요오 에~헤 어어이 어허어 어~ 에~헤 에어이 어어허이요오~

〈풍어제 봉죽놀이(이밀량) 가사〉

– 양당 성황님 모셔다 싣고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가세.
– 연평 칠산 널린 칠령 한 쌍만 남기고 다 잡아 실었네.
– 암애수애 맞마처 놓으니 아드레 밖에 두둥실 나떴네.
– 옥동도화 만사춘하니 가지가지가 봄빛이로고나.
– 삼국충신 도원수는 임경업 장군이 분명하구나.
– 입하소만은 연평도 파시오소. 대서 절기엔 수입도 작사라.
– 정월달부터 치는 북을 일 년 열두 달 내눌러 치누나.
– 뱃집의 아줌마 인심 좋아 막뚝딸 길러 화장해 줬다네.
– 순풍 바람에 돛을 달고 연평 바다에 결 없이 몰았네.
– 연평 바다 높이 뜬 갈매기야 정든 임 소식을 전하여다오.
– 허리대 꼭대기 서리화 꽂고 가운데 마장에 봉죽꽃 피었네.
– 달도 밝고 명랑한데 고향 생각이 절로 나누나.
– 배 떠날 때는 높바람 불더니 환고향 할 때는 갈바람 분다.
– 만선에 깃발을 꼬작꼿 달고 마파람 불라고 성황님께 조르네.
– 금년도 신수대통하여 김선주 불러 도장원 줬다네.
– 연평도 산마루 북소리 나드니 오늘도 상봉에 정든 님 만나네.
– 우리 배 동사들 힘을 모아 세세년년 대풍어 이루세.
– 이물고물대 만선기 달고 징 북소리에 궁둥춤 추누나.
– 뱃집에 아줌마 거동보소 닭 잡아 가지고 술

삼일당제(三日堂祭)

제를 마친 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삼일당'이라 하여 당주 내외만이 당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낸다. 직접 산에서 메를 지어 간단하게 올리는 이 제사는 당제를 잘 흠향(歆饗)했는가를 가늠하는 마지막 절차이다. 이때 삼일당에 올릴 술은 당제를 지낼 때 따로 남겨 둔다. 저녁 8시쯤 당주 내외가 당산으로 올라가 메를 짓고 불밝이쌀과 함께 술을 올린 다음 간단히 제를 지내고 내려온다. 근래에는 메를 집에서 직접 지어 올라가지만 예전에는 산에서 직접 지어 솥에 숟가락 두 개를 꽂아 올렸다고 한다. 삼일당을 마치고 당주 내외가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은 삼일당에 올린 메를 나누어 먹는다. 삼일당제를 마지막으로 모든 당제 절차는 끝을 맺는다.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수룡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산업개발 논리에 밀려 지형지세와 삶의 생활방식이 변해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 오랫동안 역사를 함께해 온 당제는 그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채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도 수룡동당제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 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마을제가 대부분 행사 위주로 치우쳐 일부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수룡동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바다가 막혀 생활 터전이 사라졌음에도 멀리까지 나가 어업활동을 함은 물론 조상 대대로 해 오던 당제를 더욱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열정은 아직도 넘치고 있는 것이다.

점차 생활 터전을 잃어 가면서 마을을 떠나는 세대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마을 사람들은 당제가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 잡아 온 당제가 마을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9년 수룡동에서는 당제를 보존 계승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룡동당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를 계승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3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징 역사·문화·지리적 배경 속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수룡동당제는 내용면에서 민속학상 몇 가지 의미와 특징을 지닌다. 우선 풍수상으로 볼 때 수룡동은 용의 형국으로,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당산에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서해의 용왕신에게 당제를 지낸다. 여기서 용(龍)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신(水神)으로, 이러한 용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 더욱 평안하다고 생각한다.

제당의 형태에 있어서도 예부터 지금껏 당수와 제단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제당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노상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당제를 지내야만 하는 고통이 따랐지만 신에 대한 정성과 전통 보존이란 측면에서 당집을 짓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2003년에 수룡동당제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당집을 새로 지었지만 원당인 자연제당과 신축 당집 두 곳에서 당제를 지내고 있음도 특기할 만하다.

당의 신격에 있어 주신은 여신이자 서해의 용왕신인 당각시를 비롯하여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산신, 지신의 오당을 모시고 있다. 이로 보아 수룡동당제는 다신론(多神論)적 성격을 지닌다. 실례로 수룡동에서는 예부터 지금까지 당제를 지낼 때 다섯 신에게 바칠 다섯 몫의 제물을 준비한다.

제의 과정은 크게 물 달아 오기, 상당제, 배고사, 거리굿, 음복 및 결산, 삼일당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풍부한 물을 기원하는 의례인 '물 달아 오기'와 당제의 흠향 정도를 가늠하는 절차인 '삼일당제' 등은 독특한 제의 절차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다양한 제의 절차를 비롯해 절차마다의 풍부한 문화량 역시 서해안의 어로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다.

제의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도 대부분의 과정은 무당이 이끌지만 중요한 결정과 주도권은 당주와 마을 사람들에게 있다. 또한 상당제는 선주를 중심으로 한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만 거리굿은 아낙네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가정의 안녕을 기원한다. 반면에 배고사는 선주 가족이 중심이 되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을제가 대부분 행사 위주로 치우쳐 일부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수룡동당제는 마을 사람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당제를 더욱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열정이 아직도 넘치고 있는 것이다. 수룡동 사람들 역시 주변 환경의 변화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문화를 계승 및 보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룡동당제의 민속학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이관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수룡동당제 조사 연구**(이관호,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충남 서해안의 마을 공동체 신앙 연구**(이관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충남 해안지방 동제의 유형과 특징**(김종대, 문화재관리국, 1990), **충남 홍성지역의 마을신앙**(이관호, 충청문화연구 5,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7).

필자 **이관호(李官浩)**

홍성옹암리당산제

정의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읍 옹암리에서 매년 음력 정초에 행하는 마을 제사.

역사 옹암리는 뒤에 야트막한 야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작은 바다에 면한 조그마한 농촌 포구 마을이다. 평범해 보이는 마을의 입지 조건과 크기에 비할 때 이 마을의 당산제는 규모가 비교적 크고 성대한 편이다. 이러한 특징은 바로 이 마을의 당산제가 옹암리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왔음을 말해 준다.

옹암리는 오천에서 연결된 천수만의 내륙 종점이자 어선이 마지막으로 정박하는 곳이다. 옹암리와 인접한 광천읍이 서해 해산물의 중심 장시로 발달한 소도시라면 옹암리는 서해 해산물을 하역하여 광천 장에 공급함으로써 광천의 인후부 역할을 한다. 옹암 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4월 9일이 광천 장이라면 4월 8일은 자연히 옹암 장이 되고, 광천 장이 본(本) 장이라면 옹암 장은 예비 장이 되는 셈이다. 포구로서의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옹암리에는 늘 어로 종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광천 장 전날에는 미리 해물을 사 두려고 모여든 1,000여 명의 장사꾼으로 늘 거리가 붐볐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내륙 쪽에서 밀려든 토사 때문에 포구의 하상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옹암리의 포구 기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마침내 1975년에 폐항 조치가 내려져 옹암포는 존재 의미마저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때 375가구이던 마을 주민은 현재 절반으로 대폭 줄었으며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던 제사 기간도 크게 단축되고 제의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게다가 마을에 교회가 생기면서 당산제는 더욱 위축되었고 1976년에 산신도를 도난당하는 사고마저 발생함으로써 전승이 단절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이후 마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상사가 빈발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옹암리 노인회가 주도하여 1985년에 신당을 짓고 단절된 당산제를 복원하여 계승하고 있다.

당산나무 앞에서의 부정풀이 축원
충남 홍성군 결성읍 옹암리, 2008.1, 황인덕

내용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미리 섣달 스무날에 동회를 열어 제관을 정한다. 제관은 당주, 도화주, 부화주, 전화주, 무당(당할머니)으로 구성된다. 당주는 당산제의 총책임자로서 제물을 마련하고 산제당에서 유교식 제의를 주도한다. 도화주는 당산제를 전체적으로 기획하며 건립을 주로 책임진다. 부화주는 도화주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전화주는 회계 책임자이고, 무당은 실질적으로 제를 주관한다. 축관은 제관 가운데에서 임의로 뽑는다.

제관으로 뽑힌 사람들은 제의 기간에 몸가짐을 매우 조심하여 부정한 일을 보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관 집 대문 앞에 황토를 뿌려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는 것은 물론 정초의 집안 차례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마을에 해산할 사람이 있으면 미리 다른 마을로 피신케 한다. 그러나 부득이 마을에 초상이 난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하였다. 산제당에도 금줄을 걸어 부정의 침입을 엄격하게 막고자 했다. 예전에 산제당 주변 밭에 뒷거름을 주고 나서 병이 들어 죽은 사람이 있었고, 당산 주변의 사유지에서 베어낸 고목들을 화목으로 이용한 옹기장이 느닷없이 망한 일이 있었다. 주민들은 이 일들을 모두 신벌의 결과로 여기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의 당산제에 대한 강한 부정 금기를 보여주는 예이다.

옹암리의 당산제는 대략 옹암포구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선주들의 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던 196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포구 기능이 쇠퇴하고 소멸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쇠퇴, 단절, 부활의 기복을 겪어 왔다. 이처럼 이곳 당산제의 전후 단계가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음을 주민들은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전 단계 당산제의 흥성했던 모습을 중시하여 1960년대 이전 단계를 대제(大祭), 그 이후의 굴절되고 쇠퇴한 단계의 양상을 소제(小祭)라고 각각 부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제를 중심으로 당산제 과정을 서술하고 바뀐 모습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전체 당산제는 크게 걸립 과정과 제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걸립은 음력 정월 초이튿날부터 초닷샛날까지 계속했다. 집집마다 걸립패가 방문하여 고사 걸립을 했다. 이때 걸립되는 쌀은 적으면 몇 되, 많으면 몇 말 정도였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걸립패를 집에 들이지 않고 간단히 돈 몇 푼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걸립은 배에 올라가서도 했다. 걸립미(또는 돈)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걷은 것보다 배걸립으로 걷은 것이 늘 곱절 이상 많아 선주들의 후원은 당산제를 지냄에 있어 매우 긴요했다. 특히 그 해 어황이 좋으면 제물로 소를 잡았고, 제를 더욱 성대하게 지내고자 기량이 뛰어난 풍물꾼과 전문 광대패를 불러오고, 무당을 더 많이 데려오기도 했다. 이들은 제의 기간에 산제당 주변과 마을 넓은 길에서 낮밤으로 화려한 기예를 시연하여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들에게는 품삯을 후하게 주었다.

본격적인 당제는 정월 초엿샛날 저녁에 산제당에서 시작한다. 이날 저녁이 되면 제의를 주관하는 제관, 즉 삼소임(三所任, 당주 · 도화주 · 무당)이 당주의 집을 출발하여 용대기와 뱃기 및 풍물패를 앞세우고 신수(神樹)와 당집이 있는 당산으로 올라간다. 당산에 오른 뱃기 기수들은 용대기 기수를 따라 신수 주위를 다섯 바퀴 돌고 나서 기를 일렬로 꽂아 둔다. 그런 다음 무당이 나무 앞에 제물을 차려 놓고 징을 치며 간단히 부정풀이 축원을 한다. 한편 당주와 도화주는 신수 부근의 당집으로 들어가 술, 포, 삼색실과, 미역국, 메로 이루어진 제물을 진설하고서 산신 · 당할아버지 · 당할머니에게 유교식 제를 지낸다. 이때 읽는 축(祝)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이 약간 더해진 것 외에 일반적인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제의가 끝나면 다시 무당이 이들 신을 향하여 각각 고사 치성을 드린다. 그러고 나서 다시 뱃기(선주)를 향하여 어망굿과 선주굿을 한다. 이어서 각각의 뱃기에

길놀이
충남 홍성군 결성읍 웅암리 2008.1, 황인덕

공수를 내려주고 풍어를 기원하는 축원을 해 준다. 이로 볼 때 웅암리당산제의 제의는 전체적으로 배와 선주에 대한 관심이 크고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지(燒紙) 과정이 이어진다. 개별소지를 다 올려주고 나면 시간이 많이 지나 새벽녘이 된다. 소지가 끝나면 제관 일행은 하산하여 새벽잠을 자고서 오전에 다시 당산으로 올라가 제물을 차리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마을로 내려와 장승제와 거리제를 지낸다. 장승제와 거리제에서는 당주가 따로 있고 음식도 별도로 마련하였다. 상거리, 중거리, 하거리 가운데 장승이 있는 광남초등학교에 위치한 상거리에서 먼저 장승제를 지낸다. 이어서 경로당이 있는 중거리와 바닷가에 가까운 하거리 순으로 거리제를 지낸다. 상거리에서의 장승제는 위치상으로 거리제 성격을 함께 띤다고 할 수 있다. 거리제 축문 내용은 세 곳 모두 동일하다.

이튿날 저녁에 다시 '삼일맞이'라 하여 무당이 당산에 올라가 마지막 고사를 새벽까지 올린다. 삼일맞이는 초사흘째 지내는 제사를 뜻하는 말인 듯하다.

제의가 다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한다. 이때 제관, 심부름꾼, 초청된 풍물꾼과 전문 놀이꾼 등에게 적절한 수준의 수당을 준다. 남은 예산은 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웅암리는 근래 포구로서의 기능을 잃고 마을세도 크게 위축된 데다 교회까지 생겨 당산제에 대한 의식과 관심도가 전에 비하여 많이 약해졌다. 또한 마을노

인회 회원들과 뜻있는 일부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성금으로 당제의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 제의의 규모, 내용, 기간 등 여러 면에서 크게 축소된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을의 성격이 급속히 바뀜에 따라 마을 제사의 기능과 내용도 함께 바뀐 적례가 웅암리당산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의 당제 분석**(박종익, 어문연구 57, 어문연구학회, 2008), **홍성 독배마을**(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대원사, 2008),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조세금 면담**(2010년 6월 28일),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최정연 · 오진규 면담**(2010년 7월 5일).

필자 **황인덕(黃仁德)**

홍성장촌마을산신제

정의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장촌마을 동북쪽 약 2㎞ 떨어진 기암산 중턱 '산제당'에서 마을의 액운과 흉년을 막고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빌기 위해 매년 정월 초사흗날에 지내는 산신제.

유래 '산신제' 또는 '산제'라고 불리는 장촌의 산신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용기(龍旗)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장촌마을 2002.2, 국립민속박물관

이에 따라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 유래를 유추할 수 있다. 아주 먼 옛날 은하면 유송리 사람이 아들이 없어 장촌산제당이 있는 곳에서 2~3년 동안 산신제를 지낸 뒤 아들을 얻었다. 그 이후부터 이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염병이 마을에 창궐함으로써 산신제를 지내자 전염병이 없어져 그 이후부터 산신제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시작된 장촌마을의 산신제는 그 정성으로 인해 6 · 25전쟁 당시에도 이 마을에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효험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내용 장촌의 산신제는 원래 정월 초사흗날부터 사흘 동안 제를 지냈다. 요즈음엔 하루를 잡아 세 시간 정도 제를 지낸다. 제당은 마을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2㎞ 떨어진 기암산 중턱에 있다. 산제당이라 불리는 장촌산제당은 원래 바위가 대상이었으나 언제부턴가 현재와 같은 당집 형태의 산제당을 지어 그 안에다 산신도를 모시고 해마다 정성껏 산신을 모시고 있다. 또한 산제당으로부터 약 20m 아래에 있는 용왕샘에서는 용왕에게 드리는 용왕제(용신제라고도 함)를 지낸다. 산제당에서 모시는 대상 신은 남성신인 산신령으로 호랑이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산신이라 부른다. 용왕제에서는 용왕을 대상 신으로 한다. 한편 마을 어귀에는 돌무더기, 서낭댕이(질마재) 고개에는 돌부처가 각각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모두 없어졌다. 지금도 산신제를 지낼 때 이곳에서도 제를 함께 지내고 있다.

제관(祭官)은 대동회의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20세 이후의 깨끗하고 정갈한 남자로 정하며 늦어도 음력 섣달그믐날까지는 선출해야 한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제관 집에는 대문 앞에 황토 흙을 뿌리고 용(龍)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용기(龍旗)를 세워 둔다. 축관은 제관 가운데 한 사람이 한다. 제관은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샘제를 지내야 한다. 제의에는 남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관과 축관 이외에도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으로 네댓 명이 소지를 올리기 위해 참여한다.

제비(祭費)는 걸립으로 충당한다. 1990년경만 하더라도 풍물을 치면서 정월 초하룻날부터 초이튿날까지 걸립을 하였다. 걸립은 가구별로 2~3만 원을 형편에 맞게 성의껏 낸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5만 원 정도를 내기

도 한다. 요즈음엔 가축이 놀랄까봐 풍물을 치지 않고 조용히 걸립을 한다. 제의에 소요된 경비는 약 40만 원이다. 이것으로 밤, 대추, 곶감, 백설기(한 말 석 되 서 홉), 청수, 초, 두부탕 등을 준비한다. 이때 각각의 제물은 모두 다섯 벌씩 준비한다. 제물 구입은 약 8㎞ 떨어진 광천 장에서 한다. 새벽 일찍 삿갓을 쓰고 산길로 간다. 제기는 예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상사발'이라 불리는 제기를 사용하며 산제당에 보관한다.

우선 제물은 제관이 준비한다. 통벼를 산신제 당일 절구로 찧어서 떡과 메를 짓고 두부를 만든다. 이때 제물 준비자들은 목욕재계를 하고 외출을 금해야 한다. 특히 피를 보아서도 안 되며 싸움을 해서도 안 된다. 산신제를 앞두고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일주일 뒤 인(寅, 범)날로 새로 날을 잡아 제를 지낸다.

부정에 대한 일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이 마을에 사는 박○두가 제관으로 선출된 적이 있다. 그해에는 정월 초사흗날에 제를 지냈다. 그러나 제를 잘못 지내 같은 마을 주민 전○진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만큼 큰 개를 호랑이가 물어 죽였다. 이 때문에 보름 뒤에 산신제를 다시 지냈다. 또 제를 지내고 나서 떡시루를 지게에 지고 내려오다가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떡시루가 땅에 나뒹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떡시루는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것들이 모두 산신령의 조화라고 믿었다.

제관이 선출된 뒤 정초에 제관과 집주(음식 장만하는 집) 집 오른쪽 대문에다 용기를 걸어 두고 대문간에 황토를 뿌린다. 제의 당일이 되면 제물을 준비한다. 백설기는 한 말 석 되 서 홉을 시루 하나에 찐다. 제물은 모두 집에서 준비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제물을 진 사람이 맨 앞에 올라가고 그 뒤를 제관과 축관이 따라 올라간다.

산에 올라가면 먼저 용왕제를 지낸다. 용왕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용왕제는 산제당 아래에 있는 용왕샘에서 지낸다. 우선 용왕샘 안에는 짚을 열 십(十)자로 깔고 그 위에 동·서·남·북·중앙의 오방으로 김밥 다섯 개를 놓고 가운데에는 불린 미역을 놓는다. 그런 다음 그 앞에 불밝이쌀을 놓는다. 불밝이쌀은 쌀 한 되 서 홉을 종지에다 받쳐 놓고 발심지를 꽂은 다음 촛불을 밝힌다. 용왕샘 둑 앞에는 제물을 진설한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장촌마을, 2002.2, 국립민속박물관

제물진설

독축

소지올리기

다. 제물로는 북어포, 미역, 김, 메 열두 그릇 등을 준비한다. 제물이 진설되면 제관이 사배(四拜)를 하고 대동축을 독축(讀祝)한다. 이 대동축은 용왕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왕축(龍王祝)

維歲次 (壬午)正月(辛亥)朔 初三日(癸丑)
長村 一同 敢昭告于 龍王前에 祝願하옵기를 今年에도 雨順風調하야 농작물이 豐登하고 家禽이 足하오며 四方으로 들어오는 卑災橫禍를 막아주시고 出征軍人으로 하여금 勝戰鼓를 울리고 平和를 노래하며 한 사람도 變故 없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祝願하옵고 卑薄한 精誠으로 發願하오니 感應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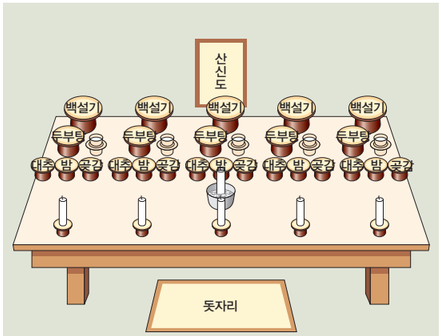
독축이 끝나면 전지(全紙) 한 장으로 대동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우리 자손들 자동차 사고 없게 해 주고, 군인 간 사람들 무사하게 해 주고, 동네 농사 잘 되고 질병 없게 해 주고, 가축도 무사하게 해 달라'고 축원한다. 이것으로 용왕제는 끝이 난다. 다음으로 산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관 전체가 사배를 한다. 엎드려 사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신축을 독축한다. 독축(讀祝)이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대동소지를 먼저 올린 다음 가정마다 개인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재(滓)를 피하기 위해 머리에 대동종이 고깔을 쓴다. 개인소지는 산제 봉성록(奉誠錄)을 미리 작성하여 일일이 식구 수대로 올린다. 그 뒤 제관 네 명 모두 연이어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제관들은 다시 사배를 한다. 그런 다음 간단하게 음복을 하고 철상(撤床)을 한다. 철상을 한 제물은 마을회관으로 들고 내려와 다시 간단하게 음복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다.

山神祝

維歲次 (壬午)正月 (辛亥)朔 初三日(癸丑) 長村一同 鳳城 敢昭告于
后土地神 歲序遷易 卑無後艱 謹以餠果 祗薦于神 尙 饗

이튿날인 초나흗날 아침 9시쯤 마을회관에 마을



홍성장촌마을산신제 상차림

사람들이 모두 모여 결산을 한다. 이 때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 소지가 잘 올라갔는지 여부를 제관들에게 묻는다. 이어 10시쯤에 제물을 나누어 먹고 결산한 다음 용기를 내린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마을로 내려와 풍물을 울린다. 이때 풍물을 울리는 동시에 용기를 내린다. 이어 대동회의를 소집하여 산제 비용과 동네 일 년 예산 등을 결산하고 마을잔치를 연다.

참고문헌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이관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충남 서해안의 마을 공동체 신앙 연구**(이관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필자 **이관호(李官浩)**

화룡제(畫龍祭)

정의 용을 그려 놓고 기우하는 의례.

내용 화룡기우의 유래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新羅本紀)」4 진평왕 50년조에서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 비를 빌었다"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이어 1086년(고려 선종 3)에 가뭄이 오래 지속되자 민가에서의 화룡기우가 제안되어 수용되었고, 3년 뒤에도 화룡기우가 설행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양진(楊津)과 저자도(楮子島)에서 화룡기우

가 거행되었으며 당시 송나라에서 반포된 화룡기우법이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송대의 화룡기우 법식은 『문헌통고(文獻通考)』 권77 교사고(郊祀考)10 우(雩)에 실려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물과 관련된 용, 물고기, 거북 등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는 제단에 수조(水鳥)인 거위의 피를 바치고 수목(水木)인 버들가지로 용에 물을 뿌리는 유감주술을 거행하되 비를 얻은 뒤에는 화룡을 수중에 넣는 것으로 의식을 마무리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화룡제를 거행하는 것이 점차 국행기우제로 공식화되었으며, 비로소 18세기 초에 확립된 국행기우제 12제차에 저자도와 용산강의 화룡기우가 제2차와 제7차에 걸쳐 두 번씩 반복되었다. 정조대에 완성된 『춘관통고(春官通考)』 권42 「길례(吉禮)」 우(雩) 기우(祈雨)의 내용을 고려할 때, 조선 후기에 거행된 화룡기우제의 경우 용산강에는 백룡, 저자도에는 청룡이 각각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화룡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보다 용의 그림을 거꾸로 걸어 놓는 관례였다. 특히 의례경건주의적 입장에 있던 영조는 이러한 관행이 용을 굴복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을 공경하는 뜻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용산강과 저자도의 화룡기우제에 설치된 거꾸로 된 용의 이미지[畫龍倒掛]가 승천의 방향[升龍]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화룡기우와 관련된 두 번째 논란은 의례를 마치고 나서 화룡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화룡제를 마치면 거위와 제물을 화룡과 함께 싸서 침수시키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것이 신을 업신여기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져 망료의 방식으로 화룡을 처리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화룡제 종료 후 화룡을 봉안하는 것으로 법식이 정해지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을 거쳐 날아오르는 화룡의 이미지가 채택되고, 수중으로 투기되던 화룡이 태워지거나 다시 봉안됨으로써 용을 굴복하는 강요의례적 화룡제의 모습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화룡제는 지방의 기우제에서 여전히 성행되었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울산 지역에서는 시장 터에 토룡을 만들고 화룡을 걸어 놓고는 사나흘 동안 무당이 비를 빌고, 용에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아울러 1930년대 경주 지역에서도 무당이 토룡과 화룡에게 무악을 연주하며 기우제를 거행하였다고 한다.

화룡제는 회화적 양식을 통해 용을 현존시키고 거기에 기원과 주술적 행위를 가하는 유서 깊은 의례였다. 이것은 20세기를 넘나들면서도 여전히 설행될 정도로 국가나 지방 및 민간에서도 널리 애용된 기우제 방식이었다.

참고문헌 **祈雨祭謄錄**,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석전 · 기우 · 안택**(조선총독부, 1938), **용부림과 용부림꾼–용과 기우제**(최종성, 민속학연구 6, 국립민속박물관, 1999), **中國シャマニズムの研究**(中村治兵衛, 刀水書房, 1992).

필자 **최종성(崔鍾成)**

화재막이

표제어 불막이제(388쪽)

황토(黃土)

정의 마을 제사와 관련되는 곳을 정화하기 위해 까는 황토로서 금토(禁土)라고도 함.

내용 마을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제사와 관련되는 곳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용하는 것 중에 일반적인 것이 금줄과 황토[금토]이다. 금줄은 왼새끼를 꼬아 만들며, 황토는 마을에서 깨끗한 곳으로 믿어지는 곳에 가서 파다가 사용한다.

신체 주위에 뿌려진 황토
전남 구례군 잔수마을
2010.2.16. 나경수

제장 주변에 뿌려진 황토

헌식을 위해 쌓아놓은 황토

전남 고흥 동강면 마륜리 마서마을, 2008.2.20. 나경수

본래 붉은색은 축귀색(逐鬼色)이라고 해서 나쁜 귀신을 막는 주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마을 제사를 경건하게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모실 곳, 제사를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 제물을 장만하는 것과 관련되는 곳, 잡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믿어지는 곳 등에 황토를 뿌려서 나쁜 기운을 막는다.

황토를 뿌리는 기간은 마을마다 다르다. 황토를 파 올 사람을 미리 정하는 마을도 있고, 또 임의로 본인이 깨끗하다고 믿으면 파 오기도 한다. 한 걸음 정도의 사이를 두고 반 삽 정도의 황토를 일정한 간격으로 깐다. 예를 들어 동제를 모시는 당산나무의 경우 당산나무 주변을 빙 둘러서 깔고, 제물을 만들어 쓸 우물이 있다면 그곳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황토를 깐다. 그리고 제물을 장만하는 사람의 집이나 또는 제관의 집에도 대문에서 양쪽 길가에 황토를 깐다. 또 마을 어귀에 금줄이 걸리는 곳에 황토를 함께 깔기도 한다. 마을 제사와 무관하게 동제를 모시는 날에 앞서서 어떤 가정에서는 가장이 나서서 직접 황토를 파다가 본인의 집 주변에 까는 예도 있다.

황토를 사용하는 다른 하나의 예는 헌식을 할 때이다. 마을 제사를 모시고 나면 제상에 올렸던 제물을 조금씩 떼어 내거나 또는 미리 마련해 두었던 제물을 제사 모시는 가까운 곳의 땅을 파고 묻는다. 이를 헌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도 황토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리 헌식을 할 곳에 새로 황토를 파다가 놓는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묻고 새로 마련해 둔 황토로 덮는다. 이런 헌식을 매년 하기 때문에 오래된 어떤 마을은 헌식터가 마치 무덤처럼 높게 봉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필자 **나경수(羅景洙)**

흑산도진리당

정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마을의 당집. 진리당은 흑산도 15개 당집의 본당(本堂)이라 불릴 정도로 권위가 있는 당집이다. 현재 '신안군 향토자료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진리당에는 소저아기씨(당각시), 상궁부인, 제석님, 산중처사님, 도령(총각화장), 당할머니, 성주신 등 일곱 명의 신격이 좌정되어 있다.

형태 진리당은 상당(上堂)인 성황당과 하당(下堂)인 용신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이 두 당집은 많이 훼손되어 2009년에 복원되었다. 성황당의 뒤편 오른쪽 돌담 밖에는 용신당이 있다. 성황당과 용신당의 거리는 약 150m이다.

성황당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맞배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다. 기와집은 신격을 모신 신당 한 채와 부엌 용도로 쓰는 문간방 한 채로 모두 두 채이다. 문간방은 당제 때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다. 이곳에 제기, 취사도구, 장작 등이 보관되어 있다. 돌로 축조된

돌담이 두 채의 기와집을 직사각형으로 감싸안고 있다. 입구 근처에 문간방이 있고, 문간방에서 신당으로 향하는 길에는 양쪽으로 돌담이 이어져 있다. 과거에는 담을 돌만 가지고 쌓았으나 최근에 복원된 담은 돌에 흙과 시멘트를 섞어 쌓았다고 한다. 돌로만 쌓은 담이 쉽게 무너져 내리자 2009년에 돌 사이로 흙과 시멘트를 이겨 넣어 돌담을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성황당의 전용면적은 50㎡이며, 용신당은 성황당의 절반 정도 크기이다.

용신당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용신당 내부는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매우 좁다. 당집 앞 돌담 밖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마당 오른쪽에는 총각화장이 떨어져 죽었다는 노송과 그의 무덤이 있다.

역사 진리당은 과거에 있던 당집 터에 두 번에 걸쳐 복원되었다. 1938년 7월 1일에 이전의 당집을 헐고 기와지붕으로 당집을 복원하고 지금의 당집은 2009년에 훼손된 당집을 헐고 다시 복원했다고 한다. 과거의 진리당은 많이 훼손되고 담장이 무너진 상태여서 신안군 국립공원 측이 전통문화자원 보호의 일환으로 진리당 복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진리마을 사람들도 진리당을 복원할 필요를 느끼고 동참하였다. 그 당시 성황당과 용신당의 건물이 크게 소실되었기 때문에 복원 작업은 기존 건물의 형태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당집 복원은 2009년 2월에 착수하여 10월 13일 완공되었다. 10월 14일에는 흑산면장과 마을 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리당에서 고사를 지냈다. 진리당은 훼손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으나 당집이 복원되자 마을 사람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하였다. 마을 이장은 화재로 소실된 화상들도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 복원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진리마을 당제도 2010년에 복원되어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지내고 있다.

내용 진리당에는 소저아기씨(당각시), 상궁부인, 제석님, 산중처사님, 도령(총각화장), 당할머니, 성주신의 일곱 신격이 좌정되어 있다. 현재 복원된 당집에는 이들의 화상이나 위패가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주신을 제외한 여섯 화상이 당집에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화상은 오래전에 소실되었고, 그 이후로 한동안 종이 위패를 만들어 모셔 놓았다고 한다. 위패는 소저아기씨(당각시)·상궁부인·제석님·산중처사님·도령(총각화장)이 있었고, 위패는 없지만 당할머니가 상궁부인과 제석님의 중간에 좌정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위패의 중간에는 신베(당베)가 걸려 있었고, 성주단지·쌀뒤주·들돌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들은 몇 해 전에 발생한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 최근에 복원된 당집에는 신격의 신체(身體)나 유물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화상만큼은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 앞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리마을에서는 진리당의 주요 신격인 소저아기씨(당각시)와 도령(총각화장)의 좌정 유래담이 전승되고 있다. 이들의 좌정 내력을 담은 신화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오래전에 이 마을에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 산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먼 바다가 보이는 산정의 노송에 목을 매달아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시체를 발견하고 각시가 죽은 자리에 당을 지어 그 원혼을 모셨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각시가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였다.
>
> 그러던 어느 날 총각화장(취사 및 심부름을 하는 선원)이 옹기 파는 배를 타고 진리마을에 왔다. 선원들이 옹기를 팔러 마을로 들어가자 홀로 남은 총각화장은 당 옆에 있는 노송(老松)에 올라가 솔잎으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 이때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났고, 그 후 매일 노송에 올라 솔피리를 불어 처녀와 만났다. 옹기를 판 선원들이 출항하려고 했으나 총각을 사모하는 당각시가 풍랑을 일으켜 배의 출항을 방해하였다. 총각화장을 떼어놓고 가지 않으면 배가 파선되어 모두 죽는다는 점쟁이의 말을 따라 선원들은 총각화장만 남겨 놓고 출항하였다. 총각화장이 매일 노송에 올라 솔피리만 불다가 배가 고파 지친 나머지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총각을 불쌍히 여겨 총각이 떨어져 죽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총각화장의 화상(畫像)을 만들어 당각시 옆에 모셔 놓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

이 신화에 따르면 당각시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목을 매달아 죽은 원혼신이고, 당각시가 사모한 총각은 솔피리만 불다가 지쳐서 죽은 원혼신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원혼신을 성황당에 모셔 놓고 매년 정월 초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왔다. 이러한 당제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단절되었으나 2009년에 당집이 복원되면서 당제도 2010년에 복원되었다. 현재는 당제가 매우 간소하게 모셔지고 있으나 과거에는 성대하게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과거의 당제는 성황제·용왕제·갯제 등으로 구성되었고, 제의 기간도 길었으며, 제사도 엄격한 격식을 갖춘 상태에서 모셔졌다고 한다. 당제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부터 초사흗날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성황제 때에는 제관들이 들돌을 들어 신들이 제물을 흠향했는지 확인하기도 했고, 갯제 때에는 많은 선주의 참여 속에 용왕굿을 행하기도 하였다.

과거에 행하던 진리마을의 당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제 때 사용되는 경비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충당했으며 당제를 지내기 위해 마을 이장은 이틀 전에 장에 가서 갖가지 제수용품을 구입하였다. 신격들이 육류와 어류의 냄새를 싫어했기 때문에 제물은 술을 비롯해 과일 등 식물성 음식물이었다. 마을회의를 통해 생기복덕에 맞춰 제주 한 명과 제주를 보좌할 사람 두 명을 선정하였다. 제관들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갈아입을 깨끗한 옷 몇 벌과 그동안 먹을 식량 및 제수용품 등을 챙겨서 당집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우선 성황당·용신당·당샘 등을 청소하고, 문간방에 보관한 시루, 절구, 제기들을 깨끗하게 씻었다. 그런 다음 제장 주위에 황토를 뿌리고 왼새끼로 꼰 금줄을 쳤다.

제관들은 제물을 마련하기 전에 쌀겨나 반점이 있는 쌀알들을 골라냈다. 이 행위는 제사를 지낼 때까지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쌀겨를 다 골라낸 제관은 돌갓, 더덕, 고사리를 솥에 넣고 간을 맞추어 익혔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채취한 것을 제물로 써야 정성이 있다 하여 돌갓, 더덕, 고사리 등 나물류는 반드시 주민들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제사가 시작되면 제관들은 제물을 진설하고 자시(子時) 무렵에 성황제를 모셨다. 성황제는 유교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관이 주도하여 재배-헌작-구축-소지 등의 절차로 제를 지냈다. 축문의 내용은 마을의 안녕·무병·농사와 어업의 풍요, 객지에 나간 이들의 안녕 등이었다. 성황제가 끝날 무렵에는 제관이 마을 전체와 각 가정을 위한 소지를 올렸다.

성황제를 마친 제관들은 용신당으로 이동하여 용왕을 위한 용왕제를 모셨다. 용신당 안에 창호지를 깔고 간단하게 제물을 차려놓은 뒤 용신당 밖에서 제사를 모셨다. 용왕제가 끝나면 마을 부녀자들이 바닷가로 이동하여 갯제를 모셨다. 갯제는 마을 부녀자들이 주도하여 제를 모셨으며 선주들이 용왕굿을 원할 때는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하기도 하였다. 갯제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바다로 띄워 보냈다.

성황제와 용왕제를 마친 제관들은 당집 마당에서 장작불을 지피며 마을 사람들에게 제사가 끝났음을 알렸다. 이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농악을 치면서 당집으로 몰려들었다. 당에 오른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접근하지 못한 당집에 들어가 당집 내부를 구경하기도 하고, 당집에 모셔진 신격들에게 각자의 소망을 발원하기도 하였다. 제관은 제물의 일부를 떼어내어 사방에 뿌리며 잡신을 대접하는 사신(辭神)을 했으며, 남은 제물은 당제에 참여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어업이 성한 당시만 해도 진리당은 진리마을 사람들의 주요 신앙처였다. 당제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오랫동안 먼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온 어선들이 해안에 배를 정박하고 당집을 향해 절을 할 정도로, 마을 사람들은 당집의 신격을 매우 신령스런 존재로 인식하였다. 당제 또한 음력 정초부터 사흘 동안 연행될 정도로 그 규모가 성대하였다. 그러나 가치관 변화와 어업 쇠퇴로 인해 민간신앙이 많이 약화되면서 당제도 시들해졌고, 결국 한동안 당제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안군 국립공원 측에서 전통문화자원 보호의 일환으로 2009년에 진리당을 복원하면서 진리마을 사람들도 점차 당제의 복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음력 정월대보름날 자시에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현재 복원된 당제는 성황제와 용왕제만 모실 뿐 갯제는 따로 지내지 않고 있다. 제관은 따로 선정하지 않고 마을 이장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축문을 읽지 않으며, 제물은 당집 문간방에서 부녀자 몇 명이 간단하게 마련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진리마을 당제가 많이 약화된 상태이지만, 마을 사람

들은 당제의 복원을 반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대계 6~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필자 이영금(李永金)

희생제물(犧牲祭物)

정의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정성스러운 상징적 제물. 인간을 대신하여 바치는 희생적인 상징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을굿에서는 신에게 동물을 바치는 전통이 있다. 이 동물이 바로 희생제물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닭, 돼지, 소 등이 있다.

역사 희생제물의 역사적 기원은 오래되었지만 부여의 습속에서 뚜렷한 흔적이 발견된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권30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 제30 가운데 부여조에는 "군사를 일으킬 때에 또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소를 도살하여 발굽을 살펴서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벌어져 있으면 흉하다고 하고, 모아져 있으면 길하다고 한다(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라는 기록이 있다. 소를 희생제물로 삼은 전통을 이로써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술적인 점술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점이 부가되어 있다.

더욱 적극적인 사례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돗제의 기원과 같은 본풀이에서 명확하게 희생제의가 신찬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 〈궤눼깃당본풀이〉이다. 이 본풀이의 세부적인 내용에 돗제의 희생제의가 필요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 안빌레는 식닥빌레 인발개발 쎄였수다. 남당 알은 개오줌내 탕천허고 궤눼깃 굴에 올라간다. 굴 안에 들어가난 ᄒᆞ니ᄇᆞ름 셋ᄇᆞ름 의지로구나. 남드레 돌아사난 벨이 솜솜 돌이 솜솜 보아지었구낭. "난 일루 좌정을 ᄒᆞ쿠다." "뭐를 먹읍네까?" "나는 장수난 밥도 장군 술도 장군 고기도 장군 고기 전머리 먹읍네다." 허난 "어서 기영홉서." "오름산이 불르라. 봉산이 불르라, 서져구리, 기마구리, 칼감제, 실멩일 불러오라." 실멩일 불러오난 황밧갈쇠를 내여노라. 황밧갈쇠를 내여노난 동펜은 가린쇠 세경은 부린펜 돌페갤 베완 황밧갈쇠를 바칩데다. 에-. 황밧갈쇠를 바치나넨 ᄀᆞᆫ는 말이 "부잿칩은 좋쿠다 마는 ᄒᆞᆫ들 가난ᄒᆞᆫ 집은 어떵홉네까?" "기영ᄒᆞ지 마라. 남도구리 아래 감은족발이 한족발이 물 주고 수금 주언 황밧갈쇠만이 크건들랑 창지만 똑귀 내어 두언 물 ᄒᆞᆫ잔 떨어진 건 어시 올리쿠다." "어서 기영홉서."

이 본풀이는 희생제물이 어떠한 용도로 선택되고 어떻게 신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지를 알 수 있는 살아 있는 자료이다. 궤눼깃도가 고향에 돌아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자 장인에게 영험을 부리도록 해서 마침내 한 고장의 농사를 흉년이 되었다가 풍년이 되도록 하자 마을 사람들이 비로소 이 신의 능력을 알아채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존재에게 한 곳에 좌정할 것을 요구하자 여러 곳을 지적하다가 마침내 궤눼깃굴로 좌정하는 대목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먹고자 하는 음식을 정하는데 그것이 황밧갈쇠라고 하는 황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 그 요청에 응하였지만 나중에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고 돼지로 희생제물을 올리겠다고 하는 대목이 이 본풀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신찬으로 바치는 희생제물 역시 계약 변경이 가능하고,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이 본풀이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희생제물의 변천은 일정한 단계가 있었음을 여러 구전설화에서 두루 확인할 수가 있다. 널리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음에 인간을 희생제물로 삼던 전통이 있었다. 식인관습이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다른 민족의 사례는 이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 윈난성(雲南省)의 와족(佤族)이 거행한 '엽두제(獵頭祭)'와 같은 사례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사람 머리를 잘라서 이를 제사 지내는 풍속이 핵심이다. 인신공희의 전통이 우리나라의 이야기와 본풀이 등에 풍부하게 전승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엿보게 한다. 〈김녕사굴〉, 〈지네장터〉, 〈심청가〉 등의 전례는 이 단계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의 정체나 요구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잡아 희생을 하던 단계의 전환이 이룩되었다. 그것은 농경재배의 단계가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단계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아먹는 단계의 병존이 이루어지다가 마침내 이러한 문화적 단계와 결별하게 되었다. 문화사적 결별의 대표적인 희생제의를 담고 있는 신화가 하이누벨레(Hainuwele)과 같은 여성을 잡아먹는 단계로 전이된 것을 말한다. 이른바 데마(Dema) 처녀의 살해가 조상신을 살해하고, 새로운 농경단계로 접어들고, 식인습속을 전환하는 동기를 일정하게 담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대신하는 희생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제물이다. 희생제물의 등장은 일정한 변혁적인 사건이었다.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동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동물은 야생일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세월이 경과하면서 인간이 기르는 가축과 같은 것들이 희생제물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가축으로 희생물을 삼아서 인간을 대신하고, 인간과 신의 계약과 신찬을 돕는 점에서 희생제물은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인간과 신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신들의 신찬을 인간이 음복하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농경사회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인간의 희생제물 헌식은 여전히 병존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가축을 희생제물로 삼는 행위는 각별하다.

희생제물은 분명한 신찬이기 때문에 이를 분배하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것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쇠머리 또는 돼지를 통째 바쳐야 한다는 규약 따위가 이를 말하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희생제물을 통해 여러 가지 반기와 봉송을 하는 일은 희생제물의 구체적인 용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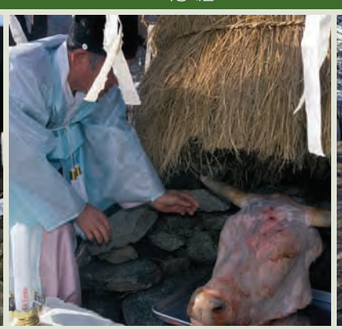
지역사례 지역에 따라 희생제물의 사례가 각기 다르고 복합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온전하게 돼지만을 요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립된 제주도의 돗제에서는 순전하게 돼지만을 바친다. 돼지를 희생물로 바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제주도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사례는 없다.

이와 달리 소를 제의의 희생제물로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서울 인근의 마을굿에서는 닭과 소를 함께 제물로 사용하여 신에게 바친다. 이와 동시에 쓰러지는 방향에 따라 마을굿의 효험을 점치는 사례도 있다. 서울 지역의 중랑구나 도봉구, 경기도 구리시의 마을굿에서는 쇠머리 위에 닭을 활에 꿰어서 사슬을 세운 희생제물을 바친다.

의의 희생제물의 의의는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자체의 역사적 전환과 의미를 환기하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사람-짐승의 희생물 대치와 수렵-농경의 문화사적 전환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희생제물의 역동적인 전환과 변화를 암시한다. 단순하게 동물

희생제물

경기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2001.2.21, 국립민속박물관



경기 양평군 성덕리 2003.3.2, 최호식

강원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2004.12.15, 국립민속박물관

을 바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중요한 역사적인 변천 속에서 희생제물은 인간의 대속물, 대수대명물로 희생제물이 긴요한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희생제물은 문화적 과거와 현재를 보여 주는 적절한 예증이 된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는 희생제물의 비교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비교를 통해 희생제물에 대한 의례적 특징을 새삼스럽게 재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돗제는 그 자체로 보면 이상한 습속일 수 있지만 다른 민족 가운데 이와 유사한 의례를 거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희생제물을 돼지로 삼아서 하는 의례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중국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주족(滿洲族), 안후이성(安徽省) 츠저우시(池州市) 구이츠구(貴池區), 후난성(湖南省) 샹시투자족먀오족자치주(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 신황둥족자치현(新晃侗族自治縣) 등지에서 거행되는 돼지제사는 매우 유사한 형태로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인 사실은 돼지를 한 마리 모두 바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예외를 두는 것도 있어서 이 역시 사례는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면모는 농경문화와 물의 상관성 속에서 돼지가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윈난성(雲南省)의 소수민족 가운데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 제주도의 돗제와 유사한 의례를 거행한다. '나시족(納西族)'은 중국 윈난(雲南)과 쓰촨(四川)의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서 모계

희생제물
대전 중구 유천동 2005.12.3. 차정환

희생제물
충남 공주시 계룡산 일원. 2002.4.26
국립민속박물관

가정을 기본적인 사회구조로 하고 있다. 나시족의 전통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쓰촨성 경내 '리쥐쭈이(利咀嘴)'라는 마을에서 추수가 끝나는 음력 10월이면 이곳 사람들은 돼지를 잡아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주지쭈(殺猪祭祖)'라는 제의를 거행한다.

이 제사는 동일 씨족 내부의 '쓰르(斯日)'라는 친족 집단에 속한 샤먼 '다바(達巴)'가 제사를 주재한다. 이 제사는 조상에 대한 은덕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집안의 식용 가능한 돼지를 잡아 소금에 절여 저장해 놓고 필요한 경우 언제나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표육(猪膘肉)'을 만드는 시기와 연결되는 특별한 제의이다. 우리의 돗제 역시 이러한 성격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어 돼지를 희생제물로 삼는 사례의 비교로 적절한 예증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돼지제사의 문화적 함의**(曹琳, 김지영 역, 서우얼출판사, 2006), **쓰촨 나르인 '부콰스부(殺猪祭祖)' 의식과 모계가정**(홍희, 동아시아고대학 9,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제주도 김녕리 궤눼깃당본풀이 연구**(김헌선, 2007, 미간행).

필자 **김헌선(金憲宣)**

색인

ㄱ

가망지 500
가망청배 500
가산오광대 403
가신지위 959
가야진용신제 22, 23
가제 365, 760, 955
각사 35, 37, 333, 334, 465, 471
각성바지소지 498
간물단지 200, 388, 495, 496
간수 203, 388, 961, 971, 972, 973
감실 65, 234, 309, 310, 322, 325, 648, 916
강릉안인진해령사 25, 26, 27, 28
강릉행깨마을고청제 28
강림 24, 27, 28, 118, 131, 205, 393, 406, 415, 466, 469, 533, 534, 658, 786, 787, 841
강신례 382, 490, 503, 625, 628, 927
강신의례 30, 31, 530
강화교동도부군당제 34
강화교동도자신당 39
개양할미 41, 42, 43, 274
객귀 44, 45, 147, 315, 712, 843, 901, 981, 982, 983, 984, 986, 987
갯목 287
갯제 677, 678, 679, 680, 681, 683, 685, 689, 690, 785, 1015
거리메기기 332
거리제 43, 44, 45, 109, 172, 215, 224, 225, 228, 234, 267, 279, 293, 295, 375, 377, 397, 479, 480, 481, 511, 622, 623, 665, 673, 674, 675, 690, 740, 785, 846, 865, 867, 871, 872, 873, 897, 901, 916, 955, 977, 986, 1000, 1004, 1008
거리제쌀 390
거릿대 43, 353, 361, 362, 449, 505, 506, 508, 535
거릿대장군 362, 745
거릿대장군당 351, 352
거릿대제 85, 354, 360, 362, 449, 745
거북도당 520, 521
거석문화 116, 596, 597
거욱대 818, 819, 820
거창거기리말무덤 45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 46
거창당동당산 47
거창대동마을액막이제 49, 51
걸궁 51, 54, 55, 825, 826
걸립 51, 54, 57, 58, 70, 77, 84, 107, 112, 181, 184, 215, 269, 303, 322, 379, 390, 403, 455, 595, 603, 633, 670, 760, 787, 859, 872, 873, 902, 990, 993, 994, 998, 1000, 1008
걸립패 52, 53, 54, 188, 385, 390, 859, 860, 861, 862, 902, 1008
검줄 135
경도잡지 318
경산자인단오제 59, 64, 241
경순왕 64, 149, 150
경아전 332, 336
계룡산산신제 64, 65, 68, 69, 92
고려사 90, 132, 139, 149, 276, 406, 414, 446, 526, 527, 528, 608, 644, 664, 716, 879
고사굿 57, 58, 862
고사기 314
고사반 391, 517, 518, 628
고사소리 53, 57, 58, 517, 603, 604, 647, 860, 862
고성석마리석마 69
고수레 70, 162, 424, 425, 431, 456, 469, 649, 732, 738, 945, 984, 987
고양주 148, 741, 742, 743, 836, 837, 840, 843, 895
고유제 68, 253, 298, 299, 713, 850, 851
고인돌 116, 485, 691, 692, 702, 761
고줏대 886
고창사내리당산 70
고창오거리당산 71, 75
고창오거리당산제 74, 75, 77, 366
고창임리마을짐대당산제 77
고청제 29, 81, 82, 250, 251, 252, 282, 899
곡성옥과성황당목조신상 82, 84
곤목 287
골매기 86, 87, 204, 287, 288, 440, 731
골맥이 84, 433, 449, 507, 711, 734, 735
골맥이제 85, 86, 87, 88, 257, 446
공민왕 37, 88, 117, 120, 131, 132, 133, 495, 592, 595, 596, 822, 868
공양미 390, 391
공양주 93, 94, 95, 96, 174, 175, 177, 226, 439
공주고마나루웅진단 91
공주동해리산신제 92
공주동해리산향계문서 95
공주무성산산제당 97
공주부전대동계문서 99, 100, 102
공주탄천장승제 106
공하 110
관왕묘 283, 979, 980
관우 36, 37, 475, 476, 487, 488, 489, 490, 609, 643, 979, 980
관운장 490, 642, 643
광주엄미리장승제 111
광주칠석동당산제 112
괴목마을노신제 375, 376, 377
괴산문당리성황단 114, 115
구례구산리입석 115
구축 209, 276, 459, 616, 769, 867, 871, 873, 981, 982, 1015
국사당 89, 116, 219, 220, 261, 283, 473, 485, 597, 729, 848, 850
국사당제 119, 120
국사신 119, 120, 121, 219
국사제 121, 219, 220, 482, 483
국수당 116, 117, 118, 119, 122, 351, 406, 440, 922
국수봉 117, 122, 351
국시당 116, 117, 118, 119, 122, 351, 440
국제관사 492
국조오례의 92, 492, 624, 625, 644, 766
국행성황제 492
국행제 64, 68, 459, 664, 716, 848, 850, 852
군웅거리 338, 730
군웅제 483
굿청 31, 458, 637, 812
권전 122, 123
궤눼깃당본풀이 1016
그물코사 123
금구줄 48, 135
금산농바우끄시기 125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130
금산천내리용호석 131
금산청징연기우제당 133
금성대군 494, 649, 650, 654
금토 137, 1000, 1012
기고사 137, 146, 212, 628, 629
기세배 189, 190, 202, 297, 535, 627
기싸움 190, 297, 627
기우소 346
기우제 40, 92, 125, 129, 133, 138, 141, 156, 195, 197, 218, 263, 266, 315, 346, 351, 407, 427, 481, 484, 491, 693, 744, 750, 825, 827, 846, 856, 864, 879, 908, 912, 932, 937, 968, 1012
기우제등록 140, 143, 484
기우제룡 139, 143, 144, 484
길산제 293, 294, 295
길지 145, 313, 324, 352, 429, 448, 451, 480, 733, 877, 918, 1000, 1002
김대부신 26, 27, 28
김부대왕 149, 231
김유신 37, 59, 334, 405, 473, 665, 858
김제월촌입석 150

김태곤 119, 121, 284, 333, 404, 443, 445
까꾸리 969, 970
까꾸지 970
깽매기 294

ㄴ

나주용진당제 156, 158
날당산굿 53, 58, 210, 641, 685, 862, 978
남근석 523, 530, 643, 733, 772, 800, 974
남양주덕릉마을산신각 158
남양주팔현마을산신당 160
남원삼동굿 162
남원서천리당산 166
남이 장군 213, 473
남해가천암수바위 167
남해물건리동제 168
내장물 234, 235, 916, 917
노고할미 172
노구메 284, 322, 325, 455, 458
노신제 43, 106, 172, 376, 377, 483, 675, 869, 870
노적가리 316, 318
논공천왕당 172
논산반곡리산신제 173
논산부인당산제 178
논산양암동계문서 182
논산주곡리장승제 182
논산후동동계문서 185
농기 107, 137, 138, 162, 180, 186, 202, 211, 298, 316, 382, 391, 410, 436, 532, 535, 605, 627, 647, 741, 861, 863, 887, 891
농상기 137, 186, 535
농신 137, 627, 955
농신기 535
농신제 482, 483, 741, 863
농악대 207, 208, 320, 385, 500, 517, 519, 749, 781, 862
농포신 190, 954
농포제 190, 816, 954, 955
누석단 119, 122, 440, 441, 443, 457, 597, 751, 916
느림 325

ㄷ

다자구할머니 194, 849, 850
단군 37, 118, 139, 204, 205, 246, 334, 403, 406, 466, 470, 473, 475, 483, 927, 937
단군신화 118, 123, 124, 139, 204, 205, 403, 404, 405, 406, 475
단군제 483
단수치기 593, 595
단양두악산소금무지제 195
단양천 197, 390, 496
단잡기 377, 379, 380
단종 59, 122, 123, 148, 400, 476, 622, 647, 649, 926, 935, 936
달집 257, 408, 515, 532, 689, 756, 873, 891
달집태우기 257, 331, 513, 516, 517, 532, 689, 781, 885, 891
당고사 110, 209, 211, 238, 391, 521, 612, 670, 707, 711, 859, 881, 902, 905, 918
당굿 31, 43, 168, 267, 337, 456, 457, 458, 459, 479, 480, 522, 662, 685, 689, 690, 786, 791, 801, 802, 808, 812, 835, 859, 860, 954, 955, 957
당기 201, 322, 324, 480, 985
당맞이 324, 391, 459, 480
당목 85, 173, 230, 242, 250, 253, 255, 257, 297, 394, 511, 610, 697, 941
당뫼 326, 328, 329, 331
당묘 328, 329
당산 31, 70, 74, 162, 173, 203, 309, 323, 363, 366, 368, 403, 406, 408, 449, 458, 494, 506, 530, 647, 677, 688, 745, 749, 772, 835, 884, 998, 1005
당산굿 53, 57, 58, 182, 188, 205, 208, 639, 646, 685, 860, 978
당산나무 75, 166, 203, 211, 366, 387, 395, 397, 631, 677, 686, 750, 776, 946, 985, 1013
당산미 390
당산신 34, 150, 204, 210, 311, 325, 353, 360, 366, 369, 371, 494, 647, 746, 760, 771, 773
당산신위 322, 325
당산옷입히기 205, 368
당산제 34, 45, 49, 71, 74, 77, 113, 114, 151, 153, 162, 203, 208, 209, 210, 290, 292, 331, 353, 363, 366, 372, 395, 436, 446, 619, 632, 638, 641, 686, 739, 748, 760, 773, 775, 778, 826, 1006
당산할머니 87, 112, 150, 151, 203, 292, 363, 366, 369, 370, 750, 775, 776, 778, 858
당상관 377, 379, 380, 622, 855
당상제 483
당샘 157, 322, 324, 330, 331, 494, 769, 787, 836, 1015
당수나무 110, 735, 857
당신 47, 109, 118, 212, 229, 287, 301, 479, 487, 662, 689, 734, 801, 805, 834, 835, 866, 916, 964
당신화 28, 89, 194, 212, 244, 247, 250, 299, 301, 410, 635, 638, 661, 712, 734, 851, 882, 927, 937
당제 25, 34, 38, 42, 45, 49, 119, 149, 156, 168, 202, 209, 224, 227, 238, 287, 306, 314, 321, 322, 328, 336, 351, 362, 386, 456, 459, 461, 471, 478, 597, 611, 618, 620, 635, 638, 652, 679, 680, 683, 729, 772, 801, 812, 823, 848, 865, 867, 883, 912, 974, 980, 988, 995, 998, 1000, 1005, 1015
당주 110, 161, 203, 226, 300, 322, 358, 422, 458, 473, 592, 620, 636, 683, 786, 866, 906, 942, 999, 1000, 1005, 1007
당집 41, 47, 156, 219, 242, 254, 326, 422, 457, 475, 686, 865, 884, 1014
당화 42, 43
대감제 483
대내림 62, 85, 479, 480, 689, 880
대덕법동리석장승 214
대동놀이 189, 208, 217, 297, 639
대동소지 185, 224, 226, 313, 377, 458, 498, 500, 593, 603, 688, 741, 760, 887, 890, 896, 994, 1001, 1004, 1011
대동제 169, 387, 890
대동회 215, 216, 217, 248, 249, 380, 725, 786, 886
대룡기우 484
대리당산제 349, 350
대명별신굿 391
대신할머니 36, 284
대쌀바지 391
대어기 314
대잡이 348, 349, 351, 463, 480, 533, 786, 840, 841, 880
대전계족산기우제 217
대전무수동국사봉 219
대전무수동동계문서 220
대전외삼동산신제 224
더북 480
덕석기 137, 186, 535, 763
덕석몰이 867
덧뵈기 63, 64, 861, 881
도가 26, 32, 115, 195, 217, 226, 227, 242, 243, 244, 255, 256, 410, 431, 447, 448, 449, 493, 511, 612, 613, 652, 670, 829, 834, 835, 850, 882
도간 318, 320
도깨비 34, 70, 94, 135, 227, 228, 229, 285, 395, 396, 638, 639, 641, 732, 733, 775, 776, 829, 981
도깨비고사 227, 228
도깨비굿 227, 228, 229, 829

도깨비불 228, 270, 315, 732, 733
도깨비설화 638, 639
도깨비제 227, 228, 229, 732, 733, 776
도당신 206, 229, 230, 231, 232, 464, 523
도당신위 322
도둑잡이 뱅이 315
도신 242, 254, 483, 786
도편수 390
독기 313, 356
독신당 355
독신묘 355, 356, 357
독신지신위 55
독제 356
독축 99, 169, 174, 198, 199, 211, 220, 223, 278, 294, 295, 297, 310, 311, 327, 628, 647, 726, 760, 778, 837, 863, 868, 880, 885, 898, 899, 906, 988, 994
독축례 490
독치성 483
돈주부 845
돈지할망 232, 233
돈짓당신 233
돋우기 654
돌돌이 275, 276, 859
돌모산당산 363
돌무더기 61, 85, 119, 120, 173, 206, 210, 297, 330, 433, 440, 441, 443, 444, 445, 447, 450, 475, 481, 596, 597, 643, 688, 734, 820, 841, 916, 918, 922, 1009
돌탑 110, 114, 115, 119, 145, 146, 233, 234, 323, 346, 353, 394, 444, 511, 676, 817, 847, 898, 916, 918
돌하르방 236, 237, 413, 757, 800, 808, 818, 819, 820
동계 34, 98, 99, 100, 101, 102, 138, 182, 185, 186, 216, 221, 239, 625, 626, 764, 783, 891, 982, 995
동국세시기 121, 201, 277, 318, 603, 608, 679
동국여지비고 333, 335
동답 44, 186, 237, 439, 699, 892, 895
동래부지 346, 347
동래영지 355, 356
동맹 206, 237, 238, 296, 411, 630
동미 725, 782
동민소지 498
동사 210, 238, 239, 597, 707, 984
동수 239, 310, 707, 708, 711
동악제 712, 713, 714
동예 296, 411, 630
동이전 205, 206, 237, 238, 403, 404, 410, 411, 497, 629, 630, 878, 1016
동정계 865
동제계 96, 104, 239, 240, 893, 895
동제신대 533
동제홀기 240
동토 383, 485, 882
동티 180, 242, 383, 535, 857
동해대진동도신제 · 제고사 242
동해동호동천제단 244
동해동호동천제단제 247
동해봉정마을고청제 250
동해신흥동도서낭제 252
동해어달동서낭제 · 해성제 255
동화대 257, 258, 259, 608, 885, 886, 887, 890, 891
두레기 535
두레패 187, 188, 189, 449, 603
두모포영 351
두창신 869
둑제당 260, 261
뒤주대왕 266
뒷전거리 50, 338, 784, 983
들당산굿 53, 57, 210, 639, 640, 978
디딜방아 49, 50, 141, 261, 262, 263, 264, 265, 266, 315
디딜방아뱅이 264, 266
떡 50, 226, 266, 267, 268, 390, 455, 667, 720, 741, 825
띠단 379
띠배 269, 270, 323, 324, 690, 739, 785, 786, 871, 986
띠배놀이 314

마고당 743, 744, 745
마고할미 213, 274, 743, 744, 844
마당굿 53, 57, 211, 640, 770, 862, 863
마당밟이 34, 52, 211, 229, 274, 532, 632, 639, 647, 685, 749, 763, 776, 859, 860, 862, 863, 976, 978
마량진 478
마련방 25, 254, 274, 275, 281, 282
마보제 276
마불림제 944, 964
마사제 276
마을굿 146, 162, 203, 205, 231, 232, 292, 338, 366, 385, 430, 436, 460, 461, 464, 466, 470, 472, 473, 500, 517, 519, 598, 647, 675, 686, 738, 859, 860, 880, 956, 1016, 1017
마을돌기 211, 275, 276, 365, 479, 481
마제 276, 277
마조제 276
마중시루 177, 181, 226, 278, 279, 740, 741, 742, 876
말명조상 338
말무덤 45, 46, 63, 123
말축굿 279, 821
망부석 361, 362
망예례 625, 942
망원동 금성당 335
망제 249, 279, 280, 432, 901, 938, 943
망지 251, 254, 274, 281, 282
매구 63, 210, 593, 620, 621, 762, 763, 859, 860, 884, 949, 986
매굿 210, 211, 632, 635, 859, 860, 862, 863
매귀희 859
매당왕신 282, 283, 284
매림 675
먼물샘 357
메밀 269, 285, 386, 732, 775, 807, 820
멜굿 828, 829
명당경 480
명령기 605
명륜동 부군당 335
명성경 487, 488, 489
모닥불넘기 517
모연문 656, 657, 658, 659
모포줄 285, 286, 287, 288
목간신대 535, 537
목마 277, 947, 948
목신제 267, 350, 387, 483
목제남근 288, 289
목축신 289, 943, 944, 945
무라야마 지준 291, 340, 341, 474, 475, 477, 478, 481, 603, 605, 728, 729, 738, 885, 912, 1012
무민사 357
무안발산마을미륵당산 289
무자귀 616, 623, 674
무주고혼 213, 279, 291, 292, 674, 738, 810, 829, 830, 831, 977
무주내창마을산제 293
무천 296, 404, 411, 630
무후제 291, 292, 296
문경성저리동제 296
문경소야리동제 299
문굿 53, 57, 58, 211, 385, 640, 860, 861, 862, 863, 880
문묘제 482
물고지 500
물목기 111, 177, 782, 783, 998
물생이당 826
물애밥 690
미륵당 301, 302, 303, 433, 434, 600, 602, 603, 673
미륵댕이 600
미륵데기 600
미륵불 71, 167, 168, 301, 302, 303, 602, 800, 801
미륵쟁이 523
미륵존불 800
민간성황제 492

ㅂ

바깥화장 322, 325, 912
바라춤 503, 504
박첨제 329
반기 306, 307, 308, 337, 339, 463, 466, 1017
반미 186, 391
밥구덩이 308, 309
밥꾸디 308
밥돌 308
밥무덤 233, 235, 308, 309, 310, 311, 312, 313, 397, 533, 537, 985
방사탑 788, 790, 793, 794, 798, 799, 816, 817
방산상조회 489, 490
방산정 489
방앗고지부군당 465
방역제 482
방풍림 661, 681, 696, 797, 818, 961
배고사 146, 210, 227, 257, 285, 314, 324, 459, 480, 494, 700, 902, 903, 1003, 1006
배서낭 314, 315, 324, 446, 867, 999
배충신제사 292
배치기 458, 998, 1004, 1005
백단 379
백록선자 487
백산 374, 943
백염 380
백일제 483
백중제 944, 945
백지 87, 114, 145, 157, 158, 181, 182, 186, 204, 313, 319, 347, 368, 384, 441, 443, 480, 494, 701, 769, 792, 811, 825, 877, 891, 945, 957, 985
뱃기 313, 314, 315, 458, 459, 480, 673, 847, 848, 985, 1001, 1002, 1003, 1008
뱅이 163, 220, 262, 263, 264, 265, 266, 315, 857
벅수 166, 315, 518, 519, 751, 757, 761, 946, 947, 948, 949
벅수제 315, 949
범굿 405, 877
법성포단오제 270, 632, 633, 634, 635
벽사 34, 116, 124, 135, 201, 234, 395, 404, 485
벽사진경 162, 756, 859
별려제 615, 624
별비 459, 676, 845
별제 248, 608, 815, 879, 955
볏가리 319, 320, 509, 846
볏가리제 318, 319, 320
볏가릿대 315, 316, 318, 319, 320, 321, 393, 675, 676, 877
병귀 228, 379
보령외연도당제 321, 324, 912
보령외연도전횡장군사당 321, 324
보름대 320
보부상 703, 704, 706, 707, 905, 918, 921, 922, 924, 925, 937
보성당촌별신당 326
보성당촌별신당제 326, 328
복개당 335, 474, 475, 476, 477, 478
복떡 306, 692
복락제 483
복성현 329
복토홈치기 679
본향거리 338
본향당신 802, 816, 956, 964, 965, 966
본향당신본풀이 964, 965
본향제 812
봉사자 381
봉암사지증대사탑비 497
봉죽기 332, 848
봉지밥 332
부군당 35, 36, 37, 38, 203,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461, 462, 464, 465, 466, 467, 469, 470, 471, 472, 473
부군사 332, 333
부군제 267, 482
부근당 35, 36, 288, 332, 333, 336, 465, 471
부당주 322
부산강선대당산 342
부산당리동제석할매당 346
부산대리당산 348
부산두호마을당제 351
부산수내리고당할미당 353
부산수영할매당 354
부산신선동산제당 · 아씨당 357
부산청사포당산 360
부스럼예방하기 517
부안돌모산당산제 363
부안동문안당산 366
부안서문안당산 369
부안우동리당산제 366
부안죽림리석장승 372
부여괴목마을노신제 375
부여내지리단잡기 377
부여포사마을산신제 380
부정거리 50, 283, 338, 496, 730
부정치기 448, 593, 618
부천깊은구지도당제 386
분축 220, 223, 338, 625, 720, 763, 797
분축례 490, 942, 943
분향례 24, 490, 503
불놀이 258, 331, 734
불막이굿 388, 971
불막이제 388, 390, 971, 972, 973
불밝이쌀 223, 278, 390, 391, 393, 887, 916, 1003, 1005, 1010
불백기 127, 134, 376, 390, 391, 393, 887, 890
불백이쌀 390
불신제 482
불액막이제 388
불제 388, 971
불함문화론 332
비보 74, 75, 77, 81, 151, 235, 393, 394, 505, 596, 757, 770, 916, 918
비보풍수설 518
뻐매달기 395

ㅅ

사당 22, 23, 24, 25, 37, 60, 61, 62, 65, 91, 117, 150, 180, 195, 245, 267, 323, 324, 325, 326, 346, 400, 616, 617, 642, 647, 648, 663, 664, 695, 772, 822, 825, 828, 831, 851, 855, 879, 895, 912, 933, 950, 979, 989, 990, 991, 992, 993, 996
사도세자 89, 400, 401, 686, 712
사령 24, 377, 379, 712
사묘 333, 492, 665, 855, 856
사신 23, 39, 94, 198, 220, 294, 295, 327, 331, 338, 447, 664, 685, 770, 771, 927, 1015
사신당 39, 663
사신례 223, 382, 490, 503, 625, 940
사악신 409
사원제 482
사직신 288, 329
사직제 492
사천가산리석장승 401
산고 35, 114, 117, 120, 133, 181, 329, 768, 863
산막 224, 403, 697, 980
산메 285, 811, 832, 833
산신 22, 30, 31, 40, 43, 44, 64, 65, 97, 103, 104, 119, 121, 137, 158, 159, 174, 176, 177, 194, 195, 210, 213, 222, 223, 226, 259, 267, 268, 276, 277, 278, 279, 299, 300, 310, 321, 323, 341, 348, 353, 354, 360, 380, 381, 383, 387, 391,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30, 441, 443, 444, 445, 446, 454, 455, 462,

473, 475, 479, 482, 494, 500, 523,
592, 616, 617, 652, 654, 665, 666,
669, 688, 690, 698, 699, 701, 704,
705, 706, 718, 721, 722, 727, 739,
740, 741, 743, 757, 834, 835, 837,
842, 845, 846, 855, 856, 891, 899,
901, 902, 926, 936, 939, 947, 949,
965, 969, 981, 982, 983, 988, 989,
990, 993, 994, 999, 1000, 1006,
1008, 1009
산신각 노나매기 160, 306
산신대감님 522
산악신앙 69, 409
산양제 483
산제당 40, 93, 94, 95, 96, 97, 98, 99, 102,
103, 104, 106, 115, 118, 119, 159,
179, 203, 204, 219, 222, 223, 224,
234, 235, 239, 293, 294, 295, 300,
301, 308, 322, 323, 324, 325, 358,
359, 360, 380, 381, 382, 397, 406,
407, 408, 454, 455, 467, 468, 494,
643, 665, 666, 667, 668, 669, 686,
688, 697, 699, 700, 720, 733, 835,
836, 837, 847, 892, 912, 947, 989,
993, 1007, 1008, 1009, 1010, 1011
산제미 725
산천단 966, 968, 969
산천신 144, 284, 447, 492, 855, 899, 969
산향계 93, 94, 95, 96, 97, 102, 103, 104,
105, 106
삼국지위서동이전 410
삼단일묘제 492
삼불제석 119, 267, 268, 284, 461, 462, 465,
469, 470, 471, 475, 476, 477, 478
삼산오악 855
삼색기 314
삼색실과 94, 107, 113, 127, 131, 133, 138,
157, 162, 176, 177, 181, 182, 184,
186, 223, 226, 261, 303, 319, 323,
325, 365, 376, 377, 380, 388, 410,
458, 473, 480, 632, 636, 666, 677,
724, 760, 850, 853, 890, 896, 993,
1000, 1008
삼성신화 237, 414
삼성혈 237, 411, 413, 414, 415
삼성혈제 415
삼신산 409
삼신위 804, 959
삼신제 483
삼신제왕할매제 359
삼실과 75, 76, 77, 79, 218, 228, 243, 251,
254, 256, 298, 431, 434, 449, 610,
661, 670, 671, 673, 720, 726, 747,
775, 924, 940, 979
삼일금기 724
삼척신남마을해신제 420
삼척한두골용소 427
삼척호산리서낭제 429
삼칠일 135, 384
삼헌 169, 987
삼헌육각 338, 457, 618
상강선대 342, 343, 344
상고배 367
상귀본향당 801
상당제 109, 169, 224, 457, 620, 680, 739,
897, 912, 983, 1000, 1001, 1002,
1006
상량문 41, 156, 172, 326, 328, 355, 430,
461, 473, 719, 744, 836, 849, 950,
973, 990, 993, 996
상산마누라 500
상산시루미 390, 891
상산제 391, 891, 892
상원주장군 366, 370, 374
상주천봉산성황제 433, 434
새옹메 159, 246, 247, 248, 284, 300, 391,
423, 449, 469, 612
샘굿 53, 57, 58, 163, 211, 371, 435,
436, 437, 438, 459, 507, 639, 645,
646, 647, 683, 779, 860, 861, 862,
863, 872
샘물대기 974
샘제 237, 435, 436, 437, 438, 457, 479,
480, 646, 750, 846, 897, 994, 1009
생떡국 440
생명수 599, 645, 779
생목신대 533, 535, 537
생미 322, 376, 390, 717
서낭계 239, 240, 592, 593, 611
서낭고사 147, 245, 611, 612, 613, 984, 985,
986
서낭기 57, 137, 186, 202, 314, 534, 535,
862
서낭당 29, 30, 111, 118, 119, 120, 121,
122, 147, 169, 204, 233, 238, 242,
243, 244, 250, 253, 254, 255, 257,
263, 277, 394, 404, 406, 409, 433,
440, 441, 443, 444, 445, 447, 448,
449, 450, 533, 534, 535, 537, 593,
598, 599, 610, 611, 612, 613, 663,
669, 670, 673, 674, 675, 700, 701,
705, 715, 757, 835, 836, 837, 840,
877, 884, 885, 916, 918, 935
서낭대 84, 87, 88, 146, 188, 189, 190,
202, 239, 433, 445, 508, 532, 533,
534, 535, 592, 718, 786, 839, 840,
841, 842
서낭댕이 421, 1009
서낭목 450, 535, 537, 610, 611, 716, 836
서낭신 147, 204, 231, 238, 267, 276, 277,
313, 406, 432, 443, 444, 445, 446,
450, 458, 479, 480, 527, 534, 592,
595, 597, 598, 599, 610, 670, 673,
675, 932, 937
서낭제 25, 28, 82, 137, 147, 148, 212,
239, 241, 242, 243, 244, 249, 250,
252, 253, 254, 255, 256, 257, 267,
420, 429, 430, 431, 433, 444, 446,
447, 448, 449, 450, 491, 597, 611,
615, 649, 669, 670, 673, 674, 675,
677, 739, 837, 839, 840, 841, 842,
845, 854, 897, 964, 984, 988
서산옥녀제 451
서산차리산제 454
서산창리영신제 456
서울가양동성황제 459
서울당인동부군당제 461, 462
서울동빙고동부군당제 464
서울부암동산신제 467
서울서빙고동부군당 470
서울서빙고동부군당제 469, 470
서울신기리도당제 473
서울신수동복개당화분 474
서천마량리당제 478
석마 69, 70, 277, 881, 882
석신제 483
석장승 166, 167, 183, 214, 215, 290, 366,
367, 369, 370, 372, 373, 374, 375,
396, 401, 402, 403, 426, 519, 631,
723, 754, 757, 761, 762
석전 443, 905
석전 · 기우 · 안택 87, 183, 481, 482, 1012
석척기우 144, 484, 908
선도산할머니바위 895, 896
선도산할아버지바위 895, 896
선돌 43, 46, 47, 106, 110, 116, 150,
151, 215, 234, 261, 302, 485, 486,
511, 632, 757, 836, 844, 847, 896,
897, 898
선돌목 502
선돌제 844, 854, 897
선마고 487
선목제 276
선문대할망 486
선주기 314
선질꾼 703, 704, 705, 706, 924
설문대할망 213, 274, 486, 487, 827
성공제 482, 483
성모천왕 855, 856
성제묘 36, 487, 488, 489, 490
성제묘관우제사 489
성조제 483
성주굿 53, 57, 58, 182, 392, 466, 640, 860,
861, 862
성주산 386, 387
성주신당 354, 355, 356
성주제 353, 483
성주풀이 449, 862, 863

성줏대 238, 463
성줏상 463
성혈 702
성황단 83, 84, 114, 115, 447, 615, 622
성황당 26, 37, 40, 63, 82, 83, 84, 149, 150, 195, 254, 300, 301, 404, 420, 421, 422, 429, 430, 431, 434, 446, 459, 460, 461, 491, 494, 507, 511, 524, 530, 597, 599, 641, 650, 697, 698, 699, 700, 703, 705, 706, 707, 715, 729, 823, 924, 925, 1013
성황당축 905, 907
성황대 150, 300, 301
성황대신사적 526, 528, 529
성황산 366, 367, 371, 906
성황신 26, 82, 84, 231, 254, 277, 299, 300, 301, 341, 420, 429, 430, 432, 434, 446, 447, 460, 491, 492, 494, 524, 526, 527, 528, 529, 530, 533, 535, 537, 610, 613, 615, 616, 623, 624, 648, 649, 650, 664, 665, 704, 705, 715, 716, 718, 729, 899
성황제 40, 82, 83, 84, 115, 150, 212, 217, 231, 250, 253, 300, 301, 367, 371, 422, 432, 433, 434, 435, 459, 460, 461, 483, 491, 492, 494, 528, 529, 530, 649, 650, 658, 659, 899, 902, 905, 906, 907, 1015
성황지신 29, 86, 242, 244, 250, 253, 255, 256, 257, 449, 492, 610, 611, 612, 674, 718
세경돌기 391
세습무 42, 58, 522, 632, 633, 634
세조대왕 474, 475, 476, 477, 478
세존 352, 353, 483
세존제 361, 483
소금단지 195, 197, 200, 234, 390, 495, 496, 973
소금무지산 195, 390, 495, 496
소금항아리 390
소당제석 391
소도 189, 205, 206, 411, 497, 505, 508, 509, 751, 878
소산제 323, 325
소저아지씨신위 322, 325
속곳 228, 229, 262, 263, 264, 265, 266, 775, 776, 913
속곳춤 775
손돌공진혼제 501, 503
손돌제 501, 503, 504
손돌추위 501, 502, 504, 505
손진태 340, 405, 445, 508, 673, 751
솟대 43, 47, 68, 110, 111, 112, 118, 166, 184, 188, 189, 210, 212, 224, 234, 259, 315, 359, 369, 394, 406, 443, 447, 495, 497,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9, 532, 533, 535, 537, 676, 677, 757, 882, 886, 890, 898, 918, 973
솟대당산 363, 366, 367, 369, 370, 371
솟대제 506, 508, 511, 677
솟대형 석주신간 363
송대장군가 512, 683
송신의례 530
송씨처녀 334, 335
송씨할매당 354
송이놀이 288
송징장군 511, 512
송천달집태우기 513, 514, 516
송침 135, 611
쇠말 118, 119, 220, 277, 300, 408, 457, 847, 881, 882, 934
쇠뼈 312, 313, 395, 396, 397, 494, 690, 756, 843
쉿소리 내기 775
수구막이 71, 73, 485, 517, 518, 519
수구매기 517
수구맥이 110, 267, 293, 298, 394, 517, 518, 519, 593, 595, 985
수구메기 517
수구멕이 517
수구신 482, 517
수구신제 482
수군첨절제사 478
수륙재 279, 291, 292, 401, 622
수부신 147, 277, 424, 432, 987
수살대 506, 508, 509, 535
수살대감님 506
수살맞이 517, 519
수성당 41, 42, 43, 274
수신제 91, 92, 237, 261, 482, 677
수영고당 354, 356
수영성내수호신당 354, 355
수영성내수호신지신위 355
수원영동거북산당 520
수줄 81, 152, 153, 208, 211, 286, 287, 288, 905
수지밥 284, 285
수호간 482
수호제 183, 482
수화상극 973
수확제 296
순창산동리남근석 523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5248
순창성황제 528, 529
순창창덕리남근석 530
순천구산용수제 531, 532
시렁 145, 146, 147, 151, 203, 326, 327, 328
시루떡 161, 181, 237, 248, 267, 268, 269, 277, 280, 285, 306, 321, 352, 358, 368, 391, 466, 507, 519, 520, 602, 732, 773, 775, 813, 823, 825, 853, 887, 1003
시루미 390, 891
시석제 350
시장제 482
신간 188, 189, 202, 238, 314, 363, 506, 509, 510, 532
신단수 118, 188, 204, 205, 403, 406, 450, 534, 716
신대 32, 163, 188, 201, 242, 300, 301, 313, 532, 533, 534, 535, 537, 635, 636, 637, 689, 863
신대잡이 636, 637
신목제 917
신벌 27, 28, 99, 202, 213, 439, 537, 695, 746, 857, 858, 988, 1007
신사 25, 35, 38, 47, 59, 63, 68, 84, 117, 120, 121, 122, 267, 327, 386, 465, 470, 482, 511, 698, 699, 823, 850, 856, 932
신석 85, 90, 353, 745
신수 118, 119, 145, 146, 169, 204, 404, 421, 445, 922, 1008
신수동복개당 474, 475
신인합일사상 409
신장대감창부 338
신정동 대동당 335
신주 49, 201, 204, 230, 241, 322, 400, 500
신주각 959
신증동국여지승람 26, 59, 91, 107, 117, 120, 130, 134, 286, 427, 446, 447, 459, 527, 528, 608, 644, 648, 664, 665, 694, 715, 761, 790, 850, 855, 908, 925, 933, 935
신체 32, 43, 44, 74, 82, 85, 93, 113, 116, 118, 145, 146, 147, 150, 151, 158, 173, 201, 202, 204, 205, 207, 211, 227, 230, 231, 237, 285, 286, 287, 288, 289, 290, 300, 314, 315, 342, 347, 348, 353, 354, 363, 366, 367, 369, 371, 372, 374, 375, 379, 393, 404, 433, 443, 445, 450, 495, 506, 507, 509, 510, 511, 534, 592, 595, 596, 597, 635, 636, 672, 678, 685, 691, 692, 700, 718, 744, 745, 761, 762, 763, 764, 784, 785, 786, 836, 867, 873, 881, 965, 969, 970, 971, 974, 1014
심청굿 392
쌀주부 845

아카마쓰 지조 38, 283, 603
아키바 다카시 38, 283, 319, 341, 603
아헌 86, 94, 99, 157, 185, 198, 246, 248, 254, 290, 311, 327, 452, 461, 464, 469, 610, 633, 639, 647, 661, 685, 700, 717, 748, 763, 786, 830, 832, 853, 896, 898, 979
아헌례 138, 410, 420, 490, 503, 625, 670, 792, 797, 804, 807, 814, 816, 833, 887, 898, 924, 940, 969
안동가송리동제 592
안동서지리성황당 596
안동하회동동제 597
안성아롱개마을미륵댕이 600
안의현 334, 335, 337, 338
안택 87, 183, 481, 482, 483
안택제 483
안화장 322, 325, 912
암줄 81, 152, 153, 208, 211, 286, 287, 288, 905
애기씨 42, 233, 315, 410
액막이 49, 51, 52, 53, 235, 262, 263, 264, 265, 266, 267, 270, 315, 388, 390, 505, 507, 514, 515, 517, 535, 604, 633, 675, 676, 679, 776, 786, 860, 871, 971, 974, 1004
액매기 605, 607, 608, 891
액맥잇대 509
야제 311, 312
양양동해신묘지 608
양양임천리서낭제 610
양양죽정자리서낭제 611
어뎅이 676
어사암 352, 353
어염시초 371
여귀 615, 616, 621, 622, 623, 624, 656, 738
여수영당지 616
여수화산마을당제 618
여역신 26, 245, 246, 248, 249, 251, 252, 613, 615, 616
여역지신 29, 245, 246, 247, 248, 249, 250, 253, 255, 256, 257, 447, 610, 611, 612, 674, 675
여우 48, 387
여제 101, 291, 492, 615, 616, 621, 622, 623, 624, 638, 641, 674, 738, 856, 968
여제등록 623, 624
연기원수산산신제문서 624
연기학봉마을기고사 627
연려실기술 333, 334, 335, 336
연암 박지원 337
연암집 333, 334, 335, 337
열두대신할머니 522
염하 502
영고 296, 411, 493, 629, 630, 631
영광도동리석장승 631
영광법성포단오제 632
영광안마도당제 635
영광우평마을당산제 638
영당풍어굿 616, 617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642
영산제 483
영암남해당지 644
영암정동정호제 645
영월영모전 647
영주읍내리성황제 649, 656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 656
영천자천리오리장림 660
영험담 199, 212, 213, 214, 244, 254, 301, 327, 344, 421, 465, 661, 662, 663, 695, 746, 770, 988
예산대흥소도독사 663
예산운산2리산신제 665
예천작평마을서낭제 669
오리 43, 79, 108, 110, 184, 258, 294, 315, 353, 363, 366, 367, 369, 370, 495, 505, 506, 507, 510, 519, 531, 532, 535, 676, 677, 858, 886
오리장림 660, 661
오메기 418
오메기떡 269, 418
오방기 269, 458, 468, 469, 887
오방돌리기 208, 275, 670
오방신 437, 469, 666, 671, 673, 761
오방신장 275, 468, 885, 886, 890, 995
오방장군 437, 671, 672, 673
오방제 665, 667, 668, 669, 671, 672, 673, 994, 995, 996
오보 443, 445, 673, 918
오색천 137, 443, 673, 761, 867
오신의례 530
오악산 311, 409
오온신제 673, 674, 675
오장치 675
오쟁이 319, 320, 352, 353, 375, 376, 377, 603, 621, 675, 676, 742, 762, 763, 869, 870, 871, 985
오주연문장전산고 35, 117, 120, 333, 404, 405, 443, 465, 470, 471
오줌동이 379
오지봉 320
옥천청마리제신탑 676
옥황상제님 522
와우산 360, 386, 387, 463
완도어두마을갯제 677
완도예송리당산 680
완도장좌리당제 681
완주고당리고당 686
왼새끼줄 84, 375, 376, 396, 632
용계리 40, 374
용기 137, 162, 186, 202, 203, 1009, 1010, 1011
용날 261, 390
용마 45, 46, 286, 827
용소 40, 134, 141, 142, 393, 427, 428, 429, 688, 908
용수동당산 688
용신 22, 24, 144, 232, 267, 268, 269, 369, 435, 446, 482, 484, 645, 729, 808, 812, 826, 829, 856, 857, 902, 903, 908, 960, 973, 974
용신제 22, 23, 241, 483, 677, 689, 732, 805, 807, 808, 812, 826, 960, 1009
용왕굿 42, 43, 269, 392, 393, 435, 449, 617, 621, 633, 634, 1015
용왕밥 480, 985, 986
용왕제 44, 147, 202, 224, 323, 352, 353, 359, 431, 435, 437, 479, 482, 506, 633, 677, 689, 690, 824, 845, 912, 949, 984, 1004, 1009, 1015
용인상하동할미지석제 691
용줄 127, 141, 369, 749
우마소지 224, 498, 593, 741, 749, 840
우물굿 58, 107, 435, 436, 437, 438, 779, 860, 862
우물신 357
우물제 357, 482, 506, 645, 646, 693
우불산신사 693, 694, 695
우실 696, 697
우진각지붕 358, 806, 959
운돌 868
운조루 395, 396
울릉해신제 697
울주방기리알바위 701
울진12령새재성황사 703, 921
울진개바우마을동제문서 707
원귀 291, 622, 712, 739
원주강원감영제 712, 713
원주강원감영지 713
원주원성성남리성황림 715
원혼 27, 91, 123, 149, 150, 156, 213, 421, 501, 505, 615, 624, 712, 735, 775, 955, 956, 1014, 1015
월악산신제 716
위령제 297, 298, 299
위서 139, 206, 237, 238, 404, 410, 411, 497, 630, 878, 1016
위토 237, 419, 435, 718, 894
유가돌기 150, 338, 466, 718, 859
유감주술 27, 127, 140, 208, 211, 218, 264, 319, 702, 731, 822, 913, 1012
유득공 318
유양잡조 484

유지지 316, 320
유천동산신제 718, 719
은산별신제 202, 203, 268, 269, 391, 534, 537, 712, 722, 754, 787
음복례 24, 247, 249, 254, 295, 382, 490, 503, 625, 804, 807, 887, 924, 927, 940, 942, 969
음부경 480
음사 25, 117, 336, 434, 447, 465, 470, 471, 492, 513, 529, 648, 657, 878
음성마송리석장승 723
읍치 131, 433, 434, 445, 446, 459, 479, 491, 649, 650, 656, 659, 899
읍치성황제 433, 446, 459, 460, 492, 648
이능화 36, 37, 333, 341, 445, 603, 869
이사제 292, 327, 328, 329, 331, 446, 724, 816, 832, 955
이성계 37, 68, 142, 334, 403, 469, 470, 471, 472, 473, 695, 835, 950
이순신 장군 616, 643, 947
이천정개산산신제 724
이포신 954
이포제 955, 956
인구전 632, 727
일곱칠성님 522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727
일산동당제 729, 732
일월칠성 478
임경업 장군 213, 324, 334, 457, 686, 884, 997, 998, 1005
임사 280
임실구암리도깨비제 732
임실사곡리남근석 733
임억령 512, 513, 683
임원록 656, 658, 659
입도조 88, 677, 678, 696
입산행사순번록 391
입석 33, 34, 46, 70, 79, 115, 150, 156, 210, 289, 290, 297, 303, 404, 443, 485, 486, 613, 631, 632, 734, 744, 746, 749, 751, 844
입향시조 84, 87, 445, 734, 735

ㅈ

잠실동 부군당 335
잡귀 31, 46, 48, 49, 50, 94, 124, 135, 169, 177, 201, 202, 231, 235, 244, 261, 267, 268, 275, 276, 277, 294, 312, 351, 365, 384, 393, 395, 396, 404, 424, 425, 437, 457, 507, 516, 594, 641, 649, 673, 685, 695, 696, 738, 739, 757, 798, 799, 807, 836, 840, 843, 846, 854, 862, 871, 877, 887, 945, 982, 984, 1013
잡귀잡신 51, 145, 185, 210, 291, 292, 309, 312, 313, 344, 352, 353, 354, 359, 395, 396, 397, 431, 449, 507, 535, 593, 680, 738, 739, 757, 775, 862, 981, 982, 983, 985, 986, 987, 1003, 1004
잡색 55, 57, 58, 632, 639, 640, 641, 860, 861
잡신 44, 145, 212, 252, 350, 633, 634, 670, 738, 739, 873, 976, 977, 978, 1015
장군놀이 872, 873
장동산디마을탑제 740
장목 187, 188, 202, 316, 534, 627
장산마고당 · 천제당 743
장생탑비 518
장생표탑 754, 756, 916
장성생촌마을당산제 746
장성영천리방울샘 749
장수굿 392
장승 34, 43, 107, 108, 109, 111, 112, 118, 119, 150, 166, 167, 182, 183, 184, 185, 206, 210, 212, 214, 215, 224, 226, 227, 234, 236, 237, 259, 263, 275, 276, 289, 290, 303, 315, 351, 367, 370, 372, 374, 387, 394, 401, 406, 447, 457, 459, 479, 481, 505, 506, 507, 508, 511, 518, 535, 631, 632, 673, 676, 677, 723, 724, 729, 733, 750, 754, 756, 757, 761, 762, 763, 846, 873, 885, 886, 890, 895, 896, 897, 898, 918, 946, 961, 1008
장승배기 108, 183, 184, 760, 761
장승제 40, 106, 107, 109, 110, 111, 112, 183, 184, 185, 189, 203, 211, 258, 275, 313, 390, 396, 403, 408, 437, 456, 457, 459, 479, 481, 506, 673, 677, 724, 754, 756, 760, 761, 785, 824, 846, 854, 873, 890, 895, 896, 897, 917, 945, 1008
장시 112, 885, 901, 902, 920, 921, 924, 925, 1006
장흥방촌리석장승 761, 763
장흥호계리동계문서 764, 765, 766
장흥호계리별신제 764, 767
재수떡 896
잰부닥불 517
전웅대감 326
전작 254, 281, 418, 720, 791, 802, 805, 851, 956, 968
전횡장군 770
전횡장군놀던바위 322, 323, 324, 771
전횡장군사당 322, 323, 324, 325, 494, 912
정읍백암리남근석 772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773
정읍원정마을당산제 776
정주제 482
정지굿 640, 641, 863
정화 31, 34, 94, 136, 137, 145, 146, 148, 216, 246, 339, 368, 385, 393, 435, 482, 496, 497, 498, 500, 516, 532, 778, 779, 780, 781, 784, 833, 903, 982, 986, 1000, 1012
제문 143, 343, 410, 500, 598, 730, 899, 919, 956
제물준비방 346, 347
제미 391, 803, 807
제비 44, 84, 109, 151, 157, 159, 184, 226, 237, 254, 303, 306, 329, 364, 388, 419, 424, 429, 449, 450, 452, 460, 462, 464, 467, 468, 489, 493, 522, 592, 636, 639, 666, 669, 677, 679, 683, 699, 705, 720, 743, 760, 791, 795, 803, 810, 812, 813, 815, 821, 823, 829, 845, 851, 863, 905, 906, 908, 1000, 1004, 1009
제석신 391, 483, 821
제석제 483, 820, 821
제수물목 186, 429, 905, 907
제수물목기 781
제수진설도 905, 907
제신 82, 87, 217, 313, 341, 477, 483, 955, 956
제액 53, 64, 133, 135, 181, 211, 275, 379, 637, 675, 739, 773, 863, 867
제액제 482, 483
제액초복 124, 259, 266, 390, 435, 446, 447, 519, 599, 741, 760, 885, 891, 981
제용기물 905, 907
제웅 269, 270, 275, 603, 676, 784, 785, 786
제웅치기 676, 784
제전 178, 180, 385, 413, 419, 427
제주골왓마을방사탑 788
제주납읍리마을제 790
제주납읍리포제단 792
제주몰래물마을방사탑 793
제주무릉2리평지동포제 794
제주무릉리방사탑 797
제주복신미륵 800
제주상귀리당제 801
제주성읍리포제 802
제주쇠당의례 804
제주신촌리포제 805
제주신흥리방사탑 808
제주신흥리포제 810
제주어음리비멘이당제 812
제주온평리포제 814
제주용수마을방사탑 816
제주인성리거욱대 817
제주제석제 820
제주제충제 821
제주최영장군사당 822

제주추자도천제 · 장군제 823
제주풍해방지의례 826
제주해신사 828
제주해신제 828
제주행원리포제 832
제주회천동석불제 834
제천면산산신제 835
제천오티별신제 839
제천의례 237, 296, 408, 409, 411, 509, 878
제천입석리선돌 844
제청 791, 792, 795, 797, 802, 803, 804, 806, 810, 811, 813, 814, 823, 832, 833, 834, 867, 956, 957, 958, 959, 960
제충의례 821
제토 727
제향비 791, 795, 803, 807, 815, 956
조간 505, 506, 510
조라 111, 112, 455, 495, 787, 845, 988, 989
조라미 390, 891
조라술 410, 511, 692, 725, 726, 787, 836, 837, 988
조무 338, 339
조상신 86, 139, 140, 268, 291, 406, 443, 772, 987, 1017
조선무속고 445, 869
조선의 귀신 291, 481, 728, 729, 738
조선의 향토오락 87, 605, 885, 886
조선지지자료 28, 242, 386, 387
조선총독부 25, 87, 340, 481, 728, 934
조왕굿 53, 57, 58, 182, 211, 860, 861, 862
조왕제 483
종헌 86, 94, 99, 157, 185, 198, 199, 246, 254, 290, 311, 327, 331, 425, 434, 452, 461, 464, 469, 610, 633, 639, 647, 649, 661, 700, 717, 748, 763, 786, 830, 832, 851, 853, 896, 898, 979, 988
종헌례 138, 410, 420, 490, 503, 625, 670, 792, 797, 804, 807, 814, 816, 833, 887, 924, 940, 969
주당물림 338, 604
주부 206, 264, 353, 440, 483, 811, 813, 833, 845, 846
주산돌기 275
주저리 316, 846, 847, 848
주제권 491, 492
죽령산신 194, 195, 848, 849, 850
죽령산신당 194, 195, 848, 849, 850, 851
죽령산신제 194, 195, 848, 849, 850, 851, 852
죽령산신제문서 848, 851, 852
줄다리기 34, 71, 72, 75, 81, 87, 114, 128, 150, 151, 152, 153, 158, 205, 206, 207, 208, 210, 211, 275, 276, 285, 286, 287, 288, 290, 320, 364, 365, 366, 367, 368, 369, 372, 388, 482, 485, 521, 632, 634, 655, 689, 746, 749, 776, 884, 902, 903, 905, 972
중구제 975, 976, 977
중수기 47, 433, 474, 476, 650, 659, 704, 937, 996, 997
중시조 213, 625, 734
중양절 26, 707, 975
증평남차리수살제 852
지리산남악사 855
지모신 87, 88, 309
지문음 829, 831
지벌 856, 857, 858, 859
지신밟기 49, 52, 57, 58, 151, 182, 202, 211, 238, 356, 357, 390, 437, 438, 592, 646, 699, 701, 826, 859, 860, 861, 862, 863, 879, 949
지신제 483, 826
지신풀이 862, 879, 880, 881
지하대장군 111, 184, 214, 375, 508, 676, 677, 757
지하여장군 40, 87, 756, 757, 760, 896
진도수역마을충제 863
진도해창마을당제 865
진또배기 447, 510, 535
진메 161, 284
진법치기 593, 595
진산 217, 235, 286, 390, 404, 406, 409, 433, 491, 495, 496, 522, 633, 650, 652, 660, 697, 740, 879, 961, 969
진주명석자웅석 867
진치기 776, 778
진혼무 503, 504
진혼제 401, 501
짐대 77, 79, 81, 110, 184, 315, 367, 371, 396, 397, 447, 506, 507, 508, 509, 510, 531, 532, 535, 869
짐대백이 508, 510
짐대제 396, 397, 449, 506, 532, 677, 869
짐대할머니 363, 364
집돌이 53, 58, 859, 860
집성촌 29, 213, 220, 222, 329, 375, 625, 626, 638
짚말 375, 376, 377, 869, 870, 871
짚장군 871, 872, 873

大

참신 86, 198, 220, 278, 294, 338, 461, 700, 720, 876, 898, 924
참신례 223, 382, 490, 503, 625, 927, 940
창귀 876, 877
창부거리 338
창호지 187, 211, 264, 423, 437, 605, 607, 637, 762, 803, 829, 850, 872, 877, 976, 1015
천군 411, 497, 878
천금룩 919, 920, 924
천도재 291
천룡제 79, 748
천상제 878, 879
천수경 480
천신제 22, 47, 119, 300, 301, 467, 468, 469, 483, 630, 826, 832, 878, 969
천연두 49, 117, 262, 265, 277, 283, 603, 631, 762, 763, 869, 870
천왕메기 879, 880
천왕장군신상 358, 359
천왕제상 352, 353
천왕지신 926, 936
천인정 327, 328
천지왕본풀이 779
천하대장군 40, 87, 111, 184, 214, 374, 508, 676, 677, 754, 756, 757, 760, 896, 945
철륭굿 641
철마 122, 219, 253, 277, 635, 636, 881, 882, 948
철상 85, 153, 157, 162, 337, 338, 352, 359, 424, 431, 434, 629, 637, 652, 655, 700, 732, 769, 797, 837, 1011
철시부반 352
청난비 990, 992, 993
청단 379
청단일 882
청도비동당제 883
청사포 360, 362
청수 174, 175, 176, 177, 215, 261, 278, 376, 384, 449, 455, 456, 494, 760, 836, 837, 887, 907, 988, 1010
청양정산동화제 885
청양청소리산신제문서 891
청원루 367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 893, 894, 895
청정화 341
청주선도산장승제 895, 896
초군청 650, 654, 658, 659
초헌 86, 99, 157, 185, 198, 246, 254, 290, 311, 327, 331, 425, 434, 452, 461, 464, 469, 610, 613, 633, 639, 661, 670, 685, 717, 748, 786, 830, 832, 853, 896, 898, 979
초헌관 138, 144, 162, 195, 197, 198, 199, 248, 254, 255, 256, 258, 281, 330, 359, 364, 410, 415, 419, 424, 430, 431, 434, 448, 452, 503, 609, 613, 618, 625, 628, 629, 639, 647, 648, 649, 661, 713, 717, 760, 762, 769, 791, 792, 795, 797, 802, 805, 807, 811, 812, 813, 815, 816, 829, 831,

835, 851, 868, 887, 899, 940, 942,
956, 957, 968, 969, 983
초헌례 382, 410, 420, 490, 503, 625, 670,
700, 792, 797, 804, 807, 814, 816,
833, 887, 924, 940, 969
초혼 994
최남선 332, 341, 404, 509
최문일 325
최영 장군 59, 213, 268, 333, 334, 357, 360, 527,
616, 686, 822, 823, 825, 826, 950
최영장군사당 822, 823, 824, 825, 947, 950
최윤덕 장군 299, 300
최치원 497
추렴 30, 62, 75, 138, 141, 159, 162,
208, 211, 226, 306, 307, 322, 339,
367, 382, 385, 388, 410, 458, 460,
462, 463, 464, 467, 468, 479, 522,
666, 725, 775, 776, 851, 852, 885,
905, 906, 908
추악 117, 383
추육 329
추자도 822, 823, 824, 825, 826
축관 30, 49, 51, 75, 93, 94, 95, 96,
107, 110, 113, 114, 115, 159, 162,
169, 174, 177, 179, 180, 181, 182,
184, 215, 217, 223, 224, 225, 226,
242, 243, 246, 247, 248, 249, 256,
290, 297, 299, 300, 301, 330, 331,
358, 359, 364, 375, 376, 381, 382,
403, 410, 424, 430, 431, 452, 610,
612, 617, 625, 661, 667, 671, 691,
692, 700, 701, 717, 720, 721, 724,
725, 726, 727, 747, 748, 760, 762,
781, 786, 823, 836, 837, 840, 841,
843, 846, 853, 863, 868, 880, 884,
886, 890, 898, 924, 926, 983, 993,
1007, 1009, 1010
축귀색 1013
축원문 102, 104, 105, 605, 608, 891, 987
충제 863, 864, 899, 900, 901
충주목계별신제 901
충청수영 321, 478, 772
치성문 848, 851, 852
치성비요 460, 905, 907
치제 22, 26, 27, 28, 64, 65, 68, 120, 121,
133, 186, 209, 239, 321, 324, 342,
348, 377, 382, 432, 433, 434, 435,
446, 447, 449, 479, 489, 492, 504,
622, 624, 656, 664, 674, 855, 871,
968
칠성제 224, 225, 226, 482, 483, 811, 845
침호두 130, 140, 141, 144, 908

ㅋ

칼판고사 323, 912
큰안이 480, 985
키 135, 141, 846, 912, 913
키질 40, 913

ㅌ

탑신제 482, 507, 677
탑제 43, 148, 218, 234, 235, 239, 347,
511, 673, 740, 741, 742, 743, 846,
893, 894, 895, 897, 916, 917, 918
태단 379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문서 918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 921
태백산신 924, 925, 926, 927, 935, 936, 937
태백산천제 432, 925, 926, 927, 934
태백산천제단 925, 927, 932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938
태백황연동유령제 941
태수 37, 333, 525
태을보신경 480
탱화 159, 160, 294, 477, 521, 522, 617,
634
터주굿 53, 57, 58, 860, 861, 862
터줏가리 227, 230, 462, 520, 846, 847, 858,
943
테우리신 943, 944, 945
토단 379
토마 408, 881
토사(土祀) 483
토신지위 355, 791, 959
토주제 483
토지신 26, 40, 210, 245, 246, 248, 249,
251, 252, 427, 613, 648, 718, 762,
791, 793, 899, 954
토지지신 29, 86, 242,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3, 255, 256, 257,
355, 356, 449, 610, 611, 612, 613,
674, 715, 815, 899, 955
통북어 112, 134, 176, 376, 377, 507, 602,
692, 836, 853, 870, 887, 945
통영문화동벅수 945, 946
통영삼덕리마을제당 946, 947
통영최영장군사당 950
퇴구굿 739
퇴송 323, 324, 685, 943, 950, 984, 987

ㅍ

파시 42, 479, 632, 829
판굿 53, 55, 57, 152, 162, 209, 641, 739,
881
팔왕터 523, 530
팥단 379
편탕 440, 480, 954
편탕제 479, 480
평북병마절도사 395
평신 338
포신 790, 791, 792, 793, 810 ,811, 816,
954, 955, 956, 959, 969
포정루 714, 715
포제 241, 790, 791, 793, 795, 797, 800,
801, 802, 803, 805, 807, 808, 810,
811, 812, 814, 815, 816, 821, 827,
832, 833, 835, 900, 954, 955, 956,
957, 959, 960, 968
포제단 792, 793, 802, 815, 816, 832, 833,
958, 959, 960, 969
포제상회 791, 956
포제지신 954
포제향회 815
포항북송리북천수 961
표해록 487
풋굿 436, 440
풍단기 379
풍물굿 52, 53, 157, 224, 367, 436, 617,
618, 647, 673
풍신고 319, 320
풍신제 482, 483
풍어굿 26, 391, 449, 534, 617, 618, 689,
829
풍어제 28, 269, 314, 352, 353, 362, 617,
646, 677, 689, 701, 785, 823, 824,
826, 1004, 1005
풍운뇌우신 447, 492, 969
피막 210, 961, 980

ㅎ

하나씨 369, 370
하당신 109, 110, 226, 234, 916
하로산또 964, 965, 966
하마비 354
하산노기미 390, 891
하산시루미 390, 891
하산제 391, 891, 892
하씨할매당 358
하씨할매제 359, 360
하원금귀당장군 373, 374
하원당장군 366, 367, 374
한라산신 966, 969
한라산신선비 968
한라산신제 966, 968, 969
한성부 333, 623, 714
한양세시기 318

한장군 59, 60, 61, 62, 63, 64
할매당 351, 352, 353, 355, 356, 357, 358, 359, 362, 449
할미신 688
할배까꾸재 969, 970
할배당 351, 352, 358, 359, 449
함평수문리불막이제 971
항마진언 480
해남소죽마을중구제 974
해남평암마을도제 977
해동성적지 979, 980
해막 210, 322, 980, 981
해물리기 177, 185, 738, 742, 842, 871, 981, 982, 983
해산부정 383, 384
해원 27, 28, 124, 291, 292, 321, 772
해코지 254, 291, 638, 639, 650, 738, 981
햇대 320
행주형 235, 363, 371, 394, 505
향산제 482, 483
향청 413, 526
향촉대 720, 721
허백당집 925, 936
허수아비 269, 270, 690, 739, 760, 762, 763, 784, 785, 871, 983, 994, 1015
허재비 739, 785, 843, 872
헌성미 390, 391
헌식 157, 185, 280, 292, 295, 327, 352, 353, 365, 393, 424, 425, 429, , 620, 621, 634, 677, 678, 679, 680, 685, 690, 738, 748, 763, 864, 976, 984, 985, 986, 987, 1013, 1017
헌주 153, 220, 376, 490
헛배 270, 989
현몽 26, 27, 28, 65, 118, 195, 213, 277, 360, 433, 611, 635, 642, 643, 882, 935
현사 63, 334, 337, 338
현석동 대동당 335
현한수정후관우부군 487, 489
현혜숙인송씨 487, 489
혈석 650, 654
혈주재 974
호구전 113, 329, 636, 639, 727, 747
호구총수 106, 326, 329
호랑이 30, 40, 68, 70, 92, 97, 103, 118, 119, 123, 130, 131, 141, 144, 158, 159, 160, 201, 213, 224, 252, 262, 265, 277, 299, 358, 387, 395, 396, 403, 404, 405, 407, 408, 409, 410, 411, 457, 592, 617, 721, 877, 882, 908, 938, 939, 940, 941, 1009,1010
호산록 321, 771
호식총 876, 877
호탈굿 405, 877
호현 387
호환 40, 70, 93, 95, 194, 220, 233, 277, 405, 407, 457, 666, 754, 876, 877, 881, 882, 899
홀기 29, 30, 36, 198, 240, 241, 247, 249, 250, 252, 254, 281, 381, 382, 420, 488, 489, 490, 532, 610, 611, 624, 625, 670, 764, 766, 767, 769, 792, 802, 803, 804, 807, 814, 815, 816, 831, 833, 924, 940, 942, 943, 956, 957
홍가신 989, 990, 991, 992, 993, 994
홍가신사당 989, 990, 991, 992, 993
홍단 379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 989
홍성백월산홍가신제 991
홍성성호리제각창건기 994
홍성성호신당상량문 · 중수기 996
홍성수룡동당제 998
홍성옹암리당산제 1006
홍성장촌마을산신제 1009
화간 318, 319, 320
화간고 319
화기 109, 177, 233, 234, 388, 390, 495, 496, 531, 608, 818, 916, 971, 973, 974
화랭이 63, 275, 276, 464, 522, 739
화룡제 144, 1011, 1012
화산 77, 234, 390, 495, 496, 518, 973
화오고개 387
화오현산 386
화재막이 109, 228, 496, 891, 973, 1011
화재맥이 151, 388
화재뱅이 짐대 315
화적 318, 320, 509
화전천룡신제단 311
화주 38, 57, 71, 74, 75, 79, 102, 103, 111, 112, 113, 114, 133, 159, 160, 161, 174, 175, 177, 210, 211, 215, 226, 282, 287, 306, 326, 328, 329, 330, 331, 338, 410, 463, 466, 479, 480, 507, 509, 747, 748, 762, 763, 786, 787, 890, 995
화주당 36, 282, 283, 284
화툿불 94, 108, 177, 181, 223, 653, 654
활인적덕 379
황단 379
황육 380, 831
황토물림 384
황학대 352
횡수막이 타령 603, 604
흑룡강 344
흑산도진리당 1013
흙태우기 368
흠향 24, 31, 32, 40, 130, 133, 259, 261, 298, 306, 311, 312, 390, 393, 410, 424, 450, 495, 598, 599, 647, 726, 727, 871, 940, 985, 986, 987, 1005, 1006, 1015
희생물 94, 95, 111, 176, 181, 197, 201, 242, 255, 256, 301, 437, 610, 651, 654, 655, 700, 850, 853, 1017
희생제물 908, 1016, 1017, 1018

필자

강권용(康權用) _ 국립민속박물관

돌하르방 236

강성복(姜成福) _ 충남대학교

공주동해리산신제 92
공주동해리산향계문서 95
금산농바우끄시기 125
금산천내리용호석 131
논산반곡리산신제 173
논산부인당산제 178
논산양암동계문서 182
논산후동동계문서 185
대전무수동국사봉 219
대전무수동동계문서 220
대전무수동산신제 222
보령외연도당제 321
보령외연도전횡장군사당 324
부여포사마을산신제 380
불밝이쌀 390
액매기 605
연기원수산산신제문서 624
예산대흥소도독사 663
전횡장군 770
짚말 869
짚장군 871
청양정산동화제 885
청양청소리산신제문서 891

강소전(姜昭全) _ 제주대학교

제주골왓마을방사탑 788
제주납읍리포제단 792
제주몰래물마을방사탑 793
제주온평리포제 814
제주용수마을방사탑 816

강정식(姜晶植) _ 제주대학교

제주복신미륵 800
제주상귀리당제 801
제주신흥리포제 810
제주어음리비멘이당제 812
제주최영장군사당 822
제주해신사 828
제주행원리포제 832
제주회천동석불제 834
포신 954

고광민(高光敏) _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쇠당의례 804
제주제석제 820
제주제충제 821
제주풍해방지의례 826

권오경(權五慶) _ 부산외국어대학교

샘제 435

권태효(權泰孝) _ 국립민속박물관

마고할미 274
설문대할망 486

권혁희(權爀熙) _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727

김갑동(金甲童) _ 대전대학교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524
순창성황제 528

김경남(金京南) _ 한중대학교

선돌 485

김기설(金起卨) _ 강릉민속문화연구소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938

김기형(金基珩) _ 고려대학교

영험담 661

김도현(金道賢) _ 강원대학교

길지 145
삼척한두골용소 427
삼척호산리서낭제 429
울진12령새재성황사 703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문서 918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 921
태백산천제 925
태백산천제단 932
헌식 984

김동섭(金東燮) _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삼성혈 411
삼성혈제 415
제주무릉2리평지동포제 794
제주무릉리방사탑 797
제주성읍리포제 802
제주신촌리포제 805
제주신흥리방사탑 808
제주인성리거욱대 817
포제단 957

김명자(金明子) _ 안동대학교

국사당 116
대동회 215
산신당 405
서낭당 440
소금단지 495
안동서지리성황당 596

김상보(金尙寶) _ 대전보건대학

떡 266
제주(祭酒) 786

김선풍(金善豊) _ 중앙대학교

솟대제 508

김성식(金盛湜) _ 전북대학교

김제월촌입석 150

김승찬(金承璨) _ 부산대학교

부산두호마을당제 351
부산신선동산제당 · 아씨당 357
서낭제 446

김시덕(金時德)
_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단양두악산소금무지제 · 기우제 195
동제홀기 240

김열규(金烈圭) _ 서강대학교

당산나무 203

김용덕(金容德) _ 한양대학교

영고 629
천군 878

김월덕(金月德) _ 전북대학교

고창오거리당산제 74
고창임리마을짐대당산제 77
도깨비제 227
완주고당리고당 686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773
정읍원정마을당산제 776

김은희(金銀姬) _ 고려대학교

당산옷입히기 205
도당신 229

김재호(金在浩) _ 안동대학교

기우제 138

김종대(金宗大) _ 중앙대학교

메밀 285
임실구암리도깨비제 732

김준(金準) _ 전남발전연구원

띠배 269
뱃기 313
완도어두마을갯제 677
완도예송리당산 680
완도장좌리당제 681

김지욱(金志昱) _ 경기문화재단

남양주덕릉마을산신각 158
남양주팔현마을산신당 160
안성아롱개마을미륵댕이 600

김진순(金鎭順) _ 코리아루트

양양죽정자리서낭제 611
원주강원감영제 712
원주강원감영지 713
원주원성성남리성황림 715

김창일(金昌一) _ 국립민속박물관

김부대왕 149
남해물건리동제 168
산신 403
액 603

김창호(金昌鎬) _ 국립민속박물관

기고사 137
연기학봉마을기고사 627
제천면산산신제 835
해동성적지 979

김철웅(金澈雄) _ 단국대학교

천상제 878

김태수(金泰水) _ 삼척시립박물관

동해동호동천제단 244
동해동호동천제단제 247

김태우(金泰佑) _ 경희대학교

부군당 332
부군당제 336

김헌선(金憲宣) _ 경기대학교

부정 383
서울동빙고동부군당제 464
서울서빙고동부군당 469
서울서빙고동부군당제 470
소지 498
수구맥이 517
정화 778
희생제물 1016

김형근(金亨根) _ 경기대학교

매당왕신 282
무주고혼 291
잡귀 738

김효경(金孝慶) _ 한남대학교

강신 30
계룡산산신제 64
권전 122
돌탑 233
서산창리영신제 456
서천마량리당제 478
오온신제 673
장동산디마을탑제 740
주부 845
참신 876
헌작 987

김희태(金熹台) _ 전남도청

장흥방촌리석장승 761
장흥호계리동계문서 764

나경수(羅景洙) _ 전남대학교

걸립 51
고창사내리당산 70
고창오거리당산 71
송징장군 511
여제 621
인구전 727
장흥호계리별신제 767
진도수역마을충제 863
황토 1012

류종목(柳鍾穆) _ 동아대학교

금줄 135
부산당리동제석할매당 346
장승제 756

문무병(文武秉) _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납읍리마을제 790
제주추자도천제 · 장군제 823
제주해신제 828
포제 954
한라산신제 966

박경신(朴敬伸) _ 울산대학교

울주방기리알바위 701
일산동당제 729

박일영(朴日榮) _ 가톨릭대학교

부천깊은구지도당제 386

박종섭(朴鍾燮) _ 계명대학교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 46
거창당동당산 47
거창대동마을액막이제 49

박종익(朴鍾翼) _ 충남대학교

공주무성산산제당 97
주저리 846

박혜령(朴惠玲) _ 국립민속박물관

문경소야리동제 299

배도식(裵桃植) _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밥무덤 308
부산수영할매당 354
부산청사포당산 360
뼈매달기 395
신대 532
장승 750

백민영(白旻永) _ 국립민속박물관

입향시조 734
제주(祭主) 786

상기숙(尙基淑) _ 한서대학교

서산옥녀제 451

서영대(徐永大) _ 인하대학교

동맹 237
무천 296
삼국지위서동이전 410
소도 497

서종원(徐鍾源) _ 단국대학교

부안돌모산당산제 363
부안동문안당산 366
부안서문안당산 369
부안죽림리석장승 372
오쟁이 675
제웅 784

서해숙(徐海淑) _ 전북대학교

거리제 43
남원삼동굿 162
오방제 671
용왕제 689
우실 696
진도해창마을당제 865

송태갑(宋泰甲) _ 영암군청

영암남해당지 644

송화섭(宋華燮) _ 전주대학교

성황제 491
지리산남악사 855

시지은(施知恩) _ 경기대학교

걸립패 54
지신밟기 859

심상교(沈相敎) _ 부산교육대학교

금기 123

안상경(安相敬) _ 충북대학교

공주탄천장승제 106
음성마송리석장승 723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 893
청주선도산장승제 895

안혜경(安惠敬) _ 지역문화연구소

수원영동거북산당 520

양종승(梁鍾承) _ 국립민속박물관

닭 200
산신제 408
서울당인동부군당제 461
서울신수동복개당화분 474

염원희(廉元姬) _ 경희대학교

강화교동도자신당 39

오문선(吳文仙) _ 서울역사박물관

동제계 239
반기 306
서울가양동성황제 459
서울부암동산신제 467
죽령산신당 848
죽령산신제 849
죽령산신제문서 851
치성비요 905

오세길(吳世吉) _ 동의과학대학

부산강선대당산 342
부산대리당산 348

유병덕(柳炳德) _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공주상세동산신도 102
논산주곡리장승제 182

유승훈(柳承勳) _ 부산박물관

사천가산리석장승 401
통영문화동벅수 945
통영최영장군사당 950

윤동환(尹東煥) _ 고려대학교

목제남근 288
삼척신남마을해신제 420

이건욱(李健昱) _ 국립민속박물관

가야진용신제 22
원귀 712

이관호(李官浩) _ 국립민속박물관

서산차리산제 454
예산운산2리산신제 665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 989
홍성백월산홍가신제 991
홍성수룡동당제 998
홍성장촌마을산신제 1009

이균옥(李均玉) _ 안동대학교

논공천왕당 172
용수동당산 688
천왕메기 879

이기태(李淇泰) _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산자인단오제 59
공하 110
동사 238
문경성저리동제 296
생기복덕 438
영주읍내리성황제 649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 656
예천작평마을서낭제 669
울릉해신제 697
울진개바우마을동제문서 707
제수물목기 781
청도비동당제 883

이명진(李明珍) _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천동산신제 718

이세나(李세나) _ 안산시청

철마 881

이영금(李永金) _ 전북대학교

개양할미 41
망제 279
영광법성포단오제 632
해남소죽마을중구제 974
해남평암마을도제 977
흑산도진리당 1013

이영배(李永培) _ 안동대학교

보성당촌별신당제 328
순창산동리남근석 523
순창창덕리남근석 530
임실사곡리남근석 733
정읍백암리남근석 772

이영식(李英植) _ 강릉원주대학교

골맥이 84
망지 281
솟대 505

이옥희(李玉姬) _ 목포대학교

남원서천리당산 166
보성당촌별신당 326
장성영천리방울샘 749
충제 899

이용범(李龍範) _ 전북대학교

광주엄미리장승제 111
여귀 615

이용석(李容碩)
_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무주내창마을산제 293

이욱(李煜)
_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여제등록 623

이유나(李泑娜) _ 국립민속박물관

위패 718
제관 781

이윤선(李允先) _ 목포대학교

동화대 257
영광도동리석장승 631
영광안마도당제 635
영광우평마을당산제 638

이인화(李仁和) _ 공주교육대학교

동답 237
둑제당 260
미륵당 301
백지 313
볏가리제 318
오색천 673
창호지 877
통북어 945

이정재(李丁宰) _ 경희대학교

다자구할머니 194
사도세자 400

이창식(李昌植) _ 세명대학교

개 40
괴산문당리성황단 114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642
옥천청마리제신탑 676
월악산신제 716
제천입석리선돌 844
증평남차리수살제 852
충주목계별신제 901

이필영(李弼泳) _ 한남대학교

국사당제 119
당기 201
돼지 259
디딜방아뱅이 264
마을돌기 275
마중시루 278
뱅이 315
소 493
제천오티별신제 839
지벌 856
칼판고사 912
탑제 916
해막 980
해물리기 981
헌관 983

이한길(李漢吉) _ 강릉원주대학교

강 25
강릉행깨마을고청제 28
고청제 81
동해대진동도신제 · 재고사 242
동해봉정마을고청제 250
동해신흥동도서낭제 252
동해어달동서낭제 · 해성제 255

디딜방아 261
마련방 274
양양동해신묘지 608
양양임천리서낭제 610
키 912
태백황연동유령제 941
하기 964

이해준(李海濬) _ 공주대학교

공주고마나루웅진단 91
공주부전대동계문서 99
공주세동리산향계문서 104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130
금산청징연기우제당 133
홍성성호리제각창건기 994
홍성성호신당상량문 · 중수기 996

임승범(林承範) _ 문화재청

대덕법동리석장승 214
대전외삼동산신제 224
볏가릿대 315
불막이제 388

임장혁(任章赫) _ 중앙대학교

축문 898

장장식(張長植) _ 국립민속박물관

부여괴목마을노신제 375
성제묘 487
성제묘관우제사 489

손돌제 501

장정룡(張正龍) _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안인진해령사 25

정상박(鄭尙朴) _ 동아대학교

남해가천암수바위 167
진주명석자웅석 867

정연학(鄭然鶴) _ 국립민속박물관

강화교동도부군당제 34
함평수문리불막이제 971

조선영(曺善映) _ 국립민속박물관

당신화 212

조정현(曺鼎鉉) _ 안동대학교

골맥이제 86
공민왕 88
안동하회동동제 597
포항북송리북천수 961

주영하(周永河) _ 한국학중앙연구원

메 284
생떡국 440

천진기(千鎭基) _ 국립민속박물관

거창거기리말무덤 45
고성석마리석마 69
마제 276
창귀 876
통영삼덕리마을제당 946

천혜숙(千惠淑) _ 안동대학교

도가 226
모포줄 285
영천자천리오리장림 660

최석영(崔錫榮) _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부락제 340
석전 · 기우 · 안택 481

최종성(崔鍾成) _ 서울대학교

기우제등록 143
석척기우 484
침호두 908
화룡제 1011

표인주(表仁柱) _ 전남대학교

강진사문안석조상 32
곡성옥과성황당목조신상 82
광주칠석동당산제 112
구례구산리입석 115
나주용진당제 156
무안발산마을미륵당산 289
송천달집태우기 513
순천구산용수제 531
여수영당지 616
여수화산마을당제 618
영암정동정호제 645
장성생촌마을당산제 746

한양명(韓陽明) _ 안동대학교

농기 186
봉지밥 332
안동가송리동제 592
청단일 882
할배까꾸재 969

허용호(許龍鎬) _ 전남대학교

돈지할망 232
테우리신 943
하로산또 964

홍순석(洪順錫) _ 강남대학교

용인상하동할미지석제 691
이천정개산산신제 724

홍태한(洪泰漢) _ 중앙대학교

당산 203
비보 393
서울도곡동도당제 463
서울신기리도당제 473
음복 722

황경숙(黃京淑) _ 부산대학교

부산수내리고당할미당 353
우불산신사 693
장산마고당 · 천제당 743

황경순(黃慶順) _ 국립문화재연구소

당산제 209
대전계족산기우제 217
상주천봉산성황제 433

황루시(黃縷詩) _ 관동대학교

서낭신 445
영월영모전 647

황인덕(黃仁德) _ 충남대학교

부여내지리단잡기 377
홍성옹암리당산제 1006

자문위원

강성복(충남대학교)
강정식(제주대학교)
김월덕(전북대학교)
김지욱(경기문화재단)
이기태(고려사이버대학교)
이　욱(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창식(세명대학교)
장정룡(강릉원주대학교)
정상박(동아대학교)
표인주(전남대학교)

감수위원

김명자(안동대학교)
나경수(전남대학교)
이기태(고려사이버대학교)
이필영(한남대학교)
정상박(동아대학교)